발간사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삶의 풍요와 안녕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세시풍속이란 일년 열두 달 동안 좀더 풍요로운 삶, 그리고 좀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행하던 관습입니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순환에 따라 반복되는 세시풍속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세시풍속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이 생겨나는 문화에 대한 현대적인 수용을 위해서 세시풍속에 대한 정리작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새로운 문화의 창달이라는 목표아래, 그 첫 번째 결과물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세시풍속에 관한 내용을 사전으로 편찬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이제 한국세시풍속 자료를 집대성하는 데 첫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 사전은 사계절이 순환하는 세시풍속의 특성에 따라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구분되어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음력 1월인 정월의 경우는 일년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많은 풍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분권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은 앞으로 발간 예정인 봄편, 여름편, 가을편, 겨울편, 그리고 부록 및 색인편 총 6권 사전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한국세시풍속사전』의 발간을 통해 전통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시풍속자료의 집대성을 통해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세시풍속사전』은 독자의 대상을 폭넓게 생각하고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세시풍속을 널리 알리고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용 교재에서부터 연구자들의 자료로, 그리고 일반인들의 교양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사전의 원고를 집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준 『한국세시풍속사전』 편찬팀을 비롯해서 도움을 주신 우리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04년 12월

국립민속박물관장 김홍남

발간개요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의 발간은 한국 민속학의 진전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일이다. 세시풍속은 일년 열두 달을 주기로 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관습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모습까지 모두를 일컬어 말할 수 있다. 산업화와 문명화로 인해 생성 · 변화 · 소멸을 반복하는 세시풍속을 집대성하는 작업의 첫 걸음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의 발간이다.

실제로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가장 먼저 세시풍속 전공자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였고, 사전의 표제어를 위해 표제어추출 용역을 발주하였다. 2002년에는 사전편찬을 위한 연구원을 채용함으로써 사전 편찬팀의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학계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10여 차례의 자문회의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전의 명칭 및 편찬 방향, 항목설정, 표제어와 집필자 선정 등 사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였다. 또 선정된 표제어를 집필자들에게 발주함으로써 원고 수합이 이루어지고, 수합된 원고는 민속학계의 원로들로 구성된 감수위원들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전문 교정자들이 교정 및 윤문 · 교열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세시풍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들을 수집하였으며, 관내직원들을 비롯해서 외부 학자들과 연계하여 세시풍속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국의 세시풍속을 집대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첫 번째 결과물로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이 발간되었다. 정월편 사전에는 장주근(전 경기대 교수) 외 124명의 집필자들이 참여하였고 전체 595항목, 전체 원고 4,200여 매, 그리고 485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전은 크게 음력과 양력으로 구분되어 있고, 음력은 설이나 대보름과 같은 정일, 입춘이나 우수와 같은 절기, 그리고 월내와 생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양력의 경우는 공휴일이나 현대세시에 해당하는 양력세시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사전처럼 표제어를 찾아가며 자료를 열람할 수도 있고, 단행본처럼 전체 체제가 유기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내용을 찾는 것에서부터 정월 세시풍속의 전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을 첫머리로 해서 봄편, 여름편, 가을편, 겨울편, 부록 및 색인편이 출간될 예정이다.

이 사전은 일년 주기로 행해지는 세시풍속을 집대성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기록화에 이바지 그리고 사라져 가는 세시풍속의 전승 기틀을 마련하여 세시풍속의 보급과 확산에 활용 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통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축적을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이 사전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5년에 걸쳐 편찬과 간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전의 전권이 간행된 후에는 21세기 IT시대에 부응하도록 CD-ROM(또는 DVD-ROM)을 개발하고 웹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러두기

❁ 사전의 전체 구성

1. 『한국세시풍속사전』은 정월편, 계절 세시편(봄 · 여름 · 가을 · 겨울), 부록 및 색인편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월편은 일년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분권하였고, 계절 세시편의 경우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나누었다. 봄편은 음력으로 2월, 3월에 해당하고 여름편은 4월, 5월, 6월에 해당한다. 가을편은 7월, 8월, 9월에 해당하고 겨울편은 10월, 11월, 12월에 해당한다. 윤달은 겨울편에 배속시켰다. 부록 및 색인편은 마지막권으로 분류하였다.

❁ 표제어 선정 및 배열 원칙

1. 표제어 선정 범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세시풍속은 물론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만들어진 세시풍속을 표제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2. 표제어 선정 및 배열 원칙
   1) 표제어라 함은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독립 항목으로 등재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2) 표제어는 5층위로 나누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제어의 층위는 표제어의 크기와 비중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 1층위 표제어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다.
      나. 2층위 표제어는 1월, 2월, 3월……12월, 윤달 등이다.
      다. 3층위 표제어는 정일(定日), 절기(節氣), 월내, 생업, 현대세시 등에 해당하는 표제어이다. 현대세시 가운데 축제는 2000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지속된 축제만을 선별하였다.
      라. 4층위의 표제어는 정일, 절기 등 3층위 표제어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시행위를 말하며 이칭, 의례, 속신, 복식, 절식, 놀이, 구비전승 등을 말한다.
      마. 5층위 표제어는 4층위 표제어의 하위항으로 주로 지역적인 양상과 관련된 표제어이다.
   3) 각 층위 속에서의 순서는 가나다순에 따랐다.

❁ 표기방법

1. 부호와 기호
   1) 맞춤법 및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 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 에 따랐다.
      (1) 작은따옴표 ' ' :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돌릴 때 썼다. 주로 방언이나 비표준어로 나타나는 유의어를 뜻풀이할 때 표기하였다. 시의 제목이나 노래 제목에도 사용하였다. 단, 가운뎃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큰따옴표 “ ”: 직접 인용의 내용에 표기하였다.

(3) 겹낫표『 』: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4) 낫표「 」: 작품이나 책의 하위장 제목 및 논문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5) 대괄호[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할 때와 어려운 한자어를 본문에서 풀어쓰고 본디 음을 한자로 병기할 때, 그리고 ( ) 밖에 또다시 괄호를 넣어줘야 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6) 소괄호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표기하였다.

(7) 줄임표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8) 가운뎃점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할 때, 그리고 특정의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표기하였다.

(9) 온점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표기하였다. 직접 인용문의 경우에는 문장을 마칠 때 표기하였다.

(10) 물결표 ~: ‘내지’ 라는 뜻을 나타낼 때와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표기하였다.

2) 한자와 한자어의 표기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쓰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에는 현실음에 따른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원음대로 표기하고 가급적 외래어와 외국어의 표기를 피했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할 수 있다.

5) 도량형·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의한 부호를 우리말로 썼다.

2. 용어 및 인명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단, 표기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용어는 관련 학술기관의 용례집에 따르고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3. 자료

도표, 사진, 삽화, 지도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를 밝혔다.

❁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권말에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차 례

발간사 ····· 02
발간개요 ····· 03
일러두기 ····· 04

Ⅰ. 일월(一月) ····· 14

1월(正月) ····· 16
이칭 단월(端月) ····· 21
맹양(孟陽) ····· 21
맹추(孟陬) ····· 22
맹춘(孟春) ····· 22
발세(發歲) ····· 22
발춘(發春) ····· 22
방세(芳歲) ····· 23
수세(首歲) ····· 23
신원(新元) ····· 23
원월(元月) ····· 23
원정(元正) ····· 23
월정(月正) ····· 24
이단(履端) ····· 24
이원(履元) ····· 24
인월(寅月) ····· 24
정월(正月) ····· 24
조세(肇歲) ····· 25
청양(靑陽) ····· 25
초세(初歲) ····· 25
초춘(初春) ····· 25
추월(陬月) ····· 26
탁금(鐸金) ····· 26
태양(泰陽) ····· 26
태월(泰月) ····· 26
태주(太簇) ····· 27
헌세(獻歲) ····· 27
화세(華歲) ····· 27

Ⅱ. 정일(正日) ····· 28

설 ····· 30
이칭 구정(舊正) ····· 37
민속의 날(民俗—) ····· 38
삼원(三元) ····· 38
세수(歲首) ····· 39
신일(愼日) ····· 39
연두(年頭) ····· 40
연수(年首) ····· 40
연시(年始) ····· 40
원단(元旦) ····· 40
원신(元辰) ····· 41
원일(元日) ····· 41
원조(元朝) ····· 41
정조(正朝) ····· 42
의례 개시(開市) ····· 42
권농윤음(勸農綸音) ····· 42
덕담(德談) ····· 43
도배(都拜) ····· 43
망궐례(望闕禮) ····· 45
문안비(問安婢) ····· 45
상치세전(尙齒歲典) ····· 46
설성묘(—省墓) ····· 46
설절사(—節祀) ····· 47
설차례(—茶禮) ····· 48
세배(歲拜) ····· 53
세수사물(歲首賜物) ····· 54
세함(歲銜) ····· 54
연상시(延祥詩) ····· 55
일월신에게 절하기(日月神—) ····· 56
정조조하(正朝朝賀) ····· 56
정조하례(正朝賀禮) ····· 56
파조(罷朝) ····· 57
속신 도깨비불점 ····· 57
드는 환갑쇠기 ····· 59
똥도둑질 ····· 59
마고할미쫓기(麻姑—) ····· 59
문배(門排) ····· 60
법고(法鼓) ····· 61
복조리(福笊籬) ····· 62
복주머니[福囊] ····· 62
세화(歲畵) ····· 63
소코뚜레걸기 ····· 65
수수깡장식 ····· 66
시주(施主) ····· 66

야광귀쫓기(夜光鬼—) …… 66
원일소발(元日燒髮) …… 67
청참(聽讖) …… 67
복식 설빔 …… 68
세장(歲裝, 歲粧) …… 70
절식 가래떡 …… 70
강정(羌釘) …… 71
도소주(屠蘇酒) …… 72
떡국 …… 72
만두국(饅頭—) …… 73
생떡국 …… 74
세주(歲酒) …… 75
세찬(歲饌) …… 76
수정과(水正果) …… 78
조랭이떡국 …… 78
구비전승 떡타령(—打令) …… 79
꿩 대신 닭 …… 80
남의 떡에 설 쉰다 …… 80
보리누름까지 세배한다 …… 81
설날에 옴 오르듯 …… 81
설 쉰 무 …… 81
설에도 부모를 모르다니 …… 81
설은 질어야 풍년이고
보름은 맑아야 풍년이다 …… 81
설을 거꾸로 쇘다 …… 82
정월 초하룻날 먹어보면
이월 초하룻날 또 먹으려 한다 …… 82
처가집 세배는 앵두꽃을
꺾어 가지고 간다 …… 82

정초십이지일(正初十二支日) …… 82
이칭 모충일(毛蟲日) …… 86
무모일(無毛日) …… 86
유모일(有毛日) …… 86
짐승날 …… 86
털날 …… 86

상자일(上子日) …… 87
이칭 쥐날 …… 88
첫쥐날 …… 88

상축일(上丑日) …… 88
이칭 소날 …… 88
첫소날 …… 89

상인일(上寅日) …… 89
이칭 범날 …… 89
첫호랑이날 …… 89
호랑이날 …… 89

상묘일(上卯日) …… 89
이칭 첫토끼날 …… 91
토끼날 …… 91

상진일(上辰日) …… 91
이칭 용날 …… 91
첫용날 …… 91

상사일(上巳日) …… 92
이칭 뱀날 …… 93
첫뱀날 …… 93

상오일(上午日) …… 93
이칭 말날 …… 94
첫말날 …… 94

상미일(上未日) …… 94
이칭 양날 …… 94
염소날 …… 94
첫염소날 …… 94

상신일(上申日) …… 94
이칭 원숭이날 …… 95
첫원숭이날 …… 95

상유일(上酉日) …… 95
이칭 닭날 …… 96
첫닭날 …… 96

상술일(上戌日) …… 96
이칭 개날 …… 96
첫개날 …… 97

상해일(上亥日) …… 97

차 례

이칭 돼지날 …… 97
첫돼지날 …… 97

인동토일(人動土日) …… 97
이칭 인동티일 …… 98

삼패일(三敗日) …… 98

조금일[潮減日] …… 98
이칭 조감일(潮減日) …… 98

사람날 …… 98
이칭 인일(人日) …… 100
칠인팔곡(七人八穀) …… 100
의례 인일제(人日製) …… 100
인일하례(人日賀禮) …… 101

곡식날(穀食—) …… 102
이칭 곡일(穀日) …… 103

패일(敗日) …… 103

춘일(春日) …… 103
이칭 봄날 …… 104

부인날[婦人日] …… 104

작은보름 …… 105
이칭 누더름날 …… 105
하일(夏日) …… 105

대보름 …… 105
이칭 상원(上元) …… 113
소망(小望) …… 114
오기일(烏忌日) …… 114
정월대보름 …… 115
추일(秋日) …… 115
의례 걸궁(乞窮) …… 115
걸립(乞粒) …… 115
고사반(告祀盤) …… 115
고사풀이(告祀—) …… 115
낟가릿대세우기 …… 115
내농작(內農作) …… 115
달끄슬리기 …… 115
달불태우기 …… 115
달집태우기 …… 115
도간(稻竿) …… 119
동래지신밟기(東萊地神—) …… 119
동화(洞火) …… 119
마당밟기 …… 119
모심기놀이 …… 119
모의타작하기(模擬打作—) …… 120
볏가릿대세우기 …… 120
보름차례 …… 125
보리타작 …… 126
보릿대세우기 …… 127
수숫대세우기 …… 127
승주달집태우기(昇州—) …… 127
유지지 …… 128
주살맥이 …… 128
지신밟기(地神—) …… 128
천왕메기(天王—) …… 131
청양정산동화제(靑陽定山洞火祭) …… 133
해동화(解凍火, 解凍禍) …… 134
화간(禾竿) …… 134
화반(花盤) …… 134
화적(禾積) …… 135
속신 가랫불놓기 …… 135
가마니놓기 …… 135
가수(嫁樹) …… 135
개필홈치기 …… 135
걸탄거두기 …… 135
걸판거두기 …… 136
고래실봉답윷놀이 …… 136
과일나무가지에 돌끼우기 …… 136
귀밝이술 …… 136
기세우기(旗—) …… 138
까마귀밥주기 …… 138
까치밥주기 …… 138
꼬막먹기 …… 139
꿩알줍기 …… 140
나무그림자점 …… 140
나무시집보내기 …… 141
나무 아홉 짐하고 밥 아홉 번 먹기 …… 141

나무장가보내기 …… 142
나무조룽버리기 …… 142
낙화놀이(落火ㅡ) …… 142
노간주나무태우기 …… 143
노래기침주기 …… 144
노용란(撈龍卵) …… 145
노적쌈(露積ㅡ) …… 145
다래끼빠치기 …… 145
다리놓기 …… 145
다리밟기 …… 145
달맞이 …… 146
달불이[月滋] …… 147
달윷놀이 …… 148
달점[月占] …… 148
답교(踏橋) …… 148
댓불놓기 …… 148
더위팔기 …… 149
도구통핥기 …… 150
도끼로 나무흠집내기 …… 150
도채비방쉬 …… 150
돌노적(ㅡ露積) …… 150
동새벽보기 …… 151
두더지방아 …… 152
두부먹기 …… 153
등거리입기 …… 153
디딜방아훔치기 …… 153
땔나무훔치기 …… 154
떡점 …… 154
망울불넘기 …… 154
망월(望月) …… 155
매서(賣署) …… 155
매성이심기 …… 155
메점 …… 155
명공드리기(命功ㅡ) …… 155
모깃불놓기 …… 156
모돔떡점 …… 157
목사리 …… 157
목서리 …… 157
목영점(木影占) …… 158
목화불신수 …… 158
뫼점 …… 158
무국 …… 158
무먹기 …… 158
무명실선물하기 …… 158
무밴장국먹기 …… 159
밥점 …… 159
방쉬 …… 159
방애아래흙 …… 159
밭귀에 곡식묻기 …… 160
백가반(百家飯) …… 160
뱀치기 …… 161
복쌈(福ㅡ) …… 161
복토훔치기(福土ㅡ) …… 162
부럼깨기 …… 164
부스럼깨물기 …… 165
북문외유(北門外遊) …… 165
불쏘시개점 …… 165
사발재점 …… 165
산애기간질 …… 166
상낭태우기 …… 166
새삼볶기 …… 166
새알뜨기 …… 166
새쫓기 …… 166
생선온마리먹기 …… 167
설떡먹기 …… 167
소공경하기 …… 168
소돌걸기 …… 168
소밤참주기 …… 169
소밥주기 …… 169
소위하기 …… 169
솔방울던지기 …… 170
수복수(壽福水) …… 170
숯점 …… 170
시루번먹기 …… 170
시룻번먹기 …… 171
시절윷놀이 …… 171
식구불켜기(食口ㅡ) …… 171
실공드리기[絲功ㅡ] …… 172
실불점 …… 172
실점[絲占] …… 172
아궁이에 불때기 …… 172
아홉 번 행동하기 …… 173
애기타오기 …… 173
액막이연[厄鳶] …… 173

차 례

야회(夜會) …… 174
어부슴 …… 175
어부시(魚鳧施) …… 176
얼음점[氷占] …… 176
엄나무걸기 …… 177
영월(迎月) …… 178
오쟁이놓기 …… 178
옷동정버리기 …… 178
외양간에 돌걸기 …… 178
용알뜨기(龍—) …… 178
우물밝히기 …… 179
유롱주(牖聾酒) …… 180
윷점[柶占] …… 180
이명주(耳明酒) …… 182
이총주(耳聰酒) …… 182
작절(嚼癤) …… 182
잣불점 …… 182
잰부닥불넘기 …… 182
적선(積善) …… 182
제웅치기[打芻戱] …… 183
지붕에 깃대꽂기 …… 184
지붕에 버선붙이기 …… 185
직성보기(直星—) …… 185
집불이[戶滋] …… 187
짚불점 …… 187
차사액막이(差使厄—) …… 188
창명축조(唱名逐鳥) …… 188
청어온마리먹기(靑魚—) …… 188
쳇밥 …… 188
치롱주(治聾酒) …… 188
콩볶기 …… 188
콩점[豆占] …… 189
키점[箕占] …… 189
터구렁이위하기 …… 190
텃밥 …… 190
팔랑개비꽂기 …… 191
팔랑개비점 …… 191
해의밥빠치기(海衣—) …… 191
호리병박버리기 …… 192
화재막이(火災—) …… 192
환 그려붙이기 …… 193

절식

묵은나물 …… 193
보름밥 …… 194
섬만두 …… 194
약밥[藥飯] …… 195
오곡밥[五穀飯] …… 195
원소병(圓小餠, 元宵餠) …… 197
진채(陳菜) …… 197

놀이

가산오광대(駕山五廣大) …… 197
감내게줄당기기 …… 200
강다리 …… 201
거전(炬戰) …… 203
고고매(姑姑妹, 苦苦妹) …… 203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 …… 203
고싸움놀이 …… 205
관원놀이(官員—) …… 207
기세배(旗歲拜) …… 207
기싸움(旗—) …… 209
기와밟기 …… 209
나무쇠싸움 …… 210
남해선구줄꿋기(南海仙區—) …… 210
놋다리밟기 …… 212
달봉뛰기 …… 212
돈치기 …… 212
돌팔매 …… 213
동래들놀음(東萊—) …… 213
동래야류(東萊野遊) …… 213
동래줄다리기(東萊—) …… 215
동채싸움 …… 217
밀양법흥상원놀이(密陽法興上元—) … 217
박시놀이[搏手—] …… 217
방놀이 …… 218
방실놀이 …… 218
병신굿놀이(病身—) …… 219
봉죽놀이(奉竹—) …… 220
북청사자놀음(北靑獅子—) …… 221
사자놀이(獅子—) …… 223
삼척기줄다리기(三陟—) …… 224
생율놀이 …… 226
석전(石戰) …… 226
송파다리밟기(松坡—) …… 228
송파답교놀이(松坡踏橋—) …… 229
수영들놀음(水營—) …… 229
수영야류(水營野遊) …… 229

안동놋다리밟기(安東—) …… 232
안동차전놀이(安東車戰—) …… 233
엽전치기(葉錢—) …… 236
영광줄다리기(靈光—) …… 236
영산쇠머리대기(靈山—) …… 237
영산줄다리기(靈山—) …… 240
외바퀴수레싸움[獨輪車—] …… 241
용마놀이(龍馬—) …… 241
용마희(龍馬戱) …… 242
용인용줄다리기(龍仁龍—) …… 242
용호놀이(龍虎—) …… 243
월월이청청 …… 244
의령큰줄댕기기(宜寧—) …… 246
의성기와밟기(義城—) …… 247
익산기세배(益山旗歲拜) …… 248
줄다리기 …… 249
줄땡기기 …… 253
쥐불놀이 …… 253
진주오광대(晉州五廣大) …… 254
차전놀이(車戰—) …… 255
춘천차전놀이(春川車戰—) …… 255
타전희(打錢戱) …… 257
토성관원놀이(土城官員—) …… 257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 …… 259
팔랑개비돌리기 …… 262
편전(便戰) …… 262
하회별신굿탈놀이(河回別神—) …… 262
횃불싸움 …… 264
회회아(回回兒) …… 265
구비전승 기와밟기노래 …… 265
안동놋다리밟기노래(安東—) …… 267
월월이청청노래 …… 268
줄꼬는소리 …… 271
줄메고가는소리 …… 271
줄메는소리 …… 271
지신밟는소리(地神—) …… 272
개 보름 쇠듯 …… 274
보름에 팥밥 할 놈이 나왔다 …… 274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 274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 …… 275
정월 대보름날 귀머리장군
연 떠나가듯 …… 275

귀신날(鬼神—) …… 275
이칭 동일(冬日) …… 277
속신 귀신불놓기(鬼神—) …… 277
뽕나무재태우기 …… 278

수수달기(수수날) …… 279

마디좀 …… 279

Ⅲ. 절기(節氣) …… 280

입춘(立春) …… 282
이칭 재봉춘(再逢春) …… 285
의례 목우놀이(木牛—) …… 285
목우희(木牛戱) …… 285
입춘굿(立春—) …… 287
입춘하례(立春賀禮) …… 288
총아·산개·승검초 진상
[葱芽·山芥·辛甘草 進上] …… 288
속신 맥근점(麥根占) …… 288
보리뿌리점 …… 289
입춘첩(立春帖) …… 289
입춘축(立春祝) …… 289
입춘치(立春—) …… 291
푸는체점 …… 291
절식 명태순대(明太—) …… 292
오신채(五辛菜) …… 292
구비전승 가게 기둥에 입춘이라 …… 293
이월에 물독 터진다 …… 293
입춘 거꾸로 붙였나 …… 293
입춘에 장독(오줌독) 깨진다 …… 294
입춘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 294

우수(雨水) …… 294
구비전승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 294
우수 뒤의 얼음같이 …… 295

차 례

IV. 월내(月內) …… 296

의례

갯제(一祭) …… 298
거리제(一祭) …… 298
고청제(告淸祭, 告請祭) …… 301
골맥이제(一祭) …… 302
공주탄천장승제(公州灘川長丞祭) …… 303
기고사(旗告祀) …… 305
기곡제(祈穀祭) …… 305
남해안별신굿(南海岸別神一) …… 307
납읍리마을제(納邑里一祭) …… 309
당굿(堂一) …… 311
당산제(堂山祭) …… 312
당제(堂祭) …… 312
당진안섬당제(唐津一堂祭) …… 315
대산귀(大山鬼) …… 317
도가제(都家祭) …… 317
도깨비제(一祭) …… 318
도당굿(都堂一) …… 319
동해안별신굿(東海岸別神一) …… 321
멩감제[命監祭] …… 322
문전제(門前祭) …… 323
문전철갈이(門前一) …… 324
미륵제(彌勒祭) …… 325
뱃고사(一告祀) …… 326
벅수제(一祭) …… 327
별고사(別告祀) …… 327
보성당촌별신당제
(寶城堂村別神堂祭) …… 328
본향당굿(本鄕堂一) …… 330
부군당제(府君堂祭) …… 331
불막이제(一祭) …… 334
산신멩감[山神命監] …… 336
산신제(山神祭) …… 337
산천제(山川祭) …… 339
서낭제(一祭) …… 340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西海岸一) … 342
서해안풍어제(西海岸豊漁祭) …… 344
성주고사(城主告祀) …… 344
성황제(城隍祭) …… 346
솟대제(一祭) …… 346
송당리마을제(松堂里一祭) …… 347
순천구산용수제(順天龜山龍水祭) …… 349
신과세제(新過歲祭) …… 351
안택(安宅) …… 352
여제(厲祭) …… 354
연등회(燃燈會) …… 355
오방제(五方祭) …… 356
오티별신제[五峙別神祭] …… 358
완도장좌리당제(莞島長佐里堂祭) …… 360
용왕제(龍王祭) …… 363
용이 …… 364
원구단천제(圓丘壇天祭) …… 365
위도띠뱃놀이(蝟島一) …… 367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 369
장동산디마을탑제(長洞一塔祭) …… 372
장승제(長丞祭) …… 374
정제(井祭) …… 375
조왕고사(竈王告祀) …… 377
조왕제(竈王祭) …… 379
종묘대제(宗廟大祭) …… 379
짐대제(一祭) …… 384
짬고사(一告祀) …… 384
천제(天祭) …… 385
친경례(親耕禮) …… 386
칠성고사(七星告祀) …… 388
탑제(塔祭) …… 389
터주고사(一告祀) …… 391
포제(酺祭) …… 392
풍사제(風師祭) …… 394
해신제(海神祭) …… 395
황도붕기풍어제(黃島鵬旗豊漁祭) …… 396

속신

곡식걸기(穀食一) …… 398
날씨점 …… 399
대명(代命) …… 400
동물점(動物占) …… 400
득신(得辛) …… 401
박쥐날리기 …… 401
뱀입춘 …… 401
복엿먹기(福一) …… 402
삼재막이(三災一) …… 402
소지점(燒紙占) …… 406
신수점(身數占) …… 406
오행점(五行占) …… 407

천간점(天干占) …… 408
토정비결(土亭秘訣) …… 408
파래점 …… 409
놀이 골패(骨牌)…… 409
꼬대각시놀리기 …… 411
남승도놀이(覽勝圖—) …… 411
널뛰기 …… 411
승경도놀이(陞卿圖—) …… 413
승람도놀이(勝覽圖—) …… 415
쌍륙(雙六) …… 416
연날리기(鳶—) …… 418
윷놀이 …… 421
장치기(杖—) …… 424
종경도놀이(從卿圖—) …… 426
척사희(擲柶戱) …… 426
투전(鬪牋) …… 426
투호(投壺) …… 427
화투(花鬪) …… 428
구비전승 굴부르는소리 …… 429
널뛰는소리 …… 430
윷놀이하는소리 …… 431
정월 지난 무에 삼십 넘은 여자 …… 432
정이월 높새바람에는
바위 끝에 눈물난다 …… 432
정이월에 대독 터진다 …… 432
정초에 거름질 놈 …… 432
첫 정월에 나는 버섯은
먹지도 못한다 …… 433
초정월 바람결에
검은 암소 뿔이 휜다 …… 433
초정월에 비가 오면 어부가 운다 …… 433

V. 생업(生業) …… 434

농업 거름내기 …… 436
농기수리(農器修理) …… 438
두레짜기 …… 439
머슴들이기 …… 440
보리밟기 …… 440
소줄꼬기 …… 441
씨앗고르기 …… 441
어업 굴채취 …… 441
김채취 …… 442
동태바리(凍太—) …… 445
맘채취 …… 445
매역새뜯기 …… 445
명태잡이(明太—) …… 445
모자반채취 …… 446
문어잡이(文魚—) …… 446
미역채취 …… 447
볼락잡이 …… 448
뽈락잡이 …… 449
상어잡이 …… 449
올림이건지기 …… 449
진저리채취 …… 449
파래채취 …… 450
풍조채취(風藻採取) …… 451
해삼잡이(海蔘—) …… 451
해초제거작업(海草除去作業) …… 452
잡사 도화주빚기(桃花酒—) …… 452
삼해주빚기(三亥酒—) …… 454
소국주밑하기(小麴酒—) …… 455
약산춘빚기(藥山春—) …… 456
이화주빚기(梨花酒—) …… 457

VI. 양력세시 …… 460

공휴일 1월 1일 …… 462
속신 양력 설날 콩볶아먹기 …… 462
양력세시 양력설(陽曆—) …… 462
시무식(始務式) …… 464
연하장(年賀狀) …… 464

색인 …… 466



지리산 일출 이창수

1월[正月]

역(曆)과 정월 우리나라에는 춘하추동 4계절이 있어 예로부터 선조들은 이 계절에 맞추어 살아왔다. 이것을 자연력(自然曆)이라고 한다. 선조들은 교체와 순환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왔다. 농민들은 밤낮의 구분이나 달의 영휴(盈虧, 달의 가득참과 이지러짐)를 신앙과 결부시켜 생활의 활력소로 만들기도 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더위와 추위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면이 발전했으며, 생활 방식의 질서가 잡히고 생활 궤도와 생활 양식의 기초가 쌓여왔다.

역법(曆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에 준하여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곧 태음력(太陰曆)이며, 농경생활에 알맞은 24절기가 생겨났다. 절기에 맞추어 미리 농사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절기는 매년 되풀이되며 농경생활에도 일정한 리듬을 불어넣어 농민들의 활력소가 되었다. 이를테면, 하루는 태양에 의해 움직이고 한달은 달에 의해 정하며, 일년은 태양의 계절적인 순환과 달의 영휴에 근거한 12개월이란 절충에 의해 정해졌다. 여기서 달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생각할 때 등불이 생기기 이전의 달빛의 밝음과 어둠이 농경생활에 얼마나 중요했던가는 충분히 짐작이 된다.

1월은 일년이 시작하는 달이며 가장 중요한 달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과 같이 시작하는 달은 그만큼 중요하다. 계절적으로도 봄이 시작되는 달이며 본격적인 농경을 위해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설과 대보름,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 중 설과 대보름의 의례가 1월에 있고, 그 밖에 크고 작은 의례가 정월에 집중되어 있다. 1월을 정월(正月)이라 하는 이유도 첫 달을 올바르게 지내야 일년을 무사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설과 대보름 대표적인 큰 명절로 설과 대보름을 들 수 있다. 설은 차례와 세배로 이어지는 가족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대보름은 동제와 규모가 큰 대동놀이와 같은 집단 공동체 의례의 성격이 짙다. 1월은 한마디로 조상 숭배 · 기복(祈福) · 기풍(祈豊) · 점복(占卜) · 동제(洞祭) · 놀이 등으로 축약될 수 있다. 정월에는 시작하는 달이 길(吉)하면 일년 동안의 일이 길(吉)하다 하여 갖가지 주술적인 행위가 벌어지는데, 토정비결은 그 대표적인 점술이다. 개인 건강을 위해서도 다양한 주술이 행해진다. 머지않아 농사철이 가까워지면 눈코 뜰새 없이 바빠지기 때문에 정월은 조상 숭배의 달, 심신을 단련하는 달, 농경을 준비하는 달로 공동체의 화목 단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의례와 놀이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대보름에도 집중적으로 놀이가 행해진다. 일년의 세시풍속을 쓸 때 정월을 기술하면 거의 반을 차지하리만큼 정월에 집중되어 있다.

1월 1일 즉 정월 첫날을 일컬어 설날이라고 한다. 연수(年首)·세수(歲首)·원단(元旦)이라고 하는데 보통 '설'이라고 부른다. 연수나 세수, 원단은 모두 그 해의 첫날이란 뜻인데 설날이란 명칭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하다. 설은 한자로 신일(愼日)이라고 쓰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는 날이라는 학설이 있다. 여기에 비해 '낯설다'의 '설다'에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한다. 처음 겪거나 맞닥뜨리는 대상은 그것이 사람이든 연장이든 장소든 시간이든 모두 낯설기 마련이다. 첫경험의 낯설음을 통해서 '시작의 시간' 설은 세시의 최초 의례로서 통과의례적 구실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학설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설은 해갈음이니 나이란 뜻도 있고 새롭다는 의미도 있다. 설은 엄격히 따지면, 섣달 그믐 밤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섣달 그믐을 작은설이라 하여 이날 묵은세배를 하는 풍속도 있다.

설날에는 차례(茶禮)를 지낸다. 설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정조차례(正朝茶禮)'라고 한다. 4대 조상까지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5대조 이상은 신주를 각기 분묘 옆에 묻어 집에서는 지내지 않고 10월 시제(時祭) 때에 제사를 지낸다.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내지만 정조차례는 매우 중요하다. 원래는 조상 제례와 깊은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조상 제례가 확립되기 이전부터 곡식을 수확하는 농경민에게는 곡령(穀靈)에게 경배하는 풍속이 있었다.

차례가 끝나면 모든 가족들은 자리를 정리해 앉는다. 이 때 윗사람에게 차례로 세배를 한다. 집안 어른들에게 하는 세배가 끝나면 동네 어른들에게도 세배를 한다. 설날에 하는 인사가 세배라고 하는 이유는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예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설날의 인사는 보통 때와 달리 주술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일년 동안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세배나 덕담은 언어주술적인 기능이 있어서 기복(祈福)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복에 해당하는 행위는 1월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른 새벽에 복조리를 사서 달기도 하고 정월말이나 입춘에는 대개의 가정에서 입춘축을 써서 기둥과 벽에 붙인다. 또 설날 대문에 갑옷을 입은 장군이나 종규(鐘馗, 중국에서 역귀나 마귀를 쫓는다는 신) 그림을 붙이기도 한다. 또한 삼재(三災)를 없애기 위해 세 마리의 매를 그려 붙이기도 한다. 설날 저녁이면 소발(燒髮)하는 풍속이 있고 야광귀(夜光鬼) 쫓기 같은 풍속도 있었다. 그리고 14일 저녁이면 제웅이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개천에 떠내려가게 한다. 또 같은 14일 밤에는 도액(度厄, 액막이)을 하는 수가 있는데 팥을 가지고 자기 나이 수대로 묻으며 주언(呪言)을 하면 그 해에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다. 15일 상원날 아침에 부럼을 깨는 것이나 귀밝이술을 마시고 약식을 만들어 먹거나 그 무렵에 다리밟기를 하고 또는 지신밟기를 하는 것 모두 기복의 범주에 속한다.

십이지일(十二支日) 1월에는 하루도 빠짐 없이 의식이나 놀이가 행해진다. 그만큼 정월은 중요한 달이다. 십이지일은 정월에 들어 첫째 자일(子日)을 상자일(上子日)이라 하는데, 이는 곧 '쥐날'이다. 이와 같이 상해일(上亥日)까지 12일을 각각 띠로 해석하여 금기와 속신을 지킨다. 즉 쥐날에는 쥐불놀이를 통하여 들과 논밭 두렁을 태워 해충을 없애기도 한다. 축일(丑日)은 '소날', 즉 상축일(上丑日)인데 소 돌보는 날이며 이 날 하루는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쇠죽에 콩을 많이 넣어 먹인다. 인일(寅日)은 '범날', 상인일(上寅日)로 이 날은 남과 서로 왕래를 삼가며 특히 여자는 외출을 삼간다. 묘일(卯日)은 '토끼날', 상묘일(上卯日)로 남자가 먼저 일어나서 대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장수를 비는 날이기도 하다. 진일(辰日)은 '용날', 상진일(上辰日)로 부녀자들이 남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온다. 사일(巳日)은 '뱀날', 상사일(上巳日)로 남녀 모두 머리를 빗거나 깎지 않는다. 오일(午日)은 '말날', 상오일(上午日)인데 말 고사를 지내거나 장을 담근다. 미일(未日)은 '염소날', 상미일(上未日)인데 양은 걸음걸이가 방정맞다 하여 어촌에서는 출항을 하지 않는다. 신일(申日)은 '원숭이날', 상신일(上申日)인데 일손을 쉬고 놀며 특히 칼질을 하지 않는다. 유일(酉日)은 '닭날', 상유일(上酉日)인데 부녀자의 바느질을 금하는 날이다. 술일(戌日)은 '개날', 상술일(上戌日)인데 일손을 쉬고 논다. 해일(亥日)은 '돼지날', 상해일(上亥日)인데 얼굴이 검거나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왕겨나 콩깍지로 얼굴을 문지르면 살결이 희고 고와진다고 한다.

십이지일은 금기와 동시에 이제 곧 농사일이 바

빠질 테니 안정을 취하라는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정월 7일은 '인일(人日)'이라 하여 외박을 하지 않는다. 이 날 손님이 와서 묵고 가면 그 해는 불운이 든다고 한다. 또 정월 16일은 '귀신날'이라고 한다. 이 날에 외출을 하면 귀신이 붙는다고 해서 삼간다. 16일에 일을 하면 가을에 까치가 목화를 모두 쪼아 버린다고 해서 '까치날'이라 부르기도 한다.

입춘(立春) 입춘일은 천세력에 정해져 있고, 연초인 경우가 많다. 입춘은 24절기 중의 하나인데 봄으로 접어드는 절기이다. 입춘일에는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각 가정마다 대문 기둥이나 대들보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이며, 이를 '춘축(春祝)'이라고 한다.

점복(占卜) 1월은 농경민들이 풍요를 비는 달이기도 하다. 새해 들어 첫 축일[上丑日]은 '소날'이라 하여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콩·보리·나물들을 삶아 먹인다. 즉, 이와 같이 소를 위함으로써 기운을 내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기풍(祈豊)의식이 담겨 있다. 1월에 들어 있는 농어민들의 기풍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정월 8일은 '곡식날(穀日)'이라 하는데 이날 춘파(春播)할 준비를 하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또 설날부터 상원까지는 곡식을 문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만일 어기면 작물에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14일은 '누더름날'이라 하는데 이는 늦여름이란 뜻이다. 정월 13일은 봄, 14일은 여름, 15일은 가을, 16일은 겨울로 상징하여 이날에는 많은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14일은 '낟가릿대' 또는 '볏가릿대'라 하는 화간(禾竿)을 세운다. 이것도 기풍행위에 해당한다. 상원날에는 복쌈을 먹는데 밥을 김이나 취에 싸서 여러 개를 먹으면 그 수만큼 노적을 이루게 되어 풍작을 거둔다고 한다. 상원날에는 '나무 시집보내기'라 하여 '가수(嫁樹)'를 하는데 과목(果木)의 가지 사이에 돌을 얹어놓는다. 과일이 많이 맺히라는 기원에서 이런 풍속이 생겨났다. 어촌에서는 정월 초에 가정에서 성주를 모시고 뱃고사를 지낸다.

이 밖에 1월에는 일년의 신수를 본다. 토정비결을 비롯한 많은 농점(農占)이 있다. 입춘날 보리를 뽑아 그 뿌리의 상태로 풍흉을 점친다. 즉 뿌리가 셋이면 풍작, 둘이면 평년작, 하나면 흉작이라고 여겼다. 또 물을 담은 종지나 작은 그릇을 두고 안에 콩을 넣어 이튿날 콩의 불어난 상태를 보고 그해 농사를 점치기도 한다. 상원날 저녁에는 달맞이를 하는데 달의 형체나 빛깔을 보고 점치기도 하고 상원날 새벽에는 닭울음소리로 그 해를 점치기도 한다. 또한 윷놀이의 승패로 그 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단순한 놀이지만 상원날을 중심으로 한 것은 모두가 기풍과 기복을 위한 주술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속신(俗信) 1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각 마을마다 동제를 지낸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당산제, 장승제, 부군당제, 도당제, 당제, 골메기동신제, 포제, 본향당제, 산신제, 서낭제, 별신제 등 명칭은 다양하고, 제의 내용도 다양하지만 보통 독축을 중심으로 한 유교식 제의절차에 따른 제사형의 마을신앙, 유교식 제의 절차를 따르면서도 음악과 춤, 그리고 극 등을 통해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풍물굿형과 무당굿형의 마을신앙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특히 용왕제는 풍어를 기원하는 해안지역의 풍속으로 주로 대보름에 행해진다. 전남에서는 여성들에 의해 용왕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배를 가지고 있는 각 가정에서는 별도의 제상을 갖추어 배에 가서 뱃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배가 일년 동안 무사히 운항하기를 빌며, 풍어를 기원한다.

이 무렵 마을 수호신의 기능을 하는 장승과 솟대를 세우기도 한다. 솟대는 거릿대·연신대·별신대·갯대·액맥이대·짐대·수살대·오릿대 등으로 불린다. 이는 신간(神竿)의 역할을 하며, 그 기원은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등에 보이는 소도(蘇塗)의 유습이라는 견해와 우리나라 서낭신과 관련이 깊은 몽고의 오보에서 왔다는 견해가 있다. 장승은 명칭도 다르게 나타난다. 중부 지방에서는 '장승', 제주도에서는 '하르방', 남해안 지방에서는 '벅수'라고 부르며 재질은 돌이나 나무의 두 종류이다. 이와 같이 장승과 솟대들이 종교적인 목적이나 마을공동체에서 연례적으로 많이 세워진다.

놀이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놀이로 '달집태우기'가 있다. 달맞이와 연계되어 쥐불놀이, 횃불싸움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놀이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마을의 청장년들이 주축이 되어 짚을 모으고 생솔이나 생대를 가져다가 마을 공터에 원추형의 달집을 만들어 놓고, 14일 밤 달이 떠오를 때를 기다려 함성

을 지르면서 불을 지른다. 그리고 농악대의 청년들이 각 가정에 지신밟기를 해준다. 보름달은 풍요의 상징이고 불은 모든 부정과 사악을 불살라버리는 정화의 상징이다. 따라서 보름날의 달집태우기는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보름날의 신명나는 집단놀이로는 줄다리기, 고싸움, 나무쇠싸움(영산쇠머리대기), 차전놀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횃불싸움과 석전(石戰) 등이 있었다. 줄다리기는 당산제와 같은 마을 제사를 지낸 뒤인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민속놀이이다. 고싸움놀이는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옻돌마을에서 해마다 정월 초순경에 시작되어 15일에 그 절정을 이루고 2월 초하룻날에 끝을 맺는 놀이이다. 나무쇠싸움은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영취산과 함박산의 산세가 영산읍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소가 서로 겨루는 형상을 하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두 산의 산살(山煞)을 풀어주기 위해 나무쇠모양을 만들고 싸움을 시키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안동 차전놀이도 놀이편의 편성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놀이이다. 이 밖에도 액연날리기, 축귀놀이 등이 있다. 호남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에 있는 잡귀를 몰아내는 축귀놀이와 외부로부터의 잡귀의 침입을 막는 액막이놀이가 있다. 이들 놀이는 전승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

금기(禁忌) 정월 한 달 동안에는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의 출납을 비롯한 행동을 삼가는 행위들이 많다. 세시기류(歲時記類)에 나타난 금기들은 대개 정월 초하루 설날과 대보름에, 월내의 금기는 정초 십이지일(十二支日)·유모일(有毛日), 무모일(無毛日)·인날(人日)·귀신날 등에 집중되어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사금갑조(射琴匣條)에 의하면 매년 첫 해일(亥日)·첫 자일(子日)·첫 오일(午日) 등에는 온갖 일을 꺼리며 조심하여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정초 십이지일에는 십이지 동물에 해당되는 날에는 금기사항을 지키는 풍습이 남아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월내(月內) 항목에는 정월에 삼가고 꺼리는 풍속이 좀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모충일(毛蟲日) 즉, 십이지 동물 중에서 털이 있는 짐승의 날에는 모충들의 번성하는 솜털의 뜻을 취하여 상업의 번창을 바라며 인일(寅日)에 시전(市廛)들이 문을 연다. 8일은 패일(敗日)이라고 하며, 이 날 남자들은 외출을 하지 않는다. 고려 풍속에 매월 8일에는 부녀자들이 성 안팎으로 돌아다니므로 남자들이 집에 있으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 풍속이 이 날 외출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날로 여기게 된 것이라 소개되어 있다. 또한 16일은 대체로 활동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기일(忌日: 꺼리는 날)로 여긴다.

정초 외에도 매달 꺼리는 날이 있다. 상현일(上弦日)과 하현일(下弦日)을 조금일(潮減日)이라 하는데, 인가에서 꺼리는 일이 있는 때는 반드시 이 날이 지나서야 서로 내왕하고, 사람들 중 꺼리는 사람과도 이 날이 지나서야 만난다. 또 5일·14일·23일을 삼패일(三敗日)이라 한다. 고려 풍속에 이 세 날로써 임금의 소용일(所用日)로 삼았으므로 백성들은 그 날을 이용하지 않고 기일로 삼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그 밖의 금기사항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언술을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다. 이들 정월의 금기와 관련된 언술은 점차 후대에 이르면서 내용과 의미가 첨삭되었으며, 세시의례가 행해지던 오랜 옛날부터 구전되어 왔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 해의 첫 달인 정월을 잘 보내야 남은 열 한 달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금기가 따랐다. 만약 금기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여겼다. 특히 재물·복·건강·농사의 풍흉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정월의 월내 금기사항은 지역에 따라서 표현은 다양하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정월의 금기는 정월이 첫 달이라는 데서 비롯된 시작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다. '정초에 죽을 먹으면 일년 내내 곤궁하다.', '까마귀가 울면 장(葬)난다.', '남과 말다툼하면 재수가 없다.', '그릇을 깨면 재수 없다.', '수저를 잃으면 그 해엔 재수 없다.' 등의 금기사항은 정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남은 열 한 달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여겨 한해가 시작

되는 시점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정초에는 특히 부정을 타지 않도록 조심했다. '정월에 난 강아지를 잡아먹으면 3년 안에 죽는다.', '개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 는 금기는 신성한 정월에 먹는 개고기는 부정하다는 인식에서 생긴 말이다. 특히 마을제의인 동제가 대개 정월에 드는 것을 감안하면 개고기를 먹는 일에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 '정월에 초상집 가면 나쁘다' 는 금기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정월에 아이 낳는 곳에 가는 것은 나쁘다.' 는 금기를 통해 '피부정' 이 드는 것을 막고자 했다.

정월에는 개인의 소망을 기원하는 기복(祈福)행위가 집중되어 있다. 금기사항 또한 이와 닿아있는데, 개인이 바라는 것은 대개 재복(財福)과 운수에 관련된 것이다. '정월에 조리를 사지 않으면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 '정월 열나흗날 솥을 비우면 가난해 진다.', '정초 첫 장에서는 키나 체를 사지 않는다.', '정월에 재채기를 하면 복이 나간다.' 는 금기사항들은 복이 들기를 바라는데서 생겨난 것들이다. 특히 키나 체는 곡식을 까부르는데 사용되는 농기구이기 때문에 복이 새어 나간다고 여겼고, 이에 비하여 복조리나 밥주걱 등은 곡식이나 밥을 담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하였다. 솥 또한 식솔의 끼니를 짓는 용구이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만월이 뜨는 대보름날 솥이 비어 있으면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 열나흗날 저녁에는 오곡밥을 지어먹고 대보름날 아침에는 쌀밥을 지어먹는 지역이 많다. 또 정월에 문을 바르면 복이나 재물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여 문종이를 바르지 않았다. 문이 뚫어져도 한 달 동안은 추위를 마냥 견뎌야 했기 때문에 대개 섣달그믐 이전에 뚫어진 문을 미리 발라 추위를 피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젊은이들이 정초에 들뜬 나머지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밖을 내다보기 위함이라고도 한다. 마당에서 청소를 할 때도 쓰레기를 바깥으로 쓸어내는 것은 복을 내쫓는 것이므로 삼가야 하며, 복을 안으로 끌어들이듯이 안으로 빗자루질을 한다.

재물과 관련된 금기사항은 정초에 곡식 · 재물 · 불씨를 집밖으로 내보내거나 물건을 매매하면 집안의 재물이 줄며 복이 나간다는 언술이 우세하다. '정초에 아궁이에 있는 재를 꺼내면 좋지 않다.' 는 금기는 집안의 재산 '재(財)' 와 아궁이의 '재(災)' 를 동일시하여 재산이 바깥으로 나간다고 여긴 금기이다. 특히 아궁이가 있는 부엌은 예로부터 집안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조왕이 거처하는 곳이니 무엇 하나 밖에 함부로 내기를 조심스러워 했다. 또한 '화로를 엎지르면 재수 없다.' 고 하여 불씨를 담는 용구인 화로를 엎지르는 것을 재물이 새어 나가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다.

곡식과 돈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초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곡식을 내어 팔거나 빌려주지 않는데 곡식을 외부로 유출시키면 그 해 농사의 소출이 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돈이 필요하다면 섣달 스무날 이전에 빌리는데 이는 실제로 섣달 스무날이 지나면 집집마다 설 준비를 해야 하기에 돈과 곡식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돈이나 곡식을 빌리게 되면 상호간에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정초부터 돈이나 곡식이 집밖으로 나가면 한 해 동안 빈곤해진다는 인식을 담고 있어서 꺼렸다. 정초에 재물이 밖으로 흘러나간다고 하여 집안의 연장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정초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배려가 담겨 있다.

정초에 먼 길을 가지 않는다든가 사람날(人日: 특히 강원도에서는 정월 월내 금기가 사람날에 집중되어 있다)인 초이렛날 '남의 식구 재워주지 않기' 열엿새 귀신날(또는 귀신달굿날, 귀신당날, 귀신닭날, 고마이날) 집 밖 출입을 금하는 사항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열엿새 귀신날에 바깥출입을 하면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하여 금하거나, 이날 바느질을 하면 생손(생인손)을 앓는다고 하여 아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날 일을 하면 과부나 홀아비가 된다고 하여 하루를 쉬었다. 정월 열엿새는 의례행위를 비롯한 놀이가 집중되어 있는 대보름 바로 다음날이다. 그러므로 열엿샛날에는 휴식이 필요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논매기를 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논다고 하는 2월 초하루가 되기 전에 마음을 다 잡아야 했다.

정월에 땅을 다루면 좋지 않다고 하여 삼갔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는 정월에 홍역을 비롯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더라도 땅을 파서 시신을 묻지 않는다. 땅을 건드리면 동네에 불길한 일이 생긴

다고 해서이다. 이는 지신(地神)에 대한 관념이 내포된 금기사항으로 일 년의 첫 달에 땅을 함부로 건드리면 지신이 놀라 동토(동티)가 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정초에 새끼줄을 땔감으로 쓰면 안 된다.' 고 하는데, 새끼줄을 태우면 자식들이 새끼처럼 꼬여서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어 집안이 망한다고 해서이다. 새끼줄의 새끼와 자식새끼의 새끼를 동일하게 여긴 유감주술의 예이다. 이는 나무를 하기 싫어서 손쉽게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새끼줄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게으른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다.

여성과 관련된 금기사항은 대개 여성의 정숙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로 설날과 정초십이지일 중 토끼날, 열엿새 귀신날, 2월 초하루 등에 여자출입을 절대적으로 금하지만 이날 외에도 정월 한 달 동안은 여자의 바깥출입을 꺼려했다. 여자출입의 결과를 농사의 흉작과 연관시킨 금기가 있다. '정월에 여자가 와서 울면 재수가 없다.' , '정월에 여자가 죽으면 뒤끝이 좋지 않다.' , '여자가 남의 집에 일찍 가면 그 집에 재수가 없다.' , '세배를 보낼 때 여자아이들을 먼저 보내면 그 집에서 키우는 닭이 성하지 않는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남자아이를 먼저 들여보내면 괜찮다.' 라든가 '남자가 먼저 들어간 후에 여자가 따라들어 가는 것은 괜찮다.' 고 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두기도 했다.

또 '정월 열나흗날에 여자가 잠을 자면 시집을 못간다.' , '정초 장날에 여자가 머리를 감으면 손(액)이 생긴다.' 등의 금기는 여성의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말들이다. 특히 정월 열나흗날에는 보름에 먹을 오곡밥을 짓기 위해 새벽 일찍 용알뜨기를 하러 우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기사항이 생겼다. 하지만 설이 지나면 여성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세시놀이와 휴식을 정당화하는 언술도 주목된다. '정초에 여자가 널을 뛰지 않으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다.' 고 하여 정초에 바깥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하느라 분주했던 여자들이 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여드레 곡식날이라든가 열이튿날(지역에 따라 열사흗날, 한편 제주도에서는 입춘날 금기사항이 집중되어 있다.) 농사날에는 여자가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고 하여 하루를 쉬도록 했다.

이처럼 정월 월내의 금기사항은 한해의 시작이 순조롭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생업력과 세시의례가 맞물리는 마디마다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불길하고 위험한 사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정월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간의 놀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들뜨기 쉬우므로 금기를 통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우리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 임기중 역, 세시풍요, 집문당, 1993), 설민속과 '처음' 또는 '시작' 의 시간인식(임재해,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중), 민속원, 1998), 세시풍속면에서 본 한국인의 시간민속(장주근,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중), 민속원, 1998), 공동체의 시간생활(표인주,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2001), 한국민속의 세계5(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최인학(崔仁鶴) - 1월(금기 제외)

참고문헌 | 京都雜志,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洌陽歲時記,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편, 집문당, 1995),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國立民俗博物館,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國立民俗博物館, 1998),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경기민속지 III -세시풍속 · 놀이 · 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황경순(黃慶順) - 금기

단월(端月)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단(端)은 처음 시작된다는 뜻으로, 정월(正月) · 이단(履端) · 원월(元月) · 인월(寅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춘추좌전(春秋左傳)』 문공(文公) 원년 봄조에 "선왕께서 책력을 정할 때에 일년의 처음 날을 올바르게 정하고, 매월에 드는 중기(中氣)를 알맞게 끼워 넣었으며, 계산하고 남는 날을 맨 나중에 모아 윤월(閏月)로 만들었다(先王之正時也 履端於始 擧正於中 歸餘於終)." 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春秋左傳.
필자 | 이창희(李昌熙)

맹양(孟陽)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사계절을 춘하추동(春夏秋冬)으로 나누고 각

계절의 첫 달을 초(初) 혹은 맹(孟), 두 번째 달을 중(仲), 마지막 달을 만(晩) 혹은 모(暮), 계(季)라고 하였다. 즉, 맹(孟)이란 각 계절의 처음을 뜻하는 말이다. 한편, 양(陽, 볕)은 문자 그대로 봄의 따뜻한 기운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맹양(孟陽)은 따뜻한 봄의 첫 번째 달인 1월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1월을 맹추(孟陬)·추월(陬月)·단월(端月)·원월(元月)이라고도 한다. 1월은 농경세시의 시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시되며, 새해의 첫 날인 설날에는 차례와 성묘를 하고, 어른께는 세배를 하며, 덕담(德談)을 나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공동의 수호신인 산신과 서낭신·당신·용왕신 등에 제사를 지내며, 풍요와 무재해를 기원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纂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맹추(孟陬)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맹(孟)은 처음을 뜻하고, 추(陬)는 정월을 뜻하는 말로, 맹양(孟陽)·추월(陬月)이라고도 한다. 『이아(爾雅)』「석천(釋天) 월명(月名)」편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寎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고 한 구절이 있다. 그리고 그 소(疏)에 "정월에 해가 영실(營室)에 있고, 해와 달이 추자(陬訾)에서 만나기 때문에 정월을 맹추(孟陬)라고 부른다(正月日在營室 日月會於陬訾 故以孟陬爲名)."고 하였다.

참고문헌 | 爾雅.
필자 | 이창희(李昌熙)



孟春『禮記』
국립중앙도서관

맹춘(孟春)

정의 초봄. 음력 1월의 이칭.
내용 맹(孟)이란 처음을 뜻하며 춘(春)은 봄을 의미한다. 즉, 맹춘(孟春)을 풀이하면 초봄을 뜻하는 말인데 1월을 부르는 다른 말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1월의 이칭으로는 원월(元月)·월정(月正)·단월(端月)·태월(泰月)·추월(陬月)·맹추(孟陬)·초춘(初春)·조세(肇歲)·청양(靑陽)·맹양(孟陽)·정양(正陽)·태주(太簇)·인월(寅月) 등이 있다.

원월(元月)과 월정(月正)은 한 해의 기준이 되는 바른 달이라는 뜻이다. 단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라는 뜻이다. 태월은 『역(易)』의 괘 중에서 천지가 화합하여 만사가 형통하는 것을 상징하는 태괘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추월과 맹추는 『초사(楚辭)』「이소(離騷)」에 나오는 이름으로 '추'는 '모퉁이'를 뜻하고 '맹'은 '처음'을 뜻한다. 초춘은 봄의 시작이라는 뜻이고, 조세는 일년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청양·맹양·정양에서 '양'은 봄을 상징하고, '청'은 봄의 색을 상징하며, '맹'은 처음을 뜻하고, '정'은 바르다는 뜻이다. 음력 4월에도 정양이라는 이칭이 있다. 태주는 12율 가운데서 태주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이고, 인월은 십이지 가운데서 인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참고문헌 | 詩經, 禮記, 爾雅, 楚辭, 夏小正.
필자 | 신하령(申河令)

발세(發歲)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새해가 처음 시작된다는 뜻으로, 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年頭)·정초(正初)·수세(首歲)·조세(肇歲)라고도 한다.
내용 음력 정월의 절기로는 입춘(立春)과 우수(雨水)가 있는데, 입춘의 징후로는 동풍이 불어서 언 땅을 녹이고,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니고, 우수의 징후로는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초목에는 싹이 트면서 봄이 시작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 纂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발춘(發春)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새해의 봄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

(年頭)·정초(正初)·수세(首歲)·조세(肇歲)라고도 한다.

내용 한(漢)나라 유향(劉向)이 편집한 『초사(楚辭)』「초혼(招魂)」편에 "새해의 봄이 시작됨이여, 나는 남쪽으로 가네(獻歲發春兮 汩吾南征)."라고 한 구절이 있다. 그리고 그 주(註)에 "헌(獻)은 나아오는 것이다. 한 해의 시작이 나아오는 것으로, 봄 기운이 떨쳐 일어나 만물이 모두 감응하여 생겨남을 말한다(獻進 言歲始來進 春氣奮揚 萬物皆感氣而生)."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楚辭.
필자 | 이창희(李昌熙)

방세(芳歲)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초목이 싹트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봄을 뜻하는 말로 '화세(華歲)'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에 "맹춘(孟春)을 수세라고 하고, 초세라고도 하고, 발세라고도 하고, 조세라고도 하고, 헌세라고도 하고, 방세라고도 하고, 화세라고도 한다(孟春曰首歲 又曰初歲 又曰發歲 又曰肇歲 又曰獻歲 又曰芳歲 又曰華歲)."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纂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수세(首歲)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새해가 처음 시작된다는 뜻으로 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年頭)·정초(正初)·조세(肇歲)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 纂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신원(新元)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날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세수(歲首)·원단(元旦)·원일(元日)·원정(元正)이라고도 하며, 근신하고 조심하는 날이라 해서 '신일(愼日)'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정월의 풍속에는 근신하고 조심하는 내용이 많은데 민가에서는 벽 위에 닭과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액이 물러가기를 빌고, 남녀의 나이가 삼재(三災)를 당한 자는 세 마리의 매를 그려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며, 설날 꼭두새벽에 거리에 나가 맨 처음 들려오는 소리로 일년간의 길흉을 점친다. 또한 나무에 금·목·수·화·토를 새겨 장기쪽같이 만들어 이것을 던져서 자빠지고 엎어진 것을 보아 점괘를 얻어 새해의 신수를 점치며, 남녀가 일년간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 빗상자 속에 넣었다가 설날, 황혼을 기다려 문 밖에서 태움으로써 나쁜 병을 물리치기도 한다.

참고문헌 | 纂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원월(元月)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원(元)은 한 해의 처음을 뜻하는 말인데, 일년의 시작인 정월을 으뜸 달로 여기는 데서 비롯되었다. 정월(正月)·인월(寅月)·월정(月正)·맹추(孟陬)라고도 한다. 정월은 농경세시의 시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시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도 일년 가운데 정월에 해당되는 내용이 가장 많다.

참고문헌 | 纂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원정(元正)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원(元)은 한 해의 처음을 뜻하는 말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 세수(歲首)·원단(元旦)·원일(元日)·신원(新元)이라고도 하며, 근신하고 조심하는 날이라 해서 신일(愼日)이라고도 한다. 『당서(唐書)』「예악지(禮樂志)」에 "원정(元正)은 한 해의 시작이며 동지(冬至)에는 양(陽)이 다시 생기니, 두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元正歲始 冬至陽之復 二節最重)."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唐書.
필자 | 이창희(李昌熙)

월정(月正)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라는 뜻으로, 정월(正月)·원월(元月)·인월(寅月)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하(夏)·은(殷)·주(周) 시대는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 때마다 역법(曆法)을 다시 고친 데서 월정(月正)이란 말이 유래되었다. 『서경(書經)』「우서(虞書) 순전(舜典)」편에 "월정(月正) 원일(元日)에 순(舜)이 문조(文祖)의 사당에 나아가셨다(月正元日 舜格于文祖)."고 한 구절이 있다. 여기서 월정이란 1월을 지칭한다.

참고문헌 | 書經.
필자 | 이창희(李昌熙)

이단(履端)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이(履)는 밟는다는 뜻이고 단(端)은 처음이라는 뜻으로, 새해가 처음 시작되는 정월(正月)이 되었음을 뜻한다. 이원(履元)·원월(元月)·정월(正月)·인월(寅月)이라고도 한다. 『춘추좌전(春秋左傳)』 문공(文公) 원년 봄조에 "선왕께서 책력을 정할 때에 일년의 처음 날을 바르게 정하고, 매월에 드는 중기(中氣)를 알맞게 끼워 넣었으며, 계산하고 남는 날을 맨 나중에 모아 윤월(閏月)로 만들었다(先王之正時也 履端於始 擧正於中 歸餘於終)."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春秋左傳.
필자 | 이창희(李昌熙)

이원(履元)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이(履)는 행한다는 뜻이고, 원(元)은 처음을 뜻하는 것으로, 새해가 처음 시작되는 정월(正月)이 되었음을 뜻한다. 이단(履端)·원월(元月)·정월(正月)·인월(寅月)이라고도 한다. 『주역(周易)』「이괘전(履卦傳) 상구(上九)」에 "이(履)는 예(禮)이니, 예(禮)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履禮也 禮人之所履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춘추좌전(春秋左傳)』 문공(文公) 원년 봄조에 "선왕께서 책력을 정할 때에 1년의 처음 날을 올바르게 정하고, 매월에 드는 중기(中氣)를 알맞게 끼워 넣었으며, 계산하고 남는 날을 맨 나중에 모아 윤월(閏月)로 만들었다(先王之正時也 履端於始 擧正於中 歸餘於終)."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周易, 春秋左傳.
필자 | 이창희(李昌熙)



履端 『春秋左傳』
국립중앙도서관

인월(寅月)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인(寅)은 십이지 중 세 번째에 해당된다. 태음력(太陰曆)에서는 각 달을 십이지로 이름 지었는데 중국 하(夏)나라에서는 정월을 인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기원되어 인월(寅月)은 정월을 의미하게 되었다. 『서경(書經)』「하서(夏書)」편에 "하나라의 정월은 북두성(北斗星)의 자루가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달로 삼았다(夏正 建寅)."라고 한 구절이 있다.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편에 "하나라의 책력을 행한다(行夏之時)."라고 하고, 그 주(註)에 "하나라 때란 북두성 자루가 날이 처음 어두울 때에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달로써 세수(歲首)로 삼는 것을 말한다(夏時 謂以斗柄 初昏建寅之月 爲歲首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로 십이지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로, 각각 역월(曆月)·방위(方位)·시각(時刻) 등을 나타낸다. 십이지는 음양오행(陰陽五行)과도 관련이 있는데, 자·인·진·오·신·술은 양(陽), 축·묘·사·미·유·해는 음(陰)이며, 축·진·미·술은 토(土), 인·묘는 목(木), 사·오는 화(火), 신·유는 금(金), 해·자는 수(水)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 論語, 書經.
필자 | 김정석(金正錫)

정월(正月)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일년 중의 첫째 달로 원월(元月)·인월(寅月)

이라고도 한다. 『예기(禮記)』「월령(月令)」편에 "맹춘지월(孟春之月)"이라는 구절이 있다. 정월이란 중국 상고(上古) 시대의 왕조인 하(夏)·은(殷)·주(周)의 경우와 같이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왕조가 바뀌면 역법(曆法)을 그에 맞추어 고친 데서 나온 말이다. 음력 정월의 절기로는 입춘(立春)과 우수(雨水)가 있는데, 입춘에는 동풍이 불어서 언 땅을 녹이고,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니는 징후가 나타난다. 한편, 우수에는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 놓고,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초목의 싹이 트면서 봄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禮記.
필자 | 이창희(李昌熙)

조세(肇歲)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조(肇)는 시작을 뜻하는 말로,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서경(書經)』「우서(虞書) 순전(舜典)」편에 "12주(州)를 처음으로 만들고 12주의 산(山)을 봉표(封表)하며 내를 깊이 파셨다(肇十有二州 封十有二山 濬川)."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그 주(註)에 "조(肇)는 시작하는 것이다(肇始也)."고 하였다. 따라서 조세(肇歲)는 새해가 처음 시작된다는 뜻인데 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年頭)·정초(正初)라고도 한다.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에 "맹춘(孟春)을 수세라고 하고, 초세라고도 하고, 발세라고도 하고, 조세라고도 하고, 헌세라고도 하고, 방세라고도 하고, 화세라고도 한다(孟春曰首歲 又曰初歲 又曰發歲 又曰肇歲 又曰獻歲 又曰芳歲 又曰華歲)."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書經, 纂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청양(靑陽)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청(靑)은 동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양(靑陽)은 명당(明堂)의 동쪽에 있는 방인 청양전(靑陽殿)을 지칭한다. 『예기(禮記)』「월령(月令)」편에 "1월에는 천자(天子)가 청양의 왼편 곁방에 있으면서 정무(政務)를 살피고 청색 옷을 입는다(孟春之月 天子居靑陽左個 衣靑衣)."는 구절이 있다. 5색(色)은 각각 방위와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청(靑)은 동쪽과 봄, 홍(紅)은 남쪽과 여름, 백(白)은 서쪽과 가을, 흑(黑)은 북쪽과 겨울, 황(黃)은 중앙으로 4방위를 총괄하는 색이었다.

참고문헌 | 禮記.
필자 | 이창희(李昌熙)

초세(初歲)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새해가 처음 시작된다는 뜻으로, 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年頭)·정초(正初)·수세(首歲)·조세(肇歲)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 纂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초춘(初春)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초(初)는 처음을 뜻하는 말로, 봄에 해당되는 석 달(1, 2, 3월) 중 첫 달인 음력 1월을 초춘(初春)이라 하며 맹춘(孟春)이라고도 한다.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에 "맹춘을 상춘 혹은 초춘이라고 한다(孟春曰 上春 初春)."는 구절이 있다.

이같은 명칭은 다음과 같은 법칙에 의해서 정해졌다. 먼저, 일년 열두 달을 4계절로 나누어 1~3월을 춘(春), 4~6월을 하(夏), 7~9월을 추(秋), 10~12월을 동(冬)이라 했다. 그리고 각 계절에 속한 석 달들을 다시 나누어 첫 달을 초(初) 혹은 맹(孟), 두 번째 달을 중(仲), 마지막 달을 만(晩) 혹은 모(暮), 계(季)라 하였다. 이 같은 법칙에 의해서 1월은 초춘 혹은 맹춘, 2월은 중춘(仲春), 3월은 모춘(暮春) 혹은 만춘(晩春), 계춘(季春)이라고 불렀다.

참고문헌 | 纂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肇歲 『書經』
국립중앙도서관

추월(陬月)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맹(孟)은 처음을 뜻하고 추(陬)는 정월을 뜻하는 말로, 맹양(孟陽)·맹추(孟陬)라고도 한다. 『이아(爾雅)』「석천(釋天) 월명(月名)」편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寎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그 소(疏)에 "정월에 해가 영실(營室)에 있고, 해와 달이 추자(陬訾)에서 만나기 때문에 정월을 맹추(孟陬)라고 부른다(正月日在營室 日月會於陬訾 故以孟陬爲名)."고 하였다.

참고문헌 | 爾雅.
필자 | 이창희(李昌熙)

탁금(鐸金)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매해 정월에 목탁을 두드리며 도로를 순행한다는 뜻으로, 탁(鐸)은 목탁이며, 금(金)은 목탁의 소리를 내게 하는 혀이다. 『서경(書經)』「하서(夏書) 윤정(胤征)」편에 "매년(每年) 맹춘(孟春)에 주인(遒人)이 목탁(木鐸)을 가지고 도로를 순행하였다(每歲孟春 遒人以木鐸徇于路)."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그 주(註)에 "주인은 명령을 선포(宣布)하는 관원이다. 목탁(木鐸)은 입은 쇠이고 혀는 나무로 되어 있으니, 정교(政教)를 베풀 때에 흔들어서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다(遒人 宣令之官 木鐸 金口木舌 施政教時 振以警衆也)."고 하였다.

참고문헌 | 書經.
필자 | 이창희(李昌熙)

태양(泰陽)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태(泰)는 『주역(周易)』 64괘(卦) 중의 하나로, 음력 정월을 뜻하며 태월(泰月)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이창희(李昌熙)

태월(泰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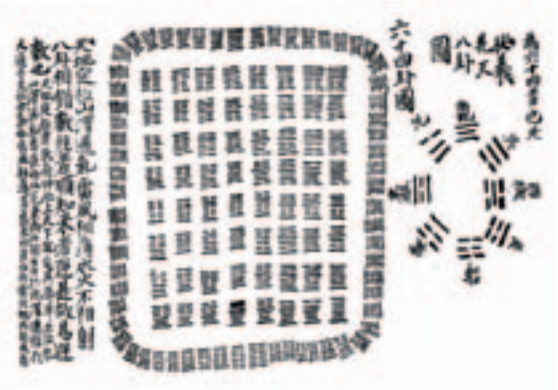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태괘䷊(泰卦, ☷+☰)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태괘는 상괘(上卦)가 곤괘(坤卦, ☷)이고 하괘(下卦)가 건괘(乾卦, ☰)로 이루어진 괘이다. 『주역(周易)』 64괘(卦) 중 12괘를 택하여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동짓달부터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난다고 하여 일양(一陽)이 아래에서 처음 생겨나는 복괘(復卦)를 동짓달인 11월에 배속시켰다. 따라서 삼양(三陽)인 태괘는 1월에 해당한다.

8괘: 건(乾, ☰) 태(兌, ☱) 이(離, ☲) 진(震, ☳) 손(巽, ☴) 감(坎, ☵) 간(艮, ☶) 곤(坤, ☷)

12괘: 1월[正月]은 삼양지월(三陽之月)로 태괘(泰卦, ☷+☰), 2월은 대장괘(大壯卦, ☳+☰), 3월(三月)은 쾌괘(夬卦, ☱+☰), 4월은 순양지월(純陽之月)로 건괘(乾卦, ☰+☰)이며, 하지(夏至)가 있는 5월에는 음효(陰爻) 하나가 처음 생기는 구괘(姤卦, ☰+☴)이고, 6월은 둔괘(遯卦, ☰+☶), 7월은 비괘(否卦, ☰+☷), 8월(八月)은 관괘(觀卦, ☴+☷), 9월은 박괘(剝卦, ☶+☷), 10월은 순음지월(純陰之月)로 곤괘(坤卦, ☷+☷), 11월은 일양지월(一陽之月)로 복괘(復卦, ☳+☷), 12월은 이양지월(二陽之月)로 임괘(臨卦, ☱+☷)이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이창희(李昌熙)



『주역총도』 64괘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태주(太簇)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양 음악의 12율(律) 중에서 세 번째인 태주(太簇)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내용 12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황종(黃鐘)을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태주는 1월에 해당한다. 중국 한(漢)나라 반고(班固)가 편찬한 『백호통의(白虎通義)』「오행(五行)」편에 "정월을 태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태(太)는 크다는 뜻이고 주(簇)는 모인다는 뜻으로, 만물이 비로소 땅에 크게 모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正月律爲之大簇何 太亦大也 簇者湊也 言萬物始大湊地而出也)."는 구절이 있다.

12율: 가장 낮은 음인 황종으로부터 시작하여 태주, 고선(姑洗), 유빈(蕤賓), 이칙(夷則), 무역(無射), 대려(大呂), 협종(夾鐘), 중려(仲呂), 임종(林鐘), 남려(南呂), 응종(應鐘)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 중 홀수에 해당하는 것은 양에 해당하므로 양음(陽音)인 육률(六律)이라 하고, 짝수에 해당하는 것은 음(陰)에 해당하므로 음음(陰音)인 육려(六呂)라고 한다. 따라서 육률은 황종(11월)·태주(1월)·고선(3월)·유빈(5월)·이칙(7월)·무역(9월)이고, 육려는 대려(1월)·협종(2월)·중려(4월)·임종(6월)·남려(8월)·응종(10월)이다.

참고문헌 | 白虎通義.
필자 | 홍성훈(洪性薰)

헌세(獻歲)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새해가 처음 시작된다는 뜻으로, 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年頭)·정초(正初)·수세(首歲)·조세(肇歲)라고도 한다. 중국 한(漢)나라 유향(劉向)이 편집한 『초사(楚辭)』「초혼(招魂)」편에 "새해의 봄이 시작됨이여, 나는 남쪽으로 가네(獻歲發春兮 汨吾南征)."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주(註)에는 "헌(獻)은 나아오는 것이다. 한 해의 시작이 나아오는 것으로, 봄 기운이 떨쳐 일어나 만물이 모두 감응하여 생겨남을 말한다(獻進 言歲始來進 春氣奮揚 萬物皆感氣而生)."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楚辭.
필자 | 이창희(李昌熙)

화세(華歲)

정의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만물이 생동하고 초목이 싹트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봄을 뜻하는 말로, 방세(芳歲)라고도 한다.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에 "맹춘(孟春)을 수세(首歲)라고 하고, 초세(初歲)라고도 하고, 발세(發歲)라고도 하고, 조세(肇歲)라고도 하고, 헌세(獻歲)라고도 하고, 방세라고도 하고, 화세(華歲)라고도 한다(孟春曰首歲 又曰初歲 又曰發歲 又曰肇歲 又曰獻歲 又曰芳歲 又曰華歲)."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纂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설날 아침 이창수

설

정의 음력 정월 초하룻날.

이칭 원일(元日)·원단(元旦)·원정(元正)·원신(元新)·원조(元朝)·정조(正朝)·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年頭)·연수(年首)·연시(年始)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개 한 해의 첫날임을 뜻하는 말이다. 또한 신일(愼日)·달도(怛忉)라고도 하고, 근대국가에 와서는 신정(新正)으로 일컬어지는 양력설의 상대 개념으로 구정(舊正)이라고도 하였다. 한편 '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유래 설이 언제부터 우리의 명절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중국의 역사서 『수서(隋書)』와 『구당서(舊唐書)』에는 신라인들이 원일의 아침에 서로 하례하며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이 날 일월신(日月神)을 배례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설 명절이 역법체계에 따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전부터 설이 존재했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가령 3세기에 나온 중국의 사서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의 제천의례에 대한 기록에서 설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은정월(殷正月), 5월과 10월의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 등과 같은 표현은 당시 역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은정월은 은나라의 역법을 지칭하는데 이는 오늘날로 치면 음력 섣달을 말한다. 이는 복잡한 역법상의 기준 차이일 뿐, 연초라는 관념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역법을 통해 각 달을 가늠했으며 한 해의 시작으로 세수(歲首)인 설이 존재했으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설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기록은 7세기에 나온 중국의 역사서에 나타난다. 『수서』와 『구당서』의 신라 관련 기록에는 왕권 국가로서의 설날의 면모가 잘 나타난다. 즉 "매년 정월 원단에 서로 경하하며, 왕이 연회를 베풀고 여러 손님과 관원들이 모인다. 이 날 일월신을 배례한다."는 기록은 국가 형태의 설날 관습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고려사(高麗史)』에도 설날[元正]은 상원(上元)·상사(上巳)·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중구(重九)·팔관(八關)·동지(冬至)와 함께 9대 속절(俗節)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식·단오·추석과 더불어 4대 명절의 하나였다. 『수서』와 『북사(北史)』「고구려전(高句麗傳)」에는 해마다 정초에 패수(浿水)에서 물과 돌을 서로 끼얹고 던지고 소리 지르며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 편싸움, 특히 석전(石戰)의 원류로 추정될 수 있다.

정월은 삼국 모두 각별한 달로 여겼으며 신라와 가야에서는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신라에서는 정월에 죄수를 사면하기도 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사금갑조(射琴匣條)에는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속과 십이지일(十二支日)의 금기 유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박혁거세의 즉위일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했고 김알지는 계림 나뭇가지의 황금궤에서 탄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박혁거세는 박씨골매기이고 김알지는 김씨골매기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들은 모두 공동체의 시조신이며 창건신, 수호신이다. 오늘날 대보름을 전후하여 많이 지내는 골맥이 동제는 의례이자 세시풍속이기도 한데 그 동제의 원류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고려사』에는 원정을 비롯하여 9대 속절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밖에 고려 속요(俗謠) '동동(動動)'을 비롯하여 개인 문집에도 세시명절과 풍속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있다.

고려에 들어서도 왕은 정월에 국가 세시의례인 천지신과 조상신 제사를 지냈다. 정월 초하루 원정을 전후하여 관리들에게 7일간의 휴가를 주었고 신하들은 왕에게 신년을 축하하는 예를 올렸으며 왕은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고려사』에는 정월 초하루에 정조 축하의식을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동문선(東文選)』·『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양촌집(陽村集)』·『가정선생문집(稼亭先生文集)』·『도은선생문집(陶隱先生文集)』 등 문집에 기록된 시(詩)에는 정월 초하루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누는 새해 인사, 연하장 보내기, 악귀를 쫓기 위해 부적을 문에 붙이기,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등의 세화 보내기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삼국시대에도 이미 설의 세시풍속이 상당히 있었지만 고려에 와서는 더욱 다양해졌으며 이는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다. 실상 오늘날 논의되는 설을 비롯한 각 달의 세시풍속은 고려 때 정착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4대 명절이라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명절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민간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세시명절이 전승되고 세시풍속이 행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세시풍속을 수록한 『경도잡지(京都雜志)』·『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를 비롯하여 조선 전 지역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를 통해서도 그 다양함을 짐작할 수 있다. 『동국세시기』에 수록된 세시풍속이 모두 당시에 전승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가운데 많은 것이 현대까지 이어졌다. 그 밖에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추재집(秋齋集)』·『면암집(勉菴集)』·『지봉유설(芝峰類說)』·『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해동죽지(海東竹枝)』 등의 문집에 정월을 비롯한 각 달의 세시풍속이 소개되거나 시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팔관회와 연등회 등 불교 세시풍속이 강세를 이룬 반면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설차례를 비롯한 조상제사가 중시되는 등 유교 세시풍속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의례 설날을 비롯하여 각 세시명절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사실상 거의 의례에 포함되어 전통적인 의미로 말하면 '세시의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속신도 실상은 의례적인 것이어서 의례와 속신을 구별하는 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이나 초월적인 힘을 대상으로 제의를 행하는 것을 의례로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호한 것도 있으리라 본다.

세시의례는 농사를 중심축에 놓고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농경의례'라고도 한다. 의례력 속에 포함되는 모든 세시풍속이 풍농의 기원과 예축, 풍흉을 점치는 점세(占歲), 농공 내지는 풍농을 감사하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 어업과도 관련을 갖게 된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그만큼 농사가 약화되고 농경을 위한 세시풍속도 약화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자의적이든 변화에 따르든 구별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례로서의 구속력이 보다 강한 것을 농경의례라 한다. 세시의례 가운데서도 공동의례의 경우에는 농경의례로서의 기능을 주로 한다.

설날 아침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차례는 종손이 중심이 되어 지내는데 4대조까지 모시고 그 이상은 시제 때 산소에서 모신다. 차례를 마치고 가까운 집안끼리 모여 성묘를 하는데 근래에는 설을 전후하여 성묘를 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의정대신들이 임금에게 정조하례를 드렸다. 이는 궁중의례이면서 왕에게 올리는 세배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가정에서는 정초에 안택을 하여 집안의 평안을 빈다. 안택은 무당과 같은 전문적인 단골을 불러 집에서 보통 고사보다는 규모가 큰 굿을 하는 것인데 정초에 행하는 신년제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홍수매기(횡수막이)라 하여 주부가 단골무당을 찾아가 비손을 하거나 집에 불러다가 비손 형식의 굿을 한다. 홍수매기는 횡수를 막는 의례로서 가족 가운데 그 해 운수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각별하게 의례를 행한다. 홍수매기를 지낸 후에 짚으로 '제웅'을 만들어 뱃속에 액운이 든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종이와 돈을 넣어 삼거리나 사거리에 버린다. 이는 액운을 멀리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정초에 무당을 불러 풍어제를 크게 지내기도 한다. 한 해 동안 무사하고 고기잡이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정월 대보름 무렵에 동제를 지내기도 한다. 또 대보름날 볏가리를 세웠다

1 차례
2 설빔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1


2

가 2월 초하루에 털어낸다. 이는 놀이적인 성격도 있겠으나 애초에는 풍농을 위한 의례였다.

속신 세시풍속에서의 속신은 의례성을 지닌 것이 대부분이어서 의례와 속신의 구별이 모호한 점도 있다. 설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이 다양한 만큼 속신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설날은 섣달 그믐부터 시작된다고 할 만큼 그믐날 밤과 초하루는 직결되어 있다. 끝과 시작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서 동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섣달 그믐날 밤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이를 수세(守歲)라 하는데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설날에는 세찬의 대표적인 음식인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고 했다. 그래서 떡국을 먹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 수 없다는 속설도 있다. 복을 끌어들인다는 복조리 풍속도 속신으로 볼 수 있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조선시대 도화서(圖畵署)에서는 세화(歲畵)라 하여 수성(壽星)·선녀(仙女)·직일신장(直日神將) 등 액을 쫓는 신(도교적인 신)을 그려 임금에게 올렸다. 또한 도끼를 든 장군상을 그려 대궐문 양쪽에 붙였는데 이를 '문배(門排)'라 한다. 민간에서는 '용(龍)' 자와 '호(虎)' 자를 한지에 써서 대문에 붙였는데 이는 모두 궁중의 세화나 문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설날 꼭두새벽에 거리에 나가서 일정한 방향 없이 돌아다니다가 방향에 관계없이 소리를 들어 본다. 이 때 까치소리를 들으면 길조이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불길하다고 한다. 설날 밤에는 야광귀라는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 와서 신발을 신어 보고 맞으면 신고 가는데 신발을 잃은 사람은 그 해에 재수가 없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에 이런 세시를 행하고 또는 열엿새를 '귀신날'이라 하여 이 날 밤에 신발을 감추거나 엎어 놓는다.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 체나 키를 장대나 지붕에 매달아 놓거나 혹은 저녁에 고추씨와 목화씨를 태워 독한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정초에 널을 뛰면 그 해에 발에 좀(무좀)이 슬지 않는다고 한다. 섣달 그믐 무렵부터 즐기던 연날리기는 정월 대보름까지 한다. 대보름이 되면 '액연(厄鳶)'이라 하여 연 몸통이나 꼬리에 '송액(送厄)' 또는 '송액영복(送厄迎福)' 등의 글자를 써서 멀리 날려 보낸다. 예전에는 대보름 이후에도 연을 날리는 사람이 있으면 고리백정이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액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입춘날에는 보리뿌리를 캐보고 점을 친다. 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그 해 보리 농사가 풍년이고 두 가닥이면 평년작, 한 가닥이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이는 일종의 농점(農占)이다.

정초십이지일을 유모일(有毛日)과 무모일(無毛日)로 나눈다. 정월 초하루가 유모일, 곧 털 있는 십이지 동물의 날이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무모일이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유모일 가운데서도 소·토끼·호랑이날이 그 중 좋다. 이는 주술적인 사고에 따른 것으로 이 때의 털을 곡식의 성장에 비유했다.

첫 쥐날인 상자일(上子日)에는 모든 일을 금하는데 일을 하면 쥐가 곡식을 축낸다고 한다. 쥐가 쏠고 갉아먹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칼질이나 바느질을 삼간다. 마소를 먹이기 위해서 여물을 썰면 쥐가 벼나락, 짚 등을 쏠아버린다고 하며 길쌈을 하거나 옷을 지으면 쥐가 옷감을 쏠아 못쓰게 한다고 금한다. 반면 이 날 주머니를 만들어 차면 재수가 있다고 한다.

첫 소날인 상축일(上丑日)에는 소에게 좋지 않다

고 하여 도마질을 하지 않는다. 쇠고기를 요리할 때에는 으레 도마질을 해야 하는데 소의 명절인 상축일에는 이와 같은 일을 삼가는 것이다. 쇠붙이 연장도 다루지 않는다. 이 날 연장을 다루면 쟁기의 보습이 부러지고 방아를 찧으면 소가 기침을 한다. 또 이 날은 곡식을 밖으로 퍼내지 않는다. 퍼내면 소에게 재앙이 온다는 것이다.

첫 호랑이날인 상인일(上寅日)에는 일을 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하여 놀았다. 또 짐승에 대하여 나쁜 말도 하지 않으며 외출도 삼간다. 이 날 여자들이 외출하여 남의 집에서 대소변을 보면 그 집 가족이 호랑이에게 잡혀간다는 말도 있다.

첫 토끼날인 상묘일(上卯日)에는 여자가 남의 집에 일찍 출입하면 재수가 없다하여 금한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불가피할 경우 누구라도 남자가 먼저 출입한다. 이 날 여자들은 실을 짜거나 옷을 지으면 장수(長壽)한다 하여 베틀이 있으면 한 번씩 올라가 베를 짜본다.

첫 용날인 상진일(上辰日) 새벽에는 여자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온다. 이 날 새벽에 용이 내려와서 알을 쓸어놓고 간다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을 길어다 밥을 지으면 그 해 농사가 대풍이 든다고 한다. 『동국세시기』에는 이것을 '용알뜨기[撈龍卵]'라 하여 대보름 풍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물뜨기'라고도 한다. 또 이 날은 긴 물건을 다루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는다. 뱀이 나온다고 하는데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뱀처럼 몸이 길어 같은 동물로 여겨 꺼리는 것이다. 반면 머리카락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은 이 날 머리를 감아 곱고 길게 잘 자랄 것을 축수한다.

첫 뱀날인 상사일(上巳日)에는 머리를 빗거나 이발을 하면 뱀이 나타난다 하여 금한다. 그 밖에 빨래도 삼가고 바느질도 하지 않으며 땔나무를 부엌에 들이지 않는다. 첫 원숭이날인 상신일(上申日)에는 부엌에 귀신이 나온다고 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일어나서 비를 들고 부엌의 네 귀퉁이를 쓴다. 첫 닭날인 상유일(上酉日)에 바느질을 하면 손이 닭발처럼 된다고 하여 금한다. 첫 개날인 상술일(上戌日)에는 일을 하면 개가 텃밭을 해친다고 금하고 이 날 풀을 쑤면 개가 평소에 잘 토한다하여 금한다. 첫 돼지날인 상해일(上亥日)에는 팥가루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희어진다고 한다.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잘사는 집 부엌의 흙을 훔쳐다가 자기 집 부뚜막에 바르면 부자가 된다고 한다. 대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깨면 부스럼이 나지 않고 귀밝이술을 마시면 일년 내내 좋은 소식을 듣는다. 또 더위를 팔면 그 해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속신도 있다. 오곡밥은 세 집 이상의 타성받이 집의 밥을 먹어야 그 해 운수가 좋다고 한다.

복식 및 절식 설날에 입는 옷을 '설빔'이라 한다. 『경도잡지』에는 남녀가 모두 새 옷을 입는 것을 '세장(歲粧)'이라 했다. 『열양세시기』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새 옷 입는 것을 '세비음(歲庇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설날에 무색(물색,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색동저고리를 입는다. 명절뿐 아니라 돌과 같은 기념일에도 색동저고리를 입는데 돌에 남아들은 남색 띠를 두르고 여아들은 자색 띠를 둘러 구별했다.

설에 먹는 절식으로 우선 꼽히는 것은 설날의 떡국이다. 떡국의 기본 재료는 가래떡이다. 『동국세시기』에는 떡국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멥쌀가루를 쪄서 안반 위에 놓고 자루달린 떡메로 무수히 쳐서 길게 만든 떡을 흰떡[白餠]이라 한다. 이것을 얄팍하게 돈같이 썰어 장국에다 넣고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고 끓인 다음 고춧가루를 친 것을 떡국[餠湯]이라 한다. 시장에서는 시절음식으로 이것을 판다."

요즘처럼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을 해오던 것과는 달리 직접 집에서 만들었던 때의 기록이어서 더욱 소중하다. 그런데 예전에도 떡국을 시장에서 판다는 기록이 있어 흥미를 끈다. 떡국에는 만두를 빚어 넣기도 한다.

세찬(歲饌)은 차례상에 오르고 명절식으로 시식하는 음식이다. 가래떡을 썰어 넣고 끓인 떡국은 대표적인 설음식이며 그 외에 시루떡도 있다. 고사를 지낼 때에는 붉은 팥시루떡을 쓰지만 차례를 지낼 때에는 붉은 색이 조상을 쫓는다하여 거피를 낸 팥을 사용하여 떡을 찐다. 이 밖에 인절미, 전유어, 빈대떡, 강정류, 식혜, 수정과 등도 세찬으로 장만한다. 세주는 맑은 청주인데 역시 차례상에 오르고 산뜻한 봄을 맞는다는 의미에서 차례를 지낸 후 가족들이 함께 마신다.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따르면, 입춘날에 경기도의 산골지방 육읍(六邑, 경기도 중에 산이 많은 양근·지평·포천·가평·삭녕·연천을 말함.)에서는 총아(葱芽, 움파)·산개(山芥, 멧갓)·승검초[辛甘草]를 올린다고 했다.

놀이 설의 놀이는 이미 섣달 그믐 무렵부터 시작된다. 연날리기는 섣달 그믐 무렵부터 시작하여 대보름까지 즐긴다. 보름날의 연은 액연(厄鳶)이라 하여 멀리 날려보낸다. 원래 보름날 이후에는 연을 날리지 않는다. 그 밖에 설날 무렵 윷놀이·널뛰기·승경도놀이·돈치기 등을 한다. 윷놀이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집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하는 정초의 가장 보편적인 놀이다. 윷의 종류도 장작윷과 밤윷이 있고 놀이 방법도 다양하다. 윷놀이를 통해 그 해 운수를 점쳐 보기도 한다. 윷놀이와 윷점에 대해서는 『경도잡지』에도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널뛰기는 여자들이 즐기는데 역시 『경도잡지』에 놀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승경도(陞卿圖)는 승정도(陞政圖)·종경도(從卿圖)·종정도(從政圖)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주로 양반 가문의 젊은이들과 여자들이 즐겨 놀던 실내놀이로 관직이나 학업의 등급을 차례로 기입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끗수대로 승진하거나 후퇴하는 방식으로 한다. 돈치기는 정초에 청소년들이 동전이나 동전 모양의 쇠붙이를 가지고 노는 놀이인데 『동국세시기』에는 「정월 대보름」 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설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이 집중되어 있는 까닭은 정월이 농한기인데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신성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신성한 기간에는 인간의 기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연날리기 이서지

설의 구비전승으로 설날과 대보름의 속담을 찾아볼 수 있다. 설날의 명절음식인 떡국에는 쇠고기나 닭고기를 넣는데 원래는 꿩고기를 넣었다고 한다. 그러나 꿩고기가 구하기 어려워지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닭고기를 넣게 되었는데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은 이래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금기 예로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날은 특별히 삼가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여겨졌다. 이것을 통칭해서 후일 만들어진 말이 금기(禁忌)이다. 어떤 날에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재앙을 막고 풍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금기의 공통적인 양상인데 설날에 나타나는 금기도 이와 동일한 모양새를 가진다.

설날에 나타나는 금기의 특징은 여자들에 대한 행동 규제가 가장 큰 특징이다. 여자들이 남의 집에 가지 말아야 하거나 바느질을 하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설날에 나타나는 금기는 전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금기의 내용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날에 전해지는 금기의 대표적인 것은 여자들의 출입에 대한 금기이다. 여자들의 출입에 대한 금기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통하던 것이었다. 대체로 여자들이 설날 혹은 정초에 바깥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집 주인이 싫어하기 때문', '단순히 부정타기 때문', '한 해 동안 재수가 없기 때문', '재수가 없다고 여겨서 세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 '그 집 닭(병아리)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 '농사가 잘 안되기 때문' 등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여자들이 남자들과 섞여 들어가거나 남자 뒤에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남의 집에 왕래하면 남녀 어느 한쪽의 운이 나빠진다고 여긴다(충북 괴산).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금기이다. 한편 남자들에 대한 금기도 있는데 설날에 '상가(喪家)에 다녀온 남자', '개고기를 먹은 남자'는 부정이 들기 때문에 남의 집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이 같은 여성에 대한 출입 제한 때문에 양반가의 여인네들은 설날 남의 집에 인사를 갈 수 없어서 몸종을 대신 보내기도 했다.

둘째, 설날에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이 날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 '생인손을 앓기 때문', '손에 가시가 들기 때문(손독으로 덧남)', '곡식 뿌리가 삭기 때문', '손가락을 다치기 때문', '손가락이 아리기 때문', '저승에 가서 홀어머니가 되기 때문' 등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날은 옷이 헤어져도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경기 남양주, 경북 구미 · 칠곡).

셋째, 설날에 문을 바르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설날에 문종이를 바르면 안되는 이유로 '단순히 재수가 없기 때문', '재수 구멍 · 여수 구멍(돈 구멍)을 막기 때문', '복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 등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설날이나 정초에 문을 바르는 것을 피하고 8월 전에 문을 발라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섣달 그믐 전까지도 문을 바르지 못하면 정월 한 달 동안이 몹시 춥다고 한다(전북, 충남 예산 · 홍성).

넷째, 설날에 재를 치우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대체로 재를 재물(財物)로 여기는 관념의 표현이다. 이 날 만약 재를 치우면 '집안의 복(재물복)이 나간다.', '곳간에 있는 곡식이 줄어든다.', '곡식이 모이지 않고 집안의 복이 빠져 나간다.',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를 집 밖으로 절대 가져가지 않으며 설날이 되기 전날인 섣달 그믐날 미리 치우기도 한다(경남).

다섯째, 설날에 곡식을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이 날 만약 곡식을 팔거나 남에게 주면, '집안의 복이 나가서 재산이 줄어든다.', '그 해 수확량이 줄어든다.', '돈을 빌려주면 복이 나간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려면 섣달 스무날 전에 미리 빌려주기도 한다(부산 기장 · 경남 밀양).

그 외 설날의 금기 사항으로는 '개고기 먹지 않기(경기 이천, 충남 천안)', '늦잠 자지 않기(제주도)', '머리 감지 않기(경기 김포, 의왕)', '물동이 지지 않기(제주도)', '물이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경기 이천, 전북 익산)', '물질하지 않기(충남 아산)', '방망이 소리 내지 않기(제주도)', '배에 여자 태우지 않기(경북 울진)', '봉사한테 점치지 않기(제주도)', '비질하지 않기(제주도)', '빨래하지 않기(전남 목포)', '새벽에 물 길어오지 않기(전북 진안)', '성냥 사지 않기(경기 이천)', '손톱 깎지 않기(제주도)', '족제비 보지 않기(제주도)', '풀 쑤지 않기(제주도)' 등이 있다. 이들 행위를 금하는 세부적인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한 해의 농사와 개인의 운수와 관련되어 있다.

현대의 설 근대국가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음력설[舊正]과 양력설[新正]로 두 개의 설이 있었다. 음력설은 전통적인 명절, 곧 설날을 의미하며, 양력설은 현재 일상력으로 사용하는 태양력에 의한 설이다. 그러나 전통명절은 역시 설날이다. 구정이나 신정이란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요즘 설날은 추석과 함께 3일간 연휴이다. 그래서 이들 명절에는 이른바 민족대이동이 벌어진다. 그러나 설날이 오늘날과 같이 본명을 찾기까지는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수난을 겪었다. 1896년 1월 1일(음력으로는 1895년 11월 17일)에 태양력이 수용되고도 우리의 전통명절인 설날은 이어졌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부터 수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에 의하여 설날과 같은 세시명절마저 억압했다. 일본 명절인 천장절(天長節) · 명치절(明治節) 등을 국경일로 정하여 갖가지 행사에 한국인을 참가시켰다. 광복 후 우리 스스로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설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낭비성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가 아무리 신정을 강요해도 일반인들은 설날을 명절로 여겼다. 그래서 설날은 급기야 '민속의 날' 이라는 지극히 어색하고 궁색한 이름이 붙여지고 1989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본명인 '설날' 을 찾게 되었다. 이 때 언론매체에서는 70~80년 만에 설날을 찾았다며 떠들썩했다.

오늘날 설날 무렵이면 추석과 함께 '민족대이동' 이 화두가 되고 있다. 명절 연휴에 고향을 찾는 인파가 물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어른' 들이 자녀를 찾는 역류 현상도 일고 있지만 아직은 고향을 찾는 인구가 훨씬 많다. 그래서 오늘날 설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과 만남을 갖는 절대적인 시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소중하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설날을 전후하여 성묘하는 세시풍속은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갖가지 세시풍속은 퇴색되거나 단절되었다. 그래서 설의 세시풍속은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것이 일종의 '세시풍



설귀경풍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김석진

속화' 했을 정도이다. 근래 민속박물관과 민속촌 등 유관기관에서는 민속놀이판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찾는 가족들도 날로 늘고 있다. 떡국을 끓일 가래떡을 기계로 빼거나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아직 떡국을 명절음식으로 하는 세시풍속이 전승되고 있다. 떡을 먹지 않아서 밥으로 차례를 지내는 가정도 있으나 설날과 떡국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다른 나라의 설풍습 설이 언제인가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일상력이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 1월 1일부터 일상력으로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음력으로 일컬어지는 태음태양력을 사용했다. 따라서 설날은 태음태양력에 의한 정월 초하루였다. 이는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 나라 역시 오늘날에는 모두 그레고리력인 태양력을 일상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1872년에 태양력을 채용했으며 대만의 경우 손문(孫文)의 중화민국 임시정부 건립 때인 1912년에 태양력이 채택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1년, 동양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태양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음력에 의한 설명절은 아직도 중요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1월 1일부터 5일을 춘절(春節)이라 하여 명절로 보낸다. 설음식으로는 만두를 먹는데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빚어 먹으며 명절을 즐긴다. 또 우리처럼 제사를 지내고 신년인사를 하며 폭죽놀이 등을 즐기기도 한다. 중국에서도 설날과 추석 무렵이면 대대적인 민족대이동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음력의 날짜를 그대로 양력으로 사용, 양력 1월 1일은 국민의 축일(祝日)이라는 이름으로 명절화되었다. 1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신사참배를 하는데 이를 초예(初詣, 하츠모데, 정월의 첫 참배라는 뜻)라고 한다. 그리고 정초 약 3일간은 친구, 직장인들 사이에서 신년 인사를 다니기도 한다. 상인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문송(門松, 가도마츠, 새해 문 앞에 세우는 장식 소나무)을 비롯한 각종 신년 장식물이 차려진다. 2일에는 황거일반참하(皇居一般參賀, 고쿄잇파상가)라 해서 궁성이 공개되고 천황이 발코니에 나와서 인사를 받는다. 이밖에 동양적 색채와 유럽적 색채가 동시에 존재하는 러시아에서는 새해가 되면 '윗가[vodka, 보드카]' 라는 술을 마시면서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한다.

프랑스에서는 지금의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기 전에는 세수가 4월 1일이었다. 1567년 국왕 샤를르 9세 때 세수를 1월 1일로 옮겨 오늘날에 이르렀다. 설날에는 에트렌느(Etrenne, 길조의 선물)라는 선물을 교환하며 덕담을 나눈다. 아이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요구한다. 덕담은 "좋은 한 해를" 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친척이나 이웃에게 덕담을 하러 가는 어린 소녀들은 "제가 아무리 작아도 다리 밑으로 지나왔어요. 서리가 내리고 추워도 새해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을 꺼내서 주세요." 라고 한다. 오랜 농경국이었던 프랑스에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설 풍속이 있는데 마자르그에서는 설날 새벽에 날씨가 맑으면 과일풍년이 든다고 한다. 알프스 저지대에서는 주부들이 설날 아침 일찍 샘물을 길어온다. 맨 먼저 샘에 도착한 주부는 빵이나 치즈 같은 자기가 맨 먼저 만든 것을 우물 가에 갖다 놓는다. 그 다음에 온 여자는 이 헌물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그 대신에 자기네 것을 갖다 놓는다. 우리나라의 대보름 풍속인 용알뜨기와 매우 유사하다. 시푸르 지역에서는 젊은 부부가 조부모에게 세배를 하러 간다. 리얘스 지역에서는 대소가의 친척들을 나이 순서에 따라 방문하고 서로 껴안고 덕담을 나눈다. 아이들에게는 형편에 따라 1프랑이나 2프랑 또는 5프랑짜리 동전을 세뱃돈으로 준다.

인도에서는 설날에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냄비에 우유와 쌀을 넣고 죽을 끓인다. 죽을 끓이면서 한 해의 길흉을 점치는데, 죽이 잘 끓지 않거나 냄비가 깨지면 불행이 닥친다고 한다. 죽이 잘 끓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데 이 죽을 무화과잎에 싸서 친지들에게 선물한다.

베트남에서는 설날 전에 수박을 준비했다가 설날에 손님들이 모이면 수박의 가운데를 가른다. 가른 수박 가운데 부분이 빨갛게 익은 정도를 보고 한 해의 길흉을 점친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녹두와 돼지고기를 넣은 찹쌀떡인 '바인 쯩'을 바나나 잎에 싸두었다가 손님들한테 대접한다.

우리나라에서 음력 설날을 명절로 맞이하듯이 이스라엘은 유대달력에 따라 양력 9월에 설날을 맞는다. '로쉬 하사나'로 불리는 설날에 서로 덕담을 하면서 꿀에 담근 사과나 대추를 먹는다. 헝가리에서는 설날 점심 때 콩을 넣은 음식을 먹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멕시코에서는 1월 1일이 되는 시점인 자정에 시계탑 종이 열두 번 울리는 것에 맞추어 포도알 열두 개를 먹으며 새해 12개월 동안의 소원을 빈다.

이란에서는 시르(마늘)·세르케(식초)·십(사과) 등 이란어로 '시'로 시작하는 7가지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든다. 이 음식은 풍요와 건강·행복 등을 상징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高麗史, 東京雜記,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洌陽歲時記, 朝鮮常識 -風俗 篇-(崔南善 著, 東明社, 1948), 韓國民俗學論攷(任東權 著, 集文堂, 197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曆法의 原理分析(이은성, 正音社, 1985), 근대화에 따른 세시풍속의 변동과정(김명자, 文化財22, 文化財管理局, 1989), 한국세시풍속 연구의 사적 검토(金明子, 東溪成炳禧博士華甲紀念 民俗學論叢, 螢雪出版社,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歲時風俗의 技能과 그 變化(金明子, 民俗硏究2,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오곡 개념의 변천과 중시의 문화적 배경(배영동, 농경생활의 문화읽기, 민속원, 2000), 프랑스의 세시풍속(송영규, 만남, 2001), 시간의 지도: 달력(E.G 리처드 지음·이민아 옮김, 까치글방, 2003),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김명자(金明子) - 설(금기 제외)

참고문헌 | 제주도부락지 III(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0), 둔갯마을(대포마을회, 200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제주여성속담으로 바라본 통과의례(문순덕, 제주대출판부, 2004).
필자 | 문순덕(文舜德) - 금기

구정(舊正)

정의 양력설을 신정(新正)이라 부르는 것에 대비되어 생긴 설날의 이칭.

내용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설이 아닌 오래된 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시간관념 아래, 새해는 음력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음력에 기반한 전통적 시간체계는 1896년을 기하여 공식적으로는 양력을 따르게 되었다. 양력설이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좀 더 체계적으로 도입된 것은 일제에 의해서였다. 일제는 자신들의 시간 체계에 맞는 양력설을 새롭고 진취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정으로 부르고, 피식민지인인 한국인들이 쇠는 음력설은 오래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정으로 불렀다. 일제가 전통 설을 지칭한 구정이라는 명칭은 일제의 양력설 정책을 답습한 해방 후 한국 정부에 의해서도 사용되었고, 그 사용이 장려되기도 했다. 음력설은 해방된 뒤에도 공무원이나 일부 국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해를 맞고 차례를 모시는 날이었음에도 정부는 1985년에서야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음력설을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1989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음력설을 설날로 개칭하고 전후 하루씩을 포함하여 총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전통 설은 구정이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고 구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學槪說(李杜鉉 外, 民衆書館, 197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5),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旧正공휴일 公約채택 民政의원들 正式요청(朝鮮日報, 1984年 12月 20日), 旧正, 祖上의 날로 党政 公休日 합의(朝鮮日報, 1984年 12月 23日), 旧正 公休日 의결 명칭 民俗의 날로(朝鮮日報, 1985年 1月 19日), 旧正은 [설날]로…連休 확정 올해는 日曜日겹쳐 사흘쉰다(朝鮮日報, 1989年 1月 17日).
필자 | 강정원(姜正遠)

민속(民俗)의 날

정의 설의 이칭. 설, 음력설, 구정을 뜻함.

내용 민속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정도의 뜻을 가진 '민속의 날' 이라는 명칭이 음력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3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속적으로 양력설[新正]에만 사흘씩 쉬어 오다가 1985년에 음력설을 처음으로 공휴일로 제정하고 하루를 쉬었는데, 이 때 음력설에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설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두고 이렇게 어색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정부에서 고집하던 이중과세 방지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제정하고자 하는 고육책에서 비롯되었다. 1989년부터 민속의 날을 '설날' 로 개칭하고 사흘의 연휴 기간으로 늘려 양력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1991년부터는 신정 휴일을 사흘에서 이틀로, 1999년부터는 하루로 줄임으로써 음력설이 양력설과의 오랜 경쟁에서 우위를 지니게 되었다.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양력설을 공식적인 설로 제정해 두고, 음력설을 지내는 것을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폐지하려고만 하던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전통 관습을 존중하게 되는 과정에서 민속의 날이 과도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旧正명칭 설날이 좋다(朝鮮日報, 1985年 1月 16日), 旧正 公休日 의결 명칭 民俗의 날로(朝鮮日報, 1985年 1月 19日), 「민속의날」劇場街(朝鮮日報, 1987年 1月 29日).

집필자 | 강정원(姜正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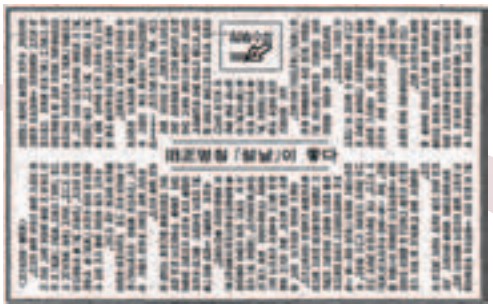
삼원(三元)

정의 음력 정월 초하루. 원단(元旦)의 다른 말. 연(年)·월(月)·일(日)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에서 유래.

내용 양나라 종름(宗懍)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정월 1일은 삼원의 날이다(正月一日是三元


1984年 12月 20日
朝鮮日報


1984年 12月 23日
朝鮮日報


1985年 1月 16日
朝鮮日報


1985年 1月 19日
朝鮮日報


1989年 1月 17日
朝鮮日報


1987年 1月 29日
朝鮮日報

之日也)."라 하였고, 청나라 부찰돈숭(富察敦崇)의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에도 『옥촉보전(玉燭寶典)』을 인용하여 "정월 1일은 원일이며 역시 삼원이라고도 한다. 한 해의 시작이요, 때의 시작이며 월의 시작이다(正月一日爲元日 亦云三元 歲之元 時之元 月之元)."라 하였다. 그리고 "이 날은 먼저 뜰 앞에 폭죽을 터뜨려 산조(山臊)라는 악귀를 피한다(正月一日 先於庭前 燃爆竹以避山臊惡鬼)."라 하였다. 그 외에 『자치통감(資治通鑑)』에도 『옥촉보전』을 인용하여 "정월은 단월이며 그 하루는 상일이다. 역시 삼원이라고도 한다. 한 해의 시작이요, 월의 시작이며 시의 시작이다(正月爲端月 其一日爲上日 亦云三元 謂歲之元 月之元 時之元也)."라 하였다. 한편 남조(南朝) 제(齊)나라 왕검(王儉)의 '양암친봉증상의(諒闇親奉烝嘗議)'라는 글에 "공경대부는 (이 날) 천자께서 병풍을 등지고 친히 임하시며, 삼원의 시작됨을 고하니 만국의 조회를 받는다(公卿大夫 則負扆親臨 三元告始 則朝會萬國)."라 하였고, 당나라 반맹양(潘孟陽)의 '원일화포택(元日和布澤)'이라는 시에는 "흐르는 서기가 만물을 적셔 주고 은택이 이 삼원날에 널리 퍼지도다(流輝霑萬物 布澤在三元)."라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32와 『동문선(東文選)』 권22에 '삼원'이라는 말이 정월 원단의 의미로 쓰인 예가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節要, 南齊書, 東文選, 燕京歲時記, 資治通鑑, 荊楚歲時記.
필자 | 임동석(林東錫)

세수(歲首)

정의 한 해의 첫머리. 설의 다른 이름으로 세초(歲初)·연두(年頭)라고도 함.

내용 중국 송(宋)나라 육유(陸游)의 『세수서사시(歲首書事詩)』에는 "한밤중 제사를 지내고 남은 박탁을 나누어 먹으며 여명에 일어나 종규(鍾馗, 역병을 몰아내는 귀신 형상)를 바꾸네(中夕祭餘分餺飥 黎明人起換鍾馗)."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설명하면서 "시골 풍속에는 이 세수일(歲首日)에 반드시 탕병(湯餠)을 쓰는데, 이를 동혼돈(冬餛飩), 연박탁(年餺飥)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 구절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한 해의 첫 날을 세수(歲首)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혼돈, 연박탁이라는 탕병을 먹는 풍속이 우리나라의 떡국 먹는 풍속과 유사한 것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劍南詩稿,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荊楚歲時記, 中文大辭典1~10(中華學術院, 1962).
필자 | 임동석(林東錫)

신일(愼日)

정의 음력 정월의 쥐날[子日]·용날[辰日]·말날[午日]·돼지날[亥日]은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명칭.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신라 경주(慶州) 습속에 정월 첫 번째 쥐날·용날·말날·돼지날을 신일로 여겨 조심하고 삼가서 일을 접어둔다. 원래 신라 소지왕(炤知王) 10년(488) 정월 대보름날, 까마귀·쥐·용·말·돼지의 기이한 예조(豫兆)가 있어 왕이 거문고상자[琴匣]의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이 쥐·용·말·돼지의 날을 신일로 삼았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속담에도 달도(怛忉)라 하며, 슬퍼하고 근심하며 금하고 꺼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김종직(金宗直)의 '달도가(怛忉歌)'라는 시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정월 16일 시골 풍속에 어떤 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나무로 만든 물건을 집안으로 들여놓지 않으며 기일로 여기니 역시 경주의 유풍(遺風)을 이은 것 같다."라 하여 조선시대에는 16일을 기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금갑(琴匣)의 화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사금갑조(射琴匣條), 혹은 서출지(書出池)의 고사를 뜻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처왕(소지왕)이 즉위한 지 10년인 무진년(488)에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하였다. 그 때 까마귀와 쥐가 다가와 울었다. 쥐는 사람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 찾으시오(혹은 신덕왕이 흥륜사에 향을 피우는 행사를 하고자 하여 나섰는데 길에 많은 쥐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괴이히 여겨 돌아와 점을 쳤더니 이튿날 먼저 우는 까마귀를 찾아라 하였는데 이 설은 그릇된 것이다.)." 왕이 기사에게 이를 뒤쫓도록 하여 남쪽 피촌에 이르렀더니 두 마리 돼


三元 『荊楚歲時記』
국립중앙도서관

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다가 그만 까마귀의 소재를 놓치고 말았다. 길가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어떤 노인이 못 속에서 책을 꺼내어 바치는 것이었다. 그 겉에는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를 가져다 바쳤더니 왕은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열어보지 않아 한 사람만 죽느니만 못하다"라 하였다. 일관이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라 상주하여 왕은 그렇다 여겨 이를 열어보았다. 그 책 속에는 "거문고 갑을 쏘아라(射琴匣)."고 되어 있었다. 왕이 궁궐로 들어가 금갑을 찾아 이를 쏘았더니 그 안에는 내전에 분향하는 중과 궁주가 들어 몰래 사통하면서 간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복주를 당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매 정월 상해, 상자, 상오일 등의 날에는 온갖 일을 삼가고 꺼려 감히 하지 않았으며 15일을 오기일(烏忌日)로 삼아 찰밥으로 제를 지냈으며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책이 나온 못을 '서출지(書出池)'라 하였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洌陽歲時記.
필자 | 임동석(林東錫)

연두(年頭)

정의 한 해의 첫머리, 연초(年初)의 의미로 쓰이는 말.
내용 해 년(年)자와 머리 두(頭)로 구성된 한자어이다. 문자 그대로 한 해의 첫머리를 뜻하는데 세수(歲首)·세시(歲始) 등과 같은 말이다. 이에 의해 연두교서(年頭敎書)·연두순시(年頭巡視)·연두사(年頭辭)·연두송(年頭頌) 등의 활동이나 문장 짓기 등의 풍속이 있었다.
관련어 연두법(年頭法)이라는 고대 민간 역산법(曆算法)이 있었다. 이것은 그 해의 천간(天干)을 통하여 정월(正月)의 월건(月建)을 알아내는 법으로 천간이 갑(甲)이나 기(己)이면 정월 월건이 병인월(丙寅月)이 되며, 을(乙)이나 경(庚)이면 무인월(戊寅月), 병(丙)이나 신(辛)이면 경인월(庚寅月), 정(丁)이나 임(壬)이면 임인월(壬寅月), 무(戊)나 계(癸)라면 갑인월(甲寅月)이 된다는 계산법이다.


愼日『三國遺事』
국립중앙도서관

참고문헌 | 새우리말 큰사전(申瑢澈 外, 三省出版社, 1974).
필자 | 임동석(林東錫)

연수(年首)

정의 한 해의 첫머리, 연초(年初)의 의미로 쓰이는 말.
내용 해 년(年)자와 머리 수(首)로 구성된 한자어이다. 문자 그대로 한 해의 첫머리를 뜻하는데 설을 이르는 다른 말로 쓰인다. 연두(年頭)·연시(年始)·세초(歲初)·세시(歲始) 등과 같은 말이다. 혹은 한 해의 첫 달인 1월을 의미하기도 한다.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은공(隱公) 2년 주(注)에 "무릇 연수란, 달은 때를 이어받고 때는 해를 이어받는다(凡年首 月承於時 時承於年)."라 하였고, 『사기(史記)』「봉선서(封禪書)」에는 "이 해에 진나라가 하수를 덕수라 이름 바꾸고 10월을 연수로 삼았다(是年秦更名河曰德水 以冬十月爲年首)."라 하였다. 한편 『한서(漢書)』「교사지(郊祀志)」에는 "패공(유방)이 드디어 10월에 패상에 이르러 한왕이 되었다. 이 때문에 10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은 것이다(沛公遂以十月至覇上 立爲漢王 因以十月爲年首)."라 하여 "한 해의 첫 달(정월)로 삼다."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 史記, 春秋穀梁傳, 漢書.
필자 | 임동석(林東錫)

연시(年始)

정의 한 해의 시작. 연수(年首)·연두(年頭)·연시(年始)·세초(歲初)·세시(歲始) 등과 같은 말. 혹은 설의 다른 말, 또는 일년의 첫 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련어 연시제(年始祭)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 조부(祖父) 2대(代)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참고문헌 | 새우리말 큰사전(申瑢澈 外, 三省出版社, 1974).
필자 | 임동석(林東錫)

원단(元旦)

정의 설날을 이르는 다른 말로 정확하게는 설날 아침을 뜻함.
내용 원조(元朝)·원일(元日)·원삭(元朔)·원정(元正)·삼원(三元)·세조(歲朝)·세수(歲首)·세단(歲旦)·수조(首祚)·정조(正朝) 등과 같은 말이다. 이 날은 일년의 첫날이자 첫 아침이며 사시의 시

작이기 때문에 신성시되었다. 『사기(史記)』「천관서(天官書)」에 "사시란 계절이 (시작되는) 날이다(四始者 候之日)."라 하고, 정의(正義)에 "정월의 아침은 한 해의 시작이고 시간의 시작이며 하루의 시작이자 한 달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사시'라 한다(謂正月旦 歲之始 時之始 日之始 月之始 故四始)."고 하였다. 그리고 '양삼조아악가(梁三朝雅樂歌)'에 "사기가 새롭게 원단을 맞으니 만수(임금의 천수)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네(四氣新元旦 萬壽初今朝)."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史記, 中國風俗辭典(上海辭書出版社, 1990).
필자 | 임동석(林東錫)

원신(元辰)

정의 설날의 다른 말. 새해 아침.
내용 고대 중국 하력(夏曆)의 정월 초하룻날을 가리키며 길신(吉辰)이라고도 한다. 흔히 원단(元旦)·원일(元日)·원삭(元朔)·원정(元正)·원조(元朝)·삼원(三元)·세조(歲朝)·세수(歲首)·세단(歲旦)·수조(首祚)·정조(正朝) 등과 같은 말로 쓰인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진(晉) 유천(庾闡)의 '양도부(揚都賦)'를 인용하여 "설날 새 아침, 음양이 차례를 이루네(歲惟元辰 陰陽代紀)."라 하였고 장화(張華)의 '식거동서상악시(食擧東西廂樂詩)'에는 "천지인 삼원의 새 아침, 조정에 빼어난 인물들 모여드네(三正元辰 朝慶鱗萃)."라 하였다. 한편 길신(吉辰)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데 『예기(禮記)』「월령(月令)」에 "천자가 원일(元日, 첫 辛日)에 상제에게 풍년을 빌고 원신(元辰, 亥日)을 택하여 천자가 몸소 쟁기를 싣고 참보개(좌우 호위병) 사이에 이를 놓는다(天子乃以元日 祈穀于上帝 乃擇元辰 天子親載耒耜 措之于參保介之御間)."라 하였고, 주(注)에 "원신은 교사를 지낸 후의 길신이다(元辰 蓋郊後吉辰也)."라 하였으며, 소(疏)에는 "해일(亥日, 돼지날)을 받가는 날로 하여 그 때문에 이를 원신이라 한다(耕用亥日 故云元辰)."고 하였다.

참고문헌 | 禮記, 太平御覽.
필자 | 임동석(林東錫)

원일(元日)

정의 설날을 이르는 다른 말.
내용 이 날 행해지는 풍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경도잡지(京都雜志)』 등에 의하면 "사당에 제를 올리는 것을 차례(茶禮)라 하며, 새 옷을 입는 것을 세장(歲粧, 설빔, 歲庇廕)이라 한다. 그리고 어른을 찾아뵙는 것을 세배(歲拜)라 하며, 시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세찬(歲饌)이라 하고, 이 때에 마시는 술을 세주(歲酒)라 한다. 조정에서는 의정 대신들이 모든 관원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가 새해 문안을 드리며 전문(箋文)과 표리(表裏)를 바치고 정전(正殿)의 뜰에 나가 조하(朝賀)를 올린다. 그리고 8도의 관찰사, 병사(兵使), 수사(水使), 각 주의 목사(牧使)는 전문과 방물(方物)을 바친다."고 하였다. 중국의 풍속에는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하면, 이 날 "장유가 모두 의관을 정제하고 차례로 세배하고 축하하면서 초백주(椒柏酒)를 올리고, 도탕(桃湯)을 마시며, 도소주(屠蘇酒)와 교아당(膠牙餳, 치아를 굳히는 엿)을 올린다(長幼悉正衣冠 以次拜賀 進椒柏酒飮桃湯 進屠蘇酒膠牙餳)."라 하여 세찬과 세주가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날 한 해의 소망을 붓으로 써서 대문 혹은 문미(門楣), 문주(門柱) 등에 붙이는 풍속도 있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荊楚歲時記, 中國風俗辭典(上海辭書出版社, 1990).
필자 | 임동석(林東錫)

원조(元朝)

정의 설날을 이르는 다른 말. 새해 아침. 원단(元旦)·원일(元日)·원삭(元朔)·원정(元正)·삼원(三元)·세조(歲朝)·세수(歲首)·세단(歲旦)·수조(首祚)·정조(正朝) 등과 같은 말로 일년의 첫 날을 뜻한다.
관련시 승려인 혜홍(惠洪)의 시(詩)에 "설날 아침 눈을 보고 즐거워 방안에 모인 사람 모두가 와자지껄하네(元朝喜見雪 一室譁少長)."라는 글귀가 있다.

참고문헌 | 새우리말 큰사전(申瑢澈 外, 三省出版社, 1974), 中文大辭典1~10(中華學術院, 1962).
필자 | 임동석(林東錫)



年首『漢書』
국립중앙도서관

정조(正朝)

정의 설날의 다른 말. 새해 아침. 원단(元旦)·원일(元日)·원삭(元朔)·원정(元正)·원조(元朝)·삼원(三元)·세조(歲朝)·세수(歲首)·세단(歲旦)·수조(首祚) 등과 같은 말이다.

참고문헌 | 새우리말 큰사전(申瑢澈 外, 三省出版社, 1974).
필자 | 임동석(林東錫)

개시(開市)

정의 설을 쇠기 위해 시장 문을 일시 닫았다가 다시 여는 행위.

내용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세시풍요(歲時風謠)』 등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는 정월 원단(元旦)부터 3일까지는 관료들 뿐만 아니라 시장상인,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렇게 3일을 쉬고 나면 관료들도 출근을 하고, 시장의 상점들도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때는 아무 날에나 문을 열지 않고 반드시 좋은 날을 가려서 문을 연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저자 거리에서도 날짜를 잡아서 문을 연다. 반드시 모충일(毛蟲日)을 택하는데 …… 대개의 경우는 범날[寅日]에 문을 여는 풍속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도애시집(陶厓詩集)』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記俗詩)'에는 "희희낙락 백성들 새해를 즐기느라 태평스런 거리 시장 문들 닫았네. 모충일 중 어느 날에 문 열면 좋나 인일(寅日) 호랑이날이 제일 좋다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서 과거 우리 조상들은 시장 문을 열기 좋은 날로 호랑이날[寅日]을 꼽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속도 현대에 와서는 정월 첫 호랑이날(上寅日)에는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낙월도(落月島) 등지에서는 상인일(上寅日)을 말날·소날 등과 함께 활동성 있는 날이라 하여 출항출타(出航出他)를 가려서 하는 날로 지켜지기도 한다.

참고문헌 | 陶厓詩集,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洌陽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필자 | 전경목(全炅穆)

권농윤음(勸農綸音)

정의 조선 22대 왕 정조(正祖)가 농사(農事)를 권장하기 위해 매년 설날에 팔도관찰사(八道觀察使)와 사도유수(四道留守)에게 내린 문서.

내용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선조[正祖]께서 매양 설날이 되면 농사를 권장하는 윤음(綸音)을 친히 지어서 팔도관찰사와 4도 유수에게 내리었다. 이것은 동경[東漢] 때 입춘날에 관대한 교서(敎書)를 내리던 일과 같은 뜻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시풍요(歲時風謠)』에는 "붉은 윤음(綸音)을 받들어 내는 것이 구중 대궐로부터 나왔으니, 봄을 당해서 급선무는 백성에게 농사를 권하는 것이다. 상신일(上申日)에 친히 기곡제(祈穀祭)를 행하니, 성대한 예는 지금에 이르도록 조종(祖宗)의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정조실록(正祖實錄)』에서도 정조 1년부터 24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년 설날에 윤음이 내려졌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조 23년에는 자신이 지방관들에게 매년 설날에 내렸던 윤음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응답이 없었음을 꾸짖으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묻고 그 해답을 경륜책자(經綸冊子)를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농업생산력을 정조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정조는 국부(國富)의 원천인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같은 권농윤음은 정조 사후에는 더 이상 관례화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정조는 매년 설날에 내린 윤음과는 별도로 1799년에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이라는 농업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윤음을 내리기도 하였다. 1792, 1794, 1797, 1798년은 극심한 흉년이 들어 전국 각지에서 재난구조 요청이 쇄도하였다. 그리고 1799년이 선왕인 영조(英祖)가 친히 적전(籍田)을 경작한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기념하는 뜻도 겸하여 농업문제의 타개책을 널리 백성들에게 구하는 윤음을 내렸는데, 이것이 곧 '권농정구농서윤음'이다.

참고문헌 | 歲時風謠, 洌陽歲時記, 正祖實錄.
필자 | 전경목(全炅穆)

덕담(德談)

정의 새해를 맞이하여 어른 · 친구 ·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인사말.

내용 주로 한 해 동안의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인데 상대의 형편에 따라 말한다. 예컨대 생자(生子) · 득관(得官) · 치부(致富) · 건강 축원 · 소원 성취 등에 대한 축하를 미리 함으로써 그 해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인사하는 것이다. 이웃끼리는 인사하고, 먼 곳은 전갈을 하거나 서신으로 연락한다. 이를테면 새해 인사카드를 보내는 것도 덕담인 셈이다.

남녀 연소자가 모두 설빔으로 새 옷을 입고 웃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 어른들은 손아래 사람에게 답을 한다. 이때 해주는 말이 덕담인데 정황에 따라 "새해에는 아들을 낳는다지." 또는 "새해에는 부자가 되었다지." 등의 덕담을 하고 세찬상(歲饌床)이라 하여 떡국을 먹게 한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형편에 따라 준다.

세배를 받은 쪽에서는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노총각에게는 "올해는 장가갔다지."라 하기도 하고, 시험을 치를 사람에게는 "올해 꼭 합격했다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올해는 더 많이 벌었다지." 하기도 한다. 과거형의 말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종의 언어주술적 덕담인 셈이다.

덕담은 같은 동년배끼리도 한다. 도시에서는 웃사람에게는 가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전화로도 한다. 지금 양력 연시(年始)에 연하장을 보내는 것도 이 덕담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지역사례 경남에서는 세배를 받는 사람은 방 안에 있고 드리는 사람은 툇마루에 나와서 절을 한다. 절을 하면서 "ㅇㅇ세배 드립니다." 혹은 "세배 받으이소.", "과세 편히 하셨습니까?" 하면 "오냐, 과세 잘 했나?" 혹은 "오냐, 명복 많이 탔나?", "오냐, 금년엔 소원 성취하라." 하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덕담을 한다.

상징성 최남선(崔南善)은 새해의 덕담은 "그렇게 되라."고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렇게 되었으니 고맙다."고 경하하는 것이라 했다. 이를테면 "올해엔 부자가 되었다지요?"하는 형식이다. 이는 언어주술적 언령관념(言靈觀念)이 기반이 되었다.



덕담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1리
국립민속박물관

고대인은 언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특히 정초 같은 설날에 하는 덕담은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다. 또 하나는 점복관념(占卜觀念)에서 찾을 수 있다. 만사 만물에 길흉의 예조(豫兆)가 있다하여 그것을 알려고 여러 가지 점복술이 생겼는데 그 중의 하나가 청참(聽讖)이다. 새해 첫 새벽거리에 나가서 방향도 없이 발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소리든 짐승의 소리든 처음 들리는 소리로써 그 해의 신수를 점치는 것을 청참이라 하는데, 덕담은 일종의 청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수(歲首)에 처음 듣는 소리로 한 해의 신수를 점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청(鳥聽) · 경청(鏡聽) 등 청참법(聽讖法)이 생겼고, 사람 대 사람이나 집안끼리 처음 교환하는 인사에 덕담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관습에서는 이같은 덕담을 주고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참고문헌 | 朝鮮常識 -風俗 篇-(崔南善 著, 東明社, 1948),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필자 | 최인학(崔仁鶴)

도배(都拜)

정의 마을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월 초하룻날이나 초이튿날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모여 행하는 합동 세배.

내용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배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려면 시간적 · 경제적으로 많은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을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어른들을 공경하고, 단합을 다지며, 새해 설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도배의 유형은 첫째, 마을 촌장 댁에 모여 도배 후 구성원 교배(交拜)를 행하는 경우, 둘째, 마을 회관에 모여 최고 연장자들에게 도배를 드린 후 구성원들을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어 교배를 행하는 경우, 셋째,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연배(年輩)를 3~4단계로 구분하여 연배가 낮은 집단들이 차례로 도배를 드리는 경우, 넷째, 마을의 연장자들이 마을 회관 등에 모여 있으면 가족 단위 또는 개별 단체별로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사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渭村里)에서는 매년 정월 초이튿날 오전 10시경에 촌장(村長) 댁에 위촌리 마을 주민이 모두 모여 촌장에게 유사(有司)가 술을 한 잔 올린 후 합동 세배[도배(都拜)]하고, 아촌장과 최고령자들에게도 도배를 한 후 모인 주민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교배를 행한다. 이 행사에는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며 남자들만 참가하고, 마을 대동계(大同契)가 주관한다. 세배를 드리고 촌장으로부터 덕담을 들은 후, 지난 한 해 동안의 마을 대소사를 보고하고, 새해의 사업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 때 마을로 이사 온 주민이나 며느리를 맞이한 사람은 동삼례로서 술을 한 동이 낸다. 협의회가 끝난 후 촌장 댁에서 준비한 세찬(歲饌)을 나눠 먹고, 세배를 오면서 가지고 온 세초(歲草)나 선물은 마을 어른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후 윷을 치는 등 민속놀이를 즐긴다. 이 마을은 조선 선조 때 과거에 합격하여 광해군 때 풍기 군수를 역임한 김상적(金尙績)의 본가가 있었던 곳으로 원래 마을 이름은 우추리였는데, 김상적의 호(號)가 위촌(渭村)이어서 이후 마을 이름을 위촌리라 하였다. 이곳으로 낙향한 후 성산 향약의 계원이었던 그의 아들인 김세록(金世錄)과 함상헌, 이수근 등이 주자(朱子)의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에 기반한 향촌 규약을 만들어 향촌 질서를 바로 잡고, 촌장을 중심으로 계원들간의 단합과 관혼상제에 상호 부조하기 위하여 약 400여 년 전에 대동계를 조직하였다. 이 대동계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정초에 한 달여 동안 집집마다 다니며 세배를 드릴 시간적 여유가 점차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껴 광무(光武) 3년경부터 합동으로 세배를 드리는 도배를 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촌장인 최긍희(86세)에 따르면, 어릴 적부터 마을 회관에서 정월 초하루에 남자들만 모여 촌장님에게 도배한 후 구성원들 간에 교배를 행하고 마을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동네 어른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여 도배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을 회관에 정월 초이튿날 동네 어른들과 청장

〈도배〉
1 도배식 준비
2 마을 어른에게 인사
3 환담을 나누는 참가자들
4 촌장에게 술을 올리는 유사
5 도배
6 세찬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함성호









년들 모두 모여 연배가 매우 높은 어른들께 먼저 도배를 드린 후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연배를 3~4단계로 구분하여 연배가 낮은 집단들이 차례로 도배를 드린다고 한다. 이후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여 좌정하고 있으면, 늦게 온 각 집안의 자손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행사를 한다. 이 때 여자들도 동등하게 참여한다. 이와 같은 도배 행사는 남제주군을 비롯한 제주도의 많은 마을에서 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인 성금으로 마을 경로 잔치를 연다고 한다.

성산면 위촌리 도배의 영향으로 1990년 초부터 인근 성산면과 왕산면, 구정면 일부 지역에서도 정월 초이튿날 마을 회관에 모여 도배를 어른들께 올리고, 교배를 행한다. 이외에도 강릉시 홍제동 · 강남동 · 주문진읍 · 옥계면 남양 2리, 동해시 신흥동 · 삼화동,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등에서도 정초에 마을 회관에서 마을 어른들을 모셔 놓고 도배를 올리며, 떡국 등을 준비하여 마을 잔치를 연다.

의의 농경 중심 사회에서는 정초가 농한기여서 한 달여 동안 어른들께 세배 다니는 것이 가능하나, 현대 산업 사회에서 보름 또는 한 달 내내 세배 다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웃어른을 공경하고 동민 간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의례가 마을 회관에서의 도배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 제주의 전통문화(제주도교육청, 1996),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도현(金道賢)

망궐례(望闕禮)

정의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지방의 수령이 궐패(闕牌)에 행한 의식.

내용 경관직으로서 중앙 관사에 있는 자는 조하(朝賀)를 통해 임금을 뵙고 경의를 표할 기회가 있으나, 지방 관아에서는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망궐례를 했다. 즉, 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서 왕을 배알하지 못하는 각 지방의 수령들이 지방 관청에서 임금을 공경하고 충성심을 표시하기 위해 임금과 궁궐의 상징인 나무에 '궐(闕)' 자를 새긴 패(牌)를 만들어 각 고을 관아의 객사에 봉안하고 예를 올렸다. 또한 지방관으로 임명된 자로서 사정에 의해 조정에 하직을 하지 못하고 부임한 자도 부임지에서 망궐례를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高麗史)』 권67 지(志)21, 예(禮) 가례(嘉禮) 원정동지상국성수절망궐하례조(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禮條)에 "만일 조정관(朝廷官)으로 정조, 동지, 성수절(聖壽節)을 만나서 출사(出使)할 자로 국중에 있는 자가 있으면 상복(喪服)으로 먼저 예를 행하되, 왕과 중관(衆官)의 행례(行禮) 열에는 있지 않는다(如有朝廷官 遇正朝冬至聖壽節 出使 在國中者 喪服先行禮 不在王與衆官行禮之列)."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경우에 망궐례가 폭넓게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넓게 행해졌던 망궐례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직에 근무하는 관찰사, 목 · 부사, 절도사 등이 왕이나 왕비의 탄신일을 비롯하여 정월 초하루 · 한식 · 추석 등 명절날에 왕과 왕비 · 세자의 만수무강을 축복하면서 근무지에서 궁궐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다. 둘째, 선비들이 회시(會試)나 정시(庭試)를 치르고자 서울에 왔다가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궁궐을 향해 하직 인사를 올리는 예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 · 조선시대에 설날, 동짓날, 중국황제 생일에 왕을 비롯한 문무관원들이 중국 궁궐을 향해서 드리는 예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망궐례는 1896년 대한제국 창건 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필자 | 전경목(全炅穆)

문안비(問安婢)

정의 서로 사돈 관계가 되는 부녀자들이 새해 안부를 전하기 위해 대신 보낸 여자 노비.

내용 조선시대 양반 가정에서는 여자들의 외출이 자유스럽지 못하였다. 설이 돌아와도 여자들은 자유롭게 세배하러 다니지 못하였다. 이에 여자들은 정초 3일부터 15일 사이에 어린 여자 노비를 일가 친척에게 보내어 새해 문안을 드렸다. 이 풍속을 통해서 조선시대 양반가 여자들의 예법(禮法), 부도(婦道), 시집보낸 딸에 대한 심려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다.

그 때 문안을 받은 집에서는 반드시 그 문안비에게 세배상을 한상 차려주며, 또 약간의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 그 집에서도 답례로 문안비를 보낸다. 조선 영조 때의 학자 이광려(李匡呂)는 이러한 풍속을 "뉘 집 문안비가 문안하려고 뉘 집으로 들어가는고(誰家問安婢 問安入誰家)."라는 시구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지역사례 대체로 이같은 문안비를 보내는 풍속은 정초의 여자들에게 출입을 삼가게 하는 금기 사항과 관련이 있다. 전남에서 문안비는 정초의 근신 · 청참(聽讖)과 관련이 있다. 정초부터 혹시 흉사를 보거나 봉변이 생기면 일년 내내 재수가 불길하다고 해서 출입을 삼가는데 특히 인일은 집에서 근신하고 출입을 삼간다. 세배 가는 것 외는 남의 집에 안 가고, 나가면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사람을 만나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러한 정초의 출입 금지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욱 심하다. 초하룻날 여자를 보면 일년 내내 재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날 여자들이 샘에 물을 뜨러 가는 것조차 금하기도 한다. 또 여자들이 정초에 출타하면 방정맞다고 해서 초닷새까지 집에 있는 곳도 있다. 이 풍습은 도시보다 시골이 심하고, 진도군 임해면(臨海面) · 나로도(羅老島) · 거문도(巨文島) · 임자도(荏子島) 등의 어촌에서 더욱 심하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著, 弘人文化史, 1960),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필자 | 최인학(崔仁鶴)

상치세전(尙齒歲典)

정의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세수(歲首)에 노인에게 노인직(老人職)을 제수하고 물품을 하사하는 것.

내용 노인직은 수직(壽職)이라고도 하는데 세종 대에 잠시 행해졌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성종 7년(1476)이다. 이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80세가 된 노인에게는 양천(良賤)을 막론하고 연초에 노인직을 제수하며, 이미 품계를 지닌 자에게는 1자급(資級)을 올려주도록 한 것이다. 이는 90세, 100세 되는 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경국대전』과는 달리 80세 때에는 조정 관료에게만, 90세 때에는 양천을 불문하고 노인직을 제수하거나 가자(加資)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의 숙종 때 기록에도 유사한 사례가 보인다. 한편 『정조실록(正祖實錄)』에는 정조말에 70세가 된 지방의 참봉을 노인직 수여자 명단에서 빠뜨려 이를 시정하게 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이 · 신분 · 현직자 여부에 따라 실제 시행이 시기별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고 때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직 수여 제도는 자주 중단되어 매년 시행되지는 않았다. 한편으로는 폐단도 있어 노인직만으로 1품관에 오르는 기이한 일도 있었고, 나이를 늘려 노인직을 받은 자들을 색출하는 일도 있었다. 노인직은 본래 실직(實職)이 아니라 산관직(散官職)이므로 직사(職事)도 없고 당연히 녹봉도 없는 관직이었으나, 때로는 국왕이 특별히 하비(下批)를 하여 실직을 제수하기도 했는데 정조(正祖) 초기에 89세의 황준(黃晙)을 공조판서에 임명한 사례도 있다.

세수에 물건을 내리는 것은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70세 이상의 조정 관료와 봉작(封爵)을 받은 명부(命婦)의 여자들에게는 쌀 · 생선 · 소금 등의 음식물을 내렸다고 한다. 주된 품목은 쌀과 고기였으며 때로는 생선이 내려지기도 하고 늙은 대신에게는 옷감이 내려지는 등 경우에 따라 차등을 두고 내려졌다. 『신보수교집록』에 따르면, 특히 여자들에게는 90세가 되기 전에는 나이가 들어도 자급을 올리는 특전이 없어서 음식물을 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東國歲時記, 續大典, 新補受敎輯錄, 正祖實錄.

필자 | 정연식(鄭演植)

설성묘(一省墓)

정의 설날에 조상의 묘소에 절하고 살펴보는 예(禮).

내용 묘소가 잘 있는지 살펴보러 간다고 하여 성묘(省墓) · 전묘(展墓) · 상묘(上墓) · 상분(上墳) · 상총(上塚) · 배분(拜墳) · 배소례(拜掃禮) · 소묘(掃墓) · 전소례(展掃禮)라고도 한다. 또는 간단하게 묘소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하여 '산소차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대체로 묘제(墓祭) 또는 성묘의 의미로 통용

되었다. 송시열(宋時烈)이 "성묘 때 처음에 재배하며, 다시 재배하고 물러서는 것은 예의가 더욱 갖추어진 것이다."고 하였듯이, 조상에게 문안 드리듯이 묘소에 절하고 살펴보는 것을 '성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조상의 체백(體魄)이 있는 묘소를 중시하여 설 등의 명절에 조상의 묘를 돌아보는[上墳] 풍속이 있었고, 사당을 중요시하는 『가례(家禮)』를 수용한 이후에도 설은 '명절'이라 하여 절사로서 묘제를 지냈다. 이에 이이(李珥)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한식과 추석에는 『가례』에 의해 묘제를 지내되, 설과 단오에는 간략하게 제수를 갖추어 단헌(單獻)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날의 날씨는 대체로 추워서 묘제를 지내기 어려웠고, 또한 『가례』에 의거해서 사당에서 지내는 차례가 강조되면서 설날에는 절사보다는 간략한 성묘를 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설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차례를 지낸 후에 성묘를 한다.

참고문헌 | 家禮增解, 擊蒙要訣, 東國歲時記, 奉先雜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常元出版社, 1969), 조선대세시기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 · 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 · 잡지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최순권(崔順權)





설절사(一節祀)

정의 설날에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 정조절사(正朝節祀) · 원단절사(元旦節祀)라고도 한다. 설 · 한식 · 단오 ·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제사라 하여 절사(節祀, 節祠)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명절에 지내는 묘제(墓祭)와 차례(茶禮)를 총칭하기도 하며, 좁은 의미에서 묘제만을 뜻하기도 한다.

내용 설날은 새해 첫 날이라 하여 국가에서는 종묘(宗廟)와 각 능원(陵園)에서 제향을 하였고, 민간에서도 이를 따라 술, 과일, 포 등의 음식으로 묘소에서 제사를 지냈다. 고려말 이후 주자의 『가례(家禮)』가 사대부들의 윤리규범서로 수용되면서 사당(祠堂)에서 예를 행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묘제는 3월 상순에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묘소를 중시하여 고려 때부터 설 · 한식 · 단오 · 추석 등의 속절(俗節)에 조상의 묘를 돌아보는 풍속[上墳]이 있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가례』에 의거하여 사당에서의 예와 사시제(四時祭)를 강조하고 명절에 행하는 묘제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나, 이언적(李彦迪)이 『봉선잡의(奉先雜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설 · 한식 · 단오 · 추석에 모두 묘소에 가서 배소(拜掃)를 하니 지금 모두 폐지할 수는 없다. 이 날 아침 일찍이 사당에 가서 시절 음식을 올리고, 이어 묘소에 가서 술을 올리고 절을 해도 괜찮다."고 하여 명절마다 묘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이(李珥)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사시(四時)마다 묘제를 지내는 것이 가묘에서의 사시제와 차등이 없으니 미안한 듯하다. 마땅히 한식과 추석에는 『가례』 묘제에 의거하여 제수를 갖추어 축문을 읽고, 산신제를 지내야 하며, 설과 단오에는 간략하게 제수를 갖추어 단헌(單獻)을 하되, 축문과 산신제를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이는 설 묘제의 축문에 "청양재회(靑陽載回)"라 하였고, 신의경(申義慶)과 김장생(金長生)은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 설 묘제의 축문에 "세율기경(歲律旣更)"이라 하여 해가 바뀌었으므로 추모의 정을 펼치고자 묘제(절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가례』에서 큰 제사로 여기는 사시제(四時祭)와 사명일(四名日)에 행해 오

1 설성묘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2 설성묘
부산시립묘지 김석진

던 성묘의 관습과 『가례』의 묘제가 함께 행해지면서, 이를 절충하여 사명일에 4대 조상에 대해 지내는 묘제는 절사로, 한식 또는 10월 초하루에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해 지내는 묘제는 세일사(歲一祀) 또는 관행적 시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이재(李縡)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세상에서 다만 묘제만을 행하고 사시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여 사절일에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묘제는 일년에 한번만 지내도록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도시 풍속에 묘소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절사'라 하고, 설 · 한식 · 단오 · 추석 등 사명일에 행한다고 하였다. 이 날 술, 과일, 포, 식해, 떡, 국수, 탕, 적의 음식으로 제사 지내며, 집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한식과 추석에 가장 성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절에 산소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조정에서는 여기에 동지를 더하여 다섯 절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절사가 주로 한식과 추석에 성행한 것은 절기상으로 봄과 가을이 계절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므로 이 때 지내는 제사가 중히 여겨졌다. 하지만 설날은 추운 겨울이어서 묘제를 지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설은 점차 『가례』에서 규정한 정지(正至) · 삭망(朔望) · 속절(俗節)의 의미로서 사당에서 차례만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설과 단오에는 사당에서 차례만을 지내거나 차례를 지낸 후에 성묘를 했다. 그리고 한식과 추석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묘소에서는 절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의의 오늘날에는 설 절사가 거의 사라지고, 다만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낸 후에 성묘를 한다. 성묘도 간단하게 술, 과일, 포 등을 준비하거나 단지 묘소에 가서 절만 한다. 이처럼 설에 절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여 세배의 의미로서 조상의 체백(體魄)이 묻혀 있는 묘소에 가서 절을 하고 묘 주위를 두루 살펴보는 데 있다.

참고문헌 | 家禮增解, 擊蒙要訣, 東國歲時記, 奉先雜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常元出版社, 1969),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 · 고려시대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 · 잡지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최순권(崔順權)

설차례

정의 설날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 매달 초하루와 보름 · 명절 · 조상의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데 '차사(茶祀)' 또는 '다례(茶禮)'라고 한다. 또한 설차례는 설날 아침 조상에 대한 세배로서, 이를 정조다례(正朝茶禮)라고 하고 떡국을 올렸다 하여 설차례를 떡국차례라고도 한다.

유래 및 변천 설,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오늘날 제사의 상징처럼 되었지만,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규범이었던 주자의 『가례(家禮)』를 비롯한 다른 예서(禮書)에서는 차례에 대한 전례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차례의 형식은 사당에서 행하는 참례(參禮)와 천신례(薦新禮) 등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자(朱子)의 『가례』에는 정월 초하루와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 삼월삼짇날(3월 3일) · 한식 · 단오(5월 5일) · 유두(6월 15일) · 칠석(7월 7일) · 추석(8월 15일) · 중구(9월 9일) · 섣달 그믐날(12월 31일) 등의 속절(俗節)에는 약밥, 쑥떡, 국수, 송편 등과 같은 시절음식을 올리는 절사(節祀)를 지냈다. 또한 입춘 · 청명 등에는 새로 나온 과일이나 생선 등을 올리는 천신례(薦新禮)를 행했다. 제사 중에서 간략한 제사를 '차(茶)를 올리는 예'라는 뜻에서 '차례(茶禮)'라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사당에서 지내는 차례는 설 · 동지 · 매월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각종 명절에 지내던 것을 합하면 1년에 무려 31회에 이른다.

중국은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도 제사에 차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록 제사에 차를 올리지는 않지만, 중국처럼 가장 간략한 제사인 경우는 차례라고 불렀다. 이문건(李文楗)의 『묵재일기(默齋日記)』에는 정월대보름 안봉사 영전에 모셔진 조상의 영정 앞에서 차례를 지냈는데, 떡, 국수, 적, 과일을 비롯해 시절음식인 약밥을 진설하고 향을 사르고 강신한 다음 대추차와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은 후 두 번 절하고 물러나 잠시 후에 신을 보내드리고 재배한 후 물러

났다는 기록이 있다.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일기(草澗日記)』에서도 매월 초하루와 보름 등에 사당에서 새벽에 국수와 떡을 차려놓고 한 잔의 술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도 서울풍속으로 정월 초하루에 사당에 배알하고 제사를 지내는 기록이 나온다.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설 · 한식 · 단오 · 추석 등의 속절에 약밥, 떡국, 송편 등의 시절음식을 올리는 절사(節祀)를 '차례'라 하고, 특히 설에 지내는 차례를 '떡국차례'라 하였다.

오늘날에는 조상을 모신 사당이 없어지면서 각종 명절 등 일년에 수십 번 지내던 차례를 설과 추석에만 지내게 되었다. 여기에는 1939년 1년에 양력 1월 1일과 추석(음력 8월 15일) 두 번의 차례만 지내게 한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儀禮準則)』의 영향도 컸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방 후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에서도 설과 추석 때만 명절 차례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옛 관습이 남아있어 지역과 가문에 따라 정월대보름 · 단오 · 중구 · 동지 등에 약밥, 팥죽 등의 시절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봉사대수 차례는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에게 지낸다. 예를 들어 고조부모까지 4대를 봉사하는 집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등 여덟 분의 조상이 대상이 된다. 만일 3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증조부모와 조부모, 부모 여섯 분만을 제사한다. 만일 일찍 상처해 재취 또는 삼취를 한 조상이 있으면 그만큼 모시는 신위가 달라진다.

본래 조상의 봉사 대수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4대 봉사를 당연시 해왔지만 처음 유교식 제례가 수용되었을 때인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신분과 지위에 따라 봉사 대수가 한정되어 있었다. 고려 공민왕 때 포은 정몽주(圃隱鄭夢周)는 4품 이상의 대부는 3대의 조상을 제사하고, 6품 이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2대 조부모까지 제사하며, 7품 이하의 하급관원과 서민들은 부모만을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제사할 수 있는 선조의 대수가 약간 바뀌어 6품 이상은 3대 봉사를, 7품 이하는 2대까지 봉사하고, 서민들은 부모제사만 지내도록 하였다. 이를 조선왕조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문화하여 거행토록 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상의 제사 대수는 제사를 주관하는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지냈기 때문에 시행상 혼란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6품 관직에 있을 때는 3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자가 죽은 후 자식이 관직이 없으면 부모만을 제사지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이러한 신분과 직위에 따른 봉사 대수는 주자의 『가례』가 보편화된 조선 후기부터 양반 가문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조선 말기에 양반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 서민들까지도 모두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의례준칙』이 제정되어 기제사는 부모와 조부모 2대까지만 지내도록 하였지만 대부분이 4대 봉사를 시행하였다. 오늘날에는 제사도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4대 봉사를 하는 집안은 그리 많지 않다.


1


2

1 설차례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1리
국립민속박물관

2 설차례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황현만

또 조상의 위패가 있을 때는 사당에서 지내지만, 사당이 없는 경우는 대청이나 안방, 산소 등에서 지낸다. 설날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조상의 위패(位牌)나 지방(紙榜), 사진 등을 모시고 지낸다. 정조차례는 조상에 대한 세배로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첫 행사이다.

제구(祭具)와 제수(祭需) 차례 지낼 때의 제구(祭具)나 제수(祭需)는 기제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제사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만 지내면 되지만, 차례는 기제사 대상인 여러 명의 조상을 모두 한번에 지내야 하기 때문에 종류는 같아도 숫자가 더 많다. 고조(高祖)까지 4대 봉사를 할 경우에는 병풍, 향상(향안), 향로, 향합, 소탁, 자리, 모사기(茅沙器) 등을 한 벌만 준비하면 된다. 반면 신위를 모시는 교위, 제수를 차릴 제상, 제수를 담을 각종 그릇은 모두 네 벌이 있어야 한다. 차례는 봉사 대상의 신위를 함께 모시고 제수를 동시에 차려야 하기 때문에 교위와 제상은 4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상이나 그릇을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어려우면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여러 번 지내면 된다. 산소에서는 신위를 모실 교위나 병풍, 모사기는 필요하지 않다.

제수의 종류는 지방과 가문에 따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 제수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제사에 소용되는 음식을 만들 재료와 비용을 의미하거나 조리가 끝난 제사음식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제수를 장만할 때는 귀신을 좇는다는 복숭아와 어감이 치사한 꽁치 · 삼치 · 갈치 등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 등은 쓰지 않는다. 또한 고추와 마늘 같은 자극성 있는 양념도 피한다. 조리를 할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조리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제상에 올릴 제수를 먹어서는 안 된다.

차례의 제수는 기제사의 상차림과 같으나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는 제수는 반(飯, 밥), 갱(羹, 국), 면(麵, 국수), 편(餠, 떡), 편청(餠淸, 조청 · 꿀), 탕(燙, 찌게), 전(煎, 부치게), 적(炙, 구이), 포(脯, 말린 고기), 해(醢, 젓갈), 혜(醯, 음료), 숙채(熟菜, 익힌 나물), 침채(沈菜, 김치류), 청장(淸醬, 맑은 간장), 술[酒], 과실(果實) 등이다.

특히 제수 중 과실은 과일 나무에서 딴 생과(生果)와 곡식을 익혀 만든 다식이나 산자, 강정과 같은 증과 등을 총칭한 것이다. 생과나 증과는 모두 땅에 뿌리를 박아 낳은 지산(地産)이기 때문에 그릇수를 음수(陰數)인 짝수로 해 2, 4, 6, 8접시로 한다. 흔히 말하는 삼색실과(三色實果)란 대추 · 밤 · 감 등 삼색과일과 세 가지의 증과를 이른다. 아무리 간소한 제사라 할지라도 대추[棗], 밤[栗], 감[柹, 곶감], 배[梨]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다. 만약 이것 없이 제사를 지냈다면 그 제사는 무효라며 다시 지내야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 세 가지 과일은 절대 빼놓지 않는다.

제사에 대추를 쓰는 것은 열매가 한 나무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열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와는 달리 꽃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기 때문이다. 이는 대추처럼 사람도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서 가야한다는 의미이다. 그것도 대추나무처럼 많이 낳고서 가야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상에 대추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것은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고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밤을 꼭 쓰는 까닭은 대부분의 식물은 싹이 돋아나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싹을 낸 최초의 씨앗이 사라져 버리지만, 밤만은 땅속에 들어가 새싹을 돋게 했던 최초의 씨밤이 그 나무가 크게 자라나도 땅 속에서 썩지 않고 생밤인 채로 오래오래 그냥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묘한 밤의 생리 때문에 밤은 자손과 조상을 연결하는 영원한 상징으로 여긴 것이다. 조상을 모시는 위패나 신주를 반드시 밤나무로 깎는 이유도 그 같은 상징성 때문이다.

제상에 감이 없는 계절에도 곶감을 올리는 이유는 고욤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여 감을 열리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감씨를 심으면 반드시 감나무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욤나무가 나온다. 감씨를 심기만 해서는 그 나무에 고욤이 열리지 감이 열리지 않는다. 감나무를 만들려면 감씨를 심어 고욤나무가 자라 3~4년쯤 되었을 때 감나무 가지를 거기에 접을 붙인다. 그것이 자라 감이 열리기 시작한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에는 생재기를 깨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르듯이 사람도 교육이란 과정을 겪으며 선인들의 예지를 이어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한 인격체로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제상에 감을 놓는 것이다.

진설법(陳設法) 제사의 상차림과 지내는 방법은 지방과 가정에 따라 각기 달라 일명 가가례(家家禮)라고 한다. 이처럼 제수 진설이 다양한 것은 각종 예서에 나타나는 진설법이 각각 다르고 각자의 의견에 맡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제상 차림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이 있다. 차례상의 진설은 기제사의 상차림과 같으나 몇 가지 점이 다를 뿐 대개 비슷하다.

제상 차림의 기본 원칙은 병풍이 쳐진 신위가 있는 곳을 북쪽으로 한다는 것이다. 집의 위치상 북쪽이 아닌 곳에 제상을 차렸더라도 제상이 있는 곳을 항상 북쪽으로 친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제주가 제상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동(東)이 되고, 왼쪽이 서(西)가 된다. 제사에서는 서쪽이 높은 방위이고 동쪽은 낮은 방위로 본다. 조상의 제사를 모실 때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두 분을 함께 모신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모시는 합설(合設)로 차린다.

제상은 신위가 있는 쪽을 제1열로 시작하여 과실류까지 모두 5열로 차린다. 제상의 열 수는 탕을 놓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탕을 쓰게 되면 자연히 5열로 배열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서 가운데 성종 때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나 1599년 사계 김장생(沙溪金長生)이 저술한 『가례집람(家禮輯覽)』, 도암 이재(陶庵李縡)가 1884년에 쓴 『사례편람』 등에는 탕이 없으며 모두 4열로 한다. 하지만 율곡 이이(栗谷李珥)가 1577년에 지은 『제의초(祭儀抄)』에서는 다른 예서와는 달리 유독 탕을 제시하고 5열로 차렸다. 오늘날 모든 가정에서 탕을 진설하는 만큼 제상은 5열로 차리는 것이 무난하다.

상차림의 원칙은 죽은 사람과 산사람의 좌우를 바꿔 놓고 좌우 균형을 잡으며 과실처럼 높게 괴는 제수, 즉 후식처럼 먹는 제수는 신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맨 끝줄에 놓고, 밥과 국은 가깝게, 적은 중앙에 놓되 헌작할 때마다 바꿔 올린다. 원칙적으로 빈 그릇과 식어도 괜찮아 차게 먹어도 되는 제수는 먼저 올리고, 뜨겁게 해서 먹는 음식은 늦게 올린다.

제사절차 차례는 조상의 위패가 있을 때는 사당에서 지내지만, 사당을 모시지 않은 경우는 대청이나 안방, 산소 등에서 지낸다. 설날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조상의 위패(신주)나 지방, 사진 등을 모시고 지낸다. 기제사는 술을 세 번(초헌 · 아헌 · 종헌) 올리지만 차례는 약식 제사이기 때문에 잔 드리기를 한번만 하고 축문을 읽지 않는 무축단잔(無祝單盞)이다. 기제사는 크게 재계(齋戒), 진설, 출주(出主),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진다(進茶), 사신(辭神), 납주(納主), 분축(焚祝), 철찬(撤饌), 음복(飮

〈설차례 순서〉
1 분향(焚香)
2 강신(降神)
3 참신(參神)
4 진찬(進饌)
5 헌작(獻酌)














6 유식(侑食)
7 낙시저(落匙箸)
8 사신(辭神)
9 납주(納主)
10 철찬(撤饌)
11 음복(飮福)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서헌당

福) 순으로 행한다. 또 차례는 단잔이기 때문에 적을 고기와 생선, 닭을 따로 담지 않고 한 접시에 담아 합적하여 미리 올린다. 대개 차례의 봉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분향(焚香): 제주가 제상 앞에 읍하고 꿇어앉아 향을 세 번 사르고 재배한다.

② 강신(降神): 제주가 읍하고 꿇어앉아 집사가 강신 잔에 따라주는 술을 모사기에 세 번 나누어 모두 비우고 재배한다. 강신은 하늘과 땅에서 조상의 혼백(魂魄)을 인도하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전에 나아가 하늘에서 혼을 모시기 위해 향을 피워 그 연기로 하늘로부터 혼을 인도하는 것이다. 향을 피워 하늘의 혼을 부른데 이어서 땅에서 혼백[陰氣]을 모시기 위해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는다. 띠풀과 모래로서 땅을 상징하는 모사기에 술을 부음으로써 땅에서 혼백을 인도하는 것이다.

③ 참신(參神): 제주 이하 모든 남자는 재배하고, 여자는 4배한다. 절은 산사람에게는 한 번 하지만 죽은 사람은 음이기 때문에 짝수로 재배한다.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두 번 더하여 4배를 한다. 그러나 약식으로 여자도 재배를 하기도 한다.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는 신주 그 자체가 신체이기 때문에 조상으로 여겨 먼저 참신을 하고 강신을 한다. 반대로 신주 대신 지방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강신을 하고 참신을 한다. 지방은 임시로 만든 신체이기 때문에 먼저 신을 불러 모시는 강신을 행하고 참례로 조상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④ 진찬(進饌): 더운 음식을 올리는 것을 이른다. 제수를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받들어 올린다.

⑤ 헌작(獻酌): 차례는 축이 없고 단잔만 올리기 때문에 기제사처럼 초헌 · 아헌 · 종헌 즉 삼헌을 하지 않고 한 번만 올린다. 제주가 주전자를 들어 윗대 조상인 고조부모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각 잔에 차례로 술을 가득히 따른다. 주부는 마찬가지로 고조부모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숟가락을 떡국에 걸치고 젓가락을 골라 시접에 걸쳐놓는다. 한식과 추석에는 떡국이 없으므로 떡에 젓가락만 걸쳐 놓는다. 이어 주인은 재배하고 주부는 4배를 한다.

⑥ 유식(侑食): 주인이 조상에게 식사를 권하는 의식이다. 주인이 주전자를 들어 각 신위의 잔에 술을 더 채우는 첨작(添酌)을 한 후 참례자 전원은 5~8분간 즉 한 끼 아홉 번을 뜨는 시간동안 조용히 부복하거나 시립해 있는다. 기제사처럼 밥을 차릴 경우는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데, 이를 삽시정저(揷匙正箸)라고 한다.

⑦ 낙시저(落匙箸): 잠시 동안 참례자 전원이 엎드려(伏)있다가 조상이 식사를 끝냈다고 여겨지면 수저를 걷는다. 주부 혹은 집사가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수저를 내려 시접에 담는다.

⑧ 사신(辭神): 제사를 마치면 조상이 자리를 떠나

가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전원 모두 재배를 하는데, 여자는 4배를 한다.

⑨ 납주(納主): 제사를 마치면 신위(위패)를 원 자리인 사당으로 모신다. 지방을 사용한 경우에는 태워서 재를 향로에 담는다. 산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다.

⑩ 철찬(撤饌): 차례가 끝나면 상을 물리고 음복 준비를 한다.

⑪ 음복(飮福): 자손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하고 조상의 유덕을 기린다. 음복을 함으로써 제사를 완전히 마치게 되는 것이다.

의의 조상숭배 실천윤리의 하나로 기제사가 사망한 날을 추모하여 지내는 의례라면, 묘제는 4대조 이상의 조상 묘를 찾아 추모하는 의례이고, 차례는 조상에게 달과 계절, 해가 바뀌고 찾아왔음을 알림과 동시에 시식과 절찬을 천신하는 의례이다. 다른 명절과 달리 설과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설날은 해가 바뀌어 한해가 시작되는 첫 날이기 때문에 어른과 돌아가신 조상에게 예를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산 사람에게는 세배가 인사이지만 조상에게는 차례가 인사이다. 또한 설이 한 해의 시작을 뜻한다면 추석은 가을의 한 가운데로 결실을 맺는 절기이며 결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또한 여름 장마기간을 거친 조상의 묘에 대한 안위가 궁금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추석 차례가 조상에 대한 감사의 인사라면, 성묘는 조상의 묘를 돌보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수십 가지나 되던 명절 차례는 모두 사라졌지만 설과 추석 차례만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家禮, 四禮便覽, 韓國民俗大觀1 -社會構造·冠婚喪祭(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우리의 전통예절(김득중 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8),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정종수(鄭鍾秀)

세배(歲拜)

정의 설날 아침[元旦], 집안 어른들께 큰절로 인사드리는 것.

내용 설날의 차례가 끝나면 집안의 어른들께 웃어른부터 순서대로 절을 하고 새해 첫 인사를 드린다. 농가에서는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집안의 어른들에게 먼저 세배하고, 일가 친척들에게는 성묘를 한 후에 세배한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다. 세배를 초닷새 안에만 하면 실례는 면한다. 세배를 하면서 손아랫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어른들은 손아랫사람들에게 "새해에는 소원성취하게." 하는 등 처지와 환경에 알맞은 말을 한다. 이것을 덕담이라고 한다.

마을에 상청(喪廳)을 모신 집이 있으면 찾아가서 상청에 조문하고 상주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일가 친척들 중에 나이가 많고 항렬이 높은 어른부터 시작하여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 이어 나이 차례, 항렬 차례로 세배를 한다. 상(喪)을 당한 사람은 보름까지 집안출입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섣달 그믐날 밤에 묵은해를 보내는 뜻으로 인사하는 것을 따로 '묵은세배'라고 한다.

세배하러 온 이에 대해서는 어른에게는 주식(떡국이나 술)을 내놓는 것이 상례이겠으나 아이들에게는 술을 주지 않고 약간의 돈 또는 떡과 과실을 준다. 세뱃돈은 '복돈'이라고 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많은 돈을 주지 않고 조금 주더라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지역사례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의 경우 55세 전까지는 세배를 다니는 편이고, 55세 이상이 되면 집에서 세배를 받게 된다고 한다. 여타 지방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상징성 새해 첫 인사말은 세배나 덕담이나 언어 주술이 포함된 것으로 언령사상(言靈思想)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새해에 복을 받으라는 인사는 예축적(豫祝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해에 복을 기원해 줌으로써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축하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이때의 복은 인사를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 혹은 가정의 복일 수도 있으나 주로 개인 지향의 복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복이다.

최근경향 근래에 농가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경로의식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마을 어른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청년회에서 단체로 세배를 올리

세배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하회마을 황헌만



기도 한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어른들을 대접하고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것은 마을주민 전체가 모여 정담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 흔히 설은 개인적이고 폐쇄적이며 소극적인 혈연 중심의 명절이라 하고, 대보름은 집단적이고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마을공동체의 명절이라고 한다. 즉, 설이 혈연을 중시하는 명절이라고 한다면, 대보름은 지연을 중시하는 명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설날에 청년회와 부녀회의 주도로 마을 어른들을 모셔 놓고 단체 세배를 하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연적인 유대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著, 弘人文化社, 1960),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民俗學 새로 읽기(최인학 외, 民俗苑, 2001).

필자 | 최인학(崔仁鶴)

세수사물(歲首賜物)

☞ 세함(歲銜)

세함(歲銜)

정의 정초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하례하러 나가고 없을 때 하례차 찾아온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놓아 두는 명함.

내용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중앙 각 관청의 서리(書吏), 천예(賤隷)나 각 군영의 장교, 군졸들은 세수(歲首)에 현직 상급 관원이나 예전에 상급 관직에 있던 선생(先生) 집에 인사를 갈 때 세함을 쓴다는 기록이 있다.

즉, 아랫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써넣은 단자(單子)를 만들어 접어들고 상급관원 집을 찾아가면, 그 집에서는 문 안에 옻칠한 반(盤)을 두어 그 위에 단자를 올려놓게 하였는데 이 단자를 '세함'이라 하였다. 이런 인사법은 지방 관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여기서 세(歲)는 세수(歲首)라는 뜻이고 함(銜)은 명함(名銜)이라는 뜻으로 자(刺)라고도 하였다.

예전에 명함은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할 때 문지기를 통해 주인에게 전해서 자신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데 사용했는데 이 명함을 전달하는 행위를 통자(通刺) 또는 투자(投刺)라 하였던 바, 주인은 명함을 받아보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따르면, 설날부터 정월 초사흗날까지는 승정원에서 공제(公除)하여 공무를 보지 않고, 다른 모든 관청에서도 출근하지 않으며 시전(市廛)도 문을 닫고 감옥도 비웠다고 한다. 이 때는 서울 도성 안의 모든 남녀들이 울긋불긋한 옷차림으로 왕래하느라고 떠들썩했다 하며, 이 사흘 동안은 정승, 판서와 같은 고위관원들 집에서는 명함만 받아들이되 이를 문 안으로 들이지 않고 사흘 동안 그대로 모아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농암 김창협(農巖金昌協)의 시에도 "고관 집 손님 명함 사흘 내내 그대로네."라는 구절이 있다. 아마도 집은 넓지 않고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관서의 하급 관리들까지 집 안에 손님으로 맞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고, 정작 자신들도 다른 곳에 인사를 가서 집에 없는 수가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고위 관원들은 하급 관원들이 인사를 하러 찾아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안으로 맞아들이기 어려워 명함을 받아두는 것으로 대신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급 관원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라 따로 명함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므로 각자 명함을 내어 놓는 것이 아니라 명함 대신에 긴 종이에 이름을 열거하여 써서 문 안의 반 위에 두고 돌아간 것이다. 결국 세함이란 관원들 사이에 세배를 대신하는 풍속이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명대의 문인 왕기(王錡)의 『우포잡기(寓圃雜記)』에 이르기를, "수도 북경에서는 해마다 정월 초하루에 주인이 모두 바깥나들이



새해명함교환식
매일신보 1919년 1월 5일

를 하여 백지와 붓과 벼루를 궤(几) 위에 놓아두고 하객들이 이름만 쓰고 가도록 한 것이 세함의 시작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필자 | 정연식(鄭演植)

연상시(延祥詩)

정의 명절을 맞이하여 나라와 군주에게 상서로운 일이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벼슬아치들이 임금에게 지어 바치는 시.

내용 단오나 추석 등 명절에 지어 올리는 시를 다 포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에 맞추어 올리는 시를 '연상시'라고 일컬었으며, 그 내용은 재앙을 물리치거나 임금의 덕을 칭송하면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많았다. 일반적으로는 연상첩(延祥帖)과 같은 말로 사용하지만 연상첩은 연상시 중에 잘된 작품을 골라 전각 안의 기둥에 붙인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서로 의미는 다르다.

연상시를 연상첩으로 만들어 대궐 전각의 기둥에 붙이는 일은 관상감(觀象監)에서 관장하였다. 닥종이를 길게 잘라 종이 하나에 연상시 한 구절씩 쓰는데 주사(朱砂)로 붉게 썼으며, 시구의 위와 아래에는 각각 연잎과 연꽃을 그렸다. 『태종실록(太宗實錄)』 8년 12월 20일에 "정조(正朝)에 대한 중외(中外)의 하전(賀箋)과 연상시(延祥詩)를 정지하도록 명하였으니 국상 때문이었다."는 기록과 『순조실록(純祖實錄)』 15년 12월 24일에 "새해의 묘궁(廟宮) 전알(展謁)은 졸곡(卒哭) 후에 품지(稟旨)하여 거행하고, 설날 아침의 조하(朝賀)와 외방(外方)의 하전(賀箋)은 권정(權停)하며, 연상시와 춘첩자(春帖子)는 모두 정지하라고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상시를 짓는 전통은 국상(國喪)과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꾸준히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상시를 짓게 하고 잘된 글을 뽑는 일은 홍문관(弘文館)과 승정원(承政院)에서 주관하였다. 먼저 홍문관·예문관(藝文館)과 규장각(奎章閣)의 제학(提學)들이 운자(韻字)를 내고, 승정원에서 미리 선정한 시종신(侍從臣)과 당하(堂下)의 문관들이 시를 지어 올리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기간은 대략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었다.

연상시를 짓는 문신들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종실록(成宗實錄)』 22년 12월 23일에 "홍문관 직제학 김응기(金應箕)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옛일을 좇아서 입춘(立春), 연상(延祥), 단오(端午) 등의 첩자(帖子)를 지제교(知製敎)로 하여금 5언 절구로 짓게 하고, 그 가운데 뛰어난 1수(首)를 택하여 궁문(宮門)에 붙여 왔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문신(文臣)을 대궐 뜰에 모아 놓고 운(韻)을 나누어 5, 7언 율시를 지어 올리도록 명하시어 드디어 한 격례(格例)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본래 융성한 정치의 미사(美事)도 아니려니와 또한 후사(後嗣)의 자만(自滿)·자대(自大)하는 조짐이 이로부터 생겨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고 하니 전교하기를, 첩자의 유래는 이미 오랜 것이다. 따로 이의(異義)를 낳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는 홍문관 지제교들에게만 짓게 하다가 성종 연간에는 모든 문신들로 하여금 짓게 한 시기도 있었지만, 조선 후기 조운종(趙雲從)의 『면암유고(勉菴遺稿)』에 "설날 며칠 전에 대제학(大提學)을 불러 시종신(侍從臣) 중에서 글을 잘 짓는 이를 뽑아 그들에게 연상시를 짓게 하고, 잘된 것을 가려 대궐의 문미(門楣)에 건다."고 한 기록을 보면 주로 홍문관 관리들이나 기타 문신들 가운데 글을 잘 짓는 사람을 선발하여 짓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선발된 문인들은 연상시를 짓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심지어는 여러 날동안 사무를 폐하면서까지 구절을 다듬고 손질하였는데 그 까닭은 연상시를 잘 지은 문신들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상

을 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뽑힌 시는 대궐 안의 전각 기둥이나 문설주에 붙여 명예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잘된 시를 지은 문신에게 특히 상을 하사하는 일은 『중종실록(中宗實錄)』 24년 12월 22일에 "연상시에 으뜸을 차지한 설서(說書) 김수성(金遂性)에게 별조궁(別造弓) 1장(張)을 하사하라."고 한 기록과 『영조실록(英祖實錄)』 50년 12월 27일에 "연상시에 으뜸을 차지한 박상갑(朴相甲)에게 녹피(鹿皮)를 하사하도록 명하였다."고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변함 없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勉菴遺稿, 成宗實錄, 純祖實錄, 英祖實錄, 中宗實錄, 太宗實錄.
필자 | 이창희(李昌熙)

일월신에게 절하기(日月神—)

정의 매년 정월 원단(元旦)일에 임금이 하늘의 해와 달의 신(日月神)에게 제(祭)를 올리고 절을 하는 행위.

내용 왕이 매년 설날 아침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하였다는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서(隋書)』 권81 「열전(列傳)」 46 신라에는 "매년 정월 원단에 서로 하례(賀禮)하는데, 왕은 이 날 연회를 베풀어 뭇 관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또 이 날에는 일신(日神)과 월신(月神)에게 제를 올린다(每正月元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羣官 其日拜日月神)."는 기록이 있으며, 『구당서(舊唐書)』 권199 「열전」 149 신라에는 "원일(元日)을 중하게 여겨서 서로 경하하고 연회를 베푼다. 해마다 이 날에 일월신에게 절을 한다(重元日 相慶賀燕饗 每以其日拜日月神)."는 기록이 있다. 또한 『신당서(新唐書)』 권220 「열전」 145 신라에는 "원일에 서로 경하(慶賀)한다. 이 날에 일월신에게 절을 한다(元日相慶 是日拜日月神)."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매년 설날 아침,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해와 달의 신에게 제를 올리고 절을 올리는 것은 한 해의 무사 태평을 기원하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 舊唐書, 隋書, 新唐書.
필자 | 전경목(全炅穆)

정조조하(正朝朝賀)

⇨ 정조하례(正朝賀禮)

정조하례(正朝賀禮)

정의 설날 아침에 조정 대신들과 관리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축하 인사. 하정례(賀正禮)·정단례(正旦禮)·조하례(朝賀禮)라고도 한다.

내용 정조(正朝)는 새해 아침을 뜻하는 말로 이 때 신년을 축하하는 인사를 한다. 이 때 궁궐에서 행하는 신년 축하 행사를 정조하례라고 하는데 문무 대신들은 궁궐에 나가 국왕에게 새해 문안을 드리고, 신년을 하례하는 전문(箋文)과 표리(表裏)를 바치며, 정전(正殿) 뜰로 나가 조하례를 올렸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 관리들은 표문(表文)을 올려 축하 인사를 대신하였다. 민간에서는 정조하례와 같은 의미로서 웃어른께 새해 인사로 세배를 하였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의미로 신년하례식(新年賀禮式)을 행하고 있다.

정조하례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행해졌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진덕왕(眞德王) 5년 조에는 정월 초하룻날에 왕이 조원전(朝元殿)에 가서 백관의 정조하례를 받으니, 하정례가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수서(隋書)』에는 매년 정월 원단(元旦)에 서로 하례(賀禮)하는데, 왕이 연회를 베풀어 여러 관원에게 두루 하사(下賜)하며, 그 날에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하였다고 한다. 최치원(崔致遠)의 『고운집(孤雲集)』에는 신라에서 중국에 보낸 「신라하정표(新羅賀正表)」가 남아 있는데, 예로부터 사신을 보내어 매년 새해 첫날의 덕(德)을 축하하는 하례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시대의 정조하례는 『고려사(高麗史)』에 「가례(嘉禮)」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날에 행하는 각종의 원정(元正) 조하의(朝賀儀)가 기록되어 있다. 이 때에 문무백관이 대관전(大觀殿)에 모이는데, 이 날만큼은 특별히 호부상서(戶部尙書)가 각 곳에서 선사한 물품목록[진봉물장(進奉物狀)]을 바치며, 합문사(閤門使)가 각 도의 축하장을 가져온 관리들을 인도하여 전정(殿庭)을 중심으로 국왕에게 축하 인사를 행하였다. 그러면 왕은 문무 백관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정조하례에 소용되는 경비는 충렬왕(忠烈王) 2년부터 내탕(內帑)의 은(銀)과 모시로 지출하게 하였고, 동왕 25년부터는 정조하례 3일 전에 백관들이 봉은사(奉恩寺)에 모여 예행 연습을 하였다.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는 원정에 양계(兩界)의 병마사(兵馬使)와 여러 목(牧)의 도호부에서 하표(賀表)를 올리면, 중서성(中書省)에 내려 보내어 그 고하(高下)를 매겨서 방(榜)을 만들어 붙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조하례는 국상(國喪) 중이거나 비와 눈 등의 악천후, 또는 일식(日食) 등이 있을 때에는 중지하였다.

조선시대의 정조하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례」에 정조에 행하는 망궐례(望闕禮) 및 배표의(拜表儀)와 함께 왕세자 및 왕세자빈 등의 조하의 내용과 반차도가 그려져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의정대신(議政大臣)은 모든 관원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가 새해 문안을 드리고, 신년을 하례하는 전문과 표리를 바치고 정전(正殿)의 뜰로 가서 조하(朝賀)를 올린다. 8도의 관찰사와 각 주(州)의 목사(牧使)도 전문과 방물(方物)을 바친다. 주·부·군·현의 호장리(戶長吏)도 와서 반열(班列)에 참례(參禮)한다."고 하였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국조오례의』에 설날이나 동짓날에는 임금이 대궐에 나가 조하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시로 명령을 내려 임금이 나아가지 않고 권도(權道)로서 식만 거행하는 권정례(權停例)를 행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법(家法)이 검소함을 전통으로 하기 때문에 예문(禮文)에 예제(禮制)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생략함으로써 간소함을 따른 것이다."고 하였다. 설날부터 3일까지 승정원(承政院) 각 방에서는 공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관청 및 시장도 문을 닫았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새해가 되면 관공서 및 학교, 회사 등에서는 해마다 신년하례(新年賀禮) 및 이를 겸하는 시무식(始務式) 등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은 다르지만 신년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는 과거의 정조하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孤雲集, 國朝五禮儀, 東國歲時記, 東國李相國集, 補閑集, 三國史記, 隋書, 洌陽歲時記,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잡지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최순권(崔順權)

파조(罷朝)

정의 조선시대 정월 초하루부터 사흘간 조정의 정무를 보지 않는 행위.

내용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설날부터 3일까지는 승정원(承政院) 각방(各房)에서는 공사(公社, 공무)를 보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관청에서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 또 시장도 문을 닫고 감옥도 비웠고, 공경대부의 집에서는 명함만 받아들이고, 면회는 허락하지 않는다(元日 自元日至三日承政院下入各房公事內外衙門不開坐 市廛閉囹圄空公卿家不許輒通門)."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정월 원단(元旦)부터 초삼일까지 관료들은 물론 아래로 모든 백성들까지 일을 하지 않고 쉬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같은 정초의 휴가 풍속은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정월 초하루 설날부터 초사흘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집안의 웃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과거 파조 풍속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洌陽歲時記.
필자 | 전경목(全炅穆)

도깨비불점

정의 연초에 도깨비불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

내용 어촌에서는 주로 섣달 그믐날 밤이나 설날에 마을의 높은 산에 올라가 바다에서 도깨비불을 보고 고기가 많이 잡힐 곳을 미리 점친다.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전승되어 왔으며, 동해안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 도깨비불점이 전승되는 모습은 서해안과 남해안이 각기 다르다. 서해안의 경우, 대개 조기잡이를 위해 갯벌에 설치하는 덤장이나 방렴과 같은 고정망 어로 행위와 관련이 있다. 남해안의 경우에도 방렴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어종이 주로 멸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촌에서도 도깨비불이 많이 보이는 곳을 기준으

로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부산과 전라도 등지에서 조사된 예가 있지만, 어촌만큼 많은 곳에서 전승된 것은 아닌 듯하다. 대개 도깨비불은 논농사와 관련되어 적절한 비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지역사례 도깨비불을 보는 풍속은 어촌과 농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어촌의 경우 도깨비불을 보는 것이 그 해의 어업활동을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곳에 고기가 많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연근해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도깨비불보기의 점세속은 거의 단절된 실정이다.

먼저 서해안에서 도깨비불보기의 풍속이 행해진 가장 북쪽 지역으로는 경기도 화성까지 이른다. 황해도 지역에서도 이런 점세속이 행해졌다는 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예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서해안 지역의 도깨비불보기는 조기잡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안도 지역까지도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깨비불보기의 일반적인 전형으로는 전라도 지방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갯벌과 관련된 정치망, 덤장이나 방렴 등을 이용한 고정식 어로 행위를 하는 어민들이 도깨비불보기를 많이 행했다. 도깨비불이 나타난 곳을 확인하고 그곳에 그물을 설치하기 위해 면허를 신청할 정도였다.

이처럼 도깨비불에 의한 점세속은 단순하게 일년의 흉풍을 점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도깨비고사와 같은 도깨비와 관련한 다양한 신앙과 유래담 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특히 어민들에게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는 신적 존재로 자리 잡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흑산도에서 채록된 도깨비고사 유래담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경남 도서지방에서는 '산망(山望)'이라고 한다. 즉, 산에서 바라본다는 뜻인데, 그것은 도깨비불을 찾아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량도의 경우는 멸치잡이 어민들에 의해서 주로 전승되어 왔다고 한다. 경남 거제에서는 정치망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도깨비불보기를 한다.

도깨비불보기를 하는 시기는 대개 섣달 그믐에서 설날, 그리고 정월 대보름으로 나누어져 있다. 경남 지역에서는 주로 섣달 그믐에 행한다고 하며, 전남 조도에서도 섣달 그믐날 도깨비불보기를 한다. 하지만 섣달 그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대개 설날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즉, 납향의 기능보다는 새해의 운세를 점친다는 관점에서 도깨비불보기는 설날 새벽에 행해지는 점세속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전남 고흥군 죽암리에서 조사된 사례를 보면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그렇지 않으면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어장할 사람들이 당산에 올라가 망을 본다는 것이다. 거기서 도깨비불이 나타난 자리에 발을 설치한다는데, 안한 지가 40년 이상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흥의 경우 정월 초하루에 하는 지역과 정월 대보름날 하는 지역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죽암리의 경우에는 정월 초하룻날 당산에 올라가 바다에서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곳을 확인한 후 말뚝으로 표시해 둔다. 그러나 월정리는 정월 대보름날 도깨비불을 보러 간다는 것이다. 죽암리와 월정리는 바로 인접한 마을인데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별로 이 점세속의 관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에서도 도깨비불을 근거로 하여 흉풍을 점치는 점세속이 전해졌다. 먼저 부산의 경우에는 섣달 그믐날 밤에 도깨비불을 근거로 풍년을 점친다. 즉, 산 쪽에 도깨비불이 있으면 그 쪽의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믿어 왔다.

광주 지방에서도 도깨비불을 근거로 흉풍을 점친다. 도깨비불이 높은 곳에서 놀면 가뭄이 들고, 낮은 곳에서 놀면 물이 흔해져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들녘에 돌아다니는 도깨비불을 본다. 도깨비불이 크고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면 풍년이라고 하며, 반대로 불기가 약하면 흉년이라고 생각한다.

전북 부안에서는 대보름 무렵에 도깨비불을 본다고 한다. 도깨비불을 '잔나비'라고 부른다. 나비처럼 날아다닌다는 뜻인지 아니면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리는 듯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잔나비가 마을의 논과 가까운 곳에서 놀면 비가 귀해져 가까운 곳부터 모를 심는다. 반대로 논에서 먼 곳에서 놀면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위

쪽부터 모를 심는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전남 초도에서는 '마을보기'라고 하여 정월 초이튿날의 당산제 때나 정월 대보름에 산에 올라가 마을을 보는 풍속이 있다. 이 때 마을이 잘 보이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민가의 지붕에서 불이 보이면 그 집에 불상사가 있다고 믿는다. 이 불을 '헛불'이나 '도깨비불'이라고 한다.

의의 농촌에서의 도깨비불보기는 논농사와 관련하여 물이 풍족할 것인가, 부족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도깨비불은 바로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념이 담겨 있다. 도깨비불이 크게 논다는 것은 습기가 많아져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는 의미와 같다. 따라서 도깨비불의 존재는 논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비가 공급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점세적인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光州의 傳說(光州直轄市 孤山硏究會, 1990), 한국의 도깨비 연구(김종대, 국학자료원, 1994),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한국 민간신앙의 실체와 전승(김종대, 민속원, 1999),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종대(金宗大)

드는 환갑쇠기

정의 59세에 맞는 설이나 수가 나쁜 해에 맞는 설은 집에서 쇠지 않고 나가서 쇤다는 풍속.

내용 예로 "드는 환갑은 안 쇤다."고 하여 59세 되는 해나, 아홉수가 들어서 운세가 나쁜 해에는 집에서 설을 쇠지 않는다. 전북 지역에서는 드는 환갑인 59세에 맞는 설이나 수가 나쁜 해에 맞는 설은 집에서 쇠지 않고, 주로 친척집이나 절, 마을 회관 등에서 쇠며 요즘은 여행을 가기도 한다. 전남에서도 역시 59세에 맞는 설이나 아홉수가 든 해에는 설을 밖에서 지내고 들어온다.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에서는 환갑을 '드는 환갑'과 '나는 환갑'으로 나누는데, 나이가 59세인 '드는 환갑'이 된 사람은 방에서 설을 쇠지 못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믐날 밤 혀로 절구통을 핥으면서 "개도 환갑 쇤가?"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리고 마구간이나 외양간 또는 헛간에서 가마니나 짚 또는 소꺼치를 침구로 하여 잠을 잔다. 이렇게 하고 나면 3년간 탈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한다.

드는 환갑쇠기 풍속은 아홉수를 꺼려하는 우리 민족의 금기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설날 속신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집필자 | 한미옥(韓美玉)

똥도둑질

정의 운수를 좋게 하기 위해 부잣집의 거름을 훔쳐오는 평안북도 강계(江界) 지역의 정월 초하루 풍속.

내용 이 풍속은 평북 강계의 풍속으로 일제강점기에 민속학자 손진태(孫晉泰)에 의해서 조사·보고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 풍속이 조사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손진태에 의해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닭이 울자마자 오전 12시경에 농부들은 가만히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름[牛糞堆肥]을 도둑질해 가지고 와서 자기집 퇴비(堆肥) 위에 던지면서 "금년에 아무쪼록 농사가 잘 되어서 부자 되게 해줍시사."하고 외친다. 도취시에(이것을 훔칠 때에) 만일 그 행동이 주인이나 타인에게 발견되면 비록 퇴비를 훔쳐오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강계서는 영리하지 못한 우둔한 인물을 "(한서운 날) 똥도둑질도 못해먹을 놈의 새끼로구나."하며 모욕한다. 한서운 날이란 정월 초하룻날을 말한다.

의의 똥도둑질은 주술적인 성격이 강한 풍속이다. 부잣집의 퇴비를 훔쳐다가 자신의 집 퇴비에 얹으면 부잣집의 기운이 옮겨 온다고 생각하는데 정월의 풍속 가운데 똥도둑질과 유사한 풍속으로 부잣집 흙을 훔쳐다가 자신의 집에 뿌리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여 흙을 훔쳐오는 '복토훔치기'가 있다.

참고문헌 | 孫晉泰先生全集6(太學社, 1981).
필자 | 편집부(編輯部)

마고할미쫓기(麻姑—)

⇨ 야광귀쫓기(夜光鬼—)

문배(門排)

정의 제석(除夕) 때 한 해 동안의 질병과 재난 등을 막기 위해 나례(儺禮)를 행한 후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문간에 붙이는 그림이나 글씨. 주로 문짝에 붙이기 때문에 '문화(門畵)'라고도 하였으며, '세화(歲畵)' 또는 '문배세화'라고도 하였다. 문배(門排)와 세화는 혼동될 수 있는데 세시기류의 문헌에는 대체로 문배는 제석 때 나례를 행하고 난 뒤 새벽에 문간에 붙이는 그림을, 그리고 세화는 정초에 궁중에서 신년을 송축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반사(頒賜)하던 그림을 가리킨다.

유래 및 역사 문배풍습의 시원(始原)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문신풍습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중국 동훈(董勳)의 『문례(問禮)』를 인용하여 "풍속에 초하룻날을 닭날이라고 하여 닭 그림을 붙였다."고 하였고, 중국 양(梁)나라 종름(宗懍)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정월 초하루에 닭을 그려 문에 붙였으며, 더욱이 호랑이를 그려 붙이는 것은 인월(寅月)에서 취한 뜻 같다."고 하였다. 한편 채옹(蔡邕)의 『독단(獨斷)』, 응소(應劭)의 『풍속통의(風俗通義)』에는 문에 신도(神荼)·울루(鬱壘)와 같은 신장(神將)의 화상이나 글씨를 그려 붙이는 문신(門神) 풍습이 나온다. 이것이 6세기경에 정초 연례 행사로 정착되고 명·청대에는 연화(年畵)로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문신풍습은 우리나라의 문배풍습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도화녀비형랑조(桃花女鼻荊郎條)와 처용랑조(處容郎條) 및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의 심화요탑조(心火繞塔條)에 언급된 문첩벽사를 예로 들어 문배를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풍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배가 우리나라 문헌에 직접 등장하는 것은 조선 초기부터인데 당시 기록에는 이것이 삼국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 초기 성현(成俔)은 '처용(處容)'이라는 시에서 "사람도 아니, 귀신도 아니, 신선도 아니, 시뻘겋고 풍만한 얼굴, 하얗게 성긴 이, 솔개 어깨에 반쯤 걸친 청운포(靑雲袍)라…… 신라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그 얼굴을 분식(粉飾)하여 그려서, 요사(妖邪)를 물리치고 병을 예방하려고, 해마다 초하룻날 문에 붙이네."라고 하여 문배가 신라 때부터 있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제석'이란 시에서는 "아이들이 저자거리에서 시끌하고 도시 사람들이 밤놀이를 하네, 문배로 울루 글씨요, 창첩(窓帖)으로 처용의 머리 그림이라……."고 하여 조선 초기 제석날의 문배풍습을 전하고 있다.

조선 중기 허균(許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궁사(宮詞)」편에는 "납일이라 재단에 눈이 한 창 몰아친다. 소리는 침문에 들려오고 수만 집이 한 때 귀신을 몰아내라. 천왕이랑 선녀를 문병에 붙인다오."라 하여 궁중 안에서의 제석날 풍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에는 문배 그림으로 천왕·선녀를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문배·문화가 더욱 유행하여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세시잡영(歲時雜詠)」에 "서울 사람은 문에 환칠하기를 숭상해 그 신기한 채색을 서로 경쟁하니 꽃으로 만든 모자는 위징인 줄 알겠고 사자 띠는 위지경덕이라."고 하였다. 또한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영조(英祖) 25년(1749) 9월 20일 기사에는 "옛날에 한 사대부가에서 무안(武安)을 그려 문에 붙였더니 대신들이 이를 두루 따라 했다."는 신년 초 문화 풍습의 사치함을 비판한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면 문배를 붙이는 풍속이 궁중·관아 뿐만 아니라 양반가와 일반 평민층까지 널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배(문화)풍습은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궁중 풍속으로 시작되어 점차 민간층으로 확산되었고 농촌보다는 한양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배풍습은 18~19세기의 세시기(歲時記)들에는 빠짐 없이 언급되고 있어 조선 말기까지 널리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운종(趙雲從)의 『면암유고(勉菴遺稿)』에는 "궐내 및 제 궁가, 경상가, 여항에서는 커다란 장지에 금갑장군(金甲將軍)을 그려 제석날(그믐날) 대중문에 붙이는데 이는 곧 옛날 울루부(鬱壘符)의 풍속이 남은 까닭이다."이라고 하였고,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도화서에서 세화를 바치면 금갑신장은 궁전문에 붙이고 선인(仙人)과 닭, 호랑이 그림은 벽에 붙이고 혹 척리(戚里)나 근신(近臣)의 사가(私

家)에도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편 1867년에 간행된 『경국대전(經國大典)』 조례집인 『육전조례(六典條例)』 진상조(進上條)에 "화원들로 하여금 각 전과 궁에 진상할 문배와 각 문에 붙일 그림을 매년 초에 그려 바쳤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선 말기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문배풍속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문물이 도입된 이후인 1930년대에도 문배를 붙이는 풍속은 여전히 존재했는데 서울에서 채집된 성조가(成造歌)인 '황제푸리' 중에는 "중문에 세 선비요, 대문에는 위지경덕, 진숙보가 분명하다."는 대목이 들어갈 정도로 당시에도 문배풍속은 매우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는 문배풍속을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일부 종가(宗家)에서는 연초에 문에 글씨를 붙이는 풍속이 남아 있다.

형태 문배그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신라시대 이래 문배로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였다고 하였지만, 이후로는 주로 신도·울루·위지공(尉遲公)·진숙보(秦叔寶) 등 중국 문신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림이나 글씨를 붙였다. 문배에 등장하는 것 가운데는 호랑이나 닭 그림이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이후의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신도·울루와 위지공·진숙보·종규(鍾馗)·위징 등이다. 이러한 인물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문신(門神) 상들인데 이들이 들어와 우리나라 문배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신도와 울루는 후한(後漢) 응소의 『풍속통의(風俗通義)』에 기록된 대로 도삭산(度朔山) 꼭대기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는 귀신들을 검열하여 사람을 해치는 귀신을 갈대끈으로 묶어 호랑이에게 먹이는 역할로 등장한 이후 중국에서 한 쌍의 문신으로 정착된다. 갑옷을 입고 손을 맞잡아 예장을 쥐고 있는 형태로 항상 두 문짝에서 마주보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어두운 얼굴색의 울루가, 오른쪽에는 밝은 얼굴색의 신도가 위치한다. 중국의 이러한 신도·울루 형상은 조선후기에도 거의 그대로 그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와 울루가 문배로 언급된 예는 많지 않지만 김홍도의 그림으로 알려진 '담와평생도(淡窩平生圖)'와 미국 피바디엑세스 박물관 소장의 작자 미상의 '평안감사환연도(平安監司歡宴圖)'에 그 모습이 남아 있어 형상을 알 수 있는데, 관아의 주문(朱門)에 비늘갑옷과 투구를 쓰고 두 손을 합하여 예장을 들고 중앙을 향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문헌에 언급된 모습들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위지공 또는 위지경덕(蔚遲慶德)·진숙보 역시 자주 등장하는 문신이다. 이들은 중국 당(唐)의 실제 인물들을 신격화한 것으로 중국의 민간 연화에는 갑옷을 입고 쌍가죽채찍[雙鞭]과 쌍쇠방망이[雙鐧]를 들고 한손을 치켜들고 말을 탄 형상으로 그려진다. 위지공과 진숙보가 문배로 쓰인 예는 조선중기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秋齋集)』 권8 「세시기(歲時記)」에 언급되어 있는데, "새해 아침[元朝]문에 신영(新影)을 붙이는데 외측에다 진숙보와 위지공 급갑(金甲) 두 장군을 붙인다."고 되어 있다. 위지공과 진숙보 상은 현전하는 문헌상으로는 신도·울루보다도 많이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의 형상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림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문헌에 묘사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진숙보는 철복두에 금비늘 갑옷을 입고 금간(金簡)을 들고 있고, 위지공은 투구에 금비늘 갑옷을 입고 꽃으로 장식한 도끼를 들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 신도·울루의 형상과 유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문신인 종규상의 경우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널리 그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근대에도 사대부가에서는 사용했다.

참고문헌 | 大東韻府群玉, 獨斷, 東國歲時記, 勉菴遺稿, 問禮, 備邊司謄錄, 三國遺事, 惺所覆瓿藁, 洌陽歲時記, 傭齋叢話, 六典條例, 靑莊館全書, 秋齋集, 風俗通義, 荊楚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民畵論考(金哲淳, 예경, 1991), 歲畵의 멋과 의미(서정걸, 月刊美術38, 1992.2), 民畵와 民間年畵(鄭炳模, 講座美術史7, 韓國佛敎美術史學會·韓國美術史硏究所, 1995), 朝鮮時代繪畵史論(洪善杓, 文藝出版社, 1999),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황경숙 저, 月印, 2000), 朝鮮後期 歲畵 硏究(金潤貞,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 김윤정(金潤貞)

법고(法鼓)

정의 정초에 승려가 민가로 내려와 북을 치고 염불하며 권선(勸善)하는 풍속.

복조리걸기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1리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본래 불교에서는 '북을 두드려(鼓) 불법(法)을 전한다.' 는 뜻으로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북을 법고(法鼓)라 불러왔기 때문에 이러한 새해풍습 역시 같은 이름으로 칭한 듯하다. 정초에 승려들이 시주를 통해 복을 지으라는 모연문(募緣文)을 길에다 펼쳐 놓은 채 북을 치고 요령을 울리며 염불을 하면, 지나가던 이들은 돈이나 여러 물품을 시주한다. 이러한 광경은 주로 장안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고, 일반 마을에서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탁발하는 형식으로 법고가 행해졌다. 이때 승려들이 절에서 떡을 만들어와 하나씩 나누어 주며 속가(俗家)의 떡 두 개와 바꾸어 가기도 하였다. 승려가 주는 떡을 승병(僧餠)이라 하는데, 이 승병을 아이들에게 먹이면 마마(천연두)를 곱게 한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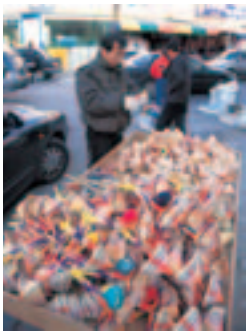
승려들은 제석날 밤 자정이 지날 무렵부터 재(齋) 올릴 쌀을 시주하라고 민가를 돌기도 하였는데, 수세(守歲)하느라 모여 앉아 밤 깊은 줄 모르던 사람들은 이 소리에 새해가 되었음을 실감하기도 하였다.

의의 및 변천 절에서는 설 등과 같은 명절이면 부처님께 공양물을 차려놓고 재를 올리는데, 새해맞이 재에 시주하면 그 공덕으로 한 해의 제액초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정조(正祖)대 이후 조정에서 승려들의 도성(都城) 출입을 금함에 따라 일반 마을에서 탁발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승되다가 시주승 풍습의 소멸과 함께 근래에는 찾아볼 수 없는 세시풍속이 되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 1990).
필자 | 구미래(具美來)

복조리(福笊籬)

복조리 노점상
경북 예천군 예천시장 황헌만



정의 설날 이른 아침에 장만하여 벽에 걸어놓음으로써 한 해의 복을 빌었던 조리.

내용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로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갠 죽사(竹絲)로 엮어 만든 것인데, 정초에 새로 장만하는 조리를 특별히 복조리라 하였다. 복조리는 있던 것을 쓰지 않고 복조리 장수에게 산 것을 걸었는데 일찍 살수록 길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섣달 그믐 자정이 지나면 복조리 장수들이 "복조리 사려." 를 외치며 인가 골목을 돌아다니고, 주부들은 다투어 복조리를 사는 진풍경을 이루었다. 복을 사는 것이라 여겨 복조리 값은 깎지도 물리지도 않았다. 일년 동안 사용할 수량만큼 조리를 사서 실이나 성냥 · 엿 등을 담아 문 위나 벽 등에 걸어두는데, 이는 장수와 재복을 바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우리 민요 '달거리창부가' 에는 "12월은 막달이라 빚진 사람 졸리는 때 해동(海東) 자시 지내고 보니 섣달 그믐이 그대로다. 복조리는 사라고 하되 임 건지는 조리는 없구나." 하고 복조리 풍습을 읊고 있다.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 해의 복이 쌀알처럼 일어나라는 의미와 함께 농경 민족의 주된 곡식인 쌀을 다루는 도구로서 더욱 중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나무를 엮은 틈새가 눈[目]이 많은 것으로 여겨져, 광명을 통해 삿된 것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상징성을 아울러 담고 있다.

돌을 걸러낸 쌀을 판매하여 조리가 실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근래에도 정초에 담 너머로 복조리를 던져 놓고 다음 날 돈을 받아가는 옛 풍습을 볼 수 있으나, 설날 복조리장수들이 직접 판매하러 다니는 풍습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장식품으로 여겨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著, 弘人文化社, 1960), 韓國民謠集(任東權 編, 集文堂, 1961~1981),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 1990).
필자 | 구미래(具美來)

복주머니[福囊]

정의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차고 다니는 여러 가지 길상 무늬가 수놓인 주머니.

내용 갖가지 색깔의 비단이나 무명천으로 둥그스름


두루주머니


귀주머니

한 모양의 두루주머니, 또는 양모서리가 각이 진 귀주머니를 만들어 수(壽)·복(福)·부(富)·귀(貴)·희(囍) 등의 글자나 십장생·불로초·박쥐·국화무늬 등을 수놓은 주머니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겨 찼는데, 이렇게 하면 사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고 복이 온다고 믿었다.

전통 한복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호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 차고 다녔는데, 복주머니는 물건을 넣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주로 정초나 특별한 날에 선물하여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새해맞이 선물로는 특히 정월의 첫 해일[上亥日]이나 첫 자일[上子日]에 복주머니를 차면 일년 내내 좋지 않은 기운을 쫓고 만복이 온다고 하여 이 날 친척이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조그마한 물건이지만 손이 많이 가고 아기자기한 장신구이면서 부적과 같은 의미가 있어 매우 귀하게 여긴 선물이었다.

각 가정에서는 곱게 만든 복주머니에 쌀·깨·조·팥 등 곡식을 넣어 아이들의 옷고름이나 허리춤에 달아 주고, 줄에 꿰어 어깨에서 반대편 허리에 오도록 매어주었다. 이 때 계집아이는 부전(노리개의 일종)을, 사내아이는 필낭(筆囊, 붓을 넣어서 차는 주머니)을 함께 달아 주기도 한다. 또한 돌잔치나 회갑 잔치에도 정성들여 만든 복주머니를 즐겨 선물하였으며, 혼인한 새댁이 근친을 갔다가 시집으로 돌아올 때 시댁 어른들에게 손수 만든 복주머니를 선물하는 풍습도 성행하였다.

이러한 민간 풍습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가례(嘉禮)나 정월의 첫 해일이나 첫 자일에 종친(宗親)과 신하들에게 복주머니를 나누어 준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때 주머니에는 볶은 황두(黃豆)를 홍지(紅紙)에 싸서 넣어 주었는데, 주머니에 갖가지 색실로 만든 끈을 꿰고 술을 길게 아래로 내려뜨려 마치 큰 나비가 기뻐 춤추는 듯 하였다고 한다.

상징성 주머니는 무언가를 담기 위한 물건이므로 여러 가지 길상을 상징하는 무늬를 새김으로써 그 속에 복을 담는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며, 이 때 볶은 콩이나 곡식을 넣는 것은 농경문화권에서 곡식이 복록의 근원임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정월의 돼지날과 쥐날에 복주머니를 주고받는 것은 돼지와 쥐가 십이지(十二支)의 끝과 처음에 해당하므로, 이날 주머니를 만들거나 차면 한 해 동안 복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한국민속대사전1·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구미래(具美來)

세화(歲畵)

정의 신년을 송축하기 위해 왕과 신하들이 서로 주고 받던 그림.

유래 세화(歲畵)를 주고받는 풍속이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정확한 유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는 연말 연초 재앙을 막기 위해 문에 붙였던 문신(門神)과 연관된 연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 문배는 제석(除夕)에 잡귀를 쫓고 새벽이 되면 대문에 문신상(門神像)을 붙여 잡귀들이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풍습으로 중국 남방의 농경적 무(巫)문화인 나례(儺禮)와 연관된 것이다. 이러한 나례풍습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문배와 더불어 세화풍습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전하는 문헌을 살펴보면, 문배(門排)와 세화는 대체로 구별해서 쓰이고 있고 그려지는 형상도 차이를 보여 세화의 유래에 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중종실록(中宗實錄)』 5년(1510) 9월 29일(壬午) 정언 민수천(閔壽千)은 궁중의 공예가 정밀하지 못함을 언급하면서, "세화는 세시에 미리 화사(畵師)로 하여금 각기 화초·인물·누각을 그리게 하고, 그림을 아는 재상에게 명하여 그 우열을 상하 등급으로 매기게 하여 부록(付錄)하고, 그 그림은 골라서 내용(內用)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상과 근신들에게 하사한다."고 하였다. 또 조선 후기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도화서(圖畵署)에서 수성(壽星)·선녀(仙女)와 직일신장(直日神將)의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드리고, 또 서로 선물하는 것을 이름하여 세화(歲畵)라 한다. 그것으로 송축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세시기류에 이와 유사하게 나와 있다. 이와 같이 연초에

도화서에서 그려 임금에게 드리고, 또 이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어 신년을 송축하는 용도의 그림으로서 세화 풍습의 면모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과 특징 기록에 나와 있는 세화로 그려진 화제(畵題)는 주로 인물과 화훼 · 영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화제들을 보면 십장생도(十長生圖:『세시풍요(歲時風謠)』에 거북과 학으로 나와 있으나 십장생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임.) · 모란도 · 추응토박도 · 신선도[현존 기록에 신선도 가운데는 '수성노인도(壽星老人圖)' 예가 가장 많이 언급됨. 또는 신선으로 나옴.] · 선녀 · 닭 · 범 등이 나온다. 그러나 현존하는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이 세화로 반사되었던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그림의 모습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조선 중기 정홍명(鄭弘溟)은 『기암집(畸庵集)』 권8 '희제세화(戱題歲畵)'에서 신선이 가지를 쥐고 학을 탄 모습, 꽃을 들고 사슴을 탄 신선 등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그림에 대한 감상까지 구체적으로 남기고 있다. 조선 후기 양주익(梁周翊)은 정조로부터 '남극노성도(南極老星圖)' 두 폭과 용을 탄 신선그림 두 폭을 받고 감사의 글을 남기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학을 타고 내려오는 신선이나 용을 타고 내려오는 신선 등의 형태가 언급되고 있어 세화로 그려진 신선도의 대체적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은 화려하고 선명한 채색으로 그려졌으며, 단폭 또는 병풍의 형태로 그려지고 하사되었다.

세화는 조선조 동안 매년 제작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실제적인 실행에서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다. 나라에 흉사가 있을 때는 그 제작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태종실록(太宗實錄)』 8년(1408) 11월 2일(丙午)조에 도화원(圖畵院)에 명하여 국상 3년 동안에는 세화를 바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숙종 46년(1720)에도 "12월 국상으로 전례에 따라 3년간 세화 제작을 중단키로 하였다."고 나와 있다. 또한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경비 절감을 위해 제작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하였다. 세화의 실제 제작량은 조선초부터 상당량에 이르렀다. 중종 5년(1537) 9월 29일 정언 민수천이 세화의 지나친 제작을 지적하면서 조종조에서는 세화 제작량이 60장을 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20장씩 받아 가지고 석 달을 그리니 그림의 장수를 감할 것을 말하고 있다. 1537년 당시 도화서의 인적 구성은 제조(提調) 1명, 별제(別提) 2명이 있었고 잡직(雜職)으로 정원(定員) 20명, 이외에 화학생도(畵學生徒) 15명, 배첩장(褙貼匠) 2명이 속해 있었다. 이 가운데 직접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인원은 잡직에 속하는 화원 20명이다. 따라서 산술적 계산에 의하면, 20명이 1인당 20장씩 모두 400장에 이르는 세화를 매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말기에 세화의 제작량은 더욱 늘어났다. 『육전조례(六典條例)』 권6, 「예조(禮曹)」 도화서조(圖畵署條)에 "세화는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이 각 30장, 본서 화원이 각 20장을 12월 20일에 봉진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비대령화원의 경우를 보면, 같은 『육전조례』 권6 규장각조(奎章閣條)에 나온 규장각의 인원 구성이 사자관(寫字官) 8명, 화원(畵員) 10명으로 나와 있으므로, 이를 대입시켜 보면 1인당 30장을 모두 10명이 진상했으므로 자비대령화원이 진상한 세화의 수량은 1년에 무려 300장에 달한다. 또 여기에다 본서 화원이 1인당 20장씩 그려내도록 되어 있는데, 『육전조례』보다 1년 전에 반포된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실린 도화서의 인원 구성이 교수관(敎授官) 1명, 화원 30명, 생도(生徒) 30명, 전자관(篆字官) 2명이다. 이 가운데 회화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화원의 수는 30명이므로 이들 화원이 각 20장씩 그려 진상한 세화는 무려 600장이나 된다.

변천 및 현황 현전하는 문헌에서 세화풍습의 시작에 관해 언급한 구체적인 예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고,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이른 기록은 고려말 이색(李穡)이 『목은시고(牧隱詩藁)』 권12 '세화십장생도찬(歲畵十長生圖讚)'에서 몸이 아파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십장생도를 꺼내 보며 장수를 기원하고 성은에 감사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 세화풍습의 존재와 '십장생'이라는 그림의 화제 그리고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송축용의 용도를 함축하고 있어 고려말 세화풍습의 존재 양상을 알려주는 예이다.

조선시대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공적인 기록물들과 개인 문집류에 세화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보인다. 조선 초기 성현(成俔)이 『허백당집(虛白堂集)』에서 왕으로부터 '세화십장생(歲畵十長生)'과 '추응

토박도(秋應兎搏圖)' 를 하사 받았음을 적고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세화의 제작과 금지에 대한 기사가 초기부터 말기까지 꾸준히 나타난다. 『태종실록』 8년(1408) 11월 2일 병오(丙午)에 도화원(圖畵院)에 명하여 국상(國喪) 3년 동안에는 세화를 바치지 말라는 기사가 나오며, 성종 14년(1483) 11월 19일 무신(戊申)에 정성근(鄭誠謹)이 경연에서 동짓날 시(詩) 지은 것을 가지고 상중에 희롱하는 일이라고 한 것에 관해 왕과 재상들이 논의하는 기사에서 승정원(承政院)의 재상들은 "세화축역(歲畵逐疫)이 비록 음사(陰邪)를 물리치기 위한 일이나 관례적으로 행해 온 일이므로 폐할 수 없습니다."라 하고, 왕도 세화가 관례 행사이므로 이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다. 조선 초기부터 세화풍습이 조정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화 제작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은 조선 중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2년(1496)에는 세화를 과하게 그리도록 하여 비난의 소리가 높았고, 한편 조선 중기의 문신 유희춘(柳希春)은 『미암일기(眉巖日記)』 권7에서 그의 나이 56세 되던 1569년 12월 28일 제석(除夕)에 봉상사(奉常寺)에서 세화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

이 시기에 세화를 붙이거나 선물하는 풍습은 주로 궁중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조선 중기의 문신 이문건(李文楗)이 1546년 이후 성주에 유배되어 적은 『묵재일기(默齋日記)』를 보면, 유배생활 기간인 12년 동안(1551~1563) 매년 세화를 그려 붙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점차 벽사적 성격의 세화가 민간에 확산되는 일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지나친 세화 제작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유학자들의 건해가 득세하면서 세화제도에 여러 가지 제제가 가해진다. 현종 10년(1669) 송시열(宋時烈)이 『우암집(尤菴集)』 권12 소(疎) '춘번환납진계답(春幡還納陳戒劄)' 에서 경비 절감을 이유로 세화를 혁파할 것을 청하여 이를 혁파하였다. 그러나 이후 숙종 2년(1676) 예조판서 이지익(李之翼)의 건의로 부활되었다가 숙종 12년(1686)에 다시 폐지되었다. 이 기록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더 이상 세화의 폐지와 부활에 관한 기사는 나오지 않으나, 정조 연간 채제공(蔡濟恭)의 『번암집(樊巖集)』 권2에 세화를 두 번에 걸쳐 하사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 이후 어느 시점인가 세화가 부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말기에 편찬된 『육전조례』 권6 「예조」 도화서조에 세화 제작과 진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 있어 세화풍습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이르러서도 신년에 서로 그림을 선물하는 풍습은 있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민간에서 그림의 수요 및 공급이 활발해지고 인쇄 그림의 범람 등으로 세화를 특별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화풍습이 연하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기타 세화의 유래에 관해서는 많은 이설들이 있지만 모두 세화를 문신(門神)과 연계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세화와 문신이 동일한 유래를 가졌는지에 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조선 후기 박미(朴彌)의 『분서집(汾西集)』 권1 '병자란후집구장병장기(丙子亂後集舊藏屛障記)」' 에서 "일곱 번째는 열 폭 모란병풍이다. 지금 두 폭은 잃어버렸고 나머지도 점점 완연한 색채를 잃어가고 있다. 이것은 도교의 초제(醮祭)시 해당 관서에서 옛 제도에 따라 나눠준 것이다. 또한 좀 작은 열 폭 병풍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꽃과 새들을 그린 것으로 오유(烏有) 선생의 작품이다. 두 그림은 옛날부터 짝을 이뤄 하나가 되었다. 예조는 전적을 모으고 서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녹봉의 등급을 매겨 우수한 자를 취하여 새해에 임금께 진상하니 세화라 한다. 또한 십장생이라 부르는 것도 있는데 모두 같은 것들이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畸庵集, 大典會通, 東國歲時記, 牧隱先生文集, 眉巖日記, 樊巖先生集, 歲時風謠, 承政院日記, 燕山君日記, 洌陽歲時記, 尤菴集, 中宗實錄, 太宗實錄, 韓國의 美8(중앙일보사, 1978),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民畵論考(金哲淳, 예경, 1991), 歲畵의 멋과 의미(서정걸, 月刊美術38, 1992.2), 民畵와 民間年畵(鄭炳模, 講座美術史7, 韓國佛敎美術史學會 · 韓國美術史硏究所, 1995), 朝鮮時代繪畵史論(洪善杓, 文藝出版社, 1999), 朝鮮後期 歲畵 硏究(金潤貞,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 김윤정(金潤貞)

소코뚜레걸기

⇨ 엄나무걸기

수수깡장식

정의 설날에 물들인 수수깡으로 고리를 만들어 다는 함경도 지역의 풍속.

내용 함경도 문천에서는 설날 각색물을 들인 수수깡으로 고리를 만들어 실내를 장식하는 풍속이 있었다. 함경도 영흥에는 정월 대보름 무렵 수수깡 이삭을 만들어 다는 풍속이 있었다. '수수깡 이삭만들어 달기'는 아이들이 수수깡을 한 마디씩 잘라 싸리 가지나 잔가지가 많은 나무에 꽂아 놓아 마치 곡식 이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노적가리 위에 꽂아 놓으면 바람에 살랑살랑 부딪치는 소리도 좋거니와 그 수수깡 이삭들이 바람에 잘 견디어 음력 2월 초하루까지 가면 풍년이 될 징조라고 보았다. 이 수수깡 이삭은 음력 2월 1일에 모두 철거하여 불사르는데, 이제부터 농사일이 시작된다는 암시이다. 이는 남쪽 지방의 볏가릿대세우기와 유사한 풍속이다.

참고문헌 | 文川郡誌(문천군지편찬위원회, 1988), 永興郡誌(永興郡民會, 1989),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시주(施主)

☞ 법고(法鼓)

야광귀쫓기(夜光鬼—)

정의 설날 밤에 하늘에서 내려와 신발을 훔쳐가는 귀신인 야광귀를 쫓기 위해 체 등을 걸어두고 머리카락을 태워 마당에 뿌리는 풍속.

이칭 충북 음성에서는 '달귀귀신'이라고 하며,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야귀할멈'이라고도 한다. 또한 문헌 자료에서는 야광귀를 야유광(夜遊狂)·야광신(夜光神)·앙광이 등으로도 부른다. 야광(夜光)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 두 가지 설이 나온다. 첫째는 야광은 구귀(癯鬼)를 뜻하기 때문에 구광(癯光)이라 한다는 설이다. 구귀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바짝 여윈 귀신을 뜻하는데 한자 야(夜)의 음과 구(癯)의 훈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보았다. 이에 대해 유득공은 이것은 틀린 것이고 약왕(藥王)이라는 음이 와전되어 만들어진 말로 보았다. 약왕의 형상이 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이런 이유에서 어린아이들을 일찍 재우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라고 했다.

내용 조선시대 세시풍속을 기록한 각종 세시기(歲時記)에는 야광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경도잡지』에는 "야광이라는 귀신이 있는데, 밤에 사람의 집에 찾아와 신발 훔치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신을 잃은 사람은 일년 신수가 불길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신발을 숨겨놓고, 야광귀가 오기 전에 일찍 잠을 잔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장대 등에 체를 걸어 둔다. 야광귀가 찾아와 체를 보고는 구멍을 세다가 순서를 잃어버려 다시 세면서 결국 다 세지 못하고 새벽에 닭이 울면 도망간다."는 기록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이름이 야광인 귀신이 이 날 밤 민가에 내려와 아이들의 신발을 두루 신어 보다가 발 모양이 딱 들어맞는 것을 신고 가 버리면 그 신발의 주인은 불길하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이 무서워 모두 신발을 감추고 불을 끄고 잔다. 그리고 체를 대청 벽이나 섬돌과 뜰 사이에 걸어 둔다. 야광귀가 체의 구멍을 세어 보다가 다 세지 못하여 신발 신는 것을 잊어버리고 닭이 울면





1 야광귀쫓기(신발감추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심환근

2 야광귀쫓기(체걸기)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1리
국립민속박물관

가 버리기 때문이다. 야광이 어떤 귀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혹시 약왕의 음이 변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약왕의 모습이 추하므로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는 무서워 떤다."고 전한다.

『세시풍요(歲時風謠)』에는 야광귀를 쫓기 위해 저녁에 마당에서 머리털을 태우고 그 재를 뿌리는 풍속을 적고 있다.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야광귀를 '야광신'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이를 '앙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전한다. 설날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월 대보름에도 내려온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섣달 그믐날 밤을 새우고, 설날에는 차례와 세배 등을 다니느라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방심하고 곤하게 잠자고 있을 때 신발을 훔쳐 간다는 것이다.

현대 민속조사보고서 자료인 『한국민속종합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와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세시풍속』에도 야광귀를 쫓는 풍속이 조사되어 있다. 내용은 세시기의 그것과 동일한데 『해동죽지』에서처럼 설날 뿐만 아니라 대보름에도 야광귀를 쫓기 위한 풍속이 행해지고 있음이 발견되며 경기도 김포에서는 몸에 맞는 옷이 있으면 옷도 가져간다는 변용 사례도 발견된다.

한편, 일본의 민속학자 무라야마(村山智順)는 야광귀를 쫓기 위해 걸어두는 체의 구멍을 세는 이유에 대해서 체의 구멍을 눈으로 생각한 것으로 풀이한다. 즉, 체는 무수히 많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광귀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치 방상씨의 눈이 4개로 표현되어 악귀를 쫓아내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하고 있다. 즉, 눈이 많은 귀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지녔을 것인가 하는 호기심에서 체의 구멍을 세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京畿道 篇-(文化財管理局, 1978),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朝鮮の鬼神(朝鮮總督府, 1930).
필자 | 김종대(金宗大)

원일소발(元日燒髮)

정의 정월 초하룻날 해가 질 무렵 문 밖에서 한 해 동안 모은 머리카락을 태우는 풍습. '머리카락사르기'라고도 한다.

내용 옛날에는 남녀 모두 머리카락을 길렀는데, 머리를 빗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납지(蠟紙)로 만든 상자 등에 모아 두었다가 설날 해가 질 무렵 문 밖에서 불에 태워 없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염병과 같은 나쁜 병을 물리친다고 믿었으며, 충청도와 전주 등지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에 태우기도 했다. 당나라 학자 손사막(孫思邈)이 쓴 『천금방(千金方)』이라는 의서(醫書)에 "정월 인일(寅日)에 백발을 태우면 길하다."고 하였는데, 『경도잡지(京都雜志)』 등에서는 설날의 소발풍습이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라 보았다.

의미 소발풍습은 머리카락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발부(身體髮膚)이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머리카락·손톱·치아 등 신체의 일부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주술적 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설화에는 신체 일부분이 주인의 분신(分身)으로 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머리카락·손·발톱, 빠진 치아 등을 함부로 버리면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조심성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 1990).
필자 | 김미영(金美榮)

청참(聽讖)

정의 설날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 처음 듣는 짐승의 소리로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것.

내용 일반적으로 날짐승의 소리로 일년의 운세를 판단하는데, 까치소리를 먼저 들으면 그 해의 운수가 좋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그 해 운수가 흉하다고 여긴다. 청참(聽讖)에 관한 문헌 기록은 조선 순조 때 홍석모(洪錫謨)가 지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그 내용이 보이는데, "새벽에 저자 거리로 나가서 방향에 상관 없이 처음에 듣게 되는 소리로 일년의 길흉을 점치는데 이것을 청참이라고 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이미 전국적으로 행해진 풍속으로 보인다.

지역사례 전남 지역에서는 설날 아침 일찍 날짐승이 먼저 기동(起動)을 하면 그 해는 풍재(風災)가 있다고 믿었는데, 특히 까마귀가 먼저 지저귀거나

기동을 하면 그 해 바람이 세고 병(病)이 흔하다고 하여 극히 싫어한다. 또한 소가 먼저 기동하면 그 해 풍년이 들고, 개가 먼저 짖으면 그 해 도둑이 심하다고 믿고 있다. 청참을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곳도 있는데, 전남 순천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새소리를 듣고 점세를 한다. 그러나 설날이든 대보름날이든 모두 정월이라는 일년이 시작되는 달에 그 해의 운세를 점쳐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겠다.

의의 우리 민족은 시작을 매우 중시하는 민족으로, 특히 일년의 시작인 설날 아침에 한 해의 운세를 점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풍속을 행하였는데 청참도 그러한 점복(占卜) 행위의 한 가지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全羅南道誌(全羅南道 文化公報部, 1969), 우리마을의 풍속: 세시풍속과 마을제사(해남문화원, 1997), 전남지역 세시풍속의 특징과 분포(이경엽, 목포어문학2,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

필자 | 한미옥(韓美玉)

설빔

정의 설날에 입는 새 옷.

내용 설에 입는 옷을 '설빔' 또는 '세장(歲粧)'이라고 한다. 한 해를 맞이하는 새날 아침에 고운 설빔을 입고 조상과 이웃에게 새해 인사를 한다. 묵은해의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일들은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일년 동안 무사하고 길운(吉運)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각오와 새 마음을 함께 담고 있다. 설빔은 나이와 처신에 맞게 마련하였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가문의 희망이요, 미래의 자산(資産)이다. 부귀 권세를 가진 집안의 남아(男兒)는 머리에 검정색 복건에, 옷은 바지와 저고리에 두루마기나 전복을 입히고, 버선에 신까지 곁들이기도 하였다. 두루마기도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색을 넣은 오방장(五方丈)두루마기나 색동을 넣은 색동두루마기를 입으면 최상의 치레였다. 여아(女兒) 치레로는 노랑 저고리에 분홍치마가 상징이었다. 여아들은 종종머리에 뱃씨를 넣어 땋고, 머리에 굴레를 씌워 방한과 예절을 갖추기도 하였다. 이것은 대개 돌 때 마련되는 '돌치레'와 같다.

아이들은 가장 고운 색과 옷감으로 머리에서 발에 신는 것까지 이 세상 모든 아름답고 고운 것들, 또 좋은 것[祥瑞]들을 담은 색들로 곱게 꾸며 주려고 하였다. 특히 아이들 설빔에는 우주 삼라만상의 고운 색을 낼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곱고 밝고 맑은 것들로 하였다.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소매는 색색이 고운 색을 넣어 만들었다. 저고리 색은 백 · 옥 · 분홍 · 연두 · 갈 · 두록 등 여러 가지가 쓰였으며, 바지는 흰색이나 두록 등이 많았다. 색은 특히 그들이 그렇게 곱고 밝게 앞길이 트이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던 것이다. 옷감은 반가(班家)에서는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명주로 하였다. 고운 색이 없고 비단이나 명주를 마련할 수 없는 집에서는 무명에 긴 홍색 옷고름을 달아 가슴 한바퀴를 돌려 매었다. 고름을 길게 한 것을 '돌띠'라고 하였다. 돌띠는 반드시 붉은 색으로 하였다. 붉은 색으로 하는 것은 "관(官)발 잘 받으라는 이치"라 한다. 자라서 당상관(堂上官) 같은 높은 관직에 오르기를 기원함에서였다. 돌띠는 홍색 대신 청색을 달기도 하였다. 이는 "혼인발 잘 받으라는 이치였다." 한다. 버선은 도톰하게 솜을 넣은 솜버선을 신겼다. 버선도 여유 있고 재간 있는 집에서는 누비고 수(繡)를 놓은 타래버선을 마련하였다. 타래버선 코에는 반드시 붉은 색실로 상모를 달았다. 이도 부귀영화를 염원하고, 한편 사악한 것의 접근을 막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담고 있다. 버선목에는 청색이나 홍색으로 끈을 달았다. 이것도 '관발'과 '혼인발'의 염원을 담고 있다. 아이들 옷에 붉은 색은 특히 미래를 예비하는 소망의 색이었다. 그래서 특히, 두루마기나 저고리에는 고운 색이나 붉은 색을 썼다. 붉은 색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벼슬에 오르기를 염원한 사람들의 멋과 소담한 소망을 담은 표현 수단이었다. 또한 희망과 번창과 건강 및 벽사를 상징하는 색이었다. 특히, 임금이나 왕비 등 나라의 가장 웃어른들의 옷에는 매일 입는 상복(常服)에도 쓰였으며, 관리들에게는 관복이나 특별한 행사에만 허용되었다. 남자어른들 중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가진 자들도 관복(官服)을 벗었을 때는 통상 예복인 도포(道袍)를 입을 때에나 홍색 띠[細條帶]를 맬 때에 한하였다.

처녀들도 주로 홍색 치마에 노랑 저고리가 상징이었다. 땋은 머리에 붉은 비단에 금박(金箔)을 박은

제비부리댕기를 드리면 더 이상의 치레는 없었다. 총각들도 반가(班家)에서는 복건(幞巾)을 쓰고 바지저고리에 시대에 따른 포(袍)를 입었다. 머리에는 1895년 단발령(斷髮令) 이전에는 처녀들처럼 댕기를 드렸는데 끝이 네모난 검정색 댕기를 드렸다.

일반 가정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에 어른들에게 묵은세배를 올렸다. 이때 제수(祭需)로 쓸 음식을 마련하고 남은 음식과 함께 설빔을 마련하여 드렸다. 설빔거리로 형편이 좋으면 옷 일습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버선이라도 마련했다. 이 설빔은 받은 자리에서 입어 보시도록 하여 잘 맞는지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체중을 가늠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버선을 신을 때 발에 쑥 쉽게 들어가면 자식들은 미안해했다. 그만큼 살이 빠졌기 때문이다. 설빔을 입고 음식을 들면서 한 해를 무사히 잘 지냈음을 감사히 여기고, 새해에 더 좋은 길운이 있기를 바라는 덕담(德談)을 곁들여 주었다. 돌아가신 분의 상청(喪廳)이 마련된 경우도 설빔을 지어 올렸다. 새 옷을 만들어 올리고 음식을 올려 묵은세배를 올렸다. 어른들은 여유가 있으면 남자들은 바지저고리에 명주로 만든 포를 입었다. 특히 아이들을 거느리고 첩첩이 어른을 공경하는 효(孝)를 삶의 바탕으로 했던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치장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입던 옷을 깨끗이 하여 입는 정도였다. 겨울이기 때문에 웃어른 것으로 명주(明紬) 옷감에 솜을 넣은 솜바지나 솜저고리를 마련하고 거기다 도포나 창의에 토시[吐手]와 방한모를, 1890년대 의제개혁(衣制改革) 이후에는 두루마기를 마련하면 최상이었다.

나라의 웃어른도 마찬가지였다. 왕실에서도 전날 올리면 입어본 후 아랫사람들의 노고를 칭송하고, 한 해 동안 무사함을 자축하면서 왕실과 온 나라 백성의 무사태평을 기원했다. 왕실에서도 설빔 마련은 민간과 다르지 않았다. 특수한 대례(大禮) 때와는 다르지만 역시 평상시와는 달리 각기 신분에 맞게 갖추었다. 일년 중 성장은 탄일(誕日)과 정조(正朝), 즉 정월 초하룻날 의복이다.

조선 말기 순화궁(順和宮, 헌종)의 후궁 첩초(帖草)에 의하면, 비빈(妃嬪)들이 정초 문안례(問安禮)를 올릴 때는 소례복 차림을 했다. 이때 머리는 칠보로 장식한 큰머리를 하고, 옷은 비단의 초록 직금(織錦) 당(唐)저고리에 다홍색 스란치마를 입었다. 속에는 남색 스란웃치마를 받쳐 입었다. 당의고름에는 삼작(三作)노리개를 차고, 머리는 큰머리 칠보(七寶)를 하고, 허리춤에는 주머니로 '진주낭자'를 차고, 금반지를 끼었다.

궁(宮)에서는 위아래 법도가 엄격하여 아무리 한서(寒暑)를 느끼는 개인차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먼저 계절복을 갈아 입을 수 없었다. 절기가 바뀌는 날에 웃전에서 시작해 아랫사람들도 갈아입었다. 또한 색도 금기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 있었다. 금했던 색 중에서 황(黃)이나 자(紫)는 고종(高宗) 황제 등극 이전에는 황제의 색이라 금했다. 금기했던 색은 흰색과 검은 것으로 이는 상복(喪服)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궁녀들의 옷은 보통 남치마에 옥색저고리이다. 색은 같지만 품계에 따라서 달리 하였는데, 저고리는 반회장이나 삼회장으로 하였다. 다만 비빈이나 왕녀(王女)들의 옷 색깔이 백색이나 흑색, 그리고 회장을 달지 않은 옥색저고리는 금물이었다. 이 색은 궁에서 금기색이었기 때문이다. 치마폭이나 길이도 민간보다는 넓고 길었다.

궁녀 중에서도 어린 생각시들은 노랑저고리에 다홍이나 분홍치마를 입었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입는 옷으로 40세 미만의 상궁내인(尙宮內人)들은 연두삼회장저고리에 남색치마였으며, 60세 이상은 평상시와 다름없는데 반회장에 끝동은 남색으로 했다.



설빔 이서지

의의 설빔은 묵은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길운을 염원하는 소망과 함께 왕실이나 가난한 백성들까지도 위를 섬기고 아래를 아끼는 충(忠)과 효(孝)의 정성을 다져 마음이 어우러지는 인간 삶의 소담한 매개체였다.

참고문헌 | 朝鮮朝宮中風俗研究(金用淑 著, 一志社, 1987).
필자 | 고부자(高富子)

세장(歲裝, 歲粧)

⇨ 설빔

가래떡

정의 멥쌀가루를 찐 다음 안반에 놓고 친 후 둥글려서 길고 가늘게 만든 흰떡. 떡국[餠湯]의 재료로 쓰인다.

가래떡과 떡국 중국 한대(漢代)의 『방언(方言)』에 의하면, 이(餌)에는 고(糕, 가루떡 · 시루떡)와 자(餈, 인절미 · 흰떡)가 있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 떡이 언제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과 같이 당시에 이미 쌀농사가 행해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에도 이 시기부터 떡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떡을 깨물어 그 잇자국으로 왕위에 유리가 올랐다는 기록은 흰떡일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산동(山東)의 태수 가사협(賈思勰)이 439년에서 525년 사이에 저술한 『제민요술(齊民要術)』에는 밀가루로 만든 병(餠)을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탕병(湯餠)이 있어서 수인병(水引餠) · 기자면(碁子麵) · 혼돈(餛飩) · 박탁(餺飥)을 탕병의 항목에 넣고 있다. 수인병은 밀가루 반죽을 가는 막대모양으로 비벼 만들어 얇게 눌러서 삶아낸 것으로, 당대(唐代)에 불탁(不托)의 칼국수로 발전하였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수명이 길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칼국수를 더욱 더 가늘고 길게 만들어 장수면(長壽麵)이라 하였다.


가래떡 궁중음식연구원

기자면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가래떡처럼 둥근 막대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얇게 썰어서 건조시켜 두었다가 끓여먹는 소위 밀가루 떡국이다. 한반도에서의 밀은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귀한 곡식이었기 때문에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로 만든 떡을 한반도에서는 병(餠)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하여 기자면의 재료였던 밀가루 대신에 멥쌀가루를 채택하여 생겨난 것이 소위 가래떡이며, 이것을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탕병이다.

조선조의 서울 풍속을 적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흰떡을 조금씩 떼어 손으로 비벼 둥글고 길게 문어발같이 늘리는데 권모(拳摸)라 한다. …… 제석(除夕)에 권모를 엽전 모양으로 잘게 썰어 넣은 뒤 …… 식구대로 한 그릇씩 먹으니 이것을 떡국[餠湯]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을 떡국 먹는 그릇 수에 비유하기도 한다[添歲餠]고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가래떡을 백병(白餠)이라 적고, 세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병탕이라고 하고 있다.

섣달 그믐날 세신(歲神, 수명 장수와 농작물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에게 올렸던 가래떡을 역시 세신에게 올렸던 육류와 합하여 하나의 냄비에 담아 끓인 다음, 식구 모두 음복(飮福)하여 복을 받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 제석에 떡국 먹는 풍습이며, 설날 아침에도 떡국을 끓여 먼저 조상신께 예축의례의 하나로 올리고, 식구 모두가 음복하는 것이 바로 병탕인 떡국이다. 조선왕조에서도 섣달 그믐날 돌아오는 해의 맹춘(孟春) 대길(大吉)을 기원하는 납향(臘享) 대제를 치러 만물의 영(靈)을 불러 모아 은혜에 감사하였음은 물론 양기(陽氣)가 신장하는 대길을 축하하였다.

양(陽)을 상징하는 가래떡을 길고 가늘게 만들어 식구들 개개인의 수명 장수를 기원하면서 돌아오는 맹춘 대길을 기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方言, 洌陽歲時記, 齊民要術, 陰陽五行思想으로 본 朝鮮王朝의 祭祀飮食文化(金尙寶, 修學社,

1996),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金尙寶 著, 광문각, 1997), 料理の起源(中尾佐, NHKBook, 1993).
필자 | 김상보(金尙寶)

강정(羌釘)

정의 찹쌀가루, 밀가루, 꿀, 엿, 참기름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조과류의 총칭. 유밀과(油蜜果)와 당속류(糖屬類)를 말한다.

기원 한대(漢代)에는 조미료로 엿[飴, 餳]을 사용하였고, 찹쌀가루에 꿀을 넣고 반죽하여 튀긴 거녀[粔籹, 膏環]가 있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이(飴)란 보리의 싹과 곡물가루를 합하여 끓여 만드는데 옛날 사람들은 한식(불 사용을 금하는 시기) 때에 엿을 많이 먹었다. 찹쌀로 만든 당(餹)을 약으로 한다. 호박과 비슷한 색깔의 습기가 많은 당을 교이(膠飴)라 하며, 습기가 없고 건조하여 딱딱한 것을 당이라고 한다. 교이는 대온(大溫)하고 허(虛)한 것을 보하고 기력에 익(益)하며 인후통을 다스리고 토혈을 치료한다. 비(脾)가 약하여 식욕이 없는 사람은 조금 먹으면 위기(胃氣)를 화(和)하게 만든다."고 전한다.

또 『본초강목』에는 환병[環餠, 寒具]에 대하여 "찹쌀가루에 밀가루를 혼합하여 참기름에 튀겨낸 다음 꿀이나 교이에 찍어 먹는다. 혹은 찹쌀가루에 밀가루를 혼합하여 반죽한 다음 환(環) 형태로 빚어서 기름에 튀겨내어 먹는데 식산(食散)이라고도 하고, 겨울과 봄 수개월 동안 보존이 가능하며, 한식과 같이 화인[火煙]을 금하는 시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한구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거녀에 대하여는 『문선(文選)』의 주(注)에 "거녀는 쌀에 꿀을 넣어 튀겨 만든다."라고 하였고, 『초사(楚辭)』「초혼」에는 "거녀 · 교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찹쌀가루에 꿀 또는 교이를 넣어 반죽하여 튀긴 것이 거녀인 셈이다. 한편 거녀와 한구에 대하여 『제민요술(齊民要術)』에서는 이(餌)를 '고환(膏環)'이라 하고 병(餠)을 '유병(油餠)'이라고 분류하고 있다(油餠 → 環餠). 즉, 거녀는 찹쌀가루에 꿀 또는 교이를 넣고 반죽하여 튀겨낸 것이고, 한구는 찹쌀가루에 밀가루를 섞어 반죽한 다음 환 형태로 빚어서 참기름에 튀겨내어 꿀 또는 교이를 찍어 먹게끔 만든 것인데, 후에 찹쌀가루는 배제된 채 밀가루만으로 만들어져, 『제민요술』에는 이를 병(餠) 속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정 궁중음식연구원

한반도에서의 강정의 기원은 『제민요술』이 쓰여졌던 당시 이미 널리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문헌에서 강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인데 가야에서는 제수로 과(餜)를 썼다고 한다. 이후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상류층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인 유밀과가 나온다.

정약용(丁若鏞)의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는 "유밀과는 중국의 거녀와 한구에서 출발하여 고려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조 이후에 보이는 찹쌀가루를 주재료로 한 강정류와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약과류의 구분은 이미 고려 때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세찬으로서의 강정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교아당(膠牙餳)이 세찬으로서 기록되고 있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세찬의 시초가 『형초세시기』의 '교아당'이라고 하였다. 교아당은 곧 '교이(膠飴)'이다. 한반도에서 교아당(호박엿)이 세찬으로 등장한 것은 '도소주'와 같은 맥락으로 위에 기록한 허한 것을 보하고 기력에 익한 약선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정초에 이것을 먹어서 일년 동안의 무병장수를 기원한 것이다.

한편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설날 아침에 백성들은 강정을 제사에 올린다. 독한 술을 찹쌀가루에 섞어서 반죽한 뒤 떡을 만들어 잘게 썰어서 따뜻한 곳에서 말린 다음 기름에 튀기면 떡이 부풀어 올라 누에고치 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을 꺼내 교아당을 바르고 깨를 묻혀서 쓴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歲時記, 文選, 本草綱目, 三國遺事, 星湖僿說, 雅言覺非, 洌陽歲時記, 齊民要術, 楚辭, 荊楚歲時記, 陰陽五行思想으로 본 朝鮮王朝의 祭祀飮食文化(金尙寶, 修學社, 1996),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金尙寶 著, 광문각, 1997), 和漢三才圖會(寺島良安 篇, 吉川弘文館, 1906).
필자 | 김상보(金尙寶)

도소주(屠蘇酒)

정의 설날에 마시면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장수한다는 도소를 넣은 약주. 세주(歲酒)의 시초.

어원 소(蘇)는 사귀(邪鬼)의 이름이고, 도(屠)는 '죽이다', '잡다'의 뜻이다. 따라서 도소주의 의미는 '사귀를 죽이는 술'이다. 즉, 사귀를 물리치는 약(藥)인 도소(屠蘇)가 들어 있는 술이라고 해서 도소주라 한다.

기원 도소주는 후한(後漢) 때의 사람인 화타[華陀, 방약(方藥)·침구(鍼灸)·양생술(養生術)에 정통한 의사로 조조(曹操)의 병을 치료함.]가 설날에 마시면 역려(疫癘)와 일체의 부정한 기(氣)를 피할 수 있다고 하여 만든 술이다.

적출 7전(錢), 계심 7전, 방풍 1냥(兩), 도라지 5전 7푼, 대황 5전7푼, 산초 5전7푼, 발계(菝葧) 5전7푼, 오두 2전, 팥 14개를 삼각으로 만든 베주머니에 넣어서 섣달 그믐날 밤 우물 밑바닥에 걸어두었다가 설날에 꺼내어 술 속에 넣어서 달인 다음, 식구 모두는 동쪽을 향하여 앉아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연장자의 순으로 마신다. 찌꺼기를 우물에 넣어 두고 해마다 이 우물을 마시면, 살아 있는 동안은 무병장수한다고 믿었다.

약주문화로 발전된 도소주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도소음(屠蘇飮)이라 하여 "백출 1냥8전, 대황 1냥, 도라지 1냥, 천초 1냥, 계심 1냥, 호장근 1냥2전, 천오 6전을 썰어 베주머니에 넣어서 섣달 그믐날에 우물에 넣었다가 1월 1일 이른 새벽에 꺼내어 청주 2병에 넣어 두어 번 끓인 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쪽을 향하여 한 잔씩 마시고 그 찌꺼기는 우물 속에 넣어 두고 늘 그 물을 퍼서 음용한다."고 하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도소주가 세주의 시초라 하였다. 1700년대 말경에는 가정에서 도소주를 미처 만들지 못했을 때에 다른 약주와 청주를 '도소주'라 하고 모두 둘러앉아 마셨다. 도소주는 집집마다의 가양주(家釀酒)인 세주가 되어, 몇 종류의 향료와 계피 등을 통상적으로 첨가하는 약주(藥酒)가 되었으며, 약주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東醫寶鑑, 本草綱目, 洌陽歲時記,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金尙寶 著, 광문각, 1997), 和漢三才圖會(寺島良安 篇, 吉川弘文館, 1906), 朝鮮の衣食住(村上唯吉, 大和商會印刷所 內 圖書出版部, 1916).
필자 | 김상보(金尙寶)

떡국

정의 멥쌀을 가루내어 떡메로 친 후, 손으로 길게 만든 흰 가래떡을 썰어서 맑은 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으로 정조차례(正朝茶禮)시에 세찬(歲饌)으로 먹는 시절음식.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떡국을 '백탕(白湯)' 혹은 '병탕(餠湯)'이라 적고 있다. 즉, 겉모양이 희다고 하여 '백탕'이라 했으며, 떡을 넣고 끓인 탕이라 하여 '병탕'이라 했다. 또 나이를 물을 때 "병탕 몇 사발 먹었느냐."고 하는 데서 유래하여 '첨세병(添歲餠)'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설날 아침에 떡국으로 조상제사의 메(밥)를 대신하여 차례를 모시고, 그것으로 밥을 대신해서 먹는다.

떡국의 유래에 대해서는 오래된 문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때를 가리지 못한다. 최남선(崔南善)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는 풍속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상고시대의 신년 제사 때 먹던 음복(飮福) 음식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떡을 주식으로 먹던 때의 관습이 지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떡국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역사문헌으로는 『동국세시기』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가 있다. 이들



떡국 황현만

책에서 떡국은 정조차례와 세찬에 없으면 안 될 음식으로 설날 아침에 반드시 먹었으며, 손님이 오면 이것을 대접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래떡을 마련하는 과정은 그 때와 지금이 다르다. 지금은 대부분 방앗간에서 기계로 가래떡을 뽑아내지만, 기계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마당에 안반을 두고 남자들이 떡메로 떡을 쳐서 가래떡을 만들었다. 멥쌀을 쪄서 이것을 세게 치면 친떡이 된다. 이것을 손으로 길쭉하게 늘려서 가래떡을 만든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라오는 뜨거운 떡을 연신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손으로 쭉쭉 늘여낸다. 가래떡이 식어서 굳으면 칼로 어슷하게 썰어 떡국에 들어갈 떡을 만든다.

떡국의 국물을 만드는 주재료로는 원래 꿩고기가 으뜸이었다. 고려 후기에 원나라의 풍속에서 배워 온 매사냥이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놀이로 자리를 잡으면서 매가 물어온 꿩으로 국물을 만든 떡국이나 만두국, 그리고 꿩고기를 속으로 넣은 만두가 고급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하게 매사냥을 하지 않으면 꿩고기를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일반인들은 닭고기로 떡국의 국물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떡국의 국물은 꿩고기나 닭고기로 만들지 않고 쇠고기로 만든다. 쇠고기를 쉽게 구하게 된 이후에 생겨난 변화상이다.

떡국을 끓이는 방법은 지역마다 집집마다 약간씩 다르다. 방신영(方信榮)의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쇠고기의 살로만 가늘고 얇게 4센티미터 길이로 썰어서 산적을 만들어 구워 놓는다. 쇠고기의 질긴 부분으로는 맑은 장국을 끓인다. 흰떡은 한 푼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 놓는다. 계란은 황백을 구분하여 각각 얇게 부쳐서 골패쪽같이 썰어 둔다. 상에 놓기 바로 전에 펄펄 끓는 국에다 썰어 놓은 떡을 넣고 떡이 떠오르기까지 끓인다. 국물에 떡이 떠오르면 합(盒)이나 대접에 퍼서 담고 산적과 지단을 얹어서 놓는다.

개성 사람들은 흰떡을 가늘게 빚어 3센티미터 가량으로 끊고 가운데를 잘록하게 만들어 끓인 '조랭이떡국' 을 먹기도 했다. 충청도에서는 '생떡국' 이라 하여 익반죽한 쌀가루를 도토리 크기로 둥글게 빚어서 떡국을 만들었다. 북한 지역에서는 새해 세찬으로 만두국을 먹는다. 그러나 제주도나 거제도와 같은 남해안 도서 지역에서는 설날 차례 때 세찬으로 떡국을 올리지 않고 일반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밥을 올리기도 한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태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일본인들은 12월 31일 밤 신사에 참배한 후 새해 아침 '가가미모치(鏡餠)' 라 불리는 쌀떡을 만들어 집을 지키는 수호신에게 바친다. 신에게 바쳐진 '가가미모치' 는 '조니(雜煮)' 라고 하는 일본식 떡국을 만드는 주재료가 된다. 가령, 나가사키(長崎) 지방에서는 닭고기, 생선묵, 표고버섯, 각종 채소, 은행, 무, 생선 따위를 넣어서 조니의 국물을 만든다. 일본의 조니는 우리나라의 떡국과 비슷하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방신영, 靑丘文化社, 1954), 朝鮮常識問答(崔南善 著, 三星文化財團, 1972).

필자 | 주영하(周永河)

만두국

정의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피에 고기, 두부, 채소 등을 싸서 둥근 모양으로 만든 후 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

내용 문헌에서 만두(饅頭)는 뇌환(牢丸)·불탁(不飥)·박탁(餺飥)·습면(濕麵)·석류탕(石榴湯)·병시(餠匙)·탕병(湯餠) 등으로 적혀 있다. 만두는 중국에서 유래하여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는데, 소(餡)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이 있다. 보통 오늘날 중국에서는 소를 넣지 않고 찐 떡을 만두라 하고 소를 넣은 것을 교자(餃子)라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소를 넣은 것을 만두라 한다. 재료에 따라서 밀만두, 메밀만두, 어만두(魚饅頭), 준치만두, 두부만두 등이 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만두피의 주름을 잡지 않고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 하여 '병시' 라고도 했다.

중국에서는 만두의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곧 중국 삼국시대 때 촉한(蜀漢)의 제갈량(諸葛亮)이 남만(南蠻)을 정벌하려 하자, 남만의 풍속에 사람 머리를 베어서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를 지내야만 귀신의 음조(陰助)로 싸움에 승리한다고 그렇게 하기를 권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염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소로 넣어 만든 만두를 창안하여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마치 사람의 머리 모양을 했다고 하여 그 이름이 만두로 되었다. 이 전설이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도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조선 후기에 만두의 유래에 관한 전설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중국의 만두가 전해진 시기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고려 말기 이색의 『목은선생문집(牧隱先生文集)』 권13에 '둘째 아들 집에서 아침에 만두를 맛보다(二郎家朝餉饅頭).' 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 이 시기에 이미 만두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게 한다. 즉, "겉모양은 둥근 원형으로 그 색은 눈이 응긴 듯하다. 속은 꽉 차서 안으로 열매가 맺힌 듯 여러 차례 갓 부풀린 듯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소가 들어간 만두가 아니라, 떡처럼 쪄서 만든 증편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즉, 오늘날의 찐빵만두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안동 장씨의 『음식디미방』에는 소를 넣지 않은 채 찹쌀을 재료로 하여 작은 석류 모양으로 둥글게 빚은 것을 맑은 장국에 띄운 음식을 '석류탕(石榴湯)' 이라 했다. 만두국과 흡사하지만, 이것은 수단(水團)의 일종이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만두의 한 종류로 '박장(薄壯)' 이란 것이 있는데, 여름철에 차가운 물에 넣어 시원하게 하여 먹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수단 즉 '물만두' 라고 했다. 그러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음력 6월 15일 유두에 수단을 먹는다고 했으니, 석류탕은 오늘날의 만두국과는 다르다.

『성호사설』 권4 「만물문(萬物門)」의 '만두 · 기수 · 뇌구(饅頭起溲牢丸)' 에 대한 고증에서 각종 만두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익은 우선 이들 음식을 떡의 한 종류로 이해했다. 기수(起溲)는 밀가루를 반죽해 쪄서 익힌 것으로 주효(酒酵)를 넣어 만든 찐만두의 일종이다. 당시에 유행했던 상화병(霜花餠)이 기수의 한 종류라고 했다. 이른바 속이 없는 만두를 가리킨다. 뇌구는 원래 이름이 뇌환(牢丸)이라고 밝히면서 염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생강 · 계피 · 난초 · 파 등을 양념하여 속으로 하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겉을 둥글게 싼 다음, 솥에 쪄서 더운 탕국에 넣어 먹는 만두의 한 종류로 제갈량이 만든 만두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즉, 오늘날의 만두국을 가리킨다.

중국 북방의 한족들은 춘절(春節)을 맞이하면 섣달 그믐날 밤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다음날 아침까지 '지아오쯔(餃子)' 를 빚는다. 밤을 새워 교자를 빚으면 가족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며 복이 온다고 믿는다. 춘절 아침에는 지아오쯔를 펄펄 끓는 물에 넣고 익혀서 먹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수이지아오(水餃)' 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 牧隱先生文集, 星湖僿說, 음식디미방,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필자 | 주영하(周永河)



생떡국

정의 쌀가루를 끓는 물로 익반죽하여 만든 생떡으로 끓인 국.

내용 떡반죽을 떡가래같이 길게 만들어 돈짝만큼 썰거나 새알 등의 모양으로 빚어 만든 생떡을 장국에 넣어 끓인 국을 생떡국 또는 날떡국이라고 하며, 한자로는 '생병탕(生餠湯)' 이라 한다.

생떡국은 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어 익반죽하고, 오래 치대어 떡가래처럼 만들고 썰어 만든 생떡을 끓는 장국에 넣어 다시 한 번 끓인 후, 웃고명을 얹고 후춧가루를 뿌려 낸다. 생떡국은 주로 멥쌀가루를 이용하지만, 찹쌀가루로 만들기도 하며, 이들을 혼합하여 만들기도 한다. 떡모양은 돈짝같이 썰거나 새알 모양 또는 떡국 모양 등으로 빚는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돈짝같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충청 편에는 경단 모양으로 만든 후 납작하게 떡국 모양으로 눌러 만든 사례가 나온다. 장국의 재료로는 쇠고기나 바지락 등을 쓰며, 미역 · 채소 등을 넣기도 한다. 웃고명으로는 다진 소고기, 산적, 계란 지단, 후춧가루 등이 쓰인다.



생떡국 궁중음식연구원

지역사례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의 별미 음식이자 향토 음식이며, 절식이기도 하다. 충청도에서는 별미 음식으로, 경상도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나 정초의 절식으로 먹는다. 경북 경주에서는 정월 대보름 전날인 14일 이른 저녁에 생떡국을 해먹는데, 이렇게 해야 일년 농사가 잘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안동군 서후면 저전동의 경우 정초 차례에 생쌀가루 반죽을 끓는 물에 뚝뚝 떼어 넣고 어느 정도 익으면 국수를 넣어 삶아 생떡국을 먹는데, 생떡은 농사가, 국수는 삼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의의 생떡국은 일부 지역에서 풍농을 기원하는 절식으로 이용되었으며, 또한 흰 떡의 준비가 없을 때도 쌀가루만 준비되면 손쉽게 떡국을 끓일 수 있는 즉석 음식인 동시에 별미 음식이다.

속담 "떡도 떡같이 못해 먹고 생떡국으로 망한다.", "날떡국에 입천장만 덴다." 등이 있는데, 전자는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실패로 돌아갔다는 뜻이며, 후자는 변변치 못한 날떡국에 데기만 하듯이 하찮은 일을 하다가 도리어 손해만 봤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李用基, 永昌書館, 1924),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忠淸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5),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忠淸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6), 韓國飮食 -歷史와 調理法-(尹瑞石 著, 修學社, 1980), 韓國의 맛(姜仁姬 著,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7), 安東市史3(安東市史編纂委員會, 1999).

필자 | 정현미(鄭賢美)

세주(歲酒)

정의 한 해 동안의 무병장수를 위해 설날에 가족들 혹은 이웃과 함께 마시는 술.

기원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도소주를 설명하기를 "소(蘇)란 사귀(邪鬼)의 이름이다. 이 술은 사귀를 물리치는 약이기 때문에 도소주(屠蘇酒)라고 부른다. 도소주는 화타(華陀, 후한 때의 의사. 방약·침술·양생술에 정통하고 조조(曹操)의 병을 치료하였다.)가 만든 처방이다. 설날에 마시면 역려(疫癘)와 일체의 부정한 기(氣)를 피할 수 있다. 적출(赤朮) 7 ½전(錢), 계심(桂心) 7½전, 방풍 1냥(兩), 도라지 5전7푼(分), 대황(大黃) 5전7푼, 산초 5전7푼, 발계 5전7푼, 오두(烏頭) 2½전, 팥[赤小豆] 14개를 삼각의 베주머니에 넣어서 섣달 그믐날 밤에 우물 밑바닥에 걸어둔 다음 설날에 꺼내어 술 속에 넣어서 달인 후 식구 모두는 동쪽을 향해 앉아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연장자 순으로 마시는데, 찌꺼기는 우물에 넣어두어 해마다 이 물을 마시면 살아 있는 동안은 무병(無病)장수한다."고 하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도소주를 도소음(屠蘇飮)이라 하여 "백출 1냥8전, 대황 1½냥, 도라지 1½냥, 천초 1½냥, 계심 1½냥, 호장근 1냥2전, 천오 6전을 썰어 베주머니에 넣은 다음 섣달 그믐날 우물에 넣었다가 1월 1일 이른 새벽에 꺼내어 청주 2병에 넣어서 두어 번 끓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쪽을 향하여 한 잔씩 마시고 그 찌꺼기는 우물 속에 넣어 두고 늘 그 물을 퍼서 음용한다."고 하였다. 『운어양추(韻語陽秋)』에서는 해를 맞이하는 어린이는 도소주를 먼저 마시고 해를 잃어버리는 노인은 나중에 마신다고 하였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세배할 때 시식하는 것을 세찬(歲饌)이라 하고, 이 때에 마시는 술을 세주(歲酒)라 하며, 세주는 데우지 않고 찬 것을 그대로 마시고 영춘(迎春)의 뜻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세주를 세찬 속에 포함시켜 세배 오신 손님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세찬이라고 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의 내용을 인용하여 도소주가 세주의 시초라고 하였다.

의의 국화주 등의 저장이 곤란하여 겨울철 술로 양조된 대부분의 약주류가 '세주'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약주는 10월 말에 빚기 시작하여 다음해 봄에 끝냈는데, 가양주로서의 약주는 몇 종류의 향료와 계피 등을 첨가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양반집에서는 십수 년 동안 저장하여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부패를 막기 위하여 솔잎으로 뚜껑을 덮고 육계피를 넣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東醫寶鑑, 本草綱目, 洌陽歲時記, 韻語陽秋, 荊楚歲時記, 和漢三才圖會(寺島良安 篇, 吉川弘文館, 1906), 朝鮮の衣食住(村上唯吉, 大和商會印刷所內 圖書出版部, 1916),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金尙寶 著, 광문각, 1997).

필자 | 김상보(金尙寶)

세찬(歲饌)

정의 설날에 차례상과 세배 손님 대접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음식. 설날 전에 어른들께 귀한 음식을 보내는 일, 어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보내는 먹을 것들을 이르기도 함.

내용 옛날에는 연말이 되면 조정에서 대신이나 종척(宗戚)·각신(閣臣)에게 쌀, 고기, 생선, 소금 등을 하사하였고, 사대부나 종가에서는 어려운 일가에서 쌀·고기·어물 등을 보내어 설을 쇨 음식을 장만하게 하였다. 이러한 세수 사물의 풍속은 신라 때부터 있었다.

세찬에는 떡국·만두국·세주(歲酒)·족편·편육·전유어·빈대떡·강정·산자·빙사과·약과·매작과·만두과·다식·정과·엿강정·식혜·수정과·떡산적·갈비찜·겨자채·햇김치(나박김치·장김치·햇깍두기) 등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다. 세찬 준비는 가세에 따라 가짓수와 양이 다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며 어느 집에서나 만드는 공통 음식은 떡국이다. 웃어른께 보내는 음식이나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쌀·술·담배·어물(魚物)·고기류·꿩·달걀·곶감·김 등이었다. 대표적인 세찬인 식혜·다식·전과·족편·편육·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혜(食醯): 엿기름가루를 우려낸 물에 지에밥(찹쌀밥 또는 멥쌀밥)을 넣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일정 시간을 삭혀서 국물과 밥알을 함께 마시는 것이다. 식혜는 단맛이 많고 신맛이 있는 음청류인데, 그 종류에는 밥식혜·연엽식혜·안동식혜 등이 있다. 연엽식혜는 큰 대접에 연잎을 하나 펴 담고 찹쌀밥 한 주먹을 담고 정종·설탕을 섞은 엿기름물을 한 국자 부어서 연잎을 모아 끈으로 동여 맨 후 오지그릇에 물을 담고 연잎을 앉혀 아랫목에 하룻밤 재웠다가 연잎을 풀어 잣을 띄워 먹는다. 안동식혜는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 지방에서 발달하였다. 엿기름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몇 시간 동안 담갔다가 주물러 체에 받쳐서 찌꺼기는 버리고 가라앉힌 윗물에 고추를 우려낸다. 곡류(찹쌀·멥쌀·차조·조·수수)로 지은 밥에 무를 얇고 작은 네모로 썰거나 또는 채 썰어서 넣고, 생강즙과 함께 버무리고 여기에 맥아 침출액을 넉넉히 넣어 발효시켜 단맛과 신맛이 나도록 하여 밤·배를 얇게 썰어 잣과 함께 띄운 것이다. 안동식혜는 일명 '무식혜'라고도 하며 소식혜(素食醯, 蔬食醯)에서 파·마늘·소금이 제거되어 변형되었다. 이는 고추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일반화되고 맥아를 식혜에 이용하게 된 18세기 중엽 이후에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2. 다식(茶食): 곡물가루·한약재가루·종실·견과류·꽃가루·동물성 재료 등의 날로 먹을 수 없는 것은 볶아서 가루로 하여 꿀을 넣고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낸 것이다.

- 곡물가루로 만든 다식 - 녹말다식, 진말다식, 찹쌀다식.
- 한약재 가루로 만든 다식 - 강분다식, 싱검초다식, 용안육다식, 갈분다식, 산약다식.
- 견과류로 만든 다식 - 밤다식, 잡과다식, 상자다식, 대추다식, 잣다식.
- 종실로 만든 다식 - 흑임자다식, 콩다식, 진임다식.
- 꽃가루로 만든 다식 - 송화다식.
- 동물성 재료로 만든 다식 - 건치다식, 포육다식, 광어다식.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우리나라 사전(祀典)에는 다식이라는 것이 있다. 쌀가루를 꿀에다 뭉쳐서 나무통 속에 넣고 짓이겨 동그란 떡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은 이 다식이란 이름과 그 뜻을 아는 이가 없다. 이것은 송나라 때 대룡단(大龍團)·소룡단(小龍團)이란 떡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고 하였다. 다식 만드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음식디미방』에는 "밀가루를 볶아서 꿀·기름·청주에 반죽하고 이것을 익힐 때 모래를 깐 기와장에 담아 기와장으로 뚜껑을 해서 익힌다."고 하였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고 재료는 밤·대추·곶감·호도 등으로 만들며 목판인출(木板印出)이라 하여 다식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다식판은 "황양목을 써서 만든 것이 아름답고, 길이는 1자가 넘고, 넓이는 2치이며 두께는 1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수(壽)자와 복(福)자를 새기고, 칠보로 꽃과 새 모양을 만든다(用黃楊木造者佳長尺餘廣二寸厚一寸……次刻壽福二字七寶花鳥之型)."고 설명하여 지금도 남아 있는 다식판과 같음을 알 수 있다.

3. 전과(煎果, 正果): 뿌리 · 줄기 · 열매 등을 통째로 또는 썰어서 날 것 그대로 삶아 꿀이나 설탕에 졸인 것이다. 뿌리와 줄기로 만든 전과에는 연근전과 · 생강전과 · 도라지전과 · 무전과 · 우엉전과 · 당근전과 · 인삼전과 · 죽순전과가 있으며, 과일로 만든 전과로는 모과전과 · 산사전과 · 귤전과 · 청매전과 · 백매전과 · 복숭아전과 · 유자전과 · 앵두전과 · 살구전과 · 문동전과 · 들죽전과 · 행인전과 · 배전과 · 선포도전과 · 건포도전과 · 복분자전과 · 수박전과 · 대추전과 · 사과전과 등이 있고, 그 밖에 송이전과 · 다시마전과 · 건정과 등이 있다.

『아언각비(雅言覺非)』에 "전과란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과니(果泥)이다. 재료는 배 · 모과 · 산사 · 생강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찧어서 차지게 만들어 지져 익힌 다음에 꿀을 바른 것이다."고 기록되어 지금의 전과와는 그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전과(煎果)는 정과(正果)라고도 하는데 『증보산림경제』에 처음으로 동과정과(冬果正果)라 표기되었고 지금은 전과 · 정과를 혼용하고 있다.

4. 족편: 쇠족 · 가죽 · 꼬리 · 돼지껍질 · 생선껍질 · 우양 등의 콜라겐이 많은 부분에 물을 붓고 푹 끓여낸 국물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네모난 그릇에 부어 식히면 묵같이 엉기는데 이것을 편으로 썰어서 겨자 초장에 찍어 먹는 음식이다. 『옹희잡지(雍熙雜誌)』에서는 우행교방(牛骾膠方), 속칭 우족병(牛足餠)이라 하면서 쇠족을 곤데다 파 · 생강 · 잣 · 호초 · 깨 등을 섞어 다시 곤 후 어냉(於冷)하여 응동(凝凍)시킨 것이라 하였다. 즉, '교병(膠餠)'이다. 이것이 1719년의 『진연의궤(進宴儀軌)』에 족병(足餠)이란 이름으로 궁중연회용으로 이용되었다. 또 족편의 재료로서 콜라겐이 많은 가죽 · 꼬리 · 생선껍질도 썼다. 『임원경제지』의 '수정회방(水晶膾方)'은 우뭇가사리를 깨끗이 씻어 쌀뜨물에 3시간 담갔다가 약간 끓여 대야에 옮겨 담고 짓이겨 다시 솥에 넣어 끓이며 찌꺼기를 제거한다. 응고된 것을 알맞게 썰어 죽순 · 버섯 · 무 · 생강 · 상치 · 미나리 등을 잘게 썰어 쟁반에 담고 초장을 쳐서 먹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족편'이다. 『규합총서』에서는 돼지껍질을 고아서 묵처럼 엉키게 한 저피수정회법(猪皮水晶膾法)을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족편의 일종이라 하겠고 또 일종의 회가 되기도 한다. 『음식디미방』에서는 우양을 무르게 삶아서 삶은 물이 고기에 다 배고 없어지면 꺼내고, 이것이 식으면 약과 같이 번듯번듯하게 썬 것을 '양숙'이라 하고 또 양에다 여러 조미 향신료를 섞어 충분히 중탕하여 꺼내어 썬 것을 '양숙편'이라 하였다. 1600년대 말엽의 방법이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다. 한편, 궁중 연회용으로 양숙 · 편육 · 우설 · 우양숙편 등이 『진찬의궤(進饌儀軌)』에 기록되어 있다.

5. 편육: 고기를 푹 삶아내어 물기를 뺀 것이 숙육(熟肉)이고, 이것을 얇게 저미면 '편육' 또는 '숙편(熟片)'이 된다.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의하면, 쇠고기는 양지머리 · 사태 · 부아 · 지라 · 쇠머리 · 우설 · 우랑 · 우신 · 유통 등이 적절하다고 한다. 설렁탕을 만들기 위하여 장시간에 걸쳐 쇠고기를 삶으면 국물은 설렁탕 국물이요, 건더기는 숙육이 된다. 이것으로 편육을 만든다. 그런데 모든 부위가 편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부위가 따로 있다. 적절한 부위는 소의 양지머리 · 사태 · 부아 · 쇠머리 · 우설 · 우랑 · 우신 · 유통 등이 적절하다. 양지머리 가운데서도 차돌배기 편육이 가장 좋으며, 하얗고 깨끗하고 윤이 나며 흰점이 마치 차돌이 박힌 것 같다고 하여 이같은 이름이 생겼다. 쇠머리 편육은 『시의전서』에서는 "삶아진 쇠머리의 뼈는 추려 버리고 고기만 한데 모아 보자기에 싸서 눌렀다 쓰면 좋다."고 하였다. 쇠고기 편육인 수육 편육은 초간장이나 겨자장이 어울린다. 돼지고기 편육은 삼겹살 · 목살 · 어깨살 · 머리 부위가 적당하다. 돼지고기 편육은 새우젓과 함께 배추김치와 함께 싸먹으면 맛이 어울린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편육이라 자래(自來)로 식성이요, 풍속이요, 습관이라 할 만한 것이니 약 달이듯 하여 약은 버리고 약 찌꺼기를 먹는 셈이니 좋은 국맛은 다 빠진 것이라 무엇이 그리 맛있으며 자양인들 되리요."라고 하였다.

6. 전(煎): 전(煎)자는 달인 전, 졸일 전, 지질 전 등의 뜻을 가진다. 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고기, 채소, 생선 등의 재료를 다지거나 얇게 저며서 밀가루 · 달걀로 옷을 입혀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납작하게 하여 양면을 지져 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궁중에서는 '전유화(煎油花)'라 적고, '전유어 · 전유아'라 읽으며, 속간(俗間)에서는 저냐 · 전 · 부침개 · 지짐개라고도 한다. 또한 제수(祭需)이면 '간남(肝南)'이라고도 한다.

한편, 세찬을 이웃이나 친지에게 보낼 때는 깨끗한 포장지에 예쁘게 싸서 성명을 기입하든지, 아니면 명함을 넣는데, 옷감인 경우는 근정(謹呈)이라고 써 넣기도 한다. 이는 상호우의를 표시하고 경의를 나타내는 예의로 되어 있다. 쌀 · 숯 · 어물 · 육류 · 꿩 · 달걀 · 곶감 · 김 · 담배 · 옷감 등을 많이 보냈다. 이 풍습이 전하여 지금도 연말이 되면 일가 친척이나 친지 · 존장 등에게 세찬을 보내고 있다.

참고문헌 | 규합총서, 星湖僿說, 是議全書, 雅言覺非, 雅熙雜誌, 음식디미방, 林園經濟志, 增補山林經濟, 進饌儀軌, 한국의 음식문화(이효지, 신광출판사, 1998).
필자 | 이효지(李孝枝)

수정과(水正果)

정의 생강 끓인 물에 설탕을 넣어 달게 한 국물에 곶감과 계피를 넣고 잣을 띄워 곶감과 같이 마시는 음료.

내용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수정과를 '백제호(白醍醐)'라 하였는데 "옛 풍속에 설날 고려의 궁인(宮人)들이 시설이 난 곶감을 생강 끓인 물에 넣고 타니 이를 백시성호(白柿醒醐)라고 부른다. 지금도 집집마다 전해 오니 이를 수정과라고 한다."고 전한다. 또한 "벌처럼 달고 타락처럼 진한 맛 봄 쟁반에 처음 내어온 수정과 새해마다 한 번씩 마신 것을 세어 보니 예순다섯 잔이나 마셔서 없앴네."라는 시(詩)도 전한다. 이를 통해 수정과는 적어도 『해동죽지』가 쓰인 19~20세기 초반에는 설날에 주로 마셨던 음식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대중적인 전통 음료로 시절에 상관 없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제조법의 변화 문헌 자료를 통해서 수정과 제조법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수정과가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영조 41년(1765)에 편찬된 『수작의궤(受爵儀軌)』에서이다. 『군학회등(群學會謄)』에는 생강이 사용되지 않았고, 계피가 사용된 것은 『조선요리법(朝鮮料理法)』에서 처음이다. 한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배를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감초 · 밀감껍질 · 통후추를 넣기도 하였다. 감미료는 본래 꿀을 사용하였는데 『조선요리법』부터 설탕을 쓰기 시작하였다. 『한국요리(韓國料理)』, 『한국요리전집(韓國料理全集)』, 『한국요리백과(韓國料理百科)』에는 곶감에 호두를 박아 곶감쌈으로 만들어 생강물에 띄우는 법이 나온다.

종류 수정과의 종류에는 가련수정과, 잡과수정과 등이 있다. 가련수정과는 오미자즙을 내어 설탕을 타서 오미자국을 만들고 연꽃잎에 녹말가루를 씌워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냉수에 식힌 후 이것을 오미자국에 넣고 실백을 띄워서 먹는 것이다. 잡과수정과는 『군학회등』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배와 유자를 가늘게 썰어 꿀물에 넣고 잣을 띄운 것으로 유자화채와 같으나 이름은 잡과수정과라고 붙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 群學會謄, 受爵儀軌, 海東竹枝,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李用基, 永昌書館, 1924), 韓國料理(尹瑞石, 修學社, 1962), 韓國料理百科 I (王峻連 著, 汎韓出版社, 1983), 韓國料理全集(河淑貞, 首都出版文化社, 1986), 한국의 음식문화(이효지, 신광출판사, 1998).
필자 | 이효지(李孝枝)

조랭이떡국

정의 가래떡보다 얇은 누에고치 모양의 떡인 조랭이떡으로 끓인 개성 지방의 음식.

내용 보통 설날에는 가래떡으로 떡국을 만들어 정조차례(正朝茶禮)와 세찬(歲饌)으로 사용하는 데 비해 개성에서는 가래떡보다 얇게 떡을 만들어 대나무를 이용해서 누에고치 모양으로 만든 조랭이떡국을 먹는다. 조랭이떡은 떡국의 재료가 되는 떡을 가리키는데, 가운데가 잘록한 모양이 마치 조롱박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랭이떡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목을 조르는 형상을 떡이 지니고 있다 하여 생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홍선표(洪善杓)는 『조선요리학(朝鮮料理學)』에서 "가래떡을 어슷어슷 길게 써는 것은 전국적이지만 개성만은 조선 개국 초에 고려의 신심(臣心)으로 조선을 비틀어버리고 싶다는 뜻에서 떡을 비벼서 끝을 틀어 경단 모양으로 잘라내어 생떡국처럼 끓여 먹는다."고 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조랭이떡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설화의 구비전승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조랭이떡을 만드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떡국을 만들듯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래떡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생떡국 방법은 아래와 같다. 멥쌀을 가루내서 겹체에 곱게 쳐서 반죽을 질게 한다. 질게 반죽된 것을 시루에 얹어서 푹 찐다. 다 익은 흰떡을 꺼내서 찬물에 손을 넣어 가면서 도토리 크기로 둥글게 빚는다. 떡이 식기 전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흰떡에 참기름을 바르면서 만든다. 대나무로 만든 칼로 흰떡을 썰어 누에고치 모양으로 가운데가 들어가게 조랭이떡을 만든다. 또 어떤 집에서는 굵은 실의 한 끝을 입에 물고 두 가닥 가래떡을 그 끈으로 묶어서 달랑 끊어내기도 한다. 그러면 실이 굵기 때문에 도토리 크기의 떡살 둘이 붙은 채 저절로 장구 모양의 떡이 된다. 가래떡을 이용할 경우 멥쌀로 밥을 안친 후 그것을 안반에 올리고 떡메로 쳐서 떡을 만든다. 이것을 손으로 가래떡보다 얇은 굵기로 모양을 낸 후 엄지손가락 크기로 잘라 앞의 방법과 같이 하여 조롱박 모양을 만든다.

국을 만드는 방법도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다. 생떡국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쇠고기의 연한 살을 채쳐서 양념을 하여 볶아 놓는다. 남은 쇠고기는 잘게 썰어서 갖은 양념을 해서 맑은 장국으로 끓인다. 국이 펄펄 끓을 때 떡을 넣고 한소끔 끓이면 떡이 국에 떠오른다. 이것을 그릇에 퍼서 담고 그 위에 고기 볶은 것을 얹어서 상에 놓는다.



조랭이 떡국 궁중음식연구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쇠고기 사골 한 개를 푹 곤 물에 양지머리 한 근을 넣고 삶은 다음 조선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어 국을 만들기도 한다. 이 때는 다 익은 양지머리를 건져서 잘게 찢은 후 참기름 · 후춧가루 · 조선간장으로 양념하고,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를 구분하여 지단을 부쳐서 완자 모양으로 썬다. 떡은 찬물에 씻어서 끓는 장국에 넣고 다시 펄펄 끓인다. 이 때 찬물이나 따뜻한 물에 떡을 담갔다가 장국에 넣으면 쫄깃쫄깃한 맛이 난다. 다 끓은 조랭이떡국을 그릇에 담고 미리 양념을 해 둔 양지머리 채와 지단을 고명으로 얹는다.

조랭이떡국은 조롱박 모양을 했다고 해서 귀신을 물리치는 의미가 있다고 전해진다. 조롱박은 두드리면 소리가 나서 이것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믿었다. 또 조랭이떡의 모양이 누에고치 같다고 해서 한 해의 길운(吉運)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보았다. 아울러 고려 이전부터 장사에 능했던 개성사람들은 조랭이떡국의 모양이 마치 엽전꾸러미와 닮았다고 하여 재물(財物)이 집안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설날 아침에 이것을 먹었다고도 한다. 개성사람들은 개성 보쌈김치, 개성 만두와 함께 조랭이떡국을 개성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꼽는다. 이들 음식은 설날에 개성사람들이 먹는 시절음식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朝鮮料理學(洪善杓, 朝光社, 194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필자 | 주영하(周永河)

떡타령(一打令)

정의 떡을 소재로 한 민요.

내용 떡타령은 크게 떡의 종류를 노래한 것과 떡의 특징을 노래한 것으로 구분된다. 떡의 종류를 노래

한 것은 시절의 특징에 따른 것과 지역의 특징에 따른 것으로 다시 분류된다.

시절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떡타령은 임동권의 『한국민요집』 I '떡타령'에서 보이듯 "정월 대보름 달떡이요 이월 한식 송병(松餠)이요 삼월 삼진 쑥떡이로다 떡사오 떡사오 떡사려오 사월 팔일 느티떡에 오월 단오 수리치떡 유월 유두에 밀정병이라 떡사오 떡사오 떡사려오 칠월 칠석에 수단이요 팔월 가위 오려 송편 구월구일 국화떡이라 떡사오 떡사오 떡사려오 시월 상달 무시루떡 동지달 동지날 새알시미 섣달에는 골무떡이라 떡사오 떡사오 떡사려오."처럼 각 명절에 많이 먹는 떡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지역적 특징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한 떡타령은 "산중 사람은 칡뿌리떡, 해변 사람은 파래떡, 제주 사람은 감자떡, 황해도 사람은 서숙떡, 경상도 사람은 기정떡, 전라도 사람은 무지떡…"처럼 주거지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의 떡을 늘어놓는 형식이다.

떡의 특징을 묘사한 떡타령은 "얼기설기는 무시루요, 두귀가 번쩍은 송편이며, 네귀 번듯은 인절미며, 빈들빈들 빈대떡이요 도장을 맞았다 호떡이며……"처럼 떡의 소재나 모양, 이름의 인상적인 상황을 잡아내서 드러내는 형식이다.

의의 떡타령은 특정한 세시풍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노래는 아니다. 2월 영등제 때나 별신굿을 할 때 떡장수가 떡을 팔면서 떡타령을 불렀다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떡은 세시풍속, 특히 명절의 정서를 담고 있는 음식이다. 그것은 떡이 명절은 물론 결혼, 기제사 같은 특정한 날에 별미로 만들어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떡타령에는 떡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떡타령을 명절에 부르면, 그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으며, 또 평소에 그것을 부르면 일상적 긴장을 벗어나 풍요롭고 즐거운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謠集(任東權 編, 集文堂, 1961~1981),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편(문화방송, 1993),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 편(문화방송, 1994),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 편3-(예술교육출판사, 1999).
필자 | 강등학(姜騰鶴)

꿩 대신 닭

정의 자기가 쓰려는 것이 없으면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 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속담.

유래 설날에는 명절 음식으로 떡국을 끓여 먹는데, 예전에는 반드시 꿩고기를 넣어서 끓였다. 설날 떡국에 꿩고기를 넣은 것은 꿩고기가 맛이 좋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꿩을 상서로운 새로 여긴 때문이라 하겠다. 사람들은 꿩을 '하늘 닭'이라고 하여 천신(天神)의 사자로 여겼으며, 길조(吉鳥)로 생각하여 농기(農旗)의 꼭대기에 꿩의 깃털을 꽂았다.

그러나 꿩고기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 닭고기를 떡국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 순조(純祖) 20년(1820)에 정약용(丁若鏞)이 엮은 『이담속찬(耳談續纂)』에는 "꿩을 잡지 못하니 닭으로 그 수를 채우다(雉之未捕 鷄可備數)."라고 적혀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館, 1962),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민속대사전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최운식(崔雲植)

남의 떡에 설 쇤다

정의 남의 떡을 얻어 설을 쇤다는 속담.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다는 뜻.

활용 자기의 노력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을 꼬집을 때 쓰이며 비슷한 속담에 "남의 불에 게 잡는다.", "남 켠 횃불에 조개 잡듯", "남이 켠 불에 게 잡기", "남의 바지 입고 새 베기", "남의 팔매에 밤 줍기", "지나는 불에 밥 익히기" 등이 있다.

조선 순조 20년(1820)에 정약용(丁若鏞)이 엮은 『이담속찬(耳談續纂)』에는 "다른 사람의 떡으로 설(歲始)을 즐기다(他人之餠聊樂歲始)."라고 적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館, 1962).
필자 | 최운식(崔雲植)

보리누름까지 세배한다

정의 보리가 누렇게 익는 철까지 세배한다는 속담.
내용 세배는 정초에 하는 것이 상례인데, 보리가 누렇게 익는 철, 즉 4~5월까지도 세배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지나침을 이르는 말이다.
활용 형식적으로 인사치레하는 사람을 꼬집을 때.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館, 1962).
필자 | 최운식(崔雲植)

설날에 옴 오르듯

정의 한 해의 첫날인 설날에 몹시 가렵고 살이 짓무르는 피부병이 오르는 것처럼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는 속담.
내용 설날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삼가고 조심하여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할 때 주로 쓰인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을 빗대어 말할 때도 쓰인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 큰사전(송재선, 서문당, 1983).
필자 | 최운식(崔雲植)

설 쇤 무

정의 가을에 뽑아 둔 무가 해를 넘기고 나면 속이 비고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무엇이나 때가 지나면 볼품없이 되는 것을 이르는 속담.
내용 때가 지나 별 볼일 없이 된 경우를 빗대어 조롱할 때 주로 쓰인다.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삼십 넘은 계집"이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館, 1962).
필자 | 최운식(崔雲植)

설에도 부모를 모르다니

정의 새해 설을 맞으면 객지에 나간 자식은 집에 돌아와서 부모를 모시고 뜻 깊게 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식은 실로 불효막심하다는 뜻의 속담.
내용 객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명절, 그 중에도 새해가 시작되는 설 명절을 집에서 쇠려고 한다. 특히, 나이든 부모가 집에 계시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모시고 가족과 어울려 즐겁게 지낸다. 그리고 조상에게 차례(茶禮)를 올리고 사당(祠堂)을 참배하며 성묘(省墓)도 한다. 부모들은 객지에 나간 자녀들과 함께 설날 보내기를 고대하고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가 선물과 설빔 사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내들은 설날 먹을 음식을 장만할 돈과 빚 갚을 돈을 벌어오기를 고대한다. 이것은 집안 사람이든 집밖 사람이든 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설날 집에 못 가는 심정이나 집에서 객지의 식구들을 그리워하는 식구들도 고통이다. 가능하면 설날 등의 명절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었다. 오늘날 설에 교통 사정이 매우 나쁜데도 귀성(歸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에 관하여 전설이 있다. 조선시대 영조 때의 어느 섣달 그믐밤에 어사 박문수(御使朴文秀)가 민정을 살피러 삼남 각지를 돌아다니던 중 어느 촌집에 들러서 사랑채 윗방에서 부득이 설을 쇠게 되었는데, 아랫방에서 여나믄 살 먹은 아이가 원님 놀이를 하고 있다가 박어사를 보고 준절히 나무랐다. "너 이놈, 아무리 어명을 받고 다닌다고 하지만 양친 부모가 집에 계신 자라. 지금이 섣달 그믐이라 연로하신 부모가 너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 설 대명절에 크게 요긴한 일도 없으면서 타관 객지에 머물러 있으니 집안에는 불효요, 집 밖에는 민심 소란 죄라, 그 죄가 어이 가볍다고 하리?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래서 박어사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그랬더니 아기 원님이 "저 자가 뉘우쳤으니 다시 저 밖에 곱게 모시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일 이후로 박어사는 섣달 그믐에 암행(暗行)을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속담의 유래 전설로 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속담이야기(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3).
필자 | 최래옥(崔來沃)

설은 질어야 풍년이고 보름은 맑아야 풍년이다

정의 설에는 눈이 많이 내려야 그 해에 풍년이 들

고, 정월 대보름에는 맑아서 보름달을 볼 수 있어야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속담.

내용 새해의 첫 날인 설날에 상서롭게 여기는 눈이 내리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쌓인 눈이 온 땅을 덮어 보리싹을 비롯한 농작물이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해 주니 풍년이 들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새해 첫 만월(滿月)이 뜨는 정월 대보름에 날씨가 맑아 보름달을 볼 수 있으면 그 해에 풍년이 들 것이라 믿었다. 이것은 달이 생생력(生生力)을 지니고 있어서 풍요(豊饒)를 가져다준다는 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정월 대보름날 달이 뜰 때 달의 모양, 크고 작음, 출렁거림, 높낮이, 달빛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치거나 정월 대보름달에 축원을 하면 소원을 성취한다는 민속은 이런 의식에서 생긴 것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정월 보름날 맑으면 풍년 든다.", "정월 보름달이 누르면 대풍이 든다."가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필자 | 최운식(崔雲植)

설을 거꾸로 쇘다

정의 동지 섣달보다 해동(解凍) 무렵이 더 춥다는 뜻의 속담.

내용 음력 1월 1일인 설은 1월에 들어섰으니 봄이라고 보고, 절후(節侯)로 보아서도 설은 양력으로 2월 초순, 입춘(立春) 무렵이므로 봄에 들어섰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엊그제 겨울인 섣달 그믐이 하루 이틀 지났다고 별안간 봄이 되어 날씨가 풀릴 턱은 없지만, 어서 봄이 오기를 바라는 성급한 사람에게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계절이 바뀌었으니 봄인데 왜 이렇게 추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춥게 느낀다. 새벽에 날이 새기 직전이 더 어둡다는 말과 상통한다. 기대한 만큼 날씨가 풀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춥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9).
필자 | 최래옥(崔來沃)

정월 초하룻날 먹어보면 이월 초하룻날 또 먹으려 한다

정의 한 번 재미를 보면 자꾸 하려고 한다는 속담.

내용 정월 초하룻날은 큰 명절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즐거운 날이다. 그런데 2월 초하룻날도 명절인 줄 알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니 이것은 시기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리석고 철없는 사람을 해학적으로 비꼴 때 주로 쓰이며 비슷한 속담으로 "초하룻날 먹어 보면 열하룻날 또 간다.", "정월 초ᄒᆞ를날 먹어나민 이월 초ᄒᆞ를날도 먹쟁ᄒᆞᆫ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館, 1962),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최운식(崔雲植)

처가집 세배는 앵두꽃을 꺾어 가지고 간다

정의 처가집 세배는 늦게 가도 된다는 속담.

내용 세배는 정초에 하는 것이 상례인데, 처가의 세배를 앵두꽃이 피는 봄에 간다고 하니 예절이나 격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처가에서는 이를 이해하고 크게 섭섭해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초에 서둘러 처가에 세배 가려는 사람을 조롱할 때나 늦게 처가에 세배 가는 것을 합리화할 때 쓰인다. 비슷한 속담으로 "처가집 세배는 보름 세고 간다.", "처가집 세배는 보리 누름에 간다.", "처가집 세배는 살구꽃 따 가지고 간다.", "처가집 세배는 한식 지나서 간다."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서문당, 1983).
필자 | 최운식(崔雲植)

정초십이지일(正初十二支日)

정의 정월 초하루부터 열이틀까지를 이르는 말로 십이지(十二支)에 해당하는 열두 동물들의 날. 즉, 그 해의 첫 번째 쥐날 · 소날 · 호랑이날 · 토끼날 · 용날 · 뱀날 · 말날 · 양날 · 원숭이날 · 닭날 · 개날 · 돼지날을 말한다. 이를 가리켜 정초십이지일 또는 짐승날이라 한다.

열두 동물에 따라서 새해 들어 첫 쥐날은 상자일

(上子日), 첫 소날은 상축일(上丑日), 첫 범날은 상인일(上寅日), 첫 토끼날은 상묘일(上卯日), 첫 용날은 상진일(上辰日), 첫 뱀날은 상사일(上巳日), 첫 말날은 상오일(上午日), 첫 염소날은 상미일(上未日), 첫 잔나비날은 상신일(上申日), 첫 닭날은 상유일(上酉日), 첫 개날은 상술일(上戌日), 첫 돼지날은 상해일(上亥日)이라고 한다. 각각의 첫 십이지일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각종 행사와 특별한 금기가 있다.

유래 십이지는 한국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천문·역법에서는 방위와 시간의 개념으로, 풍수·점복·해명(解名)·택일·사주·궁합 등에서는 길흉을 예지하는 비결(秘訣)로, 능묘의 호석, 사찰의 불화, 민화 등에서는 제액초복의 수호신 또는 길상을 상징하는 도상 형태로, 생활 용구나 각종 장식물에서는 장식용 문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전승되는 십이지 문화의 핵심인 띠 문화는 개인의 운명, 심성을 파악하는 잣대이며,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융화관계 또는 상충관계를 밝히는 체계이다.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의 십간(十干)과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십이지를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60개의 간지, 즉 60갑자(甲子)를 만들 수 있다. 일진은 이 60갑자를 그날그날에 차례대로 나누어서 붙이고 그 일진의 변화에 따라 길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일진은 일상생활에서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을 택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했으며, 이는 곧 길흉과 통한다.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일진부터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 일진으로 길흉을 결정하는 일을 택일(擇日)이라고 하며 일진이 좋은 날을 가린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간지(干支)가 일찍부터 쓰였다. 갑골문자를 보면 은(殷)나라 이전부터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연대기를 보면 역일(曆日) 대신 일진으로 적혀 있고, 일제강점기(1941~1945)에 음력 사용 억제책으로 총독부의 책력에서 음력을 뺐으나 일진은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오랜 전통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초십이지일의 길흉 판단은 대체로 그 짐승들의 성격에서 오는 이로운 점, 해로운 점으로 기준을 삼으나 지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십이지로 날을 가리는 관습의 역사는 무척 오랜 듯하다. 정초십이지일의 풍속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지봉유설(芝峯類說)』,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에서 일찍부터 기록으로 전승된다.

『삼국유사』「기이(紀異)」 제1 사금갑(射琴匣)에 매년 정월 상해일·상자일·상오일에는 모든 일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 소지왕(炤知王)이 까마귀·쥐·돼지·용의 도움으로 왕후가 중과 더불어 역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기를 면해 그로부터 정초의 쥐·말·돼지날을 새해의 시작 시점에 몸을 삼가고, 마음을 살피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지봉유설』 권1 「시령부(時令部)」 절서(節序)에 보면 "동방의 옛 풍속에 세수(歲首) 및 정월 첫 쥐날, 첫 말날, 그리고 2월 1일을 삼가는 날이라고 한다. 또 생각컨대 신라 때 용은 능히 비를 일으키고, 말은 노역을 잘 복하고, 돼지와 쥐는 곡식을 해치기 때문에 매년 세수와 첫 용날·말날·돼지날·쥐날에는 제사를 차리고 기양(祈禳)하여 백사를 금하고 서로 유락(遊樂)하고 이것을 달도(怛忉)"라고 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말하기를, "달도란 비수(悲愁)를 뜻하며, 금기하는 것이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국세시기』 정월조에 보면, 상해·상자일(上亥上子日), 묘일·사일(卯日巳日), 월내(月內) 모충일(毛蟲日)·신일(愼日) 등이 바로 정초십이지일을 근거로 한 세시풍속이다. "우리나라의 옛 행사로서 궁중에 있는 수백 명의 내시들이 횃불을 잇



윤도판 그림의 십이지 국립민속박물관

12지신상(十二支神像)
경북 경주시 충효동 사적 제21호인 김유신묘의 호석(護石)에 있는 12지신상의 탁본 국립민속박물관



쥐신 소신 호랑이신 토끼신

달아 땅에 끌면서 "돼지 그슬자, 쥐 그슬자."라고 외친다. 임금이 곡식을 태워 주머니에 넣은 돼지주머니·쥐주머니를 재상들과 근시들에게 나누어 주어 풍년을 기원한다. 첫 자일에 항간에서는 쥐 태우는 횃불, 쥐 주둥이 볶는 풍속이 있다. 첫 해일에 콩가루로 얼굴을 씻으면 희게 된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 묘일을 토끼날이라고 하고, 이날 뽑는 무명실을 토끼실이라 하여 몸에 차고 다니면 재앙을 물리친다고 한다. 이날 외부 사람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을 집으로 들이지 않으며, 여자가 먼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뱀날에 머리를 빗지 않는 것은 뱀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저자의 가게들은 날을 가려서 저자를 열며 반드시 털 짐승의 날을 택한다. 이는 털같이 번창하라는 뜻을 취한 것이며, 그 중에서 범날이 제일 좋다고 한다. 경주 지방 풍속에 정월의 상자일·상진일·상오일·상해일 등에는 온갖 것을 조심하여 감히 함부로 동작하지 않고 조심하는 날로 삼았다. 이는 일찍이 신라 소지왕 10년 정월 15일에 까마귀·쥐·용·말·돼지들의 이상한 조짐이 있어 왕이 금갑의 화를 모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일·진일·오일·해일을 조심하는 날로 정한 듯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용 십이지는 털 있는 유모일(有毛日), 털 없는 무모일(無毛日)로 나누어 새해의 풍흉, 점복, 상점 문 여는 날 등을 따졌다. 유모일은 십이지 동물 가운데서 털이 있는 쥐날·소날·범날·토끼날·말날·양날·잔나비날·닭날·개날·돼지날 등 10일이다. 털 없는 무모일은 용날과 뱀날 단 2일만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유모일은 길한 날이고, 무모일은 흉한 날로 쳤다.

설날이 유모일이면 그 해는 오곡이 잘되고 풍년이며, 무모일이면 반대로 흉년이 들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초 10일 이내에 유모일이 많이 들면 풍년이고 무모일이 많으면 흉년이 들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경남 지방에서는 정초에 유모일이 많으면 목화 농사가 잘 되고 네발 짐승의 가축도 번성하는데, 무모일이 많으면 반대로 목화 농사나 네발 짐승의 가축이 잘 안 된다는 것으로 여긴다. 털 많은 토끼날이 정초에 들면 그 해에는 목화가 풍년이 든다고 한다.

설날부터 상점들이 문을 닫고 쉬다가 날짜를 잡아서 문을 여는데, 반드시 모충일에 연다. 이는 그 모충들의 번성하는 솜털의 뜻을 취하여 상업의 번창을 바라는 것으로 인일(寅日)에 문을 여는 경우가 가장 많다. 지금도 정초에 쉬었다가 소날 또는 토끼날, 특히 호랑이날이 좋다고 해서 이 날 개점이나 개업을 하는 일이 있으니 위의 『동국세시기』의 관습과 같다고 하겠다.

충북 지방에는 이러한 관습이 40~50년 전까지는 많았지만 이제는 희박해지고 첫 쥐날에 콩을 볶아 먹는 일 정도가 아직도 전승되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각 도의 민속조사에서 전남 지방을 제외하고는 유모일·무모일을 따지는 풍속에 관한 보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관습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각 십이지날의 풍속은 동물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각 동물의 외형이나 행태(行態)


용신


뱀신


말신


양신

등에 예시와 상징을 부여하였다. 각 동물의 특성에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각종 행사와 특별한 금기가 있다. 십이지날의 풍속은 풍년과 제액 초복을 위해 "~을 하면 풍년이 든다.", "~을 하면 재앙을 물리친다."는 적극적 행위와 "~일은 삼간다.", "~일은 하지 않는다."와 같은 소극적 행위로 양분할 수 있다.

농사가 생업이었던 전통사회는 농사와 관련 있는 날들이 많다. 쥐날 · 소날 · 용날 · 말날 · 돼지날 등은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와 금기가 많다. 쥐날과 돼지날에는 『동국세시기』에서 밝혔듯이 임금이 곡식을 태워 주머니에 넣은 돼지주머니 · 쥐주머니를 재상과 근시(近侍)들에게 나누어 주어 풍년을 기원했다. 소와 말은 농사일에서 빠질 수 없는 '농사꾼'으로 이 날에 두 동물을 위해 줌으로써 풍년을 빌었다. 전남에서는 '괭이할미(고양할미)'가 하늘에서 정월 초하룻날 일찍이 내려왔다가 첫 소날[上丑日]에 올라간다고 한다. 이 할미는 지상에 오면 한 말의 곡식을 하루 한 되씩 소비하다가 상천하는데, 곡식을 다 소비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보리 농사가 흉작이 되고 곡식을 소비하지 못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풍작이 된다고 한다. 한편 경남에서는 정월 초삼일 안에 소날이 들어야 보리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는 농사에서 중요한 소날이 정초에 일찍 들어야만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다.

용날은 '물의 신'으로서 용을 잘 섬겨야 한다고 믿으면서 이 날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많다. 책력에 의하면, 해에 따라서 삼룡치수(三龍治水) · 오룡치수 · 칠룡치수 · 십일룡치수 등으로 다르게 나타나거니와 그 해 용의 수를 보고 비가 많이 올는지 적게 올는지를 점친다. 정월에 첫 진일[上辰日]이 어느 날에 드느냐에 따라 그 해 용의 수가 결정되는데, 치수를 하는 용의 수가 적당해야(3~4마리) 그 해에는 비가 알맞아 풍작이 되고, 용의 수가 아주 적거나 많으면 가물어서 흉작이 된다고 한다. 이는 용의 수가 아주 적으면 방심하거나 제멋대로 하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잘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미루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믿는 속신에서 온 것이다.

십이지일 가운데도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길상인 동물은 금기보다는 그 동물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 많고, 부정적이거나 불길한 동물은 해야 하는 일보다 금기하는 일이 더 많다. 소날과 말날은 이 두 동물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범날은 호환(虎患)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풍속이 많다. 쥐날과 뱀날은 퇴치하는 일을 주로 한다. 쥐날은 '곡식을 축낸다.' 하여 쥐의 해를 막는 풍속이 행해지고 뱀날은 뱀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이 주요 행사였다.

각 십이지 동물의 외모나 행동거지에서 파생된 금기와 속신도 많다. 토끼날 · 염소날 · 원숭이날은 토끼 · 염소 · 원숭이가 방정맞고 경망한 짐승이라고 하여 자중하고 언행을 삼가며 실수가 없도록 하는 날이다. 개날은 개가 물건을 잘 물어들이는 짐승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이 날 해녀들이 도구를 손질한다. 돼지날은 돼지가 살결이 검고 거친데, 그 반대의 뜻을 취해 살결이 희고 고와지게 하려는 풍속이 있다.


원숭이신


닭신


개신


돼지신

의의 정초에 십이지일의 일정 기간을 삼가고 조심한다는 것은 한 해의 시작 시점에서 새해를 위하여 특별히 염원하고 근신하는 것이다. 기풍(祈豊)과 점복(占卜)으로 일년간 농사일에 염원을 모으는 기간으로서, 복을 받고 재액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새해를 신중히 설계하고 매사에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芝峯類說,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 천진기(千鎭基)

모충일(毛蟲日)

⇨ 털날

무모일(無毛日)

⇨ 털날

유모일(有毛日)

⇨ 털날

짐승날

⇨ 정초십이지일(正初十二支日)

털날

정의 설날부터 12일 동안을 십이지의 일진으로 따져서 털 있는 짐승에 해당하는 날. 십이지 열두 동물 중에서 털 있는 10종의 동물인 쥐·소·호랑이·토끼·말·염소·원숭이·닭·개·돼지의 날들은 유모일(有毛日)이고, 털 없는 2종의 동물인 용·뱀의 날은 무모일(無毛日)이 된다. 이 날들의 길흉 판단은 대체로 그 짐승들의 성격에서 오는 이로운 점, 해로운 점들로 기준을 삼으나 지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내용 유모일은 길한 날로, 무모일은 흉한 날로 쳤다. 설날이 유모일이면 그 해는 오곡이 잘 되고 풍년이며, 무모일이면 반대로 흉년이 들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초 10일 이내에 유모일이 많이 들면 풍년이고 무모일이 많으면 흉년이 들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경남에서는 정초에 유모일이 많으면 목화 농사가 잘 되고, 네발 짐승의 가축도 번성하는데, 무모일이 많으면 반대로 목화 농사나 네발 짐승의 가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여긴다. 털날[유모일] 중에서도 소·토끼·호랑이날이 좋고, 특히 호랑이날이 제일 좋다고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설날부터 상점들이 문을 닫고 쉬다가 날짜를 잡아서 문을 여는데, 반드시 모충일(毛蟲日)에 연다. 이는 그 모충들의 번성하는 솜털의 뜻을 취하여 상업의 번창을 바라는 것으로 인일(寅日)에 문을 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민속조사에서 유모일·무모일을 따지는 풍속에 관한 보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관습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천진기(千鎭基)

상자일(上子日)

정의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쥐날. 정초십이지일의 하나로 상자일 또는 첫 쥐날이라고 부른다.

유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신라 때부터 상자일 · 상해일(上亥日) · 상오일(上午日)에는 백사(百事)를 꺼리고 근신하였다고 한다.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는 쥐가 곡식을 축내므로 상자일에는 모든 일을 쉬고 놀았다고 하였다. 또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이 날 궁중에서는 볶은 곡식을 자루에 담아 근시(近侍)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도 상자일에 콩을 볶는다고 하였다. 그때는 주걱으로 솥 안의 콩을 저으면서 "쥐알 볶아라, 콩알 볶아라."고 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해에 쥐가 없어져서 쥐가 곡식을 먹는 일이 적다고 믿었다. 볶은 콩은 아이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었다.

한편 대궐에서는 주머니를 만들어 각 색의 색실로 끈을 만들고 큰 나비같이 두 귀를 싸서 문안 온 근신이나 재상에게 볶은 콩을 넣어서 나누어 주었다. 이 주머니를 '자낭(子囊)'이라 부른다. 이렇게 궁중에서 주머니를 준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다. 또 주머니를 첫 쥐날과 첫 돼지날[上亥日]에 만드는데, 그것은 쥐와 돼지가 십이지의 처음과 끝이므로 그 해 열두 달 동안의 복록(福祿)을 그 주머니에 담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내용 쥐는 곡식을 축내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불을 밝히지 않고 어둡게 지내며, 쥐가 많으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상자일에 논두렁 · 밭두렁의 풀을 태워 쥐를 잡았다. 이것을 '논두렁태우기' 또는 '쥐불놓이[鼠火戱]'라고 한다.

특히 상자일의 쥐불놓이는 쥐가 없어지고 해충들의 알과 유충 등 잡균을 제거하며 언 땅에 온기를 주니 새싹의 발아도 촉진되어 그 해 농사가 잘 된다고 해서 성행하였다. 그 때는 자기네 논두렁을 걸어다니며 "쥐불이야. 쥐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른다. 또 "쥐볶는다. 쥐볶는다." 혹은 "쥐 주둥이 지진다, 쥐 주둥이 지진다."고 외치면서 볶은 쥐눈이콩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쥐 먹는다, 쥐 먹는다."고 하는 주언(呪言)을 외치며 쥐를 쫓는다. 쥐불놓이에는 쥐와 해충의 제거뿐만 아니라 일년 동안 무병장수하고 액을 멀리 쫓을 수 있다는 소원이 함께 들어 있다. 요즈음에는 보름날 밤에 횃불놓이[炬火戱]를 겸해서 쥐불놓이를 많이 한다.

아낙네들은 이 날 옷을 지어 입으면 쥐가 쏜다고 하여 길쌈이나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 또 상자일 밤 자시에 방아를 찧으면 쥐가 없어진다고 하여 부인들은 밤에 방아를 찧었다. 찧을 곡식이 없으면 빈 방아라도 찧어 요란한 소리를 내었는데, 그렇게 하면 쥐가 놀래어 달아나므로 쥐의 해를 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쥐가 눈이 밝으면 곡식을 잘 쏠게 된다고 하여 눈을 멀게 하기 위해 냄새가 심한 목화씨를 불태웠다. 쥐가 곡식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칼질 · 낫질 · 가위질 등 무엇이든 써는 일을 삼갔다. 쥐는 땅을 잘 파기 때문에 사람이 구멍을 뚫는 일을 하면 일년 내내 쥐가 구멍을 파서 피해가 생기므로 구멍 뚫는 일은 하지 않았다.

지역사례 경기 지방에서는 정월 첫 번째 쥐날인 상자일에 아이들이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놓는다. 논둑과 밭둑의 잡초는 논이나 밭에 낸 거름기를 빨아들여 잘 자란다. 이것이 겨울을 맞아 자연히 말라 있는데, 여기에 불을 놓으면 풀포기나 땅위에 널려 있는 잡균이 불길에 타 소독이 되고, 불탄 재는 거름이 되어 땅을 걸게 한다. 이런 이중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또 풀을 태워 버리듯이 쥐도 없어지라는 뜻에서 불을 놓는다.

전남 지방에서는 상자일에 일을 하지 않고 노는 풍속이 있다. 또 시골에서는 이 날 저녁에 될 수 있으면 불을 안 켜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환하게 불을 켜면 쥐 눈구멍이 밝아져서 곡식을 축내며 물건을 쏘는 등 해를 끼치는 일이 많다고 여겼다. 그래서 쥐 눈구



자신 관비라대장



밭둑태우기
충북 보은군 회북면 심환근

멍을 멀게 한다고 하여 면화씨로 불을 지핀다. 그 밖에도 쥐가 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칼질 등 무엇이든 써는 일을 삼간다. 마소의 먹이인 여물을 썰면 쥐가 나락(벼)이나 짚을 쏜다고 해서 미리 썰어 두었다. 그리고 길쌈감을 다루거나 옷을 만들면 쥐가 이것을 쏠아 못쓰게 한다 하여 그러한 일도 삼갔다.

경남 지방에서는 상자일에 몸에 좋으라고 밀 · 보리 · 콩 같은 곡식을 볶아 먹는다거나 재수가 있으라고 주머니를 만들어 차는 사례가 있다. 또 첫 쥐날에는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바느질 뿐만 아니라 구멍 뚫는 일을 하면 그 해에 쥐가 집 안팎에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꺼린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쥐날 '자불문점(子不問占)'이라 해서 점을 치지 않는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芝峯類說, 韓國의 風俗 上(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1970), 쥐띠의 민속과 상징(김의숙, 中央民俗學6, 中央大學校 韓國民俗學硏究所, 1994).
필자 | 김의숙(金義淑)

쥐날

⇨ 상자일(上子日)

첫쥐날

⇨ 상자일(上子日)

상축일(上丑日)

정의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소날.

내용 상축일은 정초십이지일의 하나로 '첫 소날'이라고 한다. 소는 생구(生口)라 하여 사람 대접을 할 만큼 소중하게 여겼다. 이 날은 소를 위로하고 대접하는 뜻이 담긴 소의 명절날이다. 상축일에는 소한테 일을 시키지 않으며, 쇠죽을 쑬 때 콩 · 싸라기 등 소가 좋아하고 영양가 많은 것을 넣어서 먹인다. 소는 매우 소중한 존재로,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힘든 일을 많이 해결해 준다. 곧 논을 갈고 밭을 갈며 무거운 짐을 운반해 준다. 소는 혼자서 일꾼 둘 또는 셋 몫을 일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소를 소중히 여겨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상축일에는 소를 소중하게 다루는 풍속이 많다. 이 날에는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쇠죽에 콩을 많이 넣어서 소를 잘 먹인다. 농가에서는 고사리 · 콩나물 · 싸라기 등을 삶아 키에 담아서 소에게 주는 일도 있다.


축신 벌절라대장



소날은 도마질이나 방아질을 하지 않고 쇠붙이 연장을 다루지도 않았다. 또 곡식을 집 밖으로 퍼내지 않는다. 도마질을 하는 것은 쇠고기를 도마에 놓고 난도질하는 것과 같아서 소를 위해서 삼가는 것이다. 연자방아는 소가 멍에에 매고 돌리는 것이므로 자연히 소에게 일을 시키는 결과가 된다. 방아질을 하지 않는 것은 소의 휴식을 의미한다. 쇠붙이 연장을 다루지 않는 것도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풍속이다. 연장을 다루면 쟁기의 보습이 부러지거나 소가 큰 연장에 다친다고 하여 금한다. 이 날은 이웃의 청이 있어도 곡식 주기를 꺼린다. 곡식을 퍼내면 재산이 줄고 또 재앙이 생긴다고 전하는데, 소날에 소가 일해서 얻은 곡식을 함부로 퍼내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소날에 소를 밭으로 끌어내어 새해 첫 시경(試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소날 소를 부린다는 것은 안 된 일이지만, 소날 소에게 일을 시키는 척하면 소가 일년 내내 건강하고 일을 잘한다고 하며, 또 소날 시경을 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소날에 소를 사면 좋다고 해서 소 값이 오르는 일도 있다. 소는 근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나들이를 해도 무방하고 특히 먼 곳을 출타하려면 이 날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천진기(千鎭基)

소날

⇨ 상축일(上丑日)

첫소날

☞ 상축일(上丑日)

상인일(上寅日)

정의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범날.

유래 '상인일' 또는 '첫호랑이날'이라고 한다. 간지(干支)의 인(寅)은 동방(東方)으로 띠로는 범(호랑이)에 해당한다. 흔히 호랑이보다 범이라고 사용하였는데, 범 자체가 곰과 대칭되는 민속적 사고에서 연유한다. 호랑이는 기층 사회에서 흔히 산군자(山君子)·산령(山靈)·산신령(山神靈)·산중영웅(山中英雄) 등으로 불리었다. 호랑이의 형상은 선사시대 청동기와 암각화 등에서부터 나타난다. 신라시대 토기에도 말·사슴 등의 짐승과 더불어 호랑이의 형상을 선각(線刻)으로 새겨 넣었다. 풍요를 기원하던 수렵시대의 의식에서 비롯된 상징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鎭山)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호랑이를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 호환(虎患)을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간지의 상징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호랑이의 민간전승은 열두 띠 중 호랑이(범)띠 관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호랑이는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듯이 정월에 예측속신이 전승된다. 특히 정월 상인일에는 호랑이와 연상하여 금기와 축복의 양면성을 띠고 나타난다.

금기 음양가(陰陽家)의 속신 관념에는 "사람은 호랑이, 곧 인(寅)의 정기를 받았다."고 한다. 정월 첫 번째의 상인일은 아침 일찍 여자의 외부 출입을 금하고, 사람에게 경사스러운 행위들을 많이 하도록 한다. 이는 호랑이의 화(禍)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에 이 날 남의 집에 가서 대소변을 보게 되면, 그 집안의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호환을 당하고, 창귀가 달라붙는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 날은 집에서 근신하며, 짐승에 대한 악담도 절대 삼간다. 충북 영동군 수동리에서는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빚어 먹으면 한 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 날이 정월 정초에 일찍 들면 그 해 목화가 잘 된다고 한다. 호랑이의 포효하는 느낌이 목화의 다산을 연상시킨 것이다. 또 이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잘 놀아야 일년 내내 건강하다고 믿었다. 옛날에는 "이 날에 간단한 과거를 보이어 벼슬길에 나가는 길을 터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인일불제사(寅日不祭祀)'라고 하여 이 날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물론 귀신을 섬기거나 비손 행위도 삼간다.

의의 상인일의 속신에는 인지(寅支)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에 대한 민중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호랑이는 음양으로 양(陽), 오행으로 목(木)이어서 음양오행의 원리에 역행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는 것을 정초에 근신삼아 암시하는 데 있다. 호랑이로부터 연상되는 속신 관념이 세시의 금기 또는 주술로 승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五洲衍文長箋散稿, 불교와 세시풍속(안길모, 명상, 1993),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호랑이띠(이창식, 국학자료원, 1998), 충북의 민속문화(이창식, 충청북도·忠北學硏究所, 2001).

필자 | 이창식(李昌植)

범날

☞ 상인일(上寅日)

첫호랑이날

☞ 상인일(上寅日)

호랑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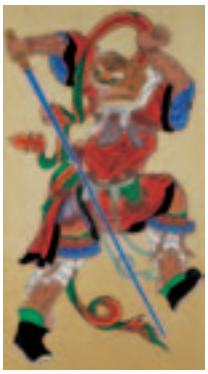
☞ 상인일(上寅日)

상묘일(上卯日)

정의 새해 들어 첫 번째로 맞는 토끼날.

내용 정초 십이지날의 하나이며 유모일(有毛日)에 속한다. 첫 토끼날 또는 톱날·톳날·톳갯날(제주도)이라고도 한다. 상묘일의 풍속은 여자가 조심하는 날이라 하여 특히 여자와 관련된 금기가 많다.

상묘일에 관한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이 날 새로 뽑은 실을 토사(兎絲, 톳실)라 한다. 이 실을 차고 다니며 재앙을 물리친다. 남의 식구를 집에 들이지 않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들이지 않는다. 특히 여자가 남의 집에 먼저



인신 미기라대장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고 하였다. 이 날 여자들이 남의 집을 방문하면 재수가 없어 그 집에 우환이 잦거나 또는 초상이 난다고 꺼렸다. 토끼는 방정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여자들이 조심해야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남의 집에 갈 사정이 생기더라도 오후에 가거나 또는 남자가 먼저 대문을 들어선 후 여자가 따라 들어간다. 그리고 남의 집에 가더라도 소변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

정초 또는 정월 대보름 안에 여자들이 바깥출입을 삼가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지만 특히 토끼날을 가리는 것은 이 날 대문을 여자가 먼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 토끼날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일어나 대문을 열어야 그 해 가운(家運)이 좋다고 한다. 가장(家長)이나 웃어른이 열면 제일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남자가 먼저 열어야 한다. 만일 여자가 먼저 대문을 열면 일년 내내 불길하다고 한다. 경상도에서는 대문뿐만 아니라 부엌의 솥뚜껑도 남자가 먼저 연 후에야 비로소 여자들이 거동을 하였다.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보이듯이 여자뿐만 아니라 집안에 남의 식구나 나무로 만든 그릇도 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토끼날에 사기그릇·놋그릇·옹기그릇을 새로 사서 들여오면 실수해서 깨지므로 사지 않으며, 이 날 머슴이나 식모를 구해서 두면 경망하고 방정맞은 사람을 두게 된다고 해서 사람 두는 일도 삼갔다.

그리고 이 날은 정초십이지일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는다. 특히, 칼질이나 가위질, 쟁기질을 하면 토끼가 곡식을 갉아먹는다거나 짐승들이 산밭의 곡식을 쏜다고 하여 하지 않았다. 어촌에서 토끼는 방정맞은 짐승이라 하여 이 날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았다.


묘신 안저라대장

한편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보이듯이 이 날 새로 뽑은 실을 톳실 또는 명실[命絲]이라고 한다. 여자들은 이 날 바느질을 하였으며 베틀에 앉아 조금씩이라도 베를 짰는데, 이러한 풍속은 화전(火田)을 했던 강원도에 많이 나타난다. 이 실을 차고 다니거나 옷을 지어 입으면 수명이 길어지고 재앙을 물리친다고 하여 남녀 모두 명주실을 청색으로 물들여 팔에 감거나 옷고름에 달았으며, 돌쩌귀에 걸어두기도 하였다.

정초십이지일은 유모일과 무모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유모일을 좋은 날로 여기고 있다. 토끼는 털이 많은 짐승이라 유모일에 속한다. 상묘일이 정초에 들어 있으면 그 해에는 목화가 풍년이 든다고 한다.

지역사례 정월 첫 토끼날에 대한 풍속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현지조사자료 중 전라도의 경우는 자료가 드문 편이다. 일반적으로 토끼날에는 해서 좋은 일보다는 가리는 일이 많다. 경기도 수원·강화도에서는 토끼날과 호랑이날은 여자들이 남의 집에 가지 않는데, 강화의 경우 이 날 부득이하게 남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면 주인이 손님을 거꾸로 자게 하여 주인집의 해를 피했다. 경북 고령에서는 첫 토끼날 여자가 먼저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자들끼리 서로 자기 집을 방문해 줄 것을 부탁하여 품앗이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남 통영에서는 정초에 작대기를 대문 앞에 걸어 놓아 외부인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경북 달성에서는 남자들이 남의 집 대문뿐만 아니라 남의 집 솥뚜껑도 열어 주면 좋다고 하여 솥뚜껑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그 밖에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는 이 날 여자들이 동쪽을 향해 일을 하거나 소변을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하여 금했다. 그러나 특이하게 제주도에서는 이 날을 좋은 날이라 하여 당(堂)에 간다고 한다.

의의 상묘일의 금기는 토끼의 방정맞고 경망스런 모습과 관련된 생태적인 속성과 함께 십이지의 넷째 지지(地支)인 묘(卯)의 속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묘의 방위는 정동(正東), 시간으로는 오전 5~7시, 음양으로는 음, 오행으로는 목(木), 색으로는 청색에 해당한다. '남자가 먼저 대문 열기', '동쪽을 향해 일을 하거나 소변을 보지 않는 일', '나무로 만든 그릇을 들이지 않는 일', '처음 짠 베를 청색으로 물들이는 일' 등이 묘의 속성과 관계있는 예들이다. 특히 가리는 일 중 '남자가 먼저 대문을 열어야 그 해 가운(家運)이 번창한다.'는 것은 '묘(卯)'자 상형이 '개문(開門)의 형상', 곧 대문을 좌우로 연 모양을 나타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정(不淨)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여자가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 대문을 열면 한 해가 불길하다고 믿어 특히 금기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해서 좋은 일로 첫 토끼날에 톳실 또는 명실을 짜는 것은 토끼와 실이 일반적으로 수명 장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월 첫 토끼날의 풍속은 현재 거의 지켜지지 않으나, 여자의 출입을 꺼리는 일은 아직까지 일부 지방에서 지켜지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 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토끼띠의 민속과 상징(김이숙, 中央民俗學6, 中央大學校 韓國民俗學硏究所, 1994),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이숙(金利淑)

첫토끼날

⇨ 상묘일(上卯日)

토끼날

⇨ 상묘일(上卯日)

상진일(上辰日)

정의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용날.

내용 상진일은 정초십이지일의 하나로 '첫용날'이라고 부른다.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들은 비가 골고루 내려 풍년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수신(水神)으로서의 용신(龍神)을 잘 섬겨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첫 용날은 일년 농사의 풍흉과 관계있다고 믿어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많다.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풍속으로는 '용알뜨기'가 있다. 정월 첫 용날이나 대보름에는 새벽에 하늘에 있는 용이 지상으로 내려와 우물에 알을 풀어놓고 가는데, 이 우물물을 제일 먼저 길어다가 밥을 지으면 그 해 운이 좋아 농사가 대풍이 든다고 한다. 부녀자들이 닭이 울 때를 기다렸다가 서로 앞 다투어 물을 길어왔다. 용의 알을 먼저 떠간 사람이 그 표시로 지푸라기를 잘라 우물에 띄워 두면, 다음에 온 사람은 용의 알이 있는 다른 우물을 찾아가게 된다.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이러한 풍속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대보름날[上元] 풍속으로 기록하고 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이 날 긷는 물을 '노용자(撈龍子)'라고 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상진일에 하는 풍속으로 콩볶기·머리빗기·칼질 안하기·일 안하기 등의 풍속이 있다. 이 날 콩을 볶아 먹으면 그 해 곡식에 좀이 슬지 않는다고 하는데 경남 지역에도 이런 풍속이 있다. 이 날 칼질을 하지 않는데, 만약 칼질을 하면 일하는 날마다 비가 오고, 일꾼들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지역사례 전북 고창에서는 상진일에 머리를 감으면, 농사철 일할 때 비가 자주 온다고 머리를 감지 않고 대신 머리가 용꼬리처럼 길어지라고 머리를 빗는다. 그러나 같은 고창의 성송면에서는 상진일에 머리 빗질을 하면 혼사와 같이 큰 일을 치를 때 비가 온다고 하여 머리도 빗지 않고 빨래도 하지 않는다.

상진일에 일을 하면 바쁜 농사철에도 일할 때마다 비가 온다고 한다. 특히 물 긷는 행위와 비가 오는 것을 연관지어 생각하는데, 전남 지역에서는 첫 용날에 물을 긷지 않는다. 이 날 물을 길으면 여름철에 바쁘게 일할 때마다 비가 온다고 한다. 특히, 여름보리 타작할 때 비가 와서 방해가 된다고 한다. 어촌에서도 어장을 할 때 비가 와서 해를 끼친다고 해서 물을 긷지 않는다.

부안에서는 첫 용날에 지붕을 이지 않는데, 이 날 지붕을 이면 불이 난다는 속신이 있다. 전주에서는 '수(水)'자를 네 기둥에 거꾸로 붙여 화재막이를 한다. 또 첫 용날이 드는 날에 따라 비가 많고 적음을 점치는데, 그 해 첫 용날이 초닷새에 들면 용이 다섯 마리고, 나흗날에 들면 네 마리, 열이튿날에 들면 열두 마리라고 한다. 용의 수가 많으면 비가 많이 오고, 적으면 비가 적게 온다고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著, 弘人文化社, 196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필자 | 천진기(千鎭基)

용날

⇨ 상진일(上辰日)

첫용날

⇨ 상진일(上辰日)


지신 안비라대장

상사일(上巳日)

정의 새해 들어 첫 번째로 맞는 뱀날.

내용 정초십이지일의 하나이며, 또한 무모일(無毛日)에 속한다. '첫 뱀날'이라고도 한다. 상사일의 풍속은 주로 뱀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금기속(禁忌俗)과 주술적 의례행위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뱀을 쫓아내기 위한 주술적 행위는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기도 한다.

『경도잡지(京都雜志)』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조에 따르면, "사일에는 이발을 하지 않는다. 뱀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풍속은 전국적으로 보이는데, 뱀날에는 뱀이 들어와 화를 입는다고 하여 머리를 빗거나 자르지(깎지) 않는 것은 물론 머리도 감지 않고 머리카락을 버리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새끼줄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곳도 있다. 이러한 금기속이 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이 날 뱀막이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뱀부적붙이기와 뱀치우기(뱀지지기, 뱀끄슬리기)가 있다.

뱀부적을 지역에 따라서 뱀뱅이 · 뱀방 · 뱀입춘 · 배암막이 · 뱀축 · 뱀첩이라고도 한다. 뱀부적은 전날 미리 준비해 두거나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쓴다. 한지를 조그맣게 잘라 붓으로 뱀 '사(巳)' 자를 쓰거나 청사(靑巳, 靑蛇), 백사(白巳), 황사(黃巳), 홍사(紅巳), 흑사(黑巳) 등의 뱀 종류와 청룡(靑龍), 백룡(白龍), 황룡(黃龍), 적룡(赤龍), 흑룡(黑龍) 등 용의 종류를 써서 붙인다.

또는 뱀에게 물려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뱀을 많이 잡아 죽였다는 이삼만(李三晩), 뱀을 죽이기로 유명했던 적제자(赤帝子), 그리고 항우검(項羽劒) · 패왕검(覇王劒)이나 동사(冬巳) · 용의방(龍義方), 그 밖에 뱀이 사방 멀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사방무일사(四方無一巳), 동서남북 속거천리(東西南北 速去千里), 사공천리거(巳公千里去) 등 뱀이 무서워하는 글귀를 쓴 뱀뱅이를 마루 · 기둥 · 장독대 · 담벽 등 집안 곳곳과 우물이나 샘 등 뱀이 나올 만한 곳 또는 나와서는 안 될 곳에 거꾸로 붙인다. 거꾸로 붙이면 뱀이 올라가다 떨어진다고 한다. 이 때 쑥과 무명씨, 고추를 넣어 뱀불을 피우기도 하는데, 독한 냄새로 인해 뱀을 쫓는 주력(呪力)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뱀치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까리대나 깻대 또는 나무작대기에 새끼줄을 길게 묶어 뱀줄을 만들어야 한다. 뱀줄에 한 해 동안 모아둔 머리카락이나 고추 · 솜 등을 함께 달아 매어 불을 붙이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 뱀줄을 가지고 뱀이 나올 만한 곳이나 집안 곳곳을 끌고 다니며 "뱀 끗자(뱀 끄슬리자), 뱀끗자!"(전북), 또는 "뱀 짓자(뱀 지지자), 구랭이 짓자!"(전남), "뱀 치자(뱀 치우자), 뱀 치자!"(경북)라고 외치면서 뱀을 쳐내는 시늉을 한 후 집 밖에 내다 버리거나 불태운다. 뱀줄은 헌 새끼줄이나 불에 그을린 새끼줄, 또는 왼새끼를 꼬아 만든 새끼줄을 쓰는 등 일정하지 않으며, 아무 것도 달지 않고 새끼줄 자체만 사용하기도 한다.

정월 첫 뱀날에는 다른 정초십이지일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으며, 바깥 출입을 삼가고 무엇이든 조심한다. 이 날 일을 하면 뱀이 나온다고 하여 우물물을 긷지 않고,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으며, 또 탈이 난다고 하여 물건을 손대거나 옮기지도 않는다. 어촌에서는 배가 뱀처럼 미끄러져 전복(顚覆)된다고 하여 이 날 출어를 하지 않는다. 뱀날에는 특히 물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데, 농사철에 일할 때마다 비가 온다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뱀날에는 용날과 마찬가지로 전날 미리 물을 길어다 놓으며, 빨래도 하지 않고, 물을 버릴 때도 소리 나게 버리면 일 할 때 비가 온다고 하여 조용히 버리거나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다음 날 버린다.

한편, 뱀날은 불길한 날로 인식되어 이 날 장을 담그지 않는다. 옛날에는 장맛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좋은 날을 가려 정성을 다해 담그는데, 일반적으로 진사일(辰巳日, 용날과 뱀날)에는 장을 담그면 장맛이 없다고 한다. 혹은 뱀이 나오거나 장 속에 뱀이 빠져 좋지 않다고도 한다. 이러한 풍속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밖에 무모일(털이 없는 짐승날)에 속하는 뱀날이나 용날이 그 해 먼저 들면 농사가 흉년이 든다고 하는가 하면, 설날이 무모일이면 그 해 길쌈이 잘 된다고도 한다.

지역사례 첫 뱀날에 우물물을 긷지 않는 풍속은 전라도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가 많은데 비해 경상도 지역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뱀치우기(뱀지지기)는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경기


사신 산저라대장

도에서는 조사된 자료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도 고양에서는 뱀날에 머리를 빗으면 샘풀(밭에서 자라는 가늘고 노란 풀로 다른 식물을 감아 올라가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함)이 잘 자라 농작물에 해를 끼친다고 한다. 전북 고창의 경우 근래에는 '이삼만' 이라는 뱀뱅이를 붙이는 대신 들깻대를 태우는데, 들깻대가 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뱀을 쫓는다고 한다.

경북 문경에서는 썩은 새끼줄에 오줌과 재를 묻혀서 온 집안을 끌고 다니면서 뱀치우기를 하는가 하면, 이 날 주부가 빈 디딜방아를 찧으면서 "뱀 대가리 깨자, 뱀 대가리 깨자."고 말하면서 세 번 찧기도 하고, 또한 빈 도마에 아무 음식이나 가져다 놓고 칼질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뱀에게 물리지 않는다고 믿는다. 예천에서는 뱀날에 바늘을 만지면 손이 곯는다고 하여 바느질을 하지 않으며, 이 날 생인손을 앓으면 손이 뱀 대가리처럼 된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사불원행(巳不遠行)' 이라 해서 뱀날 먼 길을 떠나지 않는다. 또 '출행파일(出行罷日)' 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라고도 한다. 뱀은 구멍 속에 사는 짐승이라 해서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고, 손해가 있다고 말한다.

그 밖에 충남에서는 일반적인 뱀날에 뱀을 죽이면 뱀이 많이 생긴다 하여 뱀을 죽이지 않는다. 전라도에서 뱀날은 불길한 날이라 하여 씨나락(볍씨)도 물에 담그지 않고, 또 사람도 뱀날 죽으면 극락에 가지 못한다는 속신이 있다.

의의 뱀날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날로 인식되고 있다. 외형상 뱀이 혐오스런 동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산이나 밭은 물론 초가집 지붕 속에도 뱀이 많이 살고 있어 뱀에 의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뱀날에 뱀과 관련된 금기속과 의례행위가 행해졌고, 특히 뱀으로 연상되는 머리카락이나 긴 새끼줄과 함께 뱀부적(뱀뱅이) 등이 주로 뱀 예방의 주술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한편, 뱀날과 용날의 금기속이 일부 겹친 것은 비(물)의 신(神)인 용과 뱀이 경우에 따라 동일시되기도 함으로써 수신신앙(水神信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은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남획(濫獲)으로 인해 뱀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시대의 변화로 인해 첫 뱀날의 풍습은 거의 사라졌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 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이숙(金利淑)

뱀날

☞ 상사일(上巳日)

첫뱀날

☞ 상사일(上巳日)

상오일(上午日)

정의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말날.

내용 상오일은 정초십이지일의 하나로 '첫 말날' 이라고도 부른다. 말날은 소와 함께 중요한 가축으로 여겨 말에게 제사지내고 찬(饌)을 주어 위로하였으며, 이 날에는 장 담그는 일, 고사지내는 일 등을 하였다. 말날에 된장 담그는 일은 전국 공통의 풍속이다. 지금은 말을 부리고 기르는 일이 드물어져 첫 말날의 풍속은 거의 없어졌고 각 현지조사보고서에도 이렇다 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차를 타고 다니기 전에는 말이 군마(軍馬), 교통 · 통신의 역마(役馬)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가축이었다. 그뿐 아니라 말은 마을의 수호신이나 영혼, 시대의 선구자들이 타고 오가는 승용동물(乘用動物)로서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에게 찬을 주어 위로하는 일은 첫 소날과 마찬가지로 노역과 농사일로 힘들었던 말을 위로하고 쉬게 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10월 상달 말날에 팥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외양간에 갖다놓고 말의 건강을 비는 일과 상통한다.

지역사례 경남에서는 설 안에 장을 담그지 못한 가정에서 첫 말날에 장을 담그면 장맛이 달고 좋다는 습속이 널리 퍼져 있다. 그 까닭으로는 말이 좋아하는 콩이 장의 원료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과 말의 핏빛처럼 장 빛깔이 진하고 맛이 달게 된다는 것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경남 사천에서는 용날과 뱀날에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끓는다 하여 소나 말같이 털 있는 짐승날에 장을 담근다. 전북 지역에서


오신 인달라대장

는 정월 중 말날에 장을 담그면 맛있다고 한다. 또한 정월에는 장을 담글 때 소금을 덜 넣어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정월에 장을 담그지 않으면 3월에 담그는데, 이 때도 말날에 담가야 맛이 좋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정불굴수(井不窟遂)'라 하여 이 날 우물을 파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말날을 길일로 여겨 고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著, 弘人文化社, 196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필자 | 천진기(千鎭基)

말날

⇨ 상오일(上午日)

첫말날

⇨ 상오일(上午日)

상미일(上未日)

정의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양날.

내용 상미일은 정초십이지일의 하나로 '첫 염소날'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는 보통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한다. 미년(未年)에 태어난 사람을 '양띠'라 하기도 하고, '염소띠'라고 하기도 한다. 한자로 양(羊)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면양(綿羊)과 산양(山羊)을 포함한다. 면양은 양이라고 하고, 산양은 우리말로 염소라고 한다. 한반도 풍토에서는 산양이 자생하기 쉬운데,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양날 · 양띠보다는 염소날 · 염소띠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된다. 첫 염소날에 특기할 만한 민속은 거의 없다.

지역사례 전남에서 염소는 그 걸음걸이가 방정맞고 경솔하다 하여 이 날 출항을 삼가는 곳도 있다. 경거 망동했을 때 바다에 나가서 해난을 만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이 날 '미불복약(未不服藥)'이라 하여 환자라 해도 약을 먹지 말라고 한다. 염소(양)에 해당하는 십이지의 '미(未)'자가 '아닐 미'자이기 때문에 이 날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전한다. 이러한 일들을 제외하면 염소는 온순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날 무슨 일을 해도 해가 없다고 한다. 다른 정초십이지일은 주로 '~해서는 안 된다.', '~삼간다.' 등 근신하고 조심하는 풍속이 많은 데 비해, 이 날만은 비교적 좋은 날로 여겨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날로 되어 있다.

상징 양과 염소는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정직성이 있다. 속담에 "염소띠는 부자가 못 된다."고 하는데, 염소띠 사람은 염소처럼 너무 정직하여 부정을 못 보고, 너무 맑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 · 염소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는 순하고 어질고 착하며 참을성 있는 동물, 무릎을 꿇고 젖을 먹는 은혜를 아는 동물로 수렴된다. 양 · 염소 하면 곧 평화를 연상하듯 성격이 순박하고 온화하여 싸우는 일이 없다. 양 · 염소는 무리를 지어 군집 생활을 하면서도 동료간의 우위 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갖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습성도 있다. 성격이 부드러워서 좀처럼 싸우는 일이 없으나 일단 성이 나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著, 弘人文化社, 196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 천진기(千鎭基)

양날

⇨ 상미일(上未日)

염소날

⇨ 상미일(上未日)

첫염소날

⇨ 상미일(上未日)

상신일(上申日)

정의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원숭이날.

내용 상신일은 정초십이지일의 하나로 '첫원숭이날'이라고 한다. 원숭이날을 '잔나비날'이라고도


미신 발이라대장

하는데 원숭이를 '잔나비'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작은 것을 뜻하는 '잔'이라는 접두사와 원숭이를 뜻하는 '신(申)' 자의 풀이인 명사 '납'에, 접미사 '이'가 연음되어 '잔나비'가 되었다. 즉, 조그마한 원숭이로 풀이된다. 잔나비, 즉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로 만능 재주꾼이고, 자식·부부간의 극진한 사랑은 사람을 빰칠 정도이다.

지역사례 전남에서는 원숭이날을 좋은 날이라 해서 일을 안하고 놀며 가무와 음주를 즐기는 곳이 많다. 이 날을 사람날[人日]로도 생각하고, 고기를 먹으면 살찐다고 해서 일부러 육식을 한다고도 한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관념 때문에 이 날은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 칼질을 하면 손을 벤다고 해서 삼가기도 한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바깥출입도 꺼리는 풍속이 있어서 근신하고 집에 머문다. 전북 부안에서는 정월 초하루와 같이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밖에 나가는 것을 삼가기도 한다. 즉, 이 날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비를 들고 부엌 네 귀를 쓸고 다시 마당 네 귀를 쓰는 등 수선을 피운다. 부엌에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 날만은 남자가 꼭 먼저 부엌에 들어간다는 지방(地方)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원숭이날을 '납날'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 날에는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 이 날 자른 재목으로 집을 짓거나 연장을 만들면 좀이 많이 슬게 된다고 한다. 경남 사천에서는 이 날을 '고마이날'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귀신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외출을 삼간다. 부산 기장에서는 원숭이를 까불고 잔머리 잘 쓰는 짐승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재수 없는 동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 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만사를 조심한다. 평소에도 원숭이란 말을 하거나 들으면 재수가 없다고 '잔나비'라고 바꾸어 말한다. 경상도에서는 상신일(上申日) 뿐 아니라 여느 신일(申日)에도 '원숭이'란 말을 입에 담으면 재수 없다고 하며, 불가피하게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잔나비' 혹은 '잰나비'라고 바꾸어 말한다. 원숭이는 재주는 있으나 경솔한 짓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숭이를 닮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타이른다. 전북에서는 원숭이날을 의미하는 '신일(申日)'이 귀신날을 가리키는 '신일(神日)'과 음이 같아서 이 날을 꺼려 일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전해 오는 방아타령 가운데 "경신년 경신일 경신월 경신시(庚申年 庚申月 庚申日 庚申時) 강태공의 조작방아"라는 구절이 있다. 오행과 간지를 배합시킬 때 경(庚)과 신(申) 모두 금(金)에 속하고 귀신은 금을 꺼린다고 전해오기 때문에 경신이 붙은 때에는 어떤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데서 나온 것 같다.

인접국가사례 동양에서는 불교를 믿는 몇몇 민족을 제외하고는 원숭이를 재수없는 동물로 기피하면서도 사기(邪氣)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원숭이가 좋은 건강·성공·수호(보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숭이는 동물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재주있는 동물로 꼽히지만, 너무 사람을 많이 닮은 모습, 간사스러운 흉내 등으로 오히려 재수없는 동물로 기피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著, 弘人文化社, 196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 천진기(千鎭基)

원숭이날

⇨ 상신일(上申日)

첫원숭이날

⇨ 상신일(上申日)

상유일(上酉日)

정의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닭날.

내용 상유일은 정초십이지일의 하나로 '첫닭날'이라고 한다. 중국 후한 때 동훈(董勛)은 『문례속(問禮俗)』에서 "정월 초하룻날은 닭날"이라고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새해를 맞이한 가정에서는 닭이나 호랑이 또는 용을 그린 세화(歲畵)를 벽에 붙이는 풍속이 있었다. 세화 속의 동물에게 악귀를 쫓는 신묘(神妙)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닭은 새벽에 울어 태양이 뜨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어둠으로 상징되는 악귀들을 쫓아내는 축귀(逐鬼)의 능력을 지닌 영물(靈物)로 여겼다. 중국 양(梁)나라 종름(宗懍)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신신 마호라대장



유신 직달라대장

에도 "초하룻날 닭을 그려 문에 붙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닭은 태양의 새로서 축귀의 기능을 지닌다.

상유일에는 부녀자들이 바느질하는 것을 금한다. 만일 바느질을 하거나 길쌈같은 일을 하면 손이 닭의 발처럼 흉한 모양이 된다고 하여 꺼렸다. 그래서 정월 첫 닭날에 부녀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다. 빨래도 하지 않았다.

지역사례 전남에서는 첫 닭날에 곡식을 마당에 널지 않는다. 만약 닭이 곡식을 해치면 흉년이 들거나 재산이 흩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상유일에 모이면 싸움이 벌어지고 불상사(不祥事)가 난다고 하여 모임을 갖지 않는다. 또 닭을 잡아먹거나 지붕을 이지 않는다. 닭을 잡으면 닭이 잘 자라지 않으며, 지붕을 이면 닭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파헤친다고 여겼다. 함남에서는 상유일을 '비들달개'라고 하고, 콩을 볶아서 바깥에 뿌렸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 밭곡식이 비둘기 떼의 입을 타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의 風俗 上(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1970), 韓國 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필자 | 김의숙(金義淑)

닭날

⇨ 상유일(上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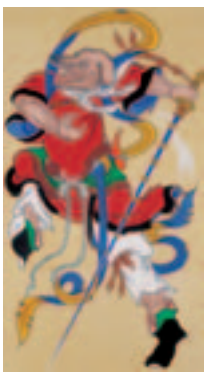
첫닭날

⇨ 상유일(上酉日)

상술일(上戌日)

정의 새해에 들어 첫 번째 드는 개날.

내용 및 지역사례 상술일은 정초십이지일의 하나로 첫 개날이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개날을 좋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하여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개날을 좋은 날이라고 여긴다. 특히, 장을 담기 위한 메주쑤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한다. 경남 지방에서는 개의 먹이를 꼭 볶아준다고 한다. 이 때는 볶음밥과 같이 참기름 등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볶는게 아니라, 삶았던 먹이를 물을 붓지 않고 다시 가열해서 준다. 이렇게 하면 광견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 외에도 칼질을 하지 않는데, 이는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해를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에서는 개날에 장을 담그지 않는다. 만약 장을 담그면 집안 식구끼리 싸움이 벌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개들이 먹을 것을 앞에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행동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겠다.


술신 초두라대장

전남에서는 이 날을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생각한다. 만약 일을 하면 개가 텃밭에 들어가 작물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함평에서는 개날 운세를 보면 잘 맞는다는 속설에 따라 운세나 점을 보러 간다. 이는 개날에 행하는 사람의 행동이 바로 개에게로 전이된다는 속신을 근거로 한 것이다. 또한 풀[糊]을 쑤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개가 잘 토한다는 것이다. 속담에 "풀 쑤어 개 좋은 일 한다."는 것처럼 개는 일반적으로 풀을 보면 밥보다도 더 잘 먹는다. 그런데도 풀을 못 쑤게 하는 이유는 개보다 풀에 대한 일종의 금기나 속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혹독하게 나무라고 질책한다는 뜻을 지닌 속담인 "풀 먹은 개 나무라듯 한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전북 고창에서는 개날 개를 사면 잘 자라지 못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날은 개를 매매(賣買)하지 않는 풍속이 있다. 그리고 전남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날 점을 보면 잘 맞는다고 해서 운세를 보러 간다.

십이지일에 따른 각기의 날마다 금하는 행동이나 풍속이 행해졌으나, 현재는 이런 풍속을 잘 따르지 않는 편이다. 또한 동물마다 좋은 날이나 좋지 않은 날로 여기는 것이 각 지방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예컨대 개날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종대(金宗大)

개날

⇨ 상술일(上戌日)

첫개날

☞ 상술일(上戌日)

상해일(上亥日)

정의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돼지날.

내용 상해일은 정초십이지일의 하나로 '첫돼지날'이라고 한다. 돼지는 신화에서 신통력을 지닌 동물, 제의의 희생, 길상으로 재산이나 복의 근원, 집안의 재신을 상징한다. 그런 반면에 속담에서는 대부분 탐욕스럽고 더럽고 게으르며 우둔한 동물로 묘사되는 모순적 양가성(兩價性)을 지닌 동물이다.

산돼지와 쥐는 곡식을 흩트리거나 쏠거나 해서 많은 해를 준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첫 쥐날과 첫 돼지날에 궁중에서 돼지나 쥐의 주둥이를 지지는 주술적인 행사를 거행했다. 나이가 젊고 지위가 낮은 내관들 수백인이 횃불을 들고 땅 위로 이리저리 내저으면서 "돼지주둥이 지진다." 하며 돌아다녔다. 또 곡식의 씨를 태워 주머니에 넣고 재신(宰臣)과 근신(近臣)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를 해낭(亥囊)이라 하는데 비단으로 만들고 모양은 둥글다. 이 모두가 풍년을 비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첫 돼지날에는 팥가루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희어진다고 한다. 돼지의 검은 얼굴빛을 반대로 취한 것이라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기록하고 있다.

지역사례 전남에서는 이 날 바느질을 하면 손가락이 아린다고 해서 금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 날 머리를 빗으면 풍증(風症)이 생긴다고 해서 머리도 빗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흔히 속담에 "돗날(돼지날)엔 통시(변소)에서 돗을 내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이 날이 돼지 본래의 날이라 해서 돼지를 팔고 사거나 잡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돈이 급해서 돼지를 팔더라도 돈을 미리 받아두거나 날을 넘기고 가져가게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著, 弘人文化社, 196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 천진기(千鎭基)

돼지날

☞ 상해일(上亥日)

첫돼지날

☞ 상해일(上亥日)

인동토일(人動土日)

정의 흙을 움직이거나 금기(禁忌)한 행위를 하면 지신(地神)의 노여움을 사서 화를 입게 되는 날. 동토(動土)는 말 그대로 흙을 움직이는 것을 지칭하며 '동티'라고도 하는데, 동토일에는 흙을 다루는 행위를 금한다.

내용 『성종실록(成宗實錄)』 권56 6년 6월 2일에 "입춘(立春)은 정월절(正月節)로 경오(庚午)는 정일(定日)이며 동토하기에 마땅하지 않고 정축(丁丑)은 폐일(閉日)이며 재종(栽種)하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동토일에는 흙을 다루는 것을 금하는데, 흙을 잘못 다루면 지신이 노하여 당사자나 그 가족이 화를 입게 되므로 이를 인동토일(人動土日)이라 한 것으로 추측된다. 매월 1일 · 8일 · 13일 · 18일 · 23일 · 24일을 인동토일 혹은 인동티일이라 하며 특히 정월 초하루는 각별히 근신하는 날로 여겼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현종(顯宗) 14년 4월 2일 신축(辛丑)에는 "영릉(寧陵)의 봉심일(奉審日)을 일관(日官)이 추택(推擇)할 때 월초(月初) 삼일(三日)은 동토에 마땅하지 않으며 초사일(初四日)은 길하지 않다 하여 모두 거리낌이 있으므로 초오일(初五日)이 길일(吉日)"이라 하였다. 이를 보면 동토일은 반드시 정해진 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래 동토일은 흙을 다루지 않는다는 속신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날은 가구의 위치를 바꾸거나 집수리를 하지 않으며, 혼인을 피하고, 머슴이나 하인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하여 출입을 경계하기도 한다. 한편 흙만이 아니라 나무를 잘못 건드려 사람이 화를 입는 나무동티도 있다.

참고문헌 | 成宗實錄, 承政院日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 京畿道 篇-(文化財管理局, 1978),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필자 | 김삼기(金三基)



해신 비갈라대장

인동티일[人動土日]

⇨ 인동토일(人動土日)

삼패일(三敗日)

정의 음력으로 매달 초5일, 14일, 23일.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월내조(月內條)에는 "매달 이 날에는 모든 일을 꺼려하여 감히 행동하지 않고 외출도 마땅히 하지 않았다. 이는 고려풍속에 이 세 날로써 임금의 소용일(所用日)로 삼았으므로 백성들은 이 날을 이용하지 않고 기일(忌日)로 삼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며 본디 패일은 아니다."고 하였다.

삼패일은 중국 진(晉)나라 원제(元帝) 때 사람인 곽박(郭璞)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10월 14일에 중국의 칙사가 서둘러 길을 떠나려 하자 귀한 손님으로 하여금 불길한 날에 떠나게 하면 미안한 일이라 하여 칙사 일행을 만류하였다. 곽박은 그 날이 불길한 것을 모르고 외출하려 하다가도 불길하다는 말을 들으면 곧 중지하였으며, 그러면 이는 세속에 떠돌아다니는 말이라 하였다. 여기서 불길한 날이란 곽박의 삼패일(三敗日)을 지칭하고 있어 삼패일이 곽박에게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삼패일의 속신은 행동을 삼가고 특히 먼 길을 떠날 때 피해야 했던 기일로 여겼다. 여인들은 이 날 바느질하는 일을 삼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中國人名大辭典(景仁文化社, 1989).

필자 | 김삼기(金三基)

조금일[潮減日]

정의 조차(潮差)가 최소가 되는 상현일(上弦日)과 하현일(下弦日). 한자로는 조감(潮減)으로 표기하며, 이 날을 민간에서는 주로 '조금날'이라고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죄깃날'이라 한다.

내용 음력 한 달을 주기로 달이 차고 기우는데 음력 7일에서 8일경이 상현(上弦)이고 22일에서 23일경이 하현(下弦)이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인 상현일과 하현일을 조금[潮減] 혹은 소조(小潮)라 하고 사리와 대조(大潮)는 이의 반대이다. 서해안 어촌에서는 물의 흐름이 잔잔할 때 출항하여 물이 많이 들 때 회항하므로 조금 무렵은 출항에 적합한 시기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월내조(月內條)에는 "인가에서 꺼리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날이 지나서야 서로 내왕하고 사람들 중에 꺼리는 사람과도 이 날이 지나서야 만난다." 하여 금기하는 날로 여겼다. 이 밖에 제주도에서는 "죄깃[潮期]날에 대나무를 베면 다시 돋지 아니한다. 또는 죄깃날 대나무를 베면 좀이 인다." 하여 조금날에 대를 자르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한죄깃날에 베인 보리를 장만하면 바구미인다." 하여 한죄깃날은 ᄂᆞ진날(나쁜날)이라 보리를 베지 않으며, 새해 처음 씨앗을 한죄깃날에 뿌리면 그 해 농사에 실패한다는 말이 있어 이 날을 피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조금날 길 떠나면 학질 걸린다."는 속신이 있다. 그리고 조금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속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조금일은 비단 어촌에서만이 아닌 농촌에서도 사람을 만나거나 농사일을 할 때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할 때도 꺼리는 날로 여겨 회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남국의 금기어 연구 -濟州道禁忌語硏究-(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어촌 민속지(경기도 · 충청남도 편, 국립민속박물관, 1996).

필자 | 김삼기(金三基)

조감일(潮減日)

⇨ 조금일[潮減日]

사람날

정의 음력 정월 초이렛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어서 이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근신하며 일하지 않고 논다. 인일(人日) 또는 인날이라고도 부르는데, 지역에 따라 정월 첫 호랑이날인 상인일(上寅日) 혹은 원숭이날인 신일(申日)과 혼동하기도 한다.

유래 양(梁)나라 종름(宗懍)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를 보면 "음력 정월 초이렛날은 인일이다. 일곱 가지 채소로 국을 끓이고, 비단실이나 금박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병풍에 붙이거나 머리에 꽂는다. 또 화승(花勝)을 만들어 전하고, 높은 데 올라 시를 짓는다."고 하고 있다. 송(宋)나라 고승(高承)의 『사물기원(事物紀原)』에서는 정월 초이렛날을 인일로 여기는 기원을 한(漢)나라 동방삭(東方朔)의 『점서(占書)』에서 찾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수(隋)나라 유진(劉臻)의 아내 진씨(陳氏)가 인일에 동인승을 올리는데 혹은 비단실을 잘라, 혹은 금박을 새겨 장식하여 만들었다."는 중국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조선(朝鮮)의 동인승(銅人勝)은 이것을 모방한 것이다."라 하고 있다.

내용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고려 궁정에서는 이 날 정해진 의식을 거행하는데, 임금은 이 때 의식에 참가한 양반(兩班)의 신하들에게 인승녹패(人勝祿牌)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동국세시기』에서는 임금이 이 날 규장각의 벼슬아치들에게 뒷면에 신선이 새겨져 있는 작고 둥근 구리거울 모양의 동인승(銅人勝)을 나누어 주었고, 또 인일제(人日製)라는 과거시험도 실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일제는 태학(太學, 成均館)의 원점(圓點)을 30점 이상 얻은 유생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원점은 성균관 유생의 출석과 결석을 점검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갈 때 식당지기가 찍는 점으로, 아침·저녁 두 끼가 한 점이 된다. 시(詩)·부(賦)·표(表)·책(策)·잠(箴)·명(銘)·송(頌)·율부(律賦)·배율(排律) 등의 문체에서 임의로 문제를 내어 1등으로 뽑힌 유생에게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주고, 그보다 못한 입상자에게는 초시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시험은 반궁(泮宮, 成均館과 文廟)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대궐 안에서 임금이 직접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 날 시험에는 태학의 유생 외에 지방의 유생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통방외(通方外)'라고 하였다. 3월 3일, 7월 7일, 9월 9일에도 인일제를 모방한 시험을 보았는데, 이런 시험들을 당시에는 '절일제(節日製)'라고 불렀다.

지금의 인일 풍속에는 특별한 행사나 의례는 남아있지 않고 몇 가지 금기만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금기들조차도 호랑이날 및 원숭이날 풍속과 뒤섞여 있어서 순수한 사람날만의 풍속인지는 변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

지역사례 사람의 몸을 아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근신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도 지닌다. 전남에서는 정월의 첫 호랑이날 또는 원숭이날을 사람날이라고도 부른다. 호랑이날을 사람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로 일을 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하여 놀아 왔다. 악몽일(惡夢日)이라 하여 출입을 금하고 친척 등 외지의 손님이 내방하면 집에 있으면서 근신하지 않음을 타이른다. 항간에는 이 날 부녀자들이 외출하여 남의 집에서 대소변을 보면 그 집 가족이 잡혀 간다는 속설도 전해진다. 시골에서는 원숭이날을 사람날이라고도 한다. 원숭이를 신령스러운 사람으로 대신하는 말이다. 이 날은 좋은 날이라 하여 일하지 않고 놀며, 가무와 음주를 즐기는 곳이 많다. 사람날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살찐다고 해서 일부러 육식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몸을 소중히 하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관념 때문에 위험한 일도 하지 않는다. 칼질 같은 것을 하면 손을 벤다고 해서 삼간다. 근신하기 위해 바깥 출입을 삼가는 풍습도 있다. 여자들은 이 날 남자보다 먼저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 먼저 방문을 열지 않는다. 반면 남자들은 여자보다 먼저 일어나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비를 들고 부엌 네 귀를 쓸고 다시 마당 네 귀를 쓰는 등 수선을 피우기도 한다. 부엌에 귀신이 있다고 하여 이 날만은 남자가 꼭 먼저 부엌에 들어간다. 이 밖에 이 날을 귀신날이라 해서 노는 곳도 있다.

전북에서는 원숭이날을 보통 사람날이라고 한다. 이 날은 칼을 안 만지거나, 일을 안 하고 놀거나 또는 그냥 서로 말만 하며 지낸다. 경남에서는 '칠인팔곡(七人八穀)'이라 하여 정월 초이렛날은 사람날이라 하고, 초여드렛날은 곡식날이라 한다. 사람날인 인일과 십이지(十二支)의 인일(寅日)을 서로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 사람날이므로 일하지 않고 놀며 "바느질하면 생손가락 앓는다."거나 "칼질(혹은 연장질)하면 다친다."는 금기가 전해진다. 떡을 해 먹으면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배피떡(혹은 백시루떡)을 반드시 해 먹는 곳도 있고, 콩을 볶아 먹는 곳도 있다. 아침 중참 때(10시쯤) 아이들 낯에 분을 발라주면 "소버즘이 생기지 않는다."고도 한다.



동인승 온양민속박물관

경북에서는 이 날을 사람의 발생을 축하하는 날이자 질병을 예방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날로 여긴다. 잡혼을 잡고 예방하는 날로 생각하고, 이 날을 잘 지내면 연중 태평하다고 믿는 곳도 있다. 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다른 집의 대소변도 금지하며 일곱 가지 곡식을 혼합하여 인떡을 만들어 먹는다. 칠곡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빌고 여러 가지 음식을 볶아서 먹고, 영양에서는 일꾼들이 마지막 노는 날로 오후에 약간의 농사일을 하고 수수깡으로 오곡 및 농기구를 만들고, 의성에서는 이 날 산에 가지 않는다. 영일·월성 등지에서는 이 날 가족의 나이 수만큼 쌀을 내어 떡을 해 먹으면 연중 무병하고 건강하다고 한다.

충북에서는 정월 초이렛날을 인일이라고 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남의 집에 가서 자지 않는다. 만일 손님이 와서 자면 그 집의 운이 연중 불길하다고 한다. 부득이 손님이 와서 묵게 될 때에는 주인과 손님이 머리를 반대로 두고 거꾸로 자야만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사람을 피하기 위해 문 앞 좌우에 황토를 세 주먹씩 놓아 두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첫 호랑이날 아침 일찍 다른 집에 가면 좋지 않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첫 호랑이날을 범날 또는 사람날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사람에게 좋은 날이어서 잔치 택일이나 장사 택일을 많이 하고, 남과 왕래를 삼가며 특히 여자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 호환(虎患)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신하는 것이다. 또 인불제사(寅不祭祀)라 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귀신에게 빌지도 않는다.

인접국가사례 고대 중국에서 사람날 인승을 만들어 붙이거나 꽂는 것은 동훈(董勛)의 설명에 따르면, "새해 들어 옛 모습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화승을 주는 풍속은 진(晉)나라 때 시작되었다고 한다. 양(梁)나라 때는 이 날 밤에 많은 귀신[鬼鳥]이 인가를 공격하기 때문에 개의 귀를 뽑고[拔狗耳] 등불을 꺼서[滅燈] 물리쳤다고 한다. 이 날은 사람들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는데, 이것은 초하루부터 초엿새까지 각 날에 해당하는 짐승을 죽이지 않는 것과 같은 뜻이라 한다. 북방 사람들은 이 날 떡[煎餠]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높은 데 올라 시를 짓는 기풍도 진(晉)나라 이래로 사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탕거기(宕渠記)』에 따르면, "낙산(樂山) 사람들은 이 날 술과 음식과 음악으로 잠업(蠶業)이 잘 되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잡오행서(雜五行書)』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각기 정해진 숫자의 붉은 콩을 먹으면 일년 내내 무병(無病)하다."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高麗史,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淵鑑類函, 太平御覽, 荊楚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안상복(安祥馥)

인일(人日)

⇨ 사람날

칠인팔곡(七人八穀)

⇨ 사람날

인일제(人日製)

정의 음력 정월 7일인 사람날[人日]에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인 특별 과거 시험. 국왕의 특명이 있을 경우에는 방외의 유생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유래 『고려사(高麗史)』 기록에는 고려시대의 사람날에 인승녹패(人勝祿牌)를 나누어 주고 인일제 과거를 보았다는 기록이 전한다. 조선에서는 이를 절일제(節日製)의 하나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1월 7일(인일제)·3월 3일(삼일제)·7월 7일(칠석제)·9월 9일(구일제)에 유생들이 시험을 봐서 1등한 자에게는 바로 전시[直赴殿試] 혹은 회시[直赴會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2등한 자에게는 분수(分數) 또는 지필묵을 준 것을 절일제(節日製), 절제(節製) 또는 반제(泮製)라 하였다.

처음에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정부·육조·관각(館閣)·당상들이 문묘에 참배한 뒤 명륜당에서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여 성적이 좋은 3인에게 바로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데 지나지 않았으나, 성종 20년(1489)에 1등한 1인에게만 바로 전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준 뒤로는 일반 과거와 같은 자격을 주는 규칙이 생기고, 또 인일제와 칠석제가 새로 생겨 네 개의 절일제가 되었다.

절일제는 성균관 유생들의 학업 권장을 위하여 만든 것인 만큼 성균관 유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

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국왕의 특명이 있을 때는 방외의 유생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주었다. 성균관 유생에게 응시 자격을 줄 때도 처음에는 원점(圓點)의 다소를 막론하고 응시 자격을 주었으나,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원점 50점 이상,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원점 30점 이상 자에 한하여 응시 자격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점이란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 내에서 아침·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출석 점검을 위해 각자의 이름 아래 점을 찍었는데, 점 2개를 1점으로 하였다.

절일제는 단 한번의 시험에 의하여 급락이 결정되는 까닭에 지원자 수가 매우 많아 시험보는 장소도 성균관의 명륜당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나중에는 궁궐 인정전이나 춘당대에서 시험보는 일이 많았다.

4개의 절일제 중 국초부터 시행된 삼일제와 구일제가 뒤에 생긴 인일제 및 칠석제보다 격이 높아서, 의정부와 6조의 당상이 참석하여 실시하고 1등에게 문과 전시에 바로 응시할 특전을 주었으나, 인일제와 칠석제는 관·각의 당상만이 참석하여 실시하고 1등에게는 문과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밖에 주지 않았다. 격이 높은 삼일제·구일제를 과제(課題), 그리고 인일제·칠석제를 상순윤차(上旬輪次)라 하였다. 뒤에는 국왕의 특명이 있으면 지방 유생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 고시 과목은 주로 시·부·표 중에서 출제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大典通編, 續大典, 成宗實錄.
필자 | 박순(朴焞)

인일하례(人日賀禮)

정의 정초의 7일째 날인 사람날[人日]에 드리는 의례.

내용 서한시대 동방삭(東方朔)의 『점서(占書)』에서 말하기를 새해 후 첫째 날은 닭날[鷄日], 둘째 날은 개날[犬日], 셋째 날은 양날[羊日], 다섯째 날은 소날[牛日], 여섯째 날은 말날[馬日], 일곱째 날은 사람날[人日], 여덟째 날은 곡식일[穀日]이라 하며, 해당되는 날이 청명하면 그 동물이 잘 생육하고, 흐리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고대인들은 사람날의 청명(淸明)으로, 그해 사람들의 길흉 화복을 점쳤다. 또 해당되는 날의 짐승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날에 해당되는 짐승들은 도살하지 않으며, 사람날에는 행형(行刑)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람날에는 일곱 종류의 채소로 국을 끓여 먹었다.

중국 남북조시대 양(梁)나라 종름(宗懍)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하면 정월 7일을 사람날이라 하여 일곱 가지 나물로 국을 끓여 먹고 비단이나 금박(金箔)으로 꽃과 인형을 만들어 병풍에 붙이거나 머리 위에 꽂는데, 인형을 인승면(人勝面), 꽃을 화승(花勝)이라 부른다.

그리고 『고려사(高麗史)』 권67 지21에는 인일하의(人日賀儀)라 하여 국가에서 의례를 행하였다고 전한다. 의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당일에 전문외(殿門外)에 유사가 진설함을 의식과 같이 한다. 각 문원(閣門員)이 먼저 동변(東邊)에 서고 지후(祗侯)가 양반(兩班)을 인도하여 중심을 머리로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행렬을 중복하고 북향하여 서며 시신(侍臣)은 품에 따라 서로 선다. 각사(閣使)가 나가 읍하고 문에 들어가 한번 절하고 꿇어앉아 먼저 인승면(人勝面)을 꽂고 절하고 문을 나가서 자리에 나아가 읍하고 선(宣)을 받들었다고 하면, 사인(舍人)의 외침으로 양반이 재배한다. 각사가 또 "경 등에게 인승녹패(人勝鹿牌)를 사(賜)한다."고 하면 사인의 외침으로 양반이 배무(拜舞)하고 절한다. 인승녹패를 나누어 주면 양반이 꿇어앉아 그 인승을 받는데 3품 이상은 지후가 나누어 주고 4품 이하는 태부인리(太府人吏)가 녹패를 나누어 올리고 판사(判事) 이상은 삼사판관(三師判官)이 나누어 주며 이하는 인리(人吏)가 나누어 올린다. 사인의 외침으로 양반이 재배하고 각각 지후가 인도하여 나간다. 각 문이 횡행으로 가서 스스로의 외침으로 배무(拜舞)하고 절하며 각각 인승녹패받기를 위에서와 같이하여 마치고 재배하며 읍하고 물러간다고 의식의 절차를 밝히고 있다. 또 『고려사』 권19 세가(世家)19, 명종(明宗)3년 정월 신미에 "신미일에 백관이 인일을 축하하니 왕이 그들에게 인승녹패를 주었다."고 전한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의하면, 이 날에 공조(工曹)에서는 화승을 올리고 또 구리로 둥근 원모양으로 만들어 그 위에 사람의 형상을 새긴 이른바 동인승(銅人勝)을 각 궁전에 하나씩 진상한다고 하였다. 동인승이란 수나라 유진(劉臻)이란 사람의

아내 진씨(陳氏)가 사람날에 동인승을 올렸는데, 비단실과 금박을 잘라서 만들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작고 둥글며 자루가 달린 거울의 뒷면에 신선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高麗史, 光海君日記, 洌陽歲時記, 占書, 太祖實錄, 荊楚歲時記, 한국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 · 고려시대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中國風俗大辭典(申士垚 外 編著, 中國和平出版社, 1991).

필자 | 박순(朴焞)

곡식날(穀食—)

정의 음력 정월 초여드렛날. 곡일(穀日)이라고도 한다.

내용 풍작을 기원하고 풍흉을 점치는 의례를 가지는 곡식날의 풍습을 요즈음에는 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날 갈무리해 두었던 씨앗들을 점검하고 심을 준비를 해두면 풍년이 든다고 하며, 닭장 · 외양간 · 돼지우리를 치운 거름을 논밭에 내고 보리밭에 거름을 주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오곡을 볶아 먹거나 떡을 해 먹기도 하고, 또 국수를 섞은 수제비를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곡식을 볶으면서 일종의 주술적인 행동을 통해 좀이나 쥐와 같은 해충과 잡초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음식이 익는 현상이나 짚을 태워 남은 재의 양으로 풍흉을 점치는 의식이 있다. 정초 의례의 하나로, '칠인팔곡(七人八穀)'이라 하여 초이렛날인 '사람날[人日]'의 다음 날이 '곡식날[穀日]'이 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곡식날이 따로 없고 정월 첫 쥐날[上子日]이나 첫 용날[上辰日] 또는 14일에 곡식날과 같은 의례를 행하는 곳이 많다.



콩볶기
경남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국립민속박물관

곡식날의 가장 큰 의미는 곡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씨앗을 잘 관리하여 농사를 잘 지으려 함이다. 이 날 오곡(쌀 · 보리 · 조 · 콩 · 기장)을 볶아 먹으면 곡식에 좀이 슬지 않는다고 하여 '좀날'이라 할 정도로 좀이나 쥐와 같은 해충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크다. 그리고 곡식날 곡식을 내다 팔면 집안의 복이 함께 나가고 흉년이 든다고 하여 이를 금기시하였다.

오곡 가운데 특히 콩을 볶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볶은 콩을 먹으면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콩을 볶으면서 "콩 볶자.", "쥐 볶자.", "새삼 볶자.", "새알 볶아라.", "콩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는 등의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여 외친다. 이는 해충이나 잡초들로부터의 피해를 막으려는 일종의 예방의식이다.

또한 수수깡으로 보리나 나락 모양을 만들어 거름에 묻어두고 아이들이 거름을 흩어버리게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때 곡식 모양이 쓰러지지 않으면 그것을 태워서 남은 재를 도토리 껍질로 계량하여 재가 많으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국수가 섞인 수제비를 끓여 먹기도 하는데 국수는 줄기를, 수제비는 열매를 상징하여 이들이 빨리 익으면 농사도 빨리 된다고 믿었다.

지역사례 곡식날의 풍습은 경상 · 전라 지방에서 비교적 잘 전해지고 있다. 콩을 볶아 먹는 풍습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경남 거창에서는 밭에서 불을 피우고 콩을 볶는데 그래야 잡초가 덜 난다고 한다. 김해에서는 콩을 심을 밭에서 "새삼 볶자, 새삼 볶자." 하면서 콩을 볶아 밭에다 뿌리는데 그렇게 하면 새삼이라는 잡초가 나지 않아 콩 농사가 잘된다고 믿었다. 새삼은 한해살이 잡초로 잎은 볼 수 없고 덩굴로 자라는데, 콩과 같은 기주식물(寄主植物)을 휘감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콩밭에 새삼이 나면 농사를 망친다. 그런데 충북 옥천에서는 새삼이 아니고 "해삼 볶자."고 하는데 여기서는 해삼이 벼가 누렇게 말라 죽는 병이라고 한다. 또한 콩을 볶으면서 하는 소리도 "콩 볶자.", "쥐 볶자.", "해삼 볶자.", "왜놈 볶자."하여 쥐와 병, 그리고 일인(日人)들을 방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곡식날이 정월 초여드렛날로 정해진 곳은 경상 · 전라 지방의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곡식날이 따

로 없다. 춘천 · 영월 · 정선 · 평창 · 평택 · 제천 · 충주 · 옥천 · 아산 · 기장에서는 정월 첫 쥐날에, 단양에서는 용날[辰日], 그리고 고양에서는 14일에, 영동에서는 정초 아무 날이나 하루를 정해 오곡이나 콩을 볶아 먹는다. 쥐날에 곡식날 의례가 많은 것은 쥐가 곡식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양에서는 콩 볶는 일을 '좀볶기'라 하고 용날에 좀볶기를 해야 곡식에 좀이 슬지 않는다고 한다.

경상도 일부 지방에서는 곡식날에 금줄을 치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8일이 패일(敗日)과 중국어 음이 같기 때문에 잘못 전해진 풍속으로 곡식날과는 관계가 없다.

의의 곡식날은 사람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곡식과 곡식을 생산하는 업인 농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을에 갈무리해 둔 씨앗을 잘 살펴 한해 농사를 정초부터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비롯된 세시풍속이다. 곡식날의 대표적인 행사라 할 수 있는 콩볶기는 일종의 예방의례적 성격이 있지만 겨울철에 부족한 영양소를 콩에서 섭취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유풍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韓國의 鄕村民俗誌 Ⅰ -慶尙北道 篇-(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2), 한국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박호석(朴虎錫)

곡일(穀日)

⇨ 곡식날(穀食—)

패일(敗日)

정의 매월 초파일[初八日]. 모든 일을 조심하고 근신하는 날이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월내조(月內條)에서는 8일을 패일로 잘못 칭한 것이라 하면서, 이는 팔(八)과 패(敗)의 음이 같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 기록의 본래 의미는 8일이 패일은 아니었으나 중국에서 음이 같은 데서 오는 착오에서 패일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날 남자들은 외출하지 않고 풍속적으로 기일(忌日)로 여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려 풍속에 매월 8일에는 부녀자들이 성 안팎으로 돌아다니므로 남자들이 집에 있으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 풍속이 잘못 전해져 지금 풍속에는 외출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날로 여기게 된 것이라 하여 그 연원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패일을 지키는 풍습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진양(晋陽)에서는 패일을 닷새라고만 하고 사천(泗川)에서는 초닷새와 열나흗날이라고 하여 『동국세시기』의 8일과는 다르다.

한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英祖) 32년 윤9월 11일 병오(丙午)에는 "창방일(唱榜日)을 정하여 추택(推擇)할 때 14일 · 15일 · 16일이 모두 길하나 14일은 패일(敗日)이라 거리낀다(唱榜日子進定事有敎矣 令日官推擇 則十四日十五日十六日皆吉而十四日敗日拘忌)."고 하였다.

패일 중에서도 정월의 패일을 가장 유념하였다. 이날은 모든 일을 꺼려하는 유습(遺習)이 전하는데 특히 외출을 금하고 머리를 빗으면 가산(家産)이 망한다 하여 금기시하였다. 심지어 집안 내에서조차 모든 일을 조심하는 기일로 여길 만큼 패일은 근신하는 날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承政院日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필자 | 김삼기(金三基)

춘일(春日)

정의 음력 정월 13일로 '봄날' 또는 '농사날'이라고 함.

내용 춘일과 함께 14일 · 15일 · 16일을 사계절에 빗대어 각각 하일(夏日) · 추일(秋日) · 동일(冬日)이라고 한다. 14일은 여름날 또는 누더름날이라고도 한다. 춘일이 되면 농가에서는 부녀들이 생쌀을 깨물어 가루를 내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묽게 하여 손가락으로 벽에다 누에를 그린다. 누에를 그리면 그 해의 누에고치가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또 이 날 아침에는 여자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나 엄나무와 같이 가시 돋친 나무를 꺾어다가 지붕이나 담장에 꽂고 그 나무 가시에 목화송이나 솜을 걸어 놓는다. 이것은 지붕이나 담장 위에 마치 목화가 만발했음을 상

징하는 것이다. 이는 목화의 풍작을 비는 마음에서 비롯하였다.

춘일 아침에는 세 집의 우물물을 떠다가 오곡밥을 지으면 좋다고 해서 세 집 우물물로 오곡밥을 지어 차례를 지냈다. 또 남의 집 우물에서 주인보다 먼저 물을 떠다가 오곡밥을 지으면 그 해 농사가 잘 된다고 했다.

지역사례 경남에서는 춘일에 키가 작은 사람이 먼저 찾아오면 그 해 곡식이 왜소해진다고 해서 꺼렸다. 또 춘일 아침에 여자들이 일찍 남의 집에 가면 "보쟁기 다친다."고 해서 꺼렸다. 그래서 남자가 들어간 후에 들어갔다. 그리고 춘일에는 방아를 찧지 않았으며, 밭에 풀이 나지 말라고 아침에 흰죽을 먹기도 하였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와 인근 동막리·덕산리 등지에서는 마을의 액살을 방지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살(煞)대'를 세우는데, 이것을 음력 2월 15일 영등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 날 내린다. '살대'란 살을 막는 장대란 뜻으로, '마을의 재앙을 없게 세워두는 신(神)대'이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한 해에 살대를 세 개까지 세운 경우도 있으며, 예전에는 15미터까지 높게 세웠으나 요즈음은 나무에 새끼줄을 감아 10미터에서 13미터 정도로 세운다. 살대는 보통 소나무와 대나무로 만든다. 나무에 매다는 장식물로는 나무로 만든 기러기·농기구·활 등이 있다. 살대를 세우고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때 만두국이나 살대국수를 먹는다.

참고문헌 | 韓國 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咸鏡道篇-(文化財管理局, 1981),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民俗誌(江原道, 1989).

필자 | 김의숙(金義淑)

봄날

☞ 춘일(春日)

부인날[婦人日]

정의 평안남도 용강 지역에서 정월 열나흗날을 일컫는 이름. 정월 열나흗날 부인(婦人)들이 남의 집을 방문하면 방문한 집의 조(粟) 농사가 풍년 든다고 믿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혼인을 한 여성을 말하지만 넓게는 여성 모두를 포함하기도 한다.

내용 용강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에 남자는 일제 외출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 만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반면에 여자는 외출하여 타인의 집을 방문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권장하는 풍속이 전해지고 있다. 이 날 여자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음식을 대접하면서 환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풍속은 이 날 남자가 남의 집을 방문하면 그 집의 조 농사가 흉년이 들고 여자가 남의 집을 방문하면 조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용강 지역은 논농사보다는 주로 전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속한다. 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쌀이 주식이고 조는 잡곡이지만 예로부터 이 곳에서는 조가 주식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조 농사는 논농사를 짓는 지역의 쌀 농사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부인날의 세시풍속은 음력 설날과 정월 7일의 사람날[人日], 정월 첫 번째 토끼날[卯日]에 여성의 출입을 금기시하고 남성의 출입을 권장하는 풍속과 대비된다. 설날인 정월 초하루에 여성이 남의 집을 방문하면 부정 탄다고 하여 출입을 금기시하는 풍속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전승되어 왔다. 또 영남지역의 정초 세시풍속에서 사람날에는 남의 집 출입, 특히 남의 집에서 자고 와서는 안 되며, 여성이 남의 집을 출입하면 재수 없다고 하여 특히 금지하고 있다. 토끼날 또한 남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재수 있고 여자가 들어오면 재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풍속이 있다. 정초의 세시풍속에서 부인날과 같이 여성이 부각되는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하는 여성을 '음(陰)·땅·밭' 등 생산 및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모방 주술적 민속 관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남성이 부각되는 경우는 남존여비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월 세시풍속은 새해 농사와 어업의 풍요를 미리 축원하는 주술적이며 점세적인 행사가 대부분인데, 부인날의 세시풍속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인날 세시풍속은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 농사의 풍작을 위하여, 정초에 생산과 풍요의 상징인 부인을 대상으로 새해의 조 농사를 미리 축원하여 풍년을 맞이하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考(宋錫夏, 日新社, 1960),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이영진(李榮鎭)

작은보름

정의 및 명칭 정월 열나흗날인 14일을 일컫는 말. 소망일(小望日)이라고도 한다. 정월 15일을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14일은 소보름 · 작은보름 · 까치보름이라고도 한다. 또 누더름날이라고도 하는데, 누더름이란 늦여름이라는 뜻이다. 정월 보름을 전후한 날을 흔히 사계절에 비유하여 생각해 왔는데, 정월 13일은 춘절(春節), 14일은 하절(夏節), 15일은 추절(秋節), 16일은 동절(冬節)로 생각하여 14일을 여름과 관련지어 누더름날(늦여름날)이라 불렀다.

내용 정월 열나흗날은 사실상 대보름과 같이 여겨 이 날에는 많은 풍속이 행해지는데, 이 중에는 계절과 관련된 금기들이 많다. 또 작은보름에는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다른 성(姓)의 세 집 밥을 먹어야 좋다고 하여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지만, 식수(食水)만은 남에게 주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물을 먹지도 않는데, 특히 찬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만일 남에게 물을 줄 경우에는 여름에 김매는 날이나 장마 때 폭우가 내려 논둑이 무너지고 전답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사와 물이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풍습이다.

지역사례 경기도 구리에서는 이 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하여 전날 밤부터 잠을 자지 않기도 한다. 이 날 아침에는 키가 작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키가 큰 사람이 먼저 들어와야 그 해 농사가 잘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른 아침에 귀가 밝아진다고 하여 귀밝이술을 먹기도 하고, 치아가 튼튼해진다고 하여 부럼을 깨기도 한다. 이 날은 바늘을 만지면 생손을 앓고, 바[繩]를 보면 뱀한테 물린다고 하여 여자는 바느질 기구를 보지 않고 남자는 농기구를 보지 않는다. 또 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날이 어둡기 전부터 보름날 아침 밝을 때까지 방 · 부엌 · 외양간 등 집안 곳곳에 불을 켜 놓는다.

그리고 쥐불놀이나 달맞이, 과일나무시집보내기 등을 행하기도 하며, 황해도와 평안도에서는 달불이 · 호불이와 같은 풍속을 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들이다. 또 이 날에는 김치를 먹지 않으며 특히 동치미 국물을 먹지 않는 곳도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열나흗날 밤에 잣불을 켜는데 바늘에 잣을 꿰어서 불을 붙여 타는 모양을 보고 일년 동안의 신수를 점치기도 한다. 또한 머슴은 초하룻날부터 보름날까지 잘 먹고 일을 하지 않고 노는데, 열나흗날은 명절의 끝이라서 머슴을 대접하는 날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黃海平安南北 篇(文化財管理局, 1980),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속대사전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필자 | 최명림(崔明林)

누더름날

⇨ 작은보름

하일(夏日)

⇨ 춘일(春日)

대보름

정의 정월 대보름을 특별히 일컫는 말.

이칭 정월 대보름은 한국 세시풍속에서 비중이 크고 뜻이 깊은 날이기 때문에 '대보름'이라고 특별히 일컫는다. 매우 드물지만 정월 14일을 작은보름, 15일을 큰보름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이 날을 상원(上元)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중원(中元, 7월 15일), 하원(下元, 10월 15일)과 연관해서 부르는 한자어이다. 또 이 날을 오기일(烏忌日) 또는 달도(怛忉)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래 보름의 유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紀異)」 사금갑조(射琴匣條)에 나타나 있다.

까마귀가 소지왕을 인도하여 위급을 면하게 했고, 그 후로 매년 첫 번째 돼지 · 쥐 · 말날에는 백사를 삼가고 감히 동작을 아니하며, 15일을 오기일이

라 하여 찰밥으로 제사지내니 지금에도 행하고 있다. 속말로 이것을 달도라 하니 슬퍼하고 근심해서 백사를 금기하는 뜻이다. 즉, 오기일과 찰밥으로 까마귀를 제사지내는 관습이 일연(一然)이 살았던 고려 후기에도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찰밥의 유래가 거론되어 있다. 달도라는 말은 여기서는 오기일과 첫 번째 돼지날 · 쥐날 · 말날들의 속말로 백사를 삼가는 날로 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경주부조(慶州府條)에서 위 기록을 인용하고, 삼가는 날들을 여기서는 신일(愼日)이라 기록하고 속말로는 달도라 하니 삼간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상으로 보면 신일이나 달도는 하나의 특정일을 가리키는 낱말은 아니었다. 그것은 『지봉유설(芝峯類說)』의 "동방 옛 풍속에 세수와 정월 첫 번째 쥐날과 말날, 2월 1일을 신일이라 한다."는 기록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즉 이상을 종합하면 세수(歲首, 1월 1일) · 첫 번째 쥐날 · 말날 · 돼지날 · 대보름 · 2월 1일들이 다 신일이고 달도이다. 이 신일이나 달도라는 말들은 이 명절과 뜻있는 날들에 마음이 들떠서 좋아하지만 말고, 삼가고 조심성 있는 마음가짐을 일깨우던 뜻에서 나왔다 하겠다.

정월 대보름에 시행된 의례들을 통해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에는 상원 연등의 기록이 『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본기(新羅本紀)」에 보이고 있다. 연등은 고려 초부터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 의해 거국적인 행사로 성행되었다. 고려 초의 상원 연등은 6대 성종 이후 중단됐다가 2월 15일로 복설해서 고려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2월 15일만 고수된 것은 아니었다. 이 상원 연등은 조선 초에 초파일 연등과 같이 시행되었으나 태조 15년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가 초파일 연등은 관등놀이로 민간에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음에 조선시대 초기의 문헌기록으로 상원의 내농작(內農作)을 들 수 있다. 『세조실록(世祖實錄)』 9년에 보면 "세속에 매년 상원일에 농가에서 농잠의 모양들을 차리고 한 해 풍년의 징조로 여겼다."고 민간의 상원 가농작(假農作)의 풍속을 기록한 것이 보인다. 궁중에서도 농가의 가농작을 모방시키고 좌우편을 나누어 경쟁까지 시키니 그것이 민간 풍속에서 온 것임을 말하는 데서 민간의 상원 풍속 기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농작이 매우 정교해지다가 차차 도를 지나쳐서 폐단이 생기고 중신들 간에 중지 논의가 많다가 중종 말년 이후 궁중에서는 중지된 듯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지금도 전승되고 있으니 이른바 낟가릿대[禾竿] 풍속이 그것이다. 신라 오기일, 고려의 연등, 조선시대의 가농작 등은 우연히 기록에 남은 소수의 예일 뿐이고, 이들과 동반해서 대보름의 많은 풍속들이 전승되어 왔다. 그 후의 대보름 기록은 조선 후기의 세시기류들에 이르러서 매우 상세하게 나타난다.

의례 대보름의 대표적인 행사인 동제는 지금까지도 대보름날을 주로 해서 여신지모신앙(女神地母信仰)을 주류로 하는 고형(古型)의 전통을 지속시켜 왔다. 동제를 지내는 시간을 물으면 노인들은 흔히 자정(子正)이라 했고, 또는 보름달이 중천(中天)했을 때라고 했다. 이러한 대보름의 상징적인 장면은 분명하게 역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유구하게 지켜진 우리의 일관된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 달맞이, 달집태우기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와 같은 농본국(農本國)에서 농사가 발달하면서 차차 줄다리기 같은 점풍(占風)놀이들도 여기 따라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보름 풍속은 고대 기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격상 충분히 고대부터 있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정월 대보름에는 많은 의례들이 행해지고 있다. 보통 설에 개인적인 의례들이 행해진다면 대보름에는 마을 공동의 의례들이 행해진다. 마을공동제의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리 나타난다. 동제(洞祭)는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지연적인 화합을 다지는 민속의 중요한 핵심이다. 제당의 이름은 산제당 · 산신당(경기 · 충청) · 서낭당(강원) · 당산(전라 · 경상) · 본향당 · 포제단(제주도) 등의 지역적 차가 많으나 근원은 다 같은 것이다. 제명은 동제 · 당제들이 일반적이다. 동제에는 선출된 제관이 축문을 읽는 유교적 정숙형이 제일 많고, 여기에 몇 년 걸이로 무당굿이 따르는 것을 동해안 지역에서는 흔히 별신굿이라고 한다. 그러나 별신굿이라도 하회별신굿은 가면극의 비중이 크고, 은산별신제는 지역과 성격이 또 다르다. 동해안 노무들은 현재 별신굿이라는 것은 '어촌의 서낭굿' 이고, 풍어제이며 별신굿이란 시장이 경기부양책으로 난장굿과 난장판을 곁들이는 시장굿이 원래 별신굿이라고들 했







1 횡수막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2 기세배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소라실 마을 김영한

3 방생
경기도 양평군 양평나루터 국립민속박물관

다. 1930년대 총독부 조사도 '석전 · 기우 · 안택' 의 시장제 기록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상원조(上元條)에 "소경을 불러다가 보름날 전부터 안택경을 읽으며 밤을 세운다. 액을 막고 복을 비는 까닭이다." 고 했다. 근래는 소경 경장(經匠)이 없기 때문에 서울 · 경기 지방에서는 주부가 단골 무당집에 가기도 하고, 집으로 불러서 횡수(橫數)막이라는 간단한 굿을 하기도 한다.

정초부터 대보름 전후에 동네 농악대가 집집을 돌며 즐겁게 놀고 축원해 주는 것을 지신밟기(전국) · 매구[埋鬼, 호남] · 걸립(乞粒, 중부)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왔다. 그러나 평안도 · 함경도 등 북쪽에는 농악대들이 없었으니 지신밟기도 없었다.

주로 대보름에 마을의 상징인 농기(農旗)와 농악대들이 모여서 그 서열에 따라 인사를 하는 의식이 기세배이다. 전북에서 많이 전승되는데 이 때 각 마을의 농악대들이 서로 연주를 뽐내는 농악 경연도 벌어진다. 서열이 불분명해서 서로 먼저 인사하라고 실랑이가 벌어져서 기싸움이 되는 수도 있다. 기싸움은 상대 농기 위의 꿩깃을 빼앗으면 이기는 곳(전북 김제)도 있고, 서로 부딪쳐서 먼저 부러뜨리면 이기는 곳(전북 남원 · 경남 영산)도 있다.

지금도 14일 밤에 부인들이 붕어나 자라를 사서 강에 놓아 주고 소지(燒紙) 축원을 올리는 일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것을 방생(放生)이라고 한다. 3월 삼짇날, 8월 보름에도 한다. 또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는 "깨끗한 종이에 흰 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슴[魚鳧施]이라 한다." 고 했다. 글자 뜻으로는 물고기나 오리에게 베푼다는 것인데, 대보름에 액막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동국세시기』 정월 상자일조(上子日條)에 "충청도 풍속에 떼를 지어 횃불을 사르는데 이를 쥐불이라 한다." 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정월 대보름 또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 논두렁의 잡초와 병충을 없애고, 재가 거름도 되고, 논두렁이 여물어지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전남 어촌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에 풍어를 비는 깃발을 배에 단다. 이것을 "봉기(奉旗)단다." 고 한다. 봉기는 대여섯 발 길이로 각 색 물감을 들였고 장대나 또는 돛대 위에 달기도 한다. 이런 깃발은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만선 때에도 단다고 하니 만선기를 다는 셈이다.

속신 설에는 주로 개인적인 의례로 개인의 건강이나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속신들이 행해지는 게 대부분이라면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 공동의 기원인 풍년을 기원하는 속신 형태가 많다.

『동국세시기』에 "농가에서 대보름 전날 짚을 묶어서 기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벼 · 기장 · 피 · 조

의 이삭을 넣어서 싸고 목화도 같이 장대 끝에 매단다. 그것을 집 곁에 세우고 고정시킨 것을 볏가리[禾積]라 하는데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다." 내농작은 이것을 궐내에서 모방했던 것이다. 지금도 각 지방에 적지 않게 전승되고 있다.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에 감 · 대추 · 배 등 과수의 가지 친 사이에 돌을 끼워 두면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한다. 『동국세시기』의 상원조와 단오조에도 이 기록이 보인다. 지금도 각 지방에 전승한다. 중국과 일본에도 유사한 풍속이 있다.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잘 사는 집 대문 안의 흙을 훔쳐다가 자기집 부뚜막에 바르는데, 이것을 '복토훔치기'라 한다. 또 보름 전날 밤 닭 울기를 기다려서 앞을 다투어 정화수를 길어 온다. 이것을 '용알뜨기'라 한다. 맨 먼저 긷는 사람이 그 해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 이상은 『동국세시기』의 기록이다. 이것은 물-달-여성-대지의 풍요 원리 연결의 상징이다. 지금도 전승자료가 보인다.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다리[橋]를 밟으면 다리[脚]가 튼튼해진다고 해서 경향 각지에서 성행한다고 옛 세시기들이 다 기록하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그 성행처이던 수표교 · 광통교들이 없어지고 지방 자료가 가끔 눈에 띈다.

정월 열나흗날과 대보름에는 모든 행동을 아홉 차례씩 한다는 관습이 많다. 나무 아홉 짐, 새끼 아홉 발을 꼬면 큰 부자가 된다고 한다. 부인은 빨래 아홉 가지, 학생은 글 아홉 번, 글씨 아홉 줄을 쓰라는 것은 모두 부지런하라는 뜻이다.

정월 대보름 내에는 가능한 한 곡식을 밖에 내지 않는다. 복(福)을 더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쌀 반출을 금한다. 돈이 필요해도 대보름 전에는 내다 파는 일은 삼간다.

정월 대보름에는 기풍과 관련된 점복이 많이 행해진다.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 해에 풍년이 들 것인지를 미리 점쳐보게 되는 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보름날 초저녁에 높은 곳에 올라서 달맞이를 하고 점을 친다. 달빛이 붉으면 가물 징조이고, 희면 장마가 질 징조이다. 달의 사방이 짙으면 풍년이고, 옅으면 흉년이 들 징조이다. 또 보름달에게 소원을 빌기도 한다. 농군은 농사가 잘 되기를, 총각은 장가 가기를, 부인들은 아들 낳기를 기원한다.

달과 관련된 풍속으로 청소년들이 짚이나 솔잎, 나무들을 모아서 언덕 위에 쌓고 조그만 오두막이나 큰 다락 등의 달집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는 달이 뜨기를 기다려서 불을 지르고 환성을 지른다. 달집 속에 대나무들을 넣어서 터지는 폭음으로 마을의 악귀를 쫓기도 한다. 달집이 탈 때 고루 잘 타오르면 풍년이고, 다 타고 넘어질 때 그 방향과 모습으로 흉풍을 점치기도 한다.

대보름날 밤 사발에 재와 그 위에 여러 가지 곡식의 씨를 놓고 그 사발을 지붕 위에 올려놓는다. 다음날 아침 날아간 곡식은 흉작, 남은 곡식은 풍작이 된다고 점을 친다. 콩을 통해 농사의 풍흉을 점쳐 보기도 한다. 대보름 전날 저녁에 콩 열두 알의 표시를 하여 수수깡 속에 넣고 묶어서 우물에 넣었다가 대보름날 아침에 그 콩알들이 붇고 안 붇는 것으로 그 달의 수해 · 한해 · 흉풍 · 길흉을 점친다. 이것을 '달불이'라 한다. 또 동네 안의 호수대로 호주의 표시를 한 콩으로 위와 같이 각 가정의 점을 치는 것을 '집불이' 혹은 '호불이'라 한다.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전승되고 있다.

또 소에게 음식을 주고 그것을 통해 점을 치기도 한다. 대보름 전날 밤에는 하루 세 끼 먹는 소에게 한 번 더 준다. 오곡밥도 쇠죽에 섞어서 주고 소가 쌀을 먼저 먹으면 쌀 풍년, 콩을 먼저 먹으면 목화 풍년 등으로 점을 친다. 또 대보름날에는 외양간 앞에 상을 차리고 일년 내내 소가 일 잘 하기를 기원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 닭이 우는 횟수를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한다. 대보름날 새벽에 첫닭 우는 횟수를 센다. 횟수가 적으면 흉년, 열 번 이상을 울면 풍년이 된다고 한다. 정초의 토정비결 등은 개인 운수점이 주가 되고 대보름에는 농



소밥주기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운곡마을
남윤중

사점이 주가 되는데 농사점은 이 밖에도 다양하다.

이 밖에도 개인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이 행해졌다. 즉 액을 막아내기 위한 액막이의 형태가 그것이다. 제웅치기의 풍속은 액막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이에 따라 그 운명을 맡는 9종의 별이 각기 9년 만에 드는데 남자는 10세, 여자는 11세부터 흉한 제웅직성이 먼저 든다. 이 해에는 화나 병이 생길 수 있어 그 액풀이로 '제웅치기'를 한다. 짚인형을 만들어 속에 돈이나 쌀을 넣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는다. 이 제웅을 대보름 전날 초저녁에 길에 버리면 주워가는 사람에게 액이 옮아간다는 것이다. 제웅을 한자로 '처용(處容)'이라고 적고 있다.

'액막이연'이라 하여 정초부터 날리던 연을 대보름날에는 날려 보낸다. 이 때 연에 '송액(送厄)' 또는 '송액영복(送厄迎福)' 등의 글귀를 써서 하늘 높이 띄우고, 연줄을 끊는다. 연은 한없이 날아가 버리고, 그 연의 주인이 지닌 액은 다 사라진다고 한다.

대보름날 아침에 더위팔기를 한다. 이 날 아침에 사람을 보면 급히 이름을 부른다. 대답하면 곧 "내 더위 사가라." 한다. 이것을 '더위팔기'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해에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대보름날에는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이를 '개 보름쇠기'라고 하는데 이 날 개에게 밥을 주면 여름에 파리가 끼고 마르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속담에 굶는 것을 "개 보름쇠듯 한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지금도 많이 사용한다.

'월천공덕(越川功德)'이라 하여 그 해 운수가 나쁜 사람은 짚으로 섬이나 작은 오쟁이를 만들고, 안에 돌이나 흙을 넣되 더러는 돈을 넣기도 한다. 이것을 열나흗날 저녁에 남모르게 개천에 디딤돌로 놓는데, 이 일을 다리[橋] 공들인다고 한다. 다음날 아이들이 오쟁이를 발견하면 돈을 가져가기도 한다.

구충(驅蟲)을 위한 풍속도 많이 행해진다. 대보름날 새벽에 마당에 짚불을 놓으며 이것을 '모깃불'이라 한다. 목적은 시골 여름철의 모기 성화를 미리 쫓는다는 것인데, 여기에 참대나 아주까릿대를 넣어서 마디가 튀는 소리로 잡귀를 쫓는다는 경우도 있다.

절식 정월 대보름의 시절음식은 시절음식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속신적인 부분과 많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귀밝이술[耳明酒]은 대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고 찬 귀밝이술을 한 잔 마시는데 이에는 귀가 밝아진다는 의미 외에 일년 내내 좋은 소식만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부럼깨기 풍속도 마찬가지이다. 『동국세시기』에 "상원 이른 아침에 날밤·호두·은행·무 등을 깨물면서 일년 열두 달 무사태평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수하니 이것을 이굳히기[固齒之方]라고 한다."고 했다. 이굳히기는 중국·일본에서도 널리 전해 왔으며 설날에 행해지고 있다. 부럼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성행된다.

정월 대보름날을 전후해서 찰밥과 약밥을 먹는 풍속이 있다. 찹쌀을 쪄서 대추·밤·기름·꿀·간장을 섞어서 함께 찌고 잣을 박은 것을 약밥[藥飯]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보름의 좋은 음식이고, 이것으로 제사를 지낸다. 찰밥[糯飯]에 더 공을 들인 것이 약밥이 되는데 전남에서는 찰밥이나 약밥은 시루에 쪄서 성주께 올리기 때문에 성주밥 또는 시리(시루)밥이라고도 한다.

전남에서는 지금도 상원에 보리밥을 나물들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볏짚가리나 담 위에 얹어 까마귀를 대접한다. 까마귀가 와서 먹는 일은 보기 어렵고


1


2

1 제웅만들기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국립민속박물관

2 귀밝이술
전남 장흥군 안양면 남율중

1 묵은나물과 오곡밥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2 줄다리기
전북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황현만





옛 관습대로 농사를 위해서 까마귀밥을 차린다고 한다. 전북에서도 약밥을 까마귀나 까치가 먹으라고 밖에 내놓는 것을 까마귀제사지낸다고 한다. 충북에서도 같은 보고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조상 제사 때에 으레 까마귀가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정식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 모셔지지 못한 제사를 "까마귀 모른식개(제사)"라고 하는 속담도 있다. 까마귀는 후대에는 불길한 새가 되었지만, 상대(商代)에는 태양의 상징이기도 한 영조(靈鳥)였다. 『삼국유사』 이래의 오기일의 까마귀제사, 까마귀밥들은 그러한 상대의 까마귀 모습의 한 잔영이다.

『동국세시기』 상원조에는 "오곡으로 잡곡밥을 지어 먹는다. 또 이것을 나누어 준다. 영남 지방의 풍속도 그런데, 종일 이 밥을 먹는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오곡밥을 열나흗날 저녁에 일찍 먹는다. 전남에서도 열나흗날 저녁에 오곡밥이라고 해서 농사지은 곡식을 모두 섞어서 밥을 짓는다고 한다. 14일 저녁을 일찍 많이 먹고 15일 아침도 일찍 먹는데, 이것은 일년 내내 부지런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정월 열나흗날에는 세성받이집의 밥을 먹어야 운수가 좋다고 한다. 이를 '세성받이밥' 이라 한다. 그래서 저녁을 늦게 지으면 먹을 사람을 이웃에 뺏기기 때문에 일찍 지어서 오후 2시도 되기 전에 저녁 초청을 하는 수도 있다. 결국 열나흗날의 오곡밥은 서로 이웃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먹기도 한다. 한편 『동국세시기』는 "어린이가 봄을 타서 야위면 대보름날 백 집의 밥을 빌어다가 절구를 타고 개와 마주 앉아서 개에게 한 숟갈 먹이고 자기도 먹으면 다시는 그런 병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를 '백가반(百家飯)' 이라 한다. 전남에서는 이것을 조리밥, 또는 세성받이밥이라고 해서 열나흗날 저녁, 대보름날 아침에 아이들이 체나 조리로 보름밥을 얻으러 다닌다. 경남에도 같은 풍속이 있다. 특히 더위를 안 먹고, 몸에 좋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묵은나물과 복쌈을 먹는 풍속이 있다. 호박고지 · 무고지 · 가지나물 · 버섯 · 고사리 등을 여름에 말려 두었다가 대보름날, 또는 정월 열나흗날에 나물로 무쳐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또 김이나 취로 밥을 싸서 먹는 것을 '복쌈' 이라고 한다. 이들은 다 오곡밥의 반찬으로 풍성하게 담아 먹는 것이다.

또 경남에서는 대보름날 조반의 반찬으로 반드시 청어를 구워 먹는 풍속이 있다. 이 날 구운 청어를 먹지 않으면 "비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살이 오르지 않고 마른다는 뜻이다. 또 이 날 조반에 생두부를 먹으면 그 해 살이 찐다고 일부러 이것을 먹는 사례도 있다.(1972년 보고) 두 사례가 다 오늘날 도시와는 반대로 살이 찌기를 바라는 풍속이다. 이 외에도 평남 순천에서는 대보름날 국수발같이 명이 길어지라는 뜻에서 명길이 국수를 먹는다고 한다.

놀이 정월 대보름에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놀이들이 행해진다. 이 때의 놀이들은 단순히 유희와 오락의 의미만이 아니라 승패를 가르는 놀이로 농사의 풍흉을 예견하기도 한다.

줄다리기는 편싸움 대표 종목의 하나이고, 역시 대개 대보름 밤에 거행된다. 줄다리기의 종류에는 아이들 골목 줄다리기에서 어른 줄다리기, 마을 줄다리기에 대해서 고을 줄다리기라 할 것들도 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진행 과정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 다양해진다.

고싸움놀이는 줄다리기의 한 전초전으로서 최근까지 전남의 장흥 · 강진 · 영암 등에서 대보름 줄다

리기에 앞서서 행해졌다. 이것은 보통 줄다리기의 줄 머리부분의 둥근 고를 맞대어 상대방을 깔고 누르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두 고를 연결해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에서는 고싸움놀이가 독립해서 하나의 놀이로 발전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의 '보름줄다리기'는 줄의 첫 멜대와 둘째 멜대 위에 5~6층의 대나무 난간을 만들어서 수십 개의 청사초롱으로 불을 밝히고 지방의 유지와 기생이 줄 위에 타고 행진하는 호화로움이 있다. 먼저 고싸움을 하고 나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전남 지역의 한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무쇠싸움은 '쇠머리대기'라고도 한다. 경남 창녕군 영산면 한 곳에만 있는 대형 민속놀이로 본래 대보름 행사였으나 지금은 3·1절에 거행되고 있다.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나무쇠의 길이는 495센티미터, 높이는 385센티미터였다. 동서부의 두 나무쇠가 부딪칠 때에 상대방을 밀고 누르면 이기는 단순하나 격렬한 승부법은 고싸움이나 차전놀이와 유사하다.

차전놀이는 '동채싸움'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경북 안동에만 전승하는 대보름의 대형 민속놀이이다. 수백 명 장정의 머리꾼들이 팔짱을 끼고 어깨로 밀고 나가는 뒤로 동채꾼들이 메는 동채 위에 탄 대장의 지휘로 전진 후퇴를 하다가 적의 동채를 눌러서 땅에 대면 이기는 승부이다.

석전(石戰)은 두 편으로 갈라서 돌을 던져서 싸우고, 이기는 편에 풍년이 온다고 했던 대보름의 편싸움놀이다. 한·중·일에 다 있었고, 한국은 고구려에서부터 역사 기록도 많았으며, 전국적으로 성행하다가 1930년대에 소멸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횃불싸움은 대보름날 밤 횃불을 들고 놀다가 고함을 지르며 이웃 동네에 시비를 걸면서 치고 때리고 옷도 태우는 싸움이 된다. 승부는 횃불을 뺏기거나 꺼지거나 후퇴하는 편이 지게 된다.

놋다리밟기는 절정을 이루던 부인들의 놀이이다. 허리를 구부리고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지은 열 위를 성장한 공주가 양쪽 시녀의 부축을 받아 노래에 맞춰서 걸어간다. 때로는 이런 패가 몇 개씩 어울리기도 하고, 곳에 따라서는 기마전 같은 격렬한 싸움도 있었다. 놋다리밟기는 경북 안동뿐만 아니라 전북에도 있었다.

대보름 전후의 농촌 놀이에 사자춤이 있다. 함경도 북청에서는 동네마다 사자춤이 있어서 유명하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동네의 잡귀를 쫓고 안과태평을 빌었다. 사자춤은 중국·일본에도 많고, 사자는 부처님 사자(使者)로 여겨지며, 봉산탈춤 등에도 나오고 있다. 북청군 토성리에서는 대보름의 액막이로 사자놀음과 함께 관원놀음도 했다. 조선시대 각급 관원들 수십 명의 가장 행렬과 악대가 호화로웠다. 경북의 여러 고을에서도 서당의 청소년들을 원님이나 육방관속으로 분장시켜서 이루어지는 모의재판이나 가장행렬을 정월이나 여름철 한가한 때에 거행하였다.

경상도 일대 부산진·동래·수영 등에서는 들놀음이라 하고 통영·고성 등에서는 오광대라 부른다. 이들 가면극의 연희 시기도 처음에는 정월 14일이나 15일 밤이었다. 통영처럼 제야에 탈놀이와 매구를 쳤고, 대보름까지는 민가를 돌며 매구를 치고 중광대가 나와서 잡귀를 쫓았으나, 후에는 3·4월의 봄놀이, 9월의 단풍놀이에 오락적 연희가 되었다.

금기 대보름 금기는 농경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건, 즉 무병이나 풍농 등을 보장받기 위해 행하는 상징적 형태의 행위이다. 가령 경북 고령에서는 김치를 먹지 않는다. 김치의 산성이 입안을 '탁탁' 쏘는 것처럼 김치를 먹으면 벌이 '탁탁' 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충북 청원에서는 키 작은 사람이나 아이들의 출입을 삼간다. 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 큰 사람을 초대하여 융숭하게 대접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보름 금기는 닮은 것은 닮은 것을 낳는다든지, 결과는 그 원인을 닮는다는 유감주술(類感呪術)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국에 걸쳐 전승되고 있는 대보름 금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먹는 것과 관련된 금기이다. 김치를 먹으면 살쐐기(여름철에 생기는 피부병의 한 가지로서 가렵고 따끔거림. 흔히 몸쐐기라고 함.)가 온 몸에 인다고 여긴다. 또 풀쐐기(불나방의 유충으로 누에와 비슷함. 온몸에 거친 털이 빽빽하며 몸빛은 검푸름.) 또는 벌에게 쏘인다고 여긴다. 그리고 발바닥에 가시가 배긴다고도 하고 논밭에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여기기도 한다. 또 "얼굴에 검버섯이 핀다.",

"손가락에 보풀이 생긴다.", "이(치아)가 상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백김치를 먹으면 "머리가 센다."고 하고 동치미를 먹으면 "못자리에 이끼가 낀다."고 여긴다. 따라서 김치뿐만 아니라 깍두기 내지 김치국도 일절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에도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다. 한편 살쾌기가 일 경우에, 측간에 있는 짚을 그슬려 깨와 함께 볶은 후 환부에 바르면 낫는다고 한다.

먹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찬물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있다. 대보름에 찬물을 마시면 여름내 더위를 먹고 놉(날품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얻어 일을 할 때마다 소나기가 오기 때문에 찬물을 마시지 않는다. 특히 찬물을 많이 마시면 논둑이 터진다고 여긴다. 또 타인이 와서 물을 마시면 모를 심을 때 비가 오지 않는다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숭늉을 마시면, 정신이 흐리멍덩해지며, 게으름을 피운다고 여긴다. 따라서 물 대신 챗국이나 맑은 콩나물국을 마신다. 그 밖에 물을 길어 오거나, 오수(汚水)를 버리면 논둑이 터진다고 여긴다.

또 "비린 것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있다. 생선과 같은 비린 것을 먹으면, 여름에 파리가 들끓고 몸에 부스럼이 생긴다고 여긴다. 이 외에도 "나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첫술에 나물을 먹든지 또는 나물을 많이 먹으면, 논밭에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여긴다.

둘째는 행위와 관련된 금기가 있다. 보름밥을 나물과 비벼 먹으면, 논밭에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여긴다. 또 보름에는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데 개에게 밥을 주면, 여름내 비실비실 잠만 잔다고 여기고 개 주위에 파리가 들끓는다고 여긴다. 만약 이 날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두레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김을 맬 때 밭고랑 넓은 것을 담당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다만 새댁의 경우에만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또 칼질을 하면, 논밭에 노래기(절지동물, 노래기강의 총칭)가 들끓고 논둑이 무너진다고 여기며 농우(農牛)가 등창을 앓는다고 여긴다. 또 한 해의 복도 잘라지고, 곡식도 잘라진다고 여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칼질을 하다 손을 베면, 일년 동안 낫지 않는다고 여긴다. 따라서 14일 밤에 미리 음식 재료를 손질해 두는 등 일체의 칼질을 삼가한다. 남의 집의 출입을 금하기도 한다. 이 때는 키가 작은 사람을 농작물과 연관시켜 생각하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먼저 출입하면 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여긴다. 따라서 키 작은 사람이나 아이들의 출입을 금한다. 더러 키 큰 사람을 초대하여 융숭하게 대접하기도 한다. 한편 여성이 먼저 출입하면, 가장이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닭이 부화를 많이 못 한다고 하고 논둑이 터진다고 여긴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도 남성이 먼저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돈 다음에야 여성들이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들은 오전이라도 가능한 한 외부의 출입을 삼간다.

대보름날 오전에는 마당을 쓸지 않는다. 오전에 마당을 쓸면 한 해 복이 나간다고 여긴다. 따라서 마당을 쓸지 않는다. 그래도 혹 쓸어야 할 경우에는, 해가 중천에 솟은 다음에 쓴다. 이 때에도 비질을 마당 안쪽으로 향해 하며, 쓰레기는 집밖으로 버리지 않는다. 또 빗질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머리를 빗으면, 콩밭에 새삼(쌍떡잎식물)이 무성하게 자라 밭농사를 망친다, 집안에 뱀이 들끓는다, 머리에 비듬과 이가 많이 생긴다, 집안에 곰팡이가 많이 생긴다, 집안의 복을 쓸어낸다고 여긴다. 그리고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한 해 재수가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빗질뿐만 아니라 아예 머리를 감지 않는다. 특히 비가 올 때 머리를 감으면 부모상을 당한다고 여겨 삼가 주의하였다.

그리고 빨래를 하지도 않는다. 빨래를 하면 나락이 말라 버린다고 여긴다. 빨래를 널면, 논에서 황새가 놀아 논농사를 망친다, 나락이 병충해로 인해 하얗게 변한다, 특히 옥수수 밭의 지질이 변한다고 여긴다.

이 날은 맨발로 걷지 않아야 하는데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이 튼다, 무좀이 생긴다, 그 해에 짐승에게 물린다, 농사철에 가시가 박힌다고 여긴다. 따라서 반드시 양말을 신고 다닌다. 잠을 잘 때에도 버선이나 양말을 신고 잔다. 또 생인손(손가락 끝에 염증이 생겨 곪거나, 손톱이 빠지기도 하는 증상)을 앓고 농사철에 가시가 박힌다고 하여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논밭의 둑이 무너지고 두더지가 밭을 헤친다고 절구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밭의 곡식을 노루가 망친다고 여겨 작두질을 하지도 않는다. 또 이불을 덮고 자면, 논에 물이끼가 두텁게 낀다고 여긴다.

과학이 부재하고, 또 의학이 보급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액을 대비할 만한 근본

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술적인 힘을 원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민간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기해 해마다 반복되는 재액이 다시는 도래하지 않기를 금기형 유감주술에 의지하여 염원하였다. 이러한 대보름 금기를 통해 농경사회에서 염원했던 기원의 일단 및 민중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대보름 금기에 민중들이 향유했던 속신(俗信) 및 생활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총체적인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학의 영역에서, 대보름 금기 항목이 차지하는 문화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미 정월 대보름은 달을 표준으로 삼던 원초의 태음력(太陰曆)에서 일년 열두 달 중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그래서 지금도 대보름날을 설날처럼 여기는 풍속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은 『동국세시기』 상원조에 "이 날 온 집안에 등잔불을 켜 놓고 밤을 새우고 마치 섣달 그믐날 수세(守歲)하는 예와 같다."고 적고 있다. 원래 달은 음(陰)으로 달-여성-대지 등을 상징함으로써 풍요기원의 원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월(滿月) 때에 여신에게 대지의 다산 또는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東國輿地勝覽, 洌陽歲時記, 三國遺事, 芝峯類說,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 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順天郡誌(順天郡誌編纂委員會, 平南順天郡民會, 1993), 釋奠 · 祈雨 · 安宅(調査資料第四十五輯, 朝鮮の鄕土神祀2, 朝鮮總督府, 1938).
필자 | 장주근(張籌根) - 대보름(금기 제외)

참고문헌 | 京都雜志, 高麗史,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洌陽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안상경(安相敬) - 금기

상원(上元)

정의 정월대보름의 이칭. 원소절(元宵節) · 원석절(元夕節) · 원야(元夜) · 원석(元夕) · 등절(燈節) · 제등절(提燈節)이라고도 부름.

유래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을 가리키며 이에 상대하여 7월 보름날을 중원(中元), 10월 보름날을 하원(下元)이라고도 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당(唐) 희종기(僖宗紀) 호삼성(胡三省)」 주(注)에 "도가(道家)의 책에는 정월 15일을 상원(上元)으로 하고, 7월 15일을 중원으로 하며, 10월 15일을 하원으로 여긴다(道書以正月十五日爲上元 七月十五日爲中元 十月十五日爲下元)."고 하였다.

상원의 원류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동한(東漢) 영평(永平) 연간 명제(明帝)가 불교를 제창하여 궁정 사원에 '괘등표불(掛燈表佛)' 토록 하고 사대부와 서민들도 이에 따라 등을 걸어 습속이 되었다 하였으며, 혹은 일설에 그보다 앞서 서한(西漢) 때 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당(唐) 서견(徐堅)의 『초학기(初學記)』에 "『사기(史記)』「악서(樂書)」에 한나라는 태일신(太一神)을 제사 지낸다. 저녁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는데 지금 정월 대보름밤에 관등놀이를 하는 것은 그 때의 유풍이다(史記樂書曰漢家祀太一 以昏時祠到明 今人正月望日 夜游觀燈 是其遺事)."고 하였다. 그러나 송(宋)나라 홍매(洪邁)의 『용재삼필(容齋三筆)』「상원장등(上元張燈)」편에는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사기』「악서」에서 말하기를 '한나라 때는 태일신을 제사 지낸다고 하고 이는 저녁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정월 망일(대보름) 밤에 관등놀이를 하는데 이는 그 때의 유풍이다.' 하였으나 지금의 『사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 당나라 위술(韋述)의 『양경신기(兩京新記)』에는 "정월 십오일 밤에 금오(金吾, 의금부)의 출입금지를 풀도록 하여 전후각 하루씩 등불을 구경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太平御覽載史記樂書曰 漢家祀太一 以昏時祠到明 今人正月望日 夜游觀燈 是其遺事 而今史記無此文 唐韋述兩京新記曰 正月十五日 夜勅金吾弛禁 前後各一日以看燈)."고 기술되어 있다. 『구당서(舊唐書)』「중종기(中宗紀)」에는 "경룡(景龍) 4년(709) 상원 밤에 임금이 황후와 미복(微服)으로 등불을 구경하였다(景龍四年 上元夜 帝與皇后微行觀燈)."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舊唐書, 容齋三筆, 資治通鑑, 初學記, 太平御覽, 中國民俗辭典(鄭傳寅 主編, 湖北辭書出版社, 1987), 中國風俗辭典(上海辭書出版社, 1990).
필자 | 임동석(林東錫)

소망(小望)

정의 음력 정월 열나흗날을 달리 이르는 말. 소망일(小望日)·소보름·작은 보름이라고도 한다.

내용 일부 지방에서는 열흘 전에 동제(洞祭)의 제주를 정하여 집안에서 근신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날 밤, 술과 과일, 떡 등 제수를 마련하여 동구의 성황당에 자시(子時)가 되면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비는 제(祭)를 올린다. 한편 각 가정에서는 뒤뜰의 신주(神主)에 간단히 음식을 차려놓고 집안의 안녕을 빌기도 한다. 그리고 열흘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짚으로 굵은 밧줄을 엮고 여기에 한지(韓紙)를 꽂은 다음, 이를 성황당 나무 혹은 골짜기 양 옆의 나무를 연결하여 길게 매어 다음날의 대보름을 준비하였다. 한편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의 장군목을 깎아 세우기도 한다. 그 밖에 깡통 등에 나무와 숯을 넣어 돌리는 망월놀이를 행하며, 논과 밭의 언덕을 태우는 쥐불놀이(쥐불놓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한국민속대사전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임동석(林東錫)

오기일(烏忌日)

정의 정월 대보름을 달리 부르는 말.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지내는 날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

유래 까마귀에게 제사지내는 날에 대하여 성현(成俔)의 칠어고시인 '향반(香飯)',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시부에 실린 '궁사(宮詞)', 『경도잡지(京都雜志)』·『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정월 보름이라 기술하였고, 『삼국유사(三國遺事)』·『동경잡기(東京雜記)』·『해동죽지(海東竹枝)』에서는 정월 열엿새라 기술하였다.

까마귀에게 제사지내는 풍속의 유래는 『삼국유사』 권1 「기이(紀異)」 사금갑조(射琴匣條)에 제21대 소지왕(炤知王) 10년(488) 왕이 천천정(天泉亭)에 거동하였는데, 그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다가 쥐가 사람의 말로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보라."고 했다. 왕이 명하여 기사(騎士)가 까마귀를 뒤쫓아서 남쪽으로 피촌(避村)에 이르니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었다. 그것을 구경하다가 까마귀를 놓치고 길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못에서 나와 글을 바쳤다. 겉봉에 "이를 떼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떼어 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적혀 있었다. 기사가 돌아와 글을 왕에게 올리니 왕이 "열어 보지 않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이에 일관(日官)이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 하고 아뢰므로 그 편지를 열어 보니 "금갑(琴匣)을 쏘라."고 적혀 있었다. 왕이 이상히 여겨 곧 궁중에 들어가 금갑을 쏘니 그 안에 내전(內殿)의 분수승(焚修僧)이 궁주(宮主)와 통정하며 간계를 꾸미고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을 복주(伏誅)하였다. 이로부터 나라의 풍속에 해마다 정월 상해일(上亥日)·상자일(上子日)·상오일(上午日)에는 온갖 일을 삼가고 감히 동작하지 아니하였으며 16일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으로 까마귀에게 제사지냈다고 하였다. 이 설화에 의하면 정월 16일에 찰밥을 만들어 까마귀에게 먹임으로써 역경에 처한 소지왕의 신세를 갚은 셈이 되고, 오기일의 풍속이 생겨난 것이다.

지역사례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에서는 3월 중에 까마귀가 새끼를 많이 치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보름날 차례를 지내고 조반을 먹은 다음 찰밥과 나물을 그릇에 담아 마당이나 지붕에 놓아둔다.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먹는데, 이때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를 살펴서 그 해 어느 것이 풍년들고 어느 것이 흉년드는가를 점친다. 최래옥의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에 의하면 까마귀와 관련된 속신어가 많다. 까마귀가 떼지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비가 온다, 까마귀가 떡을 감으면 바람이 분다, 까마귀 눈을 빼서 먹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 까마귀가 울고 지나가면 사람이 죽는다, 까마귀가 여러 마리 울면 술과 담배가 생긴다, 까마귀가 울면 근심 걱정이 생긴다 등이 있다.

충북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까마귀 먹으라고 찰밥을 밖으로 던진다.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오후 그 해 집안의 액막이를 위해 까마귀밥을 주는데, 산에 가서 약밥을 뿌린다.

인접국가사례 만주족은 앞뜰에 벚나무로 소륜간자

(素倫杆子)라는 신대[神杆]를 만들어 세우고 그 상부에 수수를 담은 되를 매달아 놓는 풍속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청나라 태조가 싸움에 패하여 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를 도와주었으므로 신대의 수수는 까마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넣어 두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동북아시아에서는 까마귀에 대한 제의가 베풀어졌다.

의의 고대인은 까마귀를 태양·신의 사자·신의(神意) 전달자·신의 승물(乘物) 등의 상징적 신조(神鳥)로 사유하였기 때문에 '사금갑'의 설화가 형성되었고, 여기에 다시 농경사회에서 기풍 의식으로 약밥을 해 먹는 풍속이 덧붙여져 오기일이 형성된 것이라 여겨진다. 현재는 까마귀를 위한 찰밥 제의는 없어졌지만 한국 고유의 약밥이 절식으로 전승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陶厓詩集, 東京雜記, 東國歲時記, 東文選, 三國遺事, 惺所覆瓿藁, 海東竹枝, 朝鮮民俗誌(秋葉隆著·沈雨晟 譯, 東文選, 1993),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韓國文化상징사전1, 2(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1995).
필자 | 김승찬(金承璨)

정월대보름

☞ 대보름

추일(秋日)

☞ 춘일(春日)

걸궁(乞窮)

☞ 지신밟기(地神—)

걸립(乞粒)

☞ 지신밟기(地神—)

고사반(告祀盤)

☞ 지신밟기(地神—)

고사풀이(告祀—)

☞ 지신밟기(地神—)

낟가릿대세우기

☞ 볏가릿대세우기

내농작(內農作)

정의 정월 대보름날 궁궐에서 볏짚으로 곡식 이삭을 만들어 나무 위에 걸어 놓고 풍년을 기원하는 풍속. 가농작(假農作)이라고도 한다.

유래 본래는 『시경(詩經)』 빈풍(豳風) 7월편에 있는 '경작하고 수확하는 대목'을 본떠서 정월 대보름에 궁궐에서 행하여진 행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시행되었다. 본래는 향촌사회의 민간에서 행해지던 행사였으나 후대에 궁궐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내용 정월 대보름날 궁중에서는 나락이 많은 것 같이 볏짚을 묶어서 이것을 길게 연결하고, 밭갈이·모심기·김매기 등 여러 가지 농사짓는 모양을 선보이며, 만드는 솜씨를 겨룬다. 궁중에서 신하들이 농민 분장을 하고 6명의 승지(承旨)를 3명씩 나누어 두 대(隊)가 승부를 겨룬다. 이 때 내농작에 가담하는 관리들은 경쟁적으로 묘한 가물(假物)을 만들어 내기에 열중한다.

내농작은 농본국인 조선왕조에서 행하던 것으로, 처음에는 농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지만 중종 무렵에는 너무나 교묘하게 물건을 만들어 웃음거리가 되었으므로, 대간에서 무익한 일이라 하여 결국 중지한 바 있다.

참고문헌 | 詩經, 朝鮮王朝實錄.
필자 | 박순(朴焞)

달끄슬리기

☞ 달집태우기

달불태우기

☞ 달집태우기

달집태우기

정의 정월 대보름 무렵에 생솔가지나 나뭇더미를 쌓아 '달집'을 짓고 달이 떠오르면 불을 놓아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원하는 풍속. 지역에 따라서는 달집불·달불놀이·달끄실르기·망우리불(망울이불)·달망우리·망월·동화(洞火)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유래 달집태우기의 유래와 역사는 분명치 않다. 다만 달집태우기가 예축적(豫祝的) 의미를 지닌 기풍의례(祈豊儀禮)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아 오랜 농경문화의 터전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어 온 풍속의 하나로 생각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대사회 이래로 달은 물 · 여성과 연결되어 농경의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질서와 시절의 운행, 자연의 섭리까지도 아울러 상징한다.

이처럼 생산력과 생활력의 기준이 되는 달은 농경 및 어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새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상원(上元)은 그 주술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유독 정월 대보름에 달과 관련된 세시풍속, 곧 용알뜨기 · 달맞이 · 달점 · 삼신달받기 · 달불음 등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달집태우기는 한강 이남의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두루 분포하는 신앙의례이자 놀이로서 정월 대보름 달맞이 및 풍농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달집이란 달[月]과 집[宅]의 합성어로 '달의 집' 혹은 '달막[月幕]'이란 뜻이다. 즉, 달집을 상징하는 원추형의 나뭇더미를 불에 태운다는 의미에서 '달집태우기'라 한 것이다. 그 이칭인 망우리불 · 달망우리는 망월(望月)의 와음(訛音)이다. 이는 '달맞이'와의 상관성이 강하게 내포된 이름으로 충남 금산을 비롯한 전남 · 전북 지방에서 널리 호칭된다. 또한 달불 · 달끄실르기는 달집에 불을 놓는 행위가 곧 달을 그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부르는 명칭이고, 동화는 마을의 질병과 잡귀를 모두 소각시키는 '동네불'이란 뜻으로 충남 부여 · 청양 등에서 주로 불린다. 이 외에 경기도 일부 마을에서는 '해동화'란 독특한 명칭도 보이는데, 이것은 동네의 화(禍)를 풀어버린다는 뜻의 '해동화(解凍禍)' 또는 겨우내 얼었던 것을 녹인다고 하여 '해동화(解凍火)'라고도 한다.

정월 대보름이 임박하면 동네의 청장년들은 모두 나와 청솔가지로 화목(火木)을 준비하여 달집을 만든다. 마을에 따라서는 풍물패들이 가가호호 걸립을 돌아 지신밟기를 해주고 달집에 사용될 땔나무와 짚단을 조금씩 거출한다. 이 때 상중(喪中)이거나 출산한 집, 기타 부정한 가정은 걸립에서 제외된다. 화목이 마련되면 달이 뜨는 맞은편 산날망이나 마을 앞에 달집을 짓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린다. 이윽고 날이 저물면 온 동네의 사람들이 속속 달집 주변으로 모여든다. 마침내 동쪽에서 보름달이 떠오르면, "달불이야! 망우리불이야! 달끄실르자!" 혹은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망우리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지른다. 그리고 신명나는 풍물소리에 한데 어우러져 달집 주위를 빙빙돌며 액운이 없기를 축원한다.

달집태우기는 철저하게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도시화 ·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히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면 차원에서 합동으로 달집을 태우는 사례도 더러 찾아진다.

① 날짜: 흔히 달집태우기는 음력 정월 15일 밤에 전승되는 세시풍속으로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정월 14일 또는 15일 밤에 달집을 태우는 것이 관례이지만, 매년 망월이 드는 시를 보아서 택일하는 사례도 의외로 많다. 가령 충남 및 전북 산간 지방에서는 망월이 드는 날 달집을 불사르는 마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통상 망월은 정월 14 · 15 · 16일 사이가 된다. 이는 달이 가장 둥글고 그 빛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를 의미한다.

② 재료와 형태: 달집의 재료는 솔가지가 보편적이고 이를 보조하는 화목으로 짚이나 나뭇잎 · 생죽(生竹)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솔가지 대신 생죽과 짚으로 달집을 짓는 사례도 있으며, 동화제의 경우 싸리나무와 잡목이 주요 재료가 된다. 전남 지방에서는 달집 속에 생죽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마디가 터지는 소리를 듣고 악귀가 놀라서 달아난다는 주술적인 사고가 깔려 있다. 이는 호남 지방에서 대보름날 새벽에 집집마다 생죽을 잘라 마당에 쌓아 놓고 이른바 가랫불 · 다랫불을 놓아, 악귀를 물리치는 풍속과 맞닿아 있다.

달집의 형태는 마을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긴 막대 3 · 4개를 움집과 유사하게 원추형으로 세우고 그 꼭지점을 묶는다. 달집 속에는 불에 잘 타는 짚, 마른 나무, 생죽 따위를 넣고, 바깥쪽에는 솔가지를 차곡차곡 쌓은 다음 이엉을 엮어서 씌우고 칡덩굴이나 새끼줄로 감는다. 그리고 달










〈달집태우기〉
1 달집 재료준비
2 달집 제작준비
3 달집 제작
4 달집세우기 과정
5 달집세우기
6 완성된 달집
7 고사지내기
8 달집태우기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황금리 황현만

이 뜨는 맞은편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작은 문을 내는데, 이를 '달문' 혹은 '달못'이라고 한다.

③ 점화자: 달집에 점화하는 행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연유로 부정이 없는 정갈한 상노인을 선정하여 그 역할을 맡기거나 혹은 동네 대표가 점화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사를 두지 못한 사람이나 노총각으로 하여금 달집에 불을 지르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사례는 경남·경북을 비롯한 호남 및 충청 지방에서 두루 확인된다. 그래서 장가를 못 간 노총각과 아들이 없는 사람은 마을을 위해 불을 지르고 그 대가로 흔쾌히 술과 안주를 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점화자를 따로 뽑지 않는 곳에서도 달집에 불을 놓으면 운수가 좋다는 속설이 파다하여 서로 먼저 불을 놓으려고 앞을 다투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한다.

④ 신앙의례: 각 지방에서 전승되는 달집태우기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단지 달집에 불을 지르며 새해의 소망을 축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보름 동제와 결합되어 그 부속 행사로 달집을 태우는 경우이다. 셋째는 달집태우기가 곧 동제의 대상이 되어 따로 제관을 선정하고 제수를 갖추어서 풍농 및 방액(防厄)을 기원하는 사례이다. 이들 중 달집에 불만 놓는 첫 번째 유형이 가장 보편적이나 여기에 술을 붓고 절을 하는 등 간단한 의식이 베풀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과는 무관하게 달집이 타오를 때는 개별적인 의례가 수반되게 마련이다. 가령 신년 운세가 좋지 않거나 삼재(三災)가 든 사람은 저고리의 동정을 떼어서 불사르고 혹은 고쟁이·속곳·제웅·사주단자·부적·머리카락을 태우며 액땜을 기원하기도 한다. 또 일부 가정에서는 따로 제수를 준비하여 달집에 치성을 드리고 가족이 무탈하기를 비는 소지를 올린다. 아이들은 정초에 날리던 연을 불사르면 액운이 없다고 하여 달집에 태운다. 뿐만 아니라 으레 횃불싸움·달집뺏기·불절음으로 비화되어 이웃마을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며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속신 달집을 태우는 날 가장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은 재수가 좋다고 한다. 또 달집이 잘 타야 마을이 길하고 도중에 불이 꺼지거나 더디 타면 액운이 닥칠 조짐으로 여긴다. 충남 금산 및 경남 창원·거창 등에서는 연기가 많이 나서 달을 가릴수록 농사가 잘되고 무탈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방향에 따라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전남 광양에서는 달집이 동쪽으로 쓰러지면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 넘어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전북 장수에서는 달집이 쓰러질 때 동네 쪽으로 엎어지면 운이 좋고 바깥 쪽으로 넘어지면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 경남 울주, 전남 순천에서도 달집이 넘어지는 방향을 보고 그 해의 시절을 점치는데, 쓰러지는 쪽에 있는 마을은 일년 내내 평안하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충남 청양·부여에서는 동화가 마을 쪽으로 쓰러지면 액운이 들고 반대편으로 넘어지면 좋다고 여긴다. 그래서 동화가 넘어질 시점이 되면 청년들이 달려들어 동구 밖으로 밀어내는데, 이는 동화가 쓰러지면서 마을의 액운을 모두 가져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달집이 다 타고 난 뒤에 밑불을 다리미에 넣어서 콩을 볶아 먹으면 이가 튼튼해지고 부스럼과 종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보름날 아침에 백지로 옷을 지어 아이들의 옷 속에 입혔다가 달집에 넣어 태우면 일년 중 액이 없어진다고 한다.

의의 달을 매개로 한 달집태우기는 제액초복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의 표상이다. 달을 불에 그슬려야 가뭄이 들지 않는다는 믿음은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비는 상징적인 의례인 동시에 풍농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달집태우기는 사악한 기운과 부정을 살라 없애는 불[火]이 지닌 정화력을 적극 차용한 액막이 의식이다. 그것은 보름달이 떠오를 때 거대한 달집을 불태우는 것으로 마을에 깃든 모든 악귀가 소멸될 것이라는 염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달집태우기는 새봄을 예축하는 역동적인 의례로서 달과 맺어진 다양한 대보름 세시풍속의 의미가 종합적으로 녹아든 대표적인 민속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남도민속문화론(표인주, 민속원, 2000), 장벌리 탑제와 동화제(강성복, 부여문화원, 200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著, 朝鮮總督府, 1941).

필자 | 강성복(姜成福)

도간(稻竿)

⇨ 볏가릿대세우기

동래지신밟기(東萊地神—)

정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서 정월 초부터 보름까지 연행되는 지신밟기. 주로 한강 이남의 농촌에서 연행하던 매구 · 걸궁 · 걸립 · 마당밟기 · 지신풀이들과 대동소이한 축원 농악무의 한 종류이다. 동래지신밟기는 마을을 관장하는 산신과 당산신 그리고 각 가정의 가택신(성주신 · 조왕 · 용왕신 · 장독신 · 곳간신 · 마구간신 · 뒷간신 · 삽짝신)을 위로하고 잡귀잡신을 쫓아내어 마을과 각 가정의 한 해 동안 안과태평(安過太平)과 재복(財福)을 축원하는 제의적인 놀이인데, 1972년 11월에 부산광역시 시도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동래지신밟기는 성읍국가시대에 동래 지방에 거칠산국이 성립되고 나서부터 연행되던 축원 농악무에서 발전한 놀이다. 현재 연행되고 있는 놀이는 새로운 예능이 발흥되던 조선 후기에 양반의 타락상을 풍자한 내용을 저변에 깔면서 전해 오던 지신밟기에 좀더 재미있는 극적 상황을 설정하여 놀이화한 것이다.

내용 동래지신밟기는 원래 잡색과 풍물꾼으로 구성되고, 그 연행도 지신밟기라는 명칭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뛰고 밟고 춤추며 간간이 축원풀이를 하는 것이 원형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연행되는 놀이는 다른 지방의 놀이와는 달리 마당놀이 · 각방 치장풀이 · 주신(酒神)풀이가 덧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당놀이는 양반의 위선과 평민의 지혜를 드러내는 극적 주제로 되어 있다. 두 양반(사대부 · 팔대부)과 언제나 양반 행세를 하려는 평민 하동 사이에 각시가 끼여들어 애정의 갈등을 일으키고, 포수가 사대부와 투전판을 벌여 돈을 따는 등 해학적인 장면을 놀이에 넣어 연행물로서의 가치를 더해 준다. 각방 치장풀이는 부유한 가정에 한하여 행하고, 주신(酒神)풀이는 주신에게 언제나 향기로운 술이 생기기를 기원하며, 집안 식구들이 어디를 가나 명성이 자자하고 환대받기를 축원하는 풀이이다.

동래지신밟기의 인적 구성은 풍물꾼 쇠잡이 2명, 장고수 5명, 호적수 1명, 북수 4명, 징수 2명, 소고수 6명과 잡색인 사대부, 팔대부, 포수, 하동, 각시, 촌녀, 촌로로 되어 있다. 연행 장단은 굿거리와 자진모리가 중심이 되고, 춤사위는 허튼춤이 중심이되 상모놀이가 없음이 특징이다. 지신밟기의 진행 절차는 크게 (1) 주산 지신풀이 (2) 당산 지신풀이 (3) 샘풀이 (4) 각 가정의 지신풀이는 네 마당으로 되어 있으나, 놀이의 중심은 각 가정의 지신풀이다. 각 가정의 지신풀이는 ① 마당놀이 ② 대청 지신풀이 ③ 큰방 성주풀이 ④ 각방 치장풀이 ⑤ 조왕 지신풀이 ⑥ 샘 지신풀이 ⑦ 장독 지신풀이 ⑧ 도장 지신풀이 ⑨ 마구간 지신풀이 ⑩ 뒷간 지신풀이 ⑪ 삽짝 지신풀이 ⑫ 주신풀이로 되어 있다. 각 가정의 지신풀이는 그 집의 가옥 구조에 따라 가감하여 행하는데, 설쇠잡이가 각 지신풀이를 가창하고 가창 끝에 후렴인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를 외치면 지신밟기에 참가한 전원이 굿거리 두 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후렴을 힘차게 합창하면서, 오른손을 땅쪽으로 향해 힘차게 뻗으며 발로 땅을 힘껏 구른다.

의의 동래지신밟기는 원래 축원 농악무에서 발전한 놀이로 단순히 놀이라기보다는 마을과 각 가정의 안녕 및 풍농을 기원하고 재액을 쫓는 의례적 놀이다. 이 놀이는 마을의 정초 분위기를 쇄신하여 축제적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일정한 기능을 가지는 대동놀이이다.

참고문헌 | 마당굿연희본 1.무형문화재 미지정종목(심우성, 깊은샘, 1988), 동래지신밟기(김승찬, 東萊들놀음,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 동래야류보존회, 1989), 부산의 문화재(부산직할시, 1993), 民俗紀行 -釜山 · 慶南 篇-(康龍權 著,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硏究院, 1994).

필자 | 김승찬(金承璨)

동화(洞火)

⇨ 달집태우기

마당밟기

⇨ 지신밟기(地神—)

모심기놀이

정의 정월 대보름에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풍물을 치며 모의(模擬)로 모를 심는 놀이. 모심기놀이 · 모심기놀음 · 모내기놀음 혹은 들노래라고도 한다.

내용 벼농사나 밭농사의 힘든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풍물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일의 능률을 높이며 힘든 일을 힘들지 않도록 해 주는 민간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언제부터 이 놀이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모심기가 일반적으로 행하여진 15세기 이후부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 시작된 이앙법을 계기로 모심기놀이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의 특색 중 하나인 봄 가뭄의 극복을 위해서도 공동 노동은 반드시 필요했다. 즉, 농사일정상 6월 초순의 망종(亡種)까지 가을보리를 전부 수확하고 모심기를 마쳐야 했는데, 일손의 확보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늠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공동 노동은 절실히 요구되었다. 특히 모심기놀이는 노동을 더욱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북 · 장구 · 꽹과리 등 각종 풍물을 동원한다. 두레패의 장단에 맞는 놀음은 고단함을 덜어주고 장단에 맞추어 손놀림이 이루어져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황해도와 경기도 일부의 농촌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아침부터 마을 청년들이 모여 모심기놀이를 벌인다. 모심기놀이에 앞서 마을의 젊은이들을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윷놀이를 한다. 윷놀이가 끝나면 마을의 넓은 마당으로 나와 모심기놀이를 하는데, 이때 산신(山神)역을 맡은 한 젊은이가 암소를 거꾸로 타고 도포를 입고 유관(儒冠)을 쓰고 산에서 내려오면 나머지 청년들은 이를 맞아 노래하고 춤을 춘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 모내기를 할 때처럼 옷을 입으며 종이나 짚으로 만든 모를 손에 쥐고 풍물에 맞추어 노래하며 모심기 흉내를 낸다. 놀이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장만한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 이처럼 한 해 농사의 준비가 시작되는 정월 대보름날 모심기놀이를 하면서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다.

참고문헌 | 孫晉泰先生全集6(太學社, 1981), 한국의 축제(문화예술총서8,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87),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 1990).

필자 | 박순(朴焞)

모의타작하기(模擬打作—)

☞ 보리타작

볏가릿대세우기

정의 정월 대보름에 짚이나 헝겊 등에 벼 · 보리 · 조 · 기장 · 수수 · 콩 ·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매단 다음, 우물이나 마당 또는 외양간 옆에 높다랗게 세워놓고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 곡식을 싸서 매달아 놓은 장대를 '볏가릿대'라고 하는데 이는 입간민속(立竿民俗)의 상징물이다.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볏가릿대 · 볏가리 · 노적가리 · 볏가리 장대라 칭하고, 대부분의 전라도 지역에서는 낟가릿대 · 유지기 · 유지지 · 주저리 · 유두새 · 노적 · 봉오리 · 오조지 · 농사장원기라 하며, 경남 지역에서는 유지방 등으로 불린다. 한자어로는 화간(禾竿) · 화적(禾積) · 도간(稻竿)이라고도 한다. 현재 충청도 지역에서는 볏가릿대나 노적가리로 불리고 있으며, 전라도 지역의 경우에는 유지기 · 농사장원기 · 낟가릿대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유래 및 역사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상원조(上元條)와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 상원조에 보면 "시골인가에서는 보름 전날 짚을 묶어 깃대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속에 벼 · 기장 · 피 · 조 등의 이삭을 싸고, 또 목화의 터진 열매를 장대 끝에 매단다. 이를 집 곁에다 세우고 새끼줄을 펼쳐 고정시킨다. 이것을 '화적'이라 하는데, 이로써 풍년을 비는 것이다. 산골 풍속으로는 가지가 많은 나무를 외양간 뒤에 세우고, 곡식 이삭이나 목화를 걸어 둔다.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 둘레를 빙빙 돌며 노래를 부르면서 풍년을 기원한다. 우리나라 고사(故事)에 정월 보름날 대궐 안에서는 『시경(詩經)』 빈풍(豳風) 7월편의 갈고 거두는 형상을 본떠 좌우로 나누어 승부를 겨룬다. 대개 풍년을 비는 뜻이다. 항간에서 화간(禾竿)을 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석남 송석하는 1934년 발표한 『풍신고(風神考)』에서 현재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볏가릿대 농경의례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입간민속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자(李耔)의 『음애일기(陰崖日記)』나 권용정(權用正)의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등에서도 볏가릿대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내용 '볏가릿대'는 벼를 베어서 가려 놓거나 또는

볏단을 차곡차곡 가려서 쌓은 더미인 '볏가리(낟가리)' 에서 나온 말로, 풍년이 들어 볏가리를 긴 나뭇대[竿] 높이만큼 쌓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풍년기원 우주목(宇宙木)인 볏가릿대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극복하기 위한 욕구의 소산물로서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이나 보름에 세워서 2월 초하루에 내리는 농부들의 진솔한 마음과 극복의 염원을 담은 풍농기원 의례이자 놀이이다. 이러한 볏가릿대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세우는 위치도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볏가릿대를 세우는 주된 목적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식수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 데 있으므로 대개 볏가릿대는 우물가나 들판, 바깥마당과 안마당, 외양간 옆 등에 세운다.

볏가릿대를 세우는 주체에도 전남 진도 지역의 경우에는 대개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볏가릿대를 세우는 반면, 충청도 서산 · 당진 일대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들판이나 공동 우물, 또는 마을 회관 등지에 세운다. 한편 충청 지역의 경우 볏가릿대를 공공장소에 세우는 외에 개인 농가 마당이나 개인 우물 옆에도 세운다. 그러나 진도 지역과 다른 점은 볏가릿대를 세우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볏가릿대 생김새도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다. 대개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소나무나 대나무를 베어 장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묵은 대나무나 소나무를 사용하는 마을도 있으며, 대나무와 소나무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진도나 완도 등 전남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볏가릿대의 모습은 긴 장대 위에 볏짚단의 밑부분을 묶고 그 안에 벼 · 조 · 피 · 기장 등의 온갖 곡식을 이삭째 싸서 매달고, 그 밑에는 목화송이나 새끼줄 등을 늘어뜨려 놓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충남 서산 · 당진 지역의 경우에는 소나무나 대나무를 베어다가 맨 꼭대기에 오곡(五穀)을 헝겊에 싸서 매달고 짚으로 주저리를 틀듯이 장대를 감싼 다음, 벼이삭이 늘어진 모양으로 동아줄 3개를 거꾸로 틀어 줄을 매어 세운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리의 경우, 1996년 경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볏가릿대를 4곳에 세웠다. 차리는 행정상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각 반에서 가장 잘 사는



볏가릿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송석하

집 마당에다 볏가릿대를 세워 주었다. 볏가릿대 세우기가 끝나면 풍물패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고, 이어 그 집에서는 답례로 술과 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한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어렵게 살던 시절 서로 도우며 나눌 줄 알았던 우리 조상들의 미덕을 엿볼 수 있다.

정월 열나흗날이나 보름에 세운 볏가릿대는 음력 2월 초하룻날 거둔다. 2월 초하루는 '머슴날' 이라 하여 농사가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바탕 놀 수 있는 농부들의 명절이다. 따라서 이 날 부잣집에서는 머슴이나 소작인에게 많은 술과 음식을 장만해 주고 맘껏 놀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 무렵에 세워 놓았던 볏가릿대를 눕히고 장대에 매달아 놓았던 오곡으로 풍흉을 점치는 볏가리제를 지낸다. 볏가리제 역시 마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 5리의 사례를 통해 볏가리제의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은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마을 회관으로 모여 고사에 쓸 제물을 준비한다. 이어 11시경이 되면 사람들은 농기(農旗)와 삼재축출기(三災逐出旗) · 향약기(鄕約旗)를 들고 풍물패를 앞세운 다음, 제물을 지고 마을 공동 우물인 참샘으로 가서 참샘고사를 지낸다. 참샘

고사가 끝나면 곧바로 볏가릿대 앞에 제상을 차려 놓고 제를 올린다. 영좌(領座)가 비손문을 외우고 참가한 주민 일동이 재배를 한다. 제의가 끝나면 집사가 '고수레'를 한 다음 떡과 술을 나누어 먹고 한마당 신명나게 '농사놀이(두레놀이)'를 한다. 그런 다음 볏가릿대를 눕히고 오곡 주머니를 풀어 씨앗이 튼 것을 확인하여 풍흉을 점친다. 이 때 서북쪽의 싹이 잘 텄으면 육답(陸畓, 육지 쪽에 있는 농토) 농사가 잘 되고 동남쪽이 잘 텄으면 갯가의 간척지 농사가 잘 될 징조라고 한다. 이어 눕힌 볏가릿대 줄과 짚은 작두로 썰어서 볏섬에 담아 집안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가을에 거름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풍년이 든다고 하여 서로 볏짚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와 같이 볏가릿대를 세울 때에는 대개 간단한 의례가 치러지나 볏가릿대를 내릴 때에는 성대한 의례가 치러진다. 이는 충남 당진군 구룡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구룡리 역시 음력으로 2월 1일 머슴날에 볏가릿대를 내리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즉, 2월 초하루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제물을 준비하여 볏가릿대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 삼색실과 · 술(막걸리) 등을 준비한다. 이어 준비한 제물을 볏가릿대 앞에 진설한다. 제의는 마을 연장자가 주관하는데 그 절차는 간단하다. 술은 석 잔을 올리며, 잔을 올릴 때마다 재배를 하고 이어 독축(讀祝)을 한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축원과 함께 소지를 올리는데 축원과 소지는 무당이 담당한다. 이 때 무당은 삼지창에 돼지머리를 꽂아 세우는 의례를 행한다.

이러한 제의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볏가릿대를 쓰러뜨린다. 우선 3개의 동아줄을 푼 다음 볏가릿대를 서서히 넘어뜨린다. 이어 오곡이 담긴 종태미를 내려 상 위에 놓고 열어 본다. 이 때 오곡에 싹이 트면 그 해에 풍년이 들고, 싹이 트지 않고 마른 채 그대로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점친다. 점을 친 오곡은 다섯 사람이 각각 나누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논으로 가서 뿌린다. 이 때에도 "올 일년 풍년 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축원을 한다. 한편 옛날에는 눕힌 볏가릿대 줄과 짚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가을에 거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요즘에는 곧바로 논에서 불을 놓아 태워버린다.

이처럼 대개 볏가릿대를 내릴 때에는 제물을 간단하게 차려놓고 독축과 함께 풍년을 기원한다. 제의 양상에서도 충청도 지역과 같이 대개 마을 주민들에 의해 공동으로 제의가 치러지기도 하나 전라도 지역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의가 치러지기도 한다. 특히 볏가릿대는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로 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의에 앞서 물의 풍부함을 기원하는 의례를 행하기도 한다. 즉, 제의에 앞서 풍물을 치면서 맑은 물을 그릇에 담아놓고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구멍)만 뚫어라." 하고 고사소리를 한다. 그럼으로써 일년 내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원한다.

지역사례 볏가릿대세우기의 사례는 충남 당진군 당진읍 구룡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옛날 구룡리에서는 볏가릿대를 마을 사람 공동으로 자연 마을마다 하나씩 세우는 외에 부잣집에도 세워 주었다. 그러면 부잣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는다. 한편 부잣집 마당에 세워 두었던 볏가릿대 역시 음력 2월 초하룻날 넘어뜨리는데, 이 때 볏가릿대에 감았던 볏짚은 풍년이 든다고 하여 볏섬에 담아서 그 집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6 · 25전쟁 이후 중단되었다가 1991년 농촌지도소에서 파견 나온 '주재지도사'가 이를 발굴하여 재현함으로써 현재는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드는 해에 마을 회관에 볏가릿대 하나를 세우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유형별로 그 생김새를 살펴보면, 충남 당진군 구룡리의 경우 볏가릿대를 세우려면 우선 약 6미터 정도 되는 긴 소나무 한 그루와 왕대나무 한 그루를 윗가지를 자르지 않은 채 베어 온다. 대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곧게 뻗어 올라가므로 마을의 운수가 대나무와 같이 곧게 뻗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하고, 소나무 역시 솔잎처럼 푸름과 곧은 절개를 닮으라는 의미에서 사용한다. 마당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포개어 세운 다음 그 대를 짚으로 주저리처럼 감싸는데, 이를 '옷입힌다'고 한다. 볏가리를 쌓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드러나면 보기에 흉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짚으로 3개의 동아줄을 꼬아 위로부터 바닥에 고정시킨다. 대의 꼭대기에는 짚으로 지름이 약 10센티미터 정도 되는 오쟁이를









〈볏가릿대세우기〉
1 주머니 속에 넣을 오곡
2 오곡주머니 달기
3 고사상 준비
4 볏가릿대세우기
5 볏가릿대세우기
6 상쇠의 고사덕담
7 마을주민의 재배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국립민속박물관





〈볏가릿대내리기〉
1 고사지내기
2 볏가릿대내리기
3 오곡주머니 확인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황헌만

만들고 그 안에 오곡을 각기 주머니에 담아 넣는다. 여기서 오쟁이를 '종태미'라고 부른다. 오곡은 벼·조·팥·수수·기장으로 각기 이를 재배한 집의 것을 사용한다. 즉, 기장을 심은 집에서는 기장을 내놓고, 콩을 심은 집에서는 콩을 내놓는다. 한편 볏가릿대 옆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쓴 농기를 세워 놓는다.

두 번째 사례로 충남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의 볏가릿대를 들 수 있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 사람들은 인근 야산에서 약 15년생 정도 되는 소나무(길이 약 5미터, 밑지름 약 15~20센티미터) 한 그루를 베어와 볏가릿대를 세운다. 이를 마을 사람들은 "볏가리 세운다."고 한다. 볏가리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재료로는 소나무·볏짚·오곡종자(벼·조·수수·기장·콩)·한지·무명천 등이 필요하다. 소나무는 윗가지만 남겨 놓고 잔가지는 모두 베어낸다. 볏짚은 삼방(三方)줄을 꼬는 데 이용된다. 삼방줄은 세 방향으로 소나무의 윗부분에 매어 달고, 땅에 말뚝을 박아 고정한다. 삼방줄은 소나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아줄을 엮듯이 하며, 닭벼슬처럼 짚을 길게 늘어뜨린다. 한편 오곡 종자는 각 종자마다 한지에 싸서 무명천으로 감싼 다음 소나무와 삼방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매달아 놓는다.

또한 충남 서산시 대산면 운산리의 경우 나무를 소나무나 대나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벼이삭이 늘어진 모양으로 동아줄을 거꾸로 틀어 줄을 맨다는 점이 다른 마을과 다르다. 이 외에 다른 형태의 볏가릿대로는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리를 비롯한 지곡면 일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볏가릿대는 살아 있는 대나무 대신 죽은 대나무를 장대로 하고 그 맨 꼭대기에 수수대나 꿩장목을 묶어 놓는다.

속신과 금기 볏가릿대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아침 일찍 집안 어린애로 하여금 볏가릿대 주위를 돌면서 풍년 들게 해 달라는 말을 해가 뜰 때까지 노래로 부르게 한다. 볏가릿대를 거둘 때에는 짚단 안에 넣었던 곡식이나 나뭇가지에 매달았던 곡식을 찧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 떡의 크기는 손바닥만하기도 하고 새알심만하기도 하며, 떡 안에 콩이나 팥으로 소를 만들어 넣기도 한다. 이런 떡은 집안 식구끼리 먹지만 머슴이나 하인에게도 나누어 준다. 그러나 이웃집에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

볏가릿대를 헐기에 앞서 섬이나 가마니 같은 것을 가져다 곡물 넣는 시늉을 하면서 큰 소리로 "벼가 몇 만 석이요.", "조가 몇 천 석이요.", "콩이 몇 백 석이요.", "팥이 몇 십 석이요." 하고 소리쳐서 마치 많이 수확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 그 해에 풍년이 들어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된다고 한다.

한편 볏가릿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기(禁忌)가 요구되기도 한다. 볏가릿대를 세우는 날에는 키가 작은 사람은 남의 집 방문을 삼가야 한다. 볏가리를 만든 14일에 찾아오는 손님의 키가 작고 큼에 따라서 그 해 농작물의 성장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키가 큰 손님이 오면 오곡이 모두 크게 잘 자라지만 키가 작은 손님이 오면 곡물도 왜소(矮小)해져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이 날 여인이 아침 일찍 찾아오면 재수가 없다고 전하므로 여인들은 가급적 외출을 피한다.

의의 농사는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주기성을 바탕으로 농경세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농사가 생산과정에 따라 주기성을 띠고 있음에 따라 그에 따른 의례도 내용을 달리한다. 연초에는 대동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성장기에는 농신(農神)에게 성장의 촉진을 기원하고, 수확기에는 조상과 여러 신들에게 감사의 예를 올린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볏가릿대 행사는 연초에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의례(祈豊儀禮)이다. 즉, 볏가릿대 세울 때의 시기와 장소, 볏가릿대 눕힐 때의 시기와 의례 등은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볏가릿대를 세우는 시기인 음력 정월 대보름과 샘은 시공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보름의 상징적 의미는 '보름-여성-풍요'라는 의미로 연결되고, 샘의 상징적 의미는 '샘-용수'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볏가릿대를 눕히는 시기인 2월 초하루는 세시풍속 상으로 볼 때 영등날·머슴날로도 불린다. 이 시점은 해동(解凍)이 되고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사의 축원 내용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의례 역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던 볏가릿대세우기는 충남 서산·당진 등과 같은 내포지역(內浦地域)을 비롯하여 전남 진도 등과 같은 일부 해안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陰崖日記, 漢陽歲時記, 風神考 -附 禾竿考-(宋錫夏, 震檀學報1, 震檀學會, 1934),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國의 歲時風俗(金星元, 明文堂, 1987),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人의 敎育歲時風俗(孫仁銖, 文音社, 1991), 당진의 민간신앙(이인화, 당진문화원, 1996), 考古와 民俗1(이필영, 韓南大學校博物館, 1998), 볏가릿대고(이관호, 생활문물연구4,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권(김용덕 편, 창솔, 2004).

필자 | 이관호(李官浩)

보름차례

정의 정월 대보름날 지내는 명절 제사. 정월 대보름 새벽이나 아침에 명절 음식을 차려 놓고 지내는 천신례(薦新禮).

내용 및 특징 우리 고유의 조상 숭배 의식과 중국에서 들어온 『가례(家禮)』의 영향을 받아 그 형식과 절차가 다양하다. 차례 음식으로는 찰밥(오곡밥·약밥)과 나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찰밥 제사에 관한 것은 신라 21대 소지왕 때 정월 대보름(또는 16일)을 오기일(烏忌日)로 정하고 약밥(찰밥·오곡밥)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있다. 이는 지금의 대보름 차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찰밥(오곡밥)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대보름 차례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 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무속 신앙의 조상 숭배의식과 삼국시대에 들어온 유교의 의식이 혼합되었으며, 16세기 이후에는 『가례』가 민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절차나 형식이 축원 의례에서 『가례』에 정한 제례 형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설과 추석이 국가공식휴일로 지정(1985. 1. 21.)되면서 설과 추석의 차례는 성대하게 치르는 반면, 대보름 차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이미 사라진 지역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보름 차례는 설차례 이후 15일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차례에 흡수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강원도와 전남의 일부 지방에서는 유교식 제례 순서에 따라 남자가 차례를 지내고, 강원도·경상도·전남 해안 마을에서는 주부(主婦)가 새벽에 대보름 음식을 차려놓고 비손으로 축원 의례를 행한다. 유교식 차례는 진설(陳設), 강신(降神), 참신(參神), 단헌(單獻), 헌다(獻茶), 사신(辭神)의 순서로 축(祝)없이 잔을 한 번 올린다. 주부가 올리는 경우는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을 하면서 비손을 하는 것이다. 음식은 메밥과 일반 제사 음식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산나물, 채소, 햇미역, 해산물 등과 오곡밥에 숟가락 일곱 개를 꽂고 지내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례 강원도·경상도 해안 지역에서는 주부가 거처하는 안방 시렁에 조상 고리를 모시고 동제가 끝나면 동네 우물물을 다른 집보다 먼저 길어와 오곡밥이나 찰밥을 하여 성주·터주·조왕·우물 등 다른 가신제와 함께 대보름 차례를 지내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메밥으로 설차례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 지역은 남성들이 동제에 참여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주부들이 차례를 올린다.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유식 절차보다는 "할배 할매, 큰아부지 큰어매, 아부지 어무이, 아들 아부지 그리고 웃대 조상님네요, 이 해는 조상님에 햇시더. 오늘 보름날이께네, 옛날 어무이 사실 적에 어무이 했던 양으로 했니더. 있는 것은 적고 없는 것은 많고 하이께네 웃대 조상 아릇대 어른 마이 드시소. 그저 아들 며느리 손자 잘 되거러 해 주소." 하고 빈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에서는 "시증조부모님, 시조부모님, 시부모님, 아이들 아버지, 그리고 웃대 조상님이시여, 올해는 조상님이 주관하는 해입니다. 오늘 보름날을 맞아 시어머님 살아 계실 때



보름차례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2리
국립민속박물관

와 같이 차렸습니다. 있는 대로 차렸으니 많이 드시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 잘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축원 의례를 한다.

이 때 함지나 큰 그릇에 숟가락을 꽂고 차례를 올린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증조부 · 조부 · 부의 3대 조상 여섯 분과 남편을 합해 일곱 개를 꽂게 된다. 주부의 대를 포함하여 4대 조상을 지내므로 돌아가신 조상의 수에 따라 숟가락을 한 개에서 일곱 개까지 꽂는다.

경남 하동 · 남해 · 통영 지역에서는 시루에 숟가락 일곱 개를 꽂고 지내는 집이 있는가 하면 밥상을 조상마다 따로 차리는 집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2대의 조상 수대로 따로 오곡밥을 차려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전남 여수, 보성, 순천 지역에서는 선령상과 조부모 · 부모상을 따로 차려 차례를 올린다. 선령상은 증조부 이상의 선조를 위한 차례상이다. 이 때는 한 그릇에 숟가락 하나만 꽂고 여러 가지 나물 · 채소와 어물로 상을 차린다.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는 따로 상을 마련하고 각각의 수대로 오곡밥을 준비하고 다른 제물은 한 가지씩만 준비한다. 이 지역에서는 나물 · 채소를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을 홀수로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대보름을 '나물명절' 이라 한다. 차례 음식은 오곡밥의 숫자 5와 나물과 기타 음식의 가지 수(홀수)에 특별한 음식 한 가지를 더 준비하여 그 합이 홀수가 되게 준비한다. 이 때, 오곡밥에는 숟가락 하나를 비스듬히 꽂거나 밥그릇에 걸쳐놓고 지낸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韓國民俗大觀1~6(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1982),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호태(金鎬兌)

보리타작

정의 정월 대보름날 전후에 수수깡으로 오곡(五穀)의 모형을 만들고 이를 타작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모의농경(模擬農耕) 의례. 지역에 따라 모의타작 · 보리타작 · 수숫대타작하기 · 수숫대세우기 · 보릿대세우기 · 보리타작하기 · 보리자른다 · 밀보리털기 · 보리털기 · 나락이세기만들자 · 보리이세기만들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유래 보리타작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 그 유래를 추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조실록(世祖實錄)』 9년에 궁중 내농작(內農作)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내농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 정월 14일 혹은 15일에 잿간이나 두엄 더미 위에 수수깡으로 오곡과 지게 · 소 · 사람 등의 모양을 만들어 세워 둔다. 14일 저녁이나 15일 저녁 달맞이를 한 후에 동네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막대기로 이 곡식 모형을 두드리는 타작 흉내를 낸다. 이는 모의로 곡식을 심었다가 타작하여 그 양을 보고 그 해 농사 풍년이기를 기원하는 내농작의 일종이다. 보리타작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로 행해진다. 우선 정초부터 혹은 14일이나 15일 아침부터 가족들이 모여서 수수깡으로 벼, 보리, 조, 콩, 목화 등의 곡식과 지게, 쟁기 등의 농기구, 그리고 소와 같은 동물 모형을 만들어 잿간 혹은 두엄 더미 위에 반나절 이상 꽂아 둔다. 보름날 아침 부럼을 깬 후나 달맞이를 한 후에 동네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대기로 잿간 혹은 두엄 위에 세워 둔 보리 등의 곡식을 타작하듯이 두드린다. 이 때 아이들이 두드리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노고를 치하하고 오곡밥을 내어주는 곳도 있다. 이렇게 타작된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에 타작에 천섬만큼 만섬만큼…… 타작이다 타작이다 천섬 나오나 만섬 나오나."라든가 "한 섬이요, 두 섬이요." 하면서 그대로 잿간에 버린다. 어떤 지역에서는 타작된 곡식을 모아서 태운 뒤 "한섬이요, 열섬이요." 하면서 그 재를 도토리 껍질로 말질을 한다. 이렇게 하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보리타작은 모의타작을 한 후 그것을 두엄더미나 잿간에 그냥 쓸어 넣는 방법과 모의타작한 곡식을 모아 마당에서 태운 후 재를 모아서 도토리 껍질로 말질을 하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시기 역시 지역에 따라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14일 저녁에 하는 지역, 보름날 아침에 하는 지역, 보름날 저녁 달맞이를 한 후 밤에 보리타작을 하는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보리타작은 두엄이나 잿간이라는 거름을 상징하는 장소에 주로 재배하는 곡식의 종류인 벼, 보리, 콩, 기장, 조, 목화 등과 쟁기, 써레, 지게 등의 농기구 등을 세우는 것으로 보아 풍년을 기원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특히, 일정 시간 동안 세워 두었다가 타작하는 흉내를 내고 마당질 혹은 말질을 하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것은 수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 한 섬이니 천 석이니 하는 등 곡식의 양을 세는 용어는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모의로 농사를 짓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내농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경상도 지역에서는 수수깡 곡식을 만들어 세우고 모의타작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낫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충청도에서는 잿간에 짚을 한 줌 꽂아 두는데, 이를 '잿간에 짚꽂기' 혹은 '잿간에 모심기'라고 한다. 충남 천안에서는 여자아이들이 곡식모형을 만들고, 남자아이들이 타작하고 섬으로 세는 일을 한다. 이 때 "보리쌀 나와라.", "쌀밥 나와라." 하면서 말질을 하는데, 마지막에 담는 것이 쌀밥이면 나락 풍년이 들고, 보리쌀이 나오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보리타작은 경북과 충청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전라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의의 보리타작은 수수깡을 이용하여 미리 재배할 곡식을 만들어 성장하게 하고, 이를 타작하여 그 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 곡식모형을 만들게 하고, 타작하게 함으로써 농사에 대한 지식과 공작에 대한 지식을 함께 터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기능도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龜尾·善山의 歲時風俗(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삼척민속지 1~5(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2), 安東市史3(安東市史編纂委員會, 1999), 경기민속지III -세시풍속·놀이·예술편-(경기도박물관, 2000), 선산사람들의 삶과 문화(민속학연구6,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학생회, 2000),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편, 창솔, 2004).
필자 | 김시덕(金時德)

보릿대세우기

⇨ 보리타작

수숫대세우기

⇨ 보리타작

승주달집태우기(昇州—)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송천리 송산마을에 전승되어 오는 음력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속. 1994년 1월 31일 전라남도 시도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이는 현재 승주달집태우기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이 놀이는 1987년 제16회 남도문화제에 출연하여 종합최고상, 그리고 1988년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내용 줄다리기가 주로 논농사 지역에서 행해지는 것에 반해, 달집태우기는 주로 밭농사 지역에서 행해지는 대보름 행사로서 이 둘은 마을을 단위로 한 큰 집단놀이이다. 송산마을에서는 대보름날 오후 농악이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와 솔가지를 베러 간다. 이 때 집안에 유고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웃마을인 갈전리와 유평리에 달집이 세워져 있으면 부수고 대나무나 솔가지를 훔쳐 오기도 한다.

대나무와 소나무 등이 준비되면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궁둥바우'라는 곳에 달집을 짓는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달집을 만들게 되는데, 잎이





〈승주달집태우기〉
1 고사지내기
2 달집태우기
전남 순천시 월등면 송천리 김영한

달린 채로 큰 생대나무를 원추형 모양으로 기대어 세워 얽는다. 달이 떠오르는 동쪽으로는 문을 내고, 문에는 새끼줄로 달 모양을 만들어 매어둔다. 달집 속에는 각 집에서 거둬온 짚과 나무단, 그리고 통대를 넣어두며, 그 위에 솔가지를 쌓는다. 또 겨울에 띄우던 연에 방액(防厄)·점풍(占豊)·태평 세월(太平歲月) 등을 써서 달집에 매달아 놓는다. 달집이 완성되면 달집 주변을 돌면서 농악을 친다.

달이 뜰 무렵, 마을 어른들은 "달맞이하러 가자!"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마을에 있는 몰뫼등으로 올라간다. 떠오르는 달을 향해 네 번 절을 올린다. 달맞이가 끝나면 달집에 매단 불집에 불을 붙인다. 달집 주변에도 불을 놓는다. 불을 붙이는 사람은 아들을 낳는다는 속신이 있어서 아들이 없는 부녀자들은 먼저 달집에 불을 붙이기 위해 경쟁을 하기도 한다. 달집이 불을 토해 내면서 활활 타는 동안 농악을 신명나게 울리며, 마을 사람들은 달집을 향해 개인적으로 소원을 빌기도 한다. 달집이 잘 타고 불빛이 밝으면 마을이나 가정에 탈이 없고 풍년이 들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고 부스럼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불길과 함께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데 이것을 마을 사람들은 "달끄실린다."고 말한다. 다른 마을보다 불길이 높이 올라야 좋다고도 하며, 그래서 달집을 만들 때에도 가능하면 크게 만들려고 한다. 달집이 타면서 생대나무나 속에 넣어둔 통대가 튀면서 요란한 폭죽소리를 낸다. 이 폭죽소리가 마을의 액을 쫓는 것으로 믿는다. 달집이 타고 나서 넘어지는 방향을 보고 풍년을 점치기도 하는데, 위쪽으로 넘어지면 그 해 풍년이 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놀이는 한밤중까지 계속된다.

의의 달집태우기에 대한 정확한 연원은 알려진 바 없으나 대보름·달·불 등이 각기 주술적 상관속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이는 풍요·다산을 소원하는 집단적·주술적·세시적 민속놀이로 간주된다. 또한 액맥이연이나 폭죽소리 등을 부가하여 제액 초복을 기원하며, 특히 대보름 행사로서 예축적 기능뿐만 아니라 점풍적 속신까지 부가되어 있는 종합적 민속놀이이다.

참고문헌 | 순천 월등: 月燈面鄕土誌(향토지리연구소, 2003).

필자 | 나경수(羅景洙)

유지지

⇨ 볏가릿대세우기

주살맥이

⇨ 지신밟기(地神—)

지신밟기(地神—)

정의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집터를 지켜준다는 지신(地神)에게 고사(告祀)를 올리고 풍물을 울리며 축복을 비는 세시풍속.

명칭 지신밟기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걸립·걸궁·고사반·고사풀이·마당밟기·주살맥이·매구·매귀 등 다양한 명칭을 지닌다. 지신밟기는 지신의 내력과 복을 비는 내용을 풀어내는 소리를 한다는 의미와 지신이 바라는 바대로 한바탕 풀어먹여 대접한다는 뜻에서 '지신풀이'라고도 한다. '걸립(乞粒)'이란 쌀을 얻기 위하여 다른 마을에 가서 지신밟기를 하는 경우로, 쌀알[粒]을 얻기 위한 일[乞]이라는 뜻이며, '걸궁(乞窮)'이란 궁핍한 형편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나서는 일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고사반(告祀盤)'이란 제물로 차려놓은 고사상을 가리키며, 고사상을 차려놓고 지신의 내력이나 잡신을 쫓고 복을 비는 내용의 축원 덕담을 '고사풀이'라 하고, 이는 지신밟기의 한 과정이자 지신밟기 전반을 지칭하기도 한다. 지신밟기는 집안의 곳곳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례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지만, 특히 마당에서 하는 과정이 지신밟기의 절정을 이루어 가족은 물론 구경꾼에게도 가장 볼만한 대목이 되기 때문에 '마당밟기'라고도 한다. 지신밟기는 땅에 묻혀 있는 잡귀를 밟고 위로하여 진정시킨다는 뜻으로 매귀(埋鬼), 매귀의 발음을 매구라고 파악하거나 혹은 신을 불러 행하는 굿의 한 가지라는 뜻에서 '매구굿'이라고도 한다. 더러는 '뜰밟이' 혹은 마당을 밟는 굿이라는 뜻으로 '답정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을에 찾아드는 재액을 막는 의례라는 뜻에서 '주살맥이'라고도 한다.

지신밟기패가 마을의 가가호호를 도는 이 행위를 지역에 따라서는 '걸립치기'라고도 하는데, 1941년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농악이라는 범칭으로 보고된 사례가 많았다.

유래 마을 사람들이 지신밟기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자기 마을이나 이웃 마을을 방문하여 의례를 행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공동체 제사의례의 일종으로 세시풍속에 포함된 시기는 상당히 오랜 연원을 지닌다. 형식과 연희 시기는 다소 다르지만 잡귀를 쫓아내고 복을 부르기 위한 의례를 조선시대 민간에서 행하였다는 기록이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2권에 있음을 보아 이전에 이미 원화소복(遠禍召福)을 위한 의례가 민간에도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오청(吳晴)의 『조선의 연중행사(朝鮮の年中行事)』에는 지신밟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는 오늘날의 모습과 일치된다.

내용 지신은 집터와 가정을 지켜주는 신인데, 대문 · 마당 · 장독대 · 뒷간 · 부엌 · 대청마루 · 안방 등의 공간을 지켜주는 신이 따로 있다고 여긴다. 지신밟기는 땅을 밟으면서 잡신을 쫓고 복을 부르는 내용의 덕담과 노래로 하는 의례, 그리고 각각의 신을 위로하려는 뜻으로 하는 풍물놀이로 구성된다. 꽹과리 · 북 · 장구 · 태평소 등의 민속악기로 구성된 풍물을 앞세우고, 소고패 · 양반 · 각시 · 포수 · 머슴 등의 배역이 뒤따른다. 마을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을 위한 당산굿을 비롯하여 공동 우물에서 우물굿을 한 뒤에 마을 사람들 각각의 집을 방문한다. 지신밟기패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신풀이의 고사소리를 하고, 춤과 익살로 놀이판을 벌인다. 이들을 맞이하는 가정에서는 쌀이나 술, 안주 혹은 금전 등을 제물 겸 답례로 준비하며, 일행은 이를 거두어 간다. 매년 같은 시기에 지신을 맞이하여 재앙을 물리치고 축복을 받으려는 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다소 형태적 차이는 있으나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세시풍속이자 마을 공동체의 놀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신밟기는 다른 세시풍속과 병행되는 일이 많다. 봉산탈춤 · 양주별산대놀이 · 북청사자놀음 등에서 본 과장에 앞서 벌어지는 길놀이도 지신밟기와 유사한 의미와 의례적 기능을 지니며, 마을굿에서 무당이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는 걸립굿의 과정에도 유사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지신밟기의 진행 방식이나 축원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진행 방식은 공통적인 순서를 지닌다. 지신밟기를 하는 시기는 대개 정월 대보름 전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농가에서는 할 일이 적고 설의 명절 기분이 남아 있는데다가 새해 들어 첫 만월을 맞이하는 대보름에는 농촌 사람들이 풍년을 고대하며 복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지신밟기를 진행하는 지신밟기패는 지도자격인 상쇠를 비롯하여 솜씨 있는 연희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풍물패 · 걸립패 · 농악대라고도 하며, 지신밟기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행사에도 동원된다.

지신밟기패는 악기나 역할에 따라서 배역 명칭이 정해지는데,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필봉마을의 경우에는 편성 규모가 크다. 대개 영기 · 용기 · 농기 등의 깃발과 나팔 · 태평소 · 꽹과리 · 징 · 장구 · 북 · 소고 등의 악기, 대포수 · 창부 · 조리중 · 양반 · 농구(예비상쇠) · 각시 · 화동 등의 잡색으로 구성되며 40여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10여 명 내외의 소규모로 활동할 수도 있다.

전체적인 진행은 마을 전체를 위한 의례를 한 뒤, 각 집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는 것이다. 먼저 마을의 주산이나 당산에서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분향 재배한 후에 지신풀이를 한다. 부산 지방의 경우, 주산에서 하는 주산지신풀이는 "지신지신 지신아 주산지신을 울리자. 천지현황 생긴 후에 일월성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번성할 제…… 주산성님께 발원이요. 이 동네 가가호호 나갈 때는 반짐



지신밟기(장독굿)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심환근

이고 돌아올 때는 온짐지고 부귀영화 안과태평 점지하여 주옵소서. 어히여루 주산님 만대유전 누리소서.(후렴)"로 시작된다. 당산에서는 당산신을 위하여 고사를 지낸 후에 당산지신풀이를 한다. 마을 수호신에게 고사를 마친 후, 지역에 따라서 우물이나 마을 어귀에서 지신풀이를 한다. 우물에서 하는 고사소리는 고사덕담이라고도 하는데 임실 지역의 경우 "아따 그 물 좋구나. 아들낳고 딸낳고 미역국에 밥 말세." 하며, 부산 지역에서는 "어리루야 지신아 용왕지신 울리자. 동방청제 용왕님 남방적제 용왕님 서방백제 용왕님 북방흑제 용왕님 천년대한 가물음에도 물이나 철렁 실어주소. 구년홍수 가물에도 물이나 청청 맑아주소. 잡귀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라고 한다.

마을 전체를 위한 지신밟기를 한 후에 가가호호를 찾아간다. 각 집을 찾아다니며 하는 지신밟기의 예로 전북 익산 지역의 경우 대문을 들어서서 마당에 이어 부엌과 장독대에서 고사소리를 하고 다시 마당에서 한바탕 놀이를 벌인다. 이 때 둥그렇게 둘러서서 전체놀이를 한 뒤에 개인놀이로 설장고와 법고춤을 춘 다음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 다음 집으로 간다. 청도 지방의 경우, 문굿 · 성주풀이 · 조왕굿 · 장독굿 · 곳간굿 · 마구간굿 · 우물굿 · 대문굿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문굿은 지신밟기패가 대문 앞에서 "주인 양반 문여시요. 나그네 손님 들어간다." 하고 주인을 불러 승낙을 받으면 집으로 들어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몇몇 사람은 마루로 올라가 성주풀이를 시작한다. 성주풀이는 상쇠의 선소리로 성주풀이 사설을 읊는 과정이다. 조왕굿은 부엌(정지)에 들어간 상쇠의 선소리로 고사소리를 한다. 장독굿은 장독대에 가서 상쇠의 선소리로 이 집 장맛이 좋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고사소리를 한다. 곳간굿은 곳간으로 가서 상쇠의 선소리로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풍요롭게 가득하도록 비는 고사소리를 한다. 마구간굿은 마구간에 가서 상쇠의 선소리로 마소가 탈이 나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고사소리를 한다. 우물굿은 우물에 가서 우물이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이 샘솟기를 기원하는 고사소리를 한다. 대문굿은 상쇠의 사설로, 지신밟기패가 집안을 나서기에 앞서 상쇠가 집안을 축복하는 고사소리를 하는 과정이다.

고사소리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양하다. 전남 고흥 지역에서는 우선 마당에서 빙글빙글 돌며 한바탕 춤을 춘 뒤에 각 방, 부엌, 헛간, 누에치는 방 등의 순서로 춤을 추며 돌며 "매구야, 오오 잡귀신은 물러가고 명과 복이 모여들어라, 와라, 오오."라고 한다. 대구 지역에서는 목수가 정성껏 잘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 뜻으로 톱을 당기는 시늉을 하면서 "천년수로 딴겨라 만년수로 딴겨라. 잡신을 휘쫓고 만복 이리오라."고 축원한다.

각 집을 단위로 행해지는 지신밟기 과정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는 상쇠를 비롯한 악사가 중심이 되어 장독대 · 곳간 · 마구간 · 부엌 · 대청마루 · 안방 등에서 고사소리로 축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후반부는 마당에서 풍물로 놀이판을 벌여 기량을 과시하고 잡색이 등장하여 웃음을 유발하며 구경꾼은 이를 즐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서 후반부는 전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후반부에서는 간단한 구성의 판굿을 벌여 구경꾼이 풍물과 촌극을 즐기도록 한다. 장구놀이 · 상쇠놀이 · 법고놀이 · 무동놀이 · 열두발채상 등의 개인기를 자랑하는 대목과 여러 가지 도형으로 노는

〈지신밟기〉
1 조왕굿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2 장독굿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3 마당굿
전북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남윤중


1


2


3

진(陣)놀이로 기예를 자랑한다. 또한 농사풀이 · 도둑잡이 · 수박치기 · 콩동지기 등의 놀이를 곁들이기도 한다.

판굿에서는 풍물의 연희와 더불어 양반 · 각시 · 포수 · 머슴 · 조리중 · 화동 등의 잡색이 쫓고 쫓기는 즉흥적인 익살극으로 가족과 이웃집에서 온 구경꾼을 웃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잡색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밀양 지방의 경우에는 포수와 창부가 부부 사이처럼 친숙하게 재담을 하고, 양반 광대와 각시 광대가 한 쌍이 되어 요염한 춤을 추는 장면 등을 익살스럽게 연희한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신밟기패가 대문으로 들어와서 마당 · 장독대 · 마구간 등 실외에서 의례를 행한 뒤에 부엌 · 마루 · 각 방 등의 순서로 차츰 실내의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 의례를 진행한 뒤, 다시 마당으로 나가 오락적 성격이 강한 놀이판을 벌인 뒤에 주인이 내어놓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제물을 거두어 바깥으로 나가는 형식을 지닌다.

지신밟기패의 활동 범위는 자기 마을에 한정하지 않고 이웃 마을이나 인근의 도시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농한기 이웃 마을에 가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마을 사이의 품앗이가 된다. 이웃 마을에 가서 지신밟기를 하면 이웃 마을의 지신밟기패를 자기 마을에서도 맞이해야 한다. 그러다가 인근의 도시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활동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본격적인 걸립패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어느 절에서 시주를 걷는 명목을 내세우는데, 이를 '절걸립' 이라고 한다. 절과 관계없이 다리를 놓기 위한 비용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는 '다리걸립' , 서당 건립을 위한 '서당걸립' , 나루터 보수 공사를 위한 '나루걸립' 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정월에 한정되지 않으며, 마을의 공터나 각 집을 찾아가서 지신밟기를 하며, 단순한 세시풍속과는 차원이 다른 유랑예인과 유사한 공연형태를 띠게 된다. 이런 걸립패는 지신밟기의 효험을 믿는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며, 뛰어난 기량이 있을 경우에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세시풍속의 한 가지로 하는 지신밟기와 차이가 있다.

의의 지신밟기는 고사소리와 풍물놀이를 통하여 지신을 진정시킴으로써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빌며 마을과 각 집을 축제적 공간이 되게 한다는데 목적을 둔다. 지신밟기패는 공동체에 전승되는 의례와 연희를 매년 반복함으로써 마을의 연희전통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마을의 가가호호에서 연희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또한 각 가정에서 내어 놓은 쌀이나 돈은 공동체의 활동비를 분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집을 방문하도록 순서를 짠다.

참고문헌 | 慵齋叢話,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篇-(文化財管理局, 1972), 神대와 農旗(李輔亨, 韓國文化人類學8, 韓國文化人類學會, 1976), 韓國民俗學論攷(李杜鉉, 學研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걸립의례의 공간구성(박전열, 中央民俗學3, 中央大學校 韓國民俗學研究所, 1991), 방문자의례의 종교적 성격(박전열, 日本研究7, 中央大學校 日本研究所, 1992), 朝鮮의 鄕土娛樂(村山智順 著 · 朴銓烈 譯, 集文堂, 1992), 동제에 있어서 걸립의 문제(박전열, 韓國民俗學34, 韓國民俗學會, 2001).
필자 | 박전열(朴銓烈)

천왕메기(天王—)

정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마을 제당에서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올리는 천왕 제의(天王祭儀).

내용 비산동의 제당(祭堂)은 상당 · 중당 · 하당의 3당 구조이다. 이곳에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정월대보름날 자시(子時)에 제사를 올리며, 새벽 늦게 천왕을 모시고 천왕제(天王祭)를 지냈다. 천왕제를 요란스러운 풍악으로 장시간 지냈기 때문에 원근 주민들은 비산동 제당을 '천왕당' 이란 이름으로 불렀다. 1930년대 손진태(孫晋泰)의 보고에 "대구 근교에 천왕당이 있고, 그 아랫마을의 길을 천왕당거리라고 한다." 했으니 바로 비산동의 천왕당을 가리킨다. 현재의 북비산 네거리 부근에 큰 고목이 있어서 이를 '기천왕' 이라 하고, 현 비산1동 1번지에 '중천왕' 이 있다. 중천왕은 크고 높은 천왕목과 당집, 그리고 돌무더기의 세 가지가 어울려 있었으며 당집 안에는 채색된 신상이 걸려 있다. '말천왕' 은 현 비산3동 중앙 언덕 위치에 역시 큰 고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세 당은 1960년대 이후 도시개발 과정에 차례로 철거되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천왕제 행사는 '중천왕' 당집에서 올리는 제의인데 제사 후에





〈천왕메기〉
1 풍물패 이동
2 천왕당 제사 준비
3 천왕당 제사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대구천왕메기보존회

풍물꾼이 지신풀이를 요란하게 울림으로써 '천왕님을 먹이는' 일련의 제의가 벌어지는 것이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약 400년 전 대구 지방에서 여러 해 계속되는 가뭄에 돌림병까지 만연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 민심이 흉흉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중당(중천왕)인 고목 앞에 흙으로 당집을 짓고 치성을 드렸다 한다. 그 후로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 당집 옆에 돌을 한 개씩 던지는 것을 천왕에 대한 치성으로 알게 되었다.

해마다 정초 3일이 되면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천왕메기'에 대한 경비나 준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세 명의 제관을 선정한다. 보름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제관들이 천왕당에 올라가 대내림하고 제사를 지낸다. 제상(祭床)에 돼지머리와 삼실과, 백설기를 진설하고, 축문을 읽고 술 석 잔을 올리며 큰절 한 번, 작은 절을 세 번 한다.

제사가 끝날 무렵에 마을의 풍물꾼들이 깨끗한 정장으로 '질굿'을 치면서 천왕당으로 올라간다. 당집 문 앞에 이르러 문굿을 치며 상쇠가 문굿 고사를 왼다. 그리고는 전원이 당집 앞까지 나아가 꿇어 앉으면 제관이 의례를 집전하고, 축관이 독축하는데 마지막 '상향' 소리에 맞추어 천왕메기굿을 친다. 흥겨운 살풀이장단에 맞춰 산과 물과 나무 등 만신에게 예를 갖추고, 천왕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곧 상쇠가 천왕메기 사설을 외면 이어 풍물을 치는데, 이 풍물이 천왕당에 대한 지신풀이로 마을의 모든 병고와 액을 쫓기를 축원하는 것이다.

① 천왕문굿 사설: 소지하니 황금출이요 개문하니 만복래라 생기복덕 날을받아 대문장군 모시거든 천석재수 들어오고 만석재수 왕래할때 손자액살 막아놓고 사업재수 많이주소 천상에는 옥황대문 수궁에는 용궁대문 우리나라 사대문은 남대문이 제일이요 진시왕의 만리성문 운장마초 지문이라 늙을로자 황천문이요 나라충신 옥문인데 우리인생 말문이요 이집에는 출입대문 초가대문 와가대문 열두대문 높이달아 만리장성 울을삼고 솟을대문 각기달아 우리나라 좋은국가 반달같이 기린대문 일년삼백 육십오일 당산도량 밝혀내자.

② 천왕메기 사설: 높은산에 정기빌고 낮은산에 비손하고 산도악산 높은산은 산신제를 지내주고 물이라도 개천수면 용왕제를 지내주고 나무라도 고목이면 목신제를 지내주고 거룩하신 천왕전에 천왕제를 지내려고 목욕재계 정히하고 청정예복 갈아입고 천장만장 장을보아 만반진수를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왕님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 비나이다. 동서남북 다다녀도 소원성취 비나이다. 모든 질병 돌적에는 약풀베어 치료하고 흉년도는 세상에는 쌀이되어 구제하소 잡귀야 잡신은 물알로 가고 만복수복을 점지하소.

③ 지신풀이 사설: 남산은 봉이요 주산은 당산이라 안강은 강이요 여산은 도읍이라 천간이 착하시니 하늘이 생기시고 지복이 착하시니 땅이 생기셨네 인호 술상하니 사람이 생기셨네 그때 그시절에 동방문이 열리시고 그때 그시절에 서방문도 열리셨네 남방문도 열리시고 북방문도 열리셨네 오구제석 천왕문이 사방으로 열리셨네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라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임진강이 둘러있고 강원도라 금강산은 해금강이 둘러있고 경기도라 삼각산은 한강수가 둘러있네 충청도라 계룡산은 공주금강 둘러있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네 전라도라 지리산은 용림수가 둘러있네 제주도라 한라산은 사면바다 둘러있네 맥이맥

이 성황님네 봉봉이 성황님네 앞도당산 천왕님네 뒷도당산 천왕님네 골골마다 천왕님네 자리잡던 천왕님네 이승한생 고행중에 지극정성 이중생은 오늘날 이 자리에 맑은정신 가다듬어 대자대비 신통자재 거룩하신 천왕님께 한많은 모든포부 애원발원 하나이다 해와달이 천만산을 차별없이 비추지만 그중에서 높은산을 제일먼저 비추듯이 천왕님의 신력으로 중생차별 없사오니 지극정성 급한 중생 제일먼저 구원하사 천만소원 성취시켜 안락하게 하옵소서 이마음에 어두움이 그믐밤과 같사오니 천왕님의 은덕으로 일월같이 비추소서 어느 때나 밝고밝아 무명어둠 없게하고 이마음에 쌓인 죄가 엄동설한 눈같으니 봄바람 부슬비로 부드럽게 녹여지고 화화 초초 선명하듯 화창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왕님전 비나이다 이고을 많은 인생 소원성취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왕님전 비나이다 이고을 많은 인생 가뭄에서 벗어나고 모진질병 들어올때 천왕님이 막아주소 천만가지 성취시켜 안락하게 하옵소서.

지신풀이가 끝나면 천왕당 앞에서 또 흥겨운 굿판이 벌어지고 곧 당집을 한 바퀴 돌고는 상당인 기천왕과 하당인 말천왕 앞까지 가서 한판 굿을 친다. 이것이 천왕놀이이다. 이 모든 절차는 대체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을굿으로 이어진다. 마을굿은 정적궁이, 반짓굿, 엎어빼기, 다드래기, 허허굿, 오방진, 모듬굿, 살풀이, 개인놀이, 덧배기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의의 천왕당은 고려 중기에 성황(城隍)신앙이 유입되기 이전부터 있어 온 우리나라의 독특한 민간신앙이다. 비산동 사람들은 매년 천왕을 모시고 위무·환대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과태평(安過太平)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천왕메기는 천왕제 중의 오신행위(娛神行爲)로 음향에 가락을 조밀하게 넣어 울리므로써 천신을 달래고 즐긴다는 인간 태초의 심성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천왕당은 없어졌으나 민족이 오랫동안 유지·계승하여 온 천왕메기를 전통예술로 인정, 1989년 6월 15일 시도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하여 전승하고 있다.

참고문헌 |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김택규, 대구광역시, 1989).

필자 | 성병희(成柄禧)

청양정산동화제(靑陽定山洞火祭)

정의 충청남도 청양군 일대에서 마을의 무병과 행운을 기원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 정산면, 대치면, 남양면 등지에서 음력 정월 열나흗날 밤에 마을 주민들이 나무를 쌓아 불을 붙여놓고 제사를 지낸다. '동화센다.' 라고도 하는데 동화를 세우다, 즉 일으킨다는 의미로 불려지고 있다.

내용 정산면 남천리의 새울 동화제는 유사가 제관을 맡아 지내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을 청년들이 제장(祭場)과 개울을 청소하고 제례에 사용할 짚을 꼬아 동화세우기를 준비한다. 한가운데 세울 나무는 6~7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고줏대' 라 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집에서 준비한다. 고줏대 옆에 받쳐줄 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예전에는 각 집마다 나뭇짐을 마련하여 대문 앞에 내놓으면 거둬갔다고 한다. 나무를 하러 갈 때에 제주(祭主)는 참여하지 않는다. 새끼줄 다섯 가닥을 일정 간격으로 놓고 그 위에 나무를 골고루 펴서 덮는다. 고줏대를 세울 때에는 다른 새끼줄로 연결하는데 이 줄을 '장조리' 라 한다. 고줏대와 나뭇짐을 묶어 동화대를 세운다. 고줏대 가운데 불붙일 곳은 짚을 넣어둔다.

불을 붙이면 제의가 시작되는데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나 총각이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



청양정산동화제
충남 청양군 김영환

다. 첫 잔은 동화대에 붓고 재배를 올리며 축문을 읽고 나면 풍물을 치고 다시 재배한 후에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하기도 하는데 부인이나 아이들도 참여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과실, 백무리떡, 명태포, 쌀 등을 사용한다. 정산면 송학리 하송마을에서는 돼지머리만을 사용한다.

제의가 끝날 무렵엔 불이 거의 타고 동화대가 넘어지게 마련인데 동화대가 넘어지는 쪽의 마을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제례 후 마을 사람들은 음복을 하고 농악에 맞춰 춤을 추며 논다. 불이 거의 다 탈 무렵이면 마을 사람들은 활대에 불을 붙여 횃불싸움을 하기도 하며 아이들은 쥐불놀이를 한다. 또는 논둑을 태우며 두레싸움을 하기도 한다. 횃불싸움에서 진 쪽이 술을 사기도 한다.

인접국가사례 일본에서도 정월 대보름 행사로 정초에 각 집 앞에 장식했던 소나무를 모아 쌓아놓고 신사(神社)나 강변에서 불을 지른다. 때로는 높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짚으로 덮어 움집을 만들고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가 떡이나 쌀을 먹은 후에 이 집을 태우기도 한다. 불을 쬐면 건강해진다든지 떡을 구워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대보름에 불을 지르는 것은 해충과 재액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대보름에 폭죽행사를 하는데 여러 민족이 불과 관련된 행사를 대보름에 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고문헌 | 내고장 청양(청양군, 1981), 靑陽의 民間信仰(任東權, 七甲文化12, 靑陽文化院, 2002).

필자 | 임장혁(任章赫)

해동화(解凍火, 解凍禍)

⇨ 달집태우기

화간(禾竿)

⇨ 볏가릿대세우기

화반(花盤)

정의 제주도에서 당굿을 하기 전 보름 동안 당을 맨 심방을 중심으로 마을을 돌며 당굿을 할 기금을 마련하는 걸궁. 마을을 돌며 사고가 잦은 지역 삼도전거리(세거리)에서 부정과 액을 막는 걸궁패의 거릿제 또는 거리도청제를 말한다.

화반은 보통 제주 사람들이 통칭하는 거리굿 걸궁이 이두식으로 기록되어 문헌에 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화(花)는 곳 · 굿, 반(盤)은 돌다의 명사형 돎 · 돌기가 되어, 굿돎 또는 굿돌기로 풀이된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기록에 보면,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격(巫覡)이 신독(神纛)을 받들고 나희(儺戲)를 행한다. 징과 북을 울리며 안내하여 동네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돈을 내놓으며 굿을 한다. 이것을 화반(花盤)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정월의 당굿은 보통 13, 14, 15일에 한다. 때문에 심방이 독기(纛旗)를 들고 나희를 연행했다는 것은 걸궁패가 집집마다 문굿을 해 주고 집안을 돌며 쇠소리를 내어 잡귀를 막고, 마을의 중심에 오면 굿놀이를 하여 잡귀를 쫓는 거릿제를 행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거리도청제는 마을굿과 함께 행해졌다. 나례(儺禮)가 관청에서 주관하여 행하던 악귀를 쫓는 의식이라면 나희는 민간인들이 주관하여 행하던 악귀를 쫓는 거리굿이며 당굿이다. 옛날의 나희는 거리굿과 당굿으로 구성되었으나 지금은 당굿에서 거리굿은 하지 않는다. 거리굿은 마을의 연희패인 걸궁패가 집집마다 악귀를 쫓는 문굿을 해 주고 당굿의 제비(祭費)를 마련하는 걸립(乞粒)이었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걸궁패는 마을의 관혼상제와 마을의 당굿 모금, 만선제 풍어굿 등을 담당하는 두레패 연희집단이었다. 걸궁패에는 심방 2~3인이 접원으로 끼어 있어, 거리굿이나 만선의 풍어굿을 쳐 주었고, 걸궁패의 춤과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오늘날 각 마을의 걸궁패는 일정한 '계'나 '접'의 형태로 존속되지 않고, 과거의 전승 걸궁패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제주도 걸궁의 원형이 무엇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화반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김태보 씨의 증언이 남아서 그 당시 건입동 걸궁패의 활동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증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걸궁패는 '계'나 '접'의 형태로 30~50명으로 구성된 두레패 연희집단으로 계승되어 왔다.

② 걸궁패에는 심방이 2~3명 계원으로 끼어 있어서 걸궁할 때 거릿제나 만선의 풍어제에 자연스럽게 기원 · 축하의 굿을 쳐 줄 수 있었다.

③ 심방은 계원들에게 춤과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기도 했다.
④ 걸궁패는 칠머리당 영등굿을 위하여 굿 보름 전날부터 보름 동안 독을 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거두어 굿의 경비에 충당하였다.
⑤ 쌀을 거두는 사람으로 전대 3명을 두었는데, 그들은 보리 · 조 · 콩 하나씩을 맡아 전대에 받았다.
⑥ 어선이 만선되어 돌아올 때, 양푼을 치는 것을 신호로 소집되었고, 그 때마다 풍어를 축하하는 놀이판을 만들어 주었다.
⑦ 걸궁패의 주 배역은 악사를 빼고 구대진사, 신랑각시, 포졸과 죄인, 꿩바치(사냥꾼) 등이 있었다.
⑧ 건입동 걸궁은 오래되었으나 남아 있는 기록이나 접의 좌목이 전하지 않는다.

의의 화반은 심방을 비롯한 마을의 걸궁패(두레연희패)가 당굿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쇠소리를 내어 문굿을 해 주고, 사고가 잦은 길가에서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고 거리도 청제를 해 주던 걸궁으로 정월 당굿의 한 대목을 이루었던 풍속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花盤考(玄容駿, 韓國民俗學9, 民俗學會, 1976),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문무병(文武秉)

화적(禾積)

☞ 볏가릿대세우기

가랫불놓기

☞ 댓불놓기

가마니놓기

☞ 적선(積善)

가수(嫁樹)

정의 정월 초하룻날이나 대보름날에 과일나무의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둠으로써 그 해에 과실(果實)이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풍속. 나무 시집보내기, 나무 장가보내기라고도 하며 전국적으로 행해져 온 풍속이다.

내용 조선시대 김려(金鑢)의 『담정유고(薝庭遺藁)』 '상원리곡(上元俚曲)' 에 "지방 풍속에 닭이 울 때 돌 조각을 과일나무의 갈라진 두 가지 사이에 끼워 놓는 것을 가수(稼樹)라고 하며,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상원조(上元條)에 나무 시집보내기는 섣달 그믐날 밤 · 설날 · 정월 보름날 가운데 어느 날 해도 좋으며, 이러한 풍속이 유종본(兪宗本)의 『종과소(種果疏)』와 진호(陳澔)의 『화력신재(花曆新栽)』에서 비롯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시집보내는 대상으로 중국의 『농정전서(農政全書)』는 "오직 오얏나무만이 이 법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세시풍요(歲時風謠)』와 '상원리곡' 을 통해 오얏나무뿐만 아니라 복숭아나무 · 살구나무 · 매화나무에도 가수를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추나무 · 밤나무 · 감나무 · 석류나무 등 모든 유실수(有實樹)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무를 시집보내는 방법은 가지 사이에 돌을 끼우는 형태가 일반적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나뭇가지에 오곡밥을 끼우거나 만두를 꽂기도 하고, 도끼로 나무를 찍는 시늉을 하면서 "올해 열매 안 열리면 내년에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과실이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의의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는 '상원리곡' 에 "기와와 조약돌 전날 밤에 모아다가 닭 울 때 갈라진 가지에 끼워 과일나무 시집보내네. 해마다 늙은 살구나무 새신랑을 맞지마는 사주에도 없는 자식을 낸들 어찌하리요."라고 하였듯이 남녀가 혼인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행위를 모방하여 과실의 풍년을 기원한 것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農家十二月俗詩, 薝庭遺藁, 陶厓詩集,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朝鮮歲時記, 閨閣叢書(憑虛閣李氏著 · 鄭良婉 譯, 보진재, 1975),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종태(金鍾泰)

개펄훔치기

☞ 복토훔치기(福土—)

걸탄거두기

☞ 걸판거두기

걸판거두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실외에 차린 음식상인 걸판을 거둬 먹는 전남의 풍속. 걸판은 걸반 혹은 거루판이라고 하고 걸판거두기 풍속은 다른 말로 걸판가져다먹기 · 걸판걷기 · 걸판먹기라고도 한다.

내용 걸판은 주로 차례를 지낼 때 성주 이외에 여러 곳에 설반(設飯)하는데, 걸판을 하는 이유는 일종의 질병이나 재앙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보통 이 걸판을 놓을 곳에는 한 줌 정도의 짚을 놓되 그 짚의 끝은 집 입구를 향하게 하고, 놓을 밥은 광주리 등에 담아 그 위에 놓아 둔다.

지역사례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의 경우는 도마 위에 밥과 나물 등을 얹어 집 입구에 차려 놓는다. 이렇게 차려진 걸판은 동네 아이들이 거두러 다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걸판을 걷어다가 집에서 그것을 먹는다. 이것을 비빔밥 식으로 섞어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함께 먹기도 한다. 걸판을 걷어다가 먹으면 일년 동안 무병하고 몸에 좋다고 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이 걸판의 밥을 먹으면 평소에 무서움을 타지 않는다고 한다. 전남 목포시 삼향동 내화촌의 경우는 걸판먹기의 풍속이 있는데, 차례를 지내고 나면 '들판' 혹은 '걸판'이라고 하여 나무판자에 밥 · 나물 · 식혜 등을 차려 대문 앞에 내어 놓는다. 이는 자기 집 혹은 마을에서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걷어 샘에 가서 밤새 샘물을 지키면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데, 걸판에 있는 밥을 먹을 때에는 손으로 집어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야 그 해 병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동삼인마을에서도 대보름날에 젊은 사람들이 걸판을 걷으러 가는데, 이 때 시루째 훔쳐가서 먹는 사람도 있다. 이 밥을 훔쳐서 먹으면 그 해에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1구에서는 보름날 저녁에 밥과 나물을 바깥에 차려 놓고 그것을 걸판이라고 한다. 걸판을 먹으면 기(氣)와 복(福)이 들어오고 잡귀를 쫓아낸다고 하여 주로 동네 아이들이 가져다 먹는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약산도에서는 그 명칭이 걸탄이라고 하여 '걸탄거두기'가 행해지고 있다.

의의 이 풍속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나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보이는 백가반(百家飯)의 풍속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백가반을 얻어다 먹으면 아이들의 몸에 좋다고 생각했고, 여름에도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여겼다. 혹은 정월 대보름의 지신밟기 연장선상에서 밥을 차려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것과도 유사한 풍속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助藥島의 歲時風俗 資料(허경회, 島嶼文化1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4), 古今島의 歲時風俗 資料(허경회, 島嶼文化1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5),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최명림(崔明林)



걸판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고래실봉답윷놀이

⇨ 윷점[柶占]

과일나무가지에 돌끼우기

⇨ 가수(嫁樹)

귀밝이술

정의 및 명칭 음력 정월 대보름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귀가 밝아지라고 마시는 술. 한글로는 귀밝이

술이라 하며, 한자어로는 이명주(耳明酒)·명이주(明耳酒)·유롱주(牖聾酒)·치롱주(治聾酒)·이총주(耳聰酒) 등으로 부른다.

유래 및 변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청주 한 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그 해 일년 동안 즐거운 소식을 듣는다고 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한자어로 유롱주라고 했으며, 중국의 『해록쇄사(海錄碎事)』에 나오는 치롱주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김안국(金安國)은 『모재집(慕齋集)』에서 상원절에 이천(利川)의 류희령(柳希齡)에게 찹쌀과 술을 선물로 보냈다고 하면서, 찹쌀은 신라 때부터 유래한 까마귀 전설과 관련된 약밥을 짓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마도 보내준 술은 귀밝이술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희일(趙希逸)은 『죽음집(竹陰集)』에서 상원에 치롱일배주(治聾一杯酒)를 홀로 마시는 감회를 시로 적었다. 고상안(高尙顔) 역시 『태촌집(泰村集)』에서 상원일에 친구가 술을 보내 와서 감사하게 마시면서 치롱을 해 보려 하였지만, 귀머거리는 더욱 심하여 취해 자면서도 천둥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시로 읊었다. 즉, 치롱(治聾)은 성리학의 도학(道學)과 관련된 것으로 세상의 번잡함 중에서도 도리를 옳게 들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다. 이것이 민간에 전해져서 귀밝이술로 전승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귀밝이술을 도소주(屠蘇酒)와 혼동하여 부르는 경우도 있다. 도소주는 중국의 신화적인 한의사인 후한(後漢)의 화타(華陀)가 만들었다고도 하고, 당나라 사람 손사막(孫思邈)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도 한다. 보통 산초(山椒)·방풍(防風)·도라지·밀감 껍질·계피 등을 섞어서 만든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반드시 이들 재료로 도소주를 만들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단(元旦)에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마셨던 청주를 도소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및 특징 일반적으로 정월 대보름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귀밝이술을 마시며, 남자 어른부터 남자아이, 여자 어른 그리고 여자아이까지 모두 마신다. 그러나 아이들은 입술에 술을 묻혀만 주고 마신 것으로 친다. 귀밝이술을 마실 때 어른들은 "귀 밝아라, 눈 밝아라." 하고 덕담을 한다. 평소에는 함께 술자리를 하기 어려웠던 부자지간에도 귀밝이술을 함께 마신다. 비록 지금은 술을 공장에서 만들고 그것을 상점에서 구입하여 귀밝이술을 마실 수밖에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귀밝이술뿐만 아니라 모든 술을 집에서 담갔다. 대체로 제주(祭酒)와 귀밝이술로 청주(淸酒)를 쓴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총재하(冢宰下) 주정(酒正)에서는 청주를 '제사지주(祭祀之酒)'라고 하였다. 보통 귀밝이술로 청주를 사용하는 것은 정조차례(正朝茶禮)에 올린 제주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귀밝이술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지역사례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는 귀밝이를 하고 남은 술을 굴뚝에 붓는다. 귀밝이술을 굴뚝에 붓는 이유는 몸에 부스럼이 나지 말고 만약 생겨도 연기처럼 없어지라는 기원 때문이다. 강원도 인제와 횡성 일대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귀밝이술을 먹으면 남자들이 마을 아닌 곳에 가서도 좋은 소리 듣는다고 여긴다. 평창 일대에서 남자들은 정월 대보름날 귀밝이술을 자신의 집에서 마시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마신다. 남의 집의 귀밝이술을 얻어 마시면 귀가 빨리 열려 남의 얘기를 잘 듣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의의 귀밝이술 풍속은 제화초복(除禍招福)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청주를 마실 때 보통 더운 물에 술 국자를 넣고 중탕(重湯)을 해서 마셨는데, 귀밝이술은 데우지 않고 차게 마신다는 점에서 보통 때 마시는 청주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귀밝이술을 차게 해서 마시는 이유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주영하(周永河)

기세우기(旗—)

⇨ 상낭태우기

까마귀밥주기

⇨ 까치밥주기

까치밥주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까치에게 밥을 주는 풍속. 지역에 따라 까치를 까마귀로 인식하기도 하여 까치밥주기를 '까마귀밥주기'라 하기도 한다. 까치밥 혹은 까마귀밥은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까치나 까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소쿠리에 담아 처마 끝이나 장독대 혹은 담장 위에 놓아 두는 밥이다.

유래 및 내용 까치밥 혹은 까마귀밥으로는 대개 약식(藥食)을 만든다. 문헌에 의하면 이것을 가지고 까마귀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이를 '까마귀제'라고 한다. 까마귀제의 유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사금갑조(射琴匣條)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 21대 소지왕이 정월 대보름날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했을 때, 갑자기 날아온 까마귀가 왕을 위험으로부터 일깨워 주었으므로 그 때부터 정월 대보름이면 까마귀를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풍속에 보름날을 까마귀 제사날로 삼아 보답하는 의미로 찰밥(약밥)을 만들어 까마귀에게 제사지내게 되었다.

지역사례 까치밥주기 풍속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같은 풍속일지라도 지방에 따라 지내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다르게 나타난다.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심곡마을에서는 보름날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은 다음 찰밥과 나물을 그릇에 담아 지붕 위에 놓아 둔다. 그러면 까마귀나 까치가 와서 먹고 이 때에 까마귀나 까치가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를 살펴서 그 해에 어느 것이 풍년이 들고 어느 것이 흉년이 드는가를 점치기도 한다.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왕림마을에서는 일년 열두 달 적덕하라고 까막까치에게 밥을 주는데 이것은 일종의 액막이이다.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검정골 마을에서는 '오곡밥 나무 위에 올려놓기'라 하여 까치밥주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렇게 새에게 오곡밥을 먹여야 병충해가 없어진다고 한다. 하남시 감일동에서는 오곡밥을 먹기 전에 까치밥을 주는 집이 종종 있다. 까치는 길조라고 여겼기 때문에 까치를 위해 준다고 깨끗한 쟁반이나 그릇을 광주리에 얹어서 새가 잘 앉는 높은 곳에 놓아 주면 까치가 와서 먹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광명시 소하2동 작은말에서도 보름날 아침을 먹기 전에 까치밥부터 먼저 장독에 갖다 놓고 일년 동안 재수있게 해달라고 길조인 까치에게 밥을 준다고 한다.

경북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에서도 보름날 짚에 밥을 싸서 담장(담만대기) 위에 얹어 놓는데 이를 '까치밥을 준다.' 고 한다. 자인면 원당리에서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얻어온 밥 일부를 짚으로 만든 오쟁이에 담아서 담장 위에 올려두는데 이 밥을 까치가 주워 먹고 들이나 산 위에 똥을 싸서 땅이 기름지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전남의 경우, 약밥 대신에 오곡밥을 내놓는데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에서는 오곡밥을 소쿠리에 담아 처마 끝이나 담장 위에 놓아 두고 까마귀 밥준다고 한다. 까마귀가 와서 먹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고 믿기도 하며, 쌀을 많이 먹으면 논농사가 잘된다고 믿고 콩을 많이 먹으면 밭농사가 잘된다고 믿기





1 까치밥준비
2 까치밥주기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운곡마을
남윤중

도 한다. 한편, 까치밥주기라고도 하여 절구통 위에 밥 세 그릇을 두고 까치가 먹기를 바란다. 완도군 장좌리에서는 낮에 지은 찰밥을 장독이나 담장 위에 올려 놓는다. 장흥군 장평면 어곡리 어곡마을에서는 까치에게 밥준다고 오장치나 소쿠리에 오곡밥을 담아서 집 앞의 나무와 지붕에 놓아 둔다. 여러 곡식의 밥을 놓아둔 가운데 먼저 다 먹은 곡식의 농사가 잘된다고 믿고 농사 준비를 하기도 한다. 나주에서는 정월 대보름 새벽이나 아침에 바구니에 밥·나물 등 장만한 음식의 여러 가지를 담아서 집안의 땔감을 놓는 높은 곳이나 닭장 혹은 돼지우리 위에 올려 놓는다. 이는 까치가 영물이라고 하는 길조로 보기 때문이며 정월이면 먹을 것이 없는 짐승들에게 보름날이라도 나누어 먹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집안의 아녀자들이 대부분 베를 짜는데 널어 놓은 명주를 찢지 말라는 당부의 뜻으로 까치에게 밥을 준다고도 한다.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덕동마을에서는 밥을 길거리에 놓아두는데, 이것은 항상 까치가 자기 집에서 울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다. 고흥군 도양읍 관리 수동마을에서는 소쿠리나 어레미에 찰밥을 담아 울타리나 집안 곳곳에 놓아 두어 까치가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발산마을에서는 대보름뿐 아니라 설에도 접시에 제물 일부를 담아서 문 밖에 놓는다. 그러면 까치를 비롯한 여러 짐승들이 와서 먹고 간다고 한다. 이 때 까치 등이 무엇을 주로 먹었는지 보아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송도마을에서는 대보름날 아침에 밥을 떼어서 집 주위나 텃밭에 뿌리는데 이를 '까치밥주기' 혹은 '텃밥주기'라고 한다.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영당마을에서는 밥과 나물을 바가지에 담아 대문 앞에 놓아두는데 보름날 까치밥을 주어 대접함으로써 까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에서이다. 또 칠석날 까치가 오작교를 놓느라 수고했다고 대접해 주는 것이라고도 한다.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중대마을에서는 김으로 싼 밥을 체에 담아서 집 밖에 놓아두기도 하고,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용호마을에서는 장독대나 울타리 위에 밥과 나물 등을 담은 바구니를 올려놓아 까치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전북의 경우,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종평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찰밥을 해 먹고 그것을 까마귀가 먹으라고 밖에다 내버린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마전마을에서는 약밥이나 밥을 까마귀나 까치가 먹으라고 내놓으며,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운곡마을과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동하마을에서는 밥을 지어 물에 말고 거기에 고기도 조금씩 떼어 놓아서 집 밖의 깨끗한 곳에 갖다 놓으면 까막까치가 와서 먹는데 이것을 '물밥'이라고도 한다. 익산에서는 마당에 밥과 나물을 놓고 까막까치가 무엇을 먹는가를 분간한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원심곡마을에서는 보름에 찰밥을 먹고 반찬도 여러 가지 장만하여 갖다 버린다.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장촌마을에서는 떡국을 하면 떡을 건져내어 나무 위에 얹어 둔다. 이것은 까그매(까마귀)와 까치 등 날짐승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날짐승이 떡을 먹으면 액을 가져간 것으로 여긴다. 충남 금산군 군북면 헌대리 두두리마을에서도 찰밥을 나무 위에 조금씩 놓아 두고 까마귀와 까치가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의의 까치나 까마귀에게 밥을 주는 풍속이 행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삼국유사』 사금갑조에 근거해서 까치나 까마귀를 대접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까치나 까마귀를 농사에 피해를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밥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농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大觀 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助藥島의 歲時風俗 資料(허경회, 島嶼文化1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4), 古今島의 歲時風俗 資料(허경회, 島嶼文化1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5),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최명림(崔明林)

꼬막먹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꼬막을 먹거나 꼬막의 상태를 보고서 그 해 풍년을 기원하거나 예견(豫見)하는 풍속.

내용 주로 전남 화순과 고흥 등지에서 그 사례가 찾아지는데, 화순에서는 열나흗날 밤이나 대보름날에 꼬막을 먹으면 나락이 잘 여문다고 해서 꼭 먹는다. 고흥에서는 대보름날에 꼬막을 까서 먹는데, 이 때 꼬막의 여문 상태를 보고서 그 해 벼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신안에서는 꼬막 대신 보름날 아침 바다에 나가 뻘게(펄에서 사는 게)를 잡아먹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해 곡식이 잘 여문다고 하여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꼬막 먹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자연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된다. 고흥은 꼬막을 비롯한 해산물을 수확하는 해안 지역으로, 해산물이 잘 되면 육지의 농산물도 잘 된다고 믿기 때문에 꼬막의 여문 상태를 보고서 그 해 벼농사의 여부를 미루어 짐작한다.

의의 전남 화순은 내륙 산간 지역으로 이 곳에서도 꼬막을 먹는 것은 그만큼 해산물이 잘 되었다는 의미가 되며, 해산물이 잘 되면 벼농사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꼬막을 꼭 먹어야 나락도 잘 되리라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모두가 풍년을 염원하는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뜻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꿩알줍기

정의 정월 열나흗날 또는 대보름날에 꿩알을 주우면 그 해 풍년이 들거나 운수가 좋다고 믿는 풍속. '꿩알얻기' 라고도 한다.

내용 경북 영덕에서는 직접 꿩알을 주우러 나간다고 하며, 충남 당진군에서는 열나흗날 저녁에 오곡밥의 누룽지를 안고 자면 그 해 꿩알을 많이 줍는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경남 밀양에서는 입춘날 보리밭에 꿩알을 주우러 가는 풍속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월에 꿩알을 줍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꿩의 산란기가 양력 4월에서 7월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속이 생긴 이유는 꿩의 둥지가 가진 풍요의 상징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꿩은 대개 8개에서 20개의 많은 알을 낳는데 그것이 담긴 둥지는 풍요의 의미로 여겨진다. 그래서 꿩알을 줍는다는 것은 평소에도 길조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때 꿩알줍기는 정월 열나흗날과 대보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기복의 풍속과 연관되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오세길(吳世吉)

나무그림자점

정의 정월 대보름날 밝은 달이 떴을 때 사람 키만한 나무를 마당 가운데에 세워 놓고 그 나무에 비치는 그림자 길이로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풍농점.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상원조(上元條)에는 "그림자가 여덟 치가 되면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 대풍이 들고, 일곱 치나 여섯 치가 되면 대체로 모든 것이 좋다. 그러나 다섯 치가 되면 좋지 않으며, 네 치가 되면 수해와 해충이 성행하고, 세 치면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 고 하였다.

중국의 『화력신재(花曆新栽)』에는 목영점(木影占)이라 하여 "대보름날 밤 한 길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 놓고 자정 때 달에 비쳐 생긴 그림자가 6~7척 되면 풍년이 들고 8~9척 되면 수해가 나며, 3~5척이면 반드시 가뭄이 든다." 고 하였다. 『동국세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나무그림자점 풍속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그림자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림자의 길이가 짧을수록 좋지 않고 길수록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용 정월이면 한 해의 풍흉을 점쳐 보는데, 나무그림자점은 정월 대보름날 밤 자정 무렵 달에 비친 나무막대 그림자의 길이를 재어 그 길이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다. 대개 그림자의 길이가 길면 풍농으로 판정하고 길이가 짧으면 흉농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그림자의 길이에 따른 점사의 기준이 서로 많이 달라 어느 것이 먼저인지 가려내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花曆新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필자 | 이정재(李丁宰)

나무시집보내기

⇨ 가수(嫁樹)

나무 아홉 짐하고 밥 아홉 번 먹기

정의 및 명칭 9라는 숫자를 매개로 하여 밥을 먹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행위를 아홉 번씩 하는 정월 대보름의 풍속. 정월 대보름에는 밥을 아홉 번 먹는 행동 이외에도 나무를 아홉 번 하기도 한다. 이것을 가리켜 아홉 번 행동하기 · 상원밥 아홉 그릇 혹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나무하고 밥 먹는 것을 일러 나무 아홉 짐하고 밥 아홉 번 먹기라고 부른다.

내용 정월 대보름에는 밥을 아홉 그릇 먹고, 나무를 아홉 짐 하며, 나물을 아홉 바구니 캐는 풍속이 있다. 이것은 9라는 수를 매개로 하여 밥을 아홉 그릇 먹거나 나무를 아홉 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월 대보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홉 번 해야 좋다고 생각한다. 밥은 열두 그릇을 먹기도 한다. 또한 나무를 아홉 짐 하기도 하지만 열두 짐을 하기도 하며, 나물을 아홉 바구니 하거나, 삼을 아홉 바구니 하기도 한다. 심지어 책을 아홉 번 읽기도 하고, 매를 아홉 번 맞기도 하는데, 이렇듯 무슨 일이든 아홉 번을 하면 한 해 동안 기운을 내서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밥의 경우, 정월 대보름이라는 특성에 따라 찰밥을 먹기도 하고 오곡밥을 먹기도 한다. 보통 보름밥 · 농사밥이라고 칭한다.

지역사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 도채동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밥을 먹거나 일을 할 때 모두 아홉 번씩 하는데 오곡밥도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세 그릇씩 아홉 그릇을 먹는다. 남자들은 나무도 아홉 짐을 하고 여자들은 삼을 아홉 광주리 삼는데 이 날 모든 일을 아홉 번씩 하듯이 일년 간 부지런하라는 뜻이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1리 사래울마을에서는 14일을 여름날이라 하고 이 날은 일하는 날이라고 하여 밥 아홉 그릇을 먹고 나무도 아홉 짐 하며 삼도 아홉 광주리를 삼는다.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능촌과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수양3리의 경우는 정월 열나흗날 아침 일찍 오곡밥을 지어 먹고 열두 번 행동하는데 밥도 열두 번 먹고, 땔나무도 열두 짐 하여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의상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은 오곡밥을 아홉 번 먹고 나무 아홉 짐을 지고 씨래질(마당쓸기, 집안 청소)을 아홉 번 하는 날이라고 한다. 시흥시 신현동 포동 새우개에서는 열나흗날에 오곡밥도 아홉 번 먹고 나무도 아홉 번 해야 하는데 말이 그렇지 아홉 번씩 밥 먹고 나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9라는 숫자는 일상에서 가장 큰 수로 많다는 뜻으로 이 날 아홉 번씩 행동함으로써 풍년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군포시 대야동 속달마을 납덕골에서는 청소도 열두 번 하라고 하고 이웃집을 들락거리며 밥도 얻어 먹어 일년 간 부지런히 살라고 한다.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죽림마을과 일운면 망치리 양화마을에서도 모든 행동을 아홉 번 하지만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내삼마을에서는 열두 번 행한다.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에서는 밥을 아홉 번 먹고 나무를 아홉 짐 하는데 그만큼 부지런히 일하고 많이 먹으라는 말로, 실제 대보름에 먹는 밥은 찰밥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기 힘들어 조금씩 먹되 하루 종일 먹으라고 하는 말이다. 진해시 운동 남양리 갈밭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홉 그릇의 밥과 나물을 얻어 먹기도 한다. 경북 달성군 하빈면 묘2리와 구미시 해평면 문량2리에서는 열나흗날에 청어 아홉 마리 사오고 나무 아홉 짐을 해온다는 말이 있다. 보름에 찰밥을 아홉 번 먹으면 그 해에 좋다고 한다.

전남 광양이나 목포, 순천, 여수, 곡성, 구례, 무안, 보성, 영광, 장성, 진도, 함평, 화순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월 대보름날 모든 일을 아홉 번 행하고 있지만, 고흥군 도양읍 관리 수동마을에서는 밥을 아홉 그릇 먹고 나무도 아홉 짐을 한다고 한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소라실마을에서도 아홉 번 밥을 먹고 나무도 아홉 짐을 해서 앞으로 바빠질 농사철에 대비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1리에서는 여기에다가 호미질도 아홉 번 하고 글도 아홉 번 읽으라고 하여 모든 행동을 짝수로 하지 않고 홀수로 행동하게 한다.

의의 이 풍속은 전국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정월 보름밥을 잘 먹으면 그 해의 식생활에 기근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일종의 기풍의식이 담겨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밥을 아홉 번 먹고 나무를 아홉 짐 한다는 의미는 많이 먹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최명림(崔明林)

나무장가보내기

⇨ 가수(嫁樹)

나무조롱버리기

정의 청색 · 홍색 · 황색으로 된 나무로 만든 조롱을 버림으로써 액을 면하게 된다는 속신. 특히 정월 대보름날 밤에 행하여 일년 동안의 액을 면하고자 하였다.

내용 및 사례 나무조롱은 나무로 밤톨크기의 호리병처럼 만든 물건으로 깍지콩과 모양이 비슷하다. 이것은 액을 막기 위한 호신부의 일종인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호로(木葫蘆)' 라고도 한다. 이러한 나무조롱을 세 개 만들어 각각 청색 · 홍색 · 황색을 칠하고, 채색실로 끈을 만들어 남녀 어린이들이 겨울부터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정월 열나흗날 밤중에 돈 한 푼을 매어서 몰래 길에 버린다. 만약 버려진 조롱을 주워 가거나 조롱이 몸에 닿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액이 옮겨 간다고 생각한다. 이때 여자아이가 차는 조롱은 '서캐조롱' 이라 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여름에 병이 나거나, 더위가 심할 때 차고 다니기도 하였다. 호박꼭지나 참외꼭지 · 외꼭지를 꿰어서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나무조롱버리기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원도 원주의 정월 대보름 풍속에는 나무조롱버리기 풍속과 유사한 '호리병박버리기' 가 있는데, 이 또한 액운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했던 풍속이다.

의의 나무조롱을 버리는 행위는 장식적인 의미보다는 민간신앙의 주술적인 의미가 강하다. 청색과 홍색은 음양(陰陽) 가운데 양(陽)에 해당하는 색으로 음귀(陰鬼)를 퇴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색은 오방(五方) 가운데 중앙에 해당하는 색으로 청색 · 홍색과 마찬가지로 음귀를 퇴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의 風俗 上(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1970),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필자 | 최명림(崔明林)

낙화놀이(落火—)

정의 정월 열나흗날 밤에 행하는 액막이적 성격의 불꽃놀이. 지역에 따라 낙화유 · 낙화불놀이 · 줄불놀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원 낙화놀이의 명칭에 대한 어원은 놀이의 현상을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낙화놀이에 사용하는 도구는 민간에서 조제한 일종의 화약과 같다. 이것에 심지를 박아 불에 태우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람들은 낙화(落火)로 설명하고, 떨어지는 불꽃을 꽃에 비유하여 낙화(落火)를 낙화(落花)로 풀이하였다.

유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경상남도 편에 따르면, 서생(書生)들이 시회(詩會)를 열 때에 곁들인 놀이로 소개하고 있어 낙화놀이의 유래를 조선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성 낙화놀이는 놀이 자체의 화려함을 즐기기도 하지만 놀이의 내면에 질병과 재액을 쫓고 경사를 부르는 벽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 낙화놀이는 대전과 충북 · 경남 지역에서 행해진 바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에서는 매년 정월 열나흗날 늦은 밤에 낙화놀이를 하였는데, 먼저 낙화놀이를 하기 위해 숯과 사금파리를 준비하였다. 숯은 참나무나 뽕나무를 사용하는데, 고목일 경우 숯을 내기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고목을 선호한다. 이들 나무를 구해서 센 불로 숯을 구운 뒤, 이것을 절구 등에 넣고 곱게 빻는다. 그리고는 이 빻은 숯을 눈이 고운 체로 쳐서 가루를 낸다. 마찬가지로 사금파리 역시 빻아서 체로 쳐 가루를 낸다. 이들 두 재료인 숯과 사금파리를 9 대 1로 배합한다. 이 재료를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길이의 한지에 가로로 길게 엿가락처럼 늘어놓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 기름먹인 심지를 길게 놓아 점화할 수 있도록 늘인다. 이어 한지를 가로로 감아 말아서 50센티 길이의 긴 막대 모양으로 갈무리한다. 낙화놀이를 할 개인은 이같은 낙화막대를 10여 개 이상 만든다. 그리고 대문에 가로로 줄을 늘인 후 이 줄에 낙화막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매어 단다. 심지가 아래쪽으로 가게 하여 걸어두는데, 이 때 이 놀이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웃을 돌며 기웃거린다. 이는 어느 집이 낙화막대를 많이 걸었는지 또는 잘 만들었는지를 탐문하는 것이다.

드디어 밤이 깊어지고 한 집에서 낙화막대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바로 이어 이웃에서도 불을 붙이는 순으로 낙화놀이가 시작된다. 심지의 불이 낙화막대에 점화되면 숯가루가 타면서 붉은 꽃처럼 쏟아지고, 동시에 사금파리 알갱이가 "탁! 탁! 탁!"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진다. 이처럼 낙화막대를 집 안팎의 경계인 대문에 매달고 점화하는데 이것은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한 행위이다. 이를테면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면서 불을 통하여 잡귀를 쫓는 의례인 셈이다.

지역사례 낙화놀이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충북에서는 상원날 밤이나 겨울철에 농촌 청년들 사이에서 행해진다. 뽕나무가지를 이용하여 숯을 만드는 것은 도안동의 예와 유사하나, 송진이 붙어 있는 관솔을 활용하여 횃불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남에서는 서생들의 시회에 낙화놀이가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곳에서는 괴목(槐木)의 껍질을 활용하여 숯을 만든다. 그리고 한지 주머니에 숯가루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불씨주머니를 만든다. 이것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시회가 열리는 주위의 나뭇가지에다 하나씩 매단다. 그리고는 불씨주머니에 불을 붙이면, 속에 든 숯가루가 타면서 빨간 불꽃이 아름답게 떨어진다. 그러면 서생들은 시를 지으며 이것을 즐겼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남에서는 사월 초파일 관등놀이를 할 때에 위의 불씨주머니를 등에 달아서 낙화놀이를 한 사례가 있다.

의의 낙화의 붉은 기운은 그 해의 상서로운 기운이 되고 아울러 낙화놀이는 주민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또한 놀이의 준비 작업을 이웃과 더불어 하게 됨으로써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낙화놀이는 대보름을 맞이하면서 부정한 것을 쫓고 상서로운 것을 불러들이는 벽사진경의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며 놀이의 성격이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忠淸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6),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도안마을의 숨결(대전 · 충남 향토문화연구원, 대전서구문화원, 1999).
필자 | 박종익(朴鍾翼)

노간주나무태우기

정의 정월 대보름에 그 해의 풍농을 예축(豫祝)하기 위하여 노간주나무나 싸리나무로 불을 때는 풍속.

내용 오곡밥은 농가(農家)에서 갖가지 곡물들을 넣어 풍농을 예축하기 위하여 짓는 시절 음식이다. 이에, 오곡밥을 지을 때는 평상시 쓰는 땔감과는 달리 반드시 특별한 수종(樹種)의 땔감을 쓴다.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싸리나무를,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노가지(노간주)나무를 이용한다. 이 외에 오재기나무 · 보릿대 · 참깨대 · 깻대 · 콩대 · 아주까리대 · 대나무 등도 사용한다.

물론 이러한 땔감들은 평소에도 쓰지만, 오곡밥을 지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들 땔감들은 탈 때에 대개 "톡톡", "탁탁", "오독오독", "후두둑 후두둑", "똑딱똑딱", "아득아득" 등의 다양한 소리를 낸다. 이 소리는 단순히 땔감이 타는 소리가 아니라, 곡식이 여물거나 패는 소리 또는 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타는 소리가 요란하고 많이 나면 풍년이 들지만, 조용하고 적게 나면 흉년이 든다고 여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부러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땔감만으로 오곡밥을 짓기 때문에, 올해에도 대풍(大豊)은 분명하다는 예측에 이른다.

또한 화목(火木) 중 가장 단단한 참싸리나무로 불을 때면 곡식이 쭉정이도 없고 단단해지며, 그것이 타는 요란한 소리 탓에 잡귀뿐만 아니라 노래기도 없어진다고 한다. 싸리나무의 싸리라는 낱말이 쌀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여 싸리나무를 때면 벼농사가 잘된다고도 한다. 노간주나무태우기 풍습에는 정초에 미리 농사의 성공을 보장하고 확보하려는 농가의 의도가 강하게 잠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효경(金孝慶)

노래기침주기

정의 노래기를 쫓기 위하여 솔가지를 초가지붕 위로 던지거나 처마에 꽂는 비방. 노래기는 배각강(倍脚綱)에 속하는 절지동물로서 초가지붕 속과 같은 음습한 곳에 서식하며, 자기 방어를 위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해충이다.

유래 및 변천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또는 『경도잡지(京都雜志)』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에 노래기 부적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랜 연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노래기의 서식 환경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습속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노래기침주기는 노래기를 퇴치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노래기를 쫓기 위해 "노래기 침준다, 노래기 침준다."고 외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솔가지를 지붕 위에 던지거나 처마 끝에 돌아가면서 끼우고, 주변의 검불을 모아서 태우기도 하는데, 이를 '노래기침주기'라 한다. 이 때 솔가지는 침을 상징하고 불은 노래기를 태우는 것을 상징한다. 노래기침주기는 바늘처럼 뾰족한 솔가지 때문에 초가 지붕으로 노래기가 들어오지 못하거나, 서식하던 노래기가 바늘에 찔려 도망간다고 믿는 유감주술적 성격이 강하다.

한편 정월 대보름날 아침, 밥을 지을 때 소금 한 움큼을 부뚜막에 얹어 놓으면서 "산애기 간질한다."고 하면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노래기는 생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퇴치하려는 다양한 풍속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지역사례 노래기침주기는 솔가지를 지붕에 던지거나 처마에 꽂는 행위에 한정되는 노래기 퇴치방법이다. 강원도와 충남에서는 노래기침주기(노네각시 침놓기), 경기도 군포에서는 꼬내각시솔침주기, 경기도 화성과 충남 부여에서는 향랑각시바늘주기(노래각시바늘주기), 강원도 평창에서는 노래기쫓기, 경기도 강화와 경북 청도 · 경남 창녕 · 충청도에서는 노래기밥주기(고동각시밥주기), 경북 옥성 · 충남 연기에서는 노래기바늘주기, 충남 공주에서는 노래기퇴치, 충남 부여 · 서천 · 청양 · 전북 군산 · 김제 등에서는 콩볶기, 전북 익산에서는 노래기잡자, 전북 전주와 부안에서는 사내기뱅이(방애), 충북 일원에서는 좀볶기, 충북 청원에서는 솔잎뿌리기, 함남에서는 구럭달기, 경북 칠곡에서는 노래기 없애기 등 다양한 용어가 나타나지만 내용은 유사하다. 전남이나 전북에서는 노래기를 사내기라고 하여 사내기쫓기 · 사내기불이라고도 한다.

유사풍속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충남 금산군 군북면 헌대리, 충남 연기, 전북 진안에서는 정월 대보름날에 칼질을 하면 노래기가 들끓는다고 하여 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충남 서산시 음암면에서는 '두더지방아찧기'라고 하여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노래기도 생기지 말고, 구데기도 오지 말고, 뱀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절구공이로 집안 곳곳을 찧고 다닌다. 충남 공주 · 전북 군산에서는 "노래각시 노래각시 바느질이나 하고 내려오지 마소!" 하고 외치면서 솔가지를 지붕에 던진다. 충남 보령에서는 '노간주나무불때기'라고 하여 정월 열나흗날 노간주나무를 태우면 노래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다. 전남 해남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나 이월 중에 '바위손'이라는 풀을 뜯어서 마당의 쓰레기를 치워 불을 피울 때 같이 태우면 지독한 냄새가 나서 노래기 방지가 된다고 하고 소금을 뿌리는데, 이를 '노래기쫓기'라고 한다.

의의 노래기침주기는 선조들의 위생 관념을 읽을 수 있는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노래기의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비위(脾胃)가 좋은 사람을 보고 "노내기 회(膾) 먹을 놈"이라고도 한다. 특히, '노내각시', '향랑각시' 등의 용어는 반어법으로서 징그러운 벌레를 갓 시집온 새색시로 미화하여 쫓아내려는 지혜가 엿보인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忠淸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5),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忠淸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6),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江原道 篇-(文化財管理局, 1977),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統營郡史(統營郡,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시덕(金時德)

노용란(撈龍卵)

☞ 용알뜨기(龍—)

노적쌈(露積—)

☞ 복쌈(福—)

다래끼빠치기

☞ 해의밥빠치기(海衣—)

다리놓기

☞ 적선(積善)

다리밟기[踏橋]

정의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다리[橋]를 밟는 풍속. 일명 답교(踏橋)라고도 한다.

유래 조선 선조(宣祖) 때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답교지희(踏橋之戱)'라 하여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풍속이라 하였는데, "정월 대보름날 남녀가 쌍쌍이 짝을 지어 밤새도록 다녀 거리가 혼잡하여 여자들의 다리밟기를 금하기까지 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여자들은 16일 밤에 다리밟기를 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고려 때 다리밟기가 크게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일부 양반들은 번잡을 싫어하여 14일 밤에 했는데, 이것을 '양반다리밟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엽 이후 차츰 부녀자들이 다리밟기를 하면서 여러 병폐가 생김에 따라 부녀자들의 다리밟기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리밟기의 기원에 대하여 유득공(柳得恭)은 그의 저서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중국의 여러 서적을 인용하여 "생각건대 『북경세시기(北京歲時記)』에 정월 대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모두 집에서 나와 다리를 거닐었다."고 하였다. 또한 정월 초에는 "달이 뜬 뒤 서울 사람 모두 종가(鐘街, 지금의 종로)로 나와 종소리를 듣고 헤어져 여러 다리를 밟는다. 대광통교(大廣通橋)·소광통교(小廣通橋)·수표교(水標橋)에 가장 많이 모인다. 이 날 저녁은 관례적으로 통행 금지를 완화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떼를 이루어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떠들썩하다."고 하였다. 한편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이 날 열두 다리를 건너면 일년 열두 달 동안의 액을 막는다고 하여 재상귀인(宰相貴人)으로부터 미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리밟기를 했다."고 하였다. 또한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에는 "정월 대보름날 부녀자들이 서로 이끌고 밤에 나와 다님으로써 질병을 없애는 것을 주백병(走百病)이라 한다."고 했다. 또 심방(沈榜)의 『완서잡기(宛署雜記)』에는 16일 밤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보통 다리 부근에서 노는데,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리를 건너는 것을 '도액(度厄, 액막이)'이라고 한다고 하여 이것이 한국 풍속의 근원이라 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풍속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중국의 주백병에서 온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이 날 다리를 밟으면 일년간 다리병[脚疾]이 없고, 열두 다리를 밟아 건너면 일년 열두 달의 액(厄)을 면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남녀노소(男女老少)·상하귀천(上下貴賤) 할 것 없이 다리밟기를 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형태는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지역사례 영동 지방에서는 노인이나 다리병을 앓는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어 다리밟기에는 언어질병적(言語疾病的) 치유 심리가 작용하여 건강의 징표가 되며, 주술적 행위를 통한 장수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북 지방은 정월 대보름날 밤 달집태우기를 마치고 난 후에 다리밟



정월 망일에 답교하는 모양
김준근(모사도)

기를 하는데 자기 나이 수만큼 왕복해야 무병 장수한다고 여긴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보름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인근의 다리를 건너고 돌아온다. 부녀자들은 음식물을 냇물에 던져 복을 빌기도 하고 남자들은 농악을 앞세우고 무동(舞童)을 서기도 하여 다리 위에서나 다리 근처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즐겁게 지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리밟기는 흥겨운 놀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리밟기를 마치고 나서 입고 있던 저고리의 동정[襟]을 뜯어 엽전(葉錢)과 함께 싸서 다리 한구석에 놓아두거나 다리 아래로 던져버리는 신앙적 행위도 있다. 서울 송파에서도 이와 유사한 풍습이 전해지는데, 무동답교 놀이패들은 낮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며 술과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놀았다. 저녁에는 달집을 태우고 짚불을 돌리며 놀다가 달이 떠오르면 다리를 밟으면서 음식을 한지에 싸서 다리 밑에 던지고 달을 향해 두 손 모아 빌며 '다(달)님소원빌기' 를 하였다.

다리를 건너는 방법도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서울과 같이 있는 다리를 모조리 건너기도 하고 열두 다리를 건너기도 한다. 다리 셋만 건너면 되는 지방도 있는가 하면, 제일 큰 다리나 가장 오래된 다리를 나이 수대로 왕복하는 곳도 있다. 또 지방에 따라 왕복을 1회로 치는 곳과 왕복을 2회로 간주하여 기수의 연령일 때 마지막 1회는 다리 아래로 돌아오거나 다른 사람에 업혀서 돌아온다.

이 밖에도 다리를 건너는 동안 횃불을 들고 다니다가 그 횃불이 나이 수를 채울 때까지 꺼지지 않으면 행운이 온다는 지방도 있다. 또한 건너서 돌아오는 다리는 다른 다리를 택하는 곳도 있다. 이 밖에도 다리 위에서 청년들이 벌이는 격전도 있다. 상원날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웃 마을과 대치한 뒤 상대편을 다리에서 떨어뜨려 먼저 다리를 빼앗으면 이기게 되는 '다리빼앗기' 도 있다.

인접국가사례 옹락(雍洛)의 『영이록(靈異錄)』에 "당(唐)나라에서 정월 대보름날 밤을 중심으로 한 전후 3일 저녁을 야행하도록 했더니 놀러 다니는 남녀들의 거마(車馬)가 길을 메웠다." 고 하였다. 한편 육계굉(陸啓宏)의 『북경세시기』와 우혁정(于奕正)의 『제경경물략』에 의하면 중국에도 주교(走橋) · 주백병(走百病, 모든 병을 달아나게 한다는 뜻.)이라 하여 이 날 밤 이러한 풍속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다리밟기 풍속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풍속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의의 다리밟기는 '다리[橋]' 와 '다리[脚]' 의 같은 발음에서 오는 유음(類音) 연상의 언어주술심리에서 기인한 속신적 풍속이다. 또한 언어질병적 치유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 건강의 징표와 주술적 행위를 통한 장수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대보름 풍습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지방에 따라, 다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다리를 밟고 노는 놀이문화로도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北京歲時記, 洌陽歲時記, 靈異錄, 宛署雜記, 帝京景物略, 芝峯類說, 韓國의 風俗(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1970), 한국의 민속(임동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5), 우리나라민속놀이(沈雨晟, 東文選, 1996).

필자 | 이병옥(李炳玉)

달맞이

정의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며 기복(祈福)하는 풍속. 동쪽에서 뜨는 달을 맞이한다 하여 영월(迎月)이라 하기도 하고, 달을 바라본다 하여 망월(望月) 혹은 달보기, 망월에 절하기, 망우리라고도 부른다.

내용 달맞이 풍속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정월 대보름날의 풍속으로, 횃불을 들고 뒷동산에 올라가 달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달이 뜨면 횃불을 땅에 꽂고 소원을 비는 것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초저녁에 횃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오



르는 것을 달맞이라 하며,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길하다."고 한다. 대보름날 저녁 달이 동쪽에서 솟아오를 때면, 사람들은 달맞이를 하기 위해 뒷동산이나 언덕으로 올라간다. 한겨울이라 춥긴 하지만 횃불에 불을 붙여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만월(滿月)을 보기 위해 산길을 따라 뒷동산에 오르는 것이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대보름달이 솟을 때에 횃불을 땅에 꽂아 두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제각기 소원을 빈다. 농부들은 풍년들기를 기원하고, 처녀 총각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손이 귀한 집안의 부녀자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알맞은 풍요와 번성 등을 기원한다. 달맞이는 될 수 있는 한 남보다 먼저 하는 것이 길한 것이라 생각하여 서로 앞 다투어 산에 올라간다.

지역사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언덕이나 산이 없는 경우 마을 동쪽에 싸리나무로 횃불을 만들어 놓고, 달이 뜨는 시각에 불을 붙여 15분 내지 20분 정도 타게 하다가 달을 보고 절을 한다. "달님 달님 할아버지"라 부르며 절을 하기도 하고, "달님, 달님 절합니다. 명복을 많이 주십시오." 하며 빌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팔뚝만하게 나이 수만큼 새끼로 묶은 짚단에 불을 붙여 이를 돌리면서 소원을 빈다. 여자들은 집안에서 달맞이를 하는데, 달이 뜰 때 동정을 떼어서 불에 태우면 액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동산에서 싸리가지에 지푸라기를 씌워 만든 횃불을 들고 장구·꽹과리·북을 치면서 달맞이를 하는데, 남녀노소 모두 소지를 하면서 축원을 한다. 전북 지역에서는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망월아, 망월아."라고 부르며 다니기도 한다.

의의 달은 농경사회에서 여신(女神)과 대지(大地)가 연계되는 여성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달은 농사의 풍요로운 힘, 여성 생산력의 근원 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달맞이는 일종의 월신제(月神祭)라고 하는 주술·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예술(표인주, 민속원, 2004).
필자 | 표인주(表仁柱)

달불이[月滋]

정의 농가에서 일년 농사의 풍흉을 콩[豆]이 불은 정도를 보고 예측하는 정월 대보름의 점복(占卜). 달불음·달불금·월자(月滋)·콩불음·콩점[豆占]·달불이개·달분이라고도 칭한다.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상원조(上元條)에 보면 "콩 열두 개에다 열두 달의 표시를 하고 수수깡 속에다 넣고 묶어 우물 속에 집어넣는다. 이것을 '월자'라 한다. 이튿날인 보름날 새벽에 콩이 붇고 안 붇는 것을 보고 그 집안의 수해·한해·평년작을 징험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월자가 곧 '달불이'이다.

내용 달불이는 곧 콩점으로 콩의 불은 정도를 보고 풍흉을 알아보는 일종의 주술적 점복이다. 콩이 불었다는 것은 재산이 불어난다는 징조요,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풍년이 온다는 뜻이다. 또 풍년이 들려면 비가 와서 우순풍조(雨順豊調)해야 한다.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수수깡을 두 개로 쪼개어 그 속에 열두 군데를 오목하게 파고서 각각 열두 달을 표시한 콩 열두 알(윤년에는 열세 알)을 수수깡 속에 넣는다. 다시 두 쪽을 합하여 노끈으로 동여매어 우물 속에 넣었다가 이튿날 대보름 새벽에 꺼내어 본다. 수수깡 대신 접시에 물을 담고 콩을 담갔다가 불어난 모양으로 점을 치기도 한다. 즉, 콩이 많이 불은 달은 비가 많이 와 풍년이 들고, 콩이 적게 불은 달은 비가 적게 와 흉년이 든다고 믿었던 것이다. 또한 정월 열나흗날 밤, 사발 그릇 열두 개(윤년에는 열세 개)에 물을 붓고, 콩을 하나씩 담고서 보름날 아침에 그 불어난 상태를 보아 비가 많고 적음을 점치기도 하였다. 즉, 다섯 번째 그릇의 콩이 크게 불었으면 5월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농사일이 만족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여섯 번째 그릇의 콩이 불지 않았으면 6월에는 한재(旱災)가 있어서 농사일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늘에만 의존했던 옛날의 농경생활에서는 오직 우량의 많고 적음이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법(占法)이 시행된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民俗學論攷(李杜鉉, 學硏社, 1984), 民俗誌(江原道, 1989).
필자 | 김의숙(金義淑)

달윷놀이

⇨ 윷점[柶占]

달점[月占]

정의 정월 대보름날 떠오르는 달의 빛깔 · 모양 · 두께 등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알아보는 풍속. 망월점 혹은 달점치기라고도 한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달빛을 보고 점을 치는데, 달빛이 붉으면 가물 징조이고, 희면 장마가 질 징조이다. 또 달이 뜰 때의 형체, 달의 크기, 달의 출렁거림, 달이 뜨는 위치의 높낮이로 점을 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들고 흐리면 흉년이 든다고 점을 치기도 한다. 또 달이 남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해변에 풍년이 들 징조이고, 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산촌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에서는 달이 남쪽으로 쳐지면 물이 흔하고, 북쪽으로 뜨면 가문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달이 동그랗게 올라오면 풍년이 들고 기울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충북에서는 달빛이 희면 논농사가 잘되고 달빛이 붉으면 밭곡식이 잘 된다고 한다.

전남에서는 달이 떠오르는 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데, 달이 예정했던 곳에 뜨거나 아래쪽으로 내려뜰 때, 동쪽이나 남쪽으로 치우쳐 뜰 때, 오른쪽으로 쳐져서 뜰 때 일년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하며, 달이 예정했던 곳보다 멀리 떨어져 뜰 때, 위쪽으로 올려뜰 때, 북쪽이나 서쪽으로 치우쳐 뜰 때 흉년이 든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달의 빛깔과 모양에 따라 점을 치기도 하는데 달빛이 맑고 흰색이 많을 때 풍년이 들고, 달빛이 붉으면 흉년이 든다고 점을 친다. 그리고 해가 지면서 달이 떠오르면 풍년이 들고, 해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달이 뜨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예술(표인주, 민속원, 2004).

필자 | 표인주(表仁柱)

답교(踏橋)

⇨ 다리밟기

댓불놓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집안 마당에 통대나 피마자대 또는 고춧대를 얹어 놓고 불을 피워 그 튀는 소리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귀신 액막이를 행하는 전남 지역 풍속. 주로 대나무를 피우기 때문에 '댓불'을 놓는다고 하며, 이 댓불을 뛰어 넘으면서 건강과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였다.

내용 지역마다 댓불 · 가랫불 · 잰부닥불 · 허심불 · 보름불 등으로 그 명칭이 각기 다르며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보름날 일찍, 마당에 고춧대 · 대나무 · 아주가리대 · 피마자대 · 가시나무 · 고추나무 · 호박덩굴 등을 모아 놓고 불을 피운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잡물(雜物)을 한데 모아 태우면 "후둑후둑" 또는 "빵빵" 하는 타는 소리와 왕대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난다. 이러한 소리가 크게 날수록 그 해의 농사가 잘 되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만일 이 날 비가 오거나 잰부닥불을 못 피우는 사정이 생기면 농사를 위하여 불 못 피우게 될 것을 염려한다. 또한 댓불을 피워놓고 자기 나이 수대로 불을 뛰어 넘는데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 궂은 일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사례 전남 강진에서는 보름불이라 하여 불을 피워 놓고 집주인이 그 불을 몇 번이고 뛰어 넘는데, 그렇게 하면 그 해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나주에서는 가랫불이라 하여 가정에 따라서 어른들도 불을 뛰어 넘는데 이렇게 하면 일년간 무병하다고 하며, 아이들은 불을 뛰어 넘으면서 "가랫불 넘자."고 소리를 친다. 완도에서는 잰부닥불이라 하여 짚으로 불을 피워 놓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나이 수대로 뛰어 넘는다. 또한 아이들만 그 불을 뛰어 넘기도 하는데, 불 위를 세 번 뛰어 넘으면 여름에 더위도 타지 않고 가을에 시절이 좋아 풍년이 들며, 또한 집안이 불처럼 불끈불끈 일어나 번성한다고 한다. 신안에서도 잰부닥불이라 하여 마당의 여러 가지를 쓸어 모아 놓고 생대나무를 넣어 불을 피웠다. 이렇게 대를 넣는 까닭은 생대가 불 속에서 터지면서 내는 폭음이 크게 나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댓불을 나이와 상관없이 뛰어 넘기도 하는데, 이 때 "발바닥에 좀 먹지 마라."고 외치면서 뛰어 넘는다. 장성에서는 가랫불 · 댓불피우기라 하여, 마당에 대나무와 고춧대를 한 다발씩 베어다 쌓아 놓고 불을 붙이면 대나무 타는 소리가 "뚝딱뚝딱" 하고 온 동네에 울린다. 그러면 가랫불을 빗자루로 쓸면서 "나락밭에 뫼를 볶으자." 또는 "고추밭에 버러지 볶으자."고 말한다. 가랫불의 대나무 튀는 소리에 잡신이 도망가고 곡식이 잘 여물라는 뜻이다. 아이들은 나이 수대로 불을 넘으며, 불이 한참 탄 후에는 화재막이를 위해 물을 뿌리기도 한다. 해남에서는 불넘기 · 큰불피우기라 하여 열나흗날 밤에 각 가정에서 마당에 작은 불을 피워 놓고 어린아이들이 나이 수대로 뛰어 넘는다. 이럴 때 보통 어린아이들은 할머니나 어른들의 손을 잡고 뛰는데,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반드시 댓불을 넘도록 한다. 화순에서는 정월 열 나흗날 저녁에 고춧대, 가짓대, 매물대, 콩대, 대나무, 노간주나무를 마당에 쌓아 놓고 불을 피운다. 노간주나무는 "오독오독" 소리를 내고 대나무는 "텅텅" 소리를 내면서 타는데, 가족들이 가랑이를 벌리고 불을 뛰어 넘는다 해서 가랫불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댓불을 놓고 그 불을 뛰어 넘는 것은 한 해 동안에 있을 궂은 일을 겪지 않고 넘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댓불이 타면서 나는 요란한 소리가 잡귀를 쫓고 액을 물리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불을 잡귀를 쫓는 불이라 하여 허심불이라 부르기도 한다.



댓불놓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심환근

의의 귀신을 쫓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내게 하는 풍속은 마치 연종연시(年終年始)에 경귀라 하여 방포(放砲)하고 폭죽소리를 내던 전래의 주술적인 풍속과도 같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더위팔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아침 해뜨기 전에 만난 사람에게 "내 더위" 하며 더위를 파는 풍속.

내용 더위팔기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대보름날 아침의 속신으로 보통 해뜨기 전에 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강원도 지역에서는 주로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하며,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2월 초하루에 더위팔기를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없는 풍속으로 알려져 있다. 해가 뜬 뒤에는 효험이 없다고 한다. 아침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적당한 호칭을 하여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더위" 하고 소리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답한 사람에게 그 해 여름의 더위를 팔아넘기고 대신에 자신은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믿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기 나이만큼 더위를 팔아야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곳도 있다.

한편 이름을 불린 사람이 미리 알아채고 대답 대신에 더위를 사지 않겠다는 뜻으로 "내더위 맞더위." 하고 소리친다. 그러면 오히려 더위를 팔려는 사람이 되사는 것으로 여긴다. 더위를 되파는 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니 한압씨 철부덕", "니 도우 내 도우 맞도우", "니 하내비 길에 더우", "니 하내비 짬 더우", "니 더우 내 더우 니 하나씨 콧더우", "먼저 더위" 등이 그것이다. 더위를 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더위를 팔아야 그 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더위를 팔려고 한다.

더위팔기는 가족이나 어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대

보름날 친구들끼리 만나면 더위를 몇 개 팔았다고 자랑하기도 하며, 때로는 더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고 한다. 요즈음은 전화를 걸어서 더위를 파는 사람도 있다.

지역사례 경상도 지역에서는 더위막기라 해서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마당에 짚불을 피워 놓고 기원을 하면 그 해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 보름날 아침밥을 먹고 나서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의 더위를 팔아주기도 하는데, 어머니들이 아이를 앉혀놓고 물을 퍼다가 아이 얼굴 한 번 씻기고 손으로 사방에 물을 뿌리면서 "더위도 오지 말고 액운도 따라 오지 말라."고 하면서 빈다. 또 보름날 아침에 찬물을 먹으면 더위를 먹는다 해서 찬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소에게 왼새끼를 꼬아 목에다 걸어주고 더위를 잘 이겨내라고 말해서 그 해 여름에 소가 더위에 잘 견디기를 기원한다.

의의 대보름에 이루어지는 더위팔기는 소위 언령주술(言靈呪術)을 근간으로 한 예방적 속신 행위로서, 개인적인 건강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유사한 속신 행위지만, 모기팔기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여름 뙤약볕 밑에서 많은 농사일을 해야 하며 또한 날씨 때문에 탈진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더위는 크게 염려되는 것이다. 민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피서 방법들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것도 더위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위팔기는 피서(避暑)와 다른 측면에서 주술적 지지를 받는 일종의 방서(防暑)라고 할 수 있는데, 방식은 다르지만 주술적 힘을 빌려 여름을 이겨내는 속신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나경수(羅景洙)

도구통핥기


도구통
국립민속박물관

정의 정월 열나흗날 밤, 비위를 좋게 하기 위해 절구통 겉을 핥았던 전남 지방의 풍속.

내용 평소에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정월 열나흗날에 도구통을 핥으면 육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행하였다. 도구통은 절구통의 전라도 방언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드는 환갑이 된 사람이 섣달 그믐날 밤에 혀로 도구통을 핥으면서 몇 번씩 "개도 환갑 쇤가?" 하고 말하면 3년 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다고 기원한 '드는 환갑쇠기'가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지현(金智賢)

도끼로 나무흠집내기

⇨ 가수(嫁樹)

도채비방쉬

⇨ 제웅치기(打芻戱)

돌노적(一露積)

정의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남녀 아이들이 집 밖으로부터 돌을 운반하여 집안의 뜰이나 입구 혹은 문 정면 등에다 쌓아 놓은 돌더미. 이를 가리켜 돌노적가리 · 볏짚가리라고도 한다. 돌을 노적(露積) 쌓듯이 쌓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유래 이는 일종의 모의주술적 가농작(假農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시골 민가에서는 대보름 전날 짚을 묶어서 깃대 모양으로 만들고 그 속에다 벼 · 기장 · 피 · 조의 이삭을 넣어서 싸고, 목화도 장대 끝에다 매단다. 그리고 그 장대에다 새끼줄을 묶어 당겨서 집 곁에 고정시켜 세워 두는데 이를 화적(禾積)이라 한다. 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산간지방 풍속을 설명하면서 가지가 많은 나무를 외양간 뒤에 세우는데 여기에는 곡식의 이삭이나 목화 같은 것을 걸어 둔다.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이 나무를 중심으로 싸고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다가 해가 뜰 무렵에 그만 둔다고 기술하고 있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도 짚을 깃대 모양처럼 묶어 장대 끝에 덮어 씌워 집 곁에 세우고 새끼줄로 고정시켜 둔 것을 화간(禾竿)이라 한다. 조선조에는 상원(上元)날 궐내에서 빈풍(豳風) 칠월의 경작 · 수확의 형상을 본떠 좌우로 나누어 힘을 겨루었는데 이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

다. 『세시풍속집(歲時風俗集)』에는 화간이란 추수한 곡초(穀草)를 노적하는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라 하였다. 이 화간은 13일에 세웠다가 2월 초하룻날 아침에 철거해 내리는데 화간에 달았던 곡물을 섬이나 멱서리 같은 데 담으면서 "벼가 수천 석, 조가 기백 석, 콩이니 팥이 기십 석"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금년이 대풍(大豊)이라고 하면 그 해 그 작물이 풍년 든다고 믿었다.

내용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남녀 아이들이 모여 집 밖에서 돌을 주워 모아 집안의 뜰 이곳저곳이나 입구 혹은 문의 정면 같은 곳에다 쌓아 놓는다. 이를 돌노적이라 하는데 마치 큰 노적가리를 쌓듯이 쌓아 올림으로써 자기 집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 때 아이들은 "우리 노적 봐라." 하고 소리친다. 이러한 기풍의례(祈豊儀禮)는 화간 · 화적 · 노적 · 볏가릿대 · 낟가릿대 · 주저리노적봉우리 · 유지지 · 유지기 · 주저리 · 유두새 · 봉오리 · 오조지 등의 명칭으로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장대 꼭대기의 한 자쯤 밑에 볏짚 한 뭇 정도를 묶고 그 위에 주저리를 씌운 형태, 그냥 짚으로 엮은 주저리 단을 씌워 세운 형태, 긴 장대 위에 새끼를 동이고 주저리를 씌워 세운 형태, 그냥 짚 뭇만을 묶어 세운 형태, 서속대 한 아름을 긴 장대에 세워 묶고 이를 높이 세운 형태 등 모두 다섯 가지가 있다. 돌노적은 이 가운데 그냥 짚 뭇만을 묶어 세운 형태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돌노적을 쌓을 때는 곡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쌓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화적과 다른데 이 경우에 돌은 곡식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상징하는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전남 무안 일대에서는 뜰 안 곳곳에다 돌노적가리를 만들어 놓고 "어어야 노적이야 어어야 노적이야 노적싸세." 하고 소리 지르거나 "어이사 크나큰 노적 싸 놓으니까 재우내 술 내놓소." 하며 서로 즐기며 논다. 임자면 화산리의 경우에는 돌 대신 직접 짚단을 묶어 볏짚 노적을 만든다. 그러므로 이는 일종의 볏짚가리라 할 수 있다. 이 볏짚가리를 쌓을 때에도 역시 "노적싸라." 하는 소리를 지르며 쌓아 올린다.

의의 돌노적을 쌓는 것은 한 해 농사가 풍년들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돌노적 쌓는 것을 일종의 고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굳이 돌로 쌓는 것은 돌처럼 굳직하고 알찬 곡식이 가득 쌓이기를 기원하는 유감주술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아이들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생력(生生力)을 풍농의식에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歲時風俗集(방종현, 研學社, 1946),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文化史大系Ⅳ -風俗 · 藝術史-(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1),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鄕土文化誌(慶尙南道, 1989), 韓國의 歲時風俗Ⅱ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의 세시풍속(정승모, 학고재,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류종목(柳鍾穆)

동새벽보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새벽, 동이 터 올 무렵에 날씨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요를 점치는 제주도 지역 점속(占俗).

내용 정월 대보름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밝아 오는 날과 지는 달의 상황을 보고 점을 친다. 아침에 달이 지면서 얼마간 어두컴컴했다가 날이 밝으면 그 해에 농사가 풍년이 들고, 달이 미처 지기도 전에 환히 밝으면 그 해 농사는 그르치게 된다고 믿는다.

또한 제주도 지역에서는 설 아침 날씨를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도 있다. 설 아침에 구름이 많으면, 보리가 풍작인 반면 바다 물고기는 흉작이다. 그리고 일기가 맑게 개면, 그 해는 우순풍조한다고 믿는다. 이는 충청도 지역의 '좀생이별보기'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천기(天氣)를 보아서 한 해의 길흉을 점치는 풍속에는 대자연의 자연현상을 신비시하고 생업과 연결시켜 해석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濟州道誌3(濟州道, 1993),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좌혜경(左惠景)

두더지방아

정의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한 해 동안의 두더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절구공이를 들고 집 안팎이나 밭을 돌면서 "두더지 잡자!" 하고 반복해서 외치고 다니며 땅을 찧는 풍속. 두더지방지 · 디디지방아찧기 · 메통으로집안찧기 · 지둥울리기라고도 부른다.

내용 두더지는 땅 속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집터와 밭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집 마당 곳곳이나 대청마루 밑에 구멍이나 구덩이를 파 놓고, 밭은 물론이고 밭작물에도 피해를 끼친다. 그래서 두더지를 밭쥐라는 뜻에서 '전서(田鼠)'라고도 한다. 농가에서는 쥐와 더불어 가장 폐해가 심한 동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두더지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음력 정월 대보름 전후에 농가에서는 흔히 두더지방아를 찧는다. 특히 두더지의 피해를 예방해야 밭작물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농가의 중요한 세시풍속이 되었다.

두더지방아는 대체로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대보름날 새벽 혹은 밤에 행한다. 곧 한 해의 액을 막는 열나흗날과 풍년을 희구하는 농군의 날인 보름날을 기해 도구질(절구질)을 함으로써 한 해에 미칠 두더지의 피해를 막고 풍년을 보장받고자 한 것이다.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두더지방아를 수시로 행하기도 한다. 두더지방아는 낮에는 하지 않는다. 두더지는 야행성 동물이므로 두더지가 출몰하는 밤에 행해야 큰 효험을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간혹은 집안 식구들이 갑자기 앓는 사소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행하기도 한다.

대개는 한 가정의 남정네나 부녀자(때로는 할머니)가 도굿대(절구대)나 메통(말뚝을 박는 나무망치)을 들고 집 마당이나 그 주변, 그리고 밭 등을 돌아다니면서 방아를 찧듯이 이곳저곳의 땅을 내리친다. 간혹은 아이들도 두더지 방아를 한다.

"도구통질을 안 하면 두지지(두더지)가 밭을 일군다."는 속담처럼 방아 찧는 행위는 두더지의 출몰과 그 피해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방아를 찧는 곳은 두더지가 출몰하는 집 주변 혹은 마당 네 귀퉁이 및 뒤뜰, 밭의 앞뒤 · 네 귀퉁이, 채마밭 등이다. 특히 네 귀퉁이를 찧는 것은 그 공간의 전체를 찧는다는 뜻을 지닌다. 또한 특정 공간의 둘레를 빙 둘러 가며 찧기도 하는데, 이것도 전체를 찧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된다. 여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두더지방아를 왼쪽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민속에서 왼쪽이란 방향이 지닌 비일상적인 상징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왼쪽으로 꼰 새끼줄이어야 금줄로서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 것처럼, 두더지방아도 왼쪽으로 해야 그 상징적 행위가 실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도구질을 할 때는 "디지지(두더지) 방아 찧자!", "두더지 잡자! 굼벙이 잡자!", "두더지 쫓자! 두더지 쫓자!", "이것도 내땅! 저것도 내땅!", "지둥 울린다!" 등 여러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고 다닌다. 곧 두더지를 내쫓기 위하여 쿵쿵 진동을 울리며 방아를 찧는다는 것이며, 또한 방아를 찧으면서 "이 곳도 내 땅이고 저 곳도 내 땅이니, 동물인 너 두더지, 네가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예 이 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마라."고 촉구한다. 또한 동물인 두더지가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사람인 내가 먼저 땅을 소유하겠다는 뜻과 의지도 반영되어 있다. 곧 땅의 소유권과 그 바깥으로의 축출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한편, 나무 막대기(때로는 여기에 하늘 천 '天' 자를 묵서하기도 한다.) · 굵은 통나무 · 몽당 빗자루 · 매덩이(절구공이나 떡매) · 빈 병 등을 집 안팎이나 밭 등에 꽂아 두기도 한다. 두더지가 다니는 길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전남 진도에서는 "매덩이 밭을 박는다."고 표현하며, 도구질을 마친 후에 오줌동이에 담긴 오줌을 밭 네 귀퉁이에 부어 놓기도 한다. 마치 동물이 자신의 영역을 오줌으로 표시하듯 인간도 동물의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임을 나타낸다.

지역사례 평안도에서는 아이들이 나무 막대기로 마당에 사각형 몇 개를 그리거나 또는 막대기 끝으로 땅을 뚜지는(두드리는) 시늉을 하며, "이것도 내 땅! 이것도 내 땅!"이라고 외친다. 땅에 그려놓은 사각형은 되[斗]의 형상으로 양식이 많아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라 한다. 충남 당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밤에 보리밭에 나가서 도리깨질을 한다. 땅 속에 숨어 사는 두더지와 유사한 숨치를 없애는 방법이다. 숨치는 땅 속을 다니며 보리뿌리를 들떠 놓으므로, 숨치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리깨질을 하는 것이다. 도

리깨질 역시 도구질과 마찬가지로 땅을 두드려 진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내쫓는 상징적 행위이다.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두더지를 퇴치하기 위해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두더지만두를 빚어 먹는다. 정월 대보름 경에 네모나게 만두를 빚어서 앞뒤와 아래쪽을 손으로 꼭꼭 집어 두더지의 주둥이와 꼬리, 다리를 형상화한다. 이 역시 두더지를 없애기 위해 행하는 이방[豫防]이다. 이처럼 다양한 두더지 잡는 풍습은 두더지로 대표되는 땅 속 동물의 피해를 막으려는 강렬한 염원의 표현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효경(金孝慶)

두부먹기

정의 음력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건강과 제액(除厄)을 위하여 두부(豆腐)를 먹는 풍습.
내용 두부는 각종 명절이나 관혼상제 등의 잔치나 제사가 있을 때 즐겨 먹던 별식(別食)이다. 음력 정월의 풍속에서는 이러한 두부를 보름날 아침에 재채기하기 이전이나 아침 식사할 때 반드시 다른 것을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좋다고 하였다. 전라도에서는 액막이 댓불(대나무불)을 피우면서 먹기도 한다. 두부를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여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권한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는 모두들 말랐으므로 살이 찐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일로 여겼다. 뽀얗고 부드럽게 살찐 사람을 두고 "두부살이 올랐다."고 표현하며, "두부를 먹지 않으면 골이 빈다."는 속담처럼 두부는 건강의 상징이다. 건강을 위해 두부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 우선시되었다.

또한 그 해에 불운(不運)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관재수(官災數)가 낀 사람은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생두부의 한 귀퉁이를 잘라서 먹는다. 그러면 액운(厄運)이 사라진다고 믿는다. 몸이 붓는 사람도 미역국에 두부를 넣고 끓인 국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이처럼 대보름날 아침에 먹는 두부는 건강과 도액(度厄)의 상징이다.

참고문헌 |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효경(金孝慶)


모시등거리 국립민속박물관

등거리입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등거리를 해서 입으면 한 해 동안 신수가 좋다고 하여 이를 입었던 전북 지방 풍속. 등거리는 '등걸'이라고도 한다.
내용 등거리는 등을 덮을 만하게 걸쳐 입는 홑옷으로, 각 지방의 특색에 맞춰서 편하게 만들어 입었다. 보통 베로 만든 것은 맨살에 그냥 입고, 무명으로 만든 것은 봄·가을에 속옷 위에 덧입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웃저고리를 해서 입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병이 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또 종이로 등거리를 만들어 저고리 속에 입었다가 대보름날에 남몰래 불에 태우면, 액을 면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입혔던 등거리를 벗겨 남몰래 달집 속에 감추어 두고 달집을 태울 때 함께 타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衣生活 篇-(文化財管理局, 1986),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최은수(崔銀水)

디딜방아훔치기

정의 정월 대보름에 훔쳐온 디딜방아를 마을 입구에 거꾸로 세워 두고 부인들 속곳을 거꾸로 입혀 잡귀나 질병을 막고자 한 풍속. 호남 지역의 무주·진안·남원·구례·곡성·순천 등지에서 액맥이놀이 혹은 디딜방아 액맥이놀이 등으로 부른다. 디딜방아는 지역에 따라 디딜방애·딸각방아·발방아·돈방아·드딤방아·드딜방아·손방아 등으로 불리며, 곡식을 빻거나 찧는 데 쓰이는 도구를 말한다.
내용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가 끝나면 여성들이 인근 마을로 디딜방아를 훔치러 간다. 디딜방아를 훔치기 위해 여성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편 마을 사람들과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디딜방아를 훔쳐서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여

성들은 기세등등하게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축원가를 부르며 마을 남성들에게 한껏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신앙과는 별개로 여성들이 훔쳐온 디딜방아를 동네 앞에 세우고, 그 위에 피 보재기라고 하는 피 묻은 고쟁이나 황토를 바른 고쟁이를 뒤집어 씌워 놓는다. 디딜방아는 마치 붉은 것이 묻어 있는 은밀한 여성의 속옷을 입고 거꾸로 서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동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주위에서 마을 사람들이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하는 것은 잡귀의 범접을 막고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는 것이지만, 성의 해방감을 통해 풍요로운 생산을 도모하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월이 지나면 디딜방아는 훔쳐 왔던 동네에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동네 앞 개울의 다리로 사용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충북에서는 염병을 막기 위해 디딜방아를 훔쳐 오면서 상여소리를 하기도 하고, 충남 논산에서는 역병이 돌면 풍장을 치면서 디딜방아를 들고 나와 거꾸로 세운다. 그런가 하면 전북 진안에서는 마을에 염병이 돌면 마을의 부녀자들이 밤에 몰래 이웃 마을에서 디딜방아를 훔쳐다가 마을 앞에 세워 놓고 여자의 속곳을 거꾸로 입혀 놓은 다음 술 · 과일 · 떡을 제물로 바치고 염병이 멈추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의미 디딜방아훔치기는 동네로 들어오는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축귀의식(逐鬼儀式)으로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얀 고쟁이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흰옷이 갖는 밝음으로 어둠의 상징인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피 묻은 고쟁이나 황토를 바른 고쟁이를 디딜방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붉은색이 정화와 축귀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

1 디딜방아훔치기
2 디딜방아세우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정수미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예술(표인주, 민속원, 2004).
필자 | 표인주(表仁柱)

땔나무훔치기

⇨ 복토훔치기(福土—)

떡점

⇨ 모돔떡점

망울불넘기

정의 달맞이를 하기 위해 각자가 가지고 간 짚이나 나무에 불을 붙여 놓고 그 불을 뛰어 넘는 행위. 망울불은 망월(望月)과 불[火]의 합성어이다. 망울불넘기는 독자적인 세시행사가 아니라 달맞이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세시행사 명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짚불타넘기 · 불넘기 · 보름불놓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역사례 충남 천안에서는 보름날 저녁에 마당에 미리 짚을 여러 단 가져다 놓고 보름달이 떠오르면 짚단에 불을 붙여서 휘휘 돌리면서 "망월이요." 하고 외치기도 하고, 아산에서는 달맞이를 하기 위해 마당에 짚단을 쌓아 놓고 불을 피우는데 불이 거의 탈 무렵에 불을 넘는다.

경기도에서는 보름달이 떠오르면 동네 뒷산으로 달맞이를 가는데, 각자가 가지고 간 짚이나 나무에 불을 붙여 놓고 달에게 소원을 빈 다음, 그 불이 다 탈 무렵에 세 번 뛰어 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에 뒷산이 없는 경우는 논에서 짚을 태우면서 달에게 소망을 기원하고 불이 붙은 짚불을 세 번 넘으면서 액을 쫓는다. 이것은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한다.

의의 망울불넘기는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잡귀를 불을 이용해 퇴치하기 위한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정과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력을 가지고 있다. 곧 망울불넘기는 달님[月神]에게 소원을 빌고 불을 이용해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정월 대보름의 세시행사인 셈이다.



망울불 넘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정수미

참고문헌 | 남도민속문화론(표인주, 민속원, 2000),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표인주(表仁柱)

망월(望月)

☞ 달맞이

매서(賣署)

☞ 더위팔기

매성이심기

정의 정월 열나흗날에 행하는 액막이 풍속의 하나. 부스럼심기 혹은 삶은 팥묻기라고도 한다.

내용 정월 열나흗날 저녁, 부인들이나 여러 아이들이 보름밥을 하기 위해 마련한 삶은 팥을 가지고 밭으로 간다. 자기 나이 수대로 팥을 세어 손에 쥐고 "매성아, 금년에 머리 아프고 배 아픈 것 다 가져 가거라." 하고 말하면서 팥을 밭에 묻으면 그 해는 별다른 병 없이 무병하고 아이들 몸에 종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는다. 본인 외에도 자기 가족의 무병을 기원하는데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은 방법으로 액막이를 한다. 액막이 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온다. 이렇게 액막이를 한 사람은 그 해 부스럼이 없이 한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지역사례 대부분 매성이심기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하는 반면,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草島)에서는 보름날 저녁에 하며 밭에 구덩이를 파고 팥을 하나씩 넣으면서 "부스럼 심자, 부스럼 심자." 하며 팥을 묻는다. 초도에서는 매성이심기라고 하지 않고 부스럼심기라고 한다.

의의 정월은 한해를 시작하는 달로 매사에 항상 조심하고 가리는 것이 많다. 매성이심기 역시 한해 동안 생겨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全南의 歲時風俗(全羅南道 鄕土文化叢書29, 全羅南道, 1988),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지현(金智賢)

메점

정의 밥을 지어 밥의 상태를 보고 길흉을 파악하는 점속. 뫼점 · 매점 · 밥점이라고도 부른다. 메점은 제삿밥을 말하는 메와 점(占)이 합해진 말이다.

내용 메점을 보기 위해서는 잘 씻은 쌀을 사발에 넣고 이를 솥에 넣어 찐다. 찌고 나서 솥을 열었을 때 밥의 가운데가 봉오리 형태를 띠면 길(吉)하고 가운데가 움푹 패거나 쌀알이 넘쳐 솥에 떨어져 있으면 흉(凶)하다고 본다.

메점은 정월에 주부가 밥을 하여 정성 들이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지만 대부분 굿에서 집 주인인 본주(本主)의 정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본다. 제주도의 큰굿은 규모에 따라 작은 굿, 큰 굿 등으로 나뉜다. 큰 굿은 7일간의 긴 굿으로 굿판의 사방 벽에 사당클이라 하여 여러 신들을 모신 제단이 높게 설치되어 있으며 탁상 · 할망상도 있다. 본주는 아침마다 신들이 좌정하고 있는 이 곳의 밥을 새로 올리기 위해 밥을 하는데 밥이 잘 되었을 경우에 심방은 본주가 정성을 들였다고 하여 그 날 굿이 잘 될 거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성이 모자라니 몸가짐을 잘 하라고 주의를 준다.

참고문헌 | 濟州道民俗: 歲時風俗(진성기, 濟州民俗研究所, 1969).
필자 | 강권용(康權用)

명공드리기(命功—)

☞ 실공드리기[絲功—]

모깃불놓기

정의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집안을 청소한 쓰레기를 태우면 일년 동안 모기가 없어진다고 믿는 예방 주술 행위.

유래 및 변천 정초에 쑥이나 생솔가지 · 쓰레기 등을 태워 연기를 피우면 일년 내내 모기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정월에는 쓰레기라도 집 밖으로 쓸어내면 복이 날아간다고 여겨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태웠다. 이 때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깃불놓는다고 하였고, 이러한 유사성에 따라 여름의 모기를 퇴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모깃불놓기를 지칭하는 용어는 모깃불 · 모깃불피우기 · 목개불놓는다 · 모캐불놓는다 · 모구불피우기 · 몽갱이불 · 모기축송 · 모기팔기 · 모기날리기 · 모기후리기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모깃불놓기를 하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상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에 행하고, 전라도 · 충청도 · 경기도 · 강원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에 행하며, 경북 성주에서는 설날에 행한다.

지역사례 모깃불놓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쓰레기를 태워 연기를 피워 모기가 없어지도록 기원하는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다. 강원도에서는 모깃불을 피울 때 청죽이나 아주까리대 · 헌대빗자루를 함께 태워 탕탕 소리가 나게 하여 모기는 물론 귀신도 퇴치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모깃불을 피우며 "모기쫓자, 모기쫓자." 하고 외치기도 하고, 충남에서는 "모기쫓자, 땀때기잡자." 하고 외치면 여름에 땀띠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모깃불 놓기
충남 아산시 심환근

다른 하나는 전남 일부에서 행하는 방법으로 자기 마을의 모기를 다른 마을로 팔거나 쫓아 보내는 형식이다. 포구에 가서 가지고 온 쓰레기를 날리면서 모기 · 깔따구 · 벼룩 등의 해충을 불러 "경치 좋은 곳으로 가고 우리 정원에는 오지 말아라." 고 외친다. 그리고 열나흗날 저녁 이웃 마을 이장을 세 번 부르고 "우리 모기 다 가져가라." 고 외친 후에 자신이 또한 "자네 동네 모기 잘 받았네." 하고 자답한다. 경북 안동에서는 동산에서 건너 마을을 향해 "한말, 두말" 하면서 곡식을 되듯이 모기를 퍼 넘기면 상대편 마을에서도 같이 한다. 이를 '모기팔기' 혹은 '모기날리기' 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면 모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경남에서는 모깃불의 타는 상태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짚의 끝이 검게 타면 그 해 나락의 결실이 좋고, 가운데 부분이 흰색을 띠면 병충해가 많으며, 뿌리가 희면 썩은 것이 많아진다고 점친다. 또한 대문과 마당, 방문 앞 등 세 곳에 모깃불을 피우고 마당의 것이 덜 타면 그 해 나락이 썩는 것이 많고, 대문 것이 덜 타면 이삭이 마르며, 방문 앞의 것이 덜 타면 병충해가 많을 것이라고 점친다. 세 곳 모두 잘 타면 대풍이라고 하는 등 이로써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한편 새벽에 새쫓기를 한 아이들이 이 모깃불을 세 번 넘으면 한 해 동안 병치레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의 모깃불놓기는 여름밤에 극성을 부리는 모기를 없애려는 소망에서 비롯된 예방 주술 행위로 이것이 세시풍속화된 것이다. 즉, 모깃불놓기는 여름의 모기예방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 상피병(象皮病) · 사상충(絲狀蟲) 등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전염병을 예방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세시풍속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統營郡史(統營郡, 1985),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 1990),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洪城의 民俗(洪城文化院, 1994), 한국 민속의 세계5 -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시덕(金時德)

모돔떡점

정의 정월 대보름에 한 해의 운수를 미리 알고자 떡을 이용해 점치던 점속(占俗). 제주도 지역에서 행하는 풍속으로 떡점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모돔떡점이라는 말은 모돔과 떡점이라는 말이 합쳐져 이루어진 명칭으로, 여럿의 운수를 떡으로 알아보는 점치기라는 뜻과 여럿이 모여서 떡으로 알아 보았던 점치기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돔떡점으로 집안 식구의 운수(運數)를 알아 보는 것은 물론 마을 주민의 운수를 점치기도 했다.

집안 식구만을 대상으로 점치는 경우를 떡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대보름 전날 식구의 수대로 떡을 찌고 각 켜마다 식구의 이름을 써넣는다. 떡을 다 찌고 나서 떡의 익은 정도를 보고 점을 치는데 그 해에 액운(厄運)이 있는 아이 이름이 있는 켜는 익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 주민의 운수를 점치는 모돔떡점의 경우, 동네의 여러 사람들이 쌀을 모으고 가루를 빻는다. 그래서 어느 한 집으로 모여 한 시루에 떡을 찌는데, 제각기 자기 몫의 떡가루 밑에 자기의 이름, 나이를 적은 종이를 깐다. 이렇게 해서 시루떡을 찌면 누구 몫의 떡은 설고, 누구 몫의 떡은 익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때 떡이 선 사람은 그 해의 운이 불길하다고 믿는다. 운이 나쁜 사람의 선 떡은 먹지 않고 백지(白紙)에 싸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세 갈래의 길이나 다섯 갈래의 길로 트인 길바닥 한복판에 던져 버린다. 그러면 다소 그 액운(厄運)이 면해지는 수가 있다.

유사풍속 한 해의 운수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해 행했던 정월 대보름날의 모돔떡점과는 달리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감별하기 위해 송편으로 행했던 팔월 한가위의 떡점, 새로 집을 짓고 이사를 갔을 때 그 집의 길흉(吉凶)을 조왕할머니에게 알아 보기 위해 시루떡으로 행했던 떡점도 있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필자 | 김동섭(金東燮)

목사리

☞ 목서리

목서리

정의 음력 정월 대보름에 가축의 질병 퇴치와 건강을 위하여 왼새끼줄이나 복숭아나무 가지를 소나 개 등의 목에 걸어 주는 풍속. 목서리는 목사리 · 목도리 · 소멍에라고도 부른다.

내용 목서리는 흔히 볏짚을 왼쪽으로 꼰 새끼줄이나 동아줄 혹은 복숭아나무 가지로 만든다. 이러한 물건에는 강한 주술성(呪術性)이 내포되어 있다고 믿는데, 왼새끼줄의 왼쪽은 오른쪽의 일상적 영역과는 달리 비일상적인 영역, 더 나아가서 신성성(神聖性)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숭아나무 가지는 잡귀 구축의 기능을 갖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특히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가지[東桃枝]'로 만든 목서리는 더욱 효험이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주술성이 강한 목서리를 소의 목에 걸어 주면 소가 한 해 동안 잔병을 앓지 않고 무병(無病)하며, 장수(長壽)하고, 잡귀가 범접하지 못한다고 한다. 간혹 소가 밭을 갈 때에도 병이 생기지 말라고 달아 주기도 한다.

지역사례 강원도 횡성에서는 소의 전염병인 우역(牛疫)이 돌 때에 외진 곳에서 자라는 복숭아나뭇가지를 베어서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후 그곳에 붉은 흙을 칠해 준다. 이를 '주추'라고 하는데, 붉은 흙으로 하는 주칠(朱漆)을 일컫는 듯 하다. 주칠한 복숭아나무 가지를 왼새끼로 꼰 금줄에 매달아 소의 등이 닿을 정도의 높이로 외양간 문에 달아 준다. 소가 드나들면서 주칠한 복숭아나무 가지에 닿으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는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에서는 소가 본격적인 농사일을 하기도 전에 기운 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름날 밤 이전에 소의 목에 왼새끼줄과 복숭아나무 가지로 목서리를 해준다. 충남에서는 왼새끼줄이나 동아줄에 붉은 고추를 끼우기도 하는데, 왼새끼줄에 붉은 고추를 끼우는 것은 목서리가 지닌 도액(度厄)의 뜻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경북 경산에서는 줄을 오색천으로 감싸기도 하는데, 오색천은 무색의 헝겊으로 신령들에게 바치는 매우 중요한 보편적 폐백(幣帛)이다. 이를 왼새끼줄에 입힘으로써 목서리의 신성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복숭아나무 가지를 둥글게 하여 목서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때 왼새끼줄을 함께 둘러 주술성을 배가(倍加)시키

기기도 한다. 그 밖에도 충남 논산에서는 삼베를 둥글게 말아서 만들기도 하고, 칡덩굴을 걸어 주기도 하며, 얼룩얼룩한 타래버선을 목서리로 사용하기도 한다. 타래버선은 양 볼에 수를 놓고 코에 색실로 '삭모(병거지 위에 매다는 붉은 색의 수술)'를 단 것으로, 색실과 붉은 색의 삭모를 달았다는 점에서 신성성과 제액의 성격을 한결 높인 것이다.

의의 목서리는 집안의 큰 재산인 동시에, 농사에 지극히 소중한 소가 한 해 동안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풍습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효경(金孝慶)

목영점(木影占)

⇨ 나무그림자점

목화불신수

⇨ 식구불켜기

뫼점

⇨ 메점

무국

⇨ 무밴장국먹기

무먹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무병장수(無病長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를 깨물던 것으로 일종의 부럼 깨물기 풍속.

유래 및 내용 『경도잡지(京都雜志)』의 기록을 보면 새벽에 밤이나 무를 깨물면서 축원하기를 일년 열두 달 동안 무사하기를 빌었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무와 나물을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고 한다. 특히 무를 먹는 것은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고 치아에 좋고 더위를 타지 않으며 무사하게 넘어가라는 의미에서 먹는 것이다. 무나물을 먹거나 생무를 먹기도 하는데 보통은 생무를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다. 대보름 아침 첫닭이 울면 무를 썰어서 무의 윗부분은 아버지가, 그 다음은 어머니가, 꼬리 부분은 자식들이 먹으면서 "무사 태평" 하고 외친다. 이것은 그 해 더위를 타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또한 무의 음(音)이 '무(無)', '무사하다'는 말의 첫 음과 같아서 무를 먹는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무 먹고 태평해진다."는 말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부스럼 깨먹자, 부스럼 깨먹자."라고 하면서 깨물어 먹기도 한다. 보통은 생무를 먹는데 지역에 따라서 바람든 무를 먹거나, 무에 잉어 모양으로 눈과 비늘을 깎아서 장식을 해서 먹기도 한다. 보통은 정월 대보름 새벽에 먹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열나흗날 밤에 먹기도 한다.

의의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생밤 · 호두 · 은행 · 무 · 잣 · 땅콩 등의 부럼을 깨물면서 일년 동안 무사 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기원하였다. 이는 단단한 부럼을 깨무는 소리에 잡귀가 놀라 물러간다고 하기도 하고, 단단한 부럼을 깨물면서 이를 단단하게 단련하기 위해 행한다고도 한다. 무 역시 부럼의 이칭으로서 생밤이나 호두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부럼 깨물기 풍속 중에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東光陽市 文化遺蹟學術調査報告書(全南大學校博物館 · 東光陽市, 1989), 全南民俗硏究 -신안군 도초면지역 민속종합조사 보고-(우리문화사, 1991),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화순군의 민속과 축제(남도민속학회 · 화순군, 1998), 광산김씨집성촌의 역사와 민속(국립광주박물관, 2000),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학술조사 보고서(강진군, 2001), 진도 아리랑마을 조성공사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전남대학교박물관 · 진도군,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진도 금갑진성 지표조사 보고서(진도군 · 전남대학교박물관, 2003).
필자 | 김지현(金智賢)

무명실선물하기

정의 정월 대보름에 부인들끼리 무명실을 선물하는 풍속.

내용 무명실로 옷을 지어 입으면 길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여 정월 대보름날 무명실을 선물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필자 | 편집부(編輯部)


무먹기 『京都雜志』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무밴장국먹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아침, 흰색의 무를 넣은 맑은 국을 먹음으로써 한 해를 맑게 살고자 하는 풍속. 한편으로는 정월 대보름에 미리 시원하게 무채국을 만들어 먹고 여름 더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지역에 따라 무밴장국 · 무장국 · 무국이라고도 한다.

내용 무밴장국은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끓여 먹는 무국을 말한다. 쇠고기와 무를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한 맑은 장국을 쌀밥과 함께 먹거나, 무를 채 썰어 식초를 넣고 채국을 만들어 먹는데, 무채국처럼 시원한 것을 먹으면 그 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대보름 아침에 '무밴장국'을 해서 먹는다. 무밴장국은 쇠고기와 무를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해서 맑게 끓인 것이다. 그러면 그 해에는 보름달처럼 맑게 살게 된다고 믿는다. 전북 남원에서는 대보름날 무를 채 썰어 식초를 넣고 채국을 만들어 먹는데, 채국처럼 시원한 것을 먹으면 그 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안산시 해안지역(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2, 경기도박물관, 2001),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지욱(金志昱)

밥점

☞ 메점

방쉬

정의 정월 대보름날 제주도 지역에서 행하는 액막이 풍속. 사악함을 물리친다, 방법을 행하다, 혹은 잡귀의 일종인 새[邪神]를 막는다는 의미의 제주도 방언으로서, 액운을 물리친다는 것을 뜻한다. 표준어로는 방사(放邪)로 표기할 수 있다.

내용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우선 가루를 빻아다가 떡을 여러 켜로 한 후 각 식구마다 이름을 써놓는다. 이 때 익지 않은 켜에 속한 사람은 그 해 액운이 있다고 해서 액막이를 한다. 쌀로 둥근 둘레 떡을 만든 후 정월 초이튿날 당(堂)에 가서 액막이를 하거나, 문전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옷감 서너 자에 식구 이름을 써 놓고, 지전에 소지를 석 장 말아 태워서 액을 막는다.

또한 식구 수대로 떡을 해놓고 달에게 기원하기도 한다. 한 가족이 각자의 몫을 표시해서 한 시루에 넣어 같이 찌는데 이 때 떡이 선 사람은 운이 나쁘다고 하여 백지에 싸서 사람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던져 액을 막았다. 이렇듯 액막이를 하는 것을 '방쉬한다.' 고 한다.

유사사례 정월 대보름에는 액막이연을 띄우기도 하는데, 이를 제주도에서는 '방쉬연' 이라고 한다. 액(厄)이라는 글자를 쓰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쓴 후 날려 보냄으로써 액운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좌혜경(左惠景)

방애아래흙

정의 정월 대보름날에 세 사람 이상이 찧은 절구방아 아래의 흙을 달여 그 물을 마시면 만병통치한다는 제주도 풍속.

내용 "정월 대보름날에 시콜방에 아래 흙을 끓여 먹으면 만병통치"라는 말이 있다. '시콜방에'란 곡물을 넣고 세 사람이 찧는 방아를 일컫는다. 방아는 음식을 만드는 곡식을 빻는 중요한 도구였으므로 그 밑에 있는 흙도 귀중하게 여겼다. 방아 밑에 남은 흙은 찧어진 곡식 가루만큼이나 고운 분말로서 약으로 쓰기에 적당했던 것이다.

약이 흔하지 않을 때 흙은 민간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약 대용으로 쓰였다. 제주도의 전설 속에서 흙을 이용하여 치료했던 예들을 볼 수 있는데, 명의(名醫)였던 명월 진좌수 전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한 임신한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해 진좌수에게 구원 요청을 하자 대문 밑에 있는 흙을 아침에 가져다 먹이라고 한다. 그러나 임산부 남편은 흙을 저녁에 가져다 먹여서 순산하지 못했다. "대문은 아침에 여는 것이므로 아침 대문 아래의 흙이라야 자궁이 열려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다시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참고문헌 | 濟州道誌3(濟州道, 1993).
필자 | 좌혜경(左惠景)

밭귀에 곡식묻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밭에 곡식이나 나락 종자를 묻어 풍년을 기원하는 전남 지역 풍속.

내용 보름날 차례를 지낸 뒤에 팥 · 조 · 콩 · 수수 · 녹두 · 목화씨 등의 밭곡식을 가지고 가서 밭귀에 묻는다. 이렇게 하면 그 해의 밭곡식이 풍성하게 자라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보름날 장만한 음식을 밭 어귀에 차려 놓고 "지석님네(제석님) 농사 잘 되게 해주십소사." 하고 비손하며 그 해 풍년 들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밭곡식을 묻는 것 외에도 나락 종자를 묻기도 한다.

지역사례 전남 영암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논 가운데 가장 큰 논에 가서 나락 종자를 논의 네 귀퉁이에 각각 묻으면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이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리 씨앗을 땅에 묻어 지신(地神)께 고하는 것으로, 그 해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월 대보름날 외에도 유월 유두날 하기도 하는데, 아침에 차례를 지낸 뒤에 그간 정성스럽게 일군 논가에 가서 준비한 음식을 차려 놓고 비손하면서 그 해 풍년 들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백가반(百家飯)

정의 여러 집에서 얻어온 밥을 먹는 정월 대보름 풍속. 전국적으로 행해진 대보름 풍속의 하나로 지역에 따라 대보름 전날 밤에 얻어 먹기도 하고, 대보름날 아침에 얻어 먹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백가반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 쳇밥 · 조리밥 등 밥을 얻어오는 그릇에서 온 명칭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방 주술적 기능을 취해서 더우밥(무주) · 버짐밥(청원) 등으로 부르는 곳도 있고, 막연히 복밥(통영)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내용 백가(百家)는 여러 집을 뜻하는 말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제삿밥을 나누어 먹는 옛 풍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아동 세시놀이로 간주된다. 밥을 얻는 행위나 개와 밥을 나누어 먹는 행위는 본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으로 간주되며, 절구통에 걸터앉거나 세 집 또는 세성받이 집에서 밥을 얻는 행위는 절구 또는 여럿이 가진 주력적인 힘을 빌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타성의 세 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여야 좋다고 하고, 세성받이가 있는 집에서 오곡밥을 얻어다 먹어야 좋다고도 한다. 세성받이는 최소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성이 다른 집을 뜻하는 것이다. 적어도 결혼한 2대(代)가 한 집에 살아야 한다. 얻어온 밥을 집안에 들여가지 않고 밖에서 먹는데, 대개 절구통 가에 걸터앉아 먹는다. 친구들끼리 모여 함께 나누어 먹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바가지나 체 또는 조리나 소쿠리를 들고 여러 집을 돌면서 오곡밥을 얻어온다. 백가반을 먹으면 그 해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하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또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도 하며 병이 들어 몸이 마른 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믿었다.

지역사례 대구 달성에서는 방앗고가 동쪽으로 향한 디딜방아의 디딤 받침에 앉아서 먹고, 경남 통영에서는 방앗간에서 먹는다고 한다. 또 개와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는데, 개에게 한 숟갈을 주고 자기도 한 숟갈 먹고 하여 나누어 먹으면 좋다고 믿었다. 이처럼 동쪽으로 향한 디딜방아에 앉아 얻은 밥을 먹는 것은 곧 동쪽이 가지고 있는 양성(陽性)의 주력 등을 무의식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전남 진도 지역에서는 마치 걸인이 걸식을 하는 것처럼 남의 집 앞에 이르러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안죽고 또 왔네." 하고 아이들이 각설이 타령을 부르기도 한다. 아이들은 밥을 얻으러 다니는 것을 마치 놀이처럼 즐기며, 다소 큰 아이들은 밥을 얻으러 다니는 대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창고나 마루에 차려 놓은 오곡밥을 훔쳐먹기도 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風俗誌(梁在淵 外, 乙酉文化社, 1971), 韓國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나경수(羅景洙)



百家飯『東國歲時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뱀치기

정의 뱀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초의 첫 뱀날인 상사일(上巳日) 또는 정월 대보름에 행했던 풍속. 충남지역에서는 긴 것 오지 않게 하기 · 긴 짐승 예방하기 · 긴 짐승 쫓기 · 뱀쫓기 · 뱀부적붙이기라고 하며, 충북 지역에서는 진짐승막기 · 뱀그슬리기라고 한다. 또 전북 지역에서는 뱀입춘 · 뱀부적붙이기라고 하며 경상도에서는 뱀그슬리기 · 뱀끄시기 · 뱀예방하기 · 진지끄시기 · 뱀쫓기라고 한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진대끗기 · 뱀뱀이라고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예로부터 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어 정초가 되면 뱀을 물리치고자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 뱀을 물리치는 행위로는 주로 냄새나 괴롭힘에 못 배겨 도망가게 하는 모방주술적(模倣呪術的)인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 경북 지역에서는 상사일에 뱀을 없애고 뱀이 가내(家內)에 범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구 달성에서는 왼새끼를 꼬아 머리털을 매고 약간 그을려서 "뱀치자, 뱀치자." 하고 외친다. 경남 내륙에서는 상사일 아침, 막대기 끝에 매단 한 발쯤 되는 새끼의 끝머리에 머리카락을 한 줌 꽂는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새끼의 몇 군데를 불에 그슬린 후 오줌통에 담근다. 그리고 "배암치자." 혹은 "뱀끄내자." 하면서 부엌에서 앞마당, 뒤뜰을 돌아 대문을 나가 고랑이나 시내에 버린다. 전남에서는 뱀을 몰아내기 위해 정월 열나흗날 밤이나 상원 아침에 '진대끌기'를 한다. 진대는 아주까리대에 여자 머리털 · 짚신 · 고추 등을 매달아 뱀 모양으로 만들어 땅에 대고 끈다. 충남 금산에서는 열나흗날 저녁에 '진대가두기'를 한다. 왼새끼를 꼬아서 들고 "진대 가두자!" 하고 외치며 뒤꼍부터 집안 전체를 한 바퀴 돈다. 다음에는 집 바깥으로 나가 도랑이나 냇가 옆에 왼새끼줄을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해 놓고, 그 위에 그릇으로 덮는다. 마치 뱀이 잡힌 것처럼 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 제비 새끼들을 잡아 먹으려고 집안에 자주 들어왔던 뱀을 막을 수 있다.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는 대보름날 아침에 뱀치기를 한다. 아침 일찍 생솔가지를 모아 비처럼 만들고 따로 그릇에 재를 담아, 솔가지에 묻혀서 뜰 밑을 한 바퀴 돌면서 재를 털고 다닌다. 이것을 두고 뱀치기한다고 하지만 뱀뿐만 아니라 모든 해충을 막고자 행한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著, 弘人文化社, 196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 천진기(千鎭基)

복쌈(福—)

정의 정월 대보름날 복을 싸서 먹는다는 의미로 김이나 취에 밥을 싸서 먹는 풍속. 쌈이란 무엇을 싼다는 뜻이므로 복쌈은 복(福)을 싸서 먹는다는 뜻이다. 정월 대보름에는 밥을 김이나 취에 싸서 먹는데 이것은 복을 기원하는 기복행위와 풍농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의 한 형태로서 의미가 있다. 복과(福裹) · 박점(縛占)이라 부르기도 한다.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배춧잎과 김으로 밥을 싸서 먹는다고 전한다. 이것을 '복과'라 한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인일(人日)에 일곱 가지 나물을 캐다가 국을 끓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풍속에는 정월 대보름날로 옮겨져 도리어 겨울철에 없는 맛을 보기 위한 뜻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해의(海衣)에다 마제채(馬蹄菜) 등속을 싸서 먹되 많이 먹어야 좋다고 이것을 '박점' 또는 '복쌈'이라 부르니 이것도 기풍(祈豊)의 뜻이 담겨 있다.

지역사례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6리 은행정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백반에 김쌈 싸먹기라 하여 찹쌀로 백반을 해서 김에 싸먹는데, 이것을 복쌈이라 하기도 하고, 볏섬이라고도 한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에서는 김 싸먹기라 하여 보름날 아침은 흰밥을 지어 김쌈을 해서 먹는다. 김쌈을 볏섬으로 여겨 많이 싸서 먹으면 농사에 장원을 한다고 여긴다. 충남 천안시 병산면 병천리에서는 보름날 김쌈을 많이 먹으면 볏섬을 많이 한다고 하여 많이 싸서 먹는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장재울에서는 볏섬 써먹기라 하여 보름날 아침에 쌀밥을 해서 마른 김에 싸먹는다. 김쌈을 하나 먹을 때마다 볏섬을 하나씩 하는 것으로 여겨, 아침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끼리 서로 "너는 몇 끄랭이(볏섬을

1 복쌈싸기
2 복쌈
전남 장흥군 안양면 남윤중


1


2

세는 단위)나 먹었냐?' 고 묻기도 한다.

복쌈은 노적쌈 풍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에서는 김쌈먹기 혹은 볏섬끄랭이싸먹기라 하여 보름날 아침밥은 나물을 마련하여 먹는데, 이 때 빠뜨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김이다. 김을 구워서 밥을 싸먹는데, 이를 '김쌈' 이라 한다. 김쌈을 싸는 김은 칼로 자르지 않고 통김을 그대로 올리며, 상 위에서 손으로 대충대충 잘라서 쌈을 싼다. 칼로 자르면 벼 모가지 자르는 것이라 하여 삼간다. 김쌈을 먹는 것을 볏섬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쌈 하나하나가 볏섬끄랭이라고 여겨 김쌈을 많이 먹으면 그 해에 볏섬을 많이 한다고 한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에서는 김쌈먹기 혹은 노적쌓기라 하는데 대보름날 찰밥을 지어 김에 싸서 쌓아두고는 이를 '노적밥' 이라고 부른다.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에서는 노적쌓기라 하여 오곡밥을 하면 우선 윗목의 성주 앞에 담아놓고, 장독대에는 '노적쌈' 이라고 하여 오곡밥을 김에 싸서 갖다놓는다. 노적쌈은 많이 쌓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가을에 농사가 풍년 든다고 한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가인마을에서는 김쌈먹기 혹은 노적쌓기라 하여 보름날 아침에 보름밥을 먹을 때 밥을 김에 싸서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것을 노적쌈이라고 하며, 노적쌈을 많이 쌓아야 그 해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장흥군 장평면 어곡리 어곡마을에서는 김쌈먹기 혹은 노적쌓기라 부르는데 대보름날 오곡밥을 김에 싸서 짚더미(짚배늘)·광 등 여러 군데 놓아두고 이를 '노적' 이라 한다.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양촌마을에서는 노적쌓기라 하여 대보름날 김으로 찰밥을 싸서 차례상에 놓고, 성주·샘·창고·쌀독에도 둔다. 이렇게 하면 곡식을 쌓아둔 것과 같다고 하는데, 그 해 농사가 잘 되라는 뜻에서 하는 행동이다.

의의 쌈은 맛도 맛이려니와 복을 싸서 먹는다는 관념이 곁들여져서 우리 겨레의 상징적인 음식의 하나가 되었다. 이 복쌈을 여러 개 만들어 그릇에 볏단 쌓듯이 높이 쌓아서 성주신에게 올린 다음 먹으면 복이 온다고 믿었다. 이렇듯 볏단 쌓듯이 쌓는 이유는 풍년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다. 또한 대보름이나 생일, 다른 명절 때 상에 올리기도 하는데 복쌈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믿었다. 때로는 돌을 노적(露積)처럼 마당에 쌓아 놓고 풍작을 기원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瑞山民俗誌 上(김태곤 외, 瑞山文化院, 1987),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서산시지(서산시, 1998), 한국의 음식문화(이효지, 신광출판사, 1998),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효지(李孝枝)

복토훔치기(福土—)

정의 정월 열나흗날 저녁, 부잣집 흙을 훔쳐다가 자기네 집 마당에 뿌리거나 부뚜막에 발라놓으면 부잣집의 복이 흙과 함께 따라와서 자기네도 잘 살게 된다고 믿어 부잣집의 흙을 몰래 훔쳐오는 풍속.

내용 복(福)훔치기 풍속은 흙뿐만 아니라 거름·물·미역, 돌이나 땔나무를 훔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서울 지방에서는 부자로 잘 사는 집의 담장이나 축대의 한쪽 귀퉁이에서 돌을 빼다가 자기 집으

로 가져오면 그 재복이 자기네 집으로 온다고 믿었다. 특히 복토훔치기로 인해서 부잣집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복토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 불을 밝혀두고 집안을 지켰다. 부잣집의 흙 외에도 서울 종각 네거리의 흙을 꼭두새벽에 파서 자기네 집 네 귀퉁이에 뿌리거나 부뚜막에 바른다. 이 역시 서울의 가장 중심지이며 부자거리인 종로의 흙을 가져가 부자가 되려는 뜻이다. 복토를 지키는 것은 흙을 잃으면 복도 잃게 된다는 속신(俗信)에서 이루어진 풍속이다. 정월 대보름날에는 찰밥을 쪄서 먹는데 웬만큼 사는 집에서는 이미 열사흗날부터 큰 시루에 찰밥을 찌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때에 가난한 집 사람은 아주 잘 사는 부잣집에 들어가 그 집의 땔나무를 훔쳐다가 찰밥 찔 때에 때면 그 집의 복을 훔쳐온다고 하여 나무 훔치기를 한다. 또 아이들은 '복도둑'이라고 하여 이곳저곳 마을 여러 집들의 나무더미에서 조금씩 나무를 빼내 온다. 이것은 복을 옮겨온다고 하여 놀이로도 행해진다.

지역사례 복토훔치기와 유사 사례로 전남 고흥에서는 '개펄훔치기'가 있다. 개펄의 흙훔치기는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해태(김) 양식이 잘되는 남의 개펄에 가서 개펄 흙을 훔쳐다가 자기네 해태 양식장에 넣어 준다. 그러면 자기네도 해태가 잘된다고 믿는다. 경북 경주의 한 인근 마을 입구에는 마을을 잘 살게 한다는 큰 바윗돌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을은 해마다 농사도 잘되고 특별한 일도 없으며 잘 사는 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아랫마을은 농사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자주 생겨서 윗마을의 바윗돌을 훔쳐가게 되었다. 윗마을에서는 아랫마을을 찾아가 소란을 벌인 끝에 그 돌을 다시 찾아온 사례도 있다. '땔나무훔치기'는 평안도 지방에서 있었던 풍속이다. 남부 지방에서는 집안에 황토를 깔았다. 주로 보름 전에 가까운 야산의 깨끗한 곳에서 황토를 파다가 문간과 마당에 뿌리거나 황토를 깨끗한 물에 풀어 사방에 뿌리면 집안이 편안하고 좋다고 한다. 이것은 부잣집 흙을 파오는 대신 인근 산의 깨끗한 흙을 파오는 것으로 상서로운 기(氣)를 가져온다는 의미도 있고, 황토의 붉은 색은 축귀(逐鬼)의 의미도 지녀서 이중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의의 흙과 물은 모든 생물의 생명의 근원이다. 특히 흙은 인간이 직접 딛고 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흙은 그 속에서 모든 물질을 분해·정화하며 신앙적으로도 정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복토훔치기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단순한 놀이처럼 행해졌다. 그러나 이 풍속에는 생명(또는 재복)을 탄생시키는 좋은 흙, 나쁜 것을 정화하는 깨끗한 흙, 그래서 이 흙에서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생각과 염원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전답(田畓)은 곡물과 동격이었고, 곡물은 또한 부(富)의 상징으로서 신(神)과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당시 만석꾼·천석꾼은 벼 만 섬 또는 천 섬 가량의 벼를 수확하여 들이는, 많은 논밭을 가진 부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많은 땅을 가진 사람, 그것도 박토(薄土)가 아닌 옥토(沃土)를 가진 사람은 일반인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장자·만석꾼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사회의 상류생활자였다. 흙은 이러한 부와 동격인 땅의 상징이다. 한편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데에도 터가 좋아야 하고 터가 좋아야 부귀를 얻는다고 한다. 그래서 큰 부자인 장자 집터는 모두가 당대의 명당터라고 한다. 강릉의 선교장, 구례의 운조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좋은 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곧 흙이다. 인간 삶의 길흉에 큰 영향을 준다고 믿는 음택지나 양택지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지세도 좋아야 하지만 그 흙이 또한 좋아야 한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집안을 지켜주고 가운을 일으켜주는 가신(家神)들이 있다고 믿는데 터, 즉 흙에는 터주신이 있는 것이어서 이 터주신의 덕으로 한 집안이 재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토훔치기는 이러한 관념 속에서 이루어진 정초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복토훔치기
『朝鮮の年中行事』朝鮮總督府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명절과 풍속(이석호, 민족문화추진회, 1983),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北韓民俗 綜合調査 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97),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하효길(河孝吉)

부럼깨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한 해 동안의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齒]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으로 날밤 · 호두 · 은행 · 잣 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 다른 말로 '부스럼(또는 부럼)깨물기' 라고도 하고 '부럼먹는다' 고도 한다. 또한 그러한 견과류를 일반적으로 '부럼' 또는 '부름' 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부럼의 한자 표기는 다양하다. 『경도잡지(京都雜志)』,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도애시집(陶厓詩集)』 중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 에 작절(嚼癤) · 고치지방(固齒之方)과 같은 용어가 보이고, 『담정유고(潭庭遺藁)』에는 이와 비슷한 뜻의 '양뇌아(養牢牙)' 라는 말이 있으며, 『세시풍요(歲時風謠)』에서는 '작옹(嚼癰)' 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종과(腫果) · 소종과(消腫果)라고 부르기도 했고,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교창과(咬瘡果)' 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유래와 변천 부럼의 정확한 유래는 알기 어렵다. 다만 조선 후기에 나온 여러 세시기류나 죽지사류 기록에 그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온 민속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해동죽지(海東竹枝)』의 기록에 의하면 "옛 풍속에 정월 대보름날 호두와 잣을 깨물어 부스럼이나 종기를 예방하였다. 궁중에서는 임금의 외척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일반 시정에서는 밤에 불을 켜 놓고서 그것을 팔았는데 집집마다 사가느라 크게 유행하였다." 고 하여 전래적으로 부럼깨기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물론 궁중에서까지도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럼깨기는 부스럼을 깨물어 그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행해지기 전에, 본디 이를 튼튼하게 한다는 주술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동국세시기』에는 "의주(義州) 풍속에 젊은 남녀들이 새벽에 엿을 깨무는 것을 치교(齒交)라고 한다." 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치교는 '이 내기' 로써 누구 이가 튼튼한지를 겨룬다는 뜻이다. 이러한 겨루기는 일반적으로 대보름날 고기산적[肉炙]을 만들어 먹는 것을 '이굳히기 산적[固齒炙]' 이라고 부르는 것과도 유사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담정유고』에 보이는 "호두와 밤이 어금니를 단단하게 하니, 오이처럼 부드럽게 부스럼을 깨무네." 라는 시구도 이런 관념이 오래 전부터 널리 인정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내용 부럼깨기에는 날밤 · 호두 · 은행 · 잣 · 땅콩 등 껍질이 딱딱한 것을 이용하며, 때로는 그보다 부드러운 무를 대용하기도 한다. 부럼깨기에 이용되는 견과류의 종류로는 어느 한 가지를 쓰기도 하지만, 대개는 여러 가지를 함께 골고루 마련하여 가족 구성원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견과류를 집집마다 보름 전날 미리 물에 씻어 준비해 두었다가 보름날 아침에 식구 각자가 이것을 어금니로 힘주어 단번에 깨물면서 "부럼 깨물자!" 혹은 "올 한 해 무사태평하고 부스럼 안 나게 해줍소사." 하는 주언(呪言)이나 축원사를 함께 외운다. 부럼깨기는 자기 나이 수대로 하기도 하지만 두세 번 거듭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첫 번째 깨문 것은 주언과 함께 마당이나 지붕에 던지고 두 번째 것부터는 버리지 않고 껍질을 깬 뒤 먹는다.

인접국가사례 부럼깨기 풍속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설날에 도소주와 교아당(膠牙餳)을 올린다." 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아당은 엿기름으로 만든 엿을 말하며 정초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곧 엿을 깨물어 이의 강함을 겨루는 우리나라의 의주 세

1 부럼
2 부럼깨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시풍속과 같은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정초에 '하가타메(齒固め)'라는 '이 강하게 하기' 관행이 조정과 재야를 통하여 두루 행해졌던 것도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민속이라 할 수 있다.

의의 부럼깨기는 본디 견과류를 깨무는 것으로, 이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인류 공통의 주술적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종기를 동반한 피부병이나 전염병의 현실적 위험이 크게 의식되면서 부럼깨기라는 말로 변하고, 정초 세시풍속으로서의 특징에 따라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이 더해져 주술성과 축원성을 띠는 한국적 세시풍속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薄庭遺藁,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洌陽歲時記, 海東竹枝, 荊楚歲時記, 朝鮮常識問答 -全篇-(崔南善 著, 東明社, 1946),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서울 · 세시 · 한시(홍석모 저 · 진경환 역, 보고사, 2003).

필자 | 황인덕(黃仁德)

부스럼깨물기

⇨ 부럼깨기

북문외유(北門外遊)

정의 음력 정월 대보름날 이전까지 아녀자들이 세 번 북문을 다녀오면 그 해 모든 액운이 없어지고 일년 내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믿는 한양 사람들만의 세시풍속.

내용 북문(北門)이란 조선시대 한양의 4대문 중의 하나인 숙정문(肅靜門)을 말하는 것으로, 이 풍속은 정월 대보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중 언제라도 세 번 왕래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4대문 중의 하나로 북쪽의 숙정문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지 숙정문, 즉 북문은 폐쇄되고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이는 북문의 위치가 외지고 한적한 곳에 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음(陰)의 기운을 가진 북문을 통행하면 안 된다는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예종 원년에 남소문을 폐쇄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음양가들이 손방(巽方)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양주 북한산으로 통하는 숙정문 역시 지금 문을 폐쇄하고 쓰지 않으니 언제부터 막았는지 알 수 없다. 민간에 전하는 말로는 이 문을 열어 두면 성안에 상중하간지풍(桑中河間之風)이 분다고 하여 이를 폐했다고 한다."고 했다. '상중하간지풍'이란 『시경(詩經)』에서 "주나라 선혜왕 때 귀족들이 매우 음란하여 상중(桑中)에서 남녀가 밀회했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곧 부녀자들의 풍기 문란 행위를 의미한다. "사내 못난 것이 북문에서 호강받는다.", "북문을 열면 음풍이 분다."는 한양지방의 속담과 숙정문 밖에 뽕밭이 많았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부녀자들의 풍기문란을 막기 위해 북문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詩經, 五洲衍文長箋散稿.

필자 | 박순(朴焞)

불쏘시개점

⇨ 숯점

사발재점

정의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풍년이 들 곡식을 미리 알고자 점쳤던 풍속. 사발점치기라고도 부른다.

내용 사발재점이라는 말은 사발에 재를 담아 점(占)을 쳤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보름날 밤 주발에 재를 담아 지붕 위에 올려놓는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곡식의 씨가 재 위에 떨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다음 날 떨어진 씨를 보고 그 곡식이 풍년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夜半鋪灰於盂 置之屋上 以驗穀種之自隕 明朝視之 以所隕之種 占其豊熟).

지역사례 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에서는 '사발점치기'라고 하여 사발에 곡식의 씨앗과 재를 담아서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가 대보름 아침에 그것을 살펴보아 곡식이 그대로 있으면 그 해 풍년이 들고, 없으면 그 해 흉년이 든다고 한다. 금왕읍 용계 1리 오룡마을에서는 사발에 재와 곡식을 넣고 지붕 위에 올려놓은 후 다음 날 아침 곡식의 상태를 보고 풍흉을 점친다. 쥐가 곡식을 파먹었으면 그 해 곡식에 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믿었다. 여러 가

구를 비교해 보면 쥐가 파먹은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의 한 해의 운수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한 풍속의 하나로, 비바람 · 태풍 · 한해(旱害) 등 자연의 제한적 요소와 더불어 살아야만 했던 불안한 삶이 이처럼 다양한 점법의 풍속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 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동섭(金東燮)

산애기간질

☞ 노래기침주기

상낭태우기

정의 긴 대나무에 종이와 실로 만든 기(旗)를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태워 날려 보내는 전북 지방의 풍속.

내용 상낭태우기는 보통 '기(旗)세우기'라고 부른다. '상낭'이란 장대 끝에 종이와 실로 만든 기를 의미하는데, 정월 대보름날 만든 상낭을 종일 가지고 놀다가 밤이 되면 불에 태워 그 재가 멀리 날아가도록 하는 풍속이다. 이렇게 하면 그 해 일년 동안의 신수가 좋고 액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붕의 용마루 양쪽에 기를 만들어 세우거나 팔랑개비를 만들어 꽂아 두기도 하는데, 이것은 손님, 즉 천연두의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의의 정월 대보름날에 행하는 '액막이연날리기' 풍속과 더불어 한 해의 액운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주술적 행위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한미옥(韓美玉)

새삼볶기

정의 밭에 새삼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콩을 볶거나 짚단을 태우는 풍속. 경상도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내용 새삼이란 한해살이 덩굴성 기생식물로 번식력이 매우 강하며, 농작물을 덮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잡초이다. 특히 콩의 수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새삼볶기는 그 행위의 장소가 집 마당 또는 논밭이라는 점과 그 목적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위 자체에서 비롯되는데, 그 하나는 콩을 볶는 것이며, 나머지는 짚단에 불을 놓는 형식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역에 따른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

지역사례 경남에서는 장소가 마당이든 밭이든 상관 없이 콩을 볶아 그것을 뿌리거나 이후에 먹는 행위가 수반된다. 그리고 이 때 외우는 주문도 "새삼볶자. 새삼볶자."이다. 반면에 경북에서는 콩을 볶는 행위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짚단을 집 마당이나 밭에서 태우며 "새삼밭에 불지르자."고 소리를 지른다. 그 명칭도 새삼밭에 불놓기 혹은 새삼불놓기라 한다. 이 외에도 행위의 시간은 아침, 낮 그리고 밤으로 나뉘며 행위자도 아이와 어른으로 구분된다.

유사풍속 강원도 삼척에서는 '회뜨기먹기'란 풍속이 행해진다. 회뜨기란 풀의 한 종류로, 가을철에 이것의 씨앗을 모아 두었다가 정월 대보름에 꺼내어 먹는 시늉을 한다. 이렇게 하면 밭에 잡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 삼척시 미로지역의 기층문화(관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보고서, 삼척문화원, 1995),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오세길(吳世吉)

새알뜨기

☞ 용알뜨기(龍—)

새쫓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곡식의 피해를 막고 풍년을 기원하며 새를 쫓아내는 모의행위. 새쫓기는 지역에 따라 까마귀쫓기 · 솔개쫓기 · 까치쫓기 등으로 불리며 '새날켄다'라고도 하는데 날켄다는 날린다의 전라도 방언이다.

유래 및 변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창명축조(唱名逐鳥)라 하여 관동의 산간 지방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일제히 온갖 새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

는 시늉을 하는데, 풍년들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새쫓기는 정월 대보름 무렵에 새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것이 점차 변용되어 몇몇 지역에서 흉조로 여겨지는 까마귀나 솔개를 쫓아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례 새쫓기는 풍년을 기원하고 조류의 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기 전에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서 모아놓고 "워-훠 저 나무새는 장자 집 밭에 가고 우리 밭에 오지 마라." 또는 "새야 새야 이쁜 새야 우리 밭에 앉지 마라."하고 외친다. 인제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새쫓기를 하는데 가장이 대문 밖으로 나가 들녘을 가르키며 "참새 들새 훠이 훠이" 하고 큰소리로 외치며 새쫓는 시늉을 한다. 새들에 의한 곡식의 피해를 줄이며 이웃보다 먼저 할수록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대보름 아침 일찍 가족들이 울타리를 막대기로 두드리며 "우어-우어-" 하고 새쫓는 시늉을 한다. 또는 어린아이에게 양동이를 들려 밖으로 내보내 두드리며 새를 쫓게 한다. 여름철 곡식이 익을 무렵 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모의 행위이다. 수원에서는 보름날 아침에 까마귀나 솔개가 지붕 위를 날아다니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하여 마당에 나가 "훠이 훠이" 소리를 지르며 새쫓기 시늉을 한다. 여주에서는 정월 대보름 아침에 까치가 지붕을 넘으면 좋지 않다고 하여 장대로 까치를 쫓는다. 새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장대를 들고 서 있기도 한다. 까치가 집 위를 넘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접국가사례 일본에서는 동북 지방에서 관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어 새쫓기를 한다. 금줄과 소나무를 모아 태우기도 하고 새쫓기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의 새쫓기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① 집에서 행하는 것, ②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집을 방문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축언(祝言)을 하는 것, ③ 새집을 짓고 들어가서 새쫓기 노래를 부르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새쫓기 노래를 부르는 공통점이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임장혁(任章赫)

생선온마리먹기

정의 정월 열나흗날 저녁 혹은 보름날 아침에 반찬으로 생선을 온마리째 지지거나 구워 먹는 풍속.

내용 및 특징 생선 온마리를 먹는 풍속은 경상도를 비롯하여 경기 · 충남 · 강원도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다.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이 청어이기 때문에 '청어온마리먹기' 라고도 한다.

생선을 먹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경남에서는 "구운 청어를 먹지 않으면 비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살이 오르지 않고 마른다는 뜻이다. 즉,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름날 비린 생선을 먹으면 여름철 집안에 파리가 많이 꾄다고 하여 비린내가 적은 청어를 먹는다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날 머슴들에게 청어를 온마리로 먹이지 않으면 논둑이 터져 농사를 망친다고 한다. 이는 풍요를 상징하는 보름날에 실제로 그 해 농사를 담당할 머슴을 대접하여 풍년을 보장받으려는 의미이다. 특이한 것은, 경북 경산에서는 보름날 아홉 번 행동하는 풍속처럼 청어를 아홉 토막을 내어 먹기도 한다. 또 강원도 속초에서는 '등심하기' 라 하여, 명태를 쪄서 먹기도 한다. '등심' 이란 머슴이 등에 힘을 받아야 일을 잘한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오세길(吳世吉)

설떡먹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에 부스럼 등의 병을 없애고 한 해의 복을 얻기 위해 설에 만들어 놓았던 떡을 먹는 풍속. 설에 만들어 놓은 떡을 보름만에 먹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딱딱한 떡먹기' 라고도 한다. 또한 설에 만든 흰떡 · 절편 · 찰떡 · 메떡 · 시루떡 · 콩고물떡 등의 설떡을 먹는다고 하여 '흰떡 구워먹기' · '절편먹기' 라고도 한다.

내용 설떡먹기 풍속은 주로 강원도와 전북 산간 지역에 나타나는데,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대보름날에 설떡을 먹으면 일년 동안 부스럼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그 집 맏딸이 시집가서 잘 산다고 하는 등 복을 많이 받는다고 여겼다. 〈조선일보〉 1936년 2월 7일자에도 "초하룻날 남기어 두었던 흰떡을 썻어서 떡국을 끓여가지고 병 예방으로 나누어 먹는다."고 하였고, "정월 초하룻날 떡은 보름까지 먹어야 길(吉)하다."는 속담도 있다. 설떡은 지역에 따라서 딱딱한 떡을 그대로 먹거나 다시 쪄서 먹기도 하며, 또는 찰밥에 넣어 쪄서 먹거나 떡국이나 만두국 등에 넣어 함께 먹기도 한다. 대보름에 부럼을 깨물어 먹음으로써 부스럼을 없앤다는 속신과 같은 의미로 딱딱한 설떡을 먹기도 하지만, 대보름까지 남은 떡을 다 먹기 위해 복을 받는다고 하여 설떡을 먹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광주 하남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전남대학교박물관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2001),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 · 잡지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최순권(崔順權)

소공경하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밥과 떡을 차린 상을 외양간 앞에 벌여놓고 소가 일년 내내 아무런 사고 없이 일 잘하기를 기원하는 풍속. 농사를 근본으로 삼는 데서 비롯된 기풍풍속(祈豊風俗)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소는 가축의 하나이지만 일찍부터 '생구(生口)'라 불릴 만큼 식구에 버금가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다. 정월 대보름날을 특별히 소의 생일이라고 하여 소를 위해 주었다. 또 기풍(祈豊)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날 잘 먹고 일년 내내 아무 탈 없이 열심히 일하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대접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 소대접하기 · 소위하기 · 소밥주기 · 외양간에 술놓기라고도 하는데, 모두 특별히 소를 대접하고 잘 먹이기 위해 행하였다. 충북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오곡밥과 나물을 키에 담아서 소에게 먹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쇠죽을 쑨 다음 상 위에 떡 한 접시, 나물 한 접시를 차리고 막걸리 한 잔 부어 올리기도 한다.

의의 이러한 풍습은 농사를 짓는 데 으뜸가는 소를 위함으로써 소가 건강하게 자라고 농사일을 잘하여 궁극적으로 한 해 농사에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를 생구라 표현하듯 일년 중 하루인 대보름을 맞아 아침 한 끼를 사람처럼 대접하려는 농민의 소박한 심리를 담은 풍습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안성군지(안성군, 1990),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군포시지(군포시, 1999),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장장식(張長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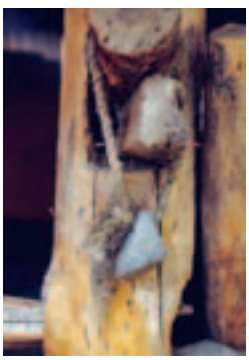
소돌걸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소가 머무는 외양간의 기둥에 구멍 뚫린 돌을 걸어 주는 풍속. '생구(生口)'라 일컫는 소를 위해 행하는 주술적 행위로 '소공경하기'의 일종이다.

내용 소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동력원으로서 다른 어느 가축보다 더 중요하여 농가의 첫째 가는 재산으로 여긴다. 이에 사람들은 소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소에 대한 여러 가지 풍속을 행하였다.

소돌걸기 풍속은 구멍 뚫린 돌을 외양간에 걸어 주는 것으로, 돌구멍에 끈을 꿰는 것은 소가 짝짓기 하는 것으로 여겨 새끼를 잘 낳으라는 뜻이다. 또 엽전을 꿴 형상과 같다 하여 재산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바램을 담고 있다. 즉, 소의 건강을 기원하고 마침내 재산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주술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지역에 따라서 소돈걸기 · 외양간에 돌걸기라고도 하며, 소에게 오곡밥을 주면서 구멍 뚫린 돌을 걸어 준다. 경남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외양간에 구멍 난 돌을 걸어 주면 소가 병에 걸리지 않고 아무 탈이 없다고 여긴다. 강원도에서는 이를 '소위하기'라 부르며 더욱 적극적인 일상 행위로 행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시장에서 천을 사오면 외양간 기둥에 천을 먼저 걸어 놓은 후 사용하고, 고기를 사와도 외양간에 먼저 떼어 놓는다. 집


소돌걸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1리
국립민속박물관

안에 들이는 음식이나 물건의 일부분을 떼어 외양간에 바치는 것인데, 이를 '수지'라 한다. 이처럼 수지를 외양간에 바치는 것은 소에게 바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외양간에 거처하는 군웅신 또는 군웅장군을 위하는 것이다. 군웅신은 외양간에 거주하는 가신(家神)으로 소와 말을 관장한다. 수지를 바쳐 군웅신을 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를 지키자는 뜻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장장식(張長植)

소밤참주기

정의 음력 정월 열나흗날 밤에는 소의 혼령(魂靈)이 인근 저수지로 부역(賦役)을 나가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소에게 밤참을 주어야 한다는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충북 제천의 의림지, 충남 예산의 저수지, 전라도의 '징게징게오야마을'의 중요 저수지 인근 등에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소의 혼령을 불러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충남 예산에서는 '오방신장(五方神將)'이 인근에 사는 소들의 영혼을 불러 농수(農水)를 얻기 위해 얼음을 모두 뒤집어 놓는다고 하며, 제천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이 되면 저수지에서 "슥! 슥!" 하며 논을 가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날 밤에는 이렇게 부역 나간 소가 지칠 것을 염려하여 또 한 차례 소죽을 끓여 밤참을 준다. 이 풍습의 유래나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수고해 줄 소에게 주는 명절음식으로서의 밤참인 셈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효경(金孝慶)

소밥주기

정의 정월 대보름날 아침, 소에게 밥과 나물을 함께 차려 주어 소가 먹는 것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



소밥주기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운곡마을 남윤중

내용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오곡밥과 나물을 차린 상을 외양간에 차리거나 오곡밥과 나물을 키에 담아 외양간에 놓아 소가 먹도록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막걸리를 부은 잔을 놓기도 하고 밥 대신 여러 가지 곡식을 놓기도 한다. 이 때 소가 무엇을 먹는가를 살펴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친다. 만약 소가 밥이나 곡식을 먼저 먹으면 그 해 농사가 잘 될 것으로 여기며, 나물 등을 먼저 먹으면 농사에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긴다. 일종의 농사점(農事占)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소에게 밥을 주고 풍흉을 해석하는 것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남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추어 놓고 소가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를 보는데, 이 때 가장 먼저 먹는 것이 그 해 풍년 든다고 여긴다. 고사리 · 무나물을 비롯하여 밥과 함께 목화씨를 놓아 소가 먹도록 하는데, 목화씨를 먼저 먹으면 목화가 풍년이 들고, 무나물을 먼저 먹으면 무가 풍년 들며, 밥을 먼저 먹으면 나락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밥보다 나물을 먼저 먹으면 논농사가 평년작이 될 조짐으로 여기기도 한다.

참고문헌 | 全南의 歲時風俗(全羅南道 鄕土文化叢書29, 全羅南道, 1988),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龜尾 · 善山의 歲時風俗(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평창군 민속지 -용평면-(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2002).
필자 | 장장식(張長植)

소위하기

☞ 소공경하기

솔방울던지기

정의 정월 대보름에 솔방울을 자기 집 마당에 던지면서 양계(養鷄)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풍속.

내용 솔방울이 계란처럼 생겼으므로 이를 평소에 많이 모아 두었다가 마당에 던짐으로써 닭이 그처럼 많은 알을 낳기를 기원하였다. 정월 대보름에는 볏가릿대세우기 · 복토훔치기 · 갯벌훔치기 · 용알뜨기 · 나무시집보내기 · 줄다리기 · 복쌈먹기 등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행사와 더불어 닭이 알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풍속도 함께 행하였다.

지역사례 함남 북청에서는 솔방울을 미리 많이 따 두었다가,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자기 집 마당에 던진다. 그러면 그 해에 집에서 기르는 닭이 잘 자라고 계란도 잘 낳는다고 한다. 평안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을 '누더름날' 이라 하는데, 이 날 행사 중에 이와 유사한 풍속이 있다. 즉, 솔방울로 병아리를 만들고 쇠똥을 빚어 암탉을 만들어 마당 가운데 놓는다. 이것을 '부계' 또는 '복계(伏鷄)'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닭이 알을 많이 낳아 품는다고 한다. 이 외에 전국적으로 정월 12일 저녁, 농가의 어린아이들은 솔방울을 쌓은 다음, 쇠똥으로 암탉을 빚어 솔방울을 품게 한다. 그리고 13일 새벽 쇠똥 속에서 솔방울을 꺼내면서 "계란 수천 개"라고 외치면, 양계가 잘 된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北韓民俗 綜合調査 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97),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수복수(壽福水)

⇨ 용알뜨기(龍—)

숯점

정의 밥을 지을 때 나오는 숯을 열두 개 꺼내어 각각 일년 열두 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숯이 꺼진 상태를 보아 일년 열두 달의 날씨를 점치는 것으로 정월 대보름날에 행하는 일기점(日氣占).

내용 및 지역사례 숯점은 정월 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행해지던 달불이 풍속과 유사한 일기점이다. 함남 북청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밥을 할 때 불을 때던 소나무가 숯이 되면, 주부들은 빨간 숯 열두 개를 꺼내 부뚜막에 올려 놓고 숯점을 친다. 이 열두 개의 숯은 일년의 열두 달을 상징한다. 한참 있다가 불이 꺼졌을 때 재가 뽀얀 것은 그 달 날씨가 좋고, 재가 꺼먼 것은 그 달 날씨가 나쁘다고 한다. 문천에서도 숯점을 쳤는데, 오곡밥을 지을 때 일부러 태운 싸리를 꺼내 열두 개를 늘어놓고, 불이 꺼진 다음 숯이 꺼멓게 된 달은 장마가 지고, 흰 재가 된 달은 가뭄이 든다고 믿었다. 북청과 숯점에 대한 해석이 반대이다.

유사풍속 강원도 속초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밥을 지을 때 부뚜막에 열두 달을 상징하는 불쏘시개를 집어 내놓는다. 불쏘시개가 뽀얗게 사그라지는 달은 가물고, 꺼멓게 사그라지는 달은 장마가 진다고 한다. 한편 강원도 양구 · 정선 · 평창 등에서는 보름날 새벽에 밥을 지을 때 숯 열두 덩이를 차례대로 늘어놓고 불을 때 밥을 지은 후 점을 치는데, 숯이 까만 달은 가뭄이고, 숯이 하얗게 된 달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한다. 또 강원도 고성에서는 가장 먼저 꺼지는 불쏘시개의 달에 장마가 진다고 한다. 반대로 정선군 장열리에서는 가장 먼저 꺼지는 숯의 달에 가문다고 한다.

참고문헌 | 文川郡誌(문천군지편찬위원회, 1988),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시루번먹기

정의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행하던 부럼깨물기의 일종으로, 시루떡을 찔 때 시루 주변에 붙어 있는 시루번(시룻번)을 말려 놓았다가 먹는 정월 대보름의 풍속.

내용 시루번은 '시루변' 혹은 '시루병' 이라고도 불린다. 이 시루번을 깨물어 부스럼을 예방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행해진 정월 대보름 풍속이 시루번먹기이다. 섣달 그믐날 시루떡을 찔 때 김이 새지 않도록 시루와 솥 사이에 붙였던 밀가루 반죽, 즉 시루번을 말려 놓았다가 정월 대보름 저녁에 먹거나 깨문다.



시루번붙이기
충남 연기군 서면 용암리 홍덕선

의의 시루번을 먹는 행위는 일종의 유사주술적(類似呪術的)인 의미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단단한 시루번을 먹거나 깨무는 행위를 통해 피부도 단단해져서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다.

참고문헌 | 광주수완지구택지개발예정지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국립광주박물관 · 한국토지공사, 1997),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지현(金智賢)

시룻번먹기

⇨ 시루번먹기

시절윷놀이

⇨ 윷점[栖占]

식구불켜기(食口—)

정의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식구 수대로 불을 켜서 불의 크기와 밝기 등으로 그 해 길흉을 점쳐 보는 신수점.

내용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종지나 접시 같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목화 · 창호지 · 실 또는 명주실 같은 것으로 심지를 해 박아 불을 붙인다. 이 등잔불은 식구 수대로 하나씩 만들어 불을 켜는데 불이 타는 모양에 따라 그 해 신수를 점치는 것이다. 불이 심지에 잘 붙어서 꺼지지 않고 기세 좋게 잘 타올라 깨끗하게 다 타 없어져 버리면 그 해 신수가 좋지만 제대로 타오르지 못하거나 검정 같은 것이 남아 있으면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지만 경기도를 비롯해서 충남 · 전북 · 전남 등지에서 가장 폭넓게 전승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일대에서는 등잔불 대신 잣을 실이나 바늘 같은 것으로 꿰어 불에 태워 봄으로써 신수를 보는 곳도 있다. 이를 '잣불점' 이라 한다.

지역사례 충남 아산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혹은 보름날 저녁에 '식구불' 을 켠다. 창호지 석 장을 말아서 위쪽은 한 가닥, 끝은 세 가닥으로 하여 들기름 · 아주까리기름이 들어 있는 접시에 담가 불을 붙이고 밤새 밝혀 둔다. 이 불은 식구 수대로 켜서 마당 · 대청 · 부엌에 두는데 신수도 보고 그 해 소원이 성취되길 기원하기 위해서 한다. 서산에서는 '목화불신수' 를 본다. 보름날 아침 종지에 기름을 담고 목화로 만든 심지에 불을 켜서 그 모양을 보고 그 해 신수를 점친다. 이 불은 식구 수대로 켜는데 불이 꽃송이처럼 곱게 타올라 깨끗하게 타버리면 신수가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여긴다.

경기도 구리에서는 '잣불점' 으로 신수를 본다. 보름날 잣을 까서 댓가지에 꽂고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말하고 불을 붙였을 때 잘 타면 한 해 운수가 좋고 타다가 꺼져 버리면 좋지 않다고 믿었다.

의의 불은 정화력(淨化力) · 생명력(生命力)이 있다고 믿었으며 액을 쫓고 복을 가져오는 힘이 있다고 여겼다. 식구불켜기도 불의 이러한 힘을 빌려 한 해의 길흉을 점쳐 보거나 복을 기원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文化史大系Ⅳ -風俗 · 藝術史-(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71), 瑞山民俗誌 上(김태곤 외, 瑞山文化院, 1987), 九里市誌 上(구리시, 1996), 韓國의 歲時風俗 Ⅰ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경기민속지Ⅲ -세시풍속 · 놀이 · 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류종목(柳鍾穆)



식구불켜기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국립민속박물관

실공드리기[絲功—]

정의 실[絲]을 성주신에게 바치고 개인의 수복(壽福)을 기원하는 신수점(身數占). '명공(命功)드리기'라고도 한다.

내용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시루떡을 해서 성주께 올리면서 시루떡 옆에 쌀을 가득 담은 쌀그릇을 올린다. 쌀그릇 위에 숟가락을 꽂고 거기에 수복을 기원할 사람의 나이 수만큼 긴 실을 둥글게 접어서 서린다. 이렇게 해서 촛불이 꽂혀 있는 시루떡으로는 보름의 불공[火功]을 드리고, 이 실로는 실공을 드린다. 이것을 '명공(命功) 드리는 일'이라 한다. 점을 쳐서 그 해 운수가 나쁜 식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행한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의하면 "무명실을 자아 옷을 지으면 길한 징조가 나타난다 하여 부인들은 정월 보름날 만든 실을 서로 선물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보름에 만든 실이 사람의 수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실을 서로 선물하는 것은 상대방의 장수(長壽)를 기원함은 물론 자기의 장수를 기원한다고 믿어 행하던 것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필자 | 표인주(表仁柱)

실불점

정의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 저녁에 실[絲]을 가지고 행하는 점. 실점[絲占] 혹은 실불점치기라고도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전남 지역에서는 먼저 자기의 키만큼 긴 길이의 실을 준비하여 자기 나이 수만큼 매듭을 만든다. 이것을 방의 시렁 등에 묶어 드리우고 밑에서 불을 붙인다. 불이 타는 것을 보아 잘 타면 길(吉)하고 잘 타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매듭이 탈 때 곧 꺼지려다가 겨우 타는 것은 잘못 타는 것이기 때문에 불길하다고 판단하고, 타다가 불이 꺼지면 더욱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잘 타다가도 끝에 가서 잘못 타면 초년(初年)은 좋으나 후년(後年)이 나쁘다고 판단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훨훨 타야 그 해의 운이 좋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정월 대보름 저녁에 실을 자기의 키만큼 길게 하여 물에 담갔다가 꺼낸 후 손으로 물을 짜서 마르게 해서 실 끝에 불을 붙인다. 이 때 불이 잘 타면 그 해 신수가 좋다고 점을 치기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표인주(表仁柱)

실점[絲占]

⇨ 실불점

아궁이에 불때기

정의 정월 열나흗날 저녁 혹은 대보름 아침, 아궁이에 튀는 소리가 요란한 싸리나무 등을 넣어 불을 때면 곡식이 잘 되고 풍년이 든다고 하여 행하는 풍속.

내용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탁탁", "툭툭툭" 타는 소리가 마치 곡식이 영그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행해지는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대보름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이다. 또한 정초에 이렇듯 소리가 요란한 나무를 태움으로써 잡귀 · 잡신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오곡밥을 지을 때나 군불을 땔 때에는 일반적으로 콩대나 싸리나무 등을 이용해서 태우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들깻가지나 메밀대 · 노간주나무 · 보릿대 등을 태우기도 한다.

지역사례 충청도에서는 정초 혹은 대보름날 아침에 아궁이에다 노가지나무(노간주나무)를 태워서 오곡밥을 짓는다. 혹은 노가지나무를 걸어 두거나 태우기도 한다. 경상도에서는 들깻가지나 콩깍지 · 싸리나무 등을 태워 군불을 때거나 보름밥을



아궁이에 불때기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운곡마을
남윤중

지어 풍년을 기원하는데, 특히 경북 고령 지방에서는 뱀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궁이에 들깻가지로 불을 때기도 한다. 경기도 지방에서도 열나흗날 저녁, 오곡밥을 지을 때 메밀대나 노감주나무(노간주나무)·싸리나무·오도독나무 등을 사용하여 밥을 짓거나 불을 때는데, 역시 나무들이 타면서 내는 요란한 소리를 통해 기풍(祈豊)을 한다. 파주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싸리나무로 불을 때면 "호드득" 튀면서 연기가 나지 않고 잘 타기 때문에 액막이가 된다고 믿는다. 전라도에서도 대보름날 오곡밥을 하면서 싸리나무나 콩대·콩깍지 등 타는 소리가 요란한 나무로 밥을 짓거나 군불을 때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잡귀를 예방한다.

참고문헌 |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한미옥(韓美玉)

아홉 번 행동하기

⇨ 나무 아홉 짐하고 밥 아홉 번 먹기

애기타오기

정의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행하던 기자(祈子)풍속.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아이 잘 낳는 집 삼신에게 가서 애기를 빌어온다는 의미로 '애기타오기'라 칭한다.

내용 정월 대보름날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날을 택하여 삼신을 위한 음식을 장만한다. 모두 잠든 한밤중에 떡시루와 음식을 장만하여 아이가 많은 집의 문 앞에 가서 문간대장과 터주대감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하면서 찾아 온 연유를 말하며 빈다. 같이 따라온 무당은 "이 집 삼시랑 할머니는 자식이 많으니 자식이 없는 아무개에게 하나만 점지하여 주십사." 하고 빌면서 돈을 실에 꿰어 토방 아래 탯불을 피우는 곳에 던져놓는다. 그러면 애기를 타갈 여자는 무당 옆에서 떡시루를 머리에 이고 서 있고, 삼신으로부터 애기를 타게 되면 떡시루가 저절로 내려지는데 이 때 이를 얼른 치마폭으로 받는다. 온몸이 찌르르하며 떡시루를 내리면 아이를 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터주 삼신이 아기주기를 거절한 것이라 믿는다.

의의 몸이 찌르르하는 것은 일종의 접신(接神)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당들이 접신할 때 몸을 움찔하거나, 대잡이를 할 때 손이 떨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떡시루를 내릴 때 경험하는 찌르르함은 삼신이 접신하였다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변산의 얼(부안군청, 1982),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이정재(李丁宰)

액막이연[厄鳶]

정의 한 해의 액운(厄運)을 멀리 날려 예방하는 것은 물론 복을 기원하기 위해 대보름을 기해 띄워 보내는 연(鳶). 주로 방패연을 사용하며, 연의 표면에는 송(送)·송액(送厄)·송액영복(送厄迎福) 혹은 본인의 성명이나 사주·주소 등을 써넣는다. 액연(厄鳶) 또는 송연(送鳶)으로도 불린다.

유래와 역사 연은 B.C. 400년대에 그리스의 알투스(Altus)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송나라 때 고승(高承)이 찬한 『사물기원(事物記原)』에 "B.C. 200년경 한신(韓信)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의 기록은 중국보다 약 800여 년이 뒤진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열전(列傳)」 김유신 상(金庾信上)에 보면 "신라 선덕 여왕 말년에 김유신이 밤에 풍연(風鳶)에 불을 달아 하늘로 올려 민심을 수습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한편 일본은 한국보다 약 300여 년이 뒤진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에 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주왜명유취초(箋注倭名類聚抄)』에 전한다.

연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들어서 액막이의 일종으로 놀이화되었다. 정철(鄭澈)의 시조 '속전 지연가(俗傳紙鳶歌)'의 내용, "내 집의 모든 액[厄]을 너 홀로 가져다가 인가(人家)에 전(傳)치 말고 야수(野樹)에 걸렸다가 비 오고 바람 불 때 자연소멸(自然消滅)하거라."를 통해 조선시대에 액막이연의 풍속이 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명종 21년



액막이연
국립민속박물관

(1566) 1월 15일조에, "전교하였다. '상원에 연을 날리는 일(곧 紙鳶이다. 세속에서 지연이 추락된 집에는 그 해에 재앙이 있다고 한다.)은 예로부터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를 금할 필요가 없으나, 오늘은 평소와 같지 않다. 중궁이 외궁에 나가 아직 환궁하지 않았는데, 여염 사람들이 멋대로 연을 날려 금중에 많이 추락되었으니 오부의 관령을 추고하여 치죄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상원에 연을 날리는 놀이는 우리나라의 고사인데 상이 의혹하여 이 명을 내린 것이다. 대저 인군의 한마디는 사방이 다 법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민간에 떠도는 근거 없는 말로써 아동들의 놀이를 금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아이들이 '집안 식구 아무개 무슨 생(生), 몸의 액을 없애 버린다(家口某生身厄消滅).' 는 글자를 연 뒤에 써서 그 연을 띄우다가 해질 무렵에 그 연의 줄을 끊어버린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액막이연의 풍속이 널리 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연을 날리는 시기는 섣달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로 고정되어 있다. 농한기인 음력 12월부터 연을 날리기 시작하여 정월 대보름에 액막이연을 날려 보냄으로써 연날리기를 끝내고 새로이 농사 준비를 다짐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 이후에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 이라고 지탄받았다. 고리백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천민으로 고려시대에는 수척(水尺) 또는 화척(禾尺)으로 불렸다.

정초에 세배와 성묘가 끝나면 마을 앞이나 갯벌에서 본격적으로 연을 띄우는데, 정월 대보름 바로 전에 절정을 이룬다. 정월 대보름 밤에는 달맞이를 한 후에 각자 띄우던 연을 가지고 나와 '액막이연' 을 날린다. 액막이연에는 송 · 송액 · 송액영복 등의 글자와 함께 본인의 성명이나 사주 혹은 주소를 적는다.

이 때 연줄을 끊는 방법에도 민속적 의미가 있다. 창호지 위에 쑥과 뽕나무 숯을 올려놓고 빻아서 담뱃대 모양으로 20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로 만다. 이것을 실로 연결하여 연줄에 매고 불을 붙여 연줄을 푼다. 이것이 연줄에 매달려 높이 올라갔을 때 연줄을 잡아당기면, 마치 불꽃놀이처럼 불꽃이 퍼지면서 장관을 이룬다. 연줄에 매달린 불꽃이 다 타면, 연줄이 끊어져 멀리 날아가게 된다. 액막이연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는다. 제화초복(除禍招福)의 속신관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京都雜志,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事物記原, 三國史記, 洌陽歲時記, 箋注倭名類聚抄,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이창식(李昌植)

야회(夜會)

정의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다리밟기 등의 놀이를 하면서 밤새도록 노는 풍속.

유래 및 내용 속설에 정월 대보름날 밤 다리를 밟으면 일년 열두 달 액(厄)을 면한다고 하여, 이 날 밤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리밟기[踏橋]를 하였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서울 사람들은 달이 뜬 후, 모두 종가(鍾街, 지금의 종로)로 나와 종소리를 듣고 헤어져서 여러 다리를 밟으면 다리[脚]에 병이 나지 않고, 대광통교 · 소광통교 및 수표교에 가장 많이 모인다. 이 날 저녁은 나라에서도 통행금지를 완화하여 사람들로 산을 이루고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떠들썩하다."고 하였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다리[橋]가 우리나라 말로는 다리[脚]라 발음되므로 속담에 이렇게 하면 일년 동안 다리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의하면 다리밟기놀이는 고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남녀노소가 줄을 이어 밤새도록 놀이가 그치지 않자 법관들이 엄금하여 위법자는 체포하도록 하였다고 할 정도로 다리밟기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또 『정조실록(正祖實錄)』에 의하면 정조 15년(1791) 정월 대보름에는 그 이전인 13일부터 사흘 동안 도성(都城) 내에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여 숭례문과 홍인문을 열어 두고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 다리밟기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일부 양반들은 서민들이 들끓는 것을 싫어하여 하루 앞서서 음력 열나흗날 밤에 행하기도 하였으니, 이를 '양반다리밟

기' 라 하였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각종 폐단이 심해져서 부녀자들의 다리밟기는 점차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리밟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울 · 개성 · 함흥 지방 등에서는 이 놀이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芝峯類說.
필자 | 박순(朴焞)

어부슴

정의 음력 정월 대보름에 그 해의 액막이를 위해 깨끗한 종이에 밥을 싸서 물에 던져 넣는 풍속. 새해에 운수가 대통하기를 기원하는 가정의 안택(安宅) 행사인 어부슴은 물고기나 오리에게 밥을 베풀어 먹이므로 '어부시(魚鳧施)' 또는 '어부식(魚鳧食)' 이라고 한다.

유래 및 변천과정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상원조(上元條)에는 "깨끗한 종이에 흰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시라 한다."고 하였다. 영동 지역에서는 주로 어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상원조(上元條)에는 "물의 직성(直星)을 만난 사람은 종이에다 밥을 싸서 밤중에 우물 속에 던져 액을 막는다."고 하였다. 영서 지방의 계변촌(溪邊村)에서는 대보름날 만월이 뜰 때 자기 밥그릇에서 밥 세 숟가락을 떠 깨끗한 한지에 싸고 거기에 생년월일을 써서 냇물에 던진다. 아직 얼음이 녹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음을 깨고 그 밑에다 넣는다.

어부식 관등놀이에 해당하는 행사가 1930년대에 서울 한강변의 용궁당에서 용궁맞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용궁당에 부녀자들이 모여들었다. 무녀들은 소지축원에 여념이 없고, 손자를 동반한 할머니들은 자손의 장수를 빌기 위해 명다리나 명실을 바쳤다. 그리고 작은 배를 타고 용신에게 바치는 공물을 강 속에 던지며 소지(燒紙)를 올렸다. 현재 그 용신당은 없으나 보름이 되면 지금도 한강대교 남쪽 언덕의 큰 나무에는 부녀자들이 명실을 걸고 촛불을 밝힌다.

내용 가정의 안녕을 축원하는 민간신앙의례인 어부슴은 농어촌에서 두루 행하나 특히 어촌과 영동 지역에서 일반화된 액막이 풍속이다. 새해가 오면 그 해의 무사평안을 위해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보거나 점(占)을 친다. 그 결과 금년 운수가 불길하다고 하면 미리 예방하기 위해 더러 무당에게 푸닥거리나 굿을 시키지만 대개는 자신이 방편을 써서 액막이를 한다. 그 중 하나의 방편이 어부슴이다. 어부슴을 할 때는 대개 밥 세 접시를 떠놓고 달에게 빌고 나서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와 밥을 물에 띄워 보낸다.

지역사례 강원도 속초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한지에 자기 나이 수만큼 찰밥을 싸서 쌍천 등지에 버린다. 이렇게 밥을 싸는 것을 "봉숭이밥 싼다."고 한다. 또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 세 뭉치를 떠서 깨끗한 한지에 싼 후 생년월일을 적어 보름달이 뜰 때 물에 띄운다. 속초와 고성 등지에서는 식구의 나이 수대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한지에 싸고 바다에 넣기도 한다. 예를 들어 13살이면 크게 하나를 뜨면서 열이라고 한 후 다음 것은 11, 이런 식으로 13번을 뜬다. 그래서 그 밥을 하얀 백지에 약봉지처럼 싸서 '아무 살짜리 아무개 어부식' 이라고 써서는 보름달이 올라오는 쪽을 향하여 "어부식한다, 어부식한다."고 외치면서 각각 물에 던진다. 어떤 마을에서는 식구 수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에 삼재




1 어부슴(비손)
2 어부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나루 황현만

수(三災數)가 든 사람만 한다.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안목마을에서는 나이에 9나 7이 들면 신수가 불길하다 하여 그 나이에 해당하는 가족을 위해 오곡밥을 세 숟가락만 떠서 한지로 싸 바다에 넣고 달에게 무사하기를 빈다. 또 강동면 안인진에서는 열나흗날 밤에 한지를 조끼처럼 재단하여 거기에 주소와 이름 및 '금년신수방액(今年身數防厄)'이라고 쓴 후 그것을 입고 하룻밤 잔다. 그리고 보름날 밤에 약식 세 숟가락 떠서 그 한지에 싼 후 달을 향하여 종이에 쓴 대로 삼창하고 바다에 던진다. 철원군 지포리에서는 대보름 아침밥을 나이 수대로 떠 백지에 싸서 강변에 나가 한 해의 안강(安康)을 기원하면서 강물에 버린다. 와수리에서는 보름날 자기의 아침밥을 세 숟가락 떠 백지에 싸서 강변에서 기원하고 강물에 버린다. 화지리에서는 보름날의 어부슴을 위하여 따로 백반을 지어 식구 수대로 숟가락으로 떠서는 백지에 싼 후 각각의 성명을 기록하여 강물에 버린다. 화천의 여러 마을에서는 가족의 수대로 밥을 떠서 백지에 싸고 겉에 "조선국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리 ○○○"이라고 쓰고 물에 띄운다. 이 때 어부슴이 잘 떠내려 가면 그 해는 운수가 대통하고, 쉽게 가라앉거나 떠내려 가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어부슴의 유풍이 화천의 축제인 용화축전 때에 어부식관등놀이라는 행사로 전승되고 있다. 곧 축전의 전야제에 밥을 싸들고 강가로 나와 밥과 촛불을 띄우면서 소원을 빈다.

의의 어부슴은 '고시레' 풍속과 불교의 '방생(放生)'이 민간신앙화한 본보기이다. 미물인 물고기나 오리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고시레의 유풍이며, 생명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방생 정신의 발로이다. 그것은 용궁맞이 때에 강 언덕에서 붕어나 자라를 파는 부인들이 많고 그 물고기를 사서 놓아 주기 때문에 방생이라 부르는 예에서도 알 수가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旌善郡誌(정선군지편찬위원회, 1978),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華川郡志(華川郡, 1988), 民俗誌(江原道, 1989), 속초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洪城의 民俗(洪城文化院, 1994), 강원도 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강원전통문화총서 - 민속-(김의숙 외, 國學資料院, 1997),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민속학이란 무엇인가(김의숙 외, 북스힐, 2003).

필자 | 김의숙(金義淑)

어부시(魚鳧施)

⇨ 어부슴

얼음점[永占]

정의 정월 대보름날 밤, 그릇에 물을 담아 두었다가 얼음이 언 상태를 보고 치는 점. 사발에 물을 담아 얼음이 어는 것을 보고 점을 친다고 하여 사발점이라고도 한다.



얼음점
東亞日報 1927年 3月 21日

내용 그릇에 물을 담아 두고 밤 사이에 얼려서 얼음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보고 점을 치는데, 그릇에 얼음이 많이 부풀었으면 풍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라고 본다. 이러한 내용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에도 보이는 오랜 관습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비가 내리는 정도를 보아 개인이나 가정의 신수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때 몫에 따라 식구 수대로 그릇에 물을 떠 놓거나 각 가정별로 떠 놓으며, 물그릇 여러 개를 큰집 · 작은집 또는 농사 접시 · 고기잡이 접시 등으로 정하여 놓기도 한다. 지역차가 있으나 모두 얼음이 그릇보다 위로 부풀어 오르게 언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은 동일하다.

지역사례 제주도에서는 식구 수대로 그릇에 물을 담은 뒤 밖으로 내놓아 밤을 샌 후 아침에 얼음이 언 상태를 보아 일년 신수를 본다. 신수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은 그릇의 얼음이 툭 소스라져 얼고, 그 해 몸이 곤하다든가 나쁜 사람은 한쪽만 언다든가 한두 군데 얼음에 금이 가 있다든가 한다. 대보름에도 다시 해보고 비교한다.

유사사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는 '농사불이'라는 풍속이 있다. 정월 열 나흗날 저녁에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어서 박씨는 박씨, 김씨는 김씨라고 쓴 조그마한 그릇에 그 물을 따라 놓고 하룻밤을 지새운다. 대보름 아침에 가 보면 그릇에 있던 물이 꽁꽁 어는데 그 정도에 따라 풍흉을 점친다. 꽁꽁 얼어서 그 얼음이 그릇 위로 볼록하게 솟아 있으면 그 집은 풍년이 들고 평평하게 얼어 붙은 집은 그 해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 집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점을 치기도 하고 혼자서 남의 집 것까지 점을 쳐주기도 한다.

의의 정월 대보름은 그 해 처음으로 달이 밝고 큰 날이므로 이 날을 기해서 일년 중의 일을 점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특히 겨울밤이 추운 지역에서는 주변에 얼음이 얼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달이 크고 밝으면 좋듯이 그릇에 담은 물도 넘치게 솟아 얼어 있으면 농사의 수확도 넘쳐 풍년이 들고 좋을 것이라고 보는 유사의 법칙이 적용된 점복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民俗大觀4(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2), 甕津郡誌(甕津郡, 1989),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김지욱(金志昱)

엄나무걸기

정의 음력 정월 대보름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잡귀나 역귀(疫鬼)가 집안으로 범접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엄나무를 걸어 두는 풍속.

내용 엄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으로 한자로는 자동(刺桐) · 총목(楤木) · 해동(海桐)이라 칭한다. 엄나무 줄기나 가지에는 날카롭고 굵은 가시가 촘촘히 돋아나 있어 잡귀나 병마가 이 나무를 보면 무서워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엄나무의 가지나 굵은 줄기 혹은 엄나무 가지 묶음을 거실 문 밖의 상인방(上引枋)이나 대문 위쪽에 가로로 걸어 둔다.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를 엄나무가 많이 난 숲으로 데리고 가서 병이 낫게 해 달라고 기원하기도 한다. 엄나무가 시는 잡귀를 쫓고 또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주력(呪力)을 지닌 나무이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는 음력 정월 초순에 범게와 엄나무가지를 구하여 상인방에 가로로 걸어 두며, 고양에서는 엄나무가지 묶음을 대문 위에 걸어 둔다. 용인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야광귀의 범접을 막기 위해 체와 엄나무를 높이 달아 두기도 한다. 한편 충남 아산에서는 정월 초순에 엄나무 몸통을 끊어와 대문 위에 걸어 두거나, 복조리 · 코뚜레 · 엄나무를 같이 묶어 상인방에 걸어 둔다. 충북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야광귀 지키기를 하는데,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고 꾀꾀할머니에게 신발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체나 엄나무를 걸어 놓는다. 강원도 고성에서는 정월 16일인 귀신날에 귀신이 집안에 못 들어오게 머리카락을 태우고, 엄나무 가지를 체에 다 꽂아서 매달아 놓는다. 경남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병귀(病鬼)가 범접하지 못하게 엄나무 가지를 거실 입구 위에 가로로 걸어 둔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의 와족(佤族) · 합니족(哈尼族)은 아이를 낳으면 방문에 가시나무를 걸어 잡귀나 역병 등 부정한 것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묘족(苗族)은 어둠에 숨어 있는 귀신이 백





1 엄나무걸기
2 엄나무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1리
국립민속박물관

색의 가시나무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 여겨 문 위에 가로로 걸어 두고, 무당들은 그것을 가지고 귀신을 쫓기도 하였다.

의의 옛 사람은 귀신류(鬼神類)가 사람과 같은 성정(性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잡귀나 역귀가 가시나무를 보면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쫓거나 범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가 많이 달린 엄나무를 문 밖의 상인방이나 대문 위에 가로로 걸어 두었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의 집지킴이(김광언, 다락방, 2000), 전통문화와 상징1(홍순석 외,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1).
필자 | 황경숙(黃京淑)

영월(迎月)

⇨ 달맞이

오쟁이놓기

⇨ 적선(積善)

옷동정버리기

정의 한 해의 신수가 나쁘게 나올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월 대보름날에 하는 일종의 액막이 풍속.

내용 정월에는 보통 한 해의 신수를 점쟁이나 무당 등을 통해 본다. 이 때 한 해의 신수가 나쁘게 나올 경우, 이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옷동정버리기와 같은 액막이 행위를 하였다. 저고리의 목둘레에 꿰매어 달아 놓은 하얀 동정을 버림으로써 액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그 해 신수가 나쁜 사람은 보름날 저녁에 길거리에 나가 동쪽을 향하여 나이 수대로 걸어간 후, 자신이 입었던 옷의 동정을 뜯어서 버리고 달을 보며 네 번 절한다. 이렇게 하면 한 해의 신수를 보장받는다고 믿었다.

유사풍속 옷동정버리기와 유사한 풍속으로 '종이옷 태우기'가 있다. 이 역시 정월 대보름에 행한다. 아침에 백지로 조끼 같은 옷을 지어 아이들의 옷 속에 입혔다가 저녁때 달집에 불을 지르기 전에 어른들이 벗긴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 몰래 달집 속에 넣어 태우면 액이 없어진다고 한다.

의의 액을 막기 위해 몸에 접했던 무엇을 태우는 행위는 이 외에도 머리카락태우기·종이옷입히기 등이 있다. 이는 몸에 붙어 있는 악귀나 사귀를 잡아 태운다는 상징적인 신앙 행위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統營郡史(統營郡, 1985),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정재(李丁宰)

외양간에 돌걸기

⇨ 소돌걸기

용알뜨기(龍—)

정의 정월 대보름날에 부인들이 닭이 울 때를 기다렸다가 서로 앞을 다투어 우물물을 긷던 풍속. 용알뜨기란 우물에 있는 용의 알을 뜬다는 뜻으로 한자어로 '노룡란(撈龍卵)'·'노룡자(撈龍子)'라고 한다.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이 물을 떠오는 것은 집안에 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므로 복(福)물·수복수(壽福水)·복물뜨기·복물퍼오기·용물뜨기·새알뜨기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모두 같다.

유래와 역사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황해도와 평안도 풍속에 보름 전날 밤 닭이 울 때를 기다려 집집마다 바가지를 가지고 서로 앞다투어 우물에서 정화수를 길어온다. 이것을 용알뜨기라 한다. 맨 먼저 물을 긷는 사람이 그 해의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고 하였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이 물 한 그릇 긷는 것을 노룡자라고 하였다.

내용 정월 대보름이나 새해 첫 용날 새벽에 부인들은 닭이 우는 것을 기다렸다가 남들보다 먼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긷는데, 이를 용알뜨기라고 한다. 우물은 그 전날 밤에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알을 낳은 곳이며, 이 용의 알을 제일 먼저 건져감으로써 집안에 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용알'을 먼저 떠간 사람의 집에는 그 해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먼저 물을 떠갔다는 표시로 짚으로 또아리를 틀어 우물에 넣거나 오곡밥이나 약밥을 뭉쳐 던져 넣었다. 이것을 본 사람은 벌써 남이 떠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역사례 경기도에서는 부인들이 정월 대보름날 첫 닭이 울 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온다. 이것을 복물 · 수복수 · 용알 떠온다고 한다. 남이 길어 가기 전에 먼저 물을 길어야 하므로 열나흗날 열 두시만 넘으면 동이를 들고 우물 옆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물을 긷는 극성파도 있다.

정월 열나흗날 밤에는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우물에 알을 낳는다고 믿는데, 첫 번째 긷는 사람의 물에 용의 알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용알을 건져 간 집은 운수 대통하고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한편 정월 대보름날 남들보다 늦게 물을 길어오면 농사일이 진행될 때 비를 맞는다고 하며, 새벽에 일찍 길어 온 물로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쌀밥을 해먹기도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새알 뜬다' 고 하며 이른 새벽 우물물을 길어다가 밥을 지어 먹는다.

강원도에서는 용알을 줍는다고 하여 우물에 약식(藥食)을 주먹 크기만 하게 뭉쳐 넣고 물을 푼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보름날 새벽에 주부들이 바가지로 우물을 처음 떠서 거기에 찰밥을 띄우는 '복물뜨기' 를 하였다. 강릉의 학산마을에서도 대보름날 저녁, 전설이 깃든 학천 샘터에서 용알뜨기를 하였다.

경북 지역에서는 용물을 뜨면 좋다고 하여 찰밥을 해놓고 닭이 울 때 우물에서 물을 뜬다. 특히 먼저 뜨는 것을 좋게 여겨서 부녀자들은 우물에 두레박을 늘어뜨리고 닭이 울기를 기다려 물을 퍼 올렸다. 우물의 물을 떠와서는 네 귀에 물을 뿌려 부정을 물리고 낯을 씻은 다음 성주 앞에 용물을 갖다 놓고 절을 한다.

의의 용알뜨기는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 용이 우물에 내려와 알을 놓고 간 것을 떠온다는 속신 행위로 농사에 필요한 물과 관련되어 있다. 즉, 비를 상징하는 용과 마르지 않는 우물에 대한 기원에서 유래한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샘이나 우물은 매우 신성한 장소였고, 때로는 나라의 운명을 예고하는 영험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보름날의 용물뜨기 · 용알뜨기 등 용과 우물이 관련된 이러한 속신은 물 · 달 · 여성 · 대지의 음성원리라는 생산 풍요의 주술적 상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알뜨기
『朝鮮の年中行事』朝鮮總督府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의 歲時風俗(金星元, 明文堂, 1987), 강릉의 민속문화(장정룡, 대신출판사, 1991),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銅雀區誌(서울特別市 銅雀區, 1994), 강원도 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한국 민속학 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경기민속지III -세시풍속 · 놀이 · 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평창군 민속지 -용평면-(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2002).
필자 | 김지욱(金志昱)

우물밝히기

정의 정월 열나흗날 밤 집안의 우물가에 불을 밝히고 액을 막아 샘에서 물이 많이 나기를 기원하는 풍속. '우물에 불켜놓기' · '불밝히기' 라고도 한다.

내용 한 해 동안 집안에 있는 우물물이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물가에 촛불을 밝혀 둔다. 이렇게 하면 샘물이 많이 솟아난다고 믿는다. 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2리에서는 촛불 대신 종지에 참기름을 부어 심지를 세우고 불을 붙여서 이를 바가지에 담아 띄워 놓는다. 그리고 우물을 비롯한 집안 곳곳에 종지불을 밝혀 두는데 이 날 집안에 밤새 불을 밝혀 두면 "일년 동안 맑다."는 말이 있다.

의의 우물밝히기는 별도의 의례 없이 우물가에 불을 켜둠으로써 샘물이 잘 솟아나기를 비는 행위이다. 우물이 인간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대보름에 불을 밝혀 샘물이 많이 솟아나기를 빌고, 집안이 맑고 평안하기를 축원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경엽(李京燁)

유롱주(牖聾酒)

☞ 귀밝이술

윷점[栖占]

정의 윷을 가지고 한 해의 운수나 풍흉을 점치는 것. 한자어로 사점(栖占)이라고도 한다.

내용 한 해의 운수나 풍흉을 점치는 윷점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풍속이며, 개인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집단으로 편을 갈라 행해지기도 한다. 설날에 하는 윷점치기는 윷을 세 번 던져 나온 괘로 일년 운수를 점치는 것이다. 첫 번째 던져서 나오는 말을 상괘, 두 번째 던져 나오는 말을 중괘, 세 번째 던져 나오는 말을 하괘로 삼아서, 111괘부터 444괘까지 64괘로 되어 있는 괘를 찾아 점사(占辭)를 읽어 길흉을 판단한다. 윷말은 도 · 개 · 걸 · 윷 · 모이지만, 윷과 모를 같은 괘로 치기 때문에 말은 네 개가 된다. 점괘를 얻을 때 도는 1, 개는 2, 걸은 3, 윷과 모는 4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세 번 윷을 쳐서 모두 '도 · 도 · 도'가 나오면 건(乾)으로 111의 점괘를 얻는다. 이 괘의 점사는 "어린아이가 인자한 어머니를 만난다(兒見慈母)."는 내용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만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행복할 것이므로, 이것은 길괘(吉卦), 즉 좋은 괘이다. 또 세 번 윷을 쳐서 '도 · 모 · 도'가 나오면 141(大過卦)의 괘를 얻는데, 이 점사는 "나무에 뿌리가 없다(樹木無根)."는 내용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말라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이것은 흉괘(凶卦), 즉 나쁜 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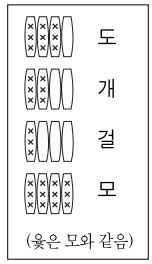
지역사례 함경도의 달윷은 정월 대보름날 달이 뜨면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 절한 후 기원하며, 윷을 세 번 던져 그 괘로 일년의 신수를 점쳤다. 북청군 성대면 양평리의 경우, 정월 대보름날 달이 뜬 다음 달맞이 장소인 마을 앞 들판에서 달맞이를 하며 달윷을 놀았다. 우선 윷을 놀 사람은 놀이판의 상 위에 올려 놓은 정화수에 두 번 절한다. 여자는 왼쪽 어깨 위로 손을 들었다가 윷을 돗자리에 던진다. 모두 세 번 던진다. 남자는 오른쪽 어깨 위로 손을 들었다가 윷을 돗자리에 던진다. 역시 세 번이다. 세 번 던진 것을 합산해서 일년 운수를 점친다. 그것은 윷의 괘에 따라 운수를 풀어 놓은 달윷책을 통해 알아낸다.

충북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의 '고래실봉답윷놀이'는 윷으로 풍흉을 점치는 놀이다. 고래실(기름진 논)과 봉답(척박한 논)으로 편을 갈라 윷을 노는데, 봉답 편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고래실편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고래실편이 일부러 말을 올리기 때문에 대개 봉답 편이 이기게 된다.

황해도 장연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시절윷놀이'도 윷점의 일종인데, 정월 대보름날 농민들이 춘하추동 철따라 진행되는 여러 가지 농사일을 노래와 춤으로 엮어서 놀던 대동놀이이다. 시절윷놀이라는 명칭은 집단적 가무놀이에 앞서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예견하는 윷놀이를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놀이는 종군놀이 · 부종군놀이라고도 한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 마을의 남자들이 명절 옷차림으로 준비 장소에 모이면, '산'과 '들' 두 패로 나눈다. 각 패에서는 2~3명의 대표 선수를 뽑아, 수숫대로 만든 작은 윷으로 점수따기를 시작한다. 미리 정해 놓은 점수를 먼저 얻는 편이 이긴다. 산편이 이기면 밭농사가 잘 되고, 들편이 이기면 논농사가 잘 되며, 양편이 비슷한 점수를 얻으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잘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윷놀이는 본격적인 놀이에 앞서 진행되는 서막과 같다.

윷놀이가 끝나면 놀이꾼들은 제각기 패랭이를 쓰고 장만한 가장물을 들고 행렬을 지어 길놀이를 한다. 대열 선두에는 소탄관이 선다. 소탄관은 꽃으로 장식한 구럭을 쓰고 긴 수염을 붙이고 두루마기를

〈윷점 점괘 보는법〉



	건(乾)	아이가 어머니를 만남.		소축(小畜)	큰 고기가 물에 들어감.
	이(履)	쥐가 창고에 들어감.		중부(中孚)	염천(炎天)에 부채를 기증함.
	동인(同人)	밤에 불을 얻음.		가인(家人)	새매와 매가 발톱이 없음.
	무망(无妄)	파리가 봄을 만남.		익(益)	구슬을 강 속에 던짐.
	구(姤)	큰물이 거슬러 흐름.		손(巽)	용의 뿔이 생김.
	송(訟)	복죄(服罪)중에 공을 세움.		환(渙)	가난하고 또 천함.
	둔(遯)	나는 개미가 등불에 부딪힘.		점(漸)	가난한 선비가 녹을 얻음.
	비(否)	금이나 쇠가 불을 만남.		관(觀)	고양이가 쥐를 만남.
	쾌(夬)	학이 날개를 잃음.		수(需)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됨.
	태(兌)	주린 자가 밥을 얻음.		절(節)	소가 풀과 콩깍지를 얻음.
	혁(革)	용이 큰 바다로 들어감.		기제(旣濟)	나무의 꽃이 열매를 이룸.
	수(隨)	거북이 죽순(竹筍)속으로 들어감.		둔(屯)	중이 속세로 귀환함.
	대과(大過)	나무가 뿌리가 없음.		정(井)	나그네가 집을 생각함.
	곤(困)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남.		감(坎)	말에 안장과 채찍이 없음.
	함(咸)	추운 자가 옷을 얻음.		건(蹇)	행인이 길을 얻음.
	췌(萃)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음.		비(比)	해가 풀의 이슬을 비침.
	대유(大有)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감.		대축(大畜)	부모가 아들을 얻음.
	규(睽)	장마에 해를 봄.		손(損)	공은 있으나 상이 없음.
	이(離)	활이 화살을 잃음.		비(賁)	용이 깊은 연못에 들어감.
	서합(噬嗑)	새가 날개가 없음.		이(頤)	판수가 문에 다다름.
	정(鼎)	약한 말이 짐이 무거움.		고(蠱)	어둠 속에서 불을 봄.
	미제(未濟)	학이 하늘에 오름.		몽(蒙)	사람에 손 · 팔이 없음.
	여(旅)	주린 매가 고기를 얻음.		간(艮)	이(利)가 대인(大人)을 만남.
	진(晋)	차에 두 바퀴가 없음.		박(剝)	각궁(角弓)에 활줄이 없음.
	대장(大壯)	어린애가 젖을 얻음.		태(泰)	귓가에서 바람이 일어남.
	귀매(歸妹)	중병에 약을 얻음.		임(臨)	어린애가 보배를 얻음.
	풍(豐)	나비가 꽃을 얻음.		명이(明夷)	사람을 얻었다가 도로 잃음.
	진(震)	활이 살을 얻음.		복(復)	어지럽고 길하지 못함.
	항(恒)	서먹서먹한 손님에게 절하여 뵈임.		승(升)	살 일이 아득함.
	해(解)	물고기라 물을 잃음.		사(師)	고기가 낚시를 삼킴.
	소과(小過)	물 위에 무늬가 일어남.		겸(謙)	나는 새가 사람을 만남.
	예(豫)	용이 뜻대로 얻음.		곤(坤)	형이 동생을 만남.

입고 짚으로 만든 부채를 들고 소를 탄다. 소의 목과 길마는 가지각색의 천과 꽃으로 장식하고 뿔은 자토로 붉게 칠한다. 그 뒤로 패랭이를 쓴 악사와 농기를 앞세우고 쟁기 · 삽 · 호미 · 도리깨 · 비 · 자루 · 광주리 등을 가진 사람들이 순서대로 늘어선다. 대열은 남문을 지나 옛날 동헌 앞마당에 도착하여 모내기 · 김매기 · 가을걷이와 마당질 등 일년 농사의 모습을 모의적으로 연행한다. 시절윷놀이는 윷놀이를 통하여 농사의 풍흉을 예견하는 점풍(占豊)의례의 성격, 춘하추동의 농사일을 보여주는 모의 농경의례의 성격,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 춤과 노래로 즐기며 흥과 신명을 풀면서 마을 주민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 조선의 민속 놀이(군중문화출판사, 196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전경욱(田耕旭)

이명주(耳明酒)

☞ 귀밝이술

이총주(耳聰酒)

☞ 귀밝이술

작절(嚼癤)

☞ 부럼깨기

잣불점

☞ 식구불켜기

잰부닥불넘기

☞ 댓불놓기

적선(積善)

정의 정월 대보름날에 그 해 신수가 불길한 사람이 액땜을 하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풍속. 다리를 놓거나 다리 대신 가마니나 돌을 넣은 오쟁이 같은 것을 놓음으로써 남을 위해 적선하는 것이다. 이 때 놓는 다리를 노디 · 노지 · 노드 · 노들 · 노두 · 노두독 · 노다리 · 띄은다리 · 유듯돌 · 오쟁이 · 오장치 · 오쟁치 · 오쟁이돌 등이라 하는데 모두 일종의 징검다리라 할 수 있다. 노두는 바윗돌이 겉에 드러난 것이란 뜻으로 노두(露頭)나 노두(路頭)라 풀이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것을 노드놓기 · 오쟁이놓기 · 오쟁이액맥이라 한다.

유래 적선은 제웅을 만들어서 버리는 풍속에서 비롯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남녀의 나이가 나후직성(羅睺直星)을 당하면 짚으로 인형인 추영(芻靈)을 만드는데 사투리로 이를 처용이라 한다. 머리 속에 동전을 넣고 보름 전날 초저녁에 길에다 버려 액을 없애버린다. …… 처용의 명칭은 신라 헌강왕 때 동해 용왕 아들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고 하였다. 또 『경도잡지(京都雜志)』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보인다. "열나흗날 밤에 풀로 허수아비(인형)를 만들어 처용(處容)이라 하고 그 머리 속에 동전을 넣었다. …… 처용직성(處容直星)을 가장 꺼려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길에 버려 재액을 막는다." 이러한 풍속은 오늘날에도 전승되었는데, 불교적 적선의식이 작용하여 남을 위해 착한 일을 함으로써 액을 때우고 그것을 상쇄하려는 풍속으로 고정되었다.

내용 정월 열나흗날 밤이나 보름날 밤에 그 해 신수가 나쁜 사람은 남을 위해 적선을 해야 액운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개천에 다리를 놓거나 유듯돌을 놓았다. 액운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지만 다리가 없어 불편한 개울을 택해 밤에 몰래 다리를 놓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월천공덕(越川功德)' 이라 한다. 월천공덕은 반드시 번듯한 다리를 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편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가마니 · 섬 · 오쟁이 같은 데다가 돌을 가득 넣어 사람들이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놓아주기도 한다. 이 역시 일종의 다리에 해당하므로 그 해의 액운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유듯돌을 놓을 때 섬 속에다 돈을 함께 넣어 두는 일이 있다. 지나가는 행인이나 마을의 아이들이 이것을 주워 가면 이 역시 일종의 적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험하고 비탈진 길을 넓혀 주거나 가파른 길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큰 돌이나 방해물이 있으면 치워 주기도 한다. 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을 베푸는 일이므로 액운을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울에 오쟁이놓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
강성복

지역사례 노두를 놓는 풍속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호남 지방에서는 조금 특이한 곳도 있다. 전북 익산에서는 노두를 놓을 때 반드시 짝을 채우지 않고 홀수로 놓는다고 한다. 남원과 무주에서는 노두를 놓으면 아기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아기를 낳게 된다는 속신이 있다. 진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독다리방패'라 하여 반드시 일곱 개나 열두 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

의의 적선은 결국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므로 이러한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신이 액운을 미리 막아주고 복을 내린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습속이다. 적선은 교육적 필요성과 함께 소박한 민간신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풍속의 형성 과정에는 불교의 적선 의식도 다분히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 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鄕土文化誌(慶尙南道, 1989),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 1990), 韓國의 歲時風俗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류종목(柳鍾穆)

제웅치기[打翁戱]

정의 정월 열나흗날 밤에 행하는 액막이 풍속의 하나. 제웅치기는 직성(直星)의 액(厄)을 쫓고 화를 면하는 술법을 말한다. 제웅치기의 이칭으로 허수아비버리기(강원) · 허두새비버리기(전남) · 도채비방쉬(제주도) 등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제용만들기 · 삼재맥이한다고도 불린다.

유래 제웅은 '처용'이라고도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처용랑 망해사(處容郎望海寺)에 의하면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했다가 처용에게 무릎을 꿇고 공의 그려진 모습이 붙어 있으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얼굴을 문에 그려 붙임으로써 사악을 쫓고 경사스러움을 맞았다고 한다.

내용 직성은 아홉 개가 있어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남자는 11, 20, 29, 38, 47, 56세에, 여자는 10, 19, 28, 37, 46, 55세에 직성이 든다. 직성이 든 해는 만사가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병이 들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이런 액살을 없애기 위해 제웅치기를 한다. 제웅은 짚으로 만들며, 배나 허리에 노자 돈이나 쌀을 넣고 액년이 든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어 개천이나 징검다리 또는 사거리에 버려 액을 푼다. 지나던 사람이 이 제웅을 주워 돈을 꺼내고 버리면 그가 액을 가져가게 된다고 믿는다.

또한 운이 나쁜 아이가 있으면 액막이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종이나 헝겊으로 그 머리를 씌우고 얼굴을 그려 사람 형상이 되게 한다. 허수아비 몸에 액막이할 아이의 동정이나 그의 이름, 생년월일을 적은 쪽지를 넣고 도랑이나 개천에 버린다. 허수아비는 일부러 물에 띄워 버리기도 하고, 버릴 때 무당이 와서 굿을 하기도 한다.

액을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만 동네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제웅을 찾아서 돈을 빼내고 제웅을 땅에 힘껏 내동댕이치면서 논다. 이것을 '제웅치기[打翁戱]'라 한다.

지역사례 다도해 지역에서는 종이에 말을 그려 그 위에 제웅을 놓아두기도 한다. 또한 제웅을 불에 태우는 곳도 있다. 경남 지방에서는 그 해 제웅직성이 든 사람은 짚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엽전을 넣고 옷을 입히며 이름과 출생년의 간지를 적어서 정월 열나흗날 밤이나 보름날 새벽에 길거리에 버려 액을 막는다. 이것을 대부분 '허세비'라고 일컫고 '제웅' 혹은 '양순이'라고도 한다. 돈을 사지나 머리에 넣기도 하고 만들어 맨 주머니에 넣기도 한다. 몸에 엽전을 넣고 따로 쌀 봉지를 매다는 곳도 있다. 버리는 곳은 삼거리나 사거리가 대부분




1 제웅에 돈끼우기
2 제웅버리기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좌포리
황헌만

이고 개울에 버리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볏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종이로 옷을 입히고 붓으로 눈·코·입 등을 그려서 삼도전 길거리 또는 바닷가에 모셔가 버리는데,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들어 액막이를 하는 것을 '도채비방쉬'라고 한다. 경기도에서는 제웅을 식구들이 직접 만든다. 대수·대명, 즉 재수가 좋고 명이 길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리가 아픈 사람, 손이 아픈 사람은 인형을 만들 때 아픈 부분을 특히 정성을 들여서 만든다. 제웅을 버릴 때는 동전이나 지전을 몸에 찔러 넣어 집 바깥에 버리기도 하고 태우거나 강에 내다 버리기도 한다. 돈은 대개 동전을 넣는데 짝수를 피하고 홀수로 넣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島篇-(文化財管理局, 1974),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 1990),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全羅南道誌19(全羅南道, 1995),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도안마을의 숨결(대전·충남 향토문화연구원, 대전서구문화원, 1999),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최덕원(崔德源)

지붕에 깃대꽂기

정의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지붕이나 사립문에 대나무나 종이로 만든 깃대나 팔랑개비를 꽂아 두는 액막이 풍속. 깃대꽂아 액운풀기·팔랑개비꽂기·기(旗)세우기·팔랑개비달기 등으로도 부른다.

내용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대나무를 깎아 만든 긴 장대 끝에 창호지로 만든 깃발을 부착시켜 지붕에 꽂아 둔다. 혹은 종이로 팔랑개비를 만들어 지붕이나 사립문에 꽂아 두고 저절로 깃발과 팔랑개비가 사라지면 한 해의 액운이 모두 없어진다고 믿는다.

지역사례 지붕에 깃대꽂기는 현재 전북 일대와 충남 일부, 그리고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 보고된 사례가 있다. 충남 홍성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깃대꽂아 액운풀기'라고 해서,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아 운이 나쁜 식구가 있을 경우에는 깃대를 만들어 지붕 위에 꽂았다. 수숫대에 종이를 붙여서 지붕과 사립문 앞에 각기 한 개씩 꽂아 두는데, 이렇게 해두면 액막이가 된다고 믿었다. 충남 금산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 지붕에 깃대를 만들어 꽂는다. 대나무를 깃대로 삼고 그것에 창호지로 만든 깃발을 부착시킨다. 간혹 깃발에 태극기를 그려 넣기도 한다. 이렇게 깃대를 꽂으면 집안이 한 해 동안 평안하다고 한다. 전북 익산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식구 중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종이로 팔랑개비 한 개를 만들어 사립문에 꽂는다. 팔랑개비가 저절로 없어지면 나쁜 운도 사라진다고 믿는다. 전북 무주에서도 열나흗날 저녁에 팔랑개비를 만들어 지붕 위에 꽂아 둔다. 이렇게 해두면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전북 장수에서는 식구 중 액운이 낀 사람이 있을 때 사립짝의 '구틀(문을 다는 부분)'에 팔랑개비를 만들어 꽂는다. 보통 세 개나 아홉 개를 꽂는다. 팔랑개비는 바람에 날리는 것이므로 액운도 바람에 날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한 것이다. 간혹 지붕 용마루 끝에 꽂기도 한다. 팔랑개비는 그대로 두면 자연스레 없어진다. 부산광역시 기장 기룡리에서는 그 해 액운이 든 사람은 대보름날 팔랑개비를 만들어 지붕 위에 꽂아두며, 기장군 월평리에서는 자기 논가에 열 발 정도 줄을 치고 그 사이사이에 팔랑개비를 꽂아 둔다.

의의 지붕에 깃대꽂기는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인 액막이 행위로 손님, 즉 천연두의 예방을 위한 막이(맥이)의 구실까지 가지고 있다. 이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박순호(朴順浩)

지붕에 버선붙이기

정의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운이 나쁜 식구를 위해 버선을 끼운 막대기를 지붕에 꽂고 액을 막는 풍속.

내용 "정월 열나흗날은 액막이 날이다."는 말과 같이 지붕에 버선붙이기는 열나흗날 행해지는 액막이 풍속 중 하나이다. 버선은 발을 보호하는 싸개로서 기본적으로는 보호구(保護具)이다. 아울러 민속에서는 상징적으로 액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을 지닌 물건이기도 하다. 버선을 씌우거나, 꽂아놓거나, 붙여 둘 때에는 항상 버선의 방향을 거꾸로 하는데, 곧 버선코를 위로 하고 버선목을 아래로 한다. 버선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의 방향과 달리 해야 그 상징적 역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부분 버선을 지붕의 용마루에 한 개 꽂기도 하고 또는 그 양끝에 각기 한 개씩 꽂기도 한다. 또한 사립문 위에 꽂기도 한다. 지붕은 어느 장소에서 보더라도 한눈에 쉽게 들어오는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사립문은 집 안과 밖을 가르며 연결하는 경계 장소이다. 이 곳에 버선을 거꾸로 씌워 놓음으로써 제액(除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낟가리 위에 버선을 거꾸로 꽂아 두기도 한다. 낟가리는 풍농을 기원하는 화간(禾竿)으로, 여기에 버선을 꽂아서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꾀한다. 버선은 나중에 일부러 뽑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그대로 날아가도록 내버려 둔다. 버선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액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날아가 버린다고 믿는다.

또한 버선을 종이로 만들어 나뭇가지에 끼우거나 붙이기도 한다. 이 때에 쓰이는 나무는 대개 주술적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싸리나무 · 대나무 · 복숭아나무 등이다. 이처럼 버선은 귀신이나 병마에 대응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기도 하고 또한 신령을 불러들이는 수단으로서 상징적으로 액을 물리쳐 화평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유사풍속 집 이외의 공간에서 버선을 가지고 여러 액막이를 하기도 한다. 충남 연기에서는 보름달이 뜰 즈음에 달뜨는 봉우리의 정상에 종이버선을 만들어 꽂고 "일년 열두 달 삼백육십 일 가더라도 건강하게 해 줍소!"하고 비손한다. 비손을 마친 후에는 꽂았던 버선을 빼서 태움으로써 그 해에 끼인 나쁜 운을 태워 버린다. 제주도에서는 버선을 삶은 뒤 지붕 위에 던져 액막이를 한다. 이 외에도 좋지 않은 송사(訟事)가 있거나 특히 재판에 패소할 것 같으면 버선을 깃대에 꽂아 두기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文化상징사전2(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5),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효경(金孝慶)

직성보기(直星—)

정의 나이에 따라 그 사람의 운수를 맡았다고 간주된 직성(直星)이란 별이 관장하는 액운을 떨쳐버리는 점복(占卜).

유래 나후직성과 관련된 액막이 의례가 한반도 문화권의 각종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조선 후기 홍석모(洪錫謨)가 지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상원조(上元條)에 의하면 "나이가 나후직성에 든 사람은 추령(芻靈)을 만드는데, 이를 사투리로 처용(處容)이라 한다. 추령 안에 액년을 당한 사람의 성명과 출생 간지(干支)를 적어 넣고, 그 머리 안에는 동전을 집어넣어 열나흗날 밤 초저녁에 길에다 버려 액을 막는다. 이 때가 되면 동네 아이들이 집집마다 문 밖에 몰려와서 추령을 내어달라고 청한다. 추령 주인이 그것을 선뜻 내어주면 아이들은 머리 부분을 파헤쳐 제웅 속에 들어 있는 돈만 꺼내고 추령은 길에다가 버린다. 이를 '타추희(打芻戲)'라고 한다. '처용(處容)'이란 신라 헌강왕(憲康王) 때 동해 용왕의 아들 이름에서 나왔다. 장악원(掌樂院) 향악부(鄕樂部)에서 하는 처용무(處容舞)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 '추령'이란 처용에서 빌려온 말이다."고 하고 있다. 추령은 짚으로 처용 형상을 본뜬 인형이며, 액땜을 위해 아이들이 그것을 얻어 머리를 깨어 부수고는 그 안에 든 돈을 다투어 가져간다. 이 놀이를 타추희라고 했으며, 그 놀이 대상이

처용이었으므로 처용희(處容戱)라고도 했다. 제웅 혹은 처용은 제의에 쓰는 사람을 닮은 인형이라고 해서 제용(祭俑)이나 체용(體俑)이라고도 하고, 그 재료가 짚과 같은 풀이라 해서 추인(芻人)·추령·초인(草人)·초우인(草偶人)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행위는 결국 신(神)을 겁박해서 그 신이 인간에게 내리고자 하는 액을 막거나 물리치려는 의미를 담은 소위 폭신(暴神)의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기우(祈雨)를 위해 용(龍)을 본뜬 인형을 만들어 길거리에 끌고 다니며 더러운 물에 빠뜨리거나 깨뜨리는 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된 처용설화 및 처용무에서 유래하는 이 풍속은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제의이고, 또 음양오행 사상과 결합한 점성술적 성격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 유래를 도교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이를 방증하듯 직성에 관한 신앙은 중국 도교에서 이미 엿보이고 있다. 다만, 도교적 전통이 신라 문화에 기원을 둔 처용설화와 결합된 점은 외래 문화의 토착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제웅직성 및 처용설화와 결합된 대보름날 액막이 풍속은 『동국세시기』 외에 강이천(羌彝天)의 『중암고(重菴稿)』와 김려(金鑢)의 『담정유고(潭庭遺藁)』,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 김정희(金正喜)의 『완당집(阮堂集)』, 『정조실록(正祖實錄)』 5년(1781) 1월 17일조,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 권정용(權正用)의 『세시잡영(歲時雜詠)』,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 등의 문헌에 보인다. 이 중 특히 『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처용희는 나례(儺禮)로 간주되었으며, 그것이 행해지는 시기 또한 정월 열나흗날이지만 섣달 그믐날 저녁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옛 문헌에는 "직성을 떨쳐낸다."고 해서 양직성(禳直星)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전근대 시대에 주로 대보름날이나 그 전날인 정월 열나흗날에 민간을 중심으로 널리 행해졌으나,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직성이란 9개 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웅직성 혹은 처용직성(處容直星)이라고도 하는 나후직성(羅睺直星)을 필두로 토직성(土直星)·수직성(水直星)·금직성(金直星)·일직성(日直星)·화직성(火直星)·계도직성(計都直星)·월직성(月直星)·목직성(木直星)을 말한다. 해·달·별[日·月·星]의 삼광(三光)과 목·금·수·화·토(木金水火土)의 5행(五行) 직성에 나후직성이 가미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나후직성이 특히 흉한 직성으로, 그것이 드는 해에는 구설수가 있고 재수가 없다고 함은 아마도 이런 돌발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남자는 10세에 제웅직성이 처음 들어 11세 토직성, 12세 수직성의 순으로 나아가서 19세면 다시 제웅직성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한편 여자는 10세가 목직성, 11세가 제웅직성, 12세가 토직성의 순서로 순환하다가 19세면 다시 목직성에 든다고 생각했다. 이에 의하면 직성 중에서도 가장 액운이 많다고 간주된 제웅직성이 드는 해로는 남자가 10세를 필두로 각각 19, 28, 37, 46, 55, 64, 73, 82세가 되며, 여자는 11세에 시작해 20, 29, 38, 47, 56, 65, 74, 83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9개 직성이 갖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첫째, 제웅직성은 흉한 직성이라 해서 그것이 든 사람은 그 해에 구설수가 있고 재수가 없다고 믿었다. 제웅직성이 든 사람은 액막이를 위해 남자의 경우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든 다음, 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헤쳐 나이 숫자대로 동전을 넣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종이에 써 넣고 정월 열나흗날 길거리나 개천에 버려야 행운이 깃든다고 생각했다. 반면 여자는 허수아비 대신 종이에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을 그리고, 돈을 넣고 싸서 길거리나 개울에 버리면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액이 옮겨가게 된다고 했다. 토직성은 흉한 일이 많고 길함이 적은 운명을 맡고 있으므로, 여기에 든 사람은 그 액을 면하기 위해 정월 대보름날 저녁 정결한 곳에다가 조밥을 지어 흩어야 한다는 풍속이 있다. 셋째, 수직성을 관장하는 성군(星君) 또한 좋지 않은 운명을 맡고 있으므로 토직성이 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조밥을 지어 깨끗한 강물을 찾아서 물속에 던지면 액을 푼다고 했다. 넷째, 금직성을 관장하는 성군은 매우 길한 운명을 맡고 있으나 약간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보름날 서쪽의 태백성(太白星)을 향해 네 번 절하면 액땜을 한다는 풍속이 있다.

다섯째, 일직성은 매우 길한 운명을 맡은 성군이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약간의 액을 막기 위해서는 대보름날 아침에 붉은 종이를 동그랗게 오려 마치 해처럼 만들고 이를 싸리에 꿰어 지붕 용마루에 꽂고 네 번 절하면 액을 면한다고 했다. 여섯째, 화직성은 흉한 운명을 맡은 별이라고 해서 그 액을 물리치기 위해 대보름달이 뜰 시간에 그것이 든 사람의 웃저고리 동정을 떼어 남쪽을 향해 살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곱째, 계도직성은 흉한 운명을 관장한다고 믿어 정월 대보름에 종이로 그것이 든 사람의 버선본을 떠서 싸리에 매어 지붕 용마루에 세우고 네 번 절을 함으로써 액막이 의식을 행하곤 했다. 여덟째, 월직성은 길한 운명을 맡았다고 간주됐으므로 그것이 가져다 줄 길한 운명을 맞이하고 그것에 방해가 될 흉한 운명을 쫓는 액막이 방법으로 대보름달이 떠오를 때 싸리 홰 세 개에 불을 붙여 달을 향해 사르고 네 번 절하는 풍속이 있다. 아홉째, 목직성 또한 길한 운명을 맡았다고 했는데, 특별히 액막이 하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의의 여타 정월 대보름날 세시와 마찬가지로 처용직성과 관련된 이 액막이 습속 또한 묵은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농후하게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성격은 한마디로 송구영신(送舊迎新)으로 정리될 수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潭庭遺藁, 東國歲時記, 歲時雜詠, 歲時風謠, 洌陽歲時記, 阮堂集, 正祖實錄, 重菴稿, 海東竹枝, 韓國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韓國民俗學論攷(李杜鉉, 學硏社, 1984),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서울 · 세시 · 한시(홍석모 저 · 진경환 역, 보고사, 2003).
필자 | 김태식(金台植)

집불이[戶滋]

정의 정월 열나흗날, 콩[豆]이 불은 정도를 보고 그 해 신수를 점쳐 보는 점속(占卜). 집불이는 한자로 '호자(戶滋)'라고 한다.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상원조(上元條)에는 집불이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다. "동네 안의 홋수대로 콩을 골라 호주(戶主)를 표시하고 짚으로 묶어 우물 속에 넣었다가 다음 날 꺼내어서 징험을 보아 불은 콩의 주인은 그 해에 풍년이 들어 잘 살 수 있다."고 믿는다.

내용 달불이[月滋]가 마을 전체의 점복이라면 집불이(호자)는 개인의 점복이다. 동네의 호수(戶數)대로 콩에다 호주를 표시하고 짚으로 묶어서 우물에 집어 넣었다가 보름날 아침에 꺼낸다. 만일 우물이 없으면 사발이나 종지에 물을 가득 부어 그 속에 콩을 담그는 등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 때 콩이 붇고 안 붇는 것으로 그 집안의 수해 · 한해 · 평년작을 징험한다. 잘 불었으면 그 집 호주의 신수가 좋고 그 해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생각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韓國民俗學槪說 -改訂版-(李杜鉉 外, 學硏社, 1983), 한국 민속학 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필자 | 김의숙(金義淑)

짚불점

정의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대보름날 아침에 짚을 태워 남는 재의 빛깔이나 모양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쳐 보는 농사점(農事占). 재점치기 · 짚단불점치기 · 볏단재점이라고도 한다.

내용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보름날 아침에 짚단 혹은 짚 한 움큼 정도를 마당에 놓고 불을 붙인다. 이 짚이 잘 타는가 못 타는가, 타고 남은 재의 모양이나 색깔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지역사례 경남 함안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짚불점을 본다. 그러나 부산 · 경남 김해 · 밀양, 대구 달성 지방에서는 대보름날 아침에 짚불점을 본다. 경남 함안과 대구 달성에서는 짚이 잘 타면 풍년이 들거나 운수가 좋을 것으로 점친다. 경남 김해에서는 짚단의 뿌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해 놓고 불을 붙여 남은 재의 빛깔이 뿌리 쪽이 희면 3~4월에, 가운데가 희면 4~5월에, 아래쪽이 희면 7~8월에 비가 많을 것으로 점친다. 또 뿌리쪽 재가 검으면 늦벼가 잘 되고 이삭쪽이 검으면 올벼가 잘 될 것으로 점친다. 경남 밀양에서는 이삭쪽의 재가 아래로 널어지면 풍년, 하얗게 부스스하면 흉년이 드는 것으로 점친다. 한편 부산에서는 타고 난 재가 꼬불꼬불하면 풍년이 들 것으로 점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鄕土文化誌(慶尙南道, 1989),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류종목(柳鍾穆)

차사액막이(差使厄—)

정의 저승의 3차사를 대접하여 액을 막는 무속의례. 중병이 들어 죽을 액에 처했을 때, 대시왕 연맞이를 하는 것으로 저승 시왕을 맞이하고 차사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여 삼십삼(三十三)년의 정명을 삼천(三千)년으로 늘린 샤만의 (멩감)본풀이에 기인한다.

내용 큰 굿의 시왕맞이 중 액막이를 하고, 작은 굿의 '멩감제'에서도 이 본풀이를 구송하는데, 샤만이 본풀이를 하고 의례를 행해서 천수방액(天壽放厄)하고자 행하던 것이다. 또 차사를 맞이하기 위해 들에 나가서 띠 · 관복 · 돈 900냥 · 무명 등의 제물을 바치고 제를 지낸다.

액막이의 희생으로는 주로 살아 있는 닭이 사용되는데, 막히지 않은 쪽을 향해 죽인 후 문 밖으로 던진다. 이 때 머리가 바깥쪽을 향해야 하며, 이 희생 닭은 심방이 가져가거나 들판에 내버린다. 또한 무당이 점을 친 후 액이 든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아 태우기도 하며 허재비(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만들어 거리에 꽂아 두거나, '도채비(도깨비)방쉬'라고 해서 아픈 환자가 있으면 무당을 불러 푸다시로 액막이를 한 후 재물을 밭이나 길 한구석에 갖다 둔다. 희생으로 명을 대체하여 연명(延命)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1 저승사자적배지
제주도 제주시 장주근

2 차사액막이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심환근





대체로 정월 대보름에 이 의식을 행하므로 정월 열엿샛날은 다른 사람의 액이 옮을까봐 조심하여 근신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좌혜경(左惠景)

창명축조(唱名逐鳥)

⇨ 새쫓기

청어온마리먹기(靑魚—)

⇨ 생선온마리먹기

쳇밥

⇨ 백가반(百家飯)

치롱주(治聾酒)

⇨ 귀밝이술

콩볶기

정의 콩을 볶아 먹거나 볶은 콩을 밭에 뿌려 농작물을 해치는 동물이나 사람들이 혐오하는 곤충, 부스럼 같은 질병류를 미리 막고자 하는 액막이 풍속.

내용 십이지일(十二支日)이나 명절이면 농가에서는 콩을 볶아 먹거나 볶은 콩을 밭에 뿌려, 인간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갖가지 동식물의 번성을 미리 방지한다. 이처럼 콩을 볶는 것은 부스럼이나 종기의 이방[豫防], 농작물을 해치는 동식물의 이방, 가옥이나 의복류에 생기는 벌레의 이방, 한 해 농작물의 풍흉 점치기에 목적이 있다. 콩을 볶는 날은 주로 정월 첫 쥐날[上子日] · 정월 대보름 · 2월 초하루이며, 이방의 대상은 새 · 쥐 · 두더지 · 노래기 · 굼벵이 · 좀 · 거머리 · 쐐기 · 새삼 · 부스럼 · 종기 등이다.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정월 상자일에 시골에서는 콩을 볶으면서 '쥐 주둥이 태운다. 쥐 주둥이 태운다.' 고 주언(呪言)을 외워 그 해 농작물에 쥐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한다." 고 하였다.

지역사례 콩볶기의 목적과 날짜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강원도 고성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콩을 볶아서 깨물면 몸에 부스럼 안 나고 쐐기가 안 쏜다

고 하여 "부스럼 깨물자, 부스럼 깨물자." 하면서 볶은 콩을 깨문다. 충북 제천에서는 정월 첫 쥐날에 쥐가 덜 성하라고 "콩볶자, 쥐볶자."고 하면서 콩을 볶는다. 충북 중남부 지역에서는 첫 용날[上辰日]에 '좀볶기'라 하여 콩을 볶아 먹으면, 그 해 곡식에 좀이 슬지 않는다고 하여 콩을 볶아 먹었다. 경북 경주·영천에서는 굼벵이가 많은 밭에 콩을 볶아 흩뿌리며, 경북 봉화에서는 콩을 볶아서 네 방구석과 퇴비장에 두었다가 먹는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2월 초하룻날 콩을 볶아 액막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날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는 곡식이 잘 되고 잡초가 나지 않게 가장이나 주부가 콩과 팥을 볶아 논밭에 뿌리면서 "싹 나거든 오너라. 움 나거든 오너라."고 한다. 또한 이 날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 지방에서는 각 가정에서 콩을 볶아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데, 콩을 볶을 때는 콩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걱으로 콩을 저으면서 "달달 볶아라, 콩을 볶아라, 새알도 볶고 쥐알도 볶아라, 달달 볶아라." 하면서 쉴 새 없이 콩을 젓는다. 이렇게 볶아 먹으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믿는다. 충남에서는 2월 초하루에 콩을 볶아 먹으면 집안에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전북의 진안·순창에서는 2월 초하루(초하드렛날)에 좀 먹는 벌레를 예방한다고 하여 콩을 볶아 먹는다. 부안에서는 2월 초하루 콩을 볶아 먹으면 집안에 노래기도 없어지고 쥐가 곡식을 없애는 일도 드물어진다고 하여 콩을 볶아 먹으며, 정읍·완주에서는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하여 콩을 볶아 먹는다. 전남 영광에서는 2월 초하루를 하래드렛날·콩볶아 먹는 날이라고 하고, 콩·나락·팥·수수 등을 볶아 먹으면 부스럼이나 종기를 예방할 수 있으며, 농사철에 병충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구례에서는 하드렛날 부엌 앞에 솥단지를 걸고 "뒤지기도 볶으자, 싸래기도 볶으자, 거머리도 볶으자, 밭가에 새삼도 볶으자."고 하면서 콩을 볶아 먹는다. 서울·충남 지역에서는 2월 초하루에 콩과 약간의 보리를 섞어서 한 되를 솥에 볶아, 다 볶은 다음 되에 담아 한 되가 더 되면 그 해 풍년이 들고 한 되가 못 되면 흉년이 든다고 점친다.

의의 콩볶기를 할 때 외우는 주언을 보면 "쥐 주둥이 태운다.", "부스럼 깨물자.", "콩볶자, 쥐볶자.", "새삼 밭에 불이야.", "새삼 볶자.", "달달 볶아라, 콩을 볶아라. 새알도 볶고, 쥐알도 볶아라. 달달 볶아라.", "뒤지기도 볶으자, 싸래기도 볶으자, 거머리도 볶으자, 논에 갈 볶으자, 밭가에 새삼도 볶으자." 등이 있는데 콩볶기에 대응되는 말이 쥐볶기·새삼볶기·새알 볶기·두더지 볶기·거머리 볶기임을 알 수 있다. 곧 콩볶기는 쥐·새삼·새·두더지·거머리·좀·부스럼 볶기와 같은 말로 유사주술(類似呪術)에 사고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세시풍속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 歲時風俗(任東權 著, 瑞文堂, 1973),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필자 | 황경숙(黃京淑)

콩점[豆占]

☞ 달불이[月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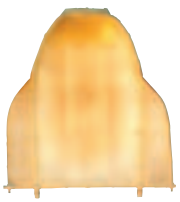
키점[箕占]

정의 정월 대보름날에 풍년이 들 곡식을 미리 알고자 행하던 점속(占俗).

내용 한해(旱害)·풍해(風害)·태풍(颱風) 등의 자연적 재해 때문에, 불확실한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에는 한 해의 운수(運數)를 점쳐 본다. 이 때 운수가 좋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족하고 좋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액땜을 행한다. 키점[箕占]은 우리나라 민속품 중의 하나인 정선(精選) 도구 키[箕]를 이용하여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던 것을 말한다.

지역사례 경남 함양에서는 키의 곡식점(穀食占)이라고 하여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여러 번 털어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키를 깨끗이 쓴 마당에 엎어 두었다가 아침에 그 자리에 보아 벼 낟알이 있으면 그 해에 벼가, 보리 낟알이 있으면 보리가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의의 화산(火山)으로 만들어진 섬, 제주도는 바람·돌·여자가 많다고 하여 삼다(三多)의 섬이라고 불



키 국립민속박물관

린다. 그만큼 농경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므로 한 해의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입춘날의 농경 민속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이 전해 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키로 풍흉을 점치는 풍속은 한 해 농경(農耕), 작물의 풍흉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한 점속의 하나이다. 미약한 존재로서 한 인간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다양한 재해 속에서도 농경을 통한 식량의 확보는 어느 누구에게나 절실한 현실이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필자 | 김동섭(金東燮)

터구렁이위하기

정의 터구렁이를 위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는 믿음에서 행해진 풍속.

내용 정월에는 집안에 재운이 깃들고, 궂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업(業)으로 인식되는 구렁이를 위한다. 민간신앙에서 업은 집안의 재복을 주는 신격으로 인식되며, 곳간이나 뒤꼍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업으로 인식되는 존재는 뱀 · 족제비 · 두꺼비 등이며, 그 중에도 뱀이 가장 보편적이다.

구렁이는 예로부터 영물로 여겨져 왔다. 뱀은 지하와 지상을 오가며 지낸다. 또 겨울에는 동면을 하고 봄에는 다시 나타난다. 뱀의 이러한 생태는 민간신앙에서 주기적 재생으로 인식되며, 그것은 뱀이 생명과 생산을 영속화하는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임을 뜻한다. 그래서 뱀은 터를 지키고 재복을 주는 상징물로 여기게 되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뱀이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무덤을 지키는 존재이며, 제주도 무속신화(칠성본풀이)에서 사신(蛇神) 칠성은 자신들을 받드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존재이다. 그리고 설화에는 구렁이가 곳간이나 쌀독을 지켜주는 존재로 등장하곤 한다.

보통 집안에 있는 터구렁이는 잡지 않는데, 구렁이가 밖으로 나와서 사람의 눈에 자주 띄면 보는 사람이 좋지 않다는 속신이 있다. 또한 구렁이는 한 집안의 부를 지켜주는 신격(神格)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재운이 다한 것을 의미한다. 집안에서 구렁이가 나타나면, 밥을 해 놓거나 물을 떠놓고 다시 들어가라고 비는 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인색한 부잣집 업구렁이가 성실하게 사는 가난한 집으로 옮겨오자, 부자는 망하고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줄거리를 가진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주부들이 정월 대보름에 밥과 나물 등 간단한 제수를 차려 놓고, 농사도 잘 되고 살림도 불어나게 해달라고 업구렁이에게 비는 풍습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9월 9일이나 동짓날 또는 명절을 택하여 한 번 더 의례를 치르기도 한다.

의의 집안을 지키고, 살림을 풍족히 하고자 하는 주부들의 절실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풍속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구렁이업 신앙의 성격과 형성 기원1(李秀子, 韓國民俗學報5,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5), 업神의 性格과 다른 家宅神과의 親緣性(金明子, 韓國民俗學報7, 韓國民俗學會, 1996), 업구렁이 설화 연구(안미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강등학(姜騰鶴)

텃밥

정의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집터를 지키는 터주에게 주는 밥.

내용 집을 짓고 생활하는 땅에는 그 터를 지키는 신령이 있다. 이 신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터주라고 알려져 있다. 이 터주에게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정성껏 밥을 해서 바치는데, 이를 '텃밥' 이라고 한다. 곧 터의 신령에게 바치는 밥이란 뜻이다. 이를 툇밥 또는 잡밥 · 거리밥이라고도 부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텃밥의 풍습은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서만 찾아진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월에 보름밥을 준비하면서, "텃밥할 곡식이나 마련해야겠다."고 표현할 정도이다.

지역사례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는 보름밥을 집 뒤의 터에 차려 놓는데, 이것이 텃밥이다. 보름밥으로 텃밥을 주는 셈이다. 그러나 이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풍습은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보름날 아침에 오곡밥이나 메밥 혹은 수수와 콩을 넣고 마련한 밥을 들고 터로 나가서 집 울타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숟가락으로 밥을 조금씩 떠 던진다. 이 때 "텃밥이요! 텃밥이요!" 하고 외친다. 이런 경우의

텃밥은 특히 '잡밥' 혹은 '툇밥'이라 부른다. 잡밥은 잡곡을 넣은 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잡신을 대접하기 위한 밥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툇밥은 물리치는 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필자 | 김효경(金孝慶)

팔랑개비꽂기

☞ 지붕에 깃대꽂기

팔랑개비점

정의 정월 대보름날 가족의 한 해 신수를 알아 보기 위해 행한 점복. 팔랑개비를 만들어 달고 그 도는 정도에 따라 한 해 신수의 길흉을 점친다.

내용 종이를 접어 만든 팔랑개비를 나뭇가지에 꽂아서 지붕이나 낟가릿대 같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꽂아 두고, 그 팔랑개비가 도는 정도를 보아 신수를 점친다. 잘 돌면 길하고 잘 돌지 않으면 흉하다. 팔랑개비가 쉴 새 없이 돌면 솔개·까마귀·박쥐 같은 흉조조(凶兆鳥)가 날아들지 못하며, 귀신도 들지 못한다고 믿는다.

지역사례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수동·행동마을에서는 열나흗날 저녁에 식구 중 신수가 좋지 않게 나온 사람이 팔랑개비를 접어 사립문에 꽂아 둔다. 그것이 저절로 없어지면 운이 좋은 것으로 믿었다.

참고문헌 |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 1990), 銅雀區誌(서울特別市 銅雀區, 1994),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정재(李丁宰)

해의밥빠치기(海衣—)

정의 정월 열나흗날 저녁 눈에 다래끼[眼瞼炎]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김쌈을 우물에 던지는 풍속. 해이밥빠치기·다래끼빠치기·다래끼빠트리기·다래끼떨구기·팥던지기라고도 한다.

내용 해의(海衣)밥은 밥을 김으로 조그맣게 싸서 만든 김쌈을 말한다. '해의밥빠치기' 또는 '해이밥빠치기'는 그 김쌈을 우물에 빠뜨린다는 뜻이다. '다래끼빠치기'는 눈에 난 부스럼을 우물에 빠트린다는 말로, 열나흗날 저녁 남녀 아이들은 김에 밥을 조금 싸서 만든 김쌈을 우물에 빠트리는데, 이것을 용왕밥 준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눈에 다래끼나 몸에 부스럼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래끼빠치기는 해의밥빠치기와 유사한데 김쌈 대신 팥을 우물에 던지는 점이 다르다. 다래끼빠치기는 속눈썹 부근에 구균(球菌)이 침입하여 생기는 작은 부스럼을 예방하는 행위이다. 다래끼를 예방하기 위해 보름날 밥을 얻으러 나가기 전에 샘가에 서서 일년 내내 다래끼가 나지 않도록 용왕님께 빈다. 눈썹에 팥알을 대고 샘 속을 들여다보며 용왕님께 축원을 하고 팥을 샘 속에 빠뜨린 다음 "아이구 어쩌나, 내 다래끼 빠졌네." 하면서 복조리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밥을 얻으러 나간다. 다래끼가 났을 경우에는 눈의 위쪽에 났으면 다래끼가 난 눈과 반대 방향의 발바닥에 천평(天平)이라고 쓰고, 아래쪽에 났으면 지평(地平)이라고 쓴다.

지역사례 다래끼빠치기는 전남·전북에서 널리 전승되며, 해의밥빠치기는 서해 도서 지방인 임자·낙월 등지에서 전승된다. 먼저 다래끼빠치기 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전남 신안 임자도에서는 자기 나이 수만큼의 팥을 갖고 우물가에 가서 하나씩 던지며 "달앗 빠치자 달앗 빠치자."고 한다. 또는 팥 한줌을 한꺼번에 던지면서 "샘각씨님 내 달앗 다 가져갑소사."라고 한다. 영광 낙월도에서는 팥을 우물에 던지며 "아이구 내 달앗 빠졌네." 한다. 그리고 무안 해제나 여수 초도에서는 이것을 집단적 놀이로 수행한다. 이 곳에서는 남녀 아이들이 손에 돌을 주워 집단적으로 들샘으로 달려가서 샘을 돌면서 차례차례 돌을 던져 빠트린다. 돌을 던져 넣으며 "내 달앗 빳는다. 내달앗 빳는다." 또는 "달앗 빠치자 샘각시 달앗 받으라."는 소리를 제창한다. 달앗은 다래끼이고, 샘각시는 우물신이며, '빳는다'는 빠진다는 말이다. 우물의 샘각시에게 팥을 던지며 다래끼를 가져가라고 외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우물에 던지는 물건이 김쌈·팥·돌멩이로 다르게 나타나며, 어떤 경우 집단적 놀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축원 행위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의의 해의밥빠치기 또는 다래끼빠치기는 대보름에 이루어지는 축원 행위 중의 하나다. 대보름에는 일년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다양한 축원이 많은데 다래끼 빠치기는 팥의 주력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팥은 액을 내치고 축귀하는 주력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팥을 우물에 던져 넣는 것은 물의 정화력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다. 물이 지닌 정화력으로 다래끼가 생기지 않고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우물 신에게 비는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全南의 歲時風俗(全羅南道 鄕土文化叢書29, 全羅南道, 1988), 民俗誌(光州直轄市 · 南道民俗學會, 1990),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경엽(李京燁)

호리병박버리기

☞ 나무조롱버리기

화재막이(火災—)

정의 화재를 막기 위한 액막이 풍속의 하나. 화재막이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마을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내용 화재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굴뚝이나 지붕에 막걸리 · 소금 · 쌀뜨물 · 물(간수) 등을 뿌리는 형태이다. 굴뚝이나 지붕은 화기와 직접 연결된 곳으로 이곳을 잘 위하면 화재가 나지 않는다고 믿어 행해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집안의 네 귀퉁이나 기둥 등에 이것들을 뿌리기도 한다. 둘째는 화재 예방을 위한 부적을 붙여 화재를 막고자 하는 형태이다. 민간에서는 화기를 막기 위한 부적을 붙이는데, 보통 '수(水)' 자를 쓴다. 셋째는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의를 드리는 것으로, 보통 풍수적으로 화기가 서린 마을에서 지낸다.

지역사례 민간에서는 화재를 막기 위해 굴뚝 · 지붕 · 집 주위에 물 · 막걸리 · 쌀뜨물 · 소금 등을 뿌리거나 집안에 화재예방을 위한 부적을 붙인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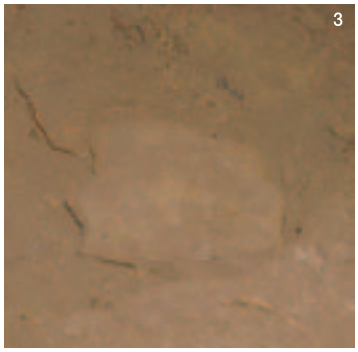
① 막걸리 붓기: 충남 홍성군 서명 판교리 수룡동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술을 집안의 상기둥 네 귀퉁이에 조금씩 붓는다.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② 물(간수) 뿌리기: 전북 고창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솔잎으로 지붕에 물을 뿌린다. 진안에서는 간수를 대문 양쪽에 세 번씩 뿌리면서 "화재맥이하자."고 외친다.

③ 소금 뿌리기: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 정월 열나흗날이나 보름에 지붕이나 집 주위 · 굴뚝에 소금을 뿌려 한 해 동안 화재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 충남 예산 지역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굴뚝에 소금을 뿌리고, 전북 전주에서는 열나흗날 저녁에 지붕에 소금을 뿌린다. 이것을 '불맥이'라고 한다. 전북 완주에서는 대보름날 아침 집 주위에 소금을 뿌린다.

④ 쌀뜨물 뿌리기: 충남 부여와 홍성, 전북 남원 · 전주 · 고창 · 익산, 전남 화순 등에서는 보름날 새벽 쌀뜨물을 뿌려 화재를 막는다. 충남 부여와 홍성에서는 화기(火氣)와 직결되었다고 여기는 굴뚝에 쌀뜨물을 세 번 붓고, 전북 남원 지역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집의 네 기둥이나 지붕 · 마당에 쌀뜨물을 뿌린다. 전북 익산 · 진안에서는 집안 곳곳에 쌀뜨물





〈화재막이〉
1 간물단지에 물 붙기
2 간물단지 돌로 덮기
3 돌로 덮어 놓은 간물단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수문리
국립민속박물관

을 뿌리기도 한다. 화재막이는 정월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수가 들었다고 하면 그 날 즉시 거행하기도 한다. 전북 진안에서는 집안에 화재수가 들면, 쌀뜨물에 소금을 섞어서 지붕 위에 끼얹는다. 쌀뜨물을 담은 바가지에는 식구들이 사용하는 숟가락을 넣어 뿌리기도 하는데, 개인들이 화재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숟가락은 거두어서 다시 사용한다. 쌀뜨물을 뿌릴 때는 축원을 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일년 열두 달 삼백육십오일 화재 조심한다.", "화재막이하자, 화재막이하자, 올 일년 화재나지 말아라." 등 화재를 막자는 것이다. 전북 정읍과 신태인에서는 쌀뜨물에 재와 소금, 고추 세 개 등을 넣어 화재없이 가족이 무사태평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한다.

⑤ 부적붙이기: 민간에서는 화기를 막기 위한 부적을 붙인다.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사각으로 오린 종이 가운데에 '화(火)' 자를 쓰고 빙 둘러 '수(水)' 자를 써서 잿간 등 불이 나기 쉬운 집안 곳곳에 붙인다. 이를 전라도 지역에서는 '화재뱅이'라고 한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수' 자를 거꾸로 붙이기도 하는데, 이는 물이 쏟아진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의의 화재는 한번에 큰 재물과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다. 그러기에 궁궐이나 절, 민간에서는 불기운[火氣]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주술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왕조는 궁궐의 화재 발생을 관악산의 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궁궐 앞에는 해태상을, 남대문에는 숭례문(崇禮門)이라고 적은 현판을 세로로 건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 숭례문의 '례(禮)'는 오행 중 화에 해당하고, 세로로 문구를 쓴 것은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으로, 이는 결국 불로써 불을 막으려는 주술적인 행위이다. 마을에 세운 솟대에 물새를 올리는 이유도 마을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이다.

절이나 민간에서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금이나 물과 같은 상징물을 이용한다. 경북 청도의 운문사에서는 음력 정월 20일 경에 소금을 담은 단지를 불당 뒤에 묻으며, 해인사에서도 절 주위 여러 곳에 소금 단지를 묻어 절 앞 화산(火山)의 화기를 누른다. 화재막이에 쓰이는 소금은 바닷물의 결정체로서 거대한 물을 의미함으로써 물과 불이 상극(相剋)이라는 이치를 이용해 불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민간에서 기둥에 수자를 거꾸로 붙여 화기를 누르고자 한 것도 수화상극(水火相剋)의 단편적인 예이다. 상량문에 '용(龍)' 자나 '귀(龜)' 자를 쓰는 것이나 문짜귀를 거북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이들 동물이 수신(水神)적 존재임에 힘입어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민간에서는 불기운을 막겠다는 속신으로 소금·바닷물·물·술 등 불과 상극인 물의 성질을 가진 물질들을 이용해 마을의 화기를 막으려고 했다. 이것들을 뿌리는 행위는 화재를 진압하는 의미이며, 지붕에 주로 뿌리는 것은 예전에 초가지붕이 불에 잘 탔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간물단지신앙의 용신신앙적 성격(김명자, 月山任東權博士頌壽紀念論文集 民俗學會篇, 월산임동권박사송수기념논문편찬위원회, 1986),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정연학(鄭然鶴)

환 그려붙이기

정의 나무에 환(그림)을 붙여 액을 막고자 했던 정월 대보름날의 액막이 풍속.

내용 그 해의 운수가 나쁜 사람은 환을 그려서 길가의 나무에 붙여 액막이를 했다. 환이 어떤 그림인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경남 단여지역에서 이러한 풍습이 행해졌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필자 | 김윤정(金潤貞)

묵은나물

정의 전 해에 말려 두었던 나물 재료를 물에 삶아 불렸다가 나물을 만들어 먹는 정월 대보름의 절식. 묵은나물을 가리켜 '진채(陳菜)'라고도 한다.

내용 대보름날에 묵은나물을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 묵은나물을 만들어 먹는다. 조선시대의 기록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박나물, 버섯 등을 말린 것과 콩나물, 순무, 무 등을 묵혀 두는데 이것을 진채라고 한다. 이것들을 반드시 이 날 무쳐 먹는다. 대개 외고지, 가지고지, 시래기 등도 버리지 않고 말려 두었다가 삶

아서 먹는다고 하였으며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 묵은나물을 먹는다고 하였다.

묵은나물은 호박고지, 가지, 버섯, 고사리, 도라지, 시래기, 박나물, 아주까리잎, 토란대 등으로 만들며 지방에 따라 먹는 나물의 종류가 다르다. 대개 강원도처럼 산이 많은 곳에서는 취나물을 말려 두었다가 먹으며,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는 모자반 같은 해초를 말려 두었다가 나물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묵은나물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말려 두었던 재료를 불려야 한다. 마른 재료를 불리려면 우선 물에 담가 어느 정도 불린 뒤 삶아서 다시 불린다. 아린 맛이나 좋지 않은 맛이 있는 재료는 불릴 때 물을 갈아가면서 불려야 한다. 불린 재료를 건져서 물기를 뺀 다음 양념하여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거워지면 양념해 둔 재료를 넣고 볶는다. 이때 부드럽게 볶으려면 고기국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덮어 무를 때까지 볶으면 맛이 있다.

전북에서는 묵은나물 만드는 방법이 독특하다. 마른 재료를 불려서 준비해 두고 들깨와 쌀가루를 갈아서 체에 받쳐 둔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뜨거워지면 불려 놓은 재료를 넣고 양념을 하면서 볶는다. 어느 정도 볶아지면 들깨가루와 쌀가루를 넣고 뚜껑을 덮어 끓인다. 이 때 들깨를 많이 넣고 쌀가루는 조금 넣어야 맛이 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5 -民俗藝術 · 生業技術-(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2), 朝鮮歲時記(洪錫謨 外 · 李錫浩 譯註, 東文選, 1991).

필자 | 서혜경(徐惠卿)

보름밥

⇨ 오곡밥[五穀飯]

섬만두

정의 정월 대보름날 밤에 벼농사가 잘 되어 쌀섬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크게 만들어 먹는 만두.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가마니를 말하며, 부피의 단위로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쓰는 용어이다.

내용 속을 크게 꽉 채운 만두처럼 농사가 잘 되어 쌀섬이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먹었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는 맑은 무밴장국에 흰쌀밥을 먹고, 저녁에는 섬만두를 만들어 먹었다. 평상시보다 더 크게 만두를 미리 빚어 두었다가 달맞이를 하고 들어와 만두국으로 끓여 먹었다. 섬만두는 그 해 풍년이 되고 쌀섬이 많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평상시 만드는 만두보다 속을 꽉 차게 넣어 크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 섬만두는 쌀섬을 보관하는 광에 한 그릇 담아 두었다가 나중에 꺼내 먹기도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섬떡, 복만두 등을 만들어 먹었다. 섬떡은 찹쌀을 넓적하게 밀어서 콩이나 팥을 넣고 둥글고 주먹만하게 만든 것이다. 이 떡 역시 떡 안에 곡식이 차듯 풍년이 들라는 의미로 먹었다. 복만두는 조그맣게 빚은 새끼만두를 보통 크기의 만두 속에 3~4개씩 넣어 만든다. 정월 초하룻날 만두국 속에 복만두 한 개를 넣고 국을 끓이는데 이 복만두를 먹는 사람은 그 해에 남보다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정월 원일(元日)에 황해도 · 평안도 지역에서는 세찬으로 떡국 대신 만두국을 쓰는 것이 특징인데, 만두국에는 돼지고기, 꿩고기, 김치 등을 넣고 송편 모양으로 네 귀가 나게 빚은 섬만두를 넣어 먹었다. 그 뜻은 일년 농사가 잘 되라고 기원하는 뜻이었다고 한다.

의의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가마니이다. 대보름에 곡식이 가득 찬 섬처럼 속을 꽉 채운 만두를 만들어 먹는 것은, 커다랗고 속이 알찬 만두처럼 농사가 잘 되어 쌀섬이 많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黃海 · 平安南北道篇-(文化財管理局, 1980),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한국의 전통음식(황혜성, 교문사, 1993), 경기민속지 III -세시풍속 · 놀이 · 예술 편-(경기도박물

묵은나물
전남 곡성군 입면 황헌만

관, 2000), 임진강(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경기도박물관, 2001).
필자 | 김지욱(金志昱).

약밥[藥飯]

정의 찹쌀을 쪄서 대추, 밤, 잣, 참기름, 꿀, 간장 등 여러 재료를 섞어 쪄서 익힌 음식. 약식(藥食) 또는 약반(藥飯)·꿀밥 또는 밀반(蜜飯)이라고도 한다. 『목은집(牧隱集)』에는 점반(粘飯), 『도문대작(屠門大嚼)』에는 고려반(高麗飯),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는 잡과반(雜果飯), 『소당풍속시고(嘯堂風俗詩稿)』의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와 『아언각비(雅言覺非)』 등에는 밀반이라고 나온다.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약밥은 보름날[上元]의 좋은 음식이며 신라의 옛 풍속이라고 한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 의하면 보름날 약밥을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안한다고 하였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1 「기이(紀異)」사금갑조(射琴匣條)에서는, 신라 제21대 소지왕(炤知王) 10년 무진년(戊辰年, 488)에 왕이 천천정(天泉亭)에 거동하였을 때, 까마귀를 따라간 곳에서 나타난 노인이 준 봉서(封書) 안에 적힌 사금갑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이 날을 기념하여 오기일(烏忌日)이라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찰밥[糯飯]을 만들어 까마귀에게 제사 지낸 것에서 유래하여 지금은 시절음식이 되었다고 하였다.

내용 약밥의 조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합총서』에는 "찹쌀 한 말에 살진 대추 한 말, 밤 한 말 한 되로, 대추는 씨를 발라 서너 조각씩, 밤은 세 쪽씩 낸다. ……쌀알이 익으면 즉시 꺼내어 대추와 밤을 섞고, 꿀 한 주발과 참기름 한 되, 진한 간장 한 종지를 쳐서 고루 섞어 시루에 안치되……대추씨 삶은 물이 좋지만 질어지기 쉽고 건시는 떫어 좋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의전서(是議全書)』에서도 "대추씨 삶은 물을 지에밥을 버무릴 때 넣으며, 시루에 안치고 위에 메밀이나 깨를 물에 버무려 덮고 처음에는 센 불로 찌다가 김이 오르면 뭉근한 불로 하룻밤을 새도록 오래 쪄야 색이 좋다."고 하였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약밥에 시병(柿餠, 감편)을,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는 꿀 대신 설탕을, 밤 대신 곶감이나 고구마를 이용해도 좋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찹쌀 꼬두밥에 설탕, 참기름, 진간장, 캐러멜, 밤, 대추, 실백 등을 넣고 버무려 다시 찌며, 뜨거울 때 그릇에 담아 식힌 다음 썰어서 쓰기도 하고, 밥처럼 합(盒)에 담아 쓰기도 한다.

약밥의 이용과 맛을 살펴보면,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상원(上元)에 약밥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약밥을 조상에게 제사도 올리고 손님도 대접하며 이웃에 보내기도 한다고 나온다. 약밥의 맛에 대해서는 "역관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신이 연경(북경)에 갔을 때 정월 대보름에 옹인(饔人, 熟手)더러 이를 만들도록 했는데, 연경 안의 귀인들이 그 맛을 보고 반색하며 그 여러 가지 맛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전해 주었으나 끝내 만들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약밥 궁중음식연구원

참고문헌 | 是議全書, 增補山林經濟,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朝鮮料理製法 -改訂增補 -(方信榮, 漢城圖書株式會社, 1942), 閨閤叢書(憑虛閣李氏 著·鄭良婉 譯, 보진재, 1975), 韓國食品文化史(李盛雨 著, 敎文社, 1984), 朝鮮歲時記(洪錫謨 外·李錫浩 譯註, 東文選, 1991), 한국식품사회사(이성우, 교문사, 1995).
필자 | 정현미(鄭賢美)

오곡밥[五穀飯]

정의 다섯 가지 곡식, 즉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섞어 지은 밥. 정월 대보름의 오곡밥은 풍농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 농사밥이라고도 하며, 대보름즈음에 먹는다 하여 보름밥이라고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오곡잡반(五穀雜飯)이라 나온다. 또한 정월 대보름에 만들어 먹는 상원절식으

로 약밥을 들고 있는데, 약밥에 들어가는 잣, 대추, 밤 등은 당시 서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재료였기 때문에 대신 오곡밥을 지어 먹게 된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정월 대보름날의 전통적인 절식(節食)인 오곡밥은 다섯 가지 곡식, 즉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섞어 지은 밥이지만 지역에 따라 섞는 곡식의 종류는 차이가 있다. 오곡밥에 들어가는 곡물의 혼합 비율에 대하여 『정조지(鼎俎志)』에는 좁쌀 · 기장 · 멥쌀 각각 2되, 수수쌀 5홉, 붉은팥 7홉, 검은콩 2홉을 섞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찹쌀 · 찰수수 · 흰팥 각 2되, 차조 1되, 좋은 물콩 5홉, 대추 1되의 비율로 섞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곡밥의 조리법은 먼저 콩을 물에 담가 불리고 팥은 삶아 건지며, 찰수수와 차조, 찹쌀을 씻어 일어 놓는다. 찹쌀, 팥, 콩, 찰수수를 고루 섞고 받아 놓은 팥물에 맹물을 보태어 보통 밥을 지을 때보다 물을 적게 잡아 소금을 물에 섞어 밥을 짓는다. 밥이 끓어오르면 좁쌀을 얹고 불을 줄여서 뜸을 천천히 들인다. 뜸이 다 들었을 때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서 그릇에 푼다.

속신 오곡밥을 먹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름날 먹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나흗날 먹고 대보름날 아침에는 일찍 흰쌀밥(백반)을 먹는다. 밥을 아침 일찍 먹어야 농번기에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동국세시기』에는 "오곡으로 잡곡밥을 지어먹는다. 그리고 또 이것을 나누어 준다. 영남 지방의 풍속 또한 그러한데 종일 이 밥을 먹는다. 제삿밥을 나누어 먹는 옛 풍습을 답습한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국세시기』에는 "봄을 타서 살빛이 검어지고 야위는 아이는 대보름날 백 집의 밥을 빌어다가 절구를 타고 개와 마주 앉아서 개에게 한 숟갈 먹이고 자기도 한 숟갈 먹으면 다시는 그런 병을 앓지 않는다고 여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대보름날(또는 열나흗날) 다른 성(姓)을 가진 세 집 이상의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이 좋아진다고 하여 여러 집의 오곡밥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열나흗날 저녁에 아이들이 몰래 빈 집에 들어가서 오곡밥을 훔쳐다 먹기도 했다. 오곡밥을 얻으러 사람들이 많이 와야 일꾼도 많이 생겨 풍년이 든다고 믿기 때문에 주인은 이 모습을 봐도 모른 척한다. 보름날 아침에 아이들은 조리나 소쿠리를 들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오곡밥을 한 숟갈씩 얻는다.

전남에서는 이것을 조리밥 또는 세성받이밥이라 하는데, 열나흗날 저녁 또는 보름날 아침에 아이들이 체바퀴나 조리로 보름밥을 얻으러 돌아다녔다. 이렇게 얻어온 밥을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고 믿었다.

한편 아침 식사 후에는 소에게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이 오곡밥과 나물을 키에 차려 주는데, 소가 오곡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오곡밥은 하루에 아홉 번 먹어야 좋다고 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대개 일곱 번에서 열두 번 정도에 걸쳐 자주 여러 번 먹어야 좋다고 하는데, 아홉 번 먹는 풍속이 가장 보편적이다. 여러 번 먹는 풍속에는 한 해 동안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의의 오곡밥은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일종의 잡곡밥이며, 곡식의 종류는 가정 및 지역마다 다르다. 여러 가지 곡식을 넣어 지어 먹는다는 뜻에서 곡식의 총칭인 '오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곡의 풍요를 기원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문헌 | 是議全書, 朝鮮料理製法 -改訂增補 -(方信榮, 漢城圖書株式會社, 1942), 閨閤叢書(憑虛閣李氏 著 · 鄭良婉 譯, 보진재, 1975), 韓國食品文化史(李盛雨 著, 敎文社, 1984), 朝鮮歲時記(洪錫謨 外 · 李錫浩 譯註, 東文選, 1991), 한국식품사회사(이성우, 교문사, 1995).

필자 | 정현미(鄭賢美)



오곡밥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원소병(圓小餠, 元宵餠)

정의 찹쌀가루를 갖가지 색으로 반죽하여 소를 넣고 빚어서 삶아 낸 것으로, 꿀물이나 오미자국물에 띄워 먹는 화채. 중국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원소(元宵)라 하는데,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달을 보며 먹는 떡이라고 하여 원소병(圓小餠, 元宵餠)이라고 한다.

유래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원소병에 대하여 "이 떡이 북경서 정월 보름(元宵)에 만들어 먹는 고로 원소병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중국 삼국 시대에 하북(河北)의 원소(袁紹)가 만들어 먹은 떡이라 하여 원소병이라 한다.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원소란 찹쌀가루로 작은 경단을 빚어서 소를 넣고 삶아 꿀물에 띄운 것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소병은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에 먹는 떡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넣은 작은 경단을 꿀물에 띄운 화채이다.

내용 원소병을 만드는 법은 『규합총서』에 "찹쌀가루를 깁체에 쳐 사탕물에 반죽하여 대추를 쪄서 거른 소를 넣고, 크기는 큰 경단만큼씩 동글게 비벼 사탕물을 달게 하여 삶아 물수단같이 띄워 쓴다. ……또 다른 방법은 찰가루를 곱게 하여 누긋하게 날반죽한다. 소는 호두 껍질을 벗겨 두드리고, 잣가루하고 계피 · 사탕 · 후추를 모두 가루로 만들어 섞은 다음 소를 넣어 만두모양처럼 빚는다. 물을 끓이고 삶아 뜨거든 건져 사탕가루 묻혀 오미자국에 꿀 타서 넣어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인필지(夫人必知)』에 소개된 제법을 보면 "찰가루를 깁체에 쳐서 사탕물에 반죽하여 대초 걸른 즙에 넣어 경단같이 빚어 사탕물에 삶아 수단같이 물기 있게 먹는다. 이는 하북의 원소가 해 먹던 떡인 고로 원소병이라 한다."고 하였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는 "찹쌀가루를 고운 체에 쳐서 반죽한 다음 대추를 쪄서 거른 것을 소로 넣고 경단을 빚어 사탕물에 삶아 수단같이 물째 먹는다. 요사이는 골무떡을 더운 물에 넣었다가 건져 내어 물기가 없거든 개얌알만큼씩 동글게 만들어 속에다가 귤병을 팥자게 만큼씩 썰어 넣고 굴려 녹말을 씌워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건져 냉수에 담



원소병 궁중음식연구원

가 조리에 건졌다가 꿀물에 넣어 차게 하여 먹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는 "찹쌀가루를 고운체에 쳐서 펄펄 끓는 물에 반죽해 놓고, 청매와 귤병을 잘게 썰고 계피가루와 설탕을 넣고 섞어서 소를 만든다. 반죽한 것을 작은 은행만큼씩 떼어 구멍을 파고 소를 넣어 둥글게 만든다. 녹말가루를 묻혀서 끓는 물에 잠깐 삶아서 물 위에 동동 뜨면 즉시 건져 찬 물에 넣고 채반에 쏟아서 물을 빼고 차게 식힌 후 꿀물을 넣고 잣가루를 뿌려서 상에 놓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찹쌀가루를 3~4등분하여 식용물감을 각각 조금씩 넣어 아주 연한 빛으로 익반죽하여 귤병이나 대추 다진 것으로 소를 넣고 경단만한 크기로 빚는다. 이것에 녹말가루를 가볍게 묻혀 끓는 물에 삶아 내어 찬물에 담가 완전히 식힌 다음 화채 그릇에 빛깔을 맞추어 담고, 꿀이나 끓인 설탕물 식힌 것을 알맞게 붓고 실백을 띄운다.

참고문헌 | 是議全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朝鮮料理製法 -改訂增補 -(方信榮, 漢城圖書株式會社, 未人必知, 1942), 閨閤叢書(憑虛閣李氏 著 · 鄭良婉 譯, 보진재, 1975), 韓國食品文化史(李盛雨 著, 敎文社, 1984), 朝鮮歲時記(洪錫謨 外 · 李錫浩 譯註, 東文選, 1991), 한국식품사회사(이성우, 교문사, 1995), 한국음식대관1 -한국음식의 개관-(윤서석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필자 | 정현미(鄭賢美)

진채(陳菜)

⇨ 묵은나물

가산오광대(駕山五廣大)

정의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던 탈놀이. 198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되었다. 현지 주민들은 오광대 · 오광대놀이 · 오광대놀음 · 오광대탈놀음 · 오광대탈놀

원소병(圓小餠, 元宵餠)

정의 찹쌀가루를 갖가지 색으로 반죽하여 소를 넣고 빚어서 삶아 낸 것으로, 꿀물이나 오미자국물에 띄워 먹는 화채. 중국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원소(元宵)라 하는데,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달을 보며 먹는 떡이라고 하여 원소병(圓小餠, 元宵餠)이라고 한다.

유래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원소병에 대하여 "이 떡이 북경서 정월 보름(元宵)에 만들어 먹는 고로 원소병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중국 삼국 시대에 하북(河北)의 원소(袁紹)가 만들어 먹은 떡이라 하여 원소병이라 한다.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원소란 찹쌀가루로 작은 경단을 빚어서 소를 넣고 삶아 꿀물에 띄운 것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소병은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에 먹는 떡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넣은 작은 경단을 꿀물에 띄운 화채이다.

내용 원소병을 만드는 법은 『규합총서』에 "찹쌀가루를 깁체에 쳐 사탕물에 반죽하여 대추를 쪄서 거른 소를 넣고, 크기는 큰 경단만큼씩 동글게 비벼 사탕물을 달게 하여 삶아 물수단같이 띄워 쓴다. ……또 다른 방법은 찰가루를 곱게 하여 누긋하게 날반죽한다. 소는 호두 껍질을 벗겨 두드리고, 잣가루하고 계피 · 사탕 · 후추를 모두 가루로 만들어 섞은 다음 소를 넣어 만두모양처럼 빚는다. 물을 끓이고 삶아 뜨거든 건져 사탕가루 묻혀 오미자국에 꿀 타서 넣어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인필지(夫人必知)』에 소개된 제법을 보면 "찰가루를 깁체에 쳐서 사탕물에 반죽하여 대초 걸른 즙에 넣어 경단같이 빚어 사탕물에 삶아 수단같이 물기 있게 먹는다. 이는 하북의 원소가 해 먹던 떡인 고로 원소병이라 한다."고 하였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는 "찹쌀가루를 고운 체에 쳐서 반죽한 다음 대추를 쪄서 거른 것을 소로 넣고 경단을 빚어 사탕물에 삶아 수단같이 물째 먹는다. 요사이는 골무떡을 더운 물에 넣었다가 건져 내어 물기가 없거든 개얌알만큼씩 동글게 만들어 속에다가 귤병을 팥자게 만큼씩 썰어 넣고 굴려 녹말을 씌워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건져 냉수에 담



원소병 궁중음식연구원

가 조리에 건졌다가 꿀물에 넣어 차게 하여 먹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는 "찹쌀가루를 고운체에 쳐서 펄펄 끓는 물에 반죽해 놓고, 청매와 귤병을 잘게 썰고 계피가루와 설탕을 넣고 섞어서 소를 만든다. 반죽한 것을 작은 은행만큼씩 떼어 구멍을 파고 소를 넣어 둥글게 만든다. 녹말가루를 묻혀서 끓는 물에 잠깐 삶아서 물 위에 동동 뜨면 즉시 건져 찬 물에 넣고 채반에 쏟아서 물을 빼고 차게 식힌 후 꿀물을 넣고 잣가루를 뿌려서 상에 놓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찹쌀가루를 3~4등분하여 식용물감을 각각 조금씩 넣어 아주 연한 빛으로 익반죽하여 귤병이나 대추 다진 것으로 소를 넣고 경단만한 크기로 빚는다. 이것에 녹말가루를 가볍게 묻혀 끓는 물에 삶아 내어 찬물에 담가 완전히 식힌 다음 화채 그릇에 빛깔을 맞추어 담고, 꿀이나 끓인 설탕물 식힌 것을 알맞게 붓고 실백을 띄운다.

참고문헌 | 是議全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朝鮮料理製法 -改訂增補 -(方信榮, 漢城圖書株式會社, 未人必知, 1942), 閨閤叢書(憑虛閣李氏 著 · 鄭良婉 譯, 보진재, 1975), 韓國食品文化史(李盛雨 著, 敎文社, 1984), 朝鮮歲時記(洪錫謨 外 · 李錫浩 譯註, 東文選, 1991), 한국식품사회사(이성우, 교문사, 1995), 한국음식대관1 -한국음식의 개관-(윤서석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필자 | 정현미(鄭賢美)

진채(陳菜)

⇨ 묵은나물

가산오광대(駕山五廣大)

정의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던 탈놀이. 198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되었다. 현지 주민들은 오광대 · 오광대놀이 · 오광대놀음 · 오광대탈놀음 · 오광대탈놀

이라는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오광대로 통일된 경향이다.

내용 가산오광대는 1957년 경까지 전승되어 오다가 일시 중단된 것을 1970년대에 들어와 다시 놀기 시작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가산오광대보존회가 전승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희자(기능보유자) 중에서 조제신(할미)·김오복(양반)·한윤영(말뚝이·탈 제작)·한재준(옹생원)·한종기(원양반·황제장군)는 작고하였고, 한우성(영노·문둥이)·한우은(말뚝이·할미)은 현재 활동하고 있다.

가산오광대는 남강의 지류로 오광대 극본이 들어 있는 궤가 떠내려 왔다는 전설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진주오광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산에 청주 한씨가 정착한 지 11대가 되고, 조선 말엽까지 조창(漕倉)이 있던 곳으로 7개 군의 조곡(租穀)을 징수하여 제물포(지금의 인천)로 운송하던 항구였으니 가산오광대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일찍이 갖추어진 셈이다.

가산의 뒷산은 당산으로 당집이 있었고, 동네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두 군데 돌장승이 세워져 있다. 각각 남녀 두 쌍(4개)을 이루고 있는데, 남상(男像)은 수염이 달리고 탕건을 썼으며, 여상은 쌍상투머리를 하고 있다. 가산마을의 수호신은 당산할머니와 장승이다.

음력 12월 15일 무렵 마을회의를 열어 집집마다 추렴하고 찬조금을 받아 동제 비용을 마련하고 제관을 선임하는데, 제관 1명, 축관 1명, 보조원 2명(1명은 여자) 등 총 4명을 뽑는다. 이들을 선출할 때에는 생기(生氣)·복덕(福德)을 가려 깨끗한 사람으로 뽑았다. 부정이 없는 사람이란 초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 출산이 없는 사람, 짐승을 안 죽인 사람 등을 가리킨다. 동제 기간 중에는 금기를 엄격하게 지켜 출산일이 가까운 임산부는 다른 마을로 피접을 갔다. 제관과 축관은 섣달 그믐날부터 목욕재계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고서 금줄 치고 황토를 뿌린 당집 안에서 근신하며, 보조원이 제물과 제사 용품을 구입하고 음식을 장만한다. 음식을 만들 때는 입을 수건으로 동여매어서 침이 튀는 것을 막았으며, 제물을 만드는 도중에 소변을 보면 손을 씻고 대변을 보면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는 정도로 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 희생제물은 수퇘지이며, 술 대신 식혜(감주)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당산신이 여신이기 때문이다.

정월 초하룻날 밤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관이 술잔을 바치면 축관이 축문을 읽고, 마을의 무사태평과 농사의 풍요다산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돼지 뼈를 비롯한 제물을 백지에 싼 '지신밟'을 당산나무 앞뒤에 파묻고 음복하고 철상한다.

이러한 천룡제(天龍祭)를 마치면 제관은 장승고사와 우물고사를 지내고, 풍물패도 당산, 장승, 우물의 순서로 매구(지신밟기)를 치고, 이후에는 집돌이를 하며 매구를 쳐서 축귀초복(逐鬼招福)한다. 희생으로 바쳐진 돼지의 고기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흰 한지에 싸서 집집마다 나누어 먹었다.

오광대는 대보름날 아홉시 경에 시작하여 자정까지 놀았는데, 탈을 궤짝에서 꺼낼 때는 양반 역이 고사를 지내며, 초저녁에 조창오광대의 깃발을 앞세우고 말뚝이, 양반, 무당, 풍물패 순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돈다. 가산오광대는 정월 대보름놀이로 마을에서 놀고, 2월 초순 들어 한가한 시기에는 이웃 지방(구해창, 제미창, 사남면, 초전리, 용해면, 선진





가산오광대(영감할미마당)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주병수

리, 사천읍, 곤양면, 한덕, 곤면, 완사 등지)을 돌며 한 달씩이나 순회 공연을 하였다. 3·1운동 이후에는 그 수입으로 사학을 세워 운영하였으며, 또 농청(農廳)의 기금으로도 삼았다고 한다. 오광대는 꽹과리를 주로 하고 장구와 북을 곁들인 타악기의 반주음악에 맞추어 덧뵈기춤을 추며 재담을 하는데, 이러한 공연 형태는 영남 일대의 오광대와 들놀음의 공통된 특징이다.

가산오광대는 오방신장마당, 영노마당, 문둥이마당, 양반마당, 중마당, 영감·할미마당 등 여섯 마당으로 구성된다.

첫째 마당 오방신장마당은 중앙황제장군·동방청제장군·서방백제장군·남방적제장군·북방흑제장군이 등장하여 춤을 춘다. 이 오방신장마당은 탈놀이를 시작함에 놀이판을 정화하는 벽사의식무인데, 가산오광대에서는 오방신장이 서울에서 유람하러 내려온 양반으로 설정되어 제의적인 탈놀이에서 오락적인 탈놀이로 변모하는 중간 단계를 보인다.

둘째 마당 영노마당은 영노가 오방신장을 차례로 잡아먹고 마지막으로 황제장군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재담을 주고받아 영노가 양반을 잡아먹는 다른 지역 놀이마당의 선행 형태를 보인다. 이것도 제의극에서 예술극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셋째 마당 문둥이마당은 절름발이·입찌그랭이·곰배팔·언챙이·코빠진놈의 겹병신 다섯 문둥이가 병신춤을 추다가 장타령을 부른 다음 투전을 할 때 반신불수인 어딩이가 개평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앙심을 품고 순사를 불러다 문둥이들을 붙잡아 가게 만든다. 이러한 내용은 진주오광대하고도 비슷하고, 노름꾼들이 문둥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포졸이 어딩이를 포박해 가는 김해의 가락오광대와는 대조적이다. 도박에 대한 인식이 지방마다 차이를 드러내며, 어딩이도 가산오광대에서는 민중적인 인물이지만, 김해오광대에서는 반사회적 인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가산오광대탈


포졸


문둥이


문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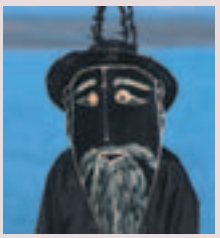

무당


양반


작은양반


중앙황제장군


남방적제장군


북방흑제장군


서방백제장군


포수와 영노


중과 서울애기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주병수

넷째 마당 양반마당에서는 양반과 말뚝이가 대결하며, 그 양상은 다른 탈놀이들과 대동소이하다.

다섯째 마당 중마당은 중이 양반의 첩을 약탈해 갔다가 되돌려 주고 응징당하는 내용으로 양반과 중의 대결을 통하여 유교와 불교의 갈등을 표현한 점에서 독특하다.

여섯째 마당 영감·할미마당은 영감이 가출하였다가 첩을 데리고 귀가하고, 할미와 갈등을 일으켜 조상단지를 깬 까닭에 동티가 나서 죽는 점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영감과 할미의 갈등 결과 할미가 죽음으로써 영감을 비판하는데, 가산오광대와 김해오광대에서는 영감의 죽음으로 종결하여 할미의 생산력을 부각시킨다. 가산과 김해의 이러한 특징은 당산신이 여신인 당산할머니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탈놀이이지만 오광대가 기본적으로 마을굿의 맥락에서 연희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탈놀이가 모두 끝나면 탈꾼들과 신명이 난 관객이 어울려 한 바탕 춤을 추고 끝맺는데, 수영들놀음과 동래들놀음이 집단난무(集團亂舞)인 덧뵈기춤놀이를 먼저 하고 탈놀이를 하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특히 가산오광대는 영감이 죽고 나서 경남탈놀이로는 유일하게 오구굿을 하는데, 양쪽에서 무당이 베를 마주잡고 다른 무당이 신광주리를 잡고서 오락가락하며 무가를 부르는 장면이 황해도 진오귀굿의 시왕가르기(다리굿)나 전라도 씻김굿의 길닦음과 유사하다.

가산오광대의 탈은 오방신장을 비롯하여 작은 양반·중·상좌·소무·할미·마당쇠·옹생원·무당·어딩이 등 과반수의 탈이 두꺼운 마분지로 만든 홑종이탈이고, 양반과 말뚝이탈은 바가지탈이며, 영노는 대소쿠리에 종이를 발라 만든다.

의의 가산오광대는 천룡제와 매구굿의 연장선상에서 연희된 대보름놀이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의례의 일환이다. 엄숙하고 경건한 제의적 분위기에서 즐겁고 유쾌한 난장(亂場)을 터서 신명풀이를 하는 축제적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는 정점에 위치한다. 그렇지만 제의적 성격은 오방신장마당에 잔영을 남기고 나머지 탈놀이마당들은 세속적인 오락극으로 전환된 면이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제의적 모티프가 함유되어 있다.

참고문헌 | 野遊·五廣大(강용권, 語文論叢8, 螢雪出版社, 1977), 韓國의 假面劇(李杜鉉 著, 一志社, 1979), 부락 및 가정신앙(장주근 외,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 文化財管理局, 1980), 韓國假面劇研究(朴鎭泰, 새문社, 1985),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정상박, 집문당, 1986), 野遊·五廣大 탈놀이(徐淵昊, 열화당, 1989).

필자 | 박진태(朴鎭泰)

감내게줄당기기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감내) 일대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줄다리기. 1983년 경상남도 시도무형문화제 제7호로 지정되었다. 감내게줄다리기·감내끼줄땡기기라고도 한다. 경북 울진군 죽변리 후정,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 삼척시 도계면 원덕읍 등지에도 게줄다리기가 전승되고 있다.

유래 감천리(甘川里) 일대의 감내들을 관류하는 감천변(甘川邊)은 비옥한 농경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게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이 게를 잡기 위해 서로 좋은 목을 차지하려다 보니 자연히 다툼이 일어나고 이웃끼리의 반목이 생기는 등 인심이 거칠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우려한 마을 사람들이 게줄당기기를 하여 이긴 쪽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한 것이 놀이의 동기라 한다. 그러나 이는 본디 나무꾼들이 지게꼬리 끝을 잡아 맨 것 두 개를 맞걸어서 두 사람이 목에 걸고 마치 게가 기어가는 것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어가며 놀던 놀이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게가 많이 잡히지 않으면서부터 놀이가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정월 대보름과 칠월 백중 등 농한기에 보(洑)나 농로를 고치기 위한 마을 공동작업을 하면서 부활되었다. 1920년대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것을 1973년 5월 17일 밀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6회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함으로써 비로소 널리 알려졌다. 1982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경상남도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밀양민속문화보존협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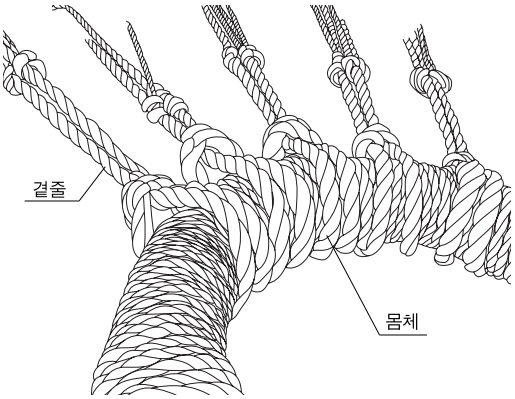
구성 및 내용 게줄다리기의 줄은 여느 줄다리기와는 달리 동그란 게[蟹]의 형태로 만든다. 반지처럼 둥근 줄 주위에 게의 발처럼 곁줄(젖줄)이 달려 있다. 곁줄을 목에 걸고 땅에 엎드려 기면서 일정한 시간 동

안 줄을 끌어당겨서 끌어오는 쪽이 이긴다. 우리나라에서 전승되어 온 줄다리기는 일반적으로 외줄 혹은 쌍줄을 수십 명이 마주 서서 당기는 데 비해 감내게줄당기기는 소수의 인원이 게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 당긴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게줄당기기의 게줄 수는 놀이꾼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어린이들은 두 사람이 겨루는 소형 줄에서부터 세 사람씩 한 조가 되는 6인용 줄로 당기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다섯 사람씩 나누어 겨루는 10인용 줄이나 열 사람씩 나누어 겨루는 20인용 줄을 당긴다. 게줄당기기는 같은 수의 놀이꾼이 두 패로 나뉘어 힘을 겨루는데, 각자 곁줄 속에 머리를 넣어 목덜미에 줄을 걸고 몸을 낮게 한 다음 어깨와 허리에 힘을 주고 손과 발로 땅을 짚고 앞으로 당긴다. 놀이의 절차는 앞놀이, 본놀이, 뒷놀이 등으로 나뉜다. 앞놀이는 박씨할매당산제로 시작하여 터밟기, 젖줄디리기, 농발이놀이, 판굿, 터빼앗기, 게줄어루기 순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본놀이인 게줄당기기가 시작된다. 게줄당기기는 심판격인 '줄도감'이 징을 치면 줄을 당기기 시작하여 100까지 셀 동안(약 3분 정도) 당긴다. 승부는 중앙에서 줄을 많이 끌어 간 쪽이 이긴다. 게줄당기기가 끝나면 한바탕 어울려 춤을 추고 노는 뒷놀이로 마감한다.

의의 원래는 게를 많이 잡기 위한 경쟁에서 시작되었으나 차츰 마을 사람들의 협동과 대동·화합을 위해 놀게 되었다. 아울러 당산제에 이어 놀이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놀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감내게줄

참고문헌 | 한국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장주근, 대한기독교서회, 1974), 미리벌의 얼 -密陽의 傳統-(밀양군, 1983), 밀양지(밀양문화원, 1987), 鄕土文化誌(慶尙南道, 1989), 鄕土의 民俗文化(康龍權 著,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硏究院, 1996).

필자 | 류종목(柳鍾穆)

강다리

정의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서 정월 대보름 무렵에 행하는 줄다리기. 강다리에서 '강'은 줄을 지칭하고 '다리'는 줄다리는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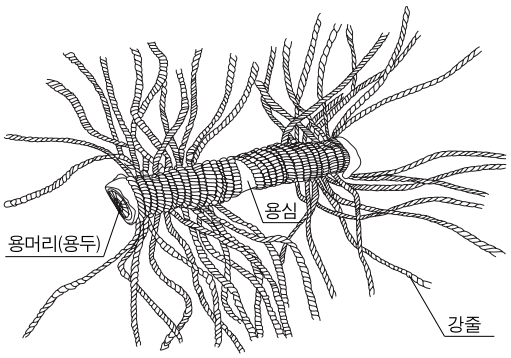
유래 예전에는 공주시 일대 서너 군데에서 강다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많이 변형되어 체육대회나 문화행사에 '민속놀이'라는 명칭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지금은 충남 연기군 용암리에서만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전(口傳)에 의하면 400여 년 전부터 행해졌다고 한다.

내용 강다리는 정월 대보름날 행하여지는 민속놀이이다. 보름을 음력 1월 15일이라 하면 강다리는 음력 1월 16일에 행한다. 그 이유는 보름 중 16일이 달이 가장 밝은 날이기 때문이라 한다. 줄다리기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강줄 만들기: 각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짚단으로 강줄을 만든다.

② 용대(용목)구하기: 나무의 위와 아래에 줄을 매달

감내게줄당기기
경남 밀양시 밀양읍 황현만



았을 때 줄이 빠지지 않도록 아래는 두껍고 위는 가지가 있는 소나무를 베는데, 때로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미루나무나 다른 나무를 벨 때도 있다.

③ 지신밟기: 풍물꾼들이 마을을 돌며 그 집에 만복이 깃들고 나쁜 기운은 물러가며 1년 내내 재수 있게 지내라고 빌어 준다.

④ 수신제 지내기: 해가 서산에 넘어갈 무렵 동네 우물가에 떡, 과일, 명태 등 음식을 차려놓고 아낙네들이 중심이 되어 동서남북을 향하여 합장하며 절을 하고 소지(燒紙)를 올린다.

⑤ 목신제 지내기: 수신제가 끝난 후 횃불에 불을 붙이고 떡시루, 돼지머리, 과일, 마른 명태 등 제물을 차리고 향을 사르며 잔을 올리고 제관이 절을 하며 축문을 읽는 순서로 남자들이 모든 진행을 맡아서 한다.

⑥ 강다리: 목신제가 끝난 후 풍년과 태평을 기원한다는 말을 하고 여자는 암줄로, 남자는 숫줄로 일제히 강줄을 잡아당긴다.

의의 강다리가 남녀로 나누어 행하는 행사인 만큼 그 의미 또한 깊다. 생산을 주관하는 여자가 이기는 것은 많은 생산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여자가 즐거워야 집안이 화목하다는 말도 된다. 강다리는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들고 동네가 편안하다는 것은 생산의 모체인 여자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자는 자식을 잉태하는 신성한 존재로서 농사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것과 같다. 또한 여자가 즐겁고 편안해야 집안에 화평이 온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해석은 힘이 센 남자는 침략적인 일본을 상징하고 약자인 여자는 조선을 상징하여 여자가 힘이 강해야 국난(國難)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강다리는 승패에 목적을 두고 테두리 안에 맞춰 하는 행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 분위기로 웃음과 진지함이 묻어 있다.









〈강다리〉
1 지신밟기
2 목신제
3 강다리
4 강다리(암줄)
충남 연기군 서면 용암리 홍덕선

참고문헌 | 강다리(조치원문화원, 2000), 충남 연기군 강다리 놀이를 통해 본 전통문화(김일곤, 사회과학연구5,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필자 | 김일곤(金日坤)

거전(炬戰)

⇨ 횃불싸움

고고매(姑姑妹, 苦苦妹)

정의 정월 대보름에 행하던 아이들의 놀이로 한 가닥으로 된 명주실에 거위의 앞가슴 솜털을 붙들어 매어 달리면서 바람에 날리는 놀이이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고고매(姑姑妹)라 기록되어 있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도 고고매(苦苦妹)라 적혀 있다. 고고매는 몽골어로 '봉황(鳳凰)'이라는 뜻으로, 이는 몽골어를 음차한 듯하다. 아마도 명주실에 묶인 솜털이 바람에 날리는 모양이 마치 봉황이 나는 모양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서울民俗大觀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필자 | 장장식(張長植)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

정의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탈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이다. 고성오광대는 탈을 쓰고 태평소 · 북 · 장구 · 꽹과리 · 징 등의 음악반주에 맞춰 춤을 추며 대사를 주고받는 연희(演戲)이다.

유래 유래와 관련된 몇 가지 구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900년경 통영오광대 공연을 보고 고성 사람들이 재미있으니 우리도 한 번 해보자고 하여 시작하였거나 통영오광대를 아는 사람이 고성에 와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촌파 인사들이 창원오광대에서 배웠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든 고성 주변에서 연희되었던 오광대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 고성오광대놀이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주로 연희되었다. 정월 초순에 일심계원(一心契員)들이 농악대를 편성하여 고성읍내의 각 가정과 상점을 돌며 걸립을 하여 오광대놀이 비용을 마련했다. 공연하기 7~8일 전에는 도독골 산기슭에 있는 잔디밭에서 오광대 탈놀이 연습을 했다. 마을 전체의 행사이면서 구나의식(驅儺儀式)과 축원의 의미를 지닌 일종의 종교적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놀이 당일 저녁 오광대패가 풍물을 울리며 읍내를 한 바퀴 돌고 탈놀음 장소인 고성장터 넓은 마당으로 가서 밤새워 놀았다. 이 밖에 객사 마당이나 무량리 잔디밭에서 놀이를 한 적도 있다.

내용 현재(2000)의 연희는 제1과장 문둥북춤, 제2과장 양반과장, 제3과장 비비과장, 제4과장 승무, 제5과장 저밀주(제밀주) 순으로 공연한다. 고성오광대의 연출 형태는 다른 민속가면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면을 쓴 연희자가 춤을 추고 동작을 하면서 대화와 노래를 곁들여 진행하는 탈춤놀이다. 춤은 굿거리 장단에 따라 덧뵈기를 춘다. 남사당의 탈놀음을 덧뵈기라 부르는 것처럼 탈놀음 자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덧뵈기춤은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토속무(土俗舞)로 일자(一字)사위와 활개춤이 주류를 이루며 한 번씩 배기는 허튼춤이다. 등장인물 일동이 추는 춤은 과장과 과장을 나누어 주는 구실을 하면서 주제가 다른 과장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구실도 한다. 동작은 등장 인물의 성격에 맞게 연기하는데, 대체로 몸짓의 폭이 큰 과장된 표현을 한다. 대화는 흔히 재담(才談)이라 하며 재치와 풍자적으로 가사를 고쳐 부르기 위주로 한다. 대사는 비교적 고정적인 구비관용구(口碑慣用句)와 그때그때 변하는 즉흥적인 말로 구성되어 있다. 연희공간이 원형이라 등장인물이 대화를 할 때에는 빙 돌면서 같은 말을 몇 번 되풀이하는 경우가 잦아 반복적인 대화 표현이 많다. 노래는 사건의 줄거리와 관계가 있는 것도 부르고 극적 분위기를 돋우는 것도 있다.

고성오광대도 다른 오광대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거리로 된 연희가 아니라 주제가 다른 몇 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과장의 주제는 다른 오광대와 같으나 앞뒤에 오방신장무(五方神將舞)나 사자무(獅子舞) 같은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의식무가 없고, 주로 오락성이 강한 과장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고사는 정기 공연 때만 올리는데 탈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지신(地神)과 천신(天神), 고성오광대

를 놀았던 선사들께 탈놀이의 시작을 고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유교적 제례절차와 굿의 부정거리 요소가 결합된 형식으로 진행된다. 탈고사는 제상을 마련하고 주변에 깃발과 신간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세우며 제상 좌우에 공연 때 쓸 탈을 놓는다. 그리고 고인이 된 고성오광대의 예인들 사진을 놓는다.

① 문둥북춤: 문둥북춤의 여러 동작은 슬픔과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삶의 중요한 부분들도 보여 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농사짓는 모습, 수확하는 모습, 수확된 곡식(보리)을 갈아서 바람에 날려 깍지를 버리고 먹는 모습, 손에 붙은 파리를 잡기 위해 어르는 모습, 잡은 파리를 입에 넣는 모습, 코를 푸는 모습 등도 보여 준다. 문둥북춤의 특징은 한을 표현하는 전반부와 한의 승화를 표현하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천형의 한을 드러내는 슬픔의 춤이 전반부를 이룬다면 북과 북채를 쥔 채 한을 승화하는 기쁨의 춤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다.

② 양반춤: 마부인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대사를 주고받으며 양반과 어울려 춤을 추는 과장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원양반 1명, 젖양반(곁양반) 2명, 양반 3명이 등장했으나 요즘은 중앙황제양반 · 동방청제양반 · 서방백제양반 · 남방적제양반 · 북방흑제양반 5명과 홍백양반 · 종가도령이 등장한다. 양반 중에는 중앙황제양반이 춤과 동작선을 주도한다. 특징적인 춤으로는 배김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반들과 말뚝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배김새는 힘차면서도 조화롭다. '고개사위' 하면서 가운데를 향해 '안쪽보기' 사위를 취하기도 하고 바깥을 향해 '앉아배기기'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 과장에서 정적이면서 동시에 동적인 한국춤의 정수를 보여준다. 또 양반 5명과 홍백가 · 종가도령 등 7명의 양반계 등장 인물과 말뚝이가 함께 추는 군무, 그 중에서도 까치걸음과 칼뽑기 춤사위는 우주의 기운을 모아들이는 신비로움을 보이면서 군무의 조화로움까지 보여준다. 양반춤은 고성오광대가 민속연희에서 보여주기 위한 공연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말뚝이춤은 양반춤보다 보폭이 크고 고개사위도 크다. 그래서 삶의 힘이 넘치는 존재로 그려진다.

③ 비비양반춤: 양반 아흔아홉 명을 잡아먹은 상상의 동물 비비가 양반 한 명을 더 잡아먹어야 승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비양반을 격렬하게 몰아붙이는 과장이다. 비비양반의 부채와 지팡이가 긴장감을 돋우는 소품으로 작용한다. 비비는 다른 오광대와는 달리 "비비" 하는 호드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악사석에서 태평소로 "비비" 하고 소리를 낸다.

④ 승무: 승무과장은 승려의 파계적 행동을 보여주는 과장이다. 선녀(소무에 해당)가 먼저 등장하여 춤을 추고 있으면 승려가 등장하고 이어 선녀를 유혹하여 함께 퇴장한다. 유혹하려는 존재가 먼저 등장하여 유혹의 함정, 즉 분위기를 형성한 다음 유혹


1


2


3


4

〈고성오광대〉
1 양반춤
2 비비양반춤
3 승무
4 제밀주춤
경남 고성군 문화재청

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등장하여 분위기에 휘말리는 개연적 공연이 되게 하였다. 대사는 없고 승려의 춤 위주로 된 과장이다.

⑤ 제밀주춤: 저밀주(첩), 큰어미(할미), 시골영감 사이의 갈등이 그려지는 과장이다. 큰어미는 물레를 잣는 등 노동으로 평생을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시골영감이 가출하였다가 귀가하면서 저밀주를 데려온다. 저밀주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큰어미 손에서 떨어져 죽는다. 이를 본 저밀주가 큰어미를 떠밀어 죽게 한다. 이어 큰어미의 상여가 나간다. 큰어미 탈의 좌측 색깔은 녹색이고 우측은 고동색이다. 녹색 부분의 입은 위로 올라갔고 고동색 부분의 입은 아래로 쳐졌다. 녹색은 젊음·생산을, 고동색은 죽음을 의미한다. 고성오광대 공연에 철학적 깊이를 더한 과장이라 할 수 있다. 공연이 보는 즐거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하는 존재론적 공연이 되어, 노동과 삶의 고통을 탈과 연기 전면에 표현하고 있다.

의의 고성오광대는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부단히 변화를 거쳐 왔다. 영남 지역 탈놀이의 역사가 대개 100여 년을 아우르는데, 그 근간을 유지한 채 현재의 모습으로 형식화된 것은 대략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성오광대는 그 형식과 과정에 천재적 예인 몇몇이 기여한 바 크며, 그들의 부단한 노력은 존경할 만하다. 노력의 결과로 춤도 다양하며 멋들어진다. 완성도 높은 공연물은 그 안에 개연적 연결고리를 포함시킨다. 고성오광대는 과장간의 개연적 연결고리가 없는 대신 오광대 전체를 아우르는 춤, 반주, 대사, 노래의 개연적 연결이 조화롭고 삶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다. 민속연희적 요소보다 공연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지만 춤의 고을, 고성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연결고리라는 역할은 변함없다.

참고문헌 | 오광대(이두현 외,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5, 文化財管理局, 1964), 고성오광대영상기록물(문화재관리국, 1969), 고성오광대덕수궁공연영상기록물(문화재관리국·KBS, 1979), 韓國의 假面劇(李杜鉉 著, 一志社, 1979), 韓國假面의 硏究(崔常壽, 成文閣, 1984), 高城郡誌(高城文化院, 1985),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정상박, 집문당, 1986), 野遊·五廣大탈놀이(徐淵昊, 열화당, 1989), 고성오광대영상기록물(MBC, 1993), 고성오광대(심상교, 화산문화, 2000).

필자 | 심상교(沈相敎)

고싸움놀이

정의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에서 행해지는 대보름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싸움놀이는 '고'라는 낱말과 '싸움'이라는 낱말을 합성해서 이루어진 말로 '고'가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한다는 뜻이다. 고싸움놀이는 경쟁의 속성이 첨가된 격정성을 지닌 민속놀이이다.

내용 고싸움놀이는 칠석동에서 음력 정월 열흘 경부터 2월 초하루까지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해지던 민속놀이로서 해방 후에 중단 상태에 있었다. 1969년 7월 전남대학교 지춘상 교수가 복원하여 같은 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된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였고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고싸움놀이는 칠석동에서 정월 열나흗날 자시(子時)에 당산제를 지내고 난 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칠석 마을과 하칠석 마을 사람들 간에 고싸움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젊은이들이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논농사의 형편과 성의에 따라 볏짚을 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 편의 고싸움놀이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짚은 대개 400~500다발 정도이다. 짚을 제외한 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직경 3센티미터 가량의 통대나무 30~50개 정도, 지렛대로 사용될 직경 20센티미터, 길이 5~9미터 가량의 통나무이다. 그리고 멜대라고 하는 가랫장을 사용하기 위해 직경 15센티미터, 길이 4~6미터에 이르는 통나무 5~6개와 받침대라고 하는 굉갯대를 위해 직경 15센티미터, 길이 2~3미터에 이르는 'Y' 자형의 나무가 필요하다.

고의 제작은 정월 13일과 14일에 동네 앞 큰길에서 이루어지는데 줄드리기, 줄도시기, 곳대가리 만들기, 고몸뚱이 만들기, 꼬리 만들기, 고머리 세우기, 가랫장 달기, 손잡이줄 달기, 고다듬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볏짚을 다듬어 세 사람이 달려들어 세 가닥으로 나누어 쥐고 오른쪽으로 비비꼬면서 3합의 줄을 꼬아간다. 줄드리기가 끝나면 다시 드린 줄을 또다시 3합으로 꼬아 가는 것을 줄도시기라고 한다. 곳대가리 만들기는 직경 3~4센티미터 정도의 통대를 20개 정도 땅바닥에 놓고 메로 두들겨 쪼갠다. 쪼개

진 대를 몇 군데 묶은 뒤 3합의 줄로 감아 나간다. 타원형으로 줄을 감은 대나무를 휘어서 곳대가리를 만든다. 고머리가 만들어지면 지렛대(약 10미터의 통나무)를 고의 밑에 넣고 줄로 감는다. 이를 '고몸뚱이 만들기' 라고 한다. 고의 몸뚱이가 다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나온 줄을 이용하여 두 가닥의 꼬리줄을 만들고, 고머리를 45도 각도로 추켜 세운다. 그리고 '굉갯대' 라는 'Y' 자형의 나무를 몸체에 들어 있는 지렛대와 연결시켜 묶는다. 마지막으로 고를 어깨에 메고 고를 부딪칠 때 치켜 밀기 위한 '가랫장' 을 단다.

고싸움놀이는 음력 정월 열흘 무렵 아이들의 고샅고싸움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은 5~6미터 정도의 '고샅고(골목고)' 를 만들어 상대방 마을 앞을 돌아다니면서 승전가를 부르며 응전해 오도록 유인한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15~16세 정도의 청소년들도 합세하여 이튿날에는 소규모의 고싸움을 벌인다. 이처럼 칠석동 마을 상 · 하촌 아이들이 조그마한 고를 만들어 서로 어르고 놀리면서 시작한 싸움이 커져 15일에는 온 동네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놀이로 절정을 이룬다. 16일부터는 패자편이 재도전하기도 해서 20일까지 계속되다가 그래도 승패가 나지 않을 때는 2월 초하루에 고를 풀어 줄을 만들고 줄다리기로 최후 승패를 가린다.

놀이의 편은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진다. 동부는 남자를 상징하는 상촌(상칠석)마을로 놀이패가 구성되며, 서부는 여자를 상징하는 하촌(하칠석)마을로 놀이패가 구성된다.

놀이공동체의 구성원은 줄패장, 고의 멜꾼, 꼬리줄잡이, 농악대, 깃발의 기수, 횃불잡이로 구성된다. 줄패장은 줄을 가지고 싸우는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줄패장의 지휘에 의해 싸움은 전개된다. 그런 까닭에 줄패장은 마을에서 덕망과 영향력이 있으며, 고싸움놀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센 사람으로 선정된다. 고의 멜꾼은 대개 70~80명의 인원으로 힘이 세고 누구보다도 투지와 승벽이 강한 장년층이 맡는다. 꼬리줄잡이는 대개의 경우 여자들이 담당하고, 그 인원은 70~80명 정도이다. 농악대는 고싸움놀이의 행진에서부터 놀이가 끝날 때까지 전의를 북돋고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농악대는 각 팀마다 징 2, 꽹과리 4, 장고 4, 북 5, 소고 10, 양반, 할미, 조리중, 포수 등 29명 정도로 구성된다. 깃발과 기수는 각 팀마다 농기 1개, 사각 영기 4개로 구성된다. 횃불잡이는 각 팀마다 10여 명 정도이다. 따라서 고싸움 놀이공동체는 370~4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고의 제작이 완료되면 고를 메고 각각 자기 마을 앞을 행진하는데, 서부팀은 하칠석 앞을, 동부팀은 상칠석 앞을 행진한다. 이 때 각 팀의 풍물패들이 동행하면서 놀이의 축제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의를 북돋운다. 때로는 상대편의 고를 만나면 서로 힘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시위하기도 한다. 각자의 동네 앞을 행진한 다음 동네 앞 논으로 향한다. 지금은 전수관 마당에서 놀이가 행해진다.

놀이판에 도착하면 상호간의 전의를 북돋울 수 있는 노래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전열을 가다듬는다. 서로가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면 줄패장의 지휘에 따라 두 고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움을 준비한다.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후퇴하는 것을 몇 번 거듭하다가 줄패장이 "밀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놀이꾼들은 함성을 지르며 상대방 고의 정면에 부딪친다. 이어 상대방 줄패장을 밑으로 밀어내려는 줄패장들 간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진다. 전세가 불리하여 줄패장이 "빼라." 는 명령을

1 고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심환근

2 줄패장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김대벽

3 고싸움놀이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심환근





하면 놀이꾼들은 고를 받아 어깨에 메고 뒤로 물러서면서 농악대의 신명나는 가락에 맞추어 전열을 정비한다. 이처럼 전진과 후퇴를 통한 정면 공격과 회전을 통한 측면 공격을 반복하면서 1시간 가량 싸움이 벌어진다. 싸움이 끝난 후에도 패한 팀은 계속 다시 도전하려 하나 승리한 팀은 고머리를 돌려 응전하지 않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자기 마을로 향한다.

지역사례 전남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 모정 줄다리기는 고싸움놀이와 매우 유사하다. 줄다리기는 10일에서 20일까지 이루어지고, 줄의 제작은 5일 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먼저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은 줄다리기를 위해 조그맣게 줄을 만든다. 아이들이 먼저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날이 갈수록 마을 청년으로, 마을 어른들로 참여 계층이 확대된다. 더불어 줄의 규모도 커진다. 줄다리기를 하면서 매일 줄을 만들어 전날 만들어진 줄에 합치기 때문이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어느 정도 큰 줄이 된다. 15일 오전에 큰 줄이 제작되면 줄의 고 밑 부분에 '연목대'라 하여 긴 통나무 2개를 붙인다. 연목대 1개에 6명씩, 모두 12명의 장정들이 어깨에 메기 위한 받침대 2개를 부착한다. 연목대는 12명의 장정들이 '줄탄 사람'을 고위에 태우기 위한 일종의 받침대이다. 줄탄 사람을 설소리꾼이라고도 하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줄다리기 놀이꾼들을 진두지휘한다.

놀이꾼들이 줄을 메고 마을 안을 돌아다니다가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 동네 앞 논이나 '우측 사장터(윗마을의 사작나무가 있는 곳)'에 모인다. 마을의 축제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면 암줄과 숫줄을 결합하는데, '골목대(비녀목)'를 끼우자마자 "이영차" 하면서 줄을 잡아당긴다. 줄다리기는 서부팀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는 속신이 있다.

모정 줄다리기의 줄놀이 과정 속에서 연목대로 줄을 받치고 설소리꾼을 태우는 모습은 고싸움놀이의 고를 굉갯대로 받쳐 줄패장을 태우는 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모정 줄다리기는 일반적으로 도작문화권에서 행해지는 줄다리기와 광주 남구 칠석동에서 전승되는 고싸움놀이의 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민속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의 고싸움놀이는 여성을 상징하는 서부팀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는 속신이 있어서 점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용 혹은 도마뱀이라고 하는 '고'를 가지고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함이니, 고싸움놀이는 또한 주술종교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마을이 와우(臥牛) 모습으로 자리잡아 그 터가 거세기 때문에 개가 자라지 않아 집집마다 개 대신 거위를 기르고 있다고 한다. 이 거센 터를 누르기 위해 고싸움놀이를 하는 것으로 보아 고싸움놀이가 비보풍수적(裨補風水的)인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싸움놀이(지춘상,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66, 文化財管理局, 1969), 민속놀이와 민중의식(集文堂, 1996), 남도민속문화론(표인주, 민속원, 2002), 구림연구(표인주 외, 景仁文化史, 2003),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예술(표인주, 민속원, 2004).

필자 | 표인주(表仁柱)

관원놀이(官員—)

⇨ 토성관원놀이(土城官員—)

기세배(旗歲拜)

정의 정월 대보름 경에 농신기(農神旗)를 갖고 기세배를 하던 풍농기원 민속놀이. 농기세배 · 농기뺏기 · 기싸움 · 기절 · 기접놀이 등이라고도 하는데, 기(旗)로써 예절을 갖추기도 하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종종 있다.

내용 기세배는 이웃 마을의 두레꾼들이 한곳에 모이거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일년 농사를 앞두고 풍농을 기원하고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풍속이다. 주로 서열이 낮은 마을이 서열이 높은 마을로 찾아가서 기로써 세배를 올리고 화합의 굿판을 벌였다. 특히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옥구읍 등 평야가 넓은 지역에서 크게 성행하였다. 기세배는 서열에 따라 예를 갖추는데 형두레, 아우두레, 선생두레, 제자두레 식으로 인사를 올린다. 서열은 마을 형성 과정과 입향 주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기세배가 기싸움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싸움은 형두레와 아우두레 사이에 예절이 지켜지지 않아 시빗거리가 발생하여 싸움으로까지 번진다. 기싸움은 곧 두레싸움으로 확대되어 두레꾼들의 육박전으로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마을의 기가 충천하고 몸집이 크고 원기가 넘치는 장정들이 심술을 부려 기싸움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익산 함라지역에서는 기세배를 하면서 기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았다. 기세배가 상대 마을의 두레 권위를 인정하여 예의를 갖추는 행위라면 기싸움은 상대 마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두레싸움이다. 그러나 기싸움으로 인하여 이웃마을 간에 교류가 단절되는 일은 없다. 기세배와 기싸움은 농촌에서 마을 간에 공동체 생활의 연대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마을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한다.

기세배는 아랫마을 두레가 기를 15도 각도로 숙이면 이 때 형두레는 기를 좌우로 흔들며 답례를 한다. 농악대는 자진마치를 울려준다. 기세배는 마을끼리 새해를 맞이하여 예절을 갖추어 절을 하는 방식으로 각 마을 두레의 권위를 인정하는 인사법이었다. 기세배는 대체로 마을 간에 명확한 서열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립적인 관계를 가진 마을은 기싸움을 벌이기 일쑤이다. 기세배를 마치고 나면 마을끼리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는 '합굿'이 연출된다. 합굿은 여러 동네가 기세배의 뒤풀이로서 다양한 기놀이를 즐기면서 치는 풍장굿을 말한다.

농신기는 농업신을 기폭에 그려 넣은 신성한 깃발이다. 농신기의 기폭에는 청룡과 거북이, 물고기 등이 그려져 있다. 청룡과 거북과 잉어는 물에서 사는 수신(水神)으로 믿어 왔다. 마을에 따라서는 신농씨가 용에 올라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농신기는 용이 그림의 주축을 이루면서 용당기(龍幢旗)·용기(龍旗)·용신기(龍神旗)라고 부르기도 한다. 농신기는 마을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장식한다. 농신기는 비싼 광목을 사용하였으며, 장목은 7미터 이상 되는 대나무를 이용하여 5미터로 만든다. 농신기의 장대 끝에는 '꿩장목'을 달았다. 꿩장목은 장목·꿩장목·꿩목으로 불린다. 꿩장목 아래는 '총을치'로 장식하였다. 총을치란 칡을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을 가는 실처럼 갈가리 찢은 다음 붉은 물을 들여서 장목 바로 밑에 매단 것을 말한다. 총을치 아래에는 장목수건·깃수건이라고 하는 흰수건을 매달았다. 기폭 둘레에는 '지네발'을 장식하여 바람에 너풀거리도록 하였다.



기세배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소라실마을
황현만

농신기는 농업신의 신체이며 마을의 권위와 비례하였다. 농악대가 행진할 때 가장 앞세우며, 농사일을 할 때에는 마을 입구에 세워 놓아 마을기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농신기가 이동할 때에는 기의 양쪽에서 2명의 보조원이 깃대에 연결된 끈을 잡아 깃대잡이를 도왔다. 깃대잡이가 깃대의 중심을 잡도록 보조원이 끈으로 조정하였다.

농신기는 정월 대보름 당산굿과 7월 백중절에 풍농기원의 농경의례를 거행할 때에 반드시 등장하지만, 여름철 농사일을 할 때에도 이동용으로 들고 다니기도 한다. 이동할 때에도 상대마을의 농신기를 만나면 마을의 서열에 따라 반드시 예를 갖추어 절을 해야 했다. 아우두레가 예를 갖추지 않고 지나치면 곧장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기가 절을 하면 농민들도 함께 예의를 표했으며, 농민들이 농기 앞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예를 갖추는 자세를 취하였다. 농민들은 농신기를 소중하게 관리하였으며, 깃대에서 기를 떼어 별도로 보관하고 장대는 큰 집 사랑의 처마 밑에 걸어 두었다.

지역사례 익산의 금마 기세배는 처음부터 열두 개 마을에서 시작하였다. 정월 14일 밤에는 각 마을 당산에서 농기를 세워 놓고 풍년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열두 개 마을은 형제의 서열에 따라 금마 상

대 마을이 맏형이 된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 각 마을의 소동들은 영기를 들고 열하나의 아우 마을을 차례대로 돌아다니며 상대마을로 인도한다. 상대마을 광장에 모인 열두 개 마을의 농신기와 두레집단은 맏형 마을의 농신기에 절을 하여 세배를 교환하고 풍장을 치고 기놀이를 즐겼다. 열두 개 마을은 익산군 금마면 상대마을, 옥동, 건지리, 루동, 교동, 행정, 원촌, 황동, 도천마을 등이다. 마을이 권세에 따라 형의 우위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형두레는 상대마을이 항상 도맡았다. 농기세배의 구성은 좌상, 공원, 총각좌수, 총각머슴, 기받이, 보조기받이, 신령, 꽃나비, 꽃받이 등 16명과 농악대 8명, 그리고 각 마을에서 들고 나오는 농신기가 있었다.

기제사를 올릴 때 농악을 울리는데 제주가 좌상이 된다. 보름날 아침에 상대마을의 소동기와 농악대, 좌상, 총각머슴이 막내동생 마을부터 찾아간다. 막내 동네에서는 이들을 맞이하여 굿을 치고서 다음 차례의 동생 마을로 찾아간다. 열하나의 아우 마을들을 이끌고 상대마을로 모여들면 웅장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열한 개 마을의 농신기를 든 두레집단과 농악대가 상대마을에 도착하면 당산 앞에 서서 일제히 당산굿을 친다. 당산굿이 끝나면 열한 개 마을의 농악대와 두레집단은 상대마을 앞 광장으로 나아가 풍장굿을 치고서 마을 단위로 개인의 기놀이를 즐기고 흥을 돋운다.

기세배는 상대마을 농신기 앞에 그 다음 형인 옥동마을 농기가 세배를 받을 위치에 나가 선다. 이 때에 두 기의 간격은 서로 기를 구부렸을 때 기장목이 스칠 정도이다. 상대마을의 총각머슴이 "기세배 시작이요."를 외치면 다른 마을의 모든 농악대가 굿물로 흥을 돋운다. 옥동마을의 농신기가 상대 마을 농신기에게 "옥동마을 봉심이요." 하고 외치면서 옥동마을 농기가 서서히 굽혀 절을 올린다. 이 때 주변 사람들이 깃대를 더 굽히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옥동기는 어느 정도 굽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더 굽히라고 외치는 소리에 모른 체하고 더 굽혀준다. 이 때 상대마을 농신기는 기를 좌우로 흔들어 답례를 한다. 또 "재배요." 하고 외치면 상대마을 농신기와 옥동마을의 농신기가 맞절을 한다. 농신기가 서로 맞절을 하면서 기를 조금 더 수그리라는 요청을 받아 익살스러운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상대마을과 아우마을의 세배가 끝나고 나면 옥동마을의 기는 상대마을의 기 옆에 선다. 그 다음에는 셋째인 구정마을의 농신기가 상대마을과 옥동마을의 농신기 앞에 나아가 세배를 올린다. 이러한 순서로 마을마다 차례로 형두레 마을 앞에 나아가 농신기로 세 번의 세배를 올린다. 기세배가 모두 끝나면 각 마을의 농신기들이 앞에 나와서 기받이와 기쓸기 등 농신기의 기교를 부린다. 이 기놀이에는 ① 상대기 쓸기, ② 손놀이 · 어깨놀이 · 이마받기, ③ 딸기치기, ④ 파장돌리기 등이 있다. 이 기놀이는 힘 센 장정이 맡아서 한다. 기놀이 과정이 끝나면 각 마을사람들은 상대마을의 농악대를 따라 마지막으로 둥글게 모여서 군무를 이루며 풍장굿을 치는 것으로 정월 대보름의 기세배를 마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필자 | 송화섭(宋華燮)

기싸움(旗—)

☞ 기세배(旗歲拜)

기와밟기

정의 경북 의성 · 군위와 전북 정읍 · 임실 · 고창 등지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민속놀이. 이 놀이를 지역에 따라서 지애밟기 · 지와밟기라고도 하는데 지애와 지와는 기와[瓦]의 방언이다. 그 밖에 지네밟기 · 재밟기 등으로 변형되어 불리기도 한다. 경북 안동의 놋다리밟기, 영양의 동다리밟기 등과 같은 유형의 여성집단놀이인데, 전남 지역에서 즐기는 대보름 여성집단놀이인 강강술래, 경북 영덕의 월월이청청과도 맥을 함께 하는 놀이라 할 수 있다.

내용 기와밟기라는 이름은 그 놀이방식에서 붙여졌다고 볼 수 있다. 경북 의성의 기와밟기는 우선 많은 여성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앞 사람의 허리를 감은 자세로 열을 지어나간다. 그러면 선발된 꽃게(꼬께)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간다. 꽃게는 꼬께라고도 하는

데 어린이를 어깨에 태우는 일을 말하며 기와밟기는 일명 꽃게싸움 · 꼬께놀이라고도 한다. 여러 여성들이 굽은 모양을 기와라 하고 꽃게가 밟고 가는 놀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기와밟기이다.

기와는 지붕을 잇는 것으로 사람의 굽은 허리처럼 굽어 있다. 기와지붕에 올라갈 때는 기와가 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기와밟기는 바로 그러한 것을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꽃게를 등 뒤로 지나 보낸 사람은 다시 열 맨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구부려 계속 행렬을 이어간다. 앞줄의 여자들이 선소리를 메기면 뒤에 따른 이들이 받는 소리를 하는 등 흥겨운 분위기가 정월 대보름 저녁을 장식한다.

'밟기'가 끝나고 싸움이 시작되면 대열의 선두를 힘이 센 건장한 여인들로 대치하고 그 중에서 네 사람이 팔을 잡아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억센 여인을 태우는데, 이 여인을 역시 꽃게라고 한다. 놀이를 할 때에는 체중이 가볍고 연약한 여자를 꽃게로 등장시켜 위장을 했지만 진짜 싸울 때에는 건장한 여인을 내세운다. 서로 기회를 보다가 기둥이 앞으로 달려가서 꽃게가 서로 싸움이 붙으면 대열의 앞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밀고 밀치고 싸움이 벌어진다. 꽃게가 땅에 떨어지거나 기둥이 쓰러지면 승부가 난다. 안동의 놋다리밟기와 의성의 기와밟기는 놀이와 노래가 비슷하다. 그러나 놋다리밟기는 놀이로만 계속 하고 싸움으로 승부를 내는 일은 없으나 기와밟기는 남성들 놀이처럼 격렬한 싸움으로 승부를 내는데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學論攷(임동권, 집문당, 1978),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한국의 민속예술(문화부, 1992),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著, 朝鮮總督府, 1941).

필자 | 김명자(金明子)

나무쇠싸움

☞ 영산쇠머리대기(靈山—)

남해선구줄끗기(南海仙區—)

정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마을에서 정월 대보름날 행하는 줄다리기의 한 종류. 경상남도 시도무형문화재 제26호이다. 줄끗기는 줄다리기에 대한 이 지방 방언에서 연유한 놀이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마을단위 줄다리기 놀이의 한 변형이다.

유래 선구마을은 신라 신문왕 10년에 전야산군이 설치되면서 속현인 평산현에 속하였다. 앞으로는 수심이 깊은 포구이며 뒤로는 설흘산 봉수대가 있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다. 선구마을은 반농반촌으로 풍농과 풍어를 빌며 해난 사고를 방지하고 마을의 번영을 위하여 아랫당산과 윗당산에 당산제를 지냈다. 선구줄끗기는 이 당산제와 결합되어 전승되는 놀이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당산제와의 깊은 연관성을 볼 때, 마을의 오랜 역사와 같은 맥락에서 그 유래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비운을 맞아 전승이 끊겼으나 해방 후에 재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놀이개관 남해선구줄끗기는 선구마을의 윗당산에 제를 올리는 윗마을을 북편으로, 아랫당산에 제를 지내는 아랫마을을 남편으로 나누어 대결하는 일종의 쌍줄다리기 놀이이다. 선구줄끗기는 강원 · 경기 · 경북 지역의 차전놀이와 경남 창녕의 영산 줄다리기 및 광산의 고싸움놀이, 경남 밀양의 게줄다리기 등이 혼합되어 있다. 특히 고싸움놀이에서는 연극적인 군사적 진(陣)의 형태가 나타나, 예로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지역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구성 남해선구줄끗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 줄 만들기: 마을의 모든 집에서 갹출한 짚으로 남편은 바닷가에서 북편은 윗당산에서 새끼를 꼬아 만드는데, 완성된 줄은 직경 1미터, 길이는 40미터 정도 길게 뽑아내고 좌 · 우에 문어발 모양으로 4개씩 줄을 이어낸다.

② 편장 선정: 편장은 장가를 가지 않은 깨끗한 총각 가운데서 뽑는다. 구성 인원은 편장 1인을 포함하여 기수 30여 명, 풍물패 20여 명 등 한 편이 약 500명 이상이 된다.

③ 당산제: 음력 정월 대보름날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면 남편과 북편이 각각 나누어져 고를 메고 북편은 윗당산에서, 남편은 아래당산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④ 어불림(어울림): 당산제가 끝나면 풍물을 앞세우고 북편은 모래치(현재 사촌), 깨골(현재 임포), 우남동(현재 운암)으로 남편은 버든(현재 항촌), 가내(현재 가천)로 순회하면서 인근 마을의 응원군을 초청한다. 이들과 합세하여 선구마을로 돌아와 온 마을을 용틀임하듯 돌면서 기세를 올리고 상대편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약을 올리기도 하고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며 임전태세를 갖춘다.

⑤ 필승 고축: 양편이 마주보고 있을 때, 판정관이 징을 높이 들어 세번 울리면 양편은 각각 장내를 한 바퀴 돈 다음 각 편장은 필승과 풍농·풍어를 비는 축문을 발성하고 기원한다.

⑥ 고싸움: 고축이 끝나면 양편은 전진하여 고를 맞댄다. 서너 번 서로 고를 맞대면서 자기 편의 힘을 측정하여 약하다고 느껴질 경우 구경꾼과 응원군을 초청하기도 한다. 서로 고를 밀기 시작하여 승부가 결정되면 판정관이 징을 세 번 울려 이기는 편을 숫고로, 지는 편을 암고로 판정한다. 숫고가 되면 줄끗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편은 고싸움놀이에서 최선을 다한다.

⑦ 줄끗기: 고싸움에서 암·숫고가 결정되면, 서로 고를 맞대고 비녀목으로 연결한다. 판정관의 징신호가 세번 울리면 본격적인 줄끗기가 시작된다. 이때 남녀노소 모두 최선을 다하며 여자들은 줄을 무겁게 하기 위하여 치마폭에 몽돌을 싸고 줄에 매달리기도 한다. 줄끗기 승부는 3판 양승을 원칙으로 하며 암고가 이기면 마을 전체에 풍년과 풍어가 들고 가사 태평하다는 속설이 전한다.

⑧ 달집태우기 및 대동제: 승부와 관계없이 보름달이 뜨면 남편과 북편이 어우러져 달집을 태우고 마을과 개인의 안녕을 비는 한마당 축제를 벌인다. 달집이 다 타고 나면 각 마을로 고를 메고 돌아오고 주민들은 고를 만든 짚을 잘라 가져간다. 이를 논밭에 뿌리면 풍년이 들고 배 위에 두면 만선이 되고, 태워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의의 남해선구줄끗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을이 북편과 남편으로 나뉘어 서로 최선을 다해 승부를 겨룬다. 그러나 승부에 관계없이 북편과 남편은 물론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참여하여 망월대동굿을 벌여 화합과 친목을 다진다. 여기서 집단의 결속력 강화라는 공동체 놀이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남해선구줄끗기는 당산제와 결합되어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놀이로,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제의성(祭儀性)을 지닌 놀이이다.

참고문헌 | 경남지역의 줄다리기 놀이에 관하여(박성석, 慶南文化硏究18,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硏究所, 1996), 경상남도의 민속예술(경상남도, 1998).

필자 | 박성석(朴性錫)









〈남해선구줄끗기〉
1 당산제 후 이동
2 고 위의 편장
3 고싸움
4 줄끗기
경남 남해군 남면 선구마을
국립민속박물관

놋다리밟기

☞ 안동놋다리밟기(安東—)

달봉뛰기

정의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에서 '달봉'을 가지고 행하던 대동놀이.

내용 이 놀이는 1950년까지 전승되다가 그 뒤 중단되었다. 달봉뛰기는 두 편이 마을 뒤의 '달봉재'라는 곳에서부터 달봉이라는 나무막대를 던지며 내려와 당나무에 먼저 달봉을 대는 쪽이 이기는 놀이이다. 우리나라의 놀이문화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놀이는 동제·간물단지신앙 등과 함께 남정마을의 새해맞이 축제를 구성하고 있다.

보름날 첫 시간[子時]이 되면 제관 부부가 골맥이당에 올라가서 정숙하게 동제를 올린다. 제의 절차는 진설, 강신, 헌작, 동민소지 올리기의 순이다. 한편 양편의 풍물패들은 동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제관이 횃불로 제사가 끝났음을 알려주면 간물단지가 묻힌 곳으로 가서 먼저 지신을 밟기 위하여 경쟁한다. 세 군데의 간물단지를 먼저 밟으면 달봉뛰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달봉뛰기를 준비한다. 모여든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을 중심으로 작전을 짠다. 투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나누어서 배치한다. 특히 상리의 경우에는 달봉을 던지면서 타고 내려올 능선의 왼쪽에 급한 경사가 있으므로, 달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왼자바래기(왼손잡이)'를 많이 쓴다.

준비가 끝나면 각 편의 남성들은 달봉재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달봉뛰기를 준비한다. 달봉재의 꼭대기로부터 상리와 하리 사람들은 각기 오른쪽 능선과 왼쪽 능선을 차지하고 띄엄띄엄 늘어선다. 출발지점인 달봉재로부터 결승점인 당나무까지의 거리는 각각 500미터 내외이고, 늘어선 사람들 사이의 간격은 대개 30미터 내외이다. 이 거리는 달봉을 던져서 날아가는 거리를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서 있는 지점은 20군데 정도에 이르고 각 지점에는 예닐곱의 사람이 서 있다.

준비가 끝나면 양편은 동장이 건네준 달봉을 받아들고 남호 바다에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달봉은 길이 60센티미터, 지름 6센티미터 크기의 참나무 봉이다. 달봉에 한지를 감아 묶고 동장의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양편이 승부에 집착하여, '헛봉(가짜 달봉)'을 만들어 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윽고 남호 바다에 둥근 대보름달이 솟아오르면 동장의 신호와 함께 달봉뛰기를 시작한다. 앞사람이 힘껏 달봉을 던지면 그 아래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달봉을 주워서 바로 아래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던진다. 그러다가 달봉이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거나 경사진 곳으로 굴러 떨어지기라도 하면, 가급적 빨리 달봉을 찾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당나무에 접근하면, 달봉을 던져서 먼저 당나무를 던져서 맞히거나 뛰어가서 직접 당나무에 달봉을 댄 쪽이 승리한다. 이 최후 과정에서 심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느 해인가 당나무 가까이에 던져진 상대편의 달봉을 주워 엉뚱한 곳으로 던져 버려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은 달봉뛰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전체 과정을 지켜보며 자기편을 열렬하게 응원한다. 자기편의 달봉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면 "달봉이다!"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환호한다. 승부가 결정되면 양편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해내 온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흥겹게 논다.

참고문헌 | 달을 던지는 농민들(한양명, 比較民俗學17, 比較民俗學會, 1999).

필자 | 한양명(韓陽明)

돈치기

정의 어린아이들이 양지바른 곳에 모여서 서로 동전 한 개를 내어 던지고 맞춰서 따먹는 놀이. 대표적인 명칭은 돈치기이고, 더러 엽전(葉錢)치기라고도 한다. 다만 함경도에서는 망치기(북청)·망애치기(이원),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 보고서에는 망깨 또는 망깨치기라는 이름도 보인다. 이것은 돈치기에 쓰이는 돌을 망돌(북청), 망애돌(이원) 또는 망깨돌이라고 부르는 데서 생긴 명칭으로 보인다.

내용 돈치기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상원조(上元條)에 기록되어 있다. "땅을 파서 구멍을 만들고 어른과 아이들이 편을 갈라서 돈을 구멍 가운데에 던진다. 그리고 왕대전(王大錢)을 던져서 그



돈치기
전북 부안군 위도면
국립민속박물관

돈을 맞힌다. 맞힌 자는 그 돈을 가지며 이긴 것으로 한다. 잘못 맞히거나 못 맞힌 자는 진 것으로 여긴다. 상원날에 이 놀이가 더욱 성했다. 어린 아이들은 깨진 도기 조각을 사용해서 돈으로 삼고 이것을 던진다." 예나 지금이나 놀이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어른과 아이들이 편을 갈라서(壯幼分隊)" 놀았다고 했는데, 이 놀이의 기본 성격은 개인 놀이이기 때문에 그 표현에 약간의 어긋남이 있었던 듯하다. 돈치기의 일반적인 놀이 방법을 위 기록들에 약간만 보완하기로 한다. 이 놀이는 2~3명에서 7~8명까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더욱 재미있는 놀이가 된다. 인원수대로 구멍 앞 3~4미터 지점의 가로 그은 선 위에서 동전 한 개씩을 던지고 구멍에 들어간 사람이 첫 번째가 되고 구멍에 더 가까운 사람 차례로 다음 순번들이 정해진다. 차례가 된 사람은 동전을 다 거두어 쥐고 구멍에 던져서 들어간 것은 가지고, 다음은 동료가 지적하는 돈을 납작한 돌로 맞히는 대로 가진다. 못 맞히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되, 잘못 맞히면 벌금을 내는 수도 있다. 함경도에서는 구멍을 파는 대신 돌을 놓고 그 돌에 가장 가깝게 돈을 던진 사람 순으로 순번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큰 지역차를 보이는 사례가 된다. 이상과 같이 이 놀이는 운동 신경의 수련이 될 수도 있는 놀이이고, 아기자기한 재미에 돈을 따먹는 재미도 있어서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퍽 인기 있는 놀이였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5),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필자 | 장주근(張籌根)

돌팔매

⇨ 석전(石戰)

동래들놀음(東萊—)

⇨ 동래야류(東萊野遊)

동래야류(東萊野遊)

정의 및 어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탈놀이. 동래들놀음이라고도 하며,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야류는 한자로 야유(野遊)로 표기하지만 속음화하여 야류라고 부른다. 현지에서 예전에는 노년층과 부녀자들의 경우 들놀음이란 말을 많이 썼고, 식자층과 젊은층은 야류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수영과 부산진이 함께 들놀음의 전승권을 이룬다. 들놀음의 어원에 대해서는 들이 논바닥이나 마당과 같은 연희장소를 가리키므로 들에서 노는 탈놀음이라는 주장이 있고 한편으로 들이 농경의 장소를 가리키므로 농경의 장소에서 행하던 농경의례에서 유래한 데서 말미암는다는 주장이 있다.

유래 동래들놀음은 초계 밤마리 오광대에서 분파된 수영들놀음에서 1870년대에 전래되었다는 구전이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전파설을 비판하고 동래의 지신밟기나 줄다리기와 같은 정월 세시풍속의 맥락 속에서 탈놀이가 이미 성립된 것이며, 다만 수영들놀음의 영향을 받아 정교하게 발전시켰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동래들놀음은 원래는 관리 출신을 중심으로 한 친목 단체 기영회(耆英會)의 후원을 받아 전승되고 신흥계(信興契)와 망순계(望筍契)가 담당하였으나, 1935년경 일본의 탄압으로 줄다리기와 함께 중단되었다. 광복이 된 1946년에 남우회(南友會)가 재연하였으나, 다시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 1960년대에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65년에 다시 재연되었으며, 1967년 12월 2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와 동래야류보존회에서 전승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희자(기능보유자)중에서 신우언(차양반), 노진규(양반), 이남선(제대각시), 양극수(할미), 양세주(악사), 박점실(말뚝이), 변동식(악사)은 작고



동래야류 말뚝이탈
국립중앙박물관

하였고, 문장원(원양반), 천재동(탈 제작), 이도근(차양반)은 현재 활동하고 있다.

놀이의 구성 동래들놀음은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3일 동안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한 다음 이어서 놀았는데, 들놀음과 줄다리기의 경비는 지신밟기를 하여 조달하였다.

지신밟기는 정월 초이틀에 농기수(農旗手), 풍물잽이(날나리수 · 쇠잽이 · 징수 · 장고수 · 북수)와 잡색(버꾸잽이 · 사대부 · 팔대부 · 각시 · 촌로 · 촌녀 · 하동 · 포수)으로 구성된 풍물패가 당산(堂山)에서 고사를 지내고 주산 지신풀이와 당산 지신풀이를 한 다음 마을의 공동우물에서 우물 지신풀이를 하고 이어 마당놀이, 대청 지신풀이, 큰방 성주풀이, 각방 치장풀이, 조왕(부엌) 지신풀이, 샘(우물) 지신풀이, 장독 지신풀이, 도장(곳간) 지신풀이, 마구간 지신풀이, 뒷간(변소) 지신풀이, 삽짝(대문) 지신풀이, 주신(酒神)풀이를 하고, 그 사례로 돈이나 곡물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신밟기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과 용왕에게 마을의 풍요 다산과 무사 태평을 기원한 데 이어서 가가호호를 순방하며 지신, 곧 재난을 가져오는 악귀를 퇴치하고 성주신과 조왕신 같은 가신(家神)에게 축원하는 의례이다.

줄다리기는 호남 지방의 경우 당산나무에 줄을 감는 식으로 당산제와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지만, 동래는 당산이나 당산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암줄과 숫줄의 연결을 남녀의 성행위로 간주한다든가,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마을이 풍년이 든다고 믿는 사실로 보아 단순히 동민의 화합과 단결을 목표로 한 집단놀이만이 아니라 주술성이 잔존한 편싸움 놀이이기도 하다.

줄다리기를 마치면 들놀음을 놀았는데, 대체로 열나흗날이나 보름날 저녁에 출발 장소(세병교 · 만년대 · 염창마당 · 말바우골 등지)에 집결하여 탈놀음판인 복천동(福泉洞)의 패문루(牌門樓) 마당(현 동래시장 앞 네거리)까지 길놀이를 하였다. 가장행렬은 커다란 청사초롱 2개를 선두로 하고 그 해의 십이지신 모양의 등과 500여 개의 오색등 및 용등 · 봉황등 · 학등 · 거북등 · 무지개등 · 가마등 · 수박등을 든 무리, 육잽이(피리 2 · 대금 1 · 해금 1 · 북 1 · 장고 1), 전립(戰笠)을 쓴 동자, 갑옷을 입고 말



을 탄 중군, 길군악대(장고 2 · 대금 1), 팔선녀(선녀는 말을 타고 한량이 말을 몰았다), 원양반, 말뚝이, 차양반, 모양반, 넷째양반, 종가도령, 영감, 제대각시, 문둥이1 · 2, 비비양반, 영노 등의 탈꾼들, 가마를 탄 할미, 소달구지를 타고 기생들과 가무하는 한량패, 오동(五洞)농악, 군중의 순서로 이동하였다.

놀이판에 도착하면 한바탕 어름새, 배김새, 풀음새로 구성되는 덧뵈기춤을 추었는데 학춤 · 배춤 · 궁둥이춤 · 곱추춤 · 구불춤 · 홍두깨춤 · 기는춤 · 장기(將棋)춤 · 요동춤 등 온갖 민속춤과 병신춤을 특기로 선보여 사람들을 웃겼다. 이러한 덧뵈기춤 놀이를 벌이다가 밤이 깊어 부녀자와 아이들이 귀가하면 마침내 탈놀이를 하였다.

내용 탈놀이는 문둥이마당, 양반 · 말뚝이마당, 영노마당, 영감 · 할미마당 등 네 마당이 성립되어 있는데, 탈은 바가지탈이며, 모양반(毛兩班)은 개털가죽이나 고양이털가죽으로 만든 가죽탈이다.

첫째마당 문둥이마당은 문둥이 2명이 일종의 병신춤인 소고춤을 추는데, 수영들놀음에는 문둥이마당이 없고, 통영오광대와 고성오광대에는 문둥이가 1명 등장하여 춤을 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주오광대와 가산오광대에서는 다섯 문둥이가 노름을 하면서 어딩이에게 개평을 안 주므로 어딩이가 순사(포졸)를 데리고 와서 잡아가게 만드는 식으로 갈등 구조가 분명하게 연극화되어 있다.

둘째마당 양반 · 말뚝이마당은 양반 형제 5명이 하인 말뚝이를 불러 신분적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지만, 말뚝이가 양반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본댁에 가서 대부인과 통정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양반의 도덕적 우월성이 파괴되고 패가망신하게 되는 내용이다. 다만 수영들놀음처럼 양반의 몰락으

로 끝맺지 않고 원양반(元兩班)이 모양반에게 논을 양도하여 모양반이 흥하고 양반들이 화해하는 장면으로 종결하는 점에서 지역적 특징을 보인다.

셋째마당 영노마당은 영노가 백 번째로 양반을 잡아먹고 승천하려고 하다가 화해하고 끝맺는 상생 관계를 보이는데, 수영들놀음에서는 영노가 양반을 잡아먹는 상극 관계여서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수영 지방이 경상 좌수영이 설치되어 있던 군사도시였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넷째마당 영감·할미마당은 영감과 할미가 이별하였다가 재회하지만, 할미가 제대각시(작은각시)를 질투하고, 세 아들을 죽게 만든 사실에 화가 난 영감이 할미를 타살(他殺)한다. 이러한 내용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가부장제의 모순과 남성의 횡포를 비판한다는 해석만이 아니라 죽음과 겨울을 상징하는 할미를 속죄양으로 하여 풍요다산을 기원한다는 제의적인 해석도 있다.

의의 동래야류는 정월 초에서 대보름까지 지신밟기를 하고, 대보름을 전후해서 줄다리기를 한 뒤 놀았으므로 시기적으로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신년의례(新年儀禮)의 성격을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반과 말뚝이의 싸움도 줄다리기와 같은 싸움 형태의 굿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고, 영노가 양반을 잡아먹은 것도 희생제의나 벽사의식(辟邪儀式)과 관련시킬 수 있으며, 할미와 제대각시의 갈등도 겨울과 여름의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래야류는 이러한 제의적 성격은 약화되고 민중의 체험과 의식을 반영하는 놀이적 기능이 확대된 민속극으로 봄이 타당하다. 동래야류는 하회별신굿탈놀이처럼 마을의 수호신을 신당에서 내림받아 마을로 모시고 와서 좌정시키면, 신이 집돌이를 하며 악귀와 재난을 물리고 명복(命福)을 주는 신내림형 마을굿과는 구별된다. 동래야류는 정월 초이튿날에 제관이 당산제를 지내고, 풍물패가 보름까지 매구(지신밟기)를 친 다음 보름날 밤에 오광대패가 탈놀이를 한 가산오광대와 더 가깝다. 동래들놀음이 수영들놀음에서 파생되었다고 하지만, 수영들놀음은 탈제를 지내고, 보름날 낮에 탈놀이패가 산신제를 지내고, 놀이를 마치면 탈을 소각하는 식으로 제의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영탈은 양식적인 데 반하여 동래탈은 사실적이고, 춤사위도 같은 덧뵈기춤이지만 수영춤은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데 반해서 동래춤은 포용적이고 수용적이다. 또 수영들놀음의 양반마당과 영노마당은 상극 원리를 보이지만 동래야류는 상생 원리를 보이는 점 등에서 지역적 차이를 뚜렷이 보인다.

참고문헌 | 韓國의 民俗劇(沈雨晟 編著, 創作과批評社, 1975), 野遊·五廣大(강용권, 語文論叢8, 螢雪出版社, 1977), 韓國의 假面劇(李杜鉉 著, 一志社, 1979),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정상박, 집문당, 1986), 東萊들놀음(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동래야류보존회, 1989), 野遊·五廣大탈놀이(徐淵昊, 열화당, 1989), 탈놀이의 起源과 構造(박진태, 새문社, 1990), 동래야류(김경남, 화산문화, 2000), 전환기의 탈놀이 접근법(박진태, 민속원, 2004).

필자 | 박진태(朴鎭泰)

동래줄다리기(東萊—)

정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줄다리기. 동래 줄다리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해의 풍흉을 점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의례 성격을 띤 대동놀이로 출발하였음은 분명하다. 줄다리기를 동래 지방에서는 줄땡기기·줄쌈이라 한다.

내용 동래줄다리기는 1930년대 중반에 중단되었다가 1969년에 복원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전에는 정초부터 소년들이 각기 자기 부(部)의 집집을 돌아다니며 볏짚을 구해 작은 줄을 만든 다음 밤에 줄다리기로 승부놀이를 하는데 이것을 애기줄땡기기라



동래줄다리기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구청

한다. 이 놀이가 밤마다 거듭되면서 애기줄은 나날이 굵어져서 11~12일 무렵에는 어느 정도 큰 줄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13일 무렵 동·서부의 어른들이 줄을 이어받아 놀이에 소용되는 큰 줄을 만든다. 동부는 숫줄을, 서부는 암줄을 만드는데, 숫줄의 도래는 타원형이고 암줄의 도래는 숫줄의 도래보다 3분의 2 정도 크며 원형이다. 이 도래는 남녀의 성기(性器)를 상징하는 것으로 칡이나 삼[麻絲]을 넣어 기본줄 15~16가닥으로 만든다. 완성된 줄의 형태는 도래에 몸줄(본줄·원줄이라고도 하며, 기본줄 33가닥을 합사한다.) 한 줄, 종줄(곁줄·젖줄) 두 줄을 달고, 단 부위의 줄목을 4미터 가량 튼튼히 엮어, 몸줄과 종줄에 약 1미터 간격으로 2~3미터 길이의 기본줄을 달아서 줄꾼이 잡아당기도록 한다. 1984년에 만든 줄의 크기는 도래줄의 직경이 110센티미터, 숫줄 도래가 들어갈 수 있는 암줄 도래의 직경이 5미터이며, 줄목의 길이는 4미터이고, 몸줄의 직경 40센티미터, 길이 35미터이다. 이 크기는 예전 줄 크기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암수 두 줄의 결합은 암줄 도래에 숫줄 도래를 밑으로 끼어 올려 숫줄 도래에 비네목(비녀목)을 가로 지른다. 비네목은 산에서 베어온 생소나무로 껍질이 붙은 통나무인데 길이는 3미터 가량 되며 동부에서 책임지고 마련한다.

놀이개관 동래줄다리기를 하기위해 마을을 동·서부로 나눈다. 동부는 수영, 연산, 안락, 민락, 거제, 양정, 광안, 해운대, 기장 마을들이며, 서부는 명륜, 복천, 온천, 초읍, 연지, 장전, 금곡, 사직, 서면, 구포 마을들이다. 이 때 양편에 동원된 인원수는 2~3만 명이다. 줄다리기 전날, 대개는 14일에 동·서부가 각기 줄을 완성하면, 양편 사람들은 가닥줄을 을러메고 선두에 '동부'·'서부'라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풍물을 울리며 '쾌지나칭칭나네'를 부르고 한바탕 줄을 어른다. 그리고 줄다리기에 앞서 동·서부는 각각 총지휘를 맡을 대도독사령(大都督司令) 1명과 그를 보좌할 중사령·소사령을 선정하고 대사령기 1개·중사령기 5~6개·소사령기 약 50개를 만든다. 줄다리기의 승부는 2~3일 걸리는데, 암수 줄이 줄다리기의 현장(동래구청·동래시장 앞의 대로)에 운반되면, 암·숫줄의 도래를 맞대어 놓고 그 앞에 고사상(告祀床)을 차려 줄다리기가 무사히 진행되도록 축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암·숫줄을 연결하는데 2~3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 동부에서는 상대편을 야유하는 대사로 "달았네 달았네 서부 ○이 달았네." 하고 소리치면, 서부에서는 "부았네 부았네 동부 ○이 부았네." 하고 응수하고 동원된 마을들의 농악대는 신나게 풍물을 치니 완전히 축제 마당이 된다. 그 뒤 줄다리기는 2~3일 동안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승부가 결정되면, 이긴 편에서 비네목과 종줄을 메고 풍물을 울리며 진 편의 마을까지도 돌면서 주로 '쾌지나칭칭' 노래를 부르며 가무를 즐기다가 해산한다. 줄은 이긴 편에서 모두 차지하는데, 그 줄을 연료감이나 비료용으로 팔기도 하지만,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줄 만들기에 쓰기도 한다. 동래의 줄다리기는 다른 지방 줄다리기의 풍흉 해석과 달리 동부가 이기면 풍농이, 서부가 이기면 풍어가 든다고 점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이긴 편에서는 '동래야류'를 행한다.

속신 비네목을 꽂아 암·숫줄이 연결되면 여인들이 비네목의 껍질을 벗겨 간다. 껍질을 달여 먹으면 불임의 여성이 임신할 수 있으며, 딸만 낳은 여인의 경우 아들을 낳는다는 속신이 있다. 또한 여인들이 줄을 넘으면 줄이 끊어진다고 한다. 줄다리기가 끝난 후에 이긴 편의 줄 일부를 끊어다가 달여 먹거나 지붕 위에 올려놓으면 집안에 재수가 있고 자손이 번창한다고 하며, 어부들은 이것을 배에 실어 놓으면 고기가 잘 잡힌다고 믿는다.

의의 동래줄다리기에서 줄은 용신(龍神)의 상징적 의미를 띠며, 암·숫줄 도래의 연결은 성 행위로서의 다산성과 번성의 원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줄다리기의 승부는 풍농·풍어의 점풍과 아울러 기풍을 목적으로 하되, 대동놀이로서 줄다리기에 인접 마을들의 자발적 참여는 지연적 협동심과 단결심을 고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참고문헌 | 朝鮮史外史1(車相瓚 著, 明星社, 1947), 朝鮮常識-風俗 篇-(崔南善 著, 東明社, 1948), 줄다리기에 대하여(張籌根, 韓國文化人類學1, 韓國文化人類學會, 1968), 한국의 줄다리기(車基善, 韓國文化人類學14, 韓國文化人類學會, 1982), 동래줄다리기(강용권, 東萊들놀음,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동래야류보존회, 1989).

필자 | 김승찬(金承璨)

동채싸움

⇨안동차전놀이(安東車戰ㅡ)

밀양법흥상원놀이(密陽法興上元ㅡ)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법흥(法興) 마을에서 대보름에 행하던 민속놀이. 경상남도 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원래 대보름에 지내던 당산제를 중심으로 행하던 법흥 마을의 새해맞이 축제였는데, 이 마을에서 전승된 연행민속들을 수렴·연출하여 공연물로 만들었고 그것이 경상남도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법흥상원놀이는 당산굿·용왕제·지신밟기·헌신랑다루기·장작윷놀이·달맞이·돌다리밟기·달집태우기·콩볶기 등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뜨기 전에 신북[神鼓]이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 신북과 당산기를 앞세우고 부정굿을 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돈 다음 당산에 모여 당산굿을 벌인다. 신북은 약 350년 전부터 당사(堂祠)에 안치해 온 것으로서, 마을 사람들은 이 북소리로 제액초복(除厄招福)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당산굿의 제수로는 오곡을 쓰는데 오곡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당산제에 이어 마을 뒷산에 있는 찬못샘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제수(과일, 나물, 조기, 건어, 미역국, 메)를 차린 다음 용왕제를 지낸다. 비손으로 마을의 무사태평과 소원성취를 빌고 소지를 올린 뒤 제수는 시냇물에 뿌린다. 이 때 부녀자들은 무당과 함께 용왕굿을 한다. 이어서 지신을 밟는다. 풍물패들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 집 대주 문여시오 신북 뫼셔 들어간다. 금년 한해 태평세월 만복이 두둥실 복(福)사시요, 복사시요."하고 문굿을 벌인다. 주인이 풍물패를 맞으면 집안으로 들어가서 이미 차려놓은 고사상에 절을 하고 성주굿을 벌인 뒤 다른 집으로 이동한다.

다음 순서는 헌신랑다루기이다. 갓 결혼한 신랑이 근친 왔을 때 처족들이 신랑을 밧줄로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아 신랑다루기와 단자놀이를 한다. 이 때 왕고모부 내외는 허수아비놀이를 하고 고모 내외는 큰머슴놀이를 한다. 또한 새신랑을 소로 분장시켜 논갈이놀이를 하기도 한다. 헌신랑다루기에 이어 벌어지는 것이 장작윷놀이다. 장작윷은 한 가락의 길이가 50센티미터이며, 둘레가 20센티미터이다. 윷놀이는 한사람이 네 짝을 모아 던지지 않고 4명씩 편을 짜서 각기 윷가락 하나씩을 쥐고 동시에 던진다.

보름달이 떠오르면 달을 맞이한 뒤 돌다리를 밟는다. 나이만큼 돌다리를 오고가면 그 해 다리가 튼튼해지고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리 위를 오락가락하면서 다리를 한 번 건널 때마다 팥알을 하나씩 물에 던지며 "내다리 쇠다리 되어주소." 하고 빈다. 이어서 달집을 태운다. 모든 액을 없애기 위해 달집에 불을 지피는 일을 신혼 부부에게 맡긴다. 부부는 혼례복을 입고 교배상(交拜床)을 차려 놓은 후 예를 갖추고 불을 지핀다. 달집에 불을 지르는 이유는 득남(得男)을 달님에게 정성껏 기원하는 뜻이다. 주민들의 달집에 대한 신앙심은 절대적이어서 소원성취를 원하는 사람은 돈 주고 달집을 사서 특별히 기원한다. 이렇게 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믿음이 있다.

마지막 순서는 콩볶기이다. 부녀자들은 다리미에 콩을 담아 와서 달불에 볶아 나누어 먹음으로써 액을 물리치고 복을 빈다.

참고문헌 | 鄕土의 民俗文化(康龍權 著,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硏究院, 1996).

필자 | 한양명(韓陽明)

박시놀이[搏手ㅡ]

정의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에서 정월 대보름날 전후에 청장년들이 두 패로 나뉘어 겨루던 남성 집단놀이.

내용 팔짱을 끼고 상대를 밀어 승부를 내는 장사(壯士)를 군위에서는 박시, 의성에서는 박수라고 한다. 또 선두에 서서 적을 밀어 공격하는 놀이는 안동 차전놀이(동채싸움)·의성 가마싸움·박시놀이 등이 있는데 이 놀이들에서 승부를 내는 장사를 가리켜 머리꾼이라 하며 이들은 팔짱을 끼고 어깨로 적을 밀어 젖혀서 승부를 낸다. 이들을 한자로 박수(搏手)라 하기도 한다.

박시놀이는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와 서부리의 청장년들이 두 마을의 중간에 있는 관로(官路)를 경계로 하여 겨룬다. 대개 정월 초이틀부터 초이레

까지는 소년들이 패를 짜서 애기박시를 놀고, 이를 계기로 시작되는 청장년의 박시놀이는 정월 열나흗날부터 열이레까지며 밤 9시 경부터 새벽 2시 경까지 달빛 아래 겨루게 된다. 동·서부 각 120명 정도가 동원되는데 18~19세부터 50세 가까이의 완력에 자신있는 자면 모두 참가한다. 이 겨루기는 1944년에 마지막으로 놀고, 1984년 군민 축제 때 재현되었으며 그 후 두세 차례 실연한 바 있다.

정월 열나흗날 오전, 풍물꾼들이 농기를 앞세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청장년들을 소집하는데, 모인 장정들은 "동부리 골았네.", "서부리 골았네." 하며 전의를 돋운다. 이윽고 밤이 되어 서부의 장정들이 골목의 진지를 빽빽이 막아서 태세를 갖춘다. 대체로 간단한 복장에, 명주 수건으로 상투를 동여매며 웃옷을 벗고 싸우는 자도 나온다. 10미터 가량 뒤쪽에서 풍물꾼들이 풍물을 울려 사기를 돋운다. 동부의 장정들이 밀고 들어와서 서부진을 교란하여 길을 열고 관통해 나가면 승리한다. 공격하는 방법은 담에 붙어서 적진을 파고 들어가거나 서로 밀다가 틈이 생기면 그 곳으로 파고드는 등 다양하다. 적진이 뚫리면 풍물꾼까지 통과해야 승리하게 된다. 패한 쪽은 30미터 가량 뒤쪽에 제2방어진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 겨루기의 후유증으로 동·서부 장정이 진작로(현 대구·안동간 국도)에서 만나면 치고 싸우는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하니 이를 '난장박시'라고 한다.

이 놀이는 진취적이고 격렬한 남성적 의전(擬戰)이다. 매년 거행되었고, 이긴 편에 풍년이 들고, 진 편에 흉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완력이 센 자를 박시라 하며 보통 25~26세의 청년이 중심이 되는데 120명의 장정 중 박시가 50~6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의의 농촌사회에서 상원일(上元日)을 비롯한 주기적 생산 의식의 계절에 열리는 우리나라의 각종 점세적(占歲的) 의전(擬戰)들이 모두 상원의 달빛 아래에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동·서부로 나뉘어지는 양패의 뜻이 선(善)과 악(惡), 밝음과 어둠, 열림과 닫힘, 여름과 겨울, 풍(豊)과 흉(凶)의 대결을 상징하며 이것이 특히 전통적 예축의례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박시놀이도 그러한 세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 | 박시놀이(成柄禧, 우리고장의 民俗, 慶尙北道 文化財課, 1978).

필자 | 성병희(成柄禧)

방놀이

정의 함경남도 북청군과 홍원군 등에서 정월 대보름날 밤에 마을의 남녀노소가 마을 회관인 도청(都廳)에 모여서 놀았던 놀이.

내용 정월 대보름날 밤에는 마을 회관인 도청에 모여 방놀이를 하였다. 도감(都監)이라 하여 사회자격인 사람이 어린아이들, 처녀총각들, 며느리들, 시어머니들, 시아버지들의 순서로 불러내어 퉁소와 북 등의 악기 반주에 맞춰 춤과 노래를 시켰다. 춤과 노래 이외에 재담을 하는 사람도 있다.

방놀이는 마을 사람들이 친목을 다지고 자기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작년에 자기 마을로 시집을 온 새색시를 불러내어 춤과 노래를 시켜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고, 새색시는 시집의 어른들이나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시댁 식구들과 격의 없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문헌 |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방실놀이

정의 정월 대보름날 자정 무렵 또는 해돋이 때 묵은 해의 액과 살을 보내고 복과 명을 맞는 풍습. 유사한 풍습으로 갯불띄우기·액귀몰이·방술한다·부정쓸기·허수아비불놀이·액맥이불놀이·죽마(竹馬)놀이 등이 있다.

내용 방실놀이는 주로 호남 도서 지방에서 대보름날 밤에 액을 물리치고 수복을 맞이하는 방사(防邪, 放邪)놀이인데 지역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 전남 고흥군 나라도에서는 음지의 산골짜기에 있는 육송의 통나무를 파서 만든 그 길이가 1척 정도의 작은 배인 마상이(매생이)를 집집마다 만들어 종지기에 참기름 불을 켜 대보름날 자정 무렵 바다에 띄운다. 배가 물결 따라 떠가면 사람들은 입을 모아 큰 소리로 외친다. "매생아! 매생아! 금년 내 액운 다 가져 가고

명과 복을 갖다 주라." 또한 이웃 섬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우리 마을 모기 · 이 · 빈대, 다 실어 보내니 잘 모셔라." 하고 짓궂은 장난을 한다.

지역사례 전남 신안에서는 해돋이 때, 짚으로 엮어 만든 짚 배에 바가지를 얹어 허수아비와 돛대를 세우고 참기름 불을 밝히며 제물을 진설하고 먼 바다로 띄워 보내며 사해 용왕을 불러 먹이고 축원을 빈다. "○○○씨 가문에 명과 복 들여 보내 주시고 일년 열두 달 재수 형통케 하시며 풍어 · 풍농 들게 하소서. 모든 액귀 다 헛수(먼) 바닥 물 아래로 가시고 재복만 싣고 오소서. 헛세! 헛세!"

전남 여천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면 선주들이 바가지에 곡식을 넣고 촛불이나 참기름 불을 밝혀 바다에 띄워 액을 막고 행운을 빈다. 보성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면 짚으로 말을 만들어 제물을 채우고 만조가 되면 띄워 보낸다. 말은 쏜살같이 모든 재액을 가지고 가는 성수(聖獸)다.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당제의 특징은 대보름날의 액을 몰아가는 죽마(竹馬)놀이에 있다. 상당제가 끝난 후 하당에 내려와 죽마놀이를 하는데, 마신(馬神)에게 제물을 차리고 재액을 가지고 가도록 기원한 후 바다에 죽마를 버린다.

의의 대보름은 어둠을 몰아내는 한 해의 첫 만월을 볼 수 있는 날이다. 달은 만물을 생성하는 음력(陰力)을 가지고 있어 대보름날 액을 몰아내고 복을 맞이하는 여러 의례를 행한다. 이런 의례를 통해 무병장수와 풍어 · 풍농을 빌고 재액과 액운을 몰아내고, 빈대 · 이 · 벼룩 · 모기까지 내보내고자한다. 방실놀이는 액을 날리고 복을 맞는 마을 의례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多島海의 堂祭(崔德源, 學文社, 1983),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南道民俗考(崔德源, 삼성출판사, 1990), 남도의 민속문화(최덕원, 밀알, 1994), 全羅南道誌19(全羅南道, 1995), 한국의 풍어제(하효길, 대원사, 1998), 현장의 민속학(하효길, 민속원, 2003).

필자 | 최덕원(崔德源)

병신굿놀이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남천강(南川江)가 대숲 앞에서 정월 대보름날 밤에 서민들이 어울려 놀던 춤놀이.



병신굿놀이
경남 밀양시 황현만

유래 이 춤놀이가 언제부터 있어온 지는 알 수 없고, 1940년대에 한 차례 놀았던 것이 1960년대 이후에 재능 있는 사람을 모으고, 악기를 갖추어 놀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원래 대보름날 고을 사람들이 곡식알을 자기 나이 수대로 손에 쥐고, 배다리 위를 왕복하면서 무병장수(無病長壽)를 빌며 다리밟기를 하고 있을 때 서민들은 감히 그 일행에 끼어들 수 없어 화도 나고 신세가 한스러워 서로 어울려 한풀이 한판을 놀았던 것이 그 시작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즉흥적인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신분의 차이도 있고 추운 겨울이라 매년 주기적으로 놀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이라 이해된다.

내용 참가 배역은 절름발이 · 떨떨이 · 봉사 · 벙어리 · 곱사(꼽추) · 안팎곱사 등으로 각각 남녀 한 쌍이다. 이들은 모두 평상복에 머리 수건을 동이거나 쓰고, 병신 모습으로 꾸민다. 악기는 사장고(紗長鼓) 두세 개, 물을 담은 큰 옹기에 바가지를 엎어 띄우고 그것을 솜 타는 활로 퉁기는 활장구 한 개, 퉁수 한두 개, 댓잎을 입에 넣어 소리를 내는 치금(齒琴) 두세 개이다.

처음에 모두가 어울려 덧뵈기 장단에 맞춰 한참 동안 각자의 춤을 추다가 풍물잡이들은 물러나 앉고, 춤꾼 한 쌍씩 중앙으로 나와서 구슬픈 가락의 한풀이 노랫말로 춤을 춘다. 이 때 노래는 대개 모심기 소리나 논매기소리 등이다. 각 배역 특징의 병신 흉내를 내며 차례로 나와 춤을 춘다. 마지막에 모두들 일어나 다시 덧뵈기가락에 맞추어 춤을 춘다. 이렇게 하여 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르면 끝이 난다.

이 춤모임은 춤꾼 스스로 "병신 갑한다.", "병신 굿한다." 하며 일컬어 왔기 때문에 붙은 명칭으로 보이며, 비록 신분 차이에 의한 한풀이 한판 놀이라 하

더라도 농민들은 평소에 이렇게 즉흥적인 놀이를 벌이면서 농사의 고달픔을 달래고 일의 능률을 위한 힘을 충전해 왔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필자 | 성병희(成柄禧)

봉죽놀이(奉竹—)

정의 정월 열나흗날에 서해안 지역 해안 마을에서 풍어를 기원하며 행하던 민속놀이. 소리와 춤이 한데 어우러진 집단 가무(歌舞)놀이이다.

어원 만선으로 돌아오는 배에 꽂는 풍어기(豊漁旗)를 봉기(奉旗, 2~3미터 가량의 대나무를 여러 갈래로 쪼개어 가지마다 오색 종이꽃을 매단 깃대)라고 하는데, 재질이 대나무이기 때문에 흔히 봉죽(奉竹) 또는 봉죽(鳳竹)이라고 한다. 황해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봉죽 받았다."는 언어전승이 전하고 있다.

내용 봉죽놀이는 봉죽타령 혹은 봉기타령이라고 하는 소리와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죽은 조기의 양을 재는 기구다. 봉죽타령은 배치기소리로 만선 후의 풍장놀이에서 불려진 축제유희요의 성격을 지닌다. 연행방식은 북잡이와 꽹과리잡이가 장단을 맞추면, 선소리꾼이 대동마당의 한 가운데 나서서 소리를 메긴다. 그러면 뱃군들이 소리를 받는다. 봉죽타령의 곡조는 선율에 기백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참여자의 흥겨운 율동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봉죽타령과 풍장이 울리는 가운데 뱃군을 비롯한 참여자 모두가 신명나게 춤을 춘다. 뱃군들은 흔히 곱사춤이나 고사리춤 등을 춘다. 봉죽놀이는 지역에 따라 진행 방식이나 명칭을 약간 달리한다.

지역사례 평남 온천 지역의 봉죽놀이는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풍물패가 배따라기타령을 부르며 풍물굿을 진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한 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출어굿을 출항한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진행한다. 저녁 무렵에 배가 들어오면 배맞이굿을 한다. 이 때 여성들은 고사리타령과 새고리기타령 등을 부르고, 뱃군들은 곱새춤을 추는 등 풍장놀이를 한다.

전남 쑥섬의 봉죽놀이는 주로 정초에 선주(船主)의 집 앞에 봉죽대를 높이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봉죽대 꼭대기에는 울긋불긋한 배 깃발을 단다. 꼭대기에서 사면팔방으로 우산살처럼 밧줄을 늘어뜨려 여러 개의 등을 달아 놓는다. 밤이 되면 복을 비는 뜻으로 등에 불을 켜고, 사람들은 봉죽대 아래로 모여든다. 징을 울리며 춤과 노래판을 벌인다. 봉죽놀이패가 찾아와서 한바탕 놀아 주면, 선주는 미리 술과 음식을 마련해 두었다가 그들을 대접한다.

경기도 부천의 봉죽놀이는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뱃군들이 봉죽타령과 함께 농악을 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농악대 뒤로는 가족이 따르며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고깃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뱃머리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뱃고사를 올린다. 뱃고사를 마무리한 후 봉죽타령과 춤으로 흥겨운 대동의 마당을 조성한다. 뱃군들의 노랫소리와 풍물이 마치 진군가(進軍歌)와 같았다고 한다.

이 밖에 평북 창도 지역의 북놀이, 제주도의 용왕제(龍王祭), 경기도 장단 지역의 수신제(水神祭) 등이 모두 봉죽놀이의 유형이다. 창도 지역의 북놀이는 정월 초하룻날부터 시작하여 보름날까지 계속되었다. 섬 전체의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매일같이 노





1 배위에 꽂은 봉죽
전북 부안군 위도면 국립민속박물관

2 봉죽놀이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김영한

래를 부르고 춤추며 마음껏 놀았다고 한다. 이처럼 봉죽놀이는 풍어를 기원하거나 만선의 기쁨을 환영하는 의례에서 출발한 세시풍속이다.

의의 봉죽놀이는 바다에 대한 뱃군들의 애착과 낭만을 엮어놓은 사교적인 놀이이면서 잔치인데, 뱃군들의 결속 및 삶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의 민속놀이(군중문화출판사, 1964), 한국의 뱃노래(金順濟, 好樂社, 1982), 북한 학자가 쓴 조선의 민속놀이(도유호 외 · 주강현 해제, 푸른숲, 1999), 한국의 해양문화1 -서남해역 下-(해양수산부, 2002).

필자 | 이창식(李昌植)

북청사자놀음(北靑獅子ㅡ)

정의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탈놀이.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함경도에서는 함남 북청 · 함주 · 정평 · 영흥 · 홍원, 함북 경성 · 명천 · 무산 · 종성 · 경원 등지에서 사자놀이를 놀았는데, 이 중 북청의 사자놀이가 가장 유명하다. 북청사자놀음은 함남 북청군 산하 11개 면과 3개 읍에 속하는 각 마을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해졌다. 북청의 사자놀이는 댓벌[竹坪里]사자(李村사자 · 中村사자 · 넘은개사자 등), 동문(東門)밖사자 · 후평사자 · 북리(北里)사자 · 당포(棠浦)사자 등이 유명하였으며, 그 밖에 마을마다 제각기 사자를 꾸며 놀았다. 6 · 25 당시 월남한 놀이꾼들은 1960년 8월 '북청사자놀이 보존회'를 발족하였고,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보존회 사무실을 두고 있다.

북청 지방에서는 수십 개의 마을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사자를 만들어 놀았기 때문에, 사자가면의 모습이 마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북청의 사자가면은 1930년대에 송석하가 수집한 사자가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36년 2월 7일 송석하가 북청 현지에서 찍은 북청읍의 사자와 토성리의 사자, 현재 북청사자놀음에서 사용하는 사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모두 다른 모습이다.

구성 1955년 겨울부터 1956년 여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청 지방을 현지조사 한 김일출은 북청 사자가면의 유형을 ① 호랑이 또는 고양이 모습의 사자, ② 귀면(鬼面) 모양의 사자, ③ 용 비늘을 그린 사자로 나누었다. 그리고 죽평리 사자놀이에는 피리(4) · 퉁소(4) · 꽹과리(1) · 징(1) · 새납(1) · 소고(1) · 큰북(1)의 다양한 악기와 함께 사자, 꼭쇠, 양반, 중, 점바치, 의원, 굴중(상모) 돌리는 사람, 소고를 든 거사 2명, 무동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 중 주목되는 인물은 점바치, 즉 점쟁이인데, 점쟁이는 사자가 먹이를 먹고 병들어 쓰러진 후에 병점(病占)을 친다.

한편 현재는 북청사자놀음에 사자가 두 마리 등장하지만, 원래 북청 지방에서는 사자가 두 마리 등장하는 마을이 없었다. 모든 마을에서 사자는 한 마리가 등장했다. 그리고 사자놀이의 내용도 현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내용은 애원성, 마당놀이, 사자춤 등으로 형성된다. 먼저 쾌자(快子)를 입은 여인이 등장하여 경복궁춤, 애원성춤, 성주풀이춤을 추고, 다음에 양반 · 하인(꼭쇠)이 등장하는 마당놀이로 넘어가는데, 양반의 명령에 따라 사당춤, 무동춤, 곱사춤 등을 춘다.

내용 북청사자놀이는 극적인 요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나례의 매귀(埋鬼)행사와 동일한 모습도 보인다. 사자놀이패는 정월 4일부터 14일까지 마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나례의 매귀, 즉 지신밟기와 유사한 의식을 거행했다. 북청사자놀이는 정월 대보름을 기해 거행되는 대부분의 민속놀이와 마찬가지로 벽사진경을 목적으로 거행되었다. 백수(百獸)의 왕인 사자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벽사적인 기능을 하지만, 특히 사자가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가가호호 방문해 집안 구석구석의 잡귀를 쫓는 모습은 바로 나례의 매귀라고 하는 행사와 완전히 일치한다.

사자는 머리 부분에 큰 방울을 달고 있는데, 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놀랄 정도라고 한다. 이는 방울소리를 통해 잡귀를 쫓으려는 것이다. 우선 사자는 집안에 들어서서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마당을 빙빙 돌며 기세를 보이다가 안방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딱딱" 소리를 내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귀신을 잡아먹는 시늉을 하며 방방마다 들어간다. 곡식과 쌀독을 두는 뒷방인 뒷고방도 들어간다. 부엌으로 들어가서도 그와 같이 한



북청사자탈
국립중앙박물관

후 바가지를 하나 물고 나와서 마당에 던져 깨뜨린다. 이는 귀신을 쫓는 의식이다. 주인의 요청에 의해 부엌으로 들어간 사자는 조앙, 즉 부뚜막을 향해 세 번 절한다. 조앙에는 성주단지(쌀과 엽전을 넣은 작은 항아리)와 조왕(베헝겊을 매어 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성주는 가정의 수호신이고, 조왕은 부엌의 신이다. 마당으로 나온 사자는 뒤꼍 · 장독간 · 외양간도 다니면서 집을 한 바퀴 돈다.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춘다. 이 때 아이를 태우면 무병장수(無病長壽)한다고 해 사자에 태우기도 한다. 또한 사자털을 베어다 두면 장수한다는 속신(俗信)에 따라 몰래 털을 베어 두기도 한다.

사자놀이패가 사자놀이를 놀아 주면, 각 가정에서는 답례로 곡식을 내놓았다. 정월 16일에는 그 동안 들어온 곡식과 지출한 경비 등을 결산했다. 남은 곡식은 마을의 극빈자에게 일부 주고, 학비가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지원하며, 마을 노인들의 경로잔치에 쓰고, 마을 회관인 도청을 새로 짓는 경비 등 마을의 공공사업에 사용했다.

현재 전승되는 북청사자놀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과장 마당돌이: 길잡이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놀이판을 정리하면, 하인인 꼭쇠가 주인인 양반을 데리고 등장하여 사자놀이를 소개하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② 제2과장 애원성춤: '애원성'이라는 함경도 민요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춘다.

③ 제3과장 사당 · 거사춤: 사당 2인과 거사 2인이 등장하여 추는 춤이다. 사당과 거사는 옛날에 춤과 노래를 부르며 떠돌아다니던 유랑예인이다.

④ 제4과장 무동춤: 어른의 어깨 위에 어린아이들이 올라가서 춤을 춘다.

⑤ 제5과장 꼽추춤: 가슴과 등에 헝겊을 넣어 불룩 튀어나오도록 하고 꼽추의 흉내를 내며 흥겹게 춤을 춘다.

⑥ 제6과장 칼춤: 두 사람이 자그마한 칼을 가지고 춤을 춘다.

⑦ 제7과장 사자춤: 두 마리의 사자탈이 나오는 사자춤은 초장 · 중장 · 말장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장에서는 사자가 몸을 풀면서 간단하게 춤을 춘다. 중장에서는 사자가 엎드리고, 기고, 뛰고, 서로 입을 맞추고, 꼬리를 흔드는 등 다양한 춤을 춘다. 그러다가 사자는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쓰러진다. 그러면 스님이 나와 염불을 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자 의원이 등장하여 침을 놓고 감로수라는 약수를 먹여 사자를 소생시킨다. 말장에서는 소생한 사자가 더욱 빠른 템포로 신나게 춤을 추면서, 사자탈 속에 들어간 앞채 사람이 뒤채 사람의 어깨에 올라가 몸을 세운 입사자(立獅子)의 모양이 되기도 한다.

⑧ 제8과장은 군무인데, 그 동안 등장했던 모든 춤꾼이 나와서 서로 어울려 춤을 춘다.

의의 북청사자놀이의 주목적은 벽사진경에 있다. 백수의 왕으로 벽사의 뜻을 가진 사자가 가면으로 전래하는 과정에서 악귀를 내쫓고 마을이 태평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정월 대보름날 사자놀이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아이를 사자에 태우면 무병장수한다거나, 사자털을 베어다 두면 장수한다는 생각에서 사자놀이의 종교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남한에서도 정초에 마을의 풍물패가 가가호호를 방문해 지신밟기를 할 때, 풍물패의 구성원은 모두 마을


1


2

〈북청사자놀음〉
1 무동춤
2 사자춤 김대벽

주민인 농민이듯이 북청 지방에서도 사자놀이의 놀이꾼은 모두 마을 주민인 농민이었다.

사자놀이를 통해 마을의 단결과 협동을 도모하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각 마을 자체로 사자놀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각 가정마다 방문해 사자놀이를 놀아 주고, 유지의 집을 순회하며 생긴 곡식으로 마을의 공공사업(장학회 · 빈민구제 · 경로회 비용 · 사자놀이 비용 등)에 사용함으로써 모든 마을 주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년에 한 번 큰 명절을 맞이해 밤새도록 춤과 노래를 즐기며 흥과 신명을 푸는 과정에서 일상 생활의 긴장을 풀어 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활력을 되찾아 새해를 시작하는 오락적 기능도 있었다.

참고문헌 | 조선민속탈놀이연구(김일출, 과학원출판사, 1958), 북청사자놀음(전경욱, 화산문화, 2001).
필자 | 전경욱(田耕旭)

사자놀이(獅子—)

정의 정월대보름이나 단오에 커다란 사자탈을 쓰고 노는 민속놀이의 총칭.

내용 한국에는 사자(獅子)가 없지만,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사자라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자에 대한 첫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新羅本紀)」 제4의 지증마립간조(智證麻立干條)에서 발견된다. 지증왕 13년(512) 6월에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 울릉도)을 정벌할 때 나무로 만든 사자를 만들어 위협했다는 것이다. 또 가야국(加耶國) 가실왕(嘉實王)이 우륵(于勒)에게 명하여 지은 12곡 가운데 여덟 번째 곡에 사자기(獅子伎)가 있는 점으로 보아 사자춤은 이미 이 때부터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권32 「잡지(雜志)」 제1 악조(樂條)에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향악잡영(鄕樂雜詠)' 5수(首) 중 산예(狻猊)에서 본격적인 사자춤이 발견된다. 산예는 사자춤인데, 이 시는 사자춤이 유사(流沙), 즉 고비사막을 거쳐 왔다고 하며 서역(西域) 계통임을 밝히고 있다.

사자춤은 중국과 한국의 나례(儺禮)에서 모두 발견된다. 고려말 이색(李穡)의 구나행(驅儺行)은 나례에서 사자춤이 연행된 사실을 전해 준다. 이 시에 의하면, 구나의식이 끝난 후 거행되는 나희의 첫 순서로 오방귀무(五方鬼舞)와 백택무(白澤舞)가 있었다. 백택은 신수(神獸) 또는 사자의 별칭인데, 나례에 등장하는 벽사적인 동물은 사자이므로, 고려말의 나례에서 사자무가 연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자놀이는 정월 대보름 무렵 여러 지방에서 행해졌다. 김일출은 1954년에서 1956년 사이에 자신이 직접 함경도와 황해도를 현지조사한 결과와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47집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 의거해 사자놀이 분포도를 작성했다. 그에 의하면, 함경도의 경원 · 종성 · 회령 · 무산 · 경성 · 어대진 · 명천 · 풍산 · 북청 · 신창 · 퇴조 · 함흥 · 장진 · 함주 · 정평 · 영흥 · 고원, 평안도의 벽동 · 용천 · 순천, 강원도의 고성 · 양양 · 횡성 · 원주, 경기도의 광주 · 용인, 충청도의 아산, 경북의 울진, 경남의 통영 등에 사자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함경도의 홍원, 황해도의 황주 · 봉산 · 은율 · 송화 · 재령 · 기린 · 강령, 경남의 함안 · 동래 · 마산 등에서는 가면극에 사자춤이 포





1 북청사자놀음의 사자와 양반
2 사자놀이패
함남 북청군 청해면 토성리 송석하

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최남선(崔南善)의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 속편(續篇)에 의하면 당시로부터 얼마 전까지 경주(慶州)의 월남(月南)과 보문(普門)에 주지춤, 즉 사자춤이 있었는데, 마을마다 그것을 부양하기 위한 '주지논'이 있어서 그 소요 비용을 공급했다고 한다. 연말 세초(年末歲初) 어림의 밤중에 두 마을에서 출발해 중로(中路)에서 만나 밤새도록 싸워 승부를 내며, 세후(歲後)에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축사연상(逐邪延祥)을 기원했다는 것이다.

한편 함북 북부 산간 지역의 재가승(在家僧) 마을에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주지놀이'라는 사자춤이 있었는데, 1982년 월남민들이 이 놀이를 복원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현존하는 가면극 가운데 사자춤은 봉산탈춤·강령탈춤·은율탈춤·수영야류·통영오광대·북청사자놀이·하회별신굿탈놀이 등에서 발견된다. 황해도의 사자춤은 상당히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봉산탈춤의 사자춤과장은 1913~1915년 무렵부터 비로소 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 가면극들의 사자춤은 대부분 벽사적인 성격을 보이므로 나례의 구나형식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朝鮮常識問答 -續篇-(崔南善 著, 東明社, 1948), 조선민속탈놀이연구(김일출, 과학원출판사, 1958), 북청사자놀음(전경욱, 화산문화사, 2001).

필자 | 전경욱(田耕旭)

삼척기줄다리기(三陟—)

정의 강원도 삼척시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해졌던 놀이. 1976년 강원도 시도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삼척에서는 '게'를 '기'라 하는데, 줄다리기의 줄이 외형적으로 게를 닮았으며 게가 벽사(辟邪)의 기능을 지녔다는 점에서 기줄다리기라 하였다.

유래 삼척기줄다리기의 유래는 네 가지로 추정한다. 첫째, 제방 축조나 이사(里社) 설치 후 제사를 드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 마당을 벌였던 것과 관련한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조선 현종 때 삼척 부사였던 허목(許穆)이 이 지방에 저수지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삼척 읍지인 『척주지(陟州誌)』에서 관련 내용은 "북평제언기, 현종 2년(1661) 7월 대홍수(大洪水)와 현종 3년(1662) 대풍우(大風雨)로 유실된 전토나 제방 복구 사업 진행, 각 동리에 향약문(鄕約文) 고유(告諭)"를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월 대보름 농사의 풍흉(豊凶)과 관련한 점풍(占豊) 행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부내(府內, 해안 지방, 여성 상징)와 말곡(末谷, 산곡 지방, 남성 상징)이 겨루는데, 부내가 이기면 어업[海事]이 풍년이고, 말곡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이라고 믿는다. 부내는 부사의 부인이 응원하고, 말곡은 부사가 직접 지원하였다. 셋째, 마을에 부과된 부역 전가를 위해 연행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부역은 삼척읍성, 포진성 수리, 만년제, 방수제 등의 축조가 주조를 이루었다. 넷째, 귀신을 쫓기 위해 연행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기줄이 게모양으로 게는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경기장인 사대광장에 잡귀가 많은데, 이는 삼척 포진관이 영동지구 9개 군의 죄인을 이곳에서 처형했기 때문이다.

내용 전승집단의 규모 면에서 본다면 삼척기줄다리기는 부내와 말곡으로 나누어 연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근 미로·북평·근덕 등의 주민들도 참여하였으므로 '열린 고을형' 대동놀이로 볼 수 있다. 또한 큰줄다리기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정월 대보름 전에 각 마을별로 속닥기줄·중기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이는 마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닫힌 마을형'이면서 '골목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승 형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줄에서 큰 줄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규모가 연속성을 갖는 확대형으로 볼 수 있다.

시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정월 초 마을별로 속닥기줄·중기줄다리기를 하다가 대보름날 밤에 기줄다리기를 한다. 연행 공간은 오십천 사대광장에서 행해졌는데, 이곳은 모래밭인 곳도 있고 자갈밭인 곳도 있었으나 개의치 않고 연행되었다고 한다. 1973년 기줄다리기가 복원된 이후 사대 광장에서 연행하다가 사대 광장이 매립되고 난 뒤 현재 중앙통 주도로나 오십천 고수부지에서 연행하고 있다.

줄의 형태 면에서 삼척기줄다리기는 암줄과 숫줄을 결합한 쌍줄 형태로서 세부적으로는 지네줄이 아닌 통상 각각의 암줄과 숫줄에 네 개의 가지줄을 매어 이에 종줄을 다시 매어 당기는 형태이

다. 물론 동네에서 행하는 속닥기줄이나 중기줄은 외줄이었다고 보인다. 편 구성의 방식은 지역별로 편을 가르는데, 오십천(또는 삼척 읍성)을 기준으로 부내와 말곡으로 나누어 연행된다. 점풍과 관련하여 부내는 해안 지방 · 여성을 상징하고, 말곡은 산곡 지방 · 남성을 상징한다. 부내가 이기면 해사(海事)가 풍년이고, 말곡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줄의 처리 방식은 서낭당에 1년간 모셨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1년 보존형의 형태를 띠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줄의 재료는 짚을 주재료로 하며 몸줄을 만들 때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라진에서 만드는 몸줄에는 칡을 사용하여 속줄을 만든 후 겉을 새끼줄로 감쌌다고 한다.

줄다리기에 앞서 행해지는 앞놀이는 경남 창녕의 골목 줄다리기와 같이 정월 초에 마을별로 행해졌다. 줄을 만드는 과정에서 편싸움 대신 술비놀이가 행해졌다. 그리고 기줄다리기 당일 각 마을별로 줄을 만들어 삼척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악을 울렸는데, 조비 농악이 유명하다. 줄다리기 후 패자는 조용히 사라지고, 승리한 편에서는 뒷놀이로 풍악을 울리며 즐겁게 놀았다고 한다.

공동체 신에 대한 제사와의 관계에서 삼척기줄다리기는 고을형 쌍줄로서 주로 '선제사 후놀이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래 중의 하나가 선농제를 지낸 후 마을 사람들끼리 즐기는 가운데 줄다리기가 행해졌다는 주장이 있고, 줄다리기에 참여하기 전에 마을 서낭당에서 제사를 지낸 후 기줄다리기에 참여하는 마을도 있기 때문이다.

기줄다리기는 1936년 일제에 의해 중단된 이후 1973년 '삼척민속놀이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월 대보름에 '기줄다리기'를 주축으로 삼척읍 사대 광장에서 삼척민속대제전이 거행되면서 재현되었다. 이후 강원도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진행과정 삼척기줄다리기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① 입춘일 선농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선농제(先農祭)를 지낸 후 농악을 앞세워 시내를 돈다.

② 삼척기줄다리기 전의 줄다리기: 정월 2, 3일부터 솔닥기줄이라 하여 마을 단위로 새끼줄을 모아서 아이들끼리 하는데, 하룻밤에 3, 4회 정도를 5, 6일까지 지속하였다. 이 줄다리기에 어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월 7, 8일에는 중기줄이 행해졌는데, 청소년들이 주동이 되고 규모가 솔닥기줄보다 커서 하룻밤 1, 2회 정도 겨룬다. 정월 10일 무렵 줄다리기를 일시 중단하고 대보름 기줄다리기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③ 삼척기줄다리기 본행사 준비: 임원은 대표 파장(派將) 1인, 부파장(副派將) 1인, 보통파장(普通派將) 3~4인, 각 리(里) 파장 1인씩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기본 임무 이외에도 원근 각 지역을 순방하여 세배를 드리고 공식적인 초청 절차를 밟아 원군을 초청한다. 기줄다리기를 하는 정월 대보름에는 읍 소재지 마을에서 술 · 오곡밥 · 약밥을 지어 당일 자기 편 전사들을 접대하였다. 다음에 줄을 준비하는데, 이는 각 동리마다 준비한다. 크기는 한 뼘 이상이고, 길이는 50발 이상으로 줄을 틀 때 술비통을 이용한다. 술비통을 이용하여 줄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새끼줄 · 칡줄을 구멍을 통하여 세 가닥이 한데 모여 5센티미터의 줄이 되고, 다시 세 가닥의 줄을 한데 모아 틀어서 한 줄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한다. 줄을 틀 때 풍악을 울리면서 노래를 부르며 작업하는데, 이를 '술비통노래'라 한다. 정월 대보름 당일에 본부에서 대표파장이 말을 타고 참모들과 함께 의관을 정제하고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지역에서 오는 자기편 전사들을 맞이한다. 이 때 각 동리 전사들은 동리 파장을 말머



삼척기줄다리기
강원도 삼척시 심영진

리[馬頭]에 올려 세우고, 대열 앞에 마을기와 영기, 농악대, 가장 행렬, 남녀노소 순서로 줄을 메고 뒤를 따른다. 각 동리별 전사들의 집결 장소는 말곡면은 성내리(세로기인 백호기, 농기, 영기, 마을기)이고, 부내면은 성저리(가로기인 청룡기, 농기, 영기, 마을기)이다. 집결 후 시가 행진을 하였는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기줄을 최종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각 마을에서 가져온 줄을 사대 광장에 모아 각 편별로 전문 역군(役軍)들이 노래 부르며 작업을 하였다. 이 때 다른 장정들은 자기 소속을 표시하는 기를 들고 불을 밝히면서 농악대를 앞세워 밤 11시까지 시가지를 누비고 다녔다. 기줄 제작 방법은 길이를 조절하여 마두와 본체 줄을 만들며, 양편의 기줄을 맞대고 타래를 지우는 데 30~40분 정도 걸린다. 비녀목[長木]은 직경 35센티미터, 길이 2미터로 향나무나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약 5~6시간 작업하여 자정쯤이면 줄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제작된 기줄은 용두(龍頭, 또는 마두 · 줄머리 · 대가리)에서 10미터 정도 길이이며, 높이는 지상에서 2미터 정도이고 총길이는 약 200미터였다. 그리고 지네줄은 굵기가 16~20센티미터, 길이가 50~60센티미터였다.

④ 삼척기줄다리기 본행사 진행: 달빛 · 광솔불 아래에서 징을 신호로 남녀 불문하고 인원 제한 없이 줄을 당겼는데, 지휘 체계는 마두에 파장이, 중간에 부파장이, 뒤에 보통파장이 배치되어 총파장의 신호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줄다리기를 하였다. 이 때의 지휘 신호는 기를 눕히면 줄을 바닥에 까는 것이고, 좌우로 흔들면 당기지 않고 힘만 주라는 의미였으며, 동서로 흔들면 기에 맞추어 구호를 외치며 당기라는 뜻이었다. 서편은 말곡이고, 동편은 부내로서 모래를 발로 파기도 하고, 여자들은 치마에 돌을 담기도 하여 무게를 늘려 줄다리기에 나섰는데, 술을 먹으며 당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3~4시간이 흘러 새벽 4~5시 경이면 끝났는데, 승부를 내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의의 삼척기줄다리기는 기줄다리기만을 위한 놀이가 아니라 연행 과정에서 술비놀이 · 조비 농악과 같이 다른 놀이 문화가 함께 하는 종합적인 놀이이다. 줄다리기는 주로 벼농사 문화권에서 행해지는데, 삼척기줄다리기는 대규모로 행해지는 줄다리기의 지역 상한선으로 볼 수 있고, 밀양의 게줄과 같이 양쪽에 여덟 가닥이고 원줄에 칡줄을 넣는다는 점은 나름대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발전함은 물론, 차별없이 남녀노소 혼연일체로 참여하여 지역민 전체의 단합과 풍년 · 풍어를 기원하는 대보름 놀이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논이 아닌 자갈밭에서 거행한다는 점과 동부를 여성, 서부를 남성으로 상징하면서 어느 쪽이 이기든 풍년 · 풍어가 되므로 대립 관념이 없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三陟 기줄다리기에 대하여(金善豊, 韓國民俗學8, 韓國民俗學會, 1975), 三陟의 기줄다리기(김일기, 삼척공업전문대학논문집14-2, 삼척공업전문대학, 1981), 술비통과 줄다리기에 대한 고찰(이창식, 새국어교육39, 한국국어교육학회, 1984), 삼척 게줄다리기 고찰(장정룡, 江原民俗學10, 江原道民俗學會 江陵無形文化硏究所, 1994).
필자 | 김도현(金道賢)

생율놀이

정의 정월 대보름인 15일이나 16일 저녁에 노는 여자아이들의 민속놀이.

내용 및 지역사례 생율놀이는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행해진 세시민속놀이이다. 놀이 방법은 인형 모양으로 깎은 나무 열 개를 준비하고, 주사위처럼 구멍 뚫린 조각 네 개를 준비한 다음 이 네 개의 나무 조각을 던져서 한 개의 숫자가 나오면 한 개의 인형을 세우는데, 먼저 모두를 세우는 쪽이 이기는 놀이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의숙(金義淑)

석전(石戰)

정의 개천이나 넓은 가로(街路) 등의 지형을 경계 삼아 약 수백 보 거리를 두고 일대의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편을 갈라 서로 돌을 던져 누가 먼저 쫓겨 달아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승부(勝負)를 가리는 전통사회의 집단놀이. 편전[便戰, 邊戰] · 석전놀이[石戰戱] · 돌팔매놀이[石擲戱]라고도 한다.

유래 『수서(隋書)』「고구려전(高句麗傳)」에는 "해

마다 연초에 패수(浿水, 대동강)가로 모여 놀이를 하는데 왕은 요여(腰輿)를 타고 나아가 우의(羽儀)를 나열해 놓고 구경한다. 놀이가 끝나면 왕이 의복을 물에 던지는데 군중들은 좌우 두 편으로 나뉘어 물과 돌을 뿌리거나 던지고 소리치며 쫓고 쫓기기를 두세 차례 하다가 그친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高麗史)』「세가(世家)」 44에는 공민왕(恭愍王) 23년(1374)에 격구(擊毬)와 석전놀이를 금지시켰다고 하였고, 「열전(列傳)」 47에는 우왕(禑王) 6년(1380)에 임금이 석전놀이를 관람하기를 원했다고 하였는데, 이 때는 모두 5월 단오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중기에 이르도록 석전은 단오 행사로 나온다. 『태종실록(太宗實錄)』 1년 5월 5일에 의하면, "국속(國俗)에 5월 5일에 넓은 가로(街路)에 크게 모여서 돌을 던져 서로 싸워서 승부를 겨루는 습속이 있는데, 이것을 '석전(石戰)'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 3년 5월 3일에는 "상왕(태종)이 병조참판 이명덕(李明德)을 보내어 석전할 사람 수백 명을 모집하여 좌우대(左右隊)로 나누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 때는 의금부에서 단오 석전놀이를 금하였는데 양녕대군(讓寧大君) 등 종친(宗親)들이 이 놀이를 관전(觀戰)하였을 뿐 아니라 독전(督戰)하였다고 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성종실록(成宗實錄)』 30권, 4년 5월 6일에 보면 성종 때도 역시 석전놀이를 금지시켰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는 곧 이 놀이가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행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종실록(明宗實錄)』 18권, 명종 10년(1555) 5월 27일에 왜변(倭變)이 일어났는데, 임금이 왜구를 진압할 방책을 의논하던 중 석전꾼[石戰軍]으로 김해(金海) 사람 100명을 뽑아 보낸 것처럼 안동(安東) 사람들을 뽑아 방어하게 하자는 대책이 나왔다.

조선 후기 이후 석전놀이는 단오 행사에서 정월 대보름행사로 옮겨졌다. 『영조실록(英祖實錄)』 117권, 47년 11월 18일에 임금이 평양(平壤)에서 상원일(上元日), 즉 정월 대보름에 벌이는 석전을 엄중히 금지하게 하고, 서울에서 단오에 벌이는 씨름과 원일(元日)에 벌이는 석전도 포청에 분부해서 못하게 할 것을 하교하였다.



석전 이서지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제재 속에서 석전놀이가 중지된 곳도 있고 그 규모도 광역의 단위에서 일부 마을 단위 행사로 축소되었다가 해방 이후 점차 사라졌다.

내용 일년 중 석전이 행해지던 시기는 대개 정월 대보름날 밤이고 다음 날인 16일에 행하는 지역도 있다. 김해 지역에서는 오월 단오(端午)에 행하는데, 이색(李穡)의 『목은선생문집(牧隱先生文集)』이나 『고려사』 신우조(辛禑條), 그리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명종(明宗) 때까지 석전이 단오행사의 하나로 나와 조선 후기 이후 단오 행사가 쇠퇴하면서 차차 정월 대보름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서울 주변에서 벌어진 석전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삼문(三門), 즉 남대문, 서대문 및 그 중간의 서소문 밖의 주민들과 아현(阿峴) 주민들이 떼를 이루어 편을 가른 다음 몽둥이를 들거나 돌을 던지며 고함을 치면서 달려들어 만리동 고개 위에서 접전하는 모양을 하는데, 이것을 편싸움[邊戰]이라고 하며 변두리로 도망가는 편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속설에 삼문밖 편이 이기면 경기 일대에 풍년이 들고 아현편이 이기면 팔도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용산과 마포에 사는 소년들 중에는 패를 지어 와서 아현편을 돕는다. 바야흐로 싸움이 한창 심해지면 고함소리가 땅을 흔들 정도가 되며 머리를 싸매고 서로 공격하는데 이마가 터지고 팔이 부러져 피를

보고도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가 죽거나 상처가 나도 후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을 보상하는 법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돌이 무서워 피하고, 금지시켜야 하는 관에서 특별히 이를 금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고질적인 악습이 되어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 성안의 아이들도 이를 본받아 종각 거리나 지금의 종로 3가에 있던 비파정(琵琶亭) 부근에서 편싸움을 하였고 성 밖에서는 만리현과 우수현(雨水峴, 즉 현재의 남대문 밖 도동 부근)에서 주로 편싸움을 하였다."고 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경북 안동 지방의 풍속 중에는 매년 정월 16일에 주민들이 읍내 복판을 흐르는 시내를 경계로 삼아 좌우로 나뉘어 서로 돌팔매질하며 싸워 승부를 결정했다.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풍속에도 정월 대보름날 돌팔매질하는 놀이가 있다.

의의 석전은 용맹스러운 우리 민족의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유래 깊은 민족 고유의 집단놀이이다. 전쟁 등 유사시에는 석전꾼들이 동원되어 큰 활약을 하였다. 놀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은 우환을 떨칠 수 있었고 한 해의 안녕과 풍년, 그리고 질병이 없기를 기원하였다.

인접국가사례 중국 대만성(臺灣省) 동항(東港) 일대의 한족들도 석전놀이를 하였는데 시기는 매년 5월 5일이었다. 청나라 광서(光緖) 연간에 가장 홍했고 지금은 희미해졌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明宗實錄, 牧隱先生文集, 成宗實錄, 隋書, 新增東國輿地勝覽, 英祖實錄, 拙翁集, 太宗實錄, 石戰考(孫晉泰, 朝鮮民族文化의 硏究, 乙酉文化史, 1948), 歲時關聯 記錄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歲時風俗의 變化(鄭勝謨, 역사민속학1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中國民族節日大全(高占祥 主編, 知識出版社, 1993).

필자 | 정승모(鄭勝謨)

송파다리밟기(松坡—)

정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전승되는 것으로 정월 대보름날 무동을 앞세우고 악기 연주와 선소리를 하며 다리를 밟는 민속놀이. 원래 '송파답교(松坡踏橋)놀이'였으나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명칭이 서울특별시 시도무형문화재 제3호 '송파다리밟기'로 바뀌었다.

유래 송파 지역의 다리밟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놀이로 변형되어 행해진 민속놀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송파다리밟기가 언제부터 놀이화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삼정승 육판서가 다리만 밟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무별감(歌舞別監)을 시켜 답교를 한 뒤 놀기 시작한 뒤부터라고 한다. 한편 예능보유자였던 고(故) 한유성의 증언에 따르면 언제부터인지 귀인들도 가마를 타고 이 날 거리로 나왔고, 태평성대에는 임금도 간단한 호위를 받으며 이 행사에 참가했는데, 그 날의 임금 행차를 재현한 것이 답교놀이의 유래라고 하여 한때는 왕의 가마와 상궁, 삼정승 육판서를 대동한 답교놀이도 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조사자료에 의하면 송파다리밟기를 놀던 곳에는 다리가 전혀 없고, 놀이를 하면서 다리를 밟고 왕래한 적도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놀이는 세시풍속의 다리밟기에서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영역을 완전히 이탈해서 민중의 오락적인 놀이로 변모되어 전승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유성의 증언에 따르면 대보름날 낮에 놀이패들이 무동을 앞세우고 집집마다 돌면서 술과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논다고 한다. 저녁에는 달집을 태우고 짚불놀이를 하면서 다리밟기를 하였다고 한다. 달이 떠오르면 달을 향해 빌면서 '다(달)님소원빌기'를 하였다.

내용 다리밟기 풍습은 전통적으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경향(京鄕) 각지에서 행해지던 세시풍속으로 한 해 동안의 액운을 방지하고 다리의 병을 예방하며 또한 무병하기를 기원하는 데 있다. 즉, 사람의 다리와 그 음이 같은 다리를 밟음으로써 다리의 병을 예방하고 그 밖의 잡병이나 재난 등을 일소하여 탈 없이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 이 놀이의 내용이다. 그러나 다리밟기와 답교놀이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다리밟기는 다리를 밟는 세시풍속이지만, 답교놀이는 다리밟기를 놀이로 행하는 민속놀이이다. 송파다리밟기의 등장인물은 상좌무동 1명 · 2층무동 4명 · 무동 4명 · 소무 4명 · 상좌 1명 · 왜장녀 1명 · 양반 1명 · 노장 1명 · 나쟁이(사령, 2명) · 집사 2명 · 별감 2명 · 등룡 4명 · 선소리 4명 · 제금 1명 · 장고 1명 · 쌍호적 2명 · 나각 2명

의 순서로 등장한다. 등장인원 중에는 영기 2명 · 황룡기 1명 등이 더 있다. 그리고 임금이 등장하던 배역에서는 가마꾼 4명 · 삼정승 3명 · 상궁 4명 등이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횃불을 나누어 주어 뒤따르게 한다.

놀이 형태는 처음에 용두기를 앞세우고 배역별로 2열로 늘어서서 길놀이를 하면서 마을로 돌아오고 마당춤판에 들어서면 한 바퀴를 돌고 2열로 굿거리 장단에 춤을 추며 자리 바꾸는 춤을 추다가 원을 만든 다음, 크게 둥근 형태, 2열 종렬, 1열 횡렬 등으로 벌려 서서 춤춘다. 나쟁이는 주위에서 몰려드는 군중들을 막고 정리도 하며 춤춘다. 특히 상좌는 2열 종렬(2열 병렬)의 무동(소무)을 어르고 춤추다가 두 손을 무동 어깨 위에 얹고 춤추며 위치를 교환시킨다.

이 놀이의 연희자들은 송파탈춤의 탈꾼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무용(소무)과 상좌무동은 여자 역으로 산대 탈춤 소무의 '자라춤사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상좌 역시 산대 탈춤에 있는 '한삼사위춤'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선소리 산타령으로 앞산타령 · 뒷산타령 · 자진산타령 · 개고리타령을 부르며 모든 춤꾼들이 배역별로 중앙에 등장하여 군무를 추고 빠진다.

다음에는 다리밟기를 행하는데 역시 용두기를 앞세우고 무동을 세워 모든 배역들이 2열로 열을 지어 다리를 왕복하며 다리밟기를 한다. 이 때 마을 사람들도 함께 뒤따른다. 다리 위에 서서 모두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향해 '다(달)님소원 빌기'를 한다. "다님 다님 비나이다. 올해에도 풍년들고 무병장수 비나이다." 하면서 달을 향해 두 손 모아 절을 하면서 간절한 소망을 빈다. 그리고 다시 마당춤판으로 돌아와 달집을 태우고 뒤풀이춤판을 벌인다.

송파다리밟기는 1989년에 서울시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유자로 한유성 · 김일록 · 한천복이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작고하고 선소리의 유근우가 새로운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지역사례 다리밟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답교놀이는 대개 특정지역에서만 전승되는데 강릉하평답교놀이, 안양만안답교놀이, 과천무동답교놀이, 수원답교놀이 그리고 청주 지역의 남석교답교놀이 등이 있다. 특히 서울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답교놀이가 특히 성행하고 있는데, 대체로 무동놀이와 선소리 산타령과 의례가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전승되고 있다.

의의 송파다리밟기는 세시풍속으로 전승되는 정월대보름 다리밟기에 그치지 않고, 무동놀이와 선소리와 취타대와 집사 · 별감 · 양반 등 여러 신분의 배역들이 등장하여 함께 어우러지는 민속춤과 민요 등의 예능적 요소가 가미되어 대동놀이로 발전한 민속놀이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芝峯類說, 답교놀이(金千興 外,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84, 文化財管理局, 1971), 萬安踏橋놀이(李炳玉, 安養文化院, 1987).

필자 | 이병옥(李炳玉)

송파답교놀이(松坡踏橋—)

☞ 송파다리밟기(松坡—)

수영들놀음(水營—)

☞ 수영야류(水營野遊)

수영야류(水營野遊)

정의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동에서 전승되는 민속탈놀이. '수영들놀음'이라고도 하는데,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었다. 동래와 부산진의 들놀음은 수영에서 분파되었다는 설이 있다. 야류는 또 야유(夜遊) · 야유(冶遊) · 야유(揶揄)로도 표기하는데, 공연 시각이나 풍자성에 근거하여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민간어원설에 의한 설명이다.

들놀음의 어원에 대해서는 '들'이 논바닥이나 마당과 같은 연희 장소를 가리키므로 들에서 노는 탈놀음이라는 주장과 들이 농경의 장소를 가리키며 들놀음이란 명칭은 농경의 장소인 들에서 행해지던 농경의례에서 유래한 이름이라는 주장이 있다.

유래 수영야류의 유래에 대해서는 초계 밤마리 오광대가 전래되어 형성시켰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일방적인 전파설을 비판하고 지신밟기와 산신제와 덧뵈기춤놀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토착적인 농경의례를 모태로 탈놀이가 이미 성립되었으며, 다만 유랑예인집단의 탈놀이 영향을 받아 정교하게 발전시켰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수영들놀음은 수영야류계가 주동이 되어 연희되다가 1930년대에 중단되었으며, 8·15 광복 직후 부활되었으나 다시 중단되었다. 그 후 1960년대에 들어 민속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던 때 수양반(首兩班)역을 놀았던 최한복과 말뚝이역을 놀았던 조두영 등의 구술과 증언을 토대로 재연되었으며, 그 결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수영고적민속보존협회가 전승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희자(기능보유자) 중 김용태(말뚝이·사자)·조복준(악사)·조덕주(탈 제작)는 작고하였고, 김달봉(영노)·윤수만(악사)·태덕수(수양반)·문장수(사자·셋째양반)·조홍복(영감)은 현재 활동하고 있다.

수영야류는 현재 독립적인 탈놀이로 연행되지만, 원래는 산신제의 맥락에서 형성되어 전승되었다. 공연 장소도 지금은 보존회관 앞마당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수영팔도시장의 장터였다.

내용 수영야류는 정월 3~4일 무렵부터 야류계가 주동이 되어 굿패를 편성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하고 걸립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수양반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 상쇠가 되어 성주풀이로 시작해서 조왕풀이, 장독풀이, 샘풀이, 마구간풀이, 고방풀이, 뒷간풀이를 차례로 하고, 대문풀이로 끝맺었다. 그리고 이 때 각 집에서는 대문 앞에 향불과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 돈이나 곡식을 내놓았는데, 술과 음식은 굿패가 먹고 돈이나 곡식은 들놀음의 경비에 조달했다. 수영의 지신밟기는 13일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한편으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탈을 정성껏 제작한 다음 탈제[假面祭]를 지내며 무사히 들놀음을 끝마치기를 빌었다.

이렇게 하여 경비와 탈과 의상, 도구 등의 준비가 완료되면 14일 밤에 원로들 앞에서 각자 연습한 연기를 심사받고서 배역을 확정하였다. 이를 시박[試匏]이라 했으며, 수양반과 말뚝이 역은 제일 어려워서 재담과 춤에 능숙한 사람이 맡을 수 있었다. 이 시박은 시연회 내지 총연습의 성격을 띠면서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요소를 억제하고, 전승적이고 유형적인 요소가 유지되는 데 이바지했다.

시박에서 배역이 확정되면 보름날 낮에 탈을 쓰고 의상을 갖추어 놀이꾼으로 분장한 수양반이 농악대를 데리고서 술·과일·포육(脯肉)을 차려 놓고 토신과 독신(纛神)을 -일설에는 산정머리 송씨 할매와 산신이라고도 한다- 모신 제당(祭堂)에서 당제를 지낸 후 먼물샘[遠水井]에 가서 용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최영 장군을 마을 수호신으로 모신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내는 동안 시장터 한가운데에 높은 장대를 세워 꼭대기에 기를 꽂고, 그 바로 아래에 용·봉황새·거북선·연꽃 모양의 큰 등을 매달았다. 그리고 사방으로 거미줄처럼 새끼줄을 치고서 200~300개의 작은 등을 여기저기 매달아 놀이판의 조명 시설을 갖추었으며, 장대를 중심으로 하여 원형으로 금줄을 치고서 금줄 안은 놀이판이 되고 금줄 밖은 관중석이 되게 했다. 놀이판 옆에는 소도구실 내지는 놀이꾼들의 분장실이나 대기실에 해당하는 개복청(改服廳)을 설치했다.

저녁이 되면 놀이패가 놀이판에서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먼물샘이나 강변에 모여서 길놀이의 준비를 한다. 그리고 등을 든 아이들이 맨 앞에 서고, 꽹과리(2~3명)·장고(4~5명)·소고(약 10명)·징(1명)·북(1~2명)으로 구성된 농악대, 길군악대, 기생들로 구성된 팔선녀, 사자나 당나귀, 소를 탄 수양반을 비롯한 여러 양반과 말뚝이, 난봉가대, 양산도대의 순서로 행렬을 이루고서 달이 뜨는 시각에 맞추어 출발하여 놀이판으로 갔다. 이것은 신맞이 행렬의 잔영으로 길을 밝히는 소등대(小燈隊)를 앞세우고, 악대의 인도에 따라 가무단을 거느리고 탈놀이패가 일정한 집결 장소에서 놀이판으로 이동하는 가장행렬이다.

행렬이 도착하면 등불과 모닥불로 대낮처럼 환한 놀이판에서는 농악대의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덧뵈기춤을 추며 난장판을 벌이는 일종의 집단적인 황홀경에 들어갔는데, 수영의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다른 마을에서 구경 온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신명풀이를 했으며, 즉흥적인 촌극을 연출하여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는 희극적 분위기였다. 이 때 야류계에서 미리 준비해 둔 종이고깔을 사서 쓰고 춤을 추어 공중의 새끼줄에 매단 등에서 떨어지는 촛농을 피했으며, 고깔을 판 돈은 들놀음 공연의 경비에 보태었다.

덧뵈기춤놀이를 술을 마셔가며 3~4시간 동안 벌





〈수영야류〉
1 길놀이
2 양반마당
3 영감 · 할미마당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동
문화재청

이다가 자정 무렵이 되면 기운도 빠지고 흥도 다하므로 부녀자와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본격적인 탈놀이가 양반마당 · 영노마당 · 영감 · 할미마당 · 사자마당의 순서로 연행되었다. 탈놀이가 끝나면 놀이패와 신명이 난 구경꾼이 어울려 다시 한바탕 춤을 추고 놀았다. 이어 놀이패는 탈을 벗어 한곳에 모아 놓고 고사를 지낸 다음 탈을 불태우면서 새해에는 액운이 없고,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빌었다.

탈놀이는 양반마당, 영노마당, 영감 · 할미마당, 사자마당으로 구성된다. 양반마당은 양반들이 하인 말뚝이를 호출하여 시중드는 일을 등한시한 잘못을 질책하면 말뚝이가 양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본댁에 가서 대부인과 통정한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양반들이 패가망신당하는 내용이다. 양반과 말뚝이가 '양반의 권위, 말뚝이의 도전, 양반의 응전, 말뚝이의 항복, 양반의 승리'로 진행되는 말싸움에 이어 춤을 추는 행동 양태를 반복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싸움굿과 화해굿에 뿌리를 두고서 대사를 통해 갈등을 표출시키고 춤을 통해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어적인 계급적 화해와 화해춤을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는 탈놀이 특유의 풍자 기법이다.

영노마당은 수양반을 상징적이고 가상적인 신수(神獸)인 영노가 잡아먹음으로써 양반계급을 타도하려는 민중의식을 표출시킨다. 영노와 양반이 힘겨루기에 앞서 지혜겨루기를 벌이지만, 양반이 참패하고 결국 영노에게 잡아먹히는 내용으로 양반의 신체적인 무력함과 함께 지적인 어리석음을 동시에 풍자한다.

영감 · 할미마당은 영감과 할미가 이별하였다가 재회하지만 작은 각시를 얻은 영감이 세 아들들을 할미가 죽게 만든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할미를 타살(打殺)한다. 영감 · 할미마당은 가부장제적 봉건사회에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수난상을 놀이화한 것이다. 아울러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할미를 통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른바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신년의례(新年儀禮)의 의미만이 아니라 낡은 생활, 낡은 질서, 낡은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생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꿈을 투사시킨 것이다.

사자마당에서는 사자가 담비를 잡아먹는데, 여기에는 민간신앙과 관련된 몇 가지 전설이 있다. 수영 동남쪽의 백산이 수영의 앞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상이 마치 사자가 마을을 등지고 달아나는 모양이므로 그 사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범을 제물로 바치는 놀이라고 하며,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형상인 백산의 사자신이 해안을 침범하는 왜적을 물리쳐 수영을 수호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 사자가 범을 잡아먹는 놀이를 한다고도 한다. 또한 수영 근처의 호암(虎巖)이란 바위가 있는 탓으로 호환이 심하다고 믿고 호랑이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자탈을 쓰고서 춤을 춘다고도 한다. 사자를 백산의 산신가면이나 악귀를 퇴치하는 벽사가면(辟邪假面)으로 생각하는 한 사자춤놀이는 주술 · 종교적 기능을 지닌 신성극 또는 제의극으로 오락적이고 세속적인 내용의 양반마당, 영노마당, 영감 · 할미마당과 구별된다.

인근의 동래야류가 수영야류에서 분파되었다고 하지만, 동래야류는 사자마당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대신 문둥이마당이 있다. 그리고 수영의 말뚝이탈은 양식적이지만 동래의 말뚝이탈은 사실적이고, 수영의 덧뵈기춤은 방어적이지만 동래의 춤사위는

포용적이며, 수영의 영노는 양반을 잡아먹는 상극 원리를 보이지만 동래의 영노는 양반과 화해하는 상생 원리를 보이는 식으로 동일한 들놀음 전승권에 속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지역적 특징을 보인다.

참고문헌 | 韓國의 民俗劇(沈雨晟 編著, 創作과批評社, 1975), 野遊 · 五廣大(강용권, 語文論叢8, 螢雪出版社, 1977), 韓國의 假面劇(李杜鉉 著, 一志社, 1979),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정상박, 집문당, 1986), 野遊 · 五廣大탈놀이(徐淵昊, 열화당, 1989), 영남지방의 洞祭와 탈놀이(박진태 외, 太學社, 1996), 水營傳統文化財(水營古蹟民俗藝術保存協會, 1997), 수영야류(정상박 외, 화산문화, 2001), 전환기의 탈놀이 접근법(박진태, 민속원, 2004).

필자 | 박진태(朴鎭泰)

안동놋다리밟기(安東—)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구 안동읍)에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밤에 행하는 여성의 집단놀이. 1985년 경상북도 시도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놋다리를 놋쇠처럼 굳은 다리 또는 동교(銅橋) 등으로 풀이하기도 하나, 안동에서는 정월 한 달을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달이란 뜻으로 노달기라 하고, 이 말에서 노는 달의 밟기 놀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기원 및 유래 안동에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이 노국공주와 함께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남쪽으로 파천할 때 문경 새재를 넘고 예천을 지나 안동 소야천(所夜川)에 이르러 보니 다리도 없고 나룻배도 없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날씨는 몹시 추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동의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달려와 물에 들어가서 허리를 구부려 인(人)다리를 지어서 왕의 일행을 무사히 건너게 했다. 그로부터 이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는 공민왕 일행이 안동에 파천하여 한 달 가량 머물렀는데 그 긴긴 날들의 무료를 달래기 위하여 안동의 부녀자들이 이 놀이와 노래를 지어 왕 앞에서 수시로 베푼 것이 놀이의 기원이라고도 한다.



놋다리밟기 이서지

기록으로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처음 보이는데, "안동 풍속에 마을 여자들이 늙고 약함을 가리지 않고 떼지어 밤에 성 밖으로 나가 물고기를 꿴 형상으로 전후로 길게 늘어 엎드린다. 한 어린 여자가 그 위를 걸어가는데 좌우에서 붙들어 준다(安東俗 村女老弱 成群 夜出城外 魚貫伏行 後前相續運亘不絶 令一幼女子 步行其上 左右扶掖……)."라고 적혀 있다. 안동놋다리밟기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193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는데, 한 예로 1935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송석하(宋錫夏)의 보고가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놀이는 안동에서 1910년 이후 중단되었고, 그 후 민간에서 소규모로 하는 애기놋다리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애기놋다리' 마저도 1940년대 이후에 행해지지 않다가 1960년대에 안동놋다리밟기는 다시 재현되어 197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함으로써 비로소 그 전모가 널리 알려졌다.

놀이 안동에서는 읍성 밖의 놋다리밟기와 읍성 안의 놋다리밟기 두 종류가 있다. 성안과 성밖에서 각기 두 패의 놋다리가 구성된다. 성밖 놋다리의 동부는 초당집에 모이고, 서부는 잿집에 모인다. 성안 놋다리의 동부는 관아 앞 광장에 모이고, 서부는 사뭇에 모여서 논다.

보름달이 떠오르면 성밖 서부의 부녀자들은 마당이 넓은 잿집에 모인다. 대개 70~80명 가량이 모이면 각기 손을 잡고 원형을 이루어 앉고, '둥둥데미' 노래를 합창하면서 선두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잡은 손을 타넘고 원형으로 돈다. 이 원은 홉사 지문(指紋)같이 겹겹으로 감긴다. 둥둥데미가 끝나면 곧 실감기노래를 합창하면서 손잡은 채 선두로부터 겹겹인 원 사이의 길을 찾아서 풀어 나간다. 이 실감기는 템포가 빨라 일행은 가락에 맞추어 뛰어서 돌게 된다. 겹겹으로 만들어진 원이 완전히 풀리면 곧 큰 원이 되는데 모두가 원 안쪽을 향하여 붙어 섰다가 허리를 구부리며 치마를 어깨 위까지 걷어 올려 덮

는다. 이는 저고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댁들·중년층·노년층이 원형을 둘러싸서 놋다리노래를 부르는데 한쪽에서 "어느윤에 놋다리로" 하고 문창하면 다른쪽에서 "청계산에 놋다릴세." 하며 답창한다. 구부린 등 위로는 부축하는 부녀의 손을 잡은 어린 공주가 천천히 등을 밟고 걸어나간다. 이것이 '웅굴(우물)놋다리'이다. 공주가 웅굴놋다리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놋다리의 선두가 원형을 풀어 신작로를 향하여 나간다. 곧 일렬형 줄놋다리가 되는 것이다. 줄놋다리는 목성교(木城橋)가 있는 서문둑을 향하여 나아간다. 선두에는 노래 잘하는 선창자 장년층 두 사람이 앞서고 구부린 부녀들, 즉 인(人)다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줄을 잇는다. 후창자들은 처녀, 새댁들, 중년층, 노인층의 순서로 공주 뒤쪽에 따르며 답창을 한다.

서부의 놋다리가 행진 끝에 서문둑 다리에 이르러 동부의 놋다리와 마주치면 꼬깨싸움이 벌어진다. 꼬깨싸움은 1910년대에 없어지고, 후로는 서로 비켜 가기도 하고, 합대하여 되돌아갔다고 한다. 이렇게 시가지 여러 길을 돌아 늦은 시간에 잿집으로 돌아간다.

성안놋다리는 원무형 놀이도 없고, 둥둥데미나 실감기도 없으며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일렬로 인다리를 구성하면 그 위로 소녀 공주가 밟고 건너는 줄놋다리뿐이다. 그 길이도 100미터 가량 진행하면 끝이 난다. 다만 노래 가사나 가락이 웅굴놋다리와 비슷할 뿐이다. 1985년 경상북도에서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안동놋다리밟기는 성밖에서 놀던 웅굴놋다리이다.

의의 놋다리밟기의 원무(圓舞) 형성의 상징성이나 노래 가사에 "기어디서 손이왔노, 경상도로 손이왔네, 무슨꼭개 싸여왔노……" 하며 멀리서 손이 와서 환대를 받는 상황이 있다. 이것은 놋다리밟기가 우리나라 고대의 내방자 환대 신앙(來訪者歡待信仰)에 바탕한 농경예축의례(農耕豫祝儀禮)에 연원했을 가능성을 추측케 하는데, 더구나 안동에 "놋다리밟기를 놀아야 풍년 든다."는 향언(鄕諺)이 전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정월 대보름날 밤 둥근 달 밑에서 생산성의 주인인 여성들만이 모여 논다는 의미는 농경에 대한 전통적 풍년예축(豊年豫祝)의 의례적 놀이에서 발달해 온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考(宋錫夏, 日新社, 1960), 安東地方 車戰·놋다리(任東權,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35, 文化財管理局, 1968), 安東 놋다리밟기에 대하여(成柄禧, 명륜춘추6, 안동교육대학 학생회, 1974), 安東놋다리밟기硏究(金宅圭 외, 新羅伽倻文化9 별책, 新羅伽倻文化硏究所, 1975), 安東民俗資料誌(安東郡, 1981), 安東놋다리(任東權,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152, 文化財管理局, 1982).

필자 | 성병희(成柄禧)

안동차전놀이(安東車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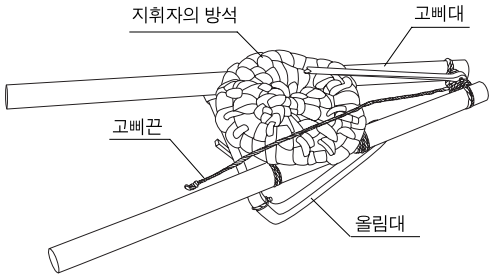
정의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전승되는 편싸움 형식의 대동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의 명칭은 안동차전놀이지만 안동 지역에서는 차전(車戰) 또는 동채싸움이라고 한다. 동채싸움이라는 이름은 나무로 만든 놀이기구가 동채(동태)인 데서 연유한다.

내용 동채싸움은 놀이기구인 동채의 형태와 놀이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재 문화재로 전승되고 있는 약식동채를 이용한 '째기동채싸움'으로,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나 읍외의 마을 사람들이 채택하였다. 또 하나는 정식동채를 이용한 '정(본)동채싸움'으로, 동채의 하부에 '올림대'라고 하는 바퀴 모양의 부속장치가 달려 있고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하는 읍치(邑治)의 놀이판에서 채택하였다. 이 형태의 동채싸움은 20세기 초에 전승이 단절되어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동채싸움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머리꾼'이라고 하는 수십 명의 전위대(前衛隊)들이 강한 몸싸움을 벌여 상대편의 진용을 흐트러뜨린 뒤 양편의 동채가 공중에서 맞부딪혀 먼저 땅에 떨어지는 쪽이 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놀이방식은 20세기 이후의 약식동채를 이용한 놀이에서 확인된 것으로 그 이전의 동채싸움에 대한 문헌들은 다른 양상의 놀이 방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채싸움은 원래 대보름에 연행하였지만 지금은 매년 10월 초에 벌어지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 연행하고 있다.

동채싸움에 관한 기록은 다른 대동놀이에 비해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08년에 편집이 완료된 권기(權紀)의 『화산지(花山誌)』이다. 이 책의 풍속조에 "차전은 석전과 같다. 동채를 서로 부딪혀 부서지는 쪽이 진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안동차전놀이에 사용된 동채



이 소략한 기사는 17세기의 동채싸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다. 먼저 "석전과 같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이 말은 차전과 석전이 같은 놀이라는 것이 아니라, 놀이의 시공간 · 참여집단 · 편구성 · 주술종교적 성격 등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매년 대보름에 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개울을 기준 삼아 좌우로 편을 가르고, 돌을 던지며 서로 싸워 승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년의 풍요를 점쳤다."고 석전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안동의 세시놀이로서 석전은 첫째, 매년 대보름에 행해진다. 둘째, 부내(府內)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셋째, 부의 가운데를 흐르는 내[川]를 중심으로 각 편(동부와 서부)을 구성한다. 넷째, 승패의 결과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점친다. 차전 역시 석전과 마찬가지였으므로 당시의 차전은 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치(府治)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내를 중심으로 좌우로 편을 구성하고 매년 대보름에 행했으며 점세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싸움의 방식이다. 당시의 차전은 각 편의 차가 접근전을 펼쳐서 먼저 부서지는 쪽이 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놀이기구를 맞닥뜨린다는 점에서 당시의 동채싸움은 오늘날의 것과 비슷하지만, 승부의 결정 방식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동채싸움이 공중에서 맞부딪혀서 내리눌러 승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비해 17세기에는 상대편의 동채와 격돌하기는 하되 그것은 누르기 위한 격돌이 아니라, 부수기 위한 격돌이다. 따라서 당시의 싸움 방식이 오늘날과 확연하게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중에서는 기구의 형태상 부서질 만큼의 격돌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상에서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18세기의 동채싸움이다. 이 시기에 안동 읍치(邑治) 동채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읍외(邑外) 지역인 임하면 금소리의 차전을 관찰하고 쓴 임만휘(林萬彙)의 '차전시(車戰詩)'를 통하여 추론이 가능할 따름이다. 그의 문집『만문유고(晩聞遺稿)』에 전하는 차전시 "벼락치듯 빠른 놀림 이길 틈 엿보며, 엎치락뒤치락 좋을 때 좋은 시비, 나갈 때나 물러설 때 하해를 물꼬튼 듯, 솟구쳐 오를 때엔 새매가 나는 듯, 한바탕 버마재비짓에 바람이 뒤따르고, 겹겹의 사람숲엔 달빛이 비추이네, 서북편이 이겼는가 개선소리 놀랍구나, 골골의 젊은 장정들 춤추며 돌아가네." 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금소의 동채싸움은 분명히 공중에서 동채를 이동시키며 싸움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람이 올러멘 동채는 공중에서 대단히 민첩한 기동력을 발휘하여 새매와 같이 움직이고, 각축을 벌이는 모습이 마치 버마재미가 싸우는 것 같았다. 이로 보아 적어도 18세기 말~19세기 초에는 읍외 지역의 차전이 이렇듯 공중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의 안동 읍치 동채싸움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초남 이계수(焦南李啓秀)의 '차전가(車戰歌)'가 있다. 총 70행에 이르는 칠언고시(七言古詩)인 이 자료는 19세기 전반의 동채싸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읍치 동채싸움은 읍외 지역의 구성원까지를 포괄하는 초대형의 차전으로 읍성 남문밖의 개활지에서 남녀노소가 운집한 가운데 관의 후원과 관심 속에서 펼쳐졌고 포상이 뒤따랐다. 놀이도구로는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동채와 마찬가지로 하부에 바퀴 또는 그에 준하는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수레에 근접한 형태의 도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놀이도구가 이러하므로 싸움의 방식도 약식동채를 이용해 공중전을 벌이는 오늘날의 차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지상전, 또는 지상전과 공중전이 혼합된 형태의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읍치 차전의 전반적인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읍외 지역에서 찾아드는 놀이꾼들을 맞이하는 우군맞이가 풍물을 잡히는 가운데 진행된다. 이 때 고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전이 벌어질

남문 밖의 놀이터로 모여든다. 아전들은 성문 근처의 전망이 좋은 곳에 장막을 치고 장막 안에는 지방관 또는 수리(首吏)를 비롯한 상급 아전들이 자리를 잡는다. 우군을 맞이한 놀이꾼들이 놀이터로 들어오고 징소리와 함께 차전을 시작한다. 먼저 동채 위에 아이가 올라타서 상대편과 다투며 기세를 올린다. 아이들의 싸움이 끝나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대장이 동채 위에 올라타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한다. 싸움에 나선 이들은 모두 상의를 벗어버린 맨몸뚱아리이다. 양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막상막하의 각축을 벌이면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한다. 이윽고 어느 한편의 머리꾼들이 육박전으로 상대 진영을 돌파하고 이어 승기를 잡은 본대(本隊)가 몰려와 격전 끝에 수레를 빼앗아 부숴버림으로써 승부를 결정한다. 이긴 편은 동채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개선가를 부르고 상대편을 조롱한다. 잠시 후 징소리가 울려 싸움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고 이긴 편에게 푸짐한 포상이 따른다. 포상의 주체는 지방관 또는 수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상을 받은 뒤, 이긴 편은 읍치의 길을 누비면서 길놀이를 전개한다. 차전이 끝난 시간은 석양 무렵이다. 점심 식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시작한 시간은 점심을 들고 난 뒤의 이른 오후 어느 때쯤으로 보인다.

변화양식 전통사회에서 이와 같은 양상으로 전승되었던 동채싸움은 20세기에 이르러 몇 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첫 번째의 변화는 일제의 탄압으로 동채싸움의 연행이 중단됨으로써 정동채싸움은 막을 내리고 약식으로 만든 소규모의 동채를 이용한 싸움만이 전승되었다는 점이다. 1922년 안동에 거주하던 일본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소규모의 째기동채싸움이 벌어졌다. 이 싸움이 워낙 격렬하게 진행되고 마침내 투석전으로까지 번져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일제는 이를 이유로 동채싸움의 연행을 엄금하였다. 지역민들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행을 허락하지 않던 일제는 1936년 음력 2월 말 경북선 철도의 개통에 즈음하여 한 편의 참여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동채싸움을 허가하였다. 인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참여하여 전개한 이 싸움은 동채가 등장하기도 전에 앞머리꾼들의 싸움이 벌어져 몇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막을 내렸다.

그 이후 읍외의 북후면 옹천리와 임하면 금소리 등에서 째기동채싸움의 형태로 가끔씩 연행되었던 동채싸움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승이 단절되었다. 그러던 것이 1966년 안동중학교 개교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던 교사(권정수 · 강창원)들이 나중에 초대 기능보유자가 된 김명한의 도움을 받아 약식 동채싸움을 복원함으로써 동채싸움은 새로운 전승의 국면을 맞게 된다. 이후 1967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다음 해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마침내 1969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복원 · 전승되는 과정에서 동채싸움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우선 정동채를 이용한 싸움은 인명 피해의 위험 부담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이 싸움은 머리꾼들이 격렬한 싸움을 전개하여 상대편의 동채를 완력으로 부수어버리거나, 상대편의 동채 위에 자기편의 동채를 얹은 뒤 사람들이 함께 내리눌러서 승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육박전이 불가피한 관계로 부상자의 발생은 필연적이었다. 1966년 복원 당시 안동중학생들이 놀이꾼으로 참여하였고, 다음 해부터는 안동고등학생들이 차전의 주체가 됨으로써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기는 어려웠다. 또한 기념행사 · 민속경연대회 등의 참가를 목적으로 공연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화려한 싸움의 과정이 요구되었다. 정동채는 화려한 공중전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가능한 째기동채가 채택될 수밖에



동채싸움
경북 안동시 문화재청

없었으며, 놀이의 방식도 양편의 동채를 마주 걸어서 공중으로 수차례 솟구쳐 오르고 회전하다가 상대편의 동채를 내리눌러 땅에 먼저 닿는 쪽이 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청소년들 또는 읍외의 웅천·금소 등지에서 행해진 째기동채를 이용한 싸움도 마주 걸어서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따위의 움직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 지정을 전후해서 나타난 화려한 공중전은 새로운 동채싸움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晩聞遺稿, 花山誌, 외바퀴 수레[獨輪車]싸움 硏究(金善豊, 韓國民俗學19, 民俗學會, 1986), 安東 車戰의 역사와 類似놀이에 대한 검토(한양명, 민속학연구5,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한양명(韓陽明)

엽전치기(葉錢—)

☞ 돈치기

영광줄다리기(靈光—)

정의 정월 대보름에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행하는 줄다리기. 영광 줄다리기는 전남 지역에서 많이 행해지는 전형적인 외줄다리기이다.

내용 전남의 도서 지역과 영광 등지에서는 주로 외줄다리기가 행해지는데, 이러한 줄다리기는 단독으로 행해지기보다는 당산제와 같은 마을공동제의의 일부분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당산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례행위로 볼 수 있다.

영광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안에서 남녀가 편을 갈라서 혹은 마을과 마을 단위로 줄다리기를 해서 승부를 낸 뒤 당산나무나 입석(立石)에 줄을 감아 둔다. 남녀로 편을 갈라서 줄다리기를 행할 때는 여자 편이 이겨야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하여 남자 편에서 일부러 져주기도 한다. 한편 마을 단위로 할 때는 진 마을에 흉년이 들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려고 한다. 따라서 싸움이 커질 때도 있다.

영광군에서 행해지는 외줄다리기의 진행 방식을 보자면,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은 마을마다 크기가 다른데 굵은 밧줄은 지름이 1미터에 길이가 200미터짜리도 있다. 줄의 중간 지점은 잘 보이게 빨간 천을 묶어서 중앙선을 표시한다. 광장 중앙에 늘어놓은 줄을 양 팀이 꽉 붙잡고 앉은 다음 신호에 맞춰 일제히 일어나 줄을 당긴다. 줄을 당길 때 줄다리기 민요가락을 부르기도 하고, "영차, 영차, 영차, 이영차."와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서 힘껏 당겨야 한다. 끌려간 팀이 지는데, 빨간 헝겊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위치에 따라 승부를 판정한다. 한 차례로 승부를 결정지을 때도 있으나, 대체로 3판을 겨루는 것이 보통이다. 줄다리기가 끝난 후 줄은 마을 앞 당산나무나 돌(입석)에 또아리지게 감아 놓는다. 입석이나 당산나무에 줄을 감아 둠으로써 일년 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모두 끝난다.

지역사례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영당마을과 운암마을 간에 줄다리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짚을 한 뭇씩 가지고 나와 줄을 만든다. 이 지역에서는 줄을 만드는 것을 줄디린다고 하는데, 영위(靈位)가 있는 집은 짚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줄다리기의 줄은 세 가닥으로 꼰 다음 하나의 줄로 합친 외줄이다. 줄이 완성되면 꽹과리를 치며 줄을 어깨에 메고 동네를 한 바퀴 돈 다음, 남녀가 편을 나누어 줄을 잡아당긴다. 여자편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남자편이 이기면 돈이 생긴


1


2

〈영광줄다리기〉
1 줄다리기
2 당산제
전남 영광군 염산면 축동리 황현만

다고 한다. 줄다리기가 끝난 후, 수살(입석)에 줄을 감는데 이것을 '옷입힌다.' 고 한다. 감아둔 줄은 이듬해 정월에 새 줄을 입힐 때 태운다. 불갑면 모악리 사산마을에서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바위와 당산에 정월 대보름이면 줄을 만들어 남녀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가 모두 끝나면 바위와 당산에 줄을 감으면서 주민의 안녕과 평안, 풍년을 기원한다. 모악리 압수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 큰 바위가 있어 음력 정월 대보름이면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 다음, 바위에 감고 제(祭)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

참고문헌 | 남도민속학 개설(지춘상 외, 태학사, 1998), 靈光郡誌(靈光郡, 1998), 전남지역 세시풍속의 특징과 분포(이경엽, 목포어문학2,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
필자 | 박순호(朴順浩)

영산쇠머리대기(靈山—)

정의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에서 쇠머리란 도구를 가 . 196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영산면에서는 동부 마을과 서부 마을로 나누어서 서까래를 엮고 새끼로 묶어 쇠머리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었다. 이를 마을의 힘센 젊은이들이 메고 공터에서 서로 부딪히게 하여 부서지거나 땅에 먼저 내려앉는 쪽이 싸움에 진 것으로 판정했는데, 이를 '쇠머리대기' 라 했다. 이 놀이는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어원 및 이칭 쇠머리대기란 쇠머리처럼 생긴 목조조형물들을 서로 부딪치며 노는 놀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 명칭이 고정되기 전에는 '나무소싸움' 이란 명칭을 써 왔다. 일제강점기 때 발간되었던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는 '목마경쟁(木馬競爭, 목마싸움)' 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1960년대에는 목우희(木牛戱) 혹은 목우전(木牛戰)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쇠싸움 · 소나무싸움 등으로 일정한 이름 없이 불러오다가 1969년 이 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부터 쇠머리대기란 이름으로 고정되었다.

유래 이 놀이의 유래에는 몇 가지 이설이 있다. 첫째, 영산의 뒷산이 마치 성난 황소 두 마리가 서로 마주 보고 싸울 듯한 기세로 서 있는데, 이 산들의 모습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다. 이 설을 '산살설(山煞說, 山殺說)' 이라 하는데, 산에 살기(煞氣)가 서렸다는 의미 혹은 산들끼리 살기(殺氣)를 뻗치고 있다는 뜻에서 이런 말이 생겼다는 것이다. 영산의 진산인 영축산(靈築山, 靈鷲山)과 그 옆에 마주 서 있는 작약산(勺藥山, 현지 사람들은 함박산으로 많이 부른다.)이 서로 겨루는 형상이어서 여기서 내뿜는 살기를 풀어 주어야 고을이 편안하다는 고로(古老)들의 말에 따라 나무로 얽은 쇠머리를 만들어 싸움을 붙였다는 것이다. 둘째, 옛날 이 고을 동헌의 앉은 방향이 축좌(丑座)여서 소가 억눌림을 당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살(地煞, 地殺)을 풀어주지 않으면 소가 잘 되지 않고, 따라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를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나무로 소를 만들어 싸움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살설(地煞說, 地殺說)이다. 셋째, '이싸움놀이' 에서 파생되어 생성되었다는 설이다. 영산 줄당기기의 기능보유자 조성국(曺星國)에 의하면, '이싸움' 이란 영산에서 오래 전부터 행해 오던 '골목줄싸움놀이' 라 한다. 이 놀이를 할 때 젊은이들이 줄의 머리 아래에 서까래를 받쳐 메고 나와서 상대방의 줄과 부딪힌 데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설이다. 그 밖에 조선시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쇠머리를 만들어 메고, 높은 성문이나 성벽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훈련에서 시작되었다는 설과 목우(牧牛)를 장려하기 위하여 쇠머리를 만들어 논 것이 대동놀이로 확대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이 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문헌의 기록이 없어서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내용 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낮에 영산의 교리 마을 앞 논벌에서 시행되었다. 이 장소에서 실시한 근거를 조성국의 『영산 줄다리기 쇠머리대기』에서는 교리 앞의 논벌은 영산의 진산인 영축산과 함박산이 마주쳐서 그 골짜기의 물이 흘러내리는 부분에 위치하여 두 산의 기운을 받는 지점이고 또 그 자리에서 두 산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장소여서 두 산의 살을 풀어 줄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쇠머리대기가 실시되는 때에는 영산 주민들만 참



영산쇠머리대기
경남 창녕군 영산면 김대벽

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놀이 구경도 하고, 음식을 사먹고, 막걸리도 마시며 축제의 기분을 만끽한다.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의 놀이로 행하여 오던 것을 1961년부터 3·1절에 행하게 되었다. 이 고장이 기미 3·1 독립운동 때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므로 조상들이 피 흘려 싸웠던 애국적인 장거를 기념하기 위해 '3·1 민속문화제'를 열고, 이 때 호국 영령에게 제사지내기, 영산의 고유 민속놀이인 쇠머리대기, 줄당기기, 서낭대싸움놀이, 진잡이놀이, 문호장굿놀이 등을 모두 행하기로 했다.

쇠머리대기를 하려면 쇠머리를 만들어야 한다. 쇠머리를 만드는 데에는 서까래와 새끼줄이 필요하다. 길이 4~5미터, 지름 10~15센티미터 되는 소나무 서까래 30~40개가 필요하다. 쇠머리의 앞부분 기단이 되는 나무는 지름이 약 30센티미터에 길이가 4미터 정도 되는 굵은 나무를 쓴다. 이 나무는 쇠머리 전체를 지탱하는 받침대 구실을 하면서 상대와 부딪칠 때는 강력한 공격용의 선봉인 동시에 상대방 공격을 저지하는 버팀목 구실을 한다. 이 기단목의 길이가 짧거나 굵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볼품없는 쇠머리가 되고 그 기능도 잘 해내지 못하고 만다.

옛날에 쇠머리를 만들기 위해 산에 벌목하러 갈 때면 풍물잡이들을 앞세우고 가서 간단히 고사를 지냈다. 요즘은 함부로 입산할 수도 없고 벌목 허가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나무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옛날에는 반드시 생소나무를 사용하여 쇠머리를 만드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새로 베어온 나무여야 신성감이 있고, 맞부딪혔을 때 탄력성도 있어서 위험성이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생나무를 벌목할 수 없으므로 지난 해에 썼던 나무들을 모아 두었다가 다음 해에 쓰기도 한다.

쇠머리를 만드는 시기는 쇠머리대기 행사를 하는 하루 전날, 동부는 영산 시장 북편의 공터에서 만들고, 서부는 연지 못이 있는 서리 동사무소 앞마당에서 만든다. 옛날에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만들었고, 요즘은 양력으로 3월 1일 행사를 치르므로 2월 28일에 만든다. 쇠머리를 만드는 작업은 손질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단히 고사를 지낸 후 막걸리를 마셔가며 빠르게 일을 한다. 쇠머리의 뼈대가 되는 나무를 얽어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까래에다 일일이 새끼를 감아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든다. 격돌할 때 완충작용을 하여 사람이 다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만들었던 당시의 쇠머리 크기는 대략 폭 4미터, 길이 5미터, 높이 3.5미터였고, 무게는 1.5톤 정도였다. 쇠머리가 만들어지면 양 진영에서는 몇 명의 장정들이 쇠머리를 둘러싸고 지킨다. 혹 누가 나쁜 생각으로 쇠머리를 훼손한다든지 부정 탈 일을 하면 재수가 없어 승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결전의 날이 밝으면 양쪽 진영에서는 풍물패를 앞세우고 풍악을 신나게 울리며 동네를 돈다. 쇠머리대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뜻도 되지만, 초장부터 기세를 높여 승리를 하겠다는 의도에서이다. 각 진영의 대표가 되는 힘센 장정이 서낭대를 앞세우고 소장(小將)·중장(中將)·대장(大將)의 집으로 간다. 이들은 서낭대 앞으로 와서 술을 붓고 경건히 절을 올린다. 오늘의 승리를 다짐하는 뜻에서이다. 그리고 대장집에서는 음식을 내어 장정들을 먹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낭대와 풍물패를 앞세우고 쇠머리가 버티고 있는 마을의 광장으로 간다.

쇠머리 앞에는 벌써 고사 제물이 준비되어 있다. 주과포혜에다 고기와 생선, 그리고 큼직한 떡시루가 통째로 놓여 있고 돼지머리도 있다. 촛불을 켜 놓고 세 대장이 나란히 서서 경건하게 고사를 올린다.

축문을 읽고, 오늘의 결전에 반드시 이기게 해 달라고, 출전하는 장정들이 다치지 않게 보살펴 달라고 간청을 올린다. 그리고 마을이 무병하고 안과태평하며, 농사가 잘 되어 올해도 근심걱정 없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사가 끝나면 50여 명의 장정들이 바지저고리 차림에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매고 쇠머리를 멘다. 쇠머리 앞에 대장과 중장, 소장이 올라타고 그들은 은빛 나는 긴 칼을 쳐들고 사기를 돋운다. 출전할 때는 쇠머리의 앞에 행진할 차례대로 기수들이 도열한다. 쇠머리대기를 하기 전에 서낭대 싸움과 진잡이 놀이를 먼저 시킨다. 이들 놀이는 쇠머리대기의 전초전으로 사기를 돋우고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데에 한몫을 한다.

이윽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쇠머리가 출전한다. 양편의 쇠머리는 각 진영 풍물패의 뒤를 따라 광장을 몇 바퀴 돌면서 기세 싸움을 하고, 관중들은 서로 자기편이 이기라고 목청을 다하여 응원을 한다. 이때 쇠머리꾼들은 상대방을 야유하기 위한 노래를 주고받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앞의 가사는 메김 소리이고, 뒤의 가사는 받는 소리이다.

오왜 증산아, 오왜 증산아. 얼시구 절시구. 오왜 증산아. 붙어 보자 붙어보자. 오왜 증산아. 동(서)부는 안 될끼다, 오왜 증산아. 서(동)부는 사대부라, 오왜 증산아. 동(서)부는 물개똥, 오왜 증산아. 동(서)부 쇠머리 물개똥, 오왜 증산아. 서(동)부 쇠머리 꽃이 핀다, 오왜 증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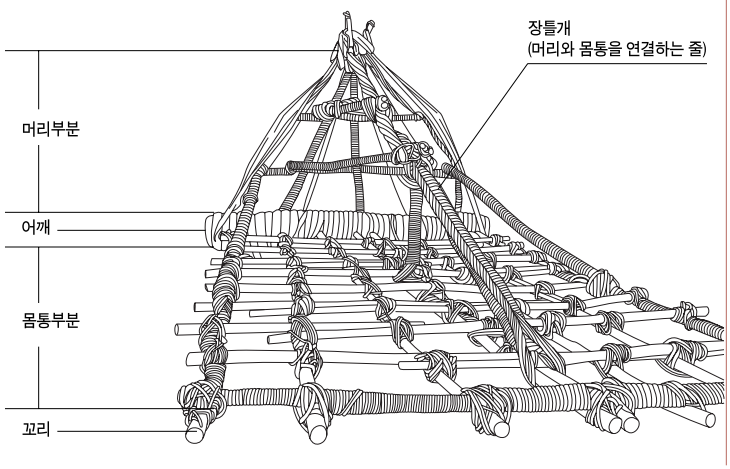
이렇게 외쳐대며 광장을 몇 바퀴 돌면서 붙을 듯, 붙을 듯하다가 용하게 비켜간다.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쥔다. 풍물소리는 격렬하게 울려 퍼진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도 한껏 높다. 각 진영의 쇠머리 위에 타고 지휘하는 대장들은 연신 칼을 흔들어 대며 지휘를 한다. 그러나 거대한 쇠머리는 잘 움직여 주지 않는다. 이윽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고, 한 쪽 쇠머리가 기울어진다. 이긴 쪽의 대장들이 진 쪽의 쇠머리로 건너가서 타고 더욱 눌러 댄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이다. 쇠머리가 밀려나거나 넘어지거나 먼저 지상에 닿게 되는 쪽이 진다.

이 지역 고로들의 말에 의하면 40~50년 전에 만들었던 쇠머리는 지금 크기의 두 배는 되었다 한다. 그래서 그 때는 쇠머리를 메는 사람의 수도 한쪽에 약 100명 정도는 되었다. 지금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던 때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고 있는데, 그 때보다 몸체의 길이가 약간 길어졌다. 그래서 보기도 좋을 뿐 아니라 안정감이 있어 공격을 당해도 쉽게 밀리지 않으므로 잘 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이 좀 줄어든 것이다.

의의 영산의 쇠머리대기는 영산에서만 놀았던 놀이이다. 쇠머리란 거대한 나무로 된 조형물을 만들어 동 · 서부 마을이 격돌하는 경기로서 지역민의 관심이 대단하다. 이런 놀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집단적인 재미를 맛보고, 주민끼리 화합 단결하며, 그 해의 풍농을 기원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일에 임할 수 있도록 활력소를 충전하는 계기로 삼았다. 쇠머리는 안동의 차전놀이에서 사용하는 동채보다 크기 때문에 놀이에 사용하는 기구도 우리나라 민속놀이에서는 가장 큰 것이다. 따라서 이 조형물이 부딪쳐서 넘어질 때는 위험성도 크다. 그러나 아직 인명 피해는 한 번도 없었다. 나무에 일일이 새끼줄을 감아 위험성을 줄이고,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 놀이를 행할 때는 쇠머리를 메는 쇠머리꾼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응원하고, 막걸리를 마시고 국밥도 먹으면서 즐기고 논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곳 사람들은 놀이의 결판이 나기 전까지는 동 · 서부로 갈려 적대감을 격렬히 보이기는 하나, 일단 승부가 결정되면 화합의 마당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주민 모두가 공동체임을 확인한다. 쇠머리대기는 안동의 차전놀이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차전놀이는 '동채' 라는 수레를 만들어 사

영산쇠머리



용하고, 쇠머리대기는 나무를 얽어 쇠머리를 만들어 싸움을 붙이는 것이 다르다.

참고문헌 | 靈山 줄다리기 쇠머리대기(曹星國, 素民苑, 1978), 韓國民俗大觀5 -民俗藝術 · 生業技術-(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2), 韓國 民俗의 原形(裵挑植, 集文堂, 1995),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著, 朝鮮總督府, 1941).
필자 | 배도식(裵桃植)

영산줄다리기(靈山—)

정의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에서 행하는 줄다리기.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영산에서는 줄다리기를 줄땡기기로 불러 왔고, 갈전(葛戰)이라는 한자말도 있었다고 한다. 갈전이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영남에서 칡덩굴로 줄을 만들어 당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영산줄다리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찾기 어렵다. 다만 영산은 줄다리기의 분포 빈도가 가장 높은 영호남 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니, 한국 줄다리기의 시초와 그 기원을 함께 해 왔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내용 줄의 제작과 크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모든 규격은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조사 수치이며 1960년대 이래로 '3 · 1 문화제'에서는 대체로 이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각 동네에서 줄을 꼬아 두었다가 결전 전날 동서부가 각기 동네 줄을 모아서 큰길에 30가닥을 80미터 길이로 길게 펴고 물과 소금을 뿌려서 단단하게 한다. 이것을 새끼줄로 엮고 둥글게 만 다음 반을 접어서 한 줄로 만든다.(길이 40미터, 60가닥으로 둘레 155센티미터 내외) 이 때 목줄은 타원형으로 구부린다.(암목줄 길이 6미터, 숫목줄 길이 5미터) 암수 목줄에 끼우는 목나무는 길이 260센티미터, 지름 25센티미터이다. 다음에 벗줄은 40~50가닥을 준비했다가 진잡이를 할 때 몸줄 밑으로 한번 감고 위로 빼어서 양쪽에서 당기게 한다.(길이 5미터, 둘레 25센티미터 내외) 꽁지줄도 진잡이 때에 60가닥의 끝줄을 풀어서 부채살처럼 편다.(길이 20~30미터) 편제는 영산면 마을들을 동서부로 나누고, 면외는 대구 · 마산간 도로를 경계로 동서 구분을 한다. 진행은 면내 이장 중심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장을 선출하여 사령부가










〈영산줄다리기〉
1 줄꼬기
2 줄펼치기
3 굵은줄 만들기
4 줄운반
5 암줄과 숫줄의 합궁
6 줄다리기
7 줄다리기 후 줄의 일부를 베어감
8 지붕에 얹혀진 줄조각
경남 창녕군 영산면 황헌만

생기면서 본격화된다. 추진위원회는 7·8일전에 대장·중장·소장들을 선출한다. 당일 오전에 서낭대를 선두로 농악대들, 무수한 깃발들과 줄이 뒤를 따르고, 군중이 다시 그 뒤로 길을 메운다. 양줄이 결전장에 도착하면 줄머리를 경계로 진잡이가 시작된다. 진잡이는 줄다리기 전에 양편이 서로 기세를 올리는 전초전이고, 이것이 제일 장관을 이룬다. 고조된 농악 속에 양군 행렬이 운동장을 돌다가 피차 거리가 좁아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하여 욕설과 주먹질, 발길질이 오가며, 깃발로 상대방을 내려치고 순식간에 패싸움으로 번진다. 결전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시작된다. 먼저 암숫줄 고리에 통나무를 끼워야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거의 어두워진 뒤에야 줄이 걸렸다는 신호가 오고 긴장 속에 총성이 울리면 "위야차!" 하는 함성과 함께 피어오르는 먼지가 하늘을 덮는다. 그리고 10여 분 만에 끝이 난다. 줄다리기에 관한 속신으로 이기는 편에 풍년이 온다든가 여자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등의 전승은 영산의 줄다리기 경우에도 같다. 다만 완성된 줄을 여자가 넘으면 아들을 낳는다든가, 그러면 진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지킨다. 특히 암숫줄 고리를 끼울 때의 성행위 의식은 뚜렷했다. 또 이긴 편의 줄을 지붕에 두면 집안이 잘된다든가 소 먹이에 매우 좋다는 속신들이 있었다.

변화 영산줄다리기의 변화도 적지는 않다. 첫째로 1964년 이후 대보름에서 3·1 문화제 행사로 날짜가 바뀌는 근원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 정초 어린이들 골목줄다리기부터 시작해서 대보름의 어른들 줄다리기까지 여러 날 행했으며, 어른 줄다리기는 당기다가 쉬며 곰방대도 피워가며 밤늦게야 끝났던 것이 지금은 정작 당기는 시간은 10여 분 내외로 줄었다. 장소도 무제한 넓던 논보리밭이 다 양파 재배로 없어지고 제일 넓다는 영산중학교 교정으로 이동했는데, 이 장소 이동은 영산 줄다리기의 결정적인 축소 요인이 되었다. 한쪽 줄 길이가 40미터로 제한되니 거의 옛날 150미터의 1/4로 줄면서 굵기도 몸줄 115가닥이 30가닥으로 줄어들었다. 참여 인원도 현저히 감소했다. 옛날 줄다리기의 압권은 줄다리기보다 그 전초전인 진잡이였다. 대장·중장·소장들이 비호같이 말을 몰고 적진에 달려드는 공격과 수비는 손에 땀을 쥐는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장군들이 소를 타고 칼춤을 추니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이다.

참고문헌 | 靈山地方의 나무쇠싸움, 줄다리기(金光彦 外, 民俗資料調査報告書12, 文化財管理局, 1968), 줄다리기에 대하여(張籌根, 韓國文化人類學1, 韓國文化人類學會, 1968).

필자 | 장주근(張籌根)

외바퀴수레싸움[猥輪車—]

⇨ 춘천차전놀이(春川車戰—)

용마놀이(龍馬—)

정의 전라북도 남원에서 정월 대보름날 한 해의 풍흉을 점치고 마을의 재앙을 누르기 위해 행해진 놀이. 용마희(龍馬戱)·용마전(龍馬戰)이라고도 부른다.

변천 및 현황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어느 시기부터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1950년대에 남원 지역 초등학교의 운동회 종목으로 부활·유지되었다. 그 후 복원되어 1970년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였으나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놀이는 사장되지 않고 초등학교 운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남원문화원의 추진으로 1985년 다시 발굴·복원되어, 1986년 남원춘향제에 소개되면서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춘향제 길놀이 행사로 가끔 재현되고 있다.

내용 남원의 읍지인 『용성지(龍城誌)』에 유일하게 기록이 전하는데, 남원을 고룡군(古龍郡)이라고 불렀던 백제시대까지 놀이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대보름 전에 남과 북의 두 대열로 나누어 각각 큰 용마를 만들고, 용마에 용의 문양을 그려 오색(五色)으로 채색하여 놀이를 준비한다. 그 후 외바퀴수레에 해당하는 독윤거(獨輪車)에 용마를 실어 거리를 돌고, 대진(對陣)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의 놀이를 행한다. 승부를 겨루어 남쪽이 이기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이 들고, 북쪽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현재의 용마놀이는 이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복원되었고 남(南)은 황룡(黃龍), 북(北)은 청룡(靑龍)으로 용의 구분이 뚜렷해졌다. 두 용마가 싸울 때 한 쪽의 장수가 용마에서 떨어지거나 용마가 파괴되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패한다.

〈용마놀이〉
1 황룡
2 청룡
전북 남원시 이석홍





의의 용마놀이는 남원 고유의 민속놀이로 용과 관련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은 지역 축제인 춘향제를 통해서만 볼 수 있으나,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농경의례의 성격을 지니며, 놀이를 위해 남원 사람들이 대거 동원되었던바 지역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龍城誌(남원문화원, 1995).
필자 | 이명진(李明珍)

용마희(龍馬戱)

☞ 용마놀이(龍馬—)

용인용줄다리기(龍仁—)

정의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산정동에 대보름의 놀이로 전승되는 줄다리기. 산정동 마을 뒤 용당에 암 · 수 한 쌍의 줄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용줄이라 부른다.

유래 이 놀이가 언제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놀이와 함께 보존되던 깃발에 갑자년이란 표기가 있고, 2004년 당시 생존한 100세 노인의 "소싯적부터 줄다리기를 했다."는 증언으로 보아 200여 년으로 추정된다. 전승되는 바에 의하면 봉무리 주변 12개 마을의 두레 농악대와 주민들이 산정동 줄다리기에 참석했다고 한다. 당시 줄의 굵기는 1.6미터, 길이는 7미터였고 한참 성행했을 때는 3일간이나 줄을 당겼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늠할 만하다. 한국전쟁 당시 정월 대보름에서 2월로 미룬 외에는 한번도 거른 일이 없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이를 수호신으로 여기며, 협동 정신 고취와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 전승하고 있다.

내용 이 놀이를 시작하기 위하여 용당에서 제를 올리고 이엉을 벗긴다. 그리고 농악대가 흥을 돋우며 앞장서면 뒤를 따라 용줄이 이동하는데, 숫줄이 앞서고 암줄이 뒤를 따른다. 줄다리기에 앞서 숫줄과 암줄을 나란히 놓고 보수를 하는데, 마을의 여인들이 용줄을 타고 넘어가는 일은 금하며, 출산한 여인은 출산일로부터 3일, 초상난 집 사람은 일주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보수가 끝나면 합궁식을 하고 줄을 당기는데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승부가 끝난 다음에 용줄을 용당에 보관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구성과 내용 용줄다리기의 모든 행사는 마을 공동으로 주관한다. 마을의 수호신이 발원했음을 알리는 농악대가 흥을 돋우며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액을 몰아내고 추렴을 한다. 용줄다리기는 여덟 마당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① 용줄내리기: 용당에서 용줄을 내리기 전에 간단한 제례의식을 행한 후 이동한다.

② 용줄보수: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해 보수한다. 이 때 쓰이는 새끼는 반드시 왼새끼여야 한다.

③ 횃불놀이: 마을 사람들은 대보름날 봉배산 정상에 모인다. 각자 준비한 볏짚으로 자기 나이만큼 매듭을 짓듯 묶고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달이 떠오르면 짚대를 높이 들어 크게 절하며 각자의 소원을 빈다. 현재는 마을 큰 마당에서 화톳불을 피워 놓고 달을 맞이하는 형식만 갖추고 있다.

④ 우물고사: 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르면 농악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큰 마당으로 모인다. 이어 우물고사를 지내는데, 상을 차려 놓고 우물을 향하여 "뚫려라! 뚫려라! 물아, 콸콸 솟아라!" 하고 소리를 크게 외친다.

⑤ 용줄고사: 다시 용줄 있는 곳으로 모여 고사 상을

차려 놓고 각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 후 안주와 술을 마신다. 이어 농악대가 흥을 돋우어 최고조에 달하면 줄을 당길 준비가 된 것이다.

⑥ 용줄다리기: 미혼남녀와 부녀자는 암줄을, 기혼남자는 숫줄을 잡는다. 농악대를 선두로 하여 암줄은 마을 위에서 아래로, 숫줄은 마을 아래에서 위로 마을을 돈다. 마을 돌기가 끝나면 숫줄은 큰 마당 동쪽에 서고 암줄은 서쪽에서 마주보게 된다. 이어서 서로 용두를 치켜들고 암줄이 숫줄을 향하여 세 번 절하면, 숫줄은 한 번 반절하여 답례를 한다. 숫줄이 암줄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며 덤벼들면 암줄은 "우~" 하며 뒤로 물러섰다가 숫줄을 향하여 돌진한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며 합궁하는 순간, 재빠르게 비녀를 끼워 고정시킨다. 이 때 모든 사람들은 암수가 결합하였음을 기뻐하며 축하의 환호성이 터진다. 합궁한 용줄은 비녀와 일직선으로 중심선을 그어 3판 2승으로 승부를 가린다. 이 때 암줄이 이기면 벼가 서 말, 숫줄이 이기면 보리가 서 말이라 하지만 항상 암줄이 승자가 된다. 승자를 확인한 후 마을 사람들은 "올해도 풍년이네, 풍년이네." 하며 더덩실 춤을 추며 기뻐한다. 그리고 용줄은 용당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고, 마을 사람들은 화합과 단결을 확인하며 밤늦도록 흥겨운 잔치가 계속된다.

⑦ 용줄쌓기: 날이 밝으면 원래대로 용줄을 쌓는다. 바닥은 밤나무로 깔고 암줄을 타래 짓듯 감아올리면 그 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긴다. 여기에 숫줄의 용두를 놓고 둥글게 쌓아 빈 공간에 꼬리를 넣어 암줄과 숫줄이 교합한 상태로 보관한다. 이는 곧 마을의 번창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며 마을을 수호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용줄 쌓기가 끝나면 다시 이엉을 덮고 간단한 제를 지낸다.

⑧ 뒷놀이: 용줄다리기가 끝나면 마을의 큰 마당에서는 윷놀이가 진행된다.

의의 마을 사람들은 이 용줄을 마을의 수호신이라 믿고 있다. 도시화되어 가는 추세에 이 놀이를 통하여 일년에 한 번 모두 한자리에 모여 친목도모와 공동체임을 다진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줄다리기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마침 우환이 생겨 그 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이 놀이의 부당성을 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주변의 넓은 장소에서 시연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마을의 수호신인 용줄을 외부로 내보낼 수 없다는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단순한 놀이라기보다는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농경의례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장주근, 대한기독교서회, 197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龍丘文化(龍仁文化院, 1987), 용인 남부지역의 구비전승(박종수, 태학사, 1998), 山亭洞 줄다리기에 대하여(박종수, 人文社會論叢5, 龍仁大學校 人文社會科學硏究所, 2000).

필자 | 박종수(朴鍾洙)

용호놀이(龍虎—)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했던 줄싸움놀이. 경상남도 시도무형문화재 제2호이다.

유래 무안(武安)은 밀양시의 서북쪽에 위치한 면소재지인데, 조선시대에는 수안(水安)이라 불렀다. 마을 앞으로 시내가 흘러가기 때문에 물안마을이라 하여 수안이라 했다가 일제강점기 때 동명을 개칭하면서 무안이라 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짚이 많았다. 그래서 짚으로 줄을 꼬아 용호놀이를 해 왔다. 약 500여 년 전부터 이 놀이를 해 왔다는데, 처음부터 용호상박전(龍虎相搏戰)을 했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줄당기기를 하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상박의 싸움으로 변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무안의 용호놀이는 풍수사상과 연관되어 이야기된다. 무안마을을 둘러싼 동쪽의 진등산(進登山)과 서쪽의 질부산(秩夫山)을 풍수사상에 따라 좌청룡우백호(左靑龍右白虎)로 보는데, 두 산의 청룡과 백호가 마주보고 대결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형상으로 놀이를 꾸미고 이것을 용호(龍虎)놀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놀이는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1962년에 재현되었다.

내용 짚으로 줄을 만들고 줄 머리의 밑에 서까래로 받침대를 가로 질러서 장정들이 메고 상대방과 격돌하는데, 이 때 상대방의 줄 머리에 꽂아 둔 기(旗)를 먼저 빼앗아 오면 이긴다. 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낮에 무안마을 앞 논벌에서 하는데, 서부군과 동

〈용호놀이〉
1 싸움마당
2 화동마당
경남 밀양시 무안면 용호놀이보존회


1


2

부군으로 나누어 격렬하게 경쟁을 한다. 이 때는 마을 사람들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한다.

용호놀이는 앞놀이 · 용호놀이 · 뒷놀이로 나뉜다.

① 앞놀이: 보름 며칠 전부터 놀이패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지신밟기를 해주고 경비를 모은다. 그리고 보름날 오전에는 용호놀이에 참여하는 군사들과 오방신장, 그리고 가장행렬패들이 모여 용(龍)줄과 호(虎)줄을 메고 거리를 행진한다. 이는 놀이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사기를 돋우는 의미도 있다.

② 본놀이: 먼저 앞마당으로 동 · 서 양군이 각각 자기 진에 들어서서 전열을 가다듬는다. 뒤를 이어 놀림마당을 노는데, 서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욕하며 농악패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어 부름마당, 싸우자고 상대방을 부르는 마당이다. 계속되는 비는마당에서는 필승을 다짐하며 제물을 차려놓고 하늘에 빈다. 고천(告天)마당이라고도 한다. 마침내 싸움마당으로, 용호상박(龍虎相搏)의 격돌을 하는 마당이다. 마지막으로 화동마당, 싸움이 끝나고 양편이 화동하여 농악을 울리며 노는 마당이다.

③ 뒷놀이: 음력 정월 열엿샛날 큰 줄당기기를 하고, 판굿놀이를 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은 뒷놀이를 하지 않는다.

용호놀이에 사용할 줄을 만드는 방법은 줄다리기 때와 같으나, 그 위에 대장이 타고 접전할 때 상대방의 기를 빼앗아 오는 것으로 승패를 가린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와 유사한 놀이로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의 고싸움놀이가 있는데, 이 놀이도 줄을 당기지 않고 서로 격돌하여 밀려나거나 무너지는 쪽이 진다. 옛날에는 줄말고도 따로 종이나 천으로 청룡과 백호를 만들어 놀기도 했고, 용호의 가면이나 목우(木偶)를 만들어 줄 위에 태워 놀았던 적도 있다.

의의 용호놀이는 풍수사상과 관계가 있으며, 용신(龍神)과 호신(虎神)을 숭배했던 민간신앙과도 관계가 있다. 용은 농사에 필요한 비를 주는 신이력이 있고, 호랑이는 벽사의 기능이 있다고 믿었다. 순박한 농민들이 농사가 잘 되고, 벽사를 바라는 신앙에서 이런 놀이를 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武安 龍虎놀이 硏究(裵桃植, 韓國民俗學16, 韓國民俗學會, 1983), 韓國民俗의 現場(裵桃植, 集文堂, 1993).
필자 | 배도식(裵桃植)

월월이청청

정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던 여성집단놀이. 마을의 처녀들과 새댁들이 손에 손을 잡고 노래 부르며 노는 원무(圓舞)로서 포항과 경주에서도 놀아온 흔적이 있다. 이 놀이는 정월 이외에 2월, 3월, 4월, 8월 보름밤에 행해지기도 한다.

유래 임진왜란 때 왜장 가토(加藤淸正)가 지나간 곳이라 하여 월월이청정(越越而淸正)이라 쓰기도 하고, 밝은 달밤에 해맑은 여성들이 논다 하여 월월이청청(月月而淸淸)이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는 전설의 의역사화(擬歷史化)이며 우리 문화의 지나친 한자화 현상의 하나로 보인다. 원래의 뿌리는 고대사회의 달[月]과 여성의 생생력(生生力)을 바탕으로 하는 예축의례(豫祝儀禮)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것이 오랜 세월 전승되는 사이에 주술 종교적 성격을 띤 놀이로 정착되고,

거기에 생활 현상이 가미된 놀이가 덧붙여져서 전해 내려온 것이라 하겠다.

내용 정월 대보름날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처녀와 새댁들이 마당 넓은 집으로 모여 손과 손을 이어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 이 때 앞장 선 앞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뒤따르는 부녀자들이 후렴인 월월이청청을 외친다. 처음에는 느린 가락으로 길게 뽑으며 천천히 돌다가 흥이 차츰 고조되면 점점 빠른 가락으로 변하면서 춤도 빠르게 변한다. 춤의 형식은 왼발 · 오른발을 교대로 옮겨가며 원(圓)을 도는데 이 놀이를 도는 도중엔 절대로 원을 좁히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동네의 마당이 큰 집을 두루 돌아다니며 놀이를 한다.

놀이와 춤으로 구성되는 이 군무(群舞)는 보통 월월이청청이라 하나 토연노래 · 생가락지 등 일정한 가락을 가지고 있는 노래춤이다. 또 이 놀이 사이사이에 달람세 · 재밟기 · 대문열기 · 송아지떼기(청어따기) · 절구세 등이 월월이청청에 합성되기도 한다. 형식은 중중모리 · 자진모리 노래의 가락에 맞추어, 일렬 종대의 행렬무(行列舞)에서 원무(圓舞)의 대형으로 변화를 주면서 발딛음 · 빠른 외발 겹쳐 뛰기 · 손잡기 등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례는 다음과 같다.

앞소리꾼이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 들고 서로 손을 잡고 원형이 되며 가볍게 발딛음을 하면서 손을 흔들고 뒷소리를 하며 돌아간다. 이 때 부르는 노래는 '토연토연 김토연아' 이다. 한참을 돌다가 이 노래가 끝나면 양손을 흔들며 가볍고 빠른 걸음의 외발겹쳐뛰기를 하면서 원무를 계속한다. 그러면서 선후창의 노래인 '생금생금 생가락지' 노래를 한다. 이 노래 외에도 같은 가락의 '선부선부 서울선부' 라는 가사로 부르기도 한다. 노래가 끝나면 곧 '달람세' 곡으로 바뀐다. 달람세는 달넘세의 사투리이다. 이 놀이의 형태는 앉아서 하는 것과 서서 하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앞사람이 다음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이 잡은 손의 사이를 건너 나가면 그 다음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나가는 것이다. 이 놀이가 끝나면 '제바제바' 노래로 바뀌며 대형도 변한다. 제바는 '제비야' 라는 뜻이다. 두 패로 나뉘어서 횡대로 서서 멀리 마주 보고, 한 패는 양손을 잡고 그 자리에 앉고, 또 한 패는 손을 잡은 채 빠른 걸음의 외발겹쳐뛰기로 앉은 패에 다가가서 손잡은 곳을 뛰어 넘고, 손을 놓고는 제자리에서 각자 뒤로 돌아 다시 양손을 잡고는 제자리에 앉는다. 한편 앉은 패는 손을 잡은 채 일어서서 다른 패 자리를 향하여 빠른 걸음으로 외발겹쳐뛰기로 전진하여 손을 놓고, 제자리에서 각자 뒤로 돌아 다시 손을 잡는다. 이렇게 각 패가 번갈아 교대하며 반복한다. 그리고는 곧 '절구세' 노래로 바뀌면서 삼진삼퇴(三進三退)하는 놀이로 변한다. 한 패가 손을 잡고 느린 걸음 외발뛰기를 교체해 가면서 전진하면 다른 패는 후퇴한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선후창한다.

이 놀이가 끝나면 곧 대문열기로 바뀐다. 대문열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두 손을 맞잡아 대문을 만들고 그 밑을 통과하는 방식과 일렬 종대로 늘어선 부녀자들이 두 팔을 어깨 높이로 활짝 벌리면 줄의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겨드랑이 밑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이 때 대문열기노래를 교환창한다. 이 놀이가 끝나면 산지띠기로 넘어가는데 산지는 송아지의 사투리이며 띠기는 떼기의 사투리이다. 전원이 앞사람의 허리를 붙들고 늘어서 있으면 술래가 꼬리를 따는 놀이이다. 이 때에도 '산지띠기' 노래



월월이청청(원무)
경북 영덕군 영덕읍 김상현



를 재창한다. 이 놀이가 끝나면 재밟기놀이가 시작된다. 재는 지애의 준말이며 지애는 기와의 사투리이다. 놀이꾼이 허리를 굽혀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긴 줄놋다리를 이루면 한 사람이 양쪽에 부축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천천히 등을 밟고 지나가는 이른바 줄놋다리밟기이다. 이 놀이도 앞소리꾼 7~8명이 앞소리를 매기면 뒷소리꾼이 받는 문답창이다.

의의 놀이의 연행을 주도한 이들은 젊은 부인들과 시집갈 나이의 처녀들이며 장·노년층의 부녀자들은 이들의 놀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후원하였다. 또한 유·소년층의 여자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이패를 만들어 즐기면서 자연스레 놀이를 배워나갔다. 월월이청청을 놀아야 풍년이 들고 마을에 탈이 없다는 향언(鄕諺)은 오랫동안 전해 오는 영덕 사람들의 일종의 신조이다.

이 놀이는 1940년대까지 놀아오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된 것을 1980년대 초부터 재현하였고 현재는 영덕 지역 부녀자들로 구성된 월월이청청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참고문헌 | 풍요 다산을 예축하는 월월이청청(성병희, 전통문화6, 전통문화사, 1985), 영덕 월월이청청(성병희, 경북예악지, 慶尙北道, 1989), 영덕지방의 노래춤(정병호,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110, 文化財管理局, 1989).
필자 | 성병희(成柄禧)

의령큰줄댕기기(宜寧—)

정의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정월 대보름날 행하는 줄다리기. 경상남도 시도무형문화재 제20호이다. 줄댕기기는 줄다리기에 대한 이 지방 방언에서 연유한 놀이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마을단위 줄다리기의 하나이다.

유래 의령큰줄댕기기는 애초 촌(村)·동(洞)·리(里)·면(面) 등의 소지역 단위로 행해졌던 고유 민속놀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의령이 신번현과 통합되고 독자적인 현감이 설치된 뒤 대한제국 초기인 1800년 경부터 고을 행사가 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내용 의령큰줄댕기기는 매년 섣달 보름부터 약 한 달 가량을 준비하여 정월 대보름에 행한다. 의령 현감의 관아를 중심으로 편을 가르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양편이 서로의 전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특히 승부의 관건이 되는 줄을 상대편의 해악이나 부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네댓 명의 장정이 몽둥이를 들고 밤낮으로 지키기도 한다. 의령큰줄댕기기에 사용되는 줄은 암줄과 숫줄로 쌍줄이며, 놀이 명칭에서 드러나듯, 줄을 만드는 데에 볏짚이 400~500여 동이 드는 거대한 규모를 보인다. 그 규모는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구성 의령큰줄댕기기는 편가르기, 편제, 줄 만들기, 고걸기와 비녀꽂이, 줄댕기기, 뒤풀이 순서로 행해진다.

① 편가르기: 편가르기에서는 가구 수나 인구 수 등에 구애 없이 현감의 관아를 중심으로 동편(물아래·청룡·암줄)과 서편(물위·백호·숫줄)으로 나뉜다. 이 때 특이한 것은 안태본(安胎本, 태중에 있을 때부터의 본관, 곧 조상 때부터의 고향을 말하는데 보통 태본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위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줄을 당길 때는 어릴 때 살았던 물아래 편에 서게 된다. 이러한 엄격한 관습 때문에 부자간·고부간·내외간에도 편이 갈라져 근 달포 동안 어색한 관계가 되는 예도 있었다. 지금은 의령군청 정문에서 남산으로 통하는 큰길을 기준으로 서북쪽이 물위 편이고 동남쪽 지역이 물아래 편이 된다.

② 편제: 옛날에는 양편에 큰 모개비[某甲, 모가비], 작은 모개비, 도유사, 유사, 소임 등의 계통조직이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임란의병의 군사편제를 본떠 정비하였다. 양편에는 각각 행사에 따른 자문을 하는 원로 4~5명, 총책임자인 두령(頭領) 1명, 영장(領將)과 도총(都總) 각 1명, 전의(典儀), 선봉(先鋒), 독전(督戰), 전향(典餉), 수병(收兵) 등 5개 부서별 장수 한 사람씩 그리고 비장(裨將)을 각 부별로 4~5

명씩 둔다. 그리고 양편에서 천거한 판정관 4~5명을 두어서 분쟁을 조절하고 승부를 판정하게 한다.

③ 줄만들기: 섣달 보름부터 마을마다 짚단을 자발적인 공출을 통해 모으기 시작한다. 설을 지내면 동사마당 또는 동구 밖 동천에서 왼새끼를 꼬아 만든다. 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우선 큰줄과 곁줄을 만들기 위해 작은줄을 만든다. 6~7명이 한 조가 되어 만드는데, 직경 10~12센티미터, 길이 90~100미터에 달한다. 작은줄은 마을별로 며칠 동안 보관했다가 큰줄을 마는 장소까지 운반한다. 작은줄을 엮어 길이 125~130미터 정도의 큰줄을 마는데, 머리 부분은 작은 줄이 수백 가닥이 들어가고 중간은 백 가닥 정도, 끄트머리는 20가닥 안팎이 된다. 큰줄의 고를 만들 때 암줄은 머리를 크게 만들고 숫줄은 쉽게 들어가도록 작게 만든다. 거대한 큰줄을 당기기 위해 양쪽으로 30미터 길이의 지네 발모양의 곁줄을 80~100개 가량 단다. 큰줄의 끝 부분은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풀어서 아녀자나 아이들이 당기도록 꽁지줄을 만든다. 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수 백 개의 다리가 달린 거대한 용이나 신기한 괴물처럼 보인다.

④ 고걸기와 비녀꽂이: 암줄과 숫줄이 완성되면 쌍줄을 연결하기 위한 고걸기와 비녀꽂이를 한다. 조금 작은 숫줄고를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세우고, 암줄고는 숫줄고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법 높게 들어올려 놓는다. 줄을 당기기 전에 고를 꽂고, 껍질을 벗겨 다듬은 3~4미터의 생소나무 비녀목으로 연결하는데 이 장면은 여성상위의 성희를 나타낸다. 이때 "고 걸었다.", "잘 박았다.", "참쌀궁합이다." 등의 짓궂은 고함소리가 나온다. 고걸기에서 암줄과 수줄의 고 크기가 맞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 때는 대개 암줄측의 불찰로 간주하며 2월 초하룻날 고쳐서 다시 승부를 가리게 된다.

⑤ 줄댕기기: 징이 네 번 울리면 수백 수천의 군중이 곁줄을 잡고 당긴다. 아녀자들은 치마폭에 돌을 싸서 매달리는 등 남녀노소가 최선을 다하지만 줄이 너무 커서 승부는 나지 않는다. 암줄이 이기면 우순풍조하여 들녘에 물이 들지 않아서 대풍년이 들고, 숫줄이 이기면 역시 시화연풍이라 가뭄이 들지 않고 사철농사가 고루 풍작을 이룬다는 속신이 있어서 서로 이겼다고 우기기도 한다.

⑥ 뒤풀이: 줄댕기기는 거의 승부가 나지 않아 서로 이겼다고 생각한다. 줄댕기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곁줄을 끊어 가서 문지방이나 대문간에 걸어 재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고자 하는데 여념이 없다. 또 양편에서는 흰 상여를 만들어 두령이 상여채에 올라타고 그 뒤에 상주 행색을 한 사람들이 따르며 서로 상대편 마을을 돈다. 이 때 "물아래 놈들 다 죽었네." 혹은 "물우에 놈들 다 죽었네." 하는 등 서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소리를 한다. 양편의 상여가 만나 서로 상여를 부수고 불태우는 난장판이 벌어진다. 이로써 놀이는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놀이판을 벌인다.

의의 의령큰줄댕기기는 옛날에는 주로 골짝끼리, 땀(뜸)이나 마을끼리, 산고개의 이쪽저쪽끼리 또는 도랑(시내, 강)을 경계로 한 소규모의 놀이가 지방제도 정비 및 행정 구역의 통폐합을 거치면서 대규모의 고을 행사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군사 조직을 본뜬 복잡한 편제가 마련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줄이 만들어지는 등의 특색을 보인다. 한 달 정도 되는 놀이기간 동안 양편은 줄만들기 · 줄지키기 · 줄댕기기에 최선을 다해 승부를 겨룬다. 그러나 줄이 워낙 거대한 탓에 승부는 애초부터 가리기 힘들며, 따라서 원래의 관심은 성희상징을 통한 풍농의 기원, 흰 상여놀이를 통한 난장(亂場)이 만들어 내는 신명과 응집력을 재확인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경남지역의 줄다리기 놀이에 관하여(박성석, 慶南文化硏究18,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硏究所, 1996), 경상남도의 민속예술(경상남도, 1998).

필자 | 박성석(朴性錫)

의성기와밟기(義城—)

정의 경상북도 의성에서 행해지는 정월 대보름의 민속놀이. 의성기와밟기는 남촌과 북촌이 대치되어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등 상당히 전투적이다. 그래서 꽃게싸움이라고도 하는데 꽃게는 어깨 위에 태운 공주를 말한다. 기와밟기라는 놀이 이름은 기와를 밟고 가는 것 같은 놀이방식에서 붙여졌다고 볼 수 있다. 안동의 놋다리밟기, 전라도에서는 지와밟기 그 밖의 지방에서는 지네밟기 · 재밟기 등으로도

불린다. 놀이의 형태와 시기가 안동의 놋다리밟기와 비슷하면서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래 옛날 왕과 공주가 난리를 만나 피난 왔을 때 하천을 건너게 되어 마을 소녀들이 나와 등을 굽히고 그 위를 공주가 밟고 건너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고려 말 홍건적의 난 때 공민왕이 공주를 데리고 안동으로 피난을 온 일에서 유래하였다는 안동놋다리밟기와 유사한 내용이다. 다만 의성기와밟기 기원설에는 구체적인 시기와 인물이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놋다리밟기와 기와밟기는 원래는 같은 놀이였는데 전파 과정에서 다른 명칭이 생기고 놀이의 방법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내용 의성기와밟기는 유다리[鎰橋]라고 불리는 석교(石橋)를 기준으로 해서 남 · 북촌 부인들이 두 패로 나뉘어 행한다. 줄잇기나 공주가 등 위를 걷는 놀이 등은 안동의 놋다리밟기와 같으며 노래 내용 역시 비슷하다. 그러나 의성에서는 남성들이 풍물을 치면서 홍을 돋아주고 남촌과 북촌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이는 안동과 다른 점이다.

행렬 맨 앞에는 건장한 여자들이 나서서 네 사람이 우물 정(井)자로 잡고 기둥을 만든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운 처녀가 공주 노릇을 하는데, 환성과 더불어 건장한 여자가 공주와 바뀌어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나선다. 먼저 공주를 '가꽃게'라 하고 바꾸어 태운 여장부를 '진꽃게'라 한다. 꽃게싸움이란 이름은 이러한 놀이 형태에 맞춰 붙여진 것이다.

쌍방의 진꽃게는 저고리 위에 남자 조끼를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매고 무장을 한다. 그들은 기둥을 탄 채 서로 당기고 머리채를 쥐며 기마전같이 용감하게 싸운다. 진꽃게가 기둥에서 떨어지거나 기둥 자체가 쓰러지거나 해서 땅에 닿는 편이 진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기와밟기(任東權, 韓國의 民俗藝術,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78),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필자 | 김명자(金明子)

익산기세배(益山旗歲拜)

정의 정월 대보름에 이웃하는 마을 간의 농기(農旗)끼리 세배를 올리는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놀이.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2호이다.

내용 기세배는 두레패나 농기 성립의 역사 또는 마을의 위세에 따라서 형님 마을과 아우 마을을 정하고, 해마다 정초에 인접한 여러 마을이 풍물패를 대동하고 함께 모여 굿판을 벌이면서 서열에 따라 차례로 세배를 올리는 놀이이다. 한편 기싸움은 농기 사이의 싸움이지만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농기를 갖고 있는 두레패 사이의 싸움이라고 봐야한다. 농기 사이의 서열에 불만을 품은 마을에서 세배를 거부할 경우 두 마을의 두레패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이 싸움은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싸움으로서 어느 한쪽이 상대 진영을 돌파하여 농기를 넘어뜨리거나 부러뜨려 승부가 결정된다. 싸움에서 진 쪽은 이긴 쪽을 형님 마을로 모시고 기세배에 응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기싸움은 기세배에 속한 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익산 지역에서 기세배로 이름난 지역은 함라면의 함열과 금마면 일대이다. 먼저 함열의 기세배와 기싸움을 보자. 정월 열나흗날 기싸움을 앞두고 각 마을은 농기에 대한 고사를 올린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각 마을의 장정들은 농기를 앞세워 호위하고 흥겨운 농악을 울리며 해마다 모이는 장소인 냇가 모래밭으로 나아간다. 전 해의 농사가 잘 되어 마을의 형편이 좋은 해에는 기생이나 광대를 사서 곱게 단장시켜 장정의 어깨에 올려 세워 농기의 길을 트기도 한다. 또한 농기를 들고 가는 장정은 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기놀이를 펼쳐 흥을 돋우기도 한다.

이 놀이에는 수동, 교동, 천남, 행동의 네 개 마을이 참여한다. 수동은 객사가 있는 곳으로 이 마을의 농기는 가장 어른 행세를 하였다. 형님기인 수동기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 다른 마을의 농기들은 도착하는 대로 이 수동기에게 격식을 갖추어 기세배를 드린다. 한편 향교가 있는 교동의 농기는 수동기의 옆자리를 차지하고서는 천남과 행동의 농기에게서 세배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천남과 행동의 기는 이에 응하지 않고, 교동기의 깃대가 다른 동에서 후가(後家)살이를 온 것이라고 트집을 잡으며 오히려 먼저 세배를 올리라고 소리를 지른다. 여기에서 기싸움이 비롯된다. 각 마을의 장정들은 서로 상대방의 기세배를 재촉하다가 완력을 휘둘러 싸움이 시작된다. 이 싸움에서 어느 한 구역의 농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깃대마저 부러지고 만다.

다음으로 금마의 기세배이다. 원래 이 놀이는 금마면 일대의 12개 마을이 참가하여 연행하였지만 지금은 6개 마을만 참여하고, 놀이의 내용도 일정한 연출의 과정을 거쳐 세련되게 만들었다. 놀이의 내용은 이러하다.

정월 열나흗날 밤에 각 마을에서는 각기 당산에 농기를 세워 놓고 당산제를 올린다. 이 때 풍물이 함께하며 두레패의 좌상이 제주가 된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 일찍 용기를 선두로 마을기, 풍물패, 좌상, 무동 등의 순으로 행렬을 이루어 기세배 장소로 모인다. 길을 걸어가는 중에는 길굿을 치고 모두 다 모이면 커다란 원형을 이루어 인사굿을 친다. 인사굿이 끝난 뒤에는 큰형 마을인 상대마을을 비롯한 각 마을이 한바탕 놀이판을 벌인다. 마을별 놀이판이 끝나면 풍물패의 잡색들은 주안상을 준비한다. 이어서 형님이 되는 세 마을과 아우가 되는 세 마을이 마주보고 기세배를 진행한다. 이 때 풍물은 주로 자진모리를 친다.

기세배가 끝나면 농기를 중심에 두고 모든 마을이 멍석말이 대형을 짜서 오방진과 동살풀이를 치며 논다. 한참을 놀다가 농기가 밖으로 나오면 풍물패들은 무동놀이 · 상쇠놀이 · 설장고놀이 · 소고놀이 · 농기돌리기 등의 장기를 펼치며 한바탕 어우러진다. 장기를 펼치는 마당을 마무리하면 풍년굿 놀이를 펼친다. 농기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고 풍물패는 농기를 둘러싸며 잡색은 그 주위를 감싸 원진을 이룬다. 이 때 풍물은 주로 굿거리와 자진모리를 치며 농부가를 부른다. 마지막으로 멍석말이 대형을 만든 뒤에 인사굿을 하고 놀이를 마친다.

참고문헌 | 전라북도의 민속예술(전라북도, 1997), 문경 기세배의 놀이문화적 위상(한양명, 문경 모산굴 기세배, 문경시, 2000).

필자 | 한양명(韓陽明)

줄다리기

정의 정월 대보름에 줄을 당겨 승부를 겨루던 대동놀이. 줄다리기는 지역에 따라 줄당기기 · 줄땡기기 · 줄싸움 · 줄쌈 · 게줄쌈 · 귀줄싸움 · 동줄다리기와 같은 여러 이름이 존재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제주도의 줄다리기를 조리희(照里戱)라 하였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도삭(綯索) · 갈전(葛戰) · 조리지희(照里之戱)와 같이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리 기록되었다. 특이한 것은 조선 영조 때의 울산 읍지인 『학성지(鶴城誌)』에는 마두희(馬頭戱)라 하여 중국 당나라의 발하희(拔河戱)를 본뜬 것이라 밝히고 있다. 요약하면 줄다리기가 전국적 용어라는 설도 있으나 서울 · 경기 지역의 언어가 표준어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경기 지역 방언이었던 줄다리기가 현재의 보통명사로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줄쌈하는 모양 김준근(모사도)

유래 민속의 구전적(口傳的) 특성상 이러한 관습 시행의 정확한 연대 추정은 가능하지 않다. 단지 그 관행이 고서에 기록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지역에 따라서는 신라(경북 자인) 혹은 백제(김제 입석) 때부터라는 구전이 존재하여 고래로 존재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약 400여 년 전(충남 기지시), 약 300여 년 전(포항 · 광명), 약 200년 전부터 해왔다(청도 화양)는 등 다양한 구전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 줄다리기는 촌락사회에서 전래하는 마을 단위 혹은 여러 마을 단위의 세시(歲時)행사로서 두 편으로 나뉜 집단이 줄을 당겨 승패를 가르는 집단적 놀이행사를 통하여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의례적 성격을 가진 관습이며,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분포하나 남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정월 대보름에 시행된다.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날 성인들의 행사에 앞서 아이들의 줄다리기가 선행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즉 설이 지나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 어른들의 줄다리기를 모방하여 편을 짜고 골목길에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를 '고삿줄다리기'(장흥) 혹은 '골목줄당기기'(화양)라 한다. 아이들의 줄다리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레 성인들의 줄다리기로 이어진다. 줄다리기의 행사는 동서로 편을 갈라 시행한다. 마을 단위의 경우 특정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기도 하고, 여러 마을을 성내(城內)와 성밖 혹은 특정한 도로나 내[川]를 경계로 하여 동서의 편을 가른다. 동편은 숫줄을 당기는 남성편이 되고, 서편은 암줄의 여성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줄다리기는 세시풍속으로 매년 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윤년이나 혹은 지역에 흉사가 이어지는 시기에 행하는 위기의례의 성격도 가진다.

줄다리기 행사가 결정되면 양편은 각각 조직화되는데 조직 상부는 대장(편장 ·줄패장)과 중장(中將), 소장(小將)으로 구성되고, 애기장군이 추가되는 경우(화양)도 있다. 대장은 각 편의 총책임자로 행사의 진행을 지휘 · 감독할 뿐 아니라, 비용 충당에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마을의 유지가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나 자원하는 경우도 많다. 중장과 소장은 줄패장을 보위하는 임무를 가지며, 애기장군의 역할은 아이를 성인줄다리기에 동참시킴으로써 차세대로의 줄다리기 전승을 위한 사회화 과정의 의미로 이해된다.

이 조직 구성이 완료되면 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짚은 집집마다 추렴한다.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두 개의 줄, 즉 암줄과 숫줄 그리고 두 줄을 연결하는 나무인 목나무(비녀목 · 고 · 갯목)로 이뤄진다. 줄은 볏짚으로 만들어지며 목나무는 참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줄다리기의 줄은 규모가 큰 만큼 보통 정월 초순경부터 마을에서 줄을 만들기 시작한다. 줄은 왼새끼 꼬는 방식의 새끼 꼬기로 시작하여 그 새끼를 다시 꼬아 점차 굵게 하여 가닥줄을 만드는데, 이 때는 걸개를 만들고 그 위로 새끼를 세 가치씩 엮어 꼬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가닥 줄을 겹겹이 꼬아 원줄(몸줄 · 용줄)을 만들 때는 골목길에서 작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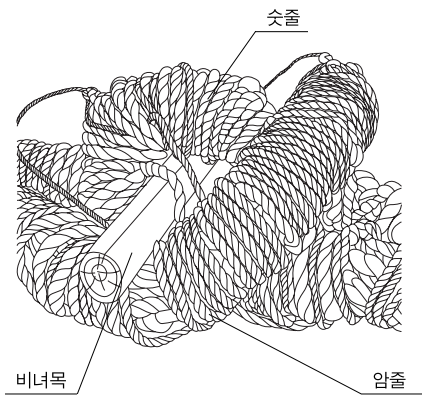
원줄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암줄 · 숫줄의 원줄 지름은 대개 지름이 1~1.5미터 정도가 되며 길이는 50여 미터에서 200~300미터에 이르기도 한다. 이 원줄의 양 옆에는 실제 줄다리기 때 사람이 잡고 당기는 줄인, 팔뚝 굵기로 수십 미터의 '곁줄'(종줄 · 새끼줄 · 젖줄 · 지네다리)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결된다. 즉 하나의 원줄에 수십 개의 곁줄이 달리며, 원줄의 끝에는 곁줄과 같은 크기의 '꽁지줄(방아까치줄)'을 여러 개 달기도 한다. 원줄의 앞부분에는 구형의 '목줄(줄목)'을 만드는데, 숫줄의 경우는 남성 성기를, 암줄의 경우는 여성 성기를 상징한다. 암줄의 목줄 안으로 숫줄이 삽입되어 비녀목으로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암줄의 목줄을 크게 만드는 것은 당연하며 양쪽 모두 타원형의 모양을 가진다. 목줄과 원줄이 접합되는 곳에는 곁줄과 동일한 크기의 수염줄(시에미줄)이 여러 개 달려 있다.

정월 대보름날 자시(子時)에 제례(줄제)를 올리는데, 양편이 따로 서로의 줄에서 줄다리기의 승리를 기원하는 고유(告由), 양편이 함께 줄다리기 장소(줄바탕)에서 지신(地神)에게 풍농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고사(告祀)로 구분된다. 제관(祭官)은 양편의 대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선시대에는 고을의 수령(守令)이 되기도 했다. 날이 밝으면 양편은 각기 줄을 메고 줄다리기 장소로 이동하는데 여기는 중장년의 남자들이 참여한다. 줄 위에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대장이 올라타서 진두지휘를 하고 그 뒤로 중장, 소장이 보좌한다. 이 때 장군기를 앞세우고 수많은 기(旗)와 창을 든 행렬이 호위하



줄다리기
부산진 매립지 송석하





쌍줄다리기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국립민속박물관

쌍줄

고, 여러 풍물패가 뒤따르며 마을의 부녀자와 노약자들은 응원에 참여한다.

줄다리기 장소에 도착하면 양편은 줄목을 끼우는 것으로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 암줄의 목줄에 숫줄의 목줄을 끼우고 목나무로 고정시키는 단계는 성행위로 보아 남녀 성기 삽입을 상징하는 성행위로 보아 음란한 말들이 오가며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진다. 일단 줄목이 끼워지고 신호에 따라 줄당기기가 시작되면 풍물패와 양편 주민의 응원이 어우러져 한바탕 굿이 벌어진다. 승패는 한 번 당겨서 기준점을 넘어간 것으로 가리는 것이 원칙이나 세 번 당겨서 두 번 이기는 쪽의 승리로 결정하기도 한다. 고서(古書)에는 이긴 편이 풍년이 든다는 기록이 일반적이고, 구전되는 바는 서편(여성 편), 즉 암줄을 당기는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으로 말미암아 서편이 이기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동편이 일부러 져주는 사례는 없다고 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동편, 남성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특수한 사례(나주)가 없지는 않다.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 편은 대장의 집으로 몰려가 잔치를 벌이고, 다음 날 상복을 차려 입고 상여를 든 장송(葬送) 행렬을 이루어 진 편의 대장 집을 방문해 위로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다시 말해 승패를 넘어 행사 이후 지역 화합을 위한 잔치로 줄다리기는 완결된다.

기능 편을 갈라서 하는 줄다리기를 통하여 이기는 편에 풍년이 들고 마을이 안녕하다는 믿음은 우리나라 줄다리기의 보편적 성격이고, 이는 줄다리기 행사가 기풍(祈豊)과 벽사(辟邪)로서 액(厄)막이의 기능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줄다리기 외에 여러 지역에 산재한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점세적 편싸움 의례인 석전(石戰)·거전(炬戰)·차전(車戰)놀이 따위의 관습에서도 이긴 편에 풍년을 기약한다는 동일한 속신이 존재한다. 암줄과 숫줄이 가지는 생식기의 상징과 그 둘을 결합하여 당기는 것이 성행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산성의 직접적 의미를 드러내고, 나아가 암줄인 서(여성)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일반적 관념도 여성의 가임성과 직결된 풍요에 대한 기구(祈求)로 분석된다. 이러한 편싸움의 형태를 빌린 관습은 자웅(雌雄)의 결연과 암줄의 승리는 모방 주술적 점세(占歲)의례로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 이면에는 줄다리기의 두 편을 동과 서, 남과 여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음양사상이 내재된 것으로 여겨진다.

줄다리기의 사회적 기능은 조직의 구성과 행사 진행 과정에서 찾아진다. 농경의례의 목표는 생산과 직결되고, 그것은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담보하는 관습적 행위로써 주민 참여의 강제성 부여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관념적 표상은 실제 줄다리기 행사의 전 과정에서 사회 통합의 원리를 제공하는 기초로 작용한다. 줄의 재료가 되는 짚의 추렴에서 시작하여 줄을 만드는 작업에서의 협동심과 줄을 당기는 행사에서 가지는 응집력을 통해서 양편의 주민은 결속을 다지게 된다. 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의 심리적 일체감을 자극하여 지역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비록 편을 갈라 싸움을 벌이지만, 행사 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줄다리기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어느 편이든 풍년 기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행사의 의의는 마을 주민의 단결심을 통한 지역정체성 고취에서 찾을 수 있다.

줄다리기는 이같은 수평적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층화된 사회에서 계급간 혹은 계층간 통합과도 무

관하지 않다. 줄다리기 행사가 특정한 사회집단에 국한된 관습이 아니라 지역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양반도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행사 과정에서 지배층인 양반은 행사 경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대장의 소임을 맡는 것이고, 이러한 관행은 현재도 부호층을 이루는 유지들이 담당한다.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점은 지배와 피지배 혹은 빈부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층화된 수직적 사회관계에서 일종의 부의 재분배적 관행으로서 사회 통합의 기능도 가지기 때문이다. 부조금액이나 내용을 적은 종이를 달 수 있는 새끼줄을 행사장에 전시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오늘날 여기에 참여하는 계층은 마을 유지뿐 아니라 출향민의 몫이 되는데, 이는 고향의 전통행사에 재정적 참여로써 동질감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의 사회적 인구 이동에도 불구하고 지연에 근거한 문화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오늘날 변화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줄다리기는 과거의 농경의례적 기능은 소멸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즉, 주술적 의례적 의미는 대부분 상실되고 가장 큰 의의는 지역사회의 전통계승에 두고 있으며, '외형적 원형의 현대적 재현'만이 두드러져 지역 전통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사례 일반적으로 줄다리기는 벼농사 재배권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한강 이남 여러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던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조사에 의하면 이북 지역 몇 곳에 존재한다는 조사보고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보아 줄다리기가 도작(稻作)문화권인 삼남(三南)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그 관습이 북상하여 이북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행해지는 줄다리기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3·1운동 이후 일제에 의해 집단적 전통행사의 금지로 소멸되었다가 지난 세기 50년대 말 민속예술경연대회 이후와 7, 80년대 지역축제의 개발에 부응하여 복원된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지역전통으로 주기적 줄다리기 전승행사를 가지는 지역은 강원 삼척, 충남 당진 기지시, 경남 영산, 전북 김제 입석, 전남 장흥 및 나주, 경기 광명, 경북 청도 및 자인 등이 있다.

인접국가사례 줄다리기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우리와 이웃한 중국과 일본 및 오키나와(琉球) 지역, 나아가 동남아의 벼농사 재배권에 공통적으로 분포된 점세적(占歲的) 농경의례이다. 우리의 줄다리기와 유사한 관습이 중국에서는 '시구(施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타구(拖鉤)' 혹은 '발하(拔河)'로 불리고, 일본과 오키나와에서는 '츠나히키(綱引き)'로 불린다. 또한 이긴 편에 풍년이 든다는 농경 의례적 기능이나 시행 시기도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줄다리기를 주로 정월 대보름에 행하듯, 중국의 『수서(隋書)』「지리지(地理志)」에도 정월 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본의 긴키(近畿) 지방에서도 상원에 행해진다.

의의 농사를 우선으로 했던 생업방식은 한 해 농사의 성패가 그 사회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에 연초 농한기에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고, 집단적 관습으로서 줄다리기도 그에 속한다. 전통사회에서 전승되어 왔던 줄다리기의 의의는 크게 의례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줄다리기는 농한기 촌락 주민의 단순한 오락적 행사로서 의전(擬戰)의 의미를 넘어서서 벼농사 재배지역에서 정월 대보름날에 행하는 점세적 농경의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줄다리기는 그 시행시기와 장소, 줄의 모양, 줄당기기 과정에서 드러나

〈줄다리기〉
1 줄꼬기
2 줄다리기
전북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황현만





는 상징에서 주술성을 내포한다. 우선 정월 대보름이라는 시기는 새해 첫 만월의 생생력(生生力)을 가지는 시점이며, 행사 장소인 농경지는 지모신(地母神)의 터전이란 점에서 줄다리기의 기풍(祈豊)의례적 성격이 찾아진다. 그리고 물의 관리가 절대적인 수도경작의 우리 문화는 비를 기원하는 표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용사(龍蛇)신앙을 가져왔으며, 그 한 갈래가 줄다리기이다. 줄다리기의 줄은 뱀과 용을 상징하고, 이는 비를 얻고자 하는 믿음과 연결된다. 그리고 기우제의 일환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사례는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한다 하겠다. 또한 줄은 왼새끼를 꼬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왼새끼가 가지는 벽사적(辟邪的) 상징도 가지며, 때문에 줄다리기 행사 이후의 줄은 여러 형태의 풍요 다산과 벽사를 위한 모방 주술적 대상으로 사용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新增東國輿地勝覽, 鶴城誌, 朝鮮常識問答 -全篇-(崔南善 著, 東明社, 1946), 朝鮮常識問答 -續篇-(崔南善 著, 東明社, 1948), 줄다리기에 대하여(張籌根, 韓國文化人類學1, 韓國文化人類學會, 1968), 全南의 民俗놀이에 關한 調査硏究1(지춘상, 湖南文化硏究5,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硏究所, 1973), 줄다리기에 대하여(崔仁鶴, 韓國民俗學6, 民俗學會, 1973), 三陟 기줄다리기에 대하여(金善豊, 韓國民俗學8, 韓國民俗學會, 1975), 村落社會의 줄당기기硏究(李長燮,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3),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著, 朝鮮總督府, 1941).
필자 | 이장섭(李長燮)

줄땡기기

⇨ 줄다리기

쥐불놀이

정의 들판에 쥐불을 놓으며 노는 풍속. 횃불을 들고 들판에 나가 논밭두렁의 잡초와 잔디를 태워 해충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서화희(鼠火戱)' 또는 '훈서화(燻鼠火)'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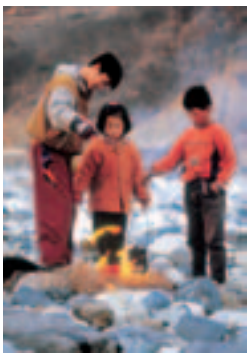
내용 정월 대보름날 달집에 불이 붙는 것을 신호로 논둑과 밭둑에 불을 놓는데 정월 첫 번째 쥐날인 상자일(上子日)이나 음력 정월 열나흗날 또는 대보름날 저녁 농가에서 쥐불을 놓는다. 쥐불을 놓게 되면 겨울을 지낸 들쥐나 메뚜기, 해충의 번데기, 각종 병해충들이 알을 낳아 놓은 잡초나 쥐구멍, 해충 서식지를 태워 농사에 유익하다. 태운 잡초의 재는 논밭의 거름이 되고 풀들이 잘 돋아나 논두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전염병을 옮기는 들쥐를 구축(驅逐)하기도 한다.

북한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을 시켜 밤나무 밑의 잔디를 태워버리고 장대로 밤나무가지를 두드리면서 놀게 하였는데 이것 역시 병해충 예방과 묵은 가지를 꺾어버려 새가지가 나게 하는 의미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구충(驅蟲)과 구수(驅獸)·구초(驅草)를 위한 생산축원의 쥐불놀이를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충청도 농민들이 정월 첫 쥐날에 떼를 지어 횃불을 사르는데, 이를 훈서화라고 한다.

정월 대보름날에 행해지는 편싸움을 한자로 편전(便戰) 또는 변전(邊戰)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쥐불놓기에서 유희성을 가미한 쥐불놀이로 바뀌고, 나아가 편을 갈라 점치는 편싸움 형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쥐불놀이를 들불놀이·횃불놀이로도 혼용하는데 횃불을 들고 들판에 나가 논밭두렁의 잡초와 잔디를 태워 버린다. 이것은 불에 잘 타는 싸리나무에 삼대를 섞은 횃대를 만들어 불을 붙여 들고 논밭으로 나가 잡초를 태우며 노는 것인데, 위아래마을의 농민이나 젊은이들이 편을 갈라 각자 횃불을 들고 이리 저리 뛰면서 경쟁적으로 넓은 지역을 태우거나 상대방의 횃불을 끄기도 한다.

쥐불편싸움은 생산적 예축(豫祝)민속으로 농민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불을 놓아 불길이 잘 타는 쪽이 각종 재해를 피하고 풍년이 들 것으로 믿는 일종의 간접점세(間接占歲)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달과 불의 생생력에 의탁하여 한 해 동안의 풍겸(豊歉)과 미오(美惡)를 점치는 모의전이다.

쥐불놀이는 쥐와 산돼지 등 들짐승과 병해충 예방이라는 실질적 농사풍속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한 해의 시작에 농산물의 성장과 재산 증식을 상징하는 모방주술적 관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흠(申欽)의 『상촌집(象村集)』 권6에도 "돼지날에 돼지 입을 지지고, 쥐날에는 쥐 창자를 굽는다. 우거진 밭이랑 사이 벌레를 없애고 장포에서 재앙을 씻어 오사(汚邪)하고 구루한 것 없애면 오곡은 풍요로워 곳간을 채우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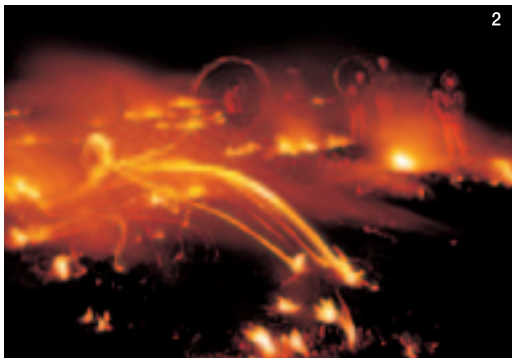


쥐불놀이
충남 아산군 음봉면 산동리 심환근

지역사례 제주도에서는 2월 중에 들불, 즉 '화입(火入)'이라 하여 한라산 목야지에 불을 놓는다. 또한 이 지역은 쥐를 '며느리'라고 부르는데 그냥 쥐라 하면 쥐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심술을 피운다고 한다. 또한 쥐날에는 점을 쳐도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피하고, 옷감에 풀을 쑤지 않는 풍속도 있다. 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민속이다. 쥐불놀이도 쥐와 관련된 민속으로 정월 첫 번째 쥐날에 논둑과 밭둑에 불을 놓는 일이 쥐날에 쥐불을 놓는 것과 같으므로 지방에 따라서 쥐날 놓던 쥐불이 없어지고 정월 열나흗날 저녁의 달맞이 횃불과 합쳐서 '쥐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즘은 화재 예방을 위해 쥐불을 놓지 못하게 하고 농약이 개발되어 병해충을 구제하므로 쥐불놀이는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인접국가사례 상원(上元)인 정월 대보름의 불놀이는 불을 숭상한 숭화(崇火)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남부 지방과 유럽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불을 사르고 가무하는 관습이 생산물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음력 2월 2일 용대두(龍擡頭)라는 훈충(燻蟲)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용이 머리를 드는 명절로 농사가 시작되는 때 재를 용처럼 길게 뿌리면서 문밖과 주방으로 다니면 각종 벌레의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1 쥐불놀이(논밭둑태우기)
충남 아산군 음봉면 산동리 심환근

2 쥐불놀이(쥐불돌리기)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하송마을 황현만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著, 集文堂, 1988), 조선의 민속전통5 -민속 명절과 놀이-(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장정룡(張正龍)

진주오광대(晉州五廣大)

정의 경상남도 진주에서 전승되는 민속탈놀이. 오광대 이외에 오광대놀이·오광대놀음·오광대탈놀음·오광대탈놀이라는 다양한 명칭이 있다.

어원과 유래 오광대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오행사상에 바탕을 두고 '다섯탈광대'가 노는 놀이라는 뜻이며, 이 말이 다섯 마당의 탈놀이를 가리키다가 낙동강 서부 경남 지역의 탈놀이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변하였다는 주장과 무속적인 벽사의식에서 오방신장마당과 같은 오광대놀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놀이개관 진주오광대가 1890년대에 의령 신반대광대의 오광대에서 분파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1820년대에 진주에 본거지를 두었던 솟대쟁이패의 영향을 직접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전파설보다는 자생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진주오광대는 1930년대까지 전승되다가 중단된 이후 1960년대 초에 재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인멸 위기에 처했는데, 1990년대 후반에 진주오광대의 분파형인 도동오광대의 배영환의 증언과 기존의 대본 및 탈(실물과 사진)을 토대로 복원하였다.

진주오광대는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날 저녁 수정산(水晶山) 마루에 보름달이 뜨는 시각에 맞추어 달집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빠른 가락의 징과 꽹과리 소리에 맞추어 군중이 하나 둘씩 춤을 추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호흡이 혼연일체가 될 때 비로소 탈놀이를 시작하였다. 놀이터는 남강의 백사장(부웅듬)이나 봉곡동 논바닥(타작마당거리)이었다. 그러나 훗날에는 주안동 제3야학 운동장, 상봉동 전상진정미소 앞마당, 평안동 삼포극장에서 놀았다. 경비는 정초부터 '집돌림구걸(지신밟기)'을 하여 자금을 모으고, 모자라는 부분은 유지의 기부금이나 경로당

노인계의 이자로 충당하였다.

구성 탈놀이마당은 네 개로 오방신장마당, 문둥이마당, 양반마당, 중 · 영감마당인데, 넷째마당이 중마당과 영감 · 할미마당으로 분화되어 다섯 마당이 되었다.

첫째 마당은 오방신장이 등장하여 춤을 추는데, 황제장군이 먼저 나와 중앙에 서서 동방청제장군, 서방백제장군, 남방적제장군, 북방흑제장군의 순서로 각자의 방위에 세우고 인사를 나눈 다음 춤을 춘다. 오방신장무는 벽사의식무(辟邪儀式舞)인데, 오방신장은 오방을 진호하고 악귀를 퇴치하는 방위신 내지 벽사가면의 신성성과 주술성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마당은 다섯 문둥이가 등장하여 춤을 한 판 춘 다음 도박판을 벌이고, 거기에 어딩이가 나타나 개평을 달라고 성화를 대다가 순사(포졸)한테 체포되거나, 돈을 훔쳐 달아나는 어딩이를 문둥이들이 붙잡아 용서하고 춤을 추거나, 포졸이 어딩이의 고발에 따라 문둥이들을 잡아가거나 한다. 이러한 가변성은 진주오광대 전승집단의 도박에 대한 인식 여하와 어딩이를 사회적 약자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발생한 각편적(各篇的) 현상이다. 문둥이마당은 두 가지로 유형화된다. 동래들놀음과 마산 · 통영 · 고성오광대에서는 문둥이가 혼자서 춤을 추지만, 진주오광대와 가산오광대에서는 다섯 문둥이가 어딩이와 갈등을 일으키고 순사(포졸)가 등장하여 어딩이나 문둥이들을 체포해 간다. 춤 위주의 무용극과 몸짓 및 재담 위주의 대사극으로 양식적 분화 현상을 보인다.

셋째 마당은 양반들이 말뚝이와 재담을 주고받을 때 할미광대가 놀이판을 돌면서 관객을 웃기고, 말뚝이는 양반의 본처인 할미광대와 통정한 사실을 자랑하거나 양반의 첩인 팔선녀를 넘본다. 양반마당의 특징은 말뚝이의 대사 속에 진주의 자연과 인공물을 들먹여 지역성과 현장성과 현재성을 부각시키는 점으로, 이러한 현상은 경남 지방의 다른 탈놀이에서는 안 나타나고 황해도 탈춤에서만 보인다. 우리나라 민속탈놀이의 특징은 중국과 달리 소설이나 전설 및 역사적 사건과의 접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진주오광대에서는 김만중(金萬重)의 『구운몽(九雲夢)』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인 팔선녀의 이야기를 수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육관대사와 성진등의 서사구조를 차용하지 않고 파계승 모티프만 수용한 것은 민중적 시각에서 양반 취향의 소설을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넷째 마당은 노장이 소무를 유혹하여 춤출 때 영감이 노장을 징치하고 소무를 되찾아 할미광대에게 상면시키지만 처첩 갈등을 일으키고 영감이 할미를 살해한다. 그러나 할미는 진오귀굿에 의하여 소생한다. 가산오광대에서는 양반과 중의 대립을 통하여 유교와 불교의 갈등을 다룬 놀이마당과 영감과 할미와 첩 사이의 삼각관계를 다룬 놀이마당을 분화시켰지만, 진주오광대에서는 복잡한 인물구성을 통하여 한 마당에서 이 두 주제를 통합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서울 산대놀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노승이 미녀를 보고 파계하고, 취승이 나타나 주정을 부릴 때 양반이 등장하여 노승을 질책하면 무부가 나타나 유생과 노승을 내쫓고 미녀를 차지하고서 호쾌한 칼춤을 추었다. 연쇄적인 구성법에 의하여 승속(僧俗)의 갈등, 유교와 불교의 갈등, 문무(文武)의 갈등을 혼합시킨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考(宋錫夏, 日新社, 1960), 오광대 각본을 소개함(김수업, 배달말22, 배달말학회, 1997), 진주지역의 오광대 전승 양상(정상박, 배달말22, 배달말학회, 1997), 한국 민속극 연구(박진태, 새문社, 1998).

필자 | 박진태(朴鎭泰)







진주오광대탈 국립중앙박물관

차전놀이(車戰—)

⇨ 안동차전놀이(安東車戰—)

춘천차전놀이(春川車戰—)

정의 강원도 춘천과 가평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대동놀이. 두 편이 외바퀴수레를 이용하여 싸움을 벌이는 놀이이다.

유래 이 놀이는 20세기 초에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1980년대에 재구성되었지만 아직 그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춘천차전에 관한 문헌 자료로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상원조(上元條)에 실린 "춘천 풍속에 차전이 있다. 여러 마을이 편을 나누어 앞으로 내치도록 서로 싸워 그 해의 일을 점친다. 쫓기는 편이 흉하다고 한다. 가평의 풍속 또한 그러하다(春川俗有車戰 以獨輪車各里分隊 前

驅相戰 以占年事 逐北者爲凶 加平俗亦然)."는 기록이 유일하다.

내용 『동국세시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사회에서 춘천차전의 존재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편구성의 문제이다. 해마다 대보름에 행해진 차전은 춘천의 주산인 봉의산을 중심으로 하는 앞두루 지역과 뒷두루 지역의 대항전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춘천 고을의 모든 지역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차전이 행해졌다. 앞두루와 뒷두루가 춘천부 읍치 마을임을 감안할 때 춘천차전이 평시에는 읍치의 주민들만 참여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소양강을 기준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편을 갈라서 읍치뿐만 아니라 고을의 다수 마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차전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봉의산을 중심으로 벌어진 차전을 '관제차전(官制車戰)'이라 하고 참가 범위가 고을 전역으로 확대된 차전을 '민중들의 차전'이라고 한 데서도 확인된다. 읍치의 차전을 관제차전이라고 부른 것은 읍치의 다른 세시행사가 그러하듯 춘천차전도 필연적으로 읍권(邑權)을 장악하고 있던 향리들의 관심과 후원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춘천차전의 싸움방식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동국세시기』의 "앞으로 내치도록 서로 싸워 쫓기어 달아나는 쪽이 흉하다(前驅相戰逐北者爲凶)."는 표현 속에 부족한 대로 단서가 마련되어 있다. 춘천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차전, 즉 안동차전과 남원의 용마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차전이 단순하게 놀이기구의 격돌로만 이루어진 싸움이 아니라 놀이꾼들의 격돌을 포함하는 싸움이며, 승부의 마무리가 놀이기구의 탈취와 파괴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만약 차전이 놀이기구의 격돌로만 이루어진 싸움이라면 대동놀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놀이기구를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무로 만든 기구의 성격상 참여 인원은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횃불싸움이다. 춘천에서는 차전을 하기 전에 횃불싸움을 먼저 하고 이어서 차전을 벌였다.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편싸움은 오후에 시작되어 해가 질 무렵에야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마련이었다. 줄다리기나 달봉뛰기, 석전과 횃불싸움 등이 그러한 예이다. 차전 역시 그러하였음이 안동의 사례에서 나타난다. 춘천차전이 횃불싸움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은 춘천차전 역시 해가 지고 보름달이 솟아오른 뒤에 행해졌음을 말해 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횃불싸움이다. 횃불싸움은 워낙 격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말을 보고 나서 차전을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차피 야간의 편싸움에 조명을 위한 횃불은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수레에 달라붙지 않은 이들은 횃불을 준비하였을 것이고, 수레가 격돌하기 전에 이들끼리 격돌하였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한편 승부의 결정 방식은 단순히 수레의 앞부분을 맞대고 밀어붙여서 일정 지점까지 밀리는 쪽이 지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을 내친다는 것은 놀이기구를 밀어붙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편싸움 일반이 보여주는 것처럼 격렬한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싸움의 양상을 "동채를 접근시켜 서로 싸운다(以童車相薄爲戰)."고 표현한 안동차전이나 "서로 마주하여 진용을 갖추고 앞으로 물리쳐서 승부를 가린다(對陣前却以賭勝負)."고 표현한 남원 용마희 역시 상대방과 접전을 벌여 상대방을 내침으로써 승부를 결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춘천차전 역시 안동이나 남원의 사례들처럼 놀이기구의 앞과 주변에 포진한 놀이꾼들의 육박전과 여러 방향에서 놀이기구의 충돌이 병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이 밀리면 상대방 진영을 돌파하여 놀이기구를 탈취하고 이것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승부를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전구상전(前驅相戰)"은 육박전과 놀이기구의 격돌을 포함하는 양편의 대결을 묘사하는 것이고, "축배(逐北)"는 이처럼 격렬한 싸움에서 패해 수레를 빼앗기고 달아나는 상황에 대한 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차전의 도구인 외바퀴수레의 형태에 관한 문제이다. 『동국세시기』에는 외바퀴수레라는 말만 나올 뿐 수레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싸움의 방식을 통해 수레의 형상을 살펴볼 수 있다. 춘천차전의 싸움 방식은 단순한 밀기가 아니라 육탄전을 수반한 밀어붙이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양편 수레의 부딪힘은 정면에서뿐만 아니라 측면 등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레의 움직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수레를 조종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수레의 움직임을 보다 민첩하게 하고 수월하게 조종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수레가 그 자체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고 원활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수레바퀴를 몸체의 중심 가까운 쪽으로 옮기고, 몸체에 바퀴를 끼우기보다는 몸체의 하부에 부착하는 형태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수레 앞부분의 형상이다. 여러 방향에서 수레의 충돌을 염두에 두는 한편 상대방을 위협하고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이 수레가 실제의 전투에 사용되었던 공성용(攻城用) 수레를 모방했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앞부분의 형태는 날카로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경북 안동의 금소차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부리'라고 하는 금소동채의 앞부분은 마치 송곳처럼 날카롭게 깎여 있어 상대방을 위협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춘천의 옛이름이 우수주(牛首州), 즉 쇠머리고을이었고, 대규모의 차전이 벌어진 곳이 우두(牛頭)벌, 즉 쇠머리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수레의 머리 모양을 쇠머리를 의식하여 만들고 그 앞부분을 쇠뿔처럼 날카롭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춘천차전을 기억하는 이들이 수레의 머리부분을 뿔과 연관짓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춘천차전의 점세 방식은 '축배자위흉(逐北者爲凶)'이라는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특정 편의 승리를 길함과 연관짓는 것이 아니라 승부의 결과에 따라 이긴 편이 길하고 진 편이 흉하다는 가변적 점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술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편싸움의 양편은 남성과 여성 또는 겨울과 여름의 싸움을 상징하게 마련이며, 여성 또는 여름을 상징하는 편의 승리를 풍요다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점세 방식에서는 그 싸움의 결과가 이긴 편이건 진 편이건 함께 적용된다. 여기에 비해서 춘천차전처럼 가변적인 점세 방식은 사정이 다르다. 이 방식에 의하면 싸움의 결과는 이긴 편과 진 편에게 각기 다르게 작용한다. 따라서 각 편은 보다 더 치열하게 싸움에 임할 수밖에 없다. 격렬한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팔매싸움과 횃불싸움 등이 가변적인 점세 방식을 채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의의 현재 춘천차전은 앞에서 밝힌 내용대로 복원되어 전승하고 있다. 춘천차전은 공중전(空中戰) 형태로 벌어지는 안동차전과는 달리 지상전(地上戰) 형태로 진행된 대동놀이로서 우리나라 차전의 전개과정을 파악하는 데 매우 긴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花山志, 외바퀴 수레[獨輪車] 싸움 硏究(김선풍, 한국민속학19, 민속학회, 1986), 龍城誌(남원문화원, 1995), 외바퀴수레[獨輪車]싸움(김선풍, 민중의식과 민속놀이, 집문당, 1996), 춘천지방의 민속놀이(김영기, 春川文化 13, 春川文化院, 1998), 春川車戰에 대한 小考(한양명, 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필자 | 한양명(韓陽明)

타전희(打錢戱)

⇨ 돈치기

토성관원놀이(土城官員—)

정의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에서 음력 정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행해지던 민속놀이. 지방에 따라 관아놀이 · 원놀이 · 원놀음 · 원님놀이 · 사또놀이 · 사또놀음 · 서당놀이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원놀이 계통의 민속놀이로 함남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의 관원놀이, 강원도 동해시 북평의 원님놀이, 경북 영양군의 원놀음, 그리고 경북 안동군 풍산읍 수동의 진법별신놀이, 충남 부여의 은산별신제의 행군, 경남 통영의 사또놀음 등이 전승되었다. 경북의 안동, 청송, 의성 등지에서는 서당의 학동들이 이와 유사한 놀이를 놀았는데, 이를 서당놀이라고 불렀다. 이 중에서 북청군 토성리의 관원놀이와 통영의 사또놀음이 가장 규모가 크고 성대하게 전승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유래 원래 흙으로 만든 토성은 터가 세어 사람들이 자꾸 죽고 가세가 파산되는 까닭에 살 수 없어 오랫동안 성 밖으로 나가 살아 왔다. 그러다가 성터를 다스려 악귀들을 진압하고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 악귀를 진압하고 인명의 안과(安過)와 오곡의 풍성을 위하여 벌인 행사가 바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관원놀이이다. 원래 관원놀이의 복장이나 도구는 평범한 한복이나 관청의 것을 모방한

간단한 물건이었겠지만, 홍원 현감을 지낸 김시현(金是鉉)이 옮겨와 살면서 '신별수(新別需)'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 놀이를 유지하다가, 1907년 남병영이 일제에 의해 해산되자 의장기·군악기·복색 등 군장품 일습을 사들여 관원놀이의 차림을 정비함으로써 그 면모를 일신시켰다. 그래서 관원놀이의 관원 행차가 마치 실제로 관원이 행차하는 모습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내용 토성 관원놀이는 모의재판, 관원의 행차, 횃불싸움, 사자놀이가 놀이의 주축을 이룬다. 통영의 사또놀음은 길놀이, 모의재판, 여흥(승전무·통영오광대·통영검무 등)이 놀이의 주축을 이룬다. 북평 원님놀이는 모의재판, 관원의 행차, 답교놀이가 놀이의 주축을 이룬다. 영양의 원놀음이나 안동·청송·의성 등지의 서당놀이는 모의재판이 놀이의 주축을 이룬다. 풍산의 진법별신놀이와 부여의 은산별신제는 관원의 행차를 모방한 가장행렬이 놀이의 주축을 이룬다.

토성관원놀이는 모의재판인 치죄(治罪), 관원의 행차, 치제(致祭), 횃불싸움, 사자놀이의 순서로 거행된다. 14일의 놀이는 15일 놀이의 예행연습에 해당한다. 모의재판은 평소 마을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마을의 공동작업에 불참한 자, 관원놀이에 불참한 자 등에 대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모의재판이 끝나면 깃발을 앞세우고 행렬을 지어 고제당을 향하여 도가 마당을 나간다. 행렬은 절도사(節度使) 1명, 행부사(行府使) 1명, 남우후(南虞候, 보통 中軍이라고 부른다) 1명, 군주사(郡主事) 1명, 군유사(郡有司) 1명, 수집사(首執事) 1명, 호방(戶房) 1명, 이방(吏房) 1명, 급창(急唱) 2명, 사령두목(使令頭目) 2명, 사령장의(使令掌議) 2명, 사령(使令) 9명, 벽제(辟除) 8명, 대고(大鼓) 2명, 증인(證人) 5명, 조고(鳥鼓) 2명, 조라(鳥囉) 2명, 퉁소(洞簫) 2명, 행금(行琴) 2명, 나팔 1명, 음률도감(音律都監) 1명, 감관(監官) 2명, 통인(通引) 15명, 무동(舞童) 2명, 산인(傘人) 2명, 기군대도독(旗軍大都督) 1명, 대기(大旗) 1명, 각통(各統) 6명씩(1통에서 15통까지), 공리(工吏) 1명, 거산참(居山站) 7명, 제인참(濟仁站) 7명, 평포참(平浦站) 7명, 오천참(五川站) 7명, 후종(後從) 70명, 동서남북 4리 풍헌(風憲) 각 4명 등이다. 이상 300여 명 이외에 단순 참가자인 마을 주민들을 합하면 700~800명 정도의 인원이 관원놀이에 참가했다. 그리고 이 놀이를 구경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토성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행차가 토성을 한 바퀴 돌아 고제당에 도착하면 제사상을 갖추어 제사를 지낸다. 고제당은 토성 밖에 있는 제당터이다. 이 제사는 전란에 횡사한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목매어 죽은 귀신, 매맞아 죽은 귀신,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 등을 청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여제(厲祭)인 것으로 보인다. 여제는 여귀(厲鬼)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여귀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무사귀신(無祀鬼神) 또는 무자귀신(無子鬼神)을 말한다.

횃불싸움은 14일에는 하지 않고 15일 저녁에만 했는데, 다른 지방의 일반적인 횃불싸움과는 다르다. 북청에서도 다른 마을에서는 일반적인 횃불싸움을 했으나 토성리만은 그 양상이 다르다. 보름날 둥근 달이 뜨기 시작하면 저녁밥을 일찍 먹고 나온 젊은이들이 도가 근처로 횃불을 들고 모여든다. 이때 삼영문 가운데 남병사와 본관은 나오지 않고 중군만 나온다. 선두에 악대가 서고, 다음에 중군이 말을 타고 나간다. 그러다가 "중군 지져라." 하는 고함소리에 중군은 말을 채찍질하며 도망하려하나 결국 젊은이들에게 몰리게 된다. 활활 붙어 오르는 횃불이 중군의 등에 닿으려 하면, 중군은 말을 버리고 맨발로 도주한다. 그래서 이 횃불싸움을 '중군지지기놀이'라고도 하고, 밤에 횃불을 들고 성을 돌기 때



토성관원놀이패
함남 북청군 청해면 토성리 송석하

문에 '성야주(城夜周)놀이'라고도 한다.

이어서 사자놀이를 놀았다. 이 놀이는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는 북청사자놀이를 말한다. 사당 · 거사춤, 꼽추춤, 칼춤, 무동춤 그리고 사자탈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노는 사자춤 등을 추고, 마지막에는 놀이에 참여한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군무를 추며 새벽까지 놀았다.

의의 토성관원놀이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거행되는 민속놀이로서 고제당에서 제사를 지내 토성의 지기를 억누르고 숙신을 비롯한 여러 장졸 및 비명횡사한 영혼을 위무하며, 인명의 안과와 마을의 오곡 풍성을 기원하는 민속신앙의 기능이 있다. 지난해의 부정(不淨)을 씻어 버리고 새해의 경사스런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의 의욕과 활기를 되찾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모의재판을 통하여 위정자의 선정(善政)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마을의 기강을 확립하는 풍교적(風敎的) 기능도 가지고 있다. 평소 마을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마을의 공동작업에 불참한 자, 관원놀이에 불참한 자 등에 대한 모의재판을 통해, 마을 주민들 각자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생활에 대한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흥과 신명으로 즐기는 오락적 기능을 갖고 있다. 관원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가의 문을 소나무로 장식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9일에 걸쳐 지내는 동제 기간 중에는 모든 주민들이 치성을 들이면서 근신하며, 도가에서 동제가 끝난 다음에야 악기를 울릴 수 있는 등의 금기를 지키고 난 후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신명이 난다. 그리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참가하여 놀이를 준비하고 거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조성하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모든 마을 주민들이 참가하는 관원의 행차는 토성을 한 바퀴 돌면서, 토성리라는 지역에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라는 지연적(地緣的) 유대를 자각하면서 일체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이 놀이는 다른 지방의 관원놀이와는 달리, 사자놀이 및 횃불싸움과 결합되어 전승되어 왔다. 토성관원놀이는 1940년에 이르러 일제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고제당의 제사만은 8 · 15 해방 당시까지 계속 지냈다고 한다.

참고문헌 | 숙신(肅愼) 고도(古都)의 관아(官衙)놀이(김양봉, 한글57, 한글학회, 1938), 북청 지방의 민속(전장석, 문화유산4, 과학원출판사, 1957), 北靑郡土城官員놀이(梁在淵,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91, 文化財管理局, 1971),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

정의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정월 대보름 경에 행하는 탈놀이.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통영오광대는 탈을 쓴 채 태평소 · 북 · 장구 · 꽹과리 · 징 등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며 대사를 주고받는 전통연희(傳統演戱)이다. 오광대란 음양오행의 오행(五行) 구조를 다섯 개의 과장으로 모방한 탈놀이 또는 다섯 명의 광대가 탈을 쓰고 등장하여 노는 연희라고 하여 그렇게 불린다. 결국, 오광대란 놀이를 삶 속에 조화시키며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려고 한 이 지역만의 탈놀이 별칭이다.

유래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삼도수군통제영이 통영에 설치되었는데, 이 때부터 매년 벽사(辟邪) 행사로 이 놀이가 행해졌다. 섣달 그믐날부터 정월 대보름 경까지 수군에 배치된 악공들이 매구를 쳤는데, 이 때 탈놀이도 함께 행해졌다. 현재의 통영오광대가 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구나의식(驅儺儀式)과 연희가 서로 맞물려 형식화된 역사는 최소 400년 이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남 지방에 전승되는 오광대의 가장 근원형태는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초계 밤마리)의 대광대패 연희였던 것으로 구전된다. 이를 본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 고장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 경남 각 지역의 오광대인데 통영오광대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대광대패의 놀이는 공연형식을 띤 전문예인들의 유랑연희라고 할 수 있는 데 비해 다른 지방의 오광대는 지역민들 스스로의 참여로 연희된 토착탈놀이라는 점이 다르다. 통영오광대가 통영에서 처음부터 지역민들에 의해 공연된 것은 아니다. 삼도수군통제영이 해체된 1895년 이전까지는 이에 소속되었던 예인들이 놀았으나 이후 지역민들이 놀았다. 이 시기에 현재의 통영오광대로 형식화되었다. 처음에는 의흥계(義興契)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었고, 이후 1910년대






〈통영오광대〉
1 풍자탈마당
2 영노탈마당
3 농창탈마당
4 포수탈마당
경남 통영시 문화재청

의 난사계(蘭社契), 1920년대의 춘흥계(春興契) 사람들이 그 맥을 이었다.

100여 년 전, 통영오광대를 연희했던 대표적 인물은 의흥계원이었던 이화선으로 창원(마산) 오광대를 놀았으며 통영시로 이사하여 전파하였다. 의흥계원으로 연희를 전승했던 인물로는 장진국 · 서현우 등이 있으며, 춘흥계원으로는 장재봉 · 오정두 · 채구생 · 김진수 등이 주동 인물이었다. 일제강점기 이후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승되고 있으며 문화재지정 이후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에 활동하던 연희자들은 이상래 · 김진수 · 최선호 · 박경규 · 허경조 · 지정흔 · 고영수 · 김삼성 · 문창섭 · 유동주 · 고구식 · 장재구 · 박희성 · 김판석 · 주화민 · 탁성기 · 김일녀 · 인복순 · 이순애 · 박오순 · 박정이 · 장언자 · 주홍점 · 최순자 등이었다. 1970년에는 사단법인 통영무형문화재보존협회가 발족되었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전수 및 보존이 이루어진다. 강영구 · 강연호 · 김옥연 · 이기숙 · 구영옥 · 김홍종 · 김민종 · 장경진 · 김강녕 · 박기수 등이 주요한 활동회원이다.

20세기 초엽의 통영오광대 공연은 음력 12월 20일경 의흥계 임시총회를 열고, 계원 중에서 기부금을 받아 매구에 필요한 기물을 마련하여 정월 2일부터 14일까지 집집마다 돌며 매구를 쳐주며 걸립을 돌았다. 그 기부금으로 14일 밤에 파방굿과 오광대놀이를 했다고 한다. 당시 공연은 계원 중심이었기 때문에 계의 정기총회가 있던 정월 14일과 3월 15일, 9월 15일에도 공연을 하였다고 한다. 기우제 행사로 오광대를 논 적이 있다고 한다. 오광대는 마당에서 놀며 둘러싸인 관객들 앞의 한 편에 악사들이 서고 연희자들은 공연을 한다. 원형무대에서 공연하는 셈이다.

내용 통영오광대는 춤[舞] · 반주[樂] · 대사[戱] · 노래[歌]를 근간으로 연희되며 흥겨운 한마당을 제공하는 유희적 목적과 축제적 의미를 담는 굿의 속성, 시대인식과 윤리적 덕목을 강조하는 계몽적 목적까지 두루 담고 있다. 춤과 반주는 영남 지방의 전통춤 양식과 가락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나 양반 풍자를 위한 형식적 기교와 대사 내용은 산대탈놀이의 형태를 반영하며 농악의 잡색놀이 형식도 반영한다.

반주곡은 대개 굿거리며 네 마치의 굿거리 외에 세마치 · 염불 · 타령 · 도드리 등 장면에 따라 곡을

바꾸어가며 연주한다. 주로 사용하는 악기는 태평소 · 꽹과리 · 징 · 북 · 장구 등이다. 기본 춤사위는 '덧뵈기'로 이것은 영남 지방의 향토무 모두를 지칭하는 이름인데 덧보이도록 고안된 춤사위라는 주장도 있고, 덧나는 것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추는 의식무(儀式舞)라는 주장도 있다.

배역은 22역이다. 1970년대 초까지는 팔선녀 8명을 포함한 31역이었다. 문둥이 · 말뚝이 · 원양반 · 둘째양반 · 홍백양반 · 비틀양반 · 곰보양반(손님탈) · 검정양반 · 조리중 · 영노 · 영노양반 · 할미양반(영감) · 할미 · 제자각시(작은어미) · 상좌 2명 · 봉사 · 상주 2명 · 포수 · 정돌이(끝돌이) · 사자 · 담비 등이다.

가면은 바가지 · 나무 · 대 등으로 만들며, 놀이 뒤에 소각하지 않고 보관한다. 지금도 음력 정월 초하루와 추석날 아침, 그리고 놀이를 시작할 때 가면에 간단한 고사를 지낸다.

통영오광대는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마당 시작 전에 탈고사나 길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각 마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둥이탈마당: 문둥이가 나와 존재의 비극성이 담긴 춤을 추면서 신세한탄을 하다가 소고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신명을 얻어 새 삶의 지평을 연다. 자신의 조상이 원래 양반이었는데 죄를 많이 져 천형에 걸렸다고 한다. 양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윤리적 덕목을 강조하며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일깨운다.

② 풍자탈마당: 말뚝이와 양반의 대결을 근간으로 한다. 덧붙여 무속의 치병민속을 함께 담았다. 마부인 말뚝이가 원양반은 선대에 기생이 여덟이고, 차양반은 종의 자식으로 서출이고, 홍백양반은 홍(洪)씨와 백(白)씨 두 아비가 만들었고, 검정양반은 어미가 부정을 타서 온 몸이 새까맣게 되었고, 곰보양반은 어미가 부정하여 손님마마가 흔적을 내었고, 비뚜루미양반은 중풍기가 심하여 전신이 비틀어졌고, 조리중양반은 보살인 어미가 서방질하여 낳았다고 양반들의 근본을 폭로하며, 자신은 조상대대로 갖은 벼슬을 다 하였다고 하면서 거짓 양반행세를 하는 일곱 명의 양반들을 질타한다. 말뚝이는 양반들을 능지처참할 것이지만 용서한다고 하며 물러가라고 한다. 말뚝이와 양반부인과의 통정을 통한 풍자는 없다. 능지처참할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극형에 처할 정도의 양반 악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③ 영노탈마당: 양반 아흔아홉 명을 잡아먹은 상상의 동물 영노가 마지막 한 명을 더 잡아먹고 승천하고자 양반 한 명을 몰아세운다.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양반은 자신은 양반이 아니라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 그리고 영노에게 쫓겨 퇴장한다.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양반이 지팡이와 부채를 놓쳤다 잡았다 하는 연출이 흥미롭다.

④ 농창(弄娼)탈마당: 두 상좌가 작은어미를 두고 춤을 추다가 할미양반에게 쫓겨 퇴장한다. 할미양반과 작은어미가 통정하여 아기를 낳게 되고, 할미양반이 출산 준비를 위해 시장에 간 사이 작은어미는 동네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 큰어미는 가출한 할미양반을 찾아 헤매다 굿을 통해 만나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된다. 이 때 작은어미가 순산을 하고 그 아기를 어르는 큰어미를 작은어미가 쓰러뜨려 죽이고, 큰어미의 상여가 나간다. 파계승 풍자와 축첩의 비극을 함께 표현한 마당이다. 농창탈마당은 다양한 표현방법을 활용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화세계 사용이 두드러진다. 작은어미와 할미양반이 만나 누워서 다리를 엇갈리게 하는 등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⑤ 포수탈마당: 담비는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사자는 포수의 총에 맞아 죽는다. 약육강식을 통해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농악의 잡색놀이처럼 모의주술이 담긴 유희행위나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의식무로도 볼 수 있다.

20세기 초까지의 통영오광대는 벽사 및 구나의식의 하나로 놀아졌다. 정월 세시풍속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풍속의 일부는 현재도 남아 정초에 지신밟기 등의 걸립을 돌며 간단한 탈고사를 지낸다. 요즘의 연희는 4월 첫째주 토요일과 8월 15일의 정기발표공연, 전국 각지의 초청공연이 주를 이룬다. 다른 전통연희와 마찬가지로 민속연희의 성격에서 공연물로 변화되고 있는 셈이나 여전히 대표적인 놀이면서 재창조를 기다리는 전통연희이다.

참고문헌 | 오광대(이두현 외,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5, 文化財管理局, 1964), 韓國의 民俗劇(沈雨晟 編著, 創作과批評社, 1975),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정상박, 집문당, 1986), 野遊 · 五廣大탈놀이(徐淵昊, 열화당, 1989), 韓國假面劇選(李杜鉉, 敎文社, 1997), 통영오광대(박진태, 화산문화, 2001).

필자 | 심상교(沈相敎)

팔랑개비돌리기

정의 정월에 팔랑개비를 만들어 돌리며 노는 놀이. '도르라기' 라고도 한다.

내용 팔랑개비는 낟가릿대(노적가리 등)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방식의 주술적 의도와 아이들의 놀이감으로서 놀이적 의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팔랑개비는 대[竹]를 이용하여 뼈를 만들고, 그 위에다 다섯 가지 색종이를 붙인 다음, 대나무 막대기에 꽂아서 바람을 이용해 돌게 만든 것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상원조(上元條)에 이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다섯 색종이를 풀칠하여 얄팍한 댓가지의 양쪽에 붙인다. 모가 지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자루 끝에다 그 댓가지의 가운데를 뚫어 못이 돌아가도록 허술하게 박아서 사용하는데 이를 팔랑개비[回回兒]라 한다." 고 되어 있다.

지역사례 평안도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돛을 나타내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진 종이 팔랑개비를 만든다. 그 모양은 항상 똑같지만 색깔은 다양하며, 한쪽 날개에는 남자 그림이, 다른 쪽에는 여자 그림이 있다. 전북 익산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에 깃대를 만들어 보름날 지붕에 꽂을 때 팔랑개비를 만들어 달았다고 한다. 이는 손님(천연두)을 예방한다고 믿는 속설 때문이었다. 또한 강원도 속초에서는 정월 대보름 무렵에 아이들이 둥글고 모진 여러 가지 팔랑개비를 만들어 가지고 뛰어다니며 바람을 일으켜 돌리는 장난을 한다.

인접국가사례 이웃나라 일본에서 팔랑개비는 보편화한 장난감이고, 바퀴살처럼 배열된 가는 대나무 줄기에 종이날개를 고정시켜 만드는데, 날개는 보통 빨간색과 하얀색 또는 다른 색깔들이 엇갈려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풍차(風車) 또는 화차(花車)라 부르며, 화차는 특별한 종류의 팔랑개비를 일컫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서울民俗大觀1 民間信仰 編(서울特別市, 1990), 한국의 놀이 -유사한 중국 · 일본의 놀이와 비교하여-(스튜어트 컬린 저 · 윤광봉 역, 悅話堂, 2003).

필자 | 조정현(曺鼎鉉)

편전(便戰)

⇨ 석전(石戰)

하회별신굿탈놀이(河回別神—)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서낭당에서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서민들이 지내던 별신굿 때의 탈놀이. 이 놀이는 198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로, 하회탈은 1964년에 국보 121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하회리는 풍산 류(柳)씨의 동성마을로 조선 선조 때의 명신 류성룡(柳成龍)의 마을로 유명하다. 하회리의 동신(洞神)은 '무진생(戊辰生) 성황님' 인데 17세의 처녀 의성 김씨라고 하며 동제당을 '서낭당' 이라 부른다. 평상제(平常祭)는 '동제' 또는 '제사' 라고 하며 5년 또는 10년 정도에 한 번씩 인원 · 경비 · 기원사(祈願事) 등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신탁(神託)이 내리면 별신굿을 지낸다. 별신굿을 하회리에서는 빌신 또는 별신이라 하며 1923년(갑자년)에 지내고 1928년(무진년) 성황신의 갑년(甲年)에 지낸 후 지금까지 개최된 바가 없다. 별신굿을 거행하려면 전년(前年)의 섣달 보름날 산주(山主)가 당에 올라가서 신의를 묻는다. 정화수를 떠놓고 강신을 빌고 신의를 물으면 신탁이 내리고, 산주는 하산하여 마을의 원로들에게 알린다. 동의를 얻으면 별신굿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는 곧 배역을 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1928년의 배역 광대는 큰광대 · 각시광대 · 양반광대 · 선비광대 · 중광대 · 할미광대 · 부네광대 · 초랭이광대 · 이매광대 · 백정광대 · 주지광대 · 대매는광대 · 청광대, 그리고는 유사(有司) · 무동꾼 등 20명이었다. 그 중에 큰광대를 비롯하여 탈 쓰는 광대 및 청광대, 대매는광대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동사(洞舍)에 합숙하며 별신굿에 임한다. 이 때 무당도 초청되나 굿에만 참여하고 탈놀이에는 장고장단을 치면서 따라다니며 대갓집에 초청받아 놀 때는 부엌이나 장독간 등에서 성주풀이나 하며 돈을 벌었다.

광대들은 합숙하는 동안 큰광대의 지시에 의해서 탈놀이를 하며 숙박할 때에도 아랫목으로부터 큰광대 · 각시광대 · 양반광대 · 선비광대가 눕고 다음은

연령순으로 눕는다. 산주와 무당은 각각 별방을 사용한다. 아침이 되어 탈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동사 안쪽에 기대어 둔 서낭대 앞에 전원이 꿇어 앉아 큰광대가 "술렁수" 하면 광대들이 "예" 한다. 이것을 세 번 외치고 아침을 먹는다. '술렁수'는 취침 전에도 한다. 복장은 배역에 맞는 평상복을 입으며, 탈놀이 출연이 없고 쉴 때에는 악기를 치며 가락을 맞춘다. 보통 때는 평량자에 작고 노란 종이 국화꽃을 여러 송이 단 꽃갓과 흰 종이를 접어 만든 고깔에 울긋불긋한 종이꽃을 붙인 것을 쓴다. 각시와 부네는 주민들이 봉납한 옷 중에서 골라 입는다. 풍물은 꽹가리·징·북·장고 등인데 가락은 굿거리와 세마치 장단뿐이다. 춤은 즉흥적인 동작에 리듬을 준 정도에 불과하나 부네와 각시는 경상도 특유의 오금춤을 춘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사용되는 탈은 양반탈·선비탈·각시탈·중탈·할미탈·초랭이탈·백정탈·이매탈·부네탈 등 9개와 주지탈 2개가 있는데, 이 놀이에 사용되는 탈은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다. 탈에 관련된 전설이 전해 오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허도령이라는 청년이 신의 계시를 받아 외인의 접촉을 금하고 탈의 제작에 전심 전력했다. 그러나, 허도령을 사모하는 처녀가 여러 날 그를 볼 수가 없어서 창문에 구멍을 내어 엿보고 말았다. 입신지경이던 허도령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들던 이매탈에 턱이 없이 남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구성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전판을 다 놀아야 한 마당이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여섯 마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무동마당: 각시광대가 탈을 쓰고 무동을 타고는 구경꾼들 앞을 한두 바퀴 돈다. 팔을 앞으로 오르내리며 춤을 추고, 때로는 무동에서 내려 꽹과리와 채를 들고 구경꾼 앞으로 가서 걸립을 한다. 걸립에 응하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는 꽹과리를 두드려 재촉한다. 이렇게 모은 전곡(錢穀)은 별신굿 행사에 쓰고 다음 행사를 위해 모아 둔다.

② 주지마당: 주지는 곧 사자를 뜻하며 주지놀이는 개장(開場)의 액풀이 마당이다. 누런 삼베포를 머리로부터 쓰고, 두 손으로 꿩깃이 꽂힌 주지탈을 양손으로 든 한 쌍의 암·수 주지가 나와 한 바퀴 돌고 마주 보고 춤을 춘다. 초랭이가 나와서 이들을 쫓고는 한참 춤을 춘다.

③ 백정마당: 백정이 망태를 매고 나와 한참 춤추고 있을 때 소가 나오자 그 둘레를 돌다가 도끼를 꺼내어 소를 찍어 잡는다. 백정이 우랑(牛囊, 소불알)을 끊어 들고 구경꾼들에게 사라고 한다. 구경꾼들이 돈을 주고 우랑을 받는 척한다. 이 마당은 걸립의 일종이다.

④ 할미마당: 할미가 쪽박을 차고 흰 수건을 쓰고 등장하여 베틀에 앉는다. 베를 짜다가 한평생 고달프게 살아온 신세타령을 베틀가에 얹어서 부른다. 그러다가 허공을 바라보고는 "영감 어제 장에 가서 사다둔 청어는 어제 저녁에 영감 한 마리 꾸어 주고, 내 아홉 마리 다 먹었잖나." 한다. 그리고는 쪽박을 들고 구경꾼들 앞으로 다가가서 걸립한다.

⑤ 파계승마당: 부네가 오금춤을 추면서 등장한다. 이어 오줌 눌 곳을 찾아가 오줌을 눈다. 중이 등장하여 이 광경을 엿보고 합장한다. 이어서 오줌 눈 자리의 흙을 끌어 모아 냄새를 맡고는 육정을 느낀다. 중은 손을 털고 부네에게 다가가서 날렵하게 차고 도망간다. 이 마당은 대사가 전혀 없이 진행된다.

⑥ 양반선비마당: 양반은 부채를 부치며 정자관을 쓰고, 팔자걸음으로 등장한다. 하인인 초랭이가 뒤따르며 까불거린다. 선비가 유건을 쓰고 낭선으로 앞을 가리며 등장하면 부네가 뒤따른다. 양반과 선비가 멀찌감치 떨어져 서면 초랭이가 두 사람 사이를 왔다갔다하다가 이윽고 두 사람을 인사시키고,



하회별신굿탈놀이패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송석하

행동으로 놀려 주며 애를 먹인다. 마침내 양반과 선비의 다툼은 학문과 지체 싸움으로 번지고, 등장한 부네를 차지하려는 경쟁으로 발전한다. 이 마당에서는 양반이 선비에게 지는 것으로 된다. 그러다가 양반과 선비가 서로 화해를 하고, 부네와 초랭이까지 한데 어울려 신이 나게 춤을 추며 논다. 이 때 이매가 등장하여 "환재 바치시오." 하며 외친다. 모두들 깜짝 놀라 벌벌 떨고, 허겁지겁 도망을 간다.

여기서 여섯 마당의 탈놀이는 끝난다고 할 수 있다. 1928년 별신굿 때에는 정월 대보름날 밤 모든 절차와 탈놀이가 다 끝나고 난 뒤 마을 솔숲에서 혼례행위가 벌어졌다. 양반광대가 탈을 쓰지 않고 홀기를 부르고, 각시광대가 탈을 쓰고 신부역, 청광대가 신랑역을 맡았다.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장고 두 개를 세워 혼례상으로 삼고 혼례식을 거행했다. 이 혼례식은 청광대가 자식을 얻으려고 신랑역을 맡은 것이었다. 창홀(唱笏)에 따라 신부는 두 번, 신랑은 한 번 절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신방 행위가 진행되었는데 청광대가 각시광대 위에 올라타고 성행위 시늉을 하고, 각시광대가 시키는 대로 "아야, 아야." 소리를 낸 후에 끝났다고 한다. 초야의 성행위를 모의한 것이다. 이 혼례와 신방은 일종의 비의(秘儀)라 할 수 있고, 별신굿 때마다 연출되는 놀이가 아니다. 그러나 이 혼례와 신방 과정을 놀이로 본다면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한마당을 여덟 가지 작은 마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성황님을 위하는 별신굿의 일부분으로 진행되며 이른바 도시형의 큰 장터에서 놀던 산대도감계통 극처럼 탈놀이가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굿으로서의 탈놀이로 우리나라 가면극의 발생이나 기원을 생각하는 데 많은 시사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춤이나 동작은 성황님이 시켜서 하게 된다고 믿듯이 춤사위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며 일상 동작으로 풍물 가락에 맞춘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 가운데 대사가 가장 적으며 소박하였다.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은 제작 연대를 고려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하회리에서는 평소 동사(洞舍)에 보관하며 신성시하였다. 부득이하여 꺼내 볼 때에는 반드시 고사를 지내야 탈이 없다고 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하회리에 전수회관이 있으며 1975년에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애초에 예능보유자는 1928년에 각시 역을 맡았던 이창희(李昌熙) 옹이 인정되었다.

참고문헌 | 河回 假面劇의 硏究(崔常壽, 高麗書籍株式會社, 1959), 韓國假面劇(李杜鉉, 文公部文化財管理局, 1969), 河回別神 굿놀이 調査報告(金宅圭 外, 慶尙北道, 1978), 河回별신탈놀이(成柄禧, 韓國民俗學12, 民俗學會, 1980), 部落祭(朝鮮總督府, 1945).

필자 | 성병희(成柄禧)

횃불싸움

정의 정월 대보름에 횃불을 무기로 사용하여 이웃 마을과 싸움을 하던 민속놀이.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는 거화희(炬火戱)·거화전(炬火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쥐불싸움(충남)·불꽃싸움(충남)·홰싸움(전북)·불쌈(광주)·띠싸움(광주)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내용 횃불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호서 지방의 풍속에 홰싸움[炬戰]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놀이는 정월 14일 또는 15일 밤 쥐불놀이·달맞이·달집태우기 등과 함께 이루어진다. 인원은 일정하지 않고 마을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남부 지역의 서쪽에 해당되는 호남과 호서 지방에서 가장 성행했다.

횃불싸움은 정월 열나흗날 밤에 아이들이 자기 마을의 논두렁을 태우는 쥐불놀이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은 대보름을 며칠 앞두고 홰를 만드는데, 낡아서 못쓰게 된 빗자루(수수·대나무·싸리 등) 또는 겨릅대·싸리나무·대나무에 짚 등을 둘러 감거나 쑥대를 약 1미터쯤 묶어 만든다. 필요한 수만큼의 홰를 만들어 두었다가 대보름날 밤이 되면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을 붙여 두 손으로 돌려대고 쥐불을 놓으면서 논다.

쥐불은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웃 마을과의 경계에 다다른다. 아이들은 서로 마을의 경계 너머까지 태우려고 경쟁하다가 급기야는 이것이 횃불싸움으로 발전한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 각자 자기 마을 영역에서 쥐불놀이를 하다가 보름달이 막 솟아





1 횃불싸움
충남 부여군 국립민속박물관

2 횃불싸움 이서지

오르면 상대편을 놀리거나 약을 올려서 싸움을 시작하기도 한다.

쥐불놀이가 횃불싸움으로 진행되는 동기는 쥐불의 대소에 따라 그 해 농사의 풍흉과 마을의 길흉을 점치는 풍속이 있기 때문이다. 마을마다 넓은 지역에 불을 놓아 화세(火勢)를 크게 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가 싸움으로 진전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마을 경계를 넘어 쥐불을 놓으면 쥐들이 그 쪽으로 도망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편에서 불을 지르면 다른 편에서는 불을 끄는 경쟁을 하기도 한다.

횃불싸움은 용감한 소년들이 앞장서서 상대편을 향해 전진한다. 서로 들고 있던 불붙은 홰를 휘저으며 공방(攻防)을 계속하다가 한 편이 밀리면 그 동네 청년들이 합류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러면 상대 마을의 청년들도 가담하여 본격적인 싸움이 전개된다. 청년들의 횃불싸움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서로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긴 홰를 인정사정없이 휘두르기 때문에 화상을 입기 예사이며 옷에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다. 홰가 거의 다 타면 상대를 향해 던져 버리고 새로운 홰를 가지고 싸운다. 승부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나 횃불을 빼앗겨 항복한 사람이 많거나 후퇴한 편이 진다. 횃불싸움은 석전(石戰)과 병행되기도 하고, 격화되면서 석전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특이한 사례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와 성수리에서는 정초부터 석전을 해오다가 대보름날 밤에 횃불싸움으로 승부를 가리며, 북한 지역에서는 대보름날 밤 달집태우기가 끝난 뒤 횃불싸움을 벌이고 상대편의 달집 진지를 먼저 빼앗아 횃불을 드는 편이 이기는 경우도 있다.

의의 이 놀이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시들해졌지만 1960년대까지는 전승되어 왔다.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통조림 깡통에 관솔을 넣어서 돌리는 불깡통이나 솜뭉치에 기름을 묻힌 횃불 등 도구의 변천이 있었다. 횃불싸움은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기원하는 의미로 진행되지만, 마을 주민들의 일체감을 고양하고 청소년들에게 용맹성을 길러주는 놀이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조선의 민속놀이(군중문화출판사, 1964),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全北傳統民俗 上卷(全羅北道, 1989), 한국민속대사전 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주인택(朱仁鐸)

회회아(回回兒)

⇨ 팔랑개비돌리기

기와밟기노래

정의 정월 대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기와밟기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 기와밟기놀이를 할 때 목청이 좋은 선창자 대여섯 사람이 앞소리를 부르면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아 부른다.

내용 경북 의성에서는 대보름날 초저녁에 읍내를 동서로 흐르는 아시거랑[衙舍川]을 경계로 남촌과 북촌으로 갈라져 논다. 먼저 집밖에 나온 부녀자들이 골목을 누비며 "어누야 지레야, 이지레가 누지렌고, 나라임의 옥지렐세." 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마을 부녀자들을 모은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

일렬로 서서 허리를 굽혀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기와밟기놀이가 시작된다. 이 때 선창자 대여섯 사람이 기와밟기노래의 앞소리를 하면 대열 옆이나 뒤따르는 사람들은 뒷소리를 받는다. 가락에 맞추어 공주(소녀)가 부축을 받으며 등 위를 걸어 나간다. 공주가 등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면 뒤쪽의 부녀자는 곧 일어나 앞쪽에 가서 다시 붙는다. 이렇게 하여 계속 마을길을 누비며 나아간 대열은 마침내 아시거랑의 유다리[覽德橋]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남북이 서로 대치하여 각기 기와밟기를 하며 한참을 논다. 그러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북촌패들이 "듣거라 듣거라, 점실[點谷] 옥산(玉山) 듣거라, 어루야 디어여야 에이야 데이야 꼿개야."하고 외친다. 그러면 유다리 남쪽에서 남촌패들이 "듣거라 듣거라 춘산(春山) 가음(佳音) 듣거라, 어루야 디어여야, 에이야 데이야 꼿이야."하고 외치며 서로 사기를 북돋운다. 이 외침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의성기와밟기의 노래는 1941년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래는 누지랜가　나라임의 옥지래지
이 터전은 누터인가　나라임의 옥터일세
긔어데서 손이왔노　정상도서 손이왔네
밋대칸을 발고왔노　신대칸을 밟고왔네
무슨옷을 입고왔노　철갑옷을 입고왔네
무슨갓을 쓰고왔노　용단갓을 쓰고왔네
무슨갓끈 달고왔노　새청갓끈 달고왔네
무슨망근 쓰고왔노　애올망근 쓰고왔네
무슨풍잠 달고왔노　호방풍잠 달고왔네
무슨창의 입고왔노　남창의를 입고왔네
무슨띠를 띠고왔노　관대띠를 띠고왔노
자주비단 동저고리　무 명 주 고루바지
무슨보선 신고왔노　타래버선 신고왔네
무슨행전 치고왔노　자지행전 치고왔네
무슨신을 신고왔노　목파래를 신고왔네
무슨반에 밥을주도　재주반에 차려주데

1970년에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다.

어어누야 지애여　어어누야 지애여
이지애가 누지앤고　나라님의 옥지앳세
이터전이 누터전이고　나라님의 옥터전잇세
손이왔네 손이왔네
기어디서 손이왔노　경상도서 손이왔네
무슨끝을 밟아왔노　싸리끝을 밟아왔네
어어누야 지애여　어어누야 지애여
어어누야 지애여

이상에서 살펴본 의성기와밟기노래는 안동놋다리밟기노래 가사와 유사하며 가락도 유사하여 안동의 것이 전파·변용된 흔적을 볼 수 있다. 한편 경북 군위군 의흥면의 기와밟기노래는 다음과 같다.

이재애가 누지앤고　나라님의 옥지앨세
이부리가 누부리고　나랏님의 옥부릴세
손이왔네 손이왔네
긔어디서 손이왔노　강 남 서 손이왔네
멧단장을 밟어왔노　쉰단장을 밟어왔네
무슨옷을 입고왔노　비단옷을 입고왔네
무신바지 입고왔노　무명지라 고두바지
무신저고리 입고왔노　자지비단 동저고리
무신철육 입고왔노　광대철육 입고왔네
무신띠를 매고왔노　광대띠를 매고왔네
무신버선 신고왔노　삼신버선 신고왔네
무슨판을 쳐려주도　오리조리 도죽판에
무신저를 놓아주도　은수저를 놓아주데

다음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기와밟기노래이다.

이 지아가 웬지안가
정상감사에 놋지아일세
이 지아를 밟을 적에 무슨 말을 타고 왔나
백말을 타고 왔지
이 지아를 밟을 적에 무슨 갓을 씨구 왔나
통영 갓을 씨구 왔지
이 지아를 밟을 적에 무슨 망건을 씨구 왔나
을때기 망건을 쓰구왔지
이 지아를 밟을 적에 무슨 조고리 입구 왔나
틀누비조고리 입고 왔지
이 지와를 밟을 적에 무슨 바질 입구 왔나
양누비바지를 입고 왔지
이 지와를 밟을 적에 무슨 제님을 치구 왔나
율멕이제님을 치구 왔지
이 지와를 밟을 적에 무슨 신을 신구 왔나
백대신을 신구 왔지
이 지와가 웬 지완가
정삼감사에 놋지왈세
슬슬이나 밟으세

이들 기와밟기 노래는 문답창이면서 선후창이다.

초성이 좋은 나이 든 부녀자 7~8명이 선창하면 놀이에 가담하지 않고 따르는 부녀자들이 후창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文化論(任東權, 集文堂, 1983), 한국민요대전 충청북도 편(문화방송, 1995),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著, 朝鮮總督府, 1941).
필자 | 성병희(成炳禧)

안동놋다리밟기노래(安東—)

정의 놋다리밟기놀이를 할 때에 부르는 노래. 놋다리밟기는 경북 안동시(구 안동읍)에서 정월 대보름날 밤 부녀자들이 모여 노는 집단 민속놀이로서 경상북도 시도무형문화재 제7호이다. 안동의 놋다리밟기는 읍성 안에서도 놀고 읍성 밖에서도 놀았는데, 성안의 놋다리밟기는 놀이 내용이 일렬로 행렬하는 줄놋다리뿐이나 성밖의 놋다리밟기는 웅굴(우물)놋다리와 줄놋다리가 더 있고, 그 밖에 부수된 놀이가 있으며, 그 놀이마다 노래가 있다.

내용 놋다리밟기에는 세 가지의 노래가 있다. 처음에 둥둥데미가 시작되는데 일행이 각기 손을 잡고 원형을 이루어 앉으면 둥둥데미노래를 합창하면서 선두의 부녀자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잡은 손을 타넘고 원을 이루며 돈다. 이 때 일행은 잡은 손을 놓는 일이 없고 노래는 짤막하나 이 마당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어화유리 둥둥데미 둥둥데미 어화유리, 저달봤나 난도봤다 저빌봤나 난도봤다, 저길봤나 난도봤다." 둥둥데미가 끝나면 이루어진 원은 흡사 지문(指紋)꼴로 겹겹이 감겨 있으며 곧 실감기노래의 합창에 맞추어 원이 풀어지는데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선구가 그대로 손을 잡은 채 겹겹한 원 사이의 길을 따라 풀어 나온다. "집실로 감아라 당대실로 풀어라." 실감기노래는 원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반복되며 둥둥데미노래보다 가락이 빠르기 때문에 부녀자들은 뛰박질로 돌게 된다.

원을 완전히 풀어 돌아 나오면 자연히 하나의 큰 원이 되는데 일행 모두가 붙어서 안쪽을 향하여 허리를 구부려 인(人)다리를 짓는다. 그러면 원 밖에 서있던 중년층·노년층 부녀들이 한쪽에서 "어느윤에 놋다리로." 하며 문창(問唱)하면 다른 쪽의 부녀들은 노래를 하지 않고 놀이만 할 뿐이며 그들 인다리들의 등 위로 이른바 공주가 좌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간다. 이 원형 놋다리를 웅굴(우물)놋다리라 하며 일행이 한길로 나가 일렬형 놋다리가 되어도 제일 앞쪽에서 인도하는 두 사람이 선창하고, 공주 뒤쪽에 12명의 후창자가 따르면서 놋다리노래를 답창한다.

어느윤에 놋다리로　청계산에 놋다릴세
이터전이 뉘터이로　나라임의 옥터일세
이기와가 뉘기와로　나라임의 옥기왈세
기어데서 손이왔노　경상도로 손이왔네
무슨꼭깨 싸여왔노　어깨꼭깨 싸여왔네
멧대칸을 밟아왔노　쉰대칸을 밟아왔네
무슨옷을 입고왔노　백마사주 입고왔네
무슨바지 입고왔노　지죽바지 입고왔네
무슨띠를 띠고왔노　광목띠를 띠고왔네
무슨보선 신고왔노　타래보선 신고왔네
무슨행전 치고왔노　자치행전 치고왔네
무슨신을 신고왔노　봉만회를 신고왔네
무슨갓을 쓰고왔노　통양갓을 쓰고왔네
무슨망근 쓰고왔고　외올망근 쓰고왔네
무슨풍잠 달고왔노　옥각풍잠 달고왔네
무슨관자 달고왔노　옥관자를 달고왔네
무슨동곳 꽂고왔노　산호동곳 꽂고왔네
무슨갓끈 달고왔노　구슬갓끈 달고왔네
무슨도포 입고왔노　남창의를 입고왔네
손이시러 어이왔노　양모토시 끼고왔네
귀가시러 어이왔노　수피애암 쓰고왔네
입이시러 어이왔노　모개쪽을 물고왔네
물이깊어 어이왔노　인다리를 밟아왔네
무슨말을 타고왔노　백대말을 타고왔네
무슨안장 실고왔노　순금안장 실고왔네
무슨반에 채려주도　재죽반에 채려주데
무슨수저 노았드노　은수저가 노았드네
멧접시를 채렸드노　칠첩으로 오았드네
어데다가 밥담았도　식기굽에 담아주데
어데다가 반찬주도　접시굽에 담아주데
어데다가 김치주도　중발굽에 담아주데
어데다가 숭융주도　삼칭쟁반 굽쟁반에
뚜에엎어 갖다주데　놋다리야 놋다리야

이 놋다리 노래는 곡조가 유장하여 인다리 등을 밟는 공주의 걸음걸이에 알맞게 되어 있다. 안동의

성(城)안 놋다리밟기의 가사도 거의 같으며 곡조도 비슷하다.

놋다리에 청계산에 놋다리에
원은윤에 놋다리에
기워되서 손이완노　경상도서 손이안내
기머하로 손이완노　에게꼬께 싸와완내
놋다리에 청계산에 놋다리에
무슨말을 타고완노　백대말을 타고완내
놋다리에 놋다리에
무슨갓을 쓰고완노　용단가슬 쓰고완내
귀가실어 워애완노　명주풀심 싸고완내
입이실어 워애완노　문어전복 물고완내
놋다리에 청계산에 놋다리에
무슨옷을 입고완노　광대철육 입고완내
무슨버선 신고완노　타래보선 신고완내
무슨신을 신고완노　육날미들 신고완내

경북에서 1984년에 지정한 시도무형문화재 제7호 안동놋다리밟기는 성밖에서 놀아오던 웅굴놋다리이다. 이 놋다리밟기의 시기, 담당자, 장소, 놀이의 형상 및 가사 내용의 상징성 내지 신앙적 의미 등을 검토하면, 우리 농경사회에서 정월 상원일은 세말(歲末)에서 연초에 집중된 세시풍속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날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여성과 달, 공민왕 안동 파천전설의 일부인 공주의 소야천 인교도강(人橋渡江)전설, 웅굴놋다리의 원무(圓舞), 백대마를 타고 인다리를 건너 찾아온 '손'에 대한 환대 등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예축의례에 틀림이 없으며, 우리 상고시대부터 있어 왔던 내방자 신앙(來訪者信仰)에서 기원한 놀이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安東놋다리밟기硏究(金宅圭 외, 新羅伽倻文化9 별책, 新羅伽倻文化硏究所, 1975).

필자 | 성병희(成炳禧)

월월이청청노래

정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 전승되는 월월이청청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 월월이청청 노래는 토연토연 김토연아 · 생금생금 생가락지 · 달람세 · 제바제바 · 대문열기 · 산지띠기 · 재밟기 등으로 구성된다.

내용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처녀와 새댁들이 마당 넓은 집으로 모여 손과 손을 이어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 이 때 앞장 선 앞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뒤따르는 부녀자들이 후렴인 '월월이청청'이라고 외친다. 처음에는 느린 가락으로 길게 뽑으며 천천히 돌다가 흥이 차츰 고조되면 점점 빠른 가락으로 변하면서 춤도 빠르게 변한다.

'토연토연 김토연아'는 3분박 4박자의 율격구조를 갖추고 있고, 빠르면서 경쾌한 느낌을 준다. 메기고 받는 장절 형식에 '월월이청청'이라는 같은 후렴구로 받아 넘긴다. 다음은 '토연토연 김토연아소리'이다.

토연토연 김토연아　월월이청청
좌수별감 딸볼라고　월월이청청
열두담장 떼넘다가　월월이청청
서른서치 큰쾌자를　월월이청청
서치닷푼 째였구나　월월이청청
꼬치같은 우리댁이　월월이청청
묻 기 나 자주하면　월월이청청
기뭐라고 대답할꼬　월월이청청
금상비단 외기낭게　월월이청청
뿌리없는 낭글심거　월월이청청
서울에라 올라가니　월월이청청
해캉달캉 열렷드라　월월이청청
핼라깎아 겉세우고　월월이청청
달라깎아 안세우고　월월이청청
올라가는 구관열차　월월이청청
니려오는 신관열차　월월이청청
줌채구경 하고가소　월월이청청
줌채값이 몇냥일른고　월월이청청
은도닷냥 열에닷냥　월월이청청
서른값이 지값일레　월월이청청
줌채값이 몇냥일른고　월월이청청
은도닷냥 열에닷냥　월월이청청
서른값이 지값일레　월월이청청
다되었네 다되었네　월월이청청
선부선부 서울선부　월월이청청
대 장 부 남자되야　월월이청청
그만으간 없을소냐　월월이청청
서른시칸 담띠넘다　월월이청청
서른서치 큰 쾌 자　월월이청청

서치닷푼 째뜨렸네 월월이청청
뒷 동 산 치치달에 월월이청청
분재끝에 쨌다캈고 월월이청청
이태백이 맏딸애기 월월이청청
하잘났다 소문듣고 월월이청청
한분가면 몬볼래라 월월이청청
두분가면 몬볼래라 월월이청청
삼시분을 거듭가니 월월이청청
서른시칸 대문백에 월월이청청
언실번실 나앉았네 월월이청청
발새치장 볼작치면 월월이청청
빌 백 이 빌보선에 월월이청청
빌 백 이 달깐신에 월월이청청
깔진깔진 줄빈자로 월월이청청
신에꽝꽝 볼게신고 월월이청청
성 군 사 쪽쪼고래 월월이청청
괴 맹 당 깃을달아 월월이청청
명주고름 살피달고 월월이청청
백년동정 너리달아 월월이청청
한쪽고름 들고보니 월월이청청
은초롱도 조롱조롱 월월이청청
두짝고름 들고보니 월월이청청
놋초롱도 조롱조롱 월월이청청
홍도수건 질라매고 월월이청청
서리비단 화단치매 월월이청청
범 나 비 주름잡아 월월이청청
달로달로 말로달아 월월이청청
영구영천 끈을달아 월월이청청
질도맹창 둘러입고 월월이청청
명지삼베 나는물에 월월이청청
세답이나 씩자하니 월월이청청
질로가는 씩자하니 월월이청청
질만보고 갈것이지 월월이청청
사람으는 어찌보리 월월이청청
되 었 네 다되었네

'생금생금 생가락지'는 매 장단의 앞부분이 '미' 혹은 '레'로 시작하여 '미'로 종지되는 선율형인 반면, 후렴구는 '라'로 시작하여 '미'로 종지하는 고정 선율이다. 이 노래는 '선부선부 서울선부'로 가사를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다음은 '생금생금 생가락지소리'이다.

생금생금 생가락지 월월이청청
호당지로 닦아내어 월월이청청
먼데보니 달일래라 월월이청청
젖에보니 처젤레라 월월이청청
저처제야 자는방에 월월이청청
말소리도 둘일레라 월월이청청
오라버님 오라버님 월월이청청
그네말씀 하지마소 월월이청청
동지섣달 설한풍에 월월이청청
풍지떠는 소립니다 월월이청청
그말전해 안들으면 월월이청청
쉬엄불을 피워놓고 월월이청청
명지전대 목을매어 월월이청청
자는듯이 죽거들랑 월월이청청
앞산에도 묻지말고 월월이청청
뒷산에도 묻지말고 월월이청청
연밭둑에 묻어주어 월월이청청
연꽃이가 피거들랑 월월이청청
오는사람 가는사람 월월이청청
눈물한쌍 지어주소 월월이청청

'달람세'는 달넘세의 사투리이다. 이 놀이의 형태는 앉아서 하는 것과 서서 하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앞사람이 다음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의 잡은 손을 타넘고 나가면 그 다음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따라 나가며 노래를 부른다. 다음은 '달람세 달람세' 소리이다.

달람세 달람세 다리나쿵쿵 달람세
니가무슨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달람세 달람세 다리나 쿵쿵 달람세
니가무슨 큰달이고 보름달이 온달이지
달람세 달람세 다리나 쿵쿵 달람세
니가무슨 반달이고 그믐달이 반달일세

'제바제바'는 '제비야 제비야'의 사투리이다. 자진모리 가락에 맞추어 두 줄로 서로 대립하여 서는 대립향(對立向) 이열무(二列舞)의 대형으로 동작은 손잡기, 빠른 걸음의 외발겹쳐뛰기, 팔넘기 등으로 구성된다. 매 장단이 '미'에서 시작하여 '미'로 종지하는 규칙적인 리듬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제바제바소리'이다.

제바제바 초란제바 월월이청청
연꽃이나 피거들랑 월월이청청

오는사람 가는사람 월월이청청
눈물한상 지어주소 월월이청청
갈방비가 오거들랑 월월이청청
갈방세가 덮어주소 월월이청청
굵은비가 오거들란 월월이청청
굵은세가 덮어주소 월월이청청
그말전에 안듣거든 월월이청청
시안불을 피워놓고 월월이청청
명지전대 저처제야 월월이청청
묵은듯이 말소리로 월월이청청
자는듯이 죽거들랑 월월이청청
앞산에도 묻지말고 월월이청청
뒷산에도 묻지말고 월월이청청
연밭둑에 묻어주소 월월이청청
저처제야 자는방에 월월이청청
말소리도 둘일래라 월월이청청
오라버님 오라버님 월월이청청
그네말씀 하지마소 월월이청청
동지섣달 설한풍에 월월이청청
풍지뜨는 소리내라 월월이청청
월월이청청 월월이청청
제바제바 초란제바 월월이청청
능금난개 물어다가 월월이청청
소영땅에 집을지어 월월이청청
그집짓던 삼년만에 월월이청청
울아버지 서울양반 월월이청청
우리엄마 진주때기 월월이청청
우리오빠 착한선부 월월이청청
우리형님 샛별같이 월월이청청
이내나는 옥단처녀 월월이청청

'절구세'는 절이다의 사투리인 절구다의 청유형이다. 횡대형의 두 줄 또는 석 줄의 사람들이 상대방 줄을 뛰어 넘어 서로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소금이나 기름이 속속들이 배어드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은 '절구세소리'이다.

절구세 절구세
들깨 참깨나 오지나
절구세 절구세
유지나 장판에 절구세
피마자 콩이가 오지지
어화산에 절구세

'대문열기'는 월월이청청놀이에 수반하여 노는 놀이노래이다. 자진모리가락의 노래에 맞추어 일렬종대의 대형으로 허리잡기 · 발딛음 · 문만들기 등의 동작으로 이어진다. 노래는 '라'에서 시작하여 '미'로 종지하는 선율형태로서 첫 부분 '라라솔미'로 진행하는 부분은 시김새와 같다. 선후창이면서도 제차의 인상을 준다. 다음은 '대문열기소리'이다.

서울이라 남적선아 대문 쪼끔 열어주소
대문이샤 있다마는 열때 없어 못열래라.
치마끝에 열때찼네 얼컹덜컹 열어주소
열때줌세 열어주소 얼컹덜컹 열어주소

'산지띠기'는 송아지떼기의 사투리이다. 선두가 나무나 기둥 등 고정된 물체를 잡고 나머지 사람들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있으면 술래가 움직이는 줄의 꼬리를 따면서 논다. 노래는 3분박 2박자의 곡으로서 간단한 노랫말을 주고받으며 후반부는 아니리와 유사한 리듬형태로 되어 있다. 구성음은 매 소절 '레'로 시작하여 '라'로 갑자기 도약함으로써 아니리 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다음은 '산지띠기소리'이다.

저선봤나 난도봤다
저달봤나 난도봤다
저빌봤나 난도봤다
우리 송아지 물먹으러 가더니 죽었나 살았나

'동애따기'의 '동애'는 동아의 사투리로 박과에 속하는 식용식물이다. '산지띠기'와 유사한 놀이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늘어선 줄 선두가 꼬리를 따내는 놀이이다. 노래는 매 장단이 '미' 혹은 '라'로 시작하여 '미'로 끝맺는 전형적인 리듬형태의 곡이다. 후반부의 반복부분은 한 장단이 '미'에서 시작하여 '미'로 종지함으로써 전반부의 선율과 대조를 이룬다. 다음은 '동애따기소리'이다.

청룡황룡 구비친다 물레실실 돌아간다
이동애가 누동앤고 나라임의 옥동앨세
동앗줄이 얼마던고 열두닷냥 돈두닷냥

'재밟기'의 '재'는 지애의 축약형이고, 지애는 기와의 사투리이다. 종대형으로 서서 허리를 굽힌 뒤 치마를 걷어올려 쓰고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있으면 맨 뒤의 사람부터 차례대로 등에 올라 밟아가는 놀이이다. 이 때 재밟기 노래가 따르는데 '라'에서

시작하여 '미'로 끝맺음하는 반복적인 선율리듬 형태의 곡이다. 다음은 '재밟기소리'이다.

이재가 저재가 누재고 나랏님의 옥젤세
이재가 저재가 누재고 나랏님의 옥젤세
이재값이 얼맨고 은도다래 열에닷냥
돈도다래 열에닷냥 서른냥이 지값이라

의의 정월 대보름에 월월이청청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노는 것은 그렇게 해야 마을에 풍년이 들고 그 해에 별 탈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풍요 다산을 예축하는 월월이청청(성병희, 전통문화6, 전통문화사, 1985), 영덕 월월이청청(성병희, 경북예악지, 慶尙北道, 1989).
필자 | 성병희(成炳禧)

줄꼬는소리

정의 줄다리기에 사용할 줄을 꼬면서 부르는 노래.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례 겸 집단놀이로 하는 일이 많았으며 전국 곳곳에서 행해졌다. 그러므로 줄꼬는소리 또한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전남과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내용 줄꼬는소리는 후렴이 있는 노래로 선후창으로 부른다. 선창자의 메김구는 보통 2토막으로 구성되며, 후창자들이 받아 부르는 후렴의 길이 또한 동일하다. 그리고 줄꼬는소리의 내용은 줄 꼬는 작업의 실무적 필요성에 의한 것과 일꾼들이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북 부안군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탈탈비어라 자새수야 어여라 디야
빨리가자 도지기수 어여라 디야
앞술레는 가차지고 어여라 디야
뒷술레는 멀어진다 어여라 디야
자글자글 꼬아나보세 어여라 디야

전남 여수시 여천의 노래가사는 다음과 같다.

임아임아 서방님아 에헤 술비
요내가슴을 만져주소 에헤 술비
동지섣달 긴긴밤에 에헤 술비
핏기없이 말라진이몸은 에헤 술비
임생각이 환장이로세 에헤 술비

앞의 어여라디야소리는 자새(얼레) 돌리는 사람에게는 줄을 단단히 꼴 것을 지시하고, 세 가닥의 줄을 꼬아 넣는 도지기수에게 서두를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뒤의 술비소리는 임을 절실히 그리는 여성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일꾼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챙기고, 또 이성문제를 화제로 삼아 지루함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가진 사설은 노동요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줄꼬는소리가 마을의례와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노래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요임을 의미한다.

줄꼬는소리는 닻줄·벼릿줄 등 어업용 줄을 만들 때도 부른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 어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생각하면, 어업용 줄을 꼬면서 부르는 소리 또한 그만큼 널리 분포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연고로 바다 쪽 마을에서는 줄다리기의 줄을 꼴 때도 어업용 줄을 꼬면서 부르던 노래를 그대로 가져다 불렀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전북 부안의 어여라디여소리는 줄다리기 할 때 쓰는 줄을 꼬면서 부르는 소리지만, 그것은 배와 관련된 일에 쓰이는 여러 줄을 만들 때도 부르던 것이다. 그러나 내륙 지방에서의 줄꼬는소리는 원래 줄을 꼴 때만 부르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것을 가져다 부르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의의 정월 대보름의 줄다리기에 사용하는 줄은 일상적 기능을 넘어선 존재이다. 그것은 암줄과 숫줄이 만나 이루어내는 생명 원리, 곧 조화와 생산의 상징물이다. 그러므로 줄꼬는소리는 마을의 풍요를 빚어내는 즐거움과 설렘의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동요와 차별된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 편(문화방송, 1994),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필자 | 강등학(姜騰鶴)

줄메고가는소리

⇨ 줄메는소리

줄메는소리

정의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례 겸 집단 놀이로 줄다리기를 할 때 줄을 메고 나오면서 부르는 노래.

내용 '줄메는소리'의 분포는 호남과 영남 등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하

는 풍습은 전국 곳곳에 있던 것이지만, 중부 지방에서는 줄을 메고 나갈 때 노래 없이 풍물만 치는 경향이 있었다. 중부 지방에도 강원의 삼척, 충북의 괴산처럼 줄메기에 노래를 함께 한 사례는 매우 귀하다. 이에 반해 남부 지방에서는 줄을 메면 으레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습의 차이로 줄메는소리의 전승은 남부 지방이 활발하다. 그리고 노래의 종류 또한 남부 지방의 것이 중부 지방의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다.

줄메는소리는 전국에 최소 15종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리덜렁소리 · 위야호호소리 · 칭칭이소리 등은 그 중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노래이다. 더리덜렁소리는 전남 동남부, 위야호호소리는 경남과 전남의 접경 지역, 칭칭이소리는 경북과 강원의 동해안 접경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줄메는소리는 용도가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자기 마을 또는 다른 마을에서 다른 용도로 부르는 노래를 가져다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더리덜렁소리는 줄메는소리로만 부르는 노래이지만, 위야호호소리와 칭칭이소리는 각각 경북과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 논매는소리로 부르던 것이다. 이 밖에 줄메는소리로 부르는 노래의 원래 용도는 나무하는소리 · 농사뒷풀이하는소리 · 볏단나르는소리 · 장례뒷풀이하는소리인 경우도 있다.

줄메는소리는 모두 후렴이 있는 노래로서 선후창으로 부른다. 사설은 행수에 제한이 없으나, 행 길이는 두 토막짜리가 지배적이다. 그 분위기와 정서는 전반적으로 밝고 경쾌한데, 사설이 대부분 두 토막짜리로 구성되는 것도 이 노래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다. 두 토막짜리 사설의 노래는 한 토막짜리처럼 호흡이 급박하지도 않으며, 또 네 토막짜리처럼 완만하지도 않다.

정월 대보름의 줄다리기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의례의 하나로 행해진다. 그리고 줄다리기는 마을의 구성원이 다수 참여하는 집단놀이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줄 메는 일은 여럿이 협력하여 무언가를 옮기는 집단적 노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줄메는소리는 노동요 · 의식요 · 유희요의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내용도 줄메기의 요령, 줄꾼들에 대한 격려 등 노동의 효율을 위한 것, 놀이로서의 흥과 줄다리기의 승리를 위한 줄꾼들의 사기 진작 등 겨루기의 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적인 것 등이 함께 나타나는 일이 많다. 아래에 예시한 사례를 보면, 전남 보성에서 전해지는 노래로 줄메기의 요령과 줄꾼들에 대한 격려의 내용이다.

줄을메서 발을맞추세 위야허허
이리저리 살펴가며 위야허허
이리자울뚱 저리자울뚱 위야허허
어깨를맞춰 줄을메세 위야허허
(중략)
잘도들헌다 잘도들헌다 위야허허
우리역군들 수십명이 위야허허
이렇게잘할줄 몰랐건만 위야허허

다음 노래는 전북 부안에서 전해지는 노래로 풍어를 비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도세도세 돌아를보세 줄을메고 돌아보세
에용 에헤용 에용 에헤용
빌어보세 빌어를보세 고기잡이를 빌어보세
에용 에헤용 에용 에헤용
조기를잡자 조기를잡아 대장앞바다 조기잡세
에용 에헤용 에용 에헤용
조기를잡자 조기를잡아 칠산앞바다 조기잡세
에용 에헤용 에용 에헤용

의의 줄메는소리를 통해 같은 편으로서의 통합감을 만끽하고, 동시에 겨루기를 위해 사기를 진작시킨다. 그러므로 줄메는소리의 가창은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 전남의 줄메는소리 유형(이소라, 全南文化財3 · 5, 全羅南道, 1990~1992), 韓國의 農謠5(李素羅, 民俗苑, 1992),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 편(문화방송, 1994),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필자 | 강등학(姜騰鶴)

지신밟는소리(地神一)

정의 정월 대보름에 지신밟기를 할 때 부르던 노래. 기원의식요(祈願儀式謠) 가운데 안녕기원요(安寧祈願謠)에 속하는 것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일년

동안 마을과 각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치르는 지신밟기 의례에 수반되어 불리는 노래이다. 곳에 따라서는 마당밟는소리 · 고사반이라고도 한다.

내용 지신밟기를 하는 풍물패들은 보통 마을의 당신(堂神)이 있는 곳에서 제를 지내고, 농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면서 마을로 들어와 각 가정을 방문한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서서는 마루 · 부엌 · 장독 · 마구간 · 뒤주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축원한다. 예를 들어 1986년에 경남 밀양군 무안면의 지신밟기를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마루 · 부엌 · 장독 · 샘 · 뒤주 · 마구간 · 굴뚝 등을 돌며 축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축원의 장소와 대상이 여럿이므로 지신밟는소리 또한 종류가 여럿이다. 그리고 축원의 대상이 같다고 해도 노래의 유형은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어서 지신밟는소리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졌다.

지신밟는소리는 여럿이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은 성주신을 축원하는 노래, 곧 성주풀이다. 성주는 가정의 길흉화복을 담당하는 가옥신(家屋神)으로서 가정 내에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신 가운데 우두머리에 해당한다. 지신밟는소리 중에서도 성주풀이가 가장 길고 내용도 가장 풍부하다. 성주풀이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부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본풀이와 축원이 핵심을 이룬다.

어허여루 지신아(풍물소리, 이하 동일)
어허여루 성주님아 성주님본이 어데멘고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에 솔씨받아 서말서되 받았더니
용문산 치치달라 아흔아홉골 던졌더니
그솔이점점 자라나서 타박솔이 되었구나
타박솔이 자라나서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자라나서 대부동이 되었구나
(중략)
앞집에 안대목아 뒷집에 김대목아
조선여덟도 도대목아 나무비로 가지시라
(중략)
집터없어 어이하노 집터구해러 가자시라
우두에 우풍수야 좌두에 좌풍수야 집터구해러 가자시라
우리서울 치치달라 서울삼각산 구경하고
강원도 들어가니 금강산이 상겼는데
(중략)
밀양땅을 둘러보니 종남산이 제일이다
이집터가 생길라꼬 종남산줄기로 흩어져서
학의머리 세를놓고 용의머리 집터닦아
집터우에 주초놓고 조초우에 기둥세워
(중략)
성주님 모셔다가 이집에다 좌정시키고
(중략)
성주님 요술로서 이집에라 대주양반 아들애기 놓거들랑
고이고이 잘길러서 글공부 잘시켜서
우리서울 가거들랑 검사판사를 다매련하고
(중략)
성주님 요술로서 눈크고 코큰놈도 저물알로 퇴송하고
재수사망 만복은 이집으로 다들오소 어허여루 지신아
(한국민간의식요연구)

경남 밀양에서 조사된 성주풀이다. 재목을 구하고, 집터를 마련한 뒤, 성주를 모셔오기까지를 구술하여 성주가 이 집에 좌정하게 된 내력을 말했다. 이것이 본풀이다. 본풀이에 이어 자식이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눈 크고 코 큰 여러 잡귀들을 물 아래로 보내고 집안에 만복이 깃들 것을 말했다. 이것이 축원이다. 축원의 내용은 다양한데, 대체로 자식 · 농사 · 주인 건강 · 재물 등에 대한 것들이 많다. 본풀이를 통해 신을 모시고, 바라는 바를 신에게 고하는 것이 성주풀이의 기본적 틀이다.

본풀이 및 축원과 함께 성주풀이 구성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액막이가 있다. 액막이는 성주풀이 속에 들어 있기도 하고, 또 독립적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월한달에 드는액은 이월영동으로 막아내고
이월한달에 드는액은 삼월삼칠로 막아내고
삼월한달에 드는액은 사월초파일로 막아내고
오월한달에 드는액은 유월유두로 막아내고
유월유두에 드는액은 칠월칠석으로 막아내고
(중략)
동지섣달에 드는액은 정월이라 대보름날
어부수부로 막아내니라 아미타불

일년 간의 액을 미리 풀어주는 노래이다. 액막이소리는 예처럼 매달 드는 액을 막아내는 노래도 있지만, 몸과 집안에 드는 액과 살을 막아내는 노래도 있다.

의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 각자의 소망을 이루며 삶이 진보하기를 꿈꾸는 것이다. 지신밟기는 이러한 가능성의 기대를 고양시키며, 그 실현을 미리 이루어 축하하는 행사다. 그리고 지신밟는소리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실현을 담보하는 주술적 언어다. 그러므로 지신밟는소리에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열어가려는 건강한 마음이 그 바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間儀式謠硏究(柳鍾穆, 集文堂, 1990),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 편(문화방송, 1994),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문화방송, 1995), 의성의 민요(의성문화원, 2000), 양양군의 민요자료와 분석(강등학 외, 民俗苑, 2002).
필자 | 강등학(姜騰鶴)

개 보름 쇠듯

정의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잘 먹고 지내야 할 날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의미하게 지낸다는 뜻의 속담.

내용 정월 대보름에 사람이 개에게 먹이를 주면 개에게 파리가 꼴 뿐 아니라 개가 파리해진다고 믿어 개를 굶기는 풍습이 있었다. 이 풍습은 오래되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정월 대보름날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매어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다.

예로부터 개는 놀고 먹는 편한 팔자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는 호강에 겨운 사람들을 가리켜 "개팔자", "오뉴월 개팔자", "오뉴월 댑싸리 밑에 늘어진 개팔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보름날만은 하루 종일 개를 굶겼다. 그래서 여러 끼를 굶어 배가 무척 고픈 처지나 명절 같은 날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 "개 보름 쇠듯" 한다고 말하였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최래옥(崔來沃)

보름에 팥밥할 놈이 나왔다

정의 일반 농가에서 추수할 때 팥의 수확이 여의치 못할 때 불만스럽다는 뜻의 속담.

내용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는 팥을 풑, 폳, 폿(발음은 폳)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이 속담은 '대보름에 팥밥을 할 놈이 나왔다.'는 뜻이다. 전남 지방에서는 대보름이 오면 찹쌀에 팥과 광저기와 콩과 차조를 넣어서 밥을 찐다. 이 밥을 흔히 찰밥 · 찹쌀밥 · 풑밥(폳밥)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오곡 풍년이 들라고 해먹는 오곡밥인데, 남부 지방에서는 찹쌀에 붉은 색이 나라고 팥을 많이 넣기 때문에 대개 팥밥(폳밥)이라고 한다. 가을 추수 때 팥농사가 잘 안 되면 대보름에 동네 사람 누군가가 팥밥을 해먹지 않은 탓이라 하고 "보름에 폳밥을 해 먹을 놈이 나왔다."고 한 것이다. 풍년 들기를 온 동네 사람이 소원하는데, 이러한 소원에 불참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최래옥(崔來沃)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정의 객지에 나간 사람은 설에 부득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보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는 뜻의 속담.

내용 설은 새해가 시작하는 때이므로 출타를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조상에게 예(禮)를 다하고 이웃에게 인사를 다녀야 한다. 부득이 설을 집에서 쇨 수 없었다면 정월 대보름에라도 집에 돌아가야 한다. 설에는 사정이 있어서 집에 못 갔지만 보름 정도 여유를 가지면 그 사정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월 대보름은 일년 중 농사 풍년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농사짓기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보름까지 집에 가서 생계(生計)요, 생존(生存)을 해결할 농사짓기를 준비해야 한다. 보름인데도 여전히 출타를 하고 있으면 '철(농사철)을 모르는 사람이요, 철이 없는 사람이요, 농사와 단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전에는 욕(辱)을 먹었다. 욕을 먹는 사람은 농사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기 쉬웠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필자 | 최래옥(崔來沃)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

정의 설은 눈이 많이 와야 좋고 대보름은 밝고 환한 달이 떠야 풍년이 들어서 좋다는 뜻의 속담.

내용 설은 섣달 그믐 무렵이라 달이 없고 추우며 밤이 길고 캄캄하다. 설음식을 장만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설 환경 때문에 힘이 든다. 설 전후 날씨가 질어(습기가 있어) 눈이 오면 날씨도 푸근해지고 주변이 밝아 일하기 좋고 놀기에도 좋다. 무엇보다도 설이 질면 농사에 도움이 된다. 설이 질다는 것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한다는 뜻으로, 눈이 농작물을 덮어 이불 구실을 함으로써 동해(凍害)를 예방함과 동시에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농사가 풍년 든다."고 말하기도 한다. 음력 오월과 동짓달, 유월과 섣달이 상관관계가 있어서 "오동지 육섣달"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눈이 많은 해는 다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므로 좋다.

한편 대보름에는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고 새해 소원을 비는데, 둥근 보름달이 떠야 풍년(豊年)이 든다고 믿는다. 올해 한해는 보름달같이 사람이 밝고 건강할 것이라는 예언을 할 수 있으므로 보름달이 밝기를 바란다. 만약에 구름이 끼어서 보름달을 볼 수 없으면 한 해 농사도 캄캄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달을 숭배하는 망월기원(望月祈願) 심리가 들어 있다. 또한 보름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밤늦게까지 함께 즐기는데, 달이 밝고 날씨가 좋아야 쥐불놀이를 포함한 각종 보름놀이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농사속담집(전라남도 농촌진흥원, 1989).
필자 | 최래옥(崔來沃)

정월 대보름날 귀머거리장군 연 떠나가듯

정의 멀리 가서 떨어지는 모양을 이르는 말.

내용 귀머거리장군(將軍)은 연의 한 종류로서 윗머리 양쪽 귀퉁이에 검은 부등변삼각형을 그린 연이다. 부등변삼각형은 밑변이 5센티미터, 높이가 10센티미터 정도이다. 아이들이 연을 겨우 내내 띄우다가 농사가 시작되는 정월 대보름 이후에 연을 날리면 "개백정"이라는 욕을 먹기 때문에 연을 더 이상 날릴 수가 없어서 대보름 전날인 열나흗날에 그 동안 가지고 놀던 연을 날려 보내는데, 이것을 '송액(送厄)'이라고 한다(전북 남원 지방은 속공이라고 한다). 바로 그 해에 들 액운을 연에 달아서 멀리 날려 보낸다는 액땜이라고 할 수 있다.

송액할 연을 날릴 때는 연에 연 주인의 이름과 주소와 생년월일을 적고, 붓글씨로 송액만리(送厄萬里)나 송액영복(送厄迎福), 송구영신(送舊迎新) 등을 쓴다. 그리고 연실에 솜고치나 쑥 비빈 것, 담배꽁초, 숯가루를 뭉쳐서 창호지를 바른 것을 연에 바투 매달아 불을 붙이고, 이어 얼레실을 풀어 공중에 띄운다. 그 사이에 불이 타들어가서 연실을 태우면 연이 연실에서 뚝 떨어져서 바람에 따라 멀리멀리 날아간다. 이 연은 다른 연보다 크기 때문에 송액할 때 멀리 날아간다. 이 연처럼 멀리 훌훌 떠나가는 모양을 빗대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최래옥(崔來沃)

귀신날(鬼神—)

정의 정월 열엿새날. 귀신닭(당)날 · 달귀귀신날 · 귀신단지날 · 귀신다래는날 · 귀신달구는날 · 귀신달군날 · 귀신당기날 · 귀신단오날 · 신날[申日] · 고마이날이라고도 한다.

유래 귀신날의 유래에 대한 뚜렷한 전거는 없다. 다만 구전자료에 의한 유추 해석이 가능할 뿐이다. 그 하나는 정월 대보름날이면 이밥(쌀밥)을 해서 버리고 부럼도 버리기 때문에 이 날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여겨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현실적인 해석으로 대보름날 밤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다음날 머슴들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날 일을 하면 귀신에 의한 병이 들어 주인댁에 손해를 끼친다는 핑계를 대어 하루 더 놀기 위해서 생긴 날로 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겨울철에 가장 힘든 일이 땔감용 나무를 해오는 일인데, 이

날만은 귀신날이라는 핑계로 젊은이들이 나무를 하러 나가지 않고 놀아도 어른들이 나무라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보름날이 지나면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머슴들이 하루 더 놀기 위해서, 곧 일하기 싫어서 '머슴들이 만든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 밖에 경남 고성에서는 시집살이하는 며느리들에게 하루 더 놀게 해주려고 만든 날이라고도 한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正月) 월내조(月內條)에 따르면 "16일은 시골 풍속에 대체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나무로 만든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일(忌日, 꺼리는 날)로 여긴다. 이것도 경주의 유풍(遺風)을 답습한 것이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과 마찬가지로 구전자료에도 이 날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이므로 일을 하거나 남의 집에 가면 귀신이 붙어와 몸이 아프거나 우환이 생긴다고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 그래서 이 날은 외출을 삼가는 것은 물론, 농촌에서는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고, 어촌에서는 바다에 출어(出漁)를 하지 않는다. 특히 여자들이 바깥출입을 하면 치마꼬리(또는 머리 끝)에 귀신이 붙어 온다고 하여 외출을 삼가며, 또 이 날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고 하여 집안에서 쉰다.

낮에는 이처럼 금기를 지키면서 집안에서 조신하게 보내지만 저녁 무렵이면 귀신의 범접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귀신의 접근을 막는 방법에는 불에 의한 것과 놀이를 통한 주술적인 방법이 주로 행해진다.

먼저 불에 의한 방법에는 불로 태워서 냄새와 연기를 피우는 것과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로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 저녁해가 진 다음 대문간에서 고추씨 · 목화씨 · 삼씨 · 머리카락 등을 태워 귀신이 싫어하는 냄새를 피운다. 또 한 가지는 대나무를 태우거나 뽕나무 숯가루로 폭죽을 달걀꾸러미처럼 만들어 태운다. 이들을 귀신불 또는 귀신달굼불이라고 하는데, 귀신닭날이라든가 귀신달구는날 등의 명칭은 바로 귀신을 불로 달군다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추씨나 목화씨, 머리카락 등은 태우는 냄새가 맵고 독하므로 이러한 독한 기운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나무와 뽕나무폭죽은 타면서 나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불에 의한 귀신 퇴치 방법은 냄새와 소리로 귀신의 접근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불로써 귀신을 소멸시키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기능이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놀이를 통한 귀신 퇴치 방법으로는 널뛰기가 있다. 이 방법은 주로 중부 · 영서 지역에서 행해지는데, 널뛰기와 함께 윷놀이나 화투를 하기도 한다. 정월 열엿새날 저녁이 되면 "귀신 대가리 깨뜨린다(또는 깬다, 바순다, 부숴버린다)."고 하여 널을 뛰는데, 널빤지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땅에 닿을 때 '쾅' 또는 '탁' 하면서 나는 소리로 널 밑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대가리를 깨뜨려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윷놀이 또한 귀신을 퇴치하는 놀이로 여기는데 윷가락을 던지면서 나는 소리로 귀신을 부서뜨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귀신 퇴치 방법은 모두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녁 무렵에 이와 같이 귀신의 범접을 막기 위한 의례적 행위를 한 후, 밤이 되면 자기 전에 신발을 감추어 둔다. 밤에는 귀신이 내려와서 신발을 신어 보는데, 제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고 한다. 귀신이 신발을 신고 가면 신발 주인이 불길하거나 죽는다고 하여 신발을 감추거나 엎어놓고, 대문에는 체나 바구니를 걸어놓는다. 체는 구멍 수가 많아 귀신이 체구멍을 세고 또 세다가 닭이 울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내용은 조선 정조 때 유득공(柳得恭)이 지은 『경도잡지(京都雜志)』 원일조(元日條)에 기록되어 있어 그 시기가 설날인 점이 다르고, 또한 신발을 훔치는 귀신의 이름이 야광귀(夜光鬼)로 되어 있는데, 조사 자료에서는 막연히 귀신이라고 하거나 신발귀신 · 달귀귀신 또는 앙괭이 · 양괭이 · 야귀할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례 세시풍속 관련 현지 조사자료에 의하면 귀신날은 전국적으로 정월 열엿새날로 삼는 지역이 많으나 14일, 15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명

체걸기
충남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학봉마을
국립민속박물관



칭은 보이지 않지만 풍속의 내용은 정월 초하룻날 나타나기도 한다. 충청도의 경우는 정월 16일을 귀신날로 여기는 지역도 있지만, 귀신을 쫓는 행위들은 주로 14, 15일에 행해지고 있다. 전라도의 경우는 귀신날이라는 명칭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정월 16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이 극히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초나 대보름에 이웃 마을에서 훔쳐온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 월경 묻은 여성의 속곳을 걸어놓고 잡귀 · 잡신을 퇴치하거나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내용과, 정초에 잡귀 퇴치를 위해 엄나무를 대문이나 문지방 위에 건다는 조사 자료가 있는 정도이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귀신날에 대한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귀신을 달군다는 뜻을 가진 명칭이고, 특이한 것은 신일(申日), 곧 원숭이날을 귀신날로 삼는 지역도 있다. 특히 경남 사천 · 고성 지역에서는 귀신날을 고마이날이라고 하는데 정월 16일을 암고마이날, 17일을 숫고마이날이라 하여 2일간 일을 하지 않는다. 강원도 태백 등지에서는 이 날을 귀신이 머리 빗고 빨래하는 날이라 하고, 이 날 머리를 빗으면 새삼(번식력이 강한 잡초)이 생긴다고 하여 꺼린다.

귀신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법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강원도 춘천 · 화천 지역에서는 귀신 대가리 깬다하여 방아를 찧기도 하고, 귀신 목자른다 또는 귀신 골통 판다고 하여 칼질을 많이 하고 나무를 베기도 한다. 또한 속초 · 원주 · 경북 칠곡 등지에서는 왼새끼를 꼬아 엄나무(혹은 탱자나무)를 대문이나 방문에 달아매기도 하는데, 이는 엄나무가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포 · 강원도 평창지역에서는 밤에 귀신이 들어와 옷이 맞으면 옷도 입고 가기 때문에 신발과 함께 옷을 숨기기도 한다.

그리고 충북 음성 · 강원도 동해 지역에서는 체뿐만 아니라 키도 거꾸로 세워놓으며, 강원 태백 · 경북 김천 · 영주 · 의성 등지에서는 대문에 소나무가지를 한 주먹 꺾어다가 거꾸로 세워놓기도 한다. 체구멍이나 키의 줄, 솔가지잎은 모두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귀신이 헤아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날이 밝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고안된 장치들이다. 그리고 체에 바늘을 꽂아놓기도 한다.

경북에서는 이 날 콩볶기를 한다. 콩과 함께 잡곡을 볶아서 대문이나 집안에 던지기도 하는데, 귀신을 퇴치하는 콩의 주술적 기능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북 부안에서는 뱃전에 고기가 기어올라도 그물을 치지 않는데, 고기가 어망을 뛰어넘으면 파도가 배를 덮친다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의 경우 정월 16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망을 보다가 까마귀나 독수리가 오면 쫓아버린다. 이는 까마귀나 독수리가 액운을 몰아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서낭할아버지 · 할머니에게 오곡밥과 나물을 대접해서 재난을 가져가 달라고 빌기도 한다.

의의 귀신날은 한해의 첫 달인 정월을 잘 보내야 일년 열두 달을 무사하게 보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곧,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는 한 해의 첫 시작인 설날을 비롯하여, 봄으로 들어가는 절기인 입춘, 십이지의 열두 날, 사람날[人日], 새해의 첫 보름인 대보름 등 한 해 동안에 개인과 마을의 안녕과 평안 · 풍요 등을 조상과 집안신, 마을신, 천지신명 등 모든 신에게 기원하고, 또한 주술적 행위로 모든 재액을 물리침으로써 그 해를 태평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정월 대보름까지는 신성 기간이므로 그 다음날인 16일을 귀신날로 정하여 귀신의 범접으로 생기는 모든 재액을 퇴치함으로써 한해를 더욱 무사하게 보내고자 하는 확고한 사회 안전장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抱川郡誌(抱川郡, 1984),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高陽市 民俗大觀(고양시 · 고양문화원, 2002).

필자 | 김이숙(金利淑)

동일(冬日)

⇨ 춘일(春日)

귀신불놓기(鬼神—)

정의 음력 정월 열엿새 귀신날에 귀신을 퇴치하기 위해 고추씨 · 목화씨 · 삼씨 · 머리카락 등을 모아 태우는 풍속. 귀신을 불에 달군다는 의미에서 '귀신달굼불' 이라고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열나흗날, 정월 대보름 또는 섣달 그믐날에 행해지기도 한다.

내용 귀신날에는 여러 가지 금기를 지키면서 집안에서 조신하게 보내는데, 저녁 무렵이면 귀신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행해진다. 해가 진 다음부터 달이 올라오기 전까지 대문간에서 고추씨 · 목화씨 · 삼씨 · 머리카락 등을 한데 모아 불에 태우는데, 이를 '귀신불' 이라고 한다. 귀신불을 놓으면 맵고 독한 냄새와 연기로 인해 귀신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다.

귀신불은 일반적으로 대문 밖에서 놓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집안 마당이나 아궁이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삼거리에서 하기도 한다. 태우는 물질은 주로 냄새가 독한 목화씨 · 고추씨 · 삼씨 · 머리카락이 일반적이고, 그 외에 왕겨 · 메밀 · 삼껍질 · 쑥 · 닭털 · 오곡 등과 심지어 개똥까지 넣는 등 태울 때 냄새가 고약한 것은 모두 함께 넣어 태우기도 한다.

지역사례 충북 괴산에서는 귀신불을 놓기 전에 대문 밖에 황토를 여섯 군데 뿌려 미리 귀신의 접근을 예방하고, 경북 영덕에서는 귀신 쫓는 불이라 해서 달봉나무 수염에 불을 붙여서 윙윙 돌렸는데 이를 '양밥한다' 고 한다. 청원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짚신짝에 목화씨를 넣고 함께 태워 남은 재를 인근 개울에 버린다. 또 솥에 물 한 사발을 넣고 물이 끓어오를 때 아궁이에 고추 한 움큼을 넣어 태움으로써 액운을 예방하기도 한다. 귀신불 놓기와 유사한 행위로 충북 옥천에서는 섣달 그믐날 귀신 달군다고 하여 왼쪽으로 꼰 새끼줄을 아궁이 숯에 얹은 후 그 위에 고추씨 · 무명씨 · 메밀 등을 놓고 태워 남은 재를 멀리 갖다 버리기도 한다.

의의 일반적으로 민속의례에서 고추씨나 목화씨, 머리카락 등은 태울 때 나는 독한 냄새와 연기로 인해 귀신을 쫓는 재료로 이용된다. 귀신불을 놓을 때 이들을 모두 함께 태우는 것은 보다 독한 냄새와 불로 강한 주력(呪力)을 발휘함으로써 완전히 귀신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이숙(金利淑)

뽕나무재태우기

정의 음력 정월 열엿새날인 귀신날에 귀신을 쫓기 위해 뽕나무재를 태우는 풍속. 뽕나무 대신 대나무를 사용하기도 한다.

내용 뽕나무재태우기는 지역에 따라 '낙화(落花)불' 이라고도 하며,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하기도 한다. 귀신날 저녁 귀신을 달군다고 하여 귀신불 놓기와 함께 뽕나무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있다. 폭죽은 뽕나무(또는 대나무)를 태워 숯을 만들고 이를 곱게 빻아 숯가루를 낸다. 숯가루를 한지에 조금씩 군데군데 놓고 놓은 곳마다 끈으로 묶어 달걀꾸러미처럼 만들어 대문 앞이나 처마 밑에 길게 늘어뜨려서 매달아 놓는다. 그런 다음 밑에서부터 불을 붙이면 연결해 놓은 숯가루가 위로 타들어가면서 '타다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이 일어나 떨어진다. 이때 나는 소리와 불꽃을 보고 귀신이 놀라서 도망을 간다고 한다. 불꽃이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모습이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 보기에도 좋았다 한다.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경북 문경 등지에서는 이를 '낙화불' 이라고도 불렀다. 상주에서는 목화씨를 종이에 넣어서 계란꾸러미처럼 묶어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주로 충북 · 경북 · 강원도 등에서 행해진다.

의의 뽕나무폭죽은 불과 소리에 의한 주력(呪力)으로 귀신을 쫓는 의례적 행위였으나 낙화놀이(또는 줄불놀이)라 하여 초파일 관등놀이나 탈놀이, 선비들의 시회(詩會) 때 흥취를 돋우던 오락적인 불꽃놀이로 놀이화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이숙(金利淑)

수수달기(수수날)

정의 함경도에서 음력 정월 20일을 지칭하는 말. 달기는 '날'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내용 함경도에서는 이 날 여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함경도 북청 지방에서는 조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 날 일을 하면 조에 수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농사에 흉년이 든다고 한다. 암술이 많이 나와야 낟알이 많이 달려 풍년이 든다. 이는 수술이 많이 달리면 낟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날은 평소에 편히 쉴 수 없던 부녀자들에게 모처럼 하루를 편히 쉴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마디좀

정의 함경도에서 음력 정월 21일을 지칭하는 말.

내용 이 날 일을 하면 곡식 마디마다 좀이 생긴다고 하여 여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쉰다. 그리고 가마솥에 불을 약하게 하여 노란 콩을 볶으면서 "마디 삭아요, 마디 삭아요." 하고 외친다. 콩이 다 볶아지면 어른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집집이 서로 바꿔 먹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곡식의 마디에 좀이 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다.

유사사례 함남 홍원에서는 이 날을 비둘달기, 즉 비둘기날이라고 불렀고, 자기 나이만큼 콩을 볶아 먹었다. 전북과 경남에는 정월의 상진일(上辰日) 즉 용날에 마디좀과 유사한 풍속이 있었는데, 이 날 콩을 볶아 먹으면 그 해 곡식에 좀이 슬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날 칼질을 하지 않는데, 칼질을 하면 일하는 날 비가 오고 일꾼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한다. 경남 영산 지방에서는 곡식날인 정월 8일을 좀날이라 하여, 이 날 곡식을 볶아 먹으면 집안에 둔 곡식에 좀이 슬지 않는다고 한다. 전남에서는 2월 1일에 '좀볶으기'라 하여 콩을 비롯한 오곡을 볶는데, 굼벵이나 또보라지 등의 벌레를 없애고, 곡식 낟알을 좀먹지 않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 이 좀볶는 것을 "굼벙이 볶는다.", "벌거지(벌레) 볶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입춘(立春)

정의 24절기 중 첫째 절기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절기. 보통 양력 2월 4일경에 해당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15도일 때로 이 날부터 봄이 시작된다. 입춘은 음력으로 주로 정월에 드는데, 어떤 해는 정월과 섣달에 거듭 드는 때가 있다. 이럴 경우 '재봉춘(再逢春)'이라 한다.

내용 입춘은 새해의 첫째 절기이기 때문에 농경의례와 관련된 행사가 많다. 입춘이 되면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각 가정에서는 기복적인 행사로 입춘축(立春祝)을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인다. 입춘축을 달리 춘축(春祝)·입춘서(立春書)·입춘방(立春榜)·춘방(春榜)이라고도 한다. 입춘축은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붙이고, 글씨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부탁하여 써서 붙인다. 입춘이 드는 시각에 맞추어 붙이면 좋다고 하여 밤중에 붙이기도 하지만 상중(喪中)에 있는 집에서는 써 붙이지 않는다. 입춘축을 쓰는 종이는 글자 수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가로 15센티미터 내외, 세로 70센티미터 내외의 한지를 두 장 마련하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 한지를 마름모꼴로 세워 '용(龍)'자와 '호(虎)'자를 크게 써서 대문에 붙이기도 한다.

입춘축은 대개 정해져 있으며 두루 쓰는 것은 다음과 같이 대구(對句)·대련(對聯)·단첩(單帖, 단구로 된 첩자)으로 되어 있다. 입춘날 붙이는 대구를 보면 '국태민안 가급인족(國泰民安 家給人足)', '기주오복 화봉삼축(箕疇五福 華封三祝)', '문신호령 가금불상(門神戶靈 呵噤不祥)', '우순풍조 시화연풍(雨順風調 時和年豊)' 등이며, 대련을 보면 '거천재 내백복(去千災 來百福)', '수여산 부여해(壽如山 富如海)', '요지일월 순지건곤(堯之日月 舜之乾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개문만복래 소지황금출(開門萬福來 掃地黃金出)', '계명신세덕 견폐구년재(鷄鳴新歲德 犬吠舊年災)' 등이다. 단첩으로는 '상유호조상화명(上有好鳥相和鳴)', '일진고명만제도(一振高名滿帝都)', '일춘화기만문미(一春和氣滿門楣)', '춘광선도길인가(春光先到吉人家)', '춘도문전증부귀(春到門前增富貴)' 등을 붙인다. 입춘축은 붙이는 곳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큰방 문 위의 벽, 마루의 양쪽 기둥, 부엌의 두 문짝, 곳간의 두 문짝, 외양간의 문짝에 붙이는 입춘축은 각기 다르다.

옛날 대궐에서는 입춘이 되면 내전 기둥과 난간에 문신이 지은 연상시(延祥詩) 중에 좋은 것을 뽑아 연잎과 연꽃 무늬를 그린 종이에 써서 붙였는데, 이를 춘첩자(春帖子)라 하였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의하면, 입춘이 되기 열흘 전에 "승정원에서는 초계문신(抄啓文臣, 당하문관 중에서 문학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다달이 강독·제술의 시험을 보게 하던 사람)과 시종신(侍從臣)에게 궁전의 춘첩자를 지어 올리게 하는데, 패(牌)로써 제학(提學)을 불러 운(韻)자를 내고 채점하도록 한다." 하였다. 춘련을 써서 붙이게 된 유래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입춘날에는 의춘(宜春) 두 자를 써서 문에다 붙인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춘련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입춘날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주사(朱砂)로 벽사문(辟邪文)을 써서 대궐 안으로 올리면 대궐 안에서는 그것을 문설주에 붙이는데, 이를 입춘부(立春符)라 한다. 입춘부의 글 내용은 후한(後漢) 때 계동대나의(季冬大儺儀)에 진자(侲子, 아이 초라니)가 화답하던 말이니, 곧 "갑작은 흉한 것을 잡아먹고 필위는 호랑이를 잡아먹고 웅백은 귀신을 잡아먹고 등간은 상서롭지 못한 것을 잡아먹고 남제는 재앙[咎]을 잡아먹고 백기는 꿈을 잡아먹고 강량과 조명은 함께 책사와 기생을 잡아먹고 위수는 관을 잡아먹고 착단은 큰 것을 잡아먹고 궁기와 등근은 함께 뱃속 벌레를 잡아먹는다. 대저 열두 신을 부려 흉악한 악귀들을 내쫓고 너의 몸을 으르고 너의 간과 뼈를 빼앗고 너의 살을 도려내고 너의 폐장을 꺼내게 할 것이니, 네가 빨리 달아나지 않으면 열두 신들의 밥이 되리라. 빨리 빨리 법대로 하렷다(甲作食凶 肺胃食虎 雄伯食魅 騰簡食不祥 覽諸食咎 伯奇食夢 强梁祖明共食磔死寄生 委隨食觀 錯斷食巨 窮奇騰根共食蠱 凡使十二神 追惡鬼凶 赫汝軀 拉汝肝節 解汝肌肉 抽汝肺腸 汝不急去 後者爲粮 急急如律令)." 이다.

의례 입춘은 새해에 드는 첫 절후이므로 궁중과 지방에서 여러 의례를 베풀었다.

① 입춘하례(立春賀禮):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 입춘하의조(立春賀儀條)에 의하면, "인일(人

日)의 축하 예식과 동일하나 다만 입춘에는 춘번자(春幡子)를 받는다."고 하였다. 입춘날에 백관이 대전에 가서 입춘절을 축하하면 임금이 그들에게 춘번자를 주고, 이 날 하루 관리에게는 휴가를 주었다.

② 토우를 내는 일(出土牛事): 『예기(禮記)』에 의하면 계동(季冬)에 궁중의 역귀를 쫓는 행사인 대나의(大儺儀) 때 "토우를 만들어 문 밖에 내놓아 겨울의 추운 기운을 보낸다(出土牛以送寒氣)."고 하였는데, 고려 때는 입춘에 토우를 내는 일이 시행되었다.

③ 목우(木牛): 함경도에서는 입춘날 나무로 만든 소를 관청으로부터 민가의 마을까지 끌고 나와 돌아다니는 의례를 갖는데, 이는 흙으로 소를 만들어 겨울의 추운 기운을 내보내는 중국의 옛 제도를 모방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행한다고 하였다.

④ 입춘굿: 제주도에서는 입춘날 굿놀이를 행하는데, 이 놀이는 농경의례에 속한다. 해마다 입춘 전날에 무당들이 주사(州司)에 모여 나무로 만든 소에게 제사를 지낸다. 입춘날 아침에는 머리에 월계수 꽃을 꽂고 흑단령 의복을 차려 입은 호장(戶長)이 나무소에 농기구를 갖추어 나와 무격들로 하여금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앞장서서 호위하여 대오를 인도하게 한다. 큰 징과 북을 치며 행진하여 관덕정 앞마당에 이르면 호장은 무격들을 나누어 여염집에 들어가서 쌓아둔 보릿단을 뽑아오게 하여 뽑아온 보릿단으로 실(實)·부실(不實)을 판단하여 새해의 풍흉을 점친다. 또 돌아서 객사에 이르면 문 밖에 있던 호장은 쟁기를 잡고 밭을 간다. 또한 아주 크고 붉은 가면에 긴 수염을 달아 농부로 차린 한 사람이 등장하여 오곡의 씨를 뿌린다. 이어서 초라니 광대처럼 채색한 새 탈을 쓴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여 곡식을 주워 쪼아 먹는 시늉을 한다. 또 두 사람이 여자 배우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처첩이 투기하여 서로 다투는 장면을 남편인 듯한 탈을 쓴 광대가 등장하여 거짓으로 서로 말리는 양하면 관중은 모두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다. 이러한 장면은 꼭두각시놀음과 비슷하다. 이어 무격들이 한 떼를 이루어 어지럽게 춤을 추며 신을 놀리는 등 태평을 즐긴다. 동헌에 돌아와서도 그와 같이 한다. 이는 대개 탐라왕이 몸소 백성들 앞에서 밭을 갈아 풍년을 기원하던 유습이 전해 내려온 것이라 한다.

점복 및 속신 입춘날 입춘시에 입춘축을 붙이면 "굿 한 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여 입춘축이 벽사로 붙여짐을 알 수 있다. 전북에서는 입춘축 붙이는 것을 "춘련(春聯)붙인다." 하고, 이를 붙이면 "봉사들이 독경하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 또 써 붙이지 않고 그냥 글귀를 외워도 좋다고 한다. 전남 구례에서는 입춘축 붙이는 것을 '방악(防惡)한다.' 또는 '잡귀야 달아나라.' 고 써 붙인다고 한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보리뿌리점[麥根占]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입춘날 보리뿌리를 캐어보아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데, 보리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이고, 두 가닥이면 평년이고, 한 가닥이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입춘날 보리뿌리를 보아 뿌리가 많이 돋아나 있으면 풍년이 들고 적게 돋아나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경기도 시흥·여주, 인천에서는 입춘 때 보리뿌리를 캐어 보리의 중간뿌리(中根)가 다섯 뿌리 이상 내렸으면 풍년이 들고, 다섯 뿌리에 차지 못하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에서는 입춘 때 보리뿌리를 뽑아 살강 뒤에 놓아두면 보리뿌리가 자라는데, 보리뿌리가 많이 나면 길하고 적게 나면 그 해 보리가 안 된다고 한다. 충남에서는 입춘날 오곡의 씨앗을 솥에 넣고 볶아,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 해 풍작이 된다고 하고, 제주도에서는 입춘날 집안과 마룻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뒤 체를 엎어두었다가 몇 시간 뒤에 들어보면 어떤 곡식이 한 알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곡식이 그 해에 풍년 들 곡식이라 한다. 입춘날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으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병이 없으며 생활이 안정되



대문에 붙인 입춘축
경남 창녕군 고양면 황현만


1


2

1 목우제사
2 제주입춘굿
제주도 제주시 삼도 2동 관덕정
국립민속박물관

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입춘날에 눈보라가 치는 등 날씨가 나쁘면 '입춘치'라 한다. '치'는 접미사로 보름 · 그믐 · 조금 또는 일진의 진사(辰巳) · 술해(戌亥) 같은 것에 붙여 그 날 무렵에 날씨의 나빠짐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첫날인 입춘에 이러한 입춘치가 있는 것을 농사에는 나쁘다고 생각하였다. 전남 무안에서는 "입춘날 눈이 오면 그 해 며루가 쓰인다."고 하여, 그 해 여름 벼농사에 며루(자방충)가 많이 생겨 해농(害農)한다 하고, 제주도에서는 입춘날 바람이 불면 그 해 내내 바람이 많고 밭농사도 나쁘다고 한다. 또 입춘날 입춘축을 써서 사방에 붙이면 그 해 만사가 대길하나, 이 날 망치질을 하면 불운이 닥친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입춘날 여인이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의 논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 특히 조심한다. 또 이 날 집안 물건을 누구에게도 내주는 일이 없는데, 만일 집밖으로 내보내면 그 해 내내 재물이 밖으로 나가게만 된다고 한다. 전남 구례에서는 입춘날 절에 가서 삼재(三災)풀이를 하는데, 삼재를 당한 사람의 속옷에 '삼재팔난(三災八難)'이라 쓰고 부처님 앞에 빌고 난 후 속옷을 가져다가 불에 태운다. 경남 창녕군 영산에서는 이 날 새알심을 넣지 않은 팥죽을 끓여 먹고 집안 곳곳에 뿌려 벽사(辟邪)를 한다. 충청도에서는 이 날 보리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보리밥을 먹어야 좋다고 하여 보리밥을 해 먹으며, 전남 무안에서는 입춘이 일년에 두 번 들면 소금 시세가 좋다고 한다. 함남 북청에서는 이 날 무를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여 무를 먹고, 잡곡밥은 먹지 않고 흰쌀밥을 먹으며, 이 날은 나이 먹는 날이라 해서 명태순대를 해 먹는다. 함남 홍원에서는 이 날 남자들이 명태를 통째로 쪄서 먹으면 등심이 난다고 해 먹는다.

절식 입춘날 입춘절식이라 하여 궁중에서는 오신반(五辛盤)을 수라상에 얹고, 민가에서는 세생채(細生菜)를 만들어 먹으며, 함경도에서는 민간에서 명태순대를 만들어 먹는다. 『경도잡지』와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경기도 산골지방(畿峽)의 육읍[양근(楊根), 지평(砥平), 포천(抱川), 가평(加平), 삭녕(朔寧), 연천(漣川)]에서는 총아(葱芽, 움파) · 산개(山芥, 멧갓) · 신감채(辛甘菜, 승검초) 등 햇나물을 눈 밑에서 캐내어 임금께 진상한다. 궁중에서는 이것으로 오신반(다섯 가지의 자극성 있는 나물로 만든 음식)을 장만하여 수라상에 올렸다. 오신반은 겨자와 함께 무치는 생채요리로 엄동(嚴冬)을 지내는 동안 결핍되었던 신선한 채소의 맛을 보게 한 것이다. 또 이것을 본떠 민간에서는 입춘날 눈 밑에 돋아난 햇나물을 뜯어다가 무쳐서 입춘 절식으로 먹는 풍속이 생겨났으며, 춘일 춘반(春盤)의 세생채라 하여 파 · 겨자 · 당귀의 어린 싹으로 입춘채(立春菜)를 만들어 이웃간에 나눠먹는 풍속도 있었다.

구비전승 대한을 지나 입춘 무렵에 큰 추위가 있으면, "입춘에 오줌독(장독 · 김칫독) 깨진다." 또는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라 하고, 입춘이 지난 뒤에 날씨가 몹시 추워졌을 때에는 "입춘을 거꾸로 붙였나."라고 말한다. 입춘 무렵에 추위가 반드시 있다는 뜻으로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는 말이 생겼고, 격(格)에 맞지 않는 일을 엉뚱하게 하면 "가게 기둥에 입춘이라(假家柱立春)."고 한다.

의의 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로, 이 날부터 새해의 봄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 날을 기리고, 닥쳐오는 일년 동안 대길(大吉) · 다경(多慶)하기를 기원하는 갖가지 의례를 베푸는 풍속이 옛날에는 있었

으나, 근래에는 더러 입춘축만 붙이는 가정이 있을 뿐, 그 절일(節日)로서는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高麗史,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呂氏春秋, 洌陽歲時記, 禮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탐라국입춘굿놀이(문무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0),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황경숙 저, 月印, 2000).
필자 | 김승찬(金承璨)

재봉춘(再逢春)

⇨ 입춘(立春)

목우놀이(木牛—)

⇨ 목우희(木牛戱)

목우희(木牛戱)

정의 입춘에 나무로 만든 소를 가지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풍속. 소는 나무 이외에도 흙[土牛] 또는 종이[紙牛], 쇠[金牛] 등으로 만들기도 하며, 소의 머리는 종이 또는 나무로 만들고 몸체는 멍석으로 대신하여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소로 분장하기도 한다. 이 소들은 입춘에 행해지는 굿에서 자주 등장한다.

유래 및 역사 민간에서는 설이나 입춘을 전후로 하여 농사의 시작과 권농(勸農)을 알리는 상징적인 활동을 했다. 『고려사(高麗史)』권3 「세가(世家)」 성종 7년(988) 2월 임자(壬子)에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춘 전날에 흙으로 빚은 소[土牛]를 길거리에 세워 놓았다(立春前出土牛以示農事之早晩)."는 기록과 『고려사』 권64 「지(志)」 18 단종 6년에 "토우(土牛)로써 한기를 쫓고자 흙으로 소머리 네 개를 만들었는데 길이는 1척이고 높이는 5촌이다(季冬之月命有司大儺旁磔土牛以送寒氣)."고 적고 있다.

『후한서(後漢書)』 「예의지(禮儀志)」에도 "입춘날…… 흙으로 빚은 소와 사람을 성문밖에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농사시기를 가르쳐 주었다(立春之日…… 施土牛耕人于門外 以示兆民 至于立夏)."고 적고 있다. 『세시광기(歲時廣記)』 「산정월령(刪定月令)」에도 "겨울철 토우를 보고 농사의 시기를 알 수 있었다(季冬出土牛 以示農耕之早晩)."고 적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은 관가에서 만든 소와 사람의 위치를 보고 농사의 시기를 파악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목우(木牛)에 대한 기록은 15~16세기 문헌에 보인다. 이행(李荇)의 『용재집(容齋集)』에는 목우와 관련된 풍습을 적고 있는데, 목우를 만든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농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토우를 만든 이유를 "농사에 힘을 쓰기로는 소에 비길 것이 없고, 만물을 낳아 기름지게 하는 것은 흙이니, 두 가지를 합쳐 만든 토우가 그만이다."고 적고 있다. 또한 청명한 입춘에 제단을 설치하고 유사가 재계하고 정성을 모아 채찍으로 세 번 치는 행위, 소를 이끌고 마을로 다니는 행위, 토우를 부서뜨려 가루를 내는 행위 등은 한기를 몰아내고 농사를 권장하는 풍속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시대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집(眉巖集)』에서는 나무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나경(裸耕) 풍습에 대하여 적고 있다. "매년 입춘 아침에 관문(官門)의 길 위에서 목우를 몰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여 풍·흉년을 점치고 풍년을 기원한다. 이 때 밭을 가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는 옷을 벗게 한다."고 적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입춘조(立春條)에도 "함경도에서는 입춘이 되면 나무소를 관청에서 끌고 나와 마을을 돌아다녔다. 이것은 입춘 전날 흙으로 빚은 소를 길거리에 내놓던 관례를 모방한 것으로 농사를 장려하고 풍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이다(關北俗是日作木牛 自官府達于閭里 遍出于路 盖倣出土牛之制 而所以示勸農 祈年之意也)."고 적고 있다. 『탐라록(耽羅錄)』에도 "관복을 입은 호장이 나무로 만든 쟁기를 소에 매어 끄는 가운데 어린 기생들이 뒤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은 20세기 초까지도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통해 토우가 정적(靜的)이라면 목우는 동적(動的)이고, 토우가 목우로 바뀌면서 놀이 요소도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문헌에서는 나무로 만든 소의 형태와 크기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원전장(元典章)』 권32에 "나무소의 골격은 뽕나무로 만들며, 머


목우



리에서 꼬리까지 참죽나무로 그 길이는 8척…… 꼬리 길이는 1척 2촌…… 높이는 4척…… 이며…… 채찍은 버드나무 가지로서 길이는 2척 4촌이다(春牛用桑柘木爲胎骨 牛頭至尾椿八尺…… 牛尾一尺二寸…… 高四尺…… 鞭子用柳枝兒 長二尺四寸)."고 적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소를 그려 국가에 바치고 관청으로부터 소를 끌어내어 채찍질을 하며 소를 부리는 의식을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중국에서는 타춘(打春)·편토우(鞭土牛)·창춘우(唱春牛)·도춘우(跳春牛)·춘우회(春牛會) 등 다양하게 부른다. 이것 역시 봄 농사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타춘(打春)의 습속은 송대(宋代)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과 명대(明代)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 청대(淸代)의 지방민속지에도 상세히 적혀 있다.

토우·목우·지우 등을 만들던 풍속은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춘우도(春牛圖)'이다. 춘우도는 천간지지(天干地支)·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다. 예로부터 갑자년(甲子年)은 양(陽), 을축년(乙丑年)은 음(陰)으로서 소의 입 모양이나 꼬리의 위치가 음양년(陰陽年)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양년(陽年)에는 소의 입이 벌어져 있고 꼬리가 좌측에 위치한다면, 음년(陰年)에는 입은 다물어져 있고 꼬리는 우측에 있다. 이 밖에도 소의 색깔, 뿔·귀·꼬리의 색깔도 천간지지(天干地支)에 따라 달라진다. 흙과 나무뿐만 아니라 청동으로도 소를 만들었다. 중국에서는 동지와 입춘 사이에 청동으로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봄을 알렸다.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쌀 항아리나 곡식 창고 주위를 좌우로 각각 세 바퀴 돌고, 띠와 24절기가 적혀 있는 소 판화 그림을 나누어 준다. 주인은 그 답례로 돈을 준다. 이러한 행위는 길상을 알리고, 농사 시기를 일러주는 하나의 의식이다.

지역사례 입춘 때 목우 만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1999년을 전후로 하여 제주도입춘굿보존회에서는 입춘 때 목우를 만들어 제를 지내고 시청에서 관덕정까지 소몰이를 한다. 이 때 시장을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이 참여하며, 제주도의 풍년을 기원한다. 목우는 매년 만드는데, 소의 생김새를 보고 그 해의 날씨와 풍년을 점치기도 한다. 가령 소가 선한 모습이면 날씨가 좋고 풍년이 들 징조로 여기고, 소가 험한 모습이면 날씨가 춥고 농사가 좋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다.

경기도, 황해도 지방에서는 입춘이나 한가위에 소놀이를 한다. 목우 대신에 한지(韓紙)와 헝겊 따위로 소 형상을 만들고 가죽에 흙빛 물감을 칠한 뒤 들기름을 먹인다. 그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소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서 몰이꾼을 따라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 뒤에는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이 뒤따른다. 보통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덕담을 하고 춤추고 놀면, 그 대가로 주인은 돈이나 술, 쌀 따위로 대접한다. 봄에 노는 소놀이가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라면, 한가위 때 소는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송우(送牛)'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소놀이는 지방에 따라 정월 대보름이나 팔월 보름에 행해지기도 하나, 본래는 입춘(立春)에 놀았던 것이다.

의의 소는 농가의 재산이자 가장 큰 노동력이다. 목우를 만드는 것은 농사의 시기를 알리는 행위이자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목우를 때리는 행위 등은 채찍소리로 한기(寒氣)를 몰아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소를 만들어 세워놓는 의식[出土牛]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져 궁정은 물론 민간에서도 행해졌고, 오늘날에는 놀이로서 그 풍습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京夢華錄, 東國歲時記, 眉巖集, 歲時廣記, 元典章, 容齋集, 帝京景物略, 耽羅錄, 後漢書, 한중농기구 비교 연구 -따비에서 쟁기까지-(정연학, 민속원, 2003).

필자 | 정연학(鄭然鶴)

입춘굿(立春—)

정의 입춘날 제주목(濟州牧) 관아 관덕정(觀德亭) 앞에서 심방의 굿을 통해 그 해 농경(農耕)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놀이.

유래 입춘굿은 '춘경(春耕)' 또는 '입춘춘경(立春春耕)'이라 하며 '춘경친다'고 한다. 입춘굿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원조(李源祚)가 제주방어사로 부임하여 헌종 7년(1841)에 쓴 『탐라록(耽羅錄)』 '입춘일염운(立春日拈韻)'에 있다. "24일 입춘날 호장은 관복을 갖추고 나무로 만든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가면 양쪽에 어린 기생이 부채를 들고 흔든다. 이를 '소몰이'라 한다. 심방 무리들은 활기차게 북을 치며 앞에서 인도하는데 먼저 객사로부터 차례로 관덕정 마당으로 들어와서 '밭을 가는 모양'을 흉내내었다. 이 날은 본 관아에서 음식을 차려 대접하였다. 이것은 탐라왕이 '적전'하는 풍속이 이어져 내려온 것을 말한다(二十四日 立春 戶長具官服 執耒耜 以木爲牛 兩兒妓左右執扇 謂之退牛 熱群巫擊鼓前導 先自客舍次入營庭 作耕田樣 其日自本府設饌以饋 是耽羅王籍田遺俗云)."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민을 대표하는 호장이 앞에 서면 제의를 주관하는 심방이 연희를 통해 흥을 돋우고 관에서는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민(民)·관(官)·무(巫)가 하나가 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이 입춘굿이 고대 탐라국 이후 이어져 왔다는 것은 제주도에서도 농사가 생업의 근본이었음을 의미한다.

내용 입춘굿을 위해 관덕정으로 들어가는 심방들은 서민들의 집에 들어가 쌓아둔 보릿단을 뽑아오게 하여 보릿단을 보고 농사의 실(實)·부실(不實)을 판단하였다고 한다. 입춘일이 늦겨울이기 때문에 얼마 자라지 않은 보리를 밭에서 여러 개 뽑아 생육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보릿점은 육지에서 보리뿌리의 튼실함을 파악하여 점을 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보릿점을 보고 관덕정 앞에서는 심방들의 탈놀이가 행해진다. 입춘굿 탈놀이는 무언극(無言劇)으로 배역에는 호장, 농부, 처, 첩, 새, 사냥꾼, 남편이 등장한다. 그 중 호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탈을 쓰거나 변장을 하였으며 새는 색이 있는 날개를 하였다.

구성 탈놀이의 구성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호장이 쟁기로 밭을 갈면 붉은 가면에 긴 수염을 단 농부가 오곡을 뿌린다. 그 뒤로 새가 날아와 씨를 주워 먹고 사냥꾼이 새를 쫓는 과정이다. 이는 농사의 모의과정으로 쟁기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사에 방해가 되는 병해충이나 풍수해를 씨를 쪼아 먹는 새로 상징하여 사냥꾼이 이 새를 쫓음으로써 수확이 많기를 기원하고 있다.

다음 부분으로 처와 첩이 등장하여 다투고 있으면 남편이 나타나 싸움을 말리는 장면이다. 이는 내륙 지역 탈놀이의 할미와 새색시의 싸움과 일맥상통한다. 이 싸움은 본토 여러 탈놀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입춘굿의 의도와 관련지어 추정한다면 젊음과 생명을 긍정하고 예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굿의 성격상 풍요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심방들이 나와 풍요를 기원하는 비념을 하면서 굿을 끝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제주도의 농사풍요 기원의례의 한 모습으로 지금은 제주도에서 사라진 탈놀이가 심방들에 의해 행해졌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민·관·무가 하나가 되어서 행해지는 독특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입춘굿놀이는 1999년부터 부분적으로 복원되어 제주시 관덕정 앞마당에서 행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 濟州道民俗: 歲時風俗(진성기, 濟州民俗硏究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秦聖麒, 민속원, 1991),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무속학사전(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2004).

필자 | 강권용(康權用)



입춘굿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관덕정
국립민속박물관

입춘하례(立春賀禮)

정의 봄의 시작 날인 입춘에 행하는 의례.

내용 입춘은 24절기의 시작으로, 봄이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이며 일년 농사 활동의 시작을 알려주는 절기이다. 입춘이 되면 국가에서는 융숭한 봄맞이 행사를 열고, 국왕은 친히 경작 시범을 하며 농경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기도 하였고, 민간에서는 집안 청소 · 농기구 손질 · 두엄 만들기 등을 시작하면서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입춘에 왕이 신하들에게 춘번자(春幡子)를 주었다고 한다. 『고려사』 권67 지(志) 21, 예(禮) 가례(嘉禮) 입춘하례의(立春賀禮儀)에 보면 입춘하례는 인일(人日)에 하례하는 의식과 같으나 단지 입춘에는 춘번자를 받는다고 하여 국왕이 대신들에게 춘번자를 내려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睿宗) 5년 12월 계축(癸丑)에는 계축일이 입춘이므로 백관이 건덕전에서 조회를 하니, 왕이 그들에게 춘번자를 주고 봄맞이하는 글 두 수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입춘하례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 권19 「세가(世家)」 19, 명종(明宗) 3년 정월 무인(戊寅)에도 정월 무인일에 백관이 입춘절(立春節)을 축하하니, 왕이 그들에게 춘번자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대궐에서는 설날에 문신들이 지은 신년축시인 연상시(延祥詩) 중에서 잘된 것을 뽑아 대궐의 난간 등에 붙였는데, 이것을 춘첩자(春帖子) · 입춘첩(立春帖)이라 했다. 사대부집에서는 입춘첩을 새로 지어 붙이거나 옛날 사람들의 좋은 글귀를 따다가 썼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 1990),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 · 고려시대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中國風俗大辭典(申士垚外 編著, 中國和平出版社, 1991).

필자 | 박순(朴焞)

총아 · 산개 · 승검초 진상 [葱芽 · 山芥 · 辛甘草 進上]

정의 입춘 무렵 총아(葱芽) · 산개(山芥) · 승검초[辛甘草] 등의 식물을 채취하여 관(官)에 바치던 풍속.

유래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에는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 3년(186)에 "가을 7월에 남신현에서 상서로운 벼를 진상하였다(秋七月南新縣進嘉禾)."는 기록이 있다. 또 성덕왕(聖德王) 3년(704)에는 "정월에 웅천주에서 금빛 나는 영지를 바쳤다(春正月熊川州進金芝)."는 내용도 실려 있어 예로부터 새로 추수했거나 특별한 식물을 채취했을 경우 관에 진상하던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5세기에 쓰여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산개와 승검초 등이 경기도 동북부 산간 지역의 토산물로 기재되어 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엽에 각각 쓰여진 『경도잡지(京都雜志)』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입춘에 경기도 산간 6읍(양근, 지평, 포천, 가평, 삭녕, 연천)에서 이들 식물을 채취하여 관에 바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총아 · 산개 · 승검초를 관에 바치던 풍속은 일종의 천신(薦新)으로서 이미 조선 초기부터 전해오던 세시풍속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 총아 · 산개 · 승검초는 각각 산에서 나는 갓(Brassica juncea var. integrifolia SINSK.)과 움을 틔우기 시작한 파(Allium fistulosum L.), 그리고 당귀(Angelica gigas NAKAI.)의 싹을 가리킨다. 이들 식물은 대체로 맛이 맵고 쌉쌀하나 먹고 나면 입 안이 개운해지고 식욕을 돋워 주며, 또 겨우내 쌓인 피로와 독소를 풀어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약리적 기능도 갖고 있다. 곧 겨우내 신선한 야채를 섭취하지 못하고, 입맛도 잃기 쉬운 이른 봄에 산에서 캐낸 세시음식의 재료이다.

먹는 방법은 『경도잡지』에 실려 있듯이 산개[芥子]는 눈 녹을 무렵 캐어 더운 물에 데쳐 초장에 무친 다음 고기 먹은 뒤에 먹었고, 승검초는 꿀을 발라 먹었다. 또 궁궐에서는 오신반(五辛盤)이라 하여 파 · 마늘 · 달래 · 무릇 · 부추 등과 함께 이들 식물을 넣고 겨자와 함께 무쳐 수라상에도 올렸다고 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世宗實錄地理志, 大韓植物圖鑑(李昌福, 鄕文社, 1980).

필자 | 김두진(金斗鎭)

맥근점(麥根占)

☞ 보리뿌리점

보리뿌리점

정의 입춘에 보리뿌리의 성장 상황을 보아 보리 수확을 미리 점치는 농사점.

내용 보리뿌리점 · 보리뿌리점보기 · 보리뿌리점치기 · 보리뿌리보기 등 유사한 이름들로 불리며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맥근점(麥根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리뿌리점'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자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열양세시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농가에서는 입춘날에 보리 뿌리를 캐어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그 보리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이고, 두 가닥이면 평년이고, 한 가닥이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 전승되고 있는 각 지역 보리뿌리점법에서 보이는 약간씩의 변화들을 평균한 표준점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리뿌리의 개수에 따라서 각각 흉년, 평년, 풍년으로 점친다는 판단법이 가장 많은 표준형이다.

지역사례 지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형들을 볼 수 있다. 전북 김제에서는 뿌리가 많으면 풍년이 들고 적으면 흉년이 든다고 하고, 전남에서는 점법은 같으나 그 날짜가 곳에 따라서 정월 대보름 또는 동짓달로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충남 천안에서는 뿌리의 깊이를 보고 점을 치는데, 깊게 박혀 있으면 풍년이고 얕게 박혀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뿌리가 하나이면 가뭄이 들어 흉년, 둘이면 비가 알맞게 와서 풍년, 셋이면 수재가 있어 흉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제주도는 벼농사가 거의 없고 보리농사가 매우 많아 많은 강우량이 필요 없다. 오히려 내륙의 강우량이 적어야 제주도는 풍년이 든다고 했고, 점 판단법에도 그러한 기후 조건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강원도 태백에서는 보리농사를 짓지는 않으니 보리뿌리점은 없다는 보고도 있다. 한반도의 보리농사는 북부 지방에는 거의 없고, 중부에는 적고, 남부로 갈수록 많아진다. 따라서 보리뿌리점도 북부에는 거의 없고, 중부에는 적고, 남쪽일수록 다양해진다.

의의 근래에는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보리농사가 현저히 감소되어 이 관습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 보리뿌리점을 대개 입춘에 하는 것은 24절기의 첫 절기인 입춘이 한 해 농사의 기점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참고문헌 | 洌陽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篇-(문화재관리국, 1969),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장주근(張籌根)

입춘첩(立春帖)

⇨ 입춘축(立春祝)

입춘축(立春祝)

정의 입춘날 봄이 온 것을 기리어 축하하거나 기원하는 내용을 적은 글.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이자 봄을 맞는 날이므로 이 날 봄의 형상에 적합한 축하 · 기원 · 경계 등의 글을 쓰는데, 이를 입춘축(立春祝) · 춘축(春祝)이라 한다. 그리고 종이를 잘라 좋은 글을 쓰고 입춘일에 각 집마다 대문이나 기둥 등에 붙인다고 하여, 입춘첩 · 춘첩 · 춘첩자(春帖子) · 입춘방(立春榜) · 춘방(春榜) · 문첩(門帖)이라 하며, 또는 입춘(立春)붙인다고 한다. 그리고 문이나 기둥마다 대구의 글을 지어 붙인다고 하여, 춘



입춘축쓰기
경남 창녕군 고양면 황현만

련(春聯)·대련(對聯)·문대(門對)라고도 한다.

유래 문첩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중국 황제(黃帝) 때 흉악한 귀신을 쫓기 위해 설날 도부(桃符)에 신도(神荼)와 울루(鬱壘)의 형상을 그려 문에다 걸었다는 것에서, '신도울루(神荼鬱壘)' 넉자를 써서 붙인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춘련은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하면 입춘에 봄을 맞이하여 봄의 행운을 부른다는 '의춘(宜春)' 두 자를 써서 문에 붙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진운첨(陳雲瞻)의 『잠운루잡화(簪雲樓雜話)』에 의하면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섣달 그믐날 하루 전에 공경대부와 일반 서민들로 하여금 대문 위에 춘련(春聯) 한 폭씩을 붙이라고 한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 춘첩자는 고려시대부터 보이는데, 『동문선(東文選)』에는 김부식(金富軾)이 쓴 내전(內殿) 춘첩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송나라 서긍(徐兢)이 개경 광화문(廣化門)에 붙여져 있는 "눈 자취 아직도 삼운폐에 있는데(雪痕尙在三雲陛) 햇살이 비로소 오봉루에 오르네(日脚初升五鳳樓) 제후들 잔 올려 축수하니(百辟稱觴千萬壽) 곤룡포 자락에 서광이 어리네(袞龍衣上瑞光浮)"라는 춘첩자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어전(御殿)과 태후전(太后殿)의 춘첩자가 있는데, 대체로 장수를 기원하는 5언 또는 7언시이다.

조선시대에도 춘축 또는 춘첩자라고 하여 봄을 축하하는 시를 적고 있으며, 이를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지제교(知製敎)로 하여금 5언 절구(絶句)로 짓게 하고, 그 가운데 뛰어난 1수(首)를 택하여 궁문(宮門)에 붙이게 하였으며, 세종 13년에는 춘첩자는 연상시(延祥詩)로 된 입춘(立春)을 축하하는 글이라 하여 문소전(文昭殿) 등의 묘문(廟門)에는 붙이지 않게 하였다. 성종대 이후로는 문신(文臣)을 대궐 뜰에 모아 놓고 운(韻)을 나누어 5언·7언 율시(律詩)를 지어 올리게 하였는데, 영조 39년에는 춘첩자를 지어 올릴 인원수를 8명으로 정하여, 일년에 세 번 첩자(帖子)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정조 5년에는 입춘 첩자는 송도(頌禱)뿐만 아니라 잠규(箴規)하는 뜻이 깃들어 있다고 하여, 규장각의 제학·직제학·직각·대교는 첩사(帖詞) 두 편씩을 뽑아서 직접 써서 올리게 하였다. 현재 규장각 도서에는 정조대부터 순조대까지 규장각 대신들이 써왔던 춘첩자를 모아 편찬한 3권의 『춘첩자』가 있다.

그리하여 『동국세시기』에 "승정원(承政院)에서는 미리 뽑은 시종신(侍從臣)과 당하(堂下)의 문관들에게 10일 전부터 연상시를 지어 올리게 한다. 이 때 홍문관, 예문관과 규장각의 제학에게 운자(韻字)를 내게 하여 5언·7언의 율시, 절구를 짓게 하고 채점하여 합격한 것은 대궐 안의 기둥이나 문설주에 붙이게 한다. 입춘의 춘첩자나 단오의 단오첩도 모두 이와 같다."고 하여, 춘첩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여 붙인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마광(司馬光)의 『일록(日錄)』에 "한림원에서 춘사(春詞)를 청하는 명령을 기다려 써두었다가 입춘에 잘라내어 궁중의 문에 붙인다."고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내용 입춘은 정월의 첫 번째 절기이고, 봄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신년(新年)으로 여긴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묵은해의 액(厄)을 멀리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입춘축을 써서 문이나 기둥에 붙인다. 입춘축은 태양의 황도(黃道)가 450도에 이르러 입춘점을 지나는 시각에 붙이는데, 사대부집에서는 궁중의 춘첩자와 같이, 새로 시(詩)나 사(詞)를 써서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옛사람의 아름다운 글귀를 따다가 쓰기도 한다. 여러 가게에서는 명필가에게 글을 받아서 문밖 기둥에 붙이기도 한다.

『동국세시기』나 『경도잡지(京都雜志)』 등에 전하는 춘첩으로, '문신호령(門神戶靈) 가금불상(呵噤不祥)', '국태민안(國泰民安) 가급인족(家給人足)',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세풍(時和歲豊)' 등의 대구어(對句語)가 있으며, 여염집의 기둥이나 문설주

1 외양간 기둥에 붙인 입춘축
2 대문에 붙인 입춘축
경남 창녕군 고양면 황현만




에는 '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 '거천재(去千災) 래백복(來百福)',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요지일월(堯之日月) 순지건곤(舜之乾坤)', '애군희도태(愛君希道泰) 우국원연풍(憂國願年豊)', '부모천년수(父母千年壽) 자손만대영(子孫萬代榮)', '천하태평춘(天下太平春) 사방무일사(四方無一事)', '국유풍운경(國有風雲慶) 가무계옥수(家無桂玉愁)', '재종춘설소(災從春雪消) 복축하운흥(福逐夏雲興)', '북당훤초록(北堂萱草綠) 남극수성명(南極壽星明)', '천상삼양근(天上三陽近) 인간오복래(人間五福來)', '계명신세덕(鷄鳴新歲德) 견폐구년재(犬吠舊年災)',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 개문백복래(開門百福來)', '봉명남산월(鳳鳴南山月) 인유북악풍(麟遊北嶽風)', '문영춘하추동복(門迎春夏秋冬福) 호납동서남북재(戶納東西南北財)', '육오배헌남산수(六鰲拜獻南山壽) 구룡재수사해진(九龍載輸四海珍)', '천증세월인증수(天增歲月人增壽) 춘만건곤복만가(春萬乾坤福滿家)' 등의 대련(對聯)을 많이 쓴다고 하였다. 또한 문이나 문설주에 붙이는 단첩(單帖)에는 '춘도문전증부귀(春到門前增富貴)', '춘광선도길인가(春光先到吉人家)', '상유호조상화명(上有好鳥相和鳴)', '일춘화기만문미(一春和氣滿門楣)', '일진고명만제도(一振高名滿帝都)' 등이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입춘대길 건양다경' 같은 입춘첩을 써두었다가 입춘에 책력(冊曆)에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추어 대문이나 기둥 등에 붙인다. 먼저 사당에 가서 입춘이 왔음을 고하는 '감고(敢告) ○○년(年) 입춘(立春) ○○월(月) ○○일(日) 시(時)'의 입춘축을 붙이고, 이어 집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대문에는 '입춘대길 건양다경', 중문에는 '문신호령 가금불상'과 '신도울루', 기둥에는 '천증세월인증수 춘만건곤복만가', 아버지 방에는 '부주평안(父主平安)', 어머니 방에는 '모주평안(母主平安)', 곳간에는 '의이장지(義以藏之) 절이용지(節以用之)' 등 각각의 기원문을 써서 붙인다. 상중(喪中)에 있는 집에서는 입춘첩을 붙이지 않는다.

유사사례 입춘첩과 유사한 사례로 관상감에서 주사(朱砂)로 벽사문을 써서 대궐 문설주에 붙이거나, 『은중경(恩重經)』의 진언(眞言)을 인쇄하여 문에 붙이기도 하였으며, 공고(公告)의 의미로서 국왕이 내린 별유(別諭)를 입춘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에서는 춘첩으로 제석(除夕)에 '하도낙서(河圖洛書)', '신도울루', '인봉구학(麟鳳龜鶴)' 등의 글을 써서 붙이거나, 정월 초하루에 붉은 종이에다 글을 써서 붙이기도 하며, 상원(上元)에는 춘첩을 훔치는 풍속도 있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東文選, 宣和奉使高麗圖經, 成宗實錄, 世宗實錄, 洌陽歲時記, 英祖實錄, 正祖實錄,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 · 고려시대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 · 잡지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최순권(崔順權)

입춘치(立春—)

정의 입춘날 눈바람이 치는 등 날씨가 춥고 좋지 않은 상태.

내용 입춘치는 '입춘추위'의 전남 방언 또는 축어로 해석한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첫날인 입춘에 날씨가 춥거나 좋지 않으면 그만큼 멸구가 성해 그 해 농사가 잘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래서 입춘날의 날씨 상태를 보는 사람은 "이 날 눈이 오면 그 해 며루가 쓰인다."고 말한다. 이것은 여름 벼논에 멸구가 많이 생겨 농사에 해를 입힐 것이라는 뜻이다. 곧 입춘날 날씨가 좋으면 농사가 잘 되고, 눈바람이 치는 등 날씨가 나쁘면 그 해 농사를 망친다는 것으로, 입춘 때의 날씨가 그 해 벼농사를 좌우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행위는 무수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혜의 산물로, 우리 민족의 슬기로움과 섬세함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全羅南道誌19(全羅南道, 1995),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푸는체점

정의 푸는체(키)를 이용하여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제주도 풍속.

내용 '푸는체'는 표준어 '키'의 제주어다. '체'와 더불어 곡식의 알갱이와 겨를 분리하는,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긴요한 도구이다. 제주도에서는 이

사할 때 체와 푸는체를 먼저 옮기면 이사가 다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다. 또한 이사할 때의 흉험 조화는 체와 푸는체에서 온다고 할 정도였다.

제주도에서는 푸는체를 이용해서 그 해 곡식의 풍요를 점치곤 했다. 입춘날 온 집안과 마루방을 깨끗이 청소한 후 씻어 놓은 푸는체를 마루에 엎어 둔다. 몇 시간이 지나서 열어 보았을 때, 곡식 방울이 푸는체에 붙어 있다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날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해 운수가 형통하기를 기원한 것이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필자 | 좌혜경(左惠景)

명태순대(明太—)

정의 내장을 빼낸 명태 뱃속에 소를 채워 넣어 만든 순대. '동태(凍太)순대' 라고도 한다.

어원 『송남잡식(松南雜識)』에 "함경도 명천 사람 태(太)모씨가 비로소 북해에서 낚시로 잡았다. 크고 살찌고 맛이 좋았으며 명태라 이름 지었다."고 하였다. 이는 명천의 '명(明)' 과 태씨의 '태(太)' 자를 따서 작명했다는 것이다.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순대라는 요리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순대는 동물의 내장에 육류 · 곡류 · 채소류, 이외에 여러 가지 양념과 돈혈(豚血) 등을 섞어 넣고 양쪽을 실로 묶어 삶거나 쪄낸 음식을 말하나 오징어 · 명태 등의 몸통에 소를 넣은 것도 순대라고 불리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순대를 '수애' 라 한다.



유래 및 역사 6세기경 중국의 산동성 출신 가사협이 저작한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순대가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후로 순대에 관하여 여러 책에 수록되고 있는데, 『음식디미방』(1670)에서는 개장[犬腸]이라 하였고, 『주방문(酒方文)』에서는 황육 삶는 법,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에서는 우장증(牛腸蒸)이라 하였는데, 『시의전서』에 이르러 순대라 하고 있다. 명태순대와 같이 어류를 이용한 순대로는 1740년대 『수문사설(謏聞事說)』의 '어장증(漁腸蒸)' , 1800년대 『시의전서』의 '어교(漁膠)순대' 가 있다.

내용 명태(동태)의 배를 가르지 않고 생선머리를 따서 아가미 쪽으로 손을 넣어 창자를 깨끗이 들어낸다. 명태내장 · 고기 · 채소 · 두부 등을 다져 양념한 소를 채워 넣고 입을 오므려 묶은 것으로 찌거나 구워서 먹는다.

명태순대는 보통 때도 만들지만 김장 때쯤 만들어 밖에서 꿰매 달아 꽁꽁 얼려 놓고 먹거나 설 등의 명절 때 아주 많이 만들어 손님 접대용으로 쓰였는데, 함경도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다. 동태의 명산지 명천 지방에서는 동태를 바리로 실어 들여 오면 겨울 찬을 마련해 두는데, 순대처럼 소를 넣어서 얼렸다 먹었다고 한다. 명태순대에는 돼지순대와는 달리 선지를 넣지 않는다.

참고문헌 | 明太의 名稱과 語源(鄭文基, 한글4-6, 朝鮮語學會, 1936), 쇠츠네찌게와 北道一味 明太순대(韓晶惠, 北韓10, 北韓研究所, 1971),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韓國食品文化史(李盛雨 著, 敎文社, 1984), 우리말 큰 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1), 순대의 文獻的 考察(孫貞佑, 培花論叢16 · 17, 培花女子大學, 199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식 백가지1, 2(한복진, 현암사, 1998), 한국음식대관2 -주식 · 양념 · 고명 · 찬물-(조창숙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필자 | 이영옥(李永玉)

오신채(五辛菜)

정의 다섯 가지 매운 맛이 나는 채소로 만든 새 봄의 생채요리. 입춘채(立春菜) · 진산채(進山菜) · 오훈채(五葷菜) · 오신반(五辛盤)이라고도 한다.

유래 및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입춘조(立春條)에 경기도 내 산이 많은 6개의 고을, 즉 기협육읍[畿狹六邑; 양근(楊根), 지평(砥平), 포천(抱川), 가평(加平), 삭녕(朔寧), 연천(漣川)]에서 움파(葱芽) · 멧갓(山芥) · 신감초(辛甘草, 승검초) 등 햇나물을 눈 아래에서 캐내 진상하고 궁궐에서 겨자와 함께 무쳐 '오신반' 이라 하여 수라상에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신반은 겨우내 결핍되었던 신선한 채소를 보충하고 자칫 잃기 쉬운 봄철 입맛을 돋우는 햇나물 무침이었다. 오신반의 다섯 가지 생채에 대하여는 시대와 지방에 따라 다르나, 오신채로 움파 · 산갓 · 승검초 · 미나리싹 · 무싹의 다섯 가지 또는 파 · 마늘 · 달래 · 무릇 · 부추와 같이 자극성이 강한 여덟 가지 나물(파 · 마늘 · 자총이 · 달래 · 평지 · 부추 · 무릇 · 미나리의 새로 돋아난 싹이나 새순) 가운데 황 · 적 · 청 · 흑 · 백 다섯가지 색을 띤 것을 골라 무쳤다는 설도 있다.

의의 입춘에 자생 향채를 요리해 먹음으로써 봄을 맞이하는 감회를 새로이 하고 아울러 이런 절식 풍속은 겨울을 지낸 후 인체에 부족한 비타민C 섭취의 필요성을 생각하여도 합리적인 식습관이라 볼 수 있다. 오신채는 오방색의 경우에서처럼 노란색 나물을 중앙에 놓고 주위에 청 · 백 · 적 · 흑색의 나물을 놓아 이것을 임금이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했는데, 이들을 한데 섞어 무쳐 먹음으로써 모든 것을 화합 · 융합하여 임금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정치적 의미를 나타냈다고 한다.

서민들도 입춘이 되면 절식으로 오신채를 먹었다. 이 때 오색의 상징적 의미는 인(仁, 靑) · 예(禮, 赤) · 신(信, 黃) · 의(義, 白) · 지(志, 黑)의 덕목으로 각각 간(靑) · 심장(赤) · 비장(黃) · 폐(白) · 신장(黑)의 인체 기관을 의미한다. 입춘날 오신채를 먹으면 다섯 가지 덕을 모두 갖추게 되고, 신체의 모든 기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해진다고 믿었다. 오신채를 준비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고추장에 파를 찍어 먹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의 풍속에서는 교춘(咬春)이라 하여 생무를 먹거나 새 것을 먹는다는 의미로 신반(辛盤)을 만들어 축하한다. 소송(蘇頌)에 따르면 음력 정월에 오신채를 먹으면 일년 내내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양력 1월 7일 아침에 나나쿠사유(七草粥, 들나물 7종을 넣고 끓인 죽)를 먹는 풍속이 있는데 이는 일년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이다.

참고문헌 | 韓國食品文化史(李盛雨 著, 敎文社, 1984), 한국 전통음식의 영양학적 조명(이기열, 韓國營養學會誌19, 韓國營養學會, 1986), 한국음식대관1 -한국음식의 개관-(윤서석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한국음식대관6 -궁중의 식생활 · 사찰의 식생활-(황혜성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조후종의 우리 음식 이야기(조후종, 한림출판사, 2001), 봄나물과 마누라(김경동, 新東亞534, 2004), 입춘의 세시음식(조후종, 민속소식102,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이영옥(李永玉)

가게 기둥에 입춘이라

정의 추하고 보잘 것 없는 가게 집 기둥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을 써 붙인다는 뜻으로 제 격(格)에 맞지 아니하고 지나치다는 뜻의 속담.

내용 조선시대 속담집인 『동언해(東言解)』에는 '가가주입춘(假家柱立春)'이라고 하였다. 입춘이면 "대궐 안 기둥 입춘을 맞아 경사가 있으라."는 뜻을 담은 글인 춘첩자(春帖子)를 붙였고, 민간에서도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같은 글을 써서 붙였다. 유사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개 발에 놋 대갈", "거적문에 돌쩌귀", "개발에 주석 편자", "돼지우리에 주석 자물쇠", "짚신에 정분 칠하기" 등이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우리 속담 사전(元英燮,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최래옥(崔來沃)

이월에 물독 터진다

⇨ 입춘에 장독(오줌독) 깨진다.

입춘 거꾸로 붙였나

정의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몹시 추워진다는 속담.

내용 입춘(立春)은 양력 2월 4일 경으로 절후로는 봄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날씨가 춥다거나 눈이 쌓여 있는 상태로는 여전히 겨울이라서 봄을 실감하지 못한다. 도리어 날이 더 추워지는 경우도 있다. 같은 날씨인데 심리적으로 봄이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더 춥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면서도 봄이 아니라 겨울이라서 입춘이 제 구실을 못한다. 입춘이 제대로 구실을 한다면 입춘 글자를 바로 세워 썼을 것인데, 제 구실을 못하니까 입춘을 거꾸로 붙인 셈이다.

그렇지만 봄추위와 노인 건강이 오래 가지 못한

다는 뜻의 "봄추위와 노인 건강(春寒老健)", "봄추위와 노인 건강은 믿을 것이 못 된다(春寒老健不可望)."는 속담이 있듯이 봄추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또 '꽃샘추위'라고 해서 3, 4월에도 추위가 오지만 일시적이다. 이와 유사한 속담으로는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春來不似春)."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우리 속담 사전(元英燮,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최래옥(崔來沃)

입춘에 장독(오줌독) 깨진다

정의 입춘 무렵의 추위가 매서워 장독(오줌독)이 얼어서 깨진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입춘은 절기상 양력으로 2월 4일 경이다. 비로소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그 무렵의 추위가 매서워 장독(오줌독)이 얼어서 깨질 만큼 추위가 강하다는 말이다.
유사속담 봄의 추위와 관련된 속담으로 유사한 것들이 많다.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 "봄추위가 장독 깬다.", "2월에 김칫독 깬다.", "2월에 물독 터진다.", "2월에 물사발이 얼어 깨진다.",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9), 한국속담 · 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편집부(編輯部)

입춘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정의 입춘 무렵의 늦추위는 빠짐없이 꼭 온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입춘이지만 날씨가 춥다는 의미로 반드시 입춘 무렵에는 추위가 찾아온다는 뜻이다. 즉, 입춘이면 반드시 춥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사속담 "입춘에 장독(오줌독) 깨진다.", "꽃샘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소한 추위는 꾸어다 해도 한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 · 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편집부(編輯部)

우수(雨水)

정의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입춘 입기일(入氣日)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이 되며 태양의 황경이 330도의 위치에 올 때이다.
내용 24절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상순에 드는 절기(節氣)와 하순에 드는 중기(中氣)로 나뉘는데 흔히 이들을 합쳐 절기라고 한다. 입춘이 절기인 반면 우수는 중기가 된다. 음력으로는 대개 정월에 들며 우수라는 말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니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바 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태음태양력(음력)에서 정월은 계절상 봄에 해당된다. "우수 뒤의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슬슬 녹아 없어짐을 이르는 뜻으로 우수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 무렵에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수 입기일 이후 15일간씩 세분하여 그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첫 5일간은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튼다고 하였다. 우수 무렵이 되면 그동안 얼었던 강이 풀리므로 수달은 때를 놓칠세라 물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먹이를 마련한다. 원래 추운 지방의 새인 기러기는 봄기운을 피하여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되면 봄은 어느새 완연하여 마지막 5일간, 즉 말후(末候)에는 풀과 나무에 싹이 튼다.

참고문헌 | 四時纂要, 曆法의 原理分析(이은성, 正音社, 1985).
필자 | 김명자(金明子)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정의 우수(雨水, 양력 2월 18일 경)와 경칩(驚蟄, 양력 3월 5일 경)이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진다는 뜻의 속담.
내용 우리나라 북쪽인 평양 대동강에는 봄이 늦게

온다지만 입춘이 지난 보름 후 우수, 한 달이 지난 경칩이면 거기도 얼음이 녹고 날이 풀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역에는 겨울이 물러나고 봄기운이 완연하다는 말이다. 우리 가사(歌辭) '수심가(愁心歌)' 에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리더니 정든 님 말씀에 요 내 속 풀리누나. 차마 진정 임의 생각이 그리워 나 못살겠구나." 하는 대목이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館, 1962), 한국속담 · 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래옥(崔來沃)

우수 뒤의 얼음같이

정의 우수가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진다 하여 얼음이 슬슬 녹아 없어짐을 이르는 속담.
내용 우수는 절기상 양력 2월 18일 경이다. 이 때는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트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수가 지나면 추웠던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의미이다.
유사속담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9).
필자 | 편집부(編輯部)



갯제(一祭)

정의 바닷가에서 풍어와 안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례. 갯제는 바닷가 마을에서 행하는 의례로 둑제·풍어제·어장제·서낭제·날제·수신제·해신제·용신제·용왕제·용굿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내용 갯제는 도서해안의 마을에서만 행해지며, 배나 어장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고사나 푸닥거리, 마을에서 무당을 불러서 하는 풍어굿과는 성격과 형식을 전혀 달리한다. 또한 그 분포권 역시 호남 지역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갯제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식이 있다. 마을제사인 동제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당산제와는 별도로 행해지는 곳도 있다. 또 여러 가지 양식으로 행해지는데, 예를 들면 여자들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 해당 마을의 해산물에 대한 산업적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갯제가 확대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갯제는 동제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풍농을 비는 농촌 지역의 줄다리기나 달집태우기와 같이 동제의 부대 행사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지역사례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나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전북 부안군 위도의 경우는 갯제가 동제의 말미에 속하면서 대미를 장식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제례 방식은 서로 다르다. 대포리의 경우는 동제를 모시면서 몹시 엄숙한 분위기가 계속되지만 갯제는 완전히 축제적 분위기에서 행해진다.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밤새 가무를 하고 놀다가 새벽에 용왕에게 소 한 마리로 간주되는 한 마리 분의 소뼈를 헌식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장좌리의 경우는 바닷일과 관련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정성껏 제물을 차려서 바닷가에 가져다 놓고 개인적으로 절을 하며 해산물의 풍작을 빈다. 또 위도의 경우는 소위 띠뱃놀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띠배에 허수아비를 태워 마을의 액운을 멀리 바다에 띄워보내는 송액(送厄)의 기능과 복합·결착된 갯제를 행하기도 한다. 다른 예로 도깨비가 풍어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지역에서는 도깨비를 위해 헌식하기도 한다. 동제가 끝나면 미리 준비해 둔 메밀묵을 제관들이 마을의 바닷가를 걸어가면서 바다에 던져 준다. 대보름 풍속에 달이 뜰 때 바다의 도깨비불을 보고 풍어를 점치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러한 지역에서는 도깨비에 의해서 어장의 풍흉이 결정된다고 믿어 갯제 역시 도깨비가 가장 좋아한다는 메밀묵이나 메밀떡을 바다에 뿌리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형식으로서 특이하게도 여자들만 참여하거나 처녀들만 참여하여 갯제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남 완도 고금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오후에 마을의 처녀들이 각 가정을 돌면서 김과 쌀을 걷어다가 김밥을 싸서 바닷가에 모여 그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김의 풍작을 빈다. 또 그들은 김밥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놀기도 하고 마을을 돌면서 각 가정에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의의 논농사가 많은 지역의 줄다리기, 밭농사가 많은 지역의 달집태우기와 대칭되는 것으로서 바닷가 마을에서는 해산물의 풍작을 위해 갯제가 행해지며, 그런 점에서 갯제는 동제에 비해서 음복, 헌식, 그리고 놀이적 성격이 훨씬 강한 어촌의례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광주·전남의 민속연구 -개정증보-(나경수, 민속원, 1998),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나경수(羅景洙)

갯제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김영환



거리제(一祭)

정의 정월 초삼일이나 대보름 무렵에 마을 입구, 또는 거리에서 무병제액(無病除厄)과 풍농을 기원하

는 동제의 한 종류. 신앙 대상물의 신격(神格)에 따라 노신제(路神祭)·장승제·동고사(洞告祀)·노승제(路丞祭)·서낭제·목신제(木神祭)·탑제(塔祭)·수살제 등으로도 부른다. 넓은 의미에서 거리제는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를 일컫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제의 명칭에 거리[路] 또는 노신(路神)의 의미가 내포된 동제로 국한한다.

내용 거리제는 충청 지방을 위시한 전남·경남 지역 일부에서 호칭되는 동제의 명칭이다. 특히, 대전·충남에서는 하당(下堂)에 대한 의례를 거리제 혹은 노신제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신앙 대상물이 장승인 경우에는 장승제, 탑을 모시면 탑제라 칭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리제란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정월 초에서 대보름 사이에 주로 거행되는 거리제는 신년제(新年祭)의 성격이 짙다. 산신제로 대표되는 상당의례(上堂儀禮)가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거리제는 하당의례(下堂儀禮)의 특성상 재액소멸(災厄消滅), 역질퇴치(疫疾退治), 우마창성(牛馬昌盛) 등 좀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전염병과 괴질의 창궐로 인해 인명의 손실이 컸던 지난날의 열악한 사정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거리제의 특징은 제의 과정에 그대로 수용되어 액운을 실어나르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짚말[芻馬]이 등장하는가 하면, 해물리기(해물림)·헌식(獻食) 등과 같은 독특한 의식이 부가되기도 한다. 가령 거리제를 마치면 제물의 일부를 떼어 사방에 뿌려주거나 길 한복판에 열십자[十]를 그은 다음 그 위에 칼을 꽂고 바가지를 씌워 둔다. 때로 제관은 부엌칼을 집어던지며 사뭇 위협적인 말로 잡귀를 겁주고 어르기도 하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짚으로 엮은 오쟁이에 음식을 담아주거나 한지에 제물을 싸서 땅에 묻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거리제에 초대받지 못한 잡귀와 잡신을 풀어먹이는 의식으로, 이를 통해 혹시 마을에 해를 끼칠지도 모를 사악한 기운과 액운을 제거하는 것이다. 동해안 별신굿의 마지막 거리에서도 잡신을 풀어먹이는 거리굿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리제의 대상신은 매우 다양하다. 이른바 하위신(下位神)으로 일컬어지는 장승, 솟대, 탑(塔), 선돌, 신목(神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하위신은 단독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몇 개의 신체(神體)가 복합양상을 이루면서 하나의 성역을 구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령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에서는 탑, 장승, 솟대, 신목이 거리제의 대상신이고,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의 경우에는 장승, 솟대, 선돌이 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의 거리제는 탑과 그 위에 얹힌 오리 모양의 새를 신체로 모시는데 이를 '거릿대'라 부른다. 이와 같이 장승과 솟대, 탑과 선돌, 장승과 탑 등이 공존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며, 그것은 마을 입구에 이중삼중의 방어막을 구축함으로써 재액(災厄)의 침범을 막고 정주공간을 정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그런가 하면 별도의 신앙 대상물이 없는 경우에도 동구 밖 삼거리나 진입로에서 거리제를 지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과 우마차가 길을 통해서 마을로 출입하듯이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인 온갖 부정과 전염병의 침입 역시 동일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빈발하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리제를 지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역사례 충남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에서는 정월 15일에 노신제를 지내는데, 짚으로 엮은 짚말이 등장하는 것이 흥미롭다. 여기에서 짚말은 마을의 재액과 잡신을 싣고 가는 상징적인 신승물(神乘物)의 성격을 띤다. 제를 마칠 무렵에는 짚말의 오쟁이에 제물을 가득 담아 아이들로 하여금 동구 밖으로 번개처럼 뛰어가게 한다. 이로써 마을의 모든 액운을 짚말이 가져간다고 믿는다. 짚말은 천연두를 배송(拜送)하는 무속신앙의 마마배송굿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동해안 별신굿에 등장하는 짚말, 곧 두창신(천연두)을 배송하고 축원하는 말놀이 혹은 말치레 놀이와 동일한 의미이다. 전남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당제에도 대말[竹馬]을 만들어서 마부가 데리고 놀다가 동네 앞 개울가에 버리는 의식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대마가 잡신을 실어다 버리기 때문에 돌림병이 없고 풍년이 든다고 한다.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1 거리제
충남 부여군 시헌강

2 거리제와 짚말
충남 부여군 내산면 괴목마을
국립민속박물관

삼거리에서 거리제를 올린 다음, 장승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잡곡밥을 뿌려서 잡귀·잡신을 먹인다. 그리고 왼새끼에 소의 턱뼈를 꿰어 장승의 목에 걸어주고, 제를 마치면 음식의 일부를 짚에 싸서 모두 12개를 제장 주변에 군데군데 놓아둔다. 이를 '헌식'이라 한다.

충남 아산의 일부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격년제로 노승제를 지내는데, 대상신은 거리의 정승[路丞]으로 일컬어지는 장승과 솟대이다. 장승을 최고의 벼슬아치인 정승에 비유함으로써 그 주술적인 힘으로 돌림병과 재앙을 물리친다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노승제는 하루 전에 장승을 깎아서 어깨에 매고 집집마다 걸립을 도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풍물패를 맞이한 각 가정에서는 저고리의 동정을 떼어 장승의 관모에 달아주고 실타래로 온 몸을 감아준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충남 논산시 상월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거리제를 지내기 전에 짚으로 실물 크기의 신랑각시인형을 만들어 등에 짊어지고 다니며 가가호호를 방문한다. 이 때 걸립을 당한 집에서 동정을 떼어 인형의 몸에 걸어주면 한 해의 액땜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것은 달집태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저고리의 동정을 불사르고, 액년(厄年)이 든 가정에서 별도로 거리제를 지내며 동정을 태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자신에게 닥칠 액운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믿는다.

대전 유성구의 한 마을에서는 특이하게도 거리제의 제물로 개를 잡아 통째로 바쳤다. 희생물로 진설되는 개는 흑구(黑狗)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황구(黃狗)를 쓰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마을에서는 메밀묵을 따로 준비하는데 그 까닭은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리제에 메밀묵을 올리는 것은 종종 목격되는 사례이며, 이는 제사 후에 도깨비와 사방의 잡신을 풀어먹이는 해물림에 사용된다.

장승과 솟대를 모시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서는 수수망세기(수수팥떡)와 메밀묵을 제물로 올린다. 파제 후에 제관은 수수망세기를 화살에 꿰어 공중으로 날려보낸다. 이어 거리제에 참석한 주민들도 차례로 활을 돌려가며 그렇게 한 뒤에 비로소 음복(飮福)을 한다. 여기에는 잡신을 먼저 대접하고 배송한다는 의도와 함께 붉은색이 갖는 벽사력(辟邪力)을 차용한 재액구축(災厄驅逐)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충남 금산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거리제의 제물로 수수팥떡 25개를 준비했다가 제를 마치면 꼬챙이에 꿰어 던지면서 "허세! 허세!"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것은 경기도 도당굿에서 남자 무당인 산이가 군웅굿을 마치고 화살에 시루떡 한 조각을 꿰어 날려 보내는 것이나 무녀가 궁무(弓舞)를 춘 뒤에 복숭아나무로 만든 화살을 굿당 밖으로 날려 잡귀를 물리치는 의식과 동일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의의 전통사회에서 마을 입구는 성(聖)과 속(俗), 안과 밖의 세계가 경계지어지는 공간이다. 또한 이곳은 재복(財福)이 들어오는 동시에 빠져나가는 통로이고 나아가 온갖 재앙과 부정이 깃드는 길목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요충지에 숲과 탑을 조성하여 비보(裨補)하거나 장승, 솟대, 선돌 등을 인위적으로 건립함으로써 재액구축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거리제의 신앙 대상물이 이들 하위신과 거리신이라고 한다면, 새해를 맞이하여 간절한 소망을 축원하는 거리제의 의미가 좀더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朝鮮巫俗考(李能和, 啓明19, 啓明俱樂部, 1927), 錦江誌(忠淸南道·韓南大學校, 1993),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 1994), 충북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4), 한국의 마을제당1~7(국립민속박물관, 1995~2003), 전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6),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7), 大田民俗誌 上(大田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2), 槐木亭 路神祭와 洞火(강성복, 부여문화원, 2003).

필자 | 강성복(姜成福)

고청제(告淸祭, 告請祭)

정의 주로 영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마을신앙의례의 하나. '고청제(告淸祭, 告請祭)' 라고 하고, 마을에 따라서는 '도신(禱神)' 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영동지역 마을신앙의례는 유교식 제사나 무당굿으로 하는데 고청제는 반드시 유교식 제사로 치러진다. 또한 무당굿이 몇 년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데 비해, 고청제는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정일(丁日)에 지내는 곳이 많다.

영동 지역에서는 마을수호신을 모시는 장소를 주로 '서낭당' 이라고 부른다. 고청제는 서낭당에서 하는 수도 있고 서낭당과는 별도의 특별한 장소에서 따로 지내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제를 지칭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서낭제와 별도로 여러 마을이 합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지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마을 이장이 주관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따로 계를 모아 계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낸다.

지역사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탑동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에 고청제를 지낸다. 사천면 미노리와 방동리와 지변동에서도 정월에 고청제를 지내는데 내용은 서낭제와 같다. 강릉시 경포 뒤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고봉은 올라가기 어렵다고 해서 '된봉' 이라고도 부른다. 고봉 아래는 운정, 난곡, 서지, 한밭, 즈므, 두루미 등 여러 자연마을이 있다. 이 마을들은 각자 서낭제를 지내고 있지만 음력 3월 중정일(中丁日)이면 고봉계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고봉 정상에 올라가 고청제를 올린다.

고봉 고청제의 역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875년 을해년에 작성된 '고봉고청계성책' 이 남아 있다. 이는 고봉계의 자금이 부족하여 농악대 걸립을 통해 중창한 기록인데 10개의 자연마을에 200여 호가 참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양반과 상민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마을 서낭제사에는 양반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마을에서 반상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봉계는 집안으로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년상(喪)을 지낸 후 장자가 들어온다. 고청제는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모시는 것이 원칙이다. 당은 산 위에 둥글고 얕은 돌담을 쌓아 제사지낼 장소를 마련해 놓았다. 넓지는 않지만 동해와 강릉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고청제당이 있다. 도착하면 유사는 당의 정면 세 군데에 지방을 붙인다.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 신위를 차례로 붙인 뒤 제물을 진설한다. 조육, 생물, 삼탕, 삼실과, 포, 메, 편, 형염으로 소략하나 정갈한 정성이 보이는 제물이다.

제사는 전형적인 유교식으로 홀기에 따라 진행한다. 초헌, 아헌, 종헌의 삼헌관이 순서대로 예를 올린 후 대축이 축을 읽어 마을의 안과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 성황은 마을을 지켜주고, 토지신은 생명의 근본이며, 여역신은 마을의 질병을 막아준다고 믿는다. 축과 지방은 땅에 묻고 모두 술 한 잔씩 음복하는 것으로 제사를 마친다.

의의 고청제의 순서와 내용은 일반적인 서낭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여러 마을주민들이 계층을 초월하여 더 큰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청제〉
1 고청제당
2 제관들
3 고청제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2리 탑동마을 코리아루트





참고문헌 | 江陵의 서낭당(江陵文化院, 1999), 새로 쓴 한국무속(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99),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과 중국의 민간신앙(김선풍 외, 보고사, 2004).
필자 | 황루시(黃縷詩)

골맥이제(一祭)

정의 '골맥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을 수호신에 대한 마을공동제의. 골맥이신은 주로 영남 지역의 마을에서 흔히 골맥이서낭님 · 골맥이할배 · 골맥이할매 등으로 불린다. 이 때 골맥이신은 마을에 처음 입주 · 정착한 마을의 첫 조상신(祖上神)이자 마을의 창건신(創建神) · 수호신(守護神)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골맥이 처녀'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마을의 제일 나이 많은 토박이 노처녀를 비유해서 골맥이신 개념을 희화(戱化)한 말이 된다.

어원 골맥이의 어원은 골과 맥이이고 그것의 합성명사로 보인다. 골맥이의 골은 장음(長音)으로 발음되며 고을맥이로 들리기도 한다. 이 때 골 또는 고을은 고을 동(洞) · 고을 읍(邑) · 고을 군(郡) 등의 고을, 즉 인간의 집단 거주처를 의미하는 말로 여겨진다. 그리고 골맥이의 맥이는 고을을 수호하는 자, 즉 막아주는 자인 막이의 'ㅣ' 모음 역행동화현상으로 여겨진다.

내용 골맥이의 기록은 193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석전 · 기우 · 안택(釋奠 · 祈雨 · 安宅)』에 경남 구포 별신굿에서는 "앞당산 골무기, 뒷산의 골무기"라는 무가 구절과 "골무기는 신목에 깃드는 신의 이름"이라는 간단한 설명이 보인다. 그리고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서 경남 동래 골맥이제의 간단한 기록이 한 건 보였으나 정작 기록되어야 할 『부락제(部落祭)』에는 골맥이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골맥이제가 체계적으로 조사 · 보고된 것은 1964년부터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에서는 3위의 골맥이 하 · 최 · 양씨 할배를 음력 10월에 택일해서 제사지낸다. 제관은 많은 성씨 중에서 '골맥이집'이라고 불리는 하 · 최 · 양씨 후손 중에서만 한 명이 선정된다. 하씨할배는 임진왜란 때 (또는 세조 찬위 때) 피난와서 낙향 1대조가 되었다고 하는 반면 최씨 측에서는 최씨 할배가 먼저 정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제주도에서의 고 · 량 · 부 3성씨 시조의 순위 다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경북 영주군 부석면 소천리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골맥이서낭님께 제관들이 제사지내고 나서 동회, 줄다리기, 풍물놀이들이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곳 골맥이는 이씨 여서낭님이라고 했다. 또한 1967년 전국 마을제당 서면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의 자료에서 골맥이라는 당 이름이나 제신이름을 보인 것은 강원도 11건, 경상북도 398건, 경상남도 331건 총 740건이었다.



이들 자료를 종합하여 골맥이신의 성격을 정리해보면, 우선 골맥이신의 분포는 경상도와 강원도 동남 일부를 포함한 한정된 지역성을 보이며, 이는 옛 신라 영역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 둘째, 여신이 남신의 2.4배로 아직도 지모신 신앙과 풍요기원의 고형(古型)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되었다. 그리고 셋째로 앞서 말한 골맥이신 집단의 시조신 · 창건신 · 수호신적 성격을 여기에 아울러서 고려할 만하다.

한편 골맥이제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기록은 1930년대의 기록이 가장 오랜 것이고, 그 이전의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골맥이신이 지니는 이상의 세 가지 성격 규정에 힘입어 그 역사에 대한 소원적인 고찰을 시도한다면 유사한 현상을 같은 영남 지역에서 멀리 박혁거세 전승이나 김알지 전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신라의 박씨집단 시조신, 집단의 창건신, 그리고 수호신이었다는 점에서 박혁거세는 충분히 박씨골맥이는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신라 왕가의 시조신이라는 김알지신화는 계림의 나뭇가지에 걸린 황금궤에서 시조신으로 탄생함을 전하고 있다. 그것은 골맥이신이 깃든다는 골맥이신목과 아울러 이른바 민간의 조상단지 신앙의 왕권신화

로서의 승화(昇華)이고 미화라는 각도에서 추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고루 제공해 준다.

의의 골맥이제는 여신관념이 우위에 서는 지모신 신앙이라는 면에서는 신라 시조신화보다도 더 고형성을 보존하고 있는 유구한 농경민족의 촌락 집단들이 평화와 풍요를 기원해 온 민간신앙의 오랜 전통이다. 세시풍속 면에서 한국의 마을제는 정월에 많고 그 중에서도 대보름에 집중되는데, 영남 지역 마을제의 한 형태인 골맥이제에도 그러한 경향은 뚜렷하다.

참고문헌 | 한국의 마을제당1~7(국립민속박물관, 1995~2003), 部落祭(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7), 釋奠·祈雨·安宅(調査資料第四十五輯, 朝鮮の鄕土神祀2, 朝鮮總督府, 1938),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著, 朝鮮總督府, 1941).

필자 | 장주근(張籌根)

공주탄천장승제(公州灘川長丞祭)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날 개최되는 장승제. 공주 장승제·소라실 장승제라고도 한다.

유래 송학리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좌우로 동편 마을과 서편 마을로 나뉘며, 마을 입구에 각각 한 군데씩 장승과 오릿대(솟대)가 세워져 있다. 동편 마을에는 남장승, 서편 마을에는 여장승이 있는데 이들 장승은 매년 1기씩 장승제를 지내는 날 새로 만들어 세운다. 장승이 있는 곳을 '장승배기'라 부른다. 장승제는 이 장승배기에서 동·서편 마을이 각기 지내는데, 장승제에 앞서 동편 마을의 남장승과 서편 마을의 여장승이 혼인하는 형식을 취한다.

탄천 장승의 건립 유래담으로 마을 앞산의 '괘등혈(掛燈穴)'이란 곳에서 내비치는 살(煞) 때문에 마을에 자주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승을 세웠다고 전하여 온다. 이렇게 볼 때, 주민들은 장승이 화재를 방지한다고도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마을에 전하는 입향기(入鄕記)에 의하면, 탄천 송학리에 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함양(咸陽) 박씨(朴氏)로서 그 역사는 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송학리는 함양 박씨가 주성(主姓)을 이루고 있다.

내용 장승제는 4일 또는 6일의 걸립에서부터 시작된다. 5일은 귀신날·궂은날이라 하여, 이 날에는 걸립을 하지 않는다. 장승제를 담당하는 자로, 부정이 없는 자들 중에서 제일(祭日)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 제관과 축관, 유사를 각 1인씩 선정한다. 특히 유사는 신에게 바칠 제물을 직접 다루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선정한다. 유사는 선정된 날부터 제일까지 매일 찬물로 목욕재계하여야 하며, 음식을 만들 때 집 앞에 왼새끼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타인의 접근을 막는 등의 금기가 요구된다. 주민들도 장승제일까지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승제 전날인 14일에는 유사 등이 아침 일찍 인근의 공주 시장에 나가 제물을 구입하여 온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대추, 밤, 곶감, 북어, 나물류 등과 소지에 쓸 한지와 초, 향 등을 구입한다. 이 때 가격은 절대 흥정하지 않는다. 상인들도 제물로 쓰일 용품이기 때문에 값을 올려 받지 않는다. 제물을 사 가지고 돌아오는 동안에도 부정한 것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며 조심한다. 저녁에는 주민들이 모두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들은 모아 태우는데, 이를 '모깃불 놓기'라 한다. 그러면 일년 내내 모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승제는 정월 대보름날 오전 10시 경 유사집 앞에서 풍물을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때 동편 마을과 서편 마을에서는 각각 보관해 온 깃대를 내온다. 깃대는 동편의 것은 푸른 천, 서편의 것은 붉은 천을 늘어뜨린 길이 7~8미터 가량의 농기(農旗)이다. 깃대 상단에는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 쓰여진 사각형 흰 바탕의 천이 달려 있다. 이 깃대를 선두로 풍물패와 주민들이 장승과 오릿대를 만들 나무를 베러 인근 산으로 간다.

나무를 벨 방향은 그 해 방위를 따져 길한 곳으로



공주탄천장승제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소라실마을
황헌만

정한다. 나무를 선정할 때 특별한 점은 없으나 가지와 옹이가 비교적 적고 반듯한 나무를 택한다. 나무를 베기 전에 그 앞에서 간단히 제를 올린다. 이를 '산신제'라 한다. 장승과 오릿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가 얻어지면 마을로 가져온다. 장승과 오릿대는 주민이 합심하여 만든다.

이 때 장승제를 마친 후 쓰일 '장수횃불'과 '군사횃불'도 만드는데, 장수횃불은 막대 두 개를 교차시킨 십자가 모양이고, 군사횃불은 솜이나 헝겊을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감고 막대기나 철사줄에 매달아 놓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장승, 오릿대, 횃불이 다 만들어지면 '기세배'라 불리는 동·서편 깃대의 모의 혼례식이 진행된다. 기세배란 서편 마을의 깃대가 동편 마을의 깃대를 향해 네 번 절하면 동편 마을의 깃대가 답례로 두 번 절하고 난 후 서로 맞절을 하는 내용인데, 이 때 양편 마을에서는 깃대를 더 숙이라는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기세배를 마친 후 주민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다. 이어 날이 어두워지면 양편 마을에서 각각 징을 쳐 장승제의 시작을 알린다. 양편 마을의 주민들은 각각 장수횃불을 선두로 새로 만든 장승과 오릿대를 들고, 그 뒤를 풍물패 및 제관·축관과 주민 순으로 행렬을 갖춰 마을 도랑 위의 다리로 이동한다. 그곳에서 양편 마을의 남장승과 여장승의 혼례식을 거행한다.

먼저 서편 마을의 여장승이 동편 마을의 남장승에게 네 번 절하고, 다시 동편 마을에서 서편 마을에 재배한다. 이 때도 앞의 기세배와 마찬가지로 양편마을에서는 서로 더 숙이라고 소리치며 실랑이를 벌인 후 양 마을의 장승을 포옹시키는 합궁으로 들어간다. 합궁시 동서편 장승이 서로 몸체를 맞대고 성교를 모방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이 때 주민 간에 오가는 음담도 더욱 진해진다. 합궁의 절정시 양편 풍물패가 모여 합굿을 요란히 치고 나면 일행은 다시 각자의 장승이 서 있는 곳으로 향한다.

각 장승 앞에는 이미 제물이 진설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제관과 축관 2인이 제를 올린다. 먼저 제관이 제주(祭酒)를 한 잔 올린 후 축관이 축문을 한 번 읽는데, 이를 마치면 바로 제관이 재배한다. 이렇게 축관이 축문을 한 번 읽을 때마다 제관은 재배하는데, 독축과 재배는 모두 21번 반복된다.

이어 축관은 제관이 건네주는 소지를 받아 축언한다. 먼저 마을을 위하는 소지를 올리고 또 각 가호별로 호주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다 마치고 나면 축관과 제관이 간단히 음복한 뒤 제물 약간씩을 창호지에 싸서 장승 몸체 하단에 매어 놓는다.

장승제를 마치면 양편 주민들은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는데, 장수횃불을 선두로 그 뒤를 군사횃불을 든 사람과 풍물패가 뒤따른다. 이동하는 동안 양편 주민들은 서로 상대편을 향해 횃불을 흔들면서 "불귀 가라."고 소리친다. 이 행렬은 유사집에 이르러 그치며 주민들은 여기서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밤을 보낸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 경부터 장승제에 든 결산을 한다.

특징 및 의의 소라실장승제는 첫째, 하나의 마을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과 장승의 혼례식이라는 강한 연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양편 마을은 장승제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내기는 하지만 제관, 축관, 유사의 선정은 물론 장승과 오릿대의 제작도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장승제도 양편 마을이 각각 지내는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동편에서는 남장승을, 서편에서는 여장승을 만들어 이 둘을 결합시킴으로써 장승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천은 남장승과 여장승을 공유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기세배도 같은 의미이며 이는 다시 남녀의 성적 결합에 의한 생식·풍요·풍농의 기원으로 이어진다. 또한 평소 양분된 마을 구조가 대보름날의 장승제를 통해 양편 마을이 실은 하나의 마을이고, 하나의 주민이라는 의식을 강화하여 주는 의미가 있다.

또한 탄천장승제에서의 장승 혼례식은 현존 장승제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의 방식이면서 그 목적은 실제 남녀의 성적 결합을 모방함으로써 생산물의 증식과 번영을 도모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장승제에서의 혼례식은 이에 앞서 동·서편 마을이 기세배를 올릴 때에도 양편의 깃대를 서로 합혼시킨다는 점에서 혼례가 갖는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남녀 결합의 의미는 성신앙이 지니는 풍요의 원리와 함께 완전함과 화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장승의 의인화로 인한 혼례식

의 연출은 그 자체가 강한 놀이성을 지니기 때문에 마을제의로서의 성격과 함께 축제로서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탄천장승제는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제의이자 놀이라고 할 수 있다.

탄천장승제에서의 모의 혼례식은 사실 유례가 없고 비교적 최근에 새로 연출된 내용이라는 의견도 있어 본래부터의 전승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참고문헌 | 公州長丞祭의 性格에 對하여(盧鍾愚, 곰나루사회, 공주교육위원회, 1986), 소라실 장승제(임형진 외, 民俗學硏究1, 安東大學 民俗學會, 1989), 공주 소라실의 장승제(이종철 외, 충남지방 장승 · 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 충청남도, 1991).
필자 | 박호원(朴昊遠)

기고사(旗告祀)

정의 농촌에서 한 마을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농기(農旗)를 세우고 지내는 고사.

내용 이 기(旗)는 흔히 농기(農旗) · 대기(大旗) · 큰기 · 용기(龍旗)라 부르며, 깃폭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 능사사명(能師司命) · 신농유업(神農遺業) 등 농사의 이념이나 농신(農神)과 관련한 글귀를 묵서(墨書)해 두거나 용(龍)을 그린다.

기고사는 호남과 충청의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데, 특히 평야 지대의 논농사를 하는 마을에서 주로 모셔진다. 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들 지역의 마을에서 농기에 대한 종교적 신앙과 그 상징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기고사는 음력 정초 또는 보름날 새벽 먼동이 트는 시점에 맞추어 마을 입구나 부잣집 마당 또는 우물 옆, 제관 집 앞에 농기를 우뚝 세움으로써 시작된다. 이에 앞서 제상은 미리 준비해 둔다. 제관은 제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약식화된 유교식 제사로 고사를 올린다.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지는 않고, 제관들만이 조용하게 고사를 모시기도 하지만, 전 주민이 참여하기도 한다. 일단 세워둔 농기는 2월 초하루가 되어야 내린다. 기가 세워진 이 기간은 모처럼 맞은 정월의 휴한기이다. 2월 초하루가 지나면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든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모처럼 휴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기고사는 놀이



기고사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세거리마을
국립민속박물관

기간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매개물인 동시에 한 해 농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흔히 기고사는 동제(洞祭) 차원에서 모신다. 농기에 대하여 고사를 지내고 일정 기간 세워 놓는 것은 농기가 마치 마을의 주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마을의 어떤 공동체제의보다도 기고사에는 풍농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모든 동제가 하루가 끝나고 새날로 바뀌는 자시(子時)에 이루어지나 기고사는 먼동이 트는 새벽에 올리는 유일한 마을공동체제의이다. 곧 기고사는 한 마을 농사의 중심이며 상징인 농기를 동신(洞神)으로 신격화하여 고사를 모심으로써 한 해 농사의 성공을 보장받으려는 동제의 한 유형이다.

참고문헌 | 大田~唐津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考古遺蹟 地表調査 · 民俗調査 報告書(忠南大學校博物館 · 韓國道路工事, 1995).
필자 | 김효경(金孝慶)

기곡제(祈穀祭)

정의 나라에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며 정월 첫 신일[上辛日]에 원구단(圓丘壇)에서 지내는 제사. 기곡대제(祈穀大祭) · 기년제(祈年祭) · 기풍제(祈豊祭)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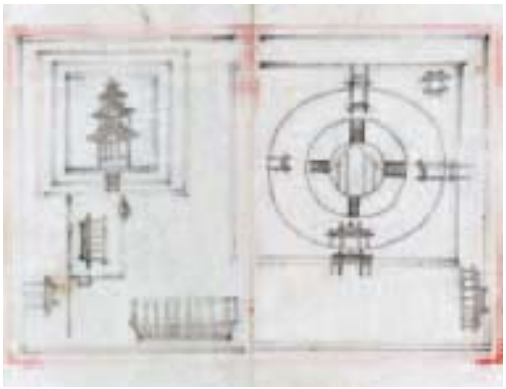
유래 기곡제는 정월에 상제에게 거행하였다. 『예기(禮記)』「월령(月令)」편 맹춘지월(孟春之月) 1월조에 의하면, "이 달 원진(元辰)에 천자는 하늘의 상제에게 기곡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상제를 모신 원구단에서 기곡제를 행하였다.

형태 및 변천 원구단 제사는 기곡(祈穀)·기우(祈雨)를 위한 제천의례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곡제는 원구단이 설치된 고려시대에 시작되었다. 고려의 원구제는 정월 첫 신일에 풍작을 빌었고, 4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하여 기우제인 우사(雩祀)가 거행되었다.

원구단에서 지낸 기곡제에 대한 문헌상의 첫 기록은 고려 성종 때로 나타난다.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에 의하면, 성종 2년(983) 정월에 왕이 원구에서 기곡제를 친행하고, 후직(后稷)에게 제사하는 적전(籍田)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40 「상신기곡원구제축(上辛祈穀圓丘祭祝)」에 보면, 원구기곡제에는 "하늘의 일은 소리가 없어도 만물이 힘입어 자라나는데 나라를 지니는 근본은 식량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살아갑니다. 바야흐로 첫 봄을 맞이하여 풍년이 되기를 기도하노니 상제의 혜택이 아니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리까." 하는 축문으로 기원하였다.

이와 같이 정월 상신일(上辛日)에 원구단에서 상제에게 풍년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원구기곡제에 참여한 관리들은 "정월 모일 상신(上辛)에 임금께서 원구에 친히 제사하여 풍년을 비시니 각각 그 직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충실히 정성을 다하여 임하지 않으면 나라에 정한 형벌로 다스릴 것이다."하고 맹세문을 낭독하였다.

이렇게 원구기곡제는 국왕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였고, 이에 관리들은 그 직분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 고려의 원구제는 대사(大祀)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제례 중의 하나였다.



원구단도설 『대한예전(大韓禮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에 들어 원구단은 원단(圓壇)으로 개칭되었으며, 여기에서 기곡제가 거행되었다. 태조 3년 8월에 예조에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원구단에서 기곡과 기우를 행하였다고 하면서 원단이라 고쳐 부르게 하였다. 태종 1년(1401) 정월 신축일(辛丑日)에 처음으로 친히 원단에 행차하여 기곡제를 지냈다. 『태종실록(太宗實錄)』 권7 태종 4년 1월 신해조에 의하면,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원단제(圓壇祭)를 한경(漢京)에서 행하였으니, 해마다 행하는 일이었다."고 하였다. 태종대에 들어 원단기곡제는 정기적으로 거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태종·세종 시기에 원구제에 대한 반대가 심하여 제대로 거행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세종대에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세조 2년 3월에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의해 원구제를 부활하였다. 이에 세조는 이듬해 1월 15일에 친히 원구제를 지냈다. 그 이전의 원구제는 정월 상신에 행하였으나, 이 때의 원구제는 중국의 예에 따라 정월 대보름에 행해졌다. 그러나 세조도 11년 정월에 행해지는 원구제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원구단에서 행해지던 기곡제는 사직단이나 선농단에서, 기우제는 우사단에서 주로 행해졌다.

오랜 논란 끝에 원구단이 폐지되면서 기곡제는 흉년이 극심할 때 임시로 거행되거나 선농단에서 거행되었다. 그러다가 숙종 21년(1695)에 부활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정월 상신일에 사직단(社稷壇)에서 매년 거행하도록 하였다. 사직단은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단은 국토신인 후토신을, 오른쪽에 있는 직단은 오곡신인 후직신을 모셨다. 단의 형태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에 의해 방형으로 축조하였다.

사직단은 삼국시대부터 설치되었는데 고구려 고국양왕 8년(391)에 국사(國社)를 지었으며, 신라에서는 선덕왕 4년(783)에 사직단을 세웠다. 고려는 성종 10년(991)에 사직을 세웠다. 조선은 태조 4년(1395)에 경복궁·종묘와 더불어 사직단을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여기에서 기우제가 거행되다가 숙종 이후로는 기곡제가 행해지게 되었다. 사직 기곡제는 영조(英祖) 때 『속오례의(續五禮儀)』를 편찬하

면서 대사(大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국왕이 직접 거행하지 않고 대신들이 대신 행할 때는 소사(小祀)에 준해서 거행되었다. 그러다가 정조 11년(1787)에 대신들이 섭행하는 기곡제도 국왕 친행 때와 마찬가지로 대사로 편입하여 희생이나 악장(樂章), 의물(儀物)을 친행과 같게 정하였다. 이리하여 사직기곡제는 정조 11년 이후 대사가 되었다.

한편, 기곡제는 원구단 이외에 선농단(先農壇)에서 거행되기도 하였다.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국왕은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농업과 관련이 있는 고대 중국의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를 선농단에 모셔 두고 제사를 지냈다.

선농제는 삼국시대부터 거행되었는데, 신라는 입춘 뒤 해일(亥日)에 선농제를, 입하 후 해일에 중농제(中農祭)를, 입추 후 해일에 후농제(後農祭)를 지냈다. 고려에서는 선농제가 중사로 되어 있었다. 『고려사』「예지」에 의하면 선농적전단에서 음력 정월 중 길일인 해일(亥日)에 제사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경칩 후 길한 해일을 골라 제례일로 정하였다.

원래 선농제는 백성에게 농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했던 의식으로, 선농단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농과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였다. 숙종 3년 2월에 허목(許穆)이 "선농단에 제사하고 몸소 적전을 갈아 보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 기곡하시는 것이며, 몸소 솔선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선농제가 기곡과 권농을 위한 제사였음을 말해 준다. 숙종은 31년 정월 신축일에 선농단에서 기곡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의의 기곡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에서 백성을 위하여 행해지던 중요한 의례의 하나였다. 그 기원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기』에 의하면 원구단에서 거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지속되어 왔다. 고려시대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구단에서 기곡제가 거행되었으나 원구단이 폐지된 조선시대에는 사직과 선농단에서 기곡제를 행하였다. 기곡제에는 농업 중시 관념과 권농정책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續大典,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朝鮮後期 祈穀祭 設行의 의미(이욱, 藏書閣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고려 國家祭祀의 體制와 그 특징(김철웅, 韓國史研究118, 韓國史研究會, 2002).

필자 | 김철웅(金澈雄)

남해안별신굿(南海岸別神一)

정의 남해안의 통영과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섬 지방에서 예로부터 행하여 오는 마을굿의 하나.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이 굿은 주로 음력 정월초에 거행되는데 마을에 따라 1년 또는 2~3년에 한 번 갖는 큰 굿이다. 남해안별신굿은 풍어제 제82-라호로서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별신굿은 남부 지방의 전형적인 세습무와 세습무계 집안의 전문잽이(악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데 세습이 끊긴 현재에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내용 별신굿의 별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학문적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을 현지에서는 몇 년 만에 갖는 큰굿이라는 생각이 공통적이다.

① 제당과 신령: 마을의 제당은 나무숲(당숲)과 신목(神木) 형태로 되어 있으며 간혹 한 칸 정도 당집이 세워져 있으나 시멘트 건물로 연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곳의 제당은 서해안 지역과는 달리 당집 형태라기보다는 수목 형태여서 구체적인 신상(神像)이 없다. 주민들도 마을신에 대해서 뚜렷한 견해가 없고 그저 마을을 도와주는 산신이나 당할아버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굿청에서는 통령부대신이라 하여 마을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지동궤'를 제단에 경건하게 모시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지동궤를 신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절차와 내용: 별신굿이 있는 마을에서는 이미 3개월 전에 마을유지(추진위원격)들이 모여 1차 상의를 하고 15일 전에는 마을 전체 회의를 열어 계획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 마을회의에서 굿장모(화주격)도 정한다. 가가호호에서 굿 비용이 추렴되고(마을에 따라서는 이촌계에서 비용을 축적함) 일부 금액을 제물비로 굿장모에게 넘겨주면 굿장모는 제물준비와 진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에 책임을 진다. 주민들도 나름대로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고 마을을 깨끗이 청소한다. 주민들이 돕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마을의 각 반(班)별로 사제무 일행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다. 각 반의 주민은 차

례로 식사 때에 맞춰 1인 밥상을 차려 내온다.

마을로부터 별신굿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대모(큰무당으로 주무격)는 악사와 조무(助巫) 등 인원을 맞춰 별신굿이 있는 날 오후 마을에 도착한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먼저 마을의 옛길을 따라 한 바퀴 돌면서 대금으로 청신악을 불며 들맞이를 한다. 마을에 별신굿을 하러 왔음을 마을신에게 고하고 이제 굿이 곧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을에 알리는 것이다. 그런 후에 마을 안에 마련된 굿청(주로 마을회관)에 들어 마을측 대표(마을의 유지들로 별신굿 추진위원격)와 인사를 나누고 굿비용(사제무 일행에 대한 보수)에 대한 담합에 들어간다.

굿비용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곧바로 별신굿에 들어간다. 굿은 제일 먼저 마을 앞에 있는 목신당(마을과 바다의 중간쯤 되는 곳에 있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굿거리는 들맞이, 목신당굿, 굿장모댁 부정굿(이상 당일 밤까지), 일월맞이굿(다음날 해뜰 무렵), 골맥이굿, 용왕굿, 부정굿, 가망굿, 제석굿, 서낭굿, 대잡이굿, 큰굿(손굿 · 손님풀이 · 고금역대 · 황천문답 · 열두축문 · 환생탄일 · 시왕탄일), 대신풀이, 군웅굿, 거리굿(일명 시석굿)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굿거리 내용은 거제도양화별신굿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인데 마을에 따라서 굿거리 순서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열두 번째의 큰 굿은 남해안별신굿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중요한 굿으로서 큰굿 안에는 손굿에서부터 시왕탄일까지 일곱 거리가 들어 있다.

③ 음악과 춤: 남해안별신굿에서는 악기 편성으로 피리, 젓대, 해금, 호적, 장구, 징, 북 등을 갖추는데 옛날부터 삼현육각을 갖추었다고 한다. 기악에는 청신악(청신악곡으로 송신악도 겸한다.), 거상악, 변주곡, 시나위, 타령 등의 곡이 있고, 소리로는 넋소리, 제석노래, 제비난상, 손님풀이, 서낭풀이, 천근, 염불소리, 육갑 및 어정소리가 있다.

특징 남해안별신굿은 사제무 복색부터가 특이하다. 청쾌자에 색동소매를 이어 만든 무복(현지 명칭 쾌자)은 서해안의 위도원당굿 무복과 비슷하나 큰머리를 머리에 쓰는 것은 화관을 쓰는 동해안별신굿의 형식과 비슷하다. 남해안별신굿 나름의 독특한 복색이라고 할 수 있다. 굿은 전반적으로 볼 때, 동해안별신굿의 중잡이굿, 천왕굿 곤반놀이, 범굿 및 대거리나 서해안풍어제의 사냥거리, 다리발용신거리, 영산할아뱜 · 할먐 등과 같이 연극적이고 관중을 웃기는 외설적 재담이 없어 흥미성은 좀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신앙성이 강하여 주민을 진지하게 만들고 마을에 따라서는 굿거리 중간중간에 한판의 춤으로 주민들이 어울리는 것이 특색이다.

또 한 가지 굿을 시작할 때와 끝낼 때 대금독주로 청신악과 송신악을 연주하는 것도 특징이다. 한편 굿비용을 사전에 계약하지 않고 제물을 다 차려놓은 굿판에서, 그것도 이미 들맞이를 하여 신과 마을 주민에게 굿시작을 고하고 난 후에야 결정하는 형식은 아주 독특한 사례이다. 또한 큰굿에 속하는 여러 굿거리는 사령(死靈)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축원적 성격이 많아 굿에 대한 주민의 호응력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안 지역 굿에서 볼 수 있는 띠배보내기도 거제도별신굿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위의 굿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참고문헌 | 남해안별신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의 풍어제(하효길, 대원사, 1998).

필자 | 하효길(河孝吉)



1 남해안별신굿(일월맞이굿)
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리
국립문화재연구소



2 남해안별신굿(용왕굿)
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리 김영한

납읍리마을제(納邑里一祭)

정의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涯月邑) 납읍리(納邑里)의 유교식 마을제. 제주도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로 1986년 4월 10일에 지정되었다. 전도적(全道的)으로 '포제(酺祭)'라 통칭하는데, 한자 명칭에 익숙하지 않은 부녀자 등이 흔히 마을제라 불러왔다. 제주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 당시 구좌읍 송당리의 무속식 당굿과 함께 유·무식(儒巫式)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씩 지정하면서 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다 '마을제'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이후 정식 명칭이 되었다. 제주도의 각 마을에는 거의 남성들이 주관하여 유교식으로 거행하는 마을제인 포제와 여성들이 주관하여 빌고 무속식으로 거행하는 당굿이 병존하여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대표적인 것 하나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마을제를 지정한 것이다.

마을개관 납읍리는 읍사무소 소재지인 애월읍 애월리에서 남쪽으로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해발 80~90미터 고지에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의 역사는 500년 이상을 헤아리고 있으며,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고 조선시대에 많은 인재를 배출한 바 있는 전통적인 유림촌(儒林村)이다. 따라서 이 마을의 모든 민간신앙 의례는 유교식 색채가 많은 것이 눈에 띄며, 아울러 포제도 다른 마을과 달리 무속과 전혀 연관되지 않은 유교식 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포제단(酺祭壇)은 마을의 남쪽 금산공원(천연기념물 제375호. 납읍 난대림지대)에 있는데, 울창한 숲 속에 가로 15미터, 세로 8미터 넓이의 돌담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 토신단(土神壇), 포신단(酺神壇), 서신단(西神壇)이 현무암으로 만들어 설치되어 있다. 토신단은 제사를 지낼 때 토지지신위(土地之神位)의 지방을 써 붙여 모시는 제단으로 이 신은 마을 전체의 수호신이다. 포신단은 포신지위(酺神之位)라는 지방을 써 붙여 모시는 제단인데, 이 신은 본래 농작물 성장 과정에서 메뚜기 해를 막아주는 신이므로 농신(農神)임이 틀림없다. 한편 서신단은 서신지위(西神之位)라는 지방을 써 붙여 모시는 제단인데, 이 신은 홍역·마마의 신이다. 따라서 과거 홍역이 많이 유행하던 때에는 홍역을 막아 주도록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홍역이 없어졌으므로 이 신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다른 마을을 보면 포신 한 위(位)의 신에게만 제를 지내는 곳, 토지신과 포신 두 위를 모셔서 제를 지내는 곳이 일반인데, 이 마을에서는 서신(西神)까지 모셔서 제를 지내는 것이 특징이다. 포제단 곁에는 자그마한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제관들이 합숙·재계하는 곳으로 제청(祭廳)이라 부르고 있다.

내용 제의는 춘제(春祭)와 추제(秋祭), 1년에 2회 지낸다. 춘제는 음력 정월 상정일(上丁日)에 지내는 제이고, 추제는 7월 상정일에 지내는 제이다. 상정일에 마을에 초상이 난다든지 하는 부정한 일이 생기면 중정일(中丁日)로 연기하고, 이 날에도 부정한 일이 생기면 해일(亥日)에 지낸다. 이를 흔히 '혹정혹해(或丁或亥)'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런데 약 45년 전 마을회의에서 간소화할 것을 결의하여 지금은 춘제 한 번만 지내고 있다. 다른 마을에서는 정월의 포제를 정포제(正酺祭)라 하고 7월의 포제를 농포제(農酺祭)라 부르는데, 이 마을에서는 춘제, 추제라 불러왔다.

제의의 관리는 지금은 이장(里長)이 맡고 있다. 예전 약 100년 전까지는 향장(鄕長)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향장이 향회(마을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것을 해 왔는데, 향장제도가 없어지자 이장이 각 이사장[總務役]과 협의하여 제일(祭日) 1주일 전에 임시제향회(臨時祭享會)라고 하여 마을회의를 소집한다. 그 연락은 각 반장이 맡아 함과 동시에 마을의 마이크를 통하여 홍보한다. 이 회의에는 마을의 각 호에서 한 사람씩 남자들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전년도의 결산보고를 하고, 금년도의 제향비 결정, 제관 선출 등 제의 준비를 한다. 제향비는 이 포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는 경비 전부를 각 호에서 분담했으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에는 도에서 보조금 200만 원 정도가 나오므로 나머지만 각 호에서 분담·갹출한다. 지난해에는 1호당 2,000원씩 부담을 했다. 이 회의에서 선출되는 제관(祭官)은 12제관인데, 그 명칭과 직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헌관(初獻官)은 첫 번째의 헌관으로 이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아헌관(亞獻官)은 두 번째의 헌관으로 노인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종헌관(終獻官)은 막내의 헌관으로 원로 어른에서 뽑

는다. 집례(執禮)는 한문으로 된 홀기(笏記)를 낭송하여 제의를 진행시키는 역으로 유교식 제례를 잘 아는 사람으로 뽑는다. 대축(大祝)은 축문을 쓰고 그 축문을 낭독하는 역으로 한문을 알아 쓰고 읽을 줄 아는 이로 뽑는다. 찬자(贊者)는 헌관이 배례할 때 집례가 창한 국궁배(鞠躬拜)를 받아 흥(興)을 창하는 역이다. 알자(謁者)는 제를 행할 때 헌관을 안내하는 역이다. 봉향(奉香)은 제를 행할 때 향(香)을 받드는 역이다. 봉로(奉爐)는 제를 행할 때 향로를 받드는 역이다. 전작(奠爵)은 헌관이 올리는 술잔을 받아 제단에 올리는 역이다. 사준(司樽)은 제를 행할 때 술병을 관리하고 잔에 술을 부어주는 역이다. 전사관(典司官)은 제물의 준비, 진설, 철상, 음복 등 제물을 관리하는 역이다.

이상의 제관 중 찬자 이하의 제관을 소제관이라 하는데, 이들은 청년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예전에는 미혼인 자는 제관이 될 수 없었으나 지금은 미혼자라도 추천되면 소제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제관들은 제일 3일 전에 제청으로 모여 합숙·재계를 하는데, 이 날 제단 입구인 금산공원 어귀에 금줄을 쳐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제단을 청소하고 근신한다. 제관들은 제를 행할 때 입을 청금(靑衿)과 유건(儒巾)을 각자 준비하고 나와야 한다. 또한 합숙한 후로는 물론 그 전에도 몸 정성을 하고 불상사가 없도록 한다. 시체를 보지 말며 말고기, 개고기 따위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음식에 대한 금기는 심하지 않으나 비늘 없는 생선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먹지 않는다.



납읍리마을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김기삼

제관들이 합숙에 들어가면 마을의 어른들이나 청장년들이 술, 음료수, 찬조금 등을 가지고 제청에 격려하러 찾아온다. 그러면 술, 돼지고기, 식사 등을 대접한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이장과 이사장(총무) 부인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

제물은 제일의 전일, 곧 병일(丙日)에 준비하며, 정일(丁日) 자시(子時)가 가까워지면 제단에 진설하는데,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도(稻)·양(粱)·서(黍)·직(稷)의 4가지 메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은 이미 기장이나 피를 갈지 않아 구할 수가 없으므로 쌀메 2그릇, 차좁쌀메 2그릇을 대신 올린다. 희생(犧牲)으로 동네에서 기르던 수컷의 흑색 돼지를 잡아 털을 벗기고 내장만 꺼내어 통째로 올린다. 폐백(幣帛)은 명주와 백지를 쓴다. 명주는 7자, 백지는 1권(20장)이 필요하다. 포(脯)는 녹포(鹿脯) 대신 쇠고기 1근으로 1접시를 준비한다. 어수(魚需)는 조기 말린 것을 한 마리 올린다. 해(醢)는 쇠고기 절인 것 1접시를 올린다. 청저(靑菹)는 무채 1접시를 올린다. 근저(芹菹)는 미나리채 1접시를 올린다. 오과(五果)는 유자·비자·밤·대추·곶감 각 1접시씩 올린다. 예주(醴酒)는 좁쌀로 만든 단술을 준비한다. 모혈(毛血)은 돼지 머리털을 몇 가닥 뽑아 놓고, 염통의 피를 조금 뽑아 넣은 것 1접시를 향상(香床)에 올린다. 위의 제물들은 메를 제외하면 모두 날것으로 올린다.

제물을 진설하여 자시가 되면 각 제관이 제자리에 서서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제를 행한다. 먼저 국궁사배(鞠躬四拜)를 하고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독축(讀祝),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철변두(徹籩豆), 망료(望燎)의 순으로 진행하여 끝을 낸다. 여기의 전폐례는 초헌관이 폐백을 올리는 절차이고, 각 헌례는 각 헌관이 술을 올리는 절차이며 철변두는 모든 제기를 거두는 것이고, 망료는 지방과 축문을 불태우는 것이다. 이 때 대축이 고하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幼學 姓名 敢昭告于 酺神之靈 伏惟酺神 除災降福 保我人民 報賽無斁 土地之神 保艮社神 惠我恩德 願賜物豊 長養壽域 西神之靈 降臨西神 善養兒輩 以賜紅疫 全然無頉 謹以牲幣 醴齋粢盛 庶品式陳 祗薦于神 尙 饗

지금은 서신에게 제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서신

에게 기원하는 내용만 삭제한 후 고하고 있다. 제가 끝나면 음복할 차례인데, 돼지를 잡아서 삶고 날것으로 올렸던 제물을 익혀서 음복을 하다 보면 날이 밝아버리므로 요새는 돼지고기를 날로 한 덩어리씩 끊어 각 제관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음복을 대신하고 있다.

의의 남성 중심의 포제가 일반 민간에게 보급된 것은 17세기 중엽을 넘어서지 못할 듯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濟州牧) 사묘조(祠廟條)에는 포신묘(酺神廟)가 안 보이는데, 1653년(효종 4)에 편찬한 『탐라지(耽羅志)』에는 포신묘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리 추정된다. 위의 책들에 보면 광양당, 차귀당 등 무속의 신당에 남녀가 무리를 지어 봄과 가을에 술과 고기를 올려 노래와 춤으로써 제사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추정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함께 무속의 신당을 위하던 신앙 형태가 조선조 중엽에 남성사회에 유학교육이 보급됨에 따라 남성들이 무속에서 분리·독립하여 포제를 수용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된 것이라 보인다. 이 포제가 마을의 자주성과 주민의 유대강화 그리고 결속력을 키우고 있음을 십분 이해하게 한다.

참고문헌 |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學術調査報告書7(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敎育科, 1982),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玄容駿, 集文堂, 2002).

필자 | 현용준(玄容駿)

당굿(堂—)

정의 제주도에서 단골이 심방과 함께 제일(祭日)에 맞춰 당에서 벌이는 굿.

내용 제주도는 남성이 제관이 되어 향교의 석전제처럼 유교식으로 지내는 '이사제' 또는 '포제'라 하는 마을제가 있고,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교식 마을제인 '본향당굿', 줄여서 당굿이라는 마을제가 있다. 제주도는 어느 마을에나 여성들에 의하여 관리되는 신당이 1개소 이상 있다. 이 신당은 마을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신의 집이다. 당은 '마을 토주관'이라고 하는 마을 수호신이 좌정하고 있는 성소(聖所)요, 당굿을 하는 제장이기도 하다. 당굿은 마을의 수호신인 본향당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에서 행해지는데 세시(歲時)에 따라,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세시에 따른 당굿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 신년과세제 또는 신과세제는 겨울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 맞이하는 신에게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계절제이며, 본향당신에게 신년하례를 드리는 굿이다. 신과세제의 제일은 대개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있으며 마을마다 차이를 보인다.

② 영등굿: 영등신은 음력 2월 초하루에 들어와서 2월 15일 나가는 내방신(來訪神)이다. 영등신은 바람의 신으로 저 멀리 강남천자국(江南天子國)으로부터 서북계절풍(北西季節風)을 몰고 오는 신이다. 영등신은 영등하르방·영등할망·영등대왕·영등호장·영등우장·영등별감·영등좌수 모두 일곱 신이다. 음력 2월 영등이 들면, 이 신들은 강남천자국에서 남방국 제주도로 산 구경, 물 구경하러 오는데, 맨 먼저 귀덕리 복덕개라는 포구로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라산에 올라가 5백장군에게 현신하고, 어승생 단골머리로, 소렴당으로, 산천단으로, 산방굴을 경유하여, 다리디끗[橋來里]까지 돌면서 봉숭아꽃·동백꽃 구경을 하고 다니며, 세경 너른 땅에 열두 시만국[新萬穀] 씨를 뿌려주고, 갯가 연변에는 우무, 전각, 편포, 소라, 전복, 미역 등을 많이 자라게 해초 씨를 뿌려주고 돌아간다. 따라서 각 마을에서는 영등신이 내방하는 기간에 영등굿을 하는데, 2월 초하룻날 영등환영제를 하고, 12일에서 15일 사이의 어느 날에 영등송별제를 한다.

③ 마불림제와 백중제(百中祭): 마불림제는 당신의 신의(神衣)를 보존하는 신당의 궤문(櫃門)을 열고 장마가 갠 후 그 신의를 내놓아 말리며 곰팡이를 풀어내는 제, 다시 말하면 신의청소의례(神衣淸掃儀禮)이다. 장마철의 마파람에 신의를 말리고 제장의 풀을 베어내고 청결히 하는 정화의례(淨化儀禮)로서 장마철에서 가을 수확기로의 이행기에 치르는 중간문안의례의 성격을 지닌다. 제주말로 마는 곰팡이, 불림은 풀림의 의미이다. 그리고 마는 곰팡이를 뜻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장마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장을 청소하고 신의의 습기(곰팡이)를 말리는 신당의 단속은 곧 장마를 개게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백중제는 가축[牛馬]의



당굿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김기삼

증식을 기원하는 제의로, 이들은 마을에 따라서 7월 14일 혹은 15일에 지내왔다.

④ 시만국대제[新萬穀大祭]: 신만국대제 또는 10월의 만곡대제(萬穀大祭)로 가을 곡식을 수확한 뒤 새 곡식을 마련하여 올리는 추수감사제이다. 주로 음력 9~10월 어느 날을 제일로 정하여 행해졌던 굿으로, 보통 앉은제로 굿을 한다. 수확한 햇곡식을 웃봉[上穀]으로 마련하여 한 해의 농사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본향당신에게 바치는 제미공양(祭米供養)의 추수감사의례(秋收感謝儀禮)이다.

⑤ 부정기적 의례: 제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택일하여 당에 가게 되는데 이를 부정기적 의례라 할 수 있다. 마을굿의 집단성이 약화되면서 정기적 제일은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자연 개인적으로 당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별 기원은 당굿이라 하지 않고, "당에 간다." 또는 "할망듸 간다(할머니에게 간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당제일은 일년을 단위로 세시에 맞춘 정기적·순환적 신성시간이다. 당굿이 없어지고 개인적으로 당을 찾게 되면, 우선 신성시간의 주기가 바뀌게 된다. 한 달을 단위로 정해진 제일이 3회 있게 된다. 가령 3제일은 7일당인 경우에 7일, 17일, 27일이 된다. 당에 가는 날은 신성시간의 주기인 제일의 간지(干支)와 자신의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맞춘 시간이다. 신앙인은 개개인의 생기복덕에 맞는 날을 택일하여 당에 나가게 된다. 그러나 신성시간이 빈도가 잦아진 만큼 신성성(神聖性)도 약화되며, 당신앙도 마을 당굿을 통한 공개적·집단적 공동체신앙에서 개인의 비념으로 끝나는 비의적(秘儀的) 개인신앙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굿의 규모도 작아져, 심방을 데리고 당에 가서 앉은제나 비념 등으로 제를 치르거나 굿 의례 없이 개인적으로 제물을 진설하고 배례를 한 후 궤를 묻고 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당굿은 정기적으로 치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매달 3일·4일·7일·8일·오일·축일·망일·삭일 등 택일하여 당에 가는 경우도 생겨 그 종류는 많아진다. 당굿은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산굿·앉은제·비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심방이 서서 하는 굿을 '산굿'이라 하고, 마을신앙민들의 집단성이 약화되면서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심방은 앉아서 장고를 두드리며 제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앉은제'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택일하여 심방 1인을 데리고 가서 요령을 흔들며 간단하게 치르는 굿을 '비념'이라 한다.

참고문헌 |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濟州島 堂信仰 硏究(文武秉, 濟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필자 | 문무병(文武秉)

당산제(堂山祭)

☞ 당제(堂祭)

당제(堂祭)

정의 당산신(堂山神) 등의 제당신을 모시면서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의례. 당제

또는 당산제 · 당고사 · 당마제 등으로 불린다. 이들 명칭은 서해안, 호남, 영남 등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곳은 호남 지역이다.

시기 제의의 시기는 정월 초순이나 10월 보름 등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주로 정월 대보름날 자시(子時)에 행해진다. 달과 풍요다산의 상징적 관련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즉, 태음력에 의하면 최초의 만월은 가장 큰 생생력(生生力)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에 상사(喪事)가 생기는 등의 부정(不淨)한 일이 발생하면 당제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유형 호남 지역 마을굿에서는 당제 또는 당산제라는 명칭이 일반적이다. 광주 · 전남의 당산제는 제사형 · 풍물형 · 무속형 · 혼합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사형은 주로 유교적 제차(祭次)에 의해 수행되는 양식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풍물형은 풍물패 위주로 수행되는 양식으로 서해안 지역 일부에 분포한다. 무속형은 무당의 주제 아래 수행되는 양식으로 남해안 및 도서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형이며, 혼합형은 세 유형 중 둘 또는 세 특성이 혼합된 양식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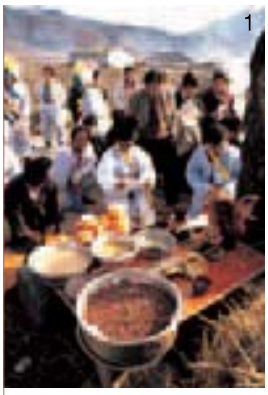
혼합형의 경우, 제장(祭場)은 제단형(祭壇型)과 제당형(祭堂型)이 있다. 제단형은 수목이 신체인 경우가 많은데 그 앞의 소박한 제단 위에 제상을 차려 제사를 모시며, 제당형은 일반적으로 도서 · 해안 지역에 많다. 또한 인공물인 장승 · 입석 · 솟대 등을 함께 당산제에서 모시는 마을도 있다. 그러나 제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제당형과 제단형이 결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당산신의 신체나 거처가 다중적(多重的)으로 표현된다.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의 경우, 당산이 마을 뒷산과 마을 입구에 위치하지만 그 성격은 산신과 동구(洞口) 당산 또는 오방신, 노거수, 석간입석(石竿立石), 짐대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산신을 모시는 당산제를 산신제라 하며, 동구당산과 같은 위치에 모셔진 당산나무(팽나무)와 오리가 앉아 있는 10미터 높이의 솟대당산이 있는 곳을 당산거리 또는 짐대거리라고 부른다.

내용 당산제를 모시는 제관은 정월 초순 무렵에 마을회의를 소집해서 선정한다. 마을 유지들만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마을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는 제사를 모실 사람의 선정과 제사 비용 산출 등이 논의되며, 제일(祭日)을 택일하는 마을에서는 제의 일정을 결정한다. 제관은 당산제를 모시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제물을 장만하는 화주, 술잔을 드리는 헌관, 독축을 하는 축관, 뒷심부름을 맡아보는 집사 등이 있다. 마을에 따라서는 당산굿을 담당하는 풍물꾼을 선정하기도 한다. 다른 제관들은 부정하지 않다는 조건만으로 가능하지만, 화주는 생기복덕에 맞아야 하며, 가정 뿐 아니라 집안에 유고가 없어야 가능하다. 유고란 상복을 입은 경우, 집안에 임산부가 있거나, 정월에 개고기를 먹은 경우, 부인의 달거리가 있거나 어린아이 또는 노처녀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선정된 제관은 금줄을 치고 금기와 재계(齋戒)를 행하는데, 마을 주민들 전체가 함께 행하는 경우도 있다. 금기의 기간은 사흘에서 보름 사이에 행해지며, 그 기간이 짧아지고 완화되는 경향이 많다. 금줄은 마을 입구와 당산, 당샘, 제관의 집, 동사(洞舍)의 앞 등에 걸어두며, 금토(禁土)를 깔아두기도 한다. 상주나 달거리를 하는 여성, 임산부, 환자 등의 부정한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 기제(機制)이다. 보통 이 기간에 출산해야 하는 여성은 다른 동네로 가서 출산해야 한다. 특히 화주의 경우, 이 기간에는 소변을 보면 손발을 씻고, 대변을 보면 찬물에 목욕해야 하기 때문에 화주로 선정되면 아예 금식하는 경우도 있다. 화주는 당산제를 마친 후에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궂은 곳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개고기를 먹지 않는 등 사회적 활동이나 개인 행동에 제약이 뒤따른다.

제물을 장만하기 위해 장을 보러 간다. 제물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제사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 제비는 제답(祭畓)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거나 집집마다 모금하는 호구전(戶口錢), 어린 아이까지를 포함하는 인구전(人口錢)이 있다. 요즘에는 출향인사들의 기부금도 큰 몫을 차지한다. 제물은 의례날 짜와 가까운 장날을 이용하며, 물건값은 절대로 깎지 않는다.

당산제를 낮 또는 새벽에 모시는 마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밤에 많이 모신다. 당산제는 당산의 수나 그 형태에 따라 2~3시간에 끝나는 곳도 있고, 새벽 또는 아침까지 계속되는 곳도 있다. 제사형의 경우 일반적인 제차는 유교의례식으로 진행되며,





1 당제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하회마을
황헌만

2 당제
전북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황헌만

3 당산제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국립민속박물관

소지와 헌식, 음복으로 마감한다.

당산제를 모시고 나면 다음 날 음복과 함께 마을 총회가 진행된다. 제관들과 주민들은 신이 흠향한 제수를 공식(共食)하는 신성한 시공간에서 당산제의 예 · 결산 및 품삯 등 한 해 동안의 마을 공동사를 논의 · 결정한다. 회의가 끝나면 주민은 풍물굿을 즐기기도 하고, 줄다리기를 행하기도 한다. 또 마을에 따라서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마당밟이, 매구, 걸궁 등을 행하는 지신밟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풍물형은 유교의례적 절차에 따라 당산제를 행하면서 당산제의 시작을 알리거나 신을 맞아들일 때 '들당산굿' 을 치며, 제당의 잡귀와 잡신을 물리치기 위한 매구[埋鬼]굿을 치고, 제의가 끝난 후에는 송신하기 위한 '날당산굿' 을 친다. 무속형의 경우에도 당산제는 유교의례식으로 절차가 진행된 후에 무녀와 공인(工人)이 열두거리굿을 진행한다. 이러한 당산굿은 당산제를 전후해서 2~3일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당산제가 끝난 후에는 마을에 따라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고, 줄은 태워 논밭에 뿌리면서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또 "당산 옷입힌다."고 하여 줄을 당산나무나 당산석[石竿]에 감아두면서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당산제는 단독제당보다도 복수제당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유교의례식으로 진행되는 제당제의를 제외하고는 풍물형이나 무속형이 서로 혼합되면서 문화복합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지역의 당제 또는 당고사라고 불리는 동제의 경우에서는 주변 지역의 문화사적 배경과 큰 차이가 없다. 강원도 홍천군 팔봉산 당산제의 경우, 예전에는 8봉에 삼선당(三仙堂)이라는 팔봉산사(八峰山祠)가 있어서 해마다 홍천현이 주관하여 봄 · 가을로 제사를 드렸다. 이후 오늘날까지 해마다 음력 3월과 9월 보름날에 제사를 지내고 당굿을 하면서 주민들의 수명과 재복 · 태평을 빌고 액막이를 한다. 이 당산제의 주신은 삼부인신(三夫人神)이며, 2봉에 있는 삼부인당(三夫人堂)에 쇠로 만든 말[馬] 형상의 신주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부인당은 서낭당이고 삼부인은 서낭신격이다. 즉 이 지역 공동체신격의 특성이 서낭신격임을 알 수 있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1리(개바우) 당고사의 경우, 마을의 입향조(入鄕祖)로 여겨지는 세 성씨를 '골맥이' 로 표현하면서 모시고 있는데, 제당은 당사 또는 제당이라고 부르며 바닷가(이씨 골맥이)와 마을 입구의 산록(김씨 골맥이), 마을 주거지 바로 옆의 산록(박씨 골맥이)에 위치한다. 정월 대보름날 첫 새벽에 행하는 정월고사와 7월 백중일을 전후해서 햅쌀이 수확되었을 때 행하는 신미고사(新米告祀), 가장 성대하게 모시는 중구일의 중구고사 등 세 차례 행해진다. 농업과 어업이 동시에 중시되는 마을의 생태적 특성이 의례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 지역의 특징인 골맥이제와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다.

참고문헌 | 韓國의 神堂 形態考(張籌根, 民族文化硏究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64),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柳東植, 延世大學校出版部, 1975),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마을 空間分擔과 堂告祀(李淇泰, 比較民俗學3, 比較民俗學會, 1988), 黑山사람들의 삶과 民間信仰(趙慶萬, 島嶼文化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8), 산간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우동리 당산제와 놀이의 특성(金炯珠, 比較民俗學11, 比較民俗學會, 1994), 강원도 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한국의 마을제당1~7(국립민속박물관, 1995~2003), 산간신앙II -경북 · 경남 편-(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전남 · 광주지역 당산제(나경수, 한국의 동제, 제28회 민속학전국대회발표요지, 1999).
필자 | 이기태(李淇泰)

당진안섬당제(唐津一堂祭)

정의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에서 전승되는 동제. 당굿 · 풍어제라고도 한다. 당굿은 무당을 불러 제의를 진행한 데서 나온 이름이며, 풍어제는 제의의 목적과 관련해 불리는 명칭이다. 현재 충청남도 시도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안섬당제의 유래에 대해 주민들은 300~400년 전부터 지내왔다고 말한다. 인근 해안의 야산에 군락을 이루는 적송의 수령이 300년 내외인데, 이 소나무와 마을 형성 시기가 연계되어 있고, 당제도 마을 형성과 더불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제 전승과 관련해 당제를 주관한 당주들의 명단이 있는데, 1900년대 초부터는 당제가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안섬당제를 지내는 날짜는 고정되어 있다. 대동계에서 당제일에 관해 논의를 하지만 관례상 새해 첫 진일[上辰日]을 시행일로 지정한다. 다만 새해 첫 진일이 설날이면 그 다음 진일로 당제를 연기한다. 설이 아니지만 새해 첫 진일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첫 진일이 만약 병진(丙辰)이면 병의 발음이 병(病)과 같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여겨 다음 진일로 연기한다. 당제 날짜를 진일로 고집하는 것은 십이지의 다섯 번째 간지인 진(辰)이 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용은 바다를 관장하는 초월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로 활동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 온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제에서 모시는 신격은 3위(三位)이다. 중앙의 본당, 좌측의 장군당, 우측의 소당 또는 각시당이다. 중앙의 본당은 당할아버지 · 진대할아버지라고 불리며 용신이라고 여겨진다. 당할아버지는 이웃의 한진마을 · 성꾸미마을의 신과 가족관계를 이룬다. 안섬의 용신은 남신이고 한진과 성꾸미의 용신은 여신으로 각각 본처와 첩실이라고 한다. 본당을 용신으로 모시는 것은, 용신이 바람과 파도를 부리고 풍흉을 관장하는 존재이므로 바다를 끼고 생활해 온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좌측의 장군신이 누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임경업 장군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경업 장군이 서해의 조기잡이신으로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고 주민들이 연평도어장에 다니며 어로 활동을 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측의 소당은 각시신이라고 한다. 여신이므로 청홍색 옷감이 폐백으로 올려진다.

당제를 주관하는 인물을 당주(堂主)라고 한다. 당주 아래에 주감 1인을 두고, 주감 아래에 당화장 2~3인을 둔다. 당주는 당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제장 관리와 제수 장만, 제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당제 전반을 운용한다. 주감은 당주를 돕고 보조한다. 당화장은 젊은 사람이 맡는데 주감을 도와 당제 관련 일을 수행한다. 당주는 대동계를 통하여 선정한다. 당주 선정의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하다는 말은 부정이 없다는 말이다. 피부정 · 상사부정 · 출산부정 · 달거리부정 · 음식부정을 비롯해 폭력, 불화 등이 없는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기복덕을 고려해서 당주를 선정한다.

안섬당제는 대제(大祭)와 소제(小祭)로 구별된다. 소제는 규모가 간소하며 1박 2일에 걸쳐 이루어진다. 반면 대제는 규모가 확대되어 2박 3일에 걸쳐 진행된다.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소제가 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대제는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대제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소를 구입해야 하고 무당 3~5인을 초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3년도에 대제를 지낸 이후 지금까지 소제를 지내고 있다.

현재는 제사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시도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충남과 당진군으로부터 일정 지원을 받고 있다. 지정 이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경비를 모았다. 중선배를 가진 선주만도 4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경비 마련은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선주들이 배의 크기와 정성에 따라 헌금을 하고, 일반 주민들도 정성껏 기금을 모은다. 당제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맡은 사람을 주부라고 하는데, 돈을 걷는 사람을 돈주부라고 하고, 쌀을 모으는 사람을 쌀주부라고 한다. 이들이 가가호호 다니며 돈과 쌀을 거둔다. 상사(喪事)나 출산이 있는 집은 부정하다고 하여 방문하지 않는다.

당집은 마을 서북쪽 야산 상부에 있다. 당은 제일이 정해지고 나서 더욱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당주와 주감 등이 제장 주변을 정비한다. 이들은 제장 주변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는다. 또 제당으로 진입하는 도로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일에 정성을 들인다.

제수는 당주의 집에서 주부가 조리하며, 제수에 쓸 재료는 당주나 주감이 당진읍에 나가서 구입해 온다. 제수로 쓸 과일은 크고 보기에 좋은 것으로 고른다. 값은 주인이 달라는 대로 준다. 말을 하지 않고 손짓이나 눈짓으로 대화를 하며, 가게 주인과 값을 흥정하지 않고 제수를 구입한 뒤 서둘러 돌아온다. 제상에 올리는 제물로는 밤, 대추, 곶감, 소머리, 쇠고기 산적, 명태포, 해적, 떡, 메, 무나물, 두부탕, 조라술 등이다. 나물에는 간을 하지 않는다. 떡은 3말 3되 3홉을 계량하여 찐다. 떡을 찔 때는 전통방식을 지켜 절구에 떡쌀을 넣고 빻아서 가루를 내고, 그것을 시루에 담아 찐다. 조라술은 음력 섣달 그믐에 담는다. 당제 지내는 날짜와 상관없이 조라술 담그는 날짜가 고정되어 있다. 해적은 주민들이 잡아온 준치나 숭어를 가지고 조리한다. 바다에 나간 사람들이 첫 출어에서 준치나 숭어를 잡으면 그 중 가장 큰 것을 골라 당집 입구에 매달아 두는데 그것을 '지숙' 이라고 한다. 소제 때에는 시장에서 소머리와 소고기를 구입하지만 대제 때에는 소를 잡기 때문에 고기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는다.

당제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뱃기 제작이다. 뱃기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지만 장식은 공동으로 제작한다. 뱃기 장식 중 특색 있는 것은 주저리와 서리화다. 주저리는 짚을 이용하여 깃대의 상부에 3개 내지 5개의 매듭을 매고 여기에 대나무살 장식을 꽂아 고정한 것이다. 서리화는 대나무살 여러 개를 연결하여 여기에 꽃장식을 붙여 만든다.

안섬에서는 당제에 연계하여 장승을 교체하고 장승제를 지낸다. 장승은 당제 지내기 전날에 제작한다. 장승은 3쌍의 남녀로 총 6기이다. 제의 진행은 본제, 장승제, 용왕제, 지신밟기순으로 이루어진다. 본제는 본당굿이라고 하고 당굿 또는 당제라 부르기도 한다. 본제는 마을 사람들이 뱃기를 들고 당산에 오르는 것부터 다음날 내려오는 과정까지다. 제의 당일 오후 4시가 넘으면 당주와 무당, 마을 사람들이 뱃기를 들고 당산으로 향한다. 풍물패는 풍장을 치며 일행을 인도한다. 뱃기 행진에는 배의 크기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어 그 순서에 따른다. 행진 과정에서 배치기소리를 하는 예도 있다. 당에 도착하면 당 입구에서 무당이 부정풀이를 하고, 뱃기를 세워 둔 후 제의를 진행한다. 당산에서의 제의 진행은 제물진설, 당주의 헌주 배례, 선주의 배례, 무당의 대동축원, 무당의 굿치성(부정굿 · 본당굿 · 대동굿 · 어망굿 · 오방굿), 무당의 공수 내림과 깃손받기, 선주의 뱃고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무당은 굿의 전개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선주들에게 술잔을 돌리고 깃점을 쳐주기도 하며 쌀점을 쳐주기도 한다.

이튿날 뱃기에 공수를 내리고 깃손을 단다. 이어 해안가에 가서 뱃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무당과 마을 사람들이 장승제, 용왕제, 거리제, 지신밟기를 차례대로 수행한다. 지신밟기는 마을 가가호호를 돌며 축원을 나누고 신명을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무리로 대동회의를 열어 당제를 결산한다.

의의 안섬당제는 바다를 끼고 생활해 온 주민들의 공동체 신앙이다. 과거에는 당제에서 풍어를 빌고 연평도 어장까지 다니며 고기잡이를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 활동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이다.

참고문헌 |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안섬 당제의 실상과 활로 모색(박종익, 韓國民俗學39, 韓國民俗學會, 2004).

필자 | 이경엽(李京燁)

〈당진안섬당제〉
1 무당의 굿치성
2 띠배보내기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김상수





대산귀(大山鬼)

정의 함경북도 북부의 산간마을인 재가승마을에서 병자가 생겼을 때 지내던 동제의 일종. 대산귀는 모듬 구명(굿)이라고도 한다.

내용 재가승마을은 여진족의 후손으로서 천민마을로 묶여, 오랫동안 많은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같은 함경도라고 해도 일반 마을들과는 풍속이 많이 달랐다. 함북 경흥군 용성리 어운마을도 재가승마을인데, 이 곳에서는 산치성, 산제(山祭), 대산귀(大山鬼) 등의 동제를 지냈다.

마을에 개인 병자가 생겨 복술(卜術)에게 문점하였을 때 대산귀 탈, 즉 정초와 10월의 산치성에서 위하는 귀신의 탈이 났다고 하면, 마을 공동으로 대대적인 대산귀를 차린다. 쌀과 돼지, 송아지를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어운마을에서는 일년에 한두 번 정도 대산귀를 거행하여 왔다.

제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천에서 가까운 곳에 깨끗한 빈 터를 선택하여 높은 다락을 세 계단으로 만든다. 그 중앙에 장대를 세워 신명(神名)을 쓴 크고 기다란 천을 매달고, 떡 20~30그릇을 차린 다음 복술 2~3명을 데려다가 밤을 새워 굿을 한다. 마을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동원되어 밤을 새웠다. 이튿날 아침 늦게 돼지를 잡아 고기를 올리고 다시 굿을 하면 저녁이 되어야 끝났다. 굿을 하는 중간에 몇 번 점을 쳐 보고 굿이 잘 되지 않으면, 돼지 대신 소를 잡기도 한다. 대산귀가 끝난 다음에는 우선 복술의 집에 떡과 고기를 보내고, 가가호호 떡과 고기를 분배한다.

참고문헌 | 함경북도 북부 산간부락의 문화와 풍습(황철산, 과학원출판사, 1960),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도가제(都家祭)

정의 함경남도 북청 지방에서 관혼상제에 필요한 마을의 공동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인 도가(都家)에서 지내는 제사.

내용 및 지역사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무사귀신(無祀鬼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신제(厲神祭)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함남 북청에서는 정월 대보름 무렵이나 10월에 도가제를 많이 지낸다. 북청군 성대면 양평리 살구 어귀 마을은 성주 여(呂)씨 동족 마을인데, 10월 초하룻날 문중에서 뽑힌 제관들이 도가에서 돼지를 잡아 도가제(都家祭)를 지낸다. 도가제를 지내기 3~4일 전에 마을 청년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와 도가의 대문을 소나무로 장식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였다. 정초부터 도가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도가에서 북이나 나팔소리를 낼 수 없다. 동네가 일년 동안 무사하라고 지내는 도가제의 제사 방법은 이 마을의 여신제와 비슷하다.

한편 북청군 후창면 상당우리 당모로 마을에서는 보통 음력 정월 13일이나 14일 밤에 도가에서 열두 번의 제사를 지낸다. 제관들은 '차지'라고 불리는데, 4~5명 정도 된다. 도가제를 위해 소 한 마리를 잡고, 제사상에 생고기, 생피, 삶은 고기 등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차지가 조금만 잘못해도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홍역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북청군 신청읍 토성리에서는 음력 정월 첫 정일[初丁日]에 도가에서 도가제를 지낸다. 도가에서의 제사는 세 번 지낸다. 첫 번째 제사는 밤 8시 무렵에 지내는데, 제사상에 돼지머리, 돼지뒷다리, 돼지목과 골을 올려놓고, 돼지를 삶은 국물에 쌀을 넣어 만든 죽을 큰 그릇에 담아 놓은 후 절을 한다. 이 때 북을 세 번 치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죽을 먹는다. 두 번째 제사는 밤 10시 무렵에 지내는데, 이번에는 돼지앞다리와 가슴을 올려놓고, 역시 돼지국물로 만든 죽을 큰 그릇에 담아 놓은 후 절을 한다. 이 때 북을 다섯 번 치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죽을 먹는다. 세 번째 제사는 밤 12시 무렵에 지내는데, 돼지겨드랑이 살을 올려놓고, 역시 돼지국물로 만든 죽을 큰 그릇에 담아 놓은 후 절을 한다. 이 때 북을 아홉 번 치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죽을 먹는다.

이 도가제는 관원놀이 준비의 총책임자인 음률도감 등 역원들만 참가하여 지낸다. 유명한 토성리의 관원놀이는 모의재판, 관원 행차, 치제(致祭), 횃불싸움, 사자놀이로 구성되는데, 이 중 치제는 무사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관원놀이가 성터의 악귀들을 진압하고 성안에 들어가 살게 되

면서부터 유래했다는 점으로 볼 때, 토성리에서는 도가제와 관원놀이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도깨비제(一祭)

정의 도깨비를 대상신으로 모셔 화재 방지와 질병 퇴치를 기원하는 마을공동체신앙.

내용 도깨비를 신으로 모시거나 혹은 쫓아내야 할 대상으로 삼아 제의를 올리는 방식은 대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물론 충북의 내륙 산간 지방에서도 전승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나, 현재로는 호남 지방으로만 한정되어 나타난다. 특히 이들 제의는 마을공동체신앙으로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제가 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행해져 왔다. 특히 이들 제의의 대부분은 여성이 주동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도깨비와 여성의 대립관계를 잘 보여준다.

도깨비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질병 퇴치를 기원하는 방식으로, 전남 진도와 전북 순창 탑리의 도깨비제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화재 예방을 기원하는 제의로서 주로 전북의 산간 지역인 임실 · 진안 · 무주 등지에서 전승되어 온 도깨비제를 들 수 있다.

지역사례 도깨비를 마을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경우는 도깨비가 부정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즉 도깨비가 돌림병을 옮기는 역신(疫神)의 기능을 담당하거나, 마을 전체가 불이 나는 화재 사건의 주범을 도깨비불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마을신앙에서 도깨비를 모시는 경우와 개인고사로 모시는 도깨비의 속성이 완전히 대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도깨비를 역신으로 인식한 도깨비제는 전북 순창 탑리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진도의 도깨비굿은 전승이 단절된 실정이다. 사실 순창 탑리의 경우도 약 10년 정도 단절되었다가 마을의 젊은이들이 계속 죽는 불상사가 생기면서 다시 도깨비제를 지내게 되었다.

진도 도깨비굿은 일반적으로 정월 열나흗날 밤에 한다고 되어 있다.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나 임회면 상만리에서는 이 날 양푼 등 금속성 기물을 들고 나와 마치 지신밟기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굿을 쳤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전라남도 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염병이 돌 때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진도읍 사정리나 월가리, 군내면 용장리에서는 병이 돌면 부인들이 나서서 도깨비굿을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긴 간짓대(장대)에 여성의 월경피가 묻은 중우(속옷)를 앞세운다는 점이다. 제의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집에서 쪽박이나 양푼, 솥뚜껑 같은 금속성 식기 등을 들고 나온다. 간짓대와 금속기, 이 두 가지가 도깨비를 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얼굴에는 가면을 쓰거나 숯으로 칠을 해서 도깨비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도깨비가 얼굴을 알게 되면 나중에 쫓아와서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승이 단절된 상태이다.

순창 탑리의 도깨비제는 도깨비고사라고도 하는데, 원래 남성이 주도하는 정월 대보름날 당제를 지





1 도깨비제
2 도깨비제의 제물
전북 순창군 임계면 탑리 서현강

내고 나서 17일쯤에 행했다. 그러나 현재 당제는 단절되고, 도깨비제만 전승되고 있다. 여성 중심의 도깨비제도 전승이 단절되었으나 2002년에 들어와 다시 시작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때 제기된 의견이 바로 도깨비제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따라서 최근에 다시 고사를 지내게 되었다.

제의장소는 마을로 들어오는 동서남북의 네 곳인 철륭(마을 뒷산의 송곳바우), 동네산(초장골), 아랫당산(마을 남쪽 입구), 동네방죽(북쪽) 등이다. 일반적으로 당산제가 행해지는 곳과 달리 마을의 주입구를 제의장소로 삼고 있다는 점은 도깨비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보려는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에 근거한다.

제의 내용은 간단하다. 제관이 제물을 나르고, 풍물패 3명만이 뒤를 따른다. 제장에 도착해서는 짚을 열십자[十]로 깔고서 그 위에 제물을 올린다. 제물은 밥과 무나물, 메밀묵, 사탕, 막걸리 등이다. 특히 메밀묵은 장에서 사온 것이 아니라, 직접 마을회관에서 만든 것을 올린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화재를 막기 위한 도깨비제는 주로 전북에서 전승되어 왔으며, 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전승된 적이 있다. 196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충북 청원군 옥산면과 충주시 상모면에서 도깨비불 때문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제의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옥산면 오산리에서는 장승을 세웠으며, 충주시 안보리에서는 별신제를 지냈다. 이 외에 충주시 소태면 복탄동에서는 산제당의 나무를 벤 후 도깨비불이 나타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승되지 않는다.

전북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에서 전승되던 도깨비제는 일명 '김세환제'라고도 한다. 제의는 정월 9일에 지내왔으며, 마을에 화재가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 외에 마을의 태평과 풍요, 그리고 외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에서 전승되는 도깨비제는 '도깨비고사'라고도 한다. 정월 16일에 부녀회가 주동이 되어 행사를 거행하는데, 순번제로 세집을 정해 제의에 필요한 제물을 구입하는 제관의 역할을 한다. 특히 메밀묵 등 제물을 장만하는 집을 '밑집'이라고 부른다. 이 마을의 도깨비제도 화재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한다. 이 외에 임실군 관촌면 구암리에서도 도깨비제가 전승되는데, 이곳은 제의 일시가 음력 10월 30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여성만이 제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참여한다는 차이도 있다.

이와 달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2리에서는 노제(路祭)를 지내는데, 도깨비귀신을 모셔서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한다. 즉 명칭은 '노제'이지만, 도깨비를 위해 제의를 행한다는 점에서 도깨비제의 하나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한국의 도깨비연구(김종대, 국학자료원, 1994), 한국 민간신앙의 실체와 전승(김종대, 민속원, 1999), 한국의 마을제당4 -충청북도 편-(국립민속박물관, 2000),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종대(金宗大)

도당굿(都堂—)

정의 경기도 지역에서 마을의 으뜸신[都神]을 모신 당인 도당(都堂)에서 지내는 마을굿. 별칭으로는 '고창굿'이라 부르는 지역도 있다. 옛 시흥군 소래면 포리(浦里, 현 인천시 남동구)를 비롯해 장봉섬, 사섬, 떼무리섬 등 다수 지역에서 정월에 행해졌으나, 음력 3월 3일과 10월 10일에 도당굿이 치러지는 사례도 흔히 찾아볼 수 있어 일정하지 않다.

분포 경기도 도당굿의 분포는 봉화산 · 문산 등지의 한강 이북 경기 지역에도 폭넓게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신무녀에 의해 굿이 진행되는 형태여서 서울이나 황해도 지역의 마을굿과 크게 변별되는 것은 아니다. 한강 이남의 도당굿에서는 세습무인 화랭이가 특정 굿거리를 맡아 연행하고 굿을 주도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까지 이런 형태의 도당굿이 전승된 지역으로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막마을, 부천시 중동 장말이 대표적이며, 양평 마석 · 안산시 새오개 · 구리시 갈매동 등에서도 전승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경기도





〈도당굿〉
1 당주굿
2 제석굿
3 뒷전(어댕이놀리기)
경기 부천시 국립문화재연구소

도당굿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도한 이혜구가 1944년 경기도 광주의 청수골 도당굿(현 서울시 청담동)에 대해 보고한 것을 비롯해 수원 · 오산 · 시흥 · 양평 · 장호원 · 덕적도나 용유도와 같은 도서 지역에서도 그 전승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곧 한강 이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랭이가 주도하는 형태의 도당굿이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용 도당굿은 마을의 안녕과 길복(吉福)을 얻고자 마을의 수호신에게 기원하는 성격의 굿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준비하여 치러진다. 마을 어른들이 그 해에 생기복덕(生氣福德)한 사람을 가려 굿을 준비하고 진행할 책임자인 당주(堂主)를 선정하면, 당주는 몸을 정갈히 하고는 제물을 비롯한 모든 굿 준비 및 굿 하는 동안의 진행을 마을의 대표로서 맡아 수행한다. 굿에 소요되는 제비는 일반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렴해서 충당하는데, 현재는 기독교인들이나 외지인들의 유입이 많아 가가호호마다 추렴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경기도당굿의 절차는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당주굿: 굿을 주관하는 당주집에서 간단한 제상을 차리고 비는 굿거리를 한다. ② 부정굿: 굿판을 정화하는 것으로 굿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는 거리부정, 화랭이가 스스로 반주를 하며 앉아서 부정을 쫓는 앉은부정, 무녀가 서서 부정을 물리치는 선부정 등 세 번에 걸쳐 행한다. ③ 도당모시기: 굿하는 장소에 도당신을 모셔오는 굿거리이다. ④ 돌돌이: 마을에서 사용하는 공동우물과 마을의 경계면에 있는 장승을 돌며 갖가지 축원과 덕담을 하는 거리이다. ⑤ 장문잡기: 관속의례적 모습을 지닌 여흥적 성격이 강한 굿거리를 한다. ⑥ 시루말: 시루도듬으로 도당신이 굿을 잘 받았는지 알아보고는 긴 서사무가를 구연하는 굿거리를 한다. ⑦ 꽃반세우기: 각 가정에서 준비한 쌀에 도당할아버지가 부채를 세워 집안의 운세를 점쳐주는 굿거리를 한다. ⑧ 제석굿: 제석신의 내력을 밝히는 무가를 구연하고 제석의 바라를 파는 굿거리를 한다. ⑨ 터벌림: 굿터를 벌인다는 의미로 화랭이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춤을 추며 기예를 자랑하는 굿거리를 한다. ⑩ 손굿: 천연두를 관장하는 신을 모시는 거리이다. ⑪ 군웅굿: 화랭이와 무녀가 쌍군웅춤을 추고는 사방에 활을 쏘아 잡귀를 물리친다. 군웅신이 굿판에 이르는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굿거리이다. ⑫ 중굿: 중의 복색을 하고는 중의 여러 모양새와 치레를 풀어내는 거리이다. ⑬ 도당모시기: 마을굿을 위해 모셔온 도당신을 원래의 자리로 환위(還位)시키는 굿거리이다. ⑭ 뒷전: 굿에 따라온 잡귀들을 풀어먹이는 거리로 마무리를 한다.

의의 경기도 도당굿은 남자 세습무(世襲巫)인 화랭이들이 주도하여 강신여무(降神女巫)인 미지와 함께 굿을 이끌어가는 것이 뚜렷한 특징이다. 악기는 삼현육각으로 편성되며, 장단으로는 도살풀이장단 · 덩더궁이장단 · 진쇠장단 등 다양한 무악(巫樂)들이 잘 발달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진쇠춤과 터벌림춤 · 쌍군웅춤 · 손굿춤 등 무무(巫舞)도 세련되게 발달되어 있어 세습 무가계(巫家系)의 예술적 계승이 잘 융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도당굿은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신에게 뜻밖의 재앙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굿에 참여하고, 따라서 이런 마을굿을 통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하여 마을축제의 성격 또한 강하게 지닌다. 아울러 남녀노

소 모두 참여하고 어울리면서 마을이라는 지역성을 토대로 동질감을 갖게 되고, 그 지역사회의 위계질서를 새삼 확인하는 기능도 갖는다.

참고문헌 | 巫樂硏究(李惠求, 韓國音樂硏究, 國民音樂硏究會, 1957),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京畿道 篇-(文化財管理局, 1978), 京畿道 도당굿(李杜鉉 外,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186, 文化財管理局, 1980), 경기도 도당굿(황루시 · 김수남, 열화당, 1983), 京畿道 都堂굿 巫歌의 現地 硏究(김헌선, 집문당, 1995), 갈매동 도당굿(구리시 문화공보실, 1996), 한국 화랭이 무속의 역사와 원리1(김헌선, 지식산업사, 1997), 경기도 도당굿(김헌선,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경기도당굿의 巫歌(오수복, 경기문화재단, 2000).

필자 | 권태효(權泰孝)

동해안별신굿(東海岸別神—)

정의 동해안의 세습무당이 주제(主祭)하는 큰 규모의 마을굿.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는 지역은 동해안 일대로 벨신 · 벨순 · 별손 · 배생이 · 뱃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해안별신굿 외에 서해안 고군산열도에서 조기잡이 때 하던 별신굿 · 자인별신굿, 그리고 내륙에서는 은산별신제 등이 유명하다. 별신굿은 주로 생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성격이 강하여 농촌에서는 풍농을 기원하고, 어촌에서는 풍어를 기원하며, 시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기를 빌면서 난장굿을 하기도 한다. 별신굿은 규모가 커서 시장이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 임시장인 난장을 트기도 한다.

내용 별신굿은 마을에 따라 해마다 또는 3년에서 10년까지 몇 년 단위로 정해진 시기에 하는데 반드시 날을 잡아 길일에 한다. 굿을 하는 터울과 달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책력을 보거나 점치는 사람에게 받아서 하고 있어 신성성을 보여준다. 동해안 지역에는 마을마다 수호신을 모신 서낭당이 있다. 특히 바닷가의 경우 암수 서낭당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서낭굿이나 동제는 대부분 서낭당 안에서 제의를 하지만 별신굿은 반드시 별도의 굿청을 차린 후 서낭당에 가서 신을 모시고 지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은 정월에 택일하여 별신굿을 한다. 그 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와 일광면 학리의 별신굿도 정월에 한다.

일반적인 별신굿의 순서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바닷가에 가설한 굿청의 부정을 가시고 여러 신들을 불러 좌정시킨다. 부정굿과 청좌굿이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 골매기서낭 모시기와 대내림을 한다. 먼저 부정굿을 한 뒤 골매기대를 앞세우고 무당패와 제관들, 주민들은 할아버지당으로 가서 서낭을 모신다. 여기서 대를 내려 신의 뜻을 알아본 다음 바닷가에 있는 할머니당으로 가서 신을 모셔 가설굿당으로 돌아온다.

마을제사는 주민대표들만 참가한 가운데 성황지신 · 후토지신 · 동해지신 세 신위를 모시는 제사가 행해진다.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본격적인 무당굿이 가설굿당에서 벌어진다. 이 굿에서는 무속에서 신앙하는 여러 신들을 모신다. 대략적인 절차를 보면 청좌굿, 하후굿, 세존굿, 성주굿, 천왕굿, 심청굿, 구능굿, 손님굿, 제면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등이다. 이 중 어부의 눈총을 맑게 해준다는 심청굿은 어업과 관련된 성격을 띤다. 사이사이 세습무가의 남자인 양중[男巫, 화랭이]들이 탈굿이나 중잡이놀이, 곤반놀이 같은 촌극을 한다. 이러한 무당굿이 끝난 후 다시 한번 대를 내려 굿을 잘 받았는지





〈동해안별신굿〉
1 성주굿
2 꽃노래굿
경북 영덕군 노물동 장주근
3 거리굿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장주근

묻고 마을의 길흉을 알아보는 대내림을 한다.

대내림을 한 후에 용왕굿의 굿청을 물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한다. 뱃기들을 모두 바닷가에 꽂아 놓고 무녀가 풍어를 비는 굿을 하는 것이다. 무녀는 물동이를 타고 일종의 공수를 주고 뱃기를 바닷물에 축여 신을 맞이하는 의례를 행한다. 용왕굿을 할 때 개인집에서는 바다에서 돌아간 영혼들을 위해 상을 차려와 위로한다. 또한 삼재가 들었거나 특별히 수가 나쁜 사람은 개인의 액막이를 하는 수도 있다.

양중에 의해 잡귀를 풀어먹이는 거리굿은 완전히 철상한 뒤 여흥의 성격을 띠고 행해진다. 굿을 마친 뒤 사흘이 지나면 할아버지서낭당에 가서 제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고사를 올린다.

의의 별신굿은 무속적 공동체신앙을 대표하는 동시에 난장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세습무 고유의 예술성을 갖춘 종합적 의례이다.

참고문헌 | 韓國巫俗의 硏究(崔吉城, 亞細亞文化社, 1978),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필자 | 황루시(黃縷詩)

멩감제[命監祭]

정의 제주도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일년 간의 행운을 기원하고자 정월에 하는 굿. 보통 택일하여 하는데, 농가에서 많이 한다. '멩감' 이란 원래 명감신(命監神)을 말하는 것으로, 명감제가 곧 멩감제로 불리게 된 것이다. 명감신은 제주도 무속 내의 신화를 참조하면 사만이라는 신이다. 멩감제는 세경신 · 조상신 · 문전신들이 제의되는 것으로 보아 연초에 집안의 조상을 기리면서 일년 간 집안의 무사안녕과 풍농을 기원하고자 행하던 굿이라 할 수 있다.

내용 굿의 내용은 대체로 초감제와 같은 신맞이 의식을 하여 신을 청해 빌고 세경본풀이를 구송하는 한편 집안의 조상신을 놀리고, 문전액막음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세경본풀이는 농축(農畜) 관장신인 세경신에 관한 신화인데, 내용은 주로 자청비와 문도령의 연애담 및 결혼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자청비라는 여신이 하늘에서 오곡종자와 열두시만국을 얻어 음력 7월 열나흗날에 지상으로 내려와 이를 백중이라 하고, 후에 다시 메밀씨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전액막음에서는 문전본풀이라는 신화가 구송되는데, 이 신화는 조왕신, 문전신, 오방토신, 측간신들의 근본 내력을 설명하는 계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년제(新年祭) 성격을 갖고 있는 정초 굿의 명칭이 멩감제가 된 것을 보면, 이 굿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멩감제란 원래 장명(長命) ·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행하던 굿이다. 가난한 거지였다가 백년 해골을 모신 덕분에 큰 부자가 된 사만이라는 신은 정명(定命)이었던 30살에 죽을 뻔했으나,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차사를 크게 대접하고 삼천 년이나 되도록 오래 살게 되어 수명의 일에 귀감이 되는 신(神)인 명감신이 된다. 이 신이 행한 바대로 따르면, 우리 인간들도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명감신을 제의에 모신 것이 바로 멩감제이다. 그러므로 이 제의는 장수 · 장명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제의라 할 수 있다.

큰굿은 원래 ① 종합적인 신맞이 의식인 초감제, ② 아기 산육신에 대한 제의인 불도제, ③ 무조신에 대한 제의인 초공제, ④ 서천꽃밭 관장신에 대한 제의인 이공제, ⑤ 전상신에 대한 제의인 삼공제, ⑥ 저승 관장신에 대한 제의인 시왕제, ⑦ 수명의 귀감이 되며 방액법을 창조한 사만이, 즉 명감신에 대한 제의인 명감제(멩감제), ⑧ 농경신에 대한 제의인 세경제, ⑨ 풍농신에 대한 제의인 칠성제, ⑩ 집안의 곳곳을 지키는 신에 대한 제의인 성주제(문전제), ⑪ 마을 수호신에 대한 제의인 본향제, ⑫ 조상신에 대한 제의인 일월조상제 등 열두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농가에서 정초에 행해지는 멩감제는 바로 이러한 열두거리 굿 중 초감제, 세경제, 문전제, 조상제와 같은 굿의 일부를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집안의 무사안녕, 건강 및 장수, 그리고 풍농 등을 기원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자 행하던 연초의 굿에서는 이상의 열두거리 굿 중 특히 장명 · 풍농 · 집안의 무사안녕 등과 관련된 굿거리만을 모아 굿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초의 멩감제이다. 멩감제는 신화 내용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 연초 굿에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장수 · 장명을 기원했던 것이어서 굿 이름만은 남아 전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사사례 제주도에서는 정월에 멩감제와 같은 굿을 많이 하였지만, 특별히 춘하추동 절기가 바뀔 때 문전, 조왕, 오방토신, 칠성신 등을 모시고 굿을 하였다. 이를 '철갈이' 혹은 '벨롱겡이'라 하기도 한다. 칠성신은 뱀신[蛇神]으로서,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부(富)를 이루게 해준다고 믿는 신이다. 칠성신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는 특별히 이 때 '칠성눌'을 바꾸어 덮기도 한다. 칠성눌은 기왓장에 오곡을 놓고 그 위에 다시 기왓장을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저리를 덮어 놓은 것인데, 대개는 집 뒤에 만들어 둔다.

참고문헌 |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필자 | 이수자(李秀子)

문전제(門前祭)

정의 새해를 맞아 집안을 지키는 문전신(門前神)에게 한 해의 행운을 비는 신년제(新年祭). 문전고사 또는 올래(제주도의 문이라 할 수 있는 '정낭'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코사라고 한다. 대포리의 경우 장고고사라고 하는데, 아마 심방이 장고를 차고 앉아서 요령을 흔들며 앉은제로 하기 때문인 듯하다.

내용 문전제는 보통 단독으로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주신(主神)인 문전신에게 신년의 가내 평안을 빌고, 이어서 조왕, 안칠성, 밧칠성 등 가신(家神)에게 기원하는 의례가 연속된다. 이에 따라 부수적인 의례를 중시하여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문전신에 대한 의례는 유교식과 무속식으로 나뉜다. 유교식 문전제는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전상을 현관쪽에 차려 놓고 초헌관이 헌작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끝낸다. 유교식 문전제는 무속식 문전제가 유교식 의례방식과 결합되어 전승된 결과로 보인다. 무속식 문전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큰굿의 한 제차로 벌이는 문전본풀이가 있고, 단독의례로 벌이는 문전제가 있다. 세시의례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무속식 문전제 가운데 단독의례로 벌이는 경우이다.

무속식 문전제는 한 해 동안의 행운을 비는 신년제(新年祭)이다. 음력 정월에 택일을 하고, 심방을 불러서 집에서 행한다. '문전(門前)'이란 가택의 문신(門神)인데, 남신(男神)으로 생각되며, 울타리 안의 신들 중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긴다. 문전제는 곧 이 신을 주 대상으로 하여 가내 안전을 비는 제사다. 문전제를 굿으로 모실 때는 굿의 끝판에 가서 문신의 상인 문전상을 대문 앞에 차려 놓고, 심방이 문전본풀이를 창하여 축원한다. 이 때 제물로는 보통 메, 생선, 과일, 채소 등을 준비한다. 이어서 부엌에 제물을 차려 놓고 조왕신에게 축원한다. 그 다음 곡물의 신인 칠성신에게 축원한다. 문전제를 철갈이와 겸하고 철갈이가 중시될 때는 '문전철갈이'라 한다. 칠성신에게 축원한 뒤에는 문전상의 제물을 물그릇에 조금씩 떠 넣어 말고, 이것을 '눌굽(노적장)'과 '올래', 그리고 집 주위에 떠 던지며 축원한다. 이는 눌굽지신, 정낭지신, 울담지신, 오방토신에게 축원하는 것이다. 단, 변소의 신인 측간신에 대해서는 돼지 사육에 우환이 생겼을 때만 심방을 빌어 축원한다. 측간신은 악첩(惡妾)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좋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올래' 바깥쪽으로 수탉을 던져 점을 치고 액막이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중시할 경우에는 '올래코사'가 된다.

지역사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도의 경우에는 문전에 백지(白紙)·물색(物色)을 실로 묶어 매어 둔다. 이는 문전신의 신체(神體)이며, '문전'이라 한다. 이 물색을 특히 '문전옷'이라 하고, 액막이를 할 때 이를 갈아 건다. 물색은 빨강·파랑·노랑색의 헝겊으로, 이를 무속에서는 흔히 삼색 물색이라 한다. 무속에서 '삼색 물색'을 신의 옷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도의 경우, 문전신에 대한 신관념이 본래 모습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남아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액막이를 못할 때는 가장이 제관이 되어 정월에 과실·찬물을 그 앞에 올리고 향을 피워 절을 한 후, 이를 갈아 건다. 이를 달리 "문전 새 옷 갈아입힌다."고 한다.

제주시 영평동 가시나물마을의 경우에는 "주인모를 공사 없다."고 하여 집안의 제일 높은 어른인 문전신에게 제를 지낸다. 문전제는 아직도 세 가지 형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기제사나 명절에

제를 지내기 앞서 문전제를 지내는데, 문전제는 조상신에게 제를 지내는 유교식, 스님을 빌어다가 가정과 식구들의 평안을 기도하는 불교식, 무속식 등이 있다.

참고문헌 | 濟州道民俗: 歲時風俗(진성기, 濟州民俗硏究所, 1969), 濟州의 民俗 Ⅴ -民間信仰 · 社會構造-(濟州文化資料叢書5, 濟州道, 1997),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문무병(文武秉)

문전철갈이(門前—)

정의 음력 정월에 뱀신인 칠성신을 모시는 집에서, 심방을 불러서 문전제와 함께 행하는 계절제의. '철갈이'의 '철'은 계절, '갈이'는 바꾼다는 뜻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행하는 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문전철갈이 · 문전비들레기 · 벨룽갱이라 불리기도 한다.

내용 제주도는 뱀신에 대한 신앙이 강한 곳으로 그와 관련된 제의도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집안에서 모시는 칠성신은 뱀신이면서 여신으로 여기며, 안칠성을 '안할망' 또는 '고팡할망', '밧칠성'을 '뒷할망'이라 한다. 이 신들을 위한 칠성제는 풍농과 '고팡' 안의 미곡(米穀)을 잘 지켜 부(富)를 이루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지낸다.

칠성신에 대한 의례는 유교식과 무속식이 있다. 유교식은 명절이나 제사 때 주부가 메 · 채소 등을 차린 제물을 안칠성의 거처인 고팡의 쌀독 뚜껑 위에 차려 놓고, 수저를 메밥에 꽂는 것이 전부로, 이는 독립적인 의례는 아니다.

무속식인 굿으로 치러지는 경우는 집안에서 하는 모든 굿에서 축원하는 칠성본풀이와 계절제인 철갈이 두 종류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세시의례라 할 수 있는 것은 철갈이이다.

철갈이는 보통 정월 대보름이나 가을에 한번 심방을 청해다가 축원을 하여 모신다. 가을에 철갈이를 한 경우에는 햇곡식이 나오는 계절을 취한 셈이다. 그러므로 그 제의는 풍년기원제 또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장인 고팡에 메 · 찬물 · 폐백을 제물로 차려 모신다. 개고기나 말고기는 금하며,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고팡은 안칠성의 좌정처이므로 안칠성과 밧칠성을 함께 모시게 되는 셈이다. 이 때 문전 · 조왕 등 가내 다른 신에게 먼저 축원을 하고, 칠성신에게 축원하기 위하여 칠성눌로 간다. 칠성눌은 밧칠성을 모신 눌인데, 보통 집 뒤의 공터에 모신다. 작은 항아리 속 또는 기왓장 아래 조, 콩, 팥, 수수 등 잡곡과 소라껍질을 놓아둔다.

철갈이를 할 때에는 먼저 기와 한 장을 지면에 깔아서 오곡의 씨를 놓고 그 위에 다시 기와 한 장을 덮은 후 비가 새어 들지 않도록 띠를 엮어 덮어 모신다. 이 제의는 칠성신을 주대상으로 하여 풍농과 부를 기원하고 기왓장 속 오곡의 씨를 새 곡식으로 바꾸어 넣는 것이다. 철갈이란 곧 칠성눌의 오곡과 주저리를 갈아 덮는 데서 연유한 명칭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철갈이는 칠성눌 앞에 가서 축원을 하고 칠성눌을 갈아 덮기까지의 의례인 셈이다.

철갈이만을 단독으로 할 경우, 예전에는 심방을 불러 철갈이를 행했는데 집안의 가장이 대신하기도 하다가, 최근에는 대부분 주부가 이 일을 맡아 처리한다. 요즘에는 사찰의 칠성단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 구렁팟마을의 문전철갈이의 경우에는 정초에 날을 보아 길일을 택해서 심방을 모시고 액막이를 한다. 제물은 떡이나 장닭을 마련하고 칠성을 만들어 주젱이를 갈아 엎는다. 이 때 문전제 · 조왕제 · 칠성제 등 모든 가신(家神)에게 함께 제를 올린다. 제주시 영평동 가시나물마을에서도 포제가 끝난 다음, 산신 · 칠성 · 문전고사는 한 번에 날을 받아서 지낸다. 정결한 곳에서 산신제를 먼저 드린 다음, 집에 와서 칠성 · 문전고사를 지낸다. 제를 지낼 때 주젱이를 엮어 놓았다가 새것으로 갈아 엎는다. 멩감제에 속해서 문전고사를 지낼 때 같이 하기도 한다. 칠성할망제는 3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매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전철갈이는 독립적으로 행해지기보다는 정월의 다른 신년제의와 함께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濟州道民俗: 歲時風俗(진성기, 濟州民俗硏究所, 1969), 濟州島 巫俗 硏究(玄容駿, 集文堂, 1986), 濟州의 民俗 Ⅴ -民間信仰 · 社會構造-(濟州文化資料叢書5, 濟州道, 1997),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문무병(文武秉)



밧칠성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심환근

미륵제(彌勒祭)

정의 미륵(彌勒, 도솔천에 살며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는 장래의 부처)을 기원의 대상으로 삼는 동제(洞祭). 대부분 정월 열나흗날에 거행된다. 특히 사찰 인근의 마을이나 미륵으로 섬기는 선돌(자연암석)이 있는 내륙 지역의 마을에서 전승이 활발한 편이다.

유래 미륵신앙은 한국의 초기불교 수용에서부터 전래되어 신라와 백제에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응용되었다. 백제의 무왕은 전북 익산 미륵사(彌勒寺)의 창건으로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신라의 진흥왕은 왕자의 이름을 사륜[舍輪, 金輪]으로 지어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이상적 치세를 흠모하는 정치를 펼쳤다. 후삼국시대의 궁예는 자신을 미륵이라 지칭하여 대중의 일시적인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미륵에 대한 믿음이 더욱 보편화되어 곳곳에 미륵불이 조성되는 등 미륵신앙의 대중화와 민중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서는 미륵신앙이 완전하게 민중화되어 민속신앙의 성격을 띤 미륵제가 행해지게 되었다.

미륵제의 역사적 연원을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에 전승되는 전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 어느 날, 고려시대 한 현감의 꿈에 갑자기 노인이 나타나 "내가 가천 바닷가에 묻혀 있는데 우마(牛馬)의 통행이 너무 잦아 세상을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해 견디기 어려우니 나를 일으켜 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이상하게 여긴 현령이 이튿날 아침 관원을 데리고 가 일러준 대로 땅을 파보니 두 개의 큰 바위가 나왔다. 암미륵은 파내어 그대로 두고, 수미륵은 일으켜 세워 매년 미륵을 파낸 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미륵제(彌勒祭)를 지내오고 있다. 고려시대에 미륵신앙의 대중화와 민중화가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례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마을 입구에는 암미륵과 수미륵이 있다. 제일은 정월 열나흗날이다. 제관은 일년 동안 마을 행사를 주관하는 유사가 맡는다. 제의 당일, 자웅석(雌雄石)에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접근을 금한다. 본격적 제의는 자정 무렵부터다. 수미륵 앞에 제물(백설기 · 탕 · 삼색실과 · 포 · 탁주 등)을 진설한 후 분향, 헌작, 독축, 소지순으로 진행한다. 이어 암미륵 앞에 약간의 떡과 탁주를 진설하고 재배한다.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동의 진산인 대뫼산 중턱에 미륵당(彌勒堂)이 있고, 당 안에 돌미륵이 안치되어 있다. 제일은 대체로 정월 열나흗날이며, 제의의 주관은 정초에 호포계장(마을 원로)이 생기복덕을 가려 선출한 축관과 고양주가 맡는다. 제물은 고양주의 지시에 따라 부녀회에서 준비하는데, 돼지머리, 백설기, 포, 삼색실과, 청주(고양주가 직접 술을 빚음.) 등이다. 본격적 제의는 당일 자정 무렵부터 시작하여 분향, 헌작, 독축, 재배, 소지 등 유교식으로 진행한다.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마을 입구에 세 기의 미륵이 있다. 정미소 앞에 자리한 인형(人形)의 형상을 띠고 있는 미륵에서만 제를 올리며, 다른 두 기의 미륵에는 약간의 제물만 떼어놓는다. 제관은 부정이 없는 한 마을 최고 원로가 맡는다. 고양주가 제의 전일에 미륵에 금줄을 치고, 제물을 마련한다. 제물은 떡(백설기), 삼색실과, 농주, 북어 두 마리 정도다. 제의는 독축(讀祝)으로 진행하는 약식(略式)이다.

서산군 해미 반양리 당산(堂山)의 산신터 옆에 선돌(미륵)이 서 있다. 제일은 정월 열나흗날로 제관은 일년 내 피를 보지 않은 사람으로 정초에 두 명이 선출된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바로 목욕재계하고 제장으로 올라 미륵의 신체에 창호지를 묶고, 주위에 금줄과 황토를 깔아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다. 제물은 마을답 일곱 마지기의 세비 세 가마 중



미륵제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황현만

한 가마의 경비로 마련한 백무리(소금으로 간을 한 흰 시루떡), 삼색실과, 포, 청주가 진설된다. 제의 절차는 강신, 헌작, 소지순인데, 소지는 개인소지만 올린다.

의의 충청도 지역의 전승을 예로 들어 미륵제의 제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부분적으로 불교의례가 동제에 수용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륵제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탑이나 선돌이 있는 마을에서는 이를 미륵신 또는 미륵불로 간주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승되고 있다. 민속신앙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증거물이 결합됨으로써 강한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三國遺事, 韓國彌勒信仰의 硏究(金三龍, 同和出版公社, 1983), 한국 고대 미륵신앙 연구(장지훈, 집문당,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이창식(李昌植)

뱃고사(一告祀)

정의 수신(水神) · 선신(船神)에게 배의 안전과 뱃길의 수호 그리고 선원들의 무탈과 풍어를 축원하는 제의. 뱃굿 · 행선고사 · 도장굿 · 선망굿 · 배선왕굿이라고도 부른다.

유래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뱃사람들의 불안을 없애고 풍어와 무사안전을 위해 선사시대부터 전승된 의례이다. 뱃고사는 섣달 그믐날 · 설날 · 정월대보름 · 삼짇날 · 추석 등의 명절에 주로 행하며, 배를 만들어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는 선망 시에도 고사를 지낸다. 또한 당산제를 지낼 때, 출어할 때, 재수가 좋아 만선되어 장원할 때, 자주 배 사고가 날 때, 선주에게 부정이 끼어 우환이 있을 때, 선주나 선장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도 뱃고사를 지낸다.

과거에는 매월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 첫 사리 때, 그리고 조금 때마다 정성을 다해 고사를 모셨다. 또한 출항할 때마다 고사를 지내는 배도 있지만, 술을 바다에 헌식하는 '제향' 의식만 올리고 출어하기도 한다.

내용 뱃고사는 선주나 선장이 배의 안전과 풍어를 배선왕에게 비는 제사이다. 선주 집에서 메, 술, 시루떡, 고사리, 돼지머리 등의 제물을 장만하여 오방기와 풍어기를 달고 배 안에 모셔져 있는 배선왕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배선왕이 여자일 경우에는 돼지머리를 올리지 않는다. 배를 건조할 때 배의 밑판(용골)은 길일을 택하여 조성하고 선수를 세워 선신에게 첫 고사를 지낸다. 이 때 명태와 돈을 선수의 이물 기둥에 달아 맨다. 명태는 악귀를 쫓고 만선 장원을 하게 하는 어로신(漁撈神)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파제(破祭) 후 명태는 바다에 떠내려 보내거나 당산목에 매달아 놓기도 하며, 선왕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배를 조선하는 중간에 고사를 지내며, 푸짐하게 음식을 마련하여 선목수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한다. 배가 완성되면 선주는 생기복덕을 보고 배내림날의 길일을 정한다. 배내리기는 만조 들물 때 무인을 불러 뱃굿을 올리기도 하고 선주가 장만한 제찬으로 도목수가 제사를 주관하기도 한다.

출어 전에도 뱃고사를 지낸다. 선주 · 선장은 목욕하고 출입을 삼가며 재계한다. 제차는 먼저 선주 집에서 조왕 · 조상 · 성주신과 오방신 대감을 불러 "전 재산을 바쳐 바다에 나가니 대운 형통하게 하시고 동남풍이 불어도 아무 탈 없도록 도와주소서." 하는 제문(祭文)을 드리면서 출어를 알리는 제사를 지낸다. 부정굿, 서낭굿, 성주굿, 손님굿, 용왕굿, 거리굿 등을 마치고 배로 와서 산신 · 당산신에게 인사굿을 올린다. 이어 선산을 보고 선수 뱃머리에 오색기, 삼색기의 오방기와 돔을 그린 고사기, 그리고 '축(祝) 대어(大漁)' 라고 쓴 풍어기를 대나무에 달아 꽂는다.

제물로 돼지를 배 안에서 잡는데 그 생피를 바다에 뿌려 헌식을 하면 고기떼가 따라 붙으며 잡귀의 접근을 막는다고 한다. 이물 · 배선왕 · 선장실 · 기관실 · 어망 잡아당기는 곳 · 고기창고 등에 마른 짚을 깔고 제물을 차린다. 장어, 닭고기, 염소고기, 숭어 등의 고기는 제찬으로 올리지 않으며 제물은 홀수로 차린다.

무인(巫人)들이 차례로 돌며 절을 올리고 술을 부어 제문을 외우면서 주위에 술을 뿌린다. 선원들이 큰절을 두 번 하고 소지를 올린 후 축원이 끝나면 깻

대에 불을 붙여 뱃전을 두드리며 액귀를 쫓는다. 무인들은 "배 안에 선왕님 배 밖에 용왕님 이제 출어 나가는데 고기 머리 짚어서 썰물에도 한 배, 들물에도 한 배, 바람도 소스리 강풍 불지 말고 명주바람 실바람 불어 주시오. 고기 머리 두른 데 뱃머리 두르고 시간 시간 만선 만들어 주시오. 선왕님이 해도 다니시고 달도 다니시고 어장 저장 골라내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만선되고 한맘 한뜻 이뤄 주시오." 하고 선왕굿 무가를 구송한다.

지역사례 남해 지역에서는 섣달 그믐날 오후 4~5시경에 선주 부부가 제물을 장만하여 배 위로 가지고 와서 진설한다. 제물은 메, 돼지머리, 국, 나물, 과일 등이며 생쌀을 담은 그릇에 촛불을 켜 놓는다. "금년 운수대통하고 어장에서는 만선을 빕니다." 하고, 심축과 함께 술을 따른 후 재배를 올린다. 파제 후 제물은 바다에 헌식한다.

서남해 지역에서는 고기잡이를 나갈 때 선원들의 무탈을 위해 행선 고사를 지내고 나간다. 고사를 지낸 후 닻을 올리며 바람신에게 바람을 잘 다스려 달라는 뜻을 담아 풍장굿을 올리고 출어를 한다.

다도해 지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뱃고사를 지낸다. 정성이 지극한 어민은 초하루와 보름날에 걸쳐 한 달에 두 번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고사를 지낼 때는 배의 선왕신 앞에서 지낸다. 배의 선왕이 여자인 경우 여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고사는 "하늘 머리 열릴 때"라 해서 해 뜰 무렵에 지내며 간단히 잔을 드리고 절한다. 제물을 조금씩 떼어 술잔에 모아 잡식을 만들어서는 서낭의 몫으로 제단 밑바닥에 붓는다. 다시 술잔에 제물을 조금씩 떼어 모아 배의 앞과 뒤, 중간에 헌식한다. 이를 '걸명'이라 하는데 이는 선왕 뒤에 따라온 잡신을 먹이기 위한 헌식이다.

의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의 총 연장 길이는 도서를 포함하여 17,361킬로미터에 이른다. 또한 3,418개의 섬들이 있으며 이 중에서 유인도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특히 남해안 서부에는 약 2,000여 개의 섬이 분포되어 배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바다는 뭍과는 달리 인력을 초월한 외기의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선박을 수호하는 배선왕에게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배의 수호신이고 어로신이며 항해신인 배선왕은 배서낭 · 배선주 · 지왕님 · 선령 등으로 호칭한다. 배선왕의 영험에 따라 풍어가 되고 흉어가 된다. 태풍과 황파에도 안전 · 무사할 수 있으며 액살을 물리치고 불안을 가시게 한다. 또한 선원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생활 규범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주와 선원들은 정성을 다 하여 뱃고사를 지낸다.



뱃고사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수룡마을
황헌만

참고문헌 | 多島海의 堂祭(崔德源, 學文社, 1983), 南道民俗考(崔德源, 삼성출판사, 1990), 남도의 민속문화(최덕원, 밀알, 1994), 한국의 풍어제(하효길, 대원사, 1998), 현장의 민속학(하효길, 민속원, 2003).

필자 | 최덕원(崔德源)

벅수제(一祭)

⇨ 장승제(長丞祭)

별고사(別告祀)

정의 정기적인 고사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의례. 별고사의 '별'은 별(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사의 시기와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내용 제주도의 '별제지내기'의 경우, 정월에 향회를 하여 16제관을 뽑는다. 제비는 재산이 중급 이상이면 백미 한 되, 그보다 적으면 소미 한 되를 받는

다. 받은 쌀로 돼지를 사고 모든 제물을 준비한다. 제관들은 장막을 치고 합숙하며 일주일간 정성을 들이고 3일 전에는 하루에 한번씩 목욕을 한다. 여자들의 출입은 삼간다. 제를 치르는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이 길어가기 전에 물을 길어 온다. 길어 온 물과 제물을 봉하고 출입을 삼간다. 제단 청소를 하고 황토를 파서 제단까지 깐다. 자시(子時)에 제를 지내는데, 별제의 행제 과정은 석전제에 준하여 집례가 창하는 홀기에 따라 진행된다. 별제는 집안과 마을의 안녕과 오곡 풍년, 육축 번성을 기원하는 유교식 마을제이다.

지역사례 경북 영덕의 경우, 별고사는 특별한 어종의 풍어를 위해서 지내는 제사이다. 양미리(영미리, 앵미리)나 청어가 잘 잡히지 않을 경우, 어장주인들이 돈을 모아서 지낸다. 이를 '어장고사' 라고도 한다. 울진의 별고사의 경우,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면 마을 주민들이 고사를 지내자고 한다. 의견이 동회(洞會)에서 받아들여지면 날을 잡아 별고사를 행한다.

이같이 별고사는 지역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이고, 고사의 이름이 같다고는 하나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제의이다.

참고문헌 |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권삼문(權三文)

보성당촌별신당제(寶城堂村別神堂祭)

정의 전라남도 보성군 복래면 봉천리 당촌마을에서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마을제사. 일반적으로는 당산제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별신당제라고도 한다. 제사를 모시는 곳은 모두 세 곳으로 이들은 각각 교목제(喬木祭)·당산제(堂山祭)·이사제(里社祭) 등 별도의 제명(祭名)으로 불린다.

내용 동남간으로 길게 자리잡은 이 마을 안쪽에서 볼 때, 왼쪽 둥구나무등이라고 부르는 언덕 위에 수령 70여 년 된 귀목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이곳에서 모시는 제사를 '교목제' 라고 한다. 본래 수백 년 된 아름드리 귀목나무가 있었으나, 고사하여 새로 나무를 심어 당산목으로 하고 있다. 다음 당산제는 당뫼라고 불리는 마을 뒤쪽 언덕에 있는 당집에서 모신다. 이 당집은 본래 마을 뒷산에 있었으나 1897년 이곳으로 옮겼다.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한밤중에 제사를 모시러 다니기가 어렵고, 또 정월이라 궂은 날씨가 많아 오르기가 어려워 이곳으로 옮겼다고 전한다. 당집의 상량문은 다음과 같다. "용개국오백육십정유정월이십사일사시입주동월이십육일미시상량수겸유사김홍이화주김달천구(龍開國五百六十丁酉正月二十四日巳時立柱同月二十六日未時上樑手兼有司金弘伊化主金達天龜)." 당집은 전면 260센티미터, 측면 240센티미터의 맞배지붕으로 지어져 있고, 몇 차에 걸쳐 보수를 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집의 안쪽에는 시렁이 있고, 시렁 위에 다섯 개의 돌과 아래쪽 바닥에 두 개의 돌이 놓였다. 돌 위쪽을 모두 한지로 싸고 왼새끼로 둘러놓았다. 예전에 마을 앞으로 말을 타고 가던 행인이 혹시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이 돌들이 굴러내려 말을 상하게 했다고 전해 온다. 그래서 이 돌들을 '말칼'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사제는 마을 앞의 노상에서 모신다. 이곳에 본래 당산목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려진 바 없고, 단지 마을 입구의 길가에서 제사를 모셔오고 있다.

정초가 되면 이장을 중심으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반장들이 모여 그 해 당산제를 위한 협의를 한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제비와 제관에 대한 것이다. 당산제에 필요한 제비는 매년 정초에 마을에서 호구전으로 걷는다. 한 사람당 1홉의 쌀과 모자란 만큼은 돈으로 환산하여 개인당 얼마씩을 부과한다. 근년에 들어서는 마을을 떠난 사람이 많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비를 내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비해 모든 것이 약소해지고 있다. 더구나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당산제의 필요나 이에 대한 신심(信心)이 없고 관심 또한 점점 약해져 언제 당산제가 없어질지 모른다고 노인들은 염려가 많다.

당산제를 모실 사람을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본인이나 집안에 유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특히 화주의 경우는 집안에 어린이들이 있어서도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유고란 주로 상을 당하거나 산고가 든 집을 말하지만 이런 집을 다녀온 사람도 제관 선정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정월에 개고기를 먹은 사람도 제외된다. 화주 1인, 헌관 2인, 축관 1인을 뽑으며, 준비에서부터 당산제를

모시기까지 뒷일을 맡아 볼 심부름꾼 2~3인도 뽑는다. 그리고 화주가 초헌관을 맡는다. 화주는 당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뽑으면서부터 각별히 신경을 쓴다. 화주가 하는 일은 당산과 당샘의 정리와 청소, 그리고 이곳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까는 일과 당산제에 필요한 일체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화주로 뽑힌 사람은 당산제를 모시기 4~5일 전에 뒷산 어귀에 있는 당샘에 올라 깨끗이 청소한 후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깐다. 그 일이 끝나면 맑은 물을 길어와 제주를 앉힌다. 당샘에 금줄이 쳐지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물을 길어 가지 않는다. 화주는 일단 제주(祭酒)를 앉히면 그때부터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며, 궂은 곳에 출입하지 않고, 궂은 사람과 만나지도 않는다. 또 대문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화주집에 드나들지 않는다. 이 때부터 화주 부부는 매일 찬물에 목욕을 하고 동침을 하지 않는다.

제물은 가까운 문덕장에서 산다. 제사를 모시는 날의 하루나 이틀 전에 장을 보는 것이 통례이다. 화주와 이장이 함께 장에 가서 제물을 사며, 물건값은 깎지 않고 산다. 전에는 시루와 제석, 그리고 일체의 제기까지 매년 새로 구입하여 썼으나 지금은 화주집 그릇을 이용한다. 장을 본 것은 화주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제물을 장만한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 오전에 화주는 세 곳의 당산을 돌아다니면서 금줄을 걸고 황토를 깐다. 특히 당집에 가서는 안을 두루 청소하며, 당집 속에 있는 소위 말칼로 불리는 돌들에 옷을 입힌다. 옷이란 한지로 돌 위쪽을 감싸고 왼새끼로 두르는 것이다. 한 해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이듬해 다시 옷을 해 입힌다. 또 마을 입구에 있는 이사제를 모실 곳에는 대나무를 얽어 허리 높이의 제상을 만들어 둔다. 거기에는 제사를 모실 때 떡시루를 얹어두게 된다.

제물은 제사에 임박해서 주로 14일부터 만들기 시작하며, 화주 부부만 만든다. 제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당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쓴다. 또 이 때부터는 화장실을 다녀오면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며칠간 화주 부부는 거의 금식을 한다. 제물을 만드는 일은 정결히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신경을 쓴다. 음식물에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도록 머리에 수건을 쓰고, 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도 가린다. 또한 음식에 고춧가루를 쓰지 않으며, 간을 본다거나 맛을 보지 않는다. 제물을 만들면 제사를 모실 곳에 맞춰 따로 세 곳으로 나누어 둔다.

요즈음에는 마을에 농악을 칠 줄 아는 사람이 현격히 줄어서 굿을 치지 못하지만, 전에는 초저녁부터 농악을 울려 14일 밤 온 마을이 잔칫집처럼 술렁였다라고 한다. 그런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합세하여 놀고, 달집태우기도 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 마을은 보름날 가정에서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자시가 넘으면 화주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먼저 교목제를 지내기 위해 산에 오른다. 여기에는 화주 부부를 비롯하여 헌관과 축관,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함께 간다. 예전에는 당산굿을 치는 사람도 함께 당에 올랐다고 하나 지금은 농악을 하지 않는다. 제사의 순서는 유교식 제차를 따른다. 제물 역시 집안 제사와 같다. 그러나 교목제에서만큼은 돼지머리를 썼으며, 제사가 끝나면 그것을 땅에 묻었다고 한다. 지금은 간소해져서 돼지머리를 쓰지 않는다. 분향, 강신, 독축, 초헌, 아헌, 종헌, 사신의 순서에 따라 제사한다. 이 순서가 끝나면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한두 장씩 소지를 올리며 복을 빈다.

교목제가 끝나면 화주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물을 들고 나와 당집에 올라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한다. 당산제가 끝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제물을 들고 마을 앞으로 나가서 이사제를 모신다. 이사제와 관련하여



보성당촌 별신당
전남 보성군 복래면 봉천리 당촌마을
표인주

그 제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전해 오는 말이 있다. 예전에 마을에 박첨지라는 분이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재산을 마을에 헌납하면서 당산제를 모시면서 함께 제사를 모셔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매년 이사제를 모시면서 "박첨지" 하고 이름을 크게 외쳐 그를 부른 후에 제사를 모신다.

이사제까지 모두 끝나면 대개 동이 튼다. 날이 밝으면 화주집에서 마을 공용의 서당으로 준비된 모든 음식을 옮겨온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음복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동회를 연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마을 일 전반이지만 특히 그 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품삯 등을 정한다. 예를 들면 머슴의 세경이나 일꾼의 품삯, 쟁기질의 가리삯 등이다. 요즘에는 동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예전에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여기서 정해진 것은 누구도 어기지 못했다고 한다. 전에는 먹을 것이 없고 해서 이런 모임에 누구나 참석해서 떡 한 조각이라도 먹으려 했으나 지금은 먹을 것이 흔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더구나 품삯의 경우도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사고 또 마을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품삯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마을회의가 끝나면 며칠 간 계속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매구를 친다. 물론 이것도 과거의 일이며, 근년에 들어서는 매구를 치는 일은 거의 없다.

참고문헌 | 寶城郡 文化遺蹟 學術調査(나경수, 全南大學校博物館 · 寶城郡, 1992).

필자 | 나경수(羅景洙)



보성당촌별신당 내부 표인주

본향당굿(本鄕堂—)

정의 마을 사람들이 당을 맨 심방과 함께, 당의 제일(祭日)에 마을수호신을 모신 본향당에서 벌이는 굿. 주로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무교식(巫敎式) 마을제의로 줄여서 '당굿' 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본향당이란 마을을 차지하고 수호하여 주는 신의 주처임과 동시에 제장(祭場)이다. 심방들이 창하는 무가에서 이 신의 직능을 말하는 사설을 보면 대개 "낳는 날은 생산, 죽는 날은 물고, 호적, 장적 차지한 한집" 이라 한다. '한집' 이란 당신(堂神)을 일컫는 말이니, 이 신들은 출생 · 사망 · 호적 · 장적 등 마을 주민의 제반사를 관장한 신임을 말해 준다. 또 이 신을 일컬을 때는 '본향한집' 또는 '토지관한집' 이라 하기도 한다. 이로써 이 신은 마을 전체의 자연 · 인문사상을 수호해 주는 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 본향당은 마을마다 반드시 하나가 있게 마련이다. 한 마을에 당이 여러 개 있을 경우는 본향당 하나 외에 칠일당계이거나 팔일당계 아니면 해신당계의 당이 있는 것이다. 주민은 여러 개의 당 중에 어느 것이 본향당임을 분명히 구분하여 알고 있다.

이들 본향당에는 크게든 작게든 일년에 몇 번씩 무의(巫儀)가 행해진다. 크게 하는 무의를 '당굿' 이라 하고, 작게 하는 무의는 보통 '비념' 이라 한다. 굿이란 전 무악기 즉 북 · 장고 · 징 · 설쉐 · 요령 등을 모두 사용하고, 주요 제차는 최소한 무격을 합쳐 모두 4인 내지 5인의 심방이 있어야 하며, 보통 아침에서 저녁까지 종일 걸린다. 이 당굿을 할 때에는 온 동네의 여인들이 가호마다 제물을 차려 참가하며 또 남자들도 모이는 일도 있다. 비념이란 굿처럼 큰 규모의 것이 아니라, 심방 한 사람이 요령만을 흔들며 축원하는 무의이다. 이는 온 동네가 모여 공동으로 의례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개별적으로 심방에 의뢰하여 당에 가서 한 시간 내외의 간단한 축원을 하는 것이다.

무의를 하는 날짜를 제일(祭日)이라 한다. 제일은 당에 따라 정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부정일로 택일을 하여 하는 곳도 있다. 제일은 날짜와 제명이 당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대개는 4대 제일이라 하여 연 4회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





1 본향당굿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장주근

2 본향당굿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김영한

로 4대제를 보면 ① 정월의 '신과세제' ② 2월의 '영등제' ③ 7월의 '마불림제' ④ 10월의 '시만국대제'이다.

마을의 본향당에는 당본풀이가 전해져 오는데, 그 마을의 당을 맨 심방에 의해 구송되어 전승되고 있다. 당본풀이는 마을의 설촌조상(設村祖上)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뿌리의 내력이다. 뿌리는 한 집안의 족보도 아니요, 왕조사도 아니며, 목민관의 치적도 아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원형을 그대로 유전하는 것으로 거친 자연과의 싸움, 지배 관료들과의 생존을 건 싸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도민의 삶을 지속시켜 온 생존의 법칙, 노동과 저항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본풀이는 도민의 노동생산의 일차적인 삶에서부터 충전되어 온 경험적 인식의 축적물로서 민중사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의의 당은 단순한 성지, 신이 머무는 곳이라는 차원을 넘어 도민의 집단적 미의 체험과 역사의 축적물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이다. 마을 사람들이 굿을 통하여 신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그들의 설촌조상과의 만남이다. 그 만남의 징표로써 지전이나 물색을 당나무에 걸어 놓고, 바라는 소망을 기원하는 것이 당굿이며 비념이다. 당굿을 통하여 굿의 염원, 싸움의 염원을 말없이 걸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본향당 신목에 걸려 있는 지전(紙錢)과 물색(物色)인 것이다.

참고문헌 |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濟州島 堂信仰 硏究(文武秉, 濟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필자 | 문무병(文武秉)

부군당제(府君堂祭)

정의 서울 지역 마을제당의 하나인 부군당에서 마을신인 부군신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제의.

어원 부군당은 일반적으로 부군당(府君堂, 符君堂)·부근당(付根堂)으로 표기되는데, 부군의 정확한 어원이나 의미는 밝혀져 있지 않다. 조선시대 서울의 각 관아 내의 부군당에는 목제 남근[木莖]을 모셔 두었는데, 이로부터 부근당(付根堂)이라는 말이 유래했고 이것이 부군당(府君堂)으로 변했다는 설명이 있다. 이와는 달리, 부군(府君)은 중국 한나라 때의 태수(太守)를 의미하는 것인데, 부군당이 관아에 모셔진 당이고 부군신이 주로 해당 관아의 우두머리가 많다는 점에서 부군은 관직명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유래 부군당제의 정확한 역사적 유래를 밝히기는 어렵다. 단지 조선시대 서울의 각 관아에 모셔진 신당(神堂)이었던 부군당이 민간의 신앙 대상으로 변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마을공동제의의 한 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문헌기록을 보면, 부군당이 관아의 부속시설 가운데 하나로서 별도의 작은 건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64 「예고(禮考)」 음사조(淫祀條)에 "나라 풍속이 도하(都下, 서울 안)의 관부(官府)에는 으레 작은 집 하나를 설치하여 두고, 종이돈[紙錢]을 총총 걸어서 이를 '부군(府君)'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 권17 「인사부(人事部)」 제사조(祭祀條)에도 "오늘날 풍속에 관아[衙門]에는 대개 기도하고 제

사지내는 곳을 두었는데 이것을 부군(府君)이라 한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권2 「한성부(漢城府)」 사묘조(祠廟條)를 보면 부군사(符君祠)가 각사(各司, 서울 내의 관아에 대한 통칭) 아전의 청방(廳房) 곁에 있었다고 한다. 『통문관지(通文館志)』 권1 「연혁(沿革)」 관사조(官舍條)에도 "부군당(符君堂)은 2칸인데, 누각(樓閣)의 정북쪽에 있다. 강희(康熙) 정해년(丁亥年, 1707, 숙종 33)에 중건(重建)하였는데, 옛날 것에 비해서 반 칸을 더 늘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 관아도(官衙圖)를 보면, 부군당이 2칸에서 3칸 사이의 작은 건물로 대체로 중앙에서 벗어난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 가운데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각 관아의 부군당에는 제의의 대상인 부군신들이 모셔져 있었고, 목제 남근이나 종이돈이 걸려 있었다. 신들은 대체로 화상(畵像)으로 모셔졌으며, 모시는 신은 부군당에 따라 달랐다고 한다. 예컨대 형조(刑曹)의 부군당에는 제갈공명(諸葛孔明)이, 병조(兵曹) 부군당에는 문천상(文天祥)이, 한성부 부군당에는 공민왕이, 전옥서(典獄署) 부군당에는 동명왕(東明王)이, 포청(捕廳)과 사역원(司譯院), 의영고(義盈庫, 조선 시대에 호조(戶曹)에 속하여 기름·꿀·후추 따위의 공급과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부군당에는 송씨 처녀[宋氏姐]가, 양현고(養賢庫) 부군당에는 최영(崔瑩)과 그의 딸인 고려 우왕(禑王)의 왕비가 모셔져 있었다. 부군당에 모셔졌다는 목제 남근은 송씨 처녀를 위한 것으로, 그 신을 위한 제물이기도 하면서 신의 상징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능화(李能和)에 의하면 사역원 부군당에 남근 10여 개가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이들 부군당에 대해서는 새로 부임한 관원들이 반드시 제사를 지내 복을 빌었다. 또한 『동국여지비고』를 보면 10월 1일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부군신에 대한 정기적인 부군당제가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한편 황윤석(黃胤錫)의 『이재난고(頤齋亂藁)』에 의하면 의영고 부군당제를 아전과 노비들이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아 부군당제의 실제 진행은 아전층을 중심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한편 『지봉유설』은 부군당제가 무격(巫覡)의 허망한 짓에서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조선시대 부군당제가 무속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익(李商翼)이란 사람이 의금부 부군당제에서 춤을 추었다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05책 현종(顯宗) 8년 11월 14일 갑인조(甲寅條)의 기록은 조선시대 부군당제가 가무(歌舞)를 중심으로 하는 무속 굿의 모습을 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관아의 부군당제는 민간화되어 현재 마을의 공동제의로서 행해지고 있으며, 부군당은 마을제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내용 및 특징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을 보면, 부군당이라는 명칭이 서울 12개, 경기도 3개, 경상북도 1개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부군당제는 거의 대부분 서울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민속대관』 1을 보면, 서울시에서 부군당으로 조사된 마을제당은 모두 19개인데, 17개의 부군당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강변에서 떨어진, 보다 안쪽에 있는 부군당은 3개의 부군당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시대 서울의 각 관아에 부군당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부군당이 서울 지역에 나타나는 점은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왜 한강변에 부군당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부군당제는 이처럼 당 건물을 갖추고 있는 부군당 내에서 행해진다. 다른 지역의 마을제당은 당집의 형태를 갖추기도 하지만, 집주저리나 나무, 돌무더기 등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당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서울 지역 부군당의 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조선시대 부군당과의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서울 지역 부군당제의 중심 제의 대상은 물론 부군신이다. 부군신은 홀로 모셔지기보다는 부군할아버지, 부군할머니처럼 부부로서 모셔지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부군당제에서는 부군신, 즉 부군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중심으로, 산신·장군신·대동어른·대감·칠성·제석 등 민간의 여러 신들도 같이



서빙고동 부군당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장주근

모셔진다. 그리고 부군당에는 마을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군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여러 신의 화상이 봉안되어 있다.

부군당제의 중심 대상인 부군신의 정체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저 부군할아버지와 부군할머니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군신의 정체가 분명한 마을도 있다. 동빙고동 부군당의 경우 단군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군신으로 모시고 있다. 보광동 부군당의 부군신은 김유신 장군이며, 서빙고동 부군당은 조선의 이태조(李太祖) 내외를 부군신으로 모신다. 신정동 부군당은 사도세자를, 전농동 부군당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조반(趙胖) 내외를, 현석동 부군당은 이태조를 부군신으로 모신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 부군당제의 중심 대상은 주로 인물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신길2동 방아곳지 부군당에는 지금도 목제 남근이 모셔져 있고, 무당이 진행하는 부군당굿의 호구거리에서 남근을 반드시 놀려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자들이 바람난다고 믿는다. 이처럼 현재 서울 부군당제의 주신(主神)인 부군신이 인물신이고, 그리고 아직도 남근을 모시고 있는 부군당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현재 서울의 부군당과 조선시대 부군당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의 부군당제는 마을 주민 중에서 선출된 제관에 의한 유교식 제의와 이후에 진행되는 무당의 굿이 합쳐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교식 제의보다는 무당굿이 중심을 이룬다. 유교식 제의는 마을의 사정상 굿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굿을 대체하는 의미로서 행해지며, 무당의 굿과 함께 행해질 때는 굿의 한 절차로 편입되어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무당의 굿이 부군당제의 중심이라는 점도 부군당제의 특징이다.

제의의 시기는 주로 정초나 10월 1일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며, 2월 1일, 7월 1일, 또는 3월이나 4월 등에 지내기도 한다. 제의 시기는 최근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이 바뀌면서 이에 맞춰 새로 정해지기도 한다. 한편 부군당제는 마을에 따라 일년에 한번 지내기도 하며, 두세 번 지내기도 한다. 1회 이상 부군당제를 지내는 마을의 경우, 그 중 한번은 반드시 무당굿으로 진행하며, 나머지는 유교식 제사나 치성으로 진행한다.

의의 조선시대 관아의 부군당제가 민간화되었다는 역사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군당제는 공동의 세시의례로서 행해지는 일반 마을제의의 성격과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 해의 삶이 시작되고 마감되는 정초나 10월에 주로 행해지며, 제일을 선정하고 제관을 선출한 후 온 마을 사람이 금기를 준수하면서 공동의 비용과 노력으로 부군당제를





〈부군당제〉
1 공수
2 사실세우기
3 제관재배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장주근

1 부군거리
2 제관의 헌작
서울 용산구 보광동 김영한





지낸다. 이러한 제의과정이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공동체 통합의 역할과 마을축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다른 마을제의와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 서울의 부군당제는 마을제의라는 공동 세시의례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輿地備攷, 承政院日記, 五洲衍文長箋散稿, 頤齋亂藁, 增補文獻備考, 芝峯類說, 通文館志, 朝鮮巫俗考(李能和, 啓明19, 啓明俱樂部, 1927), 朝鮮宗教史(李能和, 1937),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6~1993), 韓國民俗論攷(張籌根, 啓蒙社, 1986), 서울당굿(황루시, 悅話堂, 1989), 서울民俗大觀 1.民間信仰 編(서울特別市, 1990), 마포 부군당 도당굿 연구(문덕사, 1999), 서울의 마을굿(박흥주, 서문당, 2001), 京江邊 府君堂의 性格과 歷史的 展開 樣相(유승훈, 서울학연구20,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3).
필자 | 이용범(李龍範)

불막이제(一祭)

정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행해지는 풍습. 불막이제는 불제 · 불막이굿 · 불액막이제라고 한다.

유래 불막이제의 유래는 설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에서는 불막이제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어느 노승이 절터를 찾는 중 노승봉에서 내려와 수문리를 보았다. 그 터가 명당이었으나 앞산 마루에 화기(火氣)가 있어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노승산으로 올라가는 고개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보고 절터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때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나 "이 마을은 계속 번창할 것이나 화재가 많은 것이 염려되고, 계곡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노승에게 액맥이하는 방법을 묻고, 노승은 "화기는 막을 수 있지만 낭떠러지는 어찌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었다. 노인은 화기 막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낭떠러지는 차차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였다. 노승은 마을 건너편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수문(水門) 위의 등허리에 항아리 셋을 묻되, 그 항아리에 바닷물과 우물물을 반반씩 넣어 가득 채우고 꼭 봉한 후에 흙을 덮어서 무덤처럼 해두었다가 불이 나거든 열어 보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마을회의를 열어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물항아리를 사오는 일은 '웃대미(윗마을)'가, 뚜껑을 만드는 일은 '아랫대미(아랫마을)'가, 항아리를 묻는 일은 '동그대미(중간마을)'가 맡기로 정하였다.

정월 대보름 당제가 끝나고 좋은 날을 가려 항아리를 묻었다. 그 후 동그대미에서 불이 나 열어 보니 가운데 항아리만 물이 없어졌으며, 아무리 살펴봐도 깨진 곳이 없었다. 다시 물을 채우고 묻어 두었다가 아랫마을에서 불이 나 열어 보니 역시 아래쪽 항아리만 물이 없어졌다. 윗마을에서 불이 나 열어 보았을 때 윗항아리만 물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동쪽의 제일 윗항아리가 '웃대미', 가운데 것이 '동그대미', 아랫것이 '아랫대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들 항아리의 물이 없어지면 그 항아리와 관계된 마을에 불이 난다고 믿게 되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면서 불이 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한편, 노승이 말한 것처럼 노승봉 낭떠러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거나 병신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마을에서 낭떠러지 입구를 막아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결국 낭떠러지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에서는 조선 철종 때 큰 화재로 마을이 전소될 정도였다. 그 이후에도 잦은 화재로 주민들이 대대로 불안에 떨었고 어느 날 근심을 하던 마을에 한 유명한 지관이 나타나 화란(火亂)의 원인과 대응책을 가르쳐 주었다. 지관의

말로는, 마을 앞산이 나무가 울창하여 잘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제거하고 산모양을 보면 '화(火)' 자의 형상을 띠고 있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이라 하였다. 그 대책으로 산 정상에 구덩이를 파고 간수를 묻으면 산으로부터 시작되는 화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관의 권유에 따라 앞산에 구덩이를 파고 호리병을 묻고, 그 묻어 놓은 호리병에 간수를 부은 다음 제를 올리는 풍습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내용 및 지역사례 어느 마을제사나 제관을 선정하고 금줄을 두르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이다. 불막이제에서 보이는 독특한 점은 바닷물과 우물물을 길어 오는 일이다.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의 경우 바닷물을 길어 오는 일은 마을에서 힘쓰는 젊은이들의 몫이다. 물론 젊은이 가운데 깨끗한 사람을 선정한다. 대전리에서 바닷가까지는 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지게를 지고 두 사람이 새벽에 물을 뜨러 갔다. 두 사람이 가는 이유는 교대로 물지게를 지기 위함이다. 경운기와 트럭이 등장하면서 물을 운반하는 것은 그것들로 대치되었다. 바닷물이라도 탁하면 안되기 때문에 바다 중간에 들어가 깨끗한 물을 퍼 온다. 두 동이의 물이면 불막이제에 쓰고도 남는데, 물 한 동이의 양은 두 말 정도이다. 민물은 마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웃샘의 물을 쓴다. 물을 뜨러 가기 전에 사람들은 목욕을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한다.

불막이제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에서는 정월 대보름 달이 뜨는 오후 4~5시 경에 시작하지만,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에서는 음력 2월 1일 아침 일찍 지낸다. 제를 2월 1일에 지내는 것은 그믐을 넘기고 새로 시작되는 날이어서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전리에서는 정월 대보름 당산제가 끝나면 불막이제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과일, 백설기시루, 포, 도라지, 고사리, 무채, 청주 등을 놓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당산제 줄다리기 때 수렴한 돈으로 충당한다. 북송리의 경우 마른 오징어, 삼색과일, 소주 등 제물이 간소하다. 제의진행은 풍물을 치면서 제사터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간수를 담은 항아리를 꺼내 확인하고, 물을 보충하고, 항아리를 묻고, 제사지내기 순서로 이루어진다. 북송리에서는 마을 이장과 풍물패가 풍악을 치면서 해발 70미터 정도 되는 앞산에 오르는데, 일단 산에 올라 간수병(아가리 좁은 4리터 정도의 병)을 파내어 솔잎 뭉치로 만든 병마개를 열고 깨끗하고 곧은 나뭇가지를 넣어 젖어 있는 흔적을 보고 남은 간수

〈소금무지제〉
1 금줄치기
2 소금확인
3 진설
4 소금항아리에 동전 넣기
5 재배
6 헌작
7 독축
8 소지
충북 단양군 단성면 두악산
국립민속박물관



의 양을 측정한다. 병 안에 간수가 줄어들었으면 보충하고, 제사를 지낸다. 사람들은 간수가 많이 줄었을 경우 앞으로 시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믿고, 특별히 행동을 조심한다.

제사는 간수병을 중심으로 남쪽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관이 술을 올리면서 시작된다. 그리고는 생솔잎으로 병주둥이를 막고 검정 색 비닐로 싸맨 후 흙을 덮고 발로 다진 후 떼(잔디)를 입힌다. 의식이 계속되는 동안 풍물을 치는데, 간수병을 완전히 묻고 제관은 다시 재배하면서 "아무 재앙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축원을 한다. 축원이 끝나면 이장은 마을 쪽을 향하여 재배하는데 이 때 풍물패들도 풍물을 치면서 마을을 향해 구부려 절하고 하산한다.

대전리에서는 세 개의 항아리가 묻혀 있는 '진등' 이라는 곳으로 제관과 풍물패가 이동한 후 윗마을에서 아랫마을에 해당하는 물항아리를 순서대로 열어 본다. 물이 줄어든 항아리에는 미리 준비한 바닷물과 우물물을 반반씩 섞어 채운다. 그리고 돌로 된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덮는다. 항아리는 각각 넉 되의 물이 들어가는 크기로서 1미터 간격으로 묻혀 있으며, 그 위로 70센티미터 가량 흙으로 덮는다. 그런 다음 제관들이 제사를 지낸다. 축문은 제사가 끝나면 불에 태워 버린다. 제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하고, 마을로 돌아온다. 축문의 내용은 천지의 모든 신에게 마을의 평안을 비는 내용이다.

의의 화재는 한 번에 큰 재물과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다. 그래서 궁궐이나 절, 민간에서는 불기운[火氣]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주술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왕조가 궁궐의 화재 발생을 관악산의 화기 때문이라고 보고, 궁궐 앞에는 해태상을, 남대문에는 숭례문(崇禮門)이라고 적은 현판을 세로로 건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 숭례문의 '예(禮)' 자는 오행 중 화(火)에 해당하고, 세로로 문구를 쓴 것은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으로 결국 불로써 불을 막으려는 주술적인 행위이다.

절이나 민간에서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금이나 물과 같은 상징물을 이용한다. 경북 청도의 운문사에서는 음력 1월 20일 경에 소금을 담은 단지를 불당 뒤에 묻으며, 해인사에서도 절 경내 주위 여러 곳에 소금단지를 묻어 절 앞 화산(火山)의 화기를 누른다. 민간에서도 소금단지를 땅에 묻어 마을의 화재를 예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보인다. 가령 강원 정선, 경북 포항, 전남 함평 지역을 뽑을 수 있는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행해지는 풍습을 불막이제 · 불액막이제라고 한다. 불막이제에 쓰이는 소금은 바닷물의 결정체로써 거대한 물을 의미하여, 물과 불이 상극[水火相剋]이라는 이치를 이용해 불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민간에서 기둥에 '수(水)' 자를 거꾸로 붙여 화기를 누르고자 한 것도 수화상극(水火相剋)의 단편적인 예이다. 상량문에 용(龍)자나 귀(龜)자를 쓰는 것도 수신적(水神的) 존재인 이들 동물에 힘입어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 간물단지신앙의 용신신앙적 성격(김명자, 月山任東權博士頌壽紀念論文集 民俗學 篇, 월산임동권박사송수기념논문편찬위원회, 1986),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정연학(鄭然鶴)

산신멩감[山神命監]

정의 음력 정월에 수렵을 하는 집안이나 수렵을 업(業)으로 했던 조상이 있는 집안에서 그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한 해 동안 사냥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를 기원하는 제의. 산신멩감을 위한 고사(告祀)이므로 '산신멩감코ᄉᆞ' 라고도 한다.

내용 매해 정기적으로 치르는 제의로서 해당되는 가호(家戶)에서만 개별적으로 지내는 의례이다. 그런 만큼 제일(祭日)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음력 정월에 가족들의 생기를 보아 택일(擇日)해서 정한다. 제일 밤이 되면 기주(祈主)는 심방과 함께 들이나 산으로 간다.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를 골라 상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차린다. 제물은 시루떡, 돌래떡, 오물떡, 묵, 바닷고기(조기 · 옥돔 · 명태) 등이다. 제물에는 칼집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통째로 올린다. 심방은 평복 차림을 한다. 무구(巫具)는 멩두(요령 · 신칼 · 산판)와 장구만 쓴다. 제의는 공선가선, 날과 국 섬김, 집안연유 닦음, 군문열림, 정데우, 추물공연, 비념, 산신군졸 지사빔의 순서로 진행된다. 끝부분에서는 산신군졸을 대우하는 뜻으로 닭을 잡아 창자를 꺼내어 뿌린다. 닭은 사냥감을 의미한다. 집에서 큰굿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이 때는 마지막 제차(祭次)인 도진 직전에 산신놀이를 벌인 뒤

닭을 칼끝에 꿰어 산신군졸을 대우한다.

제의의 주요 내용은 산신(山神)과 따르는 군졸들을 청하여 대접하고 수렵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산신이 곧 수렵신이기 때문에 산신을 청한다. 일반적으로 산신은 한라산(漢拏山)에서 솟아나며 수렵과 목축을 두루 관장하는 신격으로 관념된다. 산신은 마을에 따라서는 당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지금도 당굿을 하면서 산신놀이를 함께 벌이는 예가 있다. 본향당신의 상당수가 산신인 것으로 보아 제주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신격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산신멩감은 4·3사건의 영향으로 들에 나가기가 어려워지자 집안에서 지내는 사례가 늘었고, 이후 제의 자체가 급격하게 소멸되어 갔다. 사정에 따라서는 더러 유교식 제법으로 지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涯月邑 郭支里·光令里(學術調査報告書8, 濟州大學敎 國語國文·國語敎育科, 1984), 濟州島 巫俗 硏究(玄容駿, 集文堂, 1986).

필자 | 강정식(姜晶植)

산신제(山神祭)

정의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면서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제의. 산신제·산제·산제사 등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산신제는 고대사회에서부터 명산으로 알려진 산과 산악지대 또는 산악과 인근한 마을들에서 행해졌다. 산신제는 산악숭배의 표현이며, 산악숭배 사상은 천신신앙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산신숭배 사상은 『삼국유사(三國遺事)』「기이(紀異)」편 고조선조에서 "단군은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山神)이 되었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매우 오래된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고대사회에서의 산천제가 시조제(始祖祭)·농신제(農神祭)와 더불어 중요한 국가행사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라의 삼산오악숭배나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진 산악숭배 등의 산신에 대한 의례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면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공동체신앙이나 개인신앙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태백산 산신제나 치악산 산신제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오늘날까지 관(官)주도의 산신제가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행하는 산신제당은 마을 주변의 산 중턱이나 정상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제당이나 제당·산신당·산신각 등으로 불리면서 단수 또는 복수제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산신제를 행하는 마을에서의 제당은 상당과 하당 등으로 복수제당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제당 형태는 오래된 큰 나무 또는 그 나무 밑에 돌무지가 함께 있기도 하다. 집의 형태인 산신각의 경우에도 큰 나무와 병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당의 형태가 높은 신목으로 표현되는 것은 신목이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우주의 기둥'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곧 산신신앙이 천신숭배와 닿아 있음을 나타낸다. 산신제의 대상신인 산신은 호랑이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호랑이는 산신의 매개자일 뿐이다.

산신제의 진행 과정은 제관 선정, 금기와 재계의 기간, 제당 제의, 음복과 주민회의 등 동제의 일반적 절차와 유사하지만, 희생과 야외용 밥솥인 새옹에 밥짓기 등과 같은 특별한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신제〉
1 산신당 내부의 목신상
2 산신제의 독축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백월산
국립민속박물관

소백산맥 주변에 위치한 경북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 산제의 경우, 진산(鎭山)인 미역끝산[藿端峰] 정상 바로 아랫부분에 위치한 산제당에서 행한다. 제당은 상·중·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당은 오래되고 큰 소나무와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산제당이며, 상당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중당도 오래되고 큰 소나무이지만 솔잎혹파리의 피해로 뿌리째 뽑혀서 넘어져 있고, 하당은 중당보다 훨씬 아랫부분에 위치하며 희생을 처리할 수 있는 넓은 평지와 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공동체에서 행하는 산신제는 마을마다 일정하지 않지만, 정월 초사흗날부터 보름날에 이르는 시기에 가장 많이 행한다. 산신제는 동제 형식을 취하며, 의례의 경비는 마을 공동재산이나 주민들의 공동부담이 일반적이다.

산신제는 제관(祭官)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제관은 제당 제의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인데, 제관과 축관, 화주(또는 공양주) 등이다. 제관은 부정(不淨)이 없는 이로서 생기복덕(生氣福德)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부정의 범주에는 집안에 상사(喪事)가 있거나 환자 또는 임산부 등이 있는 사람, 살생을 한 경우, 부인의 달거리 등이 해당되며, 생기복덕은 하늘의 운(運)에 거스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기준은 산신제의 대상신인 신성한 산신(천신)과 교융(交隆)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이다. 수평리에서는 상당 제관·공양주·하당 제관 등 각 1인, 희생처리 과정을 도울 사람 2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제관은 일정한 기간 동안 금기와 목욕재계를 통하여 신성화 과정을 거친다. 금기는 제당과 그 주변, 제관의 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에 제관은 마을 밖으로의 출입이 금지되고, 주민들도 제관 집에 출입할 수 없다. 또한 부부관계가 금지되고 식사 양을 줄이면서 일정 기간 동안 목욕재계하고 스스로 신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즘은 냇물에서 행하는 목욕을 세수나 집에서 목욕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제당 제의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상은 소[牛]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도축법이 시행되면서 소가 돼지로 바뀐 곳이 많다. 제당 제의에서는 소나 돼지를 제당에서 잡아 희생의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약간의 쇠고기, 곧 머리부분과 발[足] 부분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희생물의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표현하려는 일반적인 희생 대상의 변이과정과 일치한다. 희생은 산신을 모시는 상당보다도 하당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백산 산신제에서와 같이 제관이 소를 산제당에 모셔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희생의례는 크게 질러대는 비명소리나 제당 주변에 흩뿌려지는 선혈이 제당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희생이 행해진 후에는 제수를 장만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희생물의 고기를 삶아서 제상에 올릴 준비도 해야 한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에서는 희생을 행한 후 희생물을 해체하는 순서대로 상당인 산신당에 진설한다. 머리 부분과 발 부분은 불에 구워서 진설하였다. 이것은 번제(燔祭)의 한 유형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수평리의 제당 제의는 상당과 중당이 서로 다르게 행해진다. 상당 제의는 상당 제관이 제당에 도착한 후부터 야외용 밥솥인 새옹에 밥을 지어서 올린



1


2

1 산신당
2 제물진설
충남 부여군 서헌강

다. 새옹에 밥을 지어 올리는 행위는 산신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읍내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새옹의 밥을 지을 때는 솥뚜껑을 열어 보아서도 안 되고 밥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밥물이 넘치면 정성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수평리의 중심되는 제당 제의는 중당에서 유교식으로 행한다. 하당 제관이 제수로 장만한 희생물을 중당으로 가져오면 진설한 후에 상당 제관이 헌작과 독축을 한다. 그리고 공양주와 하당 제관이 절을 하고 소지 올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하당 제의는 중당의 제수를 지게에 지고 옮긴 뒤 마을을 향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끝난다. 제관들은 마을로 내려오기 전에 그들끼리 음복을 한다. 이 때는 제수로 사용하고 남은 허드렛고기와 제주(祭酒)를 먹는 것이 전부이지만 비의(秘儀)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먹는 음복과는 구별된다.

수평리와 읍내리의 주민들은 제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을 맞이한 후 잠을 잔다. 음복은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제관의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음복은 신이 드신 음식을 집단 성원들이 함께 먹으면서 그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양은 집에 가져가서라도 모두 먹어야 하며, 남은 음식을 개나 짐승에게 줄 수 없다. 그 음식을 먹은 짐승이 해를 입기 때문이다. 음복을 진행하는 동안, 제관들은 경비를 계산하고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한다.

음복은 신의 축복을 받는 신성한 시공간에서 주민들이 대동단결하면서 한 해를 논의하기 위해 행해진다. 일년 동안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행사나 품삯,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금은 행하지 않지만, 음복을 행하는 정월 대보름날에는 줄다리기도 대규모로 행하면서 자신의 마을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도 대동단결하면서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회로 삼았다.

마을공동체 제의는 지역문화사적 배경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읍내리의 경우 본래 지역민의 산신제당을 관(官)에서 수용하여 성황사로 개칭하였다가, 해방 이후 지역민이 제의의 주도권을 이양받으면서 현재의 명칭은 성황제지만 단종복위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산신제에 투영하여 행제(行祭)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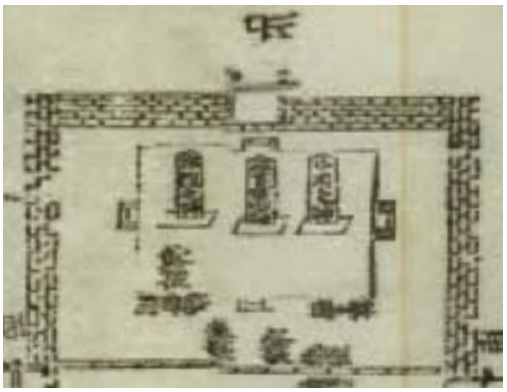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京畿道 篇-(文化財管理局, 1978),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산간신앙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강원도 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한국의 마을제당1~7(국립민속박물관, 1995~2003), 읍치 성황제 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전통의 창출(이기태, 민속원, 1997), 산간신앙II -경북 · 경남 편-(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동제의 상징과 의미전달체계(이기태, 민속원, 2004).
필자 | 이기태(李淇泰)

산천제(山川祭)

정의 마을이나 국가에서 산천(山川)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

내용 산천제의 산천은 악(嶽) · 독(瀆) · 명산(名山) · 대천(大川) · 봉(峯) · 현(峴) · 강(江) · 진(津) · 도(渡) · 천(泉) · 정(井) · 섬[島] · 바다[海] 등 자연의 다양한 대상을 포괄한 용어이다. 산천제는 이들에 대한 제사 전체를 가리키지만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다수의 개별 산천에 일관된 형식을 갖추고 지내는 제사를 가리킨다. 고려나 조선시대 나라에서 춘추로 사전 소재 산천에 제관을 파견하거나 향축을 보내어 제사지내도록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천제는 공간을 달리하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시기에 통일적으로 거행하는 의례이다. 둘째, 특정한 공간에 여러 산천의 신위들을 모아 동시에 지내는 제사가 있다. 조선시대 한발이 심할 때 한양 북교단(北郊壇)에 주요 산천의 신위들을 방위별로 진설하고 지냈던 북묘 망제(望祭)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고려시대 도교 초재(醮齋)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셋째, 산천신이라 불리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앞의 예들이 개별적인 산이나 하천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여기에선 산천 전체가 하나의 신으로 신격화된다. 조선시대 한양의 남대문 밖에 있었던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南壇)은 풍운뇌우신과 성황신 그리고 국내산천지신(國內山川之神)을 모시는 제단이었다. 이러한 제사형식은 고려 말 조선 초 명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지방 동제(洞祭)에도 '산천지신(山川之神)'이란 신위를 모시는 경우가 있다. 넷

山川之神 神位
『國朝五禮序例』 圖設篇
국립중앙도서관



째, 대상과 관계없이 동제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산천제란 이름의 동제는 강원도 · 함경도 · 황해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는데, 이 경우 산천 지신을 모신 경우도 있지만 산신만을 모시고도 산천제라 불렀다.

이와 같이 산천제란 명칭이 지닌 다양한 용례는 산천이 가진 토착적 성격과 이를 통일적으로 통제하려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성격 속에서 형성된 결과이다. 산천에 대한 국가의 제사 형식은 시대마다 변차를 보여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주요 산천을 대사(大祀) · 중사(中祀) · 소사(小祀)로 차등화한 반면, 고려시대에는 개별 산천에 작호를 수여하는 봉작제도(封爵制度)로서 산천을 규제하였다. 또 한편으로 국무당(國巫堂)을 두어 춘추(春秋) 또는 사시(四時)로 이들을 영험한 산천에 보내어 기은제(祈恩祭)를 거행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주요 산천을 중사인 악(嶽) · 해(海) · 독(瀆)과 소사인 명산(名山) · 대천(大川)으로 차등화하고, 정월, 2월과 8월에 향축을 보내어 수령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산천이 제후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신주와 제물 그리고 절차 등이 유교식으로 전환되면서 산천제는 국가와 민간, 유교식과 무교식으로 이원화되었다. 산천은 민간의 주요 의존처였기 때문에 각 지역 동제에서 가장 주요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동제의 명칭이 산천제인 경우는 흔치 않으며, 함경도와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지방 제사 형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곳에 용이하게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國朝五禮序例 국립중앙도서관

참고문헌 |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최광식, 한길사, 1994), 韓國 共同體 信仰의 歷史的 硏究(朴昊遠, 韓國精神文化硏究院 博士學位論文, 1997), 朝鮮前期의 山川祭(이욱, 宗敎學硏究17,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8).

필자 | 이욱(李煜)

서낭제(一祭)

정의 마을 주민들이 마을신에게 안녕과 무병 · 풍년 · 풍어를 빌기 위하여 올리는 마을제사. 서낭제의 명칭은 부근당제 · 도당제 · 거리제 · 동제 · 당산제 · 본향당제 · 촌제 등 다양하다.

유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서낭신을 숭배하는 일을 기록하였다. 또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을 보면 "우리나라 풍속이 귀신을 신봉하여 화간(禾竿)을 만들고 지전(紙錢)을 매달아 촌무(村巫)들이 서낭신이라 부르며 섬긴다." 고 기록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각 지역의 읍지(邑誌)에도 그 기록이 보인다.

내용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지는 동신(洞神)을 계통상으로 분류하면 천신(天神) · 지신(地神) · 수신(水神) · 사귀(邪鬼) · 인신(人神) 등의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신앙 가운데에서도 보편적인 것은 산신 · 서낭신 · 국수신 · 장군신 · 용신 · 부군신 그리고 장승 · 솟대신앙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마을은 배산임수(背山臨水)로, 산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서낭신을 모시는 서낭당이 있다. 또 그 옆에는 장승이나 솟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서낭제에 대한 명칭은 해안에 접한 어촌마을과 평야 중심의 농촌마을 그리고 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간 지역에서 그 명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 면모를 보면, 어촌마을에서는 용왕제 · 용신제 · 풍어제 · 서낭제 · 해랑제, 농촌마을에서는 고청제 · 고봉제 · 서낭제, 산간마을에서는 산신제 · 서낭제라 불린다.

해안을 끼고 있는 어촌마을은 해신(海神)을 용(龍) 또는 여신(女神)으로 상정하여 치제(致祭)한다. 가정의 행운 · 장수복록 · 기자다남 · 무병 · 풍어를 기원하게 된다. 그 가운데 풍어는 어촌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제의 명칭도 바다와 관련된 용왕 · 해신 · 풍어 등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하겠다.

농촌마을은 고청제 · 고봉제 · 성황제의 명칭을

볼 수 있는데, 고청제는 산신을 고하여 청한다는 의미에서 그 명칭이 이루어졌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의 고청제사나 성산면 송암리의 고청제사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큰 마을 전체의 고청제의가 먼저 있고 나중에 각 작은 마을 단위의 서낭제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고청제는 상당(上堂), 서낭제는 하당(下堂)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이러한 제의 구조는 할머니서낭 · 할아버지서낭 또는 암서낭 · 숫서낭 그리고 본서낭 · 골맥이서낭 등의 이중 서낭구조나 신격의 구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을 형태가 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배산임수의 풍수설에 의한 산에 대한 치제(致祭), 그리고 산신사상의 관념적 표현, 또 하나는 유교질서 이념의 확립을 위한 지배계층의 마을 세력구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간마을의 경우는 평야 중심보다는 산에 의존하는 삶의 형태, 그리고 산이라는 환경적 영향 아래에 있다. 따라서 산신제라는 명칭은 주로 마을제사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서낭제는 마을별로 형태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① 서낭목 형태는 서낭당의 원래의 모습으로 천신, 산신, 수목신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서낭목은 마을의 개척자가 처음 마을에 들어오면서 나무를 식목하여 마을의 수호신적 기능으로 변모하는 양상에서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서낭목과 제단이 있는 형태는 서낭목 아래에 자연석을 놓아 제단을 만든 형태이며, 서낭목과 제단 주위에 돌탑을 쌓아 성역을 표시한 형태이다. ③ 서낭목에 당집이 있는 형태는 서낭목 아래나 주위에 당집을 마련하여 제의의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유교의 사당이나 제청의 형태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④ 서낭목과 돌탑을 쌓은 형태는 서낭의 유래에서 불교적 영향이거나 풍수지리적 영향으로 마을의 허를 보강하기 위한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자연암석 형태의 경우는 서낭목이 없이 암석 자체가 하나의 신앙대상물임과 동시에 제의의 공간 역할을 하는 서낭당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강릉지역의 서낭당은 ①, ②, ③의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다.

서낭제 때 모셔지는 신은 대체로 삼위(三位)를 각각 모신다. 성황지신 · 토지지신 · 여역지신이 그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어촌 · 농촌 · 산촌 지역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삼위의 서낭신을 모시는가 하면 하나[一位]의 신, 즉 성황지신 · 산신지신 등의 하나만 모시고 치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신위는 아니지만 상징물로서 치제하는 경우는 장승이나 솟대 또는 진또배기 제의가 있다. 강릉 지역의 해안 마을인 강문, 안목, 도직, 낙풍, 금진마을에서 서낭제 때 진또배기에 치제함으로써 마을의 허한 부분을 채우고자 했던 풍수지리적 측면의 제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겠다.

서낭제의 제일(祭日)은 음력으로 이루어진다. 음력 정월에서 섣달까지 6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제일이 분포되어 있다. 과거에는 일년에 두 번씩 이루어졌던 제의가 현재에는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직 연 2회의 제의를 고수하는 마을도 상당수에 이른다. 제사일의 양상은 봄 · 가을 분포가 강하다. 대체로 정월 초하루를 기점으로 하여 정월 대보름 사이에 날을 정하여 제를 올린다. 또한 정초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제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마을제의가 지닌 계절별 축제적 성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정한 주기로 세시풍속과 함께 마을신에 대한 제의를 올리고 마을





1 서낭당
2 서낭제의 음복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4리 최호식

구성원을 위한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축제·정치·오락·통합 기능을 제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월 초정일(初丁日)에 제를 올리는 양상은 유교적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주(神酒)는 일반적으로 소주나 막걸리를 사서 사용하지만 서낭당 근처에 제주(祭酒)를 담글 쌀과 누룩, 물을 섞어 단지에 넣고 땅을 파서 두었다가 제삿날 꺼내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 신주는 도가나 유사만이 빚게 되며 제의 사흘 전 금색을 치고 빚으며, 제주는 3되 3홉이 일반적이다. 제물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편이다. 대개 세 시루구멍을 막는다고 하는데 세 시루는 성황·토지·여역의 각위 진설로 제물을 차릴 때의 사정이다. 3신위를 모시고 합위진설일 때에는 시루구멍 하나를 막으면 된다. 시루편을 만드는 쌀의 분량도 3되 3홉이 일반적이다.

서낭제의 때 올리는 제물은 유교식 제물과 별반 차이는 없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서낭제의 제물과 유교식 제물과의 차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희생의 경우 서낭제의는 숫소·수탉·수퇘지 등으로 올리는 양상이다. 어촌지역의 서낭신은 여서낭이 많은데 서낭제 때 올리는 희생은 남성을 상징하는 숫소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수탉이나 교미하지 않은 수퇘지를 올리는 양상은 토지신의 여성적 상징 원리에서 암수의 결합, 즉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 지닌 다산적 풍요의례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의 서낭제는 우리의 기층신앙이며 농업과 어업 등의 생산과 직결되어 있는 종교의례이다. 이러한 제의를 통하여 기층의 문화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세계관과 삶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정치적·축제적·예술적 기능을 하며 마을이라는 단위의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과 질서를 구가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서낭제는 그 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등과 부단한 교섭을 거쳐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낭제가 지닌 신앙적·공동체적·기층적 성격은 역사적인 전개와 함께 그 지역 환경의 영향을 받아 꾸준한 전승을 통하여 살아 있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산업 사회로의 전환은 이러한 제의를 위협하여 축소 내지는 전승 중단의 사태까지도 초래하였지만 기층민들의 끈질긴 전승력이 오늘날에도 서낭제를 지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東國文獻備考, 東國輿地勝覽, 星湖僿說, 韓國巫俗의 硏究(崔吉城, 亞細亞文化社, 1978), 韓國民間信仰硏究(金泰坤, 集文堂, 1983), 朝鮮巫俗考(李能和 著·李在崑 옮김, 李能和全集, 東文選, 1991), 江陵의 서낭당(江陵文化院, 1999).

필자 | 김경남(金京南)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西海岸—)

정의 서해안의 옹진·연평도 지방에서 성행했던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제의. 선주(船主)의 개인 뱃굿(개인제의)과 마을굿(공동제의)을 말한다. 현재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배연신굿은 선주의 개인제의이기 때문에 굿의 준비도 선주가 주도하고 비용도 전적으로 선주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굿을 위한 준비인원도 그 배에 따르는 선원들로 한정된다. 재력 있는 선주가 배연신굿을 크게 벌일 때는 적은 마을굿보다 더 성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마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선주단위로 오직 자기 배의 무사고와 풍어만을 기원하기 때문이다. 공동제의로서의 대동굿은 마을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에서 제관을 선정하며, 비용도 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모든 진행 절차가 마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동굿에서는 마을 전체의 평안과 운수를 기원하고 풍어를 기원한다.

배연신 또는 연신이라는 이름의 뱃굿은 옹진·연평도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서해안 아래쪽의 고창과 영광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한때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연신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일반적인 뱃굿도 여러 해안 지방에서 있어 왔던 굿이다. 일반 뱃굿은 정통 굿의례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대부분 선무당 또는 강신자(降神者)라고 하는 명두(점업을 주로 하는 신 내린 자)류가 벌이는 치성형태의 것이거나 굿을 한다 하여도 정통의 굿의례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한두 거리의 굿 형

식으로 끝낸다. 그런데 배연신굿은 큰 굿으로 굿의 기본적인 틀과 격식을 갖춘 점에서 일반 뱃굿과 차이를 갖는다. 또한 뱃굿은 단순한 신앙적 행사로, 무당과 선주는 서로 이에 만족하지만 배연신굿은 선주의 개인굿이면서도 마을굿과 같은 정통굿으로서의 격식을 갖추어 악사가 수반되고 가무에 따르는 예술성과 놀이판을 이루는 연희성 등을 지닌다.

배연신굿을 할 때에는 굿을 하기 2, 3일 전부터 사제무와 선주가 굿 준비에 들어간다. 사제무는 먼저 배에 장식할 서리화와 봉죽을 제작하고 의식구를 챙겨 놓는다. 선주도 바닷물에 목욕을 하고 배에서 잠을 자며 금기한다. 선주 집에는 문밖에 장군기를 달고 대문과 집 추녀 양쪽에 청솔가지를 꽂는다. 배연신굿을 하는 날 배에서는 갑판에 굿청을 만들어 안쪽에 '마지(무신도)'를 걸고 제물을 차린다. 그리고 호서낭기와 임경업장군기, 뱃기 등을 세우고 서리화 봉죽도 세워서 배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마지는 사제무가 가지고 다니는 신령들로, 당에서 모셔온 마을신과 함께 모시고 굿을 행한다. 배에서는 먼저 짚을 둥그렇게 만든 부산에 음식을 조금씩 넣고 불을 붙여 바다에 던져 보내는데 굿거리의 순서는 부정물림과 부산띄우기, 신청울림, 당맞이(또는 상산맞이), 부정거리, 초부정 · 초감흥거리, 영정물림거리, 소당제석거리, 먼산장군거리, 대감놀이거리, 영산할아뱜 · 할먐거리, 쑹거주는거리, 다리발용신거리, 강변굿순으로 한다. 배연신굿은 선주의 뱃굿이면서도 마을의 당에 마을신을 맞이해서 모셔놓는 것이 특징이다.

대동굿은 서해안의 해주 · 옹진 지방에서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굿의 하나이다. 현재는 황해도 연백에서 남하한 김금화(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에 의해 인천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동굿류의 풍어제는 서해안 일대의 한 유형을 이루면서 여러 곳에서 거행되고 있다. 대동굿의 명칭은 지방에 따라 대동제로도 불리고 곶창굿 · 원당굿 등 그 마을만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동굿은 산의 당굿과 마을 안의 세경굿, 그리고 바닷가의 강변용신굿 등으로 연행공간이 세 곳으로 나뉘면서 마을 전체가 굿 공간이 된다. 그리고 내용도 각기 연행 공간에 맞는 특성을 지닌다. 대동굿의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타산갈음거리)
문화재청

준비 과정을 보면,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마을 유지와 선주들이 상의하여 좋은 날로 대동굿날을 받고 제관과 소염(제의를 준비하는 담당자)들을 선정한다. 소염들은 업무를 분담하는데, 일부 심부름을 맡거나 무당에게 연락업무를 맡기도 한다.

굿을 맡을 사제무는 마을과 연고권을 지닌 무당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주들이 친분 있는 무당을 데려오려고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제비뽑기 형식을 취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뽑힌 무당을 '경관만신(주무격으로 큰 만신)'이라 한다.

경관만신으로 뽑힌 무당은 일행들과 함께 굿 전날 마을에 도착하여 몸을 정갈하게 하고 자정이 지나 도가집으로 들어간다. 도가집에서 금기하며 대기하던 제관과 소염들은 자정 무렵에 당에 올라가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고축과 헌배를 하고 나서 무당을 부른다. 사제무는 평복으로 올라와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여 인사만 드리고 내려온다.

굿당은 바닷가에서 가까운 마을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맞배지붕 또는 팔작지붕의 기와집으로 당숲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에서는 대체로 산신님(또는 서낭님) · 부군님 · 장군님(혹은 임경업장군님) 등을 모시고 있으며, 무당이 모시고 다니는 신령과 청배신을 모시고 굿을 한다. 당에 꾸며진 굿청에서는 신청울림과 상

산맞이를 한 후에 마을의 가가호호를 돌며 세경굿을 하는데 굿거리 순서는 신청울림, 상산맞이, 세경굿, 부정거리, 감흥거리, 초영정물림거리, 복잔내림, 제석거리, 소대감놀이거리, 사냥거리, 성수거리, 타살거리, 군웅거리, 먼산장군거리, 대감놀이거리, 뱃기내림, 조상거리, 서낭목신거리, 영산할아뱜·할먐거리, 뱅인영감거리, 벌대동거리, 강변용신거리 순으로 진행한다.

서해안배연신굿과 대동굿은 세습무에 의해 사제되는 아래쪽의 마을굿과는 달리 신이 내린 강신무(降神巫)에 의해 사제되며, 화려한 복식과 춤이 다채롭고, 사제무 접신현상의 신비함과 익살스러움의 연행이 복합된 굿이다. 무악기는 장구·징·제금·피리·호적(때로는 해금도 사용) 등으로 배연신굿과 대동굿에서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 악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구이다. 장구는 모든 굿거리 진행에 계속 사용되며, 사제무는 장구잽이와 호흡이 잘 맞아야 굿을 잘 할 수 있다.

의의 대동굿은 마을 전체가 연행 장소가 되고 있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며 내용 중에 길지받기, 뱃기세우기와 제숙경쟁 그리고 띠배보내기는 제의의 신앙적 성격과 축제적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蝟島의 民俗(국립민속박물관, 1984), 韓國 西海岸一帶의 海岸信仰(河孝吉,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硏究, 國立全州博物館, 1998),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하효길, 화산문화, 2002).

필자 | 하효길(河孝吉)

서해안풍어제(西海岸豊漁祭)

☞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西海岸—)

성주고사(城主告祀)

정의 음력 정월 또는 상달인 10월 중 오일(午日)이나 길일을 택하여 집안을 지키는 신인 성주신(城主神)에게 집안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한편, 햇곡으로 만든 술과 시루떡(고사떡), 과일 등으로 제의를 행하면서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의 수확을 감사하는 의례. 집고사·안택고사·가을고사·상달고사·도신(禱神)·도신제라고도 하는데 가신제(家神祭)이며 천신(薦新)의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성주단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황현만

유래 성주는 성주(城主, 星主)·성조(成造)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집안을 지키는 신을 왜 성주라 부르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후한서(後漢書)』 및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는 "고구려에서 10월에 제천(祭天) 행사를 했는데, 이를 동맹(東盟)이라 하였다."라 하고, 또한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어 수신[隧神(후한서), 隧神(삼국지)]이라 했는데, 역시 시월에 이를 맞이하여 제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면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10월에 추수감사제를 행했다 할 수 있는데, 성주고사도 천신의례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천행사와 뿌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자는 국가적·공동체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천신의례이고, 성주고사는 가정적·개인적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육지에서 행해지는 10월 상달의 산신제나 당제, 제주도의 시만국대제는 전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10월 월내에 "집집마다 무당을 데려다 성조신(成造神)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베풀어 놓고 빌어 집안의 편안함을 바란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10월 오일(午日)은 말날이라 하여 팥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외양간에 갖다 놓고 신에게 기도하여 말의 건강을 비는데, 병오일(丙午日)은 '병(丙)'과 '병(病)'이 음이 같아 말의 병을 꺼려하지 않고, 이런 까닭에 무오일(戊午日)이 가장 좋다."고 한다. 말날과 관련된 이상의 내용은 『경도잡지(京都雜志)』에도 실려 있다.

내용 말날인 오일(午日), 혹은 생기복덕일인 길일(吉日)을 택해 하는 것이 보통이며 돼지날 행하는 곳도 있으나 늦어도 10월 보름 전까지는 끝낸다. 고사일을 잡으면 대문 앞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쳐 놓는다. 쌀가루와 미리 익힌 붉은 (통)팥을 켜켜로 넣고 시루떡을 쪄서 성주신·조상신·터주신과 같은 신들 앞에 놓는다. 그리고 집안의 안주인인 주부가 소지를 올리면서 간단한 비념 형태로 손을 비비고 마음 속으로 가족의 무병·장수·다남·행운·집안의 평안 등을 축원한 후, 떡을 나누어서 조왕, 사랑방, 장광, 나락, 외양간, 뒷간, 대문 앞에 놓는다. 고사가 끝난 후에는 이웃 및 친지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이렇게 하면 집안이 무고하고 이듬해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성주고사는 안주

인인 주부에 의해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할 때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성주굿 · 성주받이굿 혹은 안택굿이라 한다. 10월 상달의 성주굿이나 집을 새로 지어 들어갈 때 행하는 성주굿에서 불리는 성주풀이는 무가(巫歌)의 주축을 이루는데 민요 성주풀이는 여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안택굿을 할 때 법사, 즉 경쟁이[讀經者]를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안택경 같은 무경(巫經)이 구송된다.

성주고사는 각 개인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례인 만큼 집마다 의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집에서는 제물을 시루떡과 술, 청수만을 놓고 행하는가 하면, 어떤 집에서는 시루떡, 술, 나물, 과일 등 많은 제물을 차려 놓기도 한다. 소지를 올리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집도 있다. 또 붉은 팥떡 시루만을 사용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팥시루를 그리고 일부는 백설기를 사용하는 집도 있으며, 고사떡 위에 북어나 실타래를 꽂거나 얹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다. 또한 통돼지를 잡아 굿을 하는 집도 있다. 신체(神體)만 해도 성주신만 위하는 집이 있고, 성주 · 조상 · 터주신 등을 위한 집도 있다. 성주 · 조상 · 터주신을 모실 때는 제물로 떡을 세 시루 준비하여 순서대로 고사를 지낸 후 조왕 · 장광 · 뒷간 · 외양간 · 대문 · 샘 등에 떡을 떼어놓고 집안 곳곳을 위하는데, 경상도 등에서는 시준단지 · 용단지 등도 위한다. 성주고사는 그야말로 가가례(家家禮)라 할 수 있어 그 특징을 일별하여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붉은 팥을 얹은 시루떡을 사용하는 것만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붉은 색이 양기를 상징하고 잡귀를 예방하는 상서로운 색이기 때문이다.

성주고사 떡을 '가을떡' 혹은 '가을시루'라 하는 곳도 있으며, 고사가 끝난 후 이웃이나 친지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10월을 '떡달'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성주고사는 지역에 따라 가장(家長)인 남자가 행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함께 행하는 곳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안주인인 주부가 행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10월의 의례 중 산신제(山神祭)나 시제(時祭)가 주로 집밖에서 남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데 반해 성주고사는 집안에서 여성에 의해 행해지는 특징이 있다. 성주의 신체는 쌀이나 벼를 담은 항아리형과 백지를 접어 그 안에 대추나무 · 소나무 · 뽕나무 등의 가지 중 하나를 끼워 넣고 실로 묶어 대들보에 붙여 놓은 형태가 있다. 10월 첫 수확을 하면 날을 잡아 성주신 · 삼신 · 조상신 · 터주신 등의 단지에 있는 묵은 쌀이나 벼를 꺼내고 새것으로 천신을 하는데, 찐쌀을 넣는 곳도 있다. 묵은 쌀이나 벼는 밥이나 떡을 하여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다. 백지형 성주는 무당을 불러 성주굿을 할 때 새로 만들어 붙이는 곳이 많다. 성주고사는 거의 해마다 하지만, 성주굿 혹은 안택굿을 하는 경우는 3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다. 성주고사는 중부 · 이북지방에서 고사 · 안택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영호남 지방에서는 주로 도신 혹은 도신제라 한다. 성주고사는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행하는 집이 아주 많았으나 최근에는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1


2


3

1 성주고사
충남 부여군 서헌강

2 성주고사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황헌만

3 성주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황헌만

지역사례 성주굿은 옛날 단군(檀君)이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집을 짓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 백성들이 그 근본을 잊지 않고 단군이 내려온 달에 굿으로써 그 공을 보답하는 것이라는 속설이 있다. 함경도에서는 성주제와 비슷한 성격의 제의인 단군제를 11월 3일에 지내는데, 이를 '향산제(香山祭)'라 한다.

제주도에서는 음력 10월에 시만국대제 혹은 신만곡대제(新萬穀大祭)라는 굿을 했는데, 햇곡으로 마련한 술과 떡, 그리고 고기와 과일 등을 준비하여 본향당 당신에게 수확에 대한 감사 및 집안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가신(家神)이 아니라 당신(堂神)에 대한 제의라는 점에서 성주고사와는 구별되지만, 천신의례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육지에서는 안택고사가 정초에서 정월 대보름 무렵, 그리고 10월 상달에 걸쳐 두 번 행해지는 곳이 많은데 이를 구별하여 정월고사, 성주고사(혹은 가을고사)라 하기도 하며, 정월 고사떡은 정월떡, 시월의 성주고사떡은 가을떡이라 하기도 한다. 정초의 안택은 연초의 액막이와 행운기원성이 강하고 시월의 성주고사는 추수감사성이 강하다. 제주도에서는 정월 대보름 무렵에 육지의 성주신과 같은 성격을 갖는 문전신에 대한 제의가 있는데 이를 문전고사 혹은 문전제(門前祭)라 하며, 가을에는 마소를 키우는 집의 경우 시월 상사일(上巳日)에 마소의 귀에 인식표를 하는 귀표ㅋ사(방등ㅋ사)를 하기도 한다. 이 때는 먼저 새 곡식으로 돌래떡을 만들어 제를 지낸다.

관련속신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서는 "무오일(戊午日)에 고사를 지내면 굿보다 낫다."는 말이 전한다. 충남 공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루떡을 찔 때 켜를 짝수로 하지 않고 홀수로 하고 있으며, 떡을 설지 않고 잘 익게 하기 위한 '뱅이'로 시루에 쌀가루와 팥을 켜켜로 담은 후 맨 위에 소금이나 청수를 접시에 얹어서 올리고, 떡을 찔 때는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 떡을 찔 때 집안에 임산부가 있으면 쌀가루를 물에 개어 둥글게 조롱박 모양으로 만들어서 시루 안에 넣는 곳도 있다. 임산부가 부엌에 들어오면 떡이 접이 붙어 선다고 믿어 임산부는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잘못해 임산부가 떡을 찌는 부엌에 들어가면 부정을 막기 위해 불을 한 번 지피게 하고, 절도 한 번 하도록 한다. 떡을 찔 때는 경우에 따라 시루 위에 백지를 한 장 깔고 그 위에 쌀가루를 한 대접 부어 떡을 쪄내는데, 이것은 특별히 '손님떡'이라고 하여 남의 집 식구에게는 주지 않고 식구들끼리만 나누어 먹기도 한다. 고사떡에 대해서는 "조왕에 놓고 터주에 놓고 나면 나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속담도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三國志, 後漢書, 濟州道民俗: 歲時風俗(진성기, 濟州民俗硏究所, 1969), 韓國民俗大觀 4 -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이수자(李秀子)

성황제(城隍祭)

⇨ 서낭제(一祭)

솟대제(一祭)

정의 솟대를 마을수호신으로 신앙하여 매년 1회나 2회 또는 몇 년에 1회씩 주민들이 지내는 마을공동제의. 솟대는 지역에 따라 오릿대 · 짐대 · 진대 · 솔대 · 소줏대 · 수살간 · 당산 등으로 불리기 때문에 달리 짐대제 · 진대제 · 수살제 · 당산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솟대제는 주민들의 기원을 담은 신앙표현으로서, 지역에 따라 산신제 · 서낭제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치러지고 있다.

유래 솟대란 위로 돌출한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 '솟다'에서 형용형인 '솟은' 또는 '솟을'에 길고 곧은 물체를 뜻하는 '대'가 합쳐 나온 말로 풀이된다. 솟대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농경문청동기에 보이는 조간(鳥竿)과, 일본 야요이(彌生)시대 유적지에서 밑에 구멍이 뚫린 조형 목제품(鳥形木製品)이 출토된 사례를 통해, 조간이 청동기시대에 이미 제의의 대상물로 신성시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마한의 소도(蘇塗)에 대해서는 소도가 곧 솟대를 가리킨다는 설과 신성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설이 있어 소도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견(異見)이 있다. 이후 솟대의 역사적 전승 사례를 보이는 문헌 자료나 실물 사례는 전하고 있지 않다. 고려조의 '청산별곡(靑山別曲)'과 나옹



줄을 감은 솟대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황현만





〈솟대제〉
1 솟대만들기
2 솟대제
3 독축
전남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황현만

화상(懶翁和尙)의 '서왕가(西往歌)'에 솟대의 별칭인 짐대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치 않다.

한편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걸쳐 지리적 결함을 인위적인 시설물로 보완하고자 하는 풍수비보의 관념이 성행함에 따라 간목(竿木)·간주(竿柱) 등이 이러한 용도로 세워지게 되었다. 즉, 행주형(行舟形) 지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돛대의 의미로 비보용 간목을 세운 것이 그러한 사례로서 사찰의 당간지주(幢竿支柱)나 솟대를 돛대로 인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가령, 전남 나주의 철제당간이나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의 당간지주를 현지에서는 모두 짐대라 부르며 행주형 지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돛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 고창의 속칭 오거리 당산의 석간도 명문(銘文) 내용에서 보듯, 처음부터 허한 방위를 비보할 목적으로 세운 것임이 분명하다.

지역사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자1동의 오릿대는 마을이 행주형에 해당하므로 돛대의 용도로 세운 것이다. 한편 화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솟대를 세운 현지 사례도 확인되는데, 가령 전북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의 솟대가 그런 예이다. 이 마을은 솟대가 위치한 곳에서 동쪽으로 정면에 보이는 산이 이른바 불을 일으키는 '화산(火山)'이라 하는데, 이 때문인지 마을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다고 전하여 온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논한 결과 화재 방지물로 솟대를 세우자 그 뒤부터는 화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솟대의 새가 물새인 오리이기 때문에 물로써 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여긴 인식의 결과이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의 솟대제는 짐대제 또는 신간제(神竿祭)라 하여 마을의 주신(主神)을 위하는 산신제와 함께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지낸다. 제의는 모두 마을의 무사태평과 풍농을 기원할 목적을 지닌다. 전북 부안 서문안과 동문안 당산제는 각각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저녁과 보름 아침에 주민의 안녕 및 우환과 질병 방지를 위해 석조간(솟대하나씨 또는 당산하나씨)과 석장승을 대상 신격으로 지내오고 있다. 특히 서문안 당산제는 부정을 금기시하여 제일(祭日) 외에는 개인적인 비손조차 금할 정도이며 제일 전이나 당일, 주민 중 출산이 있게 되면 제일을 다음 달로 연기하고, 만약 초상을 치르고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도 그 앞을 지나지 못하며 상여도 당산 앞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동문안 당산제는 제일 아침 주민이 모여 새끼로 줄을 꼰 다음 남녀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 후, 이 줄을 당산에 감아 놓는다. 이를 '당산 옷입힌다.'고 하며, 이때 감아 올린 뒤 남는 부분이 많으면 그 해 풍년이 들고, 짧으면 흉년이 든다고 전해진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진행되며, 제를 마치고 제물을 조금씩 떼어 석장승 밑에 놓아 둔다.

참고문헌 | 蘇塗考(孫晉泰, 民俗學論攷, 民學社, 1975), 韓國의 鄕土信仰(張籌根 著, 乙酉文化史, 1975), 장승과 솟대의 考古民俗學的 接近 試考(李鐘哲, 尹武炳博士 回甲記念論叢, 通川文化社, 1984), 솟대信仰에 關한 硏究(朴昊遠, 韓國精神文化硏究員 碩士學位論文, 1986), 한국 솟대신앙의 연구(이필영,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필자 | 박호원(朴昊遠)

송당리마을제(松堂里一祭)

정의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올리는 본향당굿. 1986년 4월 10일 제주도 시도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송당리의 본향당에 모셔진 당신(堂神)은 여신(女神)으로서 강

남천자국에서 왔다는 '벡주또마누라'이다. 본풀이를 보면, 한라산에서 솟아난 토착신 '소로소천국'은 수렵·목축신이며, 서울 남산 송악산에서 태어나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제주도에 입도한 외래신 '금벡주'는 산육·농경의 신이다. 이 두 신이 결혼하여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을 낳고, 자손들이 뻗어 제주도 전 지역 368개 마을의 당신이 되어 좌정하였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송당리는 '당신앙의 뿌리'가 되는 성소(聖所)이자, 신앙의 중심지인 셈이다.

당신화 강남천자국에서 태어난 벡주또마누라는 천기(天機)에 따라 제주도 송당으로 찾아와 소천국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부부는 아들 다섯 형제를 낳고 여섯째를 포태한 상태였다. 부인은 놀고 있는 남편에게 농사짓기를 권한다. 남편은 대식가(大食家)여서 국도 아홉 동이, 밥도 아홉 동이를 먹곤 했다. 어느 날에도 밭을 갈러 가는 남편이 대식가임을 안 벡주또마누라는 밥과 국 열여덟 동이를 밭에 지고 가서 놓아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소천국은 열심히 밭을 가는데, 마침 태산절 중이 지나가다가 점심을 얻어 먹었으면 하였다. 얼마나 먹겠는가 여기면서 쇠길마가지에 덮어 둔 점심을 먹도록 허락했는데, 뜻밖에도 그 중은 밥과 국 열여덟 동이를 모두 먹고 도망친다. 소천국이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 밥이 전혀 없자 밭을 갈던 소를 잡아 먹었지만, 그것도 모자라 남의 소까지 잡아먹고 만다. 벡주또마누라가 점심 그릇을 가지러 와서 보니 남편이 배때기로 밭을 갈고 있지 않은가. 소천국이 부인에게 사실을 고백하자, 부인은 노발대발하며 소도둑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혼한다.



송당리마을제 진설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장주근

소천국은 정동칼젯 딸을 소첩으로 삼아서 사냥질을 하면서 산다. 벡주또마누라는 아들을 또 낳는다. 아들이 너무나도 버릇이 없자 아버지는 아들을 석갑에 담아 동해바다로 띄워버린다. 그 아들은 용왕국(龍王國)에 가서 엄청난 세변(世變)을 평정한다. 그곳에서 하사하겠다는 큰 벼슬을 모두 뿌리치고 송당으로 돌아온다. 세 살 적에 죽으라고 석갑에 담아 바다에 띄워버린 아들이 천지가 진동하는 총소리와 함께 되돌아오자, 그 부모는 몹시 겁이 나 도망가다가 죽어서 어머니는 웃손당 당오름의 당신이 되고, 아버지는 알손당 고부니마을 당신이 된다. 여섯째 아들은 구좌읍(舊左邑) 김녕리(金寧里)의 궤내깃당을 차지하고 당신이 된다. 좌정할 당시의 소원에 따라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궤내깃당 당제를 치를 때에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올리는 게 특색이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제주도 내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각각 좌정하고 당신이 된다. 송당리는 본풀이에 따르건대, 이 마을의 본향당 당신인 벡주또마누라가 제주도 내 여러 마을에 당신으로 좌정해 있는 무신들의 조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송당리 당본풀이에서는 토착신이 외지에서 들어온 농경신 금벡주와 결혼하여 살림을 하고 아들딸들을 낳아 마을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신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신화들은 첫째, 중산간 마을의 반농·반목축(半農半牧畜), 산간 마을의 반농·반수렵(半農半狩獵)의 경제 활동을 반영한다. 둘째, 수렵 이동생활에서 농경 정착생활로 변모해 가는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사, 제주도 민중의 황폐한 삶, 생활의 이중고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송당리 당본풀이는 설촌(設村)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한 사회를 문화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지배계층의 문화양식이 아니라 지배이념에 표면적으로 순응해 나가면서 내면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불편함에서 그 극복을 소망하며 살아 왔던 신앙민의 의식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한 시대와 사회의 내면에 자리잡힌 삶의 양식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내용 당오름에 모신 여신 벡주또마누라를 신앙 대상으로 삼는 송당리 마을제는 음력 정월 13일의 신

과세제, 음력 2월 13일의 영등굿, 음력 7월 13일의 마불림제, 음력 10월 13일의 시만곡대제로, 일년에 네 번 정기적인 제의를 지낸다. 그 밖에도 필요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부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빌곤 하는데, 이는 여느 마을과 같다. 해마다 네 차례 치르는 정기적 제의 속에 음력 2월 13일에 영등굿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영등굿은 잘 알려졌다시피 바닷가 마을에서 어부나 해녀들이 해산물이 풍요롭게 생산되고 고기잡이나 물질의 안전을 기원하는 굿으로만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등굿이 농사가 잘되고 풍년이 들기를 빌기 위해서도 치러지고 있다. 물론 해안마을의 경우와는 달리 소규모로 치러진다.

송당마을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네 가지의 제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굿으로는 음력 정월 13일에 열리는 신과세제이다. 그 해 마을이 무사태평하고 농사를 비롯한 생업이 풍요롭기를 본향당에 모여서 빈다. 제물은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준비하여 오고, 매인심방은 제의를 준비한다. 매인심방이란 단골무당을 뜻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굿이 치러진다. 그 제차(祭次)는 다음과 같다. ① 궷문열림: 마을 사람들이 받들어 제향을 치를 수 있도록 신문(神門)을 열어 주시라는 제차. ② 초감제: 굿하는 장소와 시간을 고하고, 굿하는 연유와 참여한 마을 사람들의 명단을 알리는 제차. ③ 군문열림: 신궁문(神宮門)을 여는 제차. 심방은 신명나는 도랑춤을 추며 무점(巫占)으로써 개문(開門) 여부를 확인한다. 이 제차에서 본풀이도 구송된다. ④ 새도림: 신이 내려오는 길이 깨끗하도록 사기를 쫓아서 정화시키는 제차. ⑤ 신청궤: 옥황상제와 본향신을 청해 들이는 제차. 무악에 맞춰 감상기와 요령을 흔들다가 쌀을 뿌리기도 하면서 청신(請神)한다. 수심방의 사설 템포가 매우 빨라지고 당굿의 분위기가 극렬해진다. ⑥ 풍니놀이: 맞아들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심방과 신앙민들이 신명난 춤과 더불어 노래하는 제차. "니나난니난니나 니나난니난니나 니나난니 난니나"로 시작되는 이 노래와 춤은 신인공동(神人共同)의 즐김으로 관념된다. ⑦ 도산받음: 마을 전반의 운수를 무점(巫占)으로 알아 보는 제차. 신앙민 전체의 소지(燒紙)를 사르고 천문(天門)을 던짐으로써 신의(神意)를 파악하고 신앙민들에게 알린다. ⑧ 자손들 각산받음: 신앙민 각자의 일년간 신수를 계절별로 점쳐 보는 제차. ⑨ 액막음: 그 해, 마을의 액운을 막고 행운을 비는 제차. 이 때 심방은 소만이 본풀이를 구송한다. 소만이란 사람이 차사(差使)를 잘 접대하여 장수했다는 데 근거한다. ⑩ 도진: 청해 들인 신들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제차로 행해진다.

의의 산간 마을인 송당리(松堂里)는 그 본향당 당신이 제주도 여러 마을에 분산, 좌정해 있는 당신들의 시조(始祖)라는 점에서 민간신앙적 가치가 두드러진다.

참고문헌 | 濟州道民俗: 歲時風俗(진성기, 濟州民俗硏究所, 1969),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濟州島 堂信仰 硏究(文武秉, 濟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濟州의 民俗 Ⅴ -民間信仰 · 社會構造-(濟州文化資料叢書5, 濟州道, 1997),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문무병(文武秉)

순천구산용수제(順天龜山龍水祭)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공동제의. 물보기굿 · 물보기 용수제(龍水祭) · 화신제(火神祭)라고도 부른다. 마을의 화재를 막고 주민들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지내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 시도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용수제는 400년 이상 구전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구산리가 설촌(設村)된 이후 화재가 자주 발생했는데 이는 동남방에 위치한 오성산이 화(火)에 해당되고 주민들의 주 성씨인 조(趙)씨가 목(木)에 해당하여 둘이 상극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행상(五行上)으로 보면 목생화(木生火)의 국면이라 늘 화재가 끊이지 않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마을 원로 몇 사람이 신령의 계시를 받아 수성(水性)인 오리를 짐대로 삼아 마을 남쪽에 세우고, 마을 뒤 천룡(天龍) 북방 정맥에 옹기를 묻어 물을 채워 두고 용수제를 지냄으로써 화기(火氣)를 제압할 수 있었다.

내용 용수제를 지내는 장소는 마을 중앙에 위치한 노인회관의 오른쪽에 있다. 예전에는 사방 3미터 정도의 정사각형 둔덕이었으나, 용수제가 전라남

도 시도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면서 둔덕 주위에 전통양식으로 문과 담을 만들고 오른쪽에는 '용수탑(龍水塔)' 이란 표지석을 세워 놓았다. 용수제의 준비는 제를 모시기 일주일 전쯤부터 제관들의 금기와 더불어 시작된다. 제관은 정초에 개최되는 마을회의에서 정하며, 축관 1명 · 헌관 1명 · 집례 1명을 포함해 5~6명 정도를 선출한다. 제관은 해마다 새로 선출하지 않고 한 번 맡은 사람이 계속 맡아 하는데, 초상을 당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결원을 보충한다. 제관들은 2~3일 정도 금기를 하는데, 궂은 곳의 출입을 피하며 개고기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가다듬는다.

제비는 마을기금에서 충당한다. 제수는 제관 3~4명이 인근 광천장에 가서 구입해 온다. 제수는 삼실과, 돼지머리, 포, 나물 등이다. 제수 장만은 마을 부녀회에서 맡아 노인회관에서 준비한다. 술은 막걸리를 사용하고 메와 탕은 올리지 않는다. 제기는 목기(木器)로, 한번 사용한 것을 잘 간수했다가 해마다 계속해서 사용한다.

금줄은 열나흗날 달집을 만들 때 매달고, 이 날 물독을 묻은 곳과 짐대 부근을 청소한다. 이곳에도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아둔다. 제사는 대보름날 오후 5시 무렵에 지내며, 제관들은 도포를 착용하고 유건(儒巾)을 쓴다. 과거에는 여자와 마을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민 전체가 나와서 참관한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매구를 치고 제물을 진설한 후 땅을 파고 물독 뚜껑을 열어 물의 양을 본다. 이 때 물이 많이 줄었으면 가뭄이 들 징조라고 하며, 조금 줄었으면 금년에 물이 풍부해 풍년이 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물독의 물이 줄었으면 근처 '쇳골샘' 에서 물을 떠다 모자란 양만큼 독을 채운다. 이어 '물보기 홀(笏)' 이라고 적힌 유교식의 홀기에 맞춰 제를 지낸다. 강신(降神), 참신(參神), 헌작(獻爵), 독축(讀祝), 사신(辭神)의 순서로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 후 둔덕 한쪽 귀퉁이를 파서 헌식을 한다. 헌작할 때는 단작(單酌)을 올리며 축문만 사르고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물을 담은 옹기 앞에서 제를 지낸 후, 물독을 원상태로 묻고 한바탕 논 다음 짐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짐대 아래에 진설을 하고 물독에서와 비슷한 순서로 제를 지낸다. 짐대는 솟대의 현지 명칭으로서, 6미터 정도의 장대 위에 오리 모양의 형상 하나를 앉혀 동쪽을 향해 세워 놓았다. 그 이유는 화국(火局)인 동쪽의 불기운을 막기 위함이다. 짐대는 3년 주기로 세운다.

이어 달집태우기를 하고 주민들이 어울려 매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밤늦도록 논다. 달집은 하루 전날인 14일 청년들 주도로 만든다. 달집을 세우는 장소는 마을 앞 냇가다. 달집의 제작 방법은 뼈대로 키 큰 대나무 5~6개를 먼저 세우고 사이에 대나무 · 솔가지 · 짚 등을 채워 넣어 완성하는 것이다. 달집의 형태는 원추형이며, 높이는 지붕 정도인데 둘레는 10여 명이 팔을 벌려야 두를 수 있을 정도다. 달집 끝에는 겨우내 날리던 연을 매단다. 달이 떠오르면 밑둥에 불을 붙이고, 달집이 타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달집 주위를 돌며 매구를 치고 춤을 추며 논다. 도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달집이 쓰러지는 방향을 두고 운수를 점치는 속신이 있는데, "마을 쪽으로 넘어오면 해롭다." 고 한다. 그래서 마을 바깥으로 넘어가도록 신경을 쓴다.

의의 구산용수제는 오행의 원리와 물의 주술력이 응용된 동제이고, 달집태우기와 매구 등이 어울려 축제로 연행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의 입지 및 마을의 재난을 오행과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 마을 남쪽의 화산(火山)과 주요 성씨인 조씨가 목생화(木生火)에 해당하므로 화재와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아 그것에 대한 문화적 장치로 용수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수성(水性)의 의미를 지닌 오리 짐대를 세우고, 물독을 묻어 용수제를 지냄으로써 화기를 누르고 마을의 평안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오행의 원리와 그에 따른 상징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용수제를 지낸 후에는 주민들이 함께 달집태우기를 하며 풍년들기를 빌고 마을의 평안을 축원한다. 이어 매구를 치며 밤늦도록 놀며 이튿날부터 마당밟이를 한다. 제의와 놀이가 결합된 축제식의 구조를 지닌 공동체신앙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구산용수제는 1994년 제22회 남도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995년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민속놀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참고문헌 | 文化財圖錄 -文化財資料 篇-(전라남도, 1998), 順天市의 文化遺蹟 II(順天大學校博物館 · 順天市, 2000),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경엽(李京燁)

신과세제(新過歲祭)

정의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행해지는 신년제(新年祭). 겨울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계절제의(季節祭儀)이면서 동시에 본향당신에게 신년하례(新年賀禮)를 드리는 굿이다. 신과세(新過歲) · 과세(過歲) · 과세문안(過歲問安) 등으로 불린다.

내용 제주도에는 대한(大寒)과 입춘(立春) 사이에 신구간(新舊間)이 있다. 새해가 되면 신들의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신구간은 신구관(新舊官)이 갈리고,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재편성되는 기간이다. 새해가 되면 산 사람에게 세배를 하듯이 신들에게도 지난해의 감사와 새해의 행운을 빌기 위하여 제물을 차리고 굿을 한다. 신과세제의 제일(祭日)은 대개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있으며 마을마다 차이가 있다.

제의 준비는 마을 여성들이 맡지만 남성들이 제관(祭官), 즉 삼헌관(三獻官)을 선출하고 제의를 관리하는 마을도 있다. 제의 경비(經費)는 마을의 기금이나 각 가호에서 쌀이나 돈을 수렴하여 충당한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제상[都祭床]의 제물을 차리고 심방의 보수를 준다.

제일 아침에는 주로 여성이 각자의 집에서 준비한 제물을 구덕에 지고 와서 당 안의 제단에 옹기종기 벌여 놓는다. 집안의 액을 막으려면 액막이 상을 따로 준비하고, 액막이의 희생으로 쓸 수탉 한 마리를 별도로 마련해 온다. 당굿은 당을 맨 매인심방을 수심방으로 하여, 보통 심방 4~5인이 참여하여 제의를 진행한다. 제의의 내용은 마을의 안녕, 생업의 풍요(豊饒) 등을 기원하고, 또 참가한 각 호별로 가내 안전과 생업의 번창을 비는 것이 주가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제의로서 다른 당굿보다 참가자가 많다. 제차(祭次)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초감제: 신을 청해 들이는 과정.
② 예명올림: 신에게 참사(參祀)한 마을 주민의 성과 연령을 고하고 축원하는 과정.
③ 본향다리: 본향신을 청해 들이는 과정.
④ 삼헌관 배례: 동네 유지인 삼헌관이 배례하고 소지를 사르고 축원하는 과정.
⑤ 삼천군병 사귐: 신의 군졸 및 잡신들을 대접하여 사귀는 과정.
⑥ 마을 도액(度厄): 당 소속 차사에게 마을의 액을 막는 과정.
⑦ 자손들 괴뭇음: 마을 각 가호별로 축원을 해주고 신의(神意)를 점쳐 보는 과정.
⑧ 도진: 송신 과정.

지역사례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의 경우에는 마을에 당이 두 개 있는데, 지방털 할망당과 서코지 할망당이다. 마을의 수호여신을 모신 당을 할망당이라 하며 여인들만 다닌다. 당의 제일은 정월 초이렛날





1 신과세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권태효

2 신과세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권태효

3 신과세제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장주근

이며, 이 날 당에 갈 때는 메 다섯 그릇 · 생선 · 과일 · 떡 · 술 등을 준비해 간다. 신에게 집집마다 세배를 드리는 의례이므로 신년과세제라 한다. 신에게 세배하고 집안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무속적인 비나리이다.

북제주군 우도면 서천진동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당에 가서 과세문안을 한다. 이를 '신과세제'라 하는데, 이 굿은 앉은제로 간단하게 지내는 마을의 본향당제이다. 이 때 배를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당에 닭을 가지고 가서 액막이를 하며, 별도로 뱃고사를 지낸다. 하우목동에서는 정월 14일에 신과세제를 지내며, 배를 부리는 사람은 액막이를 한다.

의의 신과세제는 새해를 맞이하여 농사의 풍등을 기원하는 계절제의이면서 동시에 본향당신에게 신년하례를 드리는 굿으로, 본향당신에게 올리는 당굿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濟州道民俗: 歲時風俗(진성기, 濟州民俗硏究所, 1969), 濟州의 民俗 Ⅴ -民間信仰 · 社會構造-(濟州文化資料叢書5, 濟州道, 1997),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문무병(文武秉)

안택(安宅)

정의 독경(讀經)을 하는 법사(法師)가 가정의 여러 신령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집안의 평안을 빌기 위하여 행하는 앉은굿. 지역에 따라서 안택은 무고안택 · 재수굿 · 행운굿 · 성주안택 · 멩감코사[告祀] · 문전고사 · 더컹하기 · 경(經)읽기 · 맥이(막이) 등으로도 불린다.

내용 안택(安宅)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일련의 종교적 의례를 일컫는다. 이는 흔히 굿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안택굿이라고도 한다. 무고안택은 집안의 무사안일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강조된 용어이며, 성주안택은 집안 신령의 대표격인 성주를 안정시키는 굿이라는 뜻이다. 더컹하기는 법사가 북을 "더컹더컹" 치는 것을 표현한 용어이다. 맥이는 집안의 액을 막기 위해 행하는 굿을 강조하는 말이다. 멩감코사 · 문전고사는 제주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문 앞에서 행하는 문전고사에서부터 안택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



안택(조왕굿)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안택은 베풀어지는 상황에 따라 안택과 무고안택으로 대별된다. 무고안택은 무탈한 가정에서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의례라는 뜻이 강조된 용어이다. 안택은 집안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다양한 의례를 포함한다. 무고안택이 여유가 있거나 신앙심이 강한 가정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데 반해, 편안한데 굿을 할 만한 여력을 지니지 못한 여느 가정에서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행하는 굿을 안택이라 한다. 집안에 위중한 환자가 있거나 이사를 했거나 새집을 지었거나 집안 식구가 사망했거나 사업에 실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일들은 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불행으로 이러한 일은 모두 집안이 편안하지 않아, 다시 말해 안택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무고안택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안택은 비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집안의 편안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안택은 보통 음력 정월과 10월 상달에 베풀어진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조에는 "소경을 불러다가 보름 전날부터 안택경을 읽으며 밤을 새운다. 액을 막고 복을 비는 까닭이다. 이 달이 다 가도록 계속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책 10월조에는 "10월 인가(人家)에서는 10월 상달이라 하여 무당을 데려다가 성주신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차려 놓고 빌어 집안의 편안함을 바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안택은 정월과 10월에 행하지만, 근래에는 10월 안택보다는 정월 안택이 일반적이다. 10월 안택은 경북, 충남, 충북, 경기 등 내륙지역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그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정월에 행한다.

정월과 10월의 안택은 그 의미가 다소 상이하다. "정월은 도액(度厄)이고, 시월은 안택이다."





〈안택〉
1 성주모시기
2 성주받기
3 내전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리1리
국립민속박물관

하는 말이 있다. 곧 정월은 액막이를 위해 행하고, 10월은 집안의 편안함을 위한 감사제의 성격이 강하다.

안택은 경객[讀經巫, 정각쟁이]이 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독경무 중에서도 일을 잘하는 '큰 경객'이 주로 행한다. 조선시대에는 독경은 숙련된 맹인(盲人)이 행했는데, 이들은 명통시(明通寺)라는 관청에 속했다. 국가적인 기우(祈雨)제의에 동원되기도 하였는데, 여느 무당과 달리 학식을 통해 굿을 진행시키는 실력자들이다. 『동국세시기』에 한양에서 베풀어진 민간의 안택은 역시 소경이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독경은 맹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학식을 갖춘 이가 경문을 배워 행하는 일명 학습무의 존재도 있다. 이들 경객은 지방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른데, 강원도에서는 복술, 경북에서는 참봉 혹은 화랭이(하동군) 등, 충청도에서는 경쟁이·정각쟁이라 부르며, 지역과 무관하게 판수라고도 한다. 이 중 경북의 참봉(參奉, 종9품 관리)이라는 명칭은 독경이 국가기관인 명통시의 관원 신분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안택은 단순 점복자(占卜者)나 무당이 행하는 굿과는 다르다. 안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부정풀이: 굿당을 정화시키고 제물 준비 과정에서 잘못하여 부정하게 된 것을 풀어버리는 것이다. 부정경(不淨經)을 독송하고 축원을 한다.

② 조왕경(竈王經): 불의 신에 대한 제의로서 부엌에서 행한다. 간단한 제상에 삼색과일과 나물 등에 청수 한 그릇을 바쳐놓고 조왕경과 축원문을 독송한다.

③ 당산경: 터주신에 대한 제의로서 장독대 부근의 '터주께'에서 행한다. 터주시루를 올리고, 당산경(堂山經)·지신경(地神經)·칠성경(七星經)·축원경(祝願經)·명당경(明堂經)을 읽는다.

④ 성주경(城主經)·조상경(祖上經)·삼신경: 안방이나 대청에 성주상·조상상·삼신상을 차려놓고 성주시루와 백미를 바쳐놓는다. 백미는 그릇에 담아놓고 여기에 성주대를 꽂아 놓는다. 성주경, 조상경, 삼신경을 차례로 구송한다. 여기에서는 집을 짓는 과정, 세간장만, 농사의 과정, 자손을 낳아 과거급제를 말하는 무경(巫經)이 구송(口誦)된다.

⑤ 성주받기: 성주운이 든 해에만 성주를 받아 앉힌다. 성주는 대주의 나이가 1·3·7·9수에 해당할 때 새로 받아 모신다. 간혹 초상이 나거나 부정이 들면 성주가 뜨는데, 이럴 경우에도 성주를 새로 받아야 한다. 경객(經客)이 대잡이를 앞에 앉히고 성주를 받기 위하여 축원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대에 신이 내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대잡이는 성주대가 지목한 나무로 나가 성주를 모셔와 앉힌다. 다음에 성주대에게 신령들이 안택 정성을 잘 받고 안정되었는지를 문답식으로 가린다.

⑥ 조상석: 방안 제사를 모시는 조상 수대로 밥과 국을 올리고, 기제사를 지내듯 골고루 제물을 마련해 올린다. 조상해원경·조상경·축원문 등을 독송하고 대가림을 한다. 식구들의 길흉을 가리며 액운이 있으면 풀고 잡귀가 책임을 추궁하면 제거하는 간단한 독경을 하기도 한다.

⑦ 내전(內奠): 각 제물을 조금씩 덜어내어 차려 놓고 잡귀를 물리치며 가신(家神)을 봉안하는 경문인 안심위안경(安心慰安經) 및 퇴송경(退送經)을 구송한다. 식도를 가지고 주문을 외우며 칼을 던져 칼끝이 밖으로 향하면 만사가 잘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충청도에서는 독경무가 우세하며 보편적이다. 이 지역 안택의 절차와 내용을 보면, 먼저

날을 받고 제물을 준비한다. 기주(祈主)가 독경무를 찾아가 안택을 부탁하면 독경무는 날을 받아 기주에게 알려주고 준비 사항을 전달한다. 제물은 시루가 중심이 되는데, 성주시루와 터주시루를 가정 형편에 따라서 서 되 서 홉이나 서 말 서 되씩 하여서 고사떡을 만든다. 그리고 삼색과일과 나물 및 청수(淸水), 백미, 술 등을 준비한다. 부정풀이, 조왕, 터주, 성주, 제석, 조상, 내전풀이로 진행되는데, 식구들의 길흉을 가리다가 잡귀가 훼방하는 경우가 나타나면 귀신잡이의 독경도 추가로 행해진다.

안택은 독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굿의 절차도 서울·경기 지방의 열두거리에서처럼 부정거리·조상거리·대감거리·제석거리·뒷전거리 등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 경문의 명칭을 따서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부정경·조왕경·지신경·성주경·조상경 등으로 구획된다. 태을보신경은 경객이나 기주 등 굿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귀의 범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문이다.

의의 안택은 기주를 포함한 가족과 조상, 사중팔신(舍中八神) 사이에 전문 사제인 경객이 매개자가 되어 치르는 종교의례이다. 이 때 경객은 경문을 구송하고 여러 제의를 행함으로써 사중팔신과 조상을 송축(頌祝)하고 받들며, 가족의 소망을 그들에게 기도하고 청원한다. 아울러 혹여 서운하거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풀어 집안을 안정시키고, 앞날의 운수에도 대처하도록 한다. 조상과 가신, 그리고 가족 사이에 주부나 경객이 매개가 되어 행하는 종교의례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가을떡과 안택(이필영, 한국문화연구 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1).

필자 | 김효경(金孝慶)

여제(厲祭)

정의 불운하게 죽었거나 제사지내 줄 후손이 없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알려진 여귀(厲鬼)를 위로하는 제사.

내용 여귀는 불행한 죽음과 강포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전자는 제 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을 뿐 아니라 제사를 지내 줄 가족마저도 없는 외로운 귀신이란 의미이며, 후자는 그가 산 자에게 일으키는 탈이 역병과 같이 모질고 강포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여귀를 여역신(癘疫神)·역병신(疫病神)이라고도 하며, 전염병이 돌 때 국가나 마을에서 여제를 지냈다. 이러한 여제는 그 목적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무속의 지노귀굿·씻김굿·망묵굿이나 불교의 천도재 등과 유사한 사령제(死靈祭) 또는 위령제(慰靈祭)이다. 그러나 여제의 명칭이나 그 절차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교적 제사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보다 불특정 다수의 여귀를 대상으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위령제이다.

여제의 기원은 고대 주(周)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기(禮記)』 제법(祭法)에 의하면 왕이 지내야 할 일곱 가지 제사[七祀] 중에 '태려(泰厲)'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제왕 중에서 후손없이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였다. 제후와 사대부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공려(公厲)·족려(族厲)라는 이름의 제사가 있었다. 이러한 칠사(七祀) 또는 오사(五祀)는 후대 국가 제사에 포함되었다. 조선시대 종묘에도 칠사당이 있었다. 그러나 여제가 독립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명나라 때부터이다. 천자와 제후, 대부의 계급적 위계와 달리 이 시기 여제는 경도(京都)와 부·주·현(府州縣) 그리고 리(里) 등의 지방 행정조직에 따라 편성되었는데, 특히 이갑제(里甲制)의 시행과 함께 향려단(鄕厲壇)이 전국에 세워졌다. 또한 청명일·7월 15일·10월 1일에 지내는 제의는 그 형식이 성황신 중심으로 바뀌어 제향일 3일 전에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가 새로 생겼다. 이러한 형식의 변화는 도교와 민간에서 유행한 성황신 신앙을 받아들여 여귀를 통제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기원하는 형식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여제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조선 초기이다. 태종 원년 권근(權近)의 발의로 시작된 여제는 태종·세종대를 거치면서 제단과 의주(儀註)가 정비되었으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소사(小祀)로 올려졌다. 한성부 여제는 제향일에 앞서 남교의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에서 성황발고제를 거행하고, 당일 북교 여제단에서 성황신(城隍神)과 무사귀신(無祀鬼神)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제사 형식은 중국과 유사하지만, 명계(冥界)의 주관자로서의 성황신에 대한 이해가 약했던 우리나라에서 성황신의 역할은 축소되고 국왕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구휼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한편 조선 전기에 이미 지방 군현 단위마다 여단이 건립되어, 여제는 사직제(社稷祭)·문묘 석전제(釋奠祭)와 더불어 지방의 중요한 제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고려시대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여제가 이렇게 전국에 일률적으로 건립된 것은 조선시대 일원적 지방제도의 강화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조선 후기 전쟁과 잦은 전염병의 발생 때문이기도 하였다. 가뭄과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심했던 현종·숙종 연간에 양난(兩難)의 전몰처(戰歿處)와 무주시매처(無主屍埋處)를 중심으로 별여제가 자주 거행되었다. 이렇게 중국에서 수용된 여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권력, 전쟁의 역사적 경험, 재난의 현실 등으로 인해 점차 토착화되었다.

조선 후기 여제는 각 지방의 동제를 통해 민간에도 확산되었다. 동제에서 여제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여제와 유사한 형식의 동제로서, 여역과 전쟁터의 고을을 배경으로 시작된 은산의 별신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하나는 동제의 명칭이 여제인 경우로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동제로서의 여제는 무사귀신을 위로하는 형식도 있지만, 마을수호신을 모시는 다른 제향과 차이점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의의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위로하는 제사는 우리의 종교문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제는 조선시대 국가의 지방조직과 구휼이란 대민정책, 그리고 여역에 대한 공포와 원혼에 대한 연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향이다.





1 여제의 독축
2 여단
전북 남원시 향교동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 厲祭謄錄, 禮記, 17세기 여제의 대상에 관한 연구(이욱, 역사민속학9,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조선시대 국가 사전과 여제(이욱, 宗敎硏究19, 韓國宗敎學會, 2000), 朝鮮時代 厲祭의 機能과 意義(B.올라번, 東洋學31,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2001).

필자 | 이욱(李煜)

연등회(燃燈會)

정의 임금의 축수와 왕실의 조상 제사를 위해 궁전과 사찰에서 불교적 표현을 빌려 개최되었던 국가적 연례 행사.

유래 한국의 연등회에 대한 기록은 9세기 중기의 신라에서 보이나, 국가 단위의 정규 의례로서 정착된 것은 고려(高麗)시대부터였다. 고려는 한국 역사상 연등회가 가장 활발하게 개최된 시대이기도 하였다. 그 의례가 열린 횟수는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11세기 중기부터 14세기 초기까지의 기간에 특히 많이 개최되었다. 『잡보장경(雜寶藏經)』·『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佛說仁王護國般若婆羅蜜多經)』·『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보살본행경(菩薩本行經)』 등은 연등의 의미·목적·공덕 및 연등을 켜는 자세 등이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경전들이다.

내용 고려의 연등회는 정규연등회·특별연등회·불탄일연등회의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중 가장 많이 개최된 것은 정규연등회이다. 특별연등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 기간에만 열렸으며, 개최 횟수도 정규연등회보다 훨씬 적다. 사월초파일의 불탄일연등회는 고려 후기에 처음 개최되었다.

고려의 정규연등회 개최 월·일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인도에서는 1월 1일, 중국에서는 1월 8일 혹은 15일, 일본에서는 12월 말일이다. 그러나 고려에서의 개최 시기는 1월 혹은 2월이었으며, 2월의 연등회가 1월의 연등회보다 훨씬 많다. 특히 1월 연등회의 개최 일자는 보통 14일이며, 2월 연등회의 경우는 13일, 14일, 혹은 15일이나, 고려 전 시대를 통해서는 2월 14일에 가장 많이 열렸다. 정규연등회는 이틀간 개최되는데, 첫날의 행사는 연등소회(燃燈小會), 둘째 날의 행사는 연등대회(燃燈大會)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실 제사일 또는 국가 장례일 등과 같은 특별한 날들과 겹칠 경우에는 개최 일자가 변경되었다.

고려의 불교의례 중, 정규연등회는 팔관회(八關會) 다음으로 중요한 의례로서 연등대회일은 공휴일이고, 연등회를 위해 '연등도감(燃燈都監)' 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정규연등회는 고려의 의례 규정에서 가례잡의(嘉禮雜儀)로 분류되어 한식(寒食)과 같은 조상숭배를 위해 제정된 국가 공휴일보다는 그 격이 낮다. 고려의 연등회는 신라의 연등회와는 달리 국가적 후원 아래 정규적으로 개최된 의례였으며, 개최 횟수도 신라에 비해 훨씬 많다. 또한 그것은 날짜 · 장소 · 목적 · 규모 · 중요성 등에서 다른 나라의 연등회와도 다르다.

인접국가사례 연등회의 역사는 나라별 · 시대별로 다양하다. 중국의 연등회는 2세기부터 개최되었으며, 이는 '상원연등회(上元燃燈會)' 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 연등회가 정규 행사로 개최된 것은 당(唐)나라 때이며, 요(遼)와 금(金)에서도 이 행사는 열렸다. 인도에서도 연등의 풍습은 있었으나 중국의 상원연등회에 해당하는 행사는 없었다. 일본에서는 당나라의 의례를 모델로 하여 651년에 첫 연등회를 개최하였다.

인도에서의 연등은 부처에 대한 공양의 한 가지였던 반면, 중국에서는 본뜻이 변하여 축제의 성격을 띤다. 불교에서는 계율로 금지되어 있는 술도 사용한다. 고려의 연등회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연회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도사행가무(蹈沙行歌舞) ·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 등의 춤과 노래가 공연되었으며, 기생과 산대인(山臺人)이라고 불린 연예인들도 연등회 행사에 참가하였다.

의의 불전에 기록된 대로의 연등은 부처에 대한 공양법이며,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을 없앰으로써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한 가지 길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연등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등을 바치는 진실한 마음가짐이다. 그러나 타국보다 더 큰 중요성과 규모를 가지고 2월 14일에 특히 많이 개최되었던 고려의 정규연등회는 정치적 수단으로 기능한 결과, 고려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다. 이 점은 특정 시대의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한 종교의례의 경우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운명이 다함을 보여준 한 예가 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名賢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時代 國家佛敎儀禮 硏究(安智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김종명, 문학과 지성사, 2001).
필자 | 김종명(金鍾明)

오방제(五方祭)

정의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오방신(五方神,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과 중앙의 신)을 대상으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던 마을공동제의. 우리나라의 동제에서 오방신앙의 요소는 거리제 · 장승제 · 탑제(塔祭) 등에 포함되어 그 흔적을 전하고 있으나 제의 명칭이 오방제인 사례는 매우 드물다. 오방이란 다섯 방위, 즉 동서남북과 중앙을 일컫는다. 따라서 오방제의 신격(神格)은 각 방위를 지킨다는 오방장군(五方將軍)으로 관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동방의 청제대장군(靑帝大將軍), 서방의 백제대장군(白帝大將軍), 남방의 적제대장군(赤帝大將軍), 북방의 흑제대장군(黑帝大將軍), 중앙의 황제대장군(黃帝大將軍)이 된다.

유래 오방신 · 오방장군의 어원과 유래는 중국에서 전래된 음양오행사상과 긴밀한 관련이 있지만, 여기에 불교의 오방신 및 무속신앙의 오방신장(五方神將, 붉은 옷에 언월도를 든 신장) 관념이 일정하게 습합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오방장군의 위력을 빌려서 마을의 중심과 그를 둘러싼 사방을 수호한다는 믿음이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오방제는 방위신(方位神)인 오방장군께 마을의 무사태평과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제례이다. 따라서 마을 입구나 삼거리에서 '거리신' 을 대상으

로 하는 거리제 · 노신제 등과 신앙의 성격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다만 오방제가 여느 동제와 구별되는 특이한 점은 제물의 진설에 있다. 즉, 그 신격이 오방장군인 까닭에 주요 제물은 각 장군의 몫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통례이다. 가령 술잔, 포, 밥, 탕, 삼색실과 등을 다섯 그릇씩 진설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오방장군을 위해 다섯 개의 제상(祭床)을 준비하여 각각 제물을 차려서 한 상씩 올리기도 한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에서는 음력 정월 초삼일과 시월 초삼일에 산신제를 마치고 마을 앞 사거리로 내려와서 오방제를 지낸다. 신체(神體)는 따로 없고 단지 다섯 방위를 수호한다고 여겨지는 오방장군이 그 대상이다. 그리하여 적당한 크기로 자른 한지에 동방청제대장군 · 서방백제대장군 · 남방적제대장군 · 북방흑제대장군 · 중앙황제대장군을 각각 묵서하여 차일(遮日)에 붙이고 제를 거행한다. 제물은 삼색실과 다섯 그릇, 포 다섯 마리, 술잔 다섯 개, 밥 다섯 그릇 등 오방장군의 몫을 별도로 진설한다. 뿐만 아니라 소지(燒紙)를 올릴 때도 오방장군을 위해 다섯 장의 소지를 차례로 올리며 마을이 평안하기를 기원한다.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에서는 정월 초순에 길일을 택하여 오방제를 지내는데, '축귀대장군(逐鬼大將軍)'과 '축귀대부인(逐鬼大夫人)'이라 묵서한 장승을 마을의 서쪽과 남쪽 어귀에 각각 세웠다. 또한 결성면 성호리에서는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오방제를 지낸다. 이 마을에서는 특이하게 오방장군과 12지신상의 화상을 모신 '오방제각(五方祭閣)'이 마을 뒤편에 위치하는데 당집 내부에는 오방장군의 위패를 각각 나무에 써서 안치해 봉안했다.

지역사례 오방제란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행 동제에서 오방신앙의 요소를 엿볼 수 있는 사례는 종종 목격된다. 별신제로 유명한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는 사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각각 장승이 세워져 있다. 장승의 명문도 사방의 잡귀를 추방한다는 의미에서 동서남북 '축귀대장군'으로 되어 있다. 또 별신제의 축문에는 수많은 장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맨 앞을 장식하는 것이 오방장군이다. 은산과 이웃한 외산면 만수리의 장승 역시 그 신격은 전형적인 오방장군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정월 초삼일에 거리제를 지낼 때는 한지에 '오방신장전(五方神將前)'이라 쓴 신위를 장승의 동체에 붙이고 술잔과 탕을 각각 다섯 개씩 준비한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및 전남 장성군 황룡면 와우리 오방장승도 이와 동일한 사례로서 오방신앙의 흔적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처럼 장승은 방위신으로서의 신격이 두드러진 까닭에 동제의 신앙대상물 가운데 오방신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목장승 전승지역으로 손꼽히는 충남 칠갑산과 공주시 주변의 장승은 오방신 계통의 명문이 주류를 이룬다.

인천시 강화도 수살맞이굿에 등장하는 수살목에는 다섯 마리의 솟대가 안치되는데 이는 오방에서 침입하는 부정과 액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또한 경기도 도당굿에서 화랭이와 잽이들이 오방장승에 대한 '돌돌이'를 통하여 잡귀를 물리치는 것이나, 호남 지방의 줄다리기에서 어깨에 줄을 메고 동네를 도는 '오방돌리기', 동제를 지내기 전에 풍물패들이 쇳소리를 내면서 오방을 도는 것은 모두 부정을 물리치기 위한 일종의 정화의례이다.

충남 금산에서는 오방장군의 신위를 각각 묵서하여 금줄에 끼우고 탑제를 지내는 사례가 있으며, 대전시 동구에서도 한지에 묵서한 오방장군의 깃발을 수숫대에 매달아 탑 꼭대기에 꽂아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 탑의 신격이 오방장군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강원도 삼척 등에서 오방신은 집안의 다섯 방위를 관장하는 토지신(土地神)으로 인식된다. 그런 까닭에 안택을 하거나 집안에서 성주 · 조왕 등에 고사를 지낼 때는 따로 한 상을 차려서 술잔 다섯 개와 숟가락 다섯 개를 꽂고 소지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방제〉
1 상당제
2 하당제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서한강

의의 오방제는 음양오행사상에서 유래된 오방 관념 및 오방신·오방신장의 요소가 동제에 투영된 사례이다. 곧 오방에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장군의 위력에 의지하여 재앙을 물리친다는 신앙이 전제되어 있다. 음양오행사상은 민속문화의 기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지만, 그 범위를 동제에 국한한다면 지금까지 보고된 예가 그리 풍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지방에서 전승되는 오방제는 마을을 수호하는 동신(洞神)으로 오방장군을 신격화하였다는 점에서 동제의 다양한 전승 모습과 그에 따른 민간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제의라 하겠다.

참고문헌 | 경기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88), 충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충청남도, 1991), 동구지(대전광역시 동구, 1996), 전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6), 삼척민속지1~5(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2), 무량동 산신제와 거리제(부여문화원, 1998), 금산의 탑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한국 민속의 세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강성복(姜成福)

오티별신제[五峙別神祭]

정의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五峙里]에서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마을공동제의. 충청북도 시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오티별신제는 오티마을의 수호신인 서낭신과 산신에 대한 농경생활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는 기복행위로서 중부 산간내륙권의 대표적인 동제(洞祭)이다. 다섯 고개 서낭신을 마을 본당에 모시는 의례와 모셔놓고 벌이는 축제형 행사를 뜻한다.

유래 오티마을에는 각각의 고개마다 서낭당이 있으며, 마을 뒷산 중턱에는 산신당(山神堂)이 있다. 그 곳에는 여러 신령이 좌정되어 마을을 지킨다고 믿고 있다. 오티마을의 주산(主山)에는 마을 최고신인 산신을 모시고 고개에는 거리신인 서낭신을 모신다. 다섯 개의 봉우리 가운데 서낭당이 위치한 곳은 봉화재·말구리재·매차골·흰티재(흰뜨재)·해너물재(한나물재)다. 이들 중 봉화재에는 두 개의 서낭당이 있어 그 하나는 '큰봉화재서낭', 다른 하나는 '작은봉화재서낭'이라고 부르고 있다.

수산면 오티마을에서는 제당들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의 협동·단결과 마을 전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제의를 2년마다 지내고 있다. 그 뒷풀이격인 축제마당에는 고대 부족사회의 마을신앙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제의형 농악놀이와 허재비놀이가 행해진다. 이렇듯 충북 북부지역 서낭계 마을굿의 전형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민속적 제의를 일컬어 '오티별신제'라고 한다.

오티마을에서 다섯 고개의 신령을 위하는 제의를 별신제라고 일컫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별신'의 어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신을 특별히 모신다는 뜻을 지닌다. 둘째, '별'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지명에서 흔히 쓰이는 서라벌(徐羅伐)의 '벌[野]'에 해당하는 말로 평야나 들을 상징하는 '들신'인 '벌신[野神]'을 모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다. 셋째, '뱃신' 곧 '선신(船神)'을 말하는 것이라는 설이다. 넷째는 벨·벌·별의 어원은 '밝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광명을 바라는 민족신앙인 '밝' 신앙에서 기인한다는 설이다.

오티의 경우에는 산신이 아닌 고개신 또는 거리신의 개념이 강하므로 들신·별신 등의 서낭적 의미가 강하다. 실제로 제의의 성격이 대보름 마을 거

〈오티별신제〉
1 산신제
2 서낭제
3 강신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김병관





리굿의 성향을 보인다. 별신제는 마을 생활의 협동 정신이 잘 표현되는 관행의 한 가지다. 마을 사람들 전원이 참여하는 별신제는 격년 · 격2년 · 격10년 또는 필요할 때 시행되듯이 부정기적으로 거행되나 마을축제로서 동제의 속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별신제의 연행은 신을 위한 희락(戱樂)이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락(神樂)을 갖게 한다. 비록 경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크지만 오인적(娛人的) · 오신적(娛神的) 동제의 이중성을 갖는다. 오티별신제를 한정하여 볼 때 고개신 또는 거리신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마을의 길신을 독특하게 '별신'이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안 별신굿이나 은산별신제와 달리 마을 고개 또는 길목을 지키는 거리신을 특별히 모신다는 의미가 강하다.

내용 고양주는 정월 12일부터 제의를 올릴 준비를 한다. 이 시기부터 철저히 금기를 지키고 가족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 고양주 집은 이 때부터 신성한 공간이 된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의 출입도 금한다. 이날 아침 고양주는 산신당에 칠 금줄을 마련하고 술을 빚을 쌀과 술단지, 누룩 등을 준비하여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른 고양주는 당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화수를 떠서 밥을 짓는다. 그 옆에 햇빛이 잘 드는 장소를 골라 구덩이를 판다. 구덩이를 판 후 불을 피워 나온 재를 묻고 술단지를 집어넣는다. 땅 속에 재를 묻는 것은 언 땅을 녹여 따뜻하게 하면 술이 빨리 익기 때문이다. 술단지를 묻고 그 위를 흙으로 덮고 나뭇가지와 짚단을 올려놓는다. 이러한 준비를 다 끝내면 마지막으로 각각의 신성한 장소에 금줄을 친다.

오티별신제는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이틀에 걸쳐 행해진다. 별신이 들지 않은 해는 산신제만 행한다. 첫째 날은 마을 뒷산에 있는 산신당에서 산신제가 이루어진다. 산신제는 엄숙형 제의이기 때문에 낮에 조역들이 돼지를 끌고 가 산당 밑에서 잡는 것으로 시작하여 해질 무렵인 오후 5시 경부터 고양주에 의해 산신당에 제물을 차리는 것으로 진행된다. 산신제가 유교적 진행방식에 의해 한밤중에 행해지는 엄숙형 제의인 반면 서낭제는 강신적 진행방식에 의해 낮에 행해지는 개방형(잔치형)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산신제는 산신당에서만 지내고 서낭제는 상당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서낭당을 돌며 행한다. 제물은 술과 떡, 밥, 고기, 삼색실과 등이다. 산신제는 대동제의 성격이 부각된 양상을 띠고 있다. 곧 제주와 제관 · 축관 · 고양주 · 조역 등이 오티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출되고, 기복도 마을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함이다. 제의는 재배, 헌작, 독축, 소지, 청배의 유교적 제의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제관은 마을신에게 바치는 공식적 기도로서 독축을 행한다. 독축이란 다름 아닌 축문(祝文)을 읽는 것인데 제관이 독축을 하는 동안 모든 참례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다. 제관이 독축을 끝내면 다 함께 두 번 절한다. 축문이란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신께 기원하는 글로서 마을의 제액초복(除厄招福)과 풍년 농사, 무탈한 마을행사 등을 위한 기도문이다. 유교식 축문의 송독으로 마을 전체의 염원을 빌었어도 한 번 더 소지를 올려서 마을과 각 가정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소지를 올리면서 비는 말은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교술성을 띠는데 정형화되어 있다. 소지는 위에서부터 불을 붙여 불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올 때 위로 날려 보낸다. 산신제가 끝나면 바로 하산하여 마을 어귀에 있는 매차골 서낭당에서 서낭제를 준비한다. 제물은 떡과 술을 올


1


2

〈오티별신제〉
1 허재비놀이
2 허재비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김병관

리는데 앞서 사용한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재배, 헌작, 독축, 소지가 주된 절차이며 축문은 따로 사용한다. 이러한 두 과정(산신제, 매차골 서낭제와 본당제)이 첫째 날에 행해지는 제의다.

오티별신제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제의(상당 대고사)는 둘째 날(정월 대보름)에 이루어진다. 마을 사람들은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 조식을 마친 8시 경부터 마을 회관 앞에 농악대가 모여 마을 사람들에게 제를 지낼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 준다. 앞서 상당에 올라간 고양주 · 제관 · 축관이 제사를 준비한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마을 농악대를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남자만)과 함께 상당으로 출발하여 제를 지낸다. 상당제를 마치면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며 차례로 다섯 군데 서낭을 돌며 제를 지낸다. 이 때 반드시 신대(소나무)에 서낭신이 내려야 다음 당으로 모시게 된다.

제의는 먼저 다섯 개 서낭이 있는 장소 중 제일 높은 봉우리인 큰봉화재에서 시작된다. 이 서낭은 상당 · 큰재 서낭 · 상봉우재 서낭 · 봉화재 서낭이라고 불린다. 상당에서 제의가 끝나면 근처에 서 있는 느티나무 앞에서 수구막이제를 지낸다. 상당에서 서낭당에 제를 올리는 것과 달리 작은재 서낭당은 서낭당이 아닌 신목(神木)을 섬기고 있는 성소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제의과정이 끝나면 농기와 서낭대를 앞세우고 세 번째 제의 장소인 구실재로 향한다. 구실재 서낭당은 작은재 서낭당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매차나무' 이며 금줄을 둘러놓았다. 구실재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네 번째 장소인 흰티재 · 해너물재 서낭당으로 향한다. 과거에는 흰티재 서낭당과 해너물재 서낭당을 따로 모셨으나 도로가 뚫리면서 서낭당이 없어진 이후로 함께 올린다. 흰티재 · 해너물재 서낭제가 끝나면 농기를 앞세우고 다섯 번째 장소인 본당으로 향한다. 이 의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의 장소는 본당이라고 불리는 마을 복판에 자리한 서낭당이다. 서낭당은 정확한 수령을 알 수 없으나 500년 되었다고 알려진 느티나무다. 이 곳에 지금까지 모셔온 다섯 서낭신과 붉은당 서낭신, 느티나무 서낭신을 좌정시킨다. 이로써 제차 2일의 제의가 절정에 이르고 오티농악이 울린다. 뒷풀이에는 허재비놀이를 통해 희화성과 주술성을 드러냄으로써 마을축제로의 순환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의의 오티별신제는 신에게 축원하는 동제이다. 세시풍속의 향토성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제전이다. 그래서 제의성이 두드러지고 마을 사람들은 이 제의를 통해 한 해를 염원하는 시간과 공간에 빠진다. 신과 마을 사람들과의 축제적 제의를 통해 공동체적 대동성을 꾀하는 것이다. 마을축제의 제의성은 이런 점에서 마을의 구심력을 창출하고 마을 사람들의 정서를 표출하는 공동체의례이다. 오티별신제의 축제적 성격은 마을 문화의 정통성을 지킨 미덕이고 마을신앙의 표출적 기능을 갖게 한 계기이며 세시의례의 주기성을 활성화한 장치이다. 오티별신제의 정체성은 오티리 사람들의 억센 지킴이 정신력(일체감)과 이를 올곧게 정성을 다해 표현하는 대동성, 예술성 그리고 신에 대한 약속을 몸소 교감하는 진정성 · 신앙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충북지방 장승 · 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4), 오티별신제의 현지연구(李昌植, 語文硏究31, 어문연구학회, 1999), 마을축제 오티별신제(이창식, 집문당, 2001), 충북의 민속문화(이창식, 충청북도 · 忠北學硏究所, 2001).
필자 | 이창식(李昌植)

완도장좌리당제(莞島長佐里堂祭)

정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마을공동제의. 현재 전라남도 시도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이 마을에는 두 곳에 당이 있다. 하나는 마을 앞 300여 미터 거리의 조그만 섬 '장도' 라는 곳에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을 안 사장(射場)의 귀목나무 거리다. 장도의 당은 당집이며, 섬 정상의 울창한 숲 속에 위치해 있다. 당집은 동향으로 마을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다. 본래는 초가였으나 기와로 지붕을 바꾸어 크게 수리를 하였다. 당시 상량문이 황기(皇紀) 2600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 이를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 당집을 지었다. 당집에는 중앙에 주신(主神)인 송징장군, 우측은 정년장군, 좌측은 혜일(慧日)대사를 모시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 장좌리 당제가 남도문화제에 출연하면서 이 곳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보고를 추배하게 되

었으며, 그 후 장보고까지 4위의 신을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당집 안 전면 벽에 장보고의 초상이 걸려 있다. 당집이 있는 장도는 해발 33미터, 넓이 29,991평의 조그만 섬으로 밀물시 만조가 되면 섬이고 썰물 때는 도보로 출입이 가능하다. 다른 한 곳의 당은 귀목나무가 서 있는 사장거리에 있지만, 크게 중시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말한 당집에서 제향을 마치면 여기에 와서 사장굿을 친다. 전에는 여기에도 간단한 제상을 마련했다 하나 지금은 생략한다. 연세가 연만한 분들에게서 이곳 귀목나무를 당수(堂樹) 또는 당수나무라고 부르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매년 이장을 중심으로 정월 초사흗날 마을회의격인 대동공회(大同公會)를 열어 제관·제비 및 당굿을 칠 사람들을 선정한다. 이 회의에는 마을의 유지 및 임원들이 참여하며,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시행한다. 제관으로는 당주와 집사를 선정하는데, 당주는 제물을 비롯한 일체의 준비물을 맡고 집사는 독축과 집례를 관장한다. 당주의 선정 기준은 무척 까다롭고 엄격하다. 친가는 물론 처가까지도 아직 상복을 벗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제외되며, 집안에 산고가 든 사람도 안 된다. 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애가 있는 집에서도 역시 당주를 맡을 수 없다.

당비는 당공(堂貢)이라고 하며, 그 해 당제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호구전으로 걷는다. 초사흗날 마을회의가 끝나고 이장이 방송을 하면 대개 그날 다 걷힌다. 이장은 그 중 제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당주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준비물, 예를 들면 굿물이나 매구치는 사람들의 의복·고깔 등을 사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당주는 보름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에 들어간다. 처음 하는 일은 당샘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다. 당주가 샘을 청소하고 목욕을 마친 후 물을 길어 집에 돌아가면 우선 제주(祭酒)와 콩나물을 앉힌다. 또 대문간에 왼새끼로 꼬아 만든 금줄을 걸고, 마을 사람들과의 왕래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꺼린다. 마을 사람들 역시 당주 내외를 보면 서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길을 피한다. 특히 제수를 준비하면서부터는 소변을 보면 손발을 씻고, 대변을 보면 찬물로 목욕한 후 옷을 갈아입는다. 이 때문에 적어도 옷은 세 벌 이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소변 후 목욕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준비 기간 동안 극히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당제를 모시기 2~3일 전에 제수를 사기 위해 장

〈완도장좌리당제〉
1 완도장좌리당
2 당굿
3 당제(독축)
4 당산굿
5 마을로 이동
6 우물굿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김상수








에 간다. 이장과 당주가 함께 완도읍장 또는 해남 송지장을 본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반드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제물은 육류와 생선, 과일, 나물 등 필요한 것을 사며, 쇠머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사는 것은 제수를 만들 식료품만 아니라 솥, 시루, 제기, 돗자리 등 일체를 새로 구입한다. 물건을 살 때는 일절 값을 깎지 않는다. 값을 흥정하거나 깎으면 공이 안 된다고 믿는다. 한편 하루 전인 14일에 당집을 비롯하여 공동우물과 당수(堂樹)가 서 있는 사장을 청소하고 금줄과 금토를 한다. 금토는 깨끗한 황토를 파다가 대강 한 걸음에 한 삽씩 까는 것이다. 당집의 청소와 함께 마른 나무를 베어 당제를 모시면서 불을 피우기 위해 당집 앞에 장작을 쌓아 놓는다.

당제의 진행 과정을 보면, 새벽 5시 경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서 굿물과 고깔, 의복 등을 새벽부터 부산하게 준비를 하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당굿을 치기 시작한다. 한참 회관 마당에서 굿을 치다가 당주를 앞세우고 길굿을 치면서 당으로 출발한다. 상쇠가 이끄는 대로 굿을 치는 사람들은 갈지자로 들당산굿을 치고 당에 오른다. 당집에 도착하면 당주와 제물을 운반하는 사람, 그리고 당제에 참여할 이장을 비롯한 몇 명만 당집 안으로 들어가 집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진설을 한다. 제수는 주, 과, 포에 몇 가지 나물과 식혜, 그리고 생선과 떡, 탕, 메 등이다. 가운데 제상(祭床)은 좌우의 상에 비해 제수의 규모나 가짓수에서 다소 풍요롭다. 또 가운데 상만 쇠머리를 진설하는데 언제나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며, 일제 말기의 어려웠던 때는 염소를 잡아 대신했다고 한다. 가운데 상은 주신인 장보고와 송징의 상이고, 왼쪽이 혜일대사, 오른쪽이 정연의 제상이다. 그런데 승려였던 혜일대사의 상에도 술과 고기를 올리는 것이 특이하다.

동이 트는 시각에 맞추어 제례가 시작된다. 제차는 유교식으로 진행되며, 설상(設床), 분향(焚香), 강신배(降神盃), 독축(讀祝),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소지(燒紙), 음복(飮福), 헌식(獻食), 철상(撤床)의 순이다. 진설을 할 때까지 밖에서 쉬고 있던 굿패가 당제가 시작되면 당집 앞마당에 도열하여 상쇠의 지시에 따라 당산굿을 치기 시작한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西紀○年干支正月十五日長佐里里民代表○○○敢昭告于 顯張淸海大使保皐之神位 顯宋大將軍徵之神位 威冠一代 靈存永世追慕 玆値上望 謹以淸酌 庶羞恭伸 奠獻 尙 饗

집사는 당제를 마치면 한지에 불을 붙여 소지를 올린다. 여러 장의 백지를 축원의 말과 함께 살라 올린다. 백지가 불에 타면서 잘 올라야 좋다. 소지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철상한다. 철상을 하면서 각 상에서 음식을 조금씩 떼어 양푼에 담아서 당주가 당집 옆 나무 그루터기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부어 놓는다. 헌식이 끝나면 당집 앞마당에 짚을 깐 위에 식기를 줄줄이 늘어놓고 갖가지 음식을 차례로 담았다. 특히 현장에서 김밥을 말아 식기에 담는다. 이는 송대장군의 부하인 장졸들에게 거리밥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 수는 일정치 않지만 대개 굿을 치는 사람들의 수에 맞춘다. 거리밥은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아침식사로 나누어 먹는다.

아침식사가 끝나고 나면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굿을 치는 사람들은 열을 지어 날당산굿을 치기 시작한다. 일렬로 줄을 서서 당집 주위를 왼쪽으로 세 바퀴를 달음질쳐 돌고 나서 옆 보리밭에 둥글게 원을 그려 다시 농악을 흥겹게 치다가 바닷가에 도착한다. 섬에 들어올 때는 걸어왔지만 이미 만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실러 올 배를 기다린다. 사람들은 배 세 척에 나누어 타고 마을을 향해 굿을 치면서 출발하는데, 배가 가까워지면 온 마을 사람들이 부둣가로 나와 구경을 한다. 마을에 도착한 굿패는 바닷가에 접해 있는 마을 공동우물에서 먼저 굿을 친다. 그리고 당산나무가 서 있는 사장에 가서 또 사장굿을 치기 시작한다. 사장굿이 끝나면 끝으로 그동안 출입이 금지되었던 당주집에 가서 굿을 한판 신명나게 치는 것으로 당제를 마감한다. 당주집에서 놀면서 술과 음식을 충분히 먹은 후, 다시 그 길로 각 가정을 돌면서 며칠간 매구를 치며 놀았으나 지금은 당일에 그친다.

이 마을은 당제와는 별도로 보름날 밤에 갯제를 모신다. 장도로 들어가는 길에 온마을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상을 하나씩 차려와서 길게 늘어뜨려 놓고 개인별로 소원을 비는 것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부터는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상을 마련하여 이장의 주관 아래 지내고 있다.

의의 장좌리의 당제는 특히 역사적 인물을 모신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마을제사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마을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을 모시고 있으며, 필요하면 장보고의 예와 같이 추배를 하여 모시기도 한다. 당집이 있는 장도는 장보고의 청해진 본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발굴 조사 중에 있다. 또 이 마을의 농악은 전라남도의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이 마을은 지금도 당제에 대한 신심이 돈독하여, 예를 들면 당산굿을 칠 때 머리에 쓸 고깔을 지금도 직접 종이와 물감을 사다가 마을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당제 덕분인지 마을 주민의 단합과 협동이 잘 된다고 한다. 조선조 임억령은 '송대장군가'라는 조선조 최고의 영웅서사시를 지었는데, 이는 바로 이 곳 당제에서 모시는 송징의 전설과 당제를 소재로 한 의고적 작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광주 · 전남의 민속연구 -개정증보-(나경수, 민속원, 1998).

필자 | 나경수(羅景洙)

용왕제(龍王祭)

정의 용왕에게 뱃길과 어민의 무사함과 풍어를 비는 제의. 갯제 · 둑제 · 어장제 · 용신제 · 용왕먹인다 · 서낭굿 · 대동굿 · 배연신굿 · 배신굿 · 별신굿 · 풍어제 · 사해제 · 사해 사독제(四海 四瀆祭) 등으로도 부른다.

유래 신라시대에는 사해제, 고려시대에는 사해 사독제, 조선시대에는 용신제를 지냈다는 기록을 통해 바다와 물을 관장하는 신에게 비는 제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어로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촌에서는 용왕굿이나 용왕제를 지내면서 배의 무사고와 풍어,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된 송(宋)나라 서긍(徐兢)이 한 달 남짓 개성(開城)에 머물면서 견문을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의 사우조(祠宇條)를 보면 "군산도 일봉산에 오룡묘가 있는데 그 입벽에 오신상을 그려 놓고 선원들이 용왕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영조 47년에 인행(印行)한 『고사신서(攷事新書)』 6권의 국조축전(國朝祝典)을 보면 "동해의 양양, 남해 나주, 서해 풍천, 북해 경성에서 중사(中祀)인 해신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내용 갯가 마을에서는 정초 당제날 상당제를 지낸 뒤 집단으로 용왕제를 지낸다. 용왕제는 집단제의로 각 호의 주부들이 제물을 설상하여 갯가로 가지고 나와 갯제(둑제 · 용왕제)를 올린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보름에 또는 4~5월과 11월의 길일을 잡아 제를 올리기도 하며, 격년제로 또는 삼년마다 올리는 곳도 있다. 마을에 우환이 있으면 손 없는 날로 날받이를 해서 깨끗한 제를 올린다.

지역사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수리마을의 용왕제(갯제)는 원해(遠海)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하당제 제의이다. 용왕으로 여기는 허수아비에게 제주(祭酒)와 제찬(祭饌)을 올리는데, 이때 생기복덕을 고려하여 제주(祭主)를 선출하지는 않는다. 공인이나 입담이 있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제주가 되어 제의를 주관한다. 갯제는 각 호마다 제물을 설상하여 부녀자들이 가지고 나와 풍어와 가정의 안녕을 축수한다. 갯제를 지내기 전에 매굿을 치며 마을을 돈다. 용왕기 · 풍어기를 앞세우고 제주가 용왕을 모시면 굿 행렬은 마을을 돌아 갯제를 지내는 마당





1 용왕제(비손)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2리
국립민속박물관

2 용왕제(소지)
충남 부여군 서헌강

으로 나온다. 이 때 선주들이 풍어 삼색기를 들고 따라나온다. 제주는 이 날만큼은 용왕님의 위력을 신탁(神託)하여 선주나 유지를 마음대로 부리고 골려주며 용왕에게 복을 받도록 한다. 또한 노자돈을 채우게 하여 흑산 일대의 도장원이 되도록 기구한다. 용왕을 흡족하게 감화시키고 장도칼로 위협하며 순응하도록 한다.

전남 해남 지역의 방주용왕송신제(方舟龍王送神祭)에서는 액과 화를 쓸어 가지고 먼 바다로 나아가도록 방주에다 술과 음식을 채우고 농악과 수살막이 노래를 부르면서 용왕을 기쁘게 해 준다. 지난 일년 동안의 불운을 가지고 가므로 새 것이 오며 풍어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제주 · 유지 · 선주 · 마을 사람들이 큰 배에 있는 허수아비 용왕을 띄워 보낸다. 용왕을 모신 방주(方舟)는 서서히 흘러 대해로 나간다. 모두가 신명나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용기(龍旗) 주위를 돈다.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용왕제에서는 선주들이 각자 용왕제를 지내기도 하고, 어촌계의 주관으로 3년마다 용왕제를 공동으로 지내는데 이를 '배신굿' 이라고도 한다. 용왕제는 풍어굿을 겸하는데, 첫째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풍어제의 성격이고, 둘째는 바다에 나가서 사고없이 어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제의 성격이 있다. 용왕제 때 행해지는 굿은 풍어굿과 수살굿으로 나누며, 풍어굿은 만선을 기리는 축원굿 계통이고, 수살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오구굿 계통이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 용왕제에서는 매년 정월 초사흘에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빌고 그 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공동제의를 연다. 원당제 · 주산돌기 · 용왕제에 이어 띠배에 액 띄워 보내기 순으로 진행되는데 육지에서 정초에 지내는 당산제와 성격이 같으며, 띠배에 액 띄워 보내기는 서남 해안 지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섣달이 되면 대리사람들은 동네 어귀에 왼새끼에 백지 조각을 매단 인줄을 치고 잡인의 출입을 금한다. 초사흗날 이른 아침 기잡이를 선두로 무당 · 화주 · 화장 · 선주 등이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원당에 오른다. 회식밥 · 쌀 두 말 · 콩 한 말 · 돼지머리 · 술 · 과일 · 포 등의 제물을 진설하고 무당이 축수를 한다. 이어서 마을 앞 당산나무 아래에 모여 주산돌기를 시작한다. 이는 일종의 지신밟기인데 마을 사람들이 동아줄을 어깨에 메고 농악에 맞추어 "에해용" 소리를 하며 마을을 돈다. 주산돌기에 이어 오후 2시쯤 만조가 되면 마을 앞 백사장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용왕제는 무당이 "바다를 향해 재배"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바다를 향해 절을 하면서 시작한다. 이어 무당의 춤과 사설이 계속되며 여인들은 용왕님에게 먹일 '회식밥' 을 내오고 남자들은 띠배를 메고 나온다. 회식밥은 제수로 쓰인 음식들을 거두어 모아 물을 부어 만든 물밥이다. 마을 사람들은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띠배를 돌며 가래로 회식밥을 퍼서 띠배에 담고 가래질소리를 한다.

의의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배를 바다에 띄워 어로 · 교통 · 무역을 통하여 인류의 문화 발전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바다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위험한 곳이며, 그 뱃길은 인력을 초월한 외기의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선박의 수호와 선원의 보호, 그리고 풍어를 위하여 바다를 관장하는 수부의 용신과 선신에게 기원하고 고사를 지냈다. 이와 같은 제의는 오랜 전승으로 신앙성을 가진 용왕제로 정착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圖經, 多島海의 堂祭(崔德源, 學文社, 1983), 南道民俗考(崔德源, 삼성출판사, 1990), 남도의 민속문화(최덕원, 밀알, 1994), 한국의 풍어제(하효길, 대원사, 1998), 현장의 민속학(하효길, 민속원, 2003).

필자 | 최덕원(崔德源)

용이

정의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집에서 지내던 농사제(農事祭).

내용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인 정월에 정지간에 제물을 차려놓은 뒤 절을 하고 고축(告祝)으로 풍농을 기원했다. 함경도의 주택은 정지간이 있는 양통집이다. 정지간은 부엌과 방 사이에 있는데, 정지간의 북쪽 면에는 큰 선반을 여러 층으로 만들고, 그 위에 솥 · 그릇 등 주방기구를 모두 얹어놓았다. 이곳을 '조앙간' 이라고 부른다. 날씨가 추운 함경도에서 정지간은 거실 · 식당 · 찬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매우 유용한 곳이다. 북청사자놀이에서도 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했을 때 으레 정지간에 가서 악귀를 쫓고 복을 빌었는데, 이 때 정지간은 조왕신을 모셔두는 매우 중요한 처소였다. 보통 풍농을 위한 제의는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지내기도 하지만, 홍원에서는 개인적인 치성으로 자기 집의 풍농을 기원했다.

참고문헌 |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원구단천제(圓丘壇天祭)

정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에 있던 원구단에서 하늘과 땅의 여러 신들에게 지내는 제사.

유래 1897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조야(朝野)에서 황제를 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고종은 그 해 8월 12일 1895년에 만들어진 연호 '건양(建陽)'을 새로 세우라고 명하여 8월 14일 조정에서 '광무(光武)'를 새 연호로 정하였다. 이렇게 칭제(稱帝) 논의가 이루어지고 연호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圓丘壇) 제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 때 번듯한 제단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천지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서 원구단을 축조하여야 한다는 본격적인 주장은 9월 21일 장례원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제기하여 고종의 윤허를 받았다. 10월 1일에는 당시 남서(南署) 회현방(會賢坊) 소공동(小公洞)의 옛 남별궁(南別宮) 터를 제단 터로 선정하고 10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는 중에 재야의 유학자들과 조정의 대신들뿐만 아니라 시전(市廛) 상인들까지 황제를 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종에게 상소(上疏)와 주청(奏請)을 올렸다. 우리나라가 고래로 아름다운 문물과 제도를 보존하고 있고,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만국공법(萬國公法)에 비추어 보아도 자주국으로서 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고종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을 빌려 10월 3일 칭제할 것을 정하였다. 그 후 각종 제도와 의례를 황제국에 맞게 고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구단도 10월 11일 무렵에는 공사를 마쳐서 고종이 직접 그 곳에 가서 고유제(告由祭)를 지낼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돌아보는 행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정하였다.

내용 원구단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각형인 사직단(社稷壇)과 달리 원형이며, 또 사직단이 단층인 데 비해 3층의 단으로 되어 있다. 맨 아래층은 지름이 영조척(營造尺)으로 114척(약 43.2미터), 제2층은 72척(약 21.6미터), 제3층은 36척(약 10.8미터)이며, 각 단의 높이는 3척(약 0.9미터)으로 화강암을 쌓았으며 각 단의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다. 동서남북 네 방향에 단으로 오르는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각 단의 둘레와 계단에는 돌로 된 난간을 둘렀다. 단의 주위에는 돌과 벽돌로 담을 쌓고 동서남북 네 면에 홍살문을 내었는데, 그 가운데 남쪽 문은 홍살문 셋이 연이어 있는 형태이다. 맨 윗단과 가운데 단에는 신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붕을 설치한다. 외곽에는 제기를 보관하는 건물이나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건물들이 있고, 그 외곽에는 다시 담을 둘러 보호하였다.

원구단 각 단에 하늘과 땅, 그리고 일월성신 · 산천 · 자연에 관련된 신위(神位)를 그 위계에 맞게 모시고 제사를 드린다. 먼저 가장 윗단에 황천상제(皇天上帝)의 위패를 북쪽의 동편에서 남쪽을 향하게 모시고, 황지기(皇地祇)의 위패를 북쪽 서편에서 남쪽을 향하게 모신다. 가운데 단에는 해를 가리키는 대명지신(大明之神)의 위패를 동쪽에, 달을 가리키는 야명지신(夜明之神)의 위패를 서쪽에 모신다. 맨 아랫단에는 동쪽에 북두칠성(北斗七星), 오성(五星) 곧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 다섯 별, 이십팔수(二十八宿)와 주천성신(周天星辰) · 오악(五嶽) · 사해(四海) · 명산(名山) · 성황(城隍) 등의 위패를 모시고, 서쪽에는 운사(雲師) · 우사(雨師) · 풍백(風伯) · 뇌



원구단 황궁우 장주근

사(雷師)·오진(五鎭)·사독(四瀆)·대천(大川)·사토(司土) 등의 위패를 모신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오전 2시에 황실 종친과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경운궁에서 원구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황제위에 나아감을 고하였다.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단의 앞쪽 동편에다 남쪽을 바라보게 금의자[金椅]를 놓고 고종이 앉아 백관이 바치는 면복(冕服)을 입고, 어보(御寶)를 받은 다음 백관들의 국궁사배(鞠躬四拜)와 산호(山呼)를 받음으로써 황제가 되었다. 오전 4시 30분에 경운궁으로 돌아왔고, 낮 12시에는 경운궁에서 백관들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원구단 제사는 가장 격이 높은 대사(大祀)로서, 황제가 원구단에 친히 제사를 드리는 의식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장중하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윗단의 황천상제와 황지기의 신위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고, 울창(鬱鬯) 술을 올리는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세자와 대원군(大院君), 문무백관이 함께 참여하며 나머지 신위에 대해서는 분헌관(分獻官)이 예를 올린다. 예가 끝나면 참가자들이 제주를 나누어 마시는 음복(飮福)을 하고 축문(祝文)을 태우는 망료(望燎)를 한 다음 신좌(神座)를 다시 황궁우(皇穹宇)의 신위를 보관하는 함인 합호(闔戶)에 되모심으로써 전체 제사 절차를 마친다.

신위를 모시는 건물인 황궁우는 고종 35년(1898) 8월 말부터 상량문 제술관을 정하고 주초를 놓는 날을 정하는 등 건립이 추진되어 그 해 하반기에는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늘날 황궁우 서편에 남아 있는 돌북[石鼓] 셋은 1902년 고종 황제 즉위 40년, 보령(寶齡)이 망육순(望六旬), 곧 51세가 되는 것을 기념하여 설치한 것이다.

원구단에 황제가 친히 제사를 드리는 일은 그 후 정례적으로 행해지지 못하였다. 대개는 대신(大臣)을 보내어 대리로 제사지내는 정도였다. 1899년(고종 36) 12월 22일 고종이 원구단에 나아가 태조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로 높여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고 나서 원구단에서 하늘에 함께 지내는 큰 제사 겸 동짓날 큰 제사를 지냈다. 그 후에도 종묘나 사직에 제사드린 뒤에 고유(告由)를 하거나 참배하러 가는 정도였고, 고종 41년(1904) 1월과 11월 두 차례 건강과 장수를 비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다가 1908년(융희 2) 제사 제도를 개정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제사지내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그것은 지켜지지 못하였다.

원구단 제사는 중국의 제후국으로서가 아니라 천자의 제국으로서 직접 하늘과 교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제사였다. 하늘에 직접 제사지내는 제천의례(祭天儀禮)는 삼국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









〈원구단천제〉
1 분향
2 잔에 술을 따름
3 제단과 일무단(佾舞團)
4 분축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최호식

인다. 고려 성종 2년(983)에도 "왕이 원구(圓丘)에서 기곡제(祈穀祭)를 올리고, 몸소 적전(籍田)을 경작하였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으로 보아 천지에 제사지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원구제는 황천상제(皇天上帝)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천자국인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말 우왕(禑王) 11년(1385) 고려의 국가적인 의례는 제후의 의례에 따라야 한다는 당시 친명정책(親明政策)에 입각한 주장에 따라 제천의례는 폐지되었다.

조선 초기에 조선은 천자국이 아닌 제후국으로서 제천의례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명분론과, 이와 달리 농업국가로서 전통적 기우제(祈雨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갈려 몇 차례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였다. 태조 3년(1394)에 제후국의 예에 준하여 조선의 동방신인 청제(靑帝)에 제를 올리기 위한 원단이 설치되었고, 세종 원년(1419)에 실시된 원구제(圓丘祭)도 오랫동안 계속되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조선 초부터 억제된 제천의례는 세조 2년(1456) 일시적으로 제도화되어 고려의 원구단을 참작하여 세조 3년(1457) 원구단을 신설하였으나, 이 원구단 제사도 세조 10년(1464)에 실시된 것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의의 1897년 다시 건립된 원구단은 서양 제국 및 일본·중국에 대하여 자주독립을 지향하려 했던 대한제국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요, 원구단 제사는 그것을 의례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에 건립된 원구단은 1911년 그 건물과 부지가 조선총독부로 인계되었다. 원구단을 인수한 조선총독부는 1913년 원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건평 580여 평의 조선총독부 철도호텔을 지었다. 원구단이 헐리면서 자연히 원구단 제사 역시 단절되었다. 일제의 이러한 조치는 원구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제국과 더 나아가서는 조선의 정통성을 소멸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저의의 발로였다. 1968년에는 철도호텔 건물을 헐고 조선호텔 건물을 지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그 뒤편으로 황궁우와 석고 등만 왜곡된 형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高宗大禮儀軌.

필자 | 홍순민(洪順敏)

위도띠뱃놀이(蝟島—)

정의 위도띠뱃놀이는 전국민속경연대회 때 붙여진 이름이며 본래의 명칭은 대리원당제로서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에서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내는 마을공동제의. 원당제는 위도띠뱃놀이라는 이름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92-다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위도는 조기잡이시절 칠산어장(七山漁場)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대리원당제도 조기잡이가 한창이던 시절에 성황을 이루었다. 위도에 파시(波市)가 이루어지고 대리에서 풍어굿이 벌어지면 수많은 배들이 대리 앞 바다에 모여들었고, 중간 중간 돼지를 잡아가면서 5일씩이나 마을굿을 계속했다고 한다. 지금은 멸치잡이와 김양식으로 주업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조기잡이가 주를 이루었고 수많은 배들이 모여들어 파시로 성황을 이루었다.

위도에서도 대리원당은 바로 바닷가에 절벽을 이룬 듯한 당제봉 정상 바다 쪽을 향하여 있는데 멀리서는 마치 망루처럼 보인다. 제당에서는 바다가 넓게 보이고 바다 건너 격포, 곰소, 고창 지방 등의 내륙이 가깝게 보인다. 대리원당은 예전부터 기원을 드리면 뜻이 이루어진다 하여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영험이 많은 당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한때 그 앞을 지나는 배들은 잡시 멈춰 간단한 제사를 지내고 가거나 절을 하고 갔다고 한다.

대리원당제는 다른 해안 지방의 마을굿과 같이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굿으로서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날 정기적으로 지내고 있다. 원당굿을 주관해 온 사제무 역시 위도에 살았던 세습무였으나 그 무녀의 사망으로 세습무계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다.

제당의 이름은 원당(願堂)으로 마을의 왼쪽 편에 위치한 당제봉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당제봉은 바닷가에 심한 경사를 이루며 서 있는데 정상에는 잡목이 몇 그루 서 있고 그 가운데 3평 내외의 당집(맞배지붕의 기와집)이 지어져 있다. 당집 둘레에는 돌담을 쌓았고 입구는 약간 엇갈리게 되어 있어 제당의 노출을 막고 출입 때에 한번 더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제당 이름이 원당인 것은 원하는 것을 잘 들어 준다고 하여 소원을 비는 당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원래의 이름에서는 원당의


띠배

'원' 자가 원(願)이 아닌 원(元)으로 추정된다. 축문의 내용에 따라 '원당부인영대신(元堂婦人靈大神)'이라는 신명이 보이기도 하고 위도 진리나 식도 제당의 경우도 원당(元堂)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당은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가장 높은 주인 격의 당으로 본당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원당의 신령은 열두 서낭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당집 안에 모셔진 신령은 모두 열 분이다. 문 쪽에 모셔진 문수영대신 두 분에 이어 장군님 · 애기씨 · 옥지부인 · 본당마누라 · 원당마누라 · 물애기씨 · 신령님 · 산신님 등이다. 이 신령들은 각자 마을을 지키고, 잡귀를 물리치고, 바다에서 배의 안전과 풍어를 돕고, 아이들의 복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원당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리마을에서는 음력 섣달 10일께 마을의 정기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은다. 정기총회에는 마을이장 · 어촌계장 · 청년회장 · 띠뱃놀이(원당제) 보존회장 등 마을 지도급 인사와 배를 가진 여러 선주들이 참석한다. 정기총회에서 제의 규모 · 제비 추렴 범위 · 액수 등이 정해지면 바로 제관을 선정한다. 제관 선정은 제만(화장)과 원화장, 부화장 그리고 독축관을 정하는 일이다. 제의 비용은 선주와 마을 주민들이 공동부담하는데 몇 사람의 영세민을 제외하고 선주와 김 양식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차등 부과한다. 총비용이 거출되면 금액의 일부를 제물비로 제만에게 넘겨준다. 제만은 원당제 전날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 동네에 맞춰놓았던 돼지를 잡아 제숙(현지에서는 제물용 소나 돼지 또는 제단에 바칠 고기를 통틀어 제숙이라 함)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제물도 준비한다.

원당제를 지내는 초사흗날 아침 제만이 앞서고 무녀, 독축관, 영기(令旗), 제물을 진 화장, 농악대, 뱃기를 든 선주들 그리고 주민들 순서로 긴 행렬을 이루어 당산으로 오른다. 화장들의 도움으로 사제무가 제물을 차리면 곧이어 제만이 초에 불을 켜고 술잔을 올린 후 두 번 절한다. 원당제에서는 제관인 제만이 헌작, 헌배하고 축관의 독축으로 유교식의 당제사를 마치는 셈이 되고, 이어서 당굿으로 들어간다.

예전에는 원당제 전날 제관에 의해서 조용히 당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 당굿으로 들어갔는데 근래에 와서는 당제와 무굿을 복합시켜서 하고 있다. 원당제의 굿거리는 당굿(성주굿, 산신굿, 손님굿, 지신굿, 서낭굿, 깃굿, 문지기굿), 용왕굿, 고수레, 띠배보내기순으로 행해진다.

당굿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마을의 바닷가에서는 띠배를 만들어 놓고 용왕굿 준비를 마쳐놓는다. 당굿이 끝나면 사제무와 제관, 선주들은 당에 오를 때와 같은 순서로 당에서 내려온다. 당에서 내려오면서 산 중턱의 작은 당에서 한지에 싼 당밥을 묻고 바다에는 당밥(용왕밥이라고도 함)을 던지고 마을 요소요소와 우물 등에서도 당밥을 묻어 주거나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축원을 한다. 이것을 '마을돌기'라고도 한다.

마을돌기가 끝나면 바닷가에서 용왕굿이 시작된다. 바다 쪽에 띠배를 세우고 제물상을 차린 후 용왕굿을 하는데 이 때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된다. 용왕굿이 끝나면 큰 그릇에 허드렛밥을 만들어 바닷가 이곳저곳에 고수레를 한다. 그리고는 원당제의 마지막 절차인 띠배보내기를 한다.

띠배는 띠풀로 3미터 되게 크게 만들며 가마니


1


2

〈위도띠뱃놀이〉
1 원당제
2 마을돌기(당굿)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황현만

로 돛도 만들어 세우고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넣어 놓는다. 그리고 허수아비도 만들어 세운다. 띠배는 모선에 이끌려 호위선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는데 이 때 모선과 호위선 등에서는 농악과 술배소리, 가래소리 등을 하여 뱃소리가 바다에 퍼지고 호위선들이 뱃기를 휘날리며 마을 앞 바다를 휘젓는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대리원당제에는 악기가 장구와 징으로만 구성되고 전문잽이가 없는 것이 특색이다. 장구와 징은 농악대 중에서 능숙한 사람이 담당하기도 하는데 근래 와서 장구는 한 사람이 거의 고정적으로 맡고 있다. 그러나 위도지방의 굿도 원래는 전문잽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전 사제무도 큰 굿이 5일씩이나 열렸을 때는 젓대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사제무의 시집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문악사였다는 것도 이를 입증한다. 원래 남부(호남)의 세습무굿은 삼현육각을 잽혔으며 지금도 진도씻김굿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원당굿의 장단은 무가와 징 반주가 교체되며 진행되는 방식과 무가와 장구 반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방식은 굿이 시작할 때 쓰이고, 이어서 둘째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장단은 대체로 처음에 빠른 4박자로 시작해서 3박자로 바뀌면서 느려지다가 다시 4박자나 2박자의 빠른 장단으로 바뀐다.

원당굿 굿춤은 신칼춤과 느리베(긴무명천)춤을 들 수 있다. 신칼춤은 굿 진행 중에 어깨 위를 걸쳤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다가 굿거리가 끝나면서 양손에 하나씩 칼을 나누어 들고 양팔을 좌우로 흔드는데 이 때 어깨를 위로 들어주는 듯 좌우로 움직이고 고개짓도 같이 한다. 느리베춤도 같은 형식으로 긴 천을 잡고 양쪽으로 흔든다.

의의 원당제는 제의 과정을 3개 마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첫째 과정은 당산(원당)의 당굿으로 선주들이 뱃신(神)을 모셔가는 종교적 마당으로 선주중심 · 남성중심의 기원적 제의이며, 둘째 과장은 마을돌기로 당굿과 용왕굿을 공간적 · 시간적으로 연결하면서 각 처소신들에 대한 위무와 농악의 연행마당이고, 셋째 과정은 바닷가의 용왕굿과 띠배보내기로 액(厄)과 고혼을 달래





1 띠뱃놀이
2 띠배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황현만

보내는 여성중심의 가무마당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화합의 마당이라 할 수 있고 음악과 놀이마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용왕굿 때에는 농악대도 여자들로 구성되고 춤과 노래판도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성주도의 용왕굿이지만 마을의 온 주민이 빠짐없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蝟島의 民俗(국립민속박물관, 1984), 위도띠뱃놀이의 현황과 전망(하효길, 比較民俗學13, 比較民俗學會, 1996), 韓國 西海岸一帶의 海岸信仰(河孝吉,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硏究, 國立全州博物館, 1998).

필자 | 하효길(河孝吉)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서 열리는 마을공동제의.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이다. 은산별신제는 유교식 제례(儒敎式祭禮)와 무굿이 결합된 복합 형태의 제의이다. 산제는 매년 거행되고, 3년마다 한 번씩 대제(大祭)를 정월 또는 2월에 지내는데 이때를 별신이라 한다.

유래 은산별신제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지내게 되었는지, 그 기원이나 유래에 대하여 고증할 만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별신제의 유래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구비전설에 의해 제의 발생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옛날 은산지방에 유행병마(流行病魔)가 들어와 많은 사람이 죽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근심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의 한 노인이 잠시 낮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마루에 앉아 있으려니 한 신선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

서 하는 말이 "이 마을에 병마가 들어 근심인 것을 풀어 줄 터이니 나의 청을 들어 주겠느냐?" 했다. 마을 노인은 "병만 없어진다면 무슨 청이건 듣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신선이 "나는 내 부하와 함께 억울하게 죽었으나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풍우(風雨)에 시달리고 있으니 잘 매장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 장소를 가리켜주고 사라졌다. 깜짝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다. 노인은 바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꿈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르쳐 준 장소를 찾아가 보니 과연 수많은 전사의 백골들이 산재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골들을 잘 매장하고 그 원귀를 위령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랬더니 병마는 없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이 제사를 별신제라 부르며 별신제에는 죽은 장병을 위령(慰靈)한다는 뜻이 있다.

둘째, 옛날 은산은 역촌(驛村)이었다. 그런데 마을 청년들이 17~18세면 병을 얻기가 보통이고, 가축도 낳아서 세 달이면 죽는 일이 많았다. 어느 날 은산의 한 노인이 잠시 잠이 들었다. 이 때 꿈에 노장군(老將軍)이 나타나 "나는 백제의 장군인데 나의 백골이 모처에 흩어져 있으니 잘 묻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꿈에서 깬 노인이 죽은 백제 장군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승전(勝戰)의 모의의례로 별신제를 지내었다. 별신제할 때에 군복을 입고 승마하여 진을 치듯 오방(五方)을 도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산제(山祭)는 매년 거행하나 경비가 많이 드는 별신은 3년 만에 한 번 한다고 한다.

셋째, 옛날 은산은 진터였다. 큰 난리가 나서 이곳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장병들의 원혼을 위안하기 위하여 별신제를 지내었다. 그 후로 마을이 편안하고 모두 무병(無病)하며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내용 은산리의 당(堂)에는 복신(福信)장군과 토진(土進)대사의 영정이 걸려 있다. 두 사람이 백제의 부흥을 위해 싸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은산별신제는 원혼을 위로해서 제화초복(除禍招福)하려는 역사적 향토제의임을 알 수 있다. 은산별신제는 죽은 장군의 혼령을 위로하여 병마를 퇴치하고 마을의 태평을 도모한 수호신제(守護神祭), 다시 말해 민속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군대의식을 더한 장군제적 또는 수호신제적 성격을 띤 것이 특징이다.

은산리 북쪽에는 당산이 있고 당산 아래턱에 별신당인 상당(上堂)이 있다. 별신당 내부에는 무신도와 복신장군신위 · 산신신위 · 토진대사신위라고 쓴 위패가 있다. 하당은 별신제가 행해질 때 임시적으로 만들어진다. 별신제의 주요현장인 하당은 은산 장터였다. 은산별신제는 택일하여 별신제 곧 '진대[陣木]'를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물봉하기, 조라술 담그기, 집굿, 상당굿, 본제, 독산제, 장승제, 하당굿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에 진대베기 등 군대의식이 남아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하다. 의식 과정에서는 제관이 목욕재계하고 정성껏 제물을 만들어 제의에 참여하는데 이는 엄격한 금기와 신성을 지키는 의미가 강하다. 제의에 앞서 마지막 날 장승 옆에 세울 진대를 만들어 제의 기간 동안 음식을 만드는 화주집에 세워 둔다는 점이 다른 제의와는 다르다. 제사 전날에는 꽃받기 행사가 있다. 한 달 전에 향을 보아 정갈한 집에서 신령께 올릴 지화(紙花)를 만들게 하고, 이 꽃을 받아 운반하는 절차다.

은산별신제의 핵심요소는 제물을 올리고 밤에 지내는 상당(上堂)굿과 다음 날 마을로 내려와서 수령 수백 년이 되는 당수(堂樹) 아래에서 지내는 하당(下堂)굿이다. 제물을 진설(陳設)하고 나면 화주만당을 지키고 일행은 저녁을 먹고 밤이 되면 다시 모여 굿을 하는데, 이 때가 별신제의 핵심이다. 무녀가 무가를 노래하고 춤을 추면 굿판에 세운 사명기가 흔들려 꼭대기에 달려 있는 방울이 울려 강신(降神)했음을 알린다.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임원들은 몇 번이고 근처 흐르는 냇물에 들어가 목욕재계를 하고 신한테 다시 빌어야 한다. 신이 내릴 때까지 굿과 목욕재계가 반복된다. 화주 등의 주역은 말할 것도 없고 임원과 주민들까지도 금기와 재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별신제 전반에 걸쳐 정성과 경건함이 뒤따르고 정결함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다만 하당굿이 벌어지는 굿판에는 누구나 참여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다. 상당굿의 폐쇄성에서 하당굿의 개방성이 성(聖)과 속(俗)으로 어울려 대동적 축제의 내용을 담아내는 데 있다.

은산별신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고두백배(叩頭百拜)'와 이 때 울리는 가락이다. 고두란 머리를


















〈은산별신제〉
1 장승깎기
2 은산별신제 깃발
3 제물 준비
4 제주(조라술) 준비
5 꽃 만들기
6 진대베기
7 꽃받이
8 제물 운반 행렬
9 별신당에 제물 진설
10 돼지와 닭을 삶아 올림
11 별신당제
12 별신당 상당굿
13 대내림
14 하당굿
15 독산제
16 장승제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황현만

숙여 땅에 닿도록 하는 절로 위엄 있는 신이나 어른께 하는 최상의 경의 표시다. 백배란 절하고 일어서기를 100번 반복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개를 세 번 끄덕인다. 곧 한 번에 세 번 절하는 셈이 되고 이렇게 33번을 하고 1배를 더해 100번을 채운다. 이처럼 고두백배란 말은 있으나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데, 은산별신제에서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어 주민들의 정성과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다. 별신제가 고풍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상당굿에서 신이 내리면 소지(燒紙)를 올리는데, 이 때 제관이 마을 세대주를 한 사람씩 호명하면서 소지를 올린다. 마을의 태평과 마을 사람들의 제화초복을 기원하기 위해 동민 모두의 소지를 올리는 것을 보면, 별신제가 동민 모두의 안녕을 비는 제의인 대동굿으로 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일반 축제에서는 동축(洞祝) 한 장으로 끝나는데, 은산별신제에서는 동축 외에 100여 명에 이르는 세대주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 가족들의 안녕까지 비는 동민축문(洞民祝文)이 따로 있다. 또 제물과 함께 올렸던 지화는 제의가 끝나면 동민과 경비를 기부한 가정에 나누어 주는데, 별신꽃을 꽂아 두면 재앙이 없고 가내가 태평하다고 해서 집 안에 잘 보관한다. 전사한 옛 장병들의 위령제 성격이 마을 제사로 자리잡아 공동제의의 목적성에 부합하고 있다.

의의 은산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풍요다산에 대한 기대감과 상무우사의 보부상 집단 등 시장 번영의 활성화를 중시했던 곳이다. 은산별신은 시장의 번창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대상으로 은산별신제는 동민 모두가 참여하고, 그들에게 정신결집의 의지가 되는 대동굿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은산별신제는 향토신제(鄕土神祭)가 목적하는 제화초복을 그대로 반영한 일면도 있다. 또한 원혼을 위무함으로써 안태(安泰)를 이루는 민속신앙의 성격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學論攷(任東權 著, 集文堂, 1971), 重要無形文化財解說 -놀이와 儀式 篇-(文化公報部 · 文化財管理局, 1985), 은산별신굿(임동권 외, 悅話堂, 1986), 恩山別神祭 綜合實測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98), 한국의 보부상(이창식, 밀알, 2001), 은산별신제(이필영, 화산문화, 2002).

필자 | 이창식(李昌植)

장동산디마을탑제(長洞—塔祭)

정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에서 정월 열나흗날 저녁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돌탑에서 마을의 평안을 비는 마을공동제의. 거리제의 일종인 산디마을의 탑제는 마을 길목 돌탑에서 재액과 병마를 차단하고 마을 사람들의 무탈과 안녕을 비는 제의이다.

어원 노제(路祭)의 일종인 탑제는 제의 대상 신체(神體)가 탑(塔)의 형상을 한 데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성북동을 비롯하여 삼정동 · 직동 · 용호동 등에 탑이 남아 있는데, 이 또한 제의 이름이 탑제이다. 곧, 탑을 대상으로 올리는 의식인 데서 탑제란 이름이 나온 것이다.

유래와 역사 장동산디마을탑제의 유래에 대한 정확한 역사 기록은 없다. 제보자 가운데에는 마을의 형성과 같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마을 관련 문헌이나 금석문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탑제의 주체, 이를테면 제의를 주관하는 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탑제가 존재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쉽게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장동산디마을의 탑제는 해방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장동산디마을의 탑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 8시 무렵에 지낸다. 장소는 마을 입구 숲거리의 남녀 돌탑 앞에서이다. 돌탑은 한 쌍으로 각각 할아버지탑과 할머니탑이다. 이들 돌탑은 자연석을 밥그릇을 뒤집어놓은 형태로 쌓아올렸다. 마을 입구에서 보았을 때 좌측 길가의 탑을 할아버지탑, 개울 건너 느티나무 곁에 쌓은 탑을 할머니탑이라 한다. 탑은 길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위치하면서 길목을 지키는 일종의 거리신이다.

산디마을 사람들은 이 탑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병마의 퇴치를 기원한다. 예전에는 홍역이나 돌림병과 같은 질병의 차단을 가장 비중있게 생각하였다. 근래에는 마을의 평안과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농사의 풍작을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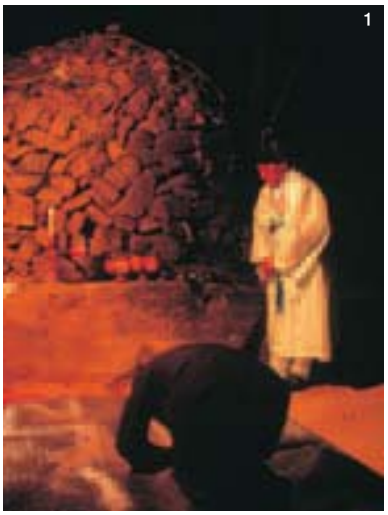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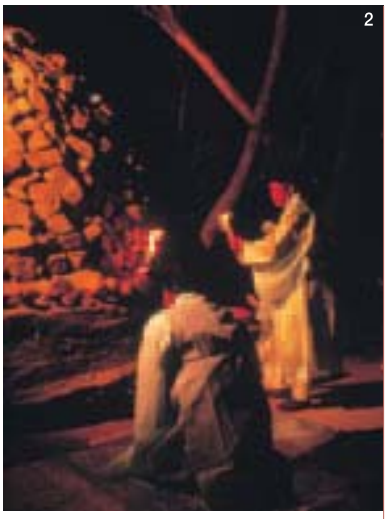
탑제는 공양주가 중심이 되어 제를 지낸다. 공양주 외에 제관은 축관과 짐꾼이다. 이들은 마을회의에서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은 깨끗한 사람이다. 이 때 깨끗한 사람은 행위부정이나 피부정, 출산이나

상사부정과 같은 부정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을 피하기 위하여 근신한다. 또 제의 사흘 전부터 목욕하는 등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아울러 공양주는 제장의 탑에 왼새끼를 둘러 부정을 쫓고 탑의 좌우에 황토를 뿌린다. 황토는 할아버지탑을 중심으로 안팎의 길가에 15~30미터 가량 길게 늘어놓는다.

탑제 수행을 위한 비용은 걸립을 통하여 마련한다. 걸립은 마을의 풍물패가 중심이 된다. 근래에는 제를 지낸 후 비용을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분담케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또 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기도 한다. 제물은 백설기, 불밸끼쌀(발밝이쌀), 대추, 밤, 배, 곶감, 포 등이다. 탑제의 음식은 산제와 달리 음식을 익혀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탑이 2기이므로 상을 둘 보아야 한다. 한 번 올린 음식은 다른 상에 올리지 않는다.

제의의 진행은 저녁을 먹은 후부터 시작된다. 마을의 풍물패가 공양주의 집에 몰려와 한바탕 풍물을 친다. 처음, 마당 가운데에 큰 물그릇을 놓고 풍물을 친 뒤 샘으로 가 샘굿을 친다. 이 과정에서 상쇠는 "물 줍쇼! 물 줍쇼! 사해용왕님 물 줍쇼!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 동해물도 따르고 서해물도 따르고, 맑은 물만 출렁출렁!" 하면서 소리를 매긴다. 이어 풍물패가 부엌으로 가 조왕굿을 친다. 역시 상쇠가 "물 줍쇼! 물 줍쇼! 조왕님은 물 줍쇼! 누립쇼! 누립쇼! 만복을 누립쇼!"라 하면서 풍물을 이끈다. 이처럼 지신밟기 성격의 실연을 한 뒤 풍물패는 마을 공동샘으로 간다. 그리고는 공양주의 샘에서 한 것처럼 다시 샘굿을 흐드러지게 친다.

마을의 풍물패가 치성과 샘고사를 지내는 동안 공양주와 그 일행은 미리 탑제의 제장에 나와 제 지낼 준비를 한다. 먼저 할아버지탑 앞에 제물을 진설한 후 제의를 진행한다. 제의 순서는 처음 분향 후 공양주의 헌작으로 시작된다. 잔을 올린 후에는 축관이 축을 읽어 마을의 평안과 운수대통을 축원한다. 이어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는 순서를 보면, 먼저 할아버지탑 소지를 올리고, 이어 대동 소지와 공양주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의 연령대를 몇 개의 단위로 묶어 노인 소지, 장년 소지 순으로 소지를 올린다. 이렇게 소지올림이 끝나면 참석한 제관 모두 일어나 참배함으로써 사신을 한다.

〈장동산디마을탑제〉
1 재배
2 소지올리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산디마을 강성북

이어 제관 일행은 장소를 옮겨 개울 건너의 할머니탑으로 가서 할아버지탑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례를 진행한다. 다만 소지올림에서 차별성을 보여준다. 할머니탑에서는 맨 처음 할머니탑 소지를 올리고 이어 청년 소지, 어린이 소지의 순으로 소지를 올린다. 맨 뒤에는 우마(牛馬) 소지를 올려 마을의 육축이 번성하기를 소망한다. 소지 올릴 때의 기원 내용을 옮겨본다.

> 이 소지는 다른 소지가 아니오라, 동네 어르신네 오래오래 사시고 만수무강 하옵기를 바라는 소지이오니, 오래오래 살아주시길 간절히 부탁하옵니다. …… 이 소지는 다른 소지가 아니오라, 어린아이들 젖 잘 먹고 일년 열두 달 감기 앓지 말고, 편안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소지입니다. 이 소지는 다른 소지가 아니오라 우마 나갈 적에 빈 발이요, 들어올 적에는 한 발씩 싣고, 그득그득 실어갖고 들어와서 가정마다 부자 되길 바라는 소지이오니, 아무쪼록 소도 건강하고 병 없이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소지올림이 끝난 뒤 공양주는 소지종이에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가운데에 놓고 접어 싼 다음 탑의 맨 위에 올려놓는다. 또는 나뭇가지 등에 걸어놓거나 나뭇가지와 가지 사이에 끼워놓기도 한다. 이후 머릿돌에 길지(吉紙)를 꽂아놓는다. 그리고 나서 물이 담긴 바가지에 제 지낸 음식을 골고루 떼어 담은 뒤 마을 밖으로 뿌리는데, 이것을 '해물' 또는 '해물이'라 한다. 해물이가 끝나면 부엌칼을 마을 밖 길 쪽으로 던진다. 칼의 위치에 따라 길흉을 판단하며, 흉한 결과가 나오면 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제의가 모두 끝난 뒤에는 할아버지탑 인근의 공터에 제 지낸 음식을 옮겨놓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 때에는 제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별도의 푸짐한 음식을 장만한다. 또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한쪽에 크게 짚불을 피워 추위를 쫓기도 한다. 이 과정은 뒷풀이로 볼 수 있으며 풍물패가 풍물을 치는 등으로 흥을 돋우기도 한다.

의의 탑제는 무엇보다 마을을 단위로 한 공동체신앙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대개 공동체신앙은 공동체의 공동 목적에서 출발한다. 이를테면, 농경단위 공동체가 풍년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공동의 목적 추구가 그것이다. 장동산디마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마을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다. 계족산(鷄足山) 산자락에 50여 호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 주위의 평탄한 곳이 논과 밭이다. 1970년대 이전만 하여도 이 마을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농경을 생업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들 공동의 목적은 농사의 풍년과 가축의 번성이었다. 이같은 그들의 소망을 산제와 탑제를 통하여 발원하였다. 요컨대, 장동산디마을의 탑제는 마을공동체의 소망을 수용하는 공동체신앙이었다.

참고문헌 | 大田市 周邊部落의 民俗信仰 硏究(朴桂弘, 文化人類學6, 韓國文化人類學會, 1973 · 合倂號), 내고장의 뿌리(충청남도 대덕군, 1987), 大田市史4(대전직할시, 1992), 한밭의 마을신앙(대전직할시향토사료관 학술총서1, 대전직할시향토사료관, 1993).

집필자 | 박종익(朴鍾翼)

장승제(長丞祭)

정의 마을 입구나 사찰 입구 또는 길가에 세워진 장승을 대상으로 지내는 마을공동제의. 장승은 마을제의 주신(主神) 또는 하위신(下位神)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며, 솟대 · 돌무더기 · 신목(神木) · 서낭당 · 선돌[立石] 등과 함께 마을제의 복합문화를 이룬다. 전라도 및 경상도 해안에서는 장승 · 장성 · 벅수 · 벅시 · 법수 · 법시 · 당산할아버지, 충청도에서는 장승 · 장신 · 수살막이 · 수살이 · 수살목, 경기도에서는 장승,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댱승 · 돌미륵,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 · 우석목(偶石木) · 옹중석(翁仲石) · 거오기 · 거액(去厄)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전해 오고 있다.

유래 장승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신라와 고려시대의 장생(長生) · 장생표주(長生標柱) · 국장생(國長生) · 황장생(皇長生) 등이 문헌과 실물로 전하여 오지만, 현존 장승과 형태나 기능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생(柱) · 장승[長丞 · 長承 · 長柱] · 장생우(長柱偶) · 후(堠) · 장성(長性 · 長城) · 장선주(長先柱) · 장선(長先 · 長仙) · 댱승 · 쟝성 · 장신 등 다양한 명칭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최세진(崔世珍)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노표인 후(堠)를 '댱승후'로 새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장승'이라는 명칭이 16세기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민간에서는 자기 딸과 관계를 가진 '장승상'을 징계하기 위해, 사람들이 나무 인형을 세워 그 앞을 오가면서 침을 뱉고 이를 장승이라 불렀다고 하는 유래담이 전하여 온다.

장승의 기원설로는 사찰의 토지 경계표시에서 나온 것이라는 장생고표지설(長生庫標識說), 솟대 · 선돌 · 서낭당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고유민속기원설과 북방기원설 · 남방기원설 · 환태평양기원설 등과 같은 비교민속기원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조선전기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면, 노표(路標)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수(里數)와 지명을 기록한 후(堠)를 10리 · 30리마다 세우도록 법제화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후가 노표와 함께 장생(長柱)을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나 김수장(金壽長)의 『해동가요(海東歌謠)』 등에는 후와 장생을 혼용하고 있다. 이로 보아, 장승이 노표인 후에서 유래된 것은 아닌지 추측되기도 한다. 위의 문헌으로 목장승이 16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성행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의 석장승이 1689년,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실상사(實相寺) 석장승이 1725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아, 석장승은 17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및 지역사례 장승은 흔히 나무나 돌로 만들어져 마을의 수문신 · 수호신, 사찰이나 지역간의 경계표, 이정표 등의 역할을 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1 장승제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망미리
황헌만

2 장승제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3리
김영한

있다. 나무기둥이나 돌기둥의 상부에는 사람 또는 신장(神將)의 얼굴 형태를 그리거나 조각하고, 하부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등의 글씨를 새기고 그 아랫 부분이나 뒷부분에 작은 글씨로 이수(里數)를 적어 놓기도 한다. 보통 남녀 쌍이 마주 서 있다.

장승제는 장승에게 지내는 마을제의 하나이다. 장승은 마을수호신이기도 하지만 산신·당산·서낭 등 마을의 주신에 부수적인 하위신일 경우 마을제의 일부로서 지내기도 한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산신제를 모시는 날 이른 아침 동네 남자들이 모여 오리나무를 골라 잘 다듬어 천하대장군·지하대장군의 장승 한 쌍을 만든다. 가느다란 나무 위에 새를 깎아 앉힌 솟대도 만들어서 동네 입구에 장승과 함께 세운다. 길가 쪽에는 천하대장군을, 안쪽으로 지하대장군을 서로 눈을 마주보게 세우고 고사를 지낸다. 과거에는 무당굿을 하였지만 요즈음은 주민들끼리 고사만 지내는데, 이때의 분위기는 매우 떠들썩하고 흥겹다. 자정이 되면 마을의 대표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올린다. 장승제에 비하여 산신제는 말없이 조용한 가운데 엄숙하게 행하여진다. 마을의 주신인 서낭과 산신은 당집이나 산정에서 엄숙한 유교식으로 모시고, 장승제는 떠들썩하게 마을 입구에서 잡귀를 물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엄미리 외에도 강원도·충청도 내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무당을 불러 마을굿을 하는 경우에는 산신을 모시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굿(돌돌이, 고을맞이 등)을 할 때 장승을 모신다. 또한 남녀 장승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수원, 인천, 부천 등 경기 이남 지역에서는 동방청제장군·남방적제장군·북방흑제장군·서방백제장군 등 4개의 장승을 깎아 마을 사방에 세우고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단, 중앙황제장군은 깃발만 만들고 세우지는 않는다. 장승제를 지낼 때, 주민들이 풍물패와 함께 사방을 다니면서 떠들썩하게 제사를 올리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장승제의 목적과 기능은 장승을 매개로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고 공동 참여를 통한 주민간의 결속을 다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民族文化의 硏究(孫晉泰, 乙酉文化社, 1948), 長柱(李杜鉉, 空間, 1970), 韓國의 鄕土信仰(張籌根 著, 乙酉文化史, 1975), 韓國의 장승(李相日, 悅話堂, 1976), 裨補長柱의 起源과 觀念에 대한 試論(辛鍾遠, 史學硏究31, 韓國史學會, 1980), 장승의 기원과 변천시론(李鍾哲, 梨花史學硏究13·14, 이화사학연구소, 1983), 벅수信仰 現地調査(李鍾哲 外, 國立光州博物館, 1985), 장승의 현지유형에 관한 시고(李鍾哲, 韓國文化人類學17, 韓國文化人類學會, 1985), 장승제(황루시, 평민사, 1986), 장승祭의 信仰體系(李鍾哲, 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II, 一志社, 1987), 장승(李鍾哲 外, 悅話堂, 1988), 남녘의 벅수(이종철 외, 호남문화사, 1990), 장승의 문화적 의미와 상징(李鍾哲, 역사민속학2, 한국역사민속학회, 1992), 장승·솟대의 역사(천진기, 韓國民俗史論叢, 지식산업사, 1996), 大將軍信仰의 硏究(任東權, 民俗苑, 1999), 장생표의 성격과 기능 검토(박호원, 생활문물연구10,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박호원(朴昊遠)

정제(井祭)

정의 마을 공동우물의 정갈함과 무궁함을 빌기 위해 지내는 마을공동제의. 샘제·샘고사·샘굿·우물제·정호제(井戶祭)·용수제(龍水祭)·우물굿·우물고사라고도 한다. 정초나 2월, 7월, 10월 상달(上月) 중에 날을 잡아 제물을 장만하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의례를 행하는 것으로

용신신앙(龍神信仰)·정수신앙(淨水信仰) 등과 관련된다.

내용 마을신앙에서 우물굿·샘굿·정제(井祭)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특히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정초에 묵은 물을 퍼내고 새물을 괴게 하여 지내는 우물굿은 언제나 신선한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종교의지의 표현이다. 산제당 옆에 있는 당샘의 경우에는 동제 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하위신으로서 함께 위해지지만, 마을에 따라서는 마을 가운데 자리한 공동우물이 중심이 되는 우물제·우물고사·정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또한 정초에 행하는 지신밟기에서는 각 가정의 샘굿을 쳐주기도 하고, 가신의례를 행할 때에도 우물의 신[井神]에 대한 의례를 행한다. 의례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먼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그 옆에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때로는 무당을 불러 샘굿을 하기도 한다. 샘제[井祭]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농악을 치고 샘가를 돌면서 고사덕담(告祀德談)을 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정제는 전 지역에서 행해진다.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2리 용왕제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아낙네들이 밥, 나물, 떡을 마을 공동우물에 놓고 그 해 수해(水害)가 나지 않고, 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치성을 들인다.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샘고사의 제일(祭日)은 정월 14일이다. 제주(祭主)는 제관과 공양주인데, 3일 전 생기복덕에 따라 선출된다. 제주가 지켜야 할 금기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당일 아침, 이들이 주최가 되어 샘을 퍼 올리고 주위에 금줄을 친다. 본격적 제의는 해질 무렵부터 이루어지는데 공양주는 백설기, 돼지머리, 삼색실과, 포, 청주 등을 진설하고 제관은 헌작한다. 이어 은적사(恩積祠)의 보살이 축원과 소지를 올린다. 축원은 용왕님 축원과 독경(讀經)으로 진행되며, 소지는 용왕소지, 만동소지, 개인소지순으로 올린다.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에서는 정월 첫번째 드는 용날[上辰日]에 용왕에게 정제사(井祭祀, 우물제사)를 지내는데, 우물고사를 지내기 시작한 지 대략 300여 년이 되었다. 만일 초진일(初辰日)에 상(喪)이나 부정한 일이 생기면 그날 제사를 지내지 않고 다음 진일(辰日)로 연기한다. 제사를 지내는 아침에 생기복덕을 보아서 좋은 사람으로 제관(祭官, 일명 당주)과 축관(祝官)을 따로 뽑는다. 제관은 부부 두 사람의 생기복덕이 다 좋아야 하는데, 동갑내기 부부는 남자 하나를 봐서 좋으면 더 볼 것도 없이 좋다. 당주로 뽑힌 사람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부인도 목욕재계를 한다. 그리고 당주가 황토를 펴서 자기 집부터 우물 있는 곳까지 뿌리고, 오방기(五方旗)를 우물로 들어가는 양쪽에 꽂으면 바로 제사가 시작된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당일 아침에 당주집에서 준비하며, 비용은 집집마다 갹출한다. 장은 서정리에서 보는데, 상(喪)을 당한 가게는 피하고 깨끗한 집에서 장을 본다. 제물은 백설기, 밤, 대추, 곶감, 소머리, 북어 3마리, 조라술, 탕 등을 준비한다. 탕은 원래 삼탕(三湯)을 준비했는데, 요즘은 무를 넣고 하나만 끓여서 다시마로 덮어둔다. 조라술은 밥을 고슬하게 지어서 감주(甘酒) 만들듯이 엿기름과 누룩을 조금 넣고 제삿날 아침에 당주가 만든다. 떡도 예전에는 당주집에서 직접 절구로 찧어서 떡가루를 만들어 썼지만, 근래에는 서정리의 떡집에서 주문한다. 그





1 물부르기제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수룡마을
국립민속박물관

2 우물고사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국립민속박물관

리고 창호지를 준비하는데, 제물을 덮어두고 축문과 소지 올릴 때 쓸 것까지 3장을 사온다. 제사는 낮 12시쯤 시루떡이 다 쪄지면 그 때 지낸다. 남자들만 우물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여자들은 가지 않는다. 정제사에는 초 대신에 들기름을 종지에 덜어서 창호지로 심지를 꼬아 삼발이를 만들어서 불을 붙인다. 제상을 차리고 잔을 부셔서 우물에 넣고 절을 한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린다. 먼저 용왕님 소지를 올리고, 대동(大同)소지 · 당주소지를 올린 다음에 동네 각 집의 소지를 호수(戶數)에 맞게 올린다. 예전에 소를 키울 때는 소의 소지도 따로 올렸지만, 요즘은 하지 않는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우물에 넣고, 우물을 떠서 당주집으로 간다. 정제사를 지낼 때 농악은 하지 않는다. 가져온 제물은 집집마다 호당 얼마씩 나누어 준다. 정제사에 쓰이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정묘(丁卯) 정월 무진삭(戊辰朔) 10일에 삼가 유학(幼學) ○○을 시켜 감히 정령(井靈)의 신위(神位)에 밝게 고합니다. 부성(釜城)의 남쪽, 학산(鶴山) 아래에 있는 동령(東嶺)동은 천년 전에 터를 잡은 곳입니다. 거주인이 모여 있고 우물 파서 물마시며, 47호 나열해 있는데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용왕이 임어(臨御)하여 복을 내림이 충만하고, 집집마다 태평하고 사람마다 안락합니다. 자손은 창성하고 육축(六畜)은 번성하며 인물(人物)은 다 편안하고 겸하여 풍년이 들 것을 축원하니 농업과 양잠업이 풍년들고, 크고 쾌활한 것을 좋아하니 경사는 이르고 재앙은 사그라졌으며, 화가 바뀌어 복이 돌아오니 주년(周年)마다 오는 재앙은 모두 창해(滄海)로 축출되고, 조모(朝暮)의 변고는 월산(越山)에서 없어졌습니다. 해마다 길일을 가려 이 미성(微誠)을 드립니다.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과 자성 등 여러 가지 물품으로 진설하여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維歲次丁卯正月戊辰朔十日謹使幼學 ○○○敢昭告于 ○○○井靈之位釜城之南鶴山之下洞 是東嶺千年攸基居人萃集鑿井以飮戶列四七父老童稺龍王臨御降福洋洋家家泰平人人安樂子 孫昌盛六畜繁殖人物咸寧兼祝大有農桑豊登大好快活慶臻災消殃禍轉福回周年之禍逐滄海朝 暮之變滅於越山年年抃吉獻此微誠謹以牲幣盛庶品式陳明薦 尙 饗

샘굿은 지역적 차이를 보이는데, 중부 지방에서는 도당굿을 행할 때 우물굿을 제차로 다룬다. 호남 지방에서는 마을에 풍물굿을 칠 때 우물고사를 행하며, 영남 지방에서는 동제나 별신굿이 있을 때 신간(神竿)을 앞세우고 우물에 가서 우물굿을 행한다. 지역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위하는 제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의의 마을신앙의 하나인 정제(井祭)는 용신신앙 · 정수신앙 등과 관련된 의례로 물-달-여성 등 음의 상징 원리로 기제하여 풍농기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리시설이 미흡할 때, 자연에 의지하여 물을 섬기던 신앙이 발전해 의례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오늘날에도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대동성을 바탕으로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民俗大觀3 -民間信仰 · 宗敎-(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民俗論攷(張籌根, 啓蒙社, 198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 1994), 平澤 關防遺蹟 I -情密地表調査報告書-(平澤市 · 京畿道博物館,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김지욱 외, 전국문화원연합회 · 경기도지회, 2002).
필자 | 김지욱(金志昱)

조왕고사(竈王告祀)

정의 가옥의 부엌에 자리한 조왕신에게 지내는 가신의례. 조왕은 조신(竈神) · 조왕각시 · 조왕할망 · 조왕대신 · 부뚜막신이라고도 한다. 신체(神體)로는 조왕중발 또는 조왕보시기라 하여 사기종지에 정화수를 떠 올리기도 하지만 신체가 없는 '건궁조왕' 도 흔하다.

유래 조왕신앙은 일찍이 중국 고대에 나타나 5~6세기에 신앙으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며, 일본 특히 오키나와 등지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조왕신을 '가마도[竈, 부뚜막] 신' 이라 하여 집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의 기능을 믿고, 중국에서는 조왕신을 재복신(財福神)의 으뜸신으로 여기며 축귀의례인 나례(儺禮)에도 조왕이 등장한다. 흔히 조왕신은 섣달 그믐 무렵에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지난 일년의 일을 고한다는 말이 있다. 이때 각별히 말조심을 하고 때로 부뚜막에 엿을 붙여두기도 한다. 이는 입을 막기 위함인데, 중국에서 전

1 조왕고사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황현만

2 조왕고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학봉마을
국립민속박물관





래된 설화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염제(炎帝)를 조왕신으로 보고 부인과 여섯 딸이 있다고 하며, 또 8월 3일이 생일이라고 하는 등 인격을 가진 신으로 간주하였으며,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을 조왕신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에서 대문신(大門神)인 남선비의 본처가 조왕신이고, 첩이 변소신이다. 그래서 본처인 부엌신과 첩인 변소신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내왕하면 탈이 난다고 하는 신화적 설명이 있다.

이능화(李能和)는 조왕신앙을 단군(檀君)의 신시(神市)에서부터 유전(流傳)된 것이라 했고, 임동권(任東權)은 중국에서 유래하였다고 보았으며,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조왕의 명칭이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의 화신성(火神性)에 대해서는 인류 공통의 인식체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신앙의례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영향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상징적 의미는 범세계적이고 원초 이래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내용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조왕제를 지내기도 하고 안택굿이나 시루고사 · 집고사, 지신밟기 때에도 다른 가신과 함께 조왕에게 의례를 행하지만 평상시에도 조왕중발의 물을 매일 아침 갈아 올리고 별식이 생기면 조왕에게 먼저 올리는 것으로 신앙의례를 표현한다. 가옥의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에게 지내는 가신의례로 조왕은 조신 · 조왕각시 · 조왕할망 · 조왕대신 · 부뚜막신이라고도 한다. 신체의 형태는 조왕중발 또는 조왕보시기라고 하는 사기종지를 부뚜막 위에 올려놓거나, 부뚜막 벽에 제비집 모양의 대(臺)를 흙으로 붙여 만들고 그 위에 올려 두기도 하며 벽에 백지를 붙여 신체를 표시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조왕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부뚜막 위에 시루떡이나 백편, 나물, 물 등의 제물을 차리고 주부가 직접 하거나 경문쟁이를 불러 축원을 하기도 한다. 문경에서는 이것을 '불쓴다.' 고 한다. 주부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샘에 가서 깨끗한 물을 길어다 조왕물을 중발에 떠 올리고, 가운(家運)이 일어나도록 기원하며 절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원을 하기도 하고, 정월 열나흗날 밤에 조왕제를 올리거나 정초나 7월, 10월 등에 올리는 가정고사 · 안택굿 · 지신밟기 등에서 다른 가신과 함께 위하기도 한다. 집안의 치성(致誠)굿을 할 때는 성주에게 하듯이 조왕신에게도 조왕상을 차려놓는데 대개 목판에 간단히 차려서 부뚜막에 올려놓는다. 특히 경북 안동 지역에서는 평소 조왕을 모시지 않는 가정에서도 아들이 군대에 가는 등 변화가 생기면 조왕을 모시고 정화수를 올린다. 이러한 조왕은 부엌의 불씨를 관장하는 화신(火神)으로 간주되어 재복신으로 인식하거나 조상신, 여신으로 보아 삼신과 더불어 육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북 봉화에서는 부뚜막의 일정 부분에 조왕이 깃들어 있어 집안의 화목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여 건궁 조왕을 모신다. 정월 열나흗날 조왕에게 간단한 의례를 행하는데, 시루떡이나 백편을 정성껏 만들어 부뚜막의 일정 부분에 놓고 집안이 잘 되게 해 달라고 빈다. 울릉군 울릉읍 도동1리에서는 정월 대보름 저녁 때 경문쟁이를 불러 부엌에서 조왕제를 지낸다. 밥을 한 솥 해서 숟가락을 꽂고 부뚜막 위에는 간단하게 볶은 나물과 물을 갖다 놓는다. 그 다음 경문쟁이가 시키는 대로 절을 하기도 하고,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기도 한다. 또 울릉군 북면에

서는 보름을 전후하여 달이 밝을 때 주로 부엌의 솥단지 앞에서 조왕제를 지낸다.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생쌀·찬물·건포 등 간단한 제물을 올려놓지만, 술은 쓰지 않는다. 절을 한 다음에 꿇어 앉아서 자식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면서 올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 달라고 소원을 빈다. 조왕제를 지내기 전에는 마을에 흉사가 나더라도 참여하지 않는다.

문경시 산양면 현리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성주·삼신·용단지·터주단지·조왕·샘에 촛불을 밝혀 두었는데 그것을 불쓴다고 한다. 조왕은 신체가 없고 단지 정월 열나흗날 밤에 불을 쓸 뿐이다.

부엌신이 본처인 조왕으로 등장하는 무속신화 문전본풀이가 전하는 제주도에서는 거의 대부분 문전제를 지내면서 조왕제도 함께 지낸다. 조왕은 늘 깨끗이 하여야 살림과 가정의 부를 가져다준다고 믿으며, 기제사에서도 문전제, 차례, 조왕제 등의 순서로 지낸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정월에 포제 이후 집안에서 토신제·칠성제·조왕제를 지내며, 불교 신자는 스님을 모셔서 조왕제를 지낸다. 이러한 의례는 주로 정초에 이루어진다.

의의 조왕신을 모시는 조왕고사는 불과 관련되는데, 인류는 보편적으로 원시시대 이래 불을 신성시하여 숭배하고 있다. 불씨를 신성시하며 이사를 갈 때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가지고 가는 풍습이나, 이사 간 집에 성냥을 가지고 가는 풍습은 모두 불을 숭배하던 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왕신이 자리잡고 있는 부엌은 정화(淨化)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물과 불이 공존하는 곳으로 정화력이 있어 신성한 제의공간으로 삼기에도 적합하다. 초상집에 다녀오는 길에는 먼저 부엌에 들르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온다고 하겠다. 또한 부엌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들의 공간이다. 주부들은 이 곳에서 조왕신에게 정화수를 떠 올리고 가족의 건강과 재복을 기원하며, 특히 집을 떠나 객지에 있는 가족을 위해 밥을 떠놓고 안녕을 기원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文化史大系Ⅵ -宗敎·哲學史-(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70), 한국의 민속(임동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5), 韓國民俗大觀1~6(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 민속학 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冲繩の習俗と信仰(窪德忠,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71).

필자 | 김지욱(金志昱)

조왕제(竈王祭)

⇨ 조왕고사(竈王告祀)

종묘대제(宗廟大祭)

정의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 추존왕과 추존왕비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사드리는 사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종묘 제사는 사직과 함께 제일 격이 높은 대사(大祀)에 속하였다. 종묘제례악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종묘제례는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1995년에는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001년에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변천과정 종묘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보이지만 제도로서 완비된 것은 고려 성종대였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1395년 새로운 종묘를 완성하였다. 이 때 규모는 7칸 동당이실(同堂異室)로 석실(石室) 5칸을 만들고 좌우의 익실(翼室)은 각각 2칸이었다. 세종 3년(1461) 종묘 정전 바로 서쪽에 별묘인 영녕전(永寧殿)을 세웠는데 정전 4칸에 좌우로 익실 1칸을 더한 것이었다. 이어 명종 1년(1546) 증축을 하여 정전이 좌우 2칸씩 모두 4칸이 늘어나 11칸이 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1608년(광해군 즉위년) 다시 이전 상태대로 복원되었으며, 영녕전은 정전 4칸에 좌우 익실 각 3칸으로 이전보다 증축되었다. 현종 8년(1667) 영녕전의 익실을 좌우 각각 1칸씩 증축하고 영조 2년(1726) 종묘 정전의 신실을 동쪽으로 4칸 증축하였다. 종묘 정전은 헌종 2년(1836) 다시 동쪽으로 4칸을 늘려 모두 19칸이 되었으며, 이 때 영녕전도 같이 증축하여 좌우 익실 각 2칸씩을 늘려 모두 각 6칸이 되었다. 종묘 정전에는 27명의 조선 왕 가운데 18명과 추존된 왕 1명 등 19명의 왕과 왕비의 신위만이 봉안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영녕전에 있다.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위는 없다.

종묘 제사는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다. 고려 성종대에는 태묘(太廟)로 이름을 고치고 천자의 예로

제사를 지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종묘를 세우고 제후의 예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다 대한제국기에는 다시 황제의 예로 제사를 지냈는데 현재는 대한제국기의 형식을 대체로 수용하는 편으로, 시대에 따라 변하였다. 종묘 제사에 관한 의례절차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예전(大韓禮典)』 등에 수록되어 있다.

『국조오례의』 종묘제의에는 사시급납향종묘의(四時及臘享宗廟儀)·사시급납향종묘섭사의(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속절급삭망향종묘의(俗節及朔望享宗廟儀)·기고종묘의(祈告宗廟儀)·천신종묘의(薦新宗廟儀) 등의 항목이 있고, 종묘 제사는 정시제와 임시제로 나뉘어 있다. 정시제는 정전에서 춘하추동의 첫 달인 정월, 4월, 7월, 10월 상순과 납일(臘日)에 대향(大享)을 지냈으며, 영녕전에서는 정월, 7월의 상순 두 차례만 대향을 지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기인 1909년 납일 제향을 폐지하고 사계절만 지냈다. 해방 후에는 잠시 지내지 않다가 1969년 부활되어 1971년부터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만 제사를 지내고 있다.

임시제사는 종묘에 와서 빌거나 고하는 기고제, 햇과일이나 햇곡식이 나올 때 종묘에 바치던 천신제, 세자·세자빈이나 왕비가 종묘에 와서 뵙는 알묘의(謁廟儀), 나라에 길흉사가 있을 때 고하던 고유제(告由祭) 등이 있다.

제사는 친제와 섭행제로도 나눌 수 있는데, 친제(親祭)는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이며, 섭행제(攝行祭)는 왕이 직접 지내지 못하는 경우에 세자나 영의정이 대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종묘 정전 제사는 주로 친제를 지냈으며, 영녕전 제사는 섭행제를 지냈다. 제관은 친제의 경우 왕이 초헌관(初獻官), 왕세자가 아헌관(亞獻官), 영의정이 종헌관(終獻官)을 하였으며, 섭행제의 경우는 정1품관이 초헌관, 정2품관이 아헌관, 종2품관이 종헌관을 하였다. 현재 초헌관과 종헌관은 전주 이씨 문중에서, 아헌관은 29성씨의 왕비 문중에서 선정하여 지내고 있다. 제관의 숫자는 정전 163명, 영녕전 137명, 공신당 2명으로 모두 302명이다.

절차 종묘대제의 절차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재계(齋戒) 및 선행 절차: 제관들은 종묘의 안팎을 정리하고 제기를 닦는 한편 제사 준비 진행표에 부서·담당자·소임·준비기간 등을 표시하여 마무리하여 둔다. 악사들은 악기를 진설하고 천막을 친다. 제물을 받아들이고 준소에 제기를 진설하며 향과 축, 폐를 받아 향대청(香大廳)에 모셔두고 신전의 문을 열고 동월랑(東月廊)에서 제물을 그릇에 담고 정전과 준소에 제물을 진설한 다음 문을 닫아 둔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제사 8일 전에 제사가 있음을 알리면 왕은 4일 동안 별전에서 산재(散齋)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치재 마지막 날은 재궁에서 행하고 다른 제관들도 산재와 치재를 한다. 재계 때는 음식을 간소히하고 죄를 다스리거나 불길한 일은 일절 금한다. 왕이 재궁에 들기 위해 궁을 나설 때는 문무시신(文武侍臣)이 앞뒤에 서고 여러 관원이 거가를 호가(扈駕)하는데 이 때는 나팔을 불지 않고 조용히 진행한다. 도착하면 왕은 종묘에 네 번 절하고 나서 재궁에 든다.

제관은 모두 제복을 입고 대기한 다음 정전 내외를 숙계(肅啓)한다. 그 뒤 정전의 문을 열고 명화(明火)에 불을 붙이면 집사가 정전에 올라가 주독(主櫝)을 열고 나서 신주를 신탑에 모신다. 이 때 헌관이 향·축·폐백을 모시고 정전 앞에 당도하면 헌관과 집례관인 묘사가 그것을 받는다. 그 다음 향과 축은 묘사가 나누어 올리고 폐백은 묘사가 각 실의 준소 폐비에 나누어 올린다.

② 취위(就位): 제례를 거행하기 직전에 제관들은 정해진 자리에 가서 선다. 왕의 자리는 판 위인데 상월대 아래 계단 동쪽에 전돌을 깔았다. 묘사와 대축이 각 신실의 신주를 받들고 나오면 제관은 동쪽 계단 아래 서쪽을 향해 서고 유사가 정시가 되었음을 고하고 제사 지내기를 청한다.

③ 신관례(晨祼禮): 신관례는 일반 사대부가의 강신례와 같은 것이다. 절차는 각 실에서 상향(上香), 관창(祼鬯), 전폐(奠幣)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영신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며 그 사이 초헌관 이하 모두 4배를 한 뒤 각실 외봉관이 용찬을 받들어 술을 받고 초헌관은 신위 앞으로 나가 향을 올리고 대축관은 폐백을 올린다. 이어 제수를 진설하는 진찬을 행하는데 축사·대축·재량 등이 거드는 가운데
















1 제관(祭官) 입장
2 점촉(點燭)
3 신주(神主)
4 신관례(神祼禮)
5 전폐례(奠幣禮)
6 천조례(薦俎禮: 조육을 화로에 올려 태움)
7 천조례
8 초헌관 헌작(獻爵)
9 독축(讀祝)
10 독축시 부복한 참가자들
11 음복수조례(飮福受胙禮)
12 음복수조례
13 망예례(望瘞禮)
14 망예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종묘 국립민속박물관



종묘도병중 오향 친제 반차도
궁중유물전시관

천조관과 봉조관이 행례하고, 제수 가운데 모혈반(毛血槃), 간료, 우숙(牛熟), 양숙(羊熟), 돈숙(豚熟)을 올린다.

④ 삼헌례(三獻禮): 삼헌례는 초헌례 · 아헌례 · 종헌례를 말한다. 먼저 초헌례는 초헌관이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먼저 왕이 제주를 차리는 곳에 가서 술잔을 살피고 나서 제1태조 고황제실에 들어가 술 석 잔을 바친 뒤에 굽어 엎드렸다가 뒤로 물러나 꿇어앉으면 대축이 축문을 읽는다. 같은 순서로 모든 신실에서 예를 행한다. 아헌례는 아헌관이 각 신실에 술을 바치는 것으로 축독은 없으며 종헌례는 아헌례와 마찬가지로 종헌관이 각 신실에 술을 바치는 것으로 끝난다. 초헌의 술은 예제(醴齊), 아헌의 술은 앙제(盎齊), 종헌의 술은 청주(淸酒)이다.

⑤ 음복례(飮福禮): 헌작을 마친 뒤 초헌관이 음복하는 예로 집례관이 잔에 음복주를 붓고 고기를 덜어 놓으면 왕이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기다렸다가 꿇어 앉아 마신다.

⑥ 망료례(望燎禮): 음복례가 끝나면 집례관은 철변두(徹籩豆)를 행하고 이어 축과 폐를 망료 위에서 불사른다. 철변두는 음복례가 끝난 뒤 대축들이 각 실에 들어가 변두를 거두는 것인데, 실제로는 다 거두지 않고 '변'과 '두' 한 개씩을 자리만 조금씩 옮겨 놓는다. 모든 헌관과 천조관 · 봉조관 · 공신헌관이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면 대축관이 독을 덮고 신주를 모셔 들인다. 이어 초헌관이 망료 자리에 나아가 축문과 폐를 불사른 뒤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집사가 배위(拜位)로 내려가서 국궁 4배하면 집례관이 예가 끝났음을 알린다. 왕은 재궁으로 돌아가며, 이어 다른 제관과 집례관들도 모두 나간다. 왕은 대궐로 돌아가며, 다음 날 궁에서 종친과 대신들을 불러 모아 음복연을 거행한다.

제복 · 제기와 제수 조선시대 종묘대제 때 왕은 구장면복(九章冕服)을 착용하였다. 면복은 면류관과 구장복을 뜻하는데, 면류관은 모자 위에 장방형 판이 있고 판 양끝에 여러 가지 색깔의 주옥을 아홉 줄 늘어뜨렸다. 구장복은 겉은 흑색, 안은 청색인 대례복으로 상의 두 어깨에는 용을 수놓았고 뒤에는 산을, 그리고 양 소매에는 화(火) · 화충(華蟲) · 종이(宗彝) 문장을 그려 넣었다. 하의에도 조(藻) · 분미(粉米) · 보(黼) · 불(黻) 문장을 수놓았다. 왕과 왕세자는 청옥으로 된 홀을 잡았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의 예에 따라 열두 줄의 면류관에 일월과 성신 문장을 더하여 열두 구장복을 입었다.

종친과 백관들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입었다. 양관(梁冠)의 일종인 금관은 품계에 따라 양의 숫자를 다르게 하여 1품은 5량, 2품은 4량, 3품은 3량, 4~6품은 2량, 7품 이하는 1량을 썼다. 대한제국기에는 1품관이 7량, 2품관이 6량, 3품관이 6량, 4~6품은 4량, 7품 이하는 3량으로 하였다. 현재 종묘대제의 제복은 대체로 대한제국기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제기는 모두 63종이며 재료는 목죽(木竹)과 유기, 질그릇이 사용되었다. 대를 엮어 만들고 줄 과일을 담는 변(籩)이 12기, 목기로 고기를 담는 두(豆) 12기, 구리로 만들며 벼나 기장을 담는 내원외방(內圓外方)의 보(簠) 4기, 기장쌀과 찹쌀을 담는 외원내방(外圓內方)의 궤(簋) 4기, 질그릇으로 만들어 대갱(大羹)을 담는 등(甒) 6기, 화갱(和羹)을 담는 형(鉶) 6기, 삼성(三腥)과 삼숙(三熟)을 위한 조(俎) 6기, 술잔인 작(爵) 6기, 그 밖에 재료와 형태, 용도를 달리하는 22종의 제기가 각각 1기씩이다.

제수는 곡식인 반(飯)이 도(稻) · 양(粱) · 서(黍) · 직(稷) 4종, 고기를 절인 해(醢)가 녹해(鹿醢) · 담해(醓醢) · 치해(雉醢) · 어해(魚醢) 4종, 떡인 병(餠)이 백편[白餠] · 흑편[黑餠] · 구이[糗餌] · 분자(粉餈) ·

양식(釀食)·이식(酏食) 6종, 과일인 과(果)가 건율(乾栗)·대조(大棗)·호도(胡桃)·송자(松子)·비자(榧子) 5종, 절인 채소인 저(菹)가 구저(韭菹)·근저(芹菹)·청저(菁菹)·길경(桔梗) 4종이다. 또한 화갱(和羹)·대갱(大羹)·포(脯)·어숙(魚鱐)·형염(形鹽)·돈박(豚拍)·비절(脾切)·우성(牛腥)·양성(羊腥)·돈성(豚腥)·천조(薦俎)가 각각 1종이고 그 밖에 번료(燔膋) 1종, 촉(燭) 2본, 폐(幣)는 백저(白苧) 15척이며, 술은 울창(鬱鬯)·예제(醴齊)·앙제(盎齊)·청주(淸酒)·명수(明水)·현주(玄酒) 6종이다.

조선시대에는 이 제수들을 각 실마다 차렸으나 현재는 각 실마다 지내려면 약 4,400개의 제기와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태조의 신실 한 곳에서만 제대로 갖추고 다른 신실에서는 간소하게 지내고 있다.

종묘제례악 종묘 제사를 지낼 때 음악과 노래와 무용도 함께 하는데, 이를 종묘제례악이라고 한다. 종묘에 음악이 사용된 것은 고려 숙종대였으며, 그 뒤 송나라로부터 대성아악(大晟雅樂)이 들어와 1116년(예종 11)부터 아악으로 사용되다가 조선에 계승되었다. 태종대부터 종묘 제사에 사용하던 아악을 당악(唐樂)과 향악(鄕樂)을 참조하여 개정하려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세종대 고취악(鼓吹樂)과 향악에 바탕하여 회례악(會禮樂)으로 만든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이 세조대에 약간 수정하여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즉, 조종의 문덕(文德)을 기리는 보태평 11곡과 무공(武功)을 칭송하는 정대업 15곡은 세종조 이래 연향악으로 연주되어 오다가 세조 10년(1464) 각각 11곡씩으로 줄이고 제례에 필요한 악곡을 첨가하여 제례악으로 채택되었다.

종묘대제를 지낼 때에는 정전의 댓돌 위와 아래로 두 개의 연주단이 편성된다. 즉, 등가(登歌)와 헌가(軒歌)가 편종, 편경, 방향, 축, 어, 박,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장구, 징, 태평소, 절고, 진고 등의 악기를 제례의 절차에 따라 연주하면, 연주단에 자리한 가공(歌工)이 이에 맞추어 악장을 노래하고 무원들은 일무(佾舞)를 춘다.

조선시대의 일무는 36명이 열을 지어 춤을 추는 육일무(六佾舞)로 1464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문덕을 찬양하는 문무(文舞)와 무덕을 찬양하는 무무(武舞)로 나누어진다. 문무를 추는 무인들은 왼손에는 구멍이 셋 뚫린 관악기 약(籥)을 들고 오른손에는 긴 막대에 꿩 깃털로 장식한 적(翟)을 들고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추었다. 무무를 추는 무인들은 맨 앞 줄부터 두 줄씩 각각 나무로 만든 칼과 창, 활과 화살을 쥐고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를 추었다. 무무에는 이들 무원 외에 각(角), 둑(纛), 북, 징, 소라, 대각, 대고, 대징과 청·황·흑·백·적색의 깃발, 홍색의 대둑(大纛), 청룡·주작·황룡·백호·현무를 그린 깃발 등 여러 의물을 든 의장대가 함께 도열하여 춤의 움직임에 따라 발디딤을 같이 하였다.

음악은 선율 타악기인 편종·편경·방향이 기둥이 되는 선율을 연주하고 여기에 당피리·대금·해금·아쟁 등 선율 악기의 장식적인 선율이 주선율에 부가되며 그 위에 더욱 다양한 가락을 구사하는 노래가 중첩된다. 종묘제례악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 차	악명(樂名)	악곡명(樂曲名)	일 무
영 신	보태평	熙文九成	문 무
전 폐	보태평	熙文	문 무
진 찬	豊安之樂	進饌	
초 헌	보태평	熙文 基明 歸仁 亨嘉 輯寧 隆化 顯美 龍光貞明重光 大猷 釋成	문 무
아 헌	정대업	昭武 篤慶 濯征 宣威 神定 奮雄 順應 寵綏 靖世 赫整 永觀	무 무
종 헌	정대업	아헌과 같음	무 무
철변두	雍安之樂	進饌	武舞退
송 신	雍安之樂	進饌	

조선시대 육일무는 대한제국기 황제의 예에 따라 8명이 8줄로 서서 추는 팔일무로 바뀌었는데 현재는 대한제국기와 마찬가지로 팔일무를 따르되 무원이 교체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단순히 문무와 무무의 의장물만 바꾸어 춤을 추고 있다. 또한 무무의 경우 행해지던 의물 도열도 현재는 행하지 않고 있다.

의의 종묘는 사직과 함께 전근대에서는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종묘에 지내는 제사인 종묘대제는 모든 제사 가운데 제일 격이 높은 제사였다. 따라서 참가 인원이나 순서, 제복·제기와 제수 등에서 종묘대제는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높은 격식을 갖추고 정성스럽게 지냈다.

종묘대제에는 음악과 노래와 무용도 함께 행해졌

는데, 가·악·무의 종합 연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종묘제례악은 동양의 고전인 『악기(樂記)』에서 "가·악·무를 모두 갖춘 것을 악이라 한다."는 고전적 개념에 부합하는 보기 드문 음악유산이다.

유교사상이 지배하는 동양사회에서는 예와 악이 수신과 치국의 방법으로 중요시되었는데 이 예악은 종묘대제와 종묘제례악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종묘대제와 종묘제례악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어느 의례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도도한 기상과 중후함, 화려함을 맛볼 수 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高麗史,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宗廟儀軌, 春官通考, 李朝의 宗廟祭享樂(李惠求, 鄕土서울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59), 朝鮮王朝의 祭祀-宗廟大祭를 中心으로-(黃慶煥, 文化財管理局, 1967), 宗廟祭器(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6), 종묘제례악(金琪洙, 국악전집八, 國立國樂院, 1980), 종묘와 사직(김동욱 저, 대원사, 1990), 宗廟大祭 -오늘의 傳統家庭儀禮-(李殷杓 著, 원백문화사, 1993), 서울民俗大觀 8,傳承藝術 編(서울特別市, 1994), 한국의 세계문화유산(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삼성문화재단, 1997),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李在淑 外,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宗廟(배병우·이상해·송혜진·이경희 외, 삼성문화재단, 1998), 한국의 문화유산(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중요무형문화재1 -음악과 무용-(문화재연구회, 대원사, 1999), 중요무형문화재3 -의식·음식·무예-(문화재연구회, 대원사, 1999), 우리나라의 祭祀文化와 宗廟大祭(趙駿河, 韓國思想과 文化12, 修德文化史, 2001), 現行 宗廟祭禮의 史的 考察(이장렬, 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 문화유산 열두 가지(최준식, 시공사, 2002),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尹邦彦, 문화재청, 2002),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韓亨周, 一潮閣, 2002).

필자 | 고영진(高英津)

짐대제(一祭)

⇨ 솟대제(一祭)

짬고사(一告祀)

정의 짬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특히 미역의 풍년을 비는 고사. 주로 정월 대보름에 바닷가에서 좁쌀을 뿌리며 미역의 풍년을 비는 의례이다.

내용 및 지역사례 짬은 각종 해조류와 어패류가 서식하는 수중의 바위이다. 동해안에서는 '짬', 서해안에서는 '똠'이라고 부른다. 짬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원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짬의 생산물을 공평히 나누어 가진다.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의 경우 한골짬·울렁짬·송곳짬·밍물짬·마짬·한재짬·나비짬·솔거리짬·포짬으로 아홉 곳이다. 제일 남쪽에 있는 한골짬은 기성면 봉산리의 한골마을 앞에 자리한 탓에 그 이름이 한골짬이다. 울렁짬은 그 지역에 파도가 많이 쳐서 배가 울렁울렁한다는 데서 비롯하였다. 밍물짬은 민물(정명천의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송곳짬·마짬·나비짬 등은 바위의 모양에 따라 부른 이름들이다. 이 짬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돌미역(자연산 미역)이다.

경북 울진 일대에서는 할머니들이 정월 대보름 아침에 서숙을 뿌리고 "서숙 같이 달게(많이) 나라."고 하며 미역의 풍년을 빌었다고 한다. 미역은 너무 드물어도, 너무 촘촘해도 소출이 안 나며, 종횡 3~5센티미터 간격으로 나면 풍년이 든다. 자신의 짬에서 미역이 많이 생산되게 해달라고 짬고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짬고사는 보통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지낸다. 이러한 개인적인 고사와 달리 여러 사람들이 짬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짬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의논해서 열나흗날 밤 11시나 12시에 음식을 장만해 와서 "미역이 많이 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지낸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음식을 장만해 와서 자기네 구역 바위 앞에 음식을 깔아 놓고 밥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술을 붓고 난 후 제물을 물에다 던지고 내려온다. 제사 음식으로는 메, 나물, 고기 한 접시, 제주(祭酒) 정도로 준비한다. 동해안의 별신굿이라 불리는 풍어제에서도 '미역따기'라는 제차(祭次)가 있어 별신굿을 주재하는 무당이 미역씨앗을 뿌리는 신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한다. 이것도 미역의 풍년을 비는 의례의 하나이다.

유사사례 동해안의 짬고사와 유사한 사례로 서해안의 경우에는 해조류 채취보다 조개를 채취하는데 따른 조개부르는제, 굴부르기제를 볼 수 있다. 안면도의 남서쪽인 고남면 서쪽 일부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조개 채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굴부르기제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서원상

기원하며 조개 부르는 제를 지낸다. 조개는 농한기인 겨울철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조개부르는 제는 조개 채취를 담당하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치르는 제의이다. 제관과 축을 읽는 사람은 제사에 익숙한 나이 많은 남자가 하기도 하지만, 주로 할머니가 제사를 주관한다. 제관이 잔을 올려 전하고 축을 읽고 소지를 올린 뒤 물가에 늘어서 있던 부녀자들을 보고 "조개 부르라."고 크게 소리친다. 여자들이 큰 소리로 "조개야."를 외치고 남자들은 신나게 풍물을 친다. 조개 부르는 소리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난다. 조개를 부를 때 남자들은 떡시루를 지게로 날라준다거나 풍장을 치는 등 보조역할만 한다.

굴부르기제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 굴도에서 행해졌다. 굴부르기제는 원래 정월 대보름날 밤 만조 때 부녀자들만 포구에 모여 제상을 차려놓고 비손을 하던 것이었다. "황해 석화야, 달빛 따라 물결 따라 굴도로 모여라." 하며 비손하는 식으로 축원했다.

참고문헌 |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권삼문, 民俗苑, 2001),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굴부르기제와 검은여제(유철인, 인류학과 지방의 역사, 아카넷, 2004).
필자 | 권삼문(權三文)

천제(天祭)

정의 하늘신[天神]에게 제(祭)를 올리는 마을공동제의.

유래 우리나라의 천신숭배는 부여 · 고구려 · 가락 · 신라 · 고조선 등 상고대(上古代) 왕국의 창건주인 시조왕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격적인 존재로 관념됨으로써 구체화된다. 이들 시조왕은 모두 하늘에서 강림한 천신이자 지상왕국의 왕으로서 섬겨진 존재들이다. 부여의 영고(迎鼓)와 고구려의 동맹(東盟)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례였고, 백제 고이왕(古爾王) 5년(238) 정월에 북과 피리를 사용하여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이 있으며 신라 혁거세(赫居世) 임금이 태백산 아래에 천부소도를 건설하고 태백산 가운데 봉우리에 있던 허물어진 천제단을 수축하여 하늘에 제사지냈다는 『부도지(符都誌)』의 기록이 있다. 『부도지』에 따르면 천신신앙의 유래는 이미 부여 · 고조선 및 삼한 당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신라의 영성제(靈星祭) · 일월제(日月祭) · 오성제(五星祭) 및 고구려의 영성제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 상고시대 사회의 천신신앙은 보다 더 다양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내용 천신은 하늘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신격을 믿음으로써 생겨난 개념이다. 섬김의 대상인 천신은 하늘님 · 하느님 · 하나님 등의 호칭 외에 제주신화의 천지왕,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은 옥황상제(玉皇上帝) 또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제석천(帝釋天), 『가락국기(駕洛國記)』에서의 황천(皇天),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의 상제(上帝) 등의 호칭도 함께 사용되어 왔다.

천제를 올리는 제단은 대개 산정(山頂)이나 산기슭에 위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공통적이다. 즉, 돌을 둥글게 모아 경계만 짓고 한 쪽에 제단을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천제는 매년 정월에 제를 올리는 세시의례와 수년 주기 혹은 특정한 시기에 날을 받아 제를 올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역사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마을에서 행하는 민속제의 천제는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농악대가 마당밟기 놀이로 마을을 돌고 난 후, 그 때 출연된 돈과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어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2구 외림마을에서는 매년 두 차례 천제를 지낸다. 마을 뒤의 두리봉에 있는 복천사라는 절에서 주관하여 천제를 지내는데, 정월 천제는 액운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월의 천제는 추수 후 농사를 잘 지었음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낸다. 천제를 지낼 때는 특별히 소머리를 제물로 바친다.





〈천제〉
1 천황상제단비와 나무에 걸린 제물들
2 진설
3 독축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로리아루트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에서는 정월 초사흗날 저녁에 천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생기복덕을 보아 정초에 길일을 택했으나, 해마다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아 초삼일로 제일을 고정시켰다. 그러나 천제를 앞두고 초상이나 출산 등 부정한 일이 생기면 음력 삼월 삼짇날로 날을 옮겨 잡는다. 2월은 영등(이월할머니)을 모시기 때문에 천제를 모시지 않는다. 천제당은 마을 앞 논두렁길에 있는데 별도의 제단이나 신체는 없고, 단지 길 한복판에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를 지낸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백설기, 명태포, 탕, 밥, 나물, 청수, 생미(불밝이쌀), 술 등이다. 당일 낮에 제관은 천제당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단 위에 황토를 뿌려 둔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풍장을 치면서 천제당으로 가서 제물을 진설하고 천제를 지낸다. 천제의 순서는 제관이 분향, 강신을 한 뒤 삼헌작을 한다. 축문은 예전에는 있었으나 읽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소지는 맨 먼저 천지신명께 마을의 평안을 비는 소지를 올린 다음 호구소지 한 장씩을 올린다. 보령에서는 정월 초하룻날 자정을 기하여 산제당(山祭堂)에 올라 그 마을의 온 가정에 복이 깃들기를 축원하는 천신제를 지냈다. 이 유풍은 단군께서 산상에 제단을 모시어 인류의 복을 빌었다는 데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선흥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에 택일하여 할아버지 서낭당 뒤에 있는 천제단(天祭壇)에서 간단히 천제를 지낸 후 할아버지 성황제를 지낸다. 원덕읍 월천3리(하월천)와 노곡2리(작진)의 경우, 산의 한 곳에 천제당과 할아버지당 · 할머니당이 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제관들은 먼저 천제당에서 제를 올린 다음 두 팀으로 나뉘어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으로 동시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참고문헌 | 한국의 민속(김성배, 집문당, 1980), 한국민속대사전 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속학의 이해(민속학회, 문학아카데미, 1994),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 민속학 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금산의 탑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靈山太白(김강산, 태백문화원, 1999),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韓國民俗學 새로 읽기(최인학 외, 民俗苑,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삼척 해안지역 당신화 연구(편성철,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필자 | 김태수(金泰水)

친경례(親耕禮)

정의 고려와 조선시대에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왕이 적전(籍田)을 경작하는 의례. 이를 친경례(親耕禮) · 경적례(耕籍禮)라 한다. 이러한 의례는 신농(神農)에 대한 제사와 함께 거행되었으며, 직접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경작지로 설정한 토지인 적전의 수확물은 종묘 · 사직 등의 국가제사에 사용하였다.

유래 『예기(禮記)』「월령(月令)」편에 "천자는 3공 · 9경 · 제후 · 대부를 거느리고 몸소 제적(帝籍)을 경작하는데 천자는 세 번, 3공은 5번, 경 · 제후는 9번 쟁기질을 한다."고 하였다. 「제의(祭儀)」편에는 "천자는 천 무(畝)를, 제후는 백 무를 경작한다."고 하였고, 「제통(帝統)」편에는 "천자는 남교에서 경작하고, 후비(后妃)는 북교에서 누에를 기른다."고 하였다. 이처럼 친경례는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의례로서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거행되었다.

적전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 땅을 다스리고, 천하 사람들을 농사에 힘쓰게 한다는 의미로서 '자전(藉田)' 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적전의례는 권농(勸

農)의례였으며, 따라서 처음으로 농사를 가르쳤다는 선농(先農), 즉 신농씨(神農氏)에 대한 제례이기도 했다. 『신당서(新唐書)』 권14 예악4에 의하면 "적전은 선농에 제사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농제에 관한 기록이 먼저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입춘(立春) 뒤 해일(亥日)에 명활성(明活城) 남쪽 웅살곡(熊殺谷)에서 선농제(先農祭)를 지냈고, 입하(立夏) 후 해일에 신성북문(新城北門)에서 중농제(中農祭)를 지냈으며, 입추 후 해일에는 산원(蒜園)에서 후농제(後農祭)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의 선농제가 적전에서의 의례와 같이 거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려시대의 경우 『고려사(高麗史)』 권62 「지(志)」 16 「예(禮)」 4 길례중사(吉禮中祀) 적전조(籍田條)의 기록에 의하면 성종 2년 정월 기해(己亥) "국왕이 적전을 친경하고 신농을 제사하였는데, 후직(后稷)을 배향하였다. 적전 의례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적전과 신농·후직에 대한 제사는 고려 성종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친경례는 선농제와 더불어 성종 2년(983) 1월부터 시작되었다. 『고려사』 「예지(禮志)」에는 선농적전단(先農籍田壇)이라 하였고, 적전의 친경례를 선농제 의례 속에 포함하여 기록하고 있다. 즉, 적전에서 행해진 친경례는 선농제의 일부이다.

『태종실록(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7월 15일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은 개국 이후 고려의 적전을 그대로 쓰다가 이 때 와서 한양 흥인문 10리 밖에 새로이 적전 100결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개국 초의 적전은 개성 보정문 밖 동쪽 20리 되는 곳에 300결이 있었다. 아마도 이것은 고려의 적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개국 초에 조선의 적전은 개성 보정문 밖 동쪽에 있던 고려의 것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러다가 태종 6년 7월, 한양 흥인문 10리 밖에 새로이 적전을 마련하였는데 전자를 서적전(西籍田), 후자를 동적전(東籍田)이라 하였으며, 동·서 적전을 합하여 약 400결이었다. 동·서 적전의 수확 중 제향용(祭享用)은 동적전의 수확만으로도 충분하여 서적전의 것은 국고(國庫)로 돌리도록 하였다고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9 세종 7년 8월 25일에 기록되어 있다.

적전에서 이루어진 국왕의 친경은 단지 의례적인 것에 불과했다. 적전의 경작은 농민이나 노비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작은 처음에 전농시(典農寺) 소속의 노비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차차 노비의 선상(選上, 중앙 관청에서 사역시키기 위해 지방의 관노비를 중앙에 뽑아 올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역으로 노비의 도망이 잇따랐다. 이에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의 요역에 의해 경작되는 직영제로 경영되었다.

태종 때부터 서적전은 그 소재지 부근의 농민을 동원해 경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세종 때부터는 동적전 또한 소재지 부근의 농민을 동원하였다. 세조 때에는 동적전은 양주(楊州), 서적전은 풍덕(豊德)의 농민 각각 100명과 200명을 농군(農軍)으로 삼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적전조(籍田條)에 의하면, 경작지 10결당 1명을 차출하도록 하고 3명이 적전 1결을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공부(貢賦) 이외의 요역을 면해 주어 경작에 전념하게 하였다.

서적전 300결은 관리가 허술해 세종 때의 양전(量田)에서 모두 관인(官人) 또는 개성 농민이 점유하여 불과 70결밖에 남지 않아 국왕의 친경의례는 동적전에서만 거행되었다.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적전의 수확물은 기장·피·벼·조 등으로 이를 국가제사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고려시대의 적전 친경례는 『고려사』 권62 「예지」 길례중사 적전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친경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알자(謁者)는 태자 이하를 인도하고 각각 밭갈이하는 자리로 간다.

② 사농경(司農卿)이 자리에 서며, 기타 모든 쟁기를 잡는 자들도 지정된 위치에 가 선다.

③ 태상경이 왕을 인도하여 왕이 밭갈이할 자리에 이르러 남향하여 선다.

④ 왕이 밭갈 자리에 가 서면 장생령이 쟁기를 내어 사농경에게 주고, 사농경은 이것을 받아 시중에게 준다. 시중은 쟁기를 받아 왕에게 드린다.

⑤ 태상경이 왕에게 쟁기를 잡을 것을 청하면 왕은 쟁기를 받아 다섯 번 민다.

⑥ 왕의 쟁기질이 끝나면 시중이 쟁기를 받아 사농경에게 주고 사농경은 장생령에게 다시 준다. 그러고 나서 본 자리로 돌아가고 장생령은 장기를 넣어 자리에 내려놓고 물러간다.

⑦ 왕이 처음 밭을 갈기 시작할 때 종경자(從耕者)에게 쟁기를 나누어준다. 태상경은 왕에게 밭갈이하는 것을 보는 자리로 올라 갈 것을 청한다.
⑧ 왕태자는 일곱 번 밀고, 3공(三公)·상서(尙書)·경(卿) 등은 각각 아홉 번 민다. 이것이 끝나면 쟁기를 잡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서 쟁기를 받아 들고 본 자리로 물러간다.
⑨ 태상경은 왕의 앞으로 가서 예식이 끝났음을 알린다.
⑩ 사농소경이 서인(庶人)을 거느리고 천 무를 밭갈이한다.
⑪ 사농경은 경작을 검열하고 재전(齋殿)에 아뢴다.
⑫ 왕이 궁궐로 돌아온다.

『고려사』 권62 「예지」 길례중사 적전 인종 22년 정월 을해조에 "적전을 갈고 쟁기를 다섯 번 밀었으며, 여러 왕족들과 3공들은 일곱 번, 상서와 각 경들은 아홉 번 밀었다."고 하여 다소 차이를 보인다.

조선의 적전의례는 『세종실록』 「오례(五禮)」에 의하면, 길례(吉禮) 친향선농의(親享先農儀)에 경적(耕籍)이라는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 성종 6년 1월에도 경적 의례를 정하였다. 이렇게 정비된 적전의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확정되어 기록되었다. 친경의례는 대체로 고려시대와 같았는데, 다만 "종친·재신(宰臣)이 일곱 번 쟁기질하고, 판서(判書)와 대간(臺諫)이 아홉 번 쟁기질한다.", "봉상시부정(奉常寺副正)이 서인을 거느리고 차례로 백무(百畝)를 간다."고 하여 의례 참여자와 서인의 경작 정도 등에 다소 차이가 난다. 친경의식을 끝내고 도승지가 교지를 받들어 기민(耆民)에 대한 경로(敬勞)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적전의례를 끝낸다는 점도 고려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의의 농업은 나라의 주요 산업이므로 백성들에게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국왕은 적전에서 경작 시범을 보이고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적전에서 국왕과 관료들이 행한 친경례는 농업을 백성에게 장려하기 위하여 행해지던 의례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高麗史,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世宗實錄, 太宗實錄, 高麗時代 籍田儀禮의 도입과 운영(韓政洙, 歷史敎育83, 歷史敎育硏究會, 2002), 韓國中世 國家祭祀의 體制와 雜祀(金澈雄, 韓國硏究叢書68, 韓國硏究院, 2003).
필자 | 김철웅(金澈雄)

칠성고사(七星告祀)

정의 정월 초이렛날 칠성신에게 드리는 제사. 칠성제(七星祭)라고도 한다.

유래 불교와 도교가 복합되어 생긴 가신제(家神祭)로서 북두칠성을 제신(祭神)으로 모신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김유신조(金庾信條)에 "유신공은 칠요(七曜)의 정기를 타고 났으므로 칠성의 무늬가 있었으며 또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庾信公 稟精七曜 故背有七星文 又多神異)."는 탄생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또 제주도 무가 칠성본풀이에서는 불공을 들여 낳은 딸이 중의 자식을 잉태하여 쫓겨나 뱀으로 변신하여 일곱 마리의 뱀을 낳았는데 그 중 막내딸이 부군칠성(밖칠성)이 되었고 어머니는 쌀독으로 들어가 부자가 되게 하는 안칠성이 되었다고 한다.

내용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과 탄생, 재물과 재능을 관장하는 신으로 만능의 영력(靈力)이 있다고 믿으며, 수명장수·소원성취·자녀성장·평안무사를 빈다. 전에는 남자도 지냈으나 주로 할머니나 중년 부인들이 지낸다. 제의 장소는 집안 장독대나 칠성단을 만들어 지내기도 하고 산이나 냇가의 청결한 곳에서 지내기도 한다. 현재 사라져 가는 가신제 중 하나이다.

지역사례 충북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에서는 7일 저녁 장독대 위에 정화수 백미 시루떡을 진설하고 촛불을 켠 후 사방을 향해 재배한다.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운곡마을에서는 두 명의 아들을 낳을 때 모두 탯줄을 감고 태어나 아이들을 위해서 칠성을 위한다고 하며 정월 7일에 드려야 하는데 농기계를 부리는 사람은 3일이 좋다고 해서 이 날 고사를 지



칠성고사
충남 부여군 서헌강

낸다고 한다. 목욕재계하고 땅거미가 지면 장광에 삼색실과 흰무리떡 등 제물을 진설하고 촛불을 밝힌 다음 사방을 돌면서 절을 한 뒤 소지를 올린다.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에서는 집안에 모신 뱀신을 칠성이라 한다. 이 신은 안칠성(고팡할망)·밖칠성(뒷할망) 두 신위가 있어 뒤뜰과 고방에 모신다. 입춘 전에 택일하여 떡을 차리고 심방(무당·박수)을 데려다가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집 밖에 모신 집에서는 집 안에서 초감제를 한 뒤 짚과 쌀 등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밖칠성제를 지낸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한국민간신앙의 연구(최길성,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이재곤(李在崑)

탑제(塔祭)

정의 정월 초사흘이나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돌탑을 신앙대상물로 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의 한 종류. 지역에 따라서는 탑신제(塔神祭)·조탑제(造塔祭)·거리제·당산제·수살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탑은 장승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앙대상물로 손꼽히지만 그동안 서낭당과 동일시되거나 혼효(混淆)되어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탑과 서낭당은 확연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탑제는 정월 대보름 동제의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면서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개관 마을에서 전승되는 탑은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 잡석으로 쌓은 원뿔대 모양의 신체(神體)를 의미한다. 그 어원은 불탑을 일컫는 탑파(塔婆, thupa)의 준말인 '탑'에서 유래된 호칭이다. 아마도 돌을 쌓은 형태와 마을에서의 상징성이 사찰의 불탑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명칭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탑제'란 탑과 제(祭)의 합성어로 돌탑에 대한 제례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방에 따라서 탑은 조산(造山)·조탑(造塔)·수살·도탐·방사탑(防邪塔)·수구(水口)막이·수구매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칭된다. 가령 조산은 영남 지방, 조탑은 호남, 수살은 충북, 도탐은 전북 무주에서 주로 불리는데, 이러한 탑의 이칭은 마을의 정주공간에서 비보(裨補)·진호(鎭護) 및 방액(防厄)의 기능을 띠고 건립되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또한 탑은 1기만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짝으로 건립되는 예가 적지 않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3~7기까지 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짝으로 탑을 건립한 경우에는 으레 성(性)이 구분되어 있어 할아버지탑·할머니탑, 남자탑·여자탑, 안탑·바깥탑, 내외탑 등으로 부르는 것이 통례이다.

탑신앙은 충남 금산과 대전을 비롯하여 충북 옥천·보은·청원·영동, 전북 무주·진안·장수·남원·순창, 경북 상주 등 내륙 산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및 강원·전남 등에서도 골고루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금강 이북과 경기 지방에서는 탑이 매우 희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원 탑은 민속신앙의 원류로 인식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미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百濟本紀)」 근구수왕조(近仇首王條)에는 "고구려 국강왕(國岡王) 사유(斯由)가 친히 침입하자 근초고왕이 태자를 보내어 도망가는 적을 추격해서 크게 무찌르고 적석위표(積石爲表), 곧 돌을 쌓아





탑제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남윤중

표지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사는 탑의 고형으로 추정되는 누석단(累石壇)의 유래가 고대사회에서 돌을 쌓아 부족간의 경계로 삼고 이를 경계신의 처소로 여긴 데서 발생했다는 설의 근거가 되었다. 이 밖에 암석숭배 및 천신숭배의 상징물로서 하늘과 인간의 교섭을 위해 돌무더기가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으나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탑과 상당한 친영성이 있는 적석신앙은 몽골의 오보(Oboga)를 비롯하여 티베트, 일본 등에서도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2,000년경 사막에 살고 있던 셈족은 돌무더기와 선돌에 대한 신앙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스에서도 돌무더기는 널리 신앙되었다. 그리하여 길을 가던 농부가 돌무더기 곁을 지나칠 때는 그 위에다 돌을 더 얹어놓고 가는 것이 관례였다. 만약 돌무더기 꼭대기에 커다란 돌이 세워져 있으면 제물로 음식을 조금 갖다 놓는데, 농부는 돌무더기 속에 그리고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돌 속에 어떤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돌무더기에 대한 신앙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기원은 선돌과 더불어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탑의 유래와 기원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선사시대 적석신앙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오랜 세월 불교·무속신앙·풍수 등과 습합되는 과정에서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안동의 옛 읍지인 『영가지(永嘉誌)』에는 성내조산(城內造山)·견항조산(犬項造山) 등 11개소에 무려 22기의 조산이 남아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특히 견항조산에는 입춘일에 헌관(獻官)을 정하여 제사하고 오곡을 그릇에 담아 이 그릇을 산 위에 놓고 농사점을 쳤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조선시대에도 탑을 건립하고 제를 지내는 관행이 매우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마을제당의 구조를 상당(上堂)과 하당(下堂)의 이중구조로 파악할 때 탑은 전형적인 하당을 구성하는 신앙대상물로 간주된다. 물론 산제당이나 윗당산에 간혹 탑이 위치하는 사례도 있으나 그것은 퍽 드물고, 대개 마을 어귀와 풍수상의 허결(虛決)한 지점에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현재 마을에서 전승되는 탑은 장승·선돌·솟대 등과 함께 산신에 대응하는 하위신(下位神)의 개념으로 치성을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의례 역시 거리제와 흡사한 하당의례(下堂儀禮)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탑제의 이중구조는 충청 지방에 분포하는 탑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탑신앙의 중심지로 떠오른 충남 금산에서는 산신제와 탑제가 복합된 사례를 흔히 목격할 수 있으며, 산제당 없이 탑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거의 예외 없이 음력 정월 초삼일 전후에 탑제가 치러진다. 반면에 남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탑제는 크게 약화되거나 주신(主神)으로 치성을 받지 못한 채 단지 당산제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테면 당산제 후에 '헌식밥' 혹은 '지신밥'이라 해서 조탑 앞에 음식을 묻거나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올리는 것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방사탑과 같이 애당초 풍수적인 목적을 띠고 건립된 탑 중에는 아무런 의식이 베풀어지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다.

여느 동제와 마찬가지로 탑제는 새해를 맞이하여 농사의 풍년과 수복강령을 기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신격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축문에는 영탑지신(靈塔之神)·탑신지신(塔神之神)·동탑지신(洞塔之神)·이사지신(里社之神)·수호지신(守護之神)·거리산신·길산지신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는 오방신앙의 요소를 엿볼 수 있는 오방지신(五方之神)·오방신장(五方神將)·오방토지지신(五方土地之神) 등도 찾아지고 있다.

탑제의 전개과정은 마을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하지만 대개의 하당의례가 그러하듯 연행 현장에는 풍물이 수반되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하여 함께 소지를 올리며 무병제액을 기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제를 마친 뒤에는 탑돌이와 같은 불교식 의례 및 가가호호에 대한 지신밟기 등이 부가되기도 한다. 가령 정월 대보름에 탑제를 지내는 충남 금산과 부여, 충북 청원 등에서는 제의를 마치면 풍물패를 앞세우고 탑돌이를 한 연후에 밤이 늦도록 지신밟기를 하며 축원을 해준다.

이에 비해 정월 초삼일 이전에 탑제를 모시는 경우 대체로 엄숙한 정숙형(靜肅形) 제의로 치른다. 그

까닭은 정초에는 쇳소리를 내지 않고 언행을 삼가는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간혹 무당이나 승려가 탑제를 주관하는 사례도 발견되며, 전북 진안, 장수에서는 당산제와 별도로 부녀자들이 따로 길일을 택하여 당산과 조탑에 팥죽을 바치는 팥죽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는 고샅(골목)과 조탑 주변에 팥죽을 뿌려서 마을에 깃든 잡귀와 역질을 몰아내는 독특한 형식의 제의이다.

의의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탑은 풍수의 비보 관념에 기초하여 불교 및 무속신앙, 음양오행사상의 요소가 두루 내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마을이라는 정주공간에서 지세의 결점을 보충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적극 투영된 산물이 바로 탑이라 할 수 있다. 탑제는 그 기원이 매우 심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앙의 요소가 응축되어 있어 민속문화의 근간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永嘉誌, 朝鮮의 累石壇과 蒙古의 鄂博에 취하여(孫晉泰, 朝鮮民族文化의 硏究, 乙酉文化社, 1948), 세계종교사(Noss, John B. 저 · 윤이흠 역, 현암사, 1986), 북방민족의 샤마니즘과 제사습속(국립민속박물관, 1998), 금산의 탑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청원 옥화리 산사계의 성격과 산신제 · 탑제(강성복, 민속학연구11,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필자 | 강성복(姜成福)

터주고사(一告祀)

정의 집안의 안녕을 위하여 집터를 지켜주는 터주에게 올리는 의례.

내용 터주는 집터를 관장하는 가신(家神)으로 그 가정의 재수, 특히 재물의 운수를 관장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가신에게 굿이나 고사를 지낼 때 반드시 모셔진다. 터주에게 올리는 의례에는 터주굿과 터주고사가 있다. 부녀자들은 평소에도 일이 있을 때마다 정화수나 메를 지어 올리고 간단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터주를 위한 가장 큰 행사는 음력 정초에 벌이는 지신밟기이다. 집안의 악귀와 잡신을 몰아내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 풍물패를 이끄는 상쇠가 꽹과리를 치면서 고사반(告祀盤)을 올린다. 개인적으로 터주고사를 지낼 때는 무속인, 승려 또는 식자층의 마을 어른에게 의뢰하여 택일하여 치른다. 고사 당일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서 집안으로 부정이 들지 않도록 금기를 지킨다. 대개 낮에 제물을 장만하여 저녁 시간에 맞춰 고사를 지낸다.

터주고사를 조금 크게 할 때는 단골무당이나 승려를 불러서 하는데, 단골이 행하는 경우에는 제금만 울리면서 집안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축원한다. 전북에서는 한지에 쌀을 담아 안뜰에 묻어주고 봉토를 만드는 특이한 풍습도 있다. 승려를 불러서 할 경우에는 떡을 하지 않고, 간단히 그릇에 쌀을 수북히 담아 놓고, 실타래를 감은 숟가락을 세워 꽂은 다음, 승려가 고사반을 염불한다.

정월과 시월에 행해지는 안택에서도 터주고사가 행해진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서 되 서 홉이나 서 말 서 되씩 고사떡을 만들고, 삼색과일과 나물, 청수(淸水), 백미, 술을 준비한다. 고사는 장독대 부근 터주항아리를 모신 곳에서 행한다. 터주시루를 바쳐 놓고 시루 안에 촛불을 밝히며, 청수 한 그릇과 술 한 잔을 놓고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지신경(地神經), 명당경(明堂經), 안토지신축원문(安土地神祝願文) 등을 독송한다.





1 터주고사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1리 송봉화

2 장독대와 터주 송석하

일반적으로 터주고사는 시월 상달에 터주가리와 터주단지의 내용물을 교체하면서 지내는데, 고사는 대부분 부인이 주관한다. 고사음식으로는 시루떡, 돼지머리, 통북어, 타래실, 소지종이가 필수이며, 제사상처럼 과일과 전·적류, 나물류 등을 올리기도 한다. 시루떡은 시루째 올리며, 떡 위에는 타래실을 감은 북어를 올려놓는다. 이 때 기원하는 내용은 대개 액을 막고 복을 비는 것으로, 가정의 여건에 따라, 또는 축원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구연된다.

지역사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의 박정숙 할머니의 비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줏대감님 오늘 좋은 날로 가려 가지고 고사 드리오니, 여 반가워라 즐거워라 받으시고 저희 가정에 서씨 대주를 비롯하여 장남 자손 차남 자손 삼남 자손 출가 외인 여식 그 곁가지 우리 자손들 며느리들 다 무사태평하게 돌봐주십시오. 입은 덕도 많습니다만 새로운 덕을 주십시오. 앞으로 밝히시고 뒤로 밀어주시고 나뭇잎에 꽃이 되게 그저 잘 도와주십시오."

터주고사는 집안의 안녕을 기원할 때 뿐만 아니라 봄철 파종할 때, 우환이 있을 때, 큰 행사가 있을 때도 행한다. 때로는 죽을 쑤어서 풀기도 한다. 명절 차례 때 떡을 한 접시 바치는 사례도 있다. 지금도 경기도 이천시의 서정기씨 댁에서는 홀수 달(1·3·5·7·9·11월) 초하루 보름마다 막걸리를 터주에게 바친다. 8월 보름에도 그와 같이 행한다. 시월 상달에는 백설기에 콩을 섞은 떡을 해서 터주에게 고사한다.

의의 터주고사는 원칙적으로 지연적(地緣的)인 집터의 신을 중심으로 한 의례이기 때문에 혈연적인 조상의 제사와는 차이가 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고사를 지낼 수 있다. 제사는 맏아들이 주관해야 하지만 터주고사는 안살림을 맡은 부인들이 주관한다. 또한 고사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이 관례인데, 집집마다 떡을 교환하게 됨으로써 인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3 -民間信仰·宗敎-(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忠淸道 巫歌(金榮振, 螢雪出版社, 1982), 경기민속지 II -신앙 편-(경기도박물관, 1999), 이천의 민간신앙(洪順錫, 민속원, 2003).

필자 | 홍순석(洪順錫)



터주고사상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1리

포제(酺祭)

정의 매해 정월(正月) 혹은 7월에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벌이는 유교식 마을제의. 달리 정포제(正酺祭)·농포제(農酺祭)·이포제(里酺祭)·동제(洞祭)·이사제(里社祭) 등으로 불린다.

유래 포제는 본래 사람과 곡식을 해치는 포신(酺神)을 위하는 제사였는데, 점차 마을제를 대표하게 되었다. 동제나 이사제라고 하는 명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들이다. 포제는 조선시대 향촌지배가 강화될 당시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남성들에 의하여 치러지는 제의다. 마을제가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치러졌던 것은 아니다. 본래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여 당굿 형태의 마을제를 지냈다. 그러다가 포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남성 중심의 포제와 여성 중심의 당굿으로 이원화되었다. 남성은 유교식으로, 여성은 무속식으로 마을제를 지내는 셈이다. 마을에 따라 그 양상도 다른데, 포제와 당굿을 따로 지내는 곳이 많다. 포제나 당굿 가운데 하나만 지내거나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포제를 지내지 않는 대신 당굿을 할 때 남성 제관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당에서 유교식 포제를 지내는 곳도 더러 있다. 포제를 전후하여 당에 대한 제의를 함께 지내는 사례도 있고, 어느 것이나 마을공동체의 제사이지만 남성 중심으로 치러지는 포제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내용 포제는 정월 혹은 7월에 지낸다. 정월에 지내는 것을 '정포제'라 하고, 7월에 지내는 것을 '농포제'라 한다. 정월의 경우 입춘(立春) 뒤 처음 맞이하는 정일(丁日)을 제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정이 있을 경우 해일(亥日)을 택한다. 마을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다음으로 미룬다. 그러나 일단 제관들이 재계를 시작한 뒤에는 정해진 대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포제는 포신 혹은 이사신(里社神)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마을에 따라서는 여기에 토신(土神)을 추가하기도 하며, 또 드물게는 서신(西神)을 추가하는 예도 있다. 포제는 전적으로 남성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마을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관(祭官)을




〈포제〉
1 진설된 제물과 축문
2 포제의 독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국립민속박물관

선출하고 집사(執事)를 지정한다.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적절하게 책임을 분담한다. 제관과 집사의 수는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된다. 이들은 제일 사흘 전부터 제청(祭廳)에서 합숙하며 재계한다. 그 동안 깨끗한 샘을 지정하여 두고 수시로 목욕을 한다. 또한 따로 정해 둔 샘에서 떠온 물로 제물을 마련한다. 제관들의 거처와 샘에는 미리 금줄을 두른다. 포제 전날에는 희생으로 쓸 돼지를 처리한다. 뜨거운 물로 털을 제거하고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한다. 또 제의 순서에 따라 예행연습을 하고 축문도 작성한다. 제단도 미리 청소해둔다.

제단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을 가까운 곳의 깨끗한 전답을 골라 제장으로 삼고 여기에 상을 차려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마을회관 건물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례가 많다. 밤 10시쯤이면 제장에 도착하여 제물을 진설하기 시작한다. 제물은 4변4두(四籩四豆)로 차린다. 미리 처리해 둔 희생을 제단 위에 마치 살아 있는 듯이 앉혀 놓는다. 그리고 도 · 양 · 서 · 직(稻粱黍稷) 대신에 흰쌀메 두 그릇, 좁쌀메 두 그릇을 올린다. 녹포(鹿脯) 대신 쇠고기를 올린다. 해어(海魚)로는 말린 옥돔을 올린다. 과실(果實)로는 비자, 대추, 밤, 유자, 곶감, 배 등 5실과를 갖추어 올린다. 채소(菜蔬)로는 미나리 · 무 · 콩나물 등을 올린다. 폐백(幣帛)으로 무명 1필, 백지 1권을 올린다. 이 밖에 희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모혈(毛血)을 함께 올린다.

제관과 집사도 제복(祭服)으로 갈아입는다. 제복은 대개 청금(靑衿)이다. 본격적인 제의는 자시(子時)에 지낸다. 관세(盥洗)를 하고 각자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선다. 집례가 홀기(笏記)를 크게 읽으면서 제의 순서를 알린다.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철변두(撤籩豆), 망료(望燎)의 순서로 제의가 진행된다. 독축(讀祝)은 초헌례에서 이루어진다. 축문의 내용은 마을마다 대동소이하고, 사정에 따라 기원사항이 조금씩 다르다. 우순풍조(雨順風調), 오곡풍등(五穀豐登), 육축번성(六畜繁盛), 입신양명(立身揚名) 등을 기본적인 기원사항으로 삼고, 필요에 따라 덧붙인다.

포제가 끝난 뒤에는 음복(飮福)이 이어진다. 또한 희생으로 썼던 돼지고기를 나누는 분육(分肉)이 이어진다. 대상(大祥) 이전이어서 상식을 올리는 집과 나이든 어른집에는 고기를 따로 보내어 위한다.

포제는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가호로부터 제사 비용을 걷었으나 오늘날에는 마을 공동기금을 이용한다. 옛날 제관들의 목욕재계하는 기간은 7일이었지만 3일로 축소되었다. 정성을 하는 동안에는 제청 입구와 마을 입구에도 금줄을 매었다. 그러나 차량 통행이 빈번해진 탓에 마을 입구에 금줄을 매는 일은 그만두었다. 축문과 홀기는 여전히 한문으로 작성하지만 한글로 음을 적어두는 사례가 많다.

포제를 지낼 때 개소리, 소울음이나 닭소리가 들리면 좋지 않다고 믿는다. 이 소리들이 귀신을 쫓아버린다는 관념이 있어서 이러한 소리가 들리면 불길(不吉)한 징조라고 여겼다. 반면 꿩이나 말소리가 들리면 길(吉)한 징조라고 생각한다.

의의 포제는 제관들만 참여하는 제의지만 실상은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제의라고 할 수 있다. 마을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공동의 부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의 행정과 제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포제는 엄숙한 가운데 지낸다. 그러나 제관들이 재계를 하는 동안에도 마을 주민들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함께 모여 놀면서 즐긴다. 엄숙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주민들이 포제에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결코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 濟州道部落祭堂(玄容駿, 部落祭堂, 民俗資料調査報告書39, 文化財管理局, 1969), 濟州道의 儒式部落祭(玄容駿, 石宙善敎授回甲紀念 民俗學論叢, 石宙善敎授 回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71), 濟州道 酺祭의 역사민속학적 考察(李大和, 韓國精神文化硏究所 碩士學位論文, 1999).

필자 | 강정식(姜晶植)

풍사제(風師祭)

정의 입춘 후 축일(丑日)에 바람을 주관하는 신인 풍사(風師)에게 지내는 제사. 풍사는 우사(雨師), 운사(雲師), 뇌사(雷師) 등과 함께 농업과 관련된 신이다.

유래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환인의 아들 환웅(桓雄)이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려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에 내려왔다. 풍백(風伯)과 우사를 거느리고 곡식 · 생명 · 질병 · 형벌 · 선악 등을 주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때의 풍백과 우사는 농업과 관련된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된다.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2 「잡지(雜志)」 제1 제사조(祭祀條)에 "입춘 후 축일(丑日)에 견수곡문(犬首谷門)에서 풍백을 제사하고, 입하 후 신일(申日)에 탁저(卓渚)에서 우사를 제사한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 주(周)나라는 입춘(立春) 뒤 축일에 동북쪽에서 풍사에게 제사지냈고, 입하(立夏) 뒤 신일에 서남쪽에서 우사에게 제사하였다. 주나라 이후 중국에서는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풍사와 우사에게 제사를 지냈다. 따라서 풍사단과 우사단을 따로 두었다. 송(宋)나라의 경우, 풍사단은 높이 3척(尺), 둘레 33보(步)였으며, 우사단은 높이 3척, 방(方)이 1장 9척(尺)이다.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람신을 '풍백'이라 하여 중국의 '풍사'와 구별하였다. 그러나 의례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국 의례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풍사'라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정종 11년(1045) 정월 정축일에 동북 교외에서 풍사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 것이 첫 기록이다. 『고려사』 「예지(禮志)」에 의하면 풍사단(風師壇)은 개경 성곽의 동북쪽인 영창문 밖에 있었으며, 규모는 높이 3척, 너비 23보이고, 4면으로 층계가 달려 있었다고 한다.

한편, 풍사제는 국가제사 중 소사(小祀)로 거행되었는데, 입춘 후 축일에 제사를 지냈으며, 희생은 돼지 1두였다. 제사 3일 전에 담당 행사관과 집사관들은 산재(散齋) 2일 중에 1일은 정침(正寢)에서, 1일은 본사(司)에서 지내고, 치재(致齋) 1일은 사소(祀所)에서 지냈다. 변(籩) 8개를 제단 좌측에 놓고 오른쪽을 위로 하여 3열로 차렸다. 제1열에는 소금, 전어를 놓고, 제2열에는 개암, 대추, 밤을 놓고, 제3열에는 사슴포, 마름, 거시연밤 등을 놓는다. 두(豆) 8개를 우측에 놓는데 왼편을 위로 하고 역시 3열로 차렸다. 제1열에는 미나리나물, 죽순나물을 놓고, 제2열에는 무나물, 부추나물, 아욱나물을 놓으며, 제3열에는 토끼고기조림, 식혜, 사슴고기조림을 차린다. 조(俎) 1개에는 생체(生體)를 얹어 놓는다. 보 2개에는 비와 기장을 담아 좌측에 차리고, 궤 2개에는 기장과 피를 담아 우측에 놓는다. 그리고 태준(太樽) 2개, 착준(著樽) 2개, 산뢰 2개를 두는데, 태준 2개 중 하나에는 명수(明水)를, 다른 하나에는 예제(醴齊)를 담는다. 착준 2개 중 하나에는 명수를, 다른 하나에는 앙제(盎齊)를 담는다. 산뢰 2개 중 하나에는 현주(玄酒)를, 다른 하나에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이렇게 하여 삼헌례(三獻禮, 세 번 술잔을 드리는 것)로 의식을 행한다.

고려의 경우에는 풍사단이 독자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우사와 뇌신(雷神)은 한 단에 모셨다. 그런데 고려말에 풍운뇌우(風雲雷雨)와 산천, 성황을 함께 제사지내게 하였다. 공민왕대에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수용하여 풍운뇌우와 산천, 성황을 같은 제단에서 제사하였다. 이러한 제사 방식은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이후 풍사제는 독립적인 제사가 되지 못하고 합사(合祀)의 형태로 거행되었다. 이것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에 그대로 수용되었으며, 다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이어졌다. 이들 예서에 의하면 관련된 의례로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풍운뇌우단기우의(風雨雷雨壇祈雨儀) 등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풍운뇌우에 대한 제사는 풍년제와 더불어 기우제(祈雨祭) 중의 하나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농업은 나라의 주요 산업으로서 이를 백성에게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가 행해졌다. 농업은 여러 가지 자연 조건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다양한 신격(神格)에 대해 제사를 지내게 된다. 바람신인 풍사는 비신인 우사, 구름신인 운사 등과 함께 기우(祈雨)를 통해 풍년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자연신이다. 이처럼 풍사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왕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농업의례 중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 太宗實錄, 韓國中世 國家祭祀의 體制와 雜祀(金澈雄, 韓國硏究叢書68, 韓國硏究院, 2003).

필자 | 김철웅(金澈雄)

해신제(海神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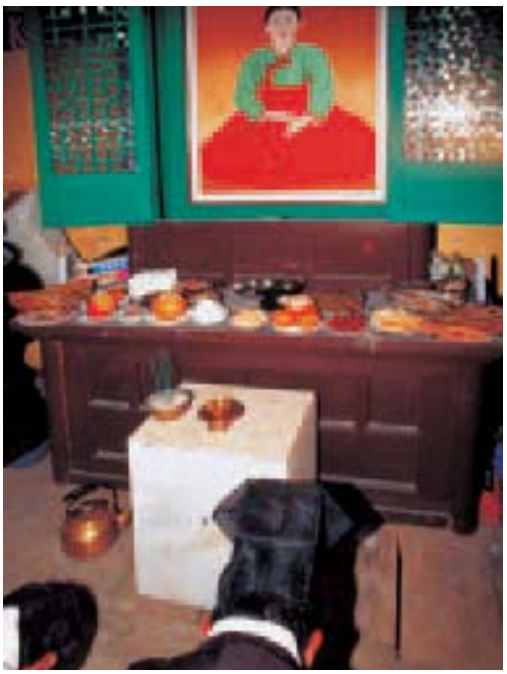
정의 해안이나 도서 지방에서 바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마을공동체제의. 제단은 대체로 당집이나 석단(石壇)으로 되어 있고, 신격(神格)은 선왕(서낭)이라 불리는 배의 신, 바다의 동서남북을 차지하는 사신용왕(四神龍王)과 중앙의 용왕황제, 해안가에서 조화를 부리는 영감·참봉·처녀신·할머니서낭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동해안에서는 대개 할머니서낭을, 남해안에서는 용왕을 모시는 곳이 많다.

내용 및 지역사례 강원도 삼척의 경우에는 25개 어촌마을 가운데 근덕면 부남2리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정월에 해신제를 지낸다. 원덕읍 신남마을은 정월 대보름과 10월 첫 말날[上午日]에 두 차례 제를 올리는데, 이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가장 큰 명절이라 해신제를 크게 지내고, 10월의 가을제사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성주신과 뱃고사를 지내는 정도이다. 이 마을 해신제는 향나무로 만든 남근(男根)을 제물로 바치는 특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동해안에서 목제남근(木製男根)을 제물로 진설한 마을은 고성군 망개마을, 강릉시의 강문과 안인, 동해시의 추암, 삼척시의 신남마을 등이었는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곳은 삼척과 고성 두 곳뿐이다. 신남의 경우, 제물로 진설되는 남근목은 홀수인데 보통 5~7개를 어물처럼 새끼줄로 엮어 바친다. 이렇게 목제남근을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해초를 뜯으러 갔던 마을의 처녀가 물에 빠져 죽자 흉어와 흉사가 이어졌고, 이에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신격으로 모시고 향나무로 남근을 깎아서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고성군 망개마을 해신제는 정월 초사흗날 새벽 4시 무렵에 지내는데 제물과 함께 40센티미터 정도의 목제남근 하나를 만들어 귀두 근처에 예쁜 여성용 한복을 한 벌 달아서 바친다. 이밖에 동해안에는 목제남근과 같은 의미를 갖는 우낭(牛囊, 소의 불알)을 제물로 바치는 마을도 15곳이나 되는데 고성의 대진, 가진, 공현진, 양양군의 오산, 수산, 기사문, 강릉의 강문, 안목, 정동2리, 동해의 대진과 어달, 삼척의 정라진, 장호2리, 임원 등 동해안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경북 울릉도의 해신제는 정월 대보름날 새벽 1시에 지내는데, 이는 동해용왕을 모시는 것이다. 제물은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과 비슷하나 돼지머리를 올리는 점이 다르다. 용왕은 바다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해신으로 숭앙받고 있는데, 울릉도와 함께 특히 제주도에서 용왕을 모시는 지역이 많다. 제주도 서귀포의 어부들이 정월 초하루와 보름에 메 1기, 생선 1마리, 과일, 돼지머리 1두를 준비하여 어부당(漁夫堂)에서 풍어와 해상 안전을 기원하는 당제를 올린다. 동해의 어촌과 다른 점은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동제(洞祭)가 아니고 어업



해신당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함성호



해신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함성호

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제를 올린다는 것이다.

의의 동해안 어촌의 경우 대부분의 마을에 서낭당이 있다. 바닷가에는 주로 여서낭을 모시고 산 위에는 남서낭이 있어 마을을 지켜준다. 여서낭은 해사(海事)를 돕고 남서낭은 마을 전체를 수호하는 기능이 강한 것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강원도 동해안 어촌에서는 해사를 돕는 여서낭이 남서낭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여서낭의 당제는 대부분 정월에 행하며 제물로는 수소의 우낭이나 목제남근을 봉헌하는 마을이 많은데, 이는 남녀서낭의 합위의례(合位儀禮)처럼 음양의 화합을 통해 풍어와 해상안전 및 마을 주민들의 복락(福樂)을 기원하는 생생력의 상징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한국의 민속(김성배, 집문당, 1980), 한국민속대사전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속학의 이해(민속학회, 문학아카데미, 1994), 韓國의 山村民俗 I -치악산 편-(金泰坤 外, 敎文社, 1995),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韓國民俗學 새로 읽기(최인학 외, 民俗苑,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남 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이승철,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 김태수(金泰水)

황도붕기풍어제(黃島鵬旗豊漁祭)

정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에서 오래 전부터 풍어기원을 위해 지내오고 있는 마을굿. 이 대동제 형태의 풍어굿은 황도 외에도 위쪽으로 웅진, 연평도 지방 등에서 성행했고, 강화도와 아래쪽의 위도에서도 거행되고 있다. 현재 황도붕기풍어제는 충청남도 시도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황도마을제의에서 무굿은 6·25 이후로 한동안 끊겼다가 80년대 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의 예능보유자 김금화가 연결되면서 다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대동제의 원래 명칭은 대동굿이었으며, 6·25 이후 굿이 끊기면서 당제 또는 당맞이라고 하다가 대동제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무굿 위주로 진행되는 이 대동제는 음력 정월 초이틀에서 초사흗날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굿 시작 전에 먼저 피고사를 지내는 것과 초이틀 굿이 끝나는 자정 무렵에 노기올리기(당제사)를 하는 것이 다른 지방에 비해 특이하다. 이 대동제는 붕기풍어놀이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는 정부 주도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면서 붙여졌던 이름으로, 본래의 명칭은 아니다. 이 명칭은 굿거리 중간 중간에 춤추며 부르는 에밀랑(배치기노래)소리에 '봉기타령'이 나오는데 이에 근거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마을의 현 위치에 제당이 세워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전설이 있다. 옛날에 어느 날 앞바다에서 배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끼면서 어두워져 길을 잃고 위험 속에 빠졌다. 그 때 지금의 제당이 있는 곳에서 불빛이 비쳐 나왔고 배들은 불빛을 찾아 모두 무사히 귀환하였다. 그 이후 마을에서는 이 곳에 제당을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당제와 관련된 이러한 전설은 다른 지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동해안 안인진의 해랑당과 서해안 동호리의 영신당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





〈황도붕기풍어제〉
1 만선깃발과 봉기
2 피고사(선부정거리)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김상수

나 이러한 유래전설이 마을제의의 성립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황도대동제는 서해안 일대에 한 유형을 이루고 있는 풍어굿과 같이 제당의 당굿과 세경굿(마을 가가호호의 축원굿), 바닷가 강변용신굿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① 제당과 신령: 제당은 마을 뒤 그리 높지 않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본당은 정면 1칸 반 측면 1칸 형식의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부당인 산신당은 우진각지붕의 기와집이고 부속 건물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본당과 부당 모두 앞쪽에서 뒤쪽으로 길게 놓여 있고, 당집방문을 측면에 만들어 놓아서 측면을 정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제당의 이름을 원당으로 부르고 있다. 당집 주위에는 담이 둘려 있고 담 밖으로는 큰 고목과 잡목수풀이 당숲을 이루고 있다.

본당 안에 모셔진 신령은 사해용왕장군님 · 성주님 · 군왕장군님 · 삼불님 · 사해오방장군 등 다섯 분이 모셔져 있고, 옆의 산신당에는 산신님이 모셔져 있다. 일부 주민들은 원당에 열두 서낭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② 대동제의 절차와 내용: 마을에서는 음력 섣달 15일에 이장 · 동계(대동계)장 · 선주 등 마을 유지들이 대동제에 대한 회의를 열어 제의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당주도 정한다. 당주가 정해지면 그 집에는 금줄을 치고 문 앞에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으며, 당주 본인도 부정한 것을 피하는 금기에 들어간다. 대동제는 제당의 제물 차림과 제물용 동물희생으로 소를 잡는 일부터 시작한다. 오전 중에 당주는 소에게 물을 끼얹어 몸을 씻기고(부정가심) 당으로 끌고 가서 담밖의 정해진 장소에서 소를 잡는다. 소는 부분부분 팔각을 뜨고 제숙용, 주민음복용, 선주용으로 구분하여 창고에 넣어 놓는다. 소를 잡은 후 곧이어 소의 염통 · 간 등 내장 일부와 피를 그릇에 담아 제당 마당에 벌여 놓고 피고사를 지낸다. 이는 곧 신령에게 희생을 바치는 의식인 셈이다.

이 때 사제무 · 당주 · 당주부인 · 선주 모두 참여한다. 피고사가 끝나면 모두 당주 집으로 내려가 점심식사 등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당주집 부정을 푼다. 이어 당주와 사제무 일행, 뱃기를 든 선주들은 당굿을 위해 다시 당으로 오른다. 뱃기들은 당에 다다르기 전 약간 떨어진 곳에 도열하며, 하나씩 호명하면 당까지 뛰어가 미리 마련해 놓은 말뚝에 뱃기를 묶어세운다. 변화된 뱃기경주 형식이다. 원래의 뱃기경주는 당에서 길지를 받아 뱃기에 묶고는 배에까지 뛰어가는 것이었는데 넘어지고 다치는 사고가 많이 나서 중지한 지 오래되었다.

마을 안 가가호호를 돌아오는 세경굿은 상산맞이에 이어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곳에서는 초사흗날 선주축원 및 길지내리기로 당굿을 모두 마친 후 한다. 당굿은 대개 오후 4시쯤 시작되는데 굿거리는 다음과 같다.

초이튿날의 피고사는 선부정(당에 오르는 중간에), 상산맞이, 부정거리, 초영정 초감흥거리, 복잔내림, 제석거리, 성주거리, 소대감놀이, 말명거리, 성수거리, 타살군웅거리, 먼산장군거리, 대감거리, 조상거리(노기올리기, 당주 · 선주들), 벌대동굿 순서로 행한다. 초사흗날 제수 나누어주기(제숙경주)는 선주 축원 및 길지내림, 세경굿(마을 가가호호), 강변용신굿(띠배보내기), 거리제(황도와 안면도 연육교에서)의 순서로 행한다. 굿거리순서와 내용은 경우에 따라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





3 제숙경주
4 만선기가 꽂힌 당 전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김상수

③ 제숙경주와 뱃고사: 제숙경주는 뱃고사를 위해서 행해지는데, 이는 초사흗날 새벽 5시 무렵에 선주 몫으로 자루에 담아 놓은 제숙을 나누어 받고는 각기 자기 배로 뛰어 가는 것을 말한다. 제숙 자루를 짊어지고 배에 도착하면 배에서는 선주와 선원들이 기다렸다가 가지고 온 제숙으로 꼬치를 만들고 구워서 떡시루, 메, 나물 한 접시 등과 함께 갑판에 차리고 술잔을 올린 후 절을 하며 새해 첫 뱃고사를 드린다. 제숙경주를 벌이는 것은 당에서 받은 신성한 제숙을 자기네 배에 제일 먼저 가지고 와서 다른 배보다 먼저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이다. 원래는 일년 동안 배에 모시게 될 뱃신(神)을 당에서 내림받아 뱃기에 모시고 달리던 것이 제숙경주로 바뀌었다.

④ 음악과 춤: 황도대동제의 악기로는 장구, 징, 제금과 피리, 해금, 호적 등이 쓰이는데 피리와 해금, 호적은 전문잽이 한 사람이 교대로 사용하며 그 중 피리가 많이 사용된다. 굿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 반주는 장구반주이다. 피리와 호적 등은 굿거리 내용과 과정에 따라 이따금 사용되지만 장구는 굿거리 전 과정에서 반주를 해주어야 한다. 장구장단은 긴만세받이에서 "덩-궁딱따 덩-궁딱따"로 치고 자진 만세받이에서는 "덩-덩-딱 덩-덩-딱"으로 치며 산유만세는 빠른 3박과 2박이 혼합된 "덩따라궁덩따 덩따라궁덩따"로 친다. 춤에는 천천히 걷듯이 추는 거상춤과 앉았다 일어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버꾸춤이 있고, 신장칼춤 등의 칼춤이 있으며, 모듬발과 까치발로 격렬하게 추는 춤으로 천신대감춤·연풍대춤 등을 들 수 있다.

특징 황도붕기풍어제, 즉 황도대동제는 제의의 형태와 구조적인 측면에서 산(제당)의 당굿과 마을 안의 마을돌기굿(세경굿), 그리고 바닷가의 용왕굿(강변용신굿)이 있고, 공간과 연행내용을 볼 때 제의가 3개 과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대동제는 유식형 당제사와 무굿의 복합형태를 지니며, 당제사에 해당하는 노기올리기가 당굿이 끝나는 자정 무렵을 택하고 있는 점과 굿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사를 지내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피고사는 신에게 희생을 바치는 의식으로서 원초형 제사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도 제숙을 바치지만 생피를 바치는 경우는 드물다. 노기올리기도 전날 밤 당제사에 다음날 아침 무굿(또는 무굿 시작 전 당제사)의 등식을 뒤집는 형식이다.

황도대동제에서는 굿거리가 하나씩 끝나면 그 중간에 북을 치며 에밀냥(배치기노래)을 한다. 굿거리 중간의 이 에밀냥을 노래할 때가 제의에 참여한 주민들의 가장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 제숙경주는 제당의 마을굿과 선주 개인제의인 뱃고사가 유기적 관련성을 지니면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황도대동제는 선주와 선원, 선주와 주민간의 대동화합을 이루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 韓國 西海岸一帶의 海岸信仰(河孝吉, 扶安 竹幕洞祭祀遺蹟 硏究, 國立全州博物館, 1998),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하효길, 화산문화, 2002), 황도대동제의 형태와 그 변화양상(하효길, 현장의 민속학, 민속원, 2002).
집필자 | 하효길(河孝吉)

곡식걸기(穀食—)

정의 곡식종자를 넣은 주머니를 처마나 기둥 등에 걸어놓는 풍속. 지역에 따라 곡식종자걸어두기·곡식주머니걸기·남의집이삭걸기·도투마리(또뚜마리)걸기 등 다양하게 불린다.

내용 곡식걸기는 주로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정초에 하기도 한다. 이는 농사의 기풍의식(祈豊意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외에도 한 해의 운수대통을 기원하거나 송사(訟事)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기원, 혹은 질병이나 잡귀·잡신을 물리치고자 하는 맥이(막이)의 의도로 행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남 합천에서는 그 해 운수가 좋지 않은 사람은 대보름에 우물가에 가서 동냥곡식매달기를 한다. 이는 무당의 말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동네 몇 집에서 곡식을 동냥하여 쌈지에 넣은 다음 우물가의 나무에 매달아 두면 나쁜 운수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사천에서는 송사가 생기면 베를 짤 때 날실을 감는 도투마리(또뚜마리)를 부엌에 걸어두는데, 이렇게 하면 법정 문제가 해결되어 승소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밀양에서는 보름날 남의 집 잘된 곡식 이삭을 얻어다가 자기 집 기둥에 매달면, 그 해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강원도 고성에서는 정초에 가시가 많은 두릅나무를 꺾어다 면실로 묶어서 처마 밑에 매달아 두는데, 잡귀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경북 울릉에서는 정초에 물개의 살이

나 기름을 대문에 걸어둔다. 그러면 장질부사나 괴질 같은 병이 오지 않는다고 믿는다.

전북 고창에서는 보름날 아침에 곡식 종자를 구멍 뚫은 조롱박에 넣어 가을까지 처마 밑에 걸어둔다. 전남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보름날 아침에 전구 크기의 주머니에 집안의 모든 종류의 곡식 씨앗을 넣고 나무에 걸어놓는다.

의의 곡식걸기는 주로 그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풍년기원 외에도 한 해의 나쁜 운수를 피하기 위한 맥이의 행위로, 또는 잡귀·잡신의 예방이나 송사를 무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것을 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정초에 행함으로써 일년 동안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한미옥(韓美玉)

날씨점

정의 정초에 날씨를 보고 일년의 기후와 농사, 개인이나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방법. 천기점(天氣占)이라고도 한다.

유래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을 주요 생업기반으로 삼아왔다. 그리하여 농사의 풍흉과 직결되는 날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천체와 기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예측해 자연재해에 대비해 왔다. 신라는 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하였고, 고려는 서운관(書雲觀), 조선은 관상감(觀象監)을 두어 자연재이(自然災異)현상을 관찰하고 정무에 참고했다.

내용 날씨점은 일월성신(日月星辰)·풍운뇌우(風雲雷雨) 등의 자연현상이나 서리, 이슬, 안개, 노을, 무지개의 상태에 따라 날씨를 예측하고 인사(人事)의 길흉, 농작물의 풍흉 등을 점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햇무리가 지면 비가 내리고, 여름밤에 별이 촘촘하면 열기가 몰려온다.", "달빛이 붉거나 봄에 서리가 많이 내리면 가뭄이 든다.", "여름에 북풍이 불면 반드시 비가 온다.", "무지개가 동쪽에 서면 날이 개고, 서쪽에 서면 비가 온다.", "3일간 짙은 안개가 끼면 반드시 광풍이 일어나고, 눈이 내려 녹지 않으면 대설(大雪)의 조짐이다." 등의 날씨점은 대부분 단기예보이다. 한편 상당히 긴 장기예보도 있었다. 한 달을 단위로 하는 월차점(月次占), 24절기를 단위로 하는 절기점(節氣占)이 그것이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 첫 만월인 정월 대보름,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2월에는 일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예보의 날씨점이 많았다.

『가정백방길흉비결(家庭百方吉凶秘訣)』에 "정월 초하루에 날씨가 맑고 따뜻하면 오곡이 잘 여물고, 사람에게 질병이 적다. 가축도 잘 번식하고 도적이 줄어들어 나라가 태평하다. 흐리고 비가 오면 사람과 가축에 재앙이 있고, 과실이 결실을 맺지 못하며, 논밭에 큰 물결이 인다. 눈이 많이 내리면 쌀과 보리가 풍년이 들며 살기가 편안하다. 그러나 소·양·개에게 재해가 있고, 과일의 소출이 적으며 물고기가 귀해진다. 만약 노을이 지면 메뚜기가 창궐하고 누에치기가 부실하며 부녀자에게 재해가 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풍성해진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날씨점은 콩과 팥의 꽃이 필 때 비가 내리면 결실을 맺지 않는다거나 멸치 어기에 천둥소리가 자주 나면 어획량이 많다는 속신(俗信)에서 보듯이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식과 혜성의 출현은 나라에 대란(大亂)이 있을 전조(前兆)요, 월식은 전염병이 유행할 징조이며, 혼인식 때 비가 오면 불길하고, 사위가 들어오는 날 일기가 불순하면 사위의 기(氣)가 거칠다."는 점사 등은 현대에는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는 하늘에 재이(災異)가 있으면 반드시 인사와 부합된다는 중국 한대(漢代) 음양가(陰陽家)의 천인감응(天人感應) 관념으로 자칫 확대 해석되면, "사람의 원한이 하늘에 미치고, 하늘이 사람에게 길흉을 내린다." 하여 세상을 현혹시키는 사술(邪術)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참고문헌 | 高麗史, 三國史記, 家庭百方吉凶秘訣(金東縉 編, 德興書林, 1947), 韓國民俗大觀3 -民間信仰·宗敎-(高麗大學敎 民族文化硏究所, 1981), 朝鮮의 占卜과 豫言(村山智順 著·金禧慶 譯, 東文選, 1990).
필자 | 이찬욱(李潔旭)



대명의 제물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심환근

대명(代命)

정의 정초에 산짐승을 희생함으로써 사람의 명을 잇고자 하는 제주도 풍속. 제물을 차려 액을 막는 방쉬와 달리 반드시 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대멩'이라고도 한다.

유래 제주도에서는 바다 · 산 · 마을에서 떨어진 조용한 들판, 또는 그 해의 튼방(사방이 막히지 않고 트인 장소)에 가서 산 짐승을 버리는 풍속이 행해져 왔다. 근래에도 종이상자에 담아 띄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을 전전해도 병이 낫지 않으면 바다에 가서 장닭을 띄워 보냈다고 한다.

내용 산뒤짚(밭벼짚)으로 만든 2~3자 정도 크기의 배에 장닭을 실어 떠나 보낸다. 배 대신 차롱착(대바구니의 일종)에 실어 보내기도 하는데, 환자의 나이 수만큼 동전을 함께 넣기도 했다. 희생물은 주인이나 가까운 친지가 지고 가며 심방이 따라간다. 바다에 갈 형편이 안 되면 인근 물통에 버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개 굿 제의 후 행해졌으나, 정초 멩감철같이 때의례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주로 붉은 장닭을 제물로 썼으나, 큰굿 뒤에는 가름도새기(중돼지)의 목을 쳐서 환자에게 피를 칠하고 머리만을 잘라 띄워 보낸 후 몸통은 먹기도 했다.

만일 누가 보면 허사가 된다 하여 새벽에 행하며, 버리고 올 때 뒤를 돌아보면 액이 되돌아온다고 하여 돌아보지 않는다. 또 대명한 것을 처음 본 사람은 액을 맡아온다 하여 침을 세 번 뱉는다. 희생에는 손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몰래 가져다 먹기도 했다. 심방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대명을 했다가 집안이 망했다는 속설도 있다.



제물 띄워 보내기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심환근

의의 병원이 없던 시절 생물의 희생으로 사람의 목숨을 잇고자 했던 신앙 · 주술의례로, 행하는 자나 주변인 모두 엄격한 금기와 속신을 지키는 질서와 배려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양영자(梁永子)

동물점(動物占)

정의 정초에 소 · 까치 · 닭 · 용 등 동물들을 통해 일년의 운수나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방법.

내용 동물점은 설날의 청참(聽讖) · 정초십이지일(十二支日), 정월대보름의 소점[牛占] · 닭울음점[鷄鳴占], 동짓달의 용갈이[龍耕] 등이 있다.

청참은 설날 꼭두새벽 길거리에 나가 처음 듣는 소리로 일년의 운수를 점치는 것이다. "까치소리를 들으면 길하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풍재(風災)와 병마(病魔)가 있어 불길하다. 송아지가 우는 소리를 듣거나 소가 일찍부터 기동을 하면 풍년이 들 징조이다. 개가 짖으면 도둑이 많다." 등으로 특히 길짐승 · 날짐승의 소리로 새해의 운수나 풍년을 점친다.

정월 초하루부터 열이튿날까지의 12일 동안을 일진(日辰)에 의하여 유모일(有毛日)과 무모일(無毛日)로 나눈다. 무모일은 용날과 뱀날을 의미하고 나머지 날들은 유모일이라고 한다. 설날이 유모일인 때에는 오곡이 잘 익어 풍년이 들며, 무모일인 때에는 흉년이 든다고 한다.

소밥주기는 소에게 정월 대보름 전날 밤 사람이 먹는 것을 키에다가 그대로 차려 주고 소가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 것이다. 소가 쌀을 먼저 먹으면 벼농사가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밭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여긴다. 경북 경산시 자인에서는 대보름 전날 소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소가 밥부터 먹으면 풍년, 나물부터 먹으면 흉년이라고 점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상원조(上元條)에는 닭울음점을 "대보름날 꼭두새벽에 닭이 첫 번 우는 소리를 기다려서 그 우는 횟수를 센다. 닭 울음소리가 적으면 흉년이고, 열 번 이상 넘겨 울면 그 해 농사는 풍년이 든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짓달의 용갈이는 겨울에 연못의 얼음이 갈라지

는 형상으로 그 해 농작의 풍흉을 짐작하는 점법이다. 얼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즉 세로로 갈라져 있으면 풍년이 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로 갈라져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이 습속은 못에 살고 있는 용이 밭갈이를 하는 것이라고 믿어 점풍하여 왔다.

의의 나라의 흥망, 기후의 변화, 국가대사의 성패 등을 미리 알려주는 동물 사례는 여러 문헌이나 풍속에서 수없이 많이 등장한다. 동물점은 새해를 시작하는 정초에 주로 동물들의 예지능력(豫知能力)을 통해 새해의 운수나 농사의 풍흉을 점쳤던 풍속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 천진기(千鎭基)

득신(得辛)

정의 음력 정월 첫 번째 드는 신일(辛日)로서 한 해의 풍흉을 예측하는 방법.

내용 득신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책력(冊曆)을 보고 그 해에 첫 번째 드는 신일이 언제인가를 확인하여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방법이다. 책력에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조에 '모일득신(某日得辛)'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언제 신일이 드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춘하추동(春夏秋冬)의 기운을 각기 갑을목기(甲乙木氣)·병정화기(丙丁火氣)·경신금기(庚辛金氣)·임계수기(壬癸水氣)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신(辛)은 금의 기운[金氣]을 알리는 천지 기운으로서 가을에 만물을 성숙(成熟)하게 하는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한 일진의 천간(天干)이 신(辛)으로 드는 날을 득신(得辛)이라 하여, 가을의 결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신이 정월 초하루에 들면 일일득신(一日得辛)이라 하며, 오일에 들면 오일득신이라 한다. 천간이 십간(十干)이므로 일일득신부터 십일득신이 있다.

신(辛)이 드는 날짜의 숫자는 벼꽃이 벌어져 있는 기간을 뜻한다. 일일득신이면 벼의 꽃이 벌어져 있는 동안이 하루이고, 십일득신이면 그 동안이 열흘이라고 한다. 이 기간 동안에 날이 따뜻하고 비가 오지 않아야 좋다고 하며, 이와 반대로 바람이 심하거나 비가 많아서 벼꽃이 떨어지거나 벼꽃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면 생장에 좋지 않다고 여긴다. 곧 득신이 너무 길면 그 사이에 풍우가 많아 쭉정이가 많으며, 너무 짧으면 벼가 잘 여물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삼일득신·사일득신·오일득신을 가장 좋게 여긴다.

참고문헌 |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효경(金孝慶)

박쥐날리기

정의 정초에 박쥐를 잡아 소원성취를 비는 문구를 박쥐날개에 써서 날려 보내는 풍속.

내용 주로 사대부집에서 액연날리기 대신에 박쥐날리기를 한다. 박쥐는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박쥐똥으로 박쥐의 소재를 찾아 잡는다. 박쥐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어서 임금의 침전에 있는 베갯모 양쪽 가장자리에 수를 놓는다.

지역사례 박쥐날리기 풍속은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수 사례로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에 연을 날렸고, 양반들은 산 박쥐나 종이로 만든 박쥐를 송액(送厄)의 뜻으로 날려 보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편집부(編輯部)

뱀입춘(一立春)

정의 정초의 상사일(上巳日)이나 정월 대보름날 집안에 뱀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부적의 일종.

내용 예전에는 뱀이 많아 이를 축송(逐送)하기 위해 음력 정월 대보름날이나 상사일인 첫 뱀날에 뱀이 나올 만한 집안 곳곳에 뱀입춘을 붙여 놓았다. 대개 세로 3센티미터 내외, 가로 2센티미터 내외 정도의 백지 여러 개를 만들어 거기에 묵필로 뱀 퇴치를 위한 글자를 적어놓는다. 글자는 보통 사(巳)·백사(白巳)·청사(青巳)·백룡(白龍)·청룡(青龍)·흑룡(黑龍)·적룡(赤龍)·황룡(黃龍)·청사(青蛇)·

황사(黃蛇)·흑사(黑蛇) 등이다. 이 외에도 뱀을 죽이는데 유명한 적제자(赤帝子)를 비롯하여 격검(擊劍)의 위엄을 떨쳤다는 항우(項羽)를 들어 적제자참사(赤帝子斬巳)·패왕검(覇王劍)·항우검(項羽劍)·발검참사(拔劍斬巳)·발검참사한태조(拔劍斬巳漢太祖)·사방무일사(四方無一巳) 등을 쓰며, 이외에 축사장군이삼만적차(逐巳將軍李三萬適此)란 글귀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글자를 쓰는 일을 "뱀날의 입춘 쓴다." 또는 "뱀입춘 쓴다.", "뱀부적 쓴다.", "뱀지지 쓴다."고 말한다.

뱀입춘은 주로 집의 기둥 밑이나 담벽, 집 주위, 축사, 우물, 샘터 등 곳곳에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데, 그러면 뱀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복엿먹기(福—)

정의 정초나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엿을 먹는 풍속. 이 때 먹는 엿은 몸에 좋다고 하여 '복엿'이라 하며, 주로 흰색의 가락엿을 먹는다.

내용 복엿을 먹으면 얼굴에 버짐이 피지 않으며, 여름철에 보리밥이 꿀맛처럼 달다고 여기기도 하고, 일년 내내 입맛이 좋아져서 무엇이든 맛있게 먹는다고 여긴다. 또한 복엿을 먹으면 엿가락처럼 살림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에서는 보름날 아침에 엿을 먹으면 일년간 입맛이 좋아져서 무엇이든 맛있게 먹는다고 한다. 의왕시 고천동 안골마을은 정월 대보름 아침에 흰떡과 복엿을 먹으면 엿가락처럼 살림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다고 한다. 고양군 일산구 가좌동에서는 정월 대보름 아침에 가래떡에 조청을 발라 먹거나 엿을 먹으면 일년 내내 밥맛이 좋아진다고 한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숯골마을에서는 정초에 마을에 들어온 엿장수에게 엿을 사서 먹으면 복이 온다고 한다. 연기군 서면 용암리 용암마을에서는 정월에 마을에 들어온 엿장수에게 복엿을 사서 먹기도 하고, 복조리에 담아 두기도 한다.

의의 예전에는 엿을 보양음식으로 여겼다. 단맛의 엿을 먹음으로써 일년 내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엿을 먹을 때 늘어나는 엿가락에서 재물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속신도 생겨나게 되었다.

유사풍속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상원조(上元條)에 "의주 풍속에 어린 남녀들이 새벽에 엿을 깨는 것을 치교(齒較)라 한다."고 하여 '이닦기엿'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이닦기엿은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부럼의 일종으로 지금도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닦기엿 대신 사탕을 먹기도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양진조(梁鎭潮)

삼재막이(三災—)

정의 삼재(三災)는 물·불·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재해로서 수종(水腫)·심화(心火)·풍병(風病)을 의미하는데, 새해에 들어와 삼재에 걸린 사람이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 쓰는 부적이나 기타 주술적 행위를 하는 액막이.

내용 삼재는 12지를 따져서 3년에 걸쳐 들게 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쓰여진 삼재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유축(己酉丑)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해자축(亥子丑)의 해에, 신자신(申子辰)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인묘미(寅卯未)의 해에, 해묘미(亥卯未)에 태어난 사람은 사오미(巳午未)의 해에, 인오술(寅午戌)에 태어난 사람은 신유술(申酉戌)의 해에 삼재가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재는 일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있다. 그래서 첫 해는 삼재가 드는 해라고 하여 '들삼재', 2년째는 '누울삼재', 마지막 해는 삼재가 나간다고 하여 '날삼재'라고 한다. 특히 삼재가 드는 해에는 더욱 조심한다. 삼재 때 꼭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복삼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액막이는 정월 초·정월 14일·입춘

등에 행한다. 대개 무당이나 절을 찾아가 삼재경(三災經) 등을 읽거나 삼재막이굿을 행함으로써 액막이를 하고 부적을 받아온다. 삼재에 걸린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머리가 세 개 달린 매나 호랑이가 그려진 부적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머리 세 개인 매가 그려진 것은 『동국세시기』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9세기 이전부터 이런 방식이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매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액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적을 그려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랑이가 그려진 삼재부의 경우에도 단지 호랑이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부(永安符)·관재부(官災符)·금란부(禁亂符) 등이 부가되어 있다. 즉, 호랑이가 지닌 귀신을 제압하는 힘에 더해서 세 가지의 부적이 존재함으로써 부적의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에서는 삼재가 낀 사람의 속옷을 태우는 방식이 널리 전승되어 왔다. 또한 삼재에 걸린 사람의 이름과 사주, 그리고 약간의 돈을 넣은 허수아비를 거리에 갖다 버리는 방식도 영남 지방에서 많이 전승되었다. 즉,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 의미를 지닌 행위를 통해 삼재의 액을 쫓아버리는 방식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웅의 습속과 혼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옷이나 손톱 등 삼재에 걸린 사람을 상징하는 물건을 명태나 허재비(허수아비) 등에 넣고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는 방식도 있다. 이것은 삼재 낀 사람의 액을 명태나 허재비 등에 실려 보낸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를 대퇴물(代退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신하여 퇴물함으로써 삼재가 낀 사람의 액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주술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일반적으로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거나 경문을 읽게 하고, 절을 찾아가 스님으로부터 부적을 받는 액막이 방식을 취한다. 무당을 부르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로 절을 찾아가 부적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삼재막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도 못한 상태로 넘어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액막이를 하는지 특징적인 내용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무당을 찾아가 삼재굿을 한다. 예전에는 무당이 집으로 와서 굿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굿을 하면 쌀 한 가마니·돼지 한 마리·삼실과 등을 올린다. 굿이 끝나면 수고비조로 300~5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성남에서도 무당집을 찾아가 삼재막이를 하는데, 이 때 나이만큼의 동전과 평소 입고 다니던 윗옷을 가져와야 한다. 무당은 그릇에 동전을 담아놓고 옷을 태우며 독경무와 같이 삼재풀이를 한다. 요즘에는 절에 가서 삼재부적을 2장 구입하는데, 하나는 베개 밑에 넣고 다른 하나는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안성에서는 특이하게 무당에게 액막이날을 택일받아 자신이 직접 오곡밥을 그릇에 담아 삼거리에 나가 고시레를 한다. 안양에서는 절에서 삼재든 사람의 옷에 나이를 적어 입춘에 태운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도 절에 가거나 무당집에서 삼재막이를 한다. 무당집에서 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점쟁이를 불러 간단히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정에서 주부가 혼자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속옷을 태우고 사자밥과 허수아비를 만들어 길거리에 버린다고 한다. 허수아비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형 크기로 한다. 마치 제웅처럼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삼재든 사람의 생년월일과 성명, 그리고 동전을 넣는다. 이 때 사자밥을 차려놓는데, 밥·소금·나물 각각 세 접시씩, 동전 몇 개와 삼베 조각을 올려 놓는다. 그런 후에 비손을 하고 사자밥과 허수아비는 사거리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인제 지역에서는 짚인형을 3~4개 정도 만들어 나물과 밥을 그 속에 넣는다. 이것을 세 갈래 길에 놓아두고 주문을 외우면서 칼을 던진다고 하는데, 칼날이 밖을 향해야 좋다고 한다.

충남 보령에서는 입춘날 절에 가서 삼재막이를



삼재막이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리1리
국립민속박물관



부탁하고, 그러면 스님이 삼재풀이를 하고 부적을 써준다고 한다. 이 때 삼재가 든 사람의 속옷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스님이 태워버린다. 이 지역에서는 삼재풀이를 입춘에 해야만 액이 소멸된다고 믿는다. 원산도에서는 음력 정월 14일 밤 마을 삼거리에서 거리제를 지낼 때 홍수막이와 삼재막이를 행한다고 한다. 삼재막이를 위해 법사를 따로 불러 지내는 사람도 있다. 아산에서는 삼재풀이를 정초뿐만 아니라, 초파일과 동짓날에도 한다. 절에서 할 경우 헝겊을 향과 함께 태우면서 스님이 "몇 살 짜리, 몇 살짜리" 하고 말하며 불공을 드려주며, 무당집에서 할 경우에는 쌀과 돈을 주고 삼재풀이굿을 청한다. 천안에서는 삼재가 들면 안 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삼재풀이를 해 주는데, 삼재는 주로 절에 가서 푼다. 이 때 삼재가 든 사람의 속옷을 한 벌 가지고 가며, 스님은 팥죽으로 공양을 한다. 그리고 속옷에 돈을 조금 넣고 태우면서 삼재경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옷에 넣은 돈은 액을 보내면서 갖고 가라는 노자돈의 의미이다. 집에서 할 경우에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 수수팥단지를 만들어 삼재가 든 사람과 삼거리로 간다. 삼재 든 사람을 삼거리 중앙에 앉힌 후 머리 위에 바가지를 씌운다. 수수팥단지를 막대기에 꿰어서 마치 활을 쏘듯이 바가지를 쓴 사람의 머리로 날리면 액막이가 된다고 한다. 당진의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수수팥단지 24개를 만들어 그것을 수숫대에 꽂아 놓는다. 그러면 독경을 하는 경쟁이가 삼거리에 와서 먼저 축원을 한 후 24방위로 하나씩 쏘는 방식이다. 무당이 삼재가 낀 사람의 옷옷을 갖고 삼거리에 가서 간단한 제물을 차린 후 비손을 드리고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다. 당진의 고대리 안섬에서는 삼재풀이를 위해 무당집에 갈 때 각성받이 집을 찾아가 쌀을 얻어간다. 이 마을은 각성받이이기 때문에 부정한 집을 빼고 약 20집 정도의 쌀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쌀 이외에 삼재가 낀 사람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겨 간다. 삼재풀이의 상세한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쌀을 가져가 떡과 메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며, 걸립한 쌀은 불밝이쌀로만 사용한다. 이 외에 명태와 흰 닭 등을 사는데, 이를 위해 무당에게 미리 돈을 지불한다. 제물의 준비가 끝나면 제상에 속옷을 명태에 말아 올린다. 무당이 축원을 하고 가정주부와 대주에게 정성껏 절을 하라고 하는데,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한다. 절이 끝나면 흰 닭의 날개에 속옷과 돈을 넣은 상태로 다리를 잡고서 축원을 한다. 어느 정도 축원을 하면 닭은 죽는다고 하는데, 만약 죽지 않으면 액막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뒤 구정물에 제물을 조금씩 담은 바가지와 부엌칼을 들고 마루로 나선다. 여기서 칼을 던져 풀이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칼끝이 바깥으로 향해야 좋다고 하며, 안 되면 계속 던진다. 그런 다음 문밖으로 나가 구정물을 버리고, 방안으로 와서 기뽑기를 하는데, 노란기는 성주, 흰기는 칠성, 빨간기는 산신이 돌본다고 생각한다. 이후에 무당은 부적을 2장 써주는데, 한 장은 몸에, 한 장은 현관 문 위에 붙인다.

청양에서도 삼거리에 제물을 차려놓고 비손을 한다. 이 때 제물로는 세 가지 나물과 밥 · 떡 · 돼지머리 · 북어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삼재가 낀 사람의 손톱과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세 개를 북어 입에 넣고 땅에 묻는다는 것이다. 북어가 그 사람의 나쁜 운세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뒤에 소지를 올리고 사방으로 제물을 고시레한다.

충북 보은에서는 입춘날 주로 절을 찾아가 삼재막이를 하고 부적도 받는다. 삼재막이는 입춘날 절에 가서 삼재부적에 생년월일을 쓰고 연등에 달아서 태워버리는 방식이다. 이 때 스님이 삼재풀이를 해준다. 절에서 속옷을 부적과 함께 태우는 경우도

있다. 집에서 하는 방식은 정월 14일 밤 삼거리로 나가 간단하게 제물을 차리고 치성을 드린 후에 허재비를 버리는 것이다. 허재비 안에는 돈과 떡을 넣는다. 또한 수수떡 3개를 팥고물에 묻혀서 싸리나무에 꽂아 두기도 한다.

경남 거제에서도 주로 삼재부적을 붙인다. 과거에는 정월 14일 저녁에 작은 허수아비를 세 갈래 길에 던지는 방식도 많았다고 한다. 허수아비에는 삼재가 낀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를 넣는다. 마산에서도 주로 부적을 쓰는데, 큰일을 앞둔 사람은 옷 · 쌀 · 한지를 동쪽으로 향해서 태우면서 무사하기를 기원한다.

통영에서는 삼재 중에서도 '날삼재' 때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믿는다. 혼인할 사람이 있더라도 이때는 피한다. 삼재풀이는 정월 대보름날 허새비(허재비)를 만들어 삼거리에 갖다 버리는 방식이다. 허재비 안에는 동전 몇 개를 넣고, 이름을 적은 종이로 허재비를 싸서 버린다. 고성에서도 날삼재 때에는 말다툼과 돈을 빌려주는 행위, 여행을 떠나거나 초상집을 찾아가는 것을 피할 정도로 주의한다. 창녕에서는 들삼재 때는 외부인이 집을 찾아오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날삼재에는 출타하는 것이 좋고, 누울삼재에는 외출하는 것을 금한다. 삼재막이를 위해서 정월 14일과 15일에 절에 찾아가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이 때도 부적을 받아서 갖고 다녀야 좋다. 남해 지방에서는 삼재를 꼭 무당이 풀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삼재풀이굿이 끝나면 허재비를 불에 태운다.

경북 구미에서는 삼재를 풀어주는 것을 양밥해준다고 한다. 절과 무당을 찾아가서 푸는데, 절의 경우에는 큰 봉투에 삼재가 낀 사람의 나이만큼의 10원짜리 동전과 저고리를 같이 넣고 태운다. 무당은 달을 보고 절을 하거나 색칠한 종이로 만든 깃대를 집의 용마루에 꽂아 두라고 한다. 이 깃대는 바람에 날려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칠곡에서는 깃대 대신에 소금과 팥을 넣은 버선을 건다. 이 때 남자는 왼쪽 버선을, 여자는 오른쪽 버선을 쓴다. 영주에서는 절을 찾아가는데, 십원짜리 동전과 노가리를 나이대로 마련해 스님에게 드리면 알아서 삼재막이를 해준다고 한다. 집안에서 할 때는 먼저 택일을 하고, 색종이에 쌀을 넣고 세모로 접은 것은 남들이 모르게 마을 삼거리에 갖다 버리면 액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전남 목포에서는 허재비 안에 동전을 넣고 짚으로 일곱 매듭을 지어 삼거리에 갖다 버리거나 땅에 묻는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삼재에 돈을 벌면 좀처럼 그 돈을 잃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 삼재가 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점쟁이를 불러 삼재막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점쟁이는 무명베를 일곱 매듭한 천과 칼을 들고 삼거리로 나가서 땅에 십자를 그은 후 땅을 파고 천과 칼을 묻는다. 특히 칼은 자기 집의 것이 아니라, 세 성을 쓰는 사람이 모여 사는 집의 칼을 훔쳐 써야 한다. 영광에서는 명태를 일곱 매듭으로 묶어 삼거리에 묻는다.

여수에서는 당골(무당)을 불러 고사를 하기도 하지만, 주부가 직접 제물을 장만하여 삼거리로 나가 고사를 드린다. 제물은 밥 3그릇, 나물 3그릇, 된장 3그릇, 소금 3그릇, 술 3잔 등이다. 제물을 3그릇씩 장만하는 이유는 저승사자 3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고사가 끝나면 미리 준비한 허재비를 버리고 오는데, 허재비가 액을 가져간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해남에서는 무당을 불러다가 작은 굿을 한다. 무당이 방법을 가르쳐 줄 때는 대개 바닷가에서 하는데, 쪽박 안에 촛불을 밝히거나 심지불을 켜서 바다로 띄워 보낸다. 치성을 드리고 돼지머리나 명태 등을 바다에 버려 액막이하는 방식도 있다.

전북 전주에서는 삼재막이를 길에서 하는데, 이것을 '길산(상)제' 라고 부른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떡과 나물 등의 제물을 차려 놓고 간단한 고사를 지낸다. 이것을 길대장군 대접한다고 말한다. 이외에 냇가에서 용왕에게 대접하는 '용왕신제' 나 산신에게 대접하는 '산신제' 등으로 삼재막이를 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符籍의 機能論 序說(金宗大, 韓國民俗學20, 韓國民俗學會, 1987), 한국호랑이민예(국립민속박물관 엮음, 대원사, 1988), 三災와 厄年에 의한 災殃認識과 對應方式(노성환, 比較民俗學20, 比較民俗學會, 2001),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종대(金宗大)



소지점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국립민속박물관

소지점(燒紙占)

정의 제의 때 신전에 올렸던 소지(素紙)를 태워 타는 모양을 보고 치는 점.

내용 '소지(素紙)'는 신에게 올리는 하얀 창호지인 백지를 말한다. 모든 무속의례의 마지막에 신에게 원정(願情)을 올릴 때는 이 소지를 태워서 신탁 여부를 점치게 된다. 소지를 올리는 일은 제액을 예방하려는 뜻으로 신에게 올리는 지전(紙錢)이나 상소문의 구실을 한다.

소지를 태웠을 때 연기와 그을음이 바로 위로 올라가면 좋다고 한다. 소지가 잘 타지 않거나 연기와 그을음이 흩어지고 땅으로 떨어지면 다시 무당을 청해서 제의를 베푼다. 특히 운수가 좋지 않은 사람은 정월 대보름에 문전에 절한 후 소지를 석 장 태우면서 소지원정을 한다. 이는 부정을 가시게 하는 의미와 신에게 간청을 드리는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韓國巫俗의 硏究(崔吉城, 亞細亞文化社, 1978).

필자 | 좌혜경(左惠景)

신수점(身數占)

정의 삶에 대한 길흉을 점치는 방법. 연운법(年運法)이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사주(四柱)·관상(觀相)·궁합(宮合)·택일(擇日) 등 예조(豫兆)를 통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미리 알아보는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모든 점법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일년 내 신상에 일어나는 길흉화복을 미리 판단하여 경계하고 예방하는 피흉취길(避凶趣吉)의 점법을 말한다.

유래 및 내용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쌀점을 쳐서 길흉화복을 점친다거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오행점을 쳐서 일년 신수를 알아본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수점의 연원은 조선 후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 신수점은 음력으로 전년 12월에서 신년 정월 안에 보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의 점복 행위는 대체로 의도하는 어떤 일의 실천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이미 시도한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알고자 할 때, 또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어떤 일의 뜻을 해석하고자 할 때 이루어진다. 대부분 정월 초닷새 이후 여자들이 무당이나 박수 또는 만신을 찾아가서 영매(靈媒)를 통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일년 운수를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민간의 풍속이다. 요즈음에는 가정에서 토정비결이나 윷점을 통하여 대체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정보를 검색하기도 한다. 만약 점괘가 좋지 않을 때는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되풀이한다. 이 경우는 문복자(問卜者)가 점복의 결과를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신의 뜻 또는 초자연적인 운명으로 경건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미 또는 오락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현실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는 엄습하는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고자 복채를 들고 전문적인 점술가나 역술가를 찾아가서 신수점을 본다. 어떠한 경우에든 모두가 신상에 끼인 액을 밝혀내고 복을 불러들일 방법을 추구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수점의 종류는 다양하나 그 대략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척미점(擲米占)은 신단에 쌀을 바치고 주문을 외운 후에 이 쌀을 상 위에 흩뿌려 그 흩어진 상태나 집어든 쌀알의 짝수·홀수 또는 잡힌 낱알의 숫자를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 문복자에게 길흉화복을 알려준다. 이것은 쌀점이라고도 하는데 쌀점은 고려 때의 유풍으로 대개 무녀가 행한다.

전점(錢占)은 3개 이상 수십 개의 엽전이나 동전을 상 위에 던져 그 흩어진 상태에 따라 신의 뜻을



점보기 이서지

파악하거나, 아니면 돈의 흩어진 상황과 문복자의 사주를 맞추어 길흉을 판단하는 점법으로서 무녀가 행한다.

육효점(六爻占)은 엽전 3개를 여섯 번 던져서 그 표리(表裏)를 살펴 6개의 양효(陽爻)와 음효(陰爻)를 구하여 하나의 괘를 만들고, 이 괘를 기초로 해서 길흉화복을 점친다. 맹인이 산통(算筒) 속의 산가지를 뽑아 점치는 산통점이나 문복자가 뽑아낸 솔잎으로 점치는 송엽점(松葉占)은 모두 공통적으로 6개의 효를 구하여 점을 친다 하여 육효점의 일종으로 본다. 육효점은 산통점에 이어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행하여진 점법이다.

단시점(斷時占)은 대개 기다리는 사람이나 구하는 물건이 있을 때, 병세의 진전, 관아의 송사, 잉태의 유무와 같이 임시로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 문복자의 생년간지(生年干支)와 점치는 날의 일간(日干), 점치는 때의 시지(時支)를 합하여 3개의 괘를 만들어 점을 친다.

새점은 참새과에 속하는 주시마새로 하여금 임의로 64괘 중에서 하나의 쪽지를 물게 하여 이 괘상으로 길흉을 판단하는 점복이다. 성명 판단은 문복자의 성명자 획수를 세어서 괘를 만들고 이 괘를 문복자의 사주와 조합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한다.

토정비결은 생년월일의 정수(定數)에 따라 일정한 수를 얻어 상·중·하 3개의 괘를 구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괘상을 만든다. 그리하여 그 괘상에 해당하는 4언 3구의 글로써 길흉화복을 판단한다.

신수점은 점괘의 좋고 나쁨을 떠나 우리에게 근신과 경계 또는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점에서 민간에 널리 유행한 점법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靑莊館全書, 韓國民俗大觀3 -民間信仰·宗敎-(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朝鮮의 占卜과 豫言(村山智順 著·金禧慶 譯, 東文選,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의 占卜(김태곤 외, 민속원, 1995).
필자 | 이찬욱(李燦旭)

오행점(五行占)

정의 오행(五行)인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다섯 글자로 점괘를 만들어 운수의 길흉을 점치는 신수점(身數占).

내용 동쪽으로 뻗은 대추나무 가지를 베어 길이 2~3센티미터로 자른다. 가운데를 쪼개어 다섯 가지를 만들고, 안쪽의 흰 곳에 목·화·토·금·수의 다섯 글자를 한 자씩 쓴다. 또는 다섯 개 엽전의 이면에 목·화·토·금·수를 각각 한 자씩 쓴다. 이것들을 손안에 모아 쥐고 섞으면서 "하늘에 말씀이 있으면 땅에도 말씀이 있으리다. 고하나니 감응하시어 순통(順通)케 하소서. 지금 아무 곳에 사는 모년 모월 모일생 아무개가 모년 모월 모일에 금년 운수를 알고자 하오니 신명께서는 부디 거역치 마시고 잘 징험(徵驗)케 하여 주소서." 하고 주문을 세 번 외운 다음 일시에 던져서 나타난 오행 글자로 점괘를 얻고, 그 점괘에 해당하는 점사를 읽어 운수의 길흉화복을 알아본다.

괘는 엎어지고 잦혀진 상태에 따라 모두 6유형 31괘를 조합할 수 있는데, 오행의 상생(相生)·상극(相剋)의 이치를 적용시켜 각각 상괘(上卦)·중괘(中卦)·하괘(下卦)로 해석한다. 가령 점목(占木)이 모두 엎어져 오행의 글자가 한 자도 드러나지 않는 괘가 되면 "맑은 거울이 먼지에 덮이고, 고운 옥이 진흙 속에 묻혔도다. 가난한 선비가 궁촌(窮村)에 있으니 어느 날에 제 세상을 만날꼬." 하는 괘로 "정신이 들떠 있어 헛기운이 침노하니, 군자는 멀리 가고 소인만 찾아든다."고 해석한다. 또 점목 한 개가 엎어지고 목·수·화·토 4자가 젖혀졌을 때에는 "살얼음을 밟고 깊은 물에 다다라 높은 다리를 건넌다."는 괘로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오니 봄빛이 난만하다. 위험한 곳을 무사히 지나니 아직은 곤궁하나 나중에는 길하다."고 해석하여 보통 정도의 중괘로 판단한다.

의의 동쪽으로 뻗은 대추나무가지가 점목으로 쓰이는 이유는 해가 솟는 동쪽의 양기(陽氣)를 많이 받고 단단한 재질이어서 음기(陰氣)인 악귀를 물리치는 신통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설날에 오행점을 봐서 새해의 신수를 점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오행점은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민속점법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家庭百方吉凶秘訣(金東縉 編, 德興書林, 1947), 天機大要 -增補-(池日賓 編, 世昌書館, 1951).
필자 | 이찬욱(李燦旭)

천간점(天干占)

정의 천간(天干)의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써 한 해 운수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천간지지(天干地支), 즉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의 음양과 오행으로 점치는 사주·궁합·택일 등도 모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천간, 즉 십간만으로 점치는 것을 일컫는다.

내용 천간은 하늘의 기운으로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의 천간양(天干陽)과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의 천간음(天干陰)으로 나뉜다. 그리고 다시 각각 오행에 배정되는데 갑을목(甲乙木)·병정화(丙丁火)·무기토(戊己土)·경신금(庚辛金)·임계수(壬癸水)가 그것이다. 대표적인 천간점에는 남녀의 이상적인 배합여부를 점치는 속궁합이 있다. 속궁합은 남녀 생일간지(生日干支)의 천간을 음양오행에 대입시켜 간합(干合)·간충(干冲)·상생(相生)·상극(相剋)의 관계를 살펴서 성격의 조화와 부부의 금슬을 점치는 것이다. 간합은 남양여음(男陽女陰)의 천간배합으로서 남녀가 서로 좋아하여 화합하는 사이로 본다. 갑을(甲乙)·을병(乙丙)·병신(丙申)·정임(丁壬)·무기(戊己)가 이에 해당한다. 간충은 남양여양(男陽女陽) 또는 남음여음(男陰女陰)의 천간배합으로서 서로 싫어하고 충돌하는 사이다. 갑경·을신·병임·정계·무기가 그것이다. 상생은 수화(水火)·화토(火土)·토금(土金)·금수(金水)·수목(水木)의 조합으로서 부부간에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금슬이 좋은 배합이다. 이에 반해서 상극은 목토(木土)·토수(土水)·수화(水火)·화금(火金)·금목(金木)의 조합으로써 서로 불신하고 싸우는 배합이다. 그러나 상극일지라도 남자가 여자를 극(剋)하는 것은 상극으로 보지 않고 부부의 위계가 올바로 된 정배합(正配合)으로 보아 이상적인 배합으로 해석한다. 반면에 여자가 남자를 극하는 상극의 경우에는 불길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갑일생(甲日生) 남자와 기일생(己日生) 여자의 속궁합은 음양으로서는 남양여음(男陽女陰)의 간합이요, 오행으로서는 남자가 여자를 극(剋)하는 목극토(木剋土)의 정배합이므로 천생연분의 매우 이상적인 배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특정한 날에 생긴 병의 원인을 찾아 물리치는 천간자병점(天干字病占), "봄철 갑자일에 비가 오면 소와 양이 얼어 죽는다."와 같이 자연의 재앙을 예측하는 사계갑자일점(四季甲子日占), 그리고 설날의 십간(十干)을 살펴 농작물의 풍흉이나 역병의 유행을 점치는 원단일십간점(元旦日十干占) 등은 모두 천간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천간점은 어디까지나 음양오행적 원리에 바탕을 둔 하나의 확률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참고문헌 | 朝鮮女俗考(李能和 著, 東洋書院, 1927), 家庭百方吉凶秘訣(金東縉 編, 德興書林, 1947), 속궁합 겉궁합(한중수, 동반인, 1994), 韓國의 띠文化(이찬욱, 황금시대, 1999).

필자 | 이찬욱(李潔旭)

토정비결(土亭秘訣)

정의 정초에 『토정비결(土亭秘訣)』이라는 책을 통해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점복풍속. 『토정비결』은 조선 중기의 학자 토정 이지함(土亭 李之菡)이 지은 도참서(圖讖書)로 개인의 사주(四柱) 중 태어난 연·월·일 세 가지로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이용하여 일년 동안의 신수를 열두 달별로 알아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유래 및 역사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오행점(五行占)으로 한 해의 신수를 본다고 적혀 있어,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는 풍습은 정조 이후인 조선 말부터 세시풍속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이전까지 오행점·농점·윷점 등으로 한 해의 농사나 가정의 화목을 점치던 것에 비해, 조선 말 민생의 곤궁이 심해지자 보다 개인적이고 세분된 예언을 희구하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전에는 주로 동네에서 한학을 공부한 어른들을 찾아 토정비결을 보았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거리에 토정비결을 봐주는 점복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근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토정비결도 성행하고 있다. 정초의 세시풍속에 유난히 점복적인 요소가 강하듯이 새해를 맞아 한 해에 대한 기대심리와 놀이적 요소가 복합된 풍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용 토정비결을 보는 방법은 백단위인 상괘(上卦), 십단위인 중괘(中卦), 일단위인 하괘(下卦)를 합하



土亭秘訣 목아불교박물관



토정비결보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심환근

여 세 자리수로 된 괘를 완성시켜 책에서 해당 숫자를 찾아보면 된다. 백단위는 나이와 해당 년의 태세수(太歲數)를 합한 뒤 8로 나눈 나머지 숫자이며, 나머지가 없으면 8이다. 십단위는 해당 년의 생월 날짜 수(큰달은 30, 작은달은 29)와 월건수(月建數)를 합해 6으로 나눈 나머지 수, 일단위는 생일수와 일진수(日辰數)를 합한 뒤 3으로 나눈 나머지 수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세 단위의 숫자를 찾으면 그 해의 전체 운수에 대한 개설이 나오고, 이어 월별풀이가 나온다. 특히 열두 달의 운세를 4언3구의 시구로 풀이하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은 '뜻밖에 귀인이 내방하여 길한 일이 있다.', '구설수가 있으니 입을 조심하라.', '봄바람에 얼음이 녹으니 봄을 만난 나무로다.' 등과 같이 주로 부귀·화복·구설·가정 등 개인의 길흉화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서울 篇-(文化財管理局, 1979),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필자 | 구미래(具美來)

파래점

정의 정월에 파래를 보고 날씨를 점치는 풍속. '포래점'이라고도 한다.

내용 어촌에서는 정월에 바다의 상태를 보고 그 해의 날씨를 점치는 풍습이 많다. 정월에 파래를 보고 그 해 바다에 바람이 심할지 아닐지의 여부를 예견한다. 정월에 평상시와는 달리 바람에 밀려 파래가 많아지면 개펄이 새파랗게 보이는데 앞펄(뻘)이 새파래지면 그 해 바람이 셀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 외에도 바다에 파래가 많이 자라면 그 해 바람이 흔하다고 예견하기도 한다. 이렇듯 바다의 상태를 통해 한 해 동안 어장의 풍흉을 점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敎 民族文化硏究所, 1981),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지현(金智賢)

골패(骨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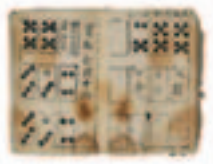
정의 구멍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패를 맞추는 전통적인 놀이 및 도박 도구. 강패(江牌)·아패(牙牌)·호패(號牌)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래 골패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백낙천(白樂天)이 하늘에 떠 있는 27개의 별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 송(宋)의 사마광(司馬光)이 만들었다는 설 등이 있다. 『정자통(正字通)』에서는 1120년(宋 宣和 2) 송의 어느 신하가 아패(牙牌)와 계점(計點)을 만들어 별자리의 배열을 살펴볼 것을 청한 사실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골패의 유입에 대해서도 임진왜란 때 명(明)의 군사들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설과 이후 청(淸)에 의해 전해졌다는 다양한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최남선(崔南善)은 『조선상식(朝鮮常識)』 풍속 편(風俗篇)에서 "골패가 한 번 성립되어 그 수리적(數理的) 변화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복잡하여 오락·도박의 양 방면으로 무수한 법식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중국에서 골패가 유입되었다고 하지만 골패의 놀이양식과 방법이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였음을 말해 준다.

종류 골패는 제조양식에 따라서 뼈로만 만든 것을 민패, 흰 뼈와 검은 대나무를 붙여서 만든 것을 사모패(紗帽牌)라고 한다. 패는 소·사슴 등 동물의 뼈를 나무에 덧붙여서 손가락의 마디 크기로 만든다. 그리고 대·중·소 원모양의 구멍을 판 뒤에 붉은색·검은색(혹은 푸른색)을 칠하여 완성한다.

골패는 총 32개의 패가 있으며, 구멍 수는 모두 227개이다. 구멍 수에 따라 각기 별칭이 붙어 있다. 같은 패가 2개(짝패)인 것과 1개의 패(홀패)로 된 것이 있다. 32개의 패 중에서 우두머리는 '관이'이다.


三才圖 국립민속박물관

관이는 패중지왕이라 하여 제일 어른 대접을 받는다. 각각 별칭과 구멍 수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소(1 · 1, 짝패), 쥐코(1 · 2, 홀패), 소삼(1 · 3, 짝패), 백사(1 · 4, 홀패), 백오(1 · 5, 짝패), 백륙(1 · 6, 짝패), 진아(2 · 2, 짝패), 아삼(2 · 3, 홀패), 어사(2 · 4, 홀패), 관이(2 · 5, 홀패), 아륙(2 · 6, 홀패), 장삼(3 · 3, 짝패), 삼사(3 · 4, 홀패), 삼오(3 · 5, 홀패), 삼륙(3 · 6, 홀패), 직홍(4 · 4, 짝패), 사오(4 · 5, 홀패), 사륙(4 · 6, 짝패), 준오(5 · 5, 짝패), 오륙(5 · 6, 짝패), 주륙(6 · 6, 짝패).

가야금 병창으로 불렀던 골패타령에서는 이러한 별칭들이 잘 녹아들어 있다. "얼싸 오늘 하 심심하니 골패 짝패 하여 보자. 쌍준륙에 삼륙을 지르고 쌍준오에 삼오를 지르니 삼십삼천 이십팔수 북두칠성이 앵돌아졌구나. …… 청부동(靑不同) 백부동(白不同) 매화가 되고 소삼관이 사륙하고 소삼어사 오륙하니 옥당쌍수가 뒤집어지누나."

놀이방법 골패의 놀이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며 거의 80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일례로 충북 지역에서는 톡 · 밑달기(미골) · 그대기 · 오관떼기 · 쑤시기 등의 많은 놀이방식이 있다. 톡은 가장 널리 즐기는 놀이로서 '톡을 모르면 양반이 못된다.' 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톡은 카드방식과 비슷한데 처음에는 주로 5명이 하면서 6개의 골패를 나누어 갖는다. 그리고 타인이 내놓은 패를 집어가고 자신의 패를 내놓으면서 패를 맞추어 간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손을 털거나 남은 구멍의 숫자가 제일 적은 사람이 장원이 된다.

짝맞추기와 꼬리맞추기도 널리 즐기는 골패 놀이 중의 하나이다. 짝맞추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선이 들고 온 패 중에서 짝이 맞는 패를 내려놓는다. 짝패가 없을 경우는 아무것이나 하나 내려놓는다. 다음 사람은 선이 내려놓은 패 중에서 맞는 패가 있으면 가져간다.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골패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짝을 맞추어 본다. 이 또한 없을 경우에는 패 하나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놀이를 진행하다가 먼저 짝을 세 번 맞추어 내려놓는 사람이 이긴다. 꼬리맞추기는 상대방이 내려놓은 패의 아래쪽 숫자에 맞는 패를 짝지으면서 하는 놀이이다. 짝지을 패가 없으면 자신의 패 중 하나를 뒤집어 놓는다. 손에 든 패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뒤집어져 있는 패의 숫자를 합하여 높은 사람이 지는 것이다.

내용 골패는 투전(鬪牋) · 쌍륙(雙六)과 함께 도박성이 강한 놀이였다. 정약용(丁若鏞)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여러 가지 내기놀이 중에서도 심보가 나빠지고 재산을 탕진하며 가문과 친족들의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은 투전이 첫째가 되고, 쌍륙 · 골패가 그 다음이다."고 하였다. 골패는 주로 양반 · 기생 등이 즐겼던 놀이였다. 기산풍속도(箕山風俗圖)에서는 당시의 골패놀이 풍속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손님들이 기생집에서 모여 술상을 시켜놓고 기생과 골패를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린 것이다. 옛 신문을 살펴보면 양반들 혹은 부유층과 관련한 골패놀이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예컨대,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9일자를 보면 "양반들이 골패짝잡기를 밥숟가락 붙잡기보다 좋아하여"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정의 인물 가운데 골패에 빠져든 이도 적지 않았다.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는 주일공사 조민희(趙民熙)를 도박 중에서도 골패(骨牌)를 생명처럼 여긴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주야로 저고리의 중단(中單)을 만지면서 골패를 하다가 중단이 떨어지는 바람에 주위에서 그를 '골귀(骨鬼)' 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골패는 때로는 점술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골패를 일렬로 쭉 늘어놓고 패들을 뒤집어 본다. 패들을 맞추어 본 다음 패의 점수를 더해서 점괘를 보는 것이다. 패를 가지고 신수점을 보는 풍속은 중국에서도 널리 행해졌다. 중국에서도 골패는 매우 인기 있는 놀이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골패는 32개의 패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골패에 뚫려 있는 구멍과 짝짓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패는 보통 흑단(黑檀)으로 만들어지며,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칠한 점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패의 상단에는 빨간 점이 새겨져 있다.

골패는 놀이방법이 많을 뿐더러 복잡하고 까다롭다. 복잡한 골패의 놀이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골보(骨譜)』라는 책자가 전해지기도 한다. 골패는 놀이방식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투전만큼 백성에게 쉽게 파고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골패에 한 번 빠져들면 며칠씩을 골패판에서 지새울 정도로 도박



골패 국립민속박물관

성이 강하다고 한다. 골패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화투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牧民心書, 梅泉野錄, 朝鮮常識 -風俗 篇-(崔南善 著, 東明社, 1948), 箕山風俗圖帖(趙興胤 外, 汎洋社, 1984), 민속놀이 골패(閔丙濟, 향토사와 민속문화, 수서원, 1997), 투전고(유승훈, 民俗學硏究11,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한국의 놀이 -유사한 중국 · 일본의 놀이와 비교하여-(스튜어트 컬린 저 · 윤광봉 역, 悅話堂, 2003).
필자 | 유승훈(柳承勳)

꼬대각시놀리기

정의 음력 정월 설이나 보름 명절에 처녀나 젊은 색시들이 모여서 비운(悲運)의 상징적 원혼(冤魂)인 꼬대각시를 놀려서 한시적으로 자신들에게 빙의(憑依)시키며 놀던 놀이.

내용 및 지역사례 비교적 한가한 보름 명절에 처녀나 갓 시집온 색시들이 모여서 놀 때면 으레 꼬대각시 놀리기를 했다. 곧 신명(神明) 좋은 사람을 술래로 삼아 방 가운데에 앉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빙 둘러 앉아 손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꼬대각시 혼령을 부른다. 충남에서는 "꼬대각시 불쌍하다. 한 살 먹어 어매 죽고, 두 살 먹어 아배 죽어, 세 살 먹어 걸음 배워, 네 살 먹어 삼촌 집에 들어가니, 삼촌은 들이치고, 삼촌댁은 내리치네, 그럭저럭 십오세가 되니께, 중신애비 문턱 달랑 들랑, 2 · 9 · 18, 18세에 시집을 갔더니 고자낭군 얻어주네, 삼일날이라고 부엌에 내다보니 솥인가 쌀독인가 거미줄만 엉기 생키여, 양지 영지 영고사리, 은지 은지 은고사리 꺾어다가 내려가는 시냇물에 닦아서 시아버지(시어머니 · 시누이님) 진지 한 상 받으세요. 에라 이년 네년이 밥 해 주는 것 안 먹겠다. 아이 담담 서룬 지고, 이런 설움이 어딨을까!" 하고 노래한다.

가련한 꼬대각시의 일평생을 노래하면서, 원한 맺힌 꼬대각시신령이 자신의 몸으로 내리게 하여 놀이를 이어간다. 신령의 강림은 주문을 외우는 동안 술래가 쥐고 있는 인형 · 방망이 · 대나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간혹은 두 손에 쐬운 버선을 통하기도 한다. 이러한 물건은 신령이 임재하기 좋은 매개물이다. 이윽고 신이 내리면 놀이의 주체인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은 혼인 적령기의 처녀나 갓 시집간 각시들은 제각기 "혼인을 가겠는가?", "언제 혼인하겠는가?", "아들은 언제 낳겠는가?" 등을 묻는다.

한동안 놀이를 하다가 중단하려면 찬물을 가져다 뿌리거나 왼쪽으로 넘어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꼬대각시신령을 술래의 몸에서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굿에서 대잡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인지 이 놀이를 '당골놀이'라고도 한다.

경남에서는 "비계태상외상 일거지 천지지황 감동하옵소서. 아무생에 난 누구 널음을 받아 주옵소서!", "홍해장군, 홍해군왕, 청해장군, 청해군왕 내리려고 하시거든 대장군아 어깨 짚고 소매잡고 살살 내리소서!"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놀이로는 방망이놀리기, 춘향아씨놀리기, 무안목포연자씨놀리기 등이 있다.

참고문헌 | 부여지역의 민속신앙(이필영, 역사민속학6, 한국역사민속학회, 1997),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扶餘郡誌6 -부여의 민속문화-(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필자 | 김효경(金孝慶)

남승도놀이(覽勝圖—)

⇨ 승람도놀이(勝覽圖—)

널뛰기

정의 정초에 여자들이 둘로 나뉘어, 긴 널빤지의 중간에 둥근 짚단을 받치고, 양쪽에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며 발로 굴러서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는 놀이. 답판(踏板) · 도판(跳板) · 초판희(超板戱) · 판무(板舞)라고도 한다. 승부는 어느 한쪽이 균형을 잃어 널에서 떨어질 때에 정해진다. 주로 정초에 놀지만, 경우에 따라 정월 대보름, 첫 용날(상진일,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정월 16일 귀신날(경기도 지역)과 같이 특정한 날로 국한되기도 한다.

유래 널뛰기에 관련된 몇가지 설이 내려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옛날 죄를 지은 두 남자가 옥 속에 갇혀 있었다. 이들 부인 중 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 자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 다른 죄인의 아내와 공모하여 널을 뛰면서 담장 너머 옥에 갇혀 있는 남편들의 얼굴을 엿보았다고 한다. 둘째, 옛날에 담장 안에 묶여 있던 부녀자들이 세상 밖을 보

고 싶어서 널뛰기를 하여, 몸이 공중으로 높이 솟을 때 담장 밖의 세상 풍경과 남자의 모습을 훔쳐 보았다고 한다. 셋째, 널을 뛰면 시집가서 아기를 잘 낳는다고 한다. 반대로 처녀 시절에 널을 뛰지 않으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한다. 넷째, 정초에 널뛰기를 하면 일년 중 밭에 가시나 못이 찔리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다섯째, 귀신을 쫓기 위해서 널을 뛴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김포시 통진읍,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는 1월 16일 귀신날에 널을 뛰는 것을 귀신 대가리 깬다고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옥에 갇힌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아내가 옥 밖에서 널을 뛰었다거나 담장 안의 부녀자들이 세상이 궁금하여 널을 뛰었다는 설은 호사가들에 의해 후대에 형성된 설화라고 볼 수 있다. 담 안에서 생활한 부녀자들은 양반 사대부 집안 여성에 한정된 극소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발바닥 단련을 통한 건강한 발의 유지라는 의미를 지닌다. 다섯 번째는 귀신날에 잡귀를 쫓고 부정을 없애기 위한 축귀적(逐鬼的) 성격을 보여준다.

역사 널뛰기의 역사는 명확하지 않으나, 매우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정조 때, 유득공(柳得恭)이 지은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여염집 부녀자들이 몇 자 높이로 올라가며 패물 울리는 소리가 쟁쟁하고, 지쳐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이를 '초판희(超板戱)'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황(周煌)의 『유구국기략(琉球國記略)』에는 유구의 부녀자들이 널빤지 위에서 춤추는 것을 판무(板舞)라 하고, 이것이 조선 초에 유구인들이 조선에서 배워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미 고려시대에 널뛰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순조 때 이낙하(李洛下)가 지은 '답판사(踏板詞)'에는 널뛰기를 답판놀이라 하며, 정초부터 2월까지 노는 놀이로, 높이 솟을 때는 3척(尺)에 이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널뛰기 송석하

지역사례 널을 뛰는 방법은 지방에 따라 다양하다. 경기도 일산시 문봉동에서는 보통 양쪽에 한 사람씩 2인이 뛰는데, 한 사람이 가운데에 앉아서 균형을 잡아 준다. 몸무게가 맞지 않을 때에는 몸무게가 적은 사람에게 널을 많이 주어 균형을 이루는데, 이것을 밥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널을 뛰는 사람에게 1미터 정도의 헐거운 줄을 세 가닥으로 묶어 준다.

공중동작도 다양한데 한 쪽 다리 벌리기, 양쪽 다리 벌리기, 다리 앞으로 뻗기, 치마로 받는 시늉하기 등이 있다. 충남 청양 지방에서는 한 쪽 다리를 대문 쪽으로 벌리며 "밥상 들어간다."고 말하며, 양쪽 다리를 벌리는 경우에는 "대문 열어라."고 소리지른다. 북한 문헌에 의하면, '중등 꺾는다.' 고 하여 허리를 뒤로 한번 굽혔다가 내려오기도 하며, '데사리' 라 하여 뛰어올라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숙련된 기술도 있다.

한편, 강원도의 경우에는 널을 뛰는 사람이 오래 뛰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치마를 벌리고 "싸래기 받아 개주자.", "싸래기 받아 죽 쑤자.", "치마 가지고 싸래기 받는다.", "쌀 한 되 주, 팥 한 되 주." 하고 놀리기도 한다. 이 때 널뛰는 사람이 웃다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 교대한다. 승부는 한 쪽이 힘껏 굴러서 상대편을 널에서 떨어뜨리면 이긴다. 개인간의 승부도 가능하고, 두 편으로 나누어 승부를 가리기도 한다.

놀이에 사용되는 널의 크기는 대체로 길이 2~2.4미터, 너비 30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 가량으로, 지방에 따라서 널 양쪽 끝 부분의 땅을 파기도 하고 널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 가운데에 사람이 앉기도 한다.

널뛰기는 힘이 많이 들고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우며, 널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잦아 서로 교체해

가며 뛰어야 한다. 혼인 전의 여성이나 결혼 초의 젊은 부녀자들이 많이 뛰었다. 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에서는 특이하게도 여자들이 낮에는 거의 뛰지 않고 밤에 뛰었다.

널뛰기 민요 널을 뛰면서 다양한 유희요가 삽입된다. 조선시대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에 보면 "널뛰는 아가씨들 울불불긋 차렸구나. 뛰고 굴리어 서로 높이 오르려고 담 넘어 얼굴 뵈는 것 부끄러운 줄 모르네."하고 노래를 불렀다.

함흥 지방에는 "허누자 척실루 늬 머리 흔들 내 다리 삽작 허누자 척실루 늬 눈이 휘휘 내 발이 알알 허누자 척실루 늬 당기 욜랑 내 치마 랑럭 허누자 척실루 늬 눈이 휘휘 내 발이 알알."이라고 노래를 불렀다.

안동 지방의 민요에는 "묵은해는 지나가고 새해 설날 맞이했네. 앞집의 수캐(수캐)야 네 왔느냐 뒷집의 순이야 너도 왔니 만복무량 소원 성취 (후렴) 널뛰자 널뛰자. 새해맞이 널뛰자. 금년 신수 좋을시구 서제도령 공치기가 널뛰기만 못하리라. (후렴) 널뛰자 널뛰자. 새해맞이 널뛰자. 규중 생장 우리 몸은 설놀음이 널뛰기라. 널뛰기를 마친 후에 떡국놀이 가자세라.(후렴) 널뛰자 널뛰자 새해맞이 널뛰자." 하는 내용이 있다.

의의 널뛰기는 정초에 주로 여성들이 놀던 놀이로, 몸을 공중에 솟구쳐 다리에 강한 힘을 주고 몸의 균형감각을 길러주는 놀이이다. 대개 여성들의 놀이가 정적인데 비해 매우 동적인 놀이 형태이다. 특히 겨울철에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고, 강인한 신체 단련을 하게 해주는 놀이 형태이다. 또한 다양한 민요가 삽입되는 흥겨운 집단놀이의 성격을 지닌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歲時風謠, 朝鮮常識 -風俗 篇-(崔南善 著, 東明社, 1948), 韓國民謠集(任東權 編, 集文堂, 1961~1981), 韓國의 風俗 上(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1970), 韓國의 民俗놀이 -그 理論과 實際-(沈雨晟, 三一閣, 1975), 韓國 民俗놀이의 硏究(崔常壽, 成文閣, 1985), 조선의 풍습(사회과학원민속학연구실, 학민사, 1993), 靑陽郡誌(靑陽郡, 1995), 경기민속지III -세시풍속 · 놀이 · 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高陽市 民俗大觀(고양시 · 고양문화원, 2002).

필자 | 정형호(鄭亨鎬)

승경도놀이(陞卿圖—)

정의 종이 말판 위에서 누가 가장 먼저 높은 관직에 올라 퇴관(退官)하는가를 겨루는 놀이. 종경도(從卿圖) · 종정도(從政圖) · 승관도(勝官圖) 등으로도 불린다. 주사위 또는 5각형의 나무막대인 윤목(輪木)을 굴려 나온 수대로 말을 이동하여, 최종점인 봉조하(奉朝賀)에 도착해 먼저 퇴(退)한 사람이 승리한다. 원래는 계절에 상관없이 즐겼던 놀이였으나, 일반적으로 정월에 많이 하였다. 일부에서는 승경도의 승부를 통해 일년의 운세를 점치기도 하였다.

역사 승경도놀이는 관직체계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승경도의 형성은 일차적으로 관직체계의 완성을 바탕으로 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관로(官路)가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는 사회적 조건을 필수로 한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의하면 하륜(河崙)이 승경도(종정도)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 승가(僧家)에 성불도(成佛圖)가 있으니 지옥(地獄)으로부터 대각(大覺)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 제천제계(諸天諸界)가 무려 수십여 처요, 윤목 육면(六面)에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여섯 자를 써서 던짐을 따라 옮기며 혹은 올라가고 혹 내려와서 승부를 정한다. 정승(政丞) 하륜이 종정도를 만들어 구품(九品)으로부터 일품(一品)에 이르기까지 관작(官爵)의 차례가 있어 윤목 육면에 덕(德) · 재(才) · 근(勤) · 감(堪) · 연(軟) · 빈(貧)의 여섯 자를 써서 덕(德)과 재(才)면 올라가고 연(軟)과 빈(貧)이면 그만두되 마치 벼슬길과 같았다.

이상을 살펴보면 하륜은 불교에서 행했던 성불도(成佛圖)를 기초로 조선의 관직체계를 반영하여 승경도를 만들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유원(李裕元)은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승경도가 중국 당대(唐代)에 제작된 『투자선격(骰子選格)』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조선 초기 관료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말판놀이를 응용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승경도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는 홍문관(弘文館) 관리들이 이 놀이로 밤을 지샜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문

건(李文楗)은 『묵재일기(默齋日記)』에서 동리(洞里)의 소년배(少年輩)들과 몇 차례 하면서, 마지막까지 말판에 남아 있는 사람의 눈가에 먹을 그리고 놀았다고 하였다.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瑣尾錄)』 등에도 승경도를 제작했다거나 놀았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하지만 승경도가 모든 이들의 호응을 받은 것은 아니다. 권필(權韠)은 승경도가 운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승부에 따라 현명함과 우둔함을 가르듯이 한다고 하여 동료들이 승경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덕무(李德懋)는 『사소절(士小節)』에서 "(아이들의) 정신을 소모하고 뜻을 어지럽히며 공부를 해치고 품행을 망치며 경쟁을 조장하고 사기(邪氣)를 기르는" 놀이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는 당시 승경도가 상당히 유행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1930년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25개 지역 가운데 132개 지역에서 승경도를 놀았으며, 그 가운데 70개 지역에서 정월에 집중적으로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제도의 폐지와 관직체계의 재편으로 놀이 내용의 현실감이 떨어짐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승경도 말판과 윤목
국립민속박물관

놀이도구 승경도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말판'과 '윤목'이 필요하다. 말판은 대개 가로 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 내외의 바둑판형으로 격자를 만들고 그 안에 관직과 다음 이동할 칸의 위치를 써넣는다. 칸의 수는 대략 적게는 80여 칸이며 많은 경우, 300여 칸을 넣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외곽에는 지방관 및 하급무관직을 넣고 안쪽에는 중앙관을 배열한다. 더러는 남는 칸에 놀이 규칙을 써넣기도 한다. 윤목은 막대형과 주사위형이 있다. 막대형은 약 10~15센티미터 길이의 막대를 오각기둥 형태로 깎고 각각의 모서리에 1개에서 5개까지 홈을 판다. 그리고 주사위형의 경우는 나무를 정육면체로 깎고 각 면에 주로 품행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글자를 새겨 숫자 대신 사용했다. 『명곡집(明谷集)』에 의하면 주사위의 둘레 4면에 덕(德)·문(文)·무(武)·훈(勳)자를 새기고 위 아래로 탐(貪)·연(軟)자를 새겨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글자는 일정하지 않아 덕(德)·재(才)·근(勤)·감(堪)·연(軟)·빈(貧) 또는 덕(德)·재(才)·공(功)·양(良)·유(柔)·장(藏) 등의 글자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윤목이나 주사위가 없을 경우에는 윷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놀이방법 놀이방법은 말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윤목을 굴려 각자 출발 지점을 정한다. 그리고 출발점인 초도(初度)에서 먼저 말을 굴려 출발점을 정한다. 출발점의 종류로는 크게 문과(文科)·무과(武科)·은일(隱逸)·남행(南行) 등이 있다. 각자의 출발점이 정해지면 윤목을 굴려 나온 수에 따라 이동한다. 말을 옮겨가는 도중에 중요한 관직에 오르면 그 관직이 지니고 있는 권능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왕을 가까이 모시는 홍문관(弘文館)의 관리가 되면 자기보다 앞서 높은 관직에 오른 이들을 파면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파면을 지적당한 고관에게 윤목을 굴릴 기회가 주어지며, 일정한 수가 나오면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자신을 파면했던 관리를 거꾸로 파면시킬 수도 있다. 놀이를 즐기다 보면 순탄하게 봉조하까지 올라가 퇴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유배나 사

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유배의 경우에는 다음 나온 수에 따라 방면되거나 복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약을 받는 경우는 경기에서 탈락한다.

의의 승경도는 놀이지만 그 안에는 현실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감 있게 반영되어 있다. 이 놀이를 통해 관직의 종류와 기능을 익힐 수 있었으며, 과거(科擧)시험에 대한 향학열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오늘날에도 승경도를 현대적으로 만들어 보급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 亂中日記, 明谷集, 默齋日記, 士小節, 石洲集, 成宗實錄, 瑣尾錄, 林下筆記, 泰村集, 朝鮮常識 -風俗 篇-(崔南善 著, 東明社, 1948), 조선의 민속 놀이(군중문화출판사, 1964),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著, 朝鮮總督府, 1941).

필자 | 이태희(李泰熹)

승람도놀이(勝覽圖—)

정의 우리나라의 명승지를 놀이판(승람도)에 적어 놓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에 따라 전국을 유람하는 놀이. 명승유람도(名勝遊覽圖)의 준말.

내용 및 놀이방법 승람도놀이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먼저 서울로 돌아오는 사람이 이긴다. 남승도놀이라고도 부르는 이 놀이는 조선 전기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하륜(河崙)이 처음 만들어 보급시켰다는 종정도놀이와 놀이방식과 놀이판 형식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정도놀이와 마찬가지로 실내놀이이므로 놀이도구만 준비되면 계절을 막론하고 할 수 있으나 대개 정월에 가장 많이 한다. 놀이계층은 중류 가정 이상의 남자아이 또는 젊은이들이고, 놀이의 인원은 대개 5~6명이다.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놀이판인 승람도, 숫자팽이, 말 등이 있어야 한다. 승람도는 명승지를 유람하는 도판이란 뜻으로, 승경도와 비슷하게 가로 1미터, 세로 70~80센티미터 정도의 두꺼운 장지에 가로·세로로 줄을 그어 200여 개 이상의 방을 만들고 전국의 주요 명승지를 배치한다. 명승지 아래에는 1에서 6까지 작은 숫자를 쓰고 옮겨갈 다른 명승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승람도의 맨 아래쪽에는 놀이의 규칙을 적어두는 칸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숫자팽이는 아래쪽을 팽이처럼 만들고 위쪽을 여섯 모 지도록 깎아 1에서 6까지의 숫자를 새겨 놓은 것인데, 주사위나 윤목(輪木)을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말은 나오는 숫자에 따라 옮겨 다니는 것으로 재료는 상관치 않고 형태와 색으로 구분한다.

먼저 숫자팽이를 돌려 나오는 숫자에 따라 시인(6), 한량(5), 미인(4), 화상(3), 농부(2), 어부(1) 등 신분을 정한 다음 놀이를 시작한다. 한가운데 배치된 서울에서 출발하여 경기도의 서부로부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평안, 함경, 강원, 경기도의 동부와 같은 순서로 가장 먼저 한 바퀴 돌아오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데 경기자의 신분, 명승지의 내용과 일정 등은 도판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놀이과정에서 먼저 신분을 정할 때 숫자가 많이 나온 시인이 가장 빠른 길을 통해 서울로 돌아올 확률이 많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진행 과정에 많은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인이 평양의 연광정에 이르렀을 때나 한량이 진주 촉석루에 도착하면 다른 사람들이 얻은 수를 모두 차지하여 더 나아간다. 미인이 먼저 가 있는 곳에는 승려가 들어오지 못하고, 승려가 있는 곳에 미인이 들어가면 승려가 다음 번에 얻은 수를 미인에게 주어 먼저 가도록 해야 한다. 또 교전(交戰)·유배(流配)·징소(徵召)와 같은 방을 만들어 노정이 바뀌게도 한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는 진행을 빨리 하기도 하고 더디게도 하면서 놀이의 재미를 더해준다.

변천 및 현황 승람도놀이와 비슷한 놀이로 불가의 우주관과 법계관을 이해시키고, 염불 정진을 권장하여 신앙심을 돈독하게 하는 '성불도(成佛圖)놀이'가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의 지도에 258개 권역을 표시하여 놀이를 할 수 있는 조선유람도(朝鮮遊覽圖, 영남대박물관 소장)의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세계지도 위에 권역을 표시하여 각 대륙의 지리공부를 할 수 있는 세계유람도(世界遊覽圖, 온양민속박물관 소장)가 생겨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민속박물관에서 보급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일 뿐 일반적으로는 성행하지 못하고 있다.

의의 승람도놀이는 우리나라의 명승고적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연스럽게 국토지리와 풍토와 산물을 학습할 수 있는 이 놀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면 의미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승람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참고문헌 | 慵齋叢話,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篇-(文化財管理局, 1972),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의 옛 地圖 -圖版 篇-(嶺南大學校博物館, 1998), 사대부 소대헌·호연재 부부의 한평생(허경진, 푸른역사, 2003).

필자 | 주인택(朱仁鐸)

쌍륙(雙六)

정의 정초나 겨울철에 많이 놀았던 주사위 놀이. 쌍륙은 쌍륙판(雙六板, 말판)과 서른 개의 말[馬], 그리고 두 개의 주사위[骰子]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대한제국 말기까지 널리 행해졌다. 악삭(握槊)·쌍륙(雙陸)·상륙(象陸, 이두식 표기)·상육이라고도 하였는데, 악삭은 길게 깎은 나무를 쥐고 놀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유래 고대(古代)의 쌍륙판은 바빌로니아·이집트·고대 인도·고대 그리스·로마제국 등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는데, 가장 오래된 형태는 바빌로니아의 아브라함 성지(聖地)에서 발견된 것으로 B.C. 3,000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 쌍륙이 전해진 것은 남북조(南北朝)시대에 천축(天竺, 고대 인도)을 통해서인데, 『오잡조(五雜俎)』·『보쌍(譜雙)』 등에 호왕(胡王)의 동생이 왕에게 악삭을 바쳐 목숨을 구했다는 고사(古事)가 전해지고 있다. 이후 쌍륙은 널리 알려져 수(隋)·당(唐)시대에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명칭 이외에도 쌍록(雙鹿)·박륙(博陸)·파라새희(波羅塞戲, 범어)·악소(握塑)·십이기(十二棊)·선채(選采)·육갑(六甲)·육채(六采)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다.

당나라 학자 이연수(李延壽)가 편찬한 『북사(北史)』 권94 「백제전(百濟傳)」을 보면 백제에 투호(投壺)·저포(樗蒲)·농주(弄珠)·악삭(握槊) 등의 잡희(雜戲)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쌍륙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三國時代) 무렵이나 그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쌍륙이 기록된 우리나라 문헌은 대부분 고려시대 이후의 것들인데, 고려시대 쌍륙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6 '고율시(古律詩)' 90에는 '한호옥국쟁쌍륙(閒呼玉局爭雙六)'이라는 시구(詩句)가 전해지고 있어 쌍륙놀이가 고려시대에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은 『조선부(朝鮮賦)』, 『견한잡록(遣閑雜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성호사설(星湖僿說)』, 『재물보(才物譜)』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조선시대 풍속화에는 실제 놀이 장면이 남아 있는데, 신윤복(申潤福), 김준근(金俊根) 등의 그림들을 통해 쌍륙이 민간에 널리 알려졌던 놀이였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쌍륙판은 정해진 크기는 없지만 대략 가로 80센티미터, 세로는 약 40센티미터 내외의 크기로 만들어졌으며 가장자리에 턱을 높이 세운 것과 턱이 없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전형적인 쌍륙용 주사위는 대략 1센티미터의 정육면체로 상아(象牙)나 기타 여러 뼈로 만들어졌으며, 대면(對面)의 합이 7이 되도록 주사위의 눈을 배열하였다. 특히 호랑이뼈로 만든 주사위가 부르는 대로 나온다고 하여 선호되었다.

말판 안에는 검은 선으로 24칸의 밭[田]을 그려 넣는데 가운데 두 개의 큰 칸은 놀이에 사용되는 밭이 아니고 쫓겨난 말들이 쉬는 곳이다. 밭은 안육[內陸]과 바깥육[外陸]으로 구별된다. 말의 이동방향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백편의 말을 하얀 점으로 표시하였는데 이 말은 흑편의 안육에서 백편의 안육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그 이동경로는 그림

에서 화살표 하나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흑편 말의 이동경로는 화살표 두 개(←←)로 표시하였다.

말의 모양은 원반(原盤)에 기다란 추가 달린 모양으로, 가운데 선을 그어 아래와 위의 색깔을 다르게 칠하였다. 말의 색깔 배합을 달리하여 상대편의 말과 자신의 말을 구별하였는데 주로 흑백(黑白)이나 청홍(靑紅)을 대비시켜 사용하였다.

쌍륙판에 흑편의 말과 백편의 말을 형식에 따라 벌여 놓고 2개의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만큼 말을 전진시켰는데 사용되는 규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밭 한 개에 다섯 개 이상의 말이 들어갈 수 없다. 둘째, 상대방의 말이 둘 이상 있는 밭에는 한 개의 말을 옮겨 놓을 수 없다. 셋째, 같은 숫자가 나오면 말 두 개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 넷째, 말들을 밖으로 내는 데는 주사위의 숫자가 지나쳐도 상관없다. 다섯째, 주사위를 던지지 않고 쉴 수 있다. 여섯째, 말을 뒤로는 옮길 수 없다. 일곱째, 밖으로 쫓겨난 말이 있으면 다른 말을 움직일 수 없다. 여덟째, 잡혀 나간 말은 반드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략적인 규칙은 위와 같으나 상황마다 적용되는 세부 규칙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알려진 규칙도 지방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북한학자가 쓴 쌍륙에 대한 설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북한에서는 각기 열여섯 개의 말을 사용하며 처음에 말을 배치하는 방법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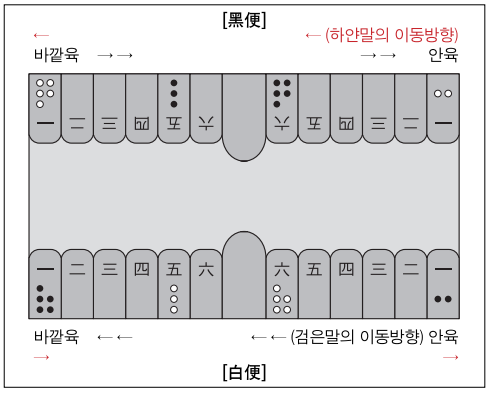
말을 움직이는 것을 '행마(行馬)'라 하고 밭에 혼자 남는 말은 '바리'라 한다. 바리는 혼자 있는 말이므로 잡힐 수 있는데 상대편에게 잡혀 놀이판 바깥으로 쫓겨난 말을 '귀양말'이라 부른다. 『광주의 민속놀이』에는 상대편 말을 잡아서 놀이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때린다.", 앞으로 진행할 곳이 없을 때는 "발디딜 데가 없어서 못 넘어간다."고 표현한다고 한다.

놀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온 눈의 조합을 잘 이용해서 상대편 말을 많이 잡고 유리한 곳으로 행마해야 한다. 주사위를 던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스물 한 가지이며 각각의 경우를 부르는 명칭이 있다. 주사위 눈은 각기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1은 백(白), 2는 아(亞), 3은 삼(三), 4는 사(四), 5는 오(五), 6은 육(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 두 개를 던져 나온 눈이 순서쌍(1, 2), (5, 6)이면 각각 백아(白亞), 오육(五六)이라고 한다. 만약 같은 눈이 나오면 중(重)을 사용하여 중일(重一), 중아(重亞), 중오(重五), 중육(重六)이라고 한다. 그러나 (3, 3)과 (4, 4)만은 '주(朱)'를 사용하여 각각 주삼(朱三), 주사(朱四)라 부른다. 한편 순서쌍(1, 1)은 빽빽이, (6, 6)은 육육 · 줄륙이라고도 한다.

의의 쌍륙은 외국에서 전래되었지만 천년 넘게 우리 조상들이 즐겨왔던 놀이이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문헌과 풍속화에 등장하고 있어 민간에 널리 알려졌던 놀이임을 알 수 있다.

인접국가사례 일본에서도 '스고로쿠[雙六]'란 이름으로 이 놀이가 행해졌는데 『일본서기(日本書紀)』 권30 「지통천황(持統天皇)」 3년조(689)에 "십이월기유삭병진 금단쌍륙(十二月己酉朔丙辰 禁斷雙六)"이라 한 기록이 남아 있어 우리나라를 통해 7세기 중엽에 일본으로 전래된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도 스고로쿠는 주로 설날에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였다.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놀이가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는데 그 명칭은 '백게몬(Backgammon)'이라 한다. 백게몬의 규칙은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1920년 경에 현재의 규칙이 자리잡기 시작하여 1931년에는 국제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쌍륙판 국립민속박물관



쌍륙치는 모양 김준근(모사도)

1964년에는 첫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기까지 하였다.

참고문헌 | 遣閑雜錄, 大東野乘, 東國李相國集, 星湖僿說, 五洲衍文長箋散稿, 才物譜, 朝鮮賦, 朝鮮王朝實錄, 조선의 민속놀이(군중문화출판사, 1964), 한국의 민속놀이(김광언 저, 仁荷大學校出版部, 1982), 韓國 民俗놀이의 硏究(崔常壽, 成文閣, 1985), 전통놀이모음집(문화체육부, 1991), 光州의 民俗놀이(光州民俗博物館, 1995), 우리나라민속놀이(沈雨晟, 東文選, 1996), 북한 학자가 쓴 조선의 민속놀이(도유호 외 · 주강현 해재, 푸른숲, 1999), 中 · 韓 民俗놀이 比較 硏究(趙秀華, 仁荷大學敎 碩士學位論文, 2001), 한국의 놀이 -유사한 중국 · 일본의 놀이와 비교하여-(스튜어트 컬린 저 · 윤광봉 역, 悅話堂, 2003), 동아시아의 놀이(김광언, 민속원, 2004), 中國風俗大辭典(申士垚 外 編著, 中國和平出版社, 1991).
필자 | 김영진(金伶鎭)

연날리기(鳶—)

정의 주로 겨울철에 바람을 이용하여 연을 하늘에 띄우는 민속놀이. 종이에 가는 대나무가지를 붙여 연을 만들고, 얼레에 감은 실을 연결한 다음 날리며 논다.

유래 및 변천과정 연날리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열전(列傳)」 김유신조(金庾信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647년에 선덕 여왕이 죽고 진덕 여왕이 즉위하자, 비담(毘曇)과 염종(廉宗)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김유신 장군이 반란군을 평정하기 위해 연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또 『고려사(高麗史)』 권 제33 충선왕조(忠宣王條)에는 어떤 궁노(宮奴)가 동리 아이들의 연을 빼앗아 충선왕에게 바쳤더니 왕이 책망하면서 곧 돌려주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의 한시 '칠월 삼일에 바람을 읊다(七月三日 詠風).' 에서는 음력 7월에 접어들면서 연을 날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읊고 있다.

조선시대 채수(蔡壽)의 『나재집(懶齋集)』 제2권에 실린 '지연(紙鳶)' 이라는 한시도 연에 관한 내용을 읊고 있는데, "머리 부분은 화살촉과 같고 꼬리는 깃발과 흡사하네(箭頭旗尾正依俙)." 라는 표현으로 보아 가오리연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의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연날리기는 원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군사적 목적으로 연을 날릴 때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필요할 때 날렸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연날리기를 오락으로 삼게 되고, 그것이 민속과 결합되면서 연을 날리는 시기가 고정된 듯하다.

조선 후기의 세시기(歲時記)에는 음력 12월부터 연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정초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에 연날리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날에는 연을 날리다가 연줄을 끊어 날려 보냄으로써 액막이를 하면서 연날리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월 대보름 이후에도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연날리기는 현재 서울특별시 시도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유자로 노유상(盧裕相, 1904년생)옹이 있다.

연의 명칭 연은 옛날 기록에 보통 지연(紙鳶) · 풍연(風鳶) · 방연(放鳶) · 풍금(風禽) 등으로 나오는데, '지연' 이 가장 널리 쓰인 용어이다. 한국 연의 종류는 연의 형태와 문양에 따라 분류되며 그 종류가 1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형태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사각 장방형의 중앙에 방구멍이 뚫려 있는 방패연이 대부분을 이룬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날리는 꼬리가 달린 가오리연이 있고, 사람 · 동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자의 창의성에 따라 만드는 창작연이 있다.

방패연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것으로서

연의 가운데에 방구멍을 내어 맞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뒷면의 진공상태를 즉시 메워주기 때문에 연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을 받아도 잘 빠지게 되어 있어 웬만큼 강한 바람에는 연이 잘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날리는 사람의 손놀림에 따라 상승과 하강, 좌우로 빙빙돌기, 급상승과 급강하, 전진과 후퇴가 가능하다. 또한 얼마든지 높이 날릴 수도 있고 빠르게 날릴 수도 있다.

한국 연은 외국의 연과 같이 명칭에 따라서 연의 모양이 아주 다른 것이 아니다. 방패연에 색깔을 칠한다든가, 색지의 모양만을 다르게 오려 붙임으로써 어떤 특징을 나타내어 거기에 따라 일정한 명칭을 붙여 구별할 뿐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를 보면 기반(碁斑)·묵액(墨額)·쟁반(錚盤)·방혁(方革)·묘안(猫眼)·작령(鵲翎)·어린(魚鱗)·용미(龍尾) 등 연의 종류에 대한 여러 명칭이 나타난다. 기반은 바둑판연을 말한다. 쟁반은 연의 하반부에 쟁반을 그린 연이다. 방혁은 방패 모양의 연이다. 묘안은 고양이 눈을 그린 것 같은 연인데, 눈깔머리동이연이나 눈깔허리동이연이 여기에 해당한다. 작령은 까치날개 모양을 그린 연이다. 어린은 고기비늘 모양을 그린 연이다. 용미는 용의 꼬리 모양같이 길게 된 연을 말한다.

연의 종류 꼭지연에서 꼭지는 연의 이마 가운데에 붙이는 둥근 원형의 색지를 말한다. 꼭지는 방구멍(연의 한 가운데에 둥글게 뚫린 구멍)을 오려낸 종이로 만든다. 꼭지연은 바탕색이 백색이며, 꼭지의 빛깔에 따라 연의 명칭이 결정된다. 먹꼭지(먹구다리)연·청꼭지연·홍꼭지연·금꼭지연·쪽꼭지연·별꼭지연 등이 있다.

반달연은 이마 가운데에 반달형의 색지를 오려 붙인 연을 말한다. 그 반달의 빛깔에 따라 명칭이 각각 다르다. 먹반달연·홍반달연·청반달연·임반달연·쪽반달연 등이 있다.

치마연은 상반부는 백색 그대로 놓아 두고, 하반부만 여러 가지 빛깔을 칠한 연을 말한다. 마치 여인들의 치마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치마의 빛깔에 따라 각각 연의 명칭이 달라진다. 먹치마연·청치마연·홍치마(일명 분홍치마)연·황치마연·보라치마연·이동치마연·삼동치마연·사동치마연 등이 있다.



연날리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이규철

동이연은 연의 머리나 허리에 색칠을 한 것이다. 동이연은 동이의 빛깔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다. 먹머리동이연·청머리동이연·홍머리동이연·보라머리동이연·반머리동이연·실머리동이연·눈깔머리동이연·허리동이연·눈깔허리동이연 등이 있다.

초연은 연의 꼭지만을 제외하고 전체를 동일한 빛깔로 칠한 것을 말한다. 먹초연·청초연·홍초연·황초연·보라초연 등이 있다.

박이연은 연의 전체나 일부분에 동전 크기의 점이나 눈[眼], 긴 코 같은 모양을 박은 연을 말한다. 돈점박이연·귀머리장군 긴코박이연·눈깔귀머리장군연·눈깔귀머리장군 긴코박이연 등이 있다.

발연은 연의 맨 아래나 좌우 가장자리에 발 모양의 종이를 붙인 연이다. 사족발연·국수발연·지네발연 등이 있다.

내용 및 특징 대개 음력 12월, 즉 섣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연날리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정초 세배와 성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마을 앞이나 갯벌에서 띄우는데, 정월 대보름 수일 전에 그 절정을 이룬다. 특히 정월 대보름날 밤이 되면 달맞이를 하고 난 후에 각자 띄우던 연을 가지고 나와 액막이연을 날리는 풍속이 있다. 연에다 '액(厄)' 자를 쓰거나 '송액(送厄)' 혹은 '송액영복(送厄迎福)' 이라는 글을 쓴 후, 자기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적는다. 액막이연을 정월 대보름에 날려 보내는 이유는 한국에서 여러 종류의 액막이 풍속이 대개 정월 대보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액막이는 으레 정월 대보름에 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듯하다. 『조선왕


청초연


돈점 박이연


지네발연

조실록(朝鮮王朝實錄)』 명종(明宗) 21년(1566) 1월 15일조에 의하면, 액막이연이 집에 떨어지면 그 해에 재앙이 있다고 믿는 속신이 있었다.

'액막이연'에 대한 첫 기록은 정철(鄭澈)의 시조 '속전지연가(俗傳紙鳶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 집의 모든 액(厄)을 너 홀로 가져다가, 인가(人家)에 전치 말고 야수(野樹)에 걸렸다가, 비 오고 바람 불 때 자연소멸(自然消滅)하거라."는 내용이다.

연싸움에 대한 세시풍속은 '연줄끊어먹기'와 '연 높이날리기'가 있다. 연싸움은 쌀밥이나 민어부레로 만든 풀에 유리가루나 사기가루를 섞어서 연줄에 발라 상대방의 연줄을 끊는 것이다. 장유(張維)의 '지연(紙鳶)'이라는 한시에 "연싸움의 열기가 더운 지방의 열대병에 걸린 것보다 치열하여 하늘을 날던 연이 허공 속으로 뚝뚝 떨어져 나가네." 하는 내용이 보인다. 그리고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 및 이학규(李學逵)의 『낙하생문집(洛下生文集)』, 그리고 19세기 초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및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에도 연싸움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난다. 정범조(丁範祖)의 『해좌집(海左集)』 권9에는 연싸움과 바람개비돌리기의 풍속이 묘사되어 있다. 연을 날리느라고 오랫동안 눈을 치뜨고 있어 눈을 상하게 될까봐 연싸움을 한 후에 바람개비를 돌려서 시선을 낮추게 하여 눈동자를 바로잡는 풍속을 전해준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서울 청계천의 수표교 근처에서 정월 대보름 하루 이틀 전에 연싸움이 매우 성행했다고 한다.

지역사례 함남 북청 지방에서는 가오리연은 거의 날리지 않고 주로 방패연을 날렸다고 한다. 그리고 방패연에 꼬리를 단 꼬리연은 암놈으로 간주했고, 꼬리가 없는 몽동연은 숫놈으로 간주했다.

평남 안주와 개천에서는 문자연(門字鳶)·용자연(龍字鳶)·팔자연(八字鳶)·팔자(八字)형 쌍공작연·일자연(一字鳶)·엽전연 등이 있었다. 문자연·용자연·팔자연·일자연은 모두 연의 전면에 한자로 문(門)·용(龍)·팔(八)·일(一)자를 써 넣은 것이다. 팔자형 쌍공작연은 연의 전면에 양쪽으로 팔자 모양으로 공작 두 마리를 그려 넣은 것이다. 엽전연은 연의 전면에 엽전 서너 개를 그려 넣은 것이다.

경북 예천에는 상투빗연과 바둑판연이 있었다. 상투빗연은 연의 꼭지에 머리를 빗는 참빗 모양의 문양을 그린 것이다. 바둑판연은 연의 전면에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 병행선을 긋고 한 칸씩 걸러서 먹을 칠한 연을 말한다.

경남 통영에는 머리연·머리눈쟁이연·이봉산연·이봉산 눈쟁이연·삼봉산연·삼봉산눈쟁이연·귀바리연·귀바리눈쟁이연·귀봉산연·치마머리연·반장연·외당가리연·까만외당가리연·홍외당가리연·황외당가리연·청홍외당가리연·홍치마당가리연·윗까치당가리연·아래까치당가리연·수리당가리연·중머리연·짧은꼬리연·짧은꼬리눈쟁이연·긴꼬리연·긴꼬리눈쟁이연·돌독바지기(돌쪽바지게)연·돌독바지기눈쟁이연·치마고리연·용연·된방구쟁이연 등이 있었다. 통영은 한산대첩의 전적지로서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곳이다. 그래서 이 지방에는 임진왜란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연에 문양을 그려 넣어 전투용 신호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현재 '충무비연동우회'가 통영 지방의 연을 보급하면서 매년 연날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 동래에는 청귀머리연·흑귀머리연·별머리연·희자머리색동연·희자머리 연두초연·청꼭지색동치마연·홍꼭지녹치마연 등이 있었다. 바다가 인접해 있는 동래 지방에서는 바다를 향해 연을 날려서, 연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높고 멀리 날릴 수 있는가를 겨루는 경기가 있었다. 현재 매년 정월 대보름날이면 해운대 백사장에서 전국 연날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련구비문학 연에 얽힌 설화로는 세종대왕릉의 이전과 연줄리 전설, 단종의 연이 떨어진 성황당 전설, 세 대감의 연시합 등이 있다. 연날리기를 노래한 민요로는 경남 진주의 민요인 "서울선부(선비) 연을 띄워 곤륜산(崑崙山)에 걸렸다. 아홉방의 세녀들아 연줄거는 구경가세."와 경기민요인 "정월이라 십오일 구머리장군 긴코배기 액(厄)막이연이 떴다. 에라 디여 에헤요 에이여라 방아홍아로다."에 해당하는 '잦은방아타령'이 있고 전라도 민요인 "연걸렸구나 연이 걸렸구나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걸렸네."인 '육자배기'가 있다.

연에 관한 수수께끼로는 "몸뚱이 하나에 꼬리 달고 하늘에서 춤추는 것은?", "배꼽을 떼어서 등에

붙이고 공중으로 떠다니는 것은?”, “배꼽을 떼어서 정수리에 붙인 것은?”, “배꼽을 떼어 이마에 붙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볼수록 높이 올라가는 것은?”, “뼈대뿐인 것이 종이옷을 입고 공중에서 춤추는 것은?” 등이 있다.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연날리기를 통해서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액막이연의 민속이 매우 성행했다. 그리고 연날리기는 우리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추운 겨울인데도 따뜻한 안방에 있는 것보다 산이나 들판에 나가 연을 날리는 것이 더 즐거웠으니, 어린이들의 겨울철 운동과 취미활동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것이다. 연날리기는 심신 양면에 활동과 휴식을 준다. 연을 멋지게 만들어 감상하기도 하고, 연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며 날림으로써 생활의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懶齋集, 東國歲時記, 韓國 紙鳶의 硏究(崔常壽, 高麗書籍株式會社, 1958), 韓·中·日 연의 역사와 민속(전경욱, 태학사, 1996).

필자 | 전경욱(田耕旭)

윷놀이

정의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윷이라는 놀이도구를 사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 즐기면서 노는 놀이. 사희(柶戱) 또는 척사희(擲柶戱)라고도 한다.

유래 윷놀이 유래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아직 그 정설은 없다. 부여의 관직명인 저가(猪加)·구가(狗加)·우가(牛加)·마가(馬加)·대사(大使)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는 가설이 유력하다.

역사 윷놀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자료는 중국의 『북사(北史)』와 『태평어람(太平御覽)』인데 이 책에는 부여의 저포(樗蒲)·악삭(握槊) 등의 잡희(雜戱)가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백제, 고구려, 신라에도 윷놀이가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윷놀이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고려말 『목은집(牧隱集)』에서 이색(李穡)은 저포를 세시풍속이라 하고 현재의 윷판과 같은 것으로 윷말을 써 가며 저포놀이를 하는데, 변화가 무궁하고 강약을 가릴 수 없는 이변도 생겨서 턱이 떨어질 지경으로 우습다고 하였다. 또 남녀노소가 어울려 윷놀이하는 광경을 그린 시(詩)도 있다.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와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도 윷놀이에 대한 기록이 있고, 특히 김문표(金文豹)의 『중경지(中京誌)』 사도설조(柶圖說條)와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사희변증설조(柶戱辨證說條)에서는 주역과 성리학적인 견지에서 윷놀이를 논술하고 있다. 그리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윷과 윷판뿐만 아니라 윷패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윷놀이는 삼국시대 이전에 널리 전승되었고, 고려말 이전에 현행 윷판과 같은 것이 쓰이면서 시(詩)에 등장할 정도로 성행하였으며, 나아가서 조선조에는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될 정도로 크게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윷놀이는 윷과 윷판 및 윷말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놀 수 있다. 이 간단한 도구가 준비되면 편을 갈라서 윷을 던져 나온 윷패에 따라 윷말을 써서 먼저 4동이 나면 승리한다. 매우 간단한 도구와 단순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지만 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수들이 흥을 돋우기도 하고 탄식을 자아내기도 한다.

윷의 종류는 가락윷·밤윷·콩윷 등으로 구분된다. 가락윷은 장작윷과 싸리윷이 있다. 장작윷은 길이 20센티미터 정도에 직경 3~5센티미터 정도의 소나무 두 개를 쪼개어 만들고 싸리윷은 길이 10센티미터에 직경 2센티미터 가량의 싸리나무를 쪼개어 만든다. 가락윷은 대체로 중부 지방에서 많이 가지고 논다. 밤윷은 굵기가 새끼손가락 정도, 길이는 3센티미터 정도 되는 윷을 종지에 담아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어 바닥에 붓는 식으로 논다. 주로 경상도 등의 남부 지방에서 많이 논다. 콩윷이나 팥윷은 콩이나 팥알의 절반을 쪼개어 만든 윷으로 주로 북부 지방에서 많이 논다.

윷판이 언제 만들어져서 보편화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려말 이색(李穡)의 『목은집』에 현행의 윷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말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문표는 『중경지』 사도설조에서 윷판 중앙의 ‘방혀’는 북극성이고 윷판의 바깥까지 둥근 모양은 하늘을, 안의 모난 것은 땅을, 윷판을 이루는 점들은


홍꼭지연


홍반달연


홍머리 동이연

별자리를 뜻한다고 했다. 그리고 윷판의 네 점과 중점을 오행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윷말이 윷판을 돌아 나오는 양상을 춘분(春分)·하지(夏至)·추분(秋分)·동지(冬至)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윷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데, 남자들은 주로 바둑알을 많이 이용하고 여자들은 숯이나 사금파리 등을 이용한다.

놀이방법 윷놀이를 할 때 편 구성은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크게는 마을 단위와 문중 단위로 편을 가르지만 개별 윷놀이는 아주 다양하게 편을 가를 수 있다. 편을 가를 때 윷을 던져서 편을 가르기도 하고 또 마을의 골목이나 도랑을 경계로 가르기도 한다. 개별 윷놀이나 문중 윷놀이를 할 때는 주로 나이순으로 윷을 던져서 편을 가르고, 마을 전체가 놀이를 할 때는 마을의 골목이나 도랑 등을 경계로 가른다. 간혹 지역에 따라 심지를 뽑아 편을 가르기도 한다.

마을 전체나 문중이 윷놀이를 할 때는 마을의 큰 집이나 종가(宗家) 혹은 서원(書院) 마당에서 한다. 그러나 소수 인원이 윷놀이를 할 때에는 방이나 대청 등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놀 수 있다.

윷놀이를 할 장소가 결정되고 편을 가르면 바로 윷놀이가 시작된다. 먼저 윷을 던져서 선후의 차례를 정한다. 선후가 결정되면 상대편과 교대로 윷을 던져서 나오는 윷패에 따라 윷말을 써서 윷말 4동이 다 나면 이긴다.

윷말은 '참'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놀이꾼이 윷을 던져서 나온 윷패에 따라 윷말을 쓰는데 윷말이 전진하다가 자기편이나 상대편의 윷말을 지나쳐 갈 수 있다. 이 때 만약 자기 편의 윷말이 있는 지점에 도착하면 두 윷말을 묶어서 한꺼번에 나아간다. 만약 윷말이 상대편 윷말이 있는 곳에 도달하면 그 윷말을 잡으며 윷을 한 번 더 던진다. 그러나 참에 있는 윷말을 잡았을 때는 한 번 더 던질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윷판에 윷말을 쓰는 데 다양한 규칙이 있어서 승부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뒤도나 자동임신, 퐁당 등의 변이 요소가 새로이 등장해서 승부에 더 큰 변수가 생긴다.



윷놀이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망미리 황현만

의미 윷패는 4개의 윷을 던져서 엎어지고 젖혀진 상황에 따라 도·개·걸·윷·모로 결정된다. 윷 3개가 엎어지고 1개가 젖혀진 것은 도라 하여 한 밭을 가고, 2개가 엎어지고 2개가 젖혀진 것은 개라 하여 두 밭을 가며, 1개가 엎어지고 3개가 젖혀진 것은 걸이라 하여 세 밭을 간다. 그리고 4개가 모두 젖혀진 것은 윷이라 하여 네 밭을 가고, 4개가 모두 엎어진 것은 모라 하여 다섯 밭을 간다. 윷과 모를 했을 때는 '사리'라 하여 한 번 더 던진다. 윷패에 따라 밭 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근거는 동물의 걸음걸이에서 찾는다. 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양, 윷은 소, 모는 말을 상징하고 있다. 즉 가축의 크기와 빠르기에 따라 윷패의 밭 수와 윷말의 움직임이 결정된다.

윷놀이는 정월의 마을 축제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신명으로 놀이를 한다. 윷놀이는 재미로도 하지만 농경사회에서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윷판은 농토이고, 윷말은 놀이꾼이 윷을 던져 나온 윷패에 따라 움직이는 계절의 변화를 상징해 풍년을 가져온다고 여겼다.

기능 윷놀이가 다른 놀이에 비해 승부의 재미가 특히 큰 것은 이 놀이가 가지는 우연성의 원리와 윷말을 쓰는 원리 때문이다. 또한 윷말을 쓰는 원리도 정해진 규칙을 따르면서 윷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잡고 잡히면서 승부를 겨룬다.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변화가 따르므로 놀이꾼과 응원꾼은 흥분과 탄식이 교차되는 가운데 놀이에 몰입되어 무아지경에 이른다. 이처럼 윷놀이는 윷패의 우연성과 윷말쓰기의 합리성이 윷판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작용하여 다양한 변수 속에서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 독특한 재미가 있다. 이러한 재미는 승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마지막 윷말이 갈 때 그 절정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중에서 집단놀이는 주로 지역이나 마을에 의해서 전승된다. 마을 단위로 전승되는 집단놀이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농(豊農)을 기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통합하게 된다. 윷놀이는 지연공동체와 혈연공동체를 통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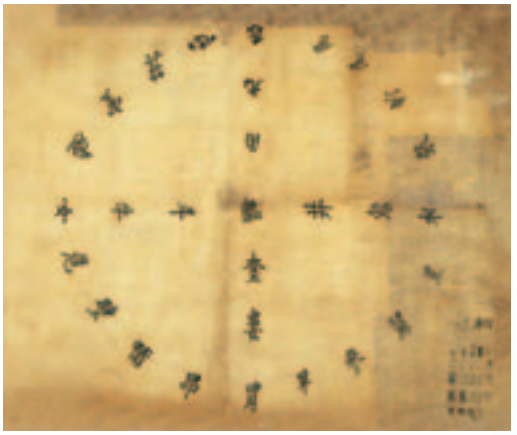
우리 선조들은 윷판을 농토로 삼고 윷놀이를 통해 윷말을 돌려 계절을 변화시키면서 항구적인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윷놀이를 하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윷놀이는 윷 · 윷판 · 윷말을 이용한 흥겨운 놀이기도 하지만 윷을 가지고 하는 윷점도 있다. 『동국세시기』 제석조(除夕條)와 『경도잡지(京都雜志)』 원일조(元日條), 『오주연문장전산고』 사희변증설조에도 새해의 길흉이나 농사에 대해서 점을 치곤 했다는 기록이 있다.

변화 윷놀이는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윷패의 변화이다. 윷패는 도 · 개 · 걸 · 윷으로 일컬어지는 사진법 놀이에서 도 · 개 · 걸 · 윷 · 모로 일컬어지는 오진법 놀이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금은 뒤도가 하나 더 생겨나서 육진법의 놀이로 변화되었다.

뒤도란 윷 하나에 특정하게 표시하여 놀이를 할 때 이것 하나만 젖혀지면 도가 아니고 뒤도라 하여 윷말이 앞으로 한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 밭 물러나게 된다. 따라서 윷패가 하나 더 생겨나고 윷말이 후진함으로 해서 많은 변수를 초래하여 더욱더 흥미를 자아낸다. 도 자리에 있던 윷말이 다음에 뒤도를 하면 한밭 후진하여 참으로 간다. 때로는 윷을 하여 마지막 동이 났지만 사리를 하면 한 번 더 노는 규칙에 따라 던져서 뒤도가 나면 참의 자리로 되돌아 와야 한다. 이로 인해서 승패가 뒤바뀌기도 한다. 이 뒤도의 등장은 산업화에 따라 나타나는 복잡한 사회상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투기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윷놀이가 산업사회의 사회 · 문화에도 기능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윷판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윷말이 윷판을 시계방향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간다. 사회 · 문화 변화에 따라 길이 바뀐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윷판에 자동임신 · 자동유산 · 퐁당 등이 등장했다. 윷판의 특정한 곳에 표시하여 여기에 다다르면 한 동 가던 것이 두 동이 되기도 하고, 한 동 가던 것이 죽기도 한다. 이는 윷판에 새로운 변이 요소가 등장한 것이다.



한지윷판 국립민속박물관



전자는 그 시대의 생활 양식과 사고 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시대의 생활 양식은 좌측이 우선이고 한자 문화의 영향으로 문서(文書)나 가사(歌辭) 등 모두 좌서(左書)로 썼다. 또 사고 체계도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 사회 · 문화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내려 있었다. 그러나 서양 문물의 도입으로 동양적 사고 체계가 서양적 사고 체계로 바뀌었다. 또한 신교육구국운동이 전개되면서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여 한자기록시대에서 한글기록시대로 바뀌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 변화가 윷말이 윷판을 돌아가는 길을 변화시킨 것이다.

자동임신은 뒤도라는 윷패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윷판에도 변화를 주어서 승부에 변수를 주고 놀이가 더욱 재미있도록 했다. 자동임신 밭에 가서 한 동이 두 동으로 횡재를 하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자동유산이나 퐁당 밭을 둠으로써 위험을 수반하도록 한다. 이러한 요소의 등장은 뒤도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사회 병리적 현상이나 부동산 투기 심리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윷과 윷말은 그 변화가 미약하다. 그것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썼기 때문이다. 윷은 일반적으로 소나무나 싸리나무 대신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이용하고, 또 공장에서 만든 제품도 나온다. 윷말도 마찬가지다.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추나 동전 등이 많이 쓰인다.

산업화에 따라 마을공동체는 무너졌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윷놀이는 새로운 전승집단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시문화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아파트에서 윷놀이가 행해지는 것이다. 물론 놀이꾼은

농민이 아닌 도시 근로자이다. 이들은 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나 계(契)모임, 동창회 등이다. 즉 특수 목적으로 모인 집단이다. 이처럼 윷놀이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혈연·지연으로 구성되었던 풍농을 기원했던 놀이에서 이제는 특수 목적을 지닌 집단이 친목을 도모하는 놀이로 변해 가고 있다.

지역사례 경북 안동에서는 윷놀이를 할 때 윷판과 윷말 없이 머리 속에 윷판을 그려 놓고 윷판의 명칭을 이용하여 윷말을 운영하는데 이를 '건궁윷말'이라고 한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은 윷판의 명칭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또 안동에는 저포송(擣蒲頌)과 채윷대풀이라는 윷노래가 전승되고 있다. 이 노래는 도송(刀頌)·개송(介頌)·걸송(傑頌)·유송(由頌)·모송(毛頌)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해도 장연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시절윷놀이를 한다. 대보름날 아침 '산패'와 '들패'로 나누고 각기 2~3명의 대표를 뽑아 수숫대로 만든 작은 윷을 가지고 시절윷놀이를 벌인다. 산패가 이기면 밭농사가, 들패가 이기면 논농사가 잘 되며 양쪽이 비슷한 점수를 얻으면 두 농사가 다 잘 되리라고 믿는다.

산윷(보습윷)은 평안도, 함경도에 분포되어 있는 놀이로 윷판과 윷말 없이 노는 것이 특징이다. 산가지나 콩·팥 등을 늘어놓고 윷을 던져 나온 수대로 산가지나 콩·팥을 거두어 많이 차지하는 편이 이기는 놀이다.

의의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풍흉은 삶과 직결된다. 그래서 농한기인 겨울철에도 세시풍속을 통해 항구적인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우리 조상들은 정월에 윷놀이를 통해 지연·혈연집단을 통합했을 뿐 아니라 풍년농사를 갈망했다. 윷놀이는 농경사회에 기반을 두고 전승되어 왔으나 산업사회에서도 기능적으로 적응하면서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牧隱先生文集, 五洲衍文長箋散稿, 芝峯類說, 訓蒙字會, 安東民俗資料誌(安東郡, 1981),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5), 민속문화론(林在海, 文學과 知性社, 1986), 윷놀이 俗 原形 再構를 위한 試論(김인구, 어문논집 26, 안암어문학회, 1986), 윷놀이의 比較民俗的 考察(成炳禧, 韓國民俗學23, 民俗學會, 1990), 윷놀이의 이치와 민중적 세계관(임재해, 安東文化硏究5, 安東文化硏究會, 1991), 安東地方의 윷놀이 硏究(朴長煐, 安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필자 | 박장영(朴長煐)

장치기(杖—)

정의 장(杖), 즉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공을 치는 놀이. 한자로 타구(打毬)·격구(擊毬)·격방(擊棒)·방희(棒戱)·농장희(弄杖戱)·장구(杖球)라고도 쓴다.

내용 장치기는 놀이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채막대기로 구멍에 공을 쳐 넣는 방식으로 현재 골프와 비슷한 형태이다. 둘째, 말을 타고 공을 쳐 구문에 공을 넣는 방식으로 흔히 격구 또는 기마격구라고 한다. 현재 서양의 폴로와 유사한 형태이다. 셋째, 말을 이용하지 않고 땅 위에서 공을 쳐 구문에 넣는 방식이다. 현재 필드하키와 흡사한 형태이다.

이처럼 한국 역사 속에서는 다양한 장치기가 존재해 왔다. 그 가운데 오늘날까지 민속놀이로 계승되어 발전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땅 위에서 행하는 장치기이다. 이러한 장치기를 1920년대에는 장구(杖球)라고도 불렀는데, 오늘날 각 지방에서는 공치기·타구놀이·얼레공치기·짱치기·짱공치기 등으로 불린다. 공을 위주로 놀이를 표현하면 공치기요, 공을 치는 채막기를 위주로 표현하면 장치기이다.

장치기는 주로 겨울철에서 봄 사이의 농한기, 특히 음력 정초를 전후한 시기에 청소년을 비롯한 남성들의 경기로 많이 행해졌다. 장소는 논바닥이나 광장, 공터였다. 원래 장치기는 축국(蹴鞠)과 함께 일정한 대형을 이루고 공격과 수비를 연습하는 진법훈련과도 관련이 있었던 놀이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경기의 인원수도 경기장 안에 정해진 위치에서 공격과 수비, 즉 대진(對陣)을 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보통 10명 이상이어야 적당하였다. 이



장치기
충남 서산시 안면도 심환근

를 두 팀으로 나누는데, 각 팀당 5~6명씩으로 구성한다. 각 팀마다 1명은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고, 나머지 전원은 공격과 수비를 맡는다.

놀이도구 놀이의 도구는 짝지 내지 구장(毬杖)이라고 불리는 공채와 짱공이라고 불리는 공을 사용한다. 짝지는 소나무나 뽕나무로 만드는데, 모양은 현재 골프채처럼 끝이 안으로 구부러져야 하기 때문에 휘어진 나무를 잘라 만든다. 크기는 3~5척(90~150센티미터) 정도이다. 짱공은 어른 주먹만한데, 소나무의 마디 부분을 둥글게 깎아 만들며 가죽을 입히기도 한다. 각자가 짝지를 가지며, 공은 한 개만 사용한다.

놀이방법 놀이 방법은 경기장 중앙선 한가운데에 동그라미를 그려 공을 놓을 구멍을 파두고 그 구멍에 1보와 7보 반경으로 원을 그린다. 중앙선에서 좌우 각각 50보 정도의 거리에 대나무로 윗막이가 없는 구문을 세운다. 구문의 너비는 5보 정도로 하여 기둥과 중앙선을 평평하게 긋는다. 그리고 사방에는 종선을 그어 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한다.

경기를 시작할 때는 각 팀의 주장이 한 명씩 나와서 중앙선의 구멍 앞에서 땅공(공을 허공에 던져 놓고 치는 공)을 쳐서 공이 멀리 날아간 편이 첫 공인 구멍공(원의 중심에 파놓은 구멍에 놓고 치는 공)을 쳐서 놀이를 시작하고, 다음부터는 진 편이 첫 공을 친다. 공이 구문으로 들어가면 한 점을 얻는다. 양 팀이 서로 작정함에 따라 5점 나기, 10점 나기로 정하고, 먼저 난 편이 이긴다.

이 놀이에는 반칙과 벌칙도 있는데, 반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공이 몸의 일부에 닿는 것 ② 상대편의 공채를 몸으로 막는 행위 ③ 상대편의 몸을 공채로 치거나 치려고 하는 행위 ④ 상대편의 경기 활동을 몸으로 막는 행위 ⑤ 공을 구장의 종선 밖으로 쳐내는 것 ⑥ 공을 횡선 밖으로 쳐 내는 것 등이다. 그리고 벌칙 내용은 ①, ②, ③, ④를 반칙한 경우 심판은 상대편에게 물레공을 치게 한다. 물레공이란 몸을 한 바퀴 돌면서 공을 치는 것을 말한다. ⑤의 반칙을 했을 때는 굴려주는 굴러공을 치게 한다. ⑥의 반칙을 하였을 때는 상대편에게 구멍공을 치게 한다. 구멍공은 공을 원의 중심에 파놓은 구멍에 놓고 치는 것이다. 심판은 딱딱이를 쳐서 경적을 삼고, 상대편을 식별하기 위하여 너비가 있는 청·홍의 색띠를 두른다.



장치기 이서지

전승 현재 장치기는 경남의 무안, 거창, 의령, 산청, 동래 등과 경북의 영주, 김천, 안동, 경산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장치기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장치기는 기마격구인 격구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무인석상에서 장치기 채를 들고 서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삼국시대에 이미 장치기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격구가 고려시대 이후 성행한 것으로 미루어 장치기도 크게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격구가 조선 세종(世宗) 때 무과시험에 채택되면서 이를 연마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땅 위에서 행하는 장치기가 성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18세기 중반 격구가 무과의 과목에서 빠지면서 민간에서 이 장치기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우리 경기부흥의 봉화, 장구 얼레공대회 개최'라는 제목 아래 장치기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장치기의 명맥이 부활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 후 각 지방에서 간헐적으로 행해지다가 1970년 경남 밀양문화원 무안분원이 발족할 당시 촌로들의 회상을 종합하여 장치기대회를 열어 경축함으로써,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장치기가 오늘날까지 전승·보존되고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아이들도 왕도 신나는 장치기 놀이(심승구, 조선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청년

사, 1996), 조선시대 격방의 체육사적 고찰(심승구, 敎養敎育硏究所論文集3, 韓國體育大學敎 敎養敎育硏究所, 1998), 한국 축국의 역사와 특성(심승구, 전통과 현대20, 전통과 현대사, 2002).

필자 | 심승구(沈勝求)

종경도놀이(從卿圖—)

⇨ 승경도놀이(陞卿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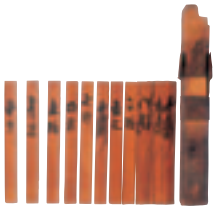
척사희(擲柶戱)

⇨ 윷놀이

투전(鬪牋)

정의 각종 문양·문자가 표시된 패를 뽑아 패의 끗수로 승부를 겨루는 놀이.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투전을 투전(鬪錢)·투전(鬪牋)·투전(投牋) 등으로 기록하였다. 투전패 재질이 종이였으므로 지패(紙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투패(鬪牌)·투엽(鬪葉)이라 하였다. 투전은 두꺼운 종이에 기름을 먹여 만든다. 길이는 10~20센티미터 사이이며 너비는 손가락만 하다. 한 면에 동물문양 및 문자를 적어서 끗수를 표시하였다. 25장, 40장, 50장, 60장, 80장이 한 벌이 되며, 일반적으로 40장 한 벌을 많이 사용한다.

유래 『조선상식(朝鮮常識)』에서는 투전이 중국의 마조(馬弔)에서 기원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명군(明軍)을 통하여 들어왔다고 추정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투전이 원(元)나라에서 기원되었다고 하였으며, 조선에서는 숙종 때 역관 장현(張炫)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장현은 희빈(嬉嬪) 장씨의 부(父)인 장형(張炯)의 종제(從弟)되는 사람이다. 장씨 집안이 역모에 연루되었을 때 장현도 옥살이를 하였는데 옥중에서 투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장현은 당시 당상통역관(堂上通譯官)으로서 중국어뿐만 아니라 여진어(女眞語)까지 할 수 있었는데, 투전에 적혀진 문자는 여진어라고 추측된다. 이 투전은 영·정조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퍼졌다. 항간의 서민들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자제들도 투전에 빠져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투전패 국립민속박물관

최남선(崔南善)은 투전이 대중성을 갖게 된 이유로 규칙의 간소화를 들었다. 골패는 놀이방법이 복잡한데 반하여 투전은 규칙이 간단하여 금방 놀이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또한 투전패를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므로 한양에서는 물론 지방에서까지 성행할 수 있었다. 이 투전은 남성들이 주로 즐기던 놀이이다. 그래서 투전꾼 하면 흔히 남성 노름꾼을, 투전판 하면 남성 노름꾼이 모인 노름판을 떠올리게 된다.

놀이방법 투전의 놀이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공통적으로는 끗수를 맞춰서 그 크기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 투전놀이로는 돌려대기(갑오잡기)·동동이·가구·우등뽑기(단장대기) 등이 있다. 돌려대기는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으로 아홉 끗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동동이는 같은 끗수 세 짝을 맞추는 놀이이며, 가구는 세 사람이 한 조로 15끗수를 잡는 놀이이다. 우등뽑기는 네다섯 사람이 한 조로 판을 돌리고 한 장씩 더 뽑아서 우열을 다투는 놀이이다. 투전의 놀이 방식은 화투에도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짓고땡('땡' 이라고도 함)은 패 3장으로 10,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끗수로 승부를 겨루는 투전놀이이다. 투전장은 한 손에 쥐고 한 장씩 서서히 뽑는데 콩기름을 먹인 만큼 서서히 빠져 나온다. 투전장을 한 손으로 쥐어가면서 마치 엿가락을 뽑듯이 하므로 투전장을 '엿방망이', 투전꾼을 '엿방망이꾼' 이라고도 한다.

원래 투전은 투기성이 강한 노름이 아니었다. 수투전(數鬪牋)의 경우는 문아(文雅)한 양반들이 즐기는 놀이였다고 한다. 또한 금전 추구에 집착하기보다는 우열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였다. 즉, 수투전은 각종 동물이 표시된 본패와 그에 해당하는 장수(將帥)패가 있어서 일정한 규칙대로 우열승부를 가리는 놀이이다. 그런데 점차 수투전의 오락적 기능은 사라지고 투전의 도박성이 커지게 되었다. 투전의 도박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사회에서는 집, 토지, 재산을 팔아야 하는 큰 폐해가 생겨났다. 또한 투전꾼들이 전문적인 도박단을 형성하여 다니기도 하였다.

기타 투전이 확산되는 배경으로는 먼저 화폐의 통용과 발달을 들 수 있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를 보면 으레 투전판에는 동전묶음이 놓여 있다. 숙종(肅宗) 4년(1678) 이후에는 각도(各道) 감영(監營)에 주전(鑄錢)을 허가함으로써 많은 양의 주화가



투전(성협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

유통되었다. 이러한 화폐경제의 발달은 투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물물교환에 비하여 즉자적으로 교환되는 동전은 심리적으로 강한 자극과 흥분을 주었다. 또한 상업이 활성화되고 장시가 발달하는 것도 투전 확산의 배경이 된다. 전문적인 도박판은 인구가 집중된 한성부나 지방에서는 장시·기방 등 저자거리에 형성되었다. 이곳에서는 마을의 인정적·지속적 유대관계가 배제되었다. 도박을 통한 일시적 관계에서는 인정을 배제하고 오직 금전 추구에 집착하게 되었다.

투전은 다양한 민속문화의 장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탈놀이·도둑잡이굿·민요 등에 투전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투전이 미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肅宗實錄, 五洲衍文長箋散稿, 朝鮮常識 -風俗 篇-(崔南善, 東明社, 1948),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敎 民族文化硏究所, 1981), 서울六百年史 民俗篇(서울特別市,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투전고(유승훈, 民俗學硏究11,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필자 | 유승훈(柳承勳)

투호(投壺)

정의 일정한 거리에 병[壺]을 놓고 편을 갈라 병 속에 화살을 던져 넣는 놀이.

유래 원래 투호는 중국 한나라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춘추좌전(春秋左傳)』에는 진나라 제후와 제나라 제후가 술을 마시는 가운데 투호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당나라 때에는 손님 접대의 수단이 되기도 했으며, 주로 왕실이나 귀족층의 놀이로 발달해 왔다. 이러한 투호가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고구려의 풍속에 연회를 즐기고 투호와 축국(蹴鞠)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서(周書)』와 『수서(隋書)』의 백제조(百濟條)에는 투호가 위기(圍碁)·저포(樗蒲)·악삭(握槊) 등의 잡희로 행해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이미 투호가 시행되었고, 특히 고구려와 백제에서 크게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투호는 고려 초기에는 한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예종 때 송나라에서 투호의 도구를 보내오면서 보문각 학사들에게 투호의례와 그림을 그려 투호를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투호가 왕실에서 예법을 익히는 법도인 동시에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투호는 조선왕조에 들어와 유교의식의 확산과 더불어 유교적 예법을 익히는 수단으로써, 왕실은 물론이고 양반관료 내지는 사족층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었다. 투호는 왕비는 물론 내외 명부(命婦)들의 여성 오락으로서도 자주 행해졌다.

내용 투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미 오래된 예법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주인과 손님이 술자리를 베푼 자리에서 재예(才藝)를 강론하는 예로써 권장되고 장려되었다. 활쏘기가 덕을 함양하는 수단으로 권장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호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수단이었다.

성종(成宗) 10년 투호의(投壺儀)를 제정하고 권장하면서, 투호는 궁중행사의 하나로 관례화되어 갔다. 그 결과 매년 3월 3일이나 9월 9일에 기로연과 기영회에서 투호를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궁중에서 투호를 행할 때에 낙양춘(洛陽春)과 같은 아악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투호는 서울의 왕실과 양반관료층 내에서 뿐 아니라, 지방의 향교를 중심으로도 행해졌다. 다산 정약용(茶山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 투호가 흥학(興學)의 일환으로 향사(鄕射)와 더불어 권장되었다고 밝힌 점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사마광(司馬光)의 『투호격범(投壺格範)』에는 투호의 놀이 기구에 대한 설명과 노는 법이 쓰여 있다. 즉 투호 병은 입지름이 3치[寸]이고, 귀[耳]의 입지름

은 1치이며 높이는 1자[尺]이다. 병 속은 팥으로 채운다. 병은 던지는 이의 앉은 자리에서 2살[矢]반쯤 되는 거리에 놓고, 살은 12개를 사용하며 그 길이는 2자 4치이다. 실수하지 않고 병에 던져 꽂힌 것을 상(上)으로 삼는데, 먼저 120을 채우는 쪽이 이긴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놀이 기구나 놀이 방법에 대하여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투호를 할 때 쓰는 병의 종류나 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화살의 크기 또한 다양하다. 노는 법은 일정한 장소에 둔 병을 향하여 일정한 위치에서 살을 던져 병 속이나 귀에 던져 넣는 것으로, 살이 꽂히는 데 따라 득점이 정해진다. 던지는 위치는 병에서 2살 반, 즉 3자 가량 떨어진 거리이며, 한 사람이 살 12개를 가지고 승패를 다툰다. 살은 병의 위로 5치 가량 되는 데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한다. 투입법(投入法)에 유의할 점은 던지는 사람의 양쪽 어깨가 균형을 취할 것과 어깨가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기는 것을 현(賢), 지는 것을 불승(不勝)이라 하며, 한 번을 일호(一壺)라 한다.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헌배(獻盃)·벌배(罰盃) 등이 행해진다.

의의 투호는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 말까지 성행한 유교적 예법을 익히는 하나의 수단이자 놀이의 도구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왕실을 비롯해 지배층 중심으로 투호가 발달되었다. 특히 왕비를 비롯한 지배층 여성들의 오락 수단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투호는 근대와 현대시기를 거치면서 일반적인 놀이로 대중화되어 갔다. 일반 놀이로 대중화되면서 투호가 담고 있는 유교적인 예법은 거의 간소화되거나 사라졌다. 오늘날 투호가 명절 때 고궁을 비롯한 어디에서나 전통놀이로 행해지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상을 말해 준다.



투호도 국립중앙박물관

참고문헌 | 高麗史, 牧民心書, 三國志, 成宗實錄, 隋書, 周書, 春秋左傳, 投壺格範.

필자 | 박환규(朴懽圭)

화투(花鬪)

정의 열두 달을 상징하는 열두 묶음의 패로 짝을 맞추어 끗수를 다투는 오락이나 노름.

유래 화투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투전이 어떤 경로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 가서 카드가 되었고, 그것이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일본으로 들어와 화투가 되었다는 것이다. 화투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다양한 형태로 변천하면서 서민 대중의 애호를 받아왔다.

내용 화투는 모두 48장으로 일년 열두 달을 상징하는 열두 묶음의 패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패에는 그 달을 상징하는 화초(花草) 문양이 그려져 있다. 정월은 솔, 2월은 매화, 3월은 벚꽃, 4월은 흑싸리, 5월은 난초, 6월은 모란, 7월은 홍싸리, 8월은 공산명월, 9월은 국화, 10월은 단풍, 11월은 오동, 12월은 비[雨]이다. 각 달에는 열 끗(또는 광)짜리·다섯 끗짜리 그리고 숫자로 쓰이지 않는 홑껍떼기[皮]가 두 장씩 있다. 열두 달 중에서 1월과 3월, 그리고 8월과 11월에는 광(光)자가 적혀 있고, 이들은 스무 끗으로 친다.

화투로 하는 놀이로는 민화투·고스톱·육백·삼봉·뺑과 투전과 비슷한 짓고땡·섯다 등의 경쟁적인 놀이와 재수떼기 등의 자족적인 놀이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놀이는 단연 고스톱이다. 고스톱은 1950년대에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본 화투놀이의 주요 전승집단인 야쿠자들은 고스톱과 유사한 '고이코이'라는 화투놀이를 하고 있으나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고스톱이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60년대 말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70년대 중반 이후에 일반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스톱이 다른 놀이를 제치고 화투놀이의 대표로 각광받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규칙의 개방성을 들 수 있다. 고스톱의 기본 프로그램은 동일하지만 시간, 수중의 돈, 놀이자들의 관계, 실력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규칙을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다.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규칙을 조정·변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놀이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둘째로 단순하지 않은 플롯과 드라마틱한 전개이다. 손에 든 패대로 판이 진행된다면, 고스톱은 아마 민화투의 재미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설사와 판쓸이, 그리고 폭탄과 같은 운(運)의 요소들은 기대를 좌절로 바꾸거나 좌절을 뜻하지 않은 기대로 쉽사리 전환시킨다. 뿐만 아니라 고바가지, 역(逆)고, 소당 등을 통해서 판의 역동성을 증폭시킨다.

셋째로 신속한 진행과 기동성이다. 고스톱판이 만약 1회에 그친다면, 그리하여 승리를 확보할 기회가 한번으로 그치고, 한 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면 그토록 많은 애호가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스톱은 길어야 4~5분이면 한 판이 끝난다. 한 시간이면 줄잡아 15판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얼마든지 전체적인 전황을 역전시킬 기회는 온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속도감 있는 판의 전개는 다른 놀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스톱만의 재미이다.

넷째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점수에 있다. 놀이자는 운과 실력에 기대어 자신의 의지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으로 자신의 운을 시험할 수 있다. 포커의 경우 자신의 패가 좋지 않으면 도중에 기권할 수 있지만 고스톱은 한 판이 끝날 때까지 기권할 수 없으므로 승기를 잡은 사람은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패색이 완연한 사람은 패배를 최소화하거나 역전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지략을 동원하고 운에 하소연한다. 이와 같은 재미는 고스톱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이라고 하겠다.



화투
경북 예천군 감천면 황천만

다섯째로 장애 극복의 쾌감이다. 고스톱은 기본적으로 전략 게임이다. 전략 게임은 선택 가능한 대안 가운데 최선을 택하여 갖가지 장애물을 뚫고, 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느끼는 쾌감을 재미로 삼는 놀이이다. 고스톱의 경우 일차적 장애물은 자신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는 상대방 놀이자들이며 이차적으로는 곳곳에 마치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는 운의 요소들이다.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놀이에서 승리할 때의 쾌감이 사람들을 고스톱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고스톱論: 매도와 찬양을 넘어서(한양명, 역사민속학 8,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필자 | 한양명(韓陽明)

굴부르는소리

정의 풍요기원요의 하나로 굴·조개·미역 등 해산물을 많이 채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노래.
내용 굴부르는소리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 있는 동안 부녀자들은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수입을 올린다. 황도리의 부녀자들은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의 높은 언덕에 올라 "가들말고 가지를 말고 부디말고(부디 가지 말고) 돌아와라 부디말고 돌아와라 굴이다."하고 노래를 부르며, 해산물을 좀더 넉넉하게 채취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 노래는 북 장단에 맞추어 합창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굴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의 마을에 돌아와 있기를 부탁하는 것인데, 끝에 "굴이다." 하고 외치는 부분이 재미있다.

이 부분은 "조개다.", "미역이다." 하며 대상물을 바꾸어 넣음으로써 소망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노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굴이다." 하고 외치는 부분은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듯이 표현한 것이다. 바라는 결과를 이미 이룬 듯이 여기면 실제로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결과의 선점)은 일종의 주술로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굴부르는소리는 대보름을 맞이하여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집단적 심리가 주술적으로 표현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의의 굴부르는소리는 매우 단순하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행하는 의례 또한 번잡하지 않다. 부녀자들이 마을의 높은 산에 올라 보름달을 배경으로 소망을 표현하고 한바탕 노는 것이 대부분이다. 굴부르는소리는 단순한 만큼 어촌에 사는 이들의 소박한 생활상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로 소중한 면이 있다. 특히 이 노래는 말로 결과를 선점하는 주술적 표현을 담고 있어 어촌 부녀자들의 꾸밈없는 순박한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의 民俗音樂 -忠淸南道 民謠 篇-(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8), 한국민요대전 충청남도 편(문화방송, 1995).

필자 | 강등학(姜騰鶴)

널뛰는소리

정의 도구연기요(道具演技謠)의 하나로서 아이들이 널을 뛰면서 부르는 노래. 널뛰기는 정초에 하는 여성들의 대표적 놀이로 긴 널빤지의 한 가운데에 밑을 괴어 놓고, 양쪽 끝에서 한 사람씩 번갈아 높게 뛰어 오르고 내리며 논다. 널뛰는소리는 널을 뛸 때 옆이나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부르는 것과 긴 널빤지의 한 가운데에 올라앉아 부르는 것, 그리고 널뛰는 사람이 부르는 것 등이 있다.

내용 널뛰는소리로 알려진 노래는 싸래기소리, 문열어라소리, 네머리흔들소리, 풀무소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부르는 것은 싸래기소리이다. 이 노래는 짧은 것과 긴 것이 있는데, 먼저 긴 것의 노랫말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쿵더쿵 쿵더쿵 널뛰는데
싸래기 받아서 닭 주고
왕겨 받아서 개 주고
종두래기(종다래끼) 옆에 차고
하늘에 별 따러 가세

싸래기소리에는 널뛰기가 방아 찧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널을 타고 오르고 내리는 모습이 절구나 방아공이의 움직임과 닮아 있고, 또 널 움직이는 소리가 방아 찧는 소리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여긴 것 같다. 실제로 위의 노래는 널뛰는소리를 아예 "쿵더쿵 쿵더쿵"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싸래기 받아서 닭을 주고, 왕겨를 받아서 개를 주자고도 했다. 이처럼 널뛰기를 방아 찧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은 싸래기소리 중 짧은 것에서도 나타난다. 짧게 부르는 싸래기소리는 단지 "싸래기 받자, 콩 받자."를 반복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부를 때 치마를 넓게 펼친다는 점이다. 치마를 펼치며 "싸래기 받자, 콩 받자."고 외치는 것은 방아 찧는 결과물을 받아내는 행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 네머리흔들소리는 "네 머리 흔들 내 다리 살짝"이라고 하여 널뛰는 모습을 그린 노래이며, 풀무소리는 널 중간에 앉은 사람이 부르는 것으로서 아기어르는소리를 가져다 부른 것이다. 아기어르는소리는 어른이 아기를 붙들고 좌우로 흔들며 부르는 노래이다. 아마도 아기를 좌우로 흔드는 것과 널이 오르고 내릴 때의 리듬을 비슷하게 느낀 데서 비롯된 것 같다. 그리고 문열어라소리는 널뛰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로서 한 사람이 올라가며 "상 받아라." 하면, 다른 한 사람이 다시 올라가며 "문 열었다."고 하며 부른다.

의의 널뛰기는 여성의 놀이이며, 주로 정초에 많이 한다. 정초는 일년을 예축하는 의식과 행위가 많은 시기이다. 그리고 여성은 생산력이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정초에 방아를 찧고, 그것을 받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가을의 풍요를 선점하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주술적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예로 든 싸래기소리에는 하늘에 별을 따러 가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별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게 날아야 한다. 하늘은 모든 신성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몸을 솟구쳐 하늘만큼 올랐다 내려오는 것은 지상의 부정한 것들을 털어 날려버리고, 원초의 신성을 접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점에

서 정초의 널뛰기는 한 해 동안 삶의 안녕을 꾀하는 행위로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초의 널뛰기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세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싸래기소리의 바탕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깔려 있다. 문 열고 밥상을 받으라는 문열어라소리에도 역시 한 해의 풍요를 소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충청북도 편(문화방송, 1995),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 편4-(예술교육출판사, 1999), 강원의 민요 I (강원도, 2001), 강원의 민요II(강원도, 2002).
필자 | 강등학(姜騰鶴)

윷놀이하는소리

정의 도구연기요(道具演技謠)의 하나로서 윷을 놀면서 부르는 노래. 윷놀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경기로 신라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놀이는 설날부터 보름에 이르기까지 주로 정초에 하는데, 전국의 거의 모든 곳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윷놀이하는소리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겠지만, 실제 보고된 자료는 많지 않다.

내용 윷놀이하는소리로 알려진 노래는 민중들의 것과 유생들의 것이 있다. 민중들의 노래는 북한의 남포시 강서의 것이며, 유생들의 노래는 경북 안동의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것은 『조선민족음악전집』에 실려있는 노래로 다음과 같다.

중이나 메나 톡
중은 중이냐 메는 메냐
눈온 산의 꽃이로다
도야지 도야지
오래박죽 도야지

'중' 은 윷, '메' 는 모의 사투리이다. 그러므로 "중이나 메나" 는 "윷이나 모나" 라는 뜻이다. 그리고 '도야지' 는 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윷을 던지면서 불렀을 개연성이 크다. 곧, 윷이나 모를 바라면서 윷가락을 던지며 노래를 시작하여 2행까지 부르고, 결과를 보면서 3행부터 노래를 이어가는 것이다. 윷가락을 던져 나온 패에 따라 가사는 달라지는데, 위의 경우는 도가 나왔을 때 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는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이해는 어렵다.

안동 유생들이 불러 왔다는 윷놀이하는소리는 저포송(擲蒲頌) · 구구가(九九歌) · 화조가(花鳥歌) 등으로 지금도 도촌동과 신흥동 등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 중에 저포송은 윷을 놀다가 꼭 필요한 패가 나왔을 때 일제히 일어나서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도송(道訟) · 개송(介頌) · 걸송(傑頌) · 유송(由頌) · 모송(毛頌)의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개' 가 필요할 때 개가 나오면 개송을 부르고, '걸' 이 필요할 때 걸이 나오면 걸송을 부르는 방식으로 불려진다. 그리고 구구가와 화조가는 때때로 저포송에 이어 부르는 노래이다. 이 노래들을 부르는 때는 승부의 고비가 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이다. 이러한 때에는 필요한 패에 대한 기대가 매우 절실하여,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오면 흥분은 더욱 고조되어 저포송에 그치지 않고, 구구가와 화조가를 이어 부름으로써 고양된 기분을 마음껏 즐긴다.

그러나 안동의 윷놀이하는소리는 유생들의 문화로 자리하던 것이므로 민요와는 아주 다르다. 예를 들어 저포송의 내용은 중국의 고사성어와 양반들의 문화 감각과 인식에 맞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 · 개 · 걸 · 윷 · 모의 윷패 이름은 본래 우리말로 된 동물명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도 한자를 빌려 노래의 내용과 어울리도록 표현해 놓았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 도송의 시작 부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일월성신(日月星辰) 분명(分明)하니
천도(天道)가 적실(的實)하고
산천초목(山川草木) 분명(分明)하니
지도(地道)가 적실(的實)하고
인의예지(仁義禮智) 분명(分明)하니
인도(人道)가 적실(的實)하다
위아(爲我)하고 겸애(兼愛)하신
양묵도(楊墨道)를 도(道)라 하랴
인의(仁義)하고 예지(叡智)하신
공맹도(孔孟道)를 도(道)라 하랴
(朴長燦, 安東地方의 윷놀이 硏究,
安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이 밖에 윷놀이와 관계되는 노래들도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윷놀이를 소재로 한 것이어서 윷판에서 직접 불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테면 윷이로구나소리가 그러한 것이다.

의의 윷놀이는 승패를 겨루는 놀이이다. 그리고 여럿이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놀 수 있는 경기이다. 그러므로 윷판에서의 정서는 대부분 겨루기의 박진감과 동아리로서의 집단의식이 어울려 형성되는 것이며, 윷놀이하는소리는 이 같은 놀이정서를 표출하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윷놀이하는소리가 가장 확실한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는 사례는 안동의 경우가 거의 유일하다. 윷놀이가 전국적으로 성행하던 것임을 감안하면, 윷판과 함께 전승된 노래는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敎民族文化硏究所, 1981), 윷노래 노래말 연구(金鱗九, 국어국문학98, 국어국문학회, 1987), 安東地方의 윷놀이 硏究(朴長煥, 安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 편4-(예술교육출판사, 1999).
필자 | 강등학(姜騰鶴)

정월 지난 무에 삼십 넘은 여자

정의 철이 지나 볼 것이 없고 시세가 없게 된 사물을 칭할 때 쓰는 속담.
내용 무는 늦어도 가을 김장을 할 때가 제 구실을 하고 제 값을 받는다. 땅에 묻지 않은 무는 해(설)가 넘으면 속이 비고 바람이 들어서 단단하지 않고 퍼석퍼석하고 무게도 덜 나가며, 물기도 줄어들고 무싹이 나기도 하여서 맛이 없다. 무로는 가을 무에 비하여 볼 것이 없어 시세가 떨어진다.

이전에 처녀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혼기(婚期)를 놓치고 서른 살까지 넘고 보면 시집을 오라는 곳이 없어 시세가 없게 된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여자가 나이 삼십이 넘으면 한창 때가 지났다고 하여 남자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이 속담은 무와 여자를 짝지어서 철 지나기 전에 제 값을 할 것과 무엇이든 한때 전성기가 지나면 허무하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속담으로는 "설 쇤 무", "삼십 넘은 계집", "설 쇤 무와 삼십 넘은 계집", "여자는 젊은 것이 재산" 등이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한국속담 · 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래옥(崔來沃)

정이월 높새바람에는 바위 끝에 눈물난다

정의 음력으로 정월, 이월인데도 바위 끝에 고드름이 맺히도록 날씨가 추워진다는 뜻의 속담.
내용 높새바람은 '녹새(錄塞)바람'이라고도 하는데 뱃사람들은 '북동풍(北東風)'이라 한다. 높새바람은 겨울 추위를 일구는 바람이라고 해서 북풍(北風)으로 보기도 한다. 정이월이면 봄이 완연한 때인데도 겨울바람인 높새바람이 여전히 불어서 지붕 처마에도 고드름이 얼고, 바위 끝에도 고드름이 매달려 언다. 낮에는 바위에 있는 눈이 봄 햇볕을 받아서 녹아 흐르는데 밤에는 높새바람이 불어서 꽁꽁 언다. 봄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춥다는 의미로 몸조심을 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 · 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래옥(崔來沃)

정이월에 대독 터진다

정의 음력으로 정월, 이월쯤이면 으레 날씨가 풀릴 것으로 짐작들 하나 사실은 이따금 추운 날이 있다는 뜻의 속담.
내용 대독은 '다릿골독'이라고도 하며 크게 만든 독이다. 간장은 물과 달리 짜서 간장독은 물독처럼 쉽게 터지지 않는다. 간장 대독은 한겨울에도 좀처럼 터지지 않는데, 봄이 들어선 지 한두 달이 된 정이월인데도 터진다면 그 추위가 오죽하겠는가 말이다. 그러므로 정이월이 되어 겨울이 다 가고 추위가 물러났다고 성급하게 생각하고 처신한다면 대독보다 단단하지 않은 사람 몸은 큰 피해를 입으므로 정이월이라도 추위에 대비를 하라는 뜻이 있다. 이와 유사한 속담으로는 "봄추위에 장독 깬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필자 | 최래옥(崔來沃)

정초에 거름질 놈

정의 매우 게으른 사람을 이르는 속담.
내용 정초에서 대보름까지는 농사일을 잠시 쉬게

된다. 아이들은 연날리기나 널뛰기, 팽이치기를 하며 정초에 잘 놀지만 어른은 정월 3, 4일까지 쉬고 그후부터는 집안 잔일을 하거나 새끼꼬기와 쇠고삐 만들기, 신삼기 등의 일을 한다. 아직 날이 춥고 눈이 산야(山野)에 있어서 바깥일이나 들일을 하기에는 힘이 든다. 그런데 이 정초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면 섣달에 나무를 해 놓지 않은 준비성이 없는 게으른 사람이요, 정초에 거름을 진다면 섣달에 거름을 다 치우고 집을 깨끗이 하고 새해를 맞아야 하는데도 그리 하지 않았으니 평소에 준비도 못하고 게으른 사람인 것이다. 설날 측간(厠間)을 치고 거름짐을 진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게으른가를 이르는 말이다.

무슨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단단히 해 둔 사람은 슬기가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일을 당해서 부산하게 덤벙대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부지런한 사람 같으나 실은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필자 | 최래옥(崔來沃)

첫 정월에 나는 버섯은 먹지도 못한다

정의 일이 너무 일찍 되면 도리어 좋지 않다는 속담.
내용 세상에는 올되어서 좋을 때가 있고 늦되어서 좋을 때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제 때에 제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이 나는 때에 먹는 것이 제일 좋다. 농작물이나 어산물(漁産物)이나 산채(山菜)나 약초는 제때에 먹어야 효과가 있으며, 말리고 절이고 묻어두는 것은 아무래도 제철만 못하다. 버섯은 오뉴월 더운 여름, 습기가 있을 때 나오지 한겨울인 첫 정월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첫 정월에 나는 버섯은 없는데도 버섯이 나오는 것처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바로 정월에 버섯처럼 제 때가 아닌데 제 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은 시도 때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라 좋지 않다는 말이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9).
필자 | 최래옥(崔來沃)

초정월 바람결에 검은 암소 뿔이 휜다

정의 음력 정월 초순에 부는 바람은 쇠뿔이 굽을 정도로 몹시 춥다는 뜻의 속담.
내용 바람결은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곧 풍향(風向)이다. 정월 바람은 북풍이라 찬바람이 남쪽으로 계속 분다. 검은 암소뿔은 단단하여 어려서부터 휘었고, 겨울이 아니라도 본디 휘어 있는데, 워낙 북풍이 계속 몰아치니까 그 단단한 암소뿔마저도 북풍 바람결에 휘어진다고 보았다. 겨울 추위를 보통 북풍한설(北風寒雪)이라고 한다. 정월의 바람결은 바로 강한 북풍(北風)인데, 북풍은 대부분 기온이 낮아서 습기가 없고 작은 눈 결정(結晶)이 내릴 때 엉겨붙지 못한데다가 비바람이 심하여 또한 달라붙지 않은 가루눈인 한설(寒雪)을 동반한다. 검은 암소 몸에 가루눈이 내리면 흑백이 대조를 이룰 때 암소의 뿔도 눈에 잘 드러나므로 이 속담이 생겼다.

참고문헌 | 生活 日氣와 日氣 俗談(金光植, 鄕文社, 1979),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9), 한국속담 · 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래옥(崔來沃)

초정월에 비가 오면 어부가 운다

정의 혹한기(酷寒期)인 음력 정월 초순에 날이 풀리면서 비가 오면 이로 인하여 고기가 잡히지 않으므로 어부들이 슬퍼한다는 뜻의 속담.
내용 동해안에서 나는 명태는 한겨울 추울 때 잡히는데, 한겨울인데도 동해안에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한류(寒流)에서 나는 명태가 동해안 일대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명태잡이를 생계로 삼은 어부는 명태를 잡을 수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진다. 날씨가 추울 때 추워야 하고 더울 때 더워야 그 기후에 맞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한겨울이 포근하고 한여름이 서늘하여 이상기온이 되면 그 기온에 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 · 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래옥(崔來沃)

거름내기

정의 농사를 준비하는 달인 정월에 땅의 지력을 높여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논밭에 거름을 내는 일. 거름내기는 파종이나 모종 전에 논밭에 하기도 하지만, 파종과 동시에 혹은 어느 정도 자란 작물 뿌리 옆에 골을 파고 주기도 한다.

유래 농가에 전해 오는 "한 사발의 밥은 주어도, 한 삼태기의 재는 주지 말라.", "똥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누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밭이나 논에서 일을 보라." 등의 이야기는 거름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거름에는 풀이나 짚 따위를 외양간에서 썩힌 두엄과 아궁이에서 나오는 재, 그리고 사람이나 가축의 똥·오줌 따위가 사용되었는데, 이 밖에 초가지붕의 썩은새·깻묵·벽토·진흙·구들의 재·물풀·쌀겨·마른 멸치·동물의 뼈·부드러운 나뭇가지·해초 등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었다. 똥돼지를 키우는 것도 돼지를 통해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똥·오줌·재·똥재 등이다. 중국 문헌을 통해서도 똥은 오래 전부터 거름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비자(韓非子)』에는 "땅의 힘을 북돋우려면 반드시 똥을 주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예기(禮記)』「월령(月令)」에는 "똥은 모의 뿌리를 튼튼히 한다."고 되어 있다. 『순자(筍子)』에도 "많은 똥이 땅을 거름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한서(漢書)』에는 "똥을 주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을 분치(糞治)라 일렀다."고 전한다. 『정자통(正字通)』에서도 "오늘날 농부들은 똥이 농사의 근본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능히 벼의 생육을 북돋운다."고 똥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아궁이에서 나오는 재는 뒷간 한쪽에 모아 두고, 이를 모으는 잿간을 따로 세우기도 하였다. 똥을 누고 나서 고무래로 재를 끌어다가 똥·오줌에 버무려서 밀어두는 것이 똥재이다. 똥재는 운반이 쉽고 냄새도 적은데다 재의 알칼리 성분은 잡균의 번식이나 곤충의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농사직설(農事直說)』에는 "올벼 못자리에 똥재를 주되 다년간 못자리로 쓰던 논은 다섯 마지기당 석 섬을, 처음 만든 논에는 넉 석[四石]을 준다."고 똥재의 양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오줌도 채소밭에 중요한 거름이다. 사랑방이나 뒷간 가까운 곳에 오줌독을 따로 묻어 두고 오줌을 모았다. 『천일록(千一錄)』은 거름으로서의 오줌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의 오줌은 독에 담아 오래 썩을수록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큰 독 2~3개를 땅에 묻어 두며, 또 질그릇 동이 4~5개를 집 안팎 으슥한 곳에 놓아서 오줌을 받아 큰 독에 부어야 한다. 초겨울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에 모은 것은 가을 보리밭에 주고, 정월부터는 오줌에 재를 섞어 뒤집으면서 햇볕을 쬔 뒤에 덧거름으로 쓴다. 한 해 동안 집안 사람들의 오줌을 모으면 100무의 논밭에 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사람의 똥이나 오줌은 물론 동물의 똥도 중요한 거름으로 쓰였다. 부지런한 농사꾼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개똥삼태기를 메고 길가에 널린 개똥을 호미로 긁어 담았다. 박지원(朴趾源)은 농부 엄씨가 동물의 똥으로 양질의 거름을 만들어 서울의 좋은 논밭에 거름을 제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구월에 서리가 내릴 때부터 시월에 엷게 얼음이 얼 무렵이 되면, 남의 뒷간의 똥찌꺼기, 마구간의 말똥, 홰 밑에 구르는 쇠똥·닭똥·개똥·거위똥 등을 치운다. 또 돼지똥·비둘기똥·토끼통·참새똥을 주옥처럼 긁어모아도 누구 하나 염치없다 하지 않고, 그 이익을 독점해서 의롭지 못하다 않고, 아무리 많이 차지하여도 양보할 줄 모른다는 따위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왕십리의 무, 살꽂이 다리의 순무, 석교의 가지·오이·수박·호박, 연희궁의 고추·마늘·부추·파·개나리, 청파의 미나리, 이태원의 토란 등은 제일 좋은 밭에 심지만 모두 엄씨의 똥을 써야 토질이 비옥하고 잘 자란다."고 적고 있다.

재는 똥과 섞어 똥재를 만들기도 하고, 그 자체를 거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아궁이의 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는 긁어내고 새 불을 다시 지펴야 한다. 『천일록』에는 "끼니마다 먼저 아궁이의 재를 알뜰히 긁어낸 다음에 불을 지펴야 한다. 재 위에 불을 때면 묵은 재는 곧 없어지기 때문이다. 옛적에 한 과부가 아궁이의 불을 지필 때마다, 생흙을 파다가 아궁이 안에 넣었다. 아침저녁으로 이같이 하고 불을 땐 다음, 재와 함께 긁어모아 거름으로 쓴 덕분에 언제나 소출이 배가 넘었다."고 전하며 현명한 아

녀자를 소개하고 있다. 볏짚을 태운 재는 알칼리성이 강해서 산성 토질을 개량하는 데 효과가 크다.

지역사례 우리나라에서 거름은 두엄을 주로 이용하는데, 두엄은 외양간, 마구간, 돼지우리 바닥에 깔았던 짚이나 풀에 재와 연한 버드나무, 잣나무 가지 등을 섞어서 만든다. 두엄은 나온 곳에 따라 외양간의 것은 소두엄, 마구간은 말두엄, 돼지우리의 것은 돼지두엄이라 불렀다. 들풀로 만든 풀두엄은 초가을 농한기에 잡풀을 베어 썩혔다가 이듬해 봄에 썼다. 과거에는 관청에서 집집마다의 두엄 양을 정해 놓고 측정해 가기도 하였다.

영서 지방에서는 겨울철 파도에 밀려오는 해조도 거름으로 삼았다. 똥을 조금 섞어 두었다가 모심기 전에 뿌린 것이다. 그 밖에도 바닷물과 똥오줌을 섞거나 바닷물 자체만 썩혀서 사용하기도 했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멸치나 정어리 등을 거름으로 썼다. 미처 제대로 거두지 못한 멸치를 말려서 못자리 거름으로 사용하였는데, 200평 논에는 멸칫가루 두 말이면 거름으로 충분하였다. 정어리는 기름을 짤 때 나오는 늠치물을 감자 심기 전에 밑거름으로 주는 예도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바다풀을 통시(똥돼지 우리)에 넣어 썩힌 돗거름을 밭에 뿌렸으며, 과거에는 밭을 우리로 삼아 말이 싼 똥이 그대로 거름이 되도록 방목하기도 하였다.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정월 대보름에 자신의 논밭에 거름을 가져다 붓기도 한다. 만월의 생산력을 빌려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의례라고 할 수 있다. 경북 영천에서는 보름 새벽 첫 닭이 울면 퇴비를 세 번씩 논에다 붓고, 강원도 고성 · 명주, 영서 지역, 충북 옥천, 경남 남해 등지에서는 보름에 퇴비 한 짐을 논에다 붓는다. 이것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이기도 하며, 부지런히 농사를 시작했으니 금년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지신에게 비는 뜻도 담겨 있다. 충남 금산에서는 보름에 과일나무에 거름을 주어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기도 한다.

거름을 훔쳐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도 있다.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동에서는 보름날 새벽에 젊은이들이 자기 집의 농사가 잘 되라고 다른 집의 거름을 훔치러 다닌다. 가장 좋은 거름으로 소똥을 제일로 친다. 대개 외양간 바깥으로 내놓은 소똥을 훔쳐다가 자기 집의 거름통에 갖다 넣는다. 남의 집 거름을 훔치면 농사가 잘된다는 속신(俗信) 때문이다. 태백시 삼수동에서는 성이 다른 세 집에서 거름을 훔쳐다가 자신의 집 거름통에 갖다 놓으면 일년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다. 정월 대보름에 거름을 훔치는 행위는 정월 밥을 훔쳐 먹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해진다는 속신(俗信)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름내기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풍습도 있는데, 화전 지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홀로 사는 노인이 있으면 그들의 밭에 마을 사람들이 거름을 날라다 뿌려주었다. 이것을 '운력'이라고 한다.

똥 · 오줌을 논밭에 내기 위해서는 똥바가지, 장군, 새갓통, 거름지게 등이 필요하고, 재나 두엄을 담기 위해서는 고무래, 거릿대, 삼태기 등이 필요하다. 똥바가지는 똥오줌을 담는 바가지로 뒷간의 깊이에 따라 알맞은 자루가 달린 것을 사용하며, 장군은 오줌이나 똥을 담아내는 통으로 옹기나 나무로 만들며, 담는 물건에 따라 오줌장군 · 똥장군이라고 각각 달리 불린다. 똥장군으로 똥 · 오줌을 나르면 흘러넘치지도 않고 냄새도 덜하였는데 보통 지게에 지고 나른다. 똥이나 오줌을 장군 대신 통에 직접 담는 경우에는 거름지게로 나른다. 새갓통은 통나무를 귀때가 달리도록 판 바가지로 오줌이나 인분을 담아 밭에 뿌릴 때 사용한다.

고무래는 아궁이의 재를 모으는 연장이고, 거릿대는 서양의 포크와 같은 형태로 두엄을 뒤집거나 낼 때 그리고 외양간을 칠 때도 쓴다. 삼태기는 재나 두엄을 담아내는 도구로써 짚이나 칡덩굴, 싸릿대, 얇게 쪼갠 대오리 등을 엮어 만든다.



거름내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의의 거름내기는 일년 농사의 풍년을 기약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농민들은 거름을 만드는 데 많은 정성을 기울였으며,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보름에 거름을 뿌리기도 하였다. 이는 만월(滿月)의 기운을 빌려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열매가 많이 달리는 콩, 감자밭의 거름을 낼 때 안채 뒷간의 똥을 최고로 친 것도 여성의 다산성을 빌려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 課農小抄, 農事直說, 千一錄, 風俗歌詞集(李石來譯, 新丘文化社, 1974),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江原道篇-(文化財管理局, 1977), 高城郡誌(高城文化院, 高城郡, 1985), 南海郡誌(南海郡誌編纂委員會, 南海郡, 1994),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박지원 저 · 김혈조 역, 학고재,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민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삶을 찾아(이종철 외, 국립민속박물관,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 민속의 세계4 -주거환경 · 생업기술 · 취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동아시아의 뒷간(김광언, 민속원,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중농기구 비교연구 -따비에서 쟁기까지-(정연학, 민속원, 2003).

필자 | 정연학(鄭然鶴)

농기수리(農器修理)

정의 농경세시의 하나로 한 해 농사를 짓기 전에 농기구를 수선하는 행위. 농경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농기구들을 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파기하는 등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그 명칭도 농기수리는 물론 농기수선 · 농구수선 · 농기구수리 · 농기구수선이라고도 불렀다.

내용 힘을 덜 들게 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쟁기 · 따비 · 쇠스랑 등의 농기구는 자루가 꺾어지거나 헐거워지기 쉽다. 파종에서부터 육성 · 수확의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농경은 운반 · 탈곡 · 도정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마다 도구로써 농기구를 활용하였다. 파종의 밭갈이에 쟁기를 사용하였으며, 개간에는 따비가 이용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바쁜 다음 농사철에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리해 두어야 한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의 정월조(正月條)를 보면, "농기(農器)를 다스리고 농우(農牛)를 살펴 먹여"라는 기록이 있다. 『과농소초(課農小抄)』의 「수시(授時)」편에서도 정월에 할 일을 『전가월령(田家月令)』을 인용하여 "울타리를 튼튼하게 함. 잠실(蠶室)을 수리함. 집이 새는 곳을 고침. 된장을 담금. 쌀을 찧음. 지붕을 해 이음. 도롱이와 띳집을 준비함. 밭에 똥을 줌."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지역사례 농기수리는 농경을 하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한기에 이루어진다. 충남 연기군 서면 용암리 용암마을에서는 보름날 낮에 남자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소를 부리기 위하여 필요한 줄(봇줄)을 꼰다. 쟁기와 연결하는 봇줄과 소의 고삐 등을 단단하게 꼰다. 이 때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술을 차려내느라 쉴 사이가 없다. 이 때 일반 가정에서는 그 해에 사용할 농기구를 제작하고, 부서진 것은 수리한다. 아산시 송악면 외암1리에서도 정월 열나흗날에는 새와 바람을 쫓기 위해서 논에 허수아비를 세운다.

충북 영동군 매곡면 수동리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볏짚으로 모춤끈(모내기할 때 묶는 짚)을 만든다. 그릇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찬밥을 담아 밭에 놓는다. 날짐승들이 먹기를 기다려 짚을 회수한 다음, 그 짚을 모춤끈으로 사용한다. 경북에서는 정월에 쟁기타줄꼬기 · 가마니짜기 · 새끼꼬기 · 자리치기 · 멍석짜기 · 모자리말목만들기 등 농사에 쓰일 농기구 제작을 한다. 강원도에서는 정월이면 거의 눈에 덮여 지내므로 농토(農土)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농기구 수리나 멍석 · 삼태미 · 가마니 등의 저장용구를 만든다. 때때로 땔나무 작업을 하거나 객토작업 · 거름내기 등을 하기도 한다.

의의 농기수리 및 제작은 농사일이 조금 덜 바쁜 때이면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때에 하게 마련이다. 이는 바쁜 농사일이 시작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참고문헌 | 課農小抄, 農家月令歌,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江原道 篇-(文化財管理局, 1977),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著, 集文堂, 1985),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동섭(金東燮)

두레짜기

정의 마을공동 노동조직으로 정월 초에 일년 농사 계획을 정하는 것. 두레짜기는 두레꾼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고문'이 주도하며 주로 조직의 역원 선출이나 두레셈의 기본원칙, 경지 순서 결정, 악기보수 및 구입 등을 결정한다. 두레짜기는 지역에 따라 두레공론(부여)·두레공사(논산)·김매기모임·김매기회의·질짜기(강릉) 등으로 달리 부르기도 한다. 용어 가운데 경기, 충청 지역에서 김매기모임 또는 회의라고 부른 것은 두레의 목적 가운데 김매기가 가장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내용 두레는 마을의 규모에 따라 그 조직이 달라지기도 한다. 경기도 이천, 여주의 큰 마을에서는 고문에 해당하는 영좌와 그 밑에 부영좌를 둔다. 그리고 영좌를 보조하는 이좌·삼좌, 잔무를 맡는 조사, 경리 담당 서사 등이 있다. 그러나 마을의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두레의 우두머리인 좌상만 두고, 그의 주도 아래 두레 일이 이루어진다.

두레는 보통 20~50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마을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것을 경기 지역에서는 '통두레(동두레)'라고 부른다. 통두레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두레로서 엄격한 규율과 조직에 의해 공동노동을 수행한다. 또한 두레굿을 주관하기도 한다. 넓은 들을 이웃 마을과 함께 공유하거나 또는 호구수가 작은 경우 두 마을이 같이 두레를 조직하는 경우 이것을 '합두레'라고 칭한다.

두레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절차가 있다. 머슴들은 힘을 쓸 줄 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이것을 강릉에서는 '팔례'라고 하였고, 외지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두레패에게 술과 음식 등 이사턱을 냄으로써 가입이 허락되었다. 신입례에 들어가는 나이는 보통 16~17살에 이르나, 개인의 노동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머슴들이 두레패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성원을 충당하고, 젊은 노동력을 받아들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도 있으나, 본인에게는 성인으로 대접을 받는 계기가 되는 일종의 성년식인 셈이다. 마을의 두레는 공동노동조직이자 마을의 경계를 구분짓는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두레패는 우물고사나 마을의 당고사를 거행하는 주체가 되며, 농사 이외에 실생활에서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기본 단위와 같다.

지역사례 경남 남해에서는 정월에 온 마을의 머슴들이 통문을 돌려 모임을 갖는데, 이것을 '머슴모임'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어른 머슴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장두를 뽑고 장가들지 않은 총각 머슴을 대표하는 총각대반을 뽑는다. 장두는 농사 전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마을 머슴들의 화목과 행동을 통제하기도 한다. 만약 머슴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벌을 주기도 한다. 머슴모임 자리에서는 성년이 된 머슴들이 들돌을 들어 힘겨루기를 하는데, 일종의 두레가입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들돌에는 '장골돌'과 '반골돌' 두 종류가 있는데, 장골돌을 들어올린 청년은 '장골'로 인정받아 그 해부터 어른 품삯을 받게 되고, 반골돌을 들어올린 청년은 일반 품삯을 받게 된다.

두레는 농사일을 돕고 받은 품삯뿐만 아니라 생활도구 등을 공동으로 만들어 얻은 수입을 두레 경비로 사용하였다. 강원도 인제에서는 정월 20일부터 2월말까지 약 40일 동안 '도방'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짚신 삼기·새끼줄 꼬기·다래끼·멍석·가마니짜기 등을 한다.

두레는 벼농사가 발달한 지방에서 훨씬 조직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충남 서산에서는 '두레짠다'고 하여 정월 초순에 농사회의를 열고 일년 농사 계획을 결정하였는데, 농사를 지을 때 구분되는 역할에 따라 두레꾼을 정하였다. 두레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를 '고문'이라 하고 잔무와 문서 취급을 맡는 자를 '사무'라 하며 상머슴을 '총각'이라 하였다.

경남 울산에서는 총책임자인 행도(行道)를 위주로 그를 돕는 도감(都監), 두레 작업을 지휘하는 수(首)총각, 그의 보좌역인 조사총각, 방목의 책임을 지는 방목감(放牧監) 등을 두었다.

의의 두레짜기는 한 마을의 일년 농사를 계획하는 중요한 절차로, 두레조직과 농사의 순서, 자금 마련 방법 등을 정하였다. 또한 이 때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여 노동력을 충당하였고, 이를 위해 들돌들기 등과 같은 성인식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두레는 개개인의 땅을 하나의 경작지로 생각하여 공동으로

노동하고, 과부나 노약자만 있는 집의 경우에 무상으로 경작해 주었다. 또한 걸립해서 얻어진 자금은 공금으로 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성원 간에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풍물놀이를 하였다. 두레패는 논매기뿐만 아니라 장마에 유실된 마을길을 닦고, 겨울에는 마을길에 쌓인 눈 치우기 등을 행했다. 또한 마을의 굿과 제사, 고사 등을 치렀다. 결국 마을의 두레패는 마을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구인 셈이다. 집집마다 한 사람은 두레패의 회원에 속하였으므로 마을에서 행해지는 각종 대사를 가정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南海郡誌(南海郡誌編纂委員會, 1994), 한국의 두레1 · 2(주강현, 집문당, 1997), 우리 문화가 온길(김광언, 민속원, 1998),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利川市誌3 -민속과 구비전승-(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필자 | 정연학(鄭然鶴)

머슴들이기

정의 정월에 하는 세시풍속의 일종으로 한 해의 농사를 담당할 머슴을 들이는 풍속. 됨술마시기 · 머슴계약하기 · 새경정하기라고도 한다.

내용 부유한 농촌 가정에서는 머슴을 들여 한 해 농사를 짓는다. 보통 머슴은 정월 대보름 무렵에서 2월 사이에 들이게 된다. 이 때 정해진 머슴은 그 해의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인 10월 그믐께나 섣달에 나가게 된다. 보통 머슴의 새경은 열나흗날에 주로 정하게 되는데 머슴에게 거름을 져다 나르게 하여 주인과 머슴이 서로 논의하여 새경을 결정한다. 새경에는 머슴이 들어올 때 미리 지불하는 들새경(선새경)과 나갈 때 지불하는 날새경이 있다.

기타 전남 지방에서는 주인과 머슴 사이에 새경 등을 확정짓고는 술을 한 잔씩 나누어 마시는데, 이를 '됨술'이라고 하며, 일종의 계약을 맺는 술의 의미를 지닌다. 됨술을 마셔야 일꾼이 확정되며, 이 술을 마시면 속병이 나지 않는다는 속신도 있다. 또 상묘일에는 머슴을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는 속신도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大觀1~6(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198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지현(金智賢)

보리밟기

정의 겨울철 농한기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리의 싹이 뜨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리도록 보리밭을 밟는 행위. '맥답압(麥踏壓)'이라고도 한다.

내용 보리밟기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밭농사 작업이다.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보리밭이 얼어서 부풀어 오르거나 너무 따뜻하여 보리가 웃자라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리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 보리밭밟기는 보리의 생장력 강화를 위해 보리밭에서 소집단 단위로 '밟이'를 하는 것이다. 보리밭밟기는 보리의 경엽(莖葉, 줄기잎)에 상처를 주어 월동 전에 지상부의 웃자람[徒長]을 억제하고 분얼(分蘖, 여러 잎으로 움트는 것)을 촉진한다. 이 때에 생기는 상처로 수분의 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포액 농도가 높아지고, 생리적으로 내한성(耐寒性)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리밟기는 보통 음력 12월부터 정월까지 이루어지는데, 대개 잡초를 제거하는 간단한 김매기를 한 뒤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형태에서는 보통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월에 펼쳐지는 다양한 놀이와 결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겨울철의 중요한 행위로 인식되어 일삼아 이루어진 성격이 강하다. 20~30년 전에는 롤러 형태의 답압기(踏壓機)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보리농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참고문헌 |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조정현(曺鼎鉉)



보리밟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소줄꼬기

정의 소를 부리는 데 필요한 줄을 꼬는 작업.

내용 음력 정월 대보름에 소줄꼬기를 하는 농촌이 많다.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새끼나 소줄을 꼬기도 하였으며, 각 농가마다 개별적으로 작업하기도 한다. 먼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마을 농기(農旗) 밑에 농사를 짓는 남자들이 모여 앉아 줄을 꼰다.

한편 집집마다 개별 작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벼 수확을 마치고 농한기로 접어들면서 사랑방에 집안 남자들과 이웃 몇몇이 모여 앉아 새끼를 꼬아 두었다가 정월 대보름날 소줄을 꼰다. 농민들은 아침 일찍 새끼를 마당에 내어놓고 가는 새끼줄 세 가닥을 '자새'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한 가닥의 굵은 줄을 꼰다. 이렇게 만든 소줄을 나무에 걸고 양끝에 돌멩이를 매달아 줄이 팽팽하게 늘어나도록 한다. 소줄의 종류는 소를 몰고 다닐 때 손에 쥐고 쓰는 고삐, 쟁기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봇줄·써레줄 등 다양하다.

의의 음력 정월 대보름은 당제(堂祭) 등 제의(祭儀)가 행해지는 날이다. 농기는 마을과 농업의 신성한 상징이다. 이렇듯 상징성이 강한 시간과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아 소줄꼬기에는 상당한 종교적 관념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瑞山民俗誌 上(김태곤 외, 瑞山文化院, 1987),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조경만(趙慶萬)



씨앗고르기

정의 수확한 농작물 중 내년의 농사를 대비해 가장 튼실한 것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 선별하는 작업. 이 작업을 달리 '씨앗선택'이라고도 한다. 특히 농사일에서 씨앗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렇게 튼실한 것을 선별하고도 보관에서의 어려움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

내용 벼농사에서 좋은 볍씨를 '씨나락'이라고 한다. 이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씨가 굵고 알차며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한다. 밭농사의 작물이었던 조와 보리도 마찬가지이다. 씨앗은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습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쥐의 습격에 무방비로 둘 수 없어 뚜껑이 있는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거나 '씨부게'에 담아 쥐가 다닐 수 없는 난간에 달아두고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관한 씨는 파종 때 다시 선별하여 사용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1~6(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1982),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著, 集文堂, 1985),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동섭(金東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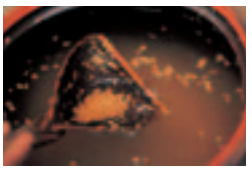
굴채취

정의 간조시 드러나는 간석지 바닥의 바위나 인공적으로 설치된 양식용 로프, 나뭇가지 등에 부착된 굴 껍데기를 조새로 긁어 떼어내고 그 속의 굴을 채취하는 행위.

어원 굴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전어지(佃漁志)』, 『자산어보(玆山魚譜)』에 나타나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7도의 토산물이라 기록되어 있다. 『자산어보』에는 굴을 모려(牡蠣)라고 칭하고,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폼이 구름조각 같으며 껍질은 매우 두꺼워 종이를 겹겹이 발라 놓은 것 같다고 하였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여합(蠣蛤)이라 하며, 간석지 바닥이나 바위에 붙어 있는 모양이 돌에 핀 꽃과 같아서 석화(石花)라 칭하기도 한다.

유래와 역사 굴은 김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식으로, 여러 패총에서 굴 껍질이 발견되는





씨앗고르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소줄꼬기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1리
국립민속박물관



1 굴채취
경남 남해군 김상수



2 굴채취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국립민속박물관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에도 식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 말기에 광양만의 섬진강 입구에서 굴을 양식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함남 영흥만 및 평북 다사도 연안의 수면 아래서 양식을 하였고, 전남 해창만 및 섬진강 입구에서는 간사지를 이용하여 바닥 양식 혹은 투석식 양식을 하였다. 이후 경남 가덕만 및 진교만 부근에서 집약적으로 양식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도 이용되는 수하식양식법은 일제강점기 후기에 함남 영흥만에서 보급되었다.

최근 무분별한 갯벌파괴 및 간척사업 그리고 오염으로 굴 양식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전남 고흥 나로도 해역, 여수 가막만 해역, 경남 남해군 창산해역, 고성의 자란 · 사량 해역, 거제 · 한산만 해역에서 큰 규모의 수하식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및 지역사례 굴은 투석식 양식법과 수하식 양식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나뭇가지를 갯벌에 세워 양식하는 지역도 있다. 투석식 양식법은 갯벌이 발달한 서남해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양식법으로 간석지에 돌을 집어넣어 그곳에 부착하여 자라는 굴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수하식 양식법은 남해의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이용하는 양식법으로 로프에 채묘한 패각을 매달아 양식하며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투석식 양식법은 주로 '조새'라는 어구를 이용한다. 부녀자들의 채취는 부업적 성격이 강하며, 마을 공동어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체적 규제가 강하다. 하지만 수하식 양식법은 수출지향적 양식으로 채취가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전업적이고 기업적이다.

투석식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인근 5일장에서 소매하거나 중간상인에 의해 수집되어 횟집 등에 공급된다. 하지만 수하식은 수협 등을 통해 위판되어 수출되거나 국내에 공급된다. 수하식 굴양식 어민들에게 지도사업 · 경제사업 · 공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1960년대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경남 통영에 본소가 있고, 통영과 여수에 각각 1개의 지소를 두고 있다.

의의 굴 채취는 9월 추석을 전후하여 시작되며 5월 봄까지 이루어진다. 굴 맛이 가장 좋은 시기는 겨울이며, 특히 김장철을 전후해서 맛이 좋고 가격도 비싸다.

기타 영국의 속설에는 월의 이름에 'R'자가 없는 5~8월에는 굴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굴은 상하기 쉽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에 주의를 환기하는 이야기로 보인다. 우리 속담에 "가을비가 잦으면 굴이 여문다."는 말이 있다. 이는 육질이 발달하는 가을철에 강우로 인한 영양염류가 증대하면 높은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韓國水產業史(朴久秉 著, 太和出版社, 1966), 玆山魚譜(정약전 지음 · 정문기 옮김, 知識産業社, 1977), 漁村俗談集(全羅南道, 1980), 갯벌을 가다(김준, 한얼미디어, 2004).

필자 | 김준(金準)

김채취

정의 조간대의 바위에 부착한 자연산 김이나 양식어장에 설치한 김발에 부착된 김을 수확하는 행위.

어원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김을 해태(海苔)라고 칭하며, 뿌리가 있어 돌에 붙어 있고 가지는 없으며, 돌 위에 펴져서 붙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김을 건태(乾苔)라 칭하며,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에는 해의(海衣)라 칭하고 있다. 『경상도지리지』에 해의는 동평현, 울산군, 동래현, 장기현, 여일현, 안동대도호부의 토산품이라 전하고 있다.

유래와 역사 김양식과 관련된 기록은 대부분 구전으로, 섬진강 하구 일대와 전남 완도 고금도, 약산도 일대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섬진강 일대의 김양식은 광양의 태인도, 하동의 갈도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1집에서는 260년 전 한 노모가 섬진강 입구에서 패류를 채취하던 중 해태가 많이 착생한 나무를 발견하고 맛을 보았더니 맛이 좋아 대나무를 세워 양식을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조선의 수산업(朝鮮の水産業)』에서는 약 300년 전 하동군 관찰사가 지방순시 중 수행원이 갈도 주민으로부터 양식 및 제조방법을 전수받은 데서 시작했다고 전한다. 또 『해태양식론(海苔養殖論)』에서는 약 300년 전인 인조(仁祖)대에 전남 광양 태인군에서 한 어부가 나무에 해태가 부착해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나무를 세워 양식하다가 그 후 산죽을 사용하여 양식하였다고 하였다.

완도 일대의 김양식은 전남 완도군 약산도와 고금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 온다. 『조선지수산(朝鮮之水産)』에서는 100여 년 전, 완도군 조약도의 김유몽이라는 사람이 해안에 우연히 떠 있는 나무에 많은 해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시험적으로 나뭇가지를 바다 속에 심었는데 마치 검은 수건을 걸어 놓듯이 해태가 부착한 것을 보고 양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어업조합요람(朝鮮漁業組合要覽)』에서는 완도 고금면 용장리의 한 노인이 어전에 붙은 해태를 보고 양식하였다고 전하고 있고, 『해태양식론』에서는 100년 전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에 정시원이라는 사람이 죽도 부근 어전에 붙은 해태를 보고 양식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전남 광양시 태인도에는 김 시식지(始植地) 기념관과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그 곳 안내판에는 인조대에 전남 광양군 태인도에 김여익이라는 어부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에 김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지주를 세워 김을 처음으로 양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 시식지 기념관은 1987년 전남 지정기념물 제113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1992년에 김 시식전시관이, 1999년에 용지마을 입구에 김 시식지 유래비가 건립되었다.

내용 및 지역사례 일제강점기 김양식은 하동, 돌산, 광양, 곤양의 4개 군에서 성행했는데, 특히 광양군은 연안 곳곳에서 양식이 이루어져 생산고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당시 양식장은 조상 대대로 전승되어 논과 밭, 임야의 경우와 같이 배타적 점유권을 가졌다.

이 시기에 사용된 재료는 대나무, 솜대, 가지가 거칠게 늘어진 나무 등으로, 특히 대나무를 많이 이용하였다. 양식 어민들은 매년 6·7월경에 재료를 구입해 몇 개의 가지를 묶어 다발[簇]을 만든다. 그리고 9·10월 경에는 만조시 양식장으로 운반해 두고 기다렸다가 간조시 갯벌에 세운다. 조류와 기온 등 해양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2월부터 다음 해 3월에 걸쳐서 채취한다. 이러한 양식을 '섶양식'이라고 한다. 대나무 등 다발을 갯벌에 세우기 때문에 '건홍(建簇)'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김발을 설치하는 것을 건홍한다고 하고, 마을에서 김발 설치를 앞두고 시설량의 분배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하는 회의를 건홍회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섶양식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곳은 섬진강 하구의 태인도와 금호도이지만 광양제철이 들어서면서 모두 사라졌다. 갈대를 이용하는 갈대발, 산죽을 이용한 산죽발, 염홍(簾簇) 등 재래의 양식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부홍식(浮簇式)으로 전환되었다. 부홍식에는 전남형 부홍식·서선형 부홍식 등이 있는데 당시 염홍식과 부홍(지네발)식이 많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재래의 방법과 달리 대나무를 쪼개어 엮은 발을 이용하는 양식법으로 기존 나뭇가지를 세워서 하는 방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후 1960년대 후반 망홍의 등장으로 김양식은 큰 변화를 겪었다. 이 방법은 1970년대에 어민들에게 널리 이용되었다. 부홍식과 달리 망홍은 그물과 같은 '망지'를 사용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망지로 만든 김발을 고정시키는 지주(말목)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에 따라 일본식 망홍·이본식 망홍으로 구분하며, 최근에는 스티로폼 부표를 이용한 부류식이 이용되고 있다.

망홍으로 양식법이 전환되면서 완도 지역의 대부

분의 섬들은 김양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때 전국 김 생산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해남, 진도 지역에서도 많이 양식하고 있다. 1970년대 해태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어 경기가 좋을 때는 김을 많이 양식했던 완도지역의 경기가 매우 활발해 "완도 개들은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다.

양식법의 변화에 따라 김채취 방법도 다르다. 채취 방법은 직접 손으로 채취하는 방법에서 반자동식, 자동식으로 발전하였다. 김 가공 과정도 수동 김발뜨기, 반자동기계, 자동기계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채취한 김(물김)을 가공공장에서 위판을 통해 구매하여 가공하고 있다. 가공공장에서는 어민들이 채취한 물김을 사서 가공하여 공장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의의 김양식은 김발짜기, 어장정리, 포자붙이기, 김발막기, 관리 및 채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기별로는 6·7월에 김발짜기, 8월에 어장정리 및 분배가 이루어진다. 8월쯤에 미리 바다에서 배양한 포자가 붙은 김발을 수온과 물때에 맞춰 9월에 양식장에 넣는다. 이후 노출 등을 조절하며 김발을 관리하고 12월 무렵에 초사리(첫수확)를 한다. 추운 곳에서는 4월까지, 따뜻한 남쪽 해역은 좀 일찍 채취를 마감한다.

1980년대까지 김양식은 마을에서 엄격한 관리와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체적 규제가 매우 강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추석을 전후해 김이 잘 붙기를 용왕님께 기원하는 갯제를 지냈으며, 어촌마을의 정월 대보름 당제에서 갯제를 통해 김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기타 "진질이 무성한 해는 해태가 잘 된다."는 속담은 영양염류가 풍부한 곳에서 잘 자라는 진질이의 성장상황을 통해서 김양식의 성패를 점치는 말이다. "해태 발 배면 김 흉작 든다."는 속담은 김양식은 김발의 간격이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수 유통이 잘되어 작황이 좋고, 밀식을 하면 갯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김발에 파래 일면 김 농사는 하나마나."는 김발에 파래가 발생하면 김 엽체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김의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든다는 말이다. "김발 채묘는 대조시에 서둘러라."는 김 포자가 해수 유동과 염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 방출이 촉진되기 때문에 대조시(大潮時), 즉 여덟 물(음력 3일과 18일)에서 열 물(음력 5일과 10일)까지의 새벽이 채묘의 최적기라는 말이다. "김 터졌는데 김 잘 되랴."는 온도의 변화가 심하면 해수면에 김(안개)이 낀다는 말, 곧 김은 적정한 온도가 지속되어야 잘 성장하는데, 온도의 변화가 심하면 김이 생리적으로 약해지고 병원균이 왕성하게 활동해 갯병의 피해가 심해진다는 말이다. "해풍대가 많으면 김 흉년 든다."는 속담이 있다. 해풍대는 해파리의 사투리로 수온이 올라가면 번식하는데, 김은 이상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김 한 장에 달걀이 하나."라는 속담은 김 하나에 달걀 하나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말이다. "김 갯 겨울 가뭄에 딸 시집 보낸다."는 속담은 겨울 가뭄이 들면 영양염류나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부족하여 김작황이 좋지 않다는 말이다. 한 해의 김농사가 잘되어야 혼기를 앞둔 딸을 시집 보낼 것인데, 김작황도 나빴을 때의 걱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김 갯은 김이 생산되는 어촌을 줄여 한 말이다. "옷 말리는 건장"이라는 것을 보면 건장은 김 건조장을 말하는데 김 작황이 좋지

1 김채취(지네발식양식)
전남 장흥군 김상수

2 김채취(부류식양식)
전남 장흥군 김상수

3 김채취(지주식양식)
전남 신안군 압해도 김상수





않아 세탁물 건조장으로 쓴다는 말이다. "해태 고장 딸 시집보내는 심정"은 김양식과 김채취는 겨울철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힘들어 시집 간 딸자식이 편히 살아 주기를 비는 부모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참고문헌 | 經世遺表, 萬機要覽, 韓國水產誌1(農商工部水產局 編著, 民俗苑, 1908), 海苔養殖論(金善昺, 全羅南道 水產課, 1953), 韓國水產業史(朴久秉 著, 太和出版社, 1966), 漁村俗談集(全羅南道, 1980), 갯벌을 가다(김준, 한얼미디어, 2004), 朝鮮の水產業(朝鮮總督府殖產局, 1935), 海苔の歷史(宮下 章, 全國海苔問屋協同組合聯合會, 1937), 朝鮮水產業開發史(吉田敬市 著, 朝水會, 1954).
필자 | 김준(金準)

동태바리(凍太—)

☞ 명태잡이(明太—)

맘채취

☞ 모자반채취

매역새뜯기

☞ 미역채취

명태잡이(明太—)

명칭 및 종류 명태는 대구과에 속하는 바다물고기이다. '북어(北魚)'라고도 한다. 명태는 지역, 크기, 내유(來由) 시기, 어획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명태는 주로 총칭으로 사용되며, 말린 명태를 북어라고 한다. 북어(北魚)는 북방에서 온 고기 또는 북방에서 많이 잡는 고기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동태(凍太, 동해안 지방, 요즘은 냉동명태를 말하고 얼리지 않은 것은 생태라고 함)·선태(鮮太, 동해안 지방, 명태 상인들이 신선한 명태를 지칭)·망태(網太, 함경남도, 자망이나 수조망으로 잡은 명태)·조태(釣太, 함경남도, 연승이나 주낙 등의 낚시로 잡은 명태)·왜태(함경남도, 아주 큰 명태)·애태(애기태, 함경남도, 작은 명태)·막물태(함경남도, 마지막 어획 시기에 잡은 작은 명태)·강태(江太, 동해안 지방, 11월경 강원도 연해에서 잡아 동건 즉 얼려서 말린 것으로 질이 나쁜 마른명태)·간태(杆太, 11월경 강원도 간성 연해에서 잡아 동건



명태잡이(유자망 · 뜬그물)
강원도 고성군 김상수

한 마른명태)·은어(銀魚)바지(함경도, 은어 혹은 도루묵 떼를 쫓아 내유하는 명태)·섣달바지(함경남도, 음력 12월 초순부터 떼를 지어 오는 명태)·더덕북어(北魚, 서울, 1월 중 신포에서 잡아 동건한 어육(魚肉)이 노랗고 부풀부풀한 가장 좋은 마른명태) 등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름이 나타나며 함남 연안 지방에서는 월별로 잡히는 명태를 일태(一太)·이태(二太)·삼태(三太)·사태(四太)·오태(五太)라고 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질이 좋은 동건 명태를 황태, 명태새끼를 노가리라고 한다. 명태는 잡는 계절에 따라서 명태잡이의 행위를 부르는 이름도 다르다. 겨울에는 동태바리, 봄에는 춘태바리라고 한다. '바리'는 원래 짐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나 어촌에서는 '잡이'란 말 대신에 쓰인다.

낚시도구 전통적인 명태잡이 도구는 자망과 연승이다. 자망은 물고기의 진행방향을 막아 치는 그물로 물고기들이 그물코에 꽂힌다. 그물코가 크면 작은 물고기들은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 연승, 즉 주낙은 길게 이어진 낚시이다. 기다란 줄에 낚시 바늘이 여러 개 달려 있다. 연승은 그물로 잡은 물고기보다 선도가 높아 적게 잡아도 마리당 단가가 높은 장점이 있다. 특히 생선으로 취급되는 명태, 즉 생태는 주낙으로 잡은 것이 그물로 잡은 것보다 더 비싸게 소비되어 일반음식점에서도 생태탕은 동태탕보다 비싸다. 그러나 주낙은 미끼를 따로 장만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보존방법 명태는 주로 건제품으로 만들어 소비되었다. 명태의 알과 내장은 젓갈로 제조하여 명란, 창란, 아가미 젓갈까지 버릴 것 없이 다 이용되며, 몸체는 덕장에서 건조하여 황태로 만들어 출하하였다. 대량으로 잡은 명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말려 둔

다. 추운 겨울 바다에서 잡은 명태는 '동결건조'라 하여 찬 겨울바람 속에서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건조된다. 이렇게 말린 명태는 저장성이 강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

제조법 조선시대 수산제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태 동건품 제조업이었다. 그리고 명태의 동건법(冬乾法, 동결건조법)은 고래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조법이다. 또 명태의 동건은 대개 어업자 자신이 행하지 않고 전문적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데 특징이 있다. 어업과 제조업이 명태어업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명태어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어업자는 건조시설을 갖출 자금이 없었던 것이 제조업을 독립시킨 주원인이었을 것이다. 어업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덕주(德主) 또는 덕업자(德業者)라고 하였다.

제조법은 부녀자들에 의하여 내장 및 어란(魚卵)이 제거된 것을 20미씩 결속하고 건조작업에 종사하는 인부, 즉 덕괘군(德掛軍)이 이를 건조가(乾燥架, 德)에 걸어 동건시킨다. 건조 수수료는 1태당 500문 정도였으나, 제조위탁품에 손실이 생길 때는 덕주가 이를 변상해야 하므로 위탁자는 이를 참작하여 1태당 600미 씩을 가산하여 위탁하는 관행이 있다.

참고문헌 |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권삼문, 民俗苑, 2001), 한국의 해양문화4 -동해해역-(해양수산부, 2002).

필자 | 권삼문(權三文)

모자반채취

명칭 및 내용 모자반과의 식용(食用) 해조류(海藻類)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제각각이다. 한반도의 남해안에서는 '참물', 제주도에서는 '몸', '먹는 물'이라고 이른다. 학명(學名)은 Sargassum enerve이다. 식용하는 모자반과의 해조류 이름이다. 식용모자반이라 통칭해서 말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이나 점심대(漸深帶) 돌 위에 뿌리를 내려 자라는 해조류로 해녀들이 잠수하여 따낸다.

지역에 따라 자유롭게 채취하는 수도 있고, 일정기간 금(禁)하였다가 해금(解禁)하여 따내는 수도 있다. 어느 지역이나 채취 시기는 음력 정월과 2월 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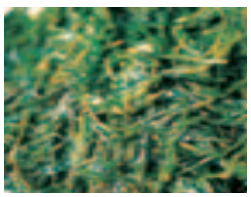
요리법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그 요리법(料理法)이 매우 다르다. 남해안에 딸린 추자도(楸子島)의 경우, 식용모자반을 물에 담가 손빨래하듯 빤다. 거품이 일며 궂은 물이 나온다. 이런 물을 '흙물'이라 이른다. 식용모자반을 칼로 썬다. 개상어를 이 섬에서는 '두태미'라 하는데 두태미기름과 식용모자반을 솥에서 볶는다. 소금과 물을 적당하게 넣어 국을 끓여 먹는다. 이런 국을 '참물국'이라고 이른다.

제주도의 경우 말린 식용모자반을 식용으로 마련하는 일은 남해안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절대 돼지기름을 고집한다. 이렇게 만든 국이 없으면 잔치를 벌이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국을 '몸국'이라고 하는데, 두태미기름이나 돼지의 지방질은 섬유질이 왕성한 식용모자반에 스며들어 그것을 보드랍게 만들면서 맛을 더한다. 추자도는 상어기름, 그리고 제주도는 돼지기름으로 '참물국'과 '몸국'을 만들었다. 제주도는 상어가 안 잡히는 섬은 아니었으나 돼지고기로 '몸국'을 만들었다.

필자 | 고광민(高光敏)



모자반채취
제주도 김상수



참모자반

문어잡이(文魚—)

명칭 및 어업방식 문어는 낙지과의 연체동물로 다리가 여덟 개여서 팔초어(八稍魚) 또는 팔대어(八帶魚)라 한다. 문어잡이는 통발어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위틈과 같은 구멍을 좋아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어법방식이다. 긴 줄에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물 속에 두었다가 문어가 그 단지에 들어가면 단지를 끌어 올려서 잡는다.

『전어지(佃漁志)』에 따르면 "문어를 잡는 데는 노



문어잡이
강원도 고성군 동해북방어장 김상수

끈으로 단지를 옭아매어 물 속에 던지면 얼마 뒤에 문어가 스스로 단지 속으로 들어가는데 단지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한 개에 한 마리가 들어간다."고 쓰여 있다.

지역사례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에서는 문어잡이 단지를 '초어(문어)단지'라고 하는데, 입구의 너비가 10센티미터, 길이가 26센티미터인 원통형의 함정어구이다. 주로 옹기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바뀌었다. 미리 쳐놓은 단지를 끌어올리고 빈 단지를 다시 투입한다. 어구는 모릿줄 7미터마다 아릿줄을 20~30센티미터 연결하고 거기에 단지를 매단 형태다. 한겨울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씨알이 좋다. 고등어나 전갱이를 미끼로 한 지가리(연승, 주낙)도 하지만 주된 방식은 아니다.

참고문헌 | 고기잡이 여행(정기태, 바보새, 2004).
필자 | 권삼문(權三文)

미역채취

정의 조간대의 바위에 부착한 자연산 미역이나 양식어장의 미역을 맨손이나 낫(대)을 이용하여 채취하는 행위.

어원 미역은 제주도에서 동해안 끝, 황해도 이남의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분포하며, 한류와 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역에서는 서식하지 않는다. 남해안과 제주해역은 줄기가 짧은 남방형이, 동해안은 줄기가 길고 엽수가 많은 북방형이 서식한다. 『자산어보(玆山魚譜)』에 미역은 그 길이가 열 자 정도로서 옥수수 잎과 비슷하며, 1·2월에 뿌리가 나고 6·7월에 따서 말리며, 뿌리의 맛은 달고 잎의 맛은 담담하고, 임산부의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데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의하면 미역은 해대(海帶)가 해조(海藻)를 닮았으나 거칠고 부드러우며 질기며 길고, 성장을 재촉하고 부인병을 고친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왕자가 탄생하면 반드시 염분(鹽盆, 소금을 만드는 가마)과 어량(魚梁, 고기 잡는 시설)을 하사하였고, 때로는 곽전(藿田, 미역밭)을 하사한 것으로 전한다.

유래와 역사 미역채취는 근대적인 양식어업이 발달하기 전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관행어업으로 갯벌과 바위면 조간대의 공동어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채취작업을 주비·단·돔·갱번 등으로 부르는데 곧 작업조직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마을 공동재산인 공동어장을 마을 주민들이 균등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어장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마을 주민들을 몇 개의 돔·단·주비로 나누어 배치한다. 마을회의를 통해 채취하기에 적합한 날짜가 잡히면 호(戶)당 정해진 수의 사람이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하며, 그 생산물은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거나 공동분배한다. 특히 매년 작업구역의 순환을 통해서 생태환경에 따른 불균등한 생산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조직에 참여 혹은 미역채취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마을에 거주해야 하고, 솥을 걸어야 하며(독립), 마을총회에서 신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후 정해진 입호금을 납부하면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호(戶)를 든다."고 하며 "미역 호(戶)에 든다." 하여 입호제도(入戶制度)라고 하고, 지역에 따라 "짓을 갖는다."고 하기도 한다. 입호금은 외지인과 마을 주민, 장남과 차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미역채취의 관행은 자연산 미역이 생산되는 제주도·흑산도·완도 생일도·진도 조도·울진 지역에 남아 있다.

미역은 자연산 미역과 양식 미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식 미역은 자연산에 비해서 일찍 수확한다. 미역바위싸움은 미역채취를 둘러싸고 미역채취 구간, 지선어장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말한다. 토지와 달리 어장분할의 어려움과 수면·수중·수하의 양식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어촌계간, 어촌계와 입어관행자간, 어촌계원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미역바위 싸움은 1970년대 중

1 미역채취(양식)
전남 완도군 금일도 김상수

2 미역채취(자연산)
강원도 삼척시 김상수


1


2

반까지 어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양식이 등장하고 나서도 지선어장의 경계를 놓고 비슷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미역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연산 미역채취는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양식 미역채취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장의 분배만큼은 어촌계원들에게 비교적 균등하게 나누어졌다.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기술의 발전으로 양식가능 면적이 증가하면서 자본과 노동 능력에 따라 양식을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내용 및 지역사례 진도의 미역을 진도곽(珍島藿)이라고도 하는데 조도의 독거도와 슬도에서 주로 채취한다. 진상품으로 알려진 진도미역은 시집간 딸에게 친정어머니가 준비해 주는 혼수품이라 할 만큼 유명하며, 지금도 산모에게 제일 좋은 선물로 꼽히고 있다. 조도 인근에서 나는 천연산 미역을 채취하여 손으로 붙여 말려서 만든 재래식, 즉 흔히 말하는 돌미역이다. 한편 울릉도에서도 바다 및 바위에서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는데, 4 · 5월 사이 해녀들이 직접 채취하여 바닷바람에 자연 건조시킨다. 최근 미역양식으로 대표적인 곳은 기장과 완도 지역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장미역은 수온과 조류 등이 미역양식의 최적지로 다른 미역에 비해서 높은 가격에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의의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는 어촌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무렵에 미역바위를 씻는 행위를 한다. 이를 돌씻기 · 짬매기 · 미역바위닦기라고 한다. 미역바위닦기는 바위에 붙은 잡초와 오물을 제거함으로써 미역포자가 잘 붙게 해 많은 미역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바위에 착상한 포자는 100여 일 뒤면 채취하는데 지역에 따라 채취시기를 전후해서 돌미역 밭에서 고사(짬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양식미역은 4 · 5월에 미역귀를 준비하고 채묘틀을 마련하는 등 채묘준비를 하고, 5 · 6월에는 채묘작업을 하며, 이후 9 · 10월에는 가이식을 한다. 이식하는 방법은 어미줄에 포자를 붙인 씨줄을 감거나, 씨줄을 잘라서 어미줄에 끼운다. 이후 겨울철에 수확을 시작하는 잎을 자르기 수확, 솎음 수확, 일제 수확 등으로 구분한다.

참고문헌 | 韓國水產誌3(農商工部水產局 編著, 民俗苑, 1910), 韓國水產業史(朴久秉 著, 太和出版社, 1966), 玆山魚譜(정약전 지음 · 정문기 옮김, 知識產業社, 1977), 韓國漁業經濟史硏究-漁業共同體論-(朴光淳 著, 裕豊出版社, 1981), 한국의 해녀(김영돈, 민속원, 1999),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권삼문, 民俗苑, 2001), 갯벌을 가다(김준, 한얼미디어, 2004), 어촌지역 작업조직의 운영과 변화(김준, 農村社會14, 韓國農村社會學會, 2004), 朝鮮水產業開發史(吉田敬市 著, 朝水會, 1954).

필자 | 김준(金準)

볼락잡이

명칭 볼락은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에 보라어[甫停魚]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보라어'는 모양이 호서에서 나는 참조기[黃石首魚]와 유사하나 극히 작고 빛깔은 옅은 자주빛이라고 하였다. 본토박이는 이를 보락[甫犢]이라 부르고 혹은 볼락어[婁旗魚]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방언으로 옅은 자줏빛을 보라(甫羅)라 한다. 또 보라는 아름다운 비단을 말하는데, 보라라는 이름은 이에서 비롯됨이 틀림없다고 하여 그 이름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진해의 어부는 때때로 그물로 잡으나 많이 잡지는 않으며, 매년 거제도 사람이 볼락을 잡아 젓갈로 담근 것을 수백 단지나 배에 싣고 와서 팔고 생

삼[生麻]과 바꾸어 간다."고 하였다.

내용 제주도의 경우, 여름 전후에 난태생한 볼락은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 어로 대상이 될 만큼 자란다. 모래밭이 낀 갯가 암초지대에 깃들어 있기를 좋아한다. 몸체는 자그마하지만 한겨울에는 별다른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그 동안에 제수용으로 긴요하게 쓰이는 물고기이다. 그래서인지 제주도 여러 마을에는 '볼락여'라는 바다밭 이름이 제법 많다. 연근해에서 잡히는 볼락은 검은 복락 · 황볼락 · 점배기볼락 세 가지가 있다.

사계마을 앞에도 볼락통여가 있다. 썰물에 갯가에서 낚는 수도 없지 않으나 대개는 배를 타고 나가서 낚는다. 볼락은 물 중간에 떠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물고기라서 낚싯대에 봉돌 없이 줄만 묶어 낚시바늘을 달아매고, 새우를 뿡개(밑밥)로 주거나 미끼로 해서 낚는다. 한나절보다 이른 새벽에 잘 잡힌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권삼문(權三文)

뽈락잡이

☞ 볼락잡이

상어잡이

명칭 및 어로방법 상어는 한자로 노어(露魚) · 사어(沙魚) · 교어(鮫魚) 등으로 쓰였다. 옛 기록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의 물이 깊은 곳에서 어민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던져서 상어를 잡는다. 낚싯줄 길이는 140~150발이 된다. 줄 끝에는 2개의 낚시를 매달고 낚시 위 2자쯤 되는 곳에 크기가 박과 같은 둥근 돌을 얽어맨다. 고등어 또는 망어(芒魚)를 미끼로 한다."고 하였다.



상어잡이
제주도 서귀포시 김상수

지역사례 오늘날 제주도의 경우에는 '빅게잡이'를 한다. '빅게'는 수염상어의 제주어이다. 이를 잡는 그물을 빅게그물이라고 한다. 주대상어는 빅게지만 도롱이라는 상어도 같이 잡힌다. 마라도의 경우에는 음력 정월 대보름부터 5월 장마가 끝날 때까지지만 사계리의 경우에는 5월 동안에만 어장이 형성된다. 마라도에서는 정월에 도롱이만 잡히다가 2~3월 무렵부터는 빅게도 잡힌다.

마라도 연안에서 빅게그물어장은 섬 북쪽의 성창곰과 섬 서쪽의 홍합여 바깥 두 군데이다. 어장에 따라 어기(漁期)가 조금씩 다르다. '성창곰'은 섬 북단 작지끗에서부터 이름 모를 수심 12미터의 수중 암초 사이, 수심 26미터의 바다이다. 정월에 도롱이가 이 어장으로부터 찾아든다. 정월 이후에도 틈틈이 투망한다. 홍합여는 수심 47미터이다. 홍합여에서부터 바깥쪽 동서로 그물을 친다. 음력 2월부터 빅게가 몰려들기 시작하여 장마철까지 좋은 어장이 이루어진다. 물살도 드세지 않아 그물을 잃어버릴 염려도 적다. 일반적인 그물의 구조와 다름이 없다. 길이가 15~20발, 폭 1발 정도이다. 하나의 그물을 한 '떼'라고 하는데, 보통 일곱 떼를 이어 붙인다. 이어 붙이기를 두고 '연폭'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권삼문(權三文)

올림이건지기

☞ 풍조채취(風藻採取)

진저리채취

명칭 및 내용 진저리는 고사리과에 속하는 해초로 그 모양은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하며 특이한 맛은 없으나 입에 넣고 씹으면 부드럽다. 진저리는 동해안에서도 영덕군 창포리를 중심으로 한 포항과 울진 사이의 지역에서만 채취된다. 진저리를 채취하는 시기는 양력 1월부터 3월까지이다. 길이는 보통 3미터 내외이며 10여 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으나 식



볼락 김상수

품으로는 이용되지 않는다. 식용으로는 1미터 내지 1.5미터 내외의 것이 가장 좋다.

수심 4미터 정도의 깊이에 있는 바위에서 자란다. 이를 채취할 때는 0.5~1톤 내외의 거룻배를 타고 나가서 채경(수경)으로 물밑을 들여다보고 다니면서 설낫(낫대)으로 끊어서 걷어올린다. 채경은 수경인데, 바닥(좌우변의 길이 약 30센티미터)에 유리를 부착시킨 길이 60~70센티미터 내외의 통으로 되어 있다. 상부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좁아져서 변이 15센티미터 정도 된다. 채경으로는 수심 10미터까지 투시할 수 있다. 설낫은 낫에 긴 장대를 덧이어 댄 것으로 길이는 5미터 내외이다.

진저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 무치듯 무쳐서 먹으며, 고추장이나 된장에 묻어 두었다가 장아찌같이 만들어 먹기도 한다. 또 말려 두었다가 다시 불려서 데쳐 먹는 일도 있다. 이것은 설사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름에도 채취를 하나 이때의 것은 먹지 않고 사료나 비료로 사용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필자 | 권삼문(權三文)

파래채취

정의 우리나라의 전 조간대의 바위와 갯벌에서 자라는 파래를 뜯거나 갯벌을 헤집어 채취하는 행위. 파래의 일종인 감태의 경우는 그 채취행위를 '맨다', 매생이는 '훑는다' 고 한다.

어원 갈파래과에 딸린 바닷말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구멍갈파래 · 모란갈파래 · 초록갈파래 · 갈파래 · 가시파래 · 납작파래 · 창자파래 · 격자파래 · 잎파래 · 매생이 등이 있다. 맛이 없어 사료용으로 이용하는 갈파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식용으로 이용한다. 특히, 감태로 알려진 가시파래와 매생이는 남도의 독특한 맛과 향으로 잘 알려진 파래들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파래라고 하는 것은 '가시파래'를 말한다.





파래채취
전남 고흥군 심환근

감태를 채취하는 것을 '감태를 맨다.' 고 하는데, 이는 호미로 밭을 매듯이 갯벌을 맨손으로 헤집으며 채취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리고 매생이를 훑는다는 것은 매생이가 바위나 양식줄 등에 붙어서 서식하기 때문에 훑어서 채취해야 하는 특성상 생겨난 말이다.

내용 및 지역사례 파래는 민물이 흘러 들어오는 바다의 조용한 웅덩이의 바위에 붙어살며, 단백질, 무기염류, 비타민 등이 들어 있고, 향기와 맛이 독특하여 나물로 먹는다. 매생이는 김발이나 조간대의 바위에 붙어서 자라며, 감태는 서남해 해역의 갯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파래는 종류에 따라 생육시기가 다른데 보통 늦가을에서 초여름까지 자라며, 특히 감태와 매생이는 12월부터 2월까지 채취한다. 이 시기를 넘어서면 파래가 억세어지고 색이 변해 맛이 없다.

감태와 매생이 등 파래는 김발에 붙어서 서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양식 어민들에게는 잡태대우를 받으며, 유기산 약품을 이용해 제거하는 해적식물이다. 반대로 김양식이 활발하지 않은 완도, 신안, 무안, 함평 등 지역의 어민들에게 감태와 매생이는 겨울 효자로 불릴 만큼 어민들의 짭짤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이 김과 미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 품종이 과잉생산, 품질저하, 소비감소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남해해양연구소에서 가시파래 양식에 성공하여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래들은 갯벌에서 자연산을 채취한다.

의의 파래의 채취시 맨손을 이용하지만 작업형태는 마을에 따라 공동작업과 개별작업으로 나누어진다. 공동작업은 공동채취 · 공동판매를 하는 경우로 완도의 고금도가 이러한 사례에 속하며, 개별작업은 마을어장이나 인근 갯벌에서 채취하여 개별적으로 시장이나 공장으로 유통한다.

파래채취는 채취 후 세척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정도로 일손이 많고 번거롭다. 따라서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채취하는 어촌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일손이 있으면 다른 마을의 공동어장에서 작업을 하기도 한다. 공동채취를 하는 경우에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공업자)들의 요구 물량을 미리 받아 물때에 맞추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채취한다.

파래와 관련해서 남도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감태김치'와 '매생이국'을 들 수 있다. 김장김치를 담듯 감태를 이용해 김치를 담기도 한다. 12월에 채취한 감태를 갯물로 씻고, 소금과 참깨, 고추와 파 등을 넣고 버무려 독에 넣어두면 적절하게 발효가 되어 감태김치가 된다. 매생이국은 굴에 소금을 넣고 끓여 마늘과 참기름을 띄워 만든다. 소화가 잘되고 변비에 좋은 매생이국은 숙취해소에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술국으로 부르기도 한다.

관련 속담 "김발에 파래 일면 김 농사는 하나마나."는 김발에 파래가 발생하면 김엽체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김의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든다는 말이다. "딸에게 못살게 구는 사위에게 장모가 끓여주는 매생이국"이라는 속담은 매생이국은 뜨거워도 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미운 사위에게 장모가 매생이국을 대접해 입천장을 데게 해서 혼을 내주었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 우리바다41(수협중앙회 홍보실, 2003).
필자 | 김준(金準)

풍조채취(風藻採取)

명칭 및 내용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밀려 온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는 일이 제법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제주도 남부 지역에서는 '올림이',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는 '번난지'라고 이른다. 이는 바람과 직접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풍조(風藻)'라 하기도 한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풍태가 떼밀려드는 곳이 달랐다. 미역과 우뭇가사리는 채취가 허락되면 자맥질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베어 냈다. 그 동안 자기도 모르게 빠뜨리는 것들이 더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파도를 타고 밀려들기 쉽다. 제주도에서 풍조는 주로 음력 정월에서부터 3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동해안에서는 '갈퀴' 또는 '던지기'라는 어구로 미역을 건져 올린다. 갈퀴는 기다란 대나무에 여러 발이 달린 소나무가지를 묶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던지기는 파도에 밀려드는 미역을 멀리 내던지고 걸어 당기는 갈퀴다. 이렇게 조수간만(潮水干滿)의 차가 50센티미터로 보잘 것 없는 동해안에서는 일정한 어구로 풍조를 건져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풍조채취
경북 울진군 김상수

조수간만의 차가 2.8미터일 뿐만 아니라 엉기성기 칼날 같은 바위로 이루어진 제주도에서는 밀물을 타고 온 풍조가 바위에 잘 걸려 있었다. 썰물에는 풍조더미 속에서 미역이나 우뭇가사리를 골라 쉽게 주워 내었다. 공동 채취·판매하여 마을 공동자금을 마련하거나 아낙네들이 골고루 나눠 갖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漁具(고광민,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필자 | 고광민(高光敏)

해삼잡이(海蔘—)

명칭 해삼은 해삼과의 극피동물(棘皮動物)이다. 몸은 부드럽고 길이 20~30센티미터, 직경 6~8센티미터의 통형(筒形)이다. 해삼의 종류에는 갈색 기운의 해삼과 암녹색이거나 검은빛이 감도는 해삼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앞의 해삼을 '홍삼', 그리고 뒤의 해삼을 '뻘해삼'이라고 한다. 제주도에는 홍삼이, 그리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뻘해삼이 분포한다.

내용 제주도에서는 해삼을 두고 달리 '미'라고 한다. 해삼은 여름이 가까워지면 암초 밑에 숨어들어 여름



풍조채취 도구(갈퀴) 김상수



1 해삼잡이
전북 고군산 군도 김상수



2 해초제거 작업
제주도 성산포 김상수

잠을 자다가, 겨울이 다가와 수온(水溫)이 떨어져 추울 때라야만 움직이는 동물이다. 제주도 속담에 "4월에 잡은 미는 사돈집에 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다. 해삼의 생태를 정확히 가늠하는 속담이다. 음력 4월이 되면 해삼은 깊은 바다로 숨어들어 긴 잠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무척 희귀해져 혹 잡게 되면 사돈댁에나 들고 갈 만한 귀한 물건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다. 겨울 동안이라도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이다. 제주도에서는 가끔 해변에서 잡는 수도 더러 있으나 해녀들이 물속으로 잠수(潛水)하여 들어가 맨손으로 잡아낸다.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전복을 걸러내는 '전복곡괭이', 그리고 남해안에서는 '걸이'라는 어구로 수면(水面) 위에서 해삼을 걸러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 漁具(고광민,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필자 | 고광민(高光敏)

해초제거작업(海草除去作業)

내용 한반도의 동해안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미역밭을 소중하게 다루었다. 미역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돋보인다. 동해안에서 이런 일은 음력 10월 안팎에 이루어졌다. 경북 영덕에서는 이런 일을 두고 '짬 맨다' 또는 '기세작업'이라고 이른다. 기세는 한자어 기세(磯洗)에서 비롯됐다. 그 일이 잘 이루어져야 그만큼 미역이 많이 자란다. 짬은 미역밭이라는 말이다. 마을에서 짬을 나누고, 짬마다 가호가 결정된다. 짬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미역밭을 정성들여 관리한다. 조간대(潮間帶)의 미역밭 제초작업은 '씰게호미'라는 어구로, 물 속 미역밭의 그것은 '씰게'라는 어구로 이루어낸다.

청등도(靑藤島)를 비롯한 전남 진도의 부속도서에서는 음력 섣달 보름에서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에 미역밭 해초 제거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지역의 미역밭은 마을 공동 또는 개인 소유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그들의 미역밭을 보다 알뜰하게 가꾸었다. 미역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일을 두고 '개딱기'라고 이른다. 이 곳에서는 제초구(除草具)를 두고 '썩가래'라고 이른다.

필자 | 고광민(高光敏)

도화주빚기(桃花酒一)

정의 '도화주(桃花酒)'란 덧술 때 부재료로서 복숭아꽃을 넣어 빚은 술인데 정월에 밑술을 만들고 복숭아꽃이 필 때 덧술하는 일.

유래 도화주가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수운잡방(需雲雜方)』으로서 『규합총서(閨閤叢書)』, 『주찬(酒饌)』, 『산림경제촬요(山林經濟撮要)』, 『부인필지(婦人必知)』,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등에 그 제조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수운잡방』은 음식의 가공 조리가 지극히 강고한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이미 빚어 마시며 풍류를 즐겼다고 판단된다.

제조방법 도화주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월에 멥쌀을 여러 번 깨끗이 씻어서 가루로 만든다.

② ①에 생수를 끓여 부어 골고루 섞는다. 차게 식으면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1 대 1 분량으로 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아 밑술을 만든다.

③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을 때 멥쌀과 찹쌀을 각각 여러 번 깨끗이 씻어서 하루 밤 물에 불렸다가 합하여 익도록 찐다.

④ 생수를 끓여서 차게 식혀 놓는다.
⑤ 복숭아꽃을 항아리 밑에 깐 다음, ②의 밑술에 ③의 찐밥과 ④의 생수를 합하여 넣는다. 복숭아나무 두세 가지를 독 안에 꽂아 둔다. 14일 이후에 마실 수 있다.

『수운잡방』에서는 이 술이 명주(銘酒)로 알려진 것이 6월 유두일(流頭日)에 만든 누룩으로 빚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수운잡방』의 도화주는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뭇가지로 휘젓는 것 이외에는 복숭아꽃을 포함하는 복숭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부재료로서 들어가지 않는다. 두고두고 여름철에도 마셨던 이 술은 계속 덧술을 본술에 덮어서 발효시킴으로써 독한 술을 만든다.

그러나 『수운잡방』에서 보여 주었던 이러한 방법은 1800년대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덧술 만들 때 복숭아꽃을 항아리 밑에 깔고 있다. 아마도 복숭아꽃이 갖는 성평(性平)·무독(無毒), 대소변을 내리고, 돌[石]을 없애며, 임질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색을 좋게 하는 약선적(藥膳的) 기능 때문에 밑술할 때 복숭아꽃을 넣어 약주화(藥酒化)하였다고 판단된다. 음력 3월 3일에 복숭아꽃을 따서 음건(陰乾)하여 사용하나 『주찬』과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서는 생복숭아꽃이 재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 閨閣叢書, 東醫寶鑑, 婦人必知, 山林經濟撮要, 需雲雜方, 酒饌,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필자 | 김상보(金尙寶)



도화주
한국전통주연구소

〈표1〉『수운잡방』의 도화주

일 시	재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	비 고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정월 진일	찹쌀	3되	가루	—	—	—	누룩가루	2되	차게 식힘	밑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휘젓는다
	멥쌀	6되	가루				밀가루	2되			
2월 새싹이 틀 때	멥쌀	5말	—	물	5말	찐밥	—	—	차게 식힘	덧술	—
술이 익은 후	멥쌀	4말	—	물	4말	찐밥	—	—	차게 식힘	덧술	—
술이 익은 후	멥쌀	3말	—	물	3말	찐밥	—	—	차게 식힘	덧술	—

〈표2〉『주찬』의 도화주

일 시	재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	비 고	숙성 기간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부재료	누룩상태	누룩의 양				
정월 첫 해일	멥쌀	1말2되5홉	가루	끓인물	2말5되	—		누룩가루	1되	차게 식힘	밑술	—	—
	찹쌀	1말2되5홉						밀가루	1되				
복숭아 꽃이 필 때	멥쌀	3말	—	끓인물	6말	찐밥	복숭아 꽃 3냥	—	—	차게 식힘	덧술	—	14일
	찹쌀	3말											
정월	멥쌀	2말5되	가루	끓인물	2말5되	—		누룩가루	1되			—	—
								밀가루	1되				
복숭아 꽃이 필 때	멥쌀	3말	—	끓인물	6말	찐밥	복숭아꽃 3냥	—	—	차게 식힘	덧술	복숭아 나뭇가지를 독 안에 꽂아둔다	14일
	찹쌀	3말											

〈표3〉『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의 도화주

일 시	재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	비 고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부재료	누룩상태	누룩의 양			
정월	멥쌀	2말5되	가루	끓인물	2말5되	—	—	누룩가루	1되	차게 식힘	밑술	—
								밀가루	1되			
복숭아 꽃이 필 때	멥쌀	3말	—	끓인물	6말	찐밥	복숭아꽃 2되	—	—	차게 식힘	덧술	복숭아 나뭇가지를 독 안에 꽂아둔다
	찹쌀	3말										

삼해주빚기(三亥酒—)

정의 정월 첫 해일[上亥日]에 밑술을 담고 둘째 해일, 셋째 해일에 각각 덧술을 담아 세 번의 해일에 술을 담그는 일. 세 번의 해일에 걸쳐 담기 때문에 '삼해주(三亥酒)'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시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기원 삼해주의 『수운잡방(需雲雜方)』이란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다. 『음식지미방(飮食知味方)』, 『주찬(酒饌)』, 『산림경제촬요(山林經濟撮要)』, 『역주방문(曆酒方文)』, 『시의전서(是議全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등에 그 제조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수운잡방』에 기록되어 있는 삼해주는 음식의 가공 조리가 지극히 강고한 보수

〈표1〉 『수운잡방』의 삼해주

일 시	재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	숙성기간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정월 첫 해일	멥쌀	1말	가루	끓인물	1말	죽	누룩가루 밀가루	5되 5되	차게 식힘	밑술	12일
둘째 해일	멥쌀	9말	가루	끓인물	10말	떡죽	누룩가루	1말	차게 식힘	덧술	12일
셋째 해일	멥쌀	10말	가루	끓인물	10말	떡죽	—	—	차게 식힘	덧술	—

〈표2〉 『음식지미방』의 삼해주

일 시	재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	숙성기간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정월 첫 해일	멥쌀	2말	가루	끓인물	3말	죽	누룩가루 밀가루	3되 1 ½ 되	차게 식힘	밑술	12일
둘째 해일	멥쌀	3말	가루	끓인물	4 ½ 말	죽	—	—	차게 식힘	덧술	12일
셋째 해일	멥쌀	5말	—	—	—	찐밥	—	—	차게 식힘	덧술	—

〈표3〉 『주찬』의 삼해주

일 시	재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	숙성기간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정월 첫 해일	멥쌀	3되	가루	—	—	구멍떡	누룩가루 밀가루	3되 3되	차게 식힘	밑술	30일
2월 첫 해일	멥쌀	3말	가루	—	9병	진 흰 무리떡	—	—	차게 식힘	덧술	30일
3월 첫 해일	멥쌀	6말	—	물	18병	찐밥	—	—	차게 식힘	덧술	40일

〈표4〉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의 삼해주

일 시	재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	숙성기간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정월 첫 해일	찹쌀	1말	가루	—	—	묽은죽	누룩가루 밀가루	1되 1되	차게 식힘	밑술	12일
둘째 해일	찹쌀 멥쌀	1말 1말	가루	—	—	구멍떡	—	—	차게 식힘	덧술	12일
셋째 해일	멥쌀	5되	—	물	3동이	찐밥	—	—	차게 식힘	덧술	3일
정월 상해일	멥쌀	1말	가루	물	3병	흰 무리떡	누룩가루	5홉	—	밑술	12일
둘째 해일	멥쌀	7말	가루	물	21병	진 흰 무리떡	—	—	—	덧술	12일
셋째 해일	멥쌀	2말	—	—	—	찐밥	—	—	—	덧술	찹쌀밥이 뜰 때까지

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이미 빚어 마시며 풍류를 즐겼다고 판단된다.

제조방법 삼해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월 첫 해일에 멥쌀을 여러 번 씻어서 가루로 만든다.

② ①에 끓는 물을 넣고 개어 묽은 죽을 쑤어서 차게 식힌다.

③ ②에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1 대 1 분량으로 넣어 고루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 밑술을 만든다.

④ 둘째 해일에 멥쌀을 여러 번 씻은 후 가루로 만든다. 여기에 끓는 물을 넣고 잘 개어 묽은 죽을 쑤어서 차게 식힌다. 혹은 멥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여 구멍떡을 만들어 쪄낸 다음 차게 식혀 덧술을 만든다.

⑤ ③의 밑술에 ④를 섞어 넣는다.

⑥ 셋째 해일에 멥쌀을 여러 번 씻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 쪄서 익힌 후 차게 식힌다. 혹은 멥쌀을 시루에 넣고 쪄내어 차게 식힌다. 여기에 물을 부어 죽을 만들거나 찐밥에는 물을 섞는다.

⑦ ⑤의 술에 ⑥을 덧술하여 익힌다. 보통 3일 정도면 익는다.

〈표1〉에서 〈표4〉까지 제시한 바와 같이 재료 분량에 대한 일정한 틀이 없이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표3〉『주찬』의 삼해주는 100일 이후에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정월 첫 해일, 2월 첫 해일, 3월 첫 해일에 밑술과 덧술을 하고 있고, 그 밖의 삼해주는 전부 정월 첫 해일에 밑술을 하여 둘째 해일, 셋째 해일에 덧술함을 제시하고 있는데『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서는 "삼해주는 버들가지가 나올 때 비로소 열어서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유서춘(柳絮春)이라고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고리에 내려 소주를 만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山林經濟撮要, 需雲雜方, 是議全書, 曆酒方文, 飮食知味方, 酒饌,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필자 | 김상보(金尙寶)

소국주밑하기(小麴酒—)

정의 정월 첫 해일[上亥日]에 누룩과 밀가루를 재료로 하여 멥쌀 죽과 함께 밑술을 만들고 밥을 쪄 덧술하는 일.

어원 '소국(小麴)'이란 미세한 누룩가루를 뜻한다. '소국주(小麴酒)'는 고운 누룩가루로 빚은 술을 의미한다. 소국주는『수운잡방(需雲雜方)』이란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다.『규합총서(閨閤叢書)』,『주찬(酒饌)』,『산림경제촬요(山林經濟撮要)』,『음식방문(飮食方文)』,『역주방문(曆酒方文)』,『이씨음식법(李氏飮食法)』,『시의전서(是議全書)』,『부인필지(婦人必知)』등에 그 제조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수운잡방』에서 소국주는 음식의 가공 조리가 지극히 강고한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이미 빚어 마시며 풍류를 즐겼다고 판단된다. 고(古) 조리서에는 소국주를 '소국주(小麴酒)' 또는 '소국주(小麯酒)'로 표기하고 있다. 술에 사용한 누룩을 국(麴) 또는 국(麯)으로 씀으로써 같은 종류이지만 표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방법 정월 첫 해일에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1 대 1로 배합하여 만드는 소국주 제조방법은 먼저 멥쌀을 여러 번 깨끗이 씻어 하룻밤 불렸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끓는 물을 넣고 개어 죽을 쑤어서 차게 식힌다. 이것을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1 대 1 분량으로 넣어 고루 섞고는 항아리에 담아 밑술을 만든다. 밑술을 담근지 7일 후면 익기 시작하는데 이 때 멥쌀을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시루에 넣어 쪄낸다. 여기에 끓인 물을 부어서 골고루 푼 다음 차게 식혀 덧술을 만든다. 미리 만든 밑술에 덧술을 넣어 익힌 것이 소국주이다.

참고문헌 | 閨閤叢書, 婦人必知, 山林經濟撮要, 需雲雜方, 是議全書, 曆酒方文, 飮食方文, 李氏飮食法, 酒饌.

필자 | 김상보(金尙寶)

〈표1〉 고(古) 조리서에 나타난 소국주의 한자어

수운잡방	규합총서	주 찬	산림경제촬요	음식방문	역주방문	이씨음식법	시의전서	부인필지
小麯酒	小麴酒	小麯酒	小麯酒	小麯酒	小麯酒	小麴酒	小麴酒	小麴酒

〈표2〉『수운잡방』의 소국주

일 시	재 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	발효기간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	멥쌀	3말	가루	끓인물	3말	죽	누룩가루	5되	차게 식힘	밑술	—
							밀가루	5되			
—	멥쌀	6말	가루	끓인물	6말	흰 무리죽	—	—	차게 식힘	덧술	—
—	멥쌀	6말	—	끓인물	6말	찐밥	—	—	—	덧술	—

〈표3〉『주찬』의 소국주

일 시	재 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	발효기간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	멥쌀	2말	가루	끓인물	3말	죽	누룩가루	2되	차게 식힘	밑술	7일
							밀가루	2되			
—	멥쌀	4말	—	끓인물	5말5되	찐밥	—	—	—	덧술	14일

〈표4〉『시의전서』의 소국주

일 시	재 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	발효기간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정월 첫 해일	멥쌀	5되	가루	끓인물	3말	죽	누룩가루	5홉	차게 식힘	밑술	1일
							밀가루	5홉			
다음날	찹쌀	3말	—	—	—	찐밥	—	—	—	덧술	60일

약산춘빚기(藥山春一)

정의 늦봄에서 초여름(음력 4월 초순) 사이에 마시기 위하여 정월 첫 해일에 누룩, 백미, 물을 재료로 하여 밑술을 만드는 일. 약산춘(藥山春)의 약(藥)은 맛을 조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산(山)은 물사(物事)의 절정(絶頂), 춘(春)은 봄을 뜻한다. 따라서 '약산춘'이란 봄에 마시는 맛을 조화하는 최고의 술을 의미한다.

기원 약산춘의 문헌적 초출(初出)은『음식지미방(飮食知味方)』으로서,『주찬(酒饌)』과『산림경제촬요(山林經濟撮要)』에 그 제조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조선왕조 중엽의 고(古) 조리서에 비로소 등장한다 할지라도 음식의 가공조리가 지극히 강고한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시대에 이미 빚어 마시며 풍류를 즐겼다고 판단된다.

제조방법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음력 정월 첫 해일에 멥쌀 5말을 물에 담가 하룻밤 불린 다음 가루로 만들어 흰무리떡을 만든다.

② 좋은 누룩을 대강 찧어서 5되를 계량하여 여기에 물 5병(5되에 해당)을 부어서 하룻밤 불렸다가 체에 내리는데 찌꺼기는 버리고, 내린 물에 물을 합하여 물이 2말이 되게 한다.

③ ①의 차게 식힌 흰 무리떡에 ②의 누룩물을 합하여 고루 섞은 후,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3~4번 휘저어서 밑술을 담근다. 이것을 술항아리에 담아 기름종이[油紙]로 잘 싸매 베보자기로 덮어서 대청에 놓아 둔다.

④ 수일이 지나면 ③의 밑술에서 거품이 생기는데, 매일 이것을 걷어버린다.

⑤ 2월 말경 멥쌀 5말을 하룻밤 물에 불렸다가 시루에 쪄서 차게 식혀 덧술을 만든다. 이것을 ④의 밑술에 섞어 두었다가 음력 4월 초순에 마신다.

〈표1〉, 〈표2〉,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00년대부터 1800년대 중엽까지의 고(古) 조리서에 기록된 약산춘에 대한 재료 및 분량은 비슷하다. 차이는 밑술 담글 때의 물의 양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10

말 빚이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한 분량이기 때문에 20병이든 10병이든 물의 양은 『음식지미방』에서 표기한 대로 2말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병이 클 때는 10병, 작을 때는 20병이 되고, 이들은 모두 2말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山林經濟撮要, 飮食知味方, 酒饌, 大漢和辭典(諸橋轍次, 大修館書店, 1956).

필자 | 김상보(金尙寶)

〈표1〉『음식지미방』의 약산춘

일 시	재 료									비 고	—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 룩	누룩의 양	누룩에 섞는 물		
정월 첫 해일	멥쌀	5말	가루	물	2말	흰 무리떡	누룩가루	5되	5병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3~4번 젓는다.	밑술
2월 말경	멥쌀	5말	—	—	—	찐밥	—	—	—	—	덧술

〈표2〉『주찬』의 약산춘

일 시	재 료									비 고	—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 룩	누룩의 양	누룩에 섞는 물		
정월 첫 해일	멥쌀	5말	가루	물	10병	흰 무리떡	누룩가루	5되	5병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여러 번 휘젓는다.	밑술
2월 말경	멥쌀	5말	—	—	—	찐밥	—	—	—	—	덧술

〈표3〉『산림경제촬요』의 약산춘

일 시	재 료									비 고	—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물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누 룩	누룩의 양	누룩에 섞는 물		
정월 첫 해일	멥쌀	5말	가루	물	20병	흰 무리떡	누룩가루	5되	5병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2~3번 젓는다.	밑술
2월 말경	멥쌀	5말	—	—	—	찐밥	—	—	—	—	덧술

이화주빚기(梨花酒—)

정의 배꽃[梨花]이 필 무렵에 만든 멥쌀가루 누룩을 재료로 하여 멥쌀떡과 함께 밑술을 만드는 일. '이화주(梨花酒)'란 배꽃이 필 무렵 멥쌀가루로 만든 누룩으로 빚은 술을 의미한다. 이화주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수운잡방(需雲雜方)』으로서 『음식지미방(飮食知味方)』, 『주찬(酒饌)』, 『음식방문(飮食方文)』, 『역주방문(曆酒方文)』, 『김승지댁주방문(金承旨宅酒方文)』, 『이씨음식법(李氏飮食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등에 그 제조 방법이 기록된 것이다. 이화주는 음식의 가공·조리가 지극히 강고한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이미 빚어 마시며 풍류를 즐겼다고 판단된다.

제조방법 이화주에 대한 기록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표1〉, 〈표2〉, 〈표3〉과 같은데, 시대가 올라갈수록 재료 분량과 만드는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씨음식법』, 『김승지댁주방문』 등 보다는 『수운잡방』에서 그 기록의 정교함과 만드는 방법의 다양성이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조 말보다는 조선조 초·중기에 이화주를 더 즐겨 빚어 마신 것으로 해석된다.

〈표2〉의 『주찬』에서 보이는 이화주는 그 숙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구멍떡이 따뜻할 때 누룩가루를 넣고 있고, 『수운잡방』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10배의 누룩가루를 사용하고 있다. 발효

기간은 2~3일 정도일 것으로 판단되나 기록에는 없다. 『수운잡방』에서는 발효 기간을 5~6일로 단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구멍떡 대신 멥쌀가루를 죽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누룩의 양도 증가시키고 있다.

배꽃이 필 무렵, 멥쌀을 하룻밤(『수운잡방』과 『주찬』에서는 1일 밤, 『김승지댁주방문』 이후의 문헌에서는 3일 밤) 물에 담가 두었다가 곱게 가루를 내어 깁체로 여러 번 쳐서 내린 다음, 물을 조금 뿌리고 섞어 오리알 크기의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고, 이것을 다북쑥[藁草] 꾸러미에 한 개씩 넣어 빈섬[空石]에 넣어 두는데, 7일 후에 뒤집고, 21일 후에 빛깔이 황·백색의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꺼내어 바람을 쏘였다가 저장해 두고 쓰는 것이 이화주의 누룩 만드는 방법이다.

〈표5〉에 나타난 『주찬』의 누룩 만드는 방법은 『수운잡방』과 『음식지미방』의 그것과는 같으나 다만 다북쑥 꾸러미 대신 시루에 솔잎을 깔고 보관하는 것만이 다른데 이 방법은 이후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화주 만드는 방법은 먼저 멥쌀을 깨끗이 씻어 하룻밤 물에 불린다. 그 멥쌀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깁체에 여러 번 쳐서 내린 후 물을 넣고 반죽하여 구멍떡을 만든다. 구멍떡을 끓는 물에 삶아 익혀서 차게 식힌다. 배꽃이 필 때 만든 누룩의 외피(外皮)를 깎아 따로 두고 속을 찧어서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깁체로 여러 번 쳐서 내린다. 이것을 구멍떡에 섞어 매우 힘껏 치대어 항아리에 넣는다. 두꺼운 종이로 항아리 아가리를 막고 공기가 통하도록 작은 구멍을 낸다. 15일 후면 마실 수 있는데 맛이 달고 향기가 강하다. 빛이 희고 죽 같으며 생수를 타서 마시기도 한다.

참고문헌 | 金承旨宅酒方文, 需雲雜方, 曆酒方文, 飮食方文, 飮食知味方, 李氏飮食法, 酒饌,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필자 | 김상보(金尙寶)

〈표1〉『수운잡방』의 이화주

일 시	재 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발효 기간	비 고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	멥쌀	1말	가루	구멍떡	누룩가루	1되 3홉	차게 식힘	15일	배꽃이 필 무렵 멥쌀가루로 빚어 만든 누룩 사용
—	멥쌀	1말	가루	죽	누룩가루	1되 5홉	—	5~6일	배꽃이 필 무렵 멥쌀가루로 빚어 만든 누룩 사용

〈표2〉『주찬』의 이화주

일 시	재 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발효 기간	비 고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	멥쌀 또는 찹쌀	2말	가루	구멍떡	누룩가루	1말 4되	따뜻할 때	—	배꽃이 필 때 멥쌀가루로 빚어 만든 누룩 사용

〈표3〉『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의 이화주

일 시	재 료						누룩 섞을 때의 온도	발효 기간	비 고
	곡류	곡류의 양	곡류 상태	조리된 상태	누룩상태	누룩의 양			
—	멥쌀	—	—	구멍떡	누룩가루	—	—	7일	정월 첫 해일이나 상순에 멥쌀가루로 빚어 만든 누룩 사용

〈표4〉『수운잡방』의 이화주 조국법

일 시	재 료					보관 및 발효	발효 기간
	곡류	곡류의 양	곡류상태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배꽃이 필 때	멥쌀	—	고운 가루	조금만 뿌림	오리알 크기의 단단한 덩어리로 만듦	다북쑥 꾸러미에 1개씩 넣어 빈섬[空石]에 넣어둔다. 7일마다 뒤집는다.	21일

〈표5〉『주찬』의 이화주 조국법

일 시	재 료					보관 및 발효	발효 기간
	곡류	곡류의 양	곡류상태	물의 양	조리된 상태		
배꽃이 필 때	멥쌀	1말	고운 가루	조금만 뿌림	주먹만한 덩어리	시루에 솔잎을 켜켜이 깔고 넣어둔다.	7일

1월 1일

정의 양력으로 한 해의 첫 번째 날.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939호, 1988.12.18)' 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및 제도화 1895년(을미년) 음력 9월 9일 고종이 "역법을 개정하여 태양력을 사용하고,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으라."는 조칙을 내림으로써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태양력 사용이 공식화되었다. 이때부터 양력 1월 1일을 설[新正]로 삼고자 하는 관(官)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에 입각해서 음력 1월 1일을 설로 삼고자 하는 민중들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문화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일제의 의도에 의해 신정이 강압적으로 장려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국가는 신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했다. 해방 이후부터 1989년까지 신정과 그 후 이틀을 합하여 총 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84년까지 음력설은 공휴일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1985년에서 1988년까지는 '민속의 날' 이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단 하루 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신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정에 대한 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1986년 당시 한국인의 83.5퍼센트는 여전히 음력설을 지내고 있었다. 이처럼 법과 제도가 아무리 신정을 장려하더라도 이미 관습화되고 문화화된 음력설의 강인한 전승력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민의가 반영되어 1989년부터 음력설을 전후한 3일 간이 공휴일로 제정되었으며, 신정 연휴는 2일로 축소되었다. 그 후 1998년에 공휴일이 조정될 때 신정 다음 날은 한글날, 국군의 날 등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최근에는 음력설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중과세(二重過歲)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인접국가사례 1872년 태양력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현재 더 이상 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에서 음력 1월 1일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며, 양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를 '국민의 축일' 이라는 명칭으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은 1912년에 양력을 도입했지만 양력 1월 1일의 의미는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부터, 양력 1월 1일 하루만 쉬고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4일까지를 '춘절(春節)' 연휴로 지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高宗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근대적 시간 체제의 형성과 일상생활의 변화 -대한제국기를 중심으로-(정근식, 사회와 역사38, 한국사회사학회, 1992).

필자 | 김민환(金玟煥)

양력 설날 콩볶아먹기

정의 양력 설날에 콩을 볶아 먹는 풍속. 콩볶기는 보통 전국적으로 음력 2월 초하룻날에 행해지는 풍속이지만,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양력 설날에 콩을 볶아 먹기도 하였다. 음력 2월 1일 콩을 볶을 때는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 볶아라." 하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풍속에서 연유하여 일제 때의 설인 양력설에 콩을 볶으면서 "콩 볶아라, 왜놈 볶아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일제강점기 때의 어려움을 달래기도 하였다.

지역사례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각곤4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을 구워 먹는다."는 의미로 양력 설날 콩을 볶아 먹었다.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양력 초하룻날 왜놈들 좋지 않게 되라는 의미에서 콩을 볶으면서 "왜놈 볶는다."고 했다.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왜놈 대가리 볶는다."고 하여 일본이 망하기를 빌면서 콩을 볶아 먹었다.

참고문헌 | 韓國의 風俗 上(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1970),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양진조(梁鎭潮)

양력설(陽曆—)

정의 태양력에 따른 설. 신정(新正)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양력설은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전통적 세시풍속인 음력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오랜 기간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왔다. 양력 1월 1일에 설을 쇠는 양력설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1896년이다. 음력으로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한 것이다. 이 당시에 태양력의 도입을 얼마나 중대한 사건으로 여겼는지는 개혁을 추진하던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조선시대 최초의 연호를 태양력으로 도입했다는 의미의 건양(建陽)으로 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태양력의 도입이 단발령의 시행과 함께 일본의 압력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게 양력설은 일본설로 인식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양력설만을 공휴일로 정하였고, 당시의 많은 언론매체에서도 양력설과 음력설을 동시에 쇠는 것을 이중과세(二重過歲)라고 간주하였으며, 음력설보다는 양력설을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양력설만이 공식적인 설로 간주된 반면, 음력설은 개인들이 지내는 사적인 설로 폄하되었다. 음력설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양력설을 빨리 받아들인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음력설을 고집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1949년 6월 4일 양력설을 공휴일로 정하였고, 1950년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양력설 중심의 국가정책은 일제강점기와 달라진 바가 없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휴일로 정하면서 양력설을 장려한 국가 정책은 1989년까지 계속되었다. 19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 아래 음력설을 공휴일화하고, 1989년 2월 1일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하루만 쉬던 음력설을 사흘 연휴로 개정하면서 명칭도 설날로 복원되었다. 이로써 1990년에는 음력설과 양력설 모두 사흘씩 쉬었다. 1991년에는 양력설의 연휴를 이틀로 줄이고, 1999년부터는 1월 1일 하루만 휴일로 지내고 있으며, 명칭도 신정이라는 표현 대신에 '1월 1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양력설은 1991년까지 음력설 대신에 한국의 공식적인 설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설에 대한 이러한 국가정책의 변화는 전통적 설에 대해 한국인들이 부여한 의미가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음력설을 진정한 설로 인정하고 음력 설날에 차례나 세배, 윷놀이 등의 세시풍속을 행했지만,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이들은 양력설만이 공휴일이어서 명절을 보내기가 편리하고 또한 솔선해서 국가 정책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양력설을 쇠기도 하였다. 이들이 양력설에 주로 행한 것은 여타 사람들이 음력설에 행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가장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차례와 어른들께 절을 하는 세배 등이 있다. 서로 복을 빌고 축하하는 덕담을 주고받고, 집안 식구들끼리 윷놀이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화투놀이를 하기도 한다. 양력설을 지내던 사람들도 1990년부터 음력설이 공휴일이 되자 대부분 음력설을 쇤다. 하지만 일찍이 양력설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판단 아래, 양력설을 집안이나 문중, 마을의 공식적인 설날로 정한 사람들의 후손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양력설을 지낸 사람들 중에서 양력설이 더 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양력설을 지내기도 한다. 양력설을 쇠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양력설이 다가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하장을 보내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 양력설은 일반 국민들이 지내는 설이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일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신년사나 덕담, 세화 등이 양력설 혹은 1월 1일을 기념하는 신문에 실리거나 방송에 방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시무식을 1월 2일에 실시하여 양력설이 일년의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생산하기도 한다.

근래에 와서 생긴 풍속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로의 보신각 주변에 모여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됨을 기념하여 195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제야의 타종행사를 경축하고, 같이 새해의 소원을 비는 행사를 가지기도 한다. 이 때에 폭죽이나 불꽃놀이를 행하기도 한다. 방송국에서 제야(除夜)의 타종 행사를 중계하면서 이 행사에 좀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양력설에는 음력설과는 달리 마을공동체 단위의 행사는 벌어지지 않는다. 마을 단위로 벌어지는 동제를 비롯한 여러 세시는 음력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양력설은 근래에 와서 생긴 세시로 도시와 지방의 편차가 음력설에 비해 거의 없다.

의의 양력설은 근대화나 도시화, 식민지화 등과 함께 시작된 세시풍속으로서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강요한 설로 시작되었다가 점차 그 근대적 의미가 사

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음력설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설은 음력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양력설은 설의 의미를 상실하고 일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현재의 시간체계가 태양력에 기반하고 음력설이 가지는 전통적 상징성이 지속되는 한 설의 이중체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인접국가사례 한국에서는 오랜 시기 동안 음력설과 양력설에 따른 갈등을 겪어 왔지만, 인접한 일본에서는 1872년 태양력이 채용된 이래 원단(元旦)이라는 이름 아래 양력에 따라서 설을 쇠어 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춘절(春節)이라는 명칭으로 음력설을 지내고 있다. 북한에서는 양력에 따라서 설을 쇠다가 1989년 정무원의 결정을 통해서 음력설도 공휴일로 쇠고 있다. 북한에서 음력설은 하루만 공휴일인 반면에 양력설은 이틀간 공휴일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學槪說(李杜鉉 外, 民衆書館, 197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 · 잡지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 하권(김용덕 편, 창솔, 2004).
필자 | 강정원(姜正遠)

시무식(始務式)

정의 각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거행되는 의식. 한 해의 업무를 마치는 것을 기념하는 종무식(終務式)에 대비된다.

내용 시무식은 양력에 따른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꼽을 수 있는데, 양력설(신정) 휴일을 지낸 다음 날 거행된다. 신정 휴일을 3일로 했던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시무식이 일반적으로 1월 4일에 거행되었다. 신정 휴일이 2일로 줄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일요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1월 3일에 시무식을 행하고, 1999년부터는 신정 휴일이 하루로 단축됨에 따라 1월 2일에 시무식을 행한다. 시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기업체나 관공서의 최고책임자가 행하는 신년사와 그 해 업무 목표의 발표이다. 시무식은 신년하례식을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리셉션이 행해지면서 상호간 인사를 하고 덕담을 주고받기도 한다. 공적 차원에서 시무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음력 정월 초하루에 모든 관원들이 대궐에서 황제 혹은 왕께 문안을 드리는 정조하례(正朝賀禮)를 행하였고, 이후에 3일은 공무를 보지 않았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 · 잡지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강정원(姜正遠)

연하장(年賀狀)

정의 새해를 축하하는 엽서 혹은 카드.

내용 양력설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묵은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것이 연하장의 기본 취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해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연하장의 출발지 및 활성화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새해를 축하하는 연하장의 출발은 15세기 독일에서였지만 사용이 활성화된 것은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였다.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을 때에 신년인사를 함께 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연하장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일본을 통해서 연하장이 들어오면서 크리스마스 카드와는 달리 주로 신년을 축하하는 내용만이 담기게 되었다. 대표적인 문구로 근하신년(謹賀新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문구와 함께 장수나 복을 상징하는 해나 학, 소나무 등이 다양한 겨울 풍경이나 한국의 전통풍습과 함께 새겨지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세함(歲銜)'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새해가 되면 아전이나 교졸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관원이나 상관의 집에 보내거나 직접 가더라도 표적으로 이를 남겼다. 상대방 집에서는 대문 안에 옻칠한 쟁반을 놓아두고 세함상이라고 불렀으며, 부재중에 세배 온 사람들이 명함을 두고 가도록 했다. 중류 이상 가정의 부인들은 문안비(問安婢)라고 하는 자기 집의 여종을 시켜서 사돈 등 일가 친척들을 찾아뵙도록 하였다. 문안비를 맞은 집에서는 세뱃돈과 세배상을 대접하였고, 자기 집의 종을 답례로 보내기도 하였다.

의의 연하장은 직접 세배를 다니던 작은 규모의 농촌사회에서 좀더 대규모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서 필수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세시풍속이라고 하겠다.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새해인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연하장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력설과 함께 널리 퍼진 풍습이지만 양력설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큰 부담 없이 수용되었다. 현재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연하장이 우편 연하장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學槪說(李杜鉉 外, 民衆書館, 197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강정원(姜正遠)

ㄱ

가가주입춘(假家柱立春) 284, 293
가게 기둥에 입춘이라 284, 293
가구 97, 246, 426
가꽃게 248
가농작(假農作) 106, 115, 150
가락국기(駕洛國記) 385
가락엿 402
가락윷 421
가래떡 33, 70, 73, 78, 402
가래소리 369
가래질소리 364
가랫불 116, 135, 148
가랫장 205
가례(嘉禮) 45, 63, 288
가례(家禮) 47, 57, 125
가례잡의(嘉禮雜儀) 356
가름도새기(중돼지) 400
가마니짜기 438
가마싸움 217
가망굿 308
가면극 106, 203, 223, 264
가무별감(歌舞別監) 228
가사협 70, 292
가산오광대(駕山五廣大) 197, 214, 255
가수(嫁樹) 18, 135, 136, 141, 142, 150
가시파래 450
가신(家神) 163, 169, 214, 323, 344, 353, 378, 391
가신의례 376
가신제(家神祭) 125, 344, 388
가실왕(嘉實王) 223
가야국(加耶國) 223
가오리연 418
가을고사 344
가을떡 345, 354
가을시루 345
가정백방길흉대길(家庭百方吉凶大吉) 399
가죽탈 214
가천 211, 325
가택신 119
가토(加藤清正) 244
가평(加平) 284, 292
각문원(閣門員) 101
각사(閣使) 101
각성받이 404
각시 119, 131, 135, 214, 231, 263, 411
각시광대 262
각시탈 263
간물단지신앙 212
간수 192, 335
간지(干支) 183, 185, 312, 315
간짓대 318
간충(干沖) 408
간태(杆太) 445
간합(干合) 408
갈전(葛戰) 240, 249
감관(監官) 258
감내게줄당기기 200
감내끼줄땡기기 200
감주 376
감천변 200
감태 450
감태김치 451
감홍거리 344
갑골문자 83
갑을목기(甲乙木氣) 401
갑작(甲作) 282
강강술래 209
강남천자국(江南天子國) 311, 348
강다리 201
강량(强梁) 282
강령탈춤 224
강릉하평답교놀이 229
강문 341, 395
강변굿 343
강변용신거리 344
강변용신굿 343, 397
강신(降神) 48, 125, 212, 262, 326, 329, 350, 370
강신무 344
강신배(降神盃) 362
강연호 260
강영구 260
강이천(羌彝天) 186
강줄 201
강창원 235
강태(江太) 445
강태공 95

강패(江牌) 409
개 보름 쇠듯 274
개고리타령 229
개나리 436
개날 33, 83, 96
개딱기 452
개백정 275
개보름쇠기 109
개복청(改服廳) 230
개송(介頌) 424, 431
개인놀이 130, 133
개장[犬腸] 292
개천 17, 109, 182, 183, 186, 226, 420
개펄훔치기 135, 163
객토작업 438
갯목 250
갯벌 57, 174, 419, 442, 443, 447, 450
갯불띄우기 218
갯제 298, 362, 363, 444
갱번 447
거루관 136
거름내기 436, 438
거름지게 437
거리굿 134, 308, 322
거리도청제 134
거리밥 190, 362
거리신 300, 356, 358, 372
거리제 298, 316, 340, 357, 372, 389, 397, 404
거릿대 18, 299, 437
거머리 189
거머리볶기 189
거사 221, 259
거사춤 222
거산참(居山站) 258
거상악 308
거상춤 398
거액(去厄) 374
거오기 374
거위 203, 207
거전(拒戰) 203, 251
거제도별신굿 308
거화전(炬火戰) 264
거화희(炬火戲) 264
건궁윷말 424
건궁조왕 378
건덕전 288
건양(建陽) 291, 365, 463
건태(乾苔) 442
건홍(建紅) 443
걸궁(乞窮) 115, 119, 128, 134, 314
걸립(乞粒) 107, 115, 119, 128, 134, 203, 230, 260, 263, 300, 301, 303, 373, 440
걸립굿 129
걸립패 129
걸명 327
걸반 136
걸송(傑頌) 424, 431
걸탄 135
걸판 136
걸판가져다먹기 136
걸판거두기 136
걸판걷기 136
걸판먹기 136
검정양반 261
게줄 201, 226
게줄다리기 200, 226
게줄쌈 249
게줄어루기 201
겨릅대 264
격구(擊毬) 227, 424
격방(擊棒) 424
견강부회(牽强附會) 229
견한잡록(遣閑雜錄) 416
경관만신 343
경국대전(經國大典) 46, 49, 61, 374
경도잡지(京都雜志) 31, 41, 66, 75, 87, 92, 114, 120, 144, 145, 150, 158, 172, 174, 182, 186, 194, 195, 203, 276, 282, 288, 290, 344, 412, 420, 423
경문쟁이 378
경복궁 306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443
경신금기(庚辛金氣) 401
경오(庚午) 97
경운궁 365
경장(經匠) 107
경적례(耕籍禮) 386
경주(慶州) 39, 75, 84, 163, 224, 244, 276

경칩 294, 295, 307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294
곁양반 204
곁줄 200, 216, 247, 250
계도직성(計都直星) 187
계동대나의(季冬大儺儀) 282
계명점(鷄鳴占) 400
계변촌(溪邊村) 175
계점(計點) 409
계축(癸丑) 288
고개사위 204
고개신 358
고걸기 246
고고매(姑姑妹) 203
고고매(苦苦妹) 203
고구려 111, 306, 344, 385, 421, 427
고구려전(高句麗傳) 30, 226
고구식 200
고국양왕 306
고기(古記) 394
고기산적[肉炙] 164
고동각시밥주기 144
고두백배(叩頭百拜) 370
고래실봉답윷놀이 136, 180
고려 19, 31, 45, 47, 71, 73, 74, 78, 79, 99, 103, 106, 133, 145, 173, 223, 232, 248, 263, 283, 306, 325, 332, 337, 339, 346, 355, 363, 367, 374, 379, 383, 387, 394, 399, 412, 416, 418, 421, 425, 427, 452, 457
고려도경(高麗圖經) 290
고려반(高麗飯) 195
고려사(高麗史) 30, 45, 71, 99, 101, 227, 282, 285, 288, 306, 367, 387, 394, 418
고리백정 32, 174, 418
고마이날 220, 277
고머리 세우기 205
고몸뚱이 만들기 205
고무래 436
고방풀이 230
고봉계 301
고봉제 340
고사기 326
고사덕담 123, 130, 376
고사리춤 220
고사반(告祀盤) 115, 128, 273, 391
고사상(告祀床) 128, 216
고사소리 122, 130
고사신서(攷事新書) 363
고사풀이 115, 128
고삿줄다리기 250
고상안(高尙顔) 137
고샅고 206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 203, 214, 255
고수레 122, 368
고스톱 428
고승(高承) 99, 173
고시레 176, 403
고싸움놀이 110, 205, 210, 244
고영수 260
고유제(告由祭) 365
고이왕(古爾王) 385
고쟁이 118, 154
고제당 258
고종 69, 365, 462
고줏대 133
고천(告天)마당 244
고청제(告請祭) 301, 340
고청제당 301
고취악(鼓吹樂) 383
고치지방(固齒之方) 164
고팡 324
곡식걸기 398
곡식날 18, 99, 102, 279
곡식일(穀食一) 101
곡식종자걸어두기 398
곡식주머니걸기 398
곡일(穀日) 102, 103
곡초(穀草) 151
곤면 199
곤반놀이 308, 321
골귀(骨鬼) 410
골매기대 321
골맥이 30, 302, 314
골맥이굿 308
골맥이당 212
골맥이제 302, 314
골목고 206
골목대 207
골목줄 224

골목줄당기기 250
골목줄싸움놀이 237
골보(骨譜) 410
골패(骨牌) 73, 409, 426
곰보양반 261
곱사(꼽추) 219
곱사춤 221
곱추춤 214
곳간굿 130
곳간신 119
곳대가리 만들기 205
공려(公厲) 354
공리(工吏) 258
공민왕(恭愍王) 49, 227, 232, 248, 268, 332
공주탄천장승제 303
공치기 413, 424
공휴일 37, 38, 47, 356, 462, 463
곶창굿 343
과농소초(課農小抄) 438
과세(過歲) 351
과세문안(過歲問安) 351
과실(果實) 135, 399
과일나무가지에 돌끼우기 136
과일나무시집보내기[嫁樹] 105
과천무동답교놀이 229
곽박(郭璞) 98
곽전(藿田) 447
관등놀이 106, 113, 143, 175, 278
관상(觀相) 406
관상감(觀象監) 55, 282, 291, 399
관솔 143, 265
관아놀이 257
관원놀음 111
관원놀이 207, 257, 317
관이 409
관재부(官災符) 403
관제차전(官制車戰) 256
관찰사(觀察使) 41, 57, 443
광무(光武) 44, 365
광서(光緖) 228
광솔불 226
광저기 274
광통교 108
광해군 44, 379
광화문(廣化門) 290
괘등혈(掛燈穴) 303
괭이할미 85
굉갯대 205
교목제 328
교아당(膠牙餳) 41, 71, 164
교어(鮫魚) 449
교창과(咬瘡果) 164
교춘(咬春) 293
구구가(九九歌) 431
구나의식(驅儺儀式) 203, 223, 261
구나행(驅儺行) 223
구능굿 321
구럭달기 144
구렁이 190
구멍떡 454, 457
구불춤 214
구영옥 260
구운몽 255
구일제 100
구충(驅蟲) 109, 253
구틀 184
국강왕(國岡王) 389
국군의 날 462
국궁(國弓) 382
국궁배(鞠躬拜) 310
국궁사배(鞠躬四拜) 310, 366
국무당(國巫堂) 340
국장생(國長生) 374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380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51, 57, 355, 380, 388, 394
군문열림 336, 349
군사횃불 304
군왕장군님 397
군웅거리 344
군웅굿 300, 308, 320
군웅신 169, 320
군웅장군 169
군유사(郡有司) 258
군주사(郡主事) 258
굴부르기제 384
굴부르는소리 429
굴중 221
굴채취 441

굼벵이 188, 279
굿거리 308, 319, 322, 343, 368, 396
굿당 300, 320, 343, 353
굿돌기 134
굿장모 307
굿청 307, 321, 343
궁둥이춤 214
궁합(宮合) 83, 406, 408
권근(權近) 355
권농(勸農)의례 386
권용정(權用正) 120
권정수 235
권정용(權正用) 186
궷문열림 349
귀머거리장군(將軍) 275
귀면(鬼面) 221
귀바리눈쟁이연 420
귀바리연 420
귀밝이술 17, 33, 105, 109, 136
귀봉산연 420
귀신(鬼神)불놓기 277, 278
귀신날(鬼神—) 275, 278, 303, 411
귀신다래는날 275
귀신단오날 275
귀신단지날 275
귀신달구는날 275
귀신달굼불 276
귀신닭(당)날 220, 275
귀신당기날 275
귀신불 276, 278
귀줄싸움 249
귀표고사 346
규장각 55, 64, 99, 290
규합총서(閨閤叢書) 195, 196, 197, 452, 455
귤병 197
근저(芹菹) 310, 383
근하신년(謹賀新年) 464
금년신수방액(今年身數防厄) 176
금란부(禁亂符) 403
금벽주 348
금석문 372
금줄 103, 152, 157, 167, 198, 230, 303, 310, 313, 316, 324, 325, 329, 335, 338, 344, 350, 357, 359, 361, 376, 391, 393, 397
금직성(金直星) 186
금토 313, 362
급창(急唱) 258
기(旗) 166, 207, 243, 250, 305
기고사(旗告祀) 305
기고제 380
기고종묘의(祈告宗廟儀) 380
기곡(祈穀) 306
기곡대제(祈穀大祭) 305
기곡제(祈穀祭) 42, 305, 367
기군대도독(旗軍大都督) 258
기년제(祈年祭) 305
기로연 427
기린 223
기반(碁斑) 419
기받이 209
기사문 395
기산풍속도(箕山風俗圖) 410
기생 111, 214, 230, 248, 261, 282, 356, 410
기세(磯洗) 452
기세배(旗歲拜) 107, 207, 248, 304
기세우기(旗—) 138, 166, 184
기세작업 452
기수(起搜) 74
기싸움(旗—) 107, 207, 209, 248
기영회(耆英會) 213
기와[瓦] 209
기와밟기 209, 247, 266
기와밟기노래 265
기우(祈雨) 186, 306, 395
기우제(祈雨祭) 253, 260, 306, 367, 394
기은제(祈恩祭) 340
기일(忌日) 19, 98, 103, 276
기자(祈子) 173
기장 184, 216, 321, 448
기접놀이 207
기주(祈主) 336, 354
기주식물(寄主植物) 102
기줄다리기 224
기풍의례(祈豊儀禮) 124, 151, 437
기풍의식(祈豊意識) 141, 398
기풍제(祈豊祭) 305
기협육읍(畿狹六邑) 292
긴만세받이 398

긴키(近畿) 252
길군악대 214
길놀이 129, 180, 214, 229, 235, 241, 258, 261
길닦음 200
길대장군 405
길산(상)제 405
길산지신 390
길쌈 32, 87, 92, 96
길일(吉日) 94, 97, 307, 321, 324, 326, 344, 357, 363, 377, 386, 391
길지(吉紙) 373, 397
길지내림 397
길지받기 344
길흉화복 273, 406, 407, 408, 409
김강녕 260
김규홍(金奎弘) 365
김금화 343, 396
김려(金鑢) 135, 186
김만중 255
김매기 115, 182, 440
김명한 235
김문표(金文豹) 421
김민종 260
김발막기 444
김발짜기 444
김부식(金富軾) 290
김삼성 260
김세환제 319
김수장(金壽長) 374
김승지댁주방문(金承旨宅酒方文) 457
김시현(金是鉉) 258
김싸먹기 161
김쌈 싸먹기 161
김안국(金安國) 137
김알지 30, 302
김양식 367, 443, 450
김여익 443
김오복 198
김옥연 260
김용태 230
김유몽 443
김유신(金庾信) 173, 333, 418
김일녀 260
김일록 229
김일출 221, 223
김정희(金正喜) 186
김준근(金俊根) 416
김진수 460
김채취 442
김판석 260
김해오광대 199
김홍종 260
김홍집(金弘集) 463
깁체 197, 458
깃대 120, 150, 184, 185, 220, 248, 262, 280, 303, 316, 405
깃대꽂아 액운풀기 184
깃대잡이 208
깃손받기 316
까마귀 모른식개 110
까마귀밥주기 138
까마귀제 138
까마귀쫓기 166
까막까치밥 138
까치걸음 204
까치밥주기 138
까치보름 105
까치쫓기 166
깨골 211
깻대 92, 143
꼬깨싸움 233
꼬내각시솔침주기 144
꼬대각시 411
꼬대각시놀리기 411
꼬두밥 195
꼬리 만들기 205
꼬리연 420
꼬리줄잡이 206
꼬막먹기 139
꼭두각시놀음 283
꼭쇠 221
꼭지연 419
꼽추춤 222, 259
꽁지줄 240, 247, 250
꽃노래굿 321
꽃반세우기 320
꽃받기 370
꽃샘추위 294

꽹과리잡이 220
꾀꾀할머니 177
꿀밥 195
꿩만두 73
꿩목 208
꿩알얻기 140
꿩알줍기 140
꿩장목 124, 208
끝돌이 261

ㄴ

나경(裸耕) 285
나나쿠사유 293
나락이세기만들자 126
나락 종자 160
나례(儺禮) 60, 63, 134, 186, 221, 223, 377
나루걸립 131
나무 아홉 짐하고 밥 아홉 번 먹기 141
나무그림자점 140
나무동티 97
나무막대 그림자 140
나무소싸움 237
나무시집보내기 141, 170
나무장가보내기 142
나무조롱버리기 142
나물 18, 101, 109, 114, 125, 136, 138, 141, 158, 161, 168, 169, 190, 193, 196, 277, 284, 400
나뭇가지에 만두꽂기 135
나옹화상(懶翁和尙) 347
나재집(懶齋集) 418
나쟁이 228
나팔 129, 258, 380
나후직성(羅睺直星) 182, 185
나희(儺戲) 134, 223
낙하생문집(洛下生文集) 420
낙화(落火) 142
낙화(落花)불 278
낙화놀이(落火—) 142, 278
낙화막대 143
낙화불놀이 142
낙화유 142
난곡 301
난사계(蘭社契) 260
난장박시 218
난중일기(亂中日記) 414
날가릿대 18, 106, 120, 151, 191, 262
날나리수 214
날당산굿 314, 362
날받이 363
날삼재 402
날새경 440
날씨점 399
날제 298
남근(男根) 331, 395
남대문 132, 193, 227, 336, 339
남도문화제 127, 360
남방국 311
남방적제양반 204
남방적제장군 199, 255, 375
남별궁(南別宮) 365
남북조(南北朝) 101, 461
남석교답교놀이 229
남선비 378
남승도놀이(覽勝圖—) 415
남신현 288
남우회(南友會) 213
남우후(南虞候) 258
남장승 303
남제(覽諸) 282
남천강(南川江) 219
남촌파 203
남해선구줄끗기(南海仙區—) 210
남해안별신굿 307
남해해양연구소 150
남행(南行) 414
납날 95
납읍리마을제 309
낭선 263
내농작(內農作) 106, 115, 126
내전(內奠) 353
넋소리 308
널뛰기 34, 276, 411, 430
널뛰는소리 430
넘은개사자 221
네머리흔들소리 430
넷째양반 214
노가리 405, 445

노가지나무 172
노간주나무불때기 144
노간주나무태우기 143
노감주나무 173
노거수 313
노국공주 232
노기올리기 396
노내각시 144
노네각시침놓기 144
노다리 182
노달기 232
노두(路頭) 182
노두(露頭) 182
노두독 182
노래각시바늘주기 144
노래기 143, 188
노래기날 144
노래기바늘주기 144
노래기밥주기 144
노래기 부적 144
노래기 없애기 144
노래기침주기 144
노래기퇴치 144
노룡자(撈龍子) 178
노승제(路丞祭) 300
노신(路神) 299
노신제(路神祭) 299, 357
노어(露魚) 449
노용란(撈龍卵) 145
노용자(撈龍子) 91
노유상(盧裕相) 418
노장 228, 255
노적(露積) 18, 150, 162
노적가리 66, 120, 151, 262
노적밥 162
노적쌈(露積—) 145, 162
노적쌓기 162
노제(路祭) 319, 372
노지 182
노진규 213
녹새(錄塞)바람 432
논갈이놀이 217
논두렁태우기 87
놋그릇 90
놋다리 232, 267
놋다리밟기 111, 209, 212, 232, 247, 267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 31, 195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31, 438
농경의례 31, 120, 161, 201, 208, 213, 229, 242, 251, 283
농기(農旗) 80, 107, 121, 248, 303, 305, 360, 441
농기구 100, 126, 283, 288, 438
농기돌리기 249
농기뺏기 207
농기세배 207
농기수(農旗手) 214
농기수리(農器修理) 438
농발이놀이 201
농사날 21, 103
농사놀이 122
농사밥 141, 195
농사불이 177
농사장원기 120
농사점 109, 187, 289
농사제(農事祭) 364
농사직설(農事直說) 436
농사풀이 131
농신(農神) 124, 305, 309
농신기(農神旗) 207
농신제(農神祭) 337
농악 107, 127, 134, 146, 206, 209, 220, 225, 241, 244, 248, 329, 360, 362, 364, 369, 376
농우(農牛) 112, 438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124, 399
농장희(弄杖戱) 424
농점 18, 32, 408
농정전서(農政全書) 135
농주(弄珠) 416
농창(弄娼)탈 216
농포제(農酺祭) 392
농한기 34, 45, 131, 174, 252, 385, 424, 437, 438, 440, 445
높새바람 432
뇌사(雷師) 394
뇌신(雷神) 394
누더름날 18, 103, 105, 170
누석단(累石壇) 390
누울삼재 402
눈쟁이연 420

눌굽지신 323
느리베춤 369
늠치물 437
능사사명(能師司命) 305

ㄷ

다도해 183, 327
다드래기 133
다래끼[眼瞼炎] 191, 439
다래끼떨구기 191
다래끼빠치기 145, 191
다랫불 116
다리[脚, 橋] 108, 145, 146, 174
다리걸립 135
다리굿 200
다리놓기 145
다리발용신거리 308, 343
다리밟기 17, 145, 148, 174, 219, 228
다리병[脚病] 145
다리빼앗기 146
다북쑥[藁草] 458
다사도 442
단골 31, 311, 391
단군 346, 378, 386
단군제 346
단발령 69
단시점(斷時占) 407
단오(端午) 30, 47, 55, 80, 223, 227
단오첩 290
단종 285, 339, 420
단첩(單帖) 282, 291
단풍놀이 111
단헌(單獻) 47, 125
달귀귀신날 275
달끄실르기 115
달님[月神] 147, 154, 217
달도(怛忉) 30, 39, 83, 105
달람세 245, 268
달래 288, 293
달막 116
달망우리 115
달맞이 18, 105, 106, 116, 126, 128, 146, 154, 155, 174, 178, 180, 194, 217, 254, 264, 429
달못 118
달문 118
달봉뛰기 212, 256
달분이 147
달불금 147
달불놀이 115
달불음 126
달불이 108, 147, 170, 187, 189
달불이개 147
달윷놀이 148
달점[月占] 116, 148
달집 18, 108, 115, 127, 146, 154, 178, 211, 217, 228, 265, 298, 350
달집뺏기 118
달집태우기 18, 106, 115, 119, 127, 134, 145, 211, 217, 264, 298, 300, 329, 350
닭날 33, 60, 82, 95, 101
닭울음점 400
담배꽁초 275
담비 231, 265
담정유고(潭庭遺藁) 135, 164, 186
답교(踏橋) 145, 148, 228
답교지희(踏橋之戲) 145
답정굿 128
답판(踏板) 411
답판사(踏板詞) 412
당(唐) 61, 70, 113, 146, 356, 413, 416
당간지주(幢竿支柱) 347
당고사 313, 439
당골 405
당골놀이 411
당공(堂貢) 361
당굿 134, 309, 311, 314, 315, 330, 337, 343, 349, 351, 361, 368, 392, 397
당귀 284, 288
당마제 313
당본풀이 331, 348
당산거리 313
당산경(堂山經) 353
당산굿 129, 208, 217, 329, 362
당산나무 214, 236, 313, 362, 364
당산신 130, 198, 312, 326
당산제(堂山祭) 18, 59, 153, 201, 205, 210, 214, 217, 236, 249, 298, 312, 313, 326, 328, 335, 346,

364, 389
당산할아버지 374
당제(堂祭) 18, 219, 299, 312, 313, 315, 318, 332, 344, 360, 363, 368, 395, 396, 441, 444
당주(堂主) 315, 361, 376, 397
당주굿 320
당진안섬당제 315
당포(棠浦)사자 221
당화장 315
대가림 353
대감거리 354, 397
대감놀이거리 344
대거리 308
대고(大鼓) 258
대광대패 259
대광통교(大廣通橋) 145, 174
대기(大旗) 258, 305
대나의(大儺儀) 283
대내림 132, 321
대도독사령(大都督司令) 216
대동강 132, 227, 294, 295
대동계 44, 315, 397
대동공회(大同公會) 361
대동굿 342
대동제 363, 372, 396
대리원당 367
대만성(臺灣省) 228
대멩 400
대명(代命) 400
대명지신(大明之神) 365
대문굿 130
대문신(大門神) 378
대문열기 245, 268
대문풀이 230
대보름 16, 30, 39, 54, 58, 66, 67, 68, 75, 81, 90, 91, 92, 105, 113, 114, 115, 116, 119, 120, 125, 126, 127, 128, 131,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78, 149, 150, 151, 152, 153, 154,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2, 173, 174, 175, 176, 177, 179, 180, 182, 184,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7, 198, 200, 201, 203, 205, 207, 209, 210, 213, 215, 217, 218, 219, 221, 223, 224, 226, 228, 231, 233, 236, 237, 241, 242, 243, 245, 246, 247, 248, 249, 250, 253, 254, 255, 259, 264, 265, 267, 271, 272, 273, 274, 275, 277, 278, 286, 289, 298, 302, 303, 306, 313, 317, 318, 324, 326, 328, 334, 339, 341, 346, 347, 349, 352, 356, 358, 360, 363, 378, 384, 385, 389, 395, 398, 399, 400, 401, 402, 405, 406, 411, 418, 424, 429, 432, 436, 438, 440, 441, 444, 449, 452
대사(大祀) 306, 340, 366, 379
대산귀(大山鬼) 317
대성아악(大晟雅樂) 383
대신풀이 308
대잡이굿 308
대장 238, 250
대전통편(大典通編) 101
대제(大祭) 315, 369
대조(大潮) 98
대천(大川) 339, 366
대축(大祝) 301, 310, 380
대퇴물(代退物) 403
대한(大寒) 282, 351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410
대한예전(大韓禮典) 306, 380
대한제국(大韓帝國) 45, 365, 416, 442
댓벌[竹坪里]사자 221
댓불놓기 135, 148, 182
댓불피우기 149
더리덜렁소리 272
더우밥 160
더위팔기 109, 149, 155
더컹하기 352
덕괘군(德掛軍) 446
덕담 17, 22, 36, 43, 53, 69, 128, 137, 286, 320, 463, 464
덕업자(德業者) 446
덕장 445
덕주(德主) 446
던지기 451
덧배기 133
덧뵈기 203, 219, 261
덧뵈기춤 199, 203, 214, 229, 231
덧술 452, 454, 456
덩더궁이장단 320
도가제(都家祭) 317
도간(稻竿) 119, 120

도감(都監) 218, 439
도구연기요(道具演技謠) 430, 431
도구질 152
도구통핥기 150
도굿대 152
도깨비 188, 298, 300, 318
도깨비고사 58, 318
도깨비방쉬 188
도깨비제 318
도끼로 나무흠집내기 150
도당굿 319, 357, 377
도당모시기 320
도당제 18, 89, 340
도동오광대 254
도둑잡이굿 427
도드리 260
도래줄 216
도롱이 438, 449
도르라기 262
도리깨질 152
도목수 326
도문대작(屠門大嚼) 195
도부(桃符) 290
도삭(綯索) 249
도살풀이장단 320
도소주(屠蘇酒) 41, 71, 75, 137, 164
도송(道訟) 431
도송(刀頌) 424
도신(禱神) 301, 344
도신제 344
도액(度厄) 17, 145, 157, 351, 352
도장굿 326
도진 336, 349, 351
도참서(圖讖書) 408
도채비방쉬 150, 184
도천마을 209
도총(都總) 246
도춘우(跳春牛) 286
도탐 389
도투마리(또뚜마리) 398
도투마리(또뚜마리)걸기 398
도판(跳板) 411, 415
도화주(桃花酒) 452
도화주빚기 452
독경(讀經) 283, 352, 376, 404
독경무 353, 403
독기(纛旗) 134
독다리방패 183
독산제 370
독윤거(獨輪車) 241
독전(督戰) 227, 246
독축(讀祝) 51, 122, 132, 304, 310, 313, 325, 329, 339, 350, 359, 361, 368
돈치기 34, 212, 236, 257
돌노적 150
돌노적가리 150
돌돌이 320, 357, 375
돌려대기(갑오잡기) 426
돌장승 198
돌팔매질 228
돌하르방 374
돔 326, 447
돗날(돼지날) 97
동건법(冬乾法) 446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286
동고사(洞告祀) 299
동교(銅橋) 232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340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9, 35, 39, 41, 42, 46, 48, 54, 57, 60, 63, 66, 70, 72, 74, 75, 83, 86, 87, 90, 91, 92, 97, 98, 99, 103, 107, 114, 120, 134, 135, 136, 137, 140, 144, 146, 147, 148, 150, 161, 164, 165, 166, 174, 176, 178, 182, 185, 187, 188, 193, 195, 196, 203, 212, 227, 232, 240, 249, 253, 255, 262, 263, 276, 282, 285, 288, 290, 292, 344, 352, 400, 402, 403, 406, 407, 408, 419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332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83, 106, 340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31, 290, 416
동네불 116
동다리밟기 209
동동이(투전놀이) 426
동래들놀음(東萊—) 200, 213, 255
동래야류(東萊野遊) 213, 231
동래줄다리기(東萊—) 215

동래지신밟기 119
동맹(東盟) 344, 385
동명왕(東明王) 342
동문(東門)밖사자 221
동문선(東文選) 31, 39, 290
동물점(動物占) 400
동방삭(東方朔) 99, 101
동방청제양반 204
동방청제장군 255, 375
동사(冬巳) 92
동살풀이 249
동새벽보기 151
동서남북 속거천리(東西南北 速去千里) 92
동아일보 232
동아줄 122, 157, 364
동애따기 270
동언해(東言解) 293
동월랑(東月廊) 380
동이연 419
동인승 99, 101
동일(冬日) 103, 277
동절(冬節) 105
동정[襟] 118, 146, 178, 183, 187, 300
동제(洞祭) 16, 30, 106, 114, 118, 125, 135, 198, 212, 259, 262, 298, 301, 305, 314, 317, 321, 325, 337, 339, 350, 355, 356, 358, 376, 389, 392, 395, 396
동줄다리기 249
동지(冬至) 23, 30, 48, 80, 82, 422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東桃枝] 157, 453, 457
동채싸움 111, 217, 233
동탑지신(洞塔之神) 390
동태(凍太) 292
동태(凍太)순대 292
동태바리 445
동토(動土) 21, 97
동토일 97
동티 21, 97, 200
동해안별신굿(東海岸別神—) 308, 321
동화(洞火) 115, 119, 133, 134
동화대 133
동화세우기 133
동훈(董勛) 60, 95, 100
돼지날 17, 33, 39, 41, 82, 87, 97, 106, 253, 344
돼지머리 122, 132, 202, 238, 303, 317, 326, 329, 335, 350, 364, 386, 392, 395, 405
돼지주머니 85
됨술 440
됨술마시기 440
두꺼비 190
두더지만두 153
두더지방아 152
두더지방아찧기 144
두레 112, 179, 208, 242, 439
두레공론 439
두레공사 439
두레놀이 122
두레싸움 134, 207
두레짜기 439
두레패 120, 134, 238, 439
두령(頭領) 246
두루미 301
두부(豆腐) 73, 153, 292
두부먹기 153
두엄 126, 288, 437
두창신 299
둑제 298, 363
둥둥데미 232, 267
뒤도 422
뒷간신 119
뒷간풀이 230
뒷놀이 201, 243
뒷두루 256
뒷산타령 229
뒷전 320
드는 환갑쇠기 59, 150
드딜방아 153
드딤방아 153
득신(得辛) 401
들노래 119
들놀음 119, 199, 213, 229
들당산굿 314, 362
들돌들기 439
들맞이 308
들삼재 402
들새경 440
들쥐 253
들판 121, 136, 180, 188, 253, 400, 421

들패 424
등간(謄簡) 282
등거리 153
등거리입기 153
등걸 153
등근(謄根) 282
등룡 228
등심하기 167
디딜방아 93, 153, 160, 277
디딜방아 액맥이놀이 153
디딜방아훔치기 153
디딜방애 153
딸각방아 153
딸기치기 209
땔나무훔치기 154, 162
떡국 32, 39, 43, 45, 48, 52, 70, 72, 74, 76, 79, 80, 139, 168, 194
떡달 345
떡점 154, 157
떨떨이 219
떼무리섬 319
똥장군 437
띠배보내기 308, 344, 368, 397
띠싸움 264

ㄹ

러시아 공사관 365
루둥 209
류성룡(柳成龍) 262
류희령(柳希齡) 137

ㅁ

마구간신 119
마구간풀이 230
마당놀이 119, 214, 221
마당밟기 119, 128, 385
마당밟는소리 273
마당쇠 200
마두희(馬頭戲) 249
마디좀 279
마마배송굿 299
마불림제 311, 331, 349
마상이 218
마신(馬神) 219
마을굿 129, 133, 134, 200, 215, 307, 312, 313, 319, 321, 342, 344, 358, 367, 375, 396
마을제 303, 309, 311, 375, 392
마제채(馬蹄菜) 161
마조(馬弔) 426
마한 346
막걸리붓기 192
막물태 445
만곡대제(萬穀大祭) 312
만두 33, 73, 76, 79, 135, 153, 194
만두국 73, 76, 104, 168, 194
만선기(滿船旗) 357
만선제 134
만안답교놀이 229
만월(滿月) 20, 82, 113, 129, 147, 175, 219, 253, 359, 438
말곡(末谷) 224
말날 17, 39, 42, 82, 93, 94, 101, 105, 344, 395
말놀이 299
말뚝이 198, 204, 213, 230, 255, 261
말뚝이춤 204
말뚝이탈 200, 213, 231
말명거리 397
말바우골 214
말천왕 131
말치레놀이 299
말칼 328
몸 446
몸국 446
물국 446
망개마을 395
망깨돌 212
망깨치기 212
망돌 212
망료(望燎) 310, 366, 382, 393
망료례(望燎禮) 382
망묵굿 354
망순계(望筍契) 213
망애돌 212
망애치기 212
망어(芒魚) 449
망료(望燎) 366, 382, 393
망우리불 115

망울불넘기 154
망울이불 115
망월(望月) 115, 146, 148, 154, 155
망월에 절하기 146
망월점(望月占) 148
망종(亡種) 120
망지 443
망치기 212
망태(網太) 445
망홍 443
매구 107, 119, 128, 198, 215, 259, 314, 330, 350, 361
매구굿 128, 200
매귀(埋鬼) 128, 221
매덩이 152
매사냥 73
매생이 218, 450
매생이국 451
매서(賣暑) 155
매성이심기 155
매점 155
매천야록(梅泉野錄) 410
맥근점(麥根占) 288, 289
맥답압(麥踏壓) 440
맹원로(孟元老) 286
머리눈쟁이연 420
머리연 420
머리카락태우기 178
머슴계약하기 440
머슴날 121
머슴들이기 440
머슴모임 439
먼산장군거리 343, 397
멍석말이 249
메뚜기 253, 309, 399
메밀대 172
메밀묵 268, 300, 319
메밥 125, 190, 324
메점 155
메주쑤기 96
메통 152
메통으로 집안찧기 152
멜꾼 206
멧갓 34, 284, 292
멩감본풀이 188
멩감제 188, 322, 324
멩감철갈이 400
며루(멸구) 284, 291
며루(자방충) 284
면양(綿羊) 94
멸치잡이 58, 367
명감신(命監神) 322
명감제(命監祭) 322
명곡집(明谷集) 414
명공드리기(命功—) 155
명길이 국수 110
명당경(明堂經) 353, 391
명대(明代) 54, 286
명두 342
명란 445
명륜당 100
명산(名山) 339, 365
명승유람도(名勝遊覽圖) 415
명실[命絲] 90
명이주(明耳酒) 137
명종(明宗) 101, 173, 227, 288, 379, 420
명종실록(明宗實錄) 227
명주실 90, 171, 203
명천 221, 223, 292
명태 167, 284, 292, 326, 403, 433, 445
명태(明太)순대 284, 292
명태잡이 433, 445
명통시(明通寺) 353
모개비(某甲, 모가비) 246
모구불피우기 156
모기날리기 156
모기축송 156
모기팔기 150, 156
모기후리기 156
모깃불 109, 156, 303
모깃불놓기 156
모깃불피우기 156
모내기 120, 438
모내기놀음 119
모돔 157
모돔떡점 157
모듬 구명 317
모듬굿 133
모래치 211

모려(牡蠣) 441
모송(毛頌) 424, 431
모심기놀이 119
모양반 214
모의농경(模擬農耕) 126
모의재판 111, 258, 317
모의타작 126
모일득신(某日得辛) 401
모자반 194
모재집(慕齋集) 137
모정 줄다리기 207
모춤끈 438
모충일(毛蟲日) 42, 84, 86
모혈(毛血) 310, 393
목나무 250
목도리 157
목마경쟁(木馬競爭, 목마싸움) 237
목민심서(牧民心書) 410, 427
목사리 157
목서리 157
목성교(木城橋) 233
목신당 308
목신당굿 308
목신제(木神祭) 132, 201, 299
목영점(木影占) 140
목우(木牛) 283
목우(牧牛) 237
목우전(木牛戰) 237
목우희(木牛戲) 237, 285
목은선생문집(牧隱先生文集) 74, 227
목은집(牧隱集) 195, 421
목직성(木直星) 186
목호로(木葫蘆) 142
목화 18, 84, 89, 90, 103, 108, 120, 126, 150, 169, 171
목화불신수 158, 171
몸줄 216, 225, 240, 250
못자리 112, 436
몽갱이불 156
뫼점 155, 158
묘안(猫眼) 419
묘일 33, 83
묘족(苗族) 177
무 73, 76, 77, 81, 109, 158, 159, 164, 193, 393, 432
무격(巫覡) 134, 283, 308, 330, 336
무경(巫經) 345, 353
무고안택 352
무과(武科) 413, 425
무국 158
무나물 158, 169, 316
무당 31, 89, 122, 129, 173, 175, 183, 188, 198, 217, 263, 283, 298, 301, 313, 315, 333, 343, 352, 364, 375, 384, 389, 391, 398, 403, 406
무독(無毒) 453
무동놀이 130, 229, 249
무동답교놀이패 146
무동마당 263
무동춤 221, 259
무먹기 158
무명실선물하기 158
무명씨 92, 278
무모일(無毛日) 19, 32, 84, 86, 90, 92, 400
무무(巫舞) 320
무무(武舞) 383
무밴장국 159
무부 255
무사귀신(無祀鬼神) 258, 317, 355
무산 221
무속식 309, 323, 324, 391
무싹 293
무안목포연자씨놀리기 411
무자귀신(無子鬼神) 258
무장국 159
무진년(戊辰年) 39, 195, 262
무진생(戊辰生) 서황님 262
무채국 159
묵액(墨額) 419
묵은나물 110, 193, 197
묵재일기(默齋日記) 48, 65, 414
문간대장 173
문과(文科) 101, 414
문굿 130, 132, 134, 217
문대(門對) 290
문둥북춤 203
문둥이마당 199, 214, 231, 255
문둥이탈마당 261
문례속(問禮俗) 95
문묘 석전제(釋奠祭) 355
문무(文舞) 383

문복자(問卜者) 406
문소전(文昭殿) 290
문안비(問安婢) 45, 464
문어단지 447
문어잡이 446
문열어라소리 430
문자연(門字鳶) 420
문장수 230
문장원 214
문전(門前) 323
문전고사(門前告祀) 323, 324, 346, 352
문전본풀이 322, 323
문전비들레기 324
문전신(門前神) 159, 222, 323, 346
문전액막음 322
문전제(門前祭) 322, 323, 324, 346, 379
문전철갈이 324
문창섭 260
문천상(文天祥) 322
문첩(門帖) 289
문호장굿놀이 238
물밥 139, 364
물보기굿 349
물봉하기 370
물부리 257
미나리싹 293
미륵(彌勒) 325
미륵사(彌勒寺) 325
미륵신앙 325
미륵제(彌勒祭) 325
미불복약(未不服藥) 94
미암집(眉巖集) 285
미역 162, 311, 344, 429, 447, 450, 451, 452
미역바위닦기 448
미역밭 447, 452
미역채취 447
민속의 날 35, 38, 462
민속자료 248
민패 409
민화투 428
밀물 98, 361, 451
밀반(蜜飯) 195
밀보리털기 126
밀양문화원 425
밀양법흥상원놀이 217
밑달기(미골) 410
밑술 452, 454, 455, 456, 457

ㅂ

바[繩] 105
바둑판연 419
박경규 260
박기수 260
박나물 193
박륙(博陸) 416
박수(搏手) 217
박시 217
박시놀이[搏手—] 217
박씨할매당산제 201
박오순 260
박점(縛占) 161
박점실 213
박정이 260
박쥐날리기 401
박지원(朴趾源) 436
박첨지 330
박혁거세(朴赫居世) 30, 190, 302
박희성 260
밖칠성 388
반궁(泮宮) 99
반달연 419
반장연 420
반제(泮製) 100
반짓굿 133
ᄇᆞᆯ락여 449
발연 419
발하희(拔河戲) 249
밤윷 34, 421
밤참 169
밥점 156, 159
밧칠성 323, 324
방놀이 218
방동리 200, 301
방등ᄀᆞ사 346
방망이 놀리기 411
방목감(放牧監) 439
방사(放邪) 159

방사(防邪) 218
방사탑(防邪塔) 389
방생(放生) 107, 176
방술 218
방쉬 159, 188
방쉬연 159
방실놀이 218
방아 33, 87, 104, 152, 159, 277, 430
방아까치줄 250
방악(防惡) 283
방앗간 33, 73, 160
방애 144
방애아래흙 159
방액(防厄) 118, 128, 389
방연(放鳶) 418
방위신(方位神) 255, 356
방주(方舟) 364
방주용왕송신제(方舟龍王送神祭) 364
방패연 173, 418
방혁(方革) 419
방희(棒戱) 414
밭갈이 115, 387, 401, 438
밭곡식 96, 148, 160
밭귀에 곡식묻기 160
밭농사 120, 127, 138, 180, 284, 298, 400, 424, 440, 441
밭쥐 152
배김새 204, 214
배내리기 326
배맞이굿 220
배산임수(背山臨水) 340
배서낭 327
배선왕 326
배선왕굿 326
배신굿 363
배암막이 92
배연신굿 342, 363
배영환 253
배춤 214
배춧잎 161
배피떡 99
백가반(百家飯) 110, 136, 160
백게몬(Backgammon) 417
백관 56, 101, 283, 288, 382
백기(伯奇) 282
백낙천(白樂天) 409
백룡(白龍) 92, 401
백뤽 410
백사(白巳) 92, 401
백시루떡 99
백오 410
백정광대 262
백정마당 263
백정탈 263
백제 241, 249, 325, 370, 385, 416, 421, 427
백제대장군(白帝大將軍) 356
백중제(百中祭) 311
백택무(白澤舞) 223
뱀 388, 401
뱀그슬리기 161
뱀끄슬리기 92
뱀끄시기 161
뱀날 17, 33, 82, 92, 93, 161, 400, 401
뱀막이 92
뱀방 92
뱀뱅이 92
뱀부적 92, 402
뱀부적붙이기 92, 161
뱀불 92
뱀신 85, 323, 324, 389
뱀입춘(一立春) 401
뱀줄 92
뱀지지기 92
뱀쫓기 161
뱀첩 92
뱀축 92
뱀치기 161
뱀치우기 92
뱃고사 18, 220, 316, 326, 352, 395, 398
뱃굿 326, 342
뱃기경주 397
뱃기내림 344
뱃기세우기 344
뱃노래굿 321
뱅인영감거리 344
버꾸잽이 214
버꾸춤 398
버짐밥 160
벅수 18, 327, 373

벅시 374
번난지 451
번제(燔祭) 338
벌대동거리 344
벌대동굿 397
벌레이방 188, 253, 279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 288
범굿 308
범날 42, 82, 89
법고(法鼓) 61
법고놀이 130
법고춤 130
법사 345, 352, 404
법수 374
법시 374
벗줄 240
벙어리 219
벚나무 114
벡주또마누라 348
벨룽갱이 324
벽동 223
벽사가면 231, 255
벽사문(辟邪文) 282, 291
벽제(辟除) 258
변동식 213
변전(邊戰) 253
변주곡 308
별감 228
별고사(別告祀) 327
별묘 379
별신 262, 358, 369
별신굿 80, 106, 262, 299, 302, 307, 321, 359, 377, 384
별신당제 328, 371
별신제 18, 258, 319, 357, 358, 369
볍씨 93, 441
볏가리제 121
볏가릿대세우기 66, 120, 170
볏단재점 187
볏섬끄랭이 162
볏섬끄랭이싸먹기 162
볏섬 써먹기 161
볏짚가리 109, 150
병신굿놀이 219
병신춤 199, 214
병오(丙午) 65, 103
병점(病占) 221
병정화기(丙丁火氣) 401
병조(兵曹) 332
병조참판 227
보라어[甫停魚] 448
보락[甫犖] 448
보름날[上元] 91, 195
보름밥 110, 141, 162, 172, 190, 194, 195
보름불 148
보름불놓기 154
보름에 팥밥할 놈이 나왔다 274
보름차례 125
보리밟기 440
보리뿌리 32, 152, 283, 287, 289
보리뿌리보기 289
보리뿌리점 283, 288, 289
보리이세기만들자 126
보리자른다 126
보리타작 120, 126, 127
보리털기 126
보릿대세우기 127
보릿점 287
보문(普門) 224
보부상 372
보살본행경(菩薩本行經) 355
보성당촌별신당제 328
보습윷 424
보쌍(譜雙) 416
보태평(保太平) 383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 383
보호구(保護具) 185
복(福)물 179
복계(伏鷄) 170
복과(福裹) 161
복덕개 311
복만두 194
복물뜨기 178
복물퍼오기 178
복밥 160
복삼재 402
복술(卜術) 317, 353
복숭아나무 135, 453
복숭아나뭇가지 157, 453

복쌈(福—) 18, 110, 145, 161
복엿 402
복엿먹기(福—) 402
복잔내림 344, 397
복조리 17, 20, 32, 62, 177, 191, 402
복토훔치기(福土—) 59, 108, 135, 154, 162, 170
본놀이 201, 244
본당굿 311
본제 316, 370
본줄 216
본초강목(本草綱目) 71, 75, 441, 447
본향다리 351
본향당굿 311, 330, 337
본향제 322
볼락어[叀旗魚] 448
볼락잡이 448, 449
볼락통여 449
봄놀이 111
봄추위에 장독 깬다 432
봇줄 438, 441
봉기(奉旗) 107, 220, 396
봉기타령 220, 396
봉로(奉爐) 310
봉사 49, 210, 261
봉산탈춤 111, 129, 224
봉수대 210
봉숭이밥싼다 175
봉심일(奉審日) 97
봉오리 120, 151, 155
봉조하(奉朝賀) 413
봉죽(奉竹) 220
봉죽(鳳竹) 220
봉죽대 220
봉죽타령 220
봉향(奉香) 310
봉황(鳳凰) 203
부군당(府君堂) 331
부군당(符君堂) 332
부군당제(府君堂祭) 18, 331
부군사(符君祠) 332
부근당(付根堂) 331
부내(府內) 224, 234
부네광대 262
부네탈 263
부도지(符都誌) 385
부뚜막신 377
부럼 17, 33, 105, 109, 126, 158, 164, 168, 275, 402
부럼깨기 109, 164, 165, 182
부럼깨물기 158, 164, 170
부름 164
부산띄우기 343
부스럼 33, 109, 128, 137, 155, 158, 160, 164, 167, 170, 188, 191
부스럼깨물기 165
부스럼심기 155
부역(賦役) 169, 224
부웅듬 254
부인날(婦人日) 104
부인필지(婦人必知) 197, 455
부잣집 59, 121, 162, 190, 286, 305
부적 31, 63, 118, 144, 192, 401, 402
부정거리 204, 343, 397
부정경(不淨經) 353
부정굿 217, 308, 316, 320, 321, 326
부정물림 343
부정쓸기 218
부정풀이 316, 353
부종군놀이 180
부흥식(浮鎔式) 443
북경세시기(北京歲時記) 145
북교단(北郊壇) 339
북놀이 220
북두칠성(北斗七星) 365, 388, 410
북리(北里)사자 221
북문(北門) 165
북문외유(北門外遊) 165
북방흑제양반 130, 204
북방흑제장군 190, 255
북사(北史) 30, 416, 421
북수 119, 214
북어(北魚) 303, 325, 345, 376, 392, 404, 445
북잡이 220
북청사자 221
북청사자놀음(北靑獅子—) 129, 221
북청사자놀이보존회 221
북평제언기 224
북풍(北風) 399, 432, 433
북한 73, 253, 265, 417, 431, 464

분치(糞治) 436
분향(焚香) 40, 52, 129, 325, 329, 362, 373, 386
불교식 324, 390
불꽃놀이 142, 174, 278, 463
불꽃싸움 264
불넘기 149, 154
불도제 322
불막이굿 334
불막이제 334
불밝히기 179
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 355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
(佛說仁王護國般若婆羅密多經) 355
불쌈 264
불쏘시개 170
불쏘시개점 165
불씨주머니 143
불액막이제 334
불절음 118
불제 334
불집 128
비네목 216
비녀꽂이 246
비녀목 207, 211, 216, 226, 247, 250
비담(毘曇) 418
비둘달기 279
비들달개 96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60, 98
비보(裨補) 300, 347, 389
비보풍수(裨補風水) 207
비비과장 203
비비양반춤 204
비손 31, 89, 125, 160, 175, 185, 217, 347, 363, 385, 391, 403
비장(裨將) 246
비틀양반 261
비파정(琵琶亭) 228
빅게 449
빅게잡이 449
빌신 262
뻘게 140
뻘해삼 451
뽈락잡이 440
뽕개 449
뽕나무 폭죽 276, 278
뽕나무재태우기 278

ㅅ

사계갑자일점(四季甲子日占) 408
사공천리거(巳公千里去) 92
사귀(邪鬼) 72, 75, 178, 186, 340
사금갑(射琴匣) 83, 115
사내기뱅이 144
사내기불 144
사내기쫓기 144
사냥거리 308, 344
사농경(司農卿) 387
사단(社壇) 306
사당 41, 47, 48, 81, 291, 341, 379
사대부 47, 60, 76, 119, 214, 239, 354, 412, 426
사도세자 333
사독(四瀆) 366
사또놀음 257
사또놀이 257
사람날 20, 95, 98, 100, 101, 102, 104, 277
사령(使令) 258
사령두목(使令頭目) 258
사령장의(使令掌議) 258
사령제(死靈祭) 354
사륙 410
사륜(舍輪) 320
사리 98, 326, 422
사마광(司馬光) 290, 409, 427
사만이 322
사모패(紗帽牌) 409
사물기원(事物紀原) 99
사물기원(事物記原) 173
사발재점 165
사방무일사(四方無一巳) 92, 402
사불원행(巳不遠行) 93
사섬 319
사소절(士小節) 414
사시급납향종묘섭사의(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380
사시급납향종묘의(四時及臘享宗廟儀) 380
사신(辭神) 51, 125, 350
사신(蛇神)칠성 190
사신용왕(四神龍王) 395

사어(沙魚) 449
사역원(司譯院) 332
사인(舍人) 101
사자기(獅子伎) 223
사자놀이(獅子—) 221, 222, 223, 258, 317
사자무(獅子舞) 203, 223
사자밥 403
사자춤과장 224
사자털 222
사장고(紗長鼓) 219
사장굿 361
사점(梭占) 180
사주(四柱) 83, 135, 173, 403, 406, 408
사주단자 118
사준(司樽) 310
사직단(社稷壇) 306, 365
사직제(社稷祭) 355
사태(四太) 445
사토(司土) 366
사해 사독제(四瀆祭) 363
사해(四海) 219, 365
사해오방장군 397
사해용왕장군님 397
사해제 363
사회(梭戲) 421
삭녕(朔寧) 34, 284, 288, 292
삭모 158
산개(山芥) 34, 284, 288
산골지방(畿峽) 284
산군자(山君子) 89
산굿 312, 313
산대도감 264
산대탈놀이 260
산뒤짚(밭벼짚) 400
산령(山靈) 89
산림경제촬요(山林經濟撮要) 452, 454, 455, 456
산살설(山煞說) 237
산신각 337
산신놀이 336
산신당 106, 337, 358, 397
산신멩감 336
산신멩감코ᄉᆞ 336
산신제(山神祭) 18, 47, 132, 215, 230, 299, 304, 313, 324, 337, 340, 344, 346, 357, 359, 375, 390, 405
산악숭배 337
산애기간질 144, 166
산양(山羊) 94
산예(狻猊) 223
산유만세 398
산윷 424
산인(傘人) 258
산제(山祭) 210, 317, 328, 337, 369, 373
산제당 319, 338, 376, 386, 390
산제사 337
산지띠기 245, 268
산천제(山川祭) 337, 339
산치성 317
산타령 229
산통(算筒) 407
산패 424
살(煞)대 104
살구꽃 82
살꽂이 436
살대국수 104
살풀이 133
삶은 팥묻기 155
삼[麻絲] 216
삼공제 322
삼광(三光) 186
삼국사기(三國史記) 30, 70, 106, 223, 288, 385, 387, 389, 394, 418
삼국유사(三國遺事) 19, 30, 60, 71, 83, 87, 105, 110, 114, 125, 139, 183, 186, 190, 195, 388, 394
삼국지(三國志) 18, 30, 344, 427
삼군수군통제영 259, 420
삼남지방 252
삼룡치수(三龍治水) 85
삼륙 410
삼방줄 124
삼봉 428
삼봉산눈쟁이연 420
삼봉산연 420
삼불님 397
삼사판관(三師判官) 101
삼산오악숭배 337
삼색기 326, 364

삼선당(三仙堂) 314
삼신경 353
삼신달받기 116
삼십 넘은 계집 432
3·1 민속문화제 240
삼일제 100
삼재(三災)풀이 403
삼재경(三災經) 403
삼재막이(三災—) 402
삼재막이굿 403
삼재부 403
삼재축출기(三災逐出旗) 121
삼재팔난(三災八難) 284
삼재풀이 403
삼재풀이굿 404
삼정승 228
삼짇날 107, 326, 386
3차사 188
삼척기줄다리기(三陟—) 224
삼태(三太) 445
삼패일(三敗日) 19, 98
삼해주(三亥酒) 453
삼해주빚기 453
삼헌관(三獻官) 301, 351
삼헌례(三獻禮) 382, 394
삽짝신 119
상괘(上卦) 26, 407
상극(相剋) 89, 193, 336, 349, 407
상낭 166
상낭태우기 138, 166
상달고사 344
상당(上堂) 131, 338, 341, 359, 390
상대(商代) 110
상대기 쓸기 209
상량문 193, 328, 336, 360, 366
상륙(象陸) 416
상묘일(上卯日) 17, 33, 83, 91
상미일(上未日) 17, 83, 94
상사일(上巳日) 17, 33, 83, 92, 161, 346, 401
상산맞이 343, 397
상쇠놀이 349
상순윤차(上旬輪次) 101
상술일(上戌日) 17, 33, 83, 96, 97
상신일(上申日) 17, 33, 42, 83
상신일(上辛日) 306
상어잡이 449
상오일(上午日) 17, 40, 83, 87, 93, 94, 114
상원(上元) 30, 113, 116, 137, 150, 161, 174, 195, 254, 291
상원밥 아홉그릇 141
상원연등회(上元燃燈會) 356
상유일(上酉日) 17, 33, 95
상인일(上寅日) 17, 33, 42, 89, 98
상자일(上子日) 32, 82, 87, 88, 114
상정일(上丁日) 309
상좌무동 228
상중하간지풍 165
상진일(上辰日) 17, 33, 83, 91, 279
상촌집(象村集) 253
상축일(上丑日) 17, 32, 83, 88, 89
상치세전(尙齒歲典) 46
상투빗연 420
상해일(上亥日) 17, 33, 83, 87, 97, 114, 454
상현일(上弦日) 19, 98
새[邪神] 159
새갓통 437
새경 440
새고리기타령 220
새납 221
새도림 349
새삼밭에 불놓기 166
새삼볶기 166, 189
새삼불놓기 166
새알뜨기 166
새알볶기 189
새옹 337
새점 407
새쫓기노래 167
샘고사 373, 375
샘굿 373, 375
샘제 375
샘풀이 230
생(柱) 374
생구(生口) 88, 168
생금생금 생가락지 245, 268
생년간지(生年干支) 407
생두부 110
생삼[生麻] 449

생선온마리먹기 167
생율놀이 226
생인손 20, 35, 93, 112
생태(生太) 445
서긍(徐兢) 290, 363
서낭굿 106, 308, 321, 326, 363, 368
서낭당 106, 225, 262, 301, 321, 340, 358, 374, 386, 389, 396
서낭대 238, 241, 263
서낭목신거리 344
서낭제 18, 298, 299, 301, 340, 346, 359
서낭풀이 358
서당걸립 131
서당놀이 257
서리화 316, 343
서방백제양반 204
서방백제장군 199, 255, 375
서신단(西神壇) 309
서역(西域) 223
서왕가(西往歌) 347
서운관(書雲觀) 399
서울민속대관 332
서캐조롱 141
서해안풍어제 308, 344
서현우 260
서화희(鼠火戲) 253
석간(石竿) 313, 347
석교 248
석단(石壇) 395
석전(石戰) 19, 30, 107, 226, 233, 251, 256, 265
석전 · 기우 · 안택(釋奠 · 祈雨 · 安宅) 107, 302
석전놀이[石戰戲] 226
석화(石花) 358, 441
선농단(先農壇) 225, 306, 388
선농적전단(先農籍田壇) 307
선농제(先農祭) 225, 307, 387
선덕왕 306
선돌 299, 325, 374, 390
선령(先靈) 317
선령상 126
선망굿 326
선봉(先鋒) 246
선부선부 서울선부 245, 268
선부정 320, 397
선비광대 262
선비탈 263
선상(選上) 387
선새경 440
선생두레 207
선신(船神) 326, 358, 364
선왕신 326
선조(宣祖) 44, 149, 262
선채(選采) 416
선태(鮮太) 445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290
섣달바지 445
설 16, 30, 37, 38, 39, 40, 42, 45, 47, 48, 54, 59, 62, 68, 80, 81, 82, 93, 106, 125, 129, 139, 151, 167, 247, 250, 274, 275, 292, 315, 411, 432, 462, 463
설 쇤 무 81, 432
설 쇤 무와 삼십 넘은 계집 432
설날 17, 22, 23, 30, 37, 38, 40, 41, 42, 43, 45, 46, 47, 48, 53, 54, 55, 56, 57, 58, 59, 62, 66, 67, 68, 70, 71, 72, 73, 75, 76, 78, 79, 80, 81, 82, 84, 86, 92, 104, 109, 134, 135, 156, 164, 180, 276, 288, 290, 315, 326, 399, 400, 407, 408, 413, 417, 431, 433, 463
설낫 450
설떡 167
설떡먹기 167
설반(設飯) 136
설상(設床) 362, 363
설소리꾼 207
설쇠잡이 119
설쉐 330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273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 275
설은 질어야 풍년이고 보름은 밝아야 풍년이다 81
설장고 130
설장고놀이 249
설흘산 210
섬떡 194
섬만두 194
섬진강 442, 443
섭행제(攝行祭) 380
섯다 428
성덕왕 288
성불도(成佛圖) 413
성불도(成佛圖)놀이 415

성수거리 343
성안놋다리 233
성야주(城夜周)놀이 259
성인식 439
성조(成造) 344
성종 46, 51, 55, 65, 100, 106, 227, 285, 290, 306, 367, 379, 387, 427
성종실록(成宗實錄) 55, 97, 227, 413
성주(城主) 344
성주(星主) 344
성주거리 397
성주경(城主經) 353
성주고사(城主告祀) 344
성주굿 217, 321, 326, 345, 368
성주님 273
성주받기 353
성주받이굿 345
성주밥 109
성주시루 353
성주신 119, 162, 172, 214, 273, 326, 344, 352, 395
성주안택 352
성주제 322, 346
성주풀이 119, 130, 262, 273, 345
성창곰 449
성평(性平) 453
성현(成俔) 60, 64, 114, 129, 144, 374, 413, 415
성호사설(星湖僿說) 74, 76, 416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 355
성황신(城隍神) 262, 339, 354
섶양식 443
세경굿 343, 397
세경본풀이 322
세경제 322
세계문화유산 379
세계유람도(世界遊覽圖) 415
세마치 260, 263
세배 16, 31, 41, 43, 44, 45, 48, 53, 54, 57, 67, 75, 76, 81, 82, 174, 207, 225, 248, 351, 463, 464
세병교 214
세생채(細生菜) 284
세성받이밥 110, 196
세수(歲首) 17, 22, 23, 24, 25, 27, 30, 39, 40, 41, 42, 43, 46, 54, 83, 106
세습무 307, 320, 322, 344, 367
세시광기(歲時廣記) 285
세시기(歲時記) 60, 66, 418
세시잡영(歲時雜詠) 60, 186
세시풍속집(歲時風俗集) 151
세시풍요(歲時風謠) 42, 64, 67, 186, 413
세조(世祖) 302, 306, 367, 383, 387
세조실록(世祖實錄) 106, 126
세존굿 321
세종(世宗) 46, 227, 290, 306, 355, 367, 379, 387, 425
세종실록(世宗實錄) 227, 387, 394, 447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288
세주(歲酒) 33, 41, 72, 75, 76
세찬(歲饌) 44, 70, 71, 72, 75, 76, 78, 79, 194
세함(歲銜) 54, 464
세화(歲畵) 31, 60, 63, 95, 463
셈족 390
셋째양반 230
소고놀이 249
소고춤 214
소공경하기 168
소광통교(小廣通橋) 145, 174
소국주(小麴酒) 455
소국주밑하기 455
소금단지 336
소나무싸움 237
소날 17, 32, 42, 82, 88, 101
소놀이 286
소당제석거리 243
소당풍속시고(嘯堂風俗詩稿) 195
소대감놀이 397
소대감놀이거리 344
소대접하기 168
소도(蘇塗) 18, 346, 373
소돈걸기 168
소돌걸기 168, 178
소동기 209
소라실 106
소라실장승제 304
소로소천국 348
소망일(小望日) 114
소멍에 157
소무 200, 228, 255
소밤참주기 169
소밥주기 168, 400

소보름 105, 114
소사(小祀) 307, 340, 355, 394
소송(蘇頌) 293
소염 343
소용일(所用日) 19, 98
소위하기 168
소의 혼령(魂靈) 196
소장(小將) 238, 250
소점[牛占] 400
소제(小祭) 315
소조(小潮) 98
소종과(消腫果) 164
소줄꼬기 441
소줏대 346
소지(燒紙) 107, 175, 202, 349, 357, 362, 372
소지(素紙) 406
소지점(燒紙占)
소지왕(炤知王) 39, 84, 105, 114, 125, 138
소지원정 406
속곳 118, 153, 277
속궁합 408
속닥기줄 224
속대전(續大典) 101, 387
속오례의(續五禮儀) 306
속전 지연가(俗傳紙鳶歌) 173
속절급삭망향종묘의(俗節及朔望享宗廟儀) 380
손굿춤 320
손놀이 209
손님굿 321, 326
손님떡 346
손님탈 261
손님풀이 308
손방아 153
손사막(孫思邈) 67, 137
손잡이줄 달기 205
손진태(孫晋泰) 59, 131
솔개쫓기 166
솔닥기줄 225
솔방울던지기 170
솔잎뿌리기 144
솜고치 275
솟대제 346, 384
송(宋) 39, 99, 113, 286, 363, 394, 409
송구영신(送舊迎新) 215, 23,1, 275
송남잡식(松南雜識) 292
송당리마을제 347
송대장군가 363
송석하(宋錫夏) 120, 221, 223, 232, 250, 258, 263, 391, 412
송씨 처녀[宋氏姐] 332
송아지떼기 245, 270
송액(送厄) 32, 109, 173, 275, 298, 401, 419
송액만리(送厄萬里) 275
송액영복(送厄迎福) 32, 109, 173, 275, 419
송연(送鳶) 173
송엽점(松葉占) 407
송우(送牛) 286
송징장군 360
송파다리밟기(松坡—) 228
송파답교놀이(松坡踏橋—) 229
송편 48, 80, 89, 157, 194
송화 223
쇄미록(瑣尾錄) 414
쇠머리대기 111, 237
쇠머리벌 257
쇠잽이 214
쇠죽 17, 88, 108, 168
수(隋) 181
수구막이 389
수구매기 389
수리(首吏) 235
수문사설 292
수박치기 131
수병(收兵) 246
수복수(壽福水) 170, 178, 179
수산 395
수살간 346
수살굿 364
수살막이 374
수살맞이굿 357
수살목 357, 374
수살이 374
수살제 299, 346, 389
수서(隋書) 30, 56, 226, 252, 427
수세(守歲) 32, 113
수수깡 66, 100, 102, 108, 126, 147
수수날 278
수수달기 278
수수떡 405

수수망세기 300
수수팥단지 404
수수팥떡 300
수숫대세우기 126, 127
수숫대타작하기 126
수신(水神) 91, 193, 208, 326, 340
수신제(水神祭) 202, 220, 298
수심가(愁心歌) 295
수안 243
수애 292
수양반(首兩班) 230
수염줄 250
수영들놀음(水營—) 200, 213, 215, 229
수영야류(水營野遊) 224, 229
수운잡방(需雲雜方)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수원답교놀이 229
수정산(水晶山) 254
수종(水腫) 402
수직성(水直星) 186
수집사(首執事) 258
수척(水尺) 174
수투전(數鬪牋) 426
수표교(水標橋) 108, 145, 174
수하식 442
수호신(守護神) 18, 22, 30, 73, 83, 93, 130, 131, 198, 214, 222, 230, 242, 302, 309, 311, 320, 322, 327, 340, 358, 374, 377, 395
수호신제(守護神祭) 370
수호지신(守護之神) 290
숙정문(肅靜門) 165
숙종(肅宗) 64, 306, 332, 355, 383, 426
순자(筍子) 436
순조(純祖) 80, 290, 412
순천구산용수제 349
술렁수 263
술배소리 369
술비놀이 225
술비통 225
술해(戌亥) 284
숫고마이날 277
숫자팽이 415
숫줄 202, 207, 214, 216, 224, 240, 242, 246, 250, 271
숭례문(崇禮門) 174, 193, 336
숯 78, 114, 142, 170, 278, 318, 422
숯점 165, 170
스고로쿠[雙六] 417
슬도 448
승검초 34, 284, 288, 292
승경도놀이(陞卿圖—) 413, 426
승관도(勝官圖) 413
승람도놀이(勝覽圖—) 411, 415
승무 203
승무과장 204
승정원(承政院) 54, 55, 57, 65, 282, 290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03, 332
승주달집태우기 127
승지(承旨) 115
시경(試耕) 88
시경(詩經) 115, 120, 165
시구(施鉤) 252
시나위 308
시도무형문화재 119, 127, 133, 200, 217, 224, 228, 232, 246, 267, 309, 315, 347, 360, 396, 418
시래기 193
시루 79, 109, 126, 157, 159, 163, 170, 195, 316, 329, 342, 345, 354, 362, 391, 455, 456, 458, 459
시루고사 378
시루떡 33, 70, 93, 157, 167, 170, 172, 300, 326, 336, 344, 378, 388, 392
시루말 320
시루번 170
시루변 170
시루병 170
시룻번먹기 171
시리밥 109
시무식(始務式) 57, 463, 464
시박[試匏] 230
시병(柿餠, 감편) 195
시석굿 308
시식지(始植地) 443
시에미줄 250
시왕가르기(다리굿) 200
시왕맞이 188
시왕제 322
시의전서(是議全書) 77, 195, 292, 454, 456
시전(市廛) 19, 54, 365
시절윷놀이 171, 180, 424
시제(時祭) 31, 345

시조제(始祖祭) 337
시종신(侍從臣) 55, 282, 290
시주(施主) 66
시준단지 345
시중 231, 387
시콜방에아래흙 159
시회(詩會) 143, 278
식구불 158, 171, 182
식구불켜기(食口—) 158, 171, 182
식용모자반 446
식혜 33, 76, 136, 198, 362, 394
신(神)대 115
신간제(神竿祭) 347
신감채 284
신감초(辛甘草) 292
신과세제(新過歲祭) 311, 331, 349, 351
신관례(晨祼禮) 380
신날[申日] 275
신내림형 215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 311, 352
신년제(新年祭) 31, 299, 322, 323, 324
신농(神農) 307, 386
신농유업(神農遺業) 303
신당서(新唐書) 56, 387
신도(神荼) 60, 290
신독(神纛) 134
신라 30, 39, 56, 60, 76, 83, 87, 89, 106, 125, 137, 173, 182, 185, 195, 210, 249, 302, 306, 325, 337, 356, 374, 385, 387, 399, 421, 431
신라 선덕여왕 173, 418
신라 헌강왕(憲康王) 182, 185
신라본기(新羅本紀) 56, 106, 223, 288
신문왕 210
신미고사(新米告祀) 314
신미일 101
신반(辛盤) 293
신반대광대 254
신발귀신 276
신별수 258
신북[神鼓] 217
신사(神社) 36, 73
신수점(身數占) 172, 406, 410
신우언(차양반) 213
신윤복(申潤福) 416
신일(愼日) 17, 23, 30, 39, 83, 106
신일(申日) 17, 95, 98, 277, 394
신일(愼日) 401
신일(辛日) 398
신주(神酒) 34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49, 441
신청궤 349
신청울림 343
신축(辛丑) 97
신칼춤 369
신탁(神託) 262, 406
신흠(申欽) 253
신흥계(信興契) 213
실(絲) 172
실감기 232
실감기노래 232, 276
실공드리기[絲功—] 155, 172
실불점 172
실불점치기 172
실점[絲占] 172
심방(沈榜) 145
심청굿 321
심화(心火) 402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 408
십이기(十二棊) 416
십이지(十二支) 19, 22, 24, 32, 63, 82, 86, 87, 90, 94, 99
십일득신 401
십일룡치수 85
싸라기 88
싸래기소리 430
싸리나무 116, 143, 147, 172, 185, 253, 264, 405, 421
싸리윷 421
쌀뜨물 뿌리기 192
쌀점 316, 406
쌍공작연 420
쌍군웅춤 320
쌍록(雙鹿) 416
쌍륙(雙陸) 416
쌍륙(雙六) 410, 416
쌍상투머리 198
쌍줄다리기 210
쌍호적 228
씨레줄 441
썩가래 452

쑥섬 220
쑹거주는거리 343
씨나락(볍씨) 93, 441
씨부게 441
씨앗고르기 441
씰게호미 452
씻김굿 200

ㅇ

아궁이에 불때기 172
아기어르는소리 430
아동세시놀이 160
아륙 410
아시랑거 265
아언각비(雅言覺非) 71, 77, 195
아우두레 207
아전 235, 332, 464
아주까리대 92, 156, 161
아주까리잎 191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378
아패(牙牌) 409
아헌관(亞獻官) 309, 380
아헌례(亞獻禮) 310, 366, 382, 393
아홉 번 행동하기 141
악기(樂記) 129, 134, 218, 221, 259, 261, 263, 308, 320, 344, 369, 380, 398
악몽일(惡夢日) 99
악사 130, 135, 182, 260, 307, 308, 343, 380
악삭(握槊) 416, 421, 427
악소(握塑) 416
악장(樂章) 383
안동놋다리밟기(安東—) 212, 232, 248, 268
안동놋다리밟기노래(安東—) 267
안동대도호부 443
안동차전놀이(安東車戰—) 217, 233, 255
안락 133, 216, 377
안목 176, 341, 395
안섬당제 315
안심위안경(安心慰安經) 353
안양만인답교놀이 229
안칠성 323, 389
안태본 246
안택고사(安宅告祀) 344
안택굿 345, 352, 378
안토지신축원문(安土地神祝願文) 391
앉은제 312, 323, 352
알묘의(謁廟儀) 380
알자(謁者) 310, 387
알투스(Altus) 173
암고마이날 277
암줄 202, 207, 214, 216, 224, 240, 242, 246, 250, 271
앙팽이 276
앞놀이 201, 225, 244
앞두루 256
앞산타령 229
애기놋다리 232
애기박시 218
애기장군 250
애기줄땡기기 215
애기타오기 173
애원성춤 221
애태 445
액(厄) 21, 32, 87, 107, 118, 128, 132, 134, 139, 142, 145, 147, 149, 152, 153, 159, 171, 173, 174, 175, 178, 179, 182, 183, 184, 185, 186, 188, 192, 217, 219, 242, 273, 290, 351, 352, 357, 364, 369, 392, 400, 403, 406, 419, 420
액귀몰이 218
액막이 17, 107, 114, 118, 138, 145, 148, 155, 159, 173, 175, 178, 183, 185, 186, 188, 189, 192, 193, 273, 314, 322, 323, 324, 346, 351, 353, 402, 418
액막이연[厄鳶] 109, 159, 173, 419
액막이연날리기 166
액맥이놀이 153
액맥이불놀이 218
액연(厄鳶) 32, 173
야광귀(夜光鬼) 17, 32, 66, 177, 276
야귀할멈 66, 276
야명지신(夜明之神) 365
야요이(彌生) 346
야유(冶遊) 229
야유(夜遊) 229
야유(揶揄) 229
야유(野遊) 213
야회(夜會) 174
약반(藥飯) 195

약밥(藥飯) 48, 109, 110, 114, 125, 137, 139, 178, 195, 225
약산춘(藥山春) 456, 457
약산춘빚기 456
약식(藥食) 17, 195
약식동채 233
양(粱) 23, 25, 27, 60, 95, 101
양계(養鷄) 170
양꽹이 276
양극수 213
양근(楊根) 284, 292
양기(陽氣) 26, 70, 345, 407
양날 82, 94, 101
양뇌아(養牢牙) 164
양띠 94
양력 30, 35, 37, 43, 49, 82, 140, 238, 282, 293, 294, 295, 449, 462, 463
양력 설날 콩볶아먹기 462
양력설 35, 37, 38, 462, 464, 465
양녕대군(讓寧大君) 227
양반과장 203
양반광대 262
양반다리밟기 145, 174
양반마당 199, 231, 255
양반선비마당 263
양반춤 204
양반탈 263
양밥 405
양성지(梁誠之) 306
양세주 213
양주별산대놀이 129
양중[男巫] 321
양직성(禳直星) 186
양평 마석 319
양현고(養賢庫) 332
양화별신굿 308
양효(陽爻) 407
어교(漁膠)순대 292
어구(漁具) 442, 451
어깨놀이 209
어달 395
어대진 223
어딩이 199, 214, 255
어량(魚梁) 447
어로신(漁撈神) 326
어름새 214
어린(魚鱗) 419
어망굿 316
어부슴 107, 175, 176
어부시(魚鳧施) 175, 176
어부식(魚鳧食) 175
어부식관등놀이 175
어불림 211
어수(魚需) 310
어여라디여소리 271
어장고사 328
어장제 298, 363
어장증(漁腸蒸) 292
어전(御殿) 290, 443
어정소리 308
언령주술(言靈呪術) 150
얼음점[氷占] 176
엄나무걸기 65, 177
업(業) 190
여귀(厲鬼) 285, 354
여신(女神) 113, 147, 340, 347
여신제(厲神祭) 317
여역신(厲疫神) 301, 354
여자는 젊은 것이 재산 432
여장승 303
여제(厲祭) 258, 354
여진어(女眞語) 426
여합(蠣蛤) 441
역병신(疫病神) 354
역일 83
역주방문(曆酒方文) 454, 455, 457
역촌(驛村) 370
연(鳶) 32, 109, 118, 128, 173, 275, 350, 401
연(鳶)날리기 34, 174, 418, 433
연등(燃燈) 106, 355, 403
연등도감(燃燈都監) 356
연등회(燃燈會) 31, 355
연명(延命) 188
연목대 207
연상시(延祥詩) 55, 281, 290
연수(年首) 17, 30, 40
연승 445, 447
연실 275
연싸움 420

연운법(年運法) 406
연줄(鳶—) 109, 174, 418
연지 216
연폭 449
연풍대춤 398
연하장(年賀狀) 31, 43, 65, 463, 464
연희(演戲) 30, 111, 129, 200, 203, 229, 259, 287
연희궁 436
열두발채상 130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31, 41, 42, 57, 60, 70, 71, 72, 75, 91, 101, 107, 161, 164, 175, 178, 195, 283, 289
염분(鹽盆) 447
염소날 17, 43, 94
염소띠 94
염제(炎帝) 378
염종(廉宗) 418
염창마당 214
염홍(簾箔) 443
엽전연 420
엽전치기(葉錢—) 236
엿방망이 426
영가지(永嘉誌) 390
영감 · 할미마당 199, 214, 231, 255
영고(迎鼓) 385
영광줄다리기(靈光—) 236
영기(令旗) 129, 206, 209, 226, 229, 368
영녕전(永寧殿) 379
영노마당 199, 215, 231
영노탈마당 260
영등굿 135, 311, 349
영등날 124
영등대왕 311
영등별감 311
영등송별제 311
영등신 311
영등우장 311
영등좌수 311
영등하르방 311
영등할망 311
영등호장 311
영등환영제 311
영릉(寧陵) 97
영매(靈媒) 406
영산쇠머리대기(靈山—) 19, 237
영산줄다리기(靈山—) 240
영산할아뱜 · 할먐거리 343
영성제(靈星祭) 385
영안부(永安符) 403
영월(迎月) 146, 178
영이록(靈異錄) 146
영장(領將) 246
영정물림거리 343
영조(英祖) 42, 60, 78, 81, 103, 249, 290, 306, 363, 379
영조(靈鳥) 110
영조실록(英祖實錄) 56, 227
영좌(領座) 121, 439
영축산(靈築山) 237
영탑지신(靈塔之神) 390
예기(禮記) 25, 41, 283, 306, 354, 386, 436
예명올림 351
예종(睿宗) 165, 288, 383, 427
예주(醴酒) 310
오곡반(五穀飯) 195
오곡밥 나무 위에 올려놓기 138
오곡밥 훔쳐먹기 160, 196
오곡밥(五穀—) 20, 33, 104, 110, 125, 135, 138, 141, 143, 160, 162, 168, 169, 170, 172, 176, 178, 190, 195, 225, 274, 277, 403
오곡신 306
오곡잡반(五穀雜飯) 196
오과(五果) 310
오관떼기 410
오광대탈놀음 197
오구굿 200, 364
오금춤 263
오기일(烏忌日) 40, 105, 114, 195
오동지 275
오룡치수 85
오리나무 375
오릿대 18, 303, 346
오방굿 316
오방귀무(五方鬼舞) 223
오방기(五方旗) 326, 376
오방돌리기 357
오방신(五方神) 313, 326, 356
오방신장(五方神將) 169, 199, 244, 356
오방신장마당 199, 255

오방신장무(五方神將舞) 203, 255
오방장군(五方將軍) 356
오방제(五方祭) 356
오방제각(五方祭閣) 357
오방지신(五方之神) 390
오방진 133, 249
오방토지지신(五方土地之神) 390
오보(Oboga) 18, 390
오사(五祀) 354
오색기 326
오성(五星) 365
오성제(五星祭) 385
오신반(五辛盤) 284, 288, 291
오신채(五辛菜) 292
오악(五嶽) 365
오일(午日) 17, 39, 344
오일득신 401
오잡조(五雜俎) 416
오장치 139, 182
오쟁이놓기 178
오쟁이돌 182
오쟁치 182
오정두 260
오조지 120, 151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89, 165, 416, 421
오진(五鎭) 366
오천참(五川站) 258
오청(吳晴) 129
오키나와(琉球) 252, 377
오태(五太) 445
오티별신제[五峙別神祭] 358
오행점(五行占) 406, 407, 408
오훈채(五葷菜) 292
오희문(吳希文) 414
올래 323
올래코사 323
올림대 233
올림이건지기 449
옷동정버리기 178
옹락(雍洛) 146
옹생원 198
옹인(饔人, 熟手) 195
옹중석(翁仲石) 374
와족 177
완당집(阮堂集) 186
완도장좌리당제 360
완서잡기(宛署雜記) 145
왕대전(王大錢) 212
외당가리연 420
외바퀴수레 255
외바퀴수레싸움(獨輪車—) 241
외양간에 돌걸기 168, 178
외양간에 술놓기 168
외줄다리기 236
왼새끼줄 157, 161
왼자바래기 212
요동춤 214
요령 62, 272, 312, 323, 330, 336, 349
요여(腰輿) 227
용갈이[龍耕] 400
용굿 298
용궁맞이 175
용기(龍旗) 129, 208, 249, 305, 364
용날 91, 92, 93, 102, 279, 376, 400
용단지 379
용당기(龍幢旗) 208
용대두(龍擡頭) 254
용두(龍頭) 202, 226, 243
용마놀이(龍馬—) 241
용마전(龍馬戰) 241
용마희(龍馬戲) 241, 242, 256
용물뜨기 178
용미(龍尾) 419
용사(龍蛇)신앙 253
용성지(龍城誌) 241
용수제(龍水祭) 349, 375
용신기(龍神旗) 208
용신신앙(龍神信仰) 376
용신제 298, 340, 363
용알뜨기(龍—) 21, 33, 91, 108, 178
용왕굿 217, 308, 322, 326, 363, 368, 398
용왕밥 368
용왕신제 405
용왕제(龍王祭) 18, 132, 217, 298, 316, 340, 363, 376
용유도 320
용의방(龍義方) 92
용이 364
용인용줄다리기 242

용자연 420
용재집(容齋集) 285
용재총화(慵齋叢話) 129, 144, 374, 415
용줄 242
용줄고사 242
용줄다리기 242
용줄쌓기 243
용호놀이(龍虎—) 243
용호상박(龍虎相搏) 244
용호상박전 243
용화축전 176
우군맞이 234
우낭(牛囊) 395
우두(牛頭)벌 257
우등뽑기(단장대기) 426
우륵(于勒) 223
우물고사 198, 242, 375
우물굿 130, 375
우물밝히기 179
우물에 불켜놓기 179
우물제 376
우뭇가사리 77, 451
우사(雨師) 365, 394
우사(雩祀) 306
우사단 306, 394
우산국(于山國) 223
우석목(偶石木) 374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294, 295
우수 뒤의 얼음같이 294, 295
우수(雨水) 22, 25, 282, 294, 295
우왕(禑王) 227, 332, 367
우의(羽儀) 227
우장증(牛腸蒸) 292
우주목(宇宙木) 121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448
우혁정 146
운력 437
운사(雲師) 365, 394
운수점 108
울담지신 323
울루(鬱壘) 60, 290
움파 34, 284, 292
웅굴(우물)놋다리 233, 267
웅굴놋다리 233, 268
웅백(雄伯) 282
원구단(圓丘壇) 305, 365
원구단천제(圓丘壇天祭) 365
원구제 306, 367
원놀음 257
원님놀이 257
원단(元旦) 17, 23, 30, 38, 40, 41, 42, 56, 306, 367, 464
원단일십간점(元旦日十干占) 408
원당굿 343, 367
원당부인영대신(元堂婦人靈大神) 368
원무 233, 244, 268
원소(元宵) 197
원소(袁紹) 197
원소병(圓小餠) 197
원숭이날 17, 33, 82, 85, 94, 95, 98, 277
원양반 204, 214, 216
원일소발(元日燒髮) 67
원전장(元典章) 285
원정(願情) 406
원제(元帝) 23, 25, 27, 98
월건수(月建數) 409
월막[月幕] 116
월신제(月神祭) 147
월월이청청 209, 244, 268
월월이청청노래 268
월자(月滋) 147
월직성(月直星) 186
월차점(月次占) 399
월천공덕(越川功德) 109, 182
위기(圍碁) 427
위도띠뱃놀이 367
위도원당굿 308
위령제(慰靈祭) 354, 372
위수(委隨) 282
위야호호소리 272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 18, 30, 344, 427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 144, 151, 276, 403
유건(儒巾) 310, 350
유교(鍮橋) 248
유구국기략(琉球國記略) 412
유근우 229
유동주 260
유두새 120, 151
유둣돌 182

유득공(柳得恭) 66, 120, 145, 186, 276, 412, 420
유랑예인 131, 222
유롱주(牖聾酒) 137, 180
유만공(柳晩恭) 186, 413
유모일(有毛日) 19, 32, 84, 86, 89, 400
유서춘(柳絮春) 455
유송(由頌) 424, 431
유실수(有實樹) 135
유종본(兪宗本) 135
유지방 120
유지지 120, 128, 151
유진(劉臻) 99, 101
유희춘(柳希春) 285
육계굉 146
육관대사 255
육백(화투) 428
육십갑자(六十甲子) 408
육자배기 420
육잽이 214
육채(六采) 416
육효점(六爻占) 407
윷(柶) 34, 44, 180, 414, 421, 431
윷놀이 34, 120, 180, 243, 276, 421, 426, 431, 432, 463
윷놀이하는소리 431
윷말 180, 421
윷이로구나소리 431
윷점[柶占] 34, 136, 148, 171, 180, 406, 408, 423
윷패 421, 423, 431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106, 257, 321, 359, 369
은어바지 445
은율탈춤 224
은일(隱逸) 414
은중경(恩重經) 291
음건(陰乾) 453
음기(陰氣) 407
음률도감(音律都監) 258, 317
음복(飮福) 53, 70, 72, 134, 198, 300, 310, 314, 330, 336, 339, 350, 362, 366, 382, 393
음복례(飮福禮) 382
음식디미방 74, 76, 292
음식방문(飮食方文) 457
음식지미방(飮食知味方) 454, 457, 458
음애일기(陰崖日記) 120
음양가(陰陽家) 89, 399
음양오행(陰陽五行) 24, 89, 408
음효(陰爻) 27, 407
의령큰줄댕기기(宜寧—) 246
의물(儀物) 307, 383
의성기와밟기(義城—) 247, 266
의영고(義盈庫) 332
의전(擬戰) 218, 252
의춘(宜春) 282, 290
의흥계(義興契) 259
이갑제(里甲制) 354
이계수(李啓秀) 234
이공제 322
이굳히기 109
이굳히기산적[固齒炙] 164
이규경(李圭景) 165, 421
이규보(李奎報) 290, 416, 418
이기숙 260
이낙하(李洛下) 412
이남선 213
이능화(李能和) 278, 332
이덕무(李德懋) 414
이도근 214
이매광대 262
이매탈 263
이명덕(李明德) 227
이명주(耳明酒) 137, 182
이문건(李文楗) 65
이봉산연 420
이사부(異斯夫) 223
이사신(里社神) 392
이사제(里社祭) 328, 392
이사지신(里社之神) 390
이사턱 439
이삼만(李三晩) 92
이상래 260
이상익(李商翼) 332
이색(李穡) 64, 74, 223, 227, 421
이수광(李晬光) 145, 174, 331
이순신(李舜臣) 414, 420
이순애 260
24절기 16, 282, 288, 294, 399
이십팔수(二十八宿) 365
이씨음식법(李氏飮食法) 455, 457
이앙법 120

이연수(李延壽) 416
이원조(李源祚) 287
이월에 물독 터진다 293
이유원(李裕元) 413
이익(李瀷) 74, 340
이자(李耔) 120
이중과세(二重過歲) 35, 38, 462, 463
이창희(李昌熙) 264
이총주(耳聰酒) 182
이태(二太) 445
이태조(李太祖) 333
이포제(里酺祭) 392
이학규(李學逵) 420
이행(李荇) 285
이화선 260
이화주(梨花酒) 457, 458, 459
이화주빚기 457
익산기세배 248
인구전(人口錢) 313
인날 19, 58
인동토일(人動土日) 97, 98
인떡 100
인리(人吏) 101
인복순 260
인불제사(寅不祭祀) 100
인사굿 249
인승녹패(人勝祿牌) 99, 101
인승면(人勝面) 101
인신(人神) 340
인일(人日) 18, 98, 100, 161, 288
인일(寅日) 17, 67, 84, 86, 99, 423
인일불제사(寅日不祭祀) 89
인일제(人日製) 99, 100
인일하의(人日賀儀) 101
인정전 101
일기점(日氣占) 170
일록(日錄) 290
일무(佾舞) 383
일본서기(日本書紀) 417
일본헤이안 시대(平安時代) 173
일심계원(一心契員) 203
일연(一然) 106
일월맞이굿 308
일월성신(日月星辰) 365, 399, 431
1월 1일 462
일월제(日月祭) 385
일일득신(一日得辛) 401
일자(一字)사위 203
일자연(一字燕) 420
일제강점기 35, 49, 59, 83, 210, 227, 237, 243, 252, 260, 338, 415, 425, 442, 462, 464
일직성(日直星) 186
일진수(日辰數) 409
일태(一太) 445
임경업 315
임계수기(壬癸水氣) 401
임동권(任東權) 80
임만휘(林萬彙) 234
임시제 380
임억령 363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195
임진왜란 42, 115, 175, 244, 259, 302, 379, 409, 420, 426
임하필기(林下筆記) 414
입사자(立獅子) 222
입석(立石) 236, 313
입춘 거꾸로 붙였나 293
입춘(立春) 18, 22, 25, 82, 97, 282, 285, 286, 289, 291, 293, 351, 387, 392
입춘굿 283, 287
입춘굿놀이 287
입춘대길(立春大吉) 282, 291, 293
입춘방(立春榜) 282, 289
입춘부(立春符) 282
입춘서(立春書) 28
입춘에 장독(오줌독) 깨진다 293, 294
입춘일염운(立春日拈韻) 287
입춘절식 284
입춘채(立春菜) 284, 292
입춘첩(立春帖) 288, 289, 291
입춘추위 291
입춘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294
입춘축(立春祝) 17, 282, 289, 290
입춘춘경(立春春耕) 287
입춘치 284, 291
입춘하례(立春賀禮) 282, 288
입춘하의조(立春賀儀條) 282
입하 307, 387, 394
입향기(入鄕記) 303

입호제도(入戶制度) 447

ㅈ

자낭(子囊) 87
자동(刺桐) 177
자라춤사위 229
자망 445
자불문점(子不問占) 88
자산어보(玆山魚譜) 441, 442, 447
자새 271, 441
자시(子時) 114, 131, 205, 250, 305, 310, 313, 328, 393
자인별신굿 321
자일 17, 87
자전(藉田) 386
자진모리 249
자진산타령 229
자청비 322
자총이 293
작령(鵲翎) 419
작약산 237
작옹(嚼癰) 163
작은보름 105, 114
작절(嚼癤) 164, 182
작지끗 449
잔나비날 83, 94
잠실(蠶室) 438
잠업(蠶業) 100
잡운루잡화(簪雲樓雜話) 290
잡곡밥 110, 196, 284, 300
잡과반(雜果飯) 195
잡보장경(雜寶藏經) 355
잡오행서(雜五行書) 100
잣불점 171, 182
장(杖)치기 424
장경진 260
장고고사 323
장고수 119, 214
장구(杖球) 79, 120, 129, 147, 199, 203, 261, 308, 336, 344, 369, 383, 398, 424
장군기 250, 343
장군상(將軍像) 32
장독굿 129
장독신 119
장독풀이 230
장동산디마을탑제 372
장례원경(掌禮院卿) 365
장문잡기 320
장봉심 319
장생(長柱) 374
장생(長生) 374
장생우(長柱偶) 374
장생표주(長生標柱) 374
장선(長先 · 長仙) 374
장선주(長先柱) 374
장승(長丞) 18, 198, 303, 313, 316, 319, 340, 357, 374, 389
장승배기 303
장승제 18, 299, 303, 316, 356, 370, 374
장악원(掌樂院) 향악부(鄕樂部) 185
장언자 260
장유(張維) 41, 420
장작윷 34, 217, 421
장재구 260
장재봉 260
장진국 260
장현(張炫) 426
장형(張炯) 426
잦은방아타령 420
재가승(在家僧) 224, 317
재물보(才物譜) 416
재밟기놀이 246
재봉춘(再逢春) 282, 285
재수굿 352
재수떼기 428
재점치기 187
잰부닥불넘기 182
잿간에 모심기 127
잿간에 짚꽂기 127
쟁반(錚盤) 419
저승차사 322
저포송(摴蒱頌) 424, 431
적룡(赤龍) 92, 401
적선(積善) 135, 182
적전(籍田) 42, 287, 306, 367, 386
적제대장군(赤帝大將軍) 357
적제자(赤帝子) 92, 402
전가월령(田家月令) 438
전구상전(前驅相戰) 256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27, 200, 224, 232, 241, 367
전농시(典農寺) 387
전륜성왕(轉輪聖王) 325
전립(戰笠) 214
전복곡괭이 452
전사관(典司官) 310
전서(田鼠) 152
전어지(佃漁志) 441, 446
전옥서(典獄署) 332
전의(典儀) 246
전점(錢占) 406
전주왜명유취초(箋注倭名類聚抄) 173
전폐례(奠幣禮) 310, 393
전향(典餉) 246
절걸립 131
절구통 59, 139, 150, 160
절기점(節氣占) 399
절도사(節度使) 45, 258
절름발이 199, 219
절식(節食) 33, 75, 115, 193, 196, 283, 293
절일제(節日製) 99, 100
절제(節製) 100
절편먹기 167
점바치 221
점반(粘飯) 195
점배기볼락 449
점서(占書) 101
점풍(占豊) 128, 182, 207, 216, 224, 401
점풍(占風) 106
접신(接神) 173, 344
젓갈 50, 445
정(본)동채싸움 233
정각쟁이 353
정낭지신 323
정년장군 360
정대업(定大業) 383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 383
정범조(丁範祖) 420
정불굴수(井不窟遂) 94
정수신앙(淨水信仰) 376
정시원 443
정시제 380
정약용(丁若鏞) 71, 80, 410, 427
정월 대보름날 귀머거리장군 연 떠나가듯 275
정월 지난 무에 삼십 넘은 여자 432
정월고사 314, 346
정월대보름 113, 115, 223, 400
정이월 높새바람에는 바위 끝에 눈물난다 432
정이월에 대독 터진다 432
정자통(正字通) 409, 436
정적궁이 133
정제(井祭) 375
정조 42, 46, 62, 65, 174, 276, 290, 307, 408, 412, 426
정조실록(正祖實錄) 42, 46, 174, 186
정조지(鼎俎志) 196
정조하례(正朝賀禮) 31, 56, 464
정철(鄭澈) 173, 420
정초십이지일(正初十二支日) 21, 32, 82, 88, 90, 91, 92, 93, 94, 95, 96, 97, 400
정초에 거름질 놈 432
정축(丁丑) 97
정포제(正酺祭) 309, 392
정호제(井戶祭) 375
젖양반 204
젖줄 200, 250
젖줄디리기 201
제갈공명(諸葛孔明) 332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 145, 286
제대각시 213
제면굿 321
제민요술(齊民要術) 70, 71, 292
제밀주춤 205
제비난상 308
제사지주(祭祀之酒) 137
제석(除夕) 60, 63, 291
제석거리 344, 354, 397
제석굿 308, 320
제석천(帝釋天) 385
제숙경쟁 344
제숙경주 397
제액초복(除厄招福) 62, 83, 118, 185, 359
제야(除夜) 111, 463
제왕운기(帝王韻紀) 385
제용(祭俑) 186
제웅 17, 31, 109, 118, 182, 183, 185, 403
제웅직성 109, 183, 186
제웅치기 109, 183
제인참(濟仁站) 258

제자두레 207
제주(濟州) 18, 35, 44, 73, 80, 85, 88, 89, 90, 93, 94, 95, 96, 97, 98, 100, 110, 134, 149, 151, 155, 157, 159, 176, 184, 185, 189, 190, 220, 249, 254, 277, 283, 287, 289, 291, 302, 309, 311, 322, 323, 324, 327, 337, 342, 344, 347, 351, 352, 374, 378, 388, 389, 395, 400, 437, 446, 447, 449, 451, 452
제주(祭酒) 137, 304, 329, 339, 341, 361, 363, 344
제화초복(除禍招福) 137, 174, 370, 372
조간(鳥竿) 346
조간대(潮間帶) 442, 447, 450, 452
조감(潮減) 98
조감일(潮減日) 98
조개부르는제 384
조고(鳥鼓) 258
조기잡이 57, 321, 367
조덕주 230
조두영 230
조라(鳥囉) 258
조라술 316, 370, 376
조리밥 110, 160, 196
조리중 129, 206, 261
조리지희(照理之戱) 249
조명(祖明) 282
조무(助巫) 308
조민희(趙民熙) 410
조반(趙胖) 333
조복준 230
조산(造山) 389
조상거리 344, 354
조상경(祖上經) 353
조상석 353
조상신(祖上神) 31, 70, 302, 322, 344, 378
조상해원경 353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77, 197, 452, 454, 457
조선부(朝鮮賦) 416
조선상식(朝鮮常識) 409, 426
조선상식문답 72, 224
조선어업조합요람(朝鮮漁業組合要覽) 44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65, 83, 173, 227, 416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 195
조선유람도(朝鮮遊覽圖) 415
조선의 수산업(朝鮮の水産業) 443
조선의 연중행사(朝鮮の年中行事) 129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 223, 237, 264
조선일보 168
조선지수산(朝鮮之水産) 443
조선총독부 49, 302, 367, 414
조성국 237
조수간만(潮水干滿) 451
조신(竈神) 377
조왕 377
조왕각시 377
조왕경(竈王經) 353
조왕고사(竈王告祀) 377
조왕굿 130, 373
조왕대신 377
조왕보시기 377
조왕신 214, 322, 323, 364, 377
조왕중발 377
조왕풀이 230
조왕할망 378
조작방아 95
조제신 198
조창(漕倉) 198
조창오광대 198
조탑(造塔) 389
조탑제(造塔祭) 389
조태(釣太) 445
조홍복 230
조희일(趙希逸) 137
족려(族厲) 354
좀날 102
좀볶기 103, 144, 189
좀생이별보기 151
종각 228
종경도(宗卿圖) 34, 413
종경도놀이 426
종경자(從耕者) 388
종과(腫果) 164
종과소(種果疏) 135
종군놀이 180
종름(宗懍) 38, 60, 95, 98, 101
종묘(宗廟) 47, 306, 354, 366, 379, 386
종묘대제(宗廟大祭) 379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379
종무식(終務式) 464

종이버선 185
종이옷입히기 178
종이옷태우기 178
종정도(從政圖) 34, 413
종태미 122
종헌관(終獻官) 380
종헌례(終獻禮) 310, 366, 382, 393
좌청룡 우백호(左靑龍右白虎) 243
죄깃날 98
주감 315
주낙 445, 447
주례(周禮) 137
주륙 410
주방문(酒方文) 292
주백병(走百病) 145
주사위[骰子] 416
주산돌기 364
주살맥이 128
주서(周書) 427
주시마새 407
주신풀이 119, 214
주원장(朱元璋) 290
주지광대 262
주지놀이 224, 263
주지마당 263
주지춤 224
주지탈 263
주찬(酒饌) 452, 454, 455, 456, 457
주천성신(周天星辰) 365
주칠(朱漆) 157
주홍점 260
주화민 260
주황(周煌) 412
죽마(竹馬)놀이 219
죽음집(竹陰集) 137
준오 410
줄꼬는소리 271
줄끗기 210
줄놋다리 233, 246, 267
줄다리기 19, 106, 127, 170, 200, 201, 206, 210, 213, 215, 224, 236, 237, 240, 242, 244, 246, 249, 256, 271, 298, 314, 335, 339, 347, 357
줄당기기 238, 243, 249
줄도감 201
줄메고가는소리 271
줄목 216, 250
줄불놀이 278
줄싸움 249
줄패장 206, 250
중 · 영감마당 255
중경지(中京誌) 421
중광대 262
중괘(中卦) 180, 407, 408
중구고사 314
중군(中軍) 214, 258
중군지지기놀이 258
중굿 320
중기줄다리기 224
중농제(中農祭) 387
중당(中堂) 131, 338
중마당 199
중사(中祀) 307, 340, 363
중암고(重菴稿) 186
중앙황제양반(中央黃帝兩班) 204
중요무형문화재 111, 197, 203, 205, 213, 221, 230, 233, 237, 240, 259, 307, 343, 367, 369, 379, 396
중원(中元) 105, 113
중잡이굿 308
중잡이놀이 321
중장(中將) 238, 250
중정일(中丁日) 301, 309
중중모리 245
중천왕 131
중탈 263
쥐날 17, 39, 63, 82, 87, 88, 103, 106, 253
쥐눈이콩 87
쥐불놀이 17, 87, 105, 114, 134, 253, 264, 275
쥐불놓기 114
쥐불편싸움 253
쥐알볶기 87, 102, 189, 462
쥐주둥이태운다 188
쥐주머니 84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331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76, 292
지가리 447
지네다리 250
지네밟기 209, 247

지노귀굿 354
지동궤 307
지봉유설(芝峯類說) 83, 87, 174, 331, 421
지붕에 깃대꽂기 184
지붕에 버선붙이기 185
지살설(地殺說) 237
지살설(地煞說) 237
지숙 316
지신(地神) 21, 31, 97, 128, 160, 203, 214, 217, 250, 340, 437
지신경(地神經) 353, 391
지신밟기 17, 107, 116, 119, 121, 128, 198, 202, 213, 217, 221, 229, 244, 254, 272, 314, 316, 318, 364, 373, 376, 378, 390, 391
지신밟는소리 272
지신밥 198, 390
지신풀이 119, 128, 132, 214
지애밟기 209
지에밥 76, 195
지연(紙鳶) 174, 418
지와밟기 209
지우(紙牛) 286
지전(紙錢) 159, 184, 331, 340, 406
지정흔 260
지제교(知製敎) 55, 290
지증마립간조(智證麻立干條) 223
지증왕 223
지지(地支) 90
지패(紙牌) 426
지평(砥平) 34, 284, 288, 292
지후(祗侯) 101
직단(稷壇) 306
직부전시(直赴殿試) 100
직성(直星) 175, 183, 186
직성보기(直星—) 185
직제학 55, 290
진대끌기 161
진대끗기 161
진대베기 370
진대제 346
진도곽(珍島藿) 448
진등산(進登山) 243
진또배기 341
진법별신놀이 257
진사(辰巳) 284
진산채(進山菜) 292
진설(陳設) 125, 370
진쇠장단 320
진쇠춤 320
진씨(陳氏) 99, 102
진오귀굿 200, 255
진운첨(陳雲瞻) 290
진자(侲子) 282
진잡이 240
진저리채취 449
진주오광대(晉州五廣大) 198, 254
진지끄시기 161
진채(陳菜) 193, 197
진호(鎭護) 255, 389
진호(陳澔) 135
진흥왕 325
질굿 132
질병 퇴치 157, 318
질부산(秩夫山) 243
질짜기 439
짐대거리 313
짐대제 346, 384
짐승날 82, 86, 93
집고사 344, 378
집굿 370
집례(執禮) 310, 361, 393
집불이 108, 187
짓고땡 428
징검다리 183
징게징게오야마을 169
짚단불점치기 187
짚말 299
짚불점 187
짚불타넘기 154
짚인형 403
짝패 409
짬 384, 452
짬고사 384, 448
짬매기 448
짱공치기 424
짱치기 424
째기동채싸움 235

ㅊ

차례(茶禮) 17, 47, 81
차롱착 400
차사맞이(差使—) 188
차사액막이(差使厄—) 188
차양반 214
차전가(車戰歌) 234
차전놀이(車戰—) 19, 111, 239
차전시(車戰詩) 234
착단(錯斷) 282
찬자(贊者) 310
참샘 121
참신(參神) 51, 125, 350
참조기[黃石首魚] 448
창건신(創建神) 30, 302
창란 445
창명축조(唱名逐鳥) 188
창방일(唱榜日) 103
창원오광대 203
창춘우(唱春牛) 286
채경 450
채구생 260
채국 159
채묘준비 448
채수(蔡壽) 418
채윷대풀이 424
책력(冊曆) 21, 24, 83, 291, 321, 401
책사(磔死) 282
처용(處容) 60, 109, 182, 183, 185
처용무(處容舞) 185
처용설화 186
처용직성(處容直星) 182, 186
처용희(處容戲) 186
척미점(擲米占) 406
척사희(擲柶戲) 421, 426
척주지(陟州誌) 224
천간(天干) 40, 132, 401, 408
천간양(天干陽) 408
천간음(天干陰) 408
천간자병점(天干字病占) 408
천간점(天干占) 408
천간지지(天干地支) 286, 408
천기점(天氣占) 399
천도재 354
천룡제(天龍祭) 198
천수방액(天壽放厄) 188
천신(天神) 80, 203, 340, 385
천신(薦新) 28, 344
천신대감춤 398
천신제 386
천신종묘의(薦新宗廟儀) 380
천연두 62, 166, 184, 262, 299
천왕굿 308, 321
천왕당 131
천왕메기 131
천왕문굿 132
천왕제 131
천인감응(天人感應) 399
천일록(千一錄) 436
천재동 214
천제(天祭) 385
천제단(天祭壇) 385
천제당 386
천천정(天泉亭) 39, 114, 138
천축(天竺) 416
철갈이 323, 324
철륭 319
철변두(徹籩豆) 310, 382, 393
철상(撤床) 198, 310, 322, 362
첩사(帖詞) 290
첫 개날 33, 83, 96
첫 닭날 33, 83, 96
첫 돼지날 33, 83, 87, 97
첫 말날 83, 93, 395
첫 뱀날 33, 83, 92, 161, 401
첫 범날 83
첫 소날 32, 83, 88, 93
첫 염소날 83, 94
첫 용날 33, 83, 91, 102, 178, 189, 411
첫 잔나비날 83
첫 정월에 나는 버섯은 먹지도 못한다 433
첫 쥐날 32, 82, 87, 97, 102, 188
첫 토끼날 33, 83, 89
청(淸) 286, 409
청계산 233, 267
청광대 262
청금(靑衿) 310, 393

청룡(靑龍) 92, 208, 241, 243, 246, 383, 401
청매 77, 197
청명(淸明) 48, 101, 354
청사(靑蛇) 92, 401
청사(靑巳) 92, 401
청산별곡(靑山別曲) 346
청색(靑色) 25, 68, 90, 142, 382
청신악 308
청양정산동화제 133
청어(靑魚—) 188
청어따기 245
청어온마리먹기(靑魚—) 188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60, 406
청저(靑苧) 310, 383
청제대장군(靑帝大將軍) 356
청좌굿 321
청주(淸酒) 33, 72, 75, 76, 137, 325, 335, 376, 382, 394
청참(聽讖) 43, 46, 67, 400
청파 436
체용(體俑) 186
쳇밥 160, 188
초감제 322, 349, 351, 389
초감흥거리 343, 397
초계 밤마리 오광대 213, 229
초계문신(抄啓文臣) 282
초공제 322
초도(初度) 414
초라니 282
초랭이 263
초랭이광대 262
초랭이탈 263
초영정물림거리 344
초우인(草偶人) 186
초읍 216
초인(草人) 186
초재(醮齋) 339
초정월 바람결에 검은 암소 뿔이 휜다 433
초정월에 비가 오면 어부가 운다 433
초파일 103, 106, 143, 278, 355, 404
초판희(超板戱) 411
초헌관(初獻官) 309, 323, 329, 380
초헌례(初獻禮) 366, 382, 393
총각대반 439
총각머슴 209
총각좌수 209
총아(葱芽) 34, 284, 288
총아 · 산개 · 승검초 진상[葱芽 · 山芥 · 辛甘草 進上] 288
총을치 208
최남선(崔南善) 43, 72, 224, 409, 426
최선호 260
최세진(崔世珍) 421
최순자 260
최영(崔瑩) 230, 332
최영년(崔永年) 49
최치원(崔致遠) 56, 223
최한복 230
추령(芻靈) 185
추마(芻馬) 299
추분(秋分) 422
추석 16, 30, 45, 47, 48, 49, 55, 125, 261, 321, 442, 444
추수감사의례(秋收感謝儀禮) 312
추영(芻靈) 182
추인(芻人) 186
추일(秋日) 103, 115
추자도(楸子島) 446
추절(秋節) 105
추제(秋祭) 309
축국(蹴鞠) 424, 427
축귀대부인(逐鬼大夫人) 357
축귀대장군(逐鬼大將軍) 357
축귀의식(逐鬼儀式) 354
축귀초복(逐鬼招福) 198
축문 47, 48, 106, 132, 198, 202, 211, 239, 304, 306, 308, 310, 336, 350, 357, 359, 366, 368, 372, 377, 382, 386, 390, 393
축배(逐北) 256
축배자위흉(逐北者爲凶) 257
축사연상(逐邪延祥) 224
축원경(祝願經) 353
춘경(春耕) 287
춘관통고(春官通考) 380
춘당대 101
춘련(春聯) 290
춘방(春榜) 289
춘번자(春幡子) 283, 288
춘분(春分) 422
춘우회(春牛會) 286
춘일(春日) 103, 284

춘절(春節) 36, 74, 105, 462, 464
춘제(春祭) 309
춘천차전놀이 241, 255
춘첩자(春帖子) 55, 282, 288, 289, 293
춘추좌전(春秋左傳) 21, 24, 427
춘축(春祝) 18, 282, 289
춘태바리 445
춘하추동(春夏秋冬) 16, 21, 182, 323, 401
춘향아씨놀리기 411
춘향제 241
춘흥계(春興契) 260
출어굿 220
출행파일(出行罷日) 93
충선왕조(忠宣王條) 418
취위(就位) 380
취타대 229
측간신 322, 323
치교(齒交) 164
치교(齒較) 402
치금(齒琴) 219
치룽(治聾) 137
치룽일배주(治聾一杯酒) 137
치룽주(治聾酒) 137, 188
치마머리연 420
치마연 419
치장풀이 119, 214
치제(致祭) 258, 317, 340
친경례(親耕禮) 386
칠룽치수 85
칠머리당 135
칠사(七祀) 354
칠사당 354
칠산앞바다 272
칠산어장(七山漁場) 367
칠석제 101
칠성경(七星經) 353
칠성고사(七星告祀) 388
칠성눌 323, 324
칠성본풀이 190, 324
칠성제(七星祭) 322, 324, 379
칠언고시(七言古詩) 234
칠인팔곡(七人八穀) 99, 100, 102
칡 208, 216, 225, 240
칭칭이소리 272

ㅋ

콩동지기 131
콩볶기 91, 103, 144, 188, 189, 217, 277, 462
콩불음 147
콩윷 421
콩점[豆占] 147, 189
쾌지나칭칭나네 216
크리스마스 464
큰줄다리기 224
키[箕] 189
키의 곡식점(穀食占) 189
키점[箕占] 189

ㅌ

타구(打毬) 424
타래버선 68, 158, 266
타살거리 344
타살군웅거리 397
타전희(打錢戱) 257
타추희(打芻戱) 185
타춘(打春) 286
탁성기 260
탈고사 203, 261
탈놀이 262, 278, 287, 427
탈제[假面祭] 230
탈춤 229, 255
탐라록(耽羅錄) 285, 287
탐라왕 283, 287
탐라지(耽羅志) 311
탑신제(塔神祭) 389
탑신지신(塔神之神) 390
탑제(塔祭) 299, 356, 372, 389
탕거기(宕渠記) 100
탕건 198
태덕수 230
태려(泰厲) 354
태묘(太廟) 379
태부인리(太府人吏) 101
태상경 387
태세수(太歲數) 409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354, 391
태음력(太陰曆) 16, 313

태조(太祖) 79, 106, 115, 290, 306, 366, 383
태종(太宗) 227, 306, 355, 387
태종실록(太宗實錄) 55, 64, 227, 306, 387
태촌집(泰村集) 137
태평어람(太平御覽) 41, 113, 421
태후전(太后殿) 290
터구렁이위하기 190
터벌림춤 320
터빼앗기 201
터주고사 391
터주굿 391
터주시루 353, 391
터줏대감 392
털날 86
텃밥 190
토끼날 33, 82, 89, 104
토끼실 84
토란대 194
토사(兎絲) 89
토성관원놀이(土城官員一) 257
토신단(土神壇) 309
토연노래 245
토연토연 김토연아 245, 268
토우(土牛) 283, 285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408
토정비결(土亭秘訣) 16, 175, 184, 407, 408
토지신 73, 301, 309, 321, 342, 357
토직성(土直星) 186
톱날 89
톳날 89
톳실 89
통두레 439
통문관지(通文館志) 332
통발어업 446
통방외(通方外) 99
통시 97, 437
통영무형문화재보존협회 260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 203, 214, 224, 259
통인(通引) 258
퇴송경(退送經) 353
퇴조 223
툇밥 190
투석식 442
투엽(鬪葉) 426
투자(骰子) 54
투자선격(骰子選格) 413
투전(鬪牋) 410, 426
투전(投牋) 426
투전(鬪錢) 426
투패(鬪牌) 426
투호(投壺) 416, 427
투호격범(投壺格範) 427
투호의(投壺儀) 427
퉁소(洞簫) 218, 258

ㅍ

파계승마당 263
파라새희(波羅塞戲) 416
파래점 409
파래채취 450
파방굿 260
파시(波市) 367
파장(派將) 225
파장돌리기 209
파종기 392, 399, 436, 438, 441
판무(板舞) 411
판사(判事) 101
팔관회(八關會) 31, 356
팔대어(八帶魚) 446
팔랑개비꽂기 184, 191
팔랑개비돌리기 262
팔랑개비점 191
팔봉산사(八峰山祠) 314
팔자연(八字鳶) 420
팔초어(八稍魚) 446
팥던지기 191
팥죽제 391
패문루 214
패수(浿水) 30, 227
패왕검(覇王劍) 92, 402
패일(敗日) 19, 98, 103
팽이치기 433
편싸움 30, 110, 214, 233, 251, 253, 256
편전(便戰) 226, 253, 262
편토우(鞭土牛) 286
평지 293
평포참(平浦站) 258

폐백(幣帛) 310, 315, 324, 377, 380, 393
폐일(閉日) 97
포수탈마당 260
포신(酺神) 309, 392
포신단(酺神壇) 309
포자붙이기 444
포제(酺祭) 18, 309, 311, 324, 379, 392
포제단(酺祭壇) 106, 309
포천(抱川) 34, 284, 288, 292
포청(捕廳) 227, 332
폭신(暴神) 186
폿밥 274
푸는체점 291
풀[糊] 96
풀무소리 430
품앗이 90, 131
풍금(風禽) 418
풍년제 394
풍니놀이 349
풍덕(豊德) 387
풍물놀이 129, 154, 302, 440
풍물잡이 219, 238
풍백(風伯) 365, 394
풍병(風病) 402
풍사(風師) 394
풍사단 394
풍사제(風師祭) 394
풍수사상 243
풍신고(風神考) 120
풍어굿 134, 298, 364, 367, 396
풍어기(豊漁旗) 220, 326, 363
풍어제 31, 106, 134, 298, 307, 315, 363, 384
풍연(風鳶) 173, 418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339, 355
풍운뇌우단기우의(風雨雷雨壇祈雨儀) 394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394
풍장굿 208, 327
풍조(風藻) 451
풍증(風症) 97
풍차(風車) 262
풍헌(風憲) 258
피고사 396, 397
피보재기 154
피서(避暑) 150
피흉취길(避凶趣吉) 406
필위(胹胃) 282

ㅎ

하가타메(齒固め) 165
하괘(下卦) 26, 180, 407, 408
하륜(河崙) 413, 415
하원(下元) 105, 113
하일(夏日) 103
하절(夏節) 105
하지(夏至) 26, 422
하현일(下弦日) 19, 98
하회별신굿 106
하회별신굿탈놀이(河回別神—) 224, 262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264
하후굿 321
학성지(鶴城誌) 249
한가위 157, 28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74, 142, 318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443
한국지명총람 332
한글날 462
한대(漢代) 70, 399
한비자(韓非子) 436
한삼사위춤 229
한서(漢書) 40, 436
한신(韓信) 173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120
한우성 198
한우은 198
한유성 228
한윤영 198
한재준 198
한종기 198
한죄깃날 98
한천복 229
할미광대 255, 262
할미마당 199, 200, 214, 231, 255, 263
할미탈 263
합니족(哈尼族) 177
합두레 439
합위의례(合位儀禮) 396
합호(闔戶) 366

항우(項羽) 402
항우검(項羽劒) 402
항촌 211
해낭(亥囊) 97
해동(海桐) 177
해동가요(海東歌謠) 374
해동죽지(海東竹枝) 31, 49, 67, 78, 114, 164, 186
해동화(解凍禍, 解凍火) 116, 134
해랑제 340
해록쇄사 137
해물리기 299
해물림 299
해물이 373
해삼잡이 451
해신제(海神祭) 298, 363, 395
해의(海衣) 443
해의밥빠치기(海衣一) 145, 191
해좌집(海左集) 420
해초제거작업(海草除去作業) 452
해태(海苔) 163, 442
해태양식론(海苔養殖論) 443
해풍대 444
행금(行琴) 258
행부사(行府使) 258
행선고사 326
행운굿 352
향대청(香大廳) 380
향랑각시 144
향랑각시바늘주기 144
향려단(鄕厲壇) 354
향산제(香山祭) 346
향악 383
향악잡영(鄕樂雜詠) 223
향약기(鄕約旗) 121
향회 309, 327
허경조 260
허도령 263
허두새비버리기 186
허드렛밥 368
허목(許穆) 224, 307
허세비 183
허수아비버리기 17, 175, 182, 183, 186, 188, 219, 298, 363, 369, 403, 438
허수아비불놀이 218
허심불 148
허재비 188, 403
허재비놀이 358
허튼춤 119, 203
허허굿 133
헌다(獻茶) 125
헌식(獻食) 198, 299, 314, 326, 362
헌식밥 390
헌신랑다루기 217
현종(顯宗) 69, 287, 379
형두레 207
형조(刑曹) 332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38, 41, 60, 71, 75, 95, 98, 161, 164, 282, 290
혜일대사 362
호구전(戶口錢) 313, 328, 361
호랑이날 42, 82, 86, 89, 90, 98
호리병 142, 335
호리병박버리기 142, 192
호박고지 110, 194
호방(戶房) 258
호불이 105, 108
호신부 142
호왕(胡王) 416
호자(戶滋) 187
호장(戶長) 283, 285, 287, 311
호패(號牌) 409
홀(笏) 350
홀기(笏記) 301, 310, 328, 350, 393
홀패 409
홍건적의 난 232, 248
홍두깨춤 214
홍무예제(洪武禮制) 394
홍문관(弘文館) 55, 413
홍백가 204
홍백양반 204, 261
홍사(紅巳) 92
홍색(紅色) 68, 142, 383
홍석모(洪錫謨) 49, 54, 63, 67, 120, 185, 420
홍수막이 404
홍합여 449
화간(禾竿) 18, 120, 134, 150, 185, 340
화랭이 319, 321, 353, 357
화력신재(花曆新栽) 135, 140

화반(花盤) 134
화산(火山) 189, 193, 336, 347, 350
화산지(花山志) 233
화승(花勝) 99, 101
화신제(火神祭) 349
화재막이 91, 149, 192
화재뱅이 193
화적(禾積) 120, 135, 150
화전(火田) 90, 437
화조가(花鳥歌) 431
화직성(火直星) 186
화차(花車) 262
화척(禾尺) 174
화타(華陀) 72, 75
화투(花鬪) 276, 411, 426, 428
환 그러붙이기 193
활개춤 203
활장구 219
황도대동제 397
황도붕기풍어제 396, 398
황룡(黃龍) 92, 241, 383, 401
황룡기 229
황볼락 449
황사(黃巳) 92
황색(黃色) 142
황윤석(黃胤錫) 332
황장생(皇長生) 374
황제대장군(黃帝大將軍) 356
황천상제(皇天上帝) 365
황태 445
황토 100, 154, 163, 198, 278, 303, 316, 325, 328, 329, 338, 344, 350, 362, 373, 376, 386, 391, 397
홰싸움 264
횃불놀이 87, 242, 253
횃불싸움 18, 111, 118, 134, 203, 256, 258, 264
횃불잡이 206
회뜨기 166
회례악(會禮樂) 383
회시 45, 100
회식밥 364
회회아(回回兒) 265
횡수막이(橫數—) 31, 107
효종 98, 311
후농제(後農祭) 307, 387
후직(后稷) 306, 387
후토신 306
후평사자 221
후한서(後漢書) 285, 344
훈몽자회(訓蒙字會) 374, 421
훈서화(燻鼠火) 253
훈요십조(訓要十條) 106
흑룡(黑龍) 92
흑사(黑巳) 92
흑제대장군(黑帝大將軍) 356
홍인문 174, 387
희빈(嬉嬪) 426
흰떡구워먹기 167
흰밥 161, 175